增補改訂版

壬辰戰亂史

下卷

李炯錫 著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釜山鎭殉節圖(國定寶物 392號) : 이 殉節圖는 壬辰倭亂(1592. 4 . 14) 때 釜山鎭에서 守將 鄭撥 僉使 이하 全士卒이 玉碎로써 殉國한 崇高한 事實을 그림으로 옮긴 것이다. 이 殉節圖의 製作은 1709年(肅宗 35)에 권이진 東萊府使가 처음으로 画工을 시켜서 府의 南門内 碑閣의 璧에 그려 붙인 것을 그後 1760年(英祖 36)에 홍명한 府使가 画工 변박으로 하여금 改貌케 한 것이다.「東萊府殉節圖」(中巻 巻頭칼라 参照)와 함께 製作된 이 殉節圖는 1963年 1 月17日 東萊 安樂書院으로부터 泰陵 陸軍士官學校 博物舘으로 移管되고 指定文化財로 指定되었다.

刊行委員會의 말

軍在職 당시부터 史觀이 뛰어나고 史筆이 剛直한 現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李烱錫委員長이 10年有餘의 心血을 기우려 엮어내고 다시 增補改訂한 이 『壬辰戰亂史』(全3卷)는 文獻本位인 史實에 立脚하여 戰鬪의 眞相만이 아니라 政·戰 兩略의 指導 및 戰時外交의 折衝에 있어서의 발자취와 더불어 燦爛한 民族의 精粹性을 一目瞭然하게 알아볼 수 있읍니다.

全篇에 흐르는 廣汎한 史料의 集大成과 民族愛를 根基로 하는 史觀의 公正性과 특히 忠武公精神의 暢達은 國民여러분의 心琴을 울리게 될뿐만 아니라 國難克服을 위한 勝共民族精神의 昂揚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切望되는 現下의 時代的인 要請에 반드시 副應되리라 믿고 敢히 江湖에 널리 推薦하는 바입니다.

朴正熙 大統領閣下께서는 本委員會의 이와 같은 微衷을 下察하시와 親히 揮毫를 내리시어 錦上添花의 榮光을 주시었읍니다.

1974年 第29回 光復節을 앞두고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委員長 韓　　信(陸軍大將·合同參謀會議議長)
委　員 康仁德(極東問題硏究所長)
金敬泰(梨花女大敎授)
金成植(慶熙大敎授)
金俊燁(高大亞細亞問題硏究所長)
金哲埈(서울大敎授)
朴賢植(陸軍中將·國防大學院長)
安炳琪(海軍准將·海軍士官學校長)
李喜根(空軍少將·空軍士官學校長)
崔永禧(國史編纂委員會委員長)
崔宇根(陸軍中將·陸軍士官學校長)
韓沽劤(서울大大學院長)

(가나다順)

壬辰戰亂史 下卷 目次

第Ⅵ篇 考證原文

□ 附 表 □

□ 附 圖 □

□附 錄□

第Ⅴ篇　綜合的 硏究

第十六章 戰役前史(第1篇의 補遺)

摘 要

第一章에서도 말한대로 壬辰·癸巳 作戰期에 들어가기에 앞서 緖頭가 너무 길고 복잡하게 되는 것을 避하기 위하여 本戰役史 本文에 대한 影響力이 비교적 적은 事項을 補遺的으로 本章에서 取扱키로 하였다. 그러므로 第1節에서는 經濟情勢를, 第2節에서는 社會情勢를, 모두 朝, 日, 明 三國에 대하여 찾아보기로 하고 第3節에서는 朝鮮과 明과의 交涉에 대하여 近朝鮮 初期부터 明宗代까지에 걸쳐서 살피기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第4節에서 宣祖時代의 外憂內患中 特記할만한 事件 두가지만을 取扱키로 하였다.

第1節 朝, 日, 明 三國의 經濟 情勢

要 旨

이미 말한대로 여기서는 交戰 三國에 있어서의 本役前의 經濟情勢를 通俗的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朝鮮과 明의 兩國에 있어서는 田制, 稅制, 幣制를 비롯하여 農, 商, 工業의 大要만을 取扱할 것이고 日本에 있어서는 다음 몇가지만을 따로 取扱한 다음 農, 商, 工, 鑛業에도 言及하여 볼 것이다.

一, 莊園制度의 興亡　　二, 樂市및 樂座政策

三, 居城都市(城下町이라는 것) 中心政策　　四, 關所廢止令

여기에서 取扱하는 內容을 時期的으로 본다면 朝鮮에서는 宣祖朝까지를, 日本에서는 織·豐政權까지를, 그리고 明나라는 神宗代까지를 主로 다루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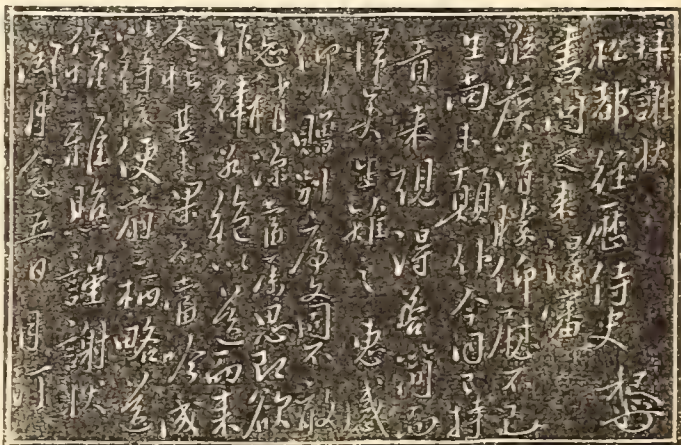
一, 朝鮮의 經濟 情勢(宣祖朝까지의 概況)

먼저 田制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하는데 集權體制의 基本條件은 土地의 國公有와 그 原則下의 授田 形式에서 찾아볼 수 있다.

麗末에 실시된 田制改革은 近朝鮮의 土地制度의 基盤이 된 것이니 그것은 곧 土地公有를 再確立한 것으로 土地는 國家的 支配下에 班給管理하게 된 것이였다. 그리하여 田地는 官吏, 功臣, 王族과 京鄕의 各官衙에 班給되였고 田主는 佃客(小作人)의 耕作地를 빼앗지 못하게 하고 佃客은 그 耕作地를 讓與하지 못하게 하였다. 受田者가 죽으면 그 田地는 나라에 返納하는 것이 原則이였고 公私賤과 工商人, 僧侶들은 土地班給의 대상에 들어갈 수가 없였다. 이같이 班給되는 田地는 그 收租權의 歸屬如何에 따라서 公田과 私田의 區別이 있였는데 宮司또는 中央官衙등 國家緊要機關에 直屬되거나 혹은 또 國家的으로 긴요한 여러가지 田地는 이를 公田이라 하여 土地에 대한 收益權이 國家에 直屬되였고, 地方 各官衙나 官吏, 功臣등 個人에게 收租權을 넘겨준 모든 田地는 이를 私田이라 하였다. 또 科田이라는 것은 在京官吏에게 班給되는 田地를 말하는 것으로 現職과 退職을 막론하고 그 品級에 따라서 最高 150結에서 最下 10結씩 支給되었다. 開國功臣과 回軍功臣등에게는 따로 功臣田을 주어서 最高

220 結에 이르렀고, 使行功勞 또는 逆謀告發등 특수한 功을 세운 사람에게는 따로 別賜田이 支給되었다. 이러한 科田, 功臣田, 別賜田등은 처음에는 京畿에 限하여 주었으며 功臣田은 애초부터 世襲을 認定하였으나 科田과 別賜田은 受田者가 죽으면 나라에 返納하여야 하였는데 여러가지 特例를 만들어서 실제로서는 子孫들에게 넘겨지게 마련이었다. 이러한 田地는 耕作하는 田丁(耕作人)으로부터 公定의 租米를 받아드리게 하였으니 이것으로써 官公衙와 百官에 必要한 公私의 經費로 充當되었다. 또 王族에게는 따로 많은 田地가 給與되었으니 이들 王族, 貴族, 高級官吏들은 실질상으로 大土地의 所有主가 되어서 開墾, 占奪, 買得등에 依하여 더욱 擴大시켜 갔으므로 畿內에는 이러한 私田으로 充滿하게 되어 太宗代에는 科田의 一部를 下三道에 옮기게 되고 世祖 11年에는 새로 職田法을 制定하여 現職官吏에게만 職田을 주게 하고 그래도 不足할 때에는 職田대신으로 祿科를 주기로 하였다. 이것이 官收官給制로서 國家에서 收租하여 祿俸을 支給하는 制度인 것인데 그것도 中宗 以後로는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京鄕 各 官衙나 公共機關에는 그 경비를 充當키 위한 여러가지 田地가 給與되었는 바 그 種類가 다음과 같이 많았다.

國屯田——邊境 鎭戍地域에　　官屯田——地方官衙에
衙祿田——地方官吏의 俸給用　　公須田——地方官衙의 公共用
院　田——官設旅舘用　　寺社田——寺刹用
學　田——成均館, 鄕校등用　　祭田, 守陵軍田——廟管理用
驛長田, 副長田, 急走田, 馬田——交通機關擔當者用

그 밖에도 諸司菜田, 內需司田, 惠民署種藥田, 津夫田, 氷夫田 등이 있었는데 이 모든 田地는 公共機關이 存續하는 限 이것이 國家에 返納되는 일이 없이 公共機關 自體가 地主的인 성격을 갖게 되어 私田의 世襲化와 더불어 土地國有의 大原則이 부숴지고 土地는 오로지 權門勢家의 農莊으로 化하게 되었다. 中宗 13年에는 井田, 均田法을 力說하는 바 있었으나 實現을 보지 못하고 드디어 職田의 支給은 停止되고 實職者에게 祿科만 주기로 되었다. 本役에 있어서는 全國 農土가 荒廢하고 軍糧補給이 困難하게 되자 飢民들에게 農具와 種子, 그리고 食糧을 주어서 荒廢地를 開墾시키고 收穫의 一半을 耕作者에게 주는 대신 나머지 一半을 軍糧으로 充當하는 所謂 屯田(屯土)이 많이 생겼다. 이 屯田은 從來에도 있었지만 本役 以後부터는 더욱 많아지고 이것을 본받아서 衙門과 官房에서도 募

<尹根壽筆蹟>

民開墾을 시작하여 그 收穫으로 各自의 經費로 쓰게 되니 이것을 衙門田, 官房田(宮庄土)이라 하였다. 이러한 屯田, 衙門田, 官房田은 免稅되었던 까닭에 權力者 가운데는 이러한 名儀로써 土地를 設定하고 擴大하는 者가 나왔고 또 自己 土地를 軍營官衙 또는 官家에 投托하여 조그마한 金穀을 바치고 公的 稅金을 免除하는 者도 나오게 되었다. 班給된 諸田에서는 租稅를 받아들였는데, 租는 기왕의 小作料에 해당하는 것으로 公田에서는 國家가 받아들이고 私田에 있어서는 收租權을 委讓받은 田主가 이를 받아들였으니 貴族과 官吏, 그리고 公共機關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稅는 오늘날의 地稅와 같은 것으로 收租權을 委讓 받은 田主가 農民에게서 받은 田租中에서 1結에 대하여 20斗씩을 나라에 바치는 것이었다. 租와 稅의 이같은 區分은 얼마 아니가서 없어지고 租稅 또는 稅라고만 하였다. 여기에서 高麗時代의 田柴科와 이 時代의 科田法을 比較하여 보는 것이 좋을 듯 한데 모두 다 土地에 대하여 國家에서 굳센 支配力을 갖고 國家가 土地를 班給함으로써 官人體制를 만들고 또 官人들의 힘을 首都에 集中토록 힘쓰고 있는데 麗代의 田柴科에서는 土地支給을 在職하는 동안만으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였으나 이 時代의 科田法에서는 世襲을 허락하고 假使 本人이 罪를 犯하더라도 沒收하는 것을 禁하였으며 麗代의 田柴科에서는 受田者가 租稅를 부담하지 않았지만 科田法에서는 受田者가 租稅를 내게 되었으니 이들은 더욱 地主的인 性格을 갖게 된 것이었다. 또 科田法에서는 田主와 佃主와의 關係에 대하여 租의 額을 公定하는 동시에 田主가 佃主의 土地를 뺏는 것과 佃戶가 土地를 버리거나 도망하는 것을 禁하였으니 이것은 佃主에 대하여 그 地位를 認定하는 規定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까지의 無制限한 誅求가 아니고 佃戶에 一定한 地位를 주면서 그들을 土地에 固着시키는 것이므로 農民들이 制約없이 支配를 받기만 하던 從來 方式에 比하여 커다란 進步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좀 더 들어가서 稅法에 대하여 살펴 본다면 그 種類에는 地稅, 戶稅, 鹽稅를 비롯하여 漁稅, 鑛稅, 船稅가 있는가 하면 人蔘稅, 屠殺稅까지 있었으나 地稅가 가장 重要한 中心稅를 이루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科田法에 따라 公田이나 私田을 莫論하고 一律的으로 水田一結에 대한 租로 糙米(玄米) 30斗씩이고 旱田(밭)에 대하여서는 雜穀 30斗를 租로 받았으며 凶年에는 그 程度에 따라 減免하였다. 그러나 一律的이라는데 대하여 論議가 紛紛하다가 4代 世宗 19年에 租稅法을 定하였는데 慶尙, 全羅, 忠淸의 三道는 上等이라 하고 京畿, 江原, 黃海의 三道는 中等이오, 咸吉, 平安의 二道는 下等이 되고 그 3等道中에서 또 3等으로 區分하여 田 1結(幅 58尺 長 35尺이니 곧 2千30平方尺이고 2畝24步餘)에서의 收租量은 다음과 같았다.

上等道──→	上田──20斗		中等道──→	上田──18斗		下等道──→	上田──16斗
	中田──18斗			中田──16斗			中田──14斗
	下田──16斗			下田──14斗			下田──12斗

同 26年에는 田制詳定所의 審議를 거쳐서 「田分六等 年分九等」의 法을 制定實施하게 되었으니 田分六等이라 함은 田地의 肥瘠에 따라 6等級으로 나누는 것이고 年分九等이라는 것

은 年의 豐凶에 따라 9等으로 나누는 制度였던 것이다. 이 해에 또 다음과 같이 稅率을 變更實施케 되었으며 이 뒤부터는 多少의 稅率異同이 있었으나 대체로 이것을 定制로 삼았다.

田品——1等에서 6等까지 區分　　　量田尺——各等級에 따라서 相違한 差를 둔다.

1結의 租額——各 等級 同一　　　豐凶——1等에서 9等까지 區分

豐凶의 稅率——最上 豐年에 20斗, 最下 凶年 4斗

貢賦는 王室과 官衙의 必要에 따라서 隨時로 各 地域의 土産物을 바치게 하는 것인데 그 採集과 運搬은 그 地域의 居住民들의 力役으로 하였으며 臨機의 要求에 應하기 위하여 貢賦를 바치는 吏員이 미리부터 漢城에 滯留하고 있다가 要求에 대해서 곧 딴 곳에서 사서 바치고 이 前納代金을 地方民으로부터 徵收하는 防納制度도 있게 되어 그 동안에 不正이 橫行하기도 하였다. 本役에 있어서는 戰時特別稅로 1結當 2斗2升을 徵收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三手米(三手糧)라 하였다. 이 밖에 斛上, 加升, 倉役價, 貢人役價, 作紙, 人情(慶吊費 인 듯)등의 名目으로 받는 附加稅도 있었으나 그 率은 少額이었다. 위에서 말한 地稅以外에 兵役과 採薪, 採炭등의 力役이 있었는데 兵役은 良民丁男의 義務였으며 府兵制가 흩어짐에 따라 傭兵制가 되자 良民丁男에게 良布, 保布라 하여 每人當 布2疋을 課稅하였다. 그러나 富強者들은 官房과 衙門에 依支하여 徵布를 避하고 貧困者들만이 課稅의 對象이 되어 드디어는 죽은 사람과 乳兒에게까지 課稅하게 되었고 이것을 白骨徵布, 黃口徵布라고도 하였다. 李珥는 東湖問答에서 다음과 같이 네가지 弊端을 指摘하였으니 第1은 一族切隣의 弊端이고(한 백성이 賦役과 稅金을 내지 않고 도망치면 그 一族과 切親한 이웃이 대신하여 바치는 것), 第2는 進上煩重의 弊端이오 (地方의 土産物을 바치는데 그 地方産物이 아닌 것은 吏胥들에게서 비싸게 사서 바치는 것), 第3은 貢物 防納의 弊端이고(民間에서 위에 바치는 貢物을 吏胥들이 中間에 가로막아서 現物自納을 防止하고 저들이 代納한 다음 民間에 數倍의 代金을 强要하여 받아내는 것), 第4는 役事不均의 弊端이오(正軍, 保率, 羅將, 皂(조)隷등의 應役이 長番에서 6, 7番까지 나누어지고 順番으로 쉬게 하지 않고 不公平하게 配定하는 것), 第5는 吏胥誅求의 弊端이다(官爵과 爭訟, 罪囚도 賄賂가 아니면 進級되지 못하고 勝訟하지 못하여 免放되지 못하는 것.).

대체로 本役前의 近朝鮮의 貢案은 10代 燕山君의 豪華放縱한 餘弊로서 加定된 貢賦를 그대로 남겨 받아 백성의 피땀을 짜내고 등가죽을 벗겨 먹는 그러한 暴惡性을 지닌 것이었으나 王室과 頑固한 一部大臣들은 祖宗의 遺法을 함부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口實로 삼아 搾取를 일삼고 王室을 위한 백성이오, 朝廷百官을 위한 國家라는 따위의 殘滓와 餘風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高麗時代의 農莊所有者는 대부분이 王城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自己 家奴를 보내어 耕作시키고 租米만을 받아 들이는 것이었으므로 農莊의 擴大는 곧 反王權的인 權力의 成長으로는 되지 않고 王朝에 寄生하여 뜯어 먹는 存在로서 커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農莊은 高麗中期 以後에는 全國的으로 擴大되어 末期에 가서는 大部分의 土地가 農莊이 되고 또 개중에는 地主的 農莊支配者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서 農莊擴大로 公田이 줄어들자 國家에서는 마침내 官人의 俸祿도 支給하지 못하게 되어 農莊이 없는 官人들의 不平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은 農莊의 沒收와 土地의 再

分配를 要求하게 되어 國初에 있던 公田制 復活을 主張하게 되었다. 李成桂는 이러한 要求派에 加擔하여 田制改革을 斷行하고 마침내 成功한 結果 드디어 나라까지 차지하게 된 것이었다. 田地를 재는데는 1丈을 把라 하고, 10把를 束이라 하고, 10束을 負라 하고 百負를 結이라 하였으니 이는 新羅以來의 舊制이다. 11代 文宗23年에 量田步法을 定하였는데 田一結은 方33步요, 2結은 方47步, 10結은 方 百4步3分이었다.

高麗時代의 通貨價値는 貨幣와 布縷에 있지 않고 米粟에 있었으며 物價는 全혀 米로써 計算하였는데 이러한 現象은 近朝鮮에 들어와서도 없어지지 않았다. 이 時代의 農莊所有者는 高麗時代와 反對로 大部分이 農莊안에 살면서 族人들을 모아 놓고 書院을 두기도 하여 農莊을 自己의 經濟地盤으로 삼으려는 傾向이 나타나게 되었으므로 그들의 地主的 性格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大部分의 農土는 宮庄土와 中央 및 地方 官衙, 그리고 營鎭과 驛에 屬하는 「屯土」와 「驛土」에 依하여 占有되었으니 이것은 古代的 因習의 殘存과 再生이라 할 것이다. 政府施策으로서는 4代 世宗 26年에 위에서 말한 바 田制詳定所를 設置하고 同 30年에는 八道田品을 改定하였는데 大臣을 보내서 觀察하고 또 勸農詔를 내리고 農事直說을 撰하였고 또 頒祿式을 制定하여 正一品부터 從九品까지 十八科에 나누어 米, 豆, 麥, 紬, 布, 楮貨등으로써 春夏秋冬 四季에 給與하였으니 이것을 祿科라고 하였다.

近朝鮮에 이르러 中央集權的인 統制는 商工業의 活動을 전면적으로 制約하여 產業全般의 發展을 萎縮시켰으며 支配階級의 商工業에 대한 傳統的인 賤視는 더욱 產業政策을 退化一路로 몰아넣게 되었다. 대저 商工業이란 宮府와 官衙의 需要에 應하기 위하여서만 그 存立意義가 있었고 百餘種의 手工業品은 獨占的인 中央統制밑에서 工奴로써 世傳하는 工匠에 依하여 製造되고 納品되었으며 이들은 대부분이 禁制品으로서 工匠에 의한 自由製作販賣가 許容되지 않았다. 地方에는 곳곳에 鄕市, 또는 場市가 散在되었으나 生產者와 消費者間의 直接 交換에 不過하였고 場市相互間을 連結하는 褓負商(行商人)이 있었는데 이들은 一種의 同業組合을 만들어서 官府나 官僚와 사이에 相互 代償關係를 맺고 있었다. 都邑地에는 客主(旅人宿),旅閣이 있고 또 都賣業, 倉庫業, 委託販賣業과 그 밖의 金融業등이 있어서 어느 程度의 資本의 蓄積을 期待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아직도 더욱 發展하고 成熟하는 段階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中央에는 市廛이 있었으나 뒤에는 그 中에서 一種의 官許商으로 官衙, 宮府의 用達의 任務를 맡게 하고 特權을 附與한 六矣廛이 생겨서 綿紬, 布, 絹織, 紙物, 魚物, 苧布의 六廛이 獨占的인 利得을 보고 一般商人의 同種商品의 販賣를 禁止하고 또 違反者를 處罰하는 權限을 가졌다. 女眞등 東北野人에 대하여서는 武力外에 그들의 懷柔策으로 太宗6年에 鏡城과 慶源에 貿易所를 두고 鹽鐵을 自由로 사게 하고 衣糧, 鞍馬, 家舍등을 주고 그들은 朝貢으로 土豹, 貂鼠皮, 熊皮, 鹿皮등을 가지고 와서 金銀, 苧布, 木綿, 紙物, 農具, 食器, 米豆, 鹽醬, 酒類등을 사가지고 갔으며 또 日本사람들은 硫黃, 白礬, 丹木(蘇木, 染料임), 銅, 銀, 香料등을 가지고 와서 麻布, 綿布, 綿紬, 書籍, 佛像등을 사가지고 갔다. 이와 同時에 南方의 琉球國에

서도 使臣을 보내 와서 丹木, 胡椒, 香料, 砂糖, 錫, 犀角등을 바치고 厚待하는 禮物을 받아 갔는데 燕山君 5年 以後에는 通交가 없어지게 되었다. 明나라와 禮物의 贈答도 그 實에 있어서는 一種의 貿易이었는데 朝鮮에서는 馬匹, 金銀, 人蔘, 豹皮, 苧布, 花文席, 螺鈿등과 海靑등의 鳥類도 있었고 明나라에서 우리쪽이 答禮로 받은 것은 主로 絹物(綵段), 磁器, 藥材, 冠服, 書籍등이었다. 또 明나라에는 美女, 火者(고자), 饌婦등의 사람도 보내고 女眞에는 奴婢등도 보내는 일이 있었다. 世宗때에 金銀은 本國에서 나오지 않는다 하여 明나라의 徵索하는 弊를 막기로 하였으므로 이것을 採掘하는 것을 禁하였는데 鑛山을 開發하면 딴 나라가 엿본다 하여 항상 禁制하는 政策을 세웠고 鑄錢原料도 銅은 日本에서, 錫은 北京에서 求하는 것이었으므로 此種事業이 不振한 것은 매우 당연한 노릇이었다.

<玄采譯 東國史略卷二, 中樞院編朝鮮田制考, 崔虎鎭著 近代朝鮮經濟史, 李弘稙 申奭鎬 韓佑劤 曺佐鎬共著 國史新講, 李丙燾著 國史大觀>

二, 日本의 經濟 情勢(織・豊政權까지의 概況)

日本의 經濟情勢를 論하려면 먼저 莊園制度의 興亡을 取扱하지 않을 수 없다. 大化改新(DAIKANOKAISHIN)의 原則으로서는 모든 土地를 國家所有로 하는 것이었으나 寺院과 神社는 廣大한 免租土地를 갖고 있었으며 西紀 743年(天平15年)에 墾田私有法을 公布하고 開墾을 奬勵한 결과 寺院과 貴族들이 앞장 서게 되어 一般 백성들이 여기에 使役되어 自存의 時間마저 잃게 되었다. 이리하여 다시 開墾을 禁止하였으되 寺院의 開墾만은 禁止하지 않았으므로 7年만에 다시 開墾自由를 許可하였다. 이러한 緣由로서 寺社, 貴族, 豪族들은 貧農을 自己의 農奴로 하여 墾田을 擴大하여 莊園을 形成하게 되었으며 耕作人의 不足을 補充하기 위하여 浪人(失業者)을 募集하여 定着케 하니 그들은 드디어 隷屬性이 많은 農民群團을 形成하게 되고 一般 農民들도 賃租의 便을 위하여 그 身分을 莊園으로 옮기게 되어 莊園이 더욱 肥大하여 갔으며 마침내 莊園에서는 「不輸不入性」의 特權을 가지게 되었으니 「不輸(HUYU)」는 租稅를 免하는 權利이고 「不入(HUNYŪ)」은 國家官吏들의 出入을 拒否하는 權利였었다. 이리하여 莊園領主는 國家의 徵稅와 警察權에서 解放되는 反面에 莊園農民에 대해서 課稅와 裁判權을 行使하게 까지되어 그들 領主는 農民을 完全히 隷屬民으로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莊園안의 治安維持와 外部에서의 侵略을 防止하기 위하여 武力을 가지게 되고 武士를 保有하게 되었는 바 鎌倉幕府에서는 莊園을 通한 政治를 하기 위하여 全國莊園에 「地頭(CHITŌ)」를 配置하였으니 그 任務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였다.

(1) 莊園內의 土地管理 (2) 農民으로 부터 年貢을 받아서 領主에게 바치는 것
(3) 莊園內의 治安維持 (4) 簡單한 裁判

室町時代에 들어가서 幕府의 統制力이 弱化하게 되자 地方長官인 「守護(SHUGO」들이 莊園을 侵略하게 되어 「地頭」대신에 「守護請(SHUGOUKE)」을 두었으니 말하자면 守護의 補佐官이었다.

이리하여 이들은 機會 있는 대로 莊園을 分割 接收하여 地方長官인 守護들은 이러한 廣大한 地盤위에 서서 強力한 諸侯노릇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國家財政을 危殆롭게 하는 莊園을 整理할 必要를 느낀 나머지 西紀 902年(延喜2年)以來 여러번 莊園整理令을 내렸으나 결국 莊園은 最高權力者에게 集中하는 傾向만을 재촉하게 되었으므로 莊園은 도리어 耕作農民들에게 苛酷한 租稅를 附加하게 되어 生活에 貧窮한 農民들의 逃散과 強訴에 뒤이어 民擾를 일으키게 되었으며 中世 封建社會 末期에 危機에 處하게 된 莊園制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었다. 織田信長과 豐臣秀吉은 民擾를 鎭壓하는 同時에 莊園制的인 支配方式을 排除하고 自己의 集權的인 封建體制를 維持하는데 必要한 經濟基盤을 마련하기 위하여 全國的으로 檢地를 실시하고 從來의 公家와 社寺등은 信長과 秀吉로부터 조그마한 朱印地(SHUINCHI)를 받게 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朱印狀으로 그들의 所有權을 確認받은 土地인 것이다.

다음으로 樂市(RAKU-ICH) 및 樂座(RAKU-ZA) 政策이라는 것을 살펴 보려는 바 이것은 自由市場과 共同販賣등 아무런 制限없이 自由로 商工業에 從事할 수 있도록 널리 開放하는 政策이며 織田・豐臣時代(安土桃山時代라고도 한다.)에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鎌倉幕府時代 中期 以後에서 室町幕府時代에 걸쳐서 商工業은 特定한 神社, 寺院 또는 公家에 隷屬하는 商人과 職工들만이 從事할 수 있었으며 社寺와 公家를 本所로 하는 「座」가 組織되어 있었던 까닭으로 座衆(ZA-SHŪ) 以外의 사람들의 營業은 嚴禁되었다. 定期市는 毎月 一定한 市日의 體系를 가지고 열렸는데 그 市場에 稅金을 내고 特定한 座席을 가진 者만이 販賣許可를 받았으니 座는 魚座, 鹽座, 鑄物師(IMONOSHI)座 등 特定한 商人들에 依하여 獨占되었고 戰國時代의 領主들은 市場에서 오는 收益에 눈을 붙이고 市場內의 警察을 強化하여 保護育成하는 方策을 썼으며 또 地方産業의 發達로 商品의 流通이 活潑하여지자 市座를 撤廢하고 外來商人들에게도 自由로 市場을 提供토록 하여 領內의 富強을 圖謀하기 위하여 新市場의 開設을 許可하고 市場稅의 免除를 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樂市 및 樂座制度인 것이다. 따라서 樂市는 商工業者를 急히 集中시킬 必要가 있을 때에 많이 適用되었던 것이니 이러기 위해서는 從來부터 있던 獨占的인 販賣座席의 撤廢를 하는 것과 市場稅의 免除를 하는 것, 이 두가지를 原則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自由市場은 街道에 沿하여 새로운 市街(新宿)를 만든다든가 港灣을 再興한다든가 또는 城下町(JŌGEMACHI)(居城都市)을 建設할 경우등에 採擇되었는데 佐佐木(SASAKI)氏는 觀音寺城(滋賀縣蒲生郡 老蘇村)의 城下石寺에 樂市를 命하였으며 後北條(KITAHŌJŌ)氏도 戰國諸侯의 居城都市(城下町이라고도 한다.) 建設의 促進策으로, 또는 隣國과의 接境市場의 保護策으로 이 制度를 썼던 것이다. 또 織田信長은 그의 城下都市인 清洲(KIYOSU), 岐阜(GIHU), 安土(AZUCHI)의 都市建設에 이러한 自由市場의 條項을 넣었고 秀吉과 그의 直系 家臣들도 또한 이 政策을 그대로 踏襲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위에서 말한 居城都市中心政策에 대하여 살펴 보려는 바 「居城都市」 또는 「城下町」이라는 말은 城下의 都邑地라는 뜻이니 日本사람들은 「堀之內(HORINOUCHI)」, 「根小屋(NEGOYA)」, 또는 「山下(YAMASHITA)」라

고도 말하였다. 武士階級의 發生期인 12世紀末의 奧州(ŌSHŪ), 藤原(HUJIWARA)氏의 城砦가 있던 平泉(HIRAIZUMI)市와 幕府의 陣營이 있던 鎌倉(KAMAKURA) 市등의 都市로서의 開花는 이러한 城下都市의 先驅가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中世의 城砦들이 대체로 峻嶮한 山巓이라든가 丘嶺등 特殊한 防守用 適地를 利用하여 純軍事的 見地에서 構築되었던 까닭으로 市街地로서의 發展에는 限界가 있었으며 또 山上의 城壘와 山麓의 市街地와의 사이에는 어느 程度의 距離가 있어서 連接되지 않던 것이 特色이었으니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因幡國——鳥取(TOTTORI)城(鳥取縣, 池田氏의 舊城)
越後國——坂戸(SAKADO)城(新潟縣南魚沼郡六日町長尾氏의 居城)
伊豆國——韮山(NIRAYAMA)城(靜岡縣田方郡, 北條氏의 居城)
近江國——觀音寺(KANNONJI)城(滋賀縣蒲生郡老蘇(OHISO)村, 佐佐木氏舊城)
下野國——足利(ASHIKAGA)城(栃木縣足利市足利氏의 居城)
越前國——一乘谷(ICHIJŌTANI)城〔福井縣足羽(ASUHA)郡, 朝倉氏舊城〕

16世紀에 들어가서는 戰國諸侯들의 領國統一化의 進行에 따르는 戰鬪樣式의 變化, 다시 말하면 步兵集團을 基幹으로 하는 大軍團 編成의 必要性에 依하여 從來의 小規模의 山砦的 城郭을 버리고 交通이 便利한 政治中心地에 築城地帶를 옮기게 되었고 또한 商品經濟의 發展은 諸侯의 居城을 水陸交通의 要衝이 되는 商業中心地에 接近시키는 傾向을 가져오게 되어 대체로 經濟的 中心地에 居城을 經營하게 되었다.

16世紀 中間에 兵農分離가 進行되고 武士들이 農村部落에서 諸侯居城에 集結됨에 따라 이 消費層을 따르는 商工業者도 自然히 農村에서 都市市場으로 吸收되어 居城都市는 더욱 都市的인 發達을 보게 되었으며 戰國時代 末期에는 全國的으로 繁華한 이른 바 「城下町」의 簇出을 보았던 것이다. 또한 같은 城下町이라 할지라도 經濟的 立地條件을 갖추지 못하고 交通이 不便한 곳에 있던 山寨城이 있는 市場은 그 大多數가 沒落하여 그 都市的 生命을 잃었는데 反하여 平原地帶의 그것은 더욱 繁昌을 보게 되었으니 새로 城郭이 改修擴大되고 舊市街를 整理하여 新市街地의 建設을 보게 되었다. 또 中世의 門前都市에서 新興都市로 變貌한 것과 宿驛都市에서 發展한 것, 그리고 港灣都市에서 새로운 都市로 登場한 것 등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 注目되는 것은 新設 居城都市의 建設이니 信長의 安土城과 秀吉의 大阪城이 곧 그것이다. 이러한 居城都市는 領內의 武士階級을 모두 한 곳에 吸收하고 村落의 市場商業을 抑制한 다음 商工業者를 強制로 여기에 移住케 하여 茫茫한 平原에 대번에 큰 市街를 이룩하게 되었으니 이로 因하여 都市와 農村의 地理的 分離와 그리고 武士와 農民과의 階級的 分離를 決定的으로 가져오게 하였다. 또 이러한 都市人口의 거의 半은 武士階級으로 消費人口를 가진 商業市場이라는 것이 經濟的 特徵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關所廢止令에 대하여 一言하지 않을 수 없는 바 關所(SEKISHO)라는 것은 旅行者를 檢察하고 一朝有事時에는 防守하여야 할 要點에 만들어 놓고 通關稅를 받기도 하는 곳

인데 大化改新뒤에는 차츰 整備하여 갔으며 다음 세곳에 있는 것이 가장 重要하여 이를 三關이라 하였다. 東海道——鈴鹿關(伊勢)(SUZUKA) 東山道——不破關(美濃)(FUHA)

北陸道——愛發關(越前)(ARACHI)〔愛發은 뒤에 逢坂關(近江, AUSAKA)로 바꾸었다.〕

關所는 律令政府의 存續強化에 有效하였으나 平安時代에 들어가서는 일단 衰滅되었다가 鎌倉幕府때에는 交通統制를 위하여 다시 만들었던 것이며 中世에 들어가서는 徵稅所로만 利用되던 것이 律令制下에 있어서는 港灣, 橋梁등의 交通施設에는 國營方針을 세우고 無料使用을 原則으로 하였으나 國家財政의 파탄으로 말미암아 그 建設과 修理를 民間에 委託케 한 결과 이에 所要된 費用을 回收하는 方法으로서 利用者로 부터 使用料를 받게 되었다. 鎌倉時代에 들어가서는 이러한 關所가 더욱 增加하고 그 위에 大社寺의 造營名目의 寄附金(寄進)까지 받게 되었으며 南北時代 60年間의 混亂통에는 徵稅名目이 서지 않는 道路의 여러 곳에까지 全國에 걸쳐서 만들어졌고 皇室, 公卿(KUGE), 幕府, 地方勢道家, 神社, 寺院등에서도 서로 다투어 만들어졌으니 이것이 당시의 主要財源이 되었다. 이제 그 收入額을 본다면,

南北朝時代——東大寺領兵庫關——月收 70貫〔1貫은 千文이며 1貫文을 百疋이라 하였고 文은 MON이라 하여 一文重量을 1匁(MONNE)이라 하였다.〕

園城寺領淀關——年收千貫

室町時代——興福寺領兵庫南關——年收 2千貫

課稅의 對象은 中世에는 莊園의 貢納物과 商品이였으니 自然 商品價格의 騰貴를 보게되어 여러번 排除運動이 일어났으나 全面的 廢止까지는 보지 못하다가 戰國時代 末期에 가서 信長에 依하여 廢止에 着手하게 되고 秀吉은 이 方針을 踏襲하여 1590年(天正18年, 宣祖 23年)에 北條氏를 滅亡시킨 다음부터 全國에 걸쳐서 徹底하게 破壞하여 버렸으니 交通의 發展에 寄與하고 商品의 流通을 增加하며 商品價格을 低落시키는 등의 利得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諸侯가 割據하는 根幹을 뿌리뽑게 되었다.

다음에는 年貢(NENGU)制度에 대하여 살펴보려는 바 戰國時代 以後로 부터는 莊園制의 完全한 解體뒤에 일어서게 되었던 戰國諸侯들과는 달라서 秀吉이 비로소 獨自的으로 檢地를 實施한 다음 秀吉의 獨自로서의 年貢收得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從前에 比하여 매우 單純化하는 方向으로 改正케 되어 水田은 本年貢에 附加米로서의 口米로 統一된 것이 그 커다란 特徵이였다. 또 田租는 二公一民으로 하고 口米는 1石에 대하여 2升으로 劃一的인 原則을 작정하였고 水田에서의 麥作은 一公二民으로 하되 雜公事에 해당하는 各地의 特產物같은 것은 從前대로 錢納化하는 傾向이 있었다. 또 從前의 名別賦課를 廢하고 群小의 土地所有者를 責任擔當者로 定하였는데 그의 收納은 매우 嚴重하였다. 一例를 든다면 秀吉은 미리 立稻때에 二對一로 베어 두도록 하였고 後北條氏는 滯納者의 妻子와 牛馬를 差押토록 하였으며 藤堂高虎는 本役에 水軍將으로 나왔던 사람인데 그의 領地內에서는 借米등을 一切 停止시키기도 하였다. 또 本役에도 出動한 毛利輝元은 完納하기 前까지는 農民들의 米穀賣買와 金錢의 貸借는 물론이고 飮酒까지 이를 嚴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年貢의 運搬은 生產地로

부터 50里(日本의 5里)까지는 모두 農民들의 負擔으로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本役에 參加한 各 將領들은 軍事만이 아니라 領國의 領主로서 모든 民政과 法制를 掌握한 地方의 諸侯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農業에 대하여 살펴 본다면, 織·豐政權이 成立되기 前까지의 生産의 基礎는 農業이고 그 中心은 稻作이었다. 前代의 貯水池灌漑에서 河川灌漑가 增加하였으니 이는 河川의 治水工事에 注力한 결과였다. 水田의 二毛作과 鐵製農具가 普及되어서 稻作의 生産力이 올라갔고 밭에서는 茶, 棉花栽培등이 시작되었으며 畿內에서는 年貢으로서 蔬菜를 바치기도 하였다. 織·豐政權때에는 農業生産의 發展을 耕地增大에 求하는 外에 農具를 개량하고 灌漑用具를 普及시키는 한편으로는 品種改良과 施肥增大를 도모하여 稻作을 增産하고 棉作을 一般化하여 새로 들어온 煙草栽培와 藍, 養蠶등에 힘쓰게 되었다. 당시의 稻作量은 近畿地方에서 1段步당 1石 7,8斗가 되었으나 關東地方에서는 5斗 以內였다. 農民의 貧困은 經營의 零細化와 租稅의 過重에서 오는 것인데 이것을 구제하는 길은 米麥과 豆麥등의 二毛作을 普及시키는데 있었다.

다음으로 商業에 대하여 살펴 본다면 定期市場은 平安朝時代의 月 3回에서 시작하여 戰國時代에는 鄕村制의 發達로 月 6回로 增加하였는데 武藏 北部 地方, 즉 現在의 埼玉 1縣만이라도 30餘個所에 市場이 있었고 人口密度가 많은 都邑에서는 商業部落을 區分하여 交代交代로 市場을 열었다. 京都, 奈良, 堺등 商業이 發達된 都市의 商人들은 盜賊등의 掠奪에 對備하여 隊를 編成하고 武器를 가지고 商團軍을 만들어서 行商하였으며 海賊에게 돈을 주어 案內시키면서 商船을 利用하기도 하였다. 中世의 商人은 社會的 不安에 依한 營業妨害와 苛酷한 封建的 課稅를 免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身分으로 領主에 隷從하는 半奴婢的 色彩를 띄고 있었다.

公家——供御人(KUGONIN), 雜色(ZŌSHIKI) 駕輿丁(KAYOCHŌ)
神社——神人(JINING)　　寺院——寄人(YORIUDO), 聖(HIZIRI), 坊人(BŌJIN)
武家——公人(KUNIN)

京都 近附에는 다음과 같은 特産物의 主要한 去來市場이 있어서 都賣市場的 色彩를 띄고 있었으며 牛馬등의 家畜市場은 東國과 西國地方에 생겨서 數週日동안 繼續하기도 하였다.

材木市場——京都, 堀川地區　　穀物市場——三條, 七條通　　海産物市場——淀

또 室町時代 以後에는「問丸」(TOIMARU)라 하여 다음과 같은 業務를 하는 商人이 생겼다.

(1) 領主의 收穫物 運送　　(2) 倉庫保管　　(3) 委托販賣
(4) 商品의 運送賣買　　(5) 貨物 仲介業 및 運送등

또 遠隔地의 物資를 所在地域의 小賣商人에게 都賣하는「問屋(TOIYA, TONYA)」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農村의 土豪的 商人은 都會地로 옮기고 都市의 地主的 商人과 手工業者는 農業的 色彩를 脫皮하고 專門的 商工業者로 轉換하였는데 蓄積된 商業資本

은 高利貸金資本으로 化하여 諸侯들의 御用商人으로 領國內의 市場經濟를 支配하고 나아가서는 大陸貿易에 從事하는 한편, 몇몇 都市는 이들 豪商들에 依하여 自治的으로 市政을 運營하게 되었으며 封建領主도 이를 侵害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堺, 博多(HAKATA), 桑名(KUWANA), 大湊(ŌMINATO)등의 都市가 이러한 例에 屬하는 것이다.

더구나 堺(SAKAI)는 市街를 障壁으로 쌓고 傭兵隊까지 두어서 自治하게 되고 이들 豪商과 高利貸金業者들의 社會的, 政治的, 發言權이 많아지게 되었다. 豐臣秀吉이 大明을 엿보게 되고 海外에 貪慾의 손을 뻗게 된 時代相의 一班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工業에 대하여 살펴 본다면 15世紀의 室町時代에 들어가서부터 工業生產은 增加하기 시작하였는데 主로 社會生活과 關係가 많은 部門의 進步를 보였으며 特殊部門의 分化作用이 있어서 約 82部門으로 分類할 수 있었고 그 大部分은 手工業이였다. 例컨대 酒造, 製紙, 鑄物, 鍛冶, 陶磁, 漆, 染織등이고 對中國 貿易用 工業으로서는 漆工物, 刀劍類, 扇, 水晶製品, 鎗과 甲衣, 투구등의 武器類, 筆硯과 文匣등의 文房具類의 生產量과 質이 向上되었다. 手工業者들은 封建領主에 隸屬되어 生產上의 特權을 保障받았으며 어떤 工業部門은 世襲되었으니 建築業(大工 藏)등이 그것이었고 또 「座」를 通하여 販賣와 營業을 獨占하기도 하였다. 手工業者들의 橫的組織, 例컨대 GILD(同業 組合)또는 ZUNFT(手工業 組合)같은 것은 아직 없었으며 領主와의 縱的 主從關係에서 몇사람의 弟子와 從業員을 두는 따위의 家內工業의 領域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鑄物과 鍛冶, 그리고 建築의 세가지를 좀 더 살펴 본다면,

鑄物師(IMONOSHI)——自家의 工房에서 솥, 남비, 곡괭이등의 農具, 거울등을 만드는 外에 佛像, 梵鐘등 作業은 座의 組織으로 出張하여 作業하였다.

鍛冶業[打物師(UCH IMONOSHI)]——刀劍의 鍛冶技術이 매우 發達되어 鐵產地[山城(YAMASHIRO), 大和, 相模(SAGAMI), 美濃 備前의 五大中心地등] 를 母體로 다음 各地가 有名하였으며 中國에는 10萬點 以上을 輸出하였다.

山城——→三條, 粟田口(AWADAGUCHI), 綾小路(AYAKŌJI)등 京都中心地.

大和——→手掻, 尻懸(SHIRIGAI), 千手院(SENJUIN), 當麻(TŌMA)등 奈良 中心地.

相模——→山城과 備前系統이고 鎌倉中心地.

美濃——→志津(SHIZU), 關(SEKI)를 中心地로 하여 大和, 相模系統.

備前——→福岡, 吉岡, 長船(OSAHUNE), 畠田(HATADA), 宇甘(UKAI), 和氣(WAKE), 國分寺, 吉井등 이러한 刀劍鍛冶는 秘傳을 世襲하였다.

建築業——이것도 獨占的이었으며 世傳으로 相續하였고 처음에는 佛寺建築이 發達되었다가 戰國時代 以後에는 城郭建築과 住宅建築의 發達을 보았다. 特히 城廓 建築은 織·豐時代에 純日本式으로 나타나 매우 훌륭하였다.

安土城——1576年(天正 4年)에 信長이 新築 大阪城——1583年(天正 11年)에 秀吉이 新築

聚樂第——1587年(天正 15年)에 秀吉이 新築 伏見桃山城——1594年(文祿 3年) 同 上

姬路城(HIMEJI)——1609年(慶長14年) 白鷺城이라고도 하며 池田輝政이 크게 改築.

名古屋(NAGOYA)城——1610年(慶長15年) 德川家康이 22侯에 命하여 만든 것.

그 밖에도 織·豐時代에는 茶室建築이 發達하였고 佛寺建築으로는 方廣寺의 大佛殿등의 竣工이 있었다. 이것이 모두 武人政治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鑛業에 있어서는 戰國時代 以後의 諸侯들의 富國策의 一環으로 鑛山開發에 着眼하게 되어 採掘技術의 進步를 圖謀한 결과 產出量이 飛躍的으로 많아졌는 바 石見(IWAMI) 銀山, 佐渡(SADO) 金山을 비롯하여 各地에서 새로운 鑛山을 發見하였으며 商業의 發展과 金銀의 豐產은 必然的으로 金銀貨를 鑄造하여 流通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信長과 秀吉은 여러가지의 金銀貨를 만들었으며 諸侯들의 金銀 貯備量도 많았고 더구나 豐臣秀吉이 갖고 있던 金銀量은 莫大한 것으로 推測되는 것이다. 그는 海外通商으로 國富民強을 꾀하기도 하였으니 葡萄牙와 西班牙 商船들과의 接觸을 허락하였던 것이며 가장 먼저 種子島에 漂着하였던 葡萄牙人은 1543年(天文12年) 8月에 鐵砲를 傳來하였으며 西班牙사람은 5年뒤에(比律賓群島占領後27年) 日本에 들어와 豐前八屋浦(福岡縣築上郡)에 上陸한 以來 15年동안에 九州와 紀伊에 2,3次 왔던 것인데 이어서 1580年(天正8年) 6月에 平戶(長崎縣北松浦郡)에 上陸한 다음 20餘年 동안에 여러번 건너왔다. 秀吉이 1587年(天正15年)에 九州를 征伏한 다음 基督敎 禁令을 내리자 比律賓 太守는 宣敎師 JUAN COBO에 將校 1名을 붙여서 日本에 보내어 秀吉을 만나 본 다음 通商許可를 받고 歸航途中에 難波로 因하여 죽었다. 本役이 시작된 뒤인 1593年(文祿2年) 5月에 다시 宣敎師 PEDRO BAUTISTA에 僧侶 3名을 붙여서 日本에 보냈는데 航海30日만에 長崎에 다다랐던 것이며 秀吉은 本役中 名護屋 本營에서 使者를 만나 본 다음 通商과 布敎를 許可하게 되고 다음해 京都에 敎會까지 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葡萄牙 사람들은 寧波에 들아간 다음부터 연달아 商船을 보내, 처음에는 鹿兒島市에서 通商타가 뒤이어 平戶(HIRADO)(長崎縣北松浦郡)에 옮기고 뒤에 長崎城主인 大村純忠은 橫瀨, 福田, 長崎의 三港을 2年間隔으로 開放하였으나 秀吉이 九州地方을 平定한 다음 부터는 耶蘇敎의 布敎를 禁하고 長崎市를 沒收하여 公領으로 하였으되 다만 通商만은 그대로 허락하였으니 通商에 依한 實利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秀吉이 經濟立國을 武力의 뒷받침으로 내세웠던 것은 그의 海外侵襲을 더욱 부채질 하게 된 緣由라 할 것이다.

<花見朔己著 安土桃山時代(綜合日本史大系), 田中義成著 織田時代史, 同豐臣時代史, 松井等著 東洋史講座第八部, 中村吉治著 近世初期農政史硏究>

三, 明의 經濟 情勢(神宗代까지의 槪況)

明나라의 田制에는 크게 나누어서 官田과 民田의 區別이 있고 그 地目에는 田, 地, 山, 塘(築堤)등의 區分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두 所有者別로 黃册(賦役用戶籍帳)에 기록하여 그것을 集計하여 全國的 統計를 만들었으며 또 土地丈量으로 魚鱗圖册(土地帳)을 만들었다. 萬曆 6年에 全國的으로 土地丈量을 實施한 統計 結果에 依하면 5百10萬6千127頃이라는 總數의 官田과 民田이 있었으며 官田은 國有地로서 다음과 같은 種類로 區分되어 있었다.

(1) 一般官田; 還官田——莊田이 返還 된 것. 沒官田——犯罪者의 私有地를 沒收한 것.
斷入官田——所有者가 없거나 不明한 私有地를 編入한 것.

(2) 特殊官田; 學田——國子監의 所有田. 皇莊——皇室의 莊田.
牧馬 草場——官馬의 放牧地.
城壖苜蓿地(성연목숙지)——北京등 城壁 밖에 있는 放牧場.
牲地——宮中의 祭祀用 牛羊을 飼育하는 곳.
園陵墳地——御陵과 共同墓地. 公占隙地——公共用 廣場.
莊田——莊園, 諸王勳戚과 百官의 祿田.
邊臣養廉田——邊境에 駐在하는 官吏에게 주는 官田.
屯田——軍, 民, 商의 3種이 있다.

이 밖에 明나라 初期에는 祿田과 職田이 있었는데 祿田은 洪武年間에 諸王과 公主 駙馬와 功臣들에게 주었던 것을 洪武 末年까지에는 大部分 廢止한 다음 祿米制로 하여 一般稅米에서 支給키로 하였다. 元來 祿田은 土地 그 自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土地에서의 收入을 주는 것으로서 政府가 土地를 管理하고 여기에서 얻은 租米를 祿田受領者에게 주게 되었었다. 그러나 事實에 있어서는 祿田受領者의 支配權이 非合法的으로 祿田에 미쳤으므로 이를 없새게 한 것이었고 一部의 祿田은 莊田으로 바꾸어지게 되었다. 또 職田이라는 것은 朝廷의 百官에게 주는 것으로서 그 租米를 俸祿에 充當하는 것이었다. 1377年 洪武10年에는 內外官 7百60名에게 田 4千6百88頃(一頃은 百畝)이 주어졌으며 그 租米는 26萬7千餘石으로 1人當 平均 3百5石이었으나 職田은 반드시 모든 官職에 따라다니지 않아서 洪武末年以後부터는 역시 廢止되고 祿米制度로 바꾸어졌다. 官田中에서도 莊田은 無稅의 特權을 가진 私有地라고 할 수 있고 다만 그 處分權을 國家에서 어느 程度 留保하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또 皇莊은 그 租米가 國庫에는 들어가지 않고 皇室의 私的 收入이 되었으므로 이것도 事實上으로는 私有地에 가까왔으며 一般官田中에서 宋, 元 以來의 官田과 明初의 沒收田은 江南의 蘇州, 松江, 嘉興, 湖州地方에 많았다.

蘇州府에서는 洪武初年에 民田 約 2萬1千頃에 대해서 官田과 沒收田은 그 2倍以上인 4萬 6千5百餘頃에 達하고 그 中에서 宋, 元 以來의 官田이 3萬頃이고 明初의 沒收田이 1萬6千 餘頃이나 되었다. 1432年 宣德 7年에 있어서의 蘇州의 秋穀糧이 約 2百78萬石인데 대하여 民田이 15萬石에 지나지 않고 그 밖에는 모두 官田의 秋收였다.

民田은 初期에는 自作農이 많아서 小土地 所有가 支配的이었는데 華中에서는 元末의 大土地所有가 아직껏 남아 있었으며 그것이 貨幣經濟의 發達과 더불어 官僚들과 巨商들의 손에 넘어가는 傾向을 보였다. 또 華北에서는 中期 以後에 農民層이 漸漸 分散되어 大土地所有가 많아지고 河北, 河南에서는 그 傾向이 더욱 濃厚하였다. 또 華中에서는 大土地所有의 佃戶制(代價를 支拂하고 土地의 永續的 利用權를 가지는 制度)가 支配的이었으나 華北에서는 奴婢와 傭工으로 富農的 經營을 하

는 特色이 있었다. 福建에서는 이미 元代부터 大土地所有가 發達하였는데 明나라 末期부터는 所謂「一田兩主制」가 널리 行하여졌으니 이것은 地上權(上地)의 所有者를 皮主, 地下權(底地)의 所有者를 骨主라 하였던 것이다. 例컨대 開墾者, 또는 改良者는 本來 地主에게 代價를 치르던가 또는 勞力의 代價로 皮田의 所有權을 받게 되고 皮主, 骨主는 皮田과 骨田을 任意로 賣買하는 權利가 있었으므로 骨田의 所有者만이 大地主가 아니었고 皮主는 骨主에게 租를 바치지 않더라도 一般의 小作과 달라서 土地를 빼앗기는 일이 없었다.

그 다음에는 稅制에 대하여 살펴 본다면 明代의 戶籍은 다음의 네가지로 大別할 수 있고 各其 特殊한 徵稅原簿를 定하고 있었다.

(1) 軍戶——衛所管轄——軍册　　(2) 民戶——州縣管轄——黃册(賦役黃册)

(3) 匠戶——工部管轄——未詳　　(4) 竈戶——鹽課司管轄——竈册(鹽册)

田賦는 唐, 宋 以來의 兩稅法에 依하여 夏稅, 秋糧을 原則으로 하였으며 夏稅는 麥을, 秋糧은 米를 主體로 하였는데, 때에 따라서는 絹絲, 綿布, 錢, 紙幣, 銀등의 代納을 認定하여 米麥納入을「本色」이라 한데 대해서 이것을「折色」이라 하였으며 백성들이 每年 北京에 보내는 米麥이 5百萬石에 達하였다.

役法에 있어서는 軍戶, 竈戶, 匠戶는 戶籍 그 自體가 一種의 役을 表示하는 것이어서 軍戶는 兵役에, 竈戶는 製鹽에, 匠戶는 國家營造, 其他에 從事하는 것이 그대로 役에 服하는 것이 되었으며 그 本務를 妨害되는 것을 두려워 하여 民戶에 附課하는 雜役등은 原則的으로는 一切 免除되는 것이었다. 一般 民戶는 正役과 雜役을 課하게 되는데 正役은 普通 里甲이라고 불리우는 里長, 甲首의 役에 服하는 것이고 그 밖에 老人, 糧長, 塘長등도 正役으로 보는 때가 있었다. 定期的인 正役 以外에 모든 不正規的인 役을 雜役이라 하였으니 例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1) 官廳의 雜役에 從事하는 것　　(2) 驛傳에 從事하는 것

(3) 地方의 治安維持에 臨하는 것　　(4) 租稅의 徵收 또는 輸送에 從事하는 것

이러한 雜役은 때때로 繁雜을 더욱 加重하게 되어 負擔이 많아졌으므로 이것을 改革하기 위하여 均徭法의 施行을 보았으며 나가서는 一條鞭法에까지 發展하게 되었다.

均徭法은 1442年에서 3年사이(正統7~9年)에 江西按察司僉事인 夏時에 依하여 制定된 것인데 從來 不定規的으로 割當된 雜役을 10年에 한번씩 里甲正役을 끝마친 5年 뒤에 正規的으로 割當하는 制度였으며 均徭册이 준비되었다. 이것도 銀에 依한 代納이 허락되어서 이것을「銀差」라 하고 力役에 服하는 것을「力差」라 하였으며 10年 1役이 5年 1役, 또는 3年 1役으로 年限이 短縮되었고 또 均徭法은 元來에는 土地와 人丁에 基準을 두었던 것이 점점 土地에 割當하는 比重이 무거워졌다.

一條鞭法은 1531年(嘉靖10年) 前後에서부터 施行을 보기 시작하여 萬曆年間에 들어서면서부터 漸次로 全國的으로 施行케 되었는데 이것은 人丁에 課하는 負擔을 地稅가운데 合併歸

一케 하여 納入하는 制度였으며 里甲長 또는 糧長의 中間搾取를 막는 效果가 있었다. 從來 里長과 甲首에는 稅糧의 徵收, 黃册의 編造, 治安維持밖에도 上供物料와 公費의 負擔이 있었는 바 里長과 甲首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里甲內의 一般人戶에게만 轉嫁시켰으므로 결국 백성 全般의 負擔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一條鞭法에 依하여 土地稅에 編入케 됨으로써 어느 程度의 負擔의 均衡과 輕減을 보게 된 것이었다.

雜稅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1) 商 稅——商人이 가지고 있는 商品에 課稅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몇가지가 있었다.

過 稅——商品의 어느 地點을 通過할 때의 稅金.

住 稅——販賣場所에서 賣上高에 따라서 받는 稅金.

鈔關稅——貨物船에서 船料를 徵收하는 것.

工關稅——竹木등에 課하는 것. 門攤稅——都市의 店舖에 課하는 것.

(2) 其 他——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契 稅——契에 대하여 課하는 것. 酒錯稅——酒造業者에 課하는 것.

漁 稅——漁民에게 課하는 것. 礦 稅——礦山業者에 課하는 것.

茶 稅——茶業者에 課하는 것.

그 다음으로 幣制에 대하여 살펴 본다면, 國初에 明太祖는 前代의 鈔法의 弊害를 살피고 政府鑄造의 錢을 制錢이라 하여 主要貨幣로서 먼저 採用하였다. 太祖는 吳國公時代에 이미 大中通寶를 만들었고 即位한 뒤에는 洪武通寶를 만들었으며 모두 當十以下 大小 5種이 있었고 中央戶部에 寶源局을, 各行省에 寶泉局을 設置하고 鑄造케 하였다. 그러나 元나라 以來의 舊習에 따라서 商人들이 使用하는 交鈔(紙幣) 發行의 必要를 느끼고 大明通行寶鈔를 만들게 되었으니 그 理由로서는 鑄造用의 銅原料가 不足되는 것이 其一이오, 또 이것을 만들기 위한 國家의 鑄造費 過重이 其二요, 官에서 原料를 橫用하는 등 盜鑄의 弊害가 其三이었다.

이리하여 1374年(洪武 7年)에 寶鈔提擧司를 設置하고 一貫, 五百, 四百, 三百, 二百, 一百文의 6種을 發行하고 그 價格을 鈔一貫은 錢一千文, 銀一兩, 金四分之一兩으로 定하고 一百文 以下는 錢을 使用하고 그 밖에는 모두 交鈔(紙幣)를 使用케 하였다. 그러나 鈔價가 下落함으로 다시 五十文에서 十文까지의 小鈔를 만들어서 錢을 使用하는 것을 禁하고 軍民이 가지고 있는 錢을 모조리 官에 바치게 하여 私事로 通用하거나 埋藏棄毁하는 者를 罰하기로 하였다. 또 商稅는 錢三, 鈔七의 比率로 徵收하는 規定을 세우기도 하였고 祿米는 모두 鈔로써 支給하게 하여 寶鈔를 重用케 하려 하였으나 不換紙幣의 寶鈔는 鈔價維持에 困難하여서 백성들은 錢을 貴重히 여기고 鈔를 輕視하여 金銀으로써 交易의 具를 삼게 되었다. 이리하여 朝廷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對策을 세웠으나 끝내 鈔價의 低落을 防止하지 못하였으며 民間에서의 銀의 貨幣的 價値가 더욱 盛行하게 되었다.

(1) 金銀을 交易에 使用하는 것을 禁한다. (2) 戶口食鹽法을 施行한다.

(3) 稅糧, 課稅, 贓罰을 鈔로써 代納함을 許可한다.

드디어 1436年(正統元年)에는 銀一兩은 鈔千餘貫이 되었으므로 銀의 一部使用을 公許하고 江南一帶에 田賦를 銀으로 바치는 것을 認定하게 되었으며 1452年에는 京官의 俸給(俸鈔)은 싯가로 따져서 銀으로 주게 되어 鈔 5百貫에 대하여 銀 1兩을 주었고 弘治年間에 이르러서는 商稅도 銀으로 대신하여 바치도록 하였다가 嘉靖年間에는 모두 銀으로만 바치게 되었다.

<皇明實錄 太祖高皇帝實錄(卷之二百八十六首葉) 李王家所藏>

錢의 鑄造는 太祖以來로부터 斷續的으로 만들었으니 成祖때의 永樂通寶를 비롯하여 宣宗때에는 宣德通寶를, 孝宗때에는 弘治通寶를, 그리고 世宗때에는 嘉靖通寶를 만들었는 바 이것은 金背, 火漆, 鏇邊등 여러가지가 있어서 鉛과 錫을 減한 다음 亞鉛(白鉛)을 混合하는 眞鑄錢이 시작되었다. 또 穆宗때의 隆慶通寶에는 當二로부터 當十까지의 大錢도 있었다. 1393年의 洪武 26年에 鑄錢하였던 例를 본다면 全國에서 만들어낸 總額이 一億九千萬文에 가까왔으며 神宗時代에는 銀의 市價가 民間에서 一兩에 錢千文 程度였으니 이 때에 萬曆通寶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 다음으로 農業에 대하여 살펴 본다면 明나라 時代의 農業은 前代에 比해서 耕作法이 發達되었는데 江蘇, 安徽, 浙江, 江西, 湖南등의 여러 省에는 水田이 많고 灌漑의 利가 있었으므로 벼농사가 많았으며 더욱 그 가운데서도 江蘇, 浙江이 가장 豊盛하였다. 福建, 廣東, 廣西도 쌀을 生産하였지만 그 量이 적었다. 또 河南과 湖北은 水田이 적고 旱田이 많았으나 그래도 稻米의 生産量은 퍽 많은 편이었는데 山東, 直隷, 山西, 陝西, 甘肅 및 滿洲는 高粱이 많고 小麥과 高粱등의 生産量이 많으며 農民들은 農事를 兼하여 牧畜도 많이 하고 있었다. 地方 自治制度는 明代에 이르러서 더욱 發達되어 十家를 一甲, 百十戶를 一里로 하여 甲에는 首, 里에는 長을 두고 每里마다 規約을 만들어 鄕約이라 하여 서로 지키게 하였다. 또 里社(社稷主土神을 제사하는 곳.)를 設置하여 五穀의 神을 祭祀지내고 社倉을 두어서 備荒儲蓄토록 하였으며 社學을 두어 子弟를 가르치게 하였다. 明太祖는 洪武 27,8 兩年間에 灌漑水路 4萬 9百8個所를 新設하여 農桑을 奬勵하였으며 人口도 每年 增加하여 萬曆 6年에는 戶數 1千 62

萬1千4百36戶에 達하고 人口는 6千69萬2千8百56名이 되었다. 木綿의 利는 絹麻에 百倍한다 하여 全國에서 栽培하여 貧富의 差가 없이 賞用하였으며 蠶業은 嘉興과 湖州에서 盛行되고 좋은 生產品을 蘇杭地方에 보내었다.

四川省 地方에서는 桑栽培와 養蠶業이 發達되어 그 生產品인 黃絲는 山西, 福建地方에 까지 販出되었으며 福建 東南部에서는 甘蔗와 藍의 栽培가 盛行하여 明末에는 江西南部에서도 藍을 재배하게 되었다. 또 江蘇와 浙江의 棉花와 桑의 栽培는 水田作物의 轉換에 依한 것이었고 江西와 湖廣은 穀倉으로서 有名하여 唐, 宋 以來의 俗談인 「江浙이 熟하면 天下가 足하다.」라는 말을, 明末에서는 「湖廣이 熟하면 天下가 足하다.」라고 謳歌하게 되었다. 이 때에 또 海外에서 輸入된 玉蜀黍, 落花生, 馬鈴薯, 煙草, 甘藷등의 新作物도 점점 普及되게 되었다.

다음으로 商業에 대하여 살펴 본다면 明나라 時代의 商業의 發達에는 다음과 같은 不可缺한 必需 前提條件이 있었는데 이 時代의 中朝以後에 있어서는 대체로 이러한 모든 條件이 充足되었으므로 國內商業이 前代에서 볼 수 없으리만치 繁榮을 謳歌하게 되었다.

(1) 生產의 社會的 分化와 地域的 分業의 存在 (2) 交通運輸機關의 發達

(3) 良質貨幣의 豐富한 流通

大體로 보아 明代의 國內商業은 첫째로는 江蘇, 浙江, 福建, 廣東등 東南海岸 여러 地方에서 生產한 手工業品을, 北方과 內陸 여러 地方에서 生產하는 米麥, 棉花등 農產物과 交流하는 關係에서 이룩되었으며 둘째로는 農業과 手工業의 生產地帶인 華中과 華南의 物資가 國都 北京과 北京을 中心으로 하는 華北의 消費地帶에 流通하는 過程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는 租稅로서 徵收한 銀이 國都에 集中하였다가 官僚와 軍隊에 分配되는 것을 包含한 系統위에서 交流되었다.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多量의 物資가 客商의 손에 依하여 遠距離에 運搬되고 이러한 商品 流通過程에서 抽出되는 利潤은 莫大한 額에 達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北方의 山西商人과 南方의 新安商人은 鹽商, 客商으로서 큰 成功을 거두어서 國內商業界의 二大勢力이 되었으며 이러한 客商들은 同鄉, 同業의 舖賈와 結合하여 嘉靖年間 以後부터 北京과 그 밖의 여러 都市에 會舘과 公所를 發達시키게 하였다.

스페인과 폴투갈, 그리고 日本에서 들어오는 銀은 各年 2百萬페소(PESO)에 達하고 明나라에서는 生絲, 絹織物, 綿布, 磁器, 鐵器, 茶등을 輸出하였다.

이러한 여러가지 理由로 明代의 商業 組織은 더욱 整頓을 보게 되었는데 當時의 國內 商人에는 다음과 같은 種類가 있었다.

(1) 牙行——仲買商 (2) 行家——都賣商

(3) 洋行——貿易商 (4) 埠頭——港灣都賣商

都市도 더욱 커져서 北京 所在地인 順天府는 10萬戶, 66萬名, 南京 所在地인 應天府는 14萬戶, 70萬名의 人口가 있었다.

元나라때의 關市稅는 明나라때에도 있었으며 農具와 書籍 以外에는 大概 課稅하여 30分

之一의 稅金이었고, 鹽茶등은 官의 專賣事業이었다. 外國貿易은 海上에서는 寧波, 泉州, 廣州등에 市舶司를 두고 提擧官을 任命하였으며 寧波는 日本, 泉州는 琉球, 廣州는 占城(占婆라고도하며 交趾 支那地方), SIAM, 西洋 諸國과 通商하였다.

太祖는 洪武 16年에 SIAM에 勘合符를 준 以來로 이것으로써 諸國의 往來證明을 삼았으며 日本과는 成祖때에 足利義滿에게 勘合符를 주었는데 10年 1貢, 每貢 2百名으로 制限하고 이 期限을 어기거나 人員數 超過, 또는 刀劍을 携帶하였을 때는 海賊으로써 論斷하게 되었다.

이 밖에 陸上에서는 遼東에 馬市場을 열어서 明나라에서는 北方의 良馬를 다른 物資와 交換하였으며 또 陝西, 四川의 邊境에도 馬, 茶등의 市場이 열려서 陸上의 互市를 開設하였었다. 明나라 中朝以後에 市場商品으로 有名한 것은 湖州의 絲, 松江의 棉布, 그리고 南京, 蘇州와 杭州의 絹織物이고 景德鎭의 磁器와 廣東의 鐵器가 있었으며 湖廣의 米가 있고 山東과 河南에 棉花가 있었으며 廣東, 福建, 江西의 三省에는 砂糖이 있었고 福建에 藍이 있었다. 明代前半에는 福建, 浙江, 雲南의 三省에는 豐富한 銀의 産出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後半에는 많은 外國銀의 流入으로 銀의 流通이 都市에서 農村에까지 普及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葡萄牙와 西班牙사람들의 中國 通商關係를 살펴 보려는 바 葡萄牙사람들의 中國과의 通商關係에 있어서는 西紀 1497年에 葡萄牙의 MANOEL 王은 VASCO DA GAMA의 一行 110名이 印度回航에 成功하자 다시 第2回 遠航을 企圖하여 PEDRO ALVAREZ CABRAL에 命令하여 13隻에 2千1百名을 거느리고 西紀 1500年 3月 9日에 다시 印度를 向하여 떠나게 하였는데 王은 詔勅하기를 『먼저 說敎로써 시작하되 그 効果가 없을 때에는 劍에 호소하라.』하였다. 葡萄牙는 이러한 生理로서 東漸하게 되어 印度 GOA에 總督을 두게 되었고 總督 AFFONSO D' ALBOUQUERQUE는 다시 西紀 1511年 7月 1日에 滿剌加(MALACCA)를 攻擊 占領하고 暹羅와 香料諸島(SPICE ISLANDS)와의 通商을 시작하였으며 그 뒤 5年을 지내서 西紀 1516年 RAFAEL PERESTRELLO가 葡萄牙의 國旗를 휘날리면서 비로소 처음으로 中國沿岸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때는 明나라 武宗 11年이었다. 明나라 사람들은 葡萄牙사람을 「佛郞機」라고 呼稱하였는데 印度에서도 FRANGIE라고 불렀던 것이니 中古의 亞剌比亞人들이 歐羅巴사람을 모두 FRANK人이라고 생각한데 起因하는 것이다.

葡萄牙人들은 上川島(ST. JOHN島)에서 부터 厦門, 寧波와도 通商하게 되어 世宗 16年(西紀 1537年)에는 浪白滘(LANG-PEK KAU), 電白(廣東省高州府 電白縣), 濠鏡(廣東省廣州府 香山縣)에 商館을 가지게 되고 濠鏡땅은 그들이 都指揮使 黃慶에게 뇌물을 주어 倉庫를 짓고 通商의 中心地로 만든 다음 世宗 45年(西紀 1566年)부터는 每年 借地料로서 金 2萬兩을 바치는 條件으로 占領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오늘날의 澳門(AMOY)인 것이다. 처음에 이곳에 女神 阿媽(AMA)의 像이 있었으므로 阿媽澳(AMAGAU)라 稱하였는데 葡萄牙사람들은 AMACAO라고 쓰고 MACAO라고 略하게 된 것이었다. 뒤에 葡萄牙人들의 暴行이 原因이 되어 寧波에서는 商船 35隻을 불태우고 葡人 8百名을 죽였고 泉州에서도 商船 13隻을 불지르고 葡人 5名이 焚殺되었으며 世宗 28年 以後 通商

이 禁止되었다가 穆宗元年(西紀1567年)에 福建總督의 解禁措置로 澳門貿易이 再開되고 城砦까지 쌓게 되었던 것이다. 明나라 朝廷에서는 沿海에 倭寇가 甚하고 또 和蘭人의 威脅이 있으므로 이들을 懷柔하는 方策을 써서 그 商船을 1年20隻으로 制限하여 通商을 許可한 것이었다. 西班牙 사람들은 中國本土에 直接 上陸하여 通商하지는 못하였으며 ACAPULCO 艦隊로써 MEXICO와 2百餘年에 걸쳐 海上貿易을 한 결과, 여기에서 얻은 바 MEXICO銀을 中國에 輸出하였던 것이다. 西班牙王인 FELIP 2世는 西紀1555年에 王位에 오른 다음 MEXICO 總督에 命令하여 比律賓方面에 遠征隊를 보내게 하였는데 이 당시에 MEXICO市長으로 있던 MIGUEL LOPES DE LEGASPI는 군사를 거느리고 西紀1565年(世宗44年) 4月 27日에 SEBU島에 上陸하여 TUPAS王을 降伏시키고 基督教를 믿게 한 다음 全島를 占領하였다. 이로부터 5年뒤에 MANILA를 占領하여 首都로 하고 全群島占領을 布告하여 MEXICO의 附屬國으로 삼았는데 明나라에서는 이것을 呂宋이라 하였으며 이로써 成祖때에 朝貢하게 된 呂宋에 대한 支配權을 드디어 잃게 된 것이었다.

<大明會典卷三十一, 明史食貨志錢鈔, 和田淸著中國史槪說上卷, 松井等著東洋史講座第八部>

第2節 朝, 日, 明 三國의 社會情勢

要 旨

第一章 摘要에서 말한대로 戰史硏究에 있어서 社會情勢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나 直接 戰役과의 關聯性이 比較的 적다고 보는 까닭으로 前章에 이어 여기에서 取扱키로 하였다. 여기서는 交戰 三國의 社會 階級制度를 비롯하여 宗教, 風習, 科擧制度(明나라의 選擧法)등 通俗的인 面에 限定하며 대충 추려 보고자 한다.

一, 朝鮮의 社會情勢(麗末以後의 槪況)

近朝鮮時代에 있어서의 思想界의 特色은 무엇일까. 그것은 곧 佛教가 歷代王에 依하여 크게 抑壓되고 高麗朝時代의 面貌가 거의 消失되어 버린데 反하여 儒教가 國教로서의 地位를 確立하였다는데 있다 할 것이다.

이 時代 以前에는 儒教가 科擧의 科目으로 되어있기는 하였지만 佛教에 눌려서 不振한 狀態였는데 佛教는 王室과 貴族의 尊崇을 받고 廣大한 寺田을 가지고 宗俗 兩界에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었다. 李成桂는 田制改革을 斷行하여 舊貴族의 農莊을 沒收하였지만 寺院의 土地에는 손을 대지 않고 다만 免稅의 特權을 빼앗기만 하고 寺田에도 다만 課稅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3代 太宗때부터는 寺院彈壓이 시작되어 佛教 各宗派의 寺院과 寺田의 크기와 奴婢와 僧侶의 人員數를 制限하고 나머지 것을 沒收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다음의 世宗때에는 諸宗派를 禪宗과 教宗의 二宗으로 統合하여 寺院을 制限하고 그 밖의 寺院, 寺田, 奴婢를 모두 禁壓하였다. 그 뒤에도 이러한 方針이 繼續되어 經國大典에는 度僧 및 寺社條例를 明記하였으며 出家하여 僧侶되는 것을 制限하고 寺院의 新設을 禁止하였는데 이

에 反하여 儒教는 國家의 힘으로써 積極的으로 奬勵하게 되었다. 太祖는 儒教의 振興을 新政의 一大綱領으로서 내걸고 首都에 成均館과 五部學堂(뒤에 四部 學堂이 되었다.)을 그리고 府, 牧, 郡, 縣에 모두 學校를 세웠으며 여기에 學田, 奴婢, 漁場등을 주었으니 近朝鮮 末葉에가서 鄕校數가 3百數十이고 그 所屬土地가 約 50萬坪이나 되었다. 이러한 官立學校外에 私學인 書院이 있었으며 國王이 勅額을 내린 賜額書院도 있는가 하면 土地와 奴婢를 내린 書院도 있었고 그 밖의 一般書院도 또한 土地와 奴婢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여러 學校에서는 朱子學을 講說하였는데 吉再의 學統에서 金叔滋 그의 子 宗直에 이어 宗直의 門弟 鄭汝昌, 金馹(일)孫, 金宏弼과 그의 弟子 趙光祖등 名儒가 輩出하여 이 一派가 近朝鮮 前期의 朱子學界를 휩쓸어서 政界에도 進出하였으니 金宗直 以下의 人物은 모두 士禍의 中心人物이 되었고 그 뒤에 나은 金安國, 李退溪, 李栗谷, 金長生, 金集, 宋時烈등 모두가 黨爭史上의 人物들이였는 바 이러한 見地에서 본다면 이 당시의 儒教는 政權爭奪의 思想的 武器로서 발달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원래 李成桂는 佛教를 背景으로 하였던 舊勢力을 排除하고 新興儒臣들의 支持를 얻어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으니만치 開國한 뒤에 佛教에 대한 抑壓策을 쓰게 된 것은 당연한 노릇이라고 하겠으며 鄭道傳의 排佛論은 佛教排斥의 根源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麗末에 있어서의 寺院의 世俗的인 勢力의 팽창을 指摘하는 同時에 僧侶의 타락에서 오는 佛教의 社會的 및 道德的인 弊害를 공격하고 이를 極力排斥하는 것으로써 그의 抑佛 主論을 삼았던 것이고 또 그 目的을 達成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抑佛崇儒政策으로 바뀌게 되면서 먼저 斷行하게 된 것이 僧侶度牒制이었으니 이것은 僧侶가 되는 것을 許可制로 만든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 依하면 兩班의 子弟로서 僧侶가 되려면 五升布(中等品의 綿布와 麻布) 百疋을 바쳐야 하였고 庶人은 150疋, 賤人은 2百疋까지를 바쳐야 한다는 制限을 만들었던 것이다. 또 寺社의 濫設을 禁하고 3代 太宗은 이것을 더욱 強化하여 6年에 寺社田民에 대한 一大整理를 斷行하여 諸宗 2百42寺만 남겨놓고 그 나머지는 모두 整理케 하고 이 整理된 寺刹에 屬하고 있던 田地와 奴婢를 모두 官에서 收用하여 버렸으며 4代 世宗도 또한 抑佛主義로 6年에 諸宗派를 禪, 教 二宗으로 統合하고 말았으니 그 狀況은 다음과 같다.

教宗——慈恩, 華嚴, 始興, 中道宗등.　　　禪宗——天台, 曹溪, 總南宗등.

또 兩宗의 各 18寺 合計 36本山만의 寺格을 認定하여 禪宗에 田 4千2百50結, 教宗에 田 3千7百結을 分配하였다. 同 25年에는 寺刹의 重創과 修理를 허락하고 30年에는 景福宮東北에 內佛堂을 建立하였는데 7代 世祖는 護佛策으로 城안에 圓覺寺 福世菴을 重創하였다. 그러나 8代 睿宗과 9代 成宗에 이르러서는 다시 抑佛策을 쓰게 되어 度牒制를 全廢하고 백성들의 出家를 禁하였는데 10代 燕山과 11代 中宗때에는 城안에 있던 大刹을 撤廢하여 버리고 僧科마저 없새게 되었다. 이렇게하여 지금까지 이어 내려오던 國家와 僧侶와의 公的關係는 끊어졌으나 그뒤에 13代 明宗의 母后인 文定王后가 攝政하였을 때에는 다시 佛教를 崇

尙하여 普雨라는 僧을 優待하고 廣州 奉恩寺를 禪宗의 本山으로, 楊州의 奉先寺를 敎宗의 本山으로 하였으며 僧科를 다시 만들고 八道寺刹을 一時 革新타가 下世하자 普雨는 濟州에 귀양가게 되고 僧科도 또다시 없어지게 되었다. 本戰役에 活躍한 西山大師 休靜은 明宗 4年에 僧科에 登第하고 그 뒤에 禪敎 兩宗의 判事에 이르렀으며 禪과 敎를 兼攝하여 禪을 堂奧, 敎를 入門이라 하여 弟子들을 가르친 결과 그 門下에서 惟政(松雲), 海眼(中觀), 彥機(鞭羊堂), 太能(逍遙)등 많은 逸材가 나타났으며 더구나 惟政은 本役에 있어서 休靜과 아울러 크게 活躍한 바 있었다. 學制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그 大要만을 살펴 볼 것인데 太祖때에 漢城에 成均館을 다시 만들게 하고 地方에는 鄕校를 일으켰으며 定宗때에 漢城의 五部(東西南北中) 各區에 학교를 세워 이것을 五部學堂이라 하였다. 또 全國 各地에는 書堂이라 하여 儒學의 初步入門인 私塾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두 科擧를 위한 準備機關이었고 儒學은 立身出世의 道具로서 兩班과 士大夫에게 獨占되었으며 그들의 子弟는 7,8歲가 되면 書堂에 들어가서 15,6歲가 되어 여기를 마치면 中央에서는 五部學堂에, 地方에서는 鄕校로 進學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몇年 동안 修學한 다음에는 科擧(小科)에 應試할 수가 있어서 이에 合格하면 生員, 進士가 되었고 이렇게 되면 漢城에 가서 成均館에 進學할 수 있었다. 五部學堂은 世宗때에 이르러 北部를 없새어 四部(四學)를 두었고 地方에는 一邑一校로 鄕校를 만들어 그 定員은 府牧이 90名(都護府70名), 郡이 50名, 縣이 30名으로 限定하였다. 또 中央에서는 外國語를 司譯院에서 맡고 醫學은 典醫監과 惠民署에서 맡았으며 天文地理와 占術(命課)은 觀象監에서, 數學(算數)은 戶曹에서, 그리고 律學(法律)은 刑曹에서, 畫學은 圖書署에서, 道學은 昭格署에서 各各 擔當하였고 地方에서는 그 特殊性에 따라 倭學은 三浦(釜山浦, 薺浦, 鹽浦)에서, 女眞學은 義州, 昌城, 理山(楚山), 滿浦에서, 漢學은 義州, 平壤, 黃州에서 맡았고, 그 밖의 것은 各牧, 府, 郡, 縣에서 서로 分擔하고 있었다. 그리고 雜學은 賤視하여 대개 中流階級의 子弟들이 專修하였고 上流階級은 儒學을 專門으로 하였다.

武將을 志望하는 사람은 兵學과 武藝를 專修하였는데 成均館에서는 司馬試에 合格된 生員과 進士를 正規生으로 삼고 그 定員이 不足할 때에는 京內 四學의 優秀한 儒生으로써 補充키로 하였던 것이다. 書院은 官學인 鄕校를 대신하여 地方의 青年子弟들의 指導를 맡아서 社會的으로나 文化的으로나 貢獻도 많았지만 한편 儒學의 尊重은 朱子學의 隆興과 더불어 封建思想을 硬化시키는 作用을 하였고 科擧制度와 더불어 社會構成을 더욱 深刻케 浮彫시키는 役割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科擧制度는 官吏의 登用試驗으로 國家의 人材를 發掘하여 내는 制度로서 敎育機關이라는 것은 科擧를 위한 準備機關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敎育과 學問은 모두가 支配的인 身分層에 獨占되어 科擧에도 이러한 身分的인 制約이 따르게 마련이었고 兩班과 士類들의 競爭目標가 되어지는 反面에 庶民들에게는 아직도 開放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立身出世의 길도 身分的으로 制約 되었는데 더구나 高級官吏에게는 人材를 추천할 수 있는 特權이 있었고 功蔭者의 子孫에게는 被薦되는 權利가 있어서 이들에게는 대

개 임시적인 시험으로 擧用되어 出世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도 하였으니 이것을 「蔭仕」라 하였다. 이와 같이 兩班에 의한 科擧의 獨占에도 不拘하고 門閥尊重과 兩班身分의 數的 增加는 必然的으로 科擧制의 자가모순을 더욱 들어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性理學의 隆興과 詞章偏重의 傾向은 드디어 科擧試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어 學問은 실제로 國家를 經綸하는 學에서 멀어지게 되고 官僚는 마침내 世務에 밝은 人材로 充員되지 못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된 것이었다. 太祖때에 三試制(鄕試, 覆試, 殿試)를 두고 또 3年(子, 卯, 午, 酉年) 一試의 法을 만들었으니 이것을 式年文科라 하였으며 3代 太宗 8年에는 武科도 만들었으니 이것을 龍虎榜이라 하였고 그 밖에 增廣試(國家에 大慶이 있을 때 보는 것), 別試文科(國家의 慶事때 보는 것), 謁聖文科등도 있었다. 또 科目에는 文科, 武科, 生員科, 進士科밖에도 譯科, 醫科, 陰陽(觀象監員)科, 律科(法官)등의 雜科가 있었고, 譯科에는 漢學, 蒙學, 倭學, 女眞學(뒤에 淸學)이 있었고, 陰陽科에는 天文學, 地理學, 命課學(運命, 凶吉등에 관한 學科)등이 있었으며, 또 臨時로 施行하는 것도 있었고 文武科 及第者와 文武在職者에 대하여 文科重試를 보기도 하고 또는 成均館儒生에 대하여 施行하는 것 등 여러가지가 있었다. 武科에도 文科와 마찬가지로 初試, 覆試, 殿試의 三區分이 있었고, 主로 弓術, 騎槍, 擊毬등의 武藝와 經書, 兵書등의 學術로써 試驗하였으며 初試에서는 訓鍊院의 院試에서 70名을 뽑고 鄕試에서는 慶尙道 30名, 忠淸, 全羅 各 25名, 江原, 黃海, 咸鏡, 平安道에서 各 10名, 合計 190名을 選拔한 다음 覆試에서 이 初試合格者가 漢城의 兵曹에 모여서 7對 1의 競爭으로 28名을 뽑아 武科及第者로 하였다. 이 及第者들을 모아 또다시 殿試를 보이는 까닭은 殿試는 원래 等級을 매기기 위한 것이었으며 闕內에서 行하는 것으로 甲科 3名, 乙科 5名, 丙科 20名의 順位를 定하여 그들을 「先達」이라 하였는데 紅牌라고 하는 紅色紙에 墨寫한 合格證書를 주었다.(白牌라 하여 白色紙를 주는 것은 司馬試 또는 小科라고 하는 生員科와 進士科의 會試合格者에게 주는 것이다.) 科擧 及第者의 姓名을 列錄한 簿册을 榜目이라 하였고 甲科 3名中의 第1位及第者를 壯元이라 하고, 第2位를 榜眼, 第3位를 探花郞이라 하였으며 또 이 3名을 甲, 乙, 丙이라고도 하였다. 이와 같이 儒學을 장려하고 이로써 官員을 뽑아냄으로 말미암아 貴族의 子弟들이 다투어 儒學의 門으로 몰려든 결과 高麗때 보다 많은 淸白吏와 學者가 나타나서 直言하고 忠諫하는 臣下가 많아졌으며 節義를 높게 보는 氣風이 流行하여 孝子와 烈女들이 많이 나타난 것은 이의 功果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本役에서의 義兵活動등이 그것을 證明하여 주는 것이었다.

太宗때의 領議政 河崙은 살림살이를 모르고 사치와 宴樂을 싫어하였고, 또 宰相 鄭甲孫은 淸貧을 좋아하여 집에는 貯蓄이 없고 항상 直言하여 權勢 있는 사람을 眼中에 두지 않았으므로 朝廷의 사람들이 그를 獨擊鶻이라 하여 무서워하였다는 것이다. 또 世宗때의 政丞 孟思誠은 항상 소를 타고 다니고 집은 좁고 작았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비가 새어 어떤 兵曹判書가 公事로 찾아갔다가 옷이 젖었는데 그는 크게 느끼고 自己집에 돌아와서 방금 짓고 있던 사랑채를 헐어버렸다는 것이다.

또 이때의 右議政 柳寬은 公平淸白하여 國初에 東大門 밖에 두어간 집을 짓고 울타리도

없이 살았으며 장마때에 비가 삼대처럼 새는 방안에서 雨傘을 받고 夫人더러 말하기를 『우산 없는 집은 얼마나 고생들 하겠소.』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清貧한 官吏들이 많았다는 것은 儒學으로 因한 高節을 몸소 修練하고 實踐하였던 功이라고 보아서 마땅할 것이다.

다음은 風俗에 관한 것인데 이 時代의 風俗上의 特色은 古代的인 關係와 中世的인 關係가 서로 얽혀서 成長 發展하여간 事實에 있다고 할 것이니, 古代的인 例로서는 많은 賤民群을 갖고 있었던 까닭으로 社會의 封建的 身分體制로 麗代의 王族과 貴族에 대신하여 李氏王族을 中心한 新興官僚와 貴族群들이 모여서 支配的인 身分인 兩班階級을 形成하였고, 被支配的인 身分層으로 常人(常民)과 賤人(賤民)이 있는 外에 이 兩者間의 媒介的 지위를 차지하는 中人(中庶)이라는 身分層이 形成되어갔다. 그리하여 위로는 王族을 包含한 兩班과 그 밑에 中人, 常人, 賤人의 네가지 身分의 差別이 생겼던 것이다. 이제 이 時代의 風俗을 살피기 위하여서는 不得已 먼저 高麗時代의 것을 찾지 않을 수 없으니 이는 여기에 源流를 두고 있는 까닭이다. 麗代 당시의 士民은 階級이 매우 많아서 士人들은 望族(名望있는門閥)으로써 서로 자랑하였는데 柳, 崔, 金, 李의 四姓은 貴族이라 稱하고 微賤한 사람은 榮達할 수가 없었다. 또 宦官과 奴隸를 輕視하여 宦官은 宮中에서 일을 보고 官職에 참여하지 못하더니 毅宗때에 齊國公主가 元나라에 보낸 宦官으로서 方臣祐, 李大順, 高龍普등은 元나라에서 威福을 마음대로 하고 도리어 그 君을 謀陷하기도 하였다. 奴婢는 士族집안에서 世世로 使役하는 者를 私奴婢라 하고 官衙와 州郡에서 使役하는 者를 公奴婢라 하였는데 이들은 良人과 通婚하지 못하고 八世中에 奴婢가 있는 者는 仕官하지도 못하였으며 大功이 있어도 錢帛만을 받고 官爵을 받지 못하였으나 23代 高宗때에는 崔沆이 人心을 收拾코자 하여 家奴 李公柱로써 別將을 삼고 聶長壽로써 校尉를 삼았으며 崔竩는 또 公柱로써 郎將을 삼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奴婢는 財物과 같이 取扱하여 賣買하였던 것이니 6代 成宗때에는 그 값이 奴는 15歲부터 60歲 以下는 布 百匹이고, 15歲 未滿과 60歲 以上은 그 半價였으며, 婢는 15歲 以上 50歲 以下는 布 百 20匹이었다. 34代 恭讓王때에는 牛馬와도 서로 바꿨는데 奴婢 2,3名이 馬1匹에 相當하였고 權家에서는 佛宇神社에 奴婢를 施納하기도 하였다. 또 그들은 病이 났어도 醫治의 惠澤을 받지 못하였고 죽은 뒤에도 장사 지내지 않았다. 高麗史에서도 『東國에 奴婢法이 있어 內外를 嚴하게 하고 貴賤을 別하게 하여 禮義가 여기에서 나온다.』하여 이 惡習을 誹論하는 者 없었다. 賤者隨母法이라 하여 母가 婢면 그 子孫도 奴婢가 되며 主人이 解放시켜도 그것은 本人에만 限하고 그 子孫은 역시 奴婢를 免치 못하였다. 戶籍은 家長이 責任지고 申告하되 口數와 年齡을 僞報하면 家長을 罰하고 또 里正이 里內의 戶口增減이나 脫漏를 모르고 있을 때에는 里正을 罰하였다. 強盜가 있는데 救助하지 않는 隣里는 罰하고 五保內의 犯人을 告訴하지 않아도 罰하였으며 隣保에 相互扶助와 連帶責任을 지웠다. 백성들의 移動은 縣外에 나가는 것을 禁하고 그것을 犯하면 杖 90이고 州鎭에서는 徒(服役하는刑) 1年의 刑을 받았다.

이 時代에는 新羅時代의 部曲 밖에 또 새로운 部曲을 만들고 또 一部는 部曲에서 解放된 곳도 있었는데 叛逆등 重罪를 犯하였을 때에는 그 當事者가 살고 있던 州, 郡, 縣을 部曲으로 만들었으며 반대로 部曲의 住民들이 大功을 세우면 部曲을 縣, 郡, 州로 昇格시키고 賤民의 地位에서 解放시키기도 하였다. 部曲人은 賤鄕人과 罪人, 그리고 賤業者와 같이 國學에 入學할 수 없고 僧侶가 되는 것을 禁하여 刑罰上으로서는 奴婢와 同列이였으며 그 子孫들의 良賤의 歸屬은 奴婢들의 子孫에 準하는 歸屬方法이였는데 이러한 部曲制度는 高麗 末期에서부터 近朝鮮 初葉에 걸쳐서 차츰 解放이 되고 15世紀末에는 地方制度에서 完全히 없어지게 되었다. 國王의 配偶는 王后外에 夫人, 貴妃, 淑妃등이 있더니 10代 靖宗 以後에는 宮主, 院主, 翁主(庶出의 王女)의 稱呼가 있었고 18代 毅宗 以後부터는 同姓 婚娶를 禁하였으며 國王外에는 모두 一夫一婦制로 아들이 없어도 蓄妾하는 사람이 적었고, 또 男子가 無故하게 妻를 버리는 者를 罰하고 妻妾이 改嫁하면 流罪 또는 徒罪를 주었고 士大夫家의 婦女는 再嫁하는 者도 적었다.

近朝鮮時代에 이르러서도 最下層의 身分層인 賤人, 즉 奴婢는 公共機關이나 士庶個人에게 隷屬되어 아무런 人權도 主張할 수 없었고 財產과 同一視되어 賣買와 贈受, 入質, 相續의 대상이였으며 오로지 勞動力의 供給者로서 奴隷的인 地位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寺奴, 驛奴, 校奴, 內奴등 國家機關에 屬하여 있는 者를 公賤(官奴婢)이라 하고 개인에게 屬하여 있는 者를 私賤(私奴婢)이라 하였는데 一般的으로 公賤이 私賤보다 上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대개 戰爭의 捕虜나 犯法에 依한 刑罰로서 奴隷的 地位에 떨어져서 그 身分을 代代로 世襲하게 된 者들로서 이들의 子孫은 반드시 奴婢가 되었으며 娼妓, 占卜, 巫覡[(무격)이니 覡은 男子 무당] 白丁등은 私賤과 同一視되었고 佛敎의 타락으로 僧尼도 또한 이와 同等하게 賤視되었으나 그 中에서도 白丁 身分이 가장 賤待를 받았다. 그러나 麗代에 比하여 賤民 解放의 傾向이 나타나서 鄕部曲은 없어지게 되고 또 所有者의 意思로써 私賤이 解放되는 길도 열리게 되었다. 그렇지만 兩班의 權勢는 매우 堂堂하여 醫術, 天文, 地理, 祭祀, 通譯등 밖의 官職은 모두 兩班에 依하여 獨占되었고 그들은 地租를 바치는 以外에는 兵役, 賦役, 그 밖에 모든 稅를 免除받았다. 四人轎 以上의 가마를 타고 冠을 쓰고 革製靴를 신는 것도 兩班 以上에 限하였으며, 家屋의 構造, 衣服의 型과 色, 墳墓의 大小도 差別이 있었고 같은 罪를 犯하여서도 常民보다 輕하였으며 家僕이 대신 體刑받는 것을 許容하였다. 그러나 같은 兩班이라도 지체가 높고 낮은 것이 있으니 文官집은 武官宅 보다도 높이 여기고 庶類(妾子孫)편은 嫡類(正室子孫)편보다 差別하여 천대를 받았으며 官吏登用에도 「限品叙用」이라는 制限이 있었다. 이에 依하면 文武官 二品 以上의 良妾子孫은 正三品까지, 賤妾子孫은 正五品까지에 限하고 또 六品以上의 良妾子孫은 正四品까지, 賤妾子孫은 正六品까지에 限하였다. 더구나 再嫁女와 三嫁女의 子孫은 仕籍(官吏任用原本)에 올리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中庶階級은 中人階級과 庶吏階級을 合친 이름인데 中人은 兩班의 다음가는 階級으로 그들의 官職은 計士(會計), 觀象監員, 譯官

(通事), 寫字官, 圖畫書員, 檢律(司法官)에 限하였고 庶吏는 吏胥(中央과 地方의 衙前), 軍校와 掖隸(액예이니 掖庭所屬이며 傳謁, 供御筆硯, 闕門鎖鑰, 禁庭舖設을 主掌하는 掖庭署의 吏員들이다.)같은 層을 이름이니 中人보다는 지체가 떨어지나 常人보다는 높으므로 넓은 뜻의 中流階級에 屬하는 것이었다. 다만 鄕吏에게는 科擧의 應試를 許하여 거기에 合格한 者는 子孫의 吏役을 免케 하는 일이 있고 軍校는 그 才藝에 따라 邊將에까지 昇進하기도 하였다. 常人階級은 農, 商, 工業과 漁業등에 從事하는 平民이 屬하고 國家에 대하여 가장 많은 貢獻을 하는 힘의 所在를 構成하였었다. 奴婢中 禾尺(楊水尺)은 世宗 5年에 白丁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戶籍, 給田과 其他 出世의 길을 열어 주도록 하였으나 遺俗은 如前히 賤民中에서도 가장 낮은 賤民으로 取扱하여 特殊部落에서 屠殺, 製革, 肉商, 柳器匠등 獨占的 職業에 從事하였으니 太宗때부터 시작된 庶孽子孫의 禁錮(要職에 叙用치 않는 것)와 再三嫁女 子孫의 不置仕版의 制限이 있었으며, 妙淸亂, 趙位寵亂, 崔坦의 叛亂 以後의 平安道와 李施愛亂後의 咸鏡道, 그리고 鄭汝立亂後의 全羅道를 叛逆境으로 取扱하여 地方的 差別을 甚히 하기에 이르렀다. 이 모두가 少數 貴族에 依한 寡頭的 中央集權的인 施策의 結果이며 同族을 奴隸로서 恒久的으로 分離하겠다는 法을 만들 수 있는대로 만들어 從母法에 따라서 從父法으로써 奴隸身分에 얽어매도록 꾀하였던 것이다. 太宗 17年에 各司에서 保有하고 있던 公賤만의 統計를 보아도 11萬 9千 6百 2口로서 그 中 男奴가 5萬 9千 5百 85口요, 女婢가 6萬 17口에 達하였다. 뿐만 아니라 國民의 大部分인 農, 工, 商, 漁등 生業에 從事하는 常人階層에 대하여도 租稅의 負擔과 兵役과 賦役의 義務, 그리고 地方特産物에 대한 現物稅로서의 貢納을 課하였으니 이와 같은 古來의 租, 庸, 調의 形式에 依한 租稅, 兵役, 現物稅의 負擔은 그들의 年收入에 比하여 決코 적은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그들의 財와 富의 蓄積을 거의 不可能하게 만들었으며 産業萎縮만을 재촉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이들에게는 修學의 길과 科擧應試의 길을 주지 않았고 身分的인 向上과 立身出世의 길을 주지 않았던 것이며 이러한 어지러운 世相속에서 本役을 치르게 된 것이었다.

<玄釆譯 東國史略卷二, 經國大典卷五刑典, 李丙燾著 國史大觀, 李能和著 朝鮮佛敎通史, 孫晋泰著 國史大要>

二, 日本의 社會 情勢(織·豐政權까지의 概況)

日本의 宗敎는 佛敎와 神道, 그리고 耶蘇敎의 세가지를 들 수 있는데 佛敎에는 禪宗, 臨濟宗, 日蓮宗, 淨土宗, 淨土眞宗등의 宗派가 있었다. 禪宗은 室町時代에 더욱 隆盛하여 京都와 地方의 武士層에 信徒가 많았고 臨濟宗은 上流武士層이 많이 歸依하여 五山文學을 開花케 하였으며 日蓮宗과 淨土宗은 武士層과 都市商人들 사이에 結合되어 盛大하게 되었고 淨土眞宗(一向宗)은 더구나 農民과의 결합에 힘써서 뒤에 「一向一揆」라는 民擾의 母胎를 이루게 되었다.

日蓮宗은 僧日蓮이 開山한 것으로 京都안에만 21寺가 있었는데 應仁亂 뒤에는 僧徒까지 劍을 쥐게 되어 다른 門徒들과 싸웠으며 天文法華의 亂으로 이 21寺가 모두 타버렸던 것이다. 臨濟宗은 僧 榮西가 宋나라에서 돌아와 京都에 建仁寺를 세운 것이 日本에서의

처음되는 禪院이었고 그 뒤에 東福寺(京都市下京區), 南禪寺(同左京區), 建長寺(鎌倉郡小坂村)를 세우고 이어서 永源寺(滋賀縣愛知郡高野村), 大德寺, 天龍寺, 相國寺를 京都市內에 세웠으며 또 圓覺寺(鎌倉郡山內村)를 세웠던 것이다. 淨土宗은 法然上人이라는 僧이 시작하였으며 그가 죽은 다음에 17派로 分裂하였는데 그 中에서 鎭西流, 西山流가 中心이 되어 室町時代 以後부터는 武士와 土豪들의 믿음을 받았으며 武士團의 興廢와 더불어 寺運과 宗運을 같이 하였다. 또 禪宗은 처음에 中國에서 오랫동안 文人禪이라 하였던 것이 日本에서는 武人禪으로 傳敎되었는데 鎌倉時代로 부터 室町時代에 걸쳐서 五山을 中心으로 五山文學이 일어나고 宋과 元의 學藝를 傳하여 文運이 일어남으로써 中國의 文物制度가 이들 禪僧에 의하여 옮겨지게 되었다. 一向宗은 眞宗의 異稱이며 信徒에는 封建的인 自營農民이 많았고 開祖는 親鸞(SHINRAN)上人인데 그 門徒들이 1487年에 加賀國을 中心으로 一揆運動이라는 暴動을 일으켜 一向一揆라 하였고 約 1世紀에 걸친 동안 騷然하다가 織田信長의 封建勢力에 依하여 마침내 抑壓되기에 이르렀다.

神道는 敎祖가 없으며 日本 民族的 宗敎라고 할 수 있다. 御成敗式目(GOSEIBAI-SHIKIMOKU)(1232年貞永元年에 執權北條泰時時代에 制定)에서는 神社佛寺領의 特權을 認定하였으며 源氏는 氏神으로 石淸水八幡宮을 모시고 鎌倉幕府는 鶴岡八幡宮을 勸請하였으며 伊勢神宮도 古代的 貴族의 衰運에 따라서 經濟的으로 苦痛을 받았으나 鎌倉時代에는 大神宮의 所領이 39個國에 1千3百50個所에 뻗쳐 있었으며 遷宮費用으로 役夫工米를 全國에 賦課하기도 하였다. 南北朝時代에는 國家의 統一力이 없어졌으므로 全國 大小의 社寺는 荒廢하고 神域에는 亂軍이 濫入하는 형편으로서 官社의 奉幣도 中絶되는 慘狀이었다가 室町時代에 들어가서 寺社奉行(JISHABUGYŌ)을 두고 社寺行政을 確定하였다. 戰國時代에는 神社의 窮狀이 南北朝時代보다도 더욱 甚하여 社領을 侵奪하여 아무런 特權도 認定되지 않았다.

織・豐時代에는 信長과 秀吉이 社寺의 窮乏을 어느 程度까지는 救하였으나 全國에 있던 大寺에 대하여서는 이것이 武力의 潛在力으로도 보아서 武斷政策으로써 臨하게 되어 重稅를 부과하고 社領을 削減하거나 또는 沒收하였는데 信長은 延曆寺와 同時에 日吉神社를 불태워 버렸고 秀吉 時代에는 紀伊의 熊野神社, 豐前의 彦山神社, 그리고 肥後의 阿蘇神社가 모두 烏有가 되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秀吉은 文祿檢地로써 大小社寺領을 劃一的으로 整理하여 모두 武家의 손에 넣고 말았다.

耶蘇敎가 日本에 傳來하게 된 것은 西紀 1549年(天文18年, 明宗4年 己酉)에 耶蘇會士 FRANCIS SAVIEL이 鹿兒島에 와서 처음으로 領主 島津貴久의 布敎許可를 받고 京都에 갔는데 天皇과 將軍은 만나보지도 못하였으나 다음의 大友氏와 松浦氏의 두 領主의 好意를 받고 領內에 信徒를 얻은뒤 2年을 지내고 印度로 돌아갔다. 九州에서는 富國強兵을 위하여 各自領內에 PORTGAR 商船을 맞이하려 하니 敎會側에서는 먼저 領主들을 改宗시키거나 또는 敎會에 好意를 가지게 한 다음 領民에게 布敎하려는 方針을 세웠다. 또한 敎會에 好意를 가지지 않는

領主의 領內 港口에 대하여서는 敎會指示로 PORTGAR 船舶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니 豐後領主 大友義鎭의 協力으로 北九州에 布敎의 盛行을 보게 되었다. 肥前平戶의 松浦隆信은 貿易의 利를 求하여 布敎를 許可하였으나 佛敎徒의 反對로 말미암아 할 수 없이 宣敎師의 退去를 命하게 되였다. 西紀 1570年(元龜元年, 宣祖 3年 庚午)에 大村領主인 大村純忠은 長崎港을 耶蘇敎에 寄附하였으므로 이 뒤 부터 長崎港이 敎會의 本據가 되었고 純忠에 이어 그의 兄인 有馬義直, 그의 子인 晴信등도 모두 改宗하였다. 西紀 1582年(天正 10年, 宣祖 15年 壬午)에 大友, 大村, 有馬의 三領主는 羅馬敎皇에게 使節을 보냈으나 義鎭과 純忠은 그 使節이 돌아오기 前에 病死하였다. 純忠의 後主가 된 大村喜前과 有馬晴信은 모두 本役에 第1番隊로 侵略하였던 것이다.

1559年(永祿 2年, 明宗 14年 己未)에 VILELA GASPARD는 京都에 가서 信者를 모았는데 다음해에 13代 將軍足利義輝(YOSHITERU)로부터 制札을 받아서 布敎의 安全을 보장 받고 課役까지 免除되었으며 敎勢가 隆盛하여 다음 사람들의 改宗을 보았다.

高山飛驒守 友照(TOMOTERU)와 그의 子, 右近長房(UKONNO-NAGAHUSA), 河內城主 白井의 父子, 淸原大外記 枝賢, 池田丹後守[池田輝政(IKEDA-TERUMASA)], 結城山城守 忠正父子.

織田信長은 1569年에 宣敎師 FROIS LUIS를 引見하고 布敎를 許可하는 朱印狀을 주었는데 그 뒤 法華宗의 日乘등의 反對가 있었으나 信長의 保護를 받아서 1578年(天正 6年, 宣祖 11年 戊寅)에는 京都에 敎會堂을 新築하게 되였다. 이 해 攝津의 荒木村重(ARAKI-MURASHIGE)이 叛하였을 때에 信長은 ORGANTINO GNECCHI-SOLDI를 보내 村重의 臣下였던 高槻城主 高山右近(改宗한 信徒)을 說服하는데 成功하매 信長은 耶蘇敎에 대해서 더욱 好意를 가지게 되고 1580年(天正 8年, 宣祖 13年 庚辰)에 安土城을 쌓았을 때에는 特히 城下에 땅을 주어 敎會堂을 세우게 하였다. 이 당시 巡察使로 日本에 왔던 VARIGNANO ALESSANDRO(1539—1606年)은 京都와 安土에서 信長의 優待를 받았다.

信長이 죽은 다음 秀吉은 耶蘇敎에 好意를 가지고 있어서 家臣中에서 小西隆佐(KONISHI-TAKASUKE)와 그의 子 行長(YUKINAGA)과 黑田孝高(KUROTA-YOSHITAKA)(如水), 蒲生氏鄕(GAMŌ-UJISATO)등이 信者가 되고 名醫 曲無瀨道三(MANASE-DŌZŌ)도 洗禮를 받았는데 小西行長과 黑田孝高의 아들 長政은 本役에 活動한 바가 많은 將領이었다.

그러나 秀吉은 1587年(天正 15年, 宣祖 20年 丁亥)에 九州를 征伐한 다음 곧 이어서 宣敎師의 海外追放을 命令하여 各地의 敎會堂은 허물어 버렸으며 長崎港을 沒收하였다. 그런데 1584年 以來 比律賓에 있는 西班牙系 敎會가 日本과 交涉을 가지게 되니 耶蘇敎에서는 이것을 反對하고 그 다음해에 敎皇 GREGORIUS十三世(在位 1572—1585年)로 부터 耶蘇會 以外의 敎會가 許可 없이 日本에 布敎하는 것을 禁한다는 勅令을 내렸다.

秀吉은 全國을 統一한 다음 1591年(天正 19年, 宣祖 24年 辛卯)에 呂宋에 來貢을 求하는 書信을 보냈는데 呂宋에서는 宣敎師 BAPTISTA PEDRO(1545—1597年)등이 秀吉의 許可를 얻어서 京都 大阪등地에 布敎를 시작했고 長崎港에도 宣敎師를 駐在케 하였는 바 이로 因하여 耶蘇敎와 激烈한

대립이 일어나 1596年(慶長元年, 宣祖 29年 丙申)에 西班牙의 船舶인 SAINT FILIP號가 四國땅 土佐(TOSA)에 漂着한 事件이 發端이 되어 드디어 BAPTISTA PEDRO와 그 밖의 25名의 宣敎師와 信者들이 長崎에서 處刑을 당하게 되었다. 이것을 「二十六聖人殉敎」라고 하는데 이 事件의 背後에는 이들 兩派의 抗爭이 그 原動力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日本의 社會相을 알려면 이러한 宗敎上의 觀察을 놓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당시 日本의 敎育面을 살펴 보려는 바 學制에 있어서는 寺小屋(書堂)敎育이라는 것이 있었을 뿐으로서 幼稚함을 免치 못하였다. 寺小(TERAGO)라는 것은 生徒라는 뜻이니 寺小屋(TERAGOYA)은 一般 庶民의 子弟들을 對象으로 하여 初步的 實用知識과 技藝를 가르쳐 주는 私設敎育機關이었다. 이 起原은 學者 平泉 澄의 說에 依하면 西紀 1555年(天文 24年, 明宗 10年 乙卯)에 越前國 江良浦에 設立한 것이 처음이라 하였고 또 日本敎育史資料에 依하면 文明年間(1469—1486年)과 大永年間(1521—1527年)에 設立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참으로 隆盛하게 된 것은 商業資本主義가 勃興하여 庶民들 사이에 讀書, 算數의 要求가 높아지게 된 以後로서 本役을 지낸지 20年뒤인 江戶幕府때 以後에 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日本의 敎育制度는 遲遲不振하고 幼稚하였음을 알 수 있다. 先生은 平民身分이 가장 많았으며 武士와 僧侶가 다음을 차지하였고 各 寺小屋의 生徒數는 50名을 넘지 못하였고 女子는 男子의 半도 못되었다. 이런 까닭으로 本戰役에 參加한 日本將兵들은 將領으로 부터 卒伍에 이르기까지 擧皆가 文盲者들이었고 從軍僧들이 文筆로써 한몫 보는 形便이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社會風俗의 一班을 살펴 본다면 먼저 日本人의 家庭生活에서는 다음과 같은 特異性이 있었다.

(1) 家督相續——本家系統의 家長을 「家督」이라 하였고 「一族의 長」 또는 「門葉의 棟梁」이라고도 하였는데 共同祖先의 直系가 차지하였다. 家督은 「惣領」(SŌRYŌ)이라 하여 一族의 所領에 대해서 對外的으로는 單獨의 領知者였으며 內部的으로 所領이 細分되었다 하더라도 對外的으로는 所領全部를 單獨으로 支配收益하는 方法을 取하여 分割相續을 미리 防止하였다. 財產은 嫡子가 獨占하고 다른 諸子들은 이에 扶養받게 되어 小家族이 族團的 結合에서 獨立하는 傾向이 있었다.

(2) 親權의 絶對性——이것은 鎌倉幕府 以來 強調되어 아들은 如何한 경우에도 父母를 告訴할 수 없었으며 父母는 敎令에 服從하지 않는 아들을 自由로 義絶할 수 있고 또 아들에게 물려 주었던 所領을 任意대로 되찾을 수 있었으며 또 아들의 婚姻에도 父母는 強力한 支配意思를 行使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風潮를 크게 볼 때에 豐臣秀吉이 여러 將領에 대한 絶對性을 形成하는 것을 示唆하는 것이다.

(3) 夫權의 尊重性——妻는 男便에 대해서 絶對 服從하여야 하고 武士의 法則에서는 男便의 死後에도 妻는 貞節의 義務가 있었다. 蓄妾은 盛行하였고 妻妾에 差를 두지 않았다.

(4) 養子——令制에 依한 相續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家門의 勢力增大를 위하여 家督相續

人을 시키는 外에 一族과 同輩, 또는 家臣의 子孫을 養子로 하고 또 女人이 養子를 맞이 하기도 하였다. 豊臣秀吉의 養子가 그 좋은 例라 하겠다.

(5) 隱居制度——鎌倉時代以後 부터 隱居制度가 나타나서 室町時代에 普及되었으니 家父는 生前에 집과 財產을 相續人에게 넘겨 주고 對外的으로 집을 代表하는 位置에서 물러 났었다. 本役에서의 黑田孝高, 淺野長政, 小早川隆景등이 一例라 할 것이다.

以上 말한 家族生活關係는 戰國時代 以後에는 多少의 變化가 있었고 安定한 秩序를 가져온 것을 볼 수 있다. 一家의 代表를 當主(TŌSHU)라 稱하여 配偶者와 直系血統만을 本來의 構成員으로 하고 그 밖의 傍系者를 「厄介」(YAKKAI)라 稱하여 本來의 家族과 區別하였다. 家祿世封이 집의 基礎가 되고 家祿의 給與로써 武士의 집이 設立되고 家祿沒收로써 그 집이 斷絶되었으나 庶民의 집은 家產家業을 世襲하여 存續하였다. 家父는 子孫에 대해서 廣汎한 監督權을 行使하여 座敷牢(ZASHIKIRŌ)(家庭獄)에 監禁하거나 子孫에 非分事實이 있으면 殺害할 수도 있었는가 하면 또 敎令에 不服하는 子를 放逐하고 父子關係를 斷絶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社會環境에서 본다면 豊臣秀吉의 군사들이 간직한 上下關係가 어떠하였을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6) 婚姻——武士는 身分上의 行爲에 대해서 政府監督을 받았으므로 婚姻은 미리 請願하여 許可를 받아야 하였다. 男便은 妻에 대한 懲戒權을 行使하고 妻의 姦通現行犯은 그 자리에서 죽여도 罪가 되지 않았으며 또 妻의 非法에 대해서는 죽이는 것을 認定하였다. 離婚은 男便이 專權的으로 權利를 行使하여 三行半(MIKUDARI HAN)의 離緣狀 1通을 주는 것이 法律的 要件이 되었다.

(7) 相續——武士는 家祿의 相續이 許可됨으로써 집을 相續하고 嫡子의 單獨相續制가 確立되어 있었으며 그 相續은 許可制였으므로 遺言의 餘地가 없었고 實子가 없을 때에는 미리 養子를 만들어 놓아야 하였다. 庶民은 惣領이 相續하지만 財產은 諸子에게 分割되는 慣習이 傳하여졌으며 生前에 遺言狀을 만들어 두는 것이 通例였다.

日本에서는 厄年(YAKUTOSHI)이라는 것이 널리 믿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男女에 따라서 다르지만 2歲로부터 88歲까지 23回에 걸쳐서 있는바 特히 男子의 13, 25, 43, 61, 77, 88歲와 女子의 13, 19, 33, 77, 88歲는 大厄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13歲가 되면 한 사람의 社會人으로 대우 받는 最初의 段階이고 61歲가 되면 鄕村에서의 모든 役을 免하게 되는 나이이므로 이 13歲에서 61歲에 이르는 동안을 한 사람의 活動期로 보는 것이었고 成年式은 보통 13歲에서 15歲 사이에 가지게 되는 것이었으며 武士로서는 이미 13歲부터 初陣(UIJIN)을 갖고 征戰의 첫 經驗을 쌓게 되는 것이었다. 日本사람의 宗敎觀의 特質을 본다면 「人間이 죽으면 神도 될 수 있고 佛도 될 수 있고 神, 佛 兩쪽 모두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神佛은 靈界와 人間界를 人間의 儀禮를 媒介로 하여 往復할 수 있다고 보았고 또 人間 그 自身도 같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니 生佛, 生神, 現人神(AKITSUGAMI)등

의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出生하면 곧 氏子入(UJIKO-IRI)이라는 禮式을 가지게 되는데 氏神에 參拜하는 것으로서 生後 30日 뒤, 또는 33日뒤에 지내는 것이 通例이지만 地方에 따라서는 7日만에, 또는 百日, 110日만에 지내기도 하는데 모두 人間으로서의 承認을 받는 儀式으로 비로소 氏神과 交涉을 갖게 되는 것이였다. 秀吉의 無所不能에 가까운 權勢는 이러한 社會環境에서 굳건히 이루어졌던 것이다.

다음으로 당시의 日本國內에 있어서의 道路, 橋梁, 其他의 一般 公共施設의 狀況을 살펴본다면 中世에 있어서의 國家의 衰退로 말미암아 鎌倉幕府가 東海道의 道路와 橋梁에 어느 程度로 着意하였던바도 있었지만 그것을 除外하고서는 모두 地方의 一般大衆에게만 一任하였으므로 많은 勞力과 物力이 必要한 이러한 事業에 大衆이 呼應할 理가 없어 매우 粗雜한 형편으로서 그 發達을 期待할 수 없었다. 그 밖의 公共施設, 例컨대 無料宿泊所와 燈臺, 防波堤등의 海難防備施設도 整備되지 않았으며 僧侶들은 世人의 尊敬을 받고 勞力과 物力을 모우기 쉬웠으므로 이들 僧侶들이 이 方面에 힘쓴 例가 많았다.

宿泊施設은 一部 幹線道路와 都市에만 되어 있고 그 밖에는 없었으므로 旅行人은 野宿을 하던가, 寺院, 또는 民家에서 一夜의 宿泊을 請하게 되어 그 不便이 매우 많았다. 또 社會의 不安에 따라 山賊과 海賊이 跳梁하여 旅行人들은 迂回路를 擇하거나 武裝集團으로 對備하여야 되었으며 公共의 警備對策은 매우 微弱하였다.

마지막으로 日本의 社會情勢에서의 特異한 것으로 民擾事件이 比較的 많았다는것을 附言하여야 될 것인데 이에는 一向一揆(ICHIKO-IKKI)를 비롯하여 土一揆, 國一揆등이 있었다. 一揆라는 것은 民擾라는 뜻인데 一向宗(眞宗本願寺派)의 門徒들이 일으킨 擾亂事件을 一向一揆라 하였다. 이것은 西紀 1487年에 加賀國(金澤縣)을 中心으로 하는 北陸地方에서 일어난 것인데 眞宗門徒들의 蹶起로 守護인 富樫政親을 自殺케 한 다음 本願寺 門徒들은 農民과 土豪, 僧侶들의 聯合勢力으로 支配하게 되어 約1世紀 동안이나 領主를 威脅하게 되었다. 또 1563年(永祿6年, 明宗18年 癸卯)에 三河(MIKAWA)國의 領主 松平(MATSUDAIRA)氏의 武士團과 三河 一向宗徒사이에도 大規模의 騷亂이 일어났으며 그 밖에 飛驒(HIDA), 近畿, 紀伊(KII)國의 雜賀(ZŌGA), 尾張國의 長島등地에서도 一向宗徒들은 領主들과 激烈하게 싸웠던 것이다. 이 당시의 農民들은 團結과 組織을 가지게 된 다음에는 그 힘을 利用하여 더욱 強化되려는 封建支配에 대해서 強하게 反抗하게 된 것이였으니 그 反抗은 먼저 古代的 莊園領主에 대해서 地方의 豪族들과 結托하고 年貢不納의 條件을 내걸고 싸우게 되었다. 莊園制가 무너지게 된 뒤에는 土豪와 武士들과 對抗하게 되었는데 土豪와 武士들은 큰 組織을 가진 門徒農民相對로 싸우느니보다는 오히려 農民들의 反抗力을 利用하여 더 上級인 守護와 領主들과 싸워서 自己들이 領國의 覇權을 쥐려고 하였던 것이고 이것이 北陸과 三河의 民亂이 된 것이였다. 그러나 이러한 一向一揆도 信長이 統一한 다음 더욱 強烈한 封建勢力을 構築하게 되고서 부터는 抑壓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一向一揆의 마지막 反抗이 된 石山 本願寺 一揆는 戰國時代의

覇者였던 信長으로 하여금 11 年동안이나 行動의 拘束을 받게 하였으며 드디어 條件附 媾和를 맺게 하는 그러한 威力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禪宗, 淨土宗, 日蓮宗등의 宗派는 莊園的인 土地를 가지고 있었으며 中央貴族에게 基盤을 둔 舊佛敎寺院과 中央과 地方의 武士들을 後援者로 삼고 그 援助로 寺院을 經營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封建支配者들의 武運長久를 祈禱하는 터이었으나 眞宗은 農民들을 布敎對象으로 하여 그 零細한 喜捨 위에 經濟基盤을 세우고 있던 터이므로 眞宗의 末寺의 僧侶들은 農民門徒들과 같이 前進하는 길만이 眞宗의 사는 길이 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므로 約 1 世紀동안에 결쳐서 싸운 一向一揆의 性格은 信仰의 自由를 위하거나 敎團의 改革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곧 眞宗本願寺 敎團의 團結의 힘을 빌린 農民들이 더 強化되어가는 封建支配에 대한 싸움이었던 것이오, 그러한 뜻에서 一向一揆는 宗敎의 탈을 쓴 農民騷擾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日本國民의 好戰的 氣質의 一面을 보여 주기도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土一揆(TSUCHI-IKKI)라는 것은 鎌倉幕府의 中葉부터 約 1 世紀동안에 결쳐 各地에서 展開된 農民들의 鬪爭인데 그 目的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고 南北朝時代의 內亂의 틈을 타서 더욱 激化되었으며 그 戰術도 強訴에서 逃散으로, 다시 나아가서는 武力蜂起로까지 進展되고 鬪爭組織도 日常生活組織인 「惣(SŌ)」을 基盤으로 하는 恒久的인 組織으로 發展되어 갔으며 그들의 意圖하는 바는 다음과 같았다.

(1) 賦役등에 依한 奴隸的 身分에서의 解放.

(2) 年貢과 段錢의 減免.

(3) 莊園領主와 代官, 地頭등의 非法行爲 停止.

(4) 德政令의 發布要求.

(5) 高利貸資本을 가진 支配勢力의 消滅.

西紀 1428 年(正長元年, 世宗 10年戊申)은 類例없는 큰 飢饉의 해였는데 이 해 가을에 近江國의 馬借(賃馬의 馬夫군)들이 떼를 지어 당시 首都인 京都市內에 쳐들어갔는 바 農民들과 市民들이 이에 呼應하여 酒造場, 米穀倉庫, 寺院, 典當舖등을 襲擊하고 典當잡힌 物件을 強奪하고 借用證등을 찢어버렸던 것이다. 이러한 騷動은 곧 大和, 伊賀(IGA), 伊勢(ISE), 紀伊, 和泉(IZUMI), 河內(KŌCHI)등 近畿地方 各地에 波及되었는 바 이것은 이러한 地域이 京都와 奈良에 대한 商品流通路가 되어 있었던 탓이고 또한 이 地方의 農民層의 힘이 벌써 守護大名들의 領國制確立을 困難케 하였던 까닭이었다. 이리하여 이 領國制위에 서 있던 幕府와 여기에 붙어서 古代權力을 느리고 있던 支配階級들이 크게 당황하였으니 大乘院日記目錄에 依하면 「日本開闢 以來의 土民蜂起요, 亡國의 시작이라.」고 까지 외치고 있다.

다음해인 1429 年에는 播磨(HARIMA)國에서 守護以下의 武士들을 國外에 追放하자는 큰 規模의 土一揆가 일어나 守護의 出兵으로 겨우 鎭壓할 수 있었다. 이 다음부터는 每年같이 一揆가 일어났으나 西紀 1441 年(嘉吉元年, 世宗 23年 辛酉)에는 永享, 嘉吉亂에 依한 政界의 混亂을 틈타

서 다시 크게 일어났는데 이 때에도 近江의 馬夫들이 先頭에 서서 倉庫를 襲擊하고 德政令의 發布를 要求하였다. 이 一揆때에는 鎭壓하러 갔던 諸侯의 家臣들이 도리어 一揆에 加擔하게 되어 庶民에게 베풀어지던 德政令을 武家公家에까지 適用하게 되도록 그 戰線의 結成이 廣汎하게 되었고 그 戰鬪組織도 秩序가 整然하여 큰 成果를 거두었다. 이러한 土一揆의 頻發은 뒤이어 應仁, 文明의 亂에 依한 幕府의 崩壞와 莊園制 沒落에 커다란 役割을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武力至上主義을 더욱 謳歌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음에 國一揆(KUNI-IKKI)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一國(縣)의 사람들이 一國(縣)的인 規模를 가지고 그 동안 守護들만이 가지고 있던 領主權을 그의 單獨 侵略에서 막아내려는 一揆을 일으킨 것을 稱하는 바 이것은 室町幕府가 成立된 다음 足利氏 一族과 功臣들을 全國의 守護職에 配置하였을 때부터 일어난 것이니 새로 任命된 守護들이 守護代와 從來의 家臣들만 데리고 入國하여 一定한 據點을 지키면서 一國支配를 強行하려는데 대한 反撥로 일어난 것이었고 國人을 地盤으로 하여 謀叛을 일으켜 主家를 征伐한 下剋上의 現象이 各地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一揆들은 守護가 幕府의 權力을 背景으로 하여 分國內에 據點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그의 밑받침으로 한 다음 武力과 懷柔政策으로써 徐徐이 各個로 鎭壓할 때에 비로소 成功하였으나 守護大名領의 分解作用은 農民層의 밑에서부터의 成長과 地方土豪들의 自衛的團結앞에 어찌할 道理없이 促進되어 마침내 戰國大名에 依한 封建制 確立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1252P圖版 參照)

<辻善之助著 日本佛敎史近世篇, 三浦周行著 戰國時代의 國民議會, 稻垣泰彦著 土一揆(歷史學硏究百三十七), 笠原一男著 日本에서의 農民戰爭, 姉崎正治著 切支丹傳道의 興廢>

略　　歷

黑田 如水(孝高) (KURODA-JOSUI)

黑田長政의 父로서 初名을 官兵衛라고 하였으며 老年에 剃髮하고 如水라 하였다. 豐臣秀吉을 섬겨서 中國, 四國, 九州를 征伐하는데 功이 있었다. 封을 아들 長政에게 넘겨 준 다음에도 秀吉에게 近侍하여 軍議에 參與하였으며 本役에는 淺野長慶과 같이 건너와서 諸軍의 監軍으로서 賞罰을 斷行하였고 뒤에 關原戰에는 德川家康에 屬하여 九州地方을 制壓하는데 功이 있었으며 宣祖 37年(1604年, 慶長 9年) 59歲로 病死하였다. 當時 熱烈한 耶蘇敎信者로서 SIMEON이라는 敎名을 받기도 하였다.

三, 明의 社會情勢(神宗代까지의 槪況)

明나라의 社會階級의 區分을 살펴 본다면 이 당시의 支配階級으로서는 獨裁君主와 그의 一族, 文武官僚層과 鄕紳등이 있었고 그 밑에 被支配階級으로 良民과 賤民인 奴婢등이 있었다. 良民은 그의 職業에 따라 戶籍上 軍戶, 民戶, 匠戶, 竈(조)戶의 네가지로 區分되었으며 各戶籍에 따라서 統治하는 機關과 그系統에 差異가 있었다. 이 가운데서 國家의 主要한 統治對象은 물론 民戶였으며 이들이 被支配階級中에서 가장 많은 數를 차지하여 州縣의 管

轄에 屬하여 있었다.

이러한 民戶는 農, 商과 匠戶에 編入되지 않는 都市와 農村의 手工業者를 包含하고 있었는데 전혀 田土를 가지고 있지 않은 佃戶(一定期間 土地를 貸耕하는 집.)와 傭工(被傭勞動者)도 民戶이었지만 이들은 「畸零戶」라 하여 特別取扱을 받고 法規上으로는 徭役을 免除 받게 되어 있었다. 宋, 元時代에는 地主와 佃戶 사이에는 主從의 分을 認定하였으나 明代에는 이것을 改正하고 아무런 主從關係도 없게 하였다. 奴婢는 法律上으로 貴族과 官人만이 그 所有를 허락 받았으며 庶民에게는 認定하지 않았으나 現實에 있어서는 여러가지의 脫法行爲로써 庶民들의 奴婢所有도 있게 되었는데 奴婢는 原則的으로 主人의 戶籍에 들어 있었다. 이 밖에 全然 戶籍에도 登錄되지 않은 浮浪者가 中期以後에 많은 數를 헤아렸으며 또 西쪽과 東南쪽 諸省의 未開民族社會에 대해서는 元代 以來의 土司制度가 行하여지고 있었다. 皇室에서는 代代로 皇子를 封하여 親王으로 하고 國號를 定하여 그 國號에 該當하는 地方에 王府라고 稱하는 邸宅을 세우고 嫡長子孫에게 世襲케 하였으나 그 地方의 統治는 허락하지 않았다. 또 諸王들은 合法, 또는 非合法의 여러가지 手段으로 그 莊田을 擴大하여 皇莊과 같이 큰 弊害를 낳게 하였으며 國初 以來로 歷代의 功臣과 外戚, 그리고 皇女의 駙馬들은 公, 侯, 伯의 封爵과 그에 따르는 祿米, 또는 祿田을 下賜 받았는데 이 封爵은 世襲의 世爵도 많았다. 祿米는 封爵에 반드시 따랐으나 祿田은 特別한 待遇를 받는 者만 받았으며 莊田的 性格을 가지고 있었다. 官僚는 科擧에 依하여 採用되는 것이 常例였으며 이들은 支配階級의 中樞로서 俸祿이 적은 關係로 中期 以後에는 收賄등으로 私財를 蓄積하여 地主의 自作農階級은 政治的 收奪로 沒落하는 傾向이 있었다. 國家的 收奪의 原因은 위에 말한대로 綱紀가 紊亂된 것 밖에도 몇가지 要素가 숨어 있었으니, 官僚機構의 膨脹이 其一이고, 傭兵의 增加가 其二이며, 貨幣經濟의 發展이 其三이라 하겠다.

이렇게 하여 沒落한 사람들은 流民 또는 傭工이 되었으며 또 개중에는 獨立生計를 維持하면서도 일부러 貴族, 官人의 戶籍안에 들어가 登錄되기도 하였다. 이들의 所有地는 그 家人에 依하여 耕作되는 部分이 많아지고 明末에 蘇州地方에서는 一家에서 3千名의 家族을 가진 者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이들 家人들의 大部分은 사실상 佃戶로서의 生活을 하였던 것인 듯 하고 또 이 時代의 傭工들은 이러한 農民層의 分解過程가운데서 出現한 것이며 그 出身別은 自作農과 佃戶, 그리고 家人등 여러층이 있었는데 이들은 都市안에 흘러 들어가서는 各種의 勞務者가 되어 手工業者에게 使用되거나 또는 農村의 使役人으로 活用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 당시에 甚하였던 政治的 收奪로 因하여 沒落危機에 처하여 있던 여러곳의 地主와 富農들은 傭工을 使用하여 生產의 集約化를 도모하므로써 이 危機를 빠져 나가기로 한 것이였다. 이 때에 農村의 이러한 傭工들이 훌륭한 技術의 保持者로서 人氣가 높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들의 出身이 自作農, 또는 佃戶였다는 것을 推測할 수 있다. 또 이 당시 華北地方에서도 農民層이 分解하여 大土地所有者가 나타나게 되고 大土地의 富農的 經營

으로 많은 家人과 傭工(雇工)을 活用하는 큰 規模의 營爲를 하는 傾向을 나타내게 되었다. 또 이 당시 華中地方에서는 土地가 都市에서 살고 있는 官僚와 商人들의 손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不在地主가 많게 되고 佃戶는 地主들의 直接的 監視의 눈을 벗어나게 된 결과 各自가 商業的인 作物을 栽培하게 되고 農村의 手工業을 展開하게 되어 獨自의 立場에서 貨幣經濟를 차지하게 된 나머지 드디어는 反稅運動을 일으키고 國禁을 犯하여 南洋方面에 移住하기에 이르렀는 바 이렇게 하여 農村階級은 점차로 分化作用을 일으키게 되어 뒤에는 階級鬪爭까지 자아내게 되었다. 이 時代는 君主獨裁의 專制政治가 極度로 발달한 時代여서 排他的風尙을 鼓吹하면서 國粹主義에 철저한 나머지 새로운 創造的 活氣를 찾아볼 수 없고 社會風潮가 사치하고 淫靡하여 虛僞卑俗을 免치 못하였으며 北虜南倭의 소식속에서도 宮廷은 항상 宴遊의 中心이 되고 그 社稷이 亡할 때에도 九千宮女의 脂粉값이 每年 40萬兩에 達하는, 그러한 安逸主義와 歡樂追求主義로 墮落하고 있었다. 明나라 初期에는 國內에 留하고 있던 蒙古色目人과 契丹人들이 漢式姓으로 改姓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太祖는 胡人들의 漢式改姓을 禁止하였으나 成祖때에는 各衛에 있는 韃靼人들에게 同名이 많으므로 特히 漢姓을 주어서 區別하게 되었으므로 이로써 種族들이 混合한 바 많았음을 엿볼 수 있다.

明나라 冠服은 대체로 唐宋을 따랐으나 그 가운데서 特殊한 것은 網巾이었다. 또 初期에는 百官이 轎를 타지 못하였으므로 儀門밖에는 반드시 乘馬臺가 있었다. 太祖는 勳臣이라 할지라도 騎射를 廢함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上公이라도 乘馬케 한 結果인데 景帝(7代 景宗)때에 三品 以上에게 轎를 타는 것을 허락하고 四品 以下에게 乘馬케 하였으므로 尙武의 風이 사라지게 된 것을 엿볼 수 있다. 本役에 提督 李如松이 轎를 타고 鴨綠江을 건너 왔던 것이다.

그 밖의 冠婚葬祭의 儀式은 前代와 大同小異하였으나 淫祠巫覡의 迷信과 官民 共히 賭博雜技를 하는 弊風이 많았다. 刑法은 太祖 30年에 大明律을 頒行하였는데 吏, 戶, 禮, 兵, 刑, 工律의 460條로 되었고 刑名에 笞(5等), 杖(5等), 徒(5等), 流(3等), 死(2等)의 5類를 20等으로 나누었으며 犯人이 知縣의 處分에 不服할 때에는 知府, 道臺에게 控訴하고 또 按察使에 抗告할 수도 있으며 이들의 處分에 不服할 때에는 京師의 都察院에까지라도 上告할 수 있게 되었다.

또 太祖는 廷臣의 犯罪에 대하여서는 廷杖과 俸贖의 二刑을 시작하였으나 그러나 太祖와 成祖는 天性이 猜忌가 많고 殘忍하여 參夷誅戮을 例事로 하였으며 太祖는 錦衣衛로 하여금 緝捕刑獄의 事務까지 兼하게 하였으므로 이것을 「詔獄」이라 하였다. 成祖는 東廠을 만들어서 逆謀, 妖言과 大奸惡등을 緝訪케 하였는데 이미 말한대로 宦官들이 이것을 主管하여 錦衣衛와 그 權을 같이 하였고 憲宗때에는 따로이 西廠을 만들었으므로 애매하게 죽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므로 그 刑罰도 殘忍하여 剝皮, 斷脊, 墮指, 刺心등의 非刑이 行하여졌다.

이 時代의 宗敎에는 佛敎와 道敎와 基督敎의 세가지가 있었는데 佛敎는 元代에 流行한 喇嘛敎를 대신하여 唐, 宋 傳來의 中國 佛敎가 復興하였으며 末期에는 高僧이 輩出한 결과 一

宗 一派를 가리지 않고 널리 禪, 華嚴, 天台, 淨土의 諸宗을 融合統一한 이른바 混融佛敎를 唱道하여 新生面을 열었으며 나아가서는 佛, 儒, 道 三敎의 一致를 主張하게 되었다.

道敎는 元代에 全盛을 보았던 全眞敎를 대신하여 舊來의 正一敎가 다시 勢力을 폈는데 敎理信仰面에서의 새로운 發展은 볼 수 없었고 萬曆年間에 道敎經典의 集成인 道藏의 纂修가 있었을 뿐이었다. 太祖는 道士 張正常을 眞人으로 하여 正二品秩을 주었으며 歷代로 道敎를 保護하였으나 그 自身이 信奉한 것은 아니었다. 世宗(嘉靖帝)은 道敎를 狂信하여 佛敎를 排擊하고 宮中에 道觀(道士의 修業하는곳.)을 建立하고 道士 邵元節을 眞人으로 하여 天下의 道敎를 總領케 하고 道士 陶仲文을 少保 禮部尙書로 起用하여 恭城伯을 封하고 죽은 다음 榮康仲肅이라는 古來로 없던 四字諡號를 下賜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道士가 京師에 모여 들었으며 이들은 不法과 姦惡을 恣行하여서 狂信者 世宗은 마침내 道士 王金등이 바친 丹藥을 먹고 죽었으며 穆宗(隆慶帝)이 即位하자 道士의 惡徒들을 誅殺하고 道敎를 彈壓하게 되었다.

喇嘛敎는 紅帽派의 紅敎(SAMAR)와 黃帽派의 黃敎(SASOR)의 二派로 分裂되어 中世以後에는 紅敎가 衰하고 黃敎가 隆興하여 蒙古와 西藏은 모두 黃敎를 信奉하게 되었다. 黃派는 黃帽를 쓰고 黃衣를 입으며 娶妻하지 않고 化身轉生으로 그 敎를 傳하는 것이니 TSNG-KHAPA의 GERG派가 이것이다.

基督敎의 傳道는 元代부터 시작하여 元朝의 滅亡과 같이 中絶되었다가 1581年에 耶蘇會派의 MICHAEL RUGGERO(伊太利사람)와 MATTEO RICCI(同上)가 澳門에 왔으며 다음해에 ALESSANDRO VALIGUANI가 와서 中國 傳道를 위의 두 사람에게 命하였다. 이리하여 MATTEO RICCI는 廣東에 가서 總督의 任所인 肇慶府에 留하면서 天文, 地理, 數學등 科學을 敎授하는 一方으로 布敎에 힘쓰기를 20年間이나 하였다. 그는 1601年에 同派의 DIEGO DE PANTOJA(西班牙사람)와 같이 北京에 들어가 明廷에 時計와 聖畵를 바친 다음 漸次로 大學士 徐光啓와 太僕寺少卿인 李之藻등 高官들의 歸依를 얻고 宣敎에 힘쓴 結果, 드디어 神宗의 崇敬을 받게 되고 邸宅을 下賜받아서 北京에 天主堂을 建立하게 되었다. 이 뒤에 SABBATINUS DE URSIS(伊太利사람)등이 와서 一時 隆盛을 보았으나 1610年에 MATTEO RICCI가 죽은 뒤에 強烈한 反對가 南方에서 일어났으며 南京禮部侍郞인 沈潅등의 建議로 1618年에는 邪敎嚴禁令이 내려지고 北京에 있던 敎士들을 모두 澳門에 追放하는 한편 天主堂과 邸宅을 封禁하였다. 그러나 그 뒤 여러 宣敎師들이 들어와 다시금 布敎에 힘써서 明代末期에는 信者數 15萬名을 헤아리게 되었다.

또 이 때의 年中行事로서는 正月 元旦에는 疫病을 막기 위하여 屠蘇酒를 마시고 桃湯을 賞味하면서 새해를 맞이 하였으며 正月 7日에는 人日이라 하여 그 날의 晴曇溫寒으로 사람들의 安否를 占치기도 하고 七菜를 먹었고 15日은 上元이라 하여 콩죽을 쑤어서 門戶를 제사하고 年中의 疫氣를 물리치며 禊를 베풀고 曲水宴이라 하여 流水에 杯를 띄우고 술마시기도 하였으며 또 草餅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4月 8日에는 灌佛會를 行하고 5月 5日의 端

午에는 菖蒲酒를 마시고 粽을 먹기도 하였으며 7月 7日의 七夕에는 婦女子들이 乞巧라 하여 뜰에 果瓜를 놓고 織縫과 手藝의 熟達을 빌기도 하였다. 또 7月 15日은 中元이라 하여 盂蘭盆으로 부처를 供養하고 8月 15日은 中秋라 하여 달을 賞하였으며 9月 9日의 重陽에는 산에 올라가서 菊酒를 마시면서 長壽를 빌기도 하였다. 冬至에서 第3의 戌日을 臘日이라 하여 民間에서는 金剛力士를 만들어서 疫氣를 물리쳤으며 歲末의 除夕에는 追儺으로써 疫鬼를 쫓기도 하였으니 이러한 風習은 朝鮮을 通하여 日本으로도 흘러들어 갔다.

대체로 明代文化의 特色은 復古主義였다고 할 것이니 在來것을 繼承하여 다시 그것을 橫과 縱으로 넓혀서 장식한 것이라 할 것인데 蒙古사람을 驅逐하고 다시 漢民族의 손으로 支配權을 되찾았다는 뜻에서, 또 強한 外敵이 없이 消極的 防守政策만을 取하였으므로 緊張 없는 平和속에서 安逸로 消日하였다는 뜻에서, 또한 東西交通이 衰弱해진 결과 다른 文化의 새로운 要素가 導入되지 못하였다는 뜻에서 復古主義의 特色을 이루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옆으로 넓어졌다는데 지나지 않으며 큰 뜻에서 본다면 中國文化史上의 停滯期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당시에 王陽明(名은 守仁)이 나타나서 高潔剛直한 人格을 基調로 하는 理想哲學을 完全히 세워 知行合一說로 그 學德이 一世를 風靡한 것은 異彩가 아닐 수 없였다.

그 다음 選擧法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인데 이것은 考試制度로서 朝鮮의 科擧制度와 마찬가지며 明代에서도 前代와 같이 鄕試, 會試, 殿試의 別이 있였다.

鄕試는 子, 卯, 午, 酉의 每 3年에 1回式 各省에서 치루고 그 及第者를 擧人이라 하였으며 會試는 그 다음해인 丑, 辰, 未, 戌年에 역시 每 3年마다 한번씩 禮部에서 치루게 되는 것이고 殿試는 廷試라고도 하며 天子 親臨下에 치루는 것이였다. 이리하여 一二三等으로 區分하여 一等一甲에 3名을 뽑아서 進士 及第로 하고 이 3名中의 第一壯元은 翰林院撰修로 임명하고 第二榜限과 第三探花는 모두 翰林院 編修로 任命하는 것이였다. 또 二等二甲과 三等三甲은 定員이 없어서 進士出身으로 하고 二甲은 翰林院 庶吉士로 任命하고 三甲은 知縣候補로 採用하였던 것이다.

이 時代의 學制를 살펴 본다면 北京과 南京에 國子監이 있고 그 職員에는 祭酒, 司業, 博士가 있였으며 五經博士 5人이 있어서 分經講義하는 것이였다. 또 監生(學生)에는 다음의 4種이 있였다.

擧監生──擧人(朝鮮의 進士같은것.)　　貢監生──生員

廕監生──品官子弟　　例監生──捐貲(金品을 寄附하는것.)

또 入學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擧人, 貢生, 官生, 恩生, 功生, 例生, 土官, 外國生, 幻勳生과 勳戚大臣의 子弟등이였다.

成祖때에는 四書大全, 五經大全과 性理大全을 配布하여 敎授케 하고 또 科擧에 應하는 者도 모두 이에 따르기로 하였으므로 出世와 榮達을 바라는 者는 모두 大全을 諳記하여 그 說

에 따르기로 하였다. 書院은 明初부터 이미 各省에 있었는데 張居正이 政權을 잡으면서 嚴禁하였지만 그가 죽은 뒤에 또 設置하게 되어 徽州, 江右, 關中, 無錫의 四書院이 有名하였고 神宗대에 京師에 首善書院을 세웠고 各地에 이러한 書院의 建立을 보게 되었다.

地方에는 府, 州, 縣에 府學, 州學, 縣學을 두었는데 府學에는 敎授 1名, 訓導 4名, 生員 40명을 두었으며 州學에는 學正 1名, 訓導 3名, 生員 30名을 두었고 또 縣學에는 敎諭 1名, 訓導 2名, 生員 20名을 配置하여 敎育키로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生員은 生徒와 같은 것으로 廩膳, 增廣, 附學의 세가지가 있었으며 그 밖의 諸衛所에도 學校가 있었고 또 따로이 宗學, 社學, 武學등이 있었다.

<仁井田陞著支那身分法史, 和田 守屋 村上共著 東洋中世史第三篇明代>

第3節 朝鮮과 明과의 交涉(本役前)

要 旨

이미 第二章 摘要에서 말한대로 朝鮮과 明과의 交涉史는 朝, 明 兩國과 日本과의 그것 보다도 戰史上 直接的인 影響이 적다고 보는 까닭으로 여기에서 綜合的으로 取扱키로 하였는데 우리 祖上들이 事大의 禮를 다하는 동안에 있어서의 뼈저린 苦衷이 얼마나 컸던가를 主로 浮刻시켜 보고자 한다. 그러나 朝鮮과 明나라와는 日本 보다는 더욱 密接한 關係가 있어서 高麗末期부터 朝鮮建國初까지 사이에는 元과 明의 兩者 어느쪽에 事大하느냐 하는 것이 朝廷의 커다란 國策問題가 되었었다. 恭愍王 18年 부터는 元과 斷交하고 明의 洪武 年號를 쓰고 服色까지 바꾸었던 것인데 禑王 3年 2月부터는 다시 廣平府院君 李仁任(侍中)등의 策動으로 北元의 宣光年號를 쓰는 政策의 큰 轉換이 있었으며 同王 14年 4月의 遼東出兵의 壯擧를 敢行타가 同年 5月 李成桂의 威化島 回軍으로부터 4年만에 李氏王朝의 建國을 보게 되고 明나라에 대한 徹底한 事大主義政策으로써 國是를 삼다싶이 하면서 歷代王이 이 路線으로 一貫하여 내려오게 되었던 것이다.

鐵嶺은 江原道 淮陽郡과 咸鏡道 安邊郡과의 사이에 있는 道境界線을 이루는 嶺인데 15年 2月에 明나라에서는 鐵嶺衛를 세워서 이 嶺 以北을 遼東에 屬하게 하였으므로 이것이 導火線이 되어 禑王과 崔瑩의 遼東攻擊이 企圖되었던 것인데 回軍 以後에 明太祖는 鐵嶺衛를 세우는 것을 마침내 中止하게 되었다. 그러나 明나라는 朝鮮의 上國으로서 尊大하기 짝이 없어서 前後 2百年동안에 數十次에 걸친 使臣의 파견으로 李成桂의 宗系에 대한 誣告를 변명하였고 그 밖에도 進獻色과 進獻官馬色등을 만들어서 美女를 보내고 馬匹도 進貢하는 등 事大의 苦衷이 매우 컸던 바 이러한 眞相을 비교적 자세하게 文獻上에서 찾아보기로 할 것이다.

一, 近朝鮮 建國과 明太祖

恭愍王 17年(1368年, 洪武元年) 正月에 吳王 朱元璋이 帝位에 올라 國號를 大明이라 하고 8月에 徐達이 大都(元나라때의 北京稱)에 入城하게 되었으므로 元은 世祖로부터 10主, 109年단에, 鐵木眞으로 부터 꼽는다면 15主, 162年만에 亡하게 된 것이었다. 이리하여 順帝(惠帝라고도 한다.)는 大都에서 쫓겨나 上都開平府(直隸省宣化府)에 옮아가게 되었다가 다시 應昌(內蒙古捕魚海近傍 DORON NOR東쪽)으로 도망갔으며 그 뒤 얼마 안가서 1370年에 惠宗이 죽고 그 아들 昭宗이 서서 和林(外蒙古 鄂爾坤河의 上流)에 있

였는데 擴廓帖木兒(KUKU TIMUR)는 丞相이 되어 輔弼하였고 禑王 4年(1378年, 太祖 11年)에 昭宗이 죽고 그 아들 脫古思帖木兒(TUKS TIMUR) 가 王位에 올라 北方에 있으면서 明나라와 싸웠으니 이것을 北元이라 하였다. 이렇게 됨으로써 高麗는 비로소 元의 壓制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恭愍王은 僧 遍照(辛旽)를 師傅로 하여 國政을 맡기고 그를 眞平侯로 封하였다가 뒤이어 領都僉議司事로 하여 鷲峯宮에 封하였는데 뒤이어 弑逆의 陰謀가 나타나 드디어 그를 誅殺하게 되었다. 恭愍王은 無後였으므로 韓安, 洪倫등 嬖幸(寵愛하는 것)의 少年에 命하여 여러 妃와 姦通케 하여 男子를 얻으려 하였는데 하루는 宦者 崔萬生이 王을 따라 厠所에 갔다가 益妃 王氏가 洪倫과 通하여 잉태한 것을 告하니 王은 洪倫과 崔萬生을 죽이려 하였으므로 崔萬生이 크게 겁내어 王의 大醉한 틈을 타서 洪倫과 같이 王을 弑殺하였는 바 이 때가 恭愍王 23年 9月 22日이고 遍照의 아들 江寧府院大君 禑가 10歲로 即位하였으니 이것이 高麗가 亡하는 첫 걸음이었다. <高麗史卷四十四 世家四十四 恭愍王二十三年九月甲申>

明太祖는 恭愍王 18年 4月에 使臣을 보내어 자기가 即位한 것을 通告하게 하니 王은 5月부터 元의 年號를 使用하는 것을 中止하고 다음해 5月에 明의 册封使가 오게 되자 7月부터 明의 年號를 使用키로 하고 8月부터는 服色까지 바꾸게 하였다.

<高麗史卷四十一 世家四十一 恭愍王十八年四月壬辰, 高麗史節要卷二十八 同年四月, 治平要覽卷四十七國朝>

21年(1372年, 太祖 5年)에는 洪師範, 成均, 鄭夢周등을 明에 派遣하여 登極을 祝賀하고 子弟들의 明나라 遊學을 請하고 그 正朔(曆法)을 받들고 三年 一聘의 約定에 좇기로 하였다. 恭愍王이 죽고 禑王이 서니 어떤 사람이 守侍中(侍中의 次 位) 李仁任에게 말하기를 『國君이 弑殺되면 宰相이 먼저 그 罪를 쓰게 되는데 明太祖가 만일에 이 事實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問罪의 군사를 보낼 것이오, 그렇게 되면 公이 반드시 免할 도리가 없게 될 것이니 元과 和親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아오.』하였다. 이 말을 들은 李仁任은 果然 그렇다 하여 同意하는 바 있었다. 이에 앞서 明에서는 恭愍王 23年 4月에 禮部主事 林密과 孳牧大使 蔡斌등이 와서 耽羅(濟州島)의 말을 바치라고 하였는데 朝廷에서는 同知密直司事인 金義로 하여금 말 5百匹을 遼東에 護送케 하였다. 그러나 蔡斌등은 金義가 여러곳에서 遲留하므로 이를 죽이려 하였으며 이 事實을 알게 된 李仁任은 安師琦로 하여금 表面上으론 蔡斌등을 餞送한다고 하여 놓고 裏面에서는 金義로 하여금 蔡斌등을 죽이게 하였다. 金義는 開州站에 가서 蔡斌과 그의 아들 蔡執을 죽인 다음 北元으로 도망쳐 버리게 되었다. 李仁任은 또 百官連名의 書를 만들어서 장차 北元의 中書省에 바치려 하니 左代言 林樸, 典校令 朴尙衷, 典儀副令 鄭夢周등은 先王(恭愍王)이 이미 政策을 定하여 明에 섬기게 하였는데 이제 또 北元에 섬길 수는 없다고 反對하고 署名을 拒否하였다.

李仁任은 北元에 使臣을 보내어 先王의 喪을 報告케 하니 順逆利害의 論議가 일어났으며 禑王 元年 5月에 北元의 使臣이 오게 되자 李仁任과 贊成事 池奫(윤)은 使臣을 迎接하자고 主張하고 三司左尹 金九容과 典理總郞 李崇仁및 鄭道傳등은 이에 反對하여 都堂(議政의 政務室 都相의 政堂)

에 反對意見書를 내게 되었는데 그 大要에 이르기를『만일에 元의 使臣을 맞아들인다면 一國의 臣民이 모두 亂賊의 罪를 免치 못할 것이오매 他日 무슨 面目으로 玄陵(恭愍王)을 地下에서 뵈일 것이오니까.』하였다. 그러나 門下侍中 慶復興과 李仁任은 그 書를 退하여 받지 않고 드디어 鄭道傳으로 하여금 元의 使臣을 迎接케 하였다. 鄭道傳은 慶復興의 私邸로 가서 하는 말이『내 마땅히 元使의 목을 베어오리다. 그렇지 않다면 그를 결박하여 明나라에 보내리이다.』하여 言辭가 매우 不遜하였으므로 慶復興과 李仁任이 크게 怒하여 鄭道傳을 會津(羅州 땅)에 流配를 보냈는데 이어서 成均舘 大司成 鄭夢周와 判典校寺 朴尙衷이 또한 反對意見書를 내어 明을 背叛하고 元에 섬기는 不可한 뜻을 力說하니 드디어 贊成事 黃裳을 江界까지 보내 元의 使臣을 慰勞하고 그대로 돌려 보내기로 하였다.

그런데 獻納 李詹과 正言 全伯英등이 곧 上疏하여 李仁任과 池奫의 罪를 아뢰고 이 두사람을 誅할 것을 請하게 되자 鷹揚軍上護軍 禹仁烈과 親從護軍 韓理의 두 사람은 李仁任에게 아첨하는 뜻으로 上書하여 말하기를『諫官들이 宰相을 이렇다 저렇다고 論하는 것은 決코 작은 일이 아니오니 그 罪를 다스리옵소서.』하였다. 이리하여 李仁任은 李와 全을 下獄시키고 元을 섬기기를 反對하는 다음 사람들도 같이 下獄, 또는 流配시켜서 朝議는 드디어 元을 섬기기를 決定케 되었다.

成均舘大司成 鄭夢周——下獄 三司左尹 金九容——下獄

典 理 總 郞 李崇仁——下獄

이리하여 禑王 3年(1377年, 太祖 10年) 2月에 北元에서는 翰林承旨인 李刺的을 파견하여 禑王을 册封하여 開府儀同三司 征東行省左丞相 高麗國王이라 하고 또 敬孝大王(恭愍王)을 제사하니 이로부터 北元의 宣光年號를 다시 쓰게 되고 三司左使 李子松을 보내어 册命을 謝하게 하였다. 뒤이어 이해 7月에는 宣徽院使 徹理帖木兒를 보내어 定遼衛(明나라의 遼東治所)를 夾攻할 것을 命하니 晉川君 姜仁裕를 北元에 보내게 되어 더욱 깊은 關係를 맺게 되었다.

<高麗史節要卷三十 辛禑三年二月, 治平要覽卷百四十八, 國朝 高麗史卷百十四 列傳二十七, 卷百三十三 列傳四十六>

明에 대해서는 그 使臣을 죽인 뒤로 부터 겁을 내어 敢히 使臣을 보내지도 못하다가 禑王 元年에 判宗簿寺 崔源을 보내 喪을 告하고 諡號와 承襲(父王의 封爵을 이어 받는 것)을 請하게 한 다음 다시 4年 3月에는 判繕工寺事 柳藩으로 하여금 明에 가서 謝恩케 하고 禮儀判書 周誼로 하여금 諡와 承襲을 請하게 하였으나 明에서는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때에 國論이 다시 變하여 이해 9月부터는 元의 宣光 年號를 버리고 明의 洪武年號를 쓰게 되었다.

<高麗史卷八十七表二, 年表二 卷百三十三 列傳四十六辛禑>

禑王 5年(1379年, 太祖 12年) 3月에 沈德符가 明에서 돌아왔는데 明에서는 奏差 邵壘를 같이 따라 보내었으나 甜水站(遼陽東南쪽)까지 왔을 때에 高麗에서는 文天式을 使臣으로 하여 北元에 보낸다는 소문을 듣고 邵壘는 그대로 돌아가 버렸으며 沈德符는 明太祖의 手詔(손수 쓴 詔書)를 받이 가지고 왔다. 그 手詔에서는 먼저 使者를 죽인 罪를 責하고 約定한대로 歲貢을 바칠 것을 命

令하였으며 別途로 禮部尙書 朱夢炎은 다음과 같은 要求條件을 附加하고 있었다.

(一) 今年 歲貢의 말(馬)은 1千匹이나 執政의 陪臣이 5百匹을 먼저 가지고 來朝할 것이다.

(一) 明年 歲貢은 다음과 같으며 이것을 今後의 常例로 할 것이다.

金──百斤　銀──萬兩　良馬──百匹　細布──萬匹

<高麗史卷百三十四 列傳四十七, 治平要覽卷百四十八 國朝, 皇明實錄太祖高皇帝實錄卷百四十二 洪武十年十二月戊申>

이 해 6月에 北元에서는 僉院甫非를 보내어 昭宗이 죽고 脫古思帖木兒가 선 다음 禑王을 大尉로 册封하였으나 이 때에 政府方針이 이미 明을 섬기기로 되었으므로 門下評理 李芳을 明에 派遣하여 歲貢을 바치고 承襲을 請하였던 바 貢物이 約定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여 拒絕을 당하고 登州(山東省)에서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다.

<高麗史卷百三十四 列傳四十七辛禑>

6年(1380年, 太祖 13年) 2月에 北元에서 册使가 왔으나 4月에는 明에 崇敬尹인 周誼를 보내어 遼東까지 가서 『金義가 明나라 使臣을 죽인 것은 我國이 關知하는 바 이니옵니다.』는 뜻을 辨明케 하고 入朝의 許容을 請하게 하였다. 遼東守將은 이 뜻을 明太祖에게 아뢰니 太祖는 周誼를 逮捕하여 南京(이 때의 明나라 首都)에 押送하기를 命令하고 歲貢을 約定대로 한다면 使臣 죽인 罪를 용서하리라고 하였다. 그 뒤 여러번 使臣을 보냈으나 或은 歲貢이 定額에 차지 못하다 하여, 또 或은 定額에 찼으나 數年 동안 零碎한 물건을 모은 것은 誠意가 不足한 것이라 하여 모두 遼東에서 拒絕을 당하고 말았다.　<高麗史卷百三十四 列傳四十七辛禑, 高麗史節要卷三十一>

9年(1383年, 太祖 16年) 8月에는 贊成事 金庾로 하여금 海路로 明에 들어가게 하였는데 明廷에서는 時期가 이미 지낸 것을 責하고 法司에 내리게 한 다음 高麗가 만일에 明나라에 섬기기를 願한다면 5年부터 今年까지 5個年 동안에 못 바친 歲貢을 다음과 같이 一時에 바치라고 要求하였다.

馬──5千匹　金──5百斤　銀──5萬兩　布──5萬疋

이리하여 朝廷에서는 「進獻盤纏色」이라는 臨時官衙를 만들어서 進獻物을 收集케 하였으며 다음해 10年에 鄭夢周를 보내어 聖節을 祝賀케 하고 諡와 承襲을 請하는 一方으로는 連山君 李元紘(횡)을 보내 歲貢馬 1千匹을 獻納케 하였다. 이 當時에 國庫가 매우 空乏되었으므로 六品官에 이르기까지 金銀을 내게 하고 또 諸道에서도 모으게 하였으며 심지어는 魯國公主 殿閣의 金銀器까지 모아 歲貢에 充當키로 하였다.

鄭夢周가 入闕하자 明太祖는 그가 節日에 온 것을 기뻐하고 特히 慰撫를 내려서 優待한 뒤에 돌려 보냈으며 다음해 11年에는 門下評理인 尹虎를 보내어서 皇恩을 謝하고 諡와 承襲을 請하게 하니 明에서는 9月에 周倬(작)과 雒英(낙영)등이 와서 비로소 禑王을 封하여 王으로 하고 先王을 諡하여 恭愍이라 하였다. 朝廷에서는 10月에 判門下府事인 曹敏修를 보내어 謝恩케 하고 또 曆日과 符驗(城門의 夜間 通行證)을 請케 하는 동시 前元나라 舖馬(軍用驛馬의 牌)와 蒙古文字八部를 바치게 하였다.

12年(1386年, 太祖 19年) 2月에 鄭夢周를 보내어 王의 便服과 陪臣의 朝服 및 便服을 請하게 한 다음 歲貢을 削減할 것을 請願케 하였다.

이 때에 鄭夢周의 奏對가 適切하고 詳明하니 明廷에서는 歲貢의 常數를 減하고 3年마다 한번씩 朝貢케 하고 良馬 50匹만을 바치게 하였으므로 數年 以來의 宿望을 비로소 이루게 된 것이었다.

<高麗史卷百三十五, 卷百三十六, 卷百十七列傳鄭夢周, 高麗史節要卷三十二, 治平要覽卷百四十九國朝>

14年(1388年, 太祖 21年) 正月에는 다시 密直司使인 趙琳을 보내어 朝覲을 通할 것을 請하였는데 遼東에 까지 가서 그 以上 들어가지도 못하고 되돌아 왔으며 2月에 遼東都司는 鴨綠江을 건너와서 榜文을 써붙였는 바 그 內容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鐵嶺의 以北과 以東과 以西는 원래 開原에 屬하였던 것이므로 그 地方에 居住하는 軍人과 漢人, 그리고 女眞과 達達, 그리고 高麗는 모두 遼東에 屬한다.』라는 벼락같은 內容의 것이었다.

이에 禑王은 崔瑩과 의논하고 五道의 城을 修築하고 모든 元帥를 西北에 보내어 不意에 대비케 한 다음 使臣을 明나라에 보내 鐵嶺 以北에서 公嶮嶺에 이르는 땅은 元來 高麗의 領土이니 이것으로써 國境을 삼을 것을 請게 하였다. 이때 遼東에서는 鐵嶺衛를 세운다는 뜻을 通告하여 왔으므로 崔瑩은 禑王에게 권하여 遼東을 치기로 하여 八道의 군사를 徵集케 하였다. 公山府院君 李子松은 그 不可함을 力說하였으므로 崔瑩은 드디어 子松을 죽였으며 14年 3月에 王은 世子와 諸妃를 漢陽山城에 옮기고 贊成事 禹玄寶에 命하여 首都 開城을 지키게 하니 寧妃(崔瑩의女)와 崔瑩이 이에 따랐다. 王이 4月에 鳳州(鳳山郡)에 가서 崔瑩과 李成桂를 불러서 말하기를 『내 이제 遼陽을 치려 하니 卿들은 마땅히 힘을 다하라.』하였는 데 東北面都元帥 李成桂는 다음과 같이 四條項의 反對意見을 아뢰어서 諫하였다.

『小로써 大에 거스리는 것이 不可의 그 1이고, 夏月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不可의 2이며, 擧國遠征하면 倭가 그 틈을 탈 것이니 不可의 3이고, 때마침 暴雨로서 弓弩가 膠解하고 大軍이 疾疫할 것이 不可의 그 4이옵니다.』

그러나 王은 듣지 않고 平壤에 나가 다음과 같이 將領을 任命하고 遼陽을 치게 하니 그 總兵力이 3萬8千8百30名이었고, 傔從(用役하는 군인)이 1萬2千6百34名이며, 軍馬 2萬1千6百82匹인 바 衆 10萬이라 號하였다.

八道都統使——崔瑩	左軍都統使——曹敏修(昌城府院君)
西京都元帥——沈德符	西京副元帥——李茂
楊廣道都元帥——王安德	楊廣副元帥——李承源
慶尙道上元帥——朴元	全羅道副元帥——崔雲海
雞林元帥——慶儀	安東元帥——崔鄲
助戰元帥——崔公哲	八道都統使助防元帥——趙希古

八道都統使助防元帥——安　慶	八道都統使助防元帥——王　賓
右軍都統使——李成桂	安州道都元帥——鄭　地
安州上元帥——池湧奇	安州副元帥——皇甫琳
東北面副元帥——李　彬	江原道副元帥——具成老
助戰元帥——尹　虎	助戰元帥——裴克廉
助戰元帥——朴永忠	助戰元帥——李　和
助戰元帥——李豆蘭	助戰元帥——金　賞
助戰元帥——尹師德	助戰師帥——慶　輔
八道都統使助戰元帥——李元桂	八道都統使助戰元帥——李乙珍
八道都統使助戰元帥——金天莊	

이리하여 5月에 李成桂는 威化島에서 回軍하여 崔瑩을 高峰縣(京畿道交河府)에 流配하고 禑王을 江華島에 放逐한 다음 王氏의 後孫을 세우려 하였으나 曹敏修가 力說하여 禑의 아들 昌을 세웠으므로 群臣이 服從하지 않은 결과 드디어 曹敏修를 昌寧에 流配하고 73歲의 老將 崔瑩을 베였다. 이 때에 明나라에서는 鐵嶺 以北의 境界線 問題는 高麗의 主張에 一理가 있다 하여 鐵嶺衛를 세우는 것을 中止하였으므로 高麗에서도 使臣을 보내 禑王의 遜位와 崔瑩의 流配(사실은이미 죽였던 것.)를 報告하고 昌의 親朝를 許諾토록 請하였으나 明에서는 異姓을 세우는 것을 責하고 昌의 親朝를 反對하였다. 이 때에 禑가 李成桂를 죽이려 하다가 謀事가 탄로되었으매 禑를 江陵으로 옮기고 昌을 廢하여 江華島에 보낸 다음 20代 神宗의 7世孫인 定昌君 瑤를 세웠으니 이가 곧 恭讓王이고 禑와 昌은 1389年 太祖 22年 12月에 모두 죽이니 이 때에 禑가 25歲, 昌이 10歲였다. 뒤이어 李成桂는 李穡을 물리치고 鄭夢周를 죽인 다음 恭讓王 4年(1392年 太祖 25年) 7月에 王氏를 대신하여 即位하고 이어서 中樞院事 趙胖을 明에 보내어 即位를 告하고 또 密直司事 韓尙質을 보내어 國號를 朝鮮, 또는 和寧(그의 出生地 永興의 一名)이라 할 것을 請하게 하니 明太祖는 舊號에 依하여 朝鮮이라 稱하게 하였다.

太祖 2年에는 또 使臣을 보내어 馬 9千8百餘匹을 바치고 또 方物을 올리게 한 다음 高麗의 印信을 返納하고 成桂의 이름을 旦으로 고칠 것을 請하니 明에서 이를 허락하였다. 이리하여 一一이 明의 承認을 받기로 하여 屬國의 禮를 다하게 되었다.

<高麗史卷百三十七 列傳五十 辛禑十四年正月, 卷八十七表二年表二, 卷百十三列傳二十六崔瑩, 卷百二十六列傳三十九 姦臣二, 太祖實錄卷一卷首總書 辛禑十四年戊辰正月 四月 五月, 高麗史節要卷三十三 辛禑十四年正月, 卷三十五 同年三月庚子五月乙未, 卷三十五恭讓王四年七月辛卯, 朝鮮金石總覽下 二百七 楊州朝鮮太祖健元陵神道碑, 東國通鑑卷五十三 高麗紀辛禑十四年正月 四月乙巳 五月乙未, 卷五十六 恭讓王四年七月辛卯, 治平要覽卷百四十九 國朝, 明史卷三百二十 列傳二百八 外國一朝鮮 洪武二十五年>

二, 朝鮮 宗系의 辨誣

먼저 이 問題가 어찌하여 發端이 되었는가를 살펴 본다면 太祖 3年(1394年 明太祖 27年) 4月 25日에 明使로서 內史 黃永奇등 세사람이 와서 海岳山川등의 諸神을 제사지냈는데 그 告祭祝文에

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다.

『이전의 高麗의 陪臣인 李仁任의 後孫이 되는 成桂는 지금 이름을 旦이라 하고 있는바 陰陽으로 사람을 시켜서 明나라를 엿보게 하며 明나라 邊將을 誘引하고 沿海의 居民을 殺掠하고 있사오니 이러한 構禍는 곧 師를 일으켜 그 罪를 물어야 마땅할 것이로되 大兵으로 入境한다면 殺生이 반드시 많을 것이므로 아직까지 敢히 輕擧치 않고 이를 먼저 神에게 告하나이다.』하였다. 朝廷에서는 告祭의 祝文에 宗系를 誤記한 것을 重視하고 奏本 1通을 만들어서 明使 黃永奇에게 부탁하여 明나라 朝廷에 아뢰게 하였으니 그 奏本에는 다음과 같은 要旨로써 辨誣의 뜻을 아뢴 것이다.

『臣의 先祖는 원래 朝鮮의 遺種으로서 22代祖인 翰에 이르러 新羅를 섬겨서 司空이 되었던 바 新羅가 亡하게 되자 翰의 6代孫인 兢休가 高麗에 들어 왔나이다. 兢休의 13代孫인 安社는 前元을 섬겼으니 이가 곧 高祖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世世로 高麗의 官爵을 받지 않았으며 元末에 가서 군사가 일어나게 되자 父 子春은 元나라 땅을 避하여 東쪽으로 왔나이다. 臣은 조금이나마 武才를 배웠으므로 몸을 行伍에 두었으나 官이 아직 顯達하지 않고 있다가 恭愍王이 죽고 僞姓 辛禑에 이르기까지 16年동안에는 權臣 李仁任, 林堅味와 그리고 廉興邦등이 서로 이어서 國事를 쥐어 흔들고 生民에게 毒害를 끼쳐서 罪와 惡을 거듭하다가 필경 誅戮을 당하게 되었으매 臣은 원래부터 마음을 謹愼하고 다른 過失이 없었으므로 起用되어서 門下侍中이 되고 國政에 參與하였던 것이옵니다. 仁任과는 같은 本貫의 李氏가 아니옵니다. 臣이 國政을 맡아보게 되어서부터 仁任이 하는 것이 不法이므로 모두 이것을 바로잡으려다가 도리어 그 黨에게 미움을 받았으며 드디어 尹彝(이)와 李初가 上國에 도망쳐 들어가서 함부로 是非를 걸게 된 것이오며 그의 黨與가 아직까지도 中外에 潛伏하여 臣을 미워 하고 이제 이르러서도 紛紛하기를 마지 아니하옵니다.』하였다.

<太祖實錄卷五 太祖三年四月甲午, 卷六 同六月甲申, 三峯集卷三 青石洞宴飮記, 攷事撮要卷上紀年 洪武二十七年>

다음에 太宗의 奏文에 關하여 살펴 보려는 바 太宗 2年(1402年, 明惠帝 4年) 正月 8日에 聖節使로 明에 갔던 參贊議政府事인 趙温은 書狀官으로 갔던 司尹 孔俯와 같이 돌아와서 報告하기를 大明의 祖訓條章에 李成桂의 宗系가 李仁任의 後孫으로 되어 있다고 아뢰게 되니 3年 11月 15日에 아래와 같은 一行을 明나라에 보낸 다음 謝恩을 兼하여 宗系辨明의 奏本을 올렸다. 正使——司平左使 李彬

副使——驪原君 閔無恤

이 때에 올린 바 奏本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일찌기 洪武 27年(太祖 3年) 4月 25日에 欽差內史 黃永奇등이 와서 海嶽山川등의 神에 告祭하는 祝文에 高麗陪臣 李仁任의 嗣 成桂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미 具本奏聞하였사온 바 이제 또 다시 祖訓(祖訓條章)에 그렇다는 것을 聽知하옵고 兢惶하여 마지 아니하옵니다.……中略……恭愍王은 아들이 없어서 寵臣 辛旽의 子 禑로써 몰래 宮中에 키워 稱하여 自己의 아들이라

하였사오며 恭愍王이 죽으매 그 臣下 李仁任이 禑를 세워 뒤를 이었으며 臣의 父는 恭愍王으로부터 僞姓 禑에 이르기까지 16年間을 小心謹愼하였나이다. 禑의 末年에 이르러 門下侍中으로 擧用되었던 바 侍中 崔瑩은 不學狂悖하여 禑에게 아첨하고 딸을 바쳐서 妃로 삼게 하고 國政을 마음대로 하여 함부로 군사를 일으켜 諸將을 보내어 遼東에 向하려 하여 軍이 鴨綠江에 이르렀을 때 臣의 父는 때에 副將으로 그 군사안에 있었던 바 罪를 上國에 얻기 보다는 차라리 罪를 僞姓에 얻음으로써 一方을 安靜케 할 것을 생각하고 이에 諸將과 合議한 끝에 回軍하여 王氏의 後인 定昌君 瑤를 세웠던 것이옵니다. 仁任등은 僞姓을 함부로 세웠던 罪로써 論하는 바 되어 放逐을 당하였으며 禑와 그 아들 昌과 瑩등이 모두 誅殺을 당하였나이다. 瑤도 또한 不義였으므로 國人이 臣의 父를 推戴하여 國事를 權知케 하고 곧 奏聞에 올려서 太祖 高皇帝의 命을 받게 되어 國號를 고쳐서 下賜하시니 臣의 父 成桂가 비로소 이름을 旦으로 改名한 것이옵니다. 仁任의 曾祖 長庚은 本國 京山府(慶尙北道星州)의 사람으로 그의 祖父는 政堂文學 兆年이고 父는 同知密直 褒이오며 仁任의 子인 前大護軍 敞과 考功佐郎 眠은 일찌기 高麗에 섬겼사오며 그의 사위인 判承寧府事 姜筮(서)와 尙州牧使 權執經은 지금 本朝를 섬기고 있나이다. 臣의 宗系에 있어서는 各各 區別이 있사오매 伏望하옵건대 聖慈를 垂察하시와 臣의 宗系로 하여금 改錄을 얻게 하시오면 一國의 幸甚이옵니다.』하였다. 謝恩使 李彬과 閔無恤의 一行은 다음해 3月 27日에 明京에서 돌아왔는데 禮部에서는 咨文을 보내 宗嗣 問題는 請에 依하여 改錄할 것이라는 뜻을 告하여 왔다.

<太宗實錄卷六 太宗三年十一月己丑, 大明會典卷百五 禮部六十三主客淸吏司朝貢一, 攷事撮要卷上紀年永樂元年>

다음에 中宗時代의 宗系辨誣活動을 살펴 본다면 12年(1517年 明武宗 12年) 10月 16日에 王妃 尹氏의 冊封奏請使로 아래와 같은 一行을 明에 派遣하였는데 이들 一行은 다음해 4月 21日에 王妃의 誥命을 받들고 돌아 왔으며 正朝使는 大明會典을 사가지고 돌아왔다.

冊封奏請正使──李繼孟　　冊封奏請副使──李思鈞　　正朝使──李之芳

이 大明會典에 있는 朝鮮國註에는 다음과 같이 記載되어 있었다.

『李仁任 及 子 李成桂는 今名 旦이라는 者로서 洪武 6年부터 28年에 이르는 동안에 前後로 王氏의 四王을 죽이고 나라를 얻었다.』(李仁任及子李成桂今名旦者 自洪武六年至二十八年 首尾凡殺王氏四王而得國)라고 하였으니 四王이라는 것은 辛禑, 辛昌, 恭讓王의 세 王과 恭讓王의 世子 奭을 가르킨 것이다. 朝廷에서는 26日에 政院에서 이 問題가 다루어졌는데 이 大明會典은 民間의 私撰이 아니고 朝廷의 共撰이오, 明太祖의 遺訓으로서 李成桂를 李仁任의 後孫이라 하고 王氏의 四王을 弑殺하였다 하여 太祖와 太宗의 奏請이 조금도 改正되지 않았으므로 領議政 鄭光弼과 禮曹判書 南袞은 啓請하여 辨誣할 것을 力說하였다. 承文院에서 文書를 찾아보니 太祖朝와 太宗朝에서 크게 辨明하여 改正의 許可를 얻었는데도 不拘하고 다시 이같이 記錄되었으므로 곧 다시 辨明하기로 의논의 一致를 보게 되어 또다시 奏請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13年 7月 15日에 아래와 같은 一行을 明나라에 보내기로 하였다.

宗系辨誣奏請正使——左賛成 南 袞　宗系辨誣奏請副使——李 耔(자)
賀聖節使——方有寧　質正官——禮賓副正 崔世珍
書狀官——韓 忠　書狀官——盧克昌

이들 一行은 任務를 끝마치고 賀聖節使 方有寧은 이해 12月 25日에, 奏請使 南袞은 宗系改正의 허락을 받고 明京을 떠나려 하니 右賛成 崔淑生을 謝恩使로 삼았는데 崔淑生이 病이라 하여 사양하므로 臺諫의 탄핵하는 바 되어 드디어 그 告身(任命狀)을 빼앗아 버리게 되었다.

<中宗實錄卷二十八 中宗十二年七月癸未, 卷三十 (十月己未), 卷三十三 中宗十三年五月甲辰, 卷三十五 中宗十四年正月癸卯, 皇明實錄卷百五十七 正德十二年閏十二月戊戌, 燃藜室記述卷八>

14年(1519年明武宗14年) 4月 7日에 奏請使 南袞과 副使 李耔와 書狀官 韓忠등은 勅書를 받들고 明京에서 돌아왔는데 勅書에서는 宗系에 대한 것만 허락하고 四王 弑殺에 대해서는 言及되지 않았다. 그러나 朝廷에서는 謝恩使를 보내기로 하여 工曹判書 金克福을 正使로 하였는데 이들 一行은 9月 14日에 明에 갔다 돌아왔다.

<中宗實錄卷三十五 中宗十四年四月庚午, 明史卷三百二十 列傳二百八 外國一朝鮮>

23年(1528年, 世宗 7年) 12月에 世宗 皇帝의 皇后 陳氏가 逝去하였으므로 陳慰使 李芃(봉)과 進香使 李之芳을 明에 派遣하고 24年 5月 1日에는 賀聖節使로 僉知中樞府事 柳溥를 보냈는데 李芃은 5月 27日에 朝廷에 狀啓하기를 『大明會典이 改修된다 하오매 本國 宗系의 改正을 禮部에 請하여 허락을 받았나이다.』하였고 또 賀聖節使 柳溥는 李芃으로부터 大明會典의 改修를 듣고 7月 1日에 義州에 留하면서 다음과 같은 文書를 내려보내 달라고 請하여 왔으므로 朝廷에서는 南袞등이 奏請한 文書와 會典을 購買할 代金을 急히 내려 보냈다.

7月 3日에 陳慰使 李芃이 돌아오니 王은 特히 宗系呈文의 功으로써 酒를 下賜하였으며 따로이 奏請使를 보내는 것을 大臣들과 의논하였으나 모두 必要치 않을 것이라 하여 그만 두기로 하였다.

<中宗實錄卷六十四 中宗二十三年十二月甲午, 卷六十五 (二十四年六月甲子 丙寅), 皇明實錄世宗肅皇帝實錄卷百嘉靖八年四月>

24年(1592年明世宗8年) 10月 26日에 賀聖節使 柳溥등이 大明會典의 宗系 및 惡名의 削除件을 禮部에 呈文하여 改正의 允許를 얻고 돌아왔으며 謝恩使의 派遣은 改正의 實을 본 다음에 하기로 三公의 意見一致를 보았다. <中宗實錄卷六十六 中宗二十四年十月戊子>

그런데 賀正使 朴光榮을 이해 9月 20日에 보냈던 바 다음해인 25年 3月 22日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大明會典의 宗系와 惡名을 削除하지 않고 다만 本國奏請文과 聖旨를 註記한데 不過하다는 것을 啓聞하였다. <同上卷六十七 (二十五年 三月丙午)>

이리하여 이번에도 大明會典에서 完全하게 改正을 보지 모하게 되었으므로 29年(1534年 明世宗13年) 2月 1日에는 謝恩使 尹漑를 보내어 宗系改正을 私請케 하였으니 그는 明나라 內閣官員들과

序班 夏麟과 親交가 있기 때문이였다.

<同上卷七十六 中宗二十九年二月戊辰>

31年(1536年明 世宗15年) 5月 4日에는 賀聖節使 宋璩을 明나라에 보내어 大明會典의 畢刊의 時期가 언제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고 12日에는 撰集廳으로 하여금 大明會典 및 前後 여러번 받은 敎書中에서 可用한 것을 뽑아서 撰修케 한 다음 印刷配布케 하였다.

<同上卷八十一 中宗三十一年五月戊午, 己巳>

이어서 이해 12月 1日에 明나라 世宗의 皇太子 誕生에 대한 頒詔(配布하는詔書)를 가지고 아래와 같은 明使一行이 來朝하리라는 報告를 듣고 朝廷에서는 宗系改正을 위하여 徹底하게 明使一行을 接待키로 하였다.

正使——翰林院修撰　龔(공)用卿(37歲)　　副使——戶科給事中　吳希孟(30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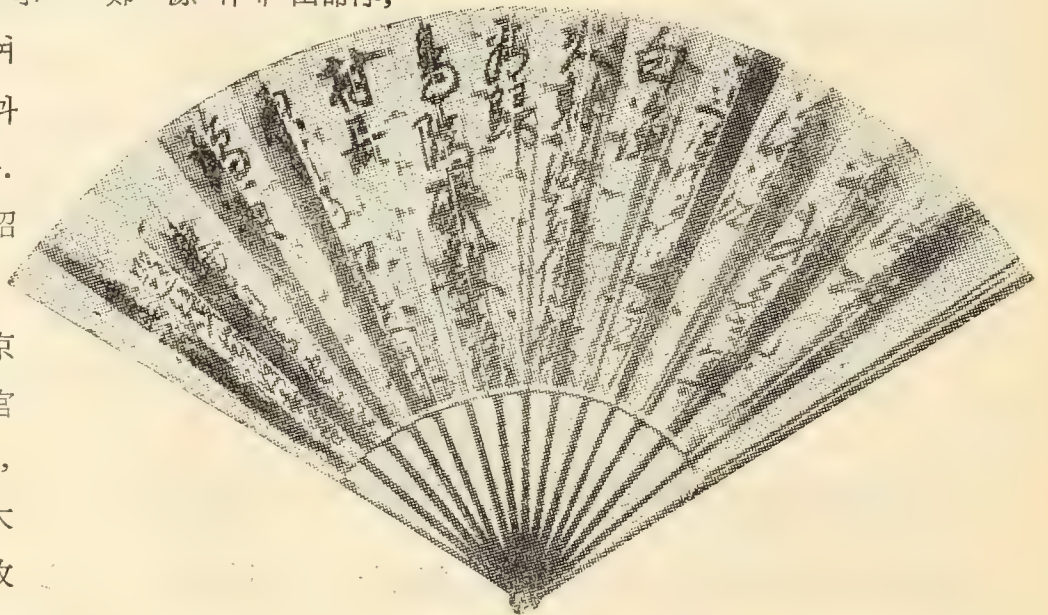
이리하여 朝廷에서는 迎接都監을 만들어 놓고 다음과 같이 官員을 미리 任命하였다.

館　　伴——沈彥光　　遠接使——鄭士龍
遠接使從事官——洪春卿, 趙士秀, 朴忠元　　御前通事——崔世珍, 뒤에 李應星
都司宣慰使——李希輔　　遠接使帶行通事——李和宗
御前預差——尹漑　　副使通事——金山海
遠接使差使員——朴光祐(載寧郡守)　　平壤迎慰使——蘇世讓
世子通事——鄭源 뒤에 田命淳,

明使接待를 위하여 朝廷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선을 피웠다.

(1) 慕華舘에 迎詔門을 建立하였고,

(2) 平安, 黃海, 京畿 路邊에 있는 各官의 稅를 減하였으며,

(3) 衣服制度를 大明會典에 依하여 改正하였고

<明使 龔用卿 筆蹟>

(4) 濟川亭과 望遠亭 및 安州 百祥樓를 修理하였으며,

(5) 葱秀山(平山郡 安城面 葱秀里山) 董城碑를 補修하였고,

(6) 本朝風俗牒을 改正(遠接使携帶用)하였으며,

(7) 安平大君 및 崔興孝, 朴耕의 書를 準備(明使에 보낼것)하였고,

(8) 豹皮, 虎皮 및 白鹿皮를 準備한 다음,

(9) 安行梁 蟻項의 掘鑿工事를 延期하였고,

(10) 明使와의 問答을 豫習하였는가 하면,

(11) 儒生들의 太平舘 集合 準備를 마련하였다.

明使一行은 32年(1537年 世宗16年) 2月 20日에 鴨綠江을 건너 義州를 거쳐 3月 10日에 入京하니 王은 王世子, 百官 및 儒生을 거느리고 慕華舘에서 五拜三叩頭의 禮로써 迎詔한 다음 勤政殿에서 留詔禮를 行하고 茶果를 兩使에게 올린 뒤에 이날 밤 下馬宴(歡迎宴)을 太平舘에서 베풀었다.

다음날 다시 太平舘에서 宴을 베풀고 王이 선사품을 받아 주기를 請하니 兩使는 다만 刀子와 靴子만을 받고 나머지는 모두 退하였다. 12日에는 明使는 成均舘에서 謁聖하고 大提學 金安老와 같이 漢江에 遊覽하였다. 이날 明使帶來의 儒生인 錢循이 白絲 40斤과 緞子 20疋로써 人蔘과 貂皮를 密貿하려고 하니 公貿와 私貿를 半半씩 하기로 하였다.

13日에는 世子가 兩使를 饗宴하였는데 使臣은 朱床, 世子는 黑床을 쓰고 迎接都監郎官以下 銀帶를 띄게 하였으며 使臣의 居室과 寢室 기둥을 朱紅色으로 칠하였다.(朱色은 皇帝專用色) 14日에는 慶會樓에서 盛宴을 베풀었는데 朝鮮國의 宗系奏本과 永樂帝(成祖)와 正德帝(武宗)의 聖旨를 上使에게 바치고 改正에 힘써 줄 것을 請하였다. 兩使는 이것을 承認한 다음에 樓上에 올라가서 아래와 같이 命名을 하였다.

白　岳　山——拱極山　　仁　王　山——弼雲山
慶會樓池中小島——雙洲山　　東　池——玉液池
西　池——環　碧　　東池石橋——長虹橋(晴虹이라고도 함)

뒤이어 後苑에 가서,

栢　子　亭——凝秀亭　　萬景臺前雙松——雙　龍
忠順堂前兩松——盤虬(규)老龍

이어서 慶會樓下에 돌아와서 觀火(불꽃놀이 구경)를 한 다음 다시 宴廳에 들어왔는데 上使는 大字를 쓴다고 하여 年少妓 두 사람으로 하여금 燭불을 잡게 하고 네사람으로 하여금 앞에서 춤을 추게 하고 이들과 暫間동안 희롱을 하게 되니 殿上이 시끄럽게 되었다. 이날 兩使는 便服(禮服이 아닌것)을 입고 또 後苑에 나가서 王에게 강제로 꽃을 꽂아드리고 動靜이 매우 悖戾한지라, 左右 사람들이 痛憤하게 여겼다. 이렇게 하여 妓生으로 하여금 촛불을 들게 하고 大字를 쓰니 大司憲 權輗은 兩使의 非行을 極論하였으며 이제부터는 禮로써 接할 것을 請하고 三公이 또한 이렇게 啓請하였다. 王은 正使가 글 쓰는 것이 끝나자 妓女들의 退出을 命하였는데 副使도 또한 大字를 쓰겠다 하여 그들의 頭目으로 하여금 妓女를 다시 들어오게 하였으니 王의 뜻하는 바가 크게 無視된 것이었다. 그러나 王은 할 수 없이 그들이 하는대로 맡기게 하니 밤三鼓(夜半)가 되어서야 宴이 끝났다. 이 때 三公이 내일에 있을 勤政殿宴을 中止할 것을 請하고 憲府는 明使와 頭目들이 하는 것을 禁止하지 못한 承旨와 通事의 罪를 다스릴 것이라고 請하였으나 王은 宗系의 大事를 請하는데 있어서 그 怒氣를 가져 올 수 없다

하고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또 上使는 博川의 控江亭과 嘉山의 齊山亭, 平壤의 練光亭, 漢江 亭子船의 浮金의 額字를 쓰고 떠나기 前에 刻板하기를 請하였으므로 그대로 좇기로 하였다. 15日에 勤政殿에서 宴을 베풀었는데 王은 宗系의 單字를 副使에게 바친 다음 記念品도 또한 贈呈하였다. 또 朝鮮國에서는 天下地圖를 求하고 謝恩使가 明京에서 藥材를 貿易할 것을 請하니 兩使가 모두 承諾한 다음 楊花渡를 觀賞하였다. 16日에는 上馬宴(送別宴)을 太平舘에서 베풀었으며 兩使는 다음과 같이 額字를 써서 王에게 바치고 王은 또 宗系의 일을 부탁한 다음 선물을 보냈다.

上使——慶會樓, 凝秀亭, 長虹橋, 捿鳳亭, 恭順堂, 百祥樓

副使——雙龍松, 盤虬松, 納淸亭(定州), 快哉亭(平壤), 臨津亭, 海雲亭(江陵의 沈彦光의 別莊)

이날 兩使는 蠶頭, 楊花渡 望遠亭에 나가 淸遊하였으며 兩使 頭目들은 各自의 室內에 두었던 장식용 物品을 모두 싸가지고 가려 하니 이것을 禁하지 말도록 하였다.

17日에 明使가 돌아가니 慕華舘에서 餞宴을 베풀고 武藝를 觀覽케 하여 宗系를 위하여 極盡한 接待를 하여 보냈고 王은 다시 宗系와 藥材貿易을 부탁하고 漢江遊宴圖를 贈呈하였다. 당시의 朝臣들의 창자가 어찌 썩었으랴만 宗系大事를 위하여 이 같이 兩使를 玉皇上帝 모시듯이 한 것이다. 또 20日에는 迎詔를 祝賀하여 百官에게 加資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 2年 뒤인 34年(1539年 世宗18年) 4月 10日에 明나라 皇帝는 太祖와 成宗, 睿宗에게 尊號를 加上하는 詔書와 皇太子를 册封하는 詔勅을 가지고 正使 華察과 副使 薛廷寵을 보내왔으므로 王은 慕華舘에서 迎詔하고 大平舘에서 下馬宴을 베플었으며 12日에 다시 慶會樓에서 宴을 設한 다음 後苑을 遊覽하고 또 觀火(불꽃놀이)하였다. 兩使는 이날 頭目으로 하여금 綾絹, 匹段 및 書册등을 王에게 바치게 하였다. 13日에는 大平舘에 上馬宴(歡送宴)을 베풀고 兩使는 硯面(벼룻돌)과 地誌를 求하니 이에 硯面을 求하여 보내고 地誌는 刊行이 없어 주지 못하였다. 이어서 宗系奏請에 대한 事由를 書面으로 써서 改正에 힘쓰기를 부탁하였다.

14日에 明使는 漢江에 遊覽하였는데 江山을 觀賞하지 않고 다만 投壺(2人이 靑紅의 화살을 단지 안에 많이 넣는 競技.)와 傳花(꽃을 빨리 보내는 競技.)의 遊戲만 하였다. 이어서 16日에는 餞宴을 慕華舘에서 베푼 다음 宗系單子를 兩使에게 바쳤다. 이때 王은 다시 宗系에 대해서 奏請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皇帝와 禮部尙書가 本國을 厚待하고 龔用卿과 吳希孟, 그리고 이번의 兩使등이 모두 이 일을 돕겠다고 하므로 이 좋은 때를 놓칠 것이 아니라 하여 다시 大臣들과 의논한 뒤에 明使가 이미 떠나간 다음인 24日에 뒤따라가서 更奏의 뜻을 傳하도록 부탁하고 또 선물을 보냈다.

이해 7月 24日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冬至使로써 明나라에 보내면서 兼하여 新纂되는 大明會典에 恭定王(太宗)의 奏請을 康獻王(太祖)이라 하고 또 南袞을 南壽로 誤記된 것을 改訂키 위하여 禮部에 呈文키로 하였다.

正使——權 撥　　　　副使——任 權

27日에는 陪臣이 呈文하는 效果가 國王이 奏請하는 것만 같지 못하므로 다시 의논한 다

음 權撥을 奏請使로 고쳐서 拜하고 冬至使는 副使였던 任權으로써 拜한 다음 이날 明나라에 떠나 보냈다. 이렇게 하여 이듬해인 35年(1540年 世宗19年) 5月 5日에 奏請使 權撥로 부터 狀啓가 왔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宗系問題에 있어서 大明會典에 있는 明太祖의 遺訓인 舊文은 이것을 고칠 수 없으나 他日에 改修할 때에는 我國에서 前後 여러번 보낸 奏本(太宗3年, 中宗13年, 24年 및 今年의 것.)및 列聖(太宗, 武宗, 世宗)의 明旨를 附註할 것을 皇帝께서 허락하셨나이다.』하였다. 이리하여 禮部題本과 勅書를 같이 謄寫하여 보내 왔으므로 謝恩使를 보내게 하는 同時에 이 일을 위하여 盡力을 한 龔用卿(32年에 왔던 上使)과 華察, 薛廷寵에게 선물을 보내기로 하였다. 7日에는 宗系改正을 祝賀하여 今秋에 別試를 두기로 하였다. 2月 1日에 奏請使 一行이 皇帝의 勅書를 가지고 돌아오니 이것을 宗廟에 告하고 中外에 皇帝의 勅書를 가지고 頒赦한 다음 百官에 加資하고 다음 사람에게는 特加를 賜하고 또 田地와 奴婢를 給하였다.

奏請使——權　撥　　書狀官——尹世忱　　通事——李應星

이어서 다음과 같이 謝恩使를 明廷에 보냈다.

謝恩正使——金麟孫　　同 副使——林百齡

<同上卷八十三 中宗三十二年二月己巳, 卷八十四 (三月甲申, 己丑, 庚寅, 乙未, 丙申, 己亥), 卷八十九 中宗三十四年三月, 卷九十 (四月丁未), 皇明實錄世宗肅皇帝實錄卷百九十三, 卷二百二十, 卷二百二十一>

다음에 明宗時代의 交涉經過를 살펴 보건대 6年(1551年 世宗 30年) 8月 13日에 冬至使로서 韓㪷(두)를 明나라에 派遣하였는데 이 一行은 다음해 2月 6日에 明나라에서 새로 發刊할 大明會典의 寫本을 사가지고 돌아왔으며 여기에는 宗系를 改正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朝廷에서는 이것을 宗廟에 告하였다. 10日에 明宗은 宗系改正의 功으로 中宗의 尊號를 加上하고 中外에 赦宥令을 내리고 百官에 加資하려고 하니 大臣들이 大典會典이 印刷配布되는 것을 기다릴 것이라고 아뢰었으며 明宗도 이 啓請을 따르기로 하였다. 이 때에는 文定王后가 垂簾하고 攝政하던 때이고 8年 7月 12日에 王의 親政을 中外에 曉諭하였던 것이다.

<明宗實錄卷十二 明宗六年八月戊辰, 卷十三 同七年二月戊午 壬戌, 卷十五 同八年七月丙辰, 燃藜室記述卷十, 明宗朝故事本末>

9年 8月 11日에 明의 禮部尙書가 更迭되었으므로 宗系에 대한 일을 禮部에 通牒키로 하였다. <明宗實錄卷十七 明宗九年八月己卯>

10年(1555年 世宗 34年) 2月 9日에 明나라에 보냈던 冬至使 鄭裕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大明會典이 不遠間에 編撰이 끝날 것이라고 하니 明宗은 다시 宗系의 改正을 奏請하려고 하였으나 大臣들이 同意하지 않았으므로 그만 두기로 했다. <同上卷十八 明宗十年正月甲戌>

12年 正月 1日에 明에 가 있던 冬至使 沈通源으로부터 狀啓가 왔는데 그에 이르기를 禮部尙書 吳山이 宗系改正의 奏請使를 差送하라는 指示가 있었다는 것이였다. 이에 朝廷에서는 戶曹判書 趙士秀를 奏請使로 하여 聖節使 宋麒壽와 같이 가게 하였다. 이리하여 이들

一行은 5月 20日에 漢城을 떠나 明에 들어갔다가 11月 6日에 돌아왔는데 大明會典의 印刷分配는 當代에는 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을 報告하였다.

<同上卷二十二 明宗十二年正月乙卯, 卷二十三 十一月乙卯>

17年(1562年世宗41年) 11月 24日에 明宗은 大臣들과 의논하기를 明에서 永樂大典을 纂修하고 있는 바 그 가운데 또 宗系의 일이 잘못 들어갈 것이 걱정됨으로 미리 使臣을 보내 改正을 奏請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는데 大臣들은 모두 明年에 聖節使가 가는 便에 兼하여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아뢰어 이 意見에 좇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다음해인 18年(1563年世宗42年)5月에 奏請兼進賀使로 大司憲 金澍(주)를, 書狀官으로 李陽元을 보내어 宗系의 改正을 奏請케 하고 兼하여 皇極殿의 重修新築을 慶祝케 하였는데 이 一行은 2日에 떠나갔다.(同上卷二十八, 明宗十七年十一月丙午, 卷二十九 十八年二月己卯) 그런데 奏請使 金澍는 北京 玉河舘에서 病死하였는 바 그는 죽기에 앞서 먼저 譯官 韓順을 돌려보내 9月 30日에 다음과 같은 要旨를 狀啓하여 왔다.

『宗系의 改正을 奏請한 결과 允許를 받고 大明會典에 國祖의 姓諱를 明白하게 記錄할 것이고 또 이 뜻의 勅書가 내려질 것이옵니다.』하였다. 明宗은 金澍의 宗系改正의 功으로써 特히 禮曹判書를 追贈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 12月 10日에 奏請使書狀官 李陽元이 宗系改正의 勅書를 받들고 明에서 돌아오니 宗廟에 告한 다음 中外에 赦宥令을 내렸으며 다음과 같이 論賞하여 모두 奴婢와 田結을 下賜하고 通事以上에게 一資를 加하도록 하였다.

奏 請 使——故禮曹判書 金澍　　書 狀 官——李陽元
通　　事——安自命　　通　　事——崔世協
漢吏學官——林　芑(기)

<同上卷二十九 明宗十八年十二月乙卯>

마지막으로 宣祖時代의 交涉經過에 대하여 살펴 본다면 6年(1573年神宗元年) 2月 28日에 다음과 같이 奏請使 一行을 明에 보내어 宗系의 改正과 惡名辨誣의 事情을 世宗皇帝實錄 및 續修會典新書에 자세하게 記錄하여 새로 增加하여 주도록 請願케 하였다.

奏請正使——李後白　　同副使——尹根壽(本役에 判書로서 活躍한 사람.)
書 記 官——尹卓然(本役에 咸鏡監司로 活躍한 사람.)

<宣祖實錄卷七 宣祖六年二月己卯>

이들 一行은 9月 16日에 돌아왔는데 明에서는 皇帝가 勅諭를 보내고 말하기를 『世宗實錄의 撰修가 끝나는 대로 施行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王은 迎勅한 다음 이 뜻을 宗廟에 告하고 赦宥令을 내렸다.

<同上卷七 宣祖六年九月癸巳>

이 一行이 가지고 간 奏請文에는 明나라 成祖를 追尊하지 않은대로 太宗이라고 썼기 때문에 禮部에서 그 不敬을 指摘 당하고 책망을 받았으니 이 당시의 朝鮮朝廷의 事務處理가 대개 이 程度였던 것이다. 7年(1574年神宗2年) 8月 28日에 다음과 같이 冬至使 一行을 明에 보냈다.

冬至使——安自裕　　書狀官——李彥愉　　質正官——金大鳴

<眉巖集卷十二 日記甲戌八月二十八日>

閏 12月 15日에 冬至使 安自裕는 먼저 通事를 보내어 宗系改正을 이미 載錄하였다고 報

告하여 왔으므로 承文院으로 하여금 謝恩使를 보내는 問題를 의논케 하였다.

<宣祖實錄卷八 宣祖七年閏十二月乙酉>

이리하여 이듬해 8年3月에 戶曹判書 洪聖民을 明에 보내어 宗系載錄을 감사케 함과 아울러 宗系弑逆에 대하여 이미 辨誣한 事情을 大明會典의 新書에 새로 揷入하여 주도록 奏請케 하였다. <西厓集卷三奏文乞頒示會典奏文, 朝野僉載卷十八 宣祖朝乙亥八年十二月>

10年(1577年) 2月1日에 다음과 같이 謝恩使一行을 明에 보냈는데 8月에 돌아와서 아뢰기를 奏請한 宗系와 惡名의 二項을 禮部에서 모두 聖旨에 依하여 改正 記載한 다음 公刊하여 보내기로 하였다는 것이었다.

謝恩使——尹斗壽 書狀官——金誠一 質正官——崔 岦

<宣廟寶鑑卷三宣祖十年丁丑四月, 簡易集卷四十四行文錄上禮部郎中書>

朝廷에서는 다시 黃琳을 奏請使로 黃允吉을 書狀官으로 하여 또 보내기로 하였는데 이 當時 李珥등이 크게 慷慨하여 말하기를 『匹夫가 억울한 誣告를 받더라도 오히려 이것을 伸雪하려고 하거늘 國君이 誣를 2百年 동안이나 받으면서도 씻지 못할 수 있으랴. 主辱에 臣死라 하였으니 宗系에 誣를 받는 것은 列聖의 辱이 큰진대 奏請의 使臣은 마땅히 至誠으로써 天朝를 움직일 것이어서 事成이면 還國이오, 事不成이면 埋骨을 燕山(燕京의 山이니 北京의 山이라는 뜻.)에 할 決意로써 臨한 然後에 비로소 成事할 것이옵니다.』라는 뜻을 아뢰었으니 당시 朝野人士들이 얼마나 憤慨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13年(1580年) 5月15日에 禮曹參判 李增을 聖節使로 北京에 보냈는데 11月에 돌아왔다. 이에 앞서 宗系의 誣가 이미 改正을 允許 받았으나 祖名의 2字를 誤書하였으므로 李增에게 連絡하여 禮部에 咨文을 내도록 하고 이의 査改를 請하는 同時에 速히 改正會典을 分配하여 주도록 請하였는데 李增이 돌아올 때에 이에 대한 回咨를 받아가지고 왔다.

<宣祖實錄卷十四 宣祖十三年五月癸未>

14年(1581年) 4月20日에 引儀 金慶昌이 上疏하여 宗系改正의 奏請을 啓請하니 王이 嘉納하고 承文院으로 하여금 의논케 한 결과 5月에 다음과 같이 任命하여 北京에 보내기로 하였다.

宗系辨誣奏請使——金繼輝(禮曹參判) 宗系辨誣書狀官——高敬命(靈巖郡守)

宗系辨誣質正官——崔 岦 <同上卷十五 宣祖十四年四月癸丑>

이들 一行은 이해 11月에 돌아왔는데 이때에 奏請한 奏文은 西厓集 卷三 奏文乞頒示會典奏文條와 簡易集 卷四十四 行文錄上禮部尙書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金繼輝는 돌아온지 4個月만에 病死하였다. <同上十一月, 朝野記聞卷二辨改宗系>

17年(1584年 神宗12年) 5月3日에는 다시 다음과 같은 一行을 보냈는데 11月에 돌아왔다.

宗系辨誣奏請使——黃廷彧 宗系辨誣書狀官——韓應寅

宗系辨誣質正官——宋象賢(本役에 東萊府使로 忠死) 宗系辨誣上通事——洪純彦

奏請使의 復命에 依하면 會典을 印刷에 돌렸으나 아직까지 完成을 보지 못하였으며 皇帝께서 特히 改正한 文詞를 抄示한 다음 勅諭를 내리셨으므로 11月1日에 王은 慕華館에서 迎

勅하고 宗廟에 告하였다. 이어서 또 賀禮를 받고 赦宥令을 내렸으며 一行에게 加資하고 奴婢와 田宅과 雜物을 下賜하였다. 이어서 李友直을 謝恩使로 삼아서 明에 보냈는데 다음 해인 18年(1585年) 4月 20日에 돌아와서 大明會典撰寫 一卷과 聞見한 바 小錄을 王에게 바쳤다. 이해 10月에는 改宗系別試를 設置하고 16日에 文科參奉 崔鐵堅등 12名과 武科 50名을 取하였다.

<宣祖實錄卷十八 宣祖十七年五月戊寅, 卷十九同十八年四月辛酉>

20年(1587年) 10月 10日에 다음 一行을 謝恩使로 하여 또다시 明에 보냈던 바 이듬해인 21年 5月 2日에 大明會典을 가지고 돌아왔다.

謝恩使——兪 泓(本役에 右議政으로 病死한人物.)　　書狀官——尹 暹(本役初에 尙州에서 戰歿한 사람)

王은 慕華館에 나가서 迎勅하고 權停禮로써 賀를 받고 兪泓을 超秩하여 崇祿大夫 判中樞府事로 하고 奴婢土田를 下賜하였으며 같이 갔던 泓의 아들 文述에게도 官을 주었으며 또 承文院都提調와 提調 및 副提調등에게 各各 廐馬를 下賜하고 그들의 아들, 동생, 사위, 조카등에까지도 叙職을 분부하였다. 이어서 7日에는 親히 宗廟에 宗系改正을 告祭하고 따로 官을 보내어 社稷과 永寧殿(宗廟內의 別殿桃遷한 神主를 安置하는 곳.)에 行祭한 다음 齋殿에서 赦賤令을 내리고 또 百官에게 加資하였다. 이에 앞서 幼學 黃蘋이 上疏하여 奏請使등 有功한 사람의 行績을 아뢰고 大廟에 碑石을 세워서 宗系辨誣의 功德을 讚仰할 것을 請하였는데 漢吏學官 安廷蘭은 또 上疏하여 前後奏請의 奏文과 皇勅을 모아서 刊行公布할 것을 請하였다.

<同上卷二十一 宣祖二十年十月乙丑, 卷二十二 同二十一年五月甲申>

22年(1589年神宗17年) 4月에 工曹參判 尹根壽를 明에 보내어 聖節使를 兼하여 大明會典全帙을 奏請케 하였던 바 11月 22日에 欽賜의 大明會典과 勅書를 받들고 돌아왔다. 王은 弘化門 밖에서 迎勅하고 明政殿에서 勅書를 받은 다음 百官으로부터 賀禮를 받았으며 이어서 宗廟에 告하고 中外에 敎書를 내렸다. 또 尹根壽를 超資하여 刑曹判書로 삼고 田宅과 臧獲을 下賜한 다음 前後 奉使人의 有功者를 錄勳하였는데 王은 黃廷彧, 兪泓, 尹根壽를 首功이라고 傳敎하였다. 이어서 12月 22日에는 다음 一行을 謝恩使로 明나라에 보냈으며 前後 2百年에 걸쳐 10數次에 達하는 使臣을 보냈던 이 宗系辨誣問題의 一段落을 보게 되었다.

謝恩正使——右議政 鄭 琢　　同副使——同知中樞府事 權克智

<同上卷二十三 宣祖二年四月庚辰, 卷二十三 (十一月丙寅), 東閣雜記坤, 月汀集朝天錄, 春坡堂日月錄卷七, 宣祖實錄三 宣祖二十二年己丑十月>

略 歷

崔 岦

開城사람으로서 字는 立之이고 號는 東皐라 하며 明宗 16年 辛酉文科에 壯元하였다. 班史를 여러 千번이나 읽어 드디어 一家를 이루었고 文藝로써 累進하여 承文院提調가 되어 세번 明에 가서 禮部에 呈文하여 諸學士의 稱讚을 받았다. 뒤에 同知中樞府事에 올랐으며 晩年에 箕城(平壤)에서 지내고 그 堂을 簡易라 하였다. 遺著에 簡易集이 있다. 光海君 4年 7月 11日에 年 74로 病死하였다.

<光海君日記卷五十五 壬子七月癸卯, 明谷集卷二十四墓碣銘簡易崔公墓碣銘>

三, 明에 對한 事大의 苦衷

前二項에서 이미 말한대로 朝鮮이 明에 대하여 事大의 禮를 다하는 동안 朝野가 받은 바 有形無形의 苦楚가 매우 큰 바 있였지만 아직도 그간의 眞相을 못다 말한 것이 적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밖의 事項을 추려서 考證하려는데 太祖以來로부터 明宗에 이르기까지의 몇가지를 文獻上에 나타난대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먼저 太祖時代의 槪況부터 살펴 본다면 3年 正月 12日에 明使인 內史 盧他乃와 朴德龍, 그리고 鄭澄등이 와서 明의 左軍都督府에서 報告한 事實을 따지면서 책망의 말로 朝廷을 괴롭힌 바 있였는데 그 內容인 즉 朝鮮사람들이 商人으로 분장하고 明의 國內情勢를 정탐하고 있다는 것이였다. <太祖實錄卷五, 太祖三年正月壬子>

또 4月 4日에는 內史 崔淵과 陳漢龍, 金希裕, 金禾[모두 朝鮮人으로 고자(閹人)]등을 使臣으로 보내어서 다음같이 要求하는 皇帝 宣諭를 내렸다.

馬——1萬匹　　　　閹人(고자)——數未詳

澉浦(浙江省 海鹽縣)를 掠奪한 海賊의 縛送 <同上四月癸酉>

이들 一行은 5月 20日에 고자 5名을 데리고 돌아갔는데 王이 群臣을 거느리고 宣義門밖까지 餞送하였으며 都評議使司는 西普通樓에서 餞宴을 베풀었다. 이 자리에서 漢龍등이 醉하여 狂暴가 甚하였는데 이 당시 明의 使臣들은 모두 朝國人 고자 出身들이였고 와서 皇帝명령을 전한 다음에는 그들의 故鄕에 내려갔다 왔으며 그 동안 狂悖가 대개 이와 같아서 州郡에서는 이를 대단히 꺼렸다. <同上五月戊午>

5年 2月 9日에 賀正使로 明에 갔던 打角夫(一行의 諸具를 監守하는 사람) 金乙珍과 押物(荷物 監視人) 高仁伯등이 禮部尙書의 咨文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咨文에는 朝鮮國에서 바친 正朝表箋에 輕薄戱侮의 文句가 있다 하여 責하였으며. 그 撰者를 押送하라고 要求하였다. 또 3月 29日에는 計稟使 鄭摠 一行이 明에서 돌아왔는데 禮部咨文에 또다시 表箋의 違禮를 責하고 또 印信과 誥命을 請한 狀內에 紂(殷나라 紂王인 暴君 듯)의 古事를 引用한 非禮를 詰責한 다음 그 撰寫校正의 일을 맡아본 사람들을 잡아 보내라는 것을 命令하고 이 使臣들을 抑留한다고 하였다. 6月 11日에는 또 다시 明使로 尙寶司丞인 牛牛와 宦者王禮와 宋孛羅등을 보내서 禮部의 咨文을 傳하였는데 撰表人 鄭道傳과 鄭擢및 賀正使 柳珣등의 家族들을 管送(押送)할 것을 命하였다. 7月 19日에는 明使 가운데서 宋孛羅가 먼저 돌아갔는데 王이 百官을 거느리고 盤松亭에 餞送하였으며 같이 왔던 牛牛는 留後司(開城府)까지 갔다가 왔다. 朝廷에서는 判司譯院事 李乙修를 管押使로 삼고 表箋의 撰者로 다음 사람을 明에 押送키로 하였다.

藝文春秋館學士　權 近　　　右承旨　鄭 擢

敬 與 府 舍 人　盧仁度

한편 計稟使로서 漢城判尹인 河崙을 明의 皇帝에게 보내 다음 要旨를 具奏케 하였다.

『撰文者는 모두 海外의 사람들로서 語音에 差異가 있고 學問이 精博하지 못하여 아직 表箋의 體制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文字의 差誤를 일으킨 것인 바 어찌 敢히 일부러 戱侮하였으리이까. 또 鄭道傳은 表文의 校正과 改訂에 關係치 않았사오며 또 現在 脚氣의 病症이 있어서 보내지 못하옵니다. 또한 使臣등의 家族마저 押送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하였으니 이 어찌 氣막히는 일이 아니었던가.

<同上卷九 太祖五年二月丁酉 三月丙戌六月丁酉, 卷十同年七月丁卯, 東閣雜記上本朝璿源寶錄>

6年 4月 14日에 別鞍局別監 李美忠을 巡軍獄에 내렸으니 그 事由인즉 별 것이 아니라 明에 바치는 金鞍의 鞽內에 「天」字를 썼던 罪였다. 왜냐 하니 明 太祖가 이것을 보고 怒하여 가로되 『말안장은 사람이 타는 것인데 사람이 하늘을 타서야 될 것인가. 이것은 必是朕을 모욕함이로다.』하고 그 말안장을 불살라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美忠을 잡아가 두었으나 別로 딴 생각이 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곧 釋放시켰다. <同上卷十一 太祖六年四月丙申>

7年 5月 14日에 明에 抑留되어 있는 使臣 曹庶의 從者인 崔祿이 禮部侍郞 張炳의 書信을 가지고 왔는데 千秋節(王世子의 生日祝節)에 바친 啓本에 譏侮의 글귀가 있는 것을 책망하고 그 撰文에 關係했던 다음 사람들을 잡아 보내라는 것이었다.

前禮曹正郞——尹 珪　　成均館司成(從三品)——孔 俯
禮曹正郞(正五品)——尹 須

이리하여 이해 6月 3日에 前判典客寺事인 鄭連을 明에 보내고 위의 세사람을 모두 押送하는 同時에 禮部侍郞 張炳에게 答書하여 아직까지 舊本에 依하였으며 近年에 와서 回避하여 쓰지 않는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錯誤를 일으킨 것이라는 뜻을 解明하였다.

<同上卷十四 太祖七年五月己未 六月丁未>

이렇게 國初부터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받아왔는데 다음 太宗 時代의 槪況을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로서 王의 8年(1408年明成祖 6年) 4月 16日에 다음 一行의 明使가 오니 王이 百官을 거느리고 慕華樓에 맞이하였는 바 馬 3千匹의 輸出을 끝마쳤으므로 王과 太上王에 勅하여 물건을 내리고 또 美女를 求하였다.

內　史——黃 儼　　內　史——田嘉禾
內　史——海 壽　　內　史——韓帖木兒
尙寶寺尙寶——奇 原

<太宗實錄卷十五太宗八年四月甲午>

이리하여 朝廷에서는 「進獻色」이라는 官廳을 臨時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提調를 두게 한 다음 全國에서 處女를 求하기로 하였다.

議政府贊成事——南 在　　知議政府事——咸傅霖　　漢城尹——孟思誠

한편 各道에 敬差官을 보내어서 다음에 依하여 美女를 選出키로 하였다.

(1) 中外의 婚嫁를 一切 禁止한다.

(2) 13歲 以上 25歲 以下의 處女를 擇한다.

(3) 公私賤隷와 庶人, 그리고 奴隷를 가지지 못한 兩班을 除外한다.

이때 마침 太上王 李太祖가 5月 24日에 薨하였으나 處女揀擇의 일은 그대로 進行되어 6月 3日에는 議政府에서, 또 7月 2日에는 景福宮에서 各各 뽑았는데 明使一行은 美色이 없는 것을 怒하여 慶尙道에 敬差하였던 內官 朴輶(유)를 잡아서 포박한 뒤에 治罪하였다. 王은 女子들이 不恭한 나머지 明使의 憤怒를 사게 하였다 하여 다음 사람들을 罰하기까지 하였다.

平城君——趙 狷　　吏曹參議——金天錫　　前軍資監——李云老

다음날 各道 巡察使를 道內 各地에 分遣하였으며 敬差官으로 보낸 內官이 따라 다니면서 處女를 택하게 하는 一方으로는 議政府에서 移牒하여 法規를 어기는 것을 嚴禁케 하였다. 그래서 秘密히 婚嫁한 罪로써 罰받는 사람들이 많았다. 5日에는 明使 一行이 다시 景福宮에서 處女를 뽑았는데 權執中과 任添年등의 子女 31名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 돌려 보냈다. 儼등이 뽑힌 處女가 적다고 하여 크게 怒하고 장차 돌아가려고 하거늘 知申事 黃喜를 보내어 恭遜히 懇請하여 겨우 怒氣를 풀었으며 이 다음부터는 여러번 景福宮에서 處女들을 보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10月 11日에는 明使一行이 中外의 處女 3百名을 景福宮에서 選擇하기로 하여 그 中에서 44名을 추려냈고 그 가운데서 또 다음 5名만을 最終的으로 뽑았으며 明 體制의 女服을 선사(下賜)하였다.

首位——故典書　權執中의 女　　次位——前典書 任添年의 女
次位——前知永州事　李文命의 女　　次位——司 直　呂貴眞의 女
次位——水原記官　崔得霏의 女

<太宗實錄卷十六太宗八年七月戊申 辛亥十月乙酉>

9年 5月 3日에도 明使가 와서 다시 美女를 求하니 또 進獻色을 設置하고 內外處女의 婚嫁를 禁하고 揀擇키로 하였다.

이때에 같이 來朝한 明使奉御 尹鳳은 朝鮮사람으로서 豐海道(黃海道) 瑞興出生인 바 그의 母葬을 위하여 먼저 돌아갔는데 그의 昆季伯叔의 授職을 請하므로 모두 西班司直正五品과 司正으로 敍任케 하였다. <同上卷十七 太宗九年五月甲戌>

11年 8月 15日에 明使大監 黃儼이 또다시 藥材를 가지고 와서 處女와 寫經紙地 1萬張의 進獻을 求하였다. <同上卷二十二太宗十一年八月甲辰>

18年 10月 22日에 明의 指揮 伯顏不花와 千戶 李敏등을 보내 軍官 54名을 거느리고 海靑[狩獵用 매(鷹)의 一種]과 土豹(스라소니라는 動物)를 三撒땅(北靑)에서 잡게 하였는데 伯顏不花등은 閭延郡(平安北道江界郡)小甫里口子에서 뗏목(筏, 桴)을 타고 江을 건너가니 朝廷에서는 判事 鄭喬를 보내어 毛冠(털모자)를 선사하고 또 그들의 가는 곳을 따라가 支援하고 護送케 하였다.

<世宗實錄卷一 世宗即位年十月戊戌>

또 世宗時代의 槪況을 살펴보아도 如前하였으니 2年(1420年戌祖18年) 正月 25日에 禮曹參判 河演을 明使인 光祿寺少鄕 韓確과 같이 가게 하여 厚紙 3萬5千張과 石燈盞 10個를 바치게 하

고 金銀의 產이 없으므로 金銀器具의 進獻을 免하는 대신으로 딴 土產物로써 代貢할 수 있도록 奏請케 하였다. <世宗實錄卷七 世宗二年正月甲子>

3年 9月 21日에 明使로서 少監인 海壽가 와서 馬 1萬匹을 要求하니 朝廷에서는 곧「進獻官馬色」이라는 臨時 徵馬를 위한 官衙를 만들어 놓고 다음 사람들을 提調로 삼아 業務를 總轄케 하는 한편 官屬 15名을 두어서 各道에 馬匹을 配當케 하고 期日을 定하여 納馬를 督促케 하였다.

贊 成 事——趙 涓　　　　漆 原 君——尹子當
兵曹判書——趙末生　　　　判漢城府事——曹備衡

이리하여 10月 2日에는 判司宰監事 曹顯으로 하여금 進獻初運馬 3百匹을 輸送하여 遼東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이 뒤 11月 28日까지 18次에 걸친 輸送으로 獻馬를 끝마쳤다.
<同上卷十三 世宗三年九月辛巳 十月辛卯, 卷十四 同年十一月庚申 辛未 丁亥>

5年 8月 18日에는 海壽가 다시 明 正使로서 副使인 禮部郎中 陳敬과 같이 와서 勅諭를 傳하고 第2次로 다시 馬 1萬匹의 進獻을 命하였다. 王이 親히 官馬를 色選하는 易換馬를 감독하여 20日부터 通事 金乞玄을 보내어 初運으로 雜色馬 7百匹을 遼東에 보내고 이어서 10月 15日까지 前後 10次에 걸쳐 輸送을 完了하였다. 明使는 또 稻種을 請하므로 平安道 監司에 傳하여 早稻種 10石과 晩稻種 5石을 擇하여 미리 義州에 輸送하여 놓게 한 다음 明使의 回程을 기다려 贈與케 하였다.

明使一行은 고자(鼓子, 또는 火者.) 14名을 뽑아서 데리고 갔으며 副使 陳敬은 심지어 婦人의 襦衣(동옷), 靴釘등을 求하여 가지고 9月 6日에 떠나니 王이 慕華樓에서 餞送하고 內廐馬 各 1匹을 보냈다. <同上卷二十一 世宗五年八月丙寅, 卷二十二(十月壬戌)>

11年(1429年宣宗 4年) 5月 2日에 明使 太監 昌盛과 尹鳳, 李相이 勅諭를 傳하고 王에게 白金 3百兩과 彩幣등을 보내고 魚物과 歌舞女, 執饌女등을 求하였다. 5月 11日에 明使 昌盛은 鞍子匠이 오는 것이 늦었다 하여 다음 官員들을 庭下에 꿇어 앉히고 辱說을 퍼부었으며 뒤이어 工曹胥吏와 匠人등을 杖罰하였다.

迎接都監使——趙 賚　　　　迎接都監副使——金有讓
同 判官——金連枝　　　　同 判官——金自怡
同 通事——任種義　　　　同 通事——張 俊

<同上卷四十四 世宗十一年五月丁未 丙辰>

이들 明使一行은 7月 16日에 돌아갔는데 副使 尹鳳이 要求한 進獻物이 2百餘櫃에 達하고 每 一櫃마다 8名이 같이 擔送하였으니 그 荷櫃夫가 大平館에서 沙峴까지 닿아 絡繹不絶하였다. 그 가운데는 鷹, 犬, 酒, 松子(잣), 魚蝦, 鹽物등에서 부터 唱歌女 8名, 執饌女(찬만드는 饌母.) 11名, 小火者(어린애 고자, 陰莖故障者) 6명까지 있었다. 이들의 父母親戚들은 哭聲을 울렸으며 女子들은 떠나기전에 大闕에서 밥도 안먹고 슬퍼 하였으니 불쌍타 하여 보는 사람까지 눈물을 흘렸다.

이때 進獻使로 仁順府尹 權蹈를 보냈는데 花文木鞍轎子(大臣의 乘轎로 平轎子라고도 한다.)가 6臺, 石燈盞이 10個, 黃鷹 10連, 皂鷹(검은 매) 4連, 큰개 40마리등이 包含되어 있었다. 또 이해 12月 28日에는 進鷹使로 上護軍 池有容을 明에 보내어 海青(매의 種類) 2連과 堆昆(同左) 1連을 頭目 陳景의 隨行으로 바쳤다. <同上卷四十五 世宗十一年七月庚申>

13年 12月 15日에 明使 昌盛과 張安定등이 돌아갔는데 進鷹使로 都總制 柳殷之를 같이 보내 海青 7連과 白鷹 1連, 土豹 5匹을 獻納케 하였다. <同上卷五十四 世宗十三年十二月丙午>

14年 12月 3日에 明使 尹鳳이 돌아갔는데 그는 朝鮮國의 火者(고자)로서 黃海道 瑞興의 貧賤한 집에서 成長한 뒤 永樂年間에 뽑혀서 明에 들어가 3世에 걸쳐 皇帝를 모시면서 海青, 土豹, 黑狐등을 잡기 위하여 每年 使臣으로 朝鮮國에 왔던 것이다. 그는 貪慾이 無類하여 瑞興에 巨宅을 마련하고 동생 尹重富를 中樞에 올리게 함을 비롯하여 族親들이 모두 受職하였는데 아직도 不足타 하여 이 때에 鞍馬와 布幣를 請하였다

<同上卷五十八 世宗十四年十二月丁亥>

15年 10月 13日에 明使 太監 昌盛과 內官 李祥, 張奉이 勅諭를 傳하러 와서 王에게 彩幣를 보내고 執饌女 10數名과 海青을 求하였으므로 11月 6日에 中樞院副使 李孟畛(진)을 明使와 같이 보내 海青 5連과 執饌婢子로서 寶金이라는 女兒등 20名을 바치게 하였으며 또 16年 3月 3日에는 上護軍인 李士信이 海青을 갖고 가서 바쳤고 이해 12月 14日에도 進獻使 李叔畝로 하여금 또 海青을 보내게 하였다. <同上卷六十二 世宗十五年十月壬戌十一月乙未>

이로부터 約 95年 동안은 커다란 接觸이 없이 무난하게 지나게 되었는데 뒤에 中宗時代에 들어서면서 明의 正德皇帝朝부터 다시 시끄럽게 되어 16年 正月 19日에 明使가 또 나와서 處女를 데리고 간다는 말이 京鄕各地에 퍼지니 或은 하루동안에 한 집에서 2,3人의 子女들이 婚嫁를 마련하고, 或은 딸 하나에 사위 3,4名을 골라서 먼저 오는 사람을 사위로 맞이하거나, 또 或은 겨우 기저귀를 버리게 된 어린이들의 婚嫁를 서둘어대는 등 큰 騷動이 일어났던 것이다. 朝廷에서는 命令으로써 이것을 禁하고 流言의 出處를 調査케 하였던바 世子册封 奏請使 申鏛과 韓效元의 通事 李和宗이 傳播하는 바임을 알고 領議政 金詮과 左議政 南袞, 그리고 右議政 李惟清은 이러한 紛亂의 책임을 지고 王에게 辭免하기를 請하였으나 王이 허락하지는 않았다. 뒤에 正使 申鏛이 돌아와서 그러한 事實이 없다 하여 通事 李和宗을 罰하는 등 一時 매우 소란하였다. <中宗實錄卷四十一 (十六年正月壬申 癸酉 乙亥 二月丙戌)>

이러한 일이 있은지 오랫동안 아무런 큰 接觸 없이 내려오다가 32年 3月 10日에 明使 龔用卿과 吳希孟등이 皇太子(뒤에 穆宗이 된사람.)가 誕生하였다는 詔書를 받들고 入京하니 王은 世子(仁宗이 된사람.)와 百官 및 儒生까지 거느리고 慕華舘에 나가 五拜三叩頭의 禮로써 迎詔하고 勤政殿에 돌아와서 留詔禮(詔書를 받들어 모시는 禮.)를 行한 다음 밤에는 大平舘에서 下馬宴(지금의 歡迎宴.)을 行하였는 바 이로부터 迎詔에 五拜三叩頭하고 儒生이 祗迎하는 것이 常例가 되기에 이르렀다.

<同上卷八十四 中宗三十二年三月己丑>

다음 仁宗時代에는 元年 5月8日에 明使 郭敔의 送別宴을 慕華舘에서 베풀었는데 그 席上에서 使臣이 要求하는대로 通事 李和宗과 朴菁에게 加資하고 또 車允成과 崔世協에게 司譯院準職을 주기로 하였다. 또 6月2日에 明使 張奉과 吳猷등이 돌아갔는데 이들은 貿易商品을 많이 갖고 와서는 함부로 高價로 強制販賣하는가 하면 또 要求하는 바가 많아서 나라 財政이 枯渴되고 市民의 苦痛이 컸다는 것이다.

11月9日에 千秋使(王世子 生日을 祝賀하는 使臣) 閔世良이 狀啓로 아뢰기를 皇帝가 咨文紙를 求한다고 하기로 進獻使 李蘷을 보내어 咨文紙와 表紙 合하여 6百丈을 바치기도 하였다.

<仁宗實錄卷二 仁宗元年五月己巳 甲戌 癸巳, 明宗實錄卷四 明宗元年十一月壬戌, 武陵雜稿別集卷六序送宋同知>

마지막으로 明宗時代의 概況을 더듬어 본다면 王의 2年4月에 明에서 咨文紙1千丈의 進獻命令이 있었으므로 造紙署에서 製造키로 하였는데 憲府는 그 功役이 힘드는 것을 아뢰고 減數進獻할 것을 啓請하였으되 王이 허락하지 않았다. <明宗實錄卷五 明宗二年四月己亥>

7年4月21日에 三公의 啓請에 依하여 今後 2,3年동안을 限定하여 北京貿易을 一切 停止한 다음 藥材와 書册, 그리고 弓角등 不得已한 것에 限하여 貿易키로 制限을 強化하였으니 이는 貿易으로 因하여 玉河舘의 門禁(出入의 團束)이 甚히 嚴重하게 되어 國家的 恥辱이 莫大한 까닭이었다. 이리하여 9年5月에 가서 비로소 解禁되기에 이르렀다.

<同上卷十三 明宗七年四月癸酉>

위에서 말한 것은 本役前에 朝鮮의 國力이 微弱하여 事大의 禮를 다하는 동안 明으로부터 받았던 恥辱에 가까운 苦衷이 얼마나 컸던가의 一端을 살펴 본 것인데 이 世上에서 가장 弱한 者가 곧 貧國弱兵의 나라라고 斷定하지 않을 수 없다.

四, 兩國間의 修交

위에서 事大의 苦衷이 얼마나 컸던가를 찾아보았는데 그 밖에도 兩國間에는 彼此 交涉이 적지 않았으며 엄밀한 뜻으로 본다면 어느 것이 事大의 苦衷이고 어느 것이 相互修交인지 兩者를 분간하기는 힘드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外交的인 接觸面을 主로 다루어보기로 하는 바 역시 太祖時代로부터 시작하여 明宗時代까지 내려 가면서 그 大略을 살펴 보고자 한다.

太祖 2年(1393年明太祖26年) 5月23日 丁卯에 明使로서 內史 黃永奇와 崔淵등이 왔으므로 王은 百官을 거느리고 宣義門밖에 나가 맞이한 다음 이들을 前導하여 壽昌宮(開城所在)에서 行禮하고 明太祖의 詔勅을 받들게 되었는데 그 內容이 다음과 같이 매우 거친 것이었으므로 朝廷이 啞然失色하였다. 『두나라 사이에 틈(釁)을 만든 것이 셋이 있나니 兩浙地方의 不良한 무리들로서 그대 나라의 間諜노릇을 하여 이미 數十家의 殺戮을 보게 한 것이 其一이오, 사람을 遼東에 보내 行禮라고 하면서 金帛으로 邊將을 誘引한 것이 其二요, 最近에 와서는 몰래 女眞사람을 꾀어 鴨綠江을 건너 그대 나라에 들어가게 한 것이 其三이라. 大明을 無視한 것이

둘이 있나니 입으로만 臣이라고 稱하면서 入貢하였을 때에 가지고 온 말(馬)이 모두 鈍馬인 것이 其一이오, 國號를 고치고 그대의 마음대로 하는 것을 허락하여 朝鮮을 祖上으로 하고 그대를 後孫으로 삼게 하였으나 使者가 이미 돌아온 다음에는 아무런 音信도 없는 것이 其二라.』라고 秋霜같은 호령을 하고 있었으며 또 이어서 말하기를 『그 동안 元 때에는 二世紀동안에 걸쳐서 群雄이 並起하고 中原이 소란하여 백성이 兵禍를 받았던 바 朕이 將兵을 訓練하여 群雄을 掃除하고 四方으로 不順한 者를 쳐서 모두 服從케 하였나니 이제 칼을 農具로 만들고 將士를 慰撫하여 太平을 누리려 하거늘 어찌하여 그대의 高麗(朝鮮의 뜻)는 兵禍를 만드려 하는가. 朕은 上帝에 告하고 장수에 命하여 東征케 하여서 세가지 틈을 만든 責任과 두가지 侮辱한 罪를 묻고자 하는 바 다만 江을 건너간 女眞을 돌려보내고 이것을 誘引한 者를 모두 處罰한다면 군사가 그대의 國境안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이러한 要旨의 것이었다. 8月 2日에 朝鮮國사람인 이 두 使臣이 돌아가매 進表使로 中樞院副使 李至를 보내어 朝貢路의 開通을 請하고 또 女眞人 4百餘名을 돌려 보냈다.

이 해 12月에 賀正使 慶儀등이 遼東에 갔으나 그 以上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明使인 內史 金仁甫등 4名이 또 와서 前과 같은 뜻을 傳하였다.

<太祖實錄卷三太祖二年五月丁卯, 卷四 八月乙亥 十二月戊寅, 皇明實錄太祖高皇帝實錄卷三百三十四 洪武二十六年六月己丑>

대체로 이러한 程度로 太祖時代를 지내왔는데 다음 太宗時代의 槪況을 살펴 본다면 多少 好轉되어 3年(1403年, 明成祖元年)4月 8日에 다음과 같이 明 使臣이 와서 誥命과 印章, 勅書를 가지고 왔으며 또 明 皇后가 賢妃에게 敎書를 내리기도 하였다.

正 使——都 指 揮 高 得　　副使——通政司左通政 趙居仁
從事官——宦 官 太 監 黃 儼　　同 左 曹天寶
同 上 韓帖木兒　　朝鮮國宦者 朱允端

<太宗實錄卷五太宗三年四月甲寅, 朝鮮金石總覽下二百七楊州朝鮮太祖健元陵神道碑>

10月 27日에 다음과 같은 明使一行이 와서 冕服과 太上王의 表裏, 中宮의 冠服, 元子의 書册을 가지고 오니 王이 郊迎하고 敬德宮에 가서 下賜品을 받았으며 行禮가 끝난 다음 冠服을 靜妃에게 傳하였다.

內 官——黃 儼　　內 官——朴 信
翰林待詔——王延齡　　鴻臚寺行人——崔 榮

<太宗實錄卷六太宗三年十月戊午 辛未, 皇明實錄太宗文皇帝實錄卷十八 永樂元年六月辛未, 攷事撮要卷上紀年永樂六年, 陽村集卷二十四 事大表箋類>

4年 4月에 明使遼東千戶 王可仁이 女眞에 보내는 勅書를 가지고 왔다가 5月 19日에 돌아가니 朝廷에서는 計稟使로 藝文舘提學인 金瞻을 王可仁과 같이 明에 가서 다음과 같은 奏本을 올리고 地形圖本을 바치게 하였다.

(1) 公嶮鎭以南에서 鐵嶺까지는 본시 我國의 땅이므로 이것을 我國에 還屬케 할 것.

(2) 다음 11處에 있는 女眞族을 이전과 같이 管轄케 할 것.

溪　關——奚關이니 琿春江과 豆滿江 中間 地區

参　散——北靑　　禿魯兀——端川

洪　肯——洪川　　哈　蘭——咸興府

大　伸——泰神이니 吉州　　失　里——時利이니 利原

阿　沙——利原　　斡　合——鏡城

阿都歌——未詳　　海童——海通, 未詳

<太宗實錄卷七 太宗 四年三月戊辰 四月甲戌 乙亥 丙子>

6月 22日에 明 皇太子 冊封을 賀하기 위하여 知議政府事 李至와 摠制 趙希閔을 派遣하였다.

<同上六月辛卯 太宗文皇帝實錄卷三十永樂二年八月乙未>

6年 4月 19日 다음과 같은 明使一行이 와서 朝鮮國과 耽羅(濟州島)의 銅佛像을 求하고 使臣이 直接 耽羅로 가려고 하니 朝廷에서는 耽羅의 形勢를 偵探하는가 疑心하고 急히 宣差官 金道生과 司直 朴謨를 보내어서 法華寺의 銅佛像을 가져오게 하였다.

内史——黃　儼　　内　史——楊　寧

内史——韓帖木兒　　尙寶司尙寶——奇　原

그런데 黃儼과 奇原은 다음해 5月에 다시 勅書를 가지고 와서 舍利(僧의 遺骨을 安置하는 舍利塔일 것임.)를 求하였는데 이 때 黃儼은 司禮監의 太監이라는 높은 官職을 가지고 왔다.

<同上卷十一 太宗六年四月己卯, 國朝寶鑑卷二 太宗一>

7年 6月 15日에 明使인 内史 金得과 金壽의 두 사람이 와서 皇帝(2代 文皇)가 보내는 영무새 세쌍을 바쳤다.

<同上卷十三 太宗七年六月丁酉 戊戌 辛丑>

9年 5月 3日에 明使太監 黃儼과 監丞 海壽와 奉御 尹鳳등이 또 나오니 王이 百官을 거느리고 慕華樓에서 맞이하였는데 皇帝가 王과 王妃에게 銀, 紵絲, 綵絹, 馬, 馬鞍등을 下賜하였다.

<同上卷十七 太宗九年五月甲戌 丁丑, 攷事撮要卷上紀年永樂七年>

이렇게 하여 太宗과 成祖(永樂帝)時代는 비교적 무난하게 내려오다가 다음王인 4代 世宗時代에 옮겨지게 되었는데 王의 5年(1423年, 明 永樂 21年)3月에 明使誰의 貿易은 交綺, 金銀, 丹木, 白礬(白礬과 같음.) 胡椒, 土豹皮, 貂皮및 十二升苧麻布를 除하고는 前例에 依하여 賣買케 하였다. 4月 6日에 明使 内官 劉景과 禮部郞中인 楊善이 賜諡의 誥命과 祭文 및 祭物을 가지고 入京하여 15日에 廣孝殿에서 賜諡의 禮를 行하고 太宗에게 恭定이라고 諡하였다. 8月 18日에 明使 少監 海壽와 禮部郞中 陳敬이 勅諭를 가지고 왔는데 珦(文宗이 될 사람.)을 世子로 하는 것을 허락하고 馬匹進獻을 賞하였으며 銀幣를 下賜하고 馬匹 1萬匹의 進獻을 命한 것이였다. 王과 世子는 文武百官을 거느리고 慕華樓에 나가 吉服으로 迎勅한 다음 昌德宮 仁政殿에서 行禮하였다.

<世宗實錄卷十九 世宗五年三月己丑, 卷二十 (四月丙辰 乙丑, 戊辰)>

10年(1428年, 宣宗 3年) 4月 8日에 明使 鴻臚寺少卿인 趙泉과 兵部員外郞인 李約등이 明帝의 東宮

册立의 詔書를 가지고 왔다. 王은 王世子 및 百官을 거느리고 慕華樓에서 맞이한 다음 景福宮으로 가서 行禮하였으며 勤政殿에서 國內에 大赦令을 내렸다. <同上卷四十 世宗十年四月庚申>

12年(1430年, 宣宗 5年) 4月 1日에 正朝使 吳陞과 副使 李君實이 勅書 및 王世子 珦에게 下賜하는 朝服을 가지고 오니 王과 世子 및 百官이 慕華樓에 맞이하고 大闕에 가서 行禮하였다. 同年 7月 17日에는 明使 昌盛과 尹鳳이 와서 勅諭를 傳達하고 皇帝가 쓰던 寶裝絛環(飾緖같은 것.)및 刀劍銀幣를 下賜하여 事大의 誠을 賞하였으며 또 海味嘉魚와 豹犬및 海靑등을 求하였고 또 勅諭하여 朝鮮國人의 食鹽商人이 漂到한 것을 送還케 하였다.

<同上卷四十八 世宗十二年四月辛卯, 卷四十九 同年七月乙卯>

17年(1435年, 宣宗10年) 12月 21日에 聖節使 南智가 明에서 돌아왔는데 皇帝께서 胡三省音註의 資治通鑑 1部를 下賜하였으므로 이에 朝廷에서는 謝恩使 中樞院副使 南宮 啓를 明에 보냈으며 21年(1439年, 英宗 4年) 9月 3日에 賀聖節使 同知中樞院事 李思儉을 明에 보내고 넓게 禮樂制度의 書를 求하게 하였다. <同上卷七十 世宗十七年十二月戊午, 卷八十六 世宗二十一年九月戊午>

23年 8月 13日에 聖節使로 中樞院副使 高得宗을 明에 보냈는데 이들 一行은 明의 禮部尙書에게 藥材類를 求하고 또 書를 明廷에 올려서 李滿住와 凡察등 野人에 대한 處置를 建議하였으므로 義禁府로 하여금 高得宗 以下 다음과 같은 關聯者를 逮捕케 하였다.

書狀官——金 淡　　押 物——李純之
押 馬——金 智　　通 事——金 汗
通 事——金 辛

<同上卷九十三 世宗二十三年八月戊辰, 丁丑, 皇明實錄英宗睿皇帝實錄卷八十四正統六年十月己卯>

31年(1449年, 英宗14年) 8月에 明帝親征軍이 土木에서 潰滅하여 英宗이 잡히니 皇弟인 郕(성)王 祈鈺이 即位하였다고 節日使 鄭陟이 遼東에서 馳報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明廷에 使臣을 보냈다.

賀登極使——中樞院事 南 智　　賀登極副使——大司憲 趙遂良
陳 慰 使——中樞院使 李明晨

<同上卷百二十五 世宗三十一年九月丙午, 卷百二十六 同年十月甲寅, 皇明實錄英宗睿皇帝實錄卷百八十三 景泰六年正月戊子>

다음 文宗時代의 槪況을 살펴본다면 土木의 變이 있은지 2年後인 王의 即位年(1450年, 景宗元年) 閏正月에 明나라 景宗(景泰帝)의 詔使로서 倪謙(翰林院侍 講)과 司馬恂(刑 科給事中)이 오니 王이 便치 않고 世子가 어려서 步行치 못하므로 首陽大君 瑈(世祖)가 代理하여 明使를 勤政殿뜰에서 맞이하였는데 詔書에서는 王의 即位를 賀하고 綵帛을 下賜하였다. 11日에 温堗(칠)宴(溫突房에서의 略式宴인 듯.)에서 明使가 安平大君 瑢의 書를 請하니 뒤에 大君이 數十幅을 써서 贈呈하였는데 明使가 이를 激讚하였다. <世宗實錄卷百二十七 世宗三十二年閏正月丙午, 明史卷三百二十列傳二百八 外國一 朝鮮>

8月 3日에 明使太監 尹鳳, 奉御 鄭善등이 와서 詔勅을 傳하니 王을 封하여 朝鮮國王으로 하고 冕服(帝王의 正 服)을 下賜하고 王妃에게 冠服을 주고 綵幣를 보냈던 것이다.

2年 8月 22日에 다음 一行의 明使가 와서 皇太子 册封의 詔書를 내렸다.

正使——吏部郞中　陳 鈍　　　　副陳——行人司司正　李 寬

<文宗實錄卷三 文宗即位年八月甲戌, 明史同上, 皇明實錄英宗睿皇帝實錄卷百八十八 景泰元年五月甲辰>

다음 端宗時代의 概況을 살펴 본다면 禪位하기 直前인 3年 4月 23日에 明使로서 少監 高黼(보)와 內史 鄭通이 와서 王妃册封의 誥命과 冠服 및 綵幣를 下賜하니 王은 全國에 特赦를 내렸다. <端宗實錄卷十四 端宗三年四月丁酉>

7代 世祖時代에 이르러서는 明의 英宗(正統帝)이 重祚하여 王의 2年 4月 20日에 明使로서 太監 尹鳳과 右監丞 金興이 詔勅, 誥命, 冕服, 冠服등을 가지고 왔으며 上王(端宗)에 爵을 주어서 閒居케 하고 또 優待를 加하게 하니 頒赦하였다.

11年 3月 23日에 進鷹使로 갔던 趙宗智가 欽賜八表裏(衣服의 表地와 裏地 8襲.)를 가지고 明에서 돌아왔다. <世宗實錄卷三 世祖二年四月己未, 皇明實錄英宗睿皇帝實錄卷二百五十九景泰七年二月癸卯>

8代 睿宗時代의 概況을 살펴 본다면 王의 在位 年間인 元年 閏 2月 4日에 明使 太監 崔安과 鄭同 및 池澮등이 와서 世祖에게 諡誥, 賻祭, 王과 王妃에게 誥命, 命服, 綵幣를 頒賜하니 王이 宥旨(赦罪의 恩命.)를 내리고 明使는 또 皇帝(憲宗成化帝)가 別賜한 五倫書, 五經大全, 性理大全등 書卷을 바쳤다. <睿宗實錄卷二 睿宗即位年十二月乙卯, 卷四元年閏二月己未 辛未 壬申>

9代 成宗時代의 概況을 더듬어 본다면 王이 即位한 元年(1470年, 明憲宗6年)5月 1日에 明使 內官 金興과 行人 姜浩등이 와서 睿宗에게 諡를 襄悼라고 賜하고 王과 王妃에게 誥命, 冕服, 綵幣등을 頒賜하였으며 또 勅諭하여 建州衛野人의 堤防이 되게 하였다.

<成宗實錄卷五 元年五月戊寅, 國朝寶鑑卷十五 成宗朝一戊寅五月>

10年 閏 10月 11日에 明使로서 遼東指揮 高淸이 詔勅을 가지고 왔는데 明에서 建州女眞을 征討하려 할새 朝鮮國으로 하여금 같이 군사를 보내어 挾攻케 하려는 것이었다. 行禮가 끝난 뒤에 使臣이 師期가 閏 10月 25日이라고 告하니 王이 이르되 『期가 甚히 切迫하여 미치지 못할 것이외다.』하고 이어서 及期會兵치 못함을 回報케 하였다.

<成宗實錄卷百十 成宗十年閏十月癸亥, 國朝寶鑑卷十六 成宗朝二 己亥十年十月>

11年 正月 7日에 奏聞使로 吏曹參判인 魚世謙을 明에 보내 建州征討의 勝捷을 奏聞케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斬獲數를 報告하였다.

斬首——16級　　生擒——男女 15名　　軍器——3百 79件

<成宗實錄卷百十三 成宗十一年正月戊子, 皇明實錄憲宗純皇帝實錄卷二百 成化十六年二月壬申 乙亥>

5月 1日에 明憲宗의 使臣 鄭同과 姜玉등이 詔勅을 가지고 왔는데 建州征進의 功을 嘉尙하고 王과 領兵官 尹弼商과 金嶠에게 欽賜하였다. 14年 7月 2日에 明使로서 太監 鄭同과 副使 金興이 또다시 와서 王世子를 册封하였는데 正使 鄭同은 歸國途中에 生陽舘(平安南道中和郡中和面舘里)에서 病死하니 王은 左贊成 許琮으로 하여금 가서 致祭케 하였다.

<成宗實錄卷百十七 成宗十一年五月庚辰, 卷百五十六 同十四年七月壬辰>

18年 9月 27日에 憲宗(成化帝)의 訃音이 오니 朝廷에서는 戶曹判書 李封을 陳慰進香正使로 拜하고 同知中樞府事 卞宗仁을 同副使를 삼아서 明에 보냈다.

<同上卷二百七 成宗十八年九月癸亥>

23年 5月 28日에 明孝宗이 皇太子 册立의 詔書를 내렸으므로 다음과 같이 使臣들이 왔다가 이튿날 文廟에 謁聖한 뒤 돌아 갔으니 明使의 態度가 漸次로 점잖아진 것을 알 수 있다.

正使——兵部郎中 艾璞　　　副使——行人司行人 高胤

<同上卷二百六十五 成宗二十三年五月戊子, 卷二百六十六 六月丁酉, 皇明實錄孝宗敬皇帝實錄卷六 弘治五年二月己亥>

10代 燕山君 時代의 概況을 더듬어 본다면 王의 即位年인 元年(1495年, 孝宗 8年)6月 3日에 明使로서 太監 金輔와 李珍, 行人司行人인 王獻臣이 와서 王과 王妃의 誥命을 賜하고 慶福宮에서 成宗을 위하여 賜祭賜賻하고 焚黃祭(官誥의 副本을 書한 黃紙를 墓前에서 태우는 제사)를 執行한 다음 돌아갔다.

<燕山君日記卷六燕山君元年六月癸丑 甲寅 乙卯>

9年 4月 20日에 軍器監提調인 成俊과 朴楗, 申俊이 아뢰기를『我國은 땅이 좁아서 믿는 것이 오직 弓矢이 精利이옵고 더구나 片箭은 外國에는 없는 것이오매 明使에게 보내는 것은 다만 外觀만 華麗하게 하여 줄 것이옵고 精利한 것을 주지 말도록 하시옵기 바랍니다.』하였으니 비록 힘이 弱하여 事大할망정 제나라 精神까지 아주 썩어버린 것은 아니었으며 이에 左議政 李克均, 右議政 柳洵이 모두 찬성하였다.

12年 3月 19日에 다음과 같은 明使가 와서 武宗(正德帝)의 登極詔勅을 頒賜하였다.

正使——翰林侍讀 徐穆　　　副使——吏科給事中 吉時

<燕山君日記卷四十九燕山君九年四月丙辰, 卷六十一 同十二年三月庚寅, 皇明實錄武宗毅皇帝實錄卷三弘治十八年八月丙寅>

11代 中宗時代의 概況을 살펴 본다면 武宗은 王의 3年 正月 5日에 奏聞使 通事 李和宗에게 王과 王妃 尹氏의 襲封文書와 다음과 같은 賜品을 가지고 오게 하니 左議政 朴元宗을 謝恩使로 삼아서 보냈다.

紵絲——4疋　　　羅——4疋　　　西洋布——10疋

<中宗實錄卷五 中宗三年正月癸卯>

4月 12日에 明使太監 李珍과 陳浩가 王과 王妃의 誥命을 가지고 入京하니 宣詔가 끝난 다음 朝鮮國의 賀禮를 하고 頒赦한 다음 百官에 一資를 加하였다. <同上四月己卯>

6年 12月 8日에 聖節使로 갔던 閔祥安이 明에서 돌아왔는데 國子監에서 講榻儀注를 求得하여 왔다. 또 이해에 明에서는 浙江省 定海縣에 漂着한 濟州사람 高致江, 安孫등 17名을 送還하여 왔다. <同上卷十四 中宗六年十二月戊子>

16年 11月 26日에 賀登極使(世宗의 即位)로 갔던 李惟清이 明에서 돌아오면서 漂流人 高哲山 등 16名을 이끌고 왔다. <同上卷四十三 中宗十六年十二月乙酉>

17年 2月에 賀聖節使로 갔던 沈順徑과 奪諡使로 갔던 孫澍가 모두 돌아왔는데 이들 一行

과 같이 갔던 通事 金利錫이 北京에 있는 書肆(書籍店)에 가서 大明一統志를 사려고 하였을 때 禮部郞中인 孫存이 이것을 보고 牙子(牙兵과 같은 것인 듯.)와 序班(支配人같은 것인 듯.)등 關係者를 처벌한 다음 玉河舘門을 닫고 朝鮮國사람의 出入을 一切 禁하기로 하였으니 이때부터 門禁의 例를 만들게 되었다.

<同上卷四十四 中宗十七年二月庚辰>

36年 正月 19日에 明에 갔던 冬至使 曹允武가 玉河舘에서 病死하고 書狀官 尹杲만이 돌아왔다.

<同上卷九十四, 中宗三十六年正月丙午>

37年 6月 13日에 遼東鎭撫인 李時등이 濟州島漂流人 50餘名을 거느리고 義州에 와서 漢城으로 直行하려고 하니 柳辰仝으로 慰接官을 삼고 가서 義州에서 接待케 하였으며 이들 一行은 7月 1日에 回咨를 받고 그대로 돌아갔다.

<同上卷九十八 中宗三十七年六月壬辰, 慕齋集九議接待華人議>

39年 2月 11日에 禁銀法을 違反한 다음 一行을 囚禁推考케 하였다가 뒤이어 通事 以下만 處罰하였다.

冬至正使	韓　淑	冬至副使	金舜皐	書狀官	李　璖
通　　事	朴長連	千秋正使	金萬鈞	同副使	元　混
書記官	李洪男				

<中宗實錄卷百二 中宗三十九年二月庚辰>

13代 明宗時代의 槪況을 살펴 본다면 王의 即位年인 元年(1546年, 世宗25年) 4月 19日에 進賀使로서 南世健과 尹溪등이 明에 갔다가 돌아와서 明太祖高皇帝文集을 바쳤다.

<明宗實錄卷三 明宗元年四月乙巳>

11年 11月 1日에 聖節使로 갔던 尹釜등이 明에서 돌아왔는데 처음에 尹釜등이 北京에 이르자 禮部主客司 提督主事인 余田이 公文을 내보이면서 前年에 다녀간 冬至使 一行이 貿易을 濫雜하게 하여 使臣의 體面을 손상하였다고 한 事實을 報告하였다. 다음날 兩司의 論이 일어나서 다음 사람들을 罷職등으로 處罰하였다.

冬至使	任鼐(내)臣——罷職	書狀官	金慶元——罷職
咨文點馬	孫　軾—— 同	大同察訪	柳　涉——下獄推考

<同上卷二十一明宗十一年十一月丙辰>

22年 正月 10日에 謝恩使 尹玉이 北京으로 가는 中路에서 嘉靖皇宗(世宗)의 逝去를 듣고 遺詔와 禮部의 喪禮事目을 書面으로 報告하여 왔으므로 王은 百官을 거느리고 擧哀하였다.

<同上卷三十四 明宗二十二年正月丙寅, 宣明實錄世宗肅皇帝實錄卷五百六十四 嘉靖四十五年十二月庚子, 德溪集卷五丁卯日記正月初十日>

이렇게 하여 修交라기 보다는 차라리 극진한 臣屬의 禮를 다하면서 明의 그늘 밑에서 社稷을 이어 내려오게 되었던 것인데 主權國家로서의 뼈만은 所重하게 간직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第4節 朝鮮의 國內 患亂 (本役前의 宣祖朝)

要 旨

一國의 王者가 治國安民의 至誠을 다할 때에는 外憂와 內患도 스스로 없어지는 것이지만 王이 酒色을 가까이 하고 忠諫之士를 멀리 하거나 奢侈를 좋아 하고 萬百姓의 勞苦를 살피지 못할 때에는 外憂와 內患이 交至하는 것이어서 宣祖 16年 以後부터는 藩胡가 北道에서 血雨를 일으켰으며 鄭汝立이 湖南에서 射天之兇謀를 꾀하게 되었다. 幾千胡虜와 幾十叛徒들로 말미암아 廟堂의 文武百官이 坐不安席으로 驚動하였고 民間의 善男善女가 奔放東西로 騷然하였는데 이러한 쓰라린 敎訓을 거울삼아 나라 모양을 바로 잡으려는 別다른 努力도 없이 마침내 本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는 第一項에서 藩胡의 叛亂事件을, 그리고 第二項에서 鄭汝立의 逆謀事件을 取扱하여 그 例로 삼고자 한다.

一, 藩胡의 叛亂事件

宣祖의 初政 10餘年동안은 비교적으로 國泰民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6年 癸未부터는 이 事件이 北道에서 일어나게 되어 內外가 소란하게 되었다. 이 해에는 正月과 5月, 그리고 7月의 세 차례에 걸쳐, 또 2年 뒤인 18年 乙酉에는 1次, 20年 丁亥에는 2月, 3月, 9月의 3次에 걸쳐 다시 일어났던 것이고 21年 戊子에 이르러서야 겨우 鎭壓을 보게 되었던 것이니 前後 6年間에 걸친 外憂이었으나 원래 藩胡의 武力이 弱하였기 때문에 커다란 일 없이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朝廷에서는 이러한 刺戟을 받았음에도 不拘하고 安逸과 姑息의 本性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뿌리 깊게 박힌 文治主義로 因하여 輕武思想에는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못하였고 그날 그날의 偸安만을 탐내었던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順序上 먼저 叛亂事件 부터 取扱할 것인데 癸未年 1月의 叛亂(第1次)의 經過를 살펀다면 宣祖 16年(1583年)癸未 正月에 慶源府 阿山堡 附近에 살고 있던 藩胡酋長인 迂(우)乙只乃는 前萬戶이었던 崔夢麟이 그들의 部落을 侵掠하였다는 것을 公表 聲明하고 隣近部落에 傳箭(화살끝에 通文을 매어 急히 傳하는 것.)으로써 通知한 다음 드디어 亂을 일으켰는데 萬戶(從四品)柳重榮은 怯을 내고 敢히 나가 싸우지도 못하였다. 이때에 利城縣監인 李之詩(本役時 龍仁戰鬪에 參加하였던 사람.)가 응원하러 와서 阿山堡에 駐屯하고 있다가 홀로 나가서 크게 싸워 물리쳤으며 慶源府使인 金璲와 判官(從五品) 梁士毅는 狀況이 危急하다는 말을 듣고 輕騎를 이끈 다음 江을 건너갔던 바 도리어 胡人들에게 包圍를 당하여 겨우 몸만 빠져 나오게 되었다. 이로써 賊胡 1萬餘騎가 乘勝長驅하여 慶源城을 包圍한 다음 크게 掠奪하고 돌아가게 되었다. 여기에 관련하여 鍾城과 會寧의 다음과 같은 酋長들이 모두 一時에 叛亂을 일으키게 되었다.

鍾城胡——栗甫里　　　　會寧胡——尼蕩介

<制勝方略卷一 列鎭阿山堡屬慶源故事>

2月 7日에 北兵使[北兵馬節度使(從二品)의 略稱]李濟臣이 慶源府의 藩胡가 叛亂을 일으켰다고 馳報하니 王은 三公(領議政, 左議政, 右議政)과 備邊司堂上을 引見한 다음 武臣 吳澐과 朴宣을 起用하여 助防將을 삼

고 勇士 80名을 거느리고 먼저 急行케 한 다음 이어서 아래와 같이 巡察使와 防禦使를 任命하여 뒤 따라가게 하였다.

右參贊兼都巡察使——京畿監司 鄭彦信　　防禦使——李戩(용)

<國朝故事二, 宣祖癸未十六年二月>

9日에 慶源府와 安原堡가 陷落하였다는 敗報가 이르니 곧 宣傳官(派遣將校)을 보내어 慶源府使 金璲와 判官 梁士毅의 罪를 責하여 陣前에서 베어 梟示케 하였다.

<宣祖實錄卷十七宣祖十六年二月壬辰乙未丙申>

10日에 備邊司는 다음 사람들을 起用하여 北道要害의 鎭堡를 分防하여 功을 세워 속죄(立功自效)케 하였으니 말하자면 下獄대신의 從軍이었고 罪人들에게 國防第一線을 맡기는 것이었다.

前兵使——林　晋　　前僉使——李淑男

前府使——梁思俊　　前僉使——俞　沃

前縣監——李廷犀(서)　　前萬戶——宋　荃

또 이날 南兵使 金禹瑞를 防禦使로 하고 防禦使 李戩을 南兵使로 交代任命하였다. 內禁衛의 盧守諶(심)이 赴防을 自願하니 이것을 허락하였다.　<同上二月癸巳條>

王은 要旨 다음과 같은 前後策應의 計策을 列記하여 備邊司에 내리고 討議케 한 뒤 啓請토록 하였다.

(1) 慶尙道 沿海에 있는 各官衙의 米穀을 六鎭에 運搬한다.

(2) 安邊 以北에 있는 私奴를 모두 兵士로 徵備케 하여 北道에 分番駐屯하고 防備케 한다.

(3) 下三道에 있는 公賤을 前記의 私奴 대신으로 보내 준다.

(4) 六鎭과 甲山에 대해서는 採銀의 禁을 解除한다.

(5) 兩界의 胡馬貿易의 길을 넓게 열어 준다.

(6) 牧場에는 따로 一官을 定하여 監牧을 專任케 한다.

(7) 咸鏡道와 江華島에서 武科를 뽑고 또 四方에 命令하여 俊材를 召募起用토록 한다.(同上)

12日에 巡察使 以下 北征將士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준 다음 아래와 같이 從事官(지금의 參謀)을 새로 任命하였다.

巡察使從事官——弘文舘副校理(從五品) 鄭熙績(本役初에 安東府使로 있던 사람.)

巡察使從事官——吏曹佐郎(正六品) 金睟(本役初에 慶尙監司로 있던 사람.)

防禦使從事官——前府使(從三品) 崔慶昌

이날 兵曹는 다음과 같이 建議하였다.

(1) 自願하여 六鎭에 赴防한 者는 3年이 經過되면 비록 庶孽이라도 科擧를 보게 한다.

(2) 위의 경우에 公賤은 良民이 되고 私賤은 公賤을 대신하게 한다.

이는 極히 당연한 內容의 것이었으나 兩司에서는 이를 反對하여 필경 實施를 보지 못하였다.

<同上二月乙未, 亂中雜錄卷一癸未>

13日에 北兵使가 馳啓하기를 胡賊이 訓戎鎭을 包圍하니 다음 사람들이 力戰하여 賊을 追擊하고 江을 건너가 그 部落을 焚蕩하였다는 것이였다.

訓戎鎭僉使——申尙節　　　　穩城府使——申 砬(本役에서 戰歿한 忠州에 武將)

朝廷에서는 위의 두 사람과 富寧府使 張義賢에게 加資하여 褒賞하였다.

<春坡堂日月錄卷六 癸未二月>

15日에 巡察使 鄭彦信(뒤에 右議政으로 鄭汝立事件에 罷職된 사람.)이 漢城을 떠나 出發하였는데 22日에 江原監司로 있던 權徵의 推考를 啓請하였으니 鄭彦信이 군사를 거느리고 江原境에 들어갔으나 人馬에 대한 給養을 지나가는 郡邑에서 獨力으로 擔當케 하였으므로 給養이 잘 되지 못하여 將士들의 進軍에 支障이 있었기 때문이였다. <宣祖實錄卷十七 宣祖十六年二月戊戌 丙午條>

24日에 北兵使 李濟臣을 拿鞫케 하고 防禦使 金禹瑞를 그 後任으로 發令하였으며 또 北道虞侯(兵馬虞侯, 從三品) 李仁吉은 軍機를 失誤하였고 吉州牧使 李鸞壽는 군사를 거느리고 赴援치 않았으므로 모두 拿捕하여 取調토록 하였다. <同上二月丁未條>

28日에 北兵使 李濟臣이 馳啓하였으니 그 要旨에 『다음과 같은 我軍將領들이 16日에 三路로 江을 건너가 賊 150餘級을 베인 다음 그 귀를 보낸다.』라고 하는 戰果報告하였다.

將領——穩城府使——申 砬　　　富寧府使——張義賢
　　　訓戎鎭僉使——申尙節　　　軍　官——金遇秋
　　　軍　官——李宗仁(本戰役때 金海府使로 晋州戰에 戰歿한 사람.)
　　　軍　官——金俊民(本戰役때에 巨濟縣令으로 晋州戰에 活躍한 사람.)

焚蕩한 部落——多通介洞——車汝邑浦——于乙其——尙加巖——麻田塢——安豆里者中島——金得灘

이 때에는 이미 李濟臣을 拿鞫하라는 命令을 내린 다음이였는데 王은 功을 세운 사람을 拿鞫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 의논한 뒤 아뢰라 하였던 바 備邊司에서는 『義禁府都事가 이미 出發하였사온데 中路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일이 복잡하여 질 것이오니(原文에서는 顚倒라는 말을 쓰고 있다.) 逮捕하여 온 다음에 聖斷을 내리시도록 하심이 如何하니이까.』하매 王이 이에 따랐다.

이 당시 朝臣들의 思考方式이 대개 이렇게 옹졸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다.

<朝野僉載卷二十 癸未十六年二月>

30日에 北兵使 李濟臣이 다시 馳啓하기를 軍官 金遇秋가 卓頭部落을 焚蕩하고 65級을 베어 보낸다고 하였다. 이에 備邊司가 李濟臣의 設策이 適切하므로 將士의 軍功을 行賞하고 都巡察使를 내려 보낼 것을 啓請하였다. 그런데 이 때에 胡賊은 다시 慶源府를 包圍하였으며 穩城府使 申砬이 輕兵을 거느리고 赴援하여 城안에 들어갔는 바 賊은 三重으로 包圍하였으나 申砬이 勇奮하여 擊退하였다. 또 賊은 乾原堡를 包圍하니 富寧府使 張義賢이 힘써 싸워서 擊退하였고 뒤 이어 賊은 安原堡를 侵掠하였는 바 그 兵勢가 매우 커서 守將들이 끝내 城堡를

지키겠다는 굳은 뜻이 없었고 申砬은 阿山을 赴援한 다음 路安原을 지내 이것을 救하였다. 얼마 안 되어서 兵使 李濟臣은 安原堡의 城壘가 조그맣고 또 兵力도 弱하므로 安原을 撤收하여 慶源本府에 合치게 하였으며 賊은 安原堡에 들어가 穀物을 掠奪하고 돌아가 버렸다.

<制勝方略卷一列鎭>

閏 2月 1日에 訓戎鎭僉使 申尙節을 兼禮賓正으로 拜하고 前任者 尹貫休를 司成으로 삼았다. 前慶源府使 金璲를 行刑하려 내려 갔던 宣傳官 李克善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北兵使 李濟臣이 大明律에 死囚는 3日을 지낸 다음에 行刑한다는 文句를 들었으므로 3日동안 標信(急變을 傳할 때,또는 闕門을 出入할 때에 가지고 다니는 門鑑.)을 거두었다가 行刑하였나이다. 하니 王은 宣傳官이 내려가서도 곧 行刑하지 못한 罪가 重하므로 北兵使 李濟臣을 推考(官人의 罪過를 推問하여 考察하는 것)하라는 傳旨안에 이 條項을 넣기로 하고 李克善을 義禁府에 내려 보냈다. 그런데 司諫院에서는 李克善의 罪가 輕하므로 罷職을 請하였으며 司憲府에서는 軍律失誤의 罪가 重하므로 다시 詔獄推考를 請한 결과 杖 1百,流3千里라는 照律(軍律에 定한 刑量)에 대하여 功議(功臣 또는 그의 子孫이 犯한 罪刑을 減免하는 規定)로써 各一等을 減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도무지 알고도 모를 일이었다. 賊을 눈앞에 놓고서도 먼저 臣下들의 責罰에만 血眼이 되었던 이 當時의 王과 朝臣들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文獻上으로 찾아낼 도리가 없다.

뒤 이어 北兵使 李濟臣을 義州 麟山鎭에 流配하였으니 이러고서야 將領들이 어찌 마음 놓고 싸울 수 있겠는가. 나라를 亡친 者는 實로 宣祖와 그의 一黨인 朝臣의 무리들이었다. 이 달에 巡察使로 내려 갔던 鄭彦信을 咸鏡道監司로 任命하고 前任者 鄭澈을 禮曹參判으로 옮겼다가 한달 뒤에는 禮曹判書로 拜하였다.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 承政院 門扉에 글을 쓰기를 「惶恐待罪承政院」이라 하고 또 「上敎允當備邊司」라 하였으니 이는 承政院이 일에 있어서 本心에도 없는 忠誠心을 發揮하면서 待罪만 하는 것을 일 삼았고 備邊司가 變事가 있으면 스스로 措置할 줄 모르고 上敎만 받아서 每事至當主義로 나가는 것을 비꼬아낸 것이니 人心의 動向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 下人輩들은 議政府三公들을 가르켜 「允當閣下」라고도 하였으니 至當大臣들의 無能을 빈정댄 것이리라.

4月 7日에 全羅水使(水軍節度使正三品의 略稱)李鎰을 慶源府使로 任命하고 前府使 任應龍을 全羅水使로 삼았다. <宣祖實錄卷十七 閏二月甲寅 戊午 丙子 四月戊午>

다음 癸未(宣祖16年)5月의 叛亂(第2次)經過를 살펴 본다면 5月 初 5日에 栗甫里(鍾城胡人의 酋長.), 尼蕩介(會寧胡人의 酋長)등 2萬餘騎가 鍾城을 包圍하고 攻擊을 시작하니 出身(武科에 及第한사람.)軍官 權德禮와 土兵(地方에서 사는 군사)들이 많이 戰死하였으며 北兵使 金禹瑞가 또한 包圍中에 있다는 急報가 8日 뒤인 13日에야 到達되었다. 이 당시 烽燧制度를 어찌하여 活用하지 못하였는지, 또 急使派遣이 어찌하여 없었는지 알 수가 없다. 朝廷에서는 公私賤과 雜類人가운데서 射術에 能한 者 2百名을 뽑아 緜布와 米穀을 주어서 急派케 하고 또 射術을 못하는 市民들은 軍兵을 삼고 保布를 주어서(給保라함.)軍馬를 가지고 떠나게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助防將을 任命하여 指揮케

하였다.

京畿水使──李 璼(嘉善大夫를 주고 助防將으로)

또 北道에 대한 軍糧補給이 不充分하므로 다음과 같이 各各 米穀을 供出케 하여 安邊으로 보내게 하였다. 이러한 小敵의 出沒에 對하여 벌써 朝臣들의 供出米가 必要하대서야 어찌 國防을 論할 수 있었겠는가 反問하고 싶은 것이다.

東西班四品以上
宗親副正(從三品)以上 } 正米 3石씩 供出
外方守令(咸鏡道, 平安道 博川以北, 除外)

이 正米는 耗穀에서 내기로 하였으니 耗穀이라 함은 還穀할 때에 貯藏中의 減量을 豫想하고 每石 몇 升씩 增徵하는 穀類를 말하는 것이다.

<制勝方略卷一 列鎭, 宣祖實錄卷十七 宣祖十六年五月甲午條>

16日에는 胡賊 5千餘騎가 防垣堡를 包圍攻擊하였으나 다음 사람들이 力戰奮鬪끝에 擊退하고 말았다.

助防將──李 薦　　端川郡守──李永琛

萬 戶──崔 浩　　<同上五月丁酉條>

17日에 北兵使 金禹瑞가 馳報하기를 『胡賊이 鍾城을 包圍하고 攻擊할 때에 孝汀이라는 藩胡가 會寧의 酋長인 尼湯介와 원수였으므로 그 빈 틈을 타서 그 廬舍를 焚蕩하매 胡賊들이 마침내 撤收하고 모두 江을 건너 도망갔나이다.』하였다. 朝廷에서는 이에 孝汀등을 厚賞케 하였다. 이러한 僥倖은 항상 바랄 수 있는 떡이 아니었다. <同上五月戊戌條>

그런데 19日에는 鍾城의 酋長인 栗甫里가 指揮하는 胡賊 數萬騎가 潼關鎭을 包圍攻擊하였는데 朝鮮軍에서는 다음 將領들이 力戰끝에 擊退하였으니 역시 나의 힘만이 必要하였다.

潼關鎭僉使──鄭 鯤　　助戰將──朴宣　　<同上五月丁未條, 制勝方略卷一>

26日에는 巡察使및 北兵使가 다음 要旨의 啓請을 하였다.

『賊胡 千餘騎가 今月 11日에 鍾城을 包圍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사오며 16日에는 또 潼關과 防垣등의 城堡를 攻擊하였으나 그들이 또다시 擊退되었사온 바 堂上官을 遊擊將으로 派遣하시고 豆滿江 上流와 下流의 兩地方에 分屯하였다가 臨機로 應援토록 하시기 바랍니다.』하였다.

이달에 北道助防將 吳澐을 阿山堡에서 南方으로 移配케 하였다. <同上五月丁未條>

다음 癸未(宣祖16年)7月의 叛亂(第3次) 經過를 더듬어 본다면 7月 10日에 乾原權管인 金汝弼등이 慶源에 있던 胡賊의 頭目인 于乙其乃를 乾原堡앞 까지 誘引하여 베어 죽이니 朝廷에서는 東小門밖에 梟示토록 命令함과 아울러서 誘引한 功이 있는 北兵使의 軍官 李璞과 胡人등에게 厚賞을 주기로 하였다. <國朝故事二 癸未十六年七月>

12日에 柳成龍을 咸鏡道 監司로 삼고 前任者인 鄭彦信을 右參贊(正二品)으로 拜하였으며

18日에 鄭熙績과 尹先覺(本役에 忠淸監司로 있던 사람)을 巡察使從事官으로 任命하였다.

<宣祖實錄卷十七 (十六年七月辛卯, 丙申, 丁酉條)>

19日에 胡賊酋長인 尼湯介와 栗甫里등이 2萬餘騎를 거느리고 다시 防垣堡를 包圍攻擊하였는데 다음 여러 將領들이 鍾城에서 來援한 兵馬虞侯 張義賢과 判官 尹湛등과 內外 合勢하여 크게 擊破하니 賊이 드디어 敗走하였다.

助防將——李 璲　　伏 兵 將——尹安性(本役初에 南原府使로 活躍한 사람.)

萬 戶——崔 浩　　高嶺僉使——邊 璣(本役初에 助防將으로 活動한 사람.)

이달 30日에는 咸鏡監司를 不過 半달만에 또 바꿨으니 右承旨 權克禮가 새로 任命되었던 것이다.

<制勝方略卷一 列鎭>

8月 5日에 다음과 같은 慶源虜變陷城때의 善行者를 旌門復戶케 하였다. (復戶는 忠臣孝子등에게 戶役을 免하는 것.)

(1) 正兵 吳漢春——重圍中에 父를 찾다가 같이 죽었다.

(2) 鍾城烽燧軍 韓揚——賊中에 突入하여 父를 救出하고 돌아 왔다.

(3) 安原內奴(女子종)萬年, 長壽, 春月, 穩城保人 金銀石의 妻 令伊——貞操를 지키고 自經하여 죽었다.

<宣祖實錄卷十七 (十六年八月甲寅)>

2年뒤인 乙酉(宣祖18年) 7月의 叛亂(第4次)을 살펴 보건대 7月 7日에 北兵使가 아뢰기를 件加退部落의 藩胡가 여러번 邊境을 侵略하여 民心이 騷擾타고 하니 朝廷에서는 長連縣監인 金慶福을 造山萬戶로 삼고 이 賊을 討滅하라고 命令하였다. <續精忠錄卷一 兵曹參判金公實錄>

또 2年뒤인 丁亥(宣祖20年)2月에 叛亂(第5次)이 있었는데 이해 2月에 胡賊이 蛇洞에서 朝鮮軍이 伏兵하고 있던 곳에 潛入하니 다음 將領들이 追擊하여 長白山밖에 나갔다가 賊의 도망친 길을 잃어 그대로 돌아 왔다.

森人保萬戶——元 瓘　　助戰將軍官——高彥伯(本戰役에 慶尙左兵使로 活躍한 사람.)

朝廷에서는 元瓘을 逮捕하여 充軍(官員의 犯罪者를 軍에 從軍케 하는 刑罰.)케 하였다.

<制勝方略卷一 列鎭 丁亥二月>

이해 丁亥 3月의 叛亂(第6次)이 또 일어났는데 이것은 胡賊 40餘名이 立巖에 있던 體探處(지금의 斥候隊本部.)近方의 溪川에 나타나 體探軍과 不時에 衝突하여 朱乙溫萬戶인 朴皀(유)根과 土兵들이 力戰끝에 賊을 물리쳤는데 朝鮮軍 2名이 화살에 맞았으며 鏡城判官 金敬老(本役에 南原城에서 싸운사람)는 이 急報를 듣고 精兵을 거느린 다음 吾村까지 나갔다가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吾村權管인 黃大鵬과 約束하고 일부러 期를 어겨 드디어 迂路를 거쳐서 朱乙溫泉으로 向하니 賊이 멀리 도망쳐 버렸으며 朴皀根도 또한 兵力이 적어서 追擊하지 못하였다. <制勝方略卷二列鎭>

이해 丁亥(宣祖20年) 9月의 叛亂(第7次) 이 세번째로 일어났는데 9月 24日에 胡賊이 鹿屯島의 防柵을 陷落시켰는 바 이에 앞서 癸未年(宣祖16年) 胡變 以後부터 監司로 있던 鄭彥信은 軍糧을 補充하기 위하여 鹿屯島에 屯田을 만들고 慶興府使인 元豪(本役에 助防將으로 活躍한 武人.)로 하여금 開墾하여

水田을 만들게 하였다. 朝廷에서는 丙戌年(宣祖 19年)에 廷議로써 宣傳官 金景訥을 보내어 屯田官을 삼고 城柵을 島中에 만들게 하고 南道에서 보낸 闕軍(闕防軍이니 歸休兵을 召集한 군대.)으로 하여금 耕作에 從事케 하였던 것인데 이 해에 造山萬戶 李舜臣(뒤에 忠武公이 된 武將)으로 하여금 屯田을 兼掌케 하였다. 이 가을에는 豐作이었으므로 府使 李慶祿은 군사를 거느리고 섬 안에 들어가 李舜臣과 같이 秋收를 하고 있었는데 楸島 藩胡인 尼蕩介는 慶源境에 있던 胡賊部落과 連絡한 다음 守備力이 弱하고 모두 農土에 나가 있는 틈을 타서 大擧하여 奇襲하여 왔으므로 다음과 같은 戰死者를 내면서 苦戰하게 되었다.

屯四守將——吳 亨　　　　屯田守將——林景藩

李慶祿과 李舜臣이 同力拒戰하여 賊을 물리쳤으며 賊 3名을 베고 胡馬 1匹과 農民 50餘名을 奪還하였는 바 農民과 將士 1百 60餘名이 잡혀가고 10餘名이 戰死하였다. 北兵使 李鎰은 李慶祿과 李舜臣의 拿鞫을 請하였으며 朝廷에서는 金命元(本役에 都元帥로 있던사람.)을 右參贊兼都巡察使로 任命하여 急히내려가게 하였다.

10月 4日에 兵曹判書 鄭彦信은 鹿屯島의 失守責任으로 治罪할 것을 請하니 朝廷에서는 다음 사람들을 白衣從軍하여 自效케 하였다.

慶興府使——李慶祿　　　　造山萬戶——李舜臣

<制勝方略卷列鎭, 宣祖實錄卷二十一 (九月庚戌十月己未, 乙丑條)>

이 해 11月初에 北兵使 李鎰은 慶興에 巡視하려 나갔다가 軍官을 造山에 보내어 胡賊의 情況을 살피게 하고 江물의 氷結됨을 探知한 다음 兵馬虞侯 金遇秋와 定衛將으로 하여금 營軍의 군사와 慶興境內軍을 合치게 하여 4百餘騎로써 氷暗을 타고 江을 건너가 아침 새벽에 楸島部落을 襲擊하고 廬舍 17을 불태운 다음 33級을 베어가지고 돌아왔다.

<制勝方略卷一列鎭 防禦鹿屯島屬造山故事, 宣祖實錄卷二十一 十一月庚子>

이렇게 하여 前後 7次에 걸쳐서 大小의 叛亂이 일어났는데 마침내 이들 胡賊의 平定을 보게 되었으니 그 經過의 大要를 본다면 宣祖 21年 戊子正月에 北兵使 李鎰은 吉州 以北에서 穩城以南의 一,二等 土兵과 營軍士와 京將士, 그리고 慶興管內 四堡에 있는 軍馬를 모두 合하여 2千 2百餘名으로서 다음 將領들을 左右衛將을 삼고 潛師渡江하여 時錢藩胡를 襲擊殲滅하였다.

左衛將——會寧府使 邊彦琇　　　　中衛將——北兵使 李 鎰

右衛將——穩城府使 楊大樹

이 때에 거둔 戰果는 다음과 같다.

焚蕩 2百餘家　　斬首 383級　　<宣祖實錄卷二十二 (二十一年正月辛亥)>

2月 16日에 胡賊이 惠山境을 侵犯하여 僉使 李迴가 接戰끝에 戰死하였다고 南兵使 申砬이 馳報하니 朝廷에서는 곧 朴楊命을 僉使로 任命하고 다음날 軍馬를 주어 出發케 하였다.

<同上二月己巳條>

6月 14日에 北兵使 李鎰이 馳報하기를 胡賊의 船舶 20餘隻이 西水羅의 卵島에 來襲하였으므로 權管 林秀衡이 追擊하였으나 잡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同上 六月丙寅條>

閏 6月 2日에 南兵使 申砬이 報告하기를 지난 20에 古未浦에 있는 胡人 部落에 쳐 들어가서 各衛의 斬獲이 20名이고 軍馬 3匹을 鹵獲하였다고 하였다. <同上 閏六月癸未>

10月 15日에 南兵使 申砬이 加乙波堡의 守兵이 堡將을 面辱하였으므로 斬首하였다고 啓하니 司諫院에서는 臨陣對敵이 아니고서 斬刑을 加하였다 하여 罷職하기를 請하였으며 三啓한 뒤에 王이 이를 허락하여 申砬을 罷職하였다. 또 北兵使 李鎰은 胡賊과 內通하고 그 入寇를 案內하였다는 造山土兵 宋千壽 父子를 베고 朝廷에 啓聞하였는데 이를 또한 罷職키로 하였으며 또 慶源府使 韓克諴(本役初에 北兵使로 敗戰한 사람)이 軍令에 服從하지 않는 守兵을 主將에 報告하지 않고 베였으므로 亦是 罷職키로 하였다. <同上 十月乙未 己酉條>

11月 8日 夕講에 兵曹判書 鄭彦信은 李鎰등의 罷職이 不合當하다고 아뢰고 또 咸鏡監司 權徵이 北兵使 李鎰을 留任시킬 것을 아뢰니 그 建議한 대로 좇기로 하였다.

이 당시 朝廷의 賞罰이 이와같이 無原則하고 괴상망칙하였던 것이다. <同上 十一月丁巳條>

二, 鄭汝立의 謀叛 事件(己丑獄事) (原文 第138參照)

이 事件은 宣祖 22年 10月에 일어난 事件이였으므로 本役이 터지기 2年半前의 일이였다. 이 事件의 首謀者였던 鄭汝立은 원시 東萊사람으로 全州 東門밖에 世居하였는데 그는 身幹이 壯偉하고 科擧에 登第한 다음 成渾과 李珥의 門에 出入하였으며 立朝한 뒤에 李潑등과 交分이 있었으나 李珥가 죽은 뒤로는 弘文舘修撰으로 李珥를 도리어 攻擊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마침내 미움을 朝廷에 받게 되자 곧 官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가서는 學徒를 모아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 名聲이 一道에 높았다. 그는 博學強記로서 經傳에 精通하고 氣魄이 壯하여 議論이 風發하였는데 世俗의 紊亂을 틈타서 장차 亂을 일으키려 하였다. 兄弟 5,6人이 있었으나 모두 서로 不和하였고 內外 親戚이 서로 仇敵같이 되었으며 重表兄(外家집 從兄.)이 되는 文科出身의 李廷鸞(本役에 全州를 지켜서 有功한 사람)은 그를 가장 排擊하였던 터이었다. 이 事件으로 말미암아 1年동안에 걸쳐 內外上下가 크게 소란하였던 것이고 많은 人材가 죽음을 당하거나 處罰을 당하게 되였다. 이제 이 事件의 始終을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그의 謀逆의 事實은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였는데 그는 講學에 假託하여 無賴한 武士와 僧徒들을 모았으며 安岳 사람 邊崇福과 朴延齡 海州사람 池涵斗등과 사귀였고 妖僧 義衍과 의논한 다음 「木子亡奠邑興」이라는 六字를 玉版에 새겨서 智異山石窟中에 숨겨 놓은 다음 義衍은 그의 무리인 道潜과 雪淸등과 같이 遊山한다 하여 智異山에 들어가 이 玉版을 찾아서 汝立에게 주었다. (이 六字의 뜻은 李氏가 亡하고 鄭氏가 興한다는 것이다.)

僧 義衍은 雲峯縣사람인데 스스로 遼東에서 出生하였다 하고 名山을 遍歷하여 돌아다니면

서 사람을 만나면 속여서 말하기를 『내가 遼東에 있을 때 朝鮮에 王氣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과연 王氣가 全州 東門 밖에 있는 것을 알았소.』하니 이로부터 「全州王氣說」이 四方에 퍼지게 되었다.

汝立의 아들 玉男은 잔등에 王字가 있었다는데 이것을 꺼리고 玉字를 만들어서 玉男이라 이름짓기로 하였다는 것이며 또 玉男의 한 눈에 瞳孔이 둘이 있어서 사람들이 神奇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이 때에 童謠가 있어서 뽕나무(桑樹)에 말갈기(馬鬣)가 나는 집의 家主는 王이라 하니 汝立이 僧 義衍과 같이 家園의 桑樹에 몰래 말 갈기를 심어 놓고 隣近사람에게 몰래 보인 다음 말하지 말라 하면서 이것을 깎아 버리게 하였다.

連山縣 鷄龍山의 開泰寺基는 다음 代의 鄭氏 王都가 될 것이라는 말이 떠돌았는데 汝立이 義衍등의 僧侶와 같이 國內山川을 遍覽하고 廢寺에 詩를 題하였으니 그 뜻에 이르기를 『客이 南國에 오랫동안 遊覽하였는데 鷄龍山에 들어서니 눈(眼)이 밝아지도다. 戊己(戊子.己丑 兩年) 年에 大運이 亨通할지니 나라를 太平케 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려우리.』하였다.

汝立은 隣邑의 여러 武士와 公私賤隷의 壯勇한 무리들을 모아 大同契를 만들고 每月 15日에 한 곳에 모여 활쏘기를 하면서 勝負를 겨루고 酒食으로 지내는 것을 例로 하였는데 宣祖 20年 丁亥에 倭變(2月26日에 興陽에 侵寇한 것.)이 있자 全州府尹 南彥經의 要請으로 이 무리들을 모아 그 힘으로 倭賊을 平定케 하니 南彥經이 탄복하여 『汝立은 儒學뿐만 아니라 그 武才도 또한 훌륭하다.』하였다.

天安에 吉三峯이라는 私奴가 있었는데 勇猛이 絶倫하여 하루에 3,4百里를 步行하면서 도둑질을 하고 官軍이 잡을 때마다 도망을 치니 그 이름이 國內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汝立은 池涵斗등으로 하여금 海西地方에 말을 퍼치게 하여 이르기를 『吉三峯과 三山兄弟가 神兵을 거느리고 智異山에 들어갔다가 또 鷄龍山으로 옮겨들어갔다.』하는가 하면 『鄭八龍은 神勇之人으로 장차 王이 되어 鷄龍山에 도읍하고 멀지 않아 군사를 풀 것이라.』하였는데 八龍은 汝立의 거짓 號稱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八龍이 또 딴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다. 이 당시 海西地方에는 林巨正의 亂이 있었고 民心이 不安하던 차에 流言이 떠돌아서 『湖南 全州땅에 聖人이 나서 백성을 救할 것이로다. 水陸의 모든 부역을 없새고 公私賤과 庶孽의 禁錮法을 모두 고침으로써 이제부터 國家가 太平無事하게 되리라.』하니 愚民들과 湖南士人들 이이 말을 그대로 퍼트리게 되었다. 이러한 社會의 不平을 교묘하게 利用한 것을 注目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事前工作을 펴 놓은 다음에 汝立은 이해 겨울에 西南에서 한꺼번에 군사를 일으켜 곧 漢城을 치고 武庫를 불태운 다음 江倉을 빼앗기로 하였다. 또 腹心을 都內에 侵入시킨 다음 刺客을 시켜 大將 申砬과 兵曹判書를 죽이고 傳旨라 하여 閫帥方伯을 죽이는 同時에 全羅監司와 全州府尹을 罷職시키고 그 틈을 타서 擧事키로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射天之兇謀를 교묘하게 꾸며댔지만 어찌하여 이것이 白日下에 들어났던가 하

는 謀逆의 綻露過程을 살펴 본다면 당시 長城땅에 사는 士人 鄭雲龍이 처음에는 汝立과 交遊하였던 바 그가 하는 짓을 보고 크게 놀라 長城縣監 李啓에게 말하여 變을 報告하려고 하였으나 아직 端緖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만 汝立에게 書信을 보내어 딴 일을 핑계하고 絶交하였다. 이때에 汝立의 女婿인 金敬一이 古阜에 있었는데 民間의 傳言을 듣고 汝立에게 書面으로 質問하여 이 眞否를 따졌는 바 汝立이 答書하기를 『나에게 원수된 者들이 이런 말을 만드는 것이니 삼가 입밖에 내지 말라.』하였다. 이때에 僧 道潛과 雪淸등이 그 叛情을 알고 먼저 逃亡쳐 가버렸으나 일이 점점 尋常치 않게 되었다. 또 이때에 李洁이 召命을 받고 漢城으로 가는 길에 金溝를 지내면서 汝立을 만나보고 數日동안 머물러 서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 하던 끝에 殊常히 여겨 물어 보매 汝立이 붓을 술로 적시고 食床위에 글을 쓰니 李洁이 大驚失色하여 恩津縣監 官舍에 뛰어가 그의 兄인 李潑에게 書信으로 報告하였다. 그러나 李洁은 그뒤 漢城에 올라와서 그의 兄인 李潑과 의논하여 處置하려 하였다가 드디어 아무런 措置도 하지 못하였고 다만 그 말을 秘密에 부치고 말았는데 이것이 뒤에 그들이 慘刑을 당하게 된 根源이 되었다. 이때에 海西 九月山의 僧侶들이 서로 呼應하는 者 있거늘 僧 義嚴이 이것을 알아차리고 載寧郡守 朴忠侃(간)에게 密告하였다. 그러나 朴忠侃은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이때 安岳郡守 李軸의 族弟가 되는 進士 南截이라는 사람이 郡에 와 있다가 民間의 流言을 듣고 李軸에게 알리니 그는 다시 더 實情을 調査케 하였다. 南截은 校正 趙球가 汝立의 弟子라 하면서 徒衆을 모아 놓고 그 行動이 殊常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이것을 李軸에게 告하여 모두 逮捕하고 問招케 되었다. 趙球는 숨길 도리가 없어 모조리 그 逆狀의 眞實을 告白하니 李軸이 朴忠侃에게 書面을 보내고 趙球로 하여금 信川에 가서 郡守 韓應寅과 聯名하여 全羅監司 韓準에게 報告케 하였다. 한편 朴忠侃은 곧 載寧에 돌아와서 汝立의 黨인 李綏를 잡아 심문하니 綏의 自白하는 바가 趙球의 말과 같은지라 즉시 전에 僧 義嚴으로부터 들은 바를 아울러 적어서 그의 아들로 하여금 大闕에 가서 變報케 하였는데 이어서 全羅監司 韓準의 馳啓가 따라올라 왔던 것이다.

이러한 兇報에 接하게 된 王과 朝臣들은 어찌하였던가. 이제 朝廷의 處置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이해 宣祖 22年 10月 2日에 이 變報에 接하게 된 王은 便殿(王이 平素에 起居하는곳.)에서 三公, 六承旨(都承旨, 左右承旨, 副承旨, 同副承旨)와 義禁府堂上을 引見하고 入直都總管과 弘文舘上下番을 모두 入待케 하였는데 홀로 藝文舘 檢閱 李震吉만은 汝立의 甥姪이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王은 汝立이 어떠한 사람인가 물으매 領議政 柳坱과 左議政 李山海는 잘 모르겠다고 아뢰고 右議政 鄭彦信은 대답하되 『다만 讀書하는 사람인줄로 아옵고 그 밖에는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宣傳官과 義禁府都事를 보내어 黃海道와 全羅道에 가서 汝立一黨을 체포케 하고 李震吉을 獄에 가두게 하였는데 10月 7日에 義禁府都事인 柳湛이 馳啓하기를 全州에 가서 군사를 풀어 鄭汝立을 包圍케 한 바 汝立이 脫身逃走하였다고 하니 王은 大臣들과 捕盜大將을 불러서 逮捕하는 方法을 의논케 한 다음 이튿날 軍官에게 말을 주어 곧 出發케 하

고 全州府尹 尹自新과 判官 羅廷彥의 署經(敍任한 뒤에 姓名,門閥,履歷등을 臺諫에게 물어서 可否를 決定하는 것.)을 取消하고 罷職케 하였다. 8日에 黃海道의 罪人 李箕와 李光秀등을 잡아오니 大闕마당에서 三公과 判中樞府事 金貴榮(本役에 王子를 따라 北道에 갔다가日本軍에 잡혔던 사람.) 그리고 義禁府堂上과 大司憲과 大司諫이 合同으로 鞫問하였으며 또 앞서 汝立을 逮捕하러 갔다가 놓치고 돌아온 宣傳官과 義禁府都事도 같이 鞫問하였고 9日에는 汝立의 생질인 檢閱 李震吉의 仕版(仕官原簿)을 削去하여 버린다음 官員될 資格을 剝奪하였다. 이때에 領中樞府事 盧守愼이 變을 듣고 大闕안에 들어와서 起居하였으며 判敦寧府事 鄭澈이 入京하여 肅拜한 다음 逆賊을 잡아서 處斬하는 同時에 京外를 戒嚴할 것에 대하여 建議하였다.

14日에는 다음과 같이 督捕御史를 三南地方에 急派하였다.

慶尙道——丁胤祜　　全羅道——李大海　　忠淸道——鄭淑男

이에 앞서 宣傳官 李用濬과 內官(內侍와 같음.) 金良輔등이 全州에 急히 내려가 汝立의 行方을 調査探問한 즉 汝立은 아들 玉男과 同黨 安岳사람 邊氵+世, 그리고 朴延齡의 아들 春龍을 거느리고 鎭安竹島에 숨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 宣傳官 一行은 鎭安縣監 閔仁伯과 軍官들을 이끌고 竹島를 包圍하니 汝立은 邊氵+世을 죽인 다음 玉男과 春龍을 칼로 찔렀으나 죽지 않았으며 그 다음에 汝立은 스스로 칼로 찔러 죽었으므로 宣傳官은 그 屍體와 玉男과 春龍을 잡아가지고 17日에 上京하였다. 15日에는 黃海道 罪人 李箕와 李光秀등을 軍器寺 앞에서 處刑하고 17日에는 安岳水軍 黃彥綸과 方義臣등이 伏誅하였다. 20日에는 王이 宣政殿에서 鄭玉男과 또 그와 같이 도망치다가 逮捕된 朴延齡등을 親鞫하였는데 玉男은 主謀者가 吉三峯이라고 陳述하고 朴延齡은 汝立과 同謀하여 叛逆한 것을 承服하니 모두 軍器寺앞에서 磔(책)刑에 處하였다. 이리하여 27日에는 告廟頒敎하고 權停禮(王이 親臨하지 않는 朝禮式)로 賀를 받았으며 百官에 加資한 다음 雜犯死罪 以下를 特赦하였다.

또 이날 汝立의 屍體를 市中에 磔刑(찢어죽이는 刑罰.)하여 百官들로 하여금 구경토록 하였는데 汝立의 생질 李震吉은 끝내 自白하지 않고 杖下에 죽었다. 우리의 常識으로서는 逆謀에 關한 獄事는 이것으로 끝날것으로 생각되지만 事實은 그렇지가 않고 이제부터 더욱 일이 복잡하게 되었으니 11月3日에 湖南生員(小科終場에 合格한사람.) 梁千會는 다음 사람들이 逆賊 鄭汝立과 親交가 있다고 上疏하였다.

大司憲——李 潑　　應 教——李 洁　　前安東府使——金宇顒
副提學——白惟讓　　右議政——鄭彥信　　前 司 畜——崔永慶

右議政 鄭彥信은 汝立의 九寸親戚이어서 이제 梁千會의 論難을 받았으므로 陳疏하여 辨明하고 또 委官(調査官)을 辭退하였으며 吏曹判書 李陽元은 銓官(吏曹의 堂上官과 兵曹判書를 말하며 政官이라고도 한다.)으로서 汝立을 黃海都事로 薦擧한 責任을 지고 辭職을 上疏하였다. 다음 날 11月4日에는 禮曹正郞 白惟咸이 上疏하여 金宇顒, 李潑, 李洁등이 逆賊 鄭汝立과 親交가 密接하였다고 아뢰고 또 鞫

獄이 疎漏하였다고 論難하였으며 다음 5日에는 兩司가 右議政 鄭彦信과 吏曹參判 鄭彦智를 論하여 汝立과 親交가 있다 하여 劾罷(탄핵하여 파직케 하는것)하였다.

이렇게 하여 西人인 鄭澈이 右議政이 되어 逆獄의 委官이 되었으며 成渾이 吏曹參判, 崔滉이 大司憲, 白惟咸이 司諫院 獻納이 되었고 이어서 12日에 王은 宣政殿에서 다음 사람들을 親鞫한 뒤에 모두 定配를 보내기로 하였다.

右 議 政——鄭彦信——南海에 定配(場所를 定하여 流配하는 것 竄配라고도 한다.)

吏曹參判——鄭彦智——江界에 定配 前議政府舍人——洪宗祿——龜城에 定配

同副承旨——鄭昌衍——放 送(放免과同)

大 司 憲——李 潑——鍾城에 流配(罪人을 島地에 押送하여 保授하는 것)

應 敎——李 洁——熙川에 流配 副提學——白惟讓——富寧에 流配

前安東府使——金宇顒——會寧에 流配

23日에 汝立 討滅에 功이 있던 鎭安縣監 閔仁伯을 禮曹參議으로, 載寧郡守 朴忠侃을 刑曹參判으로 各各 拜하니 從六品에서 正三品으로, 從四品에서 從二品으로 各各 飛躍한 셈이 되고, 이전에 鄭汝立을 排斥하였던 金權을 弘文舘 修撰으로 삼았다.

25日에 司諫院은 다음 사람들이 또 汝立과 親交가 있다하여 罷職을 啓請하니 그대로 發令케 되었다.

同知中樞府事——丁胤福 弘文舘副校理——宋言愼

또 待敎 兪大禎이 함부로 李震吉의 史草를 불살라 버렸으므로 兪大禎과 行首掌務官(首席擔當官)을 拿鞫키로 하고 震吉을 史官으로 誤薦하였던 責任이 있는 다음 사람들을 下獄하였다가 放送하였다.

著 作(正八品)——鄭經世, 奉 敎(正七品)——朴承宗, 衿川縣監(從六品)——韓浚謙.

12月 3日에 參奉 韓百謙이 汝立의 屍體를 붙잡고 哭한 다음 厚葬토록 하였으므로 推鞫杖流케 하고 4日에는 汝立과 交分이 깊은 다음 사람들을 罷職하였다.

水原府使——洪可臣 承文院正字——尹敬立(史官을 削去)

12日에는 逆謀에 關聯이 있다 하여 다음 사람들을 죽였다.

前善山府使——柳德粹 樂安校生——宣弘福

16日에 逆謀首發의 功으로 다음과 같이 陞敍케 하였다.

工曹參判——李 軸(安岳郡守) 戶曹參議——韓應寅(信川郡守)

堂 上——李 綏(密告人) 堂 上——姜應祺(密告人)

正職補職——趙 球(保人)

이날 前副提學인 白惟讓이 杖下에 죽고 18日에 前大司憲 李潑과 그의 동생인 縣監 李汲이 또한 杖死하였다. 26日에 全州에 있던 鄭汝立의 祖上의 墳墓를 移葬케 하고 29日에는 다음과 같이 功臣을 錄勳하였다.

刑曹参判——朴忠侃　　工曹参判——李 軸　　戶曹参議——韓應寅
禮曹参議——閔仁伯　　堂上官——李 綏　　堂上官——姜應祺

이날 前應敎인 李洁이 杖下에 죽고 그의 母, 妻, 幼兒를 모두 逮捕하였으며 이듬해 23年 5月 13日에 老母, 幼兒가 모두 杖死하고 李洁의 사위인 洪可臣의 아들 梲와 金應男의 아들 命龍이 壓死하였으며 門下의 奴僕을 모두 嚴刑하였으나 한 사람도 承服하는 者가 없었다.

湖南儒生인 吳希吉은 鄭汝立의 弟子로서 汝立이 李珥와 成渾을 排斥하였다 하여 絶緣한 事實을 알게 되어 参奉으로 敍하고 또 長城땅 進士 鄭雲龍은 汝立과 知面間이였으나 絶交한 事實이 나타나 王子師傅로 拜하였다.

前府尹 南彦經은 全州에서 汝立을 厚待하였으므로 罷職放出케 하였고 兩南地方에 다음과 같은 安撫御史를 내려 보냈다.

嶺南地方——吳億齡　　湖南地方——白惟咸

23年 正月에 工曹参判 李軸을 刑曹判書로, 戶曹参議 韓應寅을 都承旨로 拜하였으며 2月 12日에 正言 尹洞은 諸臣의 錄勳이 너무 濫賞이라고 아뢴 罪로써 罷職되었고 19日에 領中樞府事 盧守愼은 金宇顒, 白惟讓, 鄭汝立, 李潑등을 推薦한 罪로 罷職되였으며 参奉 尹起莘은 逆賊과 交結하였다 하여 拿囚杖死케 하였으니 國王 以下의 殺氣가 날로 드높아가기만 하였다. 이리하여 沈守慶(本役에 義兵都大將이 된 사람.)이 右議政이 되어 委官으로서 全羅都事 曹大中등을 獄死케 하였다가 交代한 다음 左議政 鄭澈이 다시 委官이 되였으며 全羅監司 李洸이 罷職하게 되고 洪汝淳이 後任을 拜하게 되였다 또 江原監司 金應南이 李洁과 通婚하였으므로 交遞하였다.

23年 4月 1日에 司諫院(正言 黃愼)이 連啓하여 逆賊 鄭汝立을 金堤郡守와 黃海都事로 推薦하였을 때의 吏曹堂上과 色郎廳(現在의 地方局長 같은 것.) 關係者를 모조리 罷職할 것을 請하였으니 漸次로 狂氣마저 띄어갔다.

(1) 丙戌年(宣祖 19年) 金堤郡守로 推薦한 責任者

吏曹判書——李山海(당시의 領議政)　　吏曹参判——李 拭
吏曹参議——白惟讓(당시의 副提學)　　吏曹正郎——柳 根
吏曹佐郎——鄭昌衍(당시의 同副承旨.)　　吏曹佐郎——姜 紳(당시의 右承旨)

(2) 己丑年(宣祖 22年) 黃海都事로 推薦한 責任者

吏曹判書——李陽元　　吏曹判書——鄭 琢
同 参判——鄭彦智(이미 江界에 定配간 사람)　　同 参議——李誠中
同 正郎　李恒福　　同 佐郎——姜 紳(당시의 右承旨)

그러나 王은 騷擾스럽다 하여 이것만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에 連坐된 領議政 李山海와 右承旨 姜紳은 辭退를 請하기에 이르렀는 바 亦是 허락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하여 獄事의 濫行이 그칠줄 모르고 퍼지게 되었는데 寶城땅 사람 金用男과 金山重등은 古阜郡守 丁焰과

의논한 다음 羅州땅 사람 林池와 僧 性熙등이 逆賊 吉三峯과 松廣寺 三日庵에 留하면서 逆謀를 꾸몄다고 告發하였는데 義禁府에서는 처음에 金用男등이 寶城이나 順天의 官衙에 告發하지 않고 3日行程이나 떨어져 있는 古阜에 가서 告發한 까닭은 金用男의 妹弟가 丁熖의 妾이기 때문이라 하여 그 情狀을 疑心하였으나 丁熖이 이 말을 듣고 緣坐될가 두려워 하여 禁府吏卒에게 뇌물을 주고 또 僧 性熙에게 타이르기를 自首하면 無事할 것이라고 하니 性熙가 이것을 믿고 스스로 汝立과 同黨이었다고 告白하였으며 會議한 일은 없었고 그 坐席에 鄭介淸이 같이 있었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妙香山의 僧統 休靜(뒤의 西山大師)까지 끌고 들어가게 되었다. 이리하여 休靜도 逮捕되어 就鞫을 당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判決을 받았다.

僧 性熙——刑罰　　　　林　池——北道에 流配

用男등——賞을 받고　　　　古阜郡守 丁熖——堂上階를 賞加

僧 休靜——釋放, 王이 御書 및 黑竹 一幅을 下賜하여 慰諭.

潭陽儒生인 蔡之穆은 光陽訓導가 되어 縣吏등과 共謀하여 文書를 僞造한 다음 前縣監 金克祧가 逆賊 李潑의 兄弟들과 親交가 있고 兵器를 秘密히 만들었다고 誣告하였으며 前縣監 韓德脩도 賞을 노리어 이 뜻을 監司에게 報告하여 啓聞케 하였다. 朝廷에서 크게 놀라 調査한 結果 文書僞造의 誣告事實이 탄로되어 蔡之穆등은 伏誅하고 韓德脩는 流配되었으며 金克祧는 獄에서 釋放되었으나 곧 病으로 죽었으매 이 당시에 이와같은 誣告가 많이 流行되었으니 기막히는 世代相을 이루웠던 것이다.

5月 16日에 湖南儒生인 梁詷이 上疏하여 아뢰기를『按獄 당초에 右議政 鄭彦信이 如立의 事件을 密告한 사람을 도리어 斬하리라고 廳中에서 公公然하게 發說하였나이다.』하여 議政을 告發하기에 이르매 王이 크게 놀라 다음 사람들에게 그 事實與否를 물으니 모두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것이었다.

委官左議政　鄭　澈——諸臣들의 意見을 들을 것을 建議하였다고만 대답하였다.

領中樞府事　金貴榮——바른쪽 귀가 멀어서 못들었노라고 하였다.

都 承 旨　李　準——앉은 자리가 멀어서 못들었다고 하였다.

義禁府堂上　兪　泓——들었다고 대답하였다.

大 司 憲　洪聖民——同　上

領 議 政　李山海——記憶이 不明하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大司憲 洪聖民은 鄭彦信의 發說을 極力 主張하였으므로 王은 洪聖民을 遞差하기에 이르렀는데 27日에 領議政 李山海는 身病을 무릅쓰고 出仕하여 肅拜한 다음 鄭彦信의 特命減死를 請하였으며 6月 2日에 司諫院(正言 李洽)은 前司畜 崔永慶이 汝立과 親交가 있으므로 官爵을 削奪할 것을 請하였다. 또 12日에는 掌令 柳夢井을 拿囚(체포하여 拘束하는 것.) 하였으니 汝立과 關聯이 있다는 嫌疑로 因한 것이었다. 이때 全州府尹으로 尹又新이 赴任하여 汝立과 親交가 있으면서도 逮捕에서 脫漏된 사람과 罪가 重하고도 罰이 輕한 사람들을 빠짐없이 잡아다가

訊問하니 刑死者가 70餘名에 達하고 冤死者 또한 많았다. 7月 5日에 義禁府都事를 南海로 보내어 流配中인 前右議政 鄭彥信을 잡아온 뒤에 7日에 大闕 앞뜰에서 推鞫한 다음 18日에 賜死의 命을 내렸다. 大臣들이 일찌기 大臣을 죽인 일이 없다고 하여 減死移配를 請하였는데 19日에 兩司가 合啓하여 廷鞫을 請하였으나 王이 허락하지 않으매 累啓하여 허락을 받고야 말았다. 21日에는 義禁府에서 啓請하기를 鄭彥信이 病이 重하므로 加刑을 中止할 것을 아뢰니 傳旨하여 加刑을 中止하고 甲山에 定配보내기로 하였다. 그런데 22日에는 三司가 또다시 連啓하여 鄭彥信의 再取調를 請하였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이 당시의 朝廷안이 이같은 伏魔殿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7月 13日에 다음 두 사람이 逮捕되어 調査를 받은 끝에 杖下에 죽였다.

司憲府掌令——柳夢井　　　　察　訪——李黃鐘

27日에는 다음 사람이 鞫問을 받고 慶源阿山堡로 流配가는 途中에 죽였다.

前谷城縣監——鄭介清

8月 26日에 汝立등 鎭定의 功으로 다음과 같이 平難功臣 1等 3名, 2等 12名, 3等 7名에 敎書를 내리고 祭告會盟한 다음 境內에 宥旨를 내리고 百官이 陳賀하였다.

1等——朴忠侃　李　軸　韓應寅

2等——閔仁伯　韓　準　李　綏　趙　球　南　截　金貴榮　柳　坱

　　　兪　泓　鄭　澈　李山海　洪聖民　李　準

3等——李憲國　崔　滉　金命元　李　增　李恒福　姜　紳　李廷立

이와 같이 功臣들을 褒賞한 다음에도 또 獄事가 繼續되었으니 9月 12日에는 前副提學으로서 杖死한 白惟讓의 아들 三兄弟가 잡혀서 鞫問을 당하고 모두 杖下에 죽었는 바 이는 內官 柳夢鶴등이 吉三峰의 去處를 이들 兄弟가 잘 알고 있다고 密啓하였기 때문이었다. 三兄弟는 다음과 같으며 吉三峰을 追窮하는 波紋이 더욱 擴大되어 가기만 하였다.

白振民——長男　　白興民——次男　　白壽民——3男

9月 28日에 前司畜 崔永慶과 그의 동생으로 新寧縣監인 崔餘慶이 모두 獄中에서 죽었으니 이는 湖南儒生인 姜覘과 梁千頃등이 崔永慶을 吉三峰이라고 誣告한데서 부터 일어난 逆獄事件이었다. 또 司諫院 獻納 申湜도 그 이름이 汝立의 門生錄에 있다 하여 下獄된 다음 昆陽으로 流配되었으며 推鞫廳都事인 康宗允은 崔永慶을 獄中에 죽였다 하여 罷職되었고 또 10月 14日에는 傳旨로써 前大司憲 李潑, 汲, 洁의 三兄弟와 前副提學 白惟讓과 前全羅都事 曹大中의 집까지 籍沒하여 그 財產을 모두 沒收하기까지 하였다. 前右議政 鄭彥信은 다음해인 24年 10月에 流配地 甲山에서 病歿하니 行年이 65歲였다.

또 前司畜인 崔永慶의 冤死가 다음해 8月에 논의되어 8日에 職牒이 還給되었으며 誣告하였던 梁千頃, 梁千會, 姜覘은 杖毒으로 죽고 金克寬, 金克寅, 前察訪 趙應麒등은 北道에 流配되었으니 可謂 正義必勝이오, 事必歸正이라 할 것이다. 이 逆謀事件을 己丑獄事라고도 하

<一向一揆>

는 바 近1年동안에 걸쳐서 惡의 뿌리를 뽑는다고 千波萬波를 불러 일으킨 것인데 鄭汝立이 叛心이 있었다는 것은 是認하지 않을 수 없으나 큰 兵力을 모았다던가, 兵器를 준비하였다던가, 또는 直接行動으로 官衙를 襲擊한 것도 아니었는데 위로는 鄭의 遠親이라 하여 右議政의 要職에 있던 宰臣으로부터 아래로는 許多한 人材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꺼번에 쓸어버린 것이 이와 같았다. 나라일은 사람이 하는 법인데 그 사람들이 서로 잡아치는데만 날뛰고 王者의 大海같은 度量과 朝臣들의 春風같은 情愛라곤 티끌만치도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이 또한 이와 같았다. 日本의 一向一揆같은 民擾도 德政없이 힘만으로서는 다스리기 힘들었는데 하물며 叛心을 善政 없이 막아낼 수 있으랴. 우리는 이 獄事를 通하여 당시의 國內上下의 病弊를 여지없이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당시의 王과 宰臣들은 重罰濫行만으로서 能히 社會 깊이 뿌리 박은 病弊를 막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인지 그 뒤에 아무런 改革을 보지 못한채로 내려오다가 本役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여기 대하여서는 第十八章 第1節 第一項에서 더욱 살펴 보고자 한다.

第十七章　軍事政策과 軍事行政

摘　要

이 標題가 반드시 適當하다고는 보지 않지만 現代軍에서 말하는 一般參謀와 特別參謀의 職能을 中心으로 軍事政策과 軍事行政이 어떻게 計劃되고 實施되었는가 하는 問題를 本章에서 다루어 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文獻上에서 얻은 資料가 豐富하지 못하여 隔靴搔痒의 흠을 免치 못할 것이다. 軍令關係의 計劃狀況은 이미 第四, 第九, 第十二章에 있는 交戰各軍의 作戰指導에서 말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作戰用兵과 敎育訓練에 關한 여러 사람의 意見을 알아보기로 하고 情報에 있어서는 朝鮮軍만을 主로 取扱키로 하였다. 後方에 關한 事項은 主要한 것만을 따로 區分하였으며 通信은 情報連絡에서, 輸送은 後方支援에서 같이 살펴 보기로 하였다. 元是 軍事政策과 軍事行政의 兩者는 劃然하게 區分되어야 할 것이지만 資料의 未備로 그 敍述 內容이 彼此 混同된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니 미리 諒解하기바란다.

第1節　作戰敎育論

要　旨

여기에서는 作戰用兵과 敎育訓練에 대하여 主로 先人들이 생각하고 있던 바를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本戰役에 關係된 몇가지 實況을 더듬어 보기로 하였다. 萬機要覽 軍政篇四에 있는 關防論과 海防論은 그 內容이 너무도 거창하므로 그 中의 몇가지만 추려보기로 할 것인데 鴨綠江과 豆滿江의 總延長을 3千6百73里라 하였고 兩江의 中間(惠山江 東쪽에서 豆滿江 上流까지)의 길이가 120里라 하였으며 東南西海岸延長을 1萬1千2百18里라 하였다. 대체로 이 關防과 海防의 兩論은 오늘날의 兵要地政學에 屬하는 要地要部를 論한 것으로서 兵力配備와 關聯된 것이 아니고 防守할만한 要地의 硏究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그 大部分을 略하기로 하였다.

一, 作戰用兵에 關한 諸說 〔原文 第139 參照〕

먼저 陸上防禦에 대하여 살펴 본다면 本役初期에 있어서의 我軍은 이때까지의 邑城을 그대로 活用하여 防守力量을 增强하여 보려는 생각이 不足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러한 큰 障碍物을 그대로 내버린 채로 防備없는 作戰에 빠져서 스스로 潰走의 길을 擇하기도 하고 또 孤立無援의 山城가치를 過大評價하는 愚를 犯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作戰初頭에 我軍이 拒守에 利用하였던 邑城은 釜山鎭, 東萊, 金海의 세곳에 不過하였으며 尙州, 忠州도 모두 邑城밖에서 아무런 掩護를 받지 못한 채로 싸우고 있다. 이러한 邑城의 利用方途에는 여러가지 意見이 있겠는데 藩鎭論에 대하여 萬機要覽 軍政篇四의 關防總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晋나라에는 藩鎭之制가 있어서 數郡을 合하여 一鎭을 두고 大將을 命하여 指揮케 하였던 바 兵力을 分割하지 않았으므로 그 勢가 一方之賊을 能히 當할 수 있었으니 桓冲(晋나라中軍將軍)과 陶侃(晋나라大將軍)같은 徒輩들도 모두 能히 敵을 千里에 控制할 수 있었던 것이

다. 宋이 나라를 세우게 되자 이 藩鎭制를 廢하고 郡縣制를 만들었는데 宋이 衰하게 되자 兵力을 分散하고 軍勢가 弱하게 되어 賊이 1郡에 쳐들어오면 1郡이 破하는 바 되고, 賊이 1縣에 다다르면 곧 1縣이 敗走하는 바 되어 戎狄과 같은 外敵이 內侵하는 兵難을 막아내지 못하였으므로 汪立信(江陵府知事 및 招討使를 歷任함.)이 建議하여 江淮諸郡으로써 合하여 四大鎭을 만들어 힘을 모아 胡敵을 막기를 請하였으나 이때 이 建議가 採擇되지 못하였다. 그 뒤에 元나라 伯顔(宋을 쳐서 中書左丞相이되고 淮安王을 追封한 名將)이 이 말을 듣고 歎息하여 이르되「만일에 이 四大鎭制가 採用되었더라면 우리 元 군사가 어찌 宋을 물리치고 내가 여기 進軍할 수 있었으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라고 記述하고 있다.

丁酉再侵때에는 我軍은 堅壁淸野之策을 써서 慶尙左禦使로 있던 郭再祐는 火旺山城(昌寧郡 靈山)을, 慶尙右兵使 金應瑞는 岳堅山城(三嘉)을 지키고 그 밖에 公山山城(大丘), 鼎蓋山城(河東), 黃石山城(安陰)등에 모두 들어가서 지키기로 하였는데 春坡堂日月錄卷(宣祖實錄五二十九年九月丁巳)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朝廷에서는 全羅監司 黃愼의 啓請과 日本에 往來하였던 사람들의 報告에 依하여 淸正이 다시 쳐들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各邑의 백성들에게 命令하여 父母妻子와 모든 眷屬들을 데리고 모두 附近에 있는 山城에 들어가게 하였는데 家財와 穀物까지라도 모두 가지고 들어가게 하였다. 그런데 數量이 많아서 옮기기 힘든 것과 길이 멀어서 가져 가기 힘든 사람의 것은 가까운 山間에 묻어버리고 淸野之策으로 敵을 기다리게 하였다. 都體察使 李元翼이 宮中에 들어가서 王을 대하매 王은 敵情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元翼도 또한 淸野之策을 上申한바 있었다. 王은 눈물을 거두고 말하되「賊을 막아내는 일은 卿에게 맡기는 바이니 卿은 곧 嶺南으로 달려 내려가서 힘을 다하여 措置토록 할 것이며 寡人으로 하여금 다시 龍灣에 떠나가는 災厄이 없게 하기 바라오.」하였다. 元翼도 같이 涕泣하고 눈물을 닦으면서 물러나온 다음 곧 嶺南으로 내려가서 淸野之計로써 兩湖에 令을 傳하고 날짜를 定하여 期日안으로 施行케 하여 令을 어기는 者는 軍律로써 다스리게 하는 一方으로는 山城에 옮겨가기를 싫어하는 者와 다른 고장으로 옮아가는 者는 倭賊에게 붙은 者로 인정하고 잡아내어 먼저 베기로 하였다.』라고 하였다.

明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國防問題를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은 一顧의 價値가 있다고 보는데 本役이 끝난 뒤인 宣祖 34年(萬曆 29年) 辛丑 2月에 兵部에서는 다음과 같은 七條의 國防政策을 覆奏하고 있다. <海東繹史卷六十四, 本朝備禦考四 明史條參照>

『第一에는 兵士의 訓練이다.

麗人(我國 사람)은 性質이 勇敢하고 寒苦를 견디는데 長衫(긴적삼, 長衣의 通稱.), 大袖(큰 소매)를 입고 訓練이 弱하니 束伍之法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第二에는 衝要의 防守다.

朝鮮은 三面이 바다에 臨하여 釜山은 對馬島와 서로 바라볼 수 있고 巨濟島가 이에 다음

가는 重要地區이니 이것을 모두 重兵(精强한 군 사)으로 지키게 하고 蔚山과 開山(地名未詳)등處를 모두 防守하여야 할 것이다.

第三에는 險隘의 修築이다.

王京은 北쪽에는 山岳地帶가 되어 있고 南쪽에는 滄海가 둘러 싸여 있으며 忠州 左右의 鳥嶺과 竹嶺의 兩嶺은 羊腸繞曲으로 一夫가 當關하면 萬夫가 물리치지 못할 天險인바 아직까지도 그 營壘의 遺址가 남아 있으매 이것을 빨리 修築하여야 할 것이다.

第四에는 城池의 新築이다.

朝鮮의 八道는 열가운데 아홉까지는 城이 없으며 平壤 西北의 鴨綠江과 大同江의 두 江은 모두 南쪽으로 바다에 通하나니 만일에 日本이 따로 一軍旅를 보내어서 平壤을 占據한다면 王京에 대해서 應援이 끊어질 것이므로 모두 마땅히 平壤城을 修築하고 兵力을 配置하여야 할 것이다.

第五에는 兵器의 製作이다.

日本은 陸戰에 能하고 海戰에 不便한 바 그 船制가 무겁고 커서 攻擊에 不利하나니 이제 福唬船型의 배 110隻을 만들어서 奇兵을 삼고 神機百子大箭을 만들어 이 배에 裝備하여야 할 것이다.

第六에는 人材의 起用이다.

朝鮮에서는 世官을 貴히 여기고 世役을 賤히 여겨서 모든 禁錮의 罪人들이 往往 倭國이나 敵國으로 도망쳐서 本國의 근심꺼리가 되어 있으므로 마땅히 人材를 골라서 特別採用하여야 할 것이다.

第七에는 內治의 善修이다.

우리 明나라는 東南쪽이 바다에 臨하여서 登萊와 旅順이 그 門戶가 되고 鎭江이 그 咽喉가 되나니 朝鮮에 지금 應援으로 나가 있는 군사는 마땅히 모두 撤收하지 말고, 我國이 스스로 堅固하게 지키는 것은 또한 朝鮮을 굳게 지키는 것이 되므로 朝鮮에 詔勅을 내리고 內治를 刻勵하여 잘 다스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체로 이러한 意見이었다.

또 神宗實錄에 依하면 蘇遼總督인 蹇(건)達은 備倭五策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를 奏聞하고 있다.

第一은 「儲糧餉 以便征發」이니 軍糧을 미리 適地에 適量을 蓄積하였다가 有事時의 出征補給을 便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第二는 「分重臣 以便調度」이니 國家의 重臣들을 미리 國內 要地에 分派하여 有事時의 應急徵募를 迅速히 하여야 할 것이다.

第三은 「抽南兵 以備應援」이니 浙江, 四川등 南兵을 뽑아서 適時에 適切하게 應援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第四는 「留班軍 以便戍守」이니 特別히 編成된 軍(屯田兵등)을 駐屯시켜서 邊防을 便하게 하여

야 할 것이다.

第五는 「預戰艦 以便堵截」이니 미리 海上에 戰艦을 配置하여 놓고 敵의 海路活動을 遮斷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五項에 걸친 對策을 아뢰고 있다.

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六議라는 것인데 本役 對陣期間中에 媾和가 決裂되고 豊臣秀吉이 다시 大擧 入犯하려 하니 明의 科臣인 徐成楚는 다음과 같은 六議를 明廷에 上申하였는데 神宗實錄에 있는 그 要略에 이르기를 『朝鮮은 不可不救하여야 할 것이오니 이는 中國의 藩籬인 까닭이오, 浙兵을 不可不集結시켜야 할 것이오니 이는 制倭의 爪牙인 까닭이오, 積貯는 不可不 많이 모아야 할 것이오니 이는 三軍의 命脈인 까닭이오, 間諜에 대하여서는 不可不 隱密히 하여야 할 것이오니, 이는 敵의 心理를 擾亂케 하는(攻心) 鴆(짐)毒인 까닭이오, 融通性을 不可不 많이 주어야 할 것이오니 이는 提携와 協同(提衡)의 綱領인 까닭이오, 救援은 不可不 빨리 하여야 할 것이오니 이는 敵을 攻擊하여 이기는 羽翼이 되는 까닭이오.』라고 하여 朝鮮의 救援의 必要性과 浙兵의 集中的 動員과 軍糧의 大規模集積, 그리고 間諜使用의 秘密保持와 融通性과 獨斷의 附與, 救援의 時急性의 여섯가지를 強調하였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國防上의 重要地를 어디로 보고 있는가를 살펴 본다면, 唐順之의 荊川左編에 다음과 같은 記事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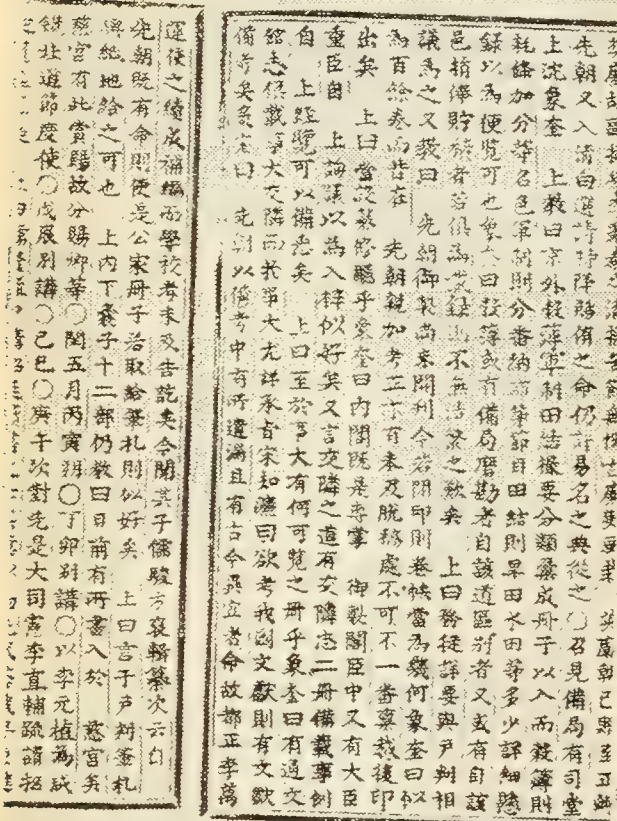
『張位와 沈一貫이 朝鮮을 經營하고 管理하는 方策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朝廷에 奏請하는 바가 있었다. 즉 開城과 平壤에 重鎭을 設置하여 練兵과 屯田과 通商과 惠工으로 中國에서 物資를 輸送하는 것을 節約하고 適材를 뽑아서 將帥를 삼는 同時에 이를 朝鮮 八道에 分置하여 持久의 計를 꾀할 것이라 하매 이 建議를 朝鮮에 내려보내 의논케 하였던 바 朝鮮의 君臣들은 中國이 그 나라의 땅을 併呑할가 염려하고 이 建議가 適當하지 않다 하여 드디어 實現을 보지 못하였다는 말이 明史에 記錄되어 있는데 이 問題에 關하여 唐順之는 말하되 『朝鮮을 經理하는 것은 開城과 平壤의 두곳 사이에 鎭을 세워서 練兵하고 屯田함만 같지 못하니 西쪽으로는 鴨綠과 旅順의 군사와 서로 接觸하여 必要할 때에는 서로 依支케 할 수 있고 東쪽으로는 王京과 鳥嶺에 대한 增援을 하여 서로 믿고 奮戰케 할 것인즉, 形勢가 有利하다면 輕兵을 보내서 倭敵과 決勝케 하는 同時에 戰勢가 不利하다면 호랑이같이 웅추리고 앉아서 (虎踞) 敵의 간사한 마음을 억압하여 그의 橫暴를 막을 것이다. 여기에 군사들의 熟練을 쌓게 하고 才力이 兼備한 사람으로 하여금 巡撫와 使道를 삼아서 이 일을 專任케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海東繹史卷六十二, 本朝備禦考二 參照>

이것은 開城과 平壤에 防守基地를 더욱 增強케 하고 適任者를 뽑아서 將領을 삼아 訓練으로 精銳한 군사를 이룩하게 하는 同時에 屯田으로 補給을 充足케 하고 明나라에서 보내는 軍需를 節約하는 趣旨인데 이 兩據點을 버리고 鴨綠江 以西로 後退하라는 說보다는 좋은 案이라 할 것이나 왜 이왕이면 臨津江線에서 더 南쪽으로 나와 王京을 據點으로 하여 漢江線

을 지킬 것을 主張하지 않았을까. 東洋의 大國인 明이 力說하는 것이 겨우 開城과 平壤이었던가 하는 서운한 생각이 든다. 이 兩地點은 重要하기 때문에 이미 往昔의 首都가 된 곳이었으나 韓半島의 中心은 어디까지라도 漢城이어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 民族의 生死보다도 明의 興亡을 먼저 打算한 그들 本位의 戰略論이라 할 것이다.

다음에는 海上防禦와 倭寇對策에 關한 몇가지 意見을 들어보기로 한다면, 高麗 辛禑王 14年(戊辰年, 西紀 1388年)에 西海道 觀察使 趙云仡(흘)이 上書하여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我國의 境界는 西海에서 楊廣(京畿, 忠淸道)에 이르고 全羅에서 慶尙에 이르는 海道가 거의 2千餘里에 達하는바 海中에서 居住할 수 있는 섬으로서는 大青島, 小青島, 喬洞島, 江華島, 絶影島, 珍島, 莞島, 加德島, 古今島, 突山島, 南海島, 巨濟島등 큰 섬이 20이고 작은 섬은 一一이 헤아릴 수 없으매 모두 肥沃하여 魚鹽之利가 있는데 이제 廢하여 利用하지 못하옴은 恨歎할 뿐이옵니다. 마땅히 五軍將帥와 八道軍官에게 各各 虎符(武官의 任命狀)와 金牌(文官의 任命木牒)를 주어 大小海島로써 그들의 食邑을 삼게 하고 子子孫孫에게 傳하게 하오면 사람마다 모두 스스로 싸우지 않으리까. 各自가 싸운다면 戰艦을 스스로 準備하고 軍糧을 스스로 모아서 遊兵이 될 것이며 賊의 不意에 나가서 칠 것이오니 賊이 敢히 엿보지 못하고 백성들이 安居할 수 있으리옵니다.』하였다. 말하자면 島嶼開發을 兼한 海上 防禦策이다.

李恒福은 倭寇對策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庚寅年(宣祖 23年 1590年)에 秀吉이 五島의 賊倭로 여러번 我國에 쳐 들어온 者를 縛送케 하고 우리 백성으로서 倭에게 잡혀가 있던 百餘名을 모두 刷還케 하였는데 그 가운데에 金大璣라는 사람과 孔太元이라는 사람 둘이 있어 매우 怜悧하여 文字를 알고 스스로 五島에 잡혀가 있었다 하여 能히 그 島의 頭酋가 하는 바를 알고 있었으며 土地의 肥瘠與否와 人民의 多寡如何 및 風俗形勢를 매우 자세히 말하였다. 또 乙未年(宣祖 28年)과 丙申年(宣祖 29年)에 楊册(册封使 楊方亨)을 接伴하여 海上을 往來케 하여 매양 倭의 諸將領과 邊民들을 보게 한 다음 데려다가 海上形勢를 물어 보았는데 그가 대답한 要旨에 의하면 五島는 馬島의 右쪽에 있어서 땅이 좁고 매말랐으며 家戶는 1千에 未滿하고 백성들은 一定한 職業이 없이 販賣로써 生活하고 있으며 海上에 出沒하여 邊境을 掠奪하는 것이 딴 倭人들에 比하여 더욱 甚하고 平時에는 좀도둑(零賊)으로 우리 邊方을 노략질 하는 者가 太半인 것이라 하였다. 이 섬의 倭人들은 入寇하는 길로서 五島에서 東南風을 타고 三島에 이르러 宿泊한 다음 仙山島를 지나서 直路로 古今島, 加利浦 등處에 이르며, 또 對馬島에서 東北風을 타고 蓮花島와 欲知島사이에 이르러서 밤을 새운 다음 곧바로 南海의 彌助와 防踏등處에 이르는 것이였다. 이것은 그들이 全羅道에 入寇하는 熟路로서 그 間에 海路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아침에 떠나서 저녁녘에 到着하지 못하고 반드시 海中의 島嶼에서 밤을 지내게 되는 바 바람이 每日 똑 같은 바 없으므로 賊船은 洋中에서 碇泊한 다음 이튿날 바람이 만일에라도 不順하다면 잠간동안 順風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所謂 蓮花島와 欲知島는 慶尙右水營이 있는 곳(麗水)에서 通望되어 아무런 障蔽가 없으매 賊船의 往來하는

것을 一一이 찾아 볼 수 있는 故로 五島의 賊이 三島와 仙山島를 지나 古今島를 犯하는 者들은 항상 不時에 奇襲하게 되고 馬島의 賊이 蓮花島와 欲知島를 지내 南海등處를 犯하는者들은 항상 我軍에게 察知되기 마련인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馬島로부터 釜山에 이르려고 할 때에는 正東風을 맞이한다면 一帆으로 便利하게 올수 있는 바, 釜山을 믿을 수 있고 여기에서 兵勢를 떨칠 수 있는것은 다만 右水營이 있는 까닭이다. 右水營은 馬島와 더불어 向背의 勢가 다르며 바람의 順逆도 따라서 다른 것이다. 賊이 順風을 타고 釜山에 向한다면 水營에서는 반대로 逆風이 되나니 하물며 沒雲臺와 海雲臺 밑에는 巨波가 물결쳐서 行船이 不便하고 졸지에 警急을 당한다면 서로 救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있어서라. 그러므로 이제 賊의 兇計를 꾸미는 者는 그의 뜻이 서로 分散하여 寇掠을 일삼으려 하여 出沒하면서 도적질 하려는 分子들에 대해서는 湖南地方이 근심꺼리가 되는 것이고 또 만일에 大軍으로써 海上直路를 通하여 그의 뜻이 城을 攻陷하려는데 있는 分子들에 대해서는 嶺南이 賊을 맞이하는 門戶가 되는 것이다. 마땅히 舟師大將으로써 釜山에 駐在케 하는 一方으로는 나머지 군사를 分割하여 見乃梁 入口를 制扼토록 古今島 方面에 屯據케 함이 上策일 것이라.』하였다.

<萬機要覽(軍政篇)>

또 金世濂은 倭寇對策으로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오늘날 倭를 論하는 者는 다만 陸戰만을 알고 洋中에서 邀擊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바 만일 敵이 陸地로 올라오게 된다면 制壓하기 힘이들 것이다.

左水使는 每年 3月로써 釜山에 入防케 하고 있는 바 이는 海風이 조용하여 敵이 쳐오기 쉽다는 것이고 8月 以後는 海風이 높다 하여 防備를 그만 두는 뜻인 것이다. 統營은 釜山에서 3日行程에 있는 바 賊이 만일 바람을 타고 돛을 펼친 다음 덤벼 든다면 이는 우리 戰艦에는 逆風이 되는 것이다. 七浦가 이전에는 釜山에 所屬되었던 것이 이제 四浦가 水營에 옮겨가고 말았으매 釜山의 防備가 날이 갈수록 말이 아니어서 우리 나라가 南쪽에 대한 걱정이 없다면 모르거니와 만일에라도 警急한 일이 생긴다면 장차 무엇으로써 堪當할 수 있으리오. 論者들은 말하기를 「이러할 때에는 統營의 艦船이 마땅히 모두 釜山에 들어와서 지킬 것이라.」하나 이것은 不可能한 일인 것이다. 日本의 薩摩州는 마치 우리나라의 全羅道 地方에 해당하는 바 옛날 鎭堡를 만든 本意는 大將이 全羅, 慶尙 兩道의 中間에 있으면서 下三道의

水軍을 兼統케 한다는데 있는데 이 趣旨야 말로 全羅, 忠淸에 變故가 있으면 慶尙水軍을 督勵하여 左水軍으로써 進擊케 하고 慶尙左道에 變이 있다면 全羅道를 督促하여 右水軍으로써 進攻케 한 다는 뜻인데 이제 모두 釜山에 옮긴다면 賊이 他道로부터 쳐나온다 할 때에 무엇으로써 能히 막아낼 수 있으리오. 賊이 東萊로 쳐나가려 한다면 반드시 沒雲台와 草梁項을 거칠 것이고 또 晋州, 順天, 興陽등地에 쳐들어가려 한다면 반드시 加德前洋을 거칠 것이매 加德과 多大浦는 釜山에서 一日行程이고 統營에서는 二日行程이라, 이제 計策을 하는 者 있어서 統營中軍으로 하여금 加德에 入防케 하도록 하면 만일에 釜山이 危急을 告할 때에는 1日안으로進擊할 수 있고 또 만일에 晋州以南을 犯하려는 賊에 대할때는 洋中에서 邀擊할 수 있을 것인즉 統制使와 兵使가 서로 掎角을 이루어서 統制使는 海上에서 싸우고 兵使는 陸上에서 내려 친다면 賊을 上陸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니 이것이 좋은 方策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李恒福의 意見은 敵의 大軍에 대하여서는 釜山을 中心으로 拒守할 것이라 하였고 金世濂의 見解는 全, 慶 兩道 中間地區를 重視하여 兵力을 配置할 것이라는 것이다. 모두 一理가 있는 듯 하지만 港灣條件을 따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亦是 時代的 見解差異라 할 것이다.

다음에 本役에 있어서 朝廷에서 論議되었던 몇가지 作戰用兵의 例를 文獻上으로 찾아 본다면 25年 8月 14日에 王世子의 分朝에서는 「平壤直擣之計」를 세웠으니 이 때에 江華島에 와서 지키고 있던 全羅兵使 崔遠과 義兵將 金千鎰에게 通諭하여 延安, 白川쪽에서 먼저 海西를 平定한 다음 다시 올라와서 中和에서 平壤을 치게 한다는 構想이었다. 그러나 이 構想은 좋았으나 結局 兵力의 不足과 統轄指揮에 人物이 없어서 實施를 보지 못하고 말았다.

<龍蛇日記上二十五年八月辛丑條>

9月 22日에 「漢城挾攻之計」를 세워 諸將들에게 下達하였으니 京畿道안에 있는 兵力을 李廷馨, 成泳, 沈岱등에게 分屬케 한 다음 그 節制를 받게 하여 東西 合力하여 敵이 지키고 있던 漢城을 挾攻한다는 것이었다. <宣祖實錄卷三十(二十五年 九月戊寅條)>

11月 3日에 備邊司에서는 江華에 있는 여러 군사들로 하여금 凍氷하기에 앞서서 陸地方面으로 나와 陣을 치게 한 다음 全羅監司인 權慄의 군사와 協力하여 漢城에 있던 日本軍을 合攻케 한다는 計劃을 세워 이것을 下達한 바 있었다. <同上卷三十二 (二十五年十一月己未條)>

26年 正月 22日에 倡義使 金千鎰은 行在에 啓請하기를 『漢城안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다투어서 內應하기를 願하오며 그 數가 數千名에 달하므로 그 兵力을 統合하여 좋은 機會를 보아 城밖에 散在하여 있는 敵을 물리친 다음 城안에 있는 敵을 칠 것이옵니다.』하였다. 이때에 敵은 平壤에서 敗하고 돌아왔으며 그 時期와 構想은 좋았으나 實施를 보지 못하였다.

<同上卷三十四 (二十六年正月丁丑條)>

3月에 咸鏡南道의 군사를 뽑아서 都元帥 金命元의 指揮를 받게 하고 黃海兵使 趙仁得과 江原監司 姜紳, 忠淸監司 許頊등에게 命令하여 그 道안에 있는 官軍과 義兵을 모아 漢城을

向하여 前進토록 하고 權慄은 都巡察使로서 各鎭의 義兵을 節制케 하는 同時에 曹好益을 招討使로 삼아 敵을 攻擊할 態勢를 갖추게 하였으니 이 당시에 敵은 漢城에서 撤退할 公算이 많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同上卷三十六 (二十六年三月壬午條)>

5月 23日에 宣傳官을 南三道監司와 兵使에게 보내어 明나라 군사의 追擊을 기다리지 말고 急速히 兵力을 合하여 進擊하라고 命令하였으니 이때 敵은 4月 18日에 漢城에서 撤退하여 沿海쪽으로 내려갔으되 明의 追擊이 매우 緩漫하였기 때문이었다.
<同上卷三十八 (二十六年五月丙子條)>

6月 3日에 慶尙右水使인 元均은 馳啓하여 水陸合力으로 沿岸에 駐屯하고 있는 敵을 攻擊할 것을 獻策하였다.
<同上卷三十九 (二十六年六月丙戌條)>

27年 4月에 長城縣監 李貴가 사람을 보내 軍民弊瘼, 兵糧調度등 十策을 上疏하고 또 王이 직접 親征하실 것을 建議한 바 있었다.
<同上卷五十 (二十七年四月乙卯條)>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作戰用兵에 關한 여러가지 論議가 있기는 하였지만 擧皆가 意見에만 그치고 實現性이 稀薄한 空論만을 되풀이 하였다는 느낌이 짙은 바 元是 弱兵 위에 立脚하였으니 만치 不可避한 일이라고나 할 수 밖에는 없다.

申欽은 象村集 卷之四十 用兵篇에서 말하기를 『我國은 일찌기 南쪽에서 倭患을 받았는데 倭寇들은 다만 一劍만을 갖고 千里길을 長驅하여 마치 無人之境을 달리는 것 같았으며 敵을 野外에서 만나면 敢히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치는데만 바빴으며 城壘에서 맞이하여 싸우려고 하여도 敢히 지키지도 못하고 곧 潰散하여 버리는 것을 能事로만 하였다.

<申欽(象村集著者) 筆蹟>

이것은 軍兵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쓸데도 없는 무리인 것이다. 이러한 習練되지 않은 군사를 가지고 倭寇라든지 胡虜를 상대로 싸운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어찌 困難하지 않을 것이며 나라가 어찌 危殆롭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나라의 外敵에 대하여서는 國內에 한발자욱도 드려놓지 않는 것이 上之上策이고, 侵略하여 오는 敵을 擊滅하여 國境 밖 멀리 擊退하는 것이 그 다음의 上策이고, 비록 擊破, 또는 擊退는 못할지라도 그 行動을 拘束하고 抑留하여 國家의 財產과 國民의 生命被害를 最少限度로 局限시키는 것이 또 그 다음의 方策이리라. 군사는 백성들과 直結되는 까닭으로 李睟光은 養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군사를 養成하는 것(養兵)은 백성의 힘을 養成하는 것(養民)을 根本으로 삼는데 養民을 하

지 않고 養兵을 한다는 것은 아직 일찌기 없었던 일이라. 우리나라의 군사는 平素에 미리 養成하지 않고 별안간(倉卒)에 쓰려고(調用) 하는바 이러고서야 敵을 만나서 崩壞하는 것이 形勢上 必然的으로 일어나는 것(勢所必至)이니 비록 韓白(韓信과 白起)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將領을 삼는다 하여도 또한 어찌 할 수 없는 일이리라. 이것은 壬辰戰亂에서 보아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인 바 이제 안으로서는 訓練都監이, 밖으로서는 諸道, 列邑이 砲手와 殺手의 束伍之制를 만들었으매 지나간 날에 比하면 軍容이 약간 볼만한 것이 있으나 民力이 이미 다하여 危險(倒懸)이 날로 절박하여지고 이미 民力을 休養하고 民生을 安定시키는 方途를 잃었으므로 緩急 兩時에 適切하게 運用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되는 바이다.(恐無緩急效用之實) 國防大任을 맡은 者라면 어찌하여 그 根本方策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였다.

養兵은 곧 養民이 爲本이라는 이 說은 千萬至當한 말이지만 實際의 施政上 그렇게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強兵은 富國에 根源한다는 이 見解는 不變의 兵理라 하겠다.

二, 教育訓練에 關한 諸說 〔原文 第140 參 照〕

教育訓練의 重要性은 오늘날 어떠한 나라의 군대라도 이를 強調하지 않는 바가 없으되 本役 당시의 朝鮮군사들은 참으로 보잘 것 없는 訓練狀態에 있었던 것인데 反하여 日本군사들은 歷戰의 경험이 많던 職業軍人들이었으니 그 優劣은 싸우지 않더라도 이미 判斷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다. 古人이 말하되 이기는 군사는 먼저 이긴 然後에 싸움을 求하고, 지는 군대는 먼저 싸운 然後에 이기는 것을 求한다고 말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바 먼저 이긴 然後라고 한 것은 곧 教育訓練에서 먼저 이기는 것을 말함이리라. 成渾은 牛溪集卷三에서 다음과 같은 네가지 要件을 말하였으니,

(1) 選將——有能한 將領을 뽑아서 任命할 것.

(2) 練兵——군사들의 教育訓練을 周到綿密히 할 것.

(3) 聚糧——軍糧을 미리 쌓아 놓고 給養을 充分히 할 것.

(4) 修械——城壕를 修理하고 兵器와 彈藥등을 整備할 것.

그 要旨에 이르기를『自古로 外國의 患이 있을 때에는 中國에서 군사를 보내 救한 일이 많았던 바 모두 彼我 兩國의 군사가 서로 呼應하여 掎角을 이루고서 敵을 討滅한 것이었다. 本戰亂같이 홀로 中國 군사만으로써 賊을 친 일은 없었던 것이다. 我國 군사는 그 精銳한 것이 天下에 이름이 높았고 弓矢技能이 萬國을 雄視하여 天下의 軍力을 통털어서 쳐 왔으나 결국 敗함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제 日本의 島夷들이 쳐오매 一矢도 쏘지 못하고 심지어는 城門을 닫지도 않았으며 士卒은 싸우지도 않고 中外가 土崩瓦解하였으니 自古로 戰爭에서 喪敗의 禍를 입은 것이 이같이 甚한 例는 일찌기 없었다. 多幸하게도 天朝의 힘을 빌려서 今日을 얻을 수 있었으며 南邊의 諸將이 陣을 치고 敵과 對抗하여 또한 能히 스스로 지킬 수 있었다 할지라도 兵力이 數百에 不過하고 모두 飢困하여 戰鬪를 감당치 못하였다. 이

리하여 혹은 도망치고 혹은 後退하여 백성들은 그 妻子를 繫累당하고 그 家業을 탕진하여 國內가 먼저 貧困하여지고 人心이 크게 원망을 가져 오게 되었으며 作戰과 部署配置가 억망이니 매우 寒心스러운 일이다. 또 敵情의 强弱을 모든 兵使와 水使(列問)가 모르고 軍行動의 利害를 朝廷이 모르나니 이것으로써 强敵을 擊滅하고 敗軍의 殘勢를 恢復하려 한들 어찌 어렵지 않으랴. 대저 멀리 斥候를 보내고 明確하게 敵情을 偵探하는 것이 用兵의 常法이라는 것은 비록 三尺童子라도 모르는 者가 없거늘 我國의 諸將들은 가장 이것에 留意하지 않고 도리어 敵이 잘 我國 백성들을 利用하여 我軍의 虛實을 探偵하였는데 反하여 我國軍은 能히 우리 백성들을 使用하여 敵陣을 살피지도 못할 뿐 더러 行軍作戰에 있어서 斥候도 보내지 않아서 매양 敵에게 掩襲을 받아 敗하니 진실로 痛歎스러운 일이로다. 더구나 選將과 練兵과 聚糧과 修械의 이 네가지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군사에 대하여서 가히 말 조차 할 수 없을 것이로다.』라고 하였다. 權慄이 幸州에서 大勝하였을 때에 經略 宋應昌이 그를 奬賞하는 첫머리에 이르기를 『倭가 朝鮮王國을 摧陷하기 시작하자 三都와 여러 郡縣들이 모두 望風하여 奔潰하고 義師를 일으켜 大難을 물리치고 國土(封疆)를 지켜서 恢復을 도모하는 英雄傑士가 한 사람도 없으니 王國에 가히 사람이 없다 할 것이어늘…』이라 하였던 것이다.

李睟光이 芝峯類說卷四 官職 將帥에서 이르기를 『高麗朝에는 장수들이 서로 家兵을 갖고 있어서 往往 跋扈하고 叛逆하는 變亂도 있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이것으로써 外敵을 平定할 수도 있었으니 모두 군사의 힘이었다. 비록 良兵이라도 兇器(不祥之器)에 틀림 없거늘 어찌 가히 집안에 간직하여 둘 수 있으랴. 本朝에서는 武將들이 都下에 있는 사람은 兵權에 關與하지 못하고 俸祿도 또한 적으며 或은 겨우 當番兵 한사람과 말 한 匹을 가지고 있는 形便으로서 貧困이 甚한지라, 그러므로 軍에는 오랫동안 領導하는 將帥가 없고 將帥에는 항상 隸屬하는 군사가 없을 뿐더러 訓練이 不足하고 姓名과 顔面(名面)이 서로 익숙하지 못한데 倉卒한 사이에 戰鬪에 臨한다면 무엇으로써 그들이 死力을 다하지 않는다고 責할 수 있으리오. 조금 그 制度를 바꾸어 適切히 運用한다면 어느 程度 좋은 成果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本役이 일어나기 10年前에 李栗谷이 十萬養兵을 直言하여 國防의 要務를 强調하였을 때에 『오늘날 이러한 泰平聖代에 軍務가 무삼 所用이 있겠소이까.』라고 敢히 王앞에서 反對意見을 아뢰었 다고하는 柳成龍이 本役初頭의 奔敗를 탄식한 나머지 그의 著인 懲毖錄卷一에서 말하기를 『不幸하게도 本道의 水陸 장수들이 모두 怯을 내어 그 水軍에 있어서는 左水使 朴泓이 一兵도 敢히 내지 않았고 右水使 元均이 비록 水路가 좀 멀다고는 하지만 그가 거느리는 舟艦이 이미 많고 또 敵兵이 단 하루동안에 몰려올 것이 아니니 군사 있는대로 모두 거느리고 前進하여 威勢를 보이고 서로 버티어 多幸히 한번만이라도 싸워 이겼던들 敵軍이 뒤를 염려해서 갑자기 깊이 쳐들어 오지는 못했을 터인데 이에 敵의 兵威를 바라만 보고 멀리 避하기만 하여 한번도 交戰하지도 않았으며 뒤이어 敵軍이 上陸해 오자 左兵使 李珏과 右兵使 曹大

坤은 或은 도망치고, 또 或은 更迭되기도 하여 敵軍은 북을 울리고 마음대로 橫行하여 數百里나 되는 無人之境을 짓밟아 晝夜로 北上하였는데 한 곳에서도 敢히 대항하여 敵의 兵勢를 늦추지 못하였으니 10日도 되지 못하여 이미 尙州에 이르렀는지라, 李鎰은 客將으로서 兵力까지 못가졌으므로 졸지에 交戰함에 敵勢를 당해내지 못하였으며 申砬이 忠州에 가기도 前에 李鎰이 먼저 敗한 바 되어 進退가 兩難하게 되고 일이 이로써 크게 그릇치게 되었으니 아— 참으로 슬프고도 憤痛하도다.』하였다.

이 모두가 군사의 教育訓練의 未熟이 그 原因이라고 하겠는데 媾和가 成熟되어가던 宣祖 29年에 兵曹判書인 李德馨이 各道에 命令하여 兒童을 뽑아내게 한 다음 戚繼光의 三手技(殺手, 射, 砲手)를 가르치게 하니 官吏의 緣故者는 作奸을 하고 民間사람들은 소란하기에 이르렀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小人에게 綿布百疋을 주신다면 軍馬 百匹을 얻을 수 있으리옵니다.』하니 그가 말하되 『어찌하여 그렇게 할 수 있으랴.』하니 그 사람이 다시 말하기를 『濟州에 가서 말새끼 百匹을 사가지고 와서 4,5년 동안 기른다면 軍馬로서 쓸 수 있지 않겠나이까.』하였다. 李德馨이 말하되 『賊이 國內 여러 곳에 가득차 있어서 근심이 朝夕에 있거늘 5,6年 이라는 긴 歲月에 걸친 일이니 어찌 迂遠한 이야기가 아니겠소.』하매 그 사람이 대답하되 『그렇다면 公은 다만 말(馬)에 대해서만 아시는 것이지 사람에 대해서는 전연 모른다는 것이 되겠소이다. 5,6歲의 兒童들은 可히 今日에 쓸 수 있단 말이오니까. 軍馬를 기른다는 것은 비록 늦어진다 할지라도 後患은 없을 것이로되 兒童들을 모아 놓는 것은 일이 迂遠할 뿐만 아니라 그 弊害가 빨리 닥쳐올 것이외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宣廟中興誌 卷五 丙申>

이 사람들은 國家百年大計를 위한 養兵에는 아무런 見識도 없는 人間들이고 強兵을 도리어 患難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니 만일 이때에 兒童訓練을 徹底히 하였더라면 뒷날의 丙子戰亂의 樣相이 달라졌을는지도 모를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本役中에 처음으로 마련하게 된 訓練都監에 대한 由來를 東國文獻備考 卷五十二兵考 一에서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다.

『駱尙志가 相臣 柳成龍에게 이르기를 朝鮮은 방금 군사의 힘이 弱하온데 賊이 아직까지도 國境線上에 남아 있사오니 이때야 말로 練兵이 가장 急한 바 우리가 돌아가기 前에 軍事技術을 배워둔다면 몇해안으로 精銳하게 되어 可히 倭賊을 막아낼 수 있으리다, 라고 하거늘 이 말을 들은 柳成龍이 行在所에 곧 馳聞케 하니 王이 허락하여 柳成龍이 같이 데리고 있던 禁軍의 韓士立으로 하여금 70餘名을 招募케 하고 駱尙志에게 請하여 教育을 받도록 하였는바 尙志는 幕下에 있던 張六三등 10名을 뽑아서 教師로 하고 槍, 劍, 狼筅등의 使用技術을 가르쳐 주기로 하였다. 王은 이어서 訓練都監을 設置할 것을 命하여 大臣 尹斗壽로 하여금 그 일을 管掌토록 하였다.』라는 것이다.

尹斗壽는 左議政으로 잠간 訓練都監의 일을 맡았다가 柳成龍이 대신하였는데 宣廟中興誌 卷四 癸巳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처음에 平壤城을 奪還하게 되자 宣祖는 提督 李如松을 親히 만나 본 다음 明나라 군사가 前에는 祖承訓이 와서 敗하고 이제 李如松이 와서 이기니 그 前後勝敗의 原因이 무엇이오, 라고 물었던 바 李如松이 대답하기를 「前에 나온 祖承訓의 군사는 北方의 將兵들로서 항상 胡賊을 상대로 하여 싸웠던 戰法이었으므로 싸움에 不利하였으나 지금 나와 싸운 군사들은 戚將軍의 紀効新書에 있는 禦倭之法을 써서 全勝한 것이로소이다.」하였다. 宣祖가 戚將軍의 책을 보기를 請하였으나 李如松이 비밀히 하여 내놓지 않으니 王은 譯官에게 密令을 내려서 提督의 麾下 사람으로부터 이 책을 사들이도록 한 다음 柳成龍에게 命令하여 從事官 李時發과 같이 講讀하고 解釋케 하였다. 또 儒生 韓嶠을 뽑아 郎官(名官衙의 屬僚)을 삼고 明 將領의 衙門에 가서 質問하고 硏究하는 것을 專擔케 하였다. 이렇게 하다가 宣祖가 漢城에 還都한 다음에 訓練都監을 만들 것을 분부하고 다음 사람들을 任命케 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모아서 군사를 編成케 하였다.

都 提 調——柳成龍(領議政)　　　大將——趙　儆(武官)

有司堂上——李德馨(兵曹判書)　　　郎屬——辛慶晋(文臣)　　　郎屬——李弘冑

그런데 군사로 應募하는 사람이 四方에서 모여 들었으며 趙儆은 法規를 만들어서 制限하되 能히 巨石을 쳐들고 1丈의 담을 넘어 뛰는 者를 合格시키게 하였더니 10日이 못되어 千名을 얻었으며 戚氏의 三手練技之法을 가리치고 모든 兵式과 訓練을 모두 紀効新書대로 본받게 하였던 바 數個月도 못되어 모두 精練하게 되었다. 宣祖는 親히 習陣에 臨하였고 이들로 하여금 항상 宿衛扈從케 하였다.』는 것이다.

朝鮮 火藥의 시초는 高麗末때부터였는데 明나라 商人인 李元이라는 사람의 배가 禮成江에 와서 軍器監인 崔茂宣의 종의 집에 宿留하였는 바 崔茂宣이 그의 종으로 하여금 厚待케 하니 李元이 火藥만드는 法(煮硝法)을 그 종에게 가르쳐 준 것이 그 처음이었다. 柳成龍은 鳥銃을 敎育하려 하여도 火藥이 없는 것을 근심하던 바 軍器寺匠에 大豐孫이라는 사람이 火藥 만드는 法을 알려고 日本軍과 通하게 되어 死罪를 받게 되었으나 特히 용서하고 火藥을 만들게 하니 그는 感激한 나머지 1日에 能히 火藥10餘斤을 만들었으며 各部로 하여금 晝夜로 鳥銃射擊術을 배우도록 하고 그 能否에 따라 賞罰키로 하였다. 柳成龍이 더욱 請하여 군사를 모으게 하여 1萬名을 얻어서 5營에 配置케 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訓練都監이라는 機構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訓練하는 課目과 여기에 從事하는 官員들의 定員數는 처음에는 적었으나 차츰 增加되기에 이르렀다.

萬機要覽 軍政篇二에 依하면 訓練課目은 棍棒, 藤牌, 狼筅, 長槍, 钂鈀, 雙手刀의 6種인데 이것을 六技라 하였다.

都提調밑에 提調가 5名 있었는데 그 中의 2名은 戶曹와 兵曹의 判書가 兼하고 3名은 鳥銃, 火藥, 軍色(軍隊職員)의 三提調를 두었던 바 뒤에 없새고 大將이 兼하였으며 大將 밑에 다음과 같은 人員이 있었다.

中　　軍 1名——二品職 以上
別　　將 2名——禁衛營과 禁御營의 中軍가운데서 信望 있는 者.
千　　摠 2名——水使 以上
局 別 將 3名——地方守御에 경험 있는 者.
把　　摠 6名——內外 三品職을 지낸 사람. 1名은 挾輦把摠으로 餉色郞廳을 兼한다.
從 事 官 6名——처음에는 郞廳이라 하였다.
哨　　官 34名——馬兵哨官 7, 步軍哨官 26, 欄後哨官 1.
禁松參軍 1名——參下(七品以下이니 參外라고도함).(國有林監視員)
軍　　官 12名——有薦出身과 前啣人.
別 軍 官 10名——滿 20月個마다 交代.
知 殼 官 10名——旗牌官에서 起用.
旗 牌 官 20名——行伍에서 起用.
勸武軍官 50名——肅宗丁酉에 만들었다.
調 軍 官 5名——肅宗乙酉 同
監　　官 6名——弓箭色, 鳥銃色, 焰硝色, 硝色, 火藥色, 新營色, 會計色.
藥　　房 1名——軍醫
鍼　　醫 1名——鍼醫
馬　　醫 1名——獸醫
書　　吏 18名——衙前
書　　寫 1名——能筆者
書　　員 5名——衙前
庫　　直 23名——倉庫를 지키는 下隷.
計　　123名

이렇게 朝鮮에서는 敵에게 苦盃를 맛본 다음에야 비로소 訓練이 未熟한 것을 깨닫고 여기에 精力을 다하여 싸우기 前에 이미 이겨 놓아야 되겠다고 늦게나마 손 쓰기 시작한 것이었는데 趙慶男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訓練都監을 設置하고 壯丁을 모아서 뽑은 다음 浙江의 武技를 演練케 하고 各道에 指示하여 砲를 操作하는 사람을 砲手라 하고 鎗과 칼을 쓰는 사람을 殺手, 활을 쏘는 사람을 射手라고 稱하게 하는 同時에 이 군사의 이름을 操練軍이라고 하였다. 束伍를 定하고 軍籍에 編入할 때에 官員들의 惡行이 있었으며 그 뒤 20年동안에 걸쳐 京砲手와 이 操練軍의 三手(砲手, 殺手, 弓手)의 放恣한 弊로 因하여 사람들이 조금도 살아갈 수 가 없었으므로 國內에서 物議가 많았다.』 <趙慶男撰 亂中雜錄二>

이렇게 뒤에 가서는 이 制度의 弊害를 指摘하였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制度 그 自體가 나쁜 것이 아니고 이것을 運用하는 사람의 質이 좋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제 文獻에 나타난 우리의 軍事訓練의 概況을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다.

26年 12月 2日에 黃海兵使와 平安, 全羅의 兩監司에게 公文을 보내어 鳥銃과 三穴銃 및 鐵丸을 製造할 것을 命令하였다. <宣祖實錄 卷四十六(二十六年十二月辛亥條)>

12月 23日에 서울 漢城에 武科를 設置하고 鳥銃으로써 合格者를 뽑기로 하였다. <同上十二月辛未條>

24日에 明 副總兵 劉綎에게 感謝의 公文을 보냈는데 千摠 邵應忠으로부터 砲를 射擊하는 法과 陣을 變하는「放砲變陣法」을 訓練시켜 준데 대한 것이었다. <同上十二月癸酉條>

27年 1月 8日에 訓練都監에 命令하여 明 參將 駱尙志의 部下 12名을 殘留시켜서 劍術, 火砲制度(操作法), 火藥製造法을 敎習받도록 하고 또 그에게서 書類로 回答을 받게 하였는데 駱尙志등은 14日에 떠나 遼東으로 凱旋한 것이였다.

<<同上卷四十七 (二十七年正月丁亥, 戊子條)>

2月 2日에 明나라 遊擊將 戚金에게 懇請하여 毒矢의 製造法을 傳習케 하였다.

<同上卷四十八 (二十七年二月辛亥條)>

4月 12日에 王은 慕華舘에서 習陣을 親閱하고 訓練敎師인 胡汝和와 王大貴를 接見한 다음 술을 내리고 또 領議政 柳成龍과 兵曹判書 李德馨에게 匹段을 下賜하였다.

<同上卷五十 (二十七年四月庚申條)>

7月 11日에 哨官으로서 成績이 좋은 사람은 訓練都監에서 賞을 주게 하고 또 五部(서울안을 中東西南北의 五區域으로 나눈 것.)로 하여금 市民 가운데서 劍技에 能한 小兒를 뽑아내게 하고 따로이 一隊를 만들어서 倭人의 劍術과 槍術을 傳習케 한 다음 都監堂上과 郎廳 및 中軍, 千摠등이 모여서 상의하고 그 優良한 者를 뽑아 入啓하고 論賞케 하였다.

<同上卷五十三 (二十七年七月丁亥條)>

10月 21日에 黃海兵使 李慶濬에게 書面으로 命令하여 前兵使 趙仁得이 뽑아 놓은 精兵 4千名에게 紀效新書의 束伍法을 操練케 하였다.　<同上卷五十六 (二十七年十月乙丑條)>

12月 28日에 慶尙監司에게 投降한 日本將을 上京시켜서 訓練都監에서 뽑은 兒童들에게 日本式劍術을 傳習시키도록 하였다.　<同上卷五十八 (二十七年十二月丙午條)>

28年 2月 13日에 兵曹와 訓練都監堂上들을 備邊司에 모아 놓고 會議한 결과 武臣으로서 堂下官에 있는 勇敢하고 知謀있는 사람을 뽑아 訓練都監에 配屬케 한 다음 紀效新書를 修習케 하였다.　<同上卷六十(二十八年二月丙辰條)>

3月 20日에 明나라 練兵敎師(27年 1月부터 參將 駱尙志가 殘留시키고 돌아갔던 그 敎官 要員.) 12名 가운데서 劍術과 槍術 및 그 밖의 여러 特技가 뛰어난 사람 3名을 京中에 두게 하여 都監과 그 밖의 여러 군사들에게 晝夜로 「白猿術」을 傳習케 하고 千摠 朱文彩는 平安道에, 그 나머지 敎師들은 그 밖의 各道에 내려보내 砲, 射, 殺의 三手의 技術을 배우도록 하는 同時에 哨軍 또는 束伍軍을 두어서 良民과 公賤, 私賤을 論하지 않고 適任者를 뽑아 充員케 한 다음 紀效新書의 制式대로 編成訓練키로 하였다.　<同上卷六十一 (二十八年三月癸巳 丙申條)>

6月 13日에 訓練都監에서는 陣書 3卷을 印行하여 分配하였는데 그 槪要는 다음과 같다.

第一卷——紀效新書를 抄錄한 것.　　第二卷——操練 및 變陣法

第三卷——各種器械의 圖解.　<同上卷六十四 (二十八年六月甲寅條)>

7月 18日에 平安道監司에게 命令하여 平壤의 「眞定槍法」을 잘하는 사람 數名을 上京시키게 한 다음 訓練都監에 있는 殺手要員들로 하여금 傳習케 하고 또 文臣들에게도 試射를 하게 하고 文士들에게도 紀效新書를 硏究케 하였다.　<同上卷六十五 (二十八年七月己丑修條)>

11月 19日에 訓練都監에서 일하고 있는 哨官등을 論賞하여 陞職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守令으로 起用케 하여 그들의 服務意慾을 鼓舞케 하였다. <同上卷六十九 (二十八年十一月丙戌條)>

29年 2月 8日에 明 教練遊擊인 胡大受를 別殿에서 引見하고 그가 데리고 온 花應春과 李乙(이 두사람은 副總兵 劉綎의 部下로서 遼東까지 돌아갔다가 病을 얻어서 落伍하였던 사람이다.)의 두 사람과 劉興龍(明 陣中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을 訓練都監 안에 감춰 놓고 毒藥製造法과 各種 火器의 製作法을 자세하게 我國 군사에게 教育시키도록 하였다. <同上卷七十二 (二十九年二月辛亥條)>

2月 17日에 訓練都監에서는 漢城府內 五部에 指示하여 殺手教育을 받을 兒童들을 더욱 增員差出케 하고 日本式 陣法을 배우도록 하였는데 이때에 明 經略 孫鑛은 從前부터 派遣되어 있던 訓練教官(教師)과 새로 보내온 訓練遊擊 胡大受의 一行을 모두 撤收하려고 하니 朝廷에서는 公文을 내어서 千摠 陳良璣 1名만은 계속 殘留시키도록 要請하였다.

<同上二月甲寅條>

4月 4日에 王世子는 慕華舘에서 砲手와 殺手의 習陣을 親閱하였다.

<同上卷七十三 (二十九年四月庚子條)>

8月 21日에 都體察副使인 韓孝純에게 紀效新書 1部를 보내 군사訓練에 利用토록 하였다.

<同上卷七十八 (二十九年八月丙辰條)>

30年 7月 5日에 明 副總兵 吳惟忠의 陣中에서 武藝에 能한 사람 6名을 뽑아서 訓練都監의 군사들을 教育토록 하였는데 吳惟忠은 이해 6月 14日에 군사를 거느리고 再次로 漢城에 들어왔던 것이다. <同上卷九十 (三十年七月甲午條)>

대체로 이와 같이 하여 敵을 눈앞에 놓고서야 비로소 教育訓練에 눈뜨기 시작한 것이였다.

第2節 情報活動 (主로 朝鮮軍) [原文 第141 參照]

要 旨

여기에서는 情報行政과 謀略으로 二大分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는데 前者에 있어서는 諜報收集과 降倭의 取扱, 그리고 防諜活動 및 流言蜚語의 團束의 네가지로 區分키로 하였다. 이것은 兵學上의 根據에 따라 區分한 것이 아니고 古文獻을 整理하다 보니 그 內容이 未備한 것도 있어서 우선 情報行政이라는 項目으로 一括키로 한데 지나지 않으며 後者의 謀略이라는 것도 그 內容의 부피가 있으므로 따로 項으로 取扱한데 不過하다. 情報와 諜報의 用語는 現代兵學의 趨勢에 따라서 區分키로 한 것이니 諜報를 評價分析한 것을 情報라고 定義키로 한 것이다.

一, 情報行政

먼저 諜報의 收集에 대하여 살펴 보려는 바 情報는 敵에 대한 知識의 總和이며 軍의 耳目이라 할 것인데 本役에 있어서의 朝鮮의 情報活動은 매우 微弱하였다고 보는 것인데 諜報收集의 着想이 적었던 까닭으로 항상 敵으로 부터 不時에 奇襲과 急襲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適時適切하게 諜報를 收集하였던 例는 稀少함을 免치 못하는 形便이었다. 이제 朝鮮側의 情報活動의 一班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25年 6月에 重興寺의 僧 行思는 柳中立이라는 姓名으로 還俗한 다음 平壤城안에 들어가

서 日本軍 情報를 探索하려 하였다. 宣祖는 6月 12日에 이미 平壤城을 버리고 義州로 向하였는데 이때에 日本軍은 14日에 城內에 쳐들어온 直後였으므로 柳中立은 커다란 決意로써 이 任務를 다하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이 달 28日에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報告하였다. 『城中의 民家가 모두 비었고 밖에는 雜人들이 많이 모여 있었으며 倭敵은 좋은 官衙에 들어가 있는데 市民들이 서로 그 章標를 받고 있으므로 小人도 또한 그것을 받고 나왔읍니다. 諸將들은 客舍의 上房과 大同門 庶尹의 官廳 및 學堂등에 分宿하여 있으며 長春院을 부수어 軍營으로 만들고 크게 土木을 일으켜서 久住의 計를 하고 있으니 당분간은 西쪽으로 쳐 들어올 뜻이 없는 듯 하옵니다. 또 돌아오는 길에 永柔사람을 만났는데 그의 말하는 바에 依하면 倭兵들은 서로 말하기를 今年은 철이 늦은 까닭에 前進하기 힘이 들 것이므로 上京하여 해를 보낸 다음 明年에 遼東을 칠 것이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사옵니다.』하니 朝廷에서는 그에게 五衛의 司果 벼슬을 주어 賞으로 하였다. <宣祖實錄卷二十七 (二十五年六月丙辰條)>

8月 13日에 義兵將 趙憲, 金沔, 鄭仁弘등에게 下諭하여 日本軍 狀況을 搜索하여 啓聞토록 하고 또 江華島에 사람을 보내 全羅助防將 崔遠에게도 이러한 뜻을 傳達케 하였다.

<同上 卷二十九 (二十五年八月庚子條)>

10月 15日에 間諜으로 活動한 承文院書員인 延瑞雲에게 적당한 職을 주어 褒賞케 하는 同時에 各道 監司에게 指令하여 大小의 敵情을 일일이 報告케 하고 만일에 成事되는 날에는 高官大爵으로서라도 敍用하여 그 功勳이 子孫에게 까지라도 미칠 것이라는 뜻을 傳諭케 하였다. <同上 卷三十一 (二十五年十月辛丑條)>

28年 4月에 慶尙右兵使 金應瑞는 軍官 李弘發로 하여금 釜山 日本軍營에 들어가서 日本軍 情報를 偵探케 하는 同時에 柳川調信과 더불어 問答케 한 바가 있었는데 25日에 朝廷에서는 邊將들이 防禦를 소홀히 하면서 사사로 探問하는 것을 十分愼密히 하라고 警告한 다음 都元帥權慄과 右兵使 金應瑞를 訊問하여 調査토록(推考)하라고 분부하였으니 이토록 우리쪽 將領을 믿지 못하면서 敵을 살핀다는 것은 매우 힘드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同上 卷六十二 (二十八年四月丁卯條)>

都元帥 權慄의 從事官인 崔尙遠은 28年 5月에 熊川 日本陣에 들어가서 그곳에 滯留하고 있던 明 指揮인 譚宗仁을 만나보고 日本軍 情勢에 대하여 의논한 다음 6月 4日에 돌아와서 復命한 바 있었다. <同上 卷六十四 (二十八年六月丁未條)>

12月 8日에 都體察使 李元翼에게 秘密히 諭示하기를 『慶尙道 兵使, 水使들과 상의하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敵陣에 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 가운데서 伶俐한 사람을 골라 對馬島에 보내어 敵의 內部狀況을 偵探케 하라.』하였다. <同上卷七十 (二十八年十二月丙午己酉條)>

明에서도 兵部尙書 石星이 指揮인 史世用등을 日本에 보내 그의 情勢를 偵探케 한 바 있었는데 그는 26年에 同安땅에 사는 海商인 許豫와 같이 들어갔다가 27年 5月 6日에 許豫를 明에 돌려보내 日本情報를 報告하는 바 있었고 뒤이어 張一學이라는 사람을 보내 續報케

한 바 있었다. <再造藩邦志卷三, 皇明實錄卷二百七十三>

文獻에서 찾아볼 수 있는 朝廷과 明의 諜報活動이 이 程度에 지나지 않았는데 日本軍에게 잡혀가 있던 姜沆이 日本에 가서 見聞한 바를 記錄한 看羊錄에는 日本國內 事情을 상당히 細密하게 觀察한 것이 있었으니 우리가 事前에 計劃的으로 日本國內에 適材를 보내어서 미리 諜報를 收集하였더라면 얼마나 커다란 도움이 되었을 것인가를 생각케 한다. 看羊錄은 犬羊의 무리같은 日本을 본 記錄이라는 뜻인듯 한데 그 犬羊의 무리에게 우리 民族이 얼마나 수모를 받았던가를 다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敵을 辱하고 멸시하는 것이 곧 愛國愛族이 될 수 없는 것이며 虎豹의 무리속에 뛰어 들어가는 者가 眞勇誠忠의 士가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는 撥站制度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情報傳達의 뜻으로 取扱하려는 바 이것은 通信의 한 方便으로 만든 것이니 宣祖 30年에 「擺撥(파발)」이라는 名稱으로 設置하여 邊書를 傳達케 한 것이며 騎撥과 步撥의 두 가지가 있었다. 前者는 25里마다 1站을 두고 各站에 撥將 한 사람과 軍人 5名, 騎馬 5匹씩을 두었으며 後者인 步撥은 間路의 每 30里마다 1站을 두어 每站에 撥將 한 사람과 군사 2名씩을 두었다.

西撥——騎撥——慕華舘——→金川——→義州路(計 38站)

步撥——黃海道 5, 平安道 43(計 48站)

北撥——騎撥——楊州——→鐵原——→慶興(64站)

步撥——咸鏡道 10站

南撥——步撥——廣州——→忠州——→東萊(34站)

이것은 이 當時에 明 朝廷에 대한 連絡의 迅速을 圖謀하기 爲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附表 第10과 같이 驛遞를 위하여 各道에 미리 馬牌保管量을 配定하여 놓고 必要할 때에 各官이 그 保管量 限度內에서 1馬牌 乃至 4馬牌로 官馬를 使役할 수 있게도 하였다.

다음에는 烽燧制度에 대한 것이니 이것도 또한 情報連絡의 뜻에서인 바 이것은 炬火에 依하는 火光通信으로서 烽燧台에서 烽燧台로 서로 炬火信號를 傳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種類가 있다.

一炬——平時 無事할 때 定刻에 올린다.

二炬——敵이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　　三炬——敵이 國境에 近接하였을 때.

四炬——敵이 國境을 侵犯하였을 때.　　五炬——敵과 接戰할 때.

이러한 信號를 받으면 宿直하여 지키는 禁軍(龍虎營에 屬하는 內禁衛, 兼司僕, 羽林衛의 騎士)은 곧 兵曹에 報告하고 現地에서는 伍長(兵士 5名의 長)이 곧 鎭將에게 報告하게 되는데 全國의 烽燧는 約 620餘處에서부터 漢城에 모여드는 것이고 木覓山(南山)까지 東쪽에서 西쪽으로 五炬에 連絡되는 것이다.

第一炬——咸鏡, 江原 兩道에서 楊州의 峨嵯山烽을 거쳐 오는 것이고,

第二炬——慶尙道에서 廣州의 天臨山烽을 거쳐 오는 것이며,

第三炬——平安道를 陸路로 毋岳東烽을 거쳐 오는 것을 連絡하며,

第四炬——平安, 黃海 兩道의 海路로 부터 毋岳西烽을 거쳐 오는 것이고,

第五炬——忠淸, 全羅 兩道에서 楊川의 開花山烽을 거쳐 들어오는 信號인 것이다.

兵曹에서는 사람을 定하여 望을 보게 하였다가 다음날 일찌기 承政院(王命의 出納을 主掌하는 官衙이니 政院이라고 略稱하고 銀臺라고도한다.)에 告하여 王에 아뢰게 되는 바 變故가 있으면 夜深하여도 곧 啓聞케 하는 것이다. 木覓山에 每所마다 군인 4名과 伍長 2名이 있으며 沿邊이면 每所마다 군인 10名과 伍長 2名이 있고 內地이면 每所마다 군인 6名과 伍長 2名이 있게 된다. 이러한 군인과 伍長들은 烽燧近處에 사는 사람으로써 差定하게 되는데 만일에 雲暗風亂하여 烟火가 不通할 때에는 烽燧軍이 逐次로 서로 直接 馳報하여야 한다.(附表第8參照)

第2로 降倭의 取扱에 대하여 말하여 보고자 하는 바 投降, 또는 歸順한 日本軍을 降倭라고 하는데 朝廷에서는 25年 10月 15日에 日本軍의 捕虜取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方針을 세웠다.

(1) 銃筒製造法, 放砲(砲射擊)를 물어서 배우도록 한다.

(2) 敵情을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한다.

(3) 劍術을 배우도록 한다.

(4) 죽이든가 明에 바치든가 (獻俘)하지 않는다. <宣祖實錄卷三十一 (二十五年十月辛丑條)>

26年 3月 11日에 王은 特히 指令을 내리고 生捕한 日本군사 로부터 焰硝煮取法(火藥만드는 法.)을 傳習토록 하였다. <同上卷三十六 (二十六年三月丙寅條)>

6月 16日에 軍器寺에 指示하여 降倭 2名을 寧邊에 보내어 그 곳에 있는 官人들이 保護하면서 금년 가을부터 1名은 火藥을 製造케 하고 또 나머지, 1名은 鐵을 뽑아서 鳥銃을 만들게 하라 하였다. <同上卷三十九 (二十六年六月己亥條)>

27年 3月 21日에 慶尙道監司가 보내온 日本投降兵(降倭)를 訓鍊都監에 配屬한 다음 火藥을 製造케 하여 그 製品이 훌륭하면 司猛(正八品)의 任命狀을 주어 親附케 하고 또 靑藍布를 주어서 被服을 만들어 입게 하였다. <同上卷四十九 (二十七年三月己亥條)>

東萊땅에사는 校生(貢生과 같으며 鄕校에서 일하는 사람.) 宋昌世가 釜山에 있는 日本營에 들어가 보니 日本將 毛利秀元의 部下로 있던 部將인 萱島木兵衛元規(KAYASHIMA-MOKUBEI-MOTONORI)라는 사람과 姓未詳의 諸正이라는 사람들이 朝鮮國에 歸順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그들을 데리고 나와 그 降書를 慶尙監司 韓孝純에게 바치니 監司는 이 降書를 朝廷에 보내왔으므로 朝廷에서는 8月 13日에 大臣과 備邊司有司堂上을 모아 놓고 의논한 바 있었고 이어서 19日에는 萱島를 折衝將軍(堂上官)으로 삼고 龍驤衛上護軍(正三品)을 拜하게 하여 宣傳官 南彦義로 하여금 그 官敎를 가지고 내려가게 하였다. <同上卷五十五 (二十七年九月己卯條)>

8月 23日에 降倭取扱法을 고치고 지금부터 以後에 降倭가 連續하여 나오게 되면 系統을 따라서 곧 上送케 하고 朝廷에서는 이것을 遼東에 보내기로 하였다. <同上八月戊辰條>

9月 13日에 體察使, 巡察使, 防禦使와 統制使에게 公文을 보내어서 嶺南에 있는 海陸 여러 將領들에게 注意를 환기시키고 降倭를 撫綏存恤하여 他日의 活用策을 세우도록 하였다. 또 14日에는 降倭中에서 技術이 있고 溫順한 者는 陣中에 두게 하고 그 나머지들은 刀劍을 回收한 다음 閑山島에 있는 水師에 보내 格軍으로 삼고 情狀이 疑心스러운 者는 諸將으로 하여금 任意措置토록 하였으니 이 때에 降倭를 모두 京中에 올려 보내려면 途中의 行軍과 輸送에 支障이 많았던 까닭이었다. <同上 二十七年九月戊子己丑條>

9月 18日에는 降倭 也汝文에게 司正(正七品)의 任命狀(告身)을 주어 厚待케 하였다.

<同上 二十七年九月癸巳條>

10月 5日에는 降倭 3名을 함부로 謀殺한 義興縣監 盧景福을 拿鞫定罪케 하였으며 18日에는 降倭들을 거느리고 土賊을 討捕케 하는 一部隊를 만들어서 「投順軍」이라고 命名케 한 다음 宣傳官 李榮白을 그 指揮官으로 任命하였다. <同上卷五十六 (二十七年十月己酉, 壬戌條)>

2月 28日에 訓鍊都監에 命令하여 兒童을 뽑아 놓게 한 다음 慶尙監司에게 命令하여 歸順한 日本軍의 降將을 急히 漢城에 올려보내 이들에게 日本式 劍術을 傳習시키도록 하였다.

<同上卷五十八 (十二月庚午), 卷五十九 正月丁酉條>

28年 4月 19日에 備邊司에서는 降倭 姓未詳인 助四郞과 六右衛門(老古汝文)등 11名에게 술로써 대접하고 日本情勢를 探問하였다. <同上卷六十二 (二十八年四月辛酉條)>

6月 19日부터 降倭 呂汝文으로 하여금 兒童들에 대한 特別敎育을 實施케 하였는데 이 兒童들은 訓練都監에서 시험하여 合格한 者로서 編成한 것이었고 宿食을 官給케 하는 特別部隊를 만들었던 것이다. <同上卷六十四 (二十八年六月庚申壬戌條)>

이 兒童部隊 敎育에 功勞가 많은 降倭 山所佑에게는 王이 賞으로 良馬 1匹을 賜給하였다.

<同上卷六十五 (二十八年七月戊子條)>

明 遊擊 沈惟敬은 旗牌官 汪鳴和로 하여금 日本軍 2千名을 거느리고 密陽에 와서 明 冊封使를 위한 舍屋을 建築케 하였는데 이것은 降倭가 아니고 建築이 끝나는대로 다시 日本營으로 돌아갔다. <同上卷六十七 (二十八年九月十二日辛巳條)>

이렇게 하여 明 冊封使가 日本으로 들어가는 것이 確實하게 된 뒤부터는 降倭로 나오는 者도 또한 없어지게 되었다.

降倭에 대하여 亂中雜錄 卷二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嶺南에 駐屯하고 있던 여러 倭賊들은 오래도록 勞役하는 것을 싫어하여 我國에 降附하는 者가 많았는데 金應瑞밑에 모인 者가 百餘名이나 되었고 그 頭酋를 金向義라 하였다. 金向義는 그의 무리들을 거느리고 戰功을 많이 세워서 官이 通政大夫와 嘉善大夫에 이르렀고 그 뒤 30年間에 降倭들은 密陽땅에 모여 살면서 農桑에 힘쓰고 子孫을 키워 왔는 바 그 마을을 降倭鎭이라 이름하였다. (降倭로서 我國에 功이 없는 者는 西北地方에 分居케 하였다가 뒤에는 모두 베어 죽였다.)』라고 하였다. 降者를 죽인다는 것은 戰爭道義上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朝臣들의 措置가 이같이 拙劣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諜者를 活用한 것은 交戰 三國에서 모두 찾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防諜活動이 어떻게 施行되었던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25年 10月 16日에 召募使 黃璨이 軍機를 漏洩하였으므로 削職키로 하고 12月 2日 日本軍의 間諜노릇을 하던 金順良을 安州城밖에서 斬하여 平壤城을 지키고 있던 小西行長의 耳目을 어둡게 하는데 큰 效果를 보았다.

<宣祖實錄卷三十一 (十月壬寅), 懲毖錄卷一, 卷八辰巳錄>

兵曹判書 李德馨의 通事 宋業男이 27年 正月 1日에 倭通事 朴遇春과 같이 書吏 金允丁의 집을 搜訪하니 日本人으로서 明의 服裝을 하고 明인과 같이 있는 것을 發見하였으므로 그 對策을 備邊司와 의논한 결과 都督 劉綎에게 通告하여 이것을 禁斷토록 要求키로 하고 城內에 있던 日本病患者(病倭)는 城밖에 내보내도록 措置하였다.

<宣祖實錄卷四十七 (宣祖二十七年正月庚辰條)>

27年 4月 11日에는 特別히 嚴命을 내려서 流言蜚語를 團束토록 하였고 또 이해 7月 15日에 接待都監인 堂上官 金命元이 明 守備인 彭士俊을 宿舍로 訪問하고 日本營의 消息과 副總兵 劉綎의 動靜을 물어보았는데 그는 熊川營에 있던 指揮 譚宗仁의 書面을 내보였다. 거기에 이르기를 小西行長의 말이라 하여 朝鮮國 사람들이 往來反覆한다는 一句가 있었으므로 朝廷에서는 비로소 我國의 奸細한 무리들이 日本軍의 耳目이 되어 消息을 漏洩하는 것을 알게 되어 이러한 뜻을 都元帥 權慄에게 密諭케 한 다음 各陣에서 더욱 團束을 加하여 殊常한 사람을 모조리 摘發토록 하였다.　<同上卷五十三 (二十七年七月辛卯條)>

29年 4月에 明 册封正使 李宗城이 流言에 迷惑되어 釜山 日本營에서 脫出하여 15日에 東大門 밖에 와서 留宿하게 되고 流言이 더욱 甚하여지니 17日에 從事官 盧景任으로 하여금 都體察使 李元翼에게 秘密히 通告하여 留意指導토록 하고 또 自今以後에 조금이라도 軍機를 漏泄하는 者는 곧 摘發하여 嚴하게 다스릴 것을 示達하였다.

<同上卷七十四 (二十九年四月癸丑條)>

備邊司에 命令하여 邊報에 關한 公用文書를 中途에서 열어보는 者를 重罰로써 다스리게 하여 防諜의 徹底를 期하도록 하고 또 秘密에 屬하는 公事는 承旨가 直接 取扱하여 外部에 流布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 遼東咨文에 대한 回信은 關係되는 各曹에서 急速히 마련케 하고 宣傳官을 都體察使 李元翼에게 보내어 秘密保障에 格別히 留意토록 하였으니 29年 以後에는 朝廷에서도 防諜에 많은 神經을 쓰게 되었던 것이다.　<同上卷七十四 (二十九年四月辛亥,壬子條)>

31年 3月 17日에 日本軍의 間諜行爲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措置한 바 있었다.

(1) 懸賞으로 間諜을 잡도록 한다.

(2) 漢城 內外의 巡邏와 査察을 嚴하게 한다.

(3) 下三道 및 京畿, 江原道 監司에게 訓令을 내리게 한다.

(4) 兵曹와 左右捕盜大將에게 注意를 喚起시키도록 한다.

(5) 腰牌制度(軍卒과 皂隷(조예, 官衙의 下人)가 木牌를 허리에 차고 다니게 하는 制度.)를 먼저 慶尙, 全羅 兩道에서 시험삼아 實施

케 하여 본 다음 他道에서도 施行토록 한다.

(6) 間諜 1名을 잡는 사람은 敵兵 2名을 斬首한 것과 같은 功으로 取扱케 한다.

<同上卷九十八 (三十一年三月壬寅 甲辰條)>

마지막으로 防諜의 一環으로 流言蜚語의 團束이 어떠 하였던가의 問題인데 이 當時에는 터무니 없는 流言蜚語도 많이 퍼지기도 하여 人心을 동요케 한 바 있었다. 25年 6月에 王이 平壤에서 義州로 向할 때에는 『南兵使 李渾이 淮陽에서 敵을 섬멸하였다.』는 말이 떠돌기도 하였다. 또 義州行在地에서는 8月에 『倭人이 我國사람의 衣服으로 變裝하고 있다.』는 流言이 떠돌아 22日에 義州城門의 監視를 더욱 嚴하게 하고 또 沿岸監察도 더욱 強化토록 指示한 바 있었다.

<宣祖實錄卷二十九 (二十五年八月己酉條)>

26年 3月 10日에 左議政 尹斗壽가 義州에서 遼東巡撫인 趙耀와 兵科給事中인 侯廷珮가 皇帝에게 올리는 題本(稟達하는 公文.)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은 明의 管理錢糧通判인 王君榮이 그에게 보여준 것이었다. 그 가운데 이르기를 『朝鮮國王 李昖의 兄인 李晛이 關白에게 降伏하기를 求하였다.』는 一節이 있었다. 尹斗壽는 王君榮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下國(우리 나라)에 全혀 없는 일이온 바 經略(宋應昌)이 이것을 믿으실까 걱정이오.』하니 王君榮은 붓으로써 本文위에 註하기를 『謬誤이니 可笑로울 뿐이고 經略이 믿을 理가 없다.』하니 尹斗壽가 비로소 安心하였다.

<同上 卷三十六 (二十六年三月庚午條)>

26年 8月에는 秀吉을 毒殺하였다는 浪說이 流布되었으니 이 流言의 근거는 兵部尚書 石星이 보낸 守備 沈秉彝(이)로 부터 나온 것인데 紹興사람인 琉球通事를 日本에 보내 琉球에서 얻어 들었다는 것으로서 『關白이 昨年 9月 13日에 手下將인 姓柴라는 사람에게 毒酒를 얻어 마신바 되어 죽었으며 倭에는 지금 首領될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石星이 이 두 사람(沈守備와 球琉通事)을 經略 宋應昌에게 보내고 그 眞否를 따지라는 것인데 經略은 이들에게 말하기를 『徐, 謝의 두 사람이 日本에가서 이미 關白을 만나 보았는데 너희 말이 事實이라면 高官으로 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의 머리가 없으리라. 너희들이 王京과 釜山에 가서 다시 알아 보고 오라.』하여서 漢城으로 나오게 된 것이라고 8月 11日에 判中樞府事인 尹根壽가 朝廷에 馳啓하였다.

<同上卷四十一 (二十六年八月壬辰), 皇明實錄卷二百六十二 萬曆二十一年七月丁卯條>

29年 2月 3日에 司贍寺(사섬시, 楮貨製造 및 地方奴婢의 貢布에 대한 일을 보는 官.), 正(正三品)인 黃愼이 明 冊封使(正使 李宗城) 衙門에 가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馳報하였다.

『倭가 撤歸하기를 拒否하여 兩使(冊封正使와 副使)를 拘留하고 隨行한 選鋒들을 모조리 죽여서 바다속에 넣었다는 流言이 北京에 떠돌아서 皇帝께서 매우 怒하시고 司禮監인 張誠을 비롯하여 科道官들을 一時에 罷免시켰다는 通報가 왔으므로 冊封使는 그 間의 曲折을 報告하여 流言임을 밝힌 바 있나이다.』하고 그 回帖의 寫本을 보내 왔으니 이 같이 당시에 流言이 甚하였던 것이다.

<同上卷七十二 (二十九年庚子 壬子條)>

이 해 7月 30日에 明에 奏聞使로 가 있었던 具宬은 宣祖가 兵部尚書 石星에게 보냈다는

僞書를 寫本으로 하여 狀啓하였는데 그 僞書는 文章과 體制가 모두 다르고 다음과 같은 內容이 있었다.

(1) 加藤淸正은 거짓이 많아서 我國에서는 地圖와 穀種을 보냈다.

(2) 小西行長은 恭順하다.

(3) 淸正의 군사가 아직도 남아 있으며 關白은 明 使臣이 바다를 건너간 다음 모두 撤去케 할것이다. <同上卷七十八 (二十九年八月丙申), 事大文軌卷十七 (八月十九日朝鮮國王咨禮部)>

二, 宣傳謀略과 反間 〔原文 第141 參照〕

있는 事實을 널리 알리는 것을 宣傳이라 한다면, 그와 반대로 없는 事實을 꾸며내는 것을 謀略이라 할 것이고, 敵의 間諜을 알면서 逆利用하는 것을 反間이라 할 수 있는데 本役에 있어서는 이와 비슷한 여러가지 術策을 서로 쓰기도 하였다. 먼저 朝鮮軍의 槪況을 살펴 본다면 어느 程度로 이러한 點에 留意한 흔적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作爲的 또는 主動的으로 斷行하여 成功한 例는 드물고 도리어 日本軍에게 追從된 점이 많이 보이는 것이다.

26年 3月 8日에 宣祖는 다음과 같은 要旨의 書信 한 通을 만들어서 政院에 내려 보냈으므로 政院에서는 곧 이것을 都元帥와 體察使에게 다시 내려보내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따로 定하여 이 書信을 갖고 漢城안에 들어가서 일부러 떨어트린 다음 敵이 주워보게 함이 어떻겠는가 하는 意見을 寅城府院君 鄭澈과 左議政 尹斗壽에게 물었다.

『小西行長등이 沈遊擊(惟敬)과 密約하고 많은 金銀寶物을 받고 明군사가 平壤城 밑까지 쳐들어오면 일부러 城을 버리고 도망친 다음 漢城에 있는 日本軍의 여러 장수들을 모조리 죽이려 한다.』는 謀略의 書信이었다.

여기 대하여 위의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이 아뢰면서 反對하였다.

『옛적부터 反間苦肉之策으로 敵을 도모하는 것은 모두 一時의 智略에서 나온 것이오며 때에 따라서는 成功도 하였사오나 지금 이러한 書信으로서는 敵을 속일 수 없을까 하옵니다. 더구나 明 군사는 平壤에서 이미 많이 屠戮되었사옵고 倭兵들도 千, 萬의 數로써 죽었사오매 城을 버리고 일부러 도망쳤다는 말은 믿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行長과 淸正은 모두 日本의 驍將으로서 서로 功을 시기하고 能을 다투어 서로 지지 않으려 하옵고 昨年에 沈惟敬이 行長의 陣中에 들어가서 비밀히 이야기하고 賞物(小帽를 말하는 듯.)을 나누어 준 일이 있사오니 沈遊擊에게 懇請하여 行長에게 書面을 내게 하되 表面에는 淸正이라고 일부러 잘못 쓰게 하여 이것을 淸正에게 보내어 잘못 傳達된 것 처럼 하오면 淸正이 보고 반드시 關白에게 보낼 것이온 즉 모두 믿지는 않을 것이라 할지라도 또한 疑心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설사 秀吉로 하여금 確然히 움직이게 못한다 할 것이오나 行長이 이미 沈遊擊과 서로 親하다는 罪狀이 들어나 秀吉이 安心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猜暴로써 반드시 모든 部下 장수들을 疑心하게 될 것이옵니다. 또 이 書信을 보낼 때에는 內部 文面에 行長이라고 쓴 것을 淸正에

게 보내고 清正에게 보낼 것을 行長에게 보내면 반드시 疑心하지 않을 것이옵니다.』하고 일부러 清正에게 보낼 行長과 連絡하는 內部文面의 一案을 提示하였으니 그 大要는 다음과 같다.

『예로부터 將帥가 大兵을 거느리고 밖에 있다가 軍을 돌려서 大事를 이룩한 例가 數 없이 많은지라, 將軍이 前에 平壤에 있어서 이미 兵部의 密令을 받고 義智, 玄蘇, 調信등의 諸公이 또한 約束한 바 있으니 이제 마땅히 서로 의논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가서(卷兵回還) 秀吉을 除去한다면 곧 明나라 天子께옵서는 將軍으로써 關白을 삼고 寵遇를 扶植하시와 國內 諸侯와 같이 대접하실 것이며 將軍은 禍를 福으로 바꾸시고 萬世의 利를 얻으실 것이라. 하물며 關白은 淫暴하고 凶虐하며 罪惡이 쌓이고 쌓였음에 있어서랴. 將軍이 이를 바꾸어 代身하는 것은 썩은 나무를 넘어트리는 것과 같을 것이라, 日本 諸將으로서 聽順하는 者는 일을 같이 하도록 하시고 좇지 않는 者는 베어 버릴 것이니 이렇게 되면 大事가 곧 成就될지로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다시 아뢰어 말하기를 『明나라 將領들이 不遠間에 二王子를 뽑아 내려고 하오니 이러한 行間之計는 당분간 늦추었다가 王子가 나온 다음을 기다려서 施行하심이 좋을 것이옵고 만일에 이제 당장 斷行하시려면 李德馨으로 하여금 密議케 하심이 어떠하오이까.』하였다. 王은 이 두사람의 意見대로 좇기로 하였으나 이 反間之策은 끝내 施行을 보지 못하고 空念佛이 되고 말았다.

<同上卷三十六 (二十六年三月癸亥), 懲毖錄卷十一 辰巳錄有旨祗受後仍論行間以離賊黨事宜狀>

27年 8月에 小西行長과 宗義智등이 義智와 柳川調信의 封書를 慶尙道防禦使인 金應瑞의 營中에 보내어 朝鮮國과 舊交를 다시 맺기를 要請하여 왔는데 慶尙監司 韓孝純은 이 書信을 金應瑞로부터 받아 곧 朝廷에 아뢰고 答書와 措置를 물어오게 되었다. 8月 28日에 王은 賓廳大臣들을 別殿에 引見하니 領議政 柳成龍이 請하여 아뢰기를 行長과 清正이 서로 反目하고 있으므로 義智의 書信을 清正에게 보내어 行間하려는 뜻으로써 하였다. 이어서 9月 4日에 交代한 慶尙監司 洪履祥이 東萊의 校生인 宋昌世가 入手한 敵情을 報告하니 朝廷에서는 備邊司에 命令하여 宋昌世와 李謙受등으로 하여금 行長과 清正을 反間하는 計策을 의논케 하여 그에 대한 施行을 監司 洪履祥에게 指令케 하였으며 宋昌世의 功을 賞하여 訓練院僉正으로 敍任케 하였다. <同上卷五十四 (二十七年八月壬申癸酉), 卷五十五 (二十七年九月己卯 辛巳條)>

27年 10月 13日에 明나라 經略 孫鑛(顧養謙의 後任者)의 差人인 徐龍과 孫統의 두 사람이 釜山에 있는 日本營에 가는 途中에 明에 納款使로 入朝하려 하여 遼東에 滯留中이던 小西如安의 從卒 2名을 데리고 왔는데, 이 從卒들은 小西行長이 우리나라 禮曹에게 보내는 書信(文書第28號 參照)을 가지고 왔으므로 朝廷에서는 備邊司와 의논한 다음 그 書信을 받게 하였다. 이어서 通事 咸廷虎등으로 하여금 그 從者들에게 『加藤清正의 言動이 매우 悖慢不順하여서 그는 小西行長의 뜻이 和議에 있지 않다. 는 말을 퍼뜨리고 있으므로 明에서 이것을 疑心하여 아직까

지 册封을 許可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으로 清正을 謀略토록 하였다. 이러한 見地에서 行長에게 대한 答書도 清正과 서로 離間하는 것을 助長하는 뜻을 暗示하는데 留念케 하였던 것이였다.

<同上卷五十六 (二十七年十月丁巳, 戊午條)>

28年 2月 29日에 慶尙左兵使인 高彦伯이 馳報하기를 降倭(沙弄等 酒叱只, 鶴)가 加藤清正을 除去하는 方策을 建議하였다고 아뢰었는데 이 당시에는 明에서 이미 册封使를 보내기로 하여 그 一行이 遼東을 通過中이였던 때였다.(4月 7日에 鴨綠江을 건너서 義州에 到着하였다.) 王은 다음날 備邊司堂上 및 大臣들과 三司를 모아 놓고 加藤清正을 除去하는 方策을 의논하였으니 이때 清正이 어떠한 變을 일으켜서 西生浦城에서 出擊할 염려가 있다는 情報가 慶尙防禦使 權應銖등으로 부터 연달아 馳報되었기 때문이였다. 그러나 明나라 朝廷에서 册封使를 이미 보내고 있는 이때에 清正 한 사람을 죽여서 도리어 큰 禍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자는데 意見의 一致를 보고 이러한 뜻으로 邊將들을 馳諭키로 하였다. <同上卷十六 (二十八年二月壬甲), 癸酉, 卷六十一 (三月甲戌條)>

丁酉再侵으로 加藤清正, 小西行長등이 다시 侵略하여 오자 朝廷에서는 要時羅(梯七大夫), 平敬直(柳川敬直)등에게 僉知 벼슬을 주어서 謀略에 利用토록 하는 한편으로는 日本에 通信使로 갔다가 秀吉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돌아온 敦寧都正인 黃愼을 30年 正月 2日에 小西行長 陣中에 보내『僚將 加藤清正을 除去한다면 通好하리라.』는 뜻을 傳하려고 하였으나 行長이 나오지 않으므로 그냥 맨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同上卷八十四 (三十年正月癸巳 甲午條)>

正月 13日에 黃愼은 朝廷에 馳報하기를『要時羅에게 官敎를 내리고 衣冠과 銀子 80兩을 주어 그의 勞를 謝하니 그는 肅拜하고 喜色이 滿面이었다.』라고 아뢰었으며 朝廷에서는 要時羅의 말을 믿고서 李舜臣을 反對로 拿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同上卷八十四 (三十年正月癸丑, 甲寅, 戊午, 己未條), 亂中雜錄三 丁酉二月>

慶尙右兵使 金應瑞는 그의 軍官 宋忠仁등을 行長 陣中에 보내 加藤清正을 誘出한 다음 斬殺하기를 密約케 하였으나 都元帥 權慄은 30年 2月 10日에 이러한 密約은 매우 荒唐한 일이라 하여 反對하였다. 그러나 金應瑞는 3月 16日에 다시 다음과 같은 要旨를 朝廷에 馳報하였는데 그에 이르기를『倭人 要時羅, 馬堂古羅, 信時老등이 約束에 따라 敵의 軍器와 軍糧을 불살라 버리거나 또는 敵을 誘引하려고 함으로 牙兵 宋忠仁등을 清正의 陣中에 보내어 그들과 같이 敵情을 偵探케 하였나이다.』하였으니 그는 要時羅를 끝내 믿고 있었던 것이었다.

<同上卷八十五 (三十年二月戊寅, 辛巳, 甲申), 卷八十六 (三十年三月丙午條)>

이러한 經過를 거치면서 朝鮮國에서는 謀略에도 애를 써 보았지만 結局 말로만 그치고 아무런 成果없이 드디어 이해 7月 8日 以後부터 日本軍의 大兵力의 再侵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음은 日本軍이 어떠한 宣傳謀略과 反間之計를 썼던가를 살펴 보고자 하려는 바 亂中雜錄 卷二와 卷三에서 趙慶男이 말하기를『要時羅는 行長의 手下人으로 慶尙右兵使營에 드나들면서 정성을 다하여 和議에 힘쓰고 我國사람 되기를 願하니 金應瑞는 厚待하여 都元帥에게 報告하여 그에게 褒賞으로써 대접케 하였다. 이때 以後로부터 往來가 無常하였으며 敵營

에 돌아가서는 그들의 斑服을 입고 我國쪽에 와서는 我國의 衣冠을 하고 倭營의 聲息을 모두 轉報하였다.』그는 또 말하기를『要時羅가 我國에 傳告하기를 淸正이 單舸로써 바다를 건너오매 海中에서 風波를 만나 小島에 數日동안 留泊하는 바 急히 李統制에게 通告하라 하였으나 統制가 疑懼하여 나오지 않아서 앉아서 일을 그릇치게 되었다, 云云하니 朝廷에서는 舜臣이 虛張大話하여 君父를 欺罔하였다 하고 都事를 보내 拿鞫케 한 다음 全羅兵使 元均으로써 三道水軍統制使를 兼하게 하고 羅州牧使 李福男으로써 全羅兵使를 삼게 하였다. 南쪽에 있던 백성들은 閑山島로써 保障을 삼고 舜臣으로써 干城을 삼았던 바 그가 罷職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依支할 바를 모르게 되매 모두 짐짝을 꾸려서 젊어지고 일어서게 되었다. (要時羅賊이 前後에 결쳐서 하는 所爲가 모두 나라를 속이는 일만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眞相을 알지 못하였으니 可히 痛歎할 바이었다.) 倭賊 要時羅가 慶尙右兵使의 鎭營에 다다라서 兵使에게 말하기를 來年 가을에 上京할 때에는 내가 使道를 위하여 이 晋州路를 거쳐서 올 것이옵니다, 하고 곧 金海로 돌아갔는데 鎭營의 門밖에 나가자마자 우리나라에서 下賜한 衣冠을 모두 벗어서 이것을 땅에 내던지고 가 버렸다. 痛憤하도다. 要賊이 前後 몇차례에 결쳐서 間諜行爲를 하고 우리나라를 그릇치게 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으며, 더구나 講和의 約定을 맺으려 하여 李舜臣등을 모함한데 이르러서는 더욱 용서할 수 없거늘 이제 또한 이같이 우리를 蔑視하여도 오히려 죽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任意대로 往來하기를 허락하니 슬프도다, 우리나라에 人物이 없도다.』하였다. 그는 또 말하기를『戊戌年 3月 21日에 賊酋 行長이 和約의 일로써 手下將인 要時羅를 우리나라에 보내왔으며 23日에 時羅는 倭卒 20餘名을 거느리고 富有(全羅道 富有縣)를 지내서 谷城에 다다랐으며 다음날 南原에 도착하였는바 明 군사와 平安道, 全羅道 군사들이 結陣하고 威勢를 보이게 하였다. 그 다음날 李芳春이 군사를 보내어 要賊을 王京으로 押送키로 하고 任實縣에 가서 獄에 가두게 하였다. 要賊은 吳宗道를 만나 보기를 請하였는 바 宗道는 本縣에 가서 보고 돌아왔으며 5月 24日에 要賊을 잡아서 王京에 보내니 다시 明에 押送하여 베어 버렸다.』고 하였다. 또 宣廟中興誌 卷五 戊戌條에서는 다음과 같이 大要를 記述하고 있으니『5月에 副總兵 李芳春이 倭將 要時羅를 잡아서 明에 보내어 誅殺하였는데 그는 일찌기 和事로써 鎭營에 往來하여 我國을 誣辱함이 甚히 많았다. 이 때에 그는 萬餘人으로써 谷城에 駐屯하고 있었는 바 行長이 여러번 和好를 請하고 그가 드디어 南原에 派遣되었던 것인데 李芳春을 만나보았으며 芳春이 잡아서 明에 보내고 이를 誅殺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와같이 要時羅는 오늘날의 二重諜者로서 謀略에 적지 않은 活動을 하였는데 朝鮮에서는 그의 術策에 넘어가 反間으로 逆利用하는 效果는 거두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東征軍에서도 어느 程度로 宣傳謀略과 反間에 대하여 着眼하기도 하였지만 여기에서는 몇 가지만 살펴보려는 바, 經理 楊鎬에 대한 兵部主事 丁應泰의 謀略등은 略하기로 하고 日本軍에 대한 것만 取扱하여 본다면, 楊鎬의 後任이 된 萬世德은 戊戌年 11月 25日에 비로소 漢城으로 到任하였는데 당시 그가 이 해 6

月 14日에 拜任하였을 때에는 아직도 日本軍이 沿海를 지켜서 一朝一夕에 平定치 못하리라고 알게 되어 反間으로써 敵을 離間시킨 다음 그 틈을 타서 치려고 스스로 檄文을 만들어 사람을 시켜 日本將에게 이 글을 보내게 하여 關白의 無道함을 밝히고 日本將領들을 서로 離間키로 하였다. 그 檄文의 大要에 이르기를,

『各 島民들은 아무런 罪없이 어찌하여 8年동안이나 밖에서 고생하고 萬里海外에 몸을 던졌는고. 本院은 이것을 심히 愍恤하는 나머지 다음 三章으로써 約束하노라.

(1) 깃발과 槍을 돌려서 돌아가 關白을 죽인 다음 酋長을 골라서 새로 세우고 海邦을 統領케 하여 人民을 保全토록 하고 子孫들에게 벼슬을 傳襲케 함이 策의 上이로다.

(2) 順과 逆을 明白히 가려서 武裝을 풀고(解甲) 와서 降伏하는 것이 策의 中이로다.

(3) 싸움을 그만 두고 군사를 罷한 다음 돌아가서 生命을 保全하는 것이 策의 下로다.』하였다 各路의 日本將들이 經理의 이 檄文을 보고 매우 感動되었으나 얼마 아니 되어 秀吉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明史卷二十一 本紀二十一 神宗二 萬曆二十六年六月丙子, 皇明實錄神宗顯皇帝實錄卷三百二十七 同年十月乙卯, 春坡堂日月錄卷十 宣祖三十一年戊戌十月, 亂中雜錄三 戊戌四月>

第3節 人事運營

要 旨

여기에서는 人事行政과 規律과 賞罰, 그리고 民事에 대한 세가지를 3개項으로 區分하여 살펴 보려는 바 兵學上 반드시 적당하지는 않으리라고도 보지만 이 세가지를 人事幕僚의 所管으로 묶어 본 것인데 먼저 말한 人事行政이란 人事異動과 人力動員관계등을 一括한 것이고, 規律은 軍紀라고 할 것이지만 官員들의 官紀도 取扱하였으므로 또한 묶어서 規律이라고 大別한 것이며 民事는 主로 對民關係의 佈告, 또는 敎書등을 一括키로 한 것이다. 그리고 人事行政에 대하여서는 主로 朝鮮軍에 關한 것만을 다루어 보기로 하였으며 賞罰中의 罰에 屬하는 것은 規律에서 併合取扱키로 하고 賞에 屬하는 것은 日本軍과 明軍에 대하여서만 取扱할 것이니 朝鮮軍에 대한 것은 이미 本文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重複하지 않기로 하였다.

一, 人事行政(主로 朝鮮軍) [原文 第142 參照]

李睟光은 그의 著書인 芝峰類說 卷三의 兵政部兵制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我國의 平時에 있어서의 兵力基準量(軍額이라 하였다.)은 18萬名인데 戶保를 統計한다면 무려 50萬名에 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倭變을 치루고 난 뒤에는 겨우 6萬餘名밖에 되지 않고 비록 해마다 새로 法을 세워 定員을 充當한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絶戶(一家가 없어져버리는것.)와 流亡하는 사람이 많아서 充員이 잘 되지 못하였으며 京外의 哨軍은 그 兵力이 數萬名 以上이나 되었으나 이 前의 군사(元軍)와 公賤과 私賤을 모두 束伍에 編入케 하였어도 實數는 아직도 不足하였으니 危急(緩急)할 때에 믿을 수 없으매 매우 寒心스러운 일이로다. 이것은 비록 亂後에 出生한 사람이 적어졌다고 할 것이지만 그 內實에 있어서는 士族들이 閑遊하는 者가 많고 실지로 軍

役에 從事하는 사람이 적어졌다는 理由 때문인데 一大英斷으로 更張하지 않는다면 善策이 없을까 두려워 하는 바이니 國政을 맡아보는 者는 마땅히 여기에 생각이 미쳐야 할지로다.』라고 人力管理面의 宿弊를 指摘하고 있다.

<李睟光 筆蹟>

由來로 專制的인 君主政治의 常例로 모든 人力管理가 國王 한 사람 손에 左右된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타 할 것이지만 本役에 있어서는 宣祖가 아무러한 原則도 세우지 않고 다만 그 때 그 때의 氣分 나는대로 朝令暮改를 사양치 않았다는 느낌이 많은데 더구나 言官의 兩大 中樞라고 할 수 있는 大司憲과 大司諫들을 두 달이 멀다 하고 隨時로 交代한 것을 본다면 그 無原則하고 無定見한 人力管理面의 放縱에 대하여 다만 啞然失色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國王 한 사람의 故爲的인 弄奸에서 나온 것이라고 速斷하기는 힘들 것이지만 적어도 太半 以上의 責任이 王에게 있는 것이니 言官들의 입을 封하기 위하여서는 가장 合理的이고 가장 智能的인 이러한 方法을 擇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며 그가 얼마나 王冠에 戀戀하였으며 權勢慾에 불타고 있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26年 1年동안에 大司憲은 李德馨, 成渾, 李增, 鄭昌衍, 李齊閔, 金應南, 沈喜壽, 李憲國 여덟 사람이 重任까지 合하여 13次에 걸쳐 交代하고 있고 大司諫은 李海壽, 閔璿, 洪麟祥, 李碅, 李墍, 吳億齡, 金玏, 李齊閔의 여덟사람이 重任까지 合하여 아홉번 交代하고 있다. 丁酉再侵이 있던 30年 한해 동안을 본다면 大司憲은 洪進, 吳億齡, 金璜, 尹承勳, 李憲國, 朴弘老, 姜紳, 李墍의 8名이 14回 交代를 하였고, 大司諫은 李廷馨, 尹承勳, 李好閔, 姜紳, 尹賈茂, 李希得, 金弘徵, 金時獻의 8名이 11回에 걸쳐서 交代하고 있다. 31年에도 이와 같은 手法으로 大司憲에는 6名이 13回 交代하고, 大司諫에는 6名이 6回 交代하고 있는 바 이렇게 無原則하고 亂脈을 이루었던 當時의 朝廷의 人事管理에 대하여 意見具申한 사람으로 刑曹佐郞 姜沆이 있으니 그는 軍糧輸送을 독촉하러 湖南에 내려가서 그 弊害狀況을 直接 본 사람이며 뒤에 日本軍에 잡혀서 日本 京都에 押送되었다가 돌아와 敵情을 비밀히 報告한 것을 宣廟中興誌卷五에서 傳하기를 『臣이 我國의 將卒이 여러번 바뀌는 것을 보았사온데 이렇게 되면 軍令으로 團束할 餘裕가 없어지고 군대의 體統도 서지 않을 것이오매 장차 무엇으로써 死地에 뛰어들게 할 것이며 敵의 死命을 制壓할 수 있사오리까. 李福男이 아침에는 南原府使가 되었다가 저녁에는 羅州牧使가 되었고 오늘에는 防禦使가 되었다가 내일에는 節度

使가 되어서는 不可하옵니다. 李舜臣이 海上의 長城노릇을 하다가 罪狀이 分明하지도 않은데 별안간에 잡혀서 獄吏를 따라가게 되고, 元均으로써 그 任務를 대신케 하여서는 不可하옵니다. 閑山에서 元均이 이미 敗하고 敵軍이 벌써 湖南을 侵犯한 다음에 비로소 巡察使 朴弘老의 交替를 의논하고 새로운 觀察使 黃愼이 비로소 到任하여서는 不可하옵니다. 敵軍이 이미 南原城을 包圍한 다음에 吳應台가 비로소 防禦使가 되고 金敬老가 비로소 助防將이 되어서는 不可하옵니다.』라고 하였으니 참으로 뼈 있는 直言이다.

監司의 久任(오랫동안 任命하여 두는 것)에 대해서는 李珥, 成渾등 훌륭한 臣下들이 입이 닳도록 여러번 諫하였는데도 不拘하고 戰亂中에도 隨時로 바꿔 놓았으니 그는 이것으로써 王者의 權威를 보이려 한 듯도 하고 方伯들의 久任으로 地方兵權을 左右하는 것을 막으려 한 듯 하니 그는 方伯들의 無力과 無爲를 意識的으로 造作하여 敵에게는 敗하는 恨이 있더라도 敢히 王權만은 엿보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바 寒心하기 짝이 없는 일이였다. 前後 7年동안에 監司를 拜한 人物들을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다.

京畿道——權徵, 沈岱, 李廷馨, 成泳, 柳根, 黃佑漢, 宋言愼, 洪履祥, 韓浚謙의 9名인데 柳根이 再任하고 있다.

忠淸道——尹先覺, 許頊, 尹承吉, 尹仁涵, 尹承勳, 朴弘老, 張雲翼, 李廷馣, 丁胤祐, 金信元, 李信元의 11名인데 金信元이 再任하고 있다.

全羅道——李洸, 權慄, 李廷馣, 洪世恭, 朴弘老, 宋諄, 任國老, 黃愼의 8名인데 朴弘老가 三任하고 黃愼이 再任하고 있다.

慶尙道——金睟, 李聖任, 金誠一, 韓孝純, 徐渻, 洪履祥, 李用淳, 尹承勳, 鄭經世의 9名인데 洪履祥, 李用淳, 徐渻이 再任하고 있다.

江原道——柳永吉, 姜紳, 李聖任, 尹承吉, 宋言愼, 韓德遠, 鄭逑, 徐渻의 8名인데 姜紳, 柳永吉이 三任하고 있다.

黃海道——趙仁得, 柳永慶, 李聖任, 李廷立, 鄭光績, 柳永詢, 李廷馣, 權悏의 8名인데 柳永詢이 再任하고 있다.

平安道——宋言愼, 李元翼, 尹承吉, 申礏, 韓應寅, 朴弘老의 6名인데 李元翼이 異例的으로 3年間이나 在任하였다.

咸鏡道——柳永立, 尹卓然, 李希得, 洪汝淳, 宋言愼의 5名이였다.

六曹判書의 異動도 監司에 뒤지지 않게 빈번하였으니 宣祖가 難局을 당하자 朝臣들을 더욱 信任하고 各自 그 所任에 死力을 다하도록 一任 하지 못하였던 爲人임을 알 수 있으며 戰勢의 推移如何를 觀望하고 率先 馬上에 올라 타고 戰線은 姑捨하고 安州까지도 나가보려 하지 못하는 小心者로서 사람 바꾸기만 長技로 삼던 疑心이 많은 半女性的인 사나이였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吏曹判書——李元翼, 李山甫, 韓準, 金應南, 李德馨, 李恒福, 金瓚, 盧稷, 李墍, 洪

進, 張雲翼, 尹承勳의 12 名이고 李德馨과 洪進이 再任하고 있다.

禮曹判書——權克智, 尹根壽, 金應南, 鄭昌衍, 李增, 鄭崐壽, 金命元, 金瓚, 洪進, 李憲國, 李好閔, 沈喜壽, 李墍등 13 名으로서 鄭昌衍이 再任하고 金瓚이 三任하고 있다.

戶曹判書——韓準, 洪汝淳, 李誠中, 金命元, 金睟, 韓應寅, 沈友勝, 權慄, 李光庭의 9 名으로 金睟가 三任하고 韓準이 再任하고 있다.

兵曹判書——洪汝淳, 金應南, 李恒福, 李德馨, 沈忠謙, 金命元, 柳永慶의 5 名으로 李恒福이 五任하고 李德馨이 三任하였으며 金命元이 再任하고 있다. 特히 李恒福과 李德馨은 세차례에 걸쳐서 서로 감투를 바꾸어 쓰기도 하였다.

工曹判書——李德馨, 韓應寅, 金命元, 沈喜壽, 李軸, 具思孟, 李憲國, 李增 尹自新의 9 名으로 李德馨과 李軸이 再任하고 있다.

刑曹判書——李增, 李恒福, 李憲國, 李德馨, 申點, 沈喜壽, 金睟, 申磼, 金命元, 尹承勳, 洪汝淳, 李墍의 12 名으로 李憲國과 申點이 再任하고 있다.

三相에 대해서는 宣祖도 그다지 손을 대지 않은 듯 하여 比較的 異動이 甚하지는 않았지만 領議政이 李山海, 崔興源, 柳成龍, 李元翼으로 세번 갈렸는데 柳成龍이 5年間 在任하였으니 가장 久任이었고 따라서 治績도 많이 올린 편이었다. 그가 이 危局의 大宰相으로 柱石이었음을 알 수 있거니와 그의 苦衷도 그만큼 많았을 것이다. 左議政은 柳成龍, 尹斗壽, 兪泓, 金應南, 李元翼, 李德馨의 6名으로 兪泓이 病死하고 尹斗壽가 再任하였는데 前後 3年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 右議政은 李陽元, 兪泓, 金應南, 鄭琢, 李元翼, 李德馨, 李恒福의 7名으로 李元翼이 3年동안, 兪泓이 2年 半동안의 久任이였다.

朝臣將相들의 任期上으로 보아 重要人物로 꼽힐만한 사람으로서는 陸將에 權慄, 海將에 李舜臣이 있고, 領議政에 崔興源과 柳成龍, 左議政에 尹斗壽와 金應南이 있고, 右議政에 李元翼과 兪泓이 있고, 六曹에 李增, 沈喜壽, 李德馨, 李恒福, 金睟, 金命元등이 있었다. 人事管理面에서 宣祖의 性品을 다시 엿본다면 그는 自己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機會 있는대로 다시 登用하는데 躊躇하지 않았으며 平凡하고 無難한 사람들, 特히 自己主觀을 내세우지 못하는 人物들을 사랑하는 편이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寄齋史草에서의 例를 들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備邊司에서 아뢰기를 「吏曹佐郞 許筬은 처음에 召集의 命을 받고 아직 一軍도 募集하지 못하고 一事도 成就하지 못한채로 이제 漠然하게 돌아와 復命하였사오매 어찌 人臣으로서 命令을 받고 職分을 다하는 道理가 되겠나이까. 請하옵건대 그 職을 罷하고 그 罪를 다스리옵소서.」하니 宣祖가 이를 允裁하였다.』라고 하였으나 그는 뒤에 벼슬이 吏曹判書, 知中樞府事에 이르렀던 것이다. 또 같은 寄齋史草下 壬辰日錄三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備邊司가 啓하기를 前監司 宋言愼과 兵使 李潤德은 一道(平安道)의 主人으로써 깊은 山峽中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形影조차 보이지 않았으며 洪世恭은 이

미 軍糧 調度의 命을 받았사온데 熙川에 옮겨 들어갔으며 天兵(명사군)이 往來하는데도 아무런 連絡조차 없는 터이고, 韓準(戶曹判書)은 親히 從駕의 命을 받고서도 病이라고 핑계하여 뒤떨어졌을 뿐 아니라 스스로 大駕가 遼東에 건너가는 것을 보았노라 하여 世上 人心을 크게 崩潰케 하였사오며 獻納 李廷臣과 持平 李慶祺, 注書 任就正 및 朴鼎賢, 그리고 檢閱趙存世와 金善餘는 侍從之臣으로써 逃亡치기를 사양치 않아 모두 人臣의 義理를 어겼사오매 不可不 그 罪의 輕重에 따라서 處斷하여야 될 것이옵니다. 宋言愼과 韓準은 罷職하옵고 李潤德은 白衣從軍케 할 것이오며 洪世恭은 一資를 降等케 하옵고 李廷臣등 6人은 모두 그 職을 削除함이 如何하오리까, 하였는데 상감께서 允許하셨다.』라는 記錄이 있다. 그러나 宣祖는 宋言愼을 다시 起用하여 28年 6月부터 江原道監司에 이어서 29年에 京畿道監司, 30年以 後 咸鏡道監司로 重用하였으며 洪世恭은 27,8兩年에 全羅道監司로, 韓準은 26年 8月부터 다시 戶曹判書로 再任되고 있는 것이다. 慶尙監司 金睟는 變初에 도망치는데만 血眼이 되어 義兵將 郭再祐는 죽이겠다고까지 하였으며, 金睟는 그를 盜賊군으로 몰다가 드디어 漢城判尹으로 쫓겨 올라 왔는데도 不拘하고 27年에 刑曹判書, 29年에 戶曹判書로 있다가 30年 以後에 다시 戶曹判書로 再任되었는데 그는 秀吉이 狂悖一夫에 不過한 者로서 무서울 것 없다고 宣祖 앞에서 豪言하던 人物이었으니 宣祖는 이렇게 自己 비위 맞추는 名手들을 좋아한 듯 하였다. 또 尹卓然은 王子를 따라 咸鏡道로 들어가다가 北靑에서 핏병을 앓고 일부러 落伍한 다음 長津(別害堡)에 들어가 숨어 있던 者인데 그를 咸鏡監司로 任用하였는 바 그 뒤에 그는 義兵大將 鄭文孚를 百方으로 中傷謀陷한 人物이었다. 大抵 宣祖는 사람 보는 눈이 어두어서 難局에 비로소 그 人物됨을 나타내거늘 이것을 輕視하고 不問에 붙이면서 다만 行文用筆로 忠誠心을 宣傳하고 自己辨明에 能한 人間들을 親近히 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으니 그는 決코 亂世를 收拾할 王者가 될 수 없는 人物이었다. 忠淸監司 尹先覺(國馨)과 公州牧使 許頊은 서로 맞장구를 치면서 義兵將 趙憲을 괴롭혔던 人間들인데 뒤에 許頊은 忠淸監司로 陞叙되고 趙憲은 錦山에서 7百義士와 함께 戰歿하고 있는 것이다.

또 本役初의 領議政이었던 李山海는 金公諒과 交結하였다 하여 誤國之罪로 江原道 平海로 流配되었으며 이 때에 洪汝淳, 李弘老, 趙挺, 宋言愼의 4人이 또한 같이 連累者로 彈劾되었던 것이다.(第五章第1節第二項參照) 그러나 本役이 끝나자 李山海를 다시 불러서 領中樞府事를 拜하였다가 33年 正月 20日에는 다시 領議政을 삼았으니 王은 秋毫도 本役前의 自己失政에 대하여 反省의 빛이 없던 暗主라 하여 마땅한 것이다. 宣武功臣의 論功行賞이 公正하지 못한데 대하여 宣廟中興誌 卷六 戊戌條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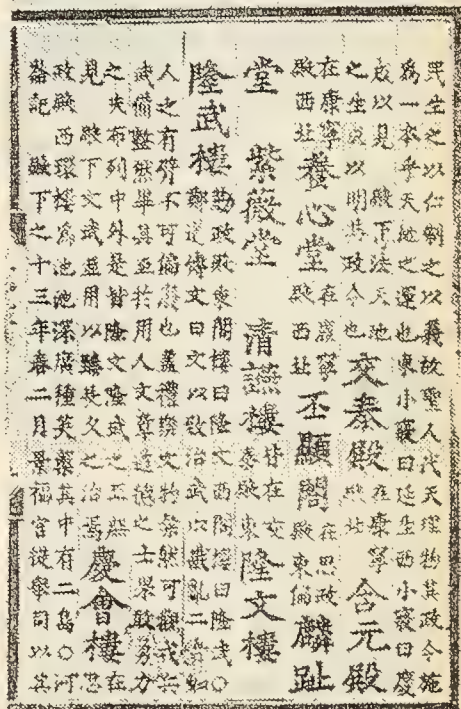
『趙憲, 郭再祐, 金沔, 鄭文孚, 鄭起龍의 五人之功은 모두 여러 사람보다도 超絶한 바 있으되 議功에 參與하지 못하였으니 識者들이 拙劣타 하였다.』라고 情實的인 施賞을 指摘하고 있다. 이 扈聖, 宣武, 淸難의 三功臣의 錄勳은 宣祖 37年 6月 25日에 公表한 것인데 宣祖를 扈從하던 功臣이라 하여 86名을, 本役에서의 征討의 功이라 하여 18名을, 그리고 李夢鶴

叛亂을 鎭壓한 功이라 하여 5名을 各各 錄한 것이였다. 著者의 一言之評으로서는 「言語道斷」이라 하겠으며 噴飯을 禁치 못하는 것이다. 이 당시의 朝廷이 宣祖 李昖 한 사람의 私有物이고 이 나라가 李氏王家 한 집안의 從屬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納得이 가지 않는 論功行賞이라 할 것이다. 扈聖功臣二等首功에 信城君 珝와 定遠君 琈의 二王子를 집어 넣고 있으니 이때 朝臣이라는 人間들의 아첨術이 거의 絶頂에 達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宣武功臣一等의 李舜臣, 權慄에 대해서는 異議가 있을 理 없으나 元均이 同列이라는 것도 諒解하기 힘들다. 그는 前後 두 차례에 걸쳐서 艦船과 兵器를 바다에 陷沒시킨 罪 밖에 무엇이 또 있었던가. 그러나 그도 마침내 힘껏 싸우다가 戰歿하였으니 二等이나 三等으로 넣어야 할 것이다.

二等에 申點, 權應銖, 金時敏, 李廷馣, 李億秋의 5名이 있는데 申點은 理解하기 힘들다. 明 東征軍의 出動이 申點 한 사람의 功이라고만 본다는 말인가. 郭再祐, 趙憲, 高敬命, 金千鎰, 金沔, 鄭文孚, 柳宗介, 張士珍, 尹鵬등의 義兵將과 休靜, 惟政, 靈圭등의 義僧將은 한 사람도 없으니 이러한 思考方式으로 國防을 다루던 이 君臣들이 얼마가지 않아 丙子胡亂을 自招하게 된 것은 當然한 일이였다 할 것이다.

三等의 首位인 鄭期遠은 接伴使로서 南原城陷落때에 죽었는데 이때에 같은 城中에서 勇戰奮鬪끝에 壯烈한 죽음을 사양치 않았던 全羅兵使 李福男은 죽어서 마땅하니 功이 없다는 말인가. 次位의 權悏은 丁酉再侵 때에 告急使로 갔던 功이 있다 하지만, 三位의 柳思瑗은 李恒福의 姉子라는 事實以外에는 著者로서는 全혀 그 功을 아는 바 없는 人物이다. 구태어 말하면 奏聞使 鄭期遠의 書狀官으로 明에 따라갔다 왔을 뿐이다. 一言而蔽之하고 前後 7年동안의 이 戰亂에서 文武 將相中에 단 18名만이 宣武의 功이 있다면 이는 분명 敗軍亡卒한 나라 꼴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是認한 다는 말인가. 暗愚한 王과 그 臣下들 아래에서 나라 위해 죽은 忠魂들이 地下에서 哭하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다음에 文獻上으로 朝廷의 措置概況을 살펴 본다면 개중에는 썩 잘 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 보다도 잘못한 것이 더욱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무론 緊急한 나머지의 例外措置라고는 하겠지만 空名告身狀을 濫發하여 任命狀을 休紙 모양으로 다루는 것 까지는 또 容納이 된다 치더라도 公私賤을 免賤케 하고 庶孽를 許通케 하는 것도 戰時에 局限한 것이였고 敵이 물러가자 다시 이 制度를 없새버렸으니 이야말로 백성을 愚弄하고 그 純眞한 誠心에 못을 박는 拙劣한 方策이였다

<東國輿地勝覽 (卷一 京都上宮闕條), 京都大學附屬圖書館所藏>

고 보는 것이다. 本役을 치른 다음에 어떠한 改善策이란 全혀 없었고 다시 泰平歲月만을 노리고 安逸과 姑息만을 貪하였다는 말이다. 다음에 큰 眼目에서 人事管理面을 살펴 볼때에 問題되는 것이 곧 軍事指導部의 構成問題라고 보는데 分朝를 두어서 王世子로 하여금 行在地와 따로 行動케 하는 措置의 可否에 대한 것이다. 더구나 이 당시의 王은 國內에서 遼東으로 도망치려는 心算이 굳은 나머지 王世子로 하여금 廟社主를 모시고 分朝하게 된 것이었고 分朝에서는 領議政(崔興源), 右贊成(鄭琢), 刑曹判書(李憲國), 副提學(沈忠謙), 刑曹參判(尹自新), 同知中樞府事(柳自新), 兵曹參議(鄭士偉), 承旨(柳希霖)로써 構成하는 매우 貧弱한 人員編成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分朝시켜 놓고 王이 博川에서 王世子에게 永訣辭를 보내기를 『予가 살아서 이미 亡國의 임금이 되고 죽어서 異域의 귀신이 되려 하노니 父子가 서로 떨어져서 다시 만나볼 날이 없도다. 다만 바라건대 世子는 舊物을 再造하여 위로는 祖宗의 靈을 위로하고 아래로는 父母의 還을 맞이하라.』하였다. 意志가 굳지 못한 王은 몸을 遼東에 避하여서 生命을 保全하는 동안 王世子의 分朝가 事態를 收拾하여 다시 舊物을 再造하는 奇蹟을 바랐던 모양인데 그렇다면 分朝에 朝臣의 大部分을 屬하게 하였어야 마땅할 것인데 王은 自己身邊의 초라한 것을 避하고 禪位도 생각하지 않았음이 分明하니 여기에 問題點이 있는 것이다.

그의 遼東避難과 王世子의 分朝에 대해서 당시의 兵曹佐郞이던 朴東亮은 그의 著인 寄齋史草下 壬辰 六月 十八日條에서 다음과 같이 論評하고 있다. 『처음에 澈(鄭澈)과 成龍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지금의 事勢를 본다면 오직 渡遼가 있을 따름이니 世子는 廟社를 모시는 任務와 監國(國政을 監督하는 일)之命을 받았을 뿐으로서 萬一에 大駕가 渡遼한 뒤에 音信이 通하지 않고 그 사이에 事勢가 急變한다면 빨리 王位를 넘겨 주시도록 定하지 않으면 不可할지라, 우리들이 兩司와 더불어 入啓함이 可할 것이라 하였다. 슬프도다, 澈등의 이러한 計策은 모두 失策이라 할 것이로다. 옛적의 國家에서는 만일에 變亂을 당한다면 或은 雄藩大鎭에서, 或은 忠臣烈士들이 서로 宗室을 받들고 나라의 한 모퉁이를 保有하였으니 비록 넓게 舊土를 恢復하지는 못한다 치드라도 또한 能히 宗廟祭祀는 그치지 않았거늘, 오늘날의 情勢를 보건대 國土의 地域이 偏少한데 八道가 모두 侵略을 받아서 이미 雄藩大鎭으로서 可히 依支할만한 곳이 없고 또 忠臣烈士로서 可히 成事할만한 사람이 없으니 마침내 山谷 속 깊이 숨어들었다가 끝내 滅亡하고 말 뿐일 것이다. 설사 大駕가 渡遼한다 할지라도 天朝(明) 사람들이 廟社를 어디에 두었느냐 물어 볼 때에 비록 世子에게 傳하였노라 할지라도 어찌 廟主를 모시고 一鎭을 세워서 萬分의 一이라도 恢復할 것을 바랄 수 있으랴. 大臣된 사람들은 마땅히 이러한 여러가지 曲折을 따져 본 다음에 世子 兩宮을 돌아오도록 아뢰고 宣祖와 同行하여 한 곳에서 死生之計를 세우도록 할 것이로다.』하였다. 朴東亮의 意見은 分朝할 것이 아니라 王과 行動을 같이 하여 生死苦樂을 함께 하여야 될 것이라는 바 그는 이미 敗戰感에 사로잡혀 戰勢를 未倒에서 恢復하려는 意慾을 喪失한 人間으로서의 虛荒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王과 그를 따르는 老物들은 비록 遼東의 窮鬼가 된다 할지라도 年少한 王世子가 國內一隅에

健在한다는 것이 國內 萬百姓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感激을 줄 것이며 敵에 대하여 一大威脅이 될 것인가 하는 心理把握을 全혀 못하고 오직 도망치기만 꾸미고 다만 明의 援助만 바라던 그 消極的 一面을 露呈하고 있는 것이다. 王과 王世子를 合하면 두 사람의 自然人에 지나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國內에서의 存否如何는 偉大한 힘으로써 作用을 하게 되는 것이다. 著者는 王과 王世子의 渡遼는 根本的으로 反對하는 意見이고 最惡의 경우에 王과 王世子의 同時 陷沒을 避하는 뜻에서도 分朝하여야 하고 王世子는 더욱 南쪽으로, 可能하면 全州를 向하여 南下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多幸히 이때 海上의 制海權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活用하여 島嶼에서라도 健在할 策案을 세웠어야 할 것이라고 主張하는 것이다.

<宣祖實錄卷二十七 (二十五年六月癸卯 己酉條), 寄齋史草下壬辰日錄二 壬辰六月十五日條, 朝野記聞卷四 壬辰兵事>

朝鮮의 軍事指導部라면 우선 備邊司를 聯想케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떠한 計劃을 事前에 세워서 下達하고 그 實施를 監督하며 採長補短하여 次期計劃을 適切하게 세워서 미리 下達하는 따위의 近代式 指導部의 役割은 조금도 하지 못하고 그 때마다 닥치는 대로 命令하기만 하고 그 實行結果에 따라서 賞罰을 주는 것이었으나 特히 罰을 주는데만 血眼이 되고 責任追窮에는 가장 無慈悲하고 苛酷한 것을 常例로 하였으며 邊防問題에 대해서도 大小輕重을 가리지 않고 干涉하기를 좋아하여 조금이라도 信任하거나 自由裁量에 맡기는 일을 하지 않고 中央集權에만 狂奔하는 것이 例事로 되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日本側에서는 豐臣秀吉이 中央統制와 一線將領에 대한 分權的 運營에 留意하였으며 諸將의 合議에 依하여 方策을 세워서 秀吉의 裁可를 얻는 方式도 兼用하고 있었으니 이러한 點에서는 그들이 훨씬 앞서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反하여 朝鮮의 方伯守令들은 다만 責任을 두려워 하고 이것을 回避하는데만 神經을 쓴 나머지 조그마한 일까지 일일이 稟達하여 責任을 지지 않으려 하고 다만 功을 세우는데만 모든 精力을 바치는 결과가 되어 참신한 方策으로 健兵壯馬를 育成하고 運營하려는 實績에 있어서 全然 보잘 것이 없었고 大局的으로 보아서 老衰한 나라의 一幅 縮圖와 같은 느낌이 짙었던 것이다. 또 이 당시의 王은 完全한 獨裁를 한 것도 아니고 弘文舘 修撰과 司諫院正言은 모두 正六品職에 不過하고 司憲府 持平은 正五品職이였지만 모두 王 앞에서 大臣을 彈劾할 수도 있었고 朝臣들을 뒤흔들 수도 있었으니 李珥, 成渾 같은 人物로서도 이들의 意思를 無視하고는 그 所信을 斷行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여기에 一長一短이 숨어 있었고 黨爭의 要因도 潛在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人事政策의 稚拙과 人事行政의 固陋에 있어서는 王과 朝臣들이 平, 戰 兩時를 區分하지 못하고 十年如一의 無原則만을 固執한 그 頑迷性에 그 因由를 돌려야 할 것이다.

略 歷

(1) 尹 承 吉

海平사람이며 字는 子一이오, 號는 南岳이다. 司憲府 監察 弘彦의 아들로서 中宗 35年 庚子(西紀

1540年)에 出生하여 明宗 19年 甲子에 登科하여 承文院正字 掌令을, 거쳐 壬辰役뒤에 江原監司가 되었는데 壯丁에게 紀效新書에 依한 訓練을 시켜서 功이 있었다. 平安監司를 거쳐서 左參贊에 이르렀고 海善君을 封하였으며 光海君 8年 丙辰에 77歲로 病死하니 肅簡이라 諡號하였다. <人物考>

(2) 金 瓚

安東人이며 字는 叔珍이고 號는 訥菴이다. 刑曹參議 彦沈의 子로서 中宗 38年 癸卯(1543年)에 出生하였다. 明宗 22年 丁卯에 文科에 올랐으며 벼슬이 大司憲까지 累進하였다. 壬辰役에는 大司諫으로서 西幸에 反對하여 諫하다가 5月 2日에 開城에 이르자 大司憲 李憲國과 더불어 領議政 李山海의 誤國의 罪를 論하여 罷職케 하였다. 뒤에 벼슬이 吏曹判書까지 이르렀고 同 32年 己亥 12月 14日(1599年)에 病死하였다. 처음 西幸할 때에 어머니를 永平에 보냈다가 平壤에서 畿甸이 陷落됨을 듣자 決死하고 돌아와 어머니를 山谷中에서 救하여 江華로 모시고 갔다. 考獻이라고 諡號를 내리고 命하여 朝市를 停罷케 하였다. <國朝人物志卷二, 國朝榜目三, 國朝人物考>

(3) 權 悏

安東人이며 字는 思省, 號는 石塘이고 同知中樞府使 常의 子이다. 宣祖 10年 丁丑(1577年)에 文科에 及第하여 應敎에 이르렀으며 同 30年 丁酉에 告急使로 明廷에 가서 救援을 請하여 成功하였다. 同 37年 甲辰에 宣武功臣 三等에 錄하고 吉昌府院君을 封하였으며 光海君 9年 丁巳(1617年) 正月 27日에 66歲로 病死하니 忠貞이라 諡號하였다. <龍洲先生遺稿卷十九 神道碑吉昌府院君權公神道碑銘>

二, 規律과 賞罰 〔原文第143 參照〕

朝鮮軍側의 軍紀 團束은 상당히 嚴하였으나 賞罰에 있어서는 반드시 信賞必罰이였다고는 볼 수 없었다. 前項에서 말한대로 慶尙監司 金睟같은 人物은 本役 初頭에 자기 몸 하나만으로 먼저 도망쳐 다니는데 바빴으며 義兵將 郭再祐를 叛逆으로 몰았던 사람이었으나 그는 아무런 責罰도 받지 않았다. 또 都元帥 金命元은 漢江戰線에서 싸우지 않고 도망쳤으며 臨津江戰線에서 두번 다시 도망쳤으나 역시 아무런 罰을 받지 않았으니 모든 것이 생각 내키는대로 執行되고 더구나 戰線에서 멀리 떨어진 行在地(義州)에서 左之右之하였으니만치 진실로 忠直한 사람과 自己 宣傳할 줄 모르는 人材들을 애매하게 取扱한 例도 적지 않았다.

一線에 나섰던 將領中에는 卑怯한 者도 있었으나 抗敵意識이 熱烈한 사람이 많은 편으로서 敵에게 投順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서는 文獻上으로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 군인들의 軍紀, 官員들의 官紀問題를 다룬 뒤에 賞罰에 대한 資料를 찾아 보기로 한다.

먼저 朝鮮軍의 軍紀에 대한 問題인데 李珏(慶尙左兵使)이 任地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쳤다가 臨津江 戰線에 나타나니 朝廷에서는 宣傳官을 보내 5月 14日에 斬首케 하였다.

<寄齋史草下壬辰日錄一>

副元帥 申恪이 漢江에서 敗하고 留都大將 李陽元을 따라 楊州로 갔는데 都元帥 金命元이 臨津에서 그가 命令에 不服從한다고 狀啓로써 아뢰고 罪를 請하니 右議政 兪泓이 다시 斬을 請하여 5月 18日에 宣傳官을 보내 所在에 斬誅하였다. <朝野記聞卷四壬辰兵事>

金海城 戰鬪에 城을 버리고 逃亡친 府使 徐禮元과 龍仁戰鬪에 敗한 忠淸兵使 申翌을 6月

29日에 白衣從軍을 命하였다. <宣祖實錄卷二十七 (六月甲寅, 丁巳)>

王이 平壤에서 義州로 向하여 내려갈 때에 守令方伯으로서 그 任地를 지키지 않고 먼저 逃亡치고 그 所在가 不明하였던 다음 사람들을 모두 7月 2日에 白衣從軍을 命하였다.

大同察訪 尹 曄　安州牧使 李民覺　肅川府使 洪世英　寧邊判官 黃沂

<同上 卷二十八 (七月己未條)>

龍仁戰鬪에 敗走한 全羅監司 李洸을 7月 22日에, 忠淸監司 尹先覺을 同 25日에 모두 白衣從軍케 하고 漢城을 버리고 도망친 京畿大將 邊彥琇와 臨津江을 지키지 못한 京畿監司 權徵, 그리고 大同江을 버린 江東守灘將 許淑을 亦是 白衣從軍케 하였다.

<同上卷二十八 (七月壬午), 卷二十九(八月庚寅己亥條)>

8月 15日에 戰馬保有數를 虛僞報告한 泰川縣監 金虎秀를 拿鞫定罪케 하고 또 敵에 붙어서 先導한 安岳律生인 金呂水를 斬首하여 梟示케 하였다. <同上 卷二十九(八月壬寅條)>

咸鏡監司 柳永立이 7月에 北靑에서 日本軍에게 잡혔다가 도망쳐 나온 다음 9月 6日에 行在所에 찾아와 敵情을 報告하니 7日에 罷職하고 尹卓然을 代任케 하였다.

<同上卷三十(九月癸亥 甲子 乙丑)條>

黃州牧使인 閔仁伯은 城을 버리고 도망쳤으므로 白衣從軍케 하였던 바 戰地에 가지도 않았으며 도리어 禮曹參議를 拜하였으나 9月 21日에 司諫院에서 다시 白衣從軍 시킬 것을 請하니 王이 이에 좇았다. <同上 九月丁丑條>

南兵使 李瑛이 二王子와 陪臣을 隨行하여 會寧에 들어갔다가 叛賊 鞠景仁에게 降伏하고 捕縛되어 敵將 加藤淸正의 손에 넘어가게 되니 領中樞府事 金貴榮과 같이 10月 20日에 削職하였다. <同上 卷三十一 (十月丙午條)>

明 東征軍의 接待에 빙자하여 民弊를 끼친 遂安郡守 韓守貞과 新溪縣令 安應賢을 罷職하고 26年 2月 3日에 各道監司에게 嚴命하여 이러한 非違事實을 一切 禁斷토록 하였다.

<同上 卷三十五 (二十六年二月戊子條)>

前北兵使 韓克誠이 本役初에 敗軍한 다음 二王子가 잡혀 갔는데도 不拘하고 自身만 먼저 빠져 나왔으므로 宣傳官 李忠吉을 보내 高彥伯 陣中에서 베기로 하였다가 뒤에 拿鞫定罪키로 變更하였으며 그 아들 格과 金貴榮父子도 이와 같이 罪를 주기로 하였다.

<同上 卷三十六 (三月辛未, 壬申條)>

宣陵과 靖陵의 掘破事件이 일어났으므로 그 責任을 지워서 京畿左監司 成泳을 罷職하고 廣州牧使 李箕賓을 拿鞫定罪키로 하였다. <懲毖錄卷十一 辰巳錄>

都元帥 權慄의 狀啓에 依하여 忠淸監司 許頊을 10月 20日에 拿鞫하였으니 그는 義兵將 趙憲을 百方으로 中傷謀略하고 義士들의 父母妻子들까지 괴롭힌 者였다.

<宣祖實錄卷四十三 (十月庚子, 壬寅條)>

京畿大將(前兵使) 邊彥琇가 白衣從軍中에 逃亡하였으므로 10月 28日에 베어 죽였다.

<同上 十月戊申條>

逆賊 宋儒眞이 27年 正月初에 謀叛하여 25日에 伏誅하였는데 洪州牧使 朴宜와 前牙山縣

監 崔有源은 이들 逆徒들을 잡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避亂逃亡할 준비를 하였으므로 21日에 拿鞫定罪키로 하였다. <同上卷四十七 正月庚子條>

日本營에서 傳하여오기를 梁山郡守 邊夢龍이 사사로 日本軍과 通信連絡하였다 하고 또 都元帥와 監司의 命令없이 하였으므로 宣傳官을 보내 잡아오게 하여 5月 14日에 軍中에서 베어 본을 보이게 하였다(斬徇). <同上 卷五十一 (二十七年五月辛未條)>

10月 5日에 慶尙道防禦使 金應瑞가 馳啓하기를 義興縣監 盧景福이 함부로 降倭 3名을 謀殺하였다 하니 拿鞫定罪를 命하였다. <同上卷五十六 (二十七年十月乙酉條)>

28年 6月 18日에 京畿防禦使 邊應星을 罷職한 다음 取調케 하였는데 그는 龍津을 지키라는 命令을 받고도 營柵을 준비하지 않고 다만 枯木의 가지로써 둘러 쌓고 旗麾의 준비도 없이 해를 보내고 江上을 돌아 다니면서 아무런 措置와 對備가 없었고 習陣이 低級하였기 때문이였다. <同上 卷六十四 (二十八年六月癸丑, 乙未條)>

晋州, 固城 附近에 사는 沿海漁夫들이 敵을 假裝한 土賊들과 결탁하여 여러번 陸地를 侵掠하였는데 28年 6月 23日에는 이러한 土賊 40餘名이 晋州땅 陽全里에 쳐들어와서 伏兵將 李永壽등과 少女 2名을 잡아갔다고 慶尙右道監司 徐渻이 馳啓하니 晋州判官 朴思齊를 巡察使 軍門에 잡아가서 決杖示罰케 하였다. <同上 二十八年六月甲子條>

7月 27日에 鐵山郡에 強盜의 무리가 일어나서 獄門을 쳐 부수고 잡혀 갔던 그들의 一黨을 奪取하여 갔는데 이 때에 畏縮하여 敢히 賊을 잡지도 못한 郡守 李尙閔을 罷職한 다음 取調케 하고 平安兵使 申磼를 따라서 罷職케 하였다. <同上 卷六十五 (七月戊戌條)>

8月 1日에 李元翼이 下四道 都體察使를, 金玏이 同副使를 拜하여 14日에 南原에 내려가서 全羅兵使 李福男을 잡아 決杖하고 17日에 漢城으로 押送하였는데 그가 濫刑無道하다는 報告를 받은 까닭이였다. <春坡堂日月錄九 (宣祖二十八年八月十四, 十八日條)>

西北邊에 살고 있는 胡人獐子를 죽이고 建州衛와 事端을 벌이게 한 前渭原郡守 金大畜과 前平安兵使 申磼을 調査하여 處罰키로 하였다. <宣祖實錄卷六十八 (二十八年十月甲寅條)>

臨陣失誤의 罪로 明川縣監 朴仁賢을 逮捕하여 10月 20日에 訊問한 다음 處斷키로 하였다. <同上 十月己未條>

29年 9月 19日에 清州牧使 閔仁伯을 罷職하였는데 그는 課稅가 煩重하고 無賴한 子弟를 거느리고 많은 弊端을 남겼기 때문이였다. 이에 앞서 그는 黃州牧使로서도 棄城脫走한 罪로 白衣從軍한 바 있었던 것이다. <同上 卷八十 (二十九年九月甲午辛亥條)>

30年 9月 22日에 陣中에서 도망쳤던 五衛將 李仁濟를 逮捕하여 鞫問키로 하였다.
<同上卷九十二 (三十年九月己酉條)>

漆川梁海戰에 舟師의 次將으로서 脫出逃避한 前慶尙右水使 裴楔을 30年 10月 11日에 軍律에 依하여 處斷키로 하여 全國에 手配한 결과 32年 3月 6日에 잡아서 斬誅하였다.
<同卷九十三 (三十年十月戊辰), 卷百十 (三十二年 三月乙酉條)>

30年 11月 12日에 軍糧輸送의 責任을 다하지 못한 黃海道監司 柳永詢을 逮捕鞫問키로 하였다.

<同卷 九十四 (十一月己亥條)>

31年 正月 14日에 前安城郡守 柳夢經을 베었는데 敵兵이 아직 安城땅에 들어오기도 前에 望風逃走하였던 까닭이다.

<同卷九十六 正月庚子條>

柳濂은 京畿防禦使로서 前年 9月에 無限山城(安城郡)을 지키고 있었는데 夜半에 城中의 倉庫와 器械를 불태워 버리고 逃亡친 罪를 다스려 2月 25日에 斬誅하였다.

(同卷 九十二 (九月戊戌辛亥), 卷九十七 (二月庚辰條)>

督運御史 趙存性은 軍糧輸送을 督促하고 監督할 責任을 지고도 任務를 誠實하게 遂行하지 못한다고 正言 李惟弘과 持平 宋應洵이 아뢰었으므로 罷職하고 拿鞫키로 하였다.

<同卷百 (三十一年五月丙午條)>

嘉山郡守 具坤源은 마음대로 官爵을 取捨하였으므로 10月 26日에 罷職하였다.

<同卷百五 (三十一年十月戊寅)>

黃石山城 戰鬪(30年 8月16日)에서 먼저 도망친 助防將 白士霖을 다음해 12月 11日에 비로소 逮捕하여 訊問키로 하였다. 司憲府와 司諫院에서는 여러번 啓請하여 誅하기를 主張하였으나 드디어 이같이 決定된 것이었다.

<同 卷百七 (十二月壬戌條)>

以上은 軍紀에 關한 事項을 대충 추려 본 것인데 官員들의 官紀도 시원스럽지 못한 것이 많았으며 더구나 朝廷에서 重責을 짊어지고 있던 臣僚들로서 後世에까지 아름답지 못한 行蹟을 남겨 놓은 例가 적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몇가지만 紹介하여 본다면, 25年 5月에는 日本軍이 咸鏡道에 들어가서 平壤쪽으로 西道를 向하여 朝鮮軍의 背後로 繞出할 염려가 있으므로 戶曹判書 洪汝淳을 巡察使로 拜한 다음 陽德에 가서 지키게 하였는데 그는 원망스러운 말을 많이 하면서 平安兵使 李潤德이 거느리는 군사 절반을 데리고 갈 것이며 또 大同驛馬를 軍用으로 쓰겠다고 要請하니 29日에 左議政 尹斗壽가 아뢰기를 『汝淳이 떠나기 싫어서 하는 말에 不過하옵니다.』하고 드디어 가지 않도록 啓請하였다. 그는 領相 李山海와 같이 金公諒과 交結하여 誤國之罪로 開城에서 彈劾을 받은 바 있던 爲人이었다.

<朝野僉載卷二十七 (二十五年五月), 寄齊史草下壬辰日錄>

咸鏡道 方面의 日本軍의 聲息이 急하므로 前兵曹判書 金應南을 都巡察使로 拜하여 陽德方面을 지키기로 하였는데 8月 1日에 그는 病이라 하여 가지 않았으므로 할 수 없이 江界府使 洪世恭으로 하여금 대신 가게 하였다. 이러한 愚物들이 朝官의 顯要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宣祖實錄卷二十九 (二十五年八月戊子)>

黃海道 監司 趙仁得은 黑田長政이 거느리는 日本兵이 쳐들어오자 海州 앞바다에 있는 睡鴨島(海州郡松林面)에 도망쳐 들어갔다가 8月에야 비로소 出陸하여 日本情報를 馳啓하고 海州를 收復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니 朝廷에서는 16日에 그를 오히려 巡察使로 拜하였다.

<同上 二十五年八月癸卯條>

9月 26日에 司憲府에서는 啓請하기를 咸鏡監司 尹卓然이 龍川郡의 官用屯田을 함부로 占

有하고 耕食하는 까닭으로 그 屯田을 本郡에 돌려 보내고 罷職할 것을 아뢰었으나 屯田만 返還키로 하고 罷職은 允許치 않았다. 王은 이러한 人間들을 寵愛하였던 것이다.

<同上 二十五年九月壬午條>

10月 20日에 義禁府都事인 趙爾瞻이 賂物을 받아 먹고 또 鄕卒을 打傷하였으므로 罷職케 하였다. <同上卷三十一 宣祖二十五年十月丙午條>

召募官 金德海와 李春英은 列邑을 橫行하면서 吏民을 虐害하였으므로 26年 2月 23日에 忠淸과 全羅 兩監司에게 命하여 逮捕케 하였다. <同上卷三十五 (二十六年二月戊申條)>

前正郞인 柳德種은 日本軍이 漢城을 占領한 다음부터 城안에 있으면서 內應한다고 말하기만 하고 아무런 探報도 하지 않은 채로 坊民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偸生만을 일삼았으므로 5月 9日에 그 仕版(官員으로서의 登錄證.)을 削除케 하였다. <同上 卷三十八 (二十六年五月壬戌條)>

海南縣監 李安繼는 官穀을 盜用하였으므로 誅에 處하고 그 馬匹과 軍糧을 回收하여 軍用에 充當케 하였으니 이는 全羅監司 李廷馣이 馳報한 바에 따른 것이었다.

<同上卷四十六 (二十六年十二月癸亥, 乙丑條)>

內資寺(宮庭의 食品, 內宴, 織造를 主管하는 官衙) 奉事인 李文賚은 監饋官(王의 食事를 감독하는 官員.)으로 있으면서 貧民을 賑恤할 때에 呼訴하는 女人을 凌辱하였으므로 罷職케 하였다.

<同上卷四十九 (二十七年三月庚寅條)>

朝鮮사람으로서 日本軍에게 잡혀갔다가 도망쳐 大海를 건너서 江原道 三陟府 加沙津에 돌아온 다음 乞食하고 있던 사람들을 府使 洪仁傑과 僉使 朴珹등이 獄에 넣고 베어 죽인 다음 거짓으로 監司와 御史에게 報告하기를『倭船 1隻이 府北面 海上에 와서 碇泊한 것을 군사를보내 全船捕捉하였다.』하니 御史 盧景任이 그 虛僞를 看破하고 朝廷에 處置를 請하였으므로 朝廷에서는 8月에 洪仁傑을 罷職하고 24日에 拿鞫定罪케 하였다.

<同上卷六十五 (宣祖二十八年七月丁酉條), 卷六十六, (八月甲子條)>

柳濂, 李夢見, 裴楔, 趙景祿, 林忠幹, 李夢龜등이 大罪를 짓고도 도망쳐 숨어있으므로 31年 1月 21日에 全國에 懸賞으로 手配하였다. 柳濂등은 뒤에 斬誅하였는데 여기 대하여서는 이미 말한 바 있다. <同上卷九十六 (三十一年正月丁未條)>

그 다음으로서는 日本軍의 軍紀面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으나 文獻上으로 나타난 것은 모두 좋은 面만이고 그들의 不名譽스러운 일에 대하여서는 各侯別로 만들어낸 家記등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極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여기에서는 납득할 수 있고 또 世上에 이미 널리 알려진 몇가지만을 取扱키로 할 것이다(擧皆가 이미 本文에서 取扱된 것이나 다시 여기에 收錄하는 것이다.)

平壤戰鬪대에 大友吉統은 鳳山을 지키고 있다가 小西行長의 救援要請을 듣고 赴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황한 나머지 明 군사의 그림자도 못 본채 南方 開城方面을 向하여 뒤도 돌아보지 못하면서 逃走하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豊臣秀吉은 26年 5月 初1日에 侵略諸將들에게 書信을 보내어 大友의 卑怯을 책망하고 그의 領地를 沒收한다고 公布하였으

니 豐公遺文에 말하기를 『小西行長軍에 赴援(助勢)하지도 않고 平壤城에서 아직까지 抵抗하고 있는 동안에 連絡據點을 占領하고 있던 大友의 城(鳳山城)에서는 敵의 先鋒狀況도 살피지 않고 退却하여 버렸는 바 어려서부터 武에 從事하여온 秀吉 自身으로서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아직까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일이로다. 더구나 日本 안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어늘 大明國에 대해서도 매우 부끄러운 일이어서 딴 사람에 대한 본보기로서 그 當者는 말할 것도 없고 關聯者들을 誅斬하여야 함은 明白한 事實이로되 一命만은 살려 놓고 그 領地를 沒收할 것이로다.』라고 하였다. 出戰將領에 대하여 寬容을 베풀 수 있는 秀吉의 一面을 나타내는 것이다.

25年 8月 17日에 王世子는 宣陵(成宗陵)의 掘破事件의 變을 듣고 곧 烏山都正 鉉과 宣傳官 李應仁을 보내 現場을 調査케 하였는데 뒤이어 9月 7日에는 京畿觀察使 沈岱가 馳啓하기를 日本軍이 恭僖王墓(中宗靖陵)와 恭憲王墓(明宗康陵)의 齋舍를 불태워 버렸다고 報告하였다.

<龍蛇日記上, 實錄卷三十 (二十五年九月癸亥條)>

그 밖에도 軍紀紊亂의 事由가 많을 것이지만 文獻上으로 찾아볼 수가 없으므로 詳論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無辜한 良民을 虐殺하고 財物을 掠奪하거나 婦女子를 凌辱한 事例는 一一이 枚擧할 수 없으리만치 許多한 것이 있다. 더구나 姦淫 事實은 오늘날 우리가 想像할 수 없으리만치 그 野獸性을 들어내어 놓고 있는데 이것은 各邑誌등에서 烈婦의 記錄을 찾아 본다면 一見 明白한 것이며 이러한 烈女에 屬하지 못한 억울한 兒女子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武弱한 民族 되지 말기를 새삼 다짐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東征軍의 軍紀에 대하여 살펴 보려는 바 이것도 또한 文獻上에 나타난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대체로 東征軍의 軍紀는 比較的 嚴正하였다고 할 것인데 더구나 提督 李如松, 劉綎, 副總兵 吳惟忠, 李芳春, 查大收, 遊擊將 擺賽, 楊登山, 頗貴등이 指揮하는 군사의 軍紀가 훌륭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군사 가운데서는 반드시 그렇지도 못한 바가 있었으니 崔慶男은 그가 直接 눈으로 보았다고 하여 다음과 같은 事實을 亂中雜錄에서 말하고 있다.

『天兵이 往來하여 道路에 차거늘(絡繹) 一路의 各官(驛의 官兵등)들이 必要한 物資를 대고 地方에 準備한 官用의 雇馬(刷馬)와 荷物擔送夫(杠(강)軍)들을 모두 擔當 差出하기가 힘이 들어서 사람들이 견디고 살아 나갈 수 가 없었다. 牛馬의 數가 적은데 그 太半이 掠奪되었으매 사람들이 田土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이것을 버리고 流散하는 者가 길가에 늘어 있었다.』

李舜臣도 忠武公全書에서 말하기를 『本道(全羅道)는 이름은 비록 保全되었다지만 變이 난지 2年이 되고 物力이 虛竭하던 차에 또 天兵을 補給支援하게 되니 凋廢가 이미 極甚하여 侵略된 地方보다도 더한 바가 있다. 또 天兵이 南下하자 여염집과 거리에 出入하여 사람들의 財

物을 掠奪하고 들에 있는 곡식을 損傷하여 지나가는 곳 마다 荒蕩하게 되니 無知한 백성들은 소문을 듣기만 하여도 奔潰하여 딴 地方으로 옮겨 갔다.』하였는데 그는 또 水師都督 陳璘의 渡來 初期의 橫暴에 대해서 말하기를 『戊戌年 7月 16日에 天朝의 水兵都督 陳璘이 군사 5千을 거느리고 왔는데 都督軍이 처음으로 이르자 掠奪을 일삼기만 하여 軍民들이 매우 고생하였다.』는 것이다.

또 山東都御史인 周維翰과 吏科給事中인 楊廷蘭등이 上本(奏文을 皇帝에 올리는 것.)하여 아뢰기를 『李如松이 平壤之役에서 베인 바 首級의 절반은 모두 朝鮮백성들이고 焚溺 萬餘名이라고 한 것은 모두 朝鮮사람들이옵니다.』하였으며 朝鮮 朝廷에서는 이 誣告를 解明하려고 안간힘을 쓴 바가 있었다. 또 再造藩邦志 卷四에서 말하기를 『提督(劉綎)이 倭橋城에 들어가자 行長은 이미 外洋으로 나갔는지라 首級을 찾아 냈는데 我國사람으로서 山谷에 있던 사람은 잡혀가서 모조리 斬殺을 당하였으며 行長이 보냈던 倭의 볼모 6名도 또한 斬殺되어 首級의 數爻로 補充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提督은 金色 글짜로써 크게 西路大捷이라는 四大字를 써서 軍門(經略 邢玠의 本營)에 急報하였으나 사람들이 곧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였다.

亂中雜錄卷三에서 陳璘에 대해서 말하되 『陳璘이 諸軍을 거느리고 南海陣에 들어가 수색한 결과 軍糧 萬餘石을 얻었으며 牛馬는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山中을 헤치고 머물러 있으면서 水兵들이 前後로 목벤 수효가 1千名에 가까왔는데 그 中에는 我國사람이 잘못되어 죽은 者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 밖에 東征軍의 軍紀에 대해서 몇가지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第1次 東征軍 主力이 26年 癸巳 8月에 돌아갈때에 明 군사들이 漢城의 女人들을 몰래 데리고(潛帶) 男服으로 變裝시켜서 通過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8月 6日에 經略 宋應昌에게 자세하게 通知하고 禁斷할 것을 要請하였다. <宣祖實錄卷四十一 (二十六年八月丁亥條)>

이 해 10月 9日에 王은 近臣을 特派하여 明나라 군사들을 招請하고 接待토록 하였는데 分給하는 일을 適切하게 못하였으므로 그 군사들이 서로 싸우고 爭奪하게 되어 闕門에까지 몰려와서 騷亂을 피웠다. 朝廷에서는 그날 勤務하고 있던 承旨를 調査하여 責任을 묻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同卷四十三 (二十六年十月己丑條)>

遼東都御史 李化龍은 明 同知인 王猿吉에게 調査命令書(憲牌) 2通을 보내 我國에서 調査報告토록 하였는데 그 1通은 千摠등이 貪慾하여 我國 男女를 擾害하는 者를 指名 調査하여 그 결과를 報告하라는 것이었고, 또 나머지 1通은 擺撥委官인 王朝武와 倪(예)佐, 그리고 都司差官인 楊成揀등이 狼藉貪虐한 事實을 明白하게 調査報告하라는 것이었다.

<同 卷七十五 (二十九年五月甲午條)>

30年 8月 16日 南原城이 陷落하자 守將인 副總兵 楊元은 血路를 뚫고 脫身逃走하였는데 明에서는 斬刑으로 다스리고 그의 목을 梟示케 하였다. 이때에 遊擊將 陳愚衷은 군사 2千名을 거느리고 全州를 지키고 있다가 南原에 赴援하지 않고 또 全州城에서도 싸우지 않고

도망쳤는데 뒤에 明에서는 그를 立功自效케 하였다.

<事大文軌卷二十二 (九月初四日國王咨文), 春坡堂日月錄卷九>

다음에 日本軍의 賞罰에 대한 것인 바 대체로 보아 秀吉은 信賞必罰을 適切히 하였다 할 것이니 그는 戰功을 세웠다고 認定하는 將領들에게는 「感狀」이라는 武勳表彰狀을 주고 賞으로 土地, 軍馬, 寶劍등을 주는 것을 例로 하였는데 그 槪況은 다음과 같다.

釜山, 東萊戰鬪——小西行長과 宗義智(4月 23日)

金海戰鬪——黑田長政(4月 25日)　第1次慶州戰鬪——加藤 清正(同左)

漢城占領——小西 行長(5月 16日)　加藤 清正(同左)　宗 義智(同左)

會寧占領(二王子를 잡았다는 功.)—— 加藤 清正(9月 22日)

碧蹄舘戰鬪——立花 統虎(26年4月3日) 小早川 隆景(26年5月)

小早川 秀包(26年5月)　吉川 廣家(同左)

毛利 元康(同上)　高橋 統增(同左)

第2次晋州城戰鬪——宇喜多 秀家(7月 11日)　小早川 隆景(7月 13日)

漆川梁海戰——藤堂 高虎(30年8月9日)　島津 義弘(同左)　島津 忠恒(同左)

島津 豐久(同)　脇坂 安治(同)

南原城戰鬪——島津 義弘(9月 13日)　同 忠恒(同左)　島津 豐久(同左)

伊東 祐兵(同)　藤堂 高虎(同)

黃石山戰鬪——加藤 清正(9月 22日)　毛利 秀元(同左)

長曾我部 元親(同)　長曾我部 盛親(同)

吉川 廣家(同)　鍋島 直茂(同)　鍋島 勝茂(同左)

池田 秀氏(同)　中川 秀成(同)　黑田 長政(同)

第1次蔚山城戰鬪——加藤 清正(31年正月17日)　淺野 長慶(同左)

太田 一吉(同)　宍戶 元續 등 27名(同 25日)

豐臣秀吉이 죽은 뒤에 五大老(德川家康, 前田利家, 宇喜多秀家, 毛利輝元, 上杉景勝)가 連署하여 11月 3日에 島津義弘父子에게 泗川戰功으로 感狀을 주고 이어서 다음해인 正月 9日에 다시 全軍保全에 偉功이 있다 하여 다시 感狀을 주고 義弘에게 5萬石을 加增하고 忠恒에게 出水城을 주었다.

豐臣秀吉은 다음과 같이 官位를 陞敍토록 天皇에게 아뢰어 發令하게 하였다.

宇喜多 秀家——權中納言, 從三位(27年 5月20日)

毛利 輝元——權中納言, 從三位(28年 正月6日)

同 秀元——參議(同)

小早川 隆景——權中納言, 從三位(8月 6日)

秀吉은 다음과 같이 領地를 加封하였다.

宗 義智——1萬石(島津忠辰의 出水城을 빼앗아 준 것임)——(28年 4月 26日)

增田 長盛——20 萬石贈與(故羽柴秀保의 大和郡山城의 舊領, 羽柴는 4月 16日死亡)——(同 6月 8日)

生駒 親正——5 千石加封(直轄領)——(同 7月 15日)

藤堂 高虎——7 萬石贈與(戶田勝隆의 舊領, 戶田은 秀次 自決時에 連坐하여 죽었다.)——(同 4月 22日)

福島 正則——24 萬石贈與(關白秀次의 舊領, 尾張淸洲城)——(未詳日)

池田 秀氏——7 萬石贈與(福島正則의 舊領, 伊豫國府)——(未詳日)

片桐 且元——5 千 8 百石加封(合計 1萬石으로 함.)——(同 8月 17日)

加藤 嘉明——3 萬 7 千石加封(合計 10萬石·巨濟 및 南原의 戰功과 蔚山 및 倭橋 徹收反對의 功.)
——(31年 5月 3日)

藤堂 高虎——1 萬石 加封(巨濟와 南原의 戰功)——(6月 22日)

脇坂 安治——3 千石加封(同上)——(6月22日)

또 小早川隆景이 그의 養子인 小早川秀秋에게 家督을 相續케 하고 隱退하자 秀吉은 隆景에게 5 萬 150 石을 따로 贈與하고 軍役을 免케 하여 養老토록 하였다. 秀吉은 이와 같이 武將대접 할 줄을 알았다.

26 年 1 月에 鳳山守將 大友吉統이 逃走하자 그 罪를 다스려서 封地인 豐後全州 42 萬石을 빼앗고 吉統을 毛利輝元 밑에 拘禁케 하고 그 아들 義乘에게 5 百人扶持(一扶持는 1人1日 4合의 祿이다.)를 주어서 5 月 1 日에 加藤清正에게 屬하게 하였다. 또 島津又太郎忠辰(出水城主)과 波多三河守信時(唐津城主)의 兩人이 꾀병으로 繫船地에서 어슬렁거리면서 滯留하던 罪를 다스려 그 封領을 빼앗고 忠辰을 小西行長에게, 信時를 黑田長政에게 各各 보내서 拘禁케 하였다. 그리고 吉統의 舊領은 다음과 같이 모두 分配하여 주었다.

中 川 秀 成——岡城 7 萬石에 轉封　　太 田 一 吉——臼杵城 3 萬 5 千石
毛 利 高 政——佐伯城 2 萬石　　早 川 長 政——府內城 1 萬石
福島(原)高直——杵築城 2 萬石　　熊 谷 直 盛——安岐城 1 萬 5 千石
垣 見 一 直——富來城 2 萬石　　寺 澤 正 成——波多信時의 舊領 全部

그 밖의 領地는 모두 有功한 近臣들에게 贈與하였다.

27 年 8 月 29 日에 加藤光泰가 陣中에서 病死하니 다음해인 28 年 11 月에 그의 아들 作十郞貞泰를 美濃黑野에 封地를 옮기게 하여 4 萬石을 주게 하고 同月 20 日에 그의 舊領인 甲斐全州 21 萬 5 千石과 直轄領의 1 萬石을 淺野長吉과 長慶(幸長)의 父子에게 주었다.

마지막으로 東征軍의 賞罰에 대한 것인데 이미 本文에서 그 重要한 것을 取扱하였으므로 대충 살펴 본다면 宣祖 26 年(萬曆21年) 2 月 29 日에 神宗이 勅諭하고 東征將士의 勞를 嘉尙한 다음 所司로 하여금 빨리 內帑銀 15 萬兩을 나누어 一線에 나가서 군사들을 慰恤케 하고 또 經略 宋應昌의 奏請에 따라 戶部로 하여금 前線에 軍糧과 馬糧을 補給토록 하였으며 뒤이어 征倭의 功을 錄하여 提督 李如松과 副總兵 楊元, 李如梅, 張世爵등에게 銀幣를 賞으로 내렸다. <事大文軌卷三諭書(兵部題奉聖旨), 皇明實錄 卷二百五十七, 卷二百五十八, 明史卷二十本紀二十 (二月甲寅)>

이 해 12月에 經略 宋應昌과 提督 李如松등이 明京에 凱旋하니 皇帝는 平壤奪還과 漢城 收復의 功을 論하고 다음과 같이 行賞하였다.

宋應昌——右都御史를 加함.

李如松——太子太保를 加하고 歲祿 百石을 增加함.

李如栢——都督同知로 陞叙하고 五軍營 副將을 拜함.

李如梅——遼東副總兵을 拜함.

29年 5月에 畿輔屯田御史인 曹學程이 上疏하여 大司馬 石星과 首輔(尙書의 首席이니 首相과 같다) 趙志皐의 辭職을 切言하고 또 册封使 李宗城의 大失態를 指摘하여 諫言하는 바 있었으나 神宗은 石星을 信任하는 나머지 도리어 曹學程의 罪를 다스리기로 하고 刑部에 내려서 死로써 論하기로 하였다.

이 當時 石星은 封貢之議를 主張하여 納款使 小西如安의 北京入朝를 許하게 하고 册封使를 日本으로 派遣케 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해 4月 3日에 册封正使 李宗城이 釜山鎭 日本營에서 脫走하니 神宗은 兵部의 題請에 따라서 宗城을 京師까지 押送케 하여 訊問케 한 다음 錦衣獄에 내려 보내게 하고 流言을 퍼뜨려 놓은 謝隆, 愼懋龍, 正使家丁 張應宿등을 法대로 處斷케 하였다. <再造藩邦志卷三 丙申四月, 皇明實錄卷二百九十六>

明 册封正使인 楊方亨이 日本에서 맨손으로 돌아오게 되자 科臣 蔡思穆등이 兵部尙書 石星을 탄핵하여 30年 2月 5日에 石星의 官을 罷하고 沈惟敬을 逮捕케 하였다가 이어서 9月 4日에 南原의 敗報가 이르매 星의 罪를 다스려서 下獄하니 그는 드디어 32年 9月에 獄死하게 되었는데 神宗은 星등이 欺罔하여 局面을 糊塗하였음을 震怒한 것이었다.

<事大文軌卷二十 萬曆二十五年三月二十三日咨朝鮮國王條, 皇明實錄卷三百七, 明朝記事本末卷六十二>

30年 7月 5日에 經理 楊鎬가 副總兵 楊元으로 하여금 册封副使 沈惟敬을 逮捕하여 明京으로 押送케 하니 그는 드디어 斬刑을 당하고 棄市케 되었다. 또 이해 11月에 海防副使 蕭應宮은 明 東征軍이 稷山과 蔚山戰鬪에서 功이 없었다고 誣告하다가 도리어 邢玠와 楊鎬의 彈劾으로 逮捕되었다.

<事大文軌卷二十二 萬曆二十五年八月初八日條, 皇明實錄卷三百十二 七月丙辰條>

南原戰鬪에서 副總兵 楊元이 脫身逃走하니 明 朝廷에서는 그를 逮捕하여 다음해인 31年 10月에 斬刑을 하여 그 머리를 朝鮮에 보내왔다.

<宣祖實錄卷百四 (九月辛卯), 卷百五 (十月庚申), 春坡堂日月錄卷十>

明나라 經略贊畫인 丁應泰가 上本하여 經理 楊鎬와 提督 麻貴, 그리고 副總兵 李如梅를 彈劾하고 20餘罪를 꼽아서 아뢰니 皇帝가 怒하여 31年 6月 3日에 削職하여 庶民으로 하고 麻貴는 立功自効케 하였으며 李如梅는 不問키로 하였다. 이때에 東閣大學士 張位와 沈一貫이 楊鎬를 朋黨欺罔한다고 劾奏하였으므로 給事中 徐觀瀾을 現地에 보내 調査한 結果, 張位의 官職을 빼앗고 庶民으로 하였으며 沈一貫을 慰留케 하였다.

<皇明實錄卷三百二十三 (萬曆二十六年六月丁巳戊辰), 朝野僉載卷二十九, 宣祖實錄卷百一 (六月丁卯戊辰)>

31年 10月에 提督 董一元이 泗川戰鬪에서 撤收하자 徐觀瀾이 彈劾하고 提督 劉綎이 倭橋戰鬪에서 不利하였다고 아뢰니 皇帝는 遊擊將 郝三聘과 馬呈文이 군사를 버리고 먼저 도망친 罪를 다스려서 斬에 處하고 董一元의 太子太保의 官을 빼앗고 秩三等을 내리도록 하였으며 또 遊擊將 彭信古등의 職을 내린 다음 劉綎과 董一元등 모두 立功自效케 하였다.

<皇明實錄卷三百二十八 萬曆二十六年十一月壬申, 明朝記事本末卷六二 明史卷二十一 本紀二十一, 再造藩邦志卷四>

32年 7月에 給事中인 楊應文이 東征軍 여러 將帥들의 功을 錄하여 上奏하니 皇帝는 銀 10萬兩을 내려 將士를 慰撫케 하고 首位를 陳璘으로 하고 劉綎이 次位, 麻貴를 三位로 하여 다음과 같이 賞을 내렸다.

經 略 邢 玠——太子太保, 蔭一子, 錦衣世襲
經 理 楊 鎬——原官으로 再起用
都 督 陳 璘——都督同知, 世蔭指揮僉事
監察御史 陳 效——光祿卿 追贈, 一子世蔭
提 督 劉 綎——都督同知, 世蔭千戶
副總兵 鄧子龍——都督僉事 追贈, 一子世蔭
提 督 麻 貴——右都督 世蔭
副總兵 彭友德——同
提 督 董一元——職을 復하여 再敍
遊擊將 茅國器——銀幣賞賜
經 理 萬世德——右副都御史, 世蔭一子入監
遊擊將 陳 寅——銀幣賞賜

그런데 副總兵 鄧子龍은 露梁海戰에서 戰死하고 御史 陳效는 歸國途中 32年 3月 4日에 急病으로 죽었던 것이다.

<皇明實錄卷三百三十九 (萬曆二十七年九月), 皇明從信錄卷三十八, 朝野僉載卷二十九, 宣祖實錄卷百十七>

略 歷

成 泳

本役에 權徵의 後任으로 京畿監司가 되었다가 王陵掘破를 일찌기 馳報하였으나 그 責任을 지고 罷職되었다. 光海君 15年 癸亥正月 15日에 延日配所에서 病死하였다.

<光海君日記卷一百八十五, 癸亥正月戊午>

三, 民事行政 (朝, 日, 明 三國軍) [原文第144 參照]

먼저 朝鮮의 民事行政에 대하여 살펴 본다면 宣祖는 本役中에 여러 차례에 걸쳐 內外士民들에게 널리 敎書를 내린 바 있었는데 25年 5月 1日 夕頃에 開城府에 들어가 이틀동안 滯

留하고 있는 사이에 敎書를 손수 써서 右副承旨 申磼과 兵曹正郎 李弘老로 하여금 이것을 갖고 漢城안으로 다시 들어가 士民을 타이르게 하고 또 留都大將 李陽元과 都元帥 金命元에게 諭示하였으나 이들 兩人은 坡州에 가서 漢城이 이미 陷落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냥 되돌아 오고 말았다. 6月 14日에 宣祖는 寧邊에서 分朝의 뜻으로 下敎하여 中外에 諭告하고 王世子 光海君을 江界路를 따라 北行케 하였다. 7月에 日本將 黑田長政의 군사들이 黃海道에서 크게 軍勢를 떨치니 백성들 가운데는 이어 反附하는 者가 있었으므로 아래와 같은 사람을 義兵將을 삼고 또 招諭의 敎書를 내려서 民間에 配布케 한 다음 反民行爲를 한 者로서 能히 順逆을 알아서 反省한다면 前非를 論하지 않을 것이며, 또 能히 敵을 捕殺하는 者에게는 重賞을 줄 것이라 하였다.

中和——金進壽　　鳳山——金萬壽　　黃州——黃河水

이 敎書는 吏讀(이두)를 섞게 하고 또 義兵將 또는 監司등으로 하여금 「한글」(諺文)로 번역케 하여 大小士民들이 모두 잘 알아보도록 하였다. <五峯集卷十敎書敎黃海道義兵將及道內大小民人等書>

또 8月 2日에는 平安道 大小士民들에게도 敎書를 내렸으며 뒤이어 19日에는 「한글」로 쓴 榜文을 平安監司 宋言愼과 體察使 柳成龍에게 보내어 널리 民間에 曉諭토록 하였다.

이해 10月 7日에 柳成龍은 避亂民으로 하여금 모든 島嶼中에 들어가 土屋을 짓고 越冬케 할 計策을 아뢰니 宣祖가 이것을 允許하고 그 뜻을 各道에 諭示케 하였다.

作戰第2年인 26年 2月 26日에 公私賤으로서 從軍하는 사람은 所定의 規定(事目)대로 良人의 籍으로 編入케 하여(從良) 兵士로써 充員키로 하였으며 또 6月 14日에는 公私賤을 試才하여 三醫司雜科의 例에 따라 그 入格者는 곧 良人으로 하여 羽林衛에 屬하게 하였다.

工曹佐郎 李貴가 雜穀 3百餘石을 모았으므로 京畿一道의 窮民들에게 分給하여 耕種케 하고 또 京畿監司에게 下諭하여 都城安集策을 講究케 하는 一方으로는 또 各道에 指示하여 節行 있는 사람을 搜訪한 다음 이를 旌門토록 하고 復戶하게 하였다.

公私賤으로 斬級한 者 및 規定에 依하여 納穀한 者는 免賤케 하고 또 庶孽로서 禁軍(龍虎營에 屬하는 內禁衛, 兼司僕, 羽林衛의 騎士.)에 있는 사람을 內禁衛로 叙授키로 하였다. 漢城을 다시 收復하게 되자 留都의 大臣에게 下諭하기를 『在城大小의 黎庶로서 敵에게 附逆하여 生命을 保全한 者는 特別히 慰撫할 것인 바 그들의 흠(瑕釁)을 씻고 各自 生業에 平安토록 할 것이며 陷敵의 律을 寬大히 하고 進告의 賞을 輕易하게 하여 留京遺民을 모두 撫綏鎭定케 하라.』하였다.

<宣祖實錄卷三十九 (二十六年六月丁酉戊戌條)>

7月 2日 八道에 行會(朝廷의 命令을 公布하는 것.)하여 좁은 소매(窄袖)의 옷을 입고 조그만 帽子를 쓰도록 하되 오는 9月 初 1日부터 施行하라 하였는데 明 東征軍에서는 我國사람들이 平笠쓴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던 까닭이었다. 또 釀酒를 禁하여 穀物을 虛費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農牛를 屠殺하는 것을 禁하는 命令을 3月 5日, 8月 10日, 10月 14日의 3回에 걸쳐서 下達하였다. 이해 10月 1日에 宣祖는 漢城에 還都하고 이 뜻을 中外에 頒敎하는 동시에

重臣을 보내어 八道山川에 降香케 하고 民間의 倭語를 痛禁케 하였으며 또 行在地였던 義州府士民에게 敎書를 내려서 慰諭하고 下賜物을 내렸다. <同上卷四十三 宣祖二十六年十月癸未>

11月 13日에 左議政 尹斗壽는 湖嶺(忠淸, 慶尙, 全羅 三道) 地方에 盜賊이 興起肆行한다고 馳報하니 朝廷에서 回諭하기를『遠捕하는 方策은 오로지 狀啓대로 할 것이로되 失業된 窮民들이 서로 모여서 盜賊을 한다는 것은 情狀이 可憐한 바 있으매 兼하여 撫綏의 뜻으로 宣布하라.』하였다. 또 飢民들이 연달아 呼訴하기를 賑恤하는 죽(粥)이 물과 같으며 겨(糠)와 쭉정이(粃)등 雜物만이 있다고 하니 賑恤使의 啓請에 依하여 南部參奉인 金天柱와 漢城判官인 李齊容을 劾罷하였다. <同上卷四十四, 卷四十六>

作戰 第 3 年인 27年 正月 7日에 吏曹에서는 郡縣合併의 五弊를 아뢰고 함부로 合倂치 말 것을 建議하였다. <同上卷四十七 正月丙戌條>

이 때에 諸道가 크게 飢饉되어 京畿道와 下三道가 가장 甚하였으며 飢民이 서로 죽여서 먹는 터이었으므로 正月 17日에 捕盜大將으로 하여금 刑曹와 協同하여 都城飢民으로서 人肉을 먹는 者를 遠捕하고 嚴하게 다스리도록 하여 一切 禁斷케 하였다.

<同上卷四十七 正月丙申條>

百姓들이 굶주려서 서로 잡아 먹는 慘狀을 이루게 되니 各道의 義兵들까지 모두 解散하여 歸農토록 하고 百餘軍을 別抄하여 諸將所在地에 進屯케 하였다가 이어서 忠勇將 金德齡에게 合勢케 하였는데 이것마저 軍糧不足으로 成軍을 못하였다. <宣廟寶鑑卷七>

4月에 宣祖가 哀痛敎書를 中外에 宣布하여 八道의 飢饉을 慰藉하였으니 이 당시에 叛賊宋儒眞이 亂을 일으켰으나 겨우 鎭定하였는데 官民의 生活苦가 매우 激甚하였으므로 宣祖는 自身에게 罪가 있다 하여 全國에 이 뜻으로서 敎書(文書 第25號)를 내렸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무릇 나의 中外之 人民은 나의 哀痛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不德(否德)으로 백성의 父母가 오랫동안 泰平한 줄로 알고 이미 잘 다스려지고 있는 줄로 생각한 結果 백성들이 아래에서 怨望하였으되 내가 能히 듣지 못하였고 하늘이 위에서 怒하셨으되 내가 能히 알지 못하여 이러한 禍亂을 가져온지 이미 3年이 되었도다. 내가 이제 비록 後悔하고 있으되 後悔한들 또한 어찌 없이할 수 있으랴. 슬프도다, 兇鋒이 지나가는 곳에 白骨이 山과 같으며 千里蕭然하여 다시 人烟이 없거늘, 可憐토다, 우리 生民이 槍劍 아래 죽은 者가 幾萬人임을 알지 못하며 流亡하는 者가 눈을 가리게 하되 賑救할 方途가 없고 구멍에 넘어지고 谷壑에 쓰러져 서로 벼개를 삼았거늘, 불쌍토다, 우리 生民이 飢餓로써 죽은 者가 또한 幾萬人임을 모르며 겨우 살아 있는 사람이라도 瘡痍로써 餘命을 삼으매 顏色이 菜色 아닌 者가 없고 쓸어버린 땅 위에 赤手로 서 있어서 얼마 살지 못하게 되었거늘, 誅求는 平日에 倍가 되도록 侵害되고 財力은 더욱 다하였으되 賦課가 더욱 煩雜하며, 힘이 거의 빠졌으되 役事가 더욱 增加되거늘, 可憐토다, 우리 生民을 내 어이 잊으리오만 이는 朝廷의 不得已한 事情에 依한 것이로다. 슬프도다, 「持男易粟」으로 아들 가진 사람이 조와 바꾼다는 옛말은 들었으되 今日에 와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아들을 버리나니 어찌하여 백성이 盜賊을 하지 않으랴.「草根自活」로 草根을 먹고 스스로 산다는 말은 옛부터 들었으되, 今日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서로 잡아 먹으니 어찌하여 백성이 盜賊을 하지 않으랴. 이 모두가 予의 恩澤이 아래까지 미치지 못하고 予의 措置가 適當하지 못한 탓이어서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말을 내어 여기에 이르러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고 땅을 디딜 面目이 없도다.(戴履無面) 予는 깊이 민망히 여기나니 나의 몸이 아픈 것과 같도다. 대저 予의 奉命之臣이 或 교만한 바가 있으며 予의 守土官이 或 苛酷한 바가 있어서 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에 이르게 하였다면 官에 그 사람을 얻지 못한 것도 또한 予의 罪이니 백성들은 마땅히 予를 허물할지로다. 予가 무엇을 사양할 것이랴. 슬프도다, 생각컨대 나의 生民은 모두 나의 赤子이니 予가 비록 不敏할지라도 어찌 앉아서 볼 수만 있으며 백성을 安集하는 方策을 생각하지 않을손가. 諸道의 民力이 이미 다하였으니 役事를 制限하고 減稅를 定하여 進上을 減할 것이며 군사들이 困窮하였으니 이미 上番義務를 끝마친 者에 대하여는 永久히 兵役納布(價布)를 減하고 地方文武官(佩綬之臣)으로 하여금 근심을 나누게 하리로다. 이 艱難之時를 당하여 貪慾과 殘忍이 더욱 甚하다면 모조리 摘發하여 一一이 嚴하게 다스릴 것이로다. 軍糧調辨과 刷馬(地方에 두는 官用의 雇馬)에 關한 業務는 모두 關係되는 色吏(監營 또는 郡衙의 吏員.)에 맡겼던 바 怨聲이 길에 찼다면 그 廣狹을 생각하여 均一토록 힘쓸 것이로다. 兵務는 精銳에 있나니 그 數에만 힘쓰지 않고 군사 가운데서 精銳치 않은 者를 모두 陶汰하여 버리고 侵騷의 弊가 없도록 할 것이며 賞功의 恩典은 마땅히 때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 文書가 날로 쌓여서 査定이 날로 늦어짐으로 因하여 나의 立功한 사람들 가운데 아직 朝廷의 賞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모두 所在地의 監司에 申告케 한 다음 곧 啓聞케 하여 모름지기 施賞에 있어서 遲滯의 弊端이 없도록 하리로다.

백성의 困窮이 이때와 같음이 없으매 이미 그 怨聲이 極에 達하였도다. 官弊를 없이하도록 그 對策을 充分히 講究하여 백성들을 便케 하도록 힘쓸지로다. 무릇 나의 中外의 백성들은 予의 旣往의 失責을 용서하고 予의 將來의 更新을 허락할지어다. 바라건대 지금 잠간 참기만 하고 뒷 날의 泰平을 맞이하여 各各 그 業에 安居하리니 어찌 또한 즐겁지 않으랴. 그러므로 이에 敎示하노라.』하였다.

<春坡堂日月錄卷九甲午四月條>

이 때에 兩南의 飢民이 明 總兵官인 劉綎의 營中에 들어가서 그 下人(房子)이 되거나 또는 明나라 군인들에게 시집 가는 女子도 있었으므로 接伴使 金瓚은 미리 劉綎에게 稟請하여 군사들이 明에 돌아갈 때에 軍中에 嚴命하여 朝鮮國 男女를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要求하고 沙峴 및 大同江과 鴨綠江의 渡河地點에서 點檢하여 潛隱으로써 通過치 못하도록 하였다.

<宣祖實錄卷五十四 (八月辛酉條)>

京畿 各地에 盜賊이 橫行함으로 飢餓失業한 백성들이 이 무리들 가운데 있다가 나와서 賊情을 告發하거나 頭目의 머리를 베어오는 者는 免罪論賞키로 하고 그 나머지 執迷不伏者는 모조리 誅斬할 뜻으로 榜文을 붙이게 하였다.

<同上 卷五十四 (八月辛未, 壬申, 癸酉條)>

<眉巖日記草(第一册, 丁卯十一月初五日條)>

土賊이 畿甸에 橫行하고 討捕使가 내려간 다음부터는 荒唐異色의 인간들이 漢城에 도망쳐 들어옴으로 兵曹로 하여금 左右捕盜將이 거느리는 巡察兵(巡伏軍士)를 適宜增員케 하고 또 南山, 東大門, 南大門에 大砲를 놓아 夜間에 射擊하여 聲威를 壯大케 하였다. <同上卷五十五 (九月乙酉條)>

11月 4日에 南大門안에 鐘을 걸어놓고 人定(夜行을 禁하기 위하여 每夜 二更에 鐘치는 것.)과 罷漏(파루이니 五更三點에 大鐘을 33回 치는것.)制度를 만들어 놓았다.

<同上 宣祖二十七年九月癸已, 卷五十七 同年十一月戊寅條>

作戰 第 4年인 28年 3月 21日에 各道와 漢城府에 指示하여 死亡人의 屍體를 收拾하여 義塚을 만들게 하고 特히 設祭케 하였다.

<同上 卷六十一 宣祖二十八年三月壬辰 甲午條>

7月 19日에는 本役後에 死節로써 旌表한 사람과 孝子烈女의 實迹을 册으로 만들어 印出頒示케 하였다. <同上 卷六十五 宣祖二十八年七月癸未庚寅辛卯>

作戰 第 5年인 29年 2月 19日에 敎書를 名道에 頒付하여 德意를 宣布하고 또 7月 22日에 叛賊의 魁首 李夢鶴의 머리와 手足을 梟示케 하고 다음날 逆賊勦滅의 뜻으로 敎書와 特赦令(宥旨)를 내렸다. <同上 卷七十七, 朝野僉載卷二十八>

日本軍營中에 들어가서 潛商(禁制品을 密賣買하는 것.)하는 것을 慶尙右兵使 金應瑞가 禁止하지 못하여 弊害가 많으므로 兼四道都體察使 李元翼이 直接 晋州에 가서 禁令을 下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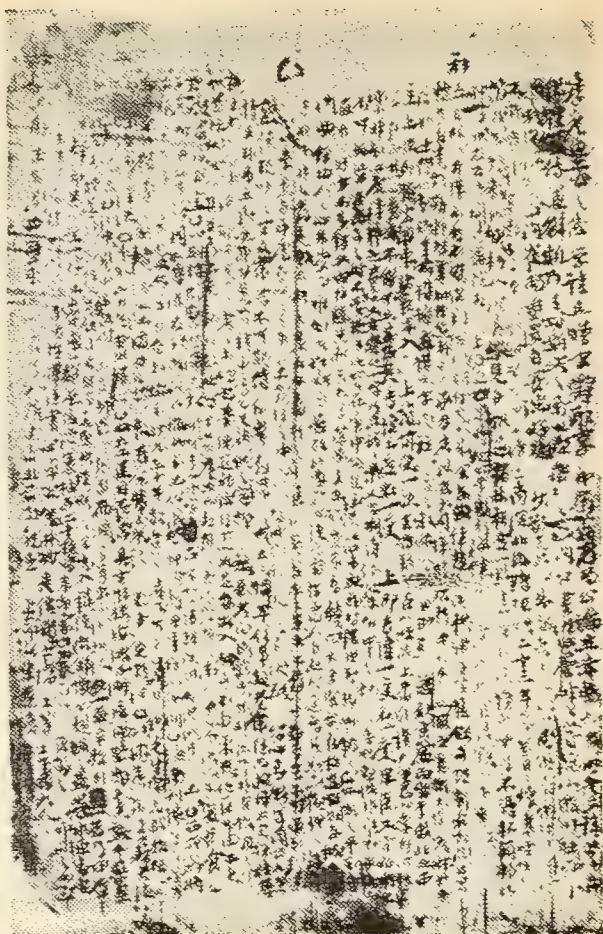
<同上 卷七十八 (二十九年八月癸亥)>

作戰 第 7年인 31年 正月 18日에 逃民을 刷出하여 差役키로 하였으니 戶口法과 腰牌法(腰牌는 軍卒과 早隷(조예, 官衙의 下人)들이 차고 다니는 木牌이니 오늘날의 認識票와 같은 것.)의 實施가 徹底하게 履行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였다.

<同上 卷九十六 正月庚子 甲辰條>

5月 10日에 鹽과 鐵에 課稅키로 하였으니 이 때에 國家財政이 急하였으므로 軍費調辨의 一策으로써 施行키로 한 것이었다. <同上 卷百(三十一年五月乙未條)>

다음으로서는 日本軍의 民事行政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하는 바 이미 本文에서 말한 바와 같이 豐臣秀吉은 壬辰年 6月 3日에 漢城을 占領中이던 將領들에게 民政에 관한 命令을 내렸는데 다음과 같이 各道를 區分하여 管理케 하고 監營과 비슷한 代官所(DAIKANSHO)라는 것을 만들게 한 다음 여기에서 모든 軍政을 專擔토록 하였던 것이다.

京畿道——宇喜多 秀家　　　忠清道——福島 正則

慶尙道——毛利 輝元　　全羅道——小早川 隆景
黃海道——黑田 長政　　江原道——毛利 吉成
平安道——小西 行長　　咸鏡道——加藤 淸正

그러나 全羅道만은 梨峙와 熊峙의 激戰에서 日本軍이 擊退를 당하였으며 또 前後에 걸친 錦山戰鬪에서 招討使 高敬命과 義兵將 趙憲등의 奮戰으로 마침내 撤收하게 되어 이 命令대로 實施하지 못하고 日本將 小早川隆景은 慶尙道를 지키다가 뒤에 北上하여 開城을 지키게 되었다.

日本軍은 「四公六民」이라는 租稅法을 함부로 定하여 秋收의 四割을 收奪하는 것을 公表하였으나 그 밖에 臨機로 徵發한 것은 莫大한 量으로서 거의 10割에 가까운 強奪을 마음대로 하였으되 民衆들에 대하여서는 甘言利說로 꾀이는 것을 잊지 않았으니 從軍僧 天荊(TENK-EI)은 그의 著인 西征日記에서 對民諭告文이라는 다음과 같은 要旨의 佈告文을 싣고 있다.

『境內에 있는 백성(黎民)들과 호래비와 과부들, 그리고 孤兒, 獨身男女들(鰥寡孤獨)에게 諭示하노라. 내가(僕) 우리의 殿下(關白秀吉이라는뜻)의 命令을 받들고 이 地方에 와서 酷政(苛政)을 없새고 善政을 베풀어서 백성들을 塗炭에서 救하고자 하나니 速히 옛집(舊居)에 돌아와 各各 家業을 다스릴지어다. 疑心하지 말고 또 疑心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 官員들에게는 다음 要旨와 같이 諭告하였다.

『境內에 있는 文武官僚들에게 呈示하노라. 우리 殿下의 命令을 받들고 이 境內를 安撫하려는 바, 내 비록 不敏타 할지라도 善政을 境內에 펴려고 하나니 各各 本宅으로 돌아와 나의 재간을 밝혀준다면(精我藝) 반드시 그 器量에 應하여 써 職을 줄 것이로다. 먼저 歸服하는 者는 賞을 줄 것이며 不服하는 者는 罰할 것이니 請컨대 이것을 도모하라.(請計之)』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던대로 그들의 앞잡이 노릇하는 方伯守令은 한 사람도 없었으니 그들은 이들 附逆者를 利用하여 民政에 投入된 군사를 다시 抽出한 다음 이것으로써 機動作戰을 準備할 수 있도록 생각하였을 것이었으되 數萬의 군사를 地方民事行政에 拘束당한 결과 朝鮮義兵들의 攻擊目標가 된 채로 苦境에 빠지다가 癸巳年 4月 18日부터 總撤收로써 南海岸에 孤立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었다. 다만 二王子를 잡아서 加藤淸正에게 바친 會寧의 鞠景仁 一味 徒黨들만은 淸正으로부터 감투를 얻어 쓰고 一時 民政을 다스렸으나 얼마 아니되어 義兵大將 鄭文孚등에게 잡혀서 죽은 바 되고 그 밖의 地方에서는 몇 雜人을 제쳐 놓고서는 진심으로 附逆한 者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豫期치 않던 困境에 빠진 日本軍은 丁酉再侵때에 있어서는 朝鮮 官員들에 대한 歸順工作은 처음부터 斷念하고 官員을 보기만 하면 죽이는 所謂「上官狩」(JŌKANKARI)라는 方策을 세웠던 것이니 丁酉年 9月에 宇喜多秀家의 名儀로 된 康津縣 檄文이 이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 檄文의 第二條에 이르기를 『上官이 된 者를 곳곳에서 찾아 내어(尋探) 誅戮할 것이로다. 上官의 妻子와 從者들도 誅死케 할지며 官人의 家宅은 放火할지로다.』라고 하였다(文書第40號 參照) 이 檄文에서 보는 敵의 殘酷性에 새삼 놀

라는 同時에 우리 祖上들의 愛族觀念이 透徹한 證據로서 마음 흐뭇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끝으로 東征軍의 民事에 대하여 살펴 본다면 癸巳年 正月 7日에 淸吏司員外郞인 劉黃裳과 同司主事 袁黃의 두 사람은 勸諭文을 佈告하여 義兵이 일어나서 같이 나라를 救할 것을 諭示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그대의 나라는 원시 文物이 두텁고 世世로 忠貞이 많았는데 近者에 倭夷가 無道하여 長驅한 다음 侵掠하매(荐(천)食) 君臣이 民間에 避難하고 백성(猿尾)들이 流離하니 그 困難이 오죽하리오. 大明皇帝께서는 그대들이 2百年來로 臣節을 굳게 지킨 것을 생각하시고 萬金之費를 아끼지 않으시고 命하시와 장차 나가서 치게 하시니(徂征) 그대의 國內에 어찌 宗親으로 忠憤하는데 마음을 깊이 둔 者가 없을 것이며 어찌 地方官員으로 地方을 지키고 慷慨하여 목숨바치는 者가 없을 것이며 어찌 忠臣으로 主辱에 臣死之念을 간직한 者가 없을 것이며 어찌 義士로써 한 몸을 버리면서 報國하는 마음을 품은 者가 없을 것이랴. 마땅히 天威가 크게 怒하신 바를 이어 받아 빨리 義兵을 모아 서로 一旅之師를 이끌고 같이 九伐之志를 뻗칠 것이로다.

이제 倭가 비록 強하다 할지라도 그 勢가 반드시 滅할 것이며, 그대 나라가 비록 微弱하다 할지라도 그 勢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인 즉, 같이 計策할지로다. 먼저 天道에 대하여 論하여 본다면 我方은 勢를 얻고 敵은 勢를 侵犯하였으니 逆天而行으로 비록 強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弱한 것이 其一이오. 倭는 추위를 두려워 하는 바 立春 뒤에도 아직 2,30日동안 寒氣가 未消하니 天時를 可히 利用할 것이 其二요, 그대 나라의 君臣이 모두 이 漢城안에 있는 바 일찍 일어나서 氣를 바라본 즉 王氣가 나에게 있어서 勢를 반드시 恢復할 수 있는 것이 其三이라. 다음으로 人事에 대하여 論하여 본다면 大國雄兵이 호랑이 같고 곰 같으매 無敵의 火砲一發이 千步를 다다른 바 그들이 제 힘을 헤아리지 않고 있으므로 마땅히 壓粉이 될 것이 其四요, 經略 宋(應昌)은 沈機蓄謀하여 神鬼라도 헤아리기 어렵고 提督 李(如松)는 一心忠義로 百戰餘勇하여 古名將之風이 있으며 小職도 원시 忠貞에 依支하여 同心協贊하고 이 敵을 滅하여 天子에게 갚고자 맹서하였으매 兩國의 군사를 合하여 이 窮寇를 쫓아내기란 힘들지 않는 것이 其五라. 關白은 暴虐하여 위로는 그의 主人을 怯制하였고 아래로는 그의 百姓을 虐使하였으니 하늘이 우리의 손을 빌려서 그들을 滅亡시키려는 것이다. 어제 國王을 뵈이니 擧動이 安詳하고 容姿가 俊偉하시매 그 勢가 반드시 中興할 것이며 그대 나라에서 이 전에 보낸 바 모든 使臣들이 天朝에 가서 군사를 請할 때 誠意가 간절하고 측은 하여 눈물이 비오듯 하였거늘 이를 생각컨대 申包胥(春秋時代의 楚나라 大夫, 姓은 公孫이고 申에 封하였으므로 申氏로 號하다. 吳師가 楚를 伐하여 郢에 들어오매 包胥는 秦에 가서 乞師救楚하고 依庭牆而哭하되 日夜不絕聲하여 勺水不入口者 七日이어늘 秦哀公이 이에 出師하여 定其國難하다. 昭王이 返國賞功커늘 逃而不受러라.)가 楚를 救하기 위하여 泣哭한 忠義와도 같도다. 君臣이 모두 이와 같으매 어찌 끝까지 困窮할 것이랴. 이로써 賊을 치나니 何功인들 不成하리오. 倭奴가 믿는 바는 다만 鳥銃뿐인데 三發한 다음에는 連이어 쏘기 힘들며 그 군사가 비록 많다 하더라도 強한 者는 얼마 되지 않으므로 다만 그 前

鋒 1,2百名만을 죽인다면 그 나머지는 모두 望風하여 도망치는 것이라. 이야말로 可勝할 機會이며 진정 志士가 功을 세울만한 때로다. 우리나라 朝廷에서 命令을 내렸으되 우리나라와 그대의 나라를 論하지 않고 다만 平秀吉과 뒤이어 僧 玄蘇를 잡거나 또는 베인 사람에게는 銀 1萬兩을 賞줄 것이고 封伯世襲케 할 것이로다. 秀吉의 家臣으로서 平行長, 平義智, 平鎭信등 有名한 여러 將領을 잡거나 또는 베이는 者에게는 各各 銀 5千兩을 賞으로 주고 指揮(麾)使를 世襲케 할 것이로다. 그 以下로서 무릇 斬獲하는 사람은 各各 賞格이 있을지로다. 그대의 나라 臣民들은 다만 能히 때를 타서 衆을 모아 같이 大功을 세운다면 이미 本國의 社稷을 收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天朝의 厚賞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衰退한 나라의 遺民으로써 起家之始祖가 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즐겁지 않을손가. 이러기 위하여 咨請하노니 모름지기 빨리 各道의 臣民과 義兵에게 傳示하여 이미 일어선 者는 곧 前進할 것이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者는 빨리 招集하여, 或은 힘모아 賊威를 쳐부시고 서로 往來하면서 그 勢를 分斷할 것이며, 或은 그 歸路를 막고, 또 或은 그 糧道를 끊어 버리는등 各地에서 臨時適切히 行動할지로다.』하였다. (文書第10號參照)

第 4 節 兵器와 艦船〔原文第145 參照〕

要 旨

兵器와 艦船을 같은 節에 묶어서 取扱한다는 것은 兵學上으로 보아서 선뜻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지만 艦船의 內容이 많지 않으므로 戰用資材라는 뜻으로써 같은 節에서 묶기로 하고 各軍別로 項만 따로히 살펴본 것인데 이러한 研究라는 것은 그 하나 하나가 모두 專門的으로 살펴 본다면 방대한 內容이 될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戰史研究의 附錄的인 기분으로 가볍게 그 大要만을 더듬어보기로 할 것이다. 明나라와 日本의 兵器 및 艦船은 本役에 關係 있는 事項만을 取扱하였으며 內容이 未備한 것을 免치 못하지만 文獻에서 얻은 몇가지만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미 本文에서 言及한 것은 可及的으로 再論하지 않기로 할 것이다.

一, 朝鮮軍의 兵器와 艦船

高麗朝 以前의 武器는 弓, 弩, 刀, 劍의 네가지 뿐이었는데 高麗 9代 德宗때에 朴元綽(작)이 繡質弩를 만들었고 八牛弩와 二十四般(種) 兵器를 邊城에 두기를 請하였다. 다음의 靖宗때에는 繡質九弓弩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자세한 것은 알 길이 없으나 弩의 一種으로 매우 精巧하였다고 하며 이것을 東西邊鎭에 配置하였다는 것이다. 그 뒤에 弓弩의 用途가 더욱 많아져서 11代 文宗때에도 弩手箭 6萬隻과 車弩箭 3萬隻을 西北路에 보냈고 또 여러번 繡質九弓弩로써 射術을 演練하니 그 箭에는 大羽箭과 柳葉箭, 그리고 片箭등이 있고 그 중에서도 片箭이 더욱 長技였었다는 것이다.

朴元綽은 또 德宗때에 雷騰石砲를 만들었는데 이는 上古制와 같이 機(彈力을 利用하는 장치.)를 써서 돌을 던지는 一種의 投石機였으며 17代 仁宗때에는 金富軾이 西京을 攻擊할 때에 火具 5百

餘石을 만들고 또 趙彦이 만들었던 石砲로써 쏘았는데 그 火陷이 電光같았으며 그 威力이 매우 컸다고 한다. 火藥에 있어서는 禑王때에 崔茂宣이 元나라 焰硝匠인 李元에게 배워서 비로소 火砲를 만들었는데 이로써 火熥都監을 두었으니 倭寇의 배를 불태운 것은 이 火砲의 威力에 依한 바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兵器의 制式은 그 뒤에 커다란 發展을 보지 못한 채로 近朝鮮에 까지 내려오다가 本役을 맞이하였다고 보는 것인데 武藝譜에 依하면 本役 당시에는 六技라는 것이 있었다 하였으니 棍棒, 藤牌, 狼筅, 長槍, 鏜鈀, 그리고 雙手刀의 여섯 가지가 이것이다. 뒤에 가서 英祖 35年 乙卯(1759年)에 莊獻世子가 十二技를 追加하고 또 正祖 14年 庚戌(1790年)에 다시 六技를 넣어 武藝圖譜通志를 만들어 이것을 24技라 하였다. 十二技라는 것은 竹長槍,　旗槍, 銳刀, 倭劍, 月刀, 挾刀와 雙劍, 提都劍, 本國劍, 拳法, 鞭棍, 交戰 등이고 나머지 6技는 騎槍, 馬上雙箭, 馬上月刀, 馬上鞭棍, 擊毬, 馳上才등이었다. 萬機要覽軍政篇에 依하면 梨花槍, 長槍, 短槍, 稜刃槍의 區別이 있었고 弓箭에는 黑角別長弓, 黑角長弓, 帿弓, 六兩弓, 校子弓, 長箭, 片箭, 柳葉箭, 火箭등이 있고 鞭棍에는 着筋, 仁老里등의 區別이 있었다. 그 밖에 環刀, 鳥銃, 大砲, 三穴銃, 鉛丸, 斧子등이 있었는데 이 모두가 本戰役으로 말미암아 明나라 東征軍을 비롯하여 日本軍으로 부터 傳習받은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는 바이다. 더구나 처음에 말한 六技는 宣祖 27年 甲午에 設置하게 된 訓練都監에서 明 參將 駱尙志가 凱旋하여 돌아 갈 때에 教師로 남겨 놓은 그의 幕下인 張六三등 12名이 教習시킨 것으로서 純粹한 明 制式의 兵器였다고 보는 것인데 棍棒은 長이 7尺의 木棒으로 그 頭部에 2寸길이가 되는 칼날이 꽂혀 있어서 敵을 찌를 수 있고 棒을 휘둘러 打撲殺을 加할 수 있는 刺打 兩用의 것이고 狼牙棒(狼牙는 牙子, 犬牙, 狼子 狼齒라고도 하는 草根.)과 鈎棒(鈎는 곱장 칼이다.)의 別이 있다.

藤牌는 藤으로 된 防牌이니 輕快하게 만들어서 步兵이 쓰도록 되어 있고 圓形으로 되어 左手에 携帶하면서 敵의 矢箭을 막고 右手로 刀劍을 써서 敵을 치는 것이었다. 그 밖에 木製에는 長方形과 圓形의 두가지가 있어서 外皮로서 獸皮를 씌웠으며 長方形은 步兵이, 圓形은 騎兵이 使用하였다.

狼筅은 가지가 붙어 있는 길이 1丈 5尺되는 竹으로 만든 一種의 槍으로서 그 끝에 칼날이 꽂혀 있어서 敵을 찌를 수 있으며 敵方(上方)으로 面하여 竹枝가 四方으로 排列되었으므로 敵의 突擊을 막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길다란 댓비(竹篲)에 槍끝을 꽂은 것과 같은 構造라 하겠으며 戚繼光의 武藝篇에서 말하기를 『狼筅은 커다란 毗竹을 썼으며 위에는 四旁附枝를 截連하여 節節이 枒杈(가장귀가 있는 것.)하여 이것을 보면 대개 2尺 가량 되고 길이가 一狼이 5,6尺이고 利刃(잘드는 칼날.)이 頂部에 있어서 長이 1尺이라.』하였다. 槍에는 長短이 區區하여 여섯가지 種類가 있었으며 長槍은 길이 一丈 以上의 것도 있었다.

鏜(鎲)鈀도 槍의 一種인데 長이 7尺6寸이고 頭部에 三鋒이 있으며 中鋒은 左右 兩鋒보다

도 길어서 敵을 찌르거나 敵의 武器를 奪取하는데 使用하였다.

弓은 竹製와 鯨鬚製의 2種이 있었으며 後者는 長이 1尺8寸이고 幅이 1寸4分으로서 당시의 重要한 兵器로 되어 있었다. 火器에는 天, 地, 玄, 黃의 4種의 銃筒과 勝字銃이 있었는데 忠武公全書의 釜山 破倭兵狀에 아뢰기를 『天地字와 將軍箭, 그리고 皮翎箭과 長片箭및 鐵丸등을 일제히 쏘며 終日토록 接戰하니 敵의 氣勢가 크게 꺽였읍니다.』하였으며 또 同書의 唐浦破倭兵狀에서는 『먼저 龜船에 命令하여 賊船中으로 突進케 하고 또 天, 地, 玄, 黃의 各樣의 銃筒을 쏘게 하니…』라 하였고, 『鐵丸과 長片箭,皮翎箭, 火箭, 그리고 天, 地字銃筒등을 風雨같이 發하여 各各 그 힘을 다하니 聲振天地라.』하였다. 또 同書 見乃梁破倭兵狀에는 『一時에 같이 나가서 地字 玄字의 各樣銃筒을 쏘았다.』고 하였다. 陸戰에서는 晋州 第1, 第2次戰鬪에 玄字銃을 많이 썼던 것을 알 수 있으니 鶴峰集卷三狀啓에서 第1次 戰鬪에 대하여 말하는 가운데 牧使 金時敏의 奮戰을 아뢰었는데 『時敏이 命令하여 玄字銃을 發射케 하여 그 工卒을 쏘아 맞히고 뒤이어 震天雷와 蒺藜砲를 쏘게 하였다.』하였고 國朝寶鑑에는 『城中에서 玄字銃을 發하여 山臺의 賊을 쏘았다.』라고 하였다. 또 春坡堂日月錄 卷九에서는 『於是에 玄字銃筒을 쏘아 賊窟을 中破하였다.』하였는데 그 밖의 많은 文獻도 이것을 是認하고 있다.

月沙集에서는 幸州山城戰鬪에 勝字銃을 使用하였다고 하였으니 『調度御史인 邊彦時(彦時는 邊以中의 字)가 그가 만든 火車 3百輛으로서 權慄軍을 도왔는데 그 制는 一車에 勝字銃 40을 넣고 連發케 하는 것으로서 銃火가 서로 끊기지 않았다.』고 하였다.(亂中雜錄과 龍城誌에서는 湖南召募使인 邊以中이라고 하였다)이러한 銃筒의 무게에 대하여서는 忠武公全書(請下納鐵公文兼賜硫黃狀.)에 『地字銃筒의 一柄之重이 많은 것은 150餘斤에 이르고 玄字는 一柄의 무게가 또한 50餘斤에 이른다.』하였다. 箭에는 위의 것 외에도 大將軍箭, 次大箭, 大岐箭이 있었는데 各銃筒이 이러한 火箭을 發射하는 것이었다.

鳥銃은 宣祖 22年 己丑(西紀1589年)에 宗義智가 가져다 바친 것이 始初인데 本戰役中에 使用한 것은 少量에 不過한 形便이었다. 鶴峯集卷三에 依하면 金時敏이 『미리 硝藥 150餘斤을 끓여서 倭制를 모방하여 鳥銃 170餘柄을 만들게 하였다.』라고 하였으며 宣廟中興誌 卷一에서는 『時敏이 군사를 거느리고 血戰하여 연달아 弓, 弩, 鳥銃과 震天雷를 쏘게 하고 또 蒺藜砲를 發射케 하였다.』라는 것이니 第1次 晋州城 戰鬪가 있던 25年 10月에 비로소 鳥銃을 使用한 것이 確實하다. 海戰에서는 李舜臣이 釜山浦海戰에서 鹵獲한 鳥銃을 使用하고 있으며 이것을 모방하여 만든 銃도 이미 使用하였고 前後 여러 차례에 걸쳐서 鹵獲한 鳥銃 30挺式을 朝廷에 바쳤으며 모방하여 만든 것을 5挺이나 바친 事實이 있다. 25年 11月 5日에 朝廷에서는 慶尙, 全羅, 忠淸의 여러 水使들에게 命令하여 戰船을 만드는 것과 同時에 鐵丸과 銃筒을 만들어 對戰準備를 갖추도록 하였고 26年부터는 本格的으로 鳥銃을 만드는 法과 火藥(焰硝)만드는 法을 敎育케 하였는데 降倭를 많이 活用하였으며 同年 8月 19日에 訓練都監을 만든 뒤로 부터는 科擧에서도 鳥銃으로 試才키로 하였다. 또 이해 12月 2日

에는 黃海兵使와 平安道와 全羅道 監司에게 命令하여 鳥銃과 三穴銃 및 鐵丸을 製造토록 하였고 28年 5月 28日에는 宮闕에 入直하는 砲手에게 三眼銃을 練習케 하였다는 바 그 制式은 分明치 않으나 三穴銃이건 三眼銃이건 모두 銃身 셋을 三列로 聯結한 것인 듯 하다. 震天雷는 飛擊震天雷라고도 하는데 宣廟寶鑑卷之八과 再造藩邦志 卷二에서 말하되『이것은 옛적에는 그 制가 없었거늘 火砲匠(軍器寺)인 李長孫이라는 사람이 新制를 만들어 내어 鐵菱과 鐵片등으로써 引火之具와 같이 一圓球에 裝置하여 넣고 大碗砲口로써 發射하면 能히 5,6百步를 날아가고 땅에 떨어져서 조금 있다가 불이 스스로 안에서 發하게 되어 賊이 가장 이것을 두려워 하였고 陷陣에 가장 좋았는데 이제 그 遺制를 알지 못하니 嘆息할 노릇이로다.』하였다. 이것으로 朝鮮軍은 2次에 걸친 晋州戰鬪와 第3次 慶州戰鬪에 使用하여 많은 效果를 보게 된 것이었다.

蒺藜砲도 또한 爆彈의 一種으로서 武備志에 있는 西瓜砲에 類似한 것이며 彈體안에 火藥과 菱鐵蒺藜(질려)를 넣고 導火線에 點火하여 敵中에 投擲하는 것이다.

蒺藜는 우리나라 말로서는「말음쇠」라는 것이고 四足을 가지고 있는 鐵錐인데 그 原名은「납가새」라는 植物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參考로 現在 陸士博物館에 保存하고 있는 各樣銃筒(砲)의 諸元을 살펴 본다면,

天字銃筒——砲身이 銅이고 內圓徑이 5寸6分, 外圓徑이 1尺3寸, 砲의 全長이 6尺6寸3分. 大將軍箭을 使用하여 射距離 1千2百步(960m).

地字銃筒——砲身이 銅이고 內圓徑이 5寸, 外圓徑이 1尺, 砲의 全長이 5尺6寸7分. 將軍箭을 使用하여 射距離 8百步(640m).

玄字銃筒——砲身이 鐵이고 內圓徑이 2寸9分, 外圓徑이 6寸9分, 砲의 全長이 4尺1分, 次大箭을 使用하여 射距離 2千餘步(1600m). (가장 멀리까지 쏠 수 있다는 것이 特色이다).

黃字銃筒——砲身이 鐵이고 內圓徑이 2寸2分, 外圓徑이 6寸, 砲의 全長이 3尺6寸4分. 皮翎箭을 使用하여 射距離 1千1百步(880m).

勝字銃筒——靑銅製로서 銃의 全長이 560粍, 口徑이 19粍이며 前部外徑이 28粍, 尾部外徑이 35粍이고 重量이 3瓩7百(4斤8兩). 壬辰 9月에 製作한 것이다.

銃筒에 使用하는 箭에도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主要 諸元은 다음과 같다.

大將軍箭——全長이 11尺 9寸이나 되고 圓徑이 5寸이며 重量이 50斤으로 가장 크고 무겁다. 鏃(촉)은 銑鐵(무쇠이니 生鐵 또는 水鐵이라고도 함.)製로서 길이가 7寸이다.

將軍箭——全長이 9尺2寸3分이며 重量이 33斤이고 鏃은 역시 銑鐵製로서 길이가 5寸이다.

次大箭——全長이 6尺3寸7分이고 重量이 7斤이오, 鏃은 鋼鐵製로서 그 길이가 5寸이다.

皮翎箭——全長이 6尺3寸이고 重量이 3斤8兩으로서 가장 가벼우며 鏃은 역시 鋼鐵製로서 그 길이가 四寸이다.

이 箭에는 方向을 維持하기 爲한 鐵羽가 세개씩 箭의 中央에 달려 있으며 箭身은 木製였다.

위에서 말한 震天雷와 그 밖의 鐵丸, 또는 團石등은 碗口로써 發射하는데 이것은 臼砲, 또는 迫擊砲의 初步型이라 할 것이고 그 種類에 別大碗口, 大碗口, 中碗口의 3種이 있으며 主要한 標準諸元은 다음과 같다.

別大碗口——重量(銅)이 1千1百斤(6百60kg), 全長이 4尺3寸(129cm), 口徑이 一尺八寸五分(54cm), 射距離는 震天雷가 3百50步(280m), 團石이 4百步(320m).

大碗口——重量이 5百28斤(316kg), 全長이 3尺1寸(約 90cm), 口徑이 1尺, 3寸1分(39cm), 射距離는 震天雷가 4百步(320m), 團石이 5百步(約 400m).

中碗口——重量이 2百90斤(174kg), 全長이 2尺7寸3分(81cm), 口徑이 1尺, 射距離는 震天雷가 3百50步(約 280m), 團石이 5百步(約 400m).

震天雷에 대하여서는 日本文獻인 征韓偉略卷之二에 第3次 慶州戰鬪(壬辰年 9月7日)에서 그 威力에서 놀랜 것을 明記하고 있으니 『我兵이 모여서 보고 있을때 별안간에 炮(彈丸)가 內部에서 自然爆發하여 소리가 天地를 흔들었으며 鐵片이 별 같이 흩어져(星碎) 맞은 者는 即斃하고 맞지 않은 者는 넘어졌다(顚仆) 我兵은 그 制를 몰랐으므로 奇異하게 여기고 놀라서 西生浦로 돌아왔다.』라고 하였으니 退却이 아니고 還이라는 文字를 妙하게 쓰고 있다. 이 構造는 銑鐵製 圓丸이고 그 諸元은 다음과 같은 것이였다.

重　量——大型 120斤, 中型 66斤, 小型 30斤.
火薬容量——5斤.

이 가운데 芰(기)形(三角 또는 四角形) 또는 菱形(三角形)의 鐵片이 火藥의 爆發과 同時에 四方으로 發射되어 人馬를 殺傷하였으며 現在의 時限式으로서 어느 時間이 지나서 爆發하는 것이었다.

이 裝置는 竹筒안에 나무 心棒을 넣는데 그 心棒에 導火索을 감는 度數의 長短으로 時間을 調節하는 式이어서 10曲이면 가장 빠르고 15曲이면 가장 늦도록 되어 있었다.

鉛鐵——이것은 오늘날의 獵銃彈丸 같은 것으로서 各種 銃筒에 넣고 發射하였으며 銑鐵製의 彈身밖에 外皮로 鉛을 씌운 것이다.

團石——돌을 球形으로 水磨하여 彈丸을 삼은 것이고 碗口로 發射하였다.

다음에는 朝鮮軍의 艦船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옛부터 韓半島는 東南西 三面이 바다로 에워 싸여 있으므로 新羅, 高麗 以來로 여러번 海寇의 侵襲을 받았으나 沿海岸의 백성들은 물에 익숙하여 배 쓰는 法을 잘하였으므로 歷代로 舟師를 運用하여 많은 勝利를 거두었으니 新羅때에 「百船將軍」의 號가 있었고 高麗때에 「戰艦都監」의 稱이 있기도 하였는데 舟師의 制度는 高麗末期에 이르러 비로소 整備를 보게 되었다. 近朝鮮에 들어서서는 太祖 6

年 丁丑에 太祖가 龍山江에 행차하여 兵船을 보았으며, 世宗때에는 己亥東征으로 李從茂등에 命하여 三南의 兵船 2百餘隻에 水軍(舟師) 1萬 7千餘名을 보내 對馬島를 치게 하여 相當한 戰果를 거두기도 하였다. 뒤이어 世祖 10年 乙酉(1465年)에 처음으로 「典艦司」를 두고 申叔舟로써 典艦司提調를 삼았는데 널리 中國, 日本, 琉球등 여러나라의 船體를 본 다음에 折衷하여 艦船을 만들었으니 이것을 「兵漕船」이라 하였다. 이 兵漕船은 大, 中, 小型으로 區分하여 만들었는데 大船은 위에다 「上粧」을 씌워서 戰攻에 쓰도록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上粧을 除去한 다음 漕運에도 쓸 수 있도록 兩用을 兼하게 하였다.

또 여러 섬에 따라서 船體가 一定하지 않은 것을 考慮하여 그 배의 高下와 船腹의 廣狹을 一定케 하도록 여러 浦口에 分送하여 그대로 같은 型式으로 만들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만든 諸道의 兵漕船을 楊花渡에 集結케 한 다음 申叔舟는 左右兩隊로 나누어서 水戰하는 모양을 하여 艦船運用의 便否를 살폈는데 世祖가 親臨하여 觀戰하였다. 뒤에 宣祖 26年 癸巳에 李舜臣으로써 慶尙, 全羅, 忠淸 三道의 統制使를 삼고 統制營을 固城에 設置하게 하니 이로써 嶺南, 湖南, 그리고 湖西의 舟師를 모두 統合指揮하게 된 것이다. 이때까지 朝鮮 水師가 가지고 있는 艦船은 다음의 몇가지로 區分할 수 있다. 이 名稱은 이 戰役이 끝난 다음에 改稱을 보게 되었는데 大猛船, 中猛船, 小猛船, 無軍小猛船의 區分은 그 크기에 따른 것이고 이 밖에 伺候船, 鮑作船등이 있었고 또 龜船이 있었다. 萬機要覽 軍政篇四에 있는 舟師條에 依하면 이 밖에 汲水船, 艍舠(도)船, 卜物船(貨物船), 報警船, 追捕船, 挾船, 瞭望船, 軍需船등의 區分이 있으나 本役 以後에 命名한 것이 많은 것으로 본다.

大猛船──水營에 屬하는 艦船의 1種으로서 3層 大船이며 四面에 窓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戰役이 끝난 뒤에 「戰船」이라고 稱하였으며 「板屋船」이라고도 하였다.

中猛船──亦是 水營에 屬하는 艦船으로 大猛船보다 작으며 이 戰役이 끝난 뒤에는 「防船」이라고 改稱하였고 防牌船이라고도 하였다.

小猛船──水營에 屬하는 艦船으로 그 形이 작았으며 이 戰役이 끝난 뒤에 「兵船」이라고 改稱하였다.

無軍小猛船──이것은 위에 말한 小猛船으로서 平素에 一定한 乘組(務)員이 없이 豫備로 待機하는 艦船이라고 본다.

伺候船──가장 小型의 補助艦으로서 敵情을 探索하고 連絡하는 것이므로 探船이라고도 하며 鮑作船등도 이 型體안에 屬할 것이다.

海鶻(골)船──이 戰役 當時에는 없었으며 英祖 16年 庚申 閏 6月 18日에 全羅左水使 田雲祥의 啓請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인데 그 制式은 船頭 쪽이 낮고 船尾가 높으며 앞은 크고 뒤는 좁아서 그 形이 鶻(비둘기의 一種 鳩鷹屬)과 같고 舷上 左右에 浮板을 設置하여 그 兩翼같이 보이게 하였으니 매우 輕快하고 빨라서 風波에 견디는 同時에 안에서는 밖을 내다 볼 수 있으나 밖에서는 안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櫓軍과 射手들이 모두 몸을 감추고 櫓를 저으면서

射擊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大猛船 以下 主要艦船의 諸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猛船(板屋船)級 — 全長이 73尺, 幅이 25尺, 高가 9尺 乘組(務)員이 218名(張字第二號),乃至 270名(張字第一號).

小猛船(兵船)級——全長이 35尺, 幅이 14尺, 高가 6尺, 乘組員이 35名.

伺候船級——全長이 21尺, 幅이 8尺 4寸, 高가 4尺, 乘組員이 5名.

乘務員(乘組員)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區分이 있었다.

射 手——弓手와 같은 것으로 활쏘는 사람.

火砲手——虎蹲砲手 같은 것이니 砲 쏘는 사람.

砲 手——銃筒등을 쏘는 사람(이것이 오늘날의 射手일 것이다.).

舵 手——배의 키를 잡는 사람.

繚碇手——繚(료)手라고도 하며 배의 닻돌을 取扱하는 사람.

船直手——배의 物品을 監視 保管하는 사람.

能櫓手——배의 櫓젓는 사람으로서 「能櫓軍」이라고도 한다.

旗 手——巡令手라고도 하며 大將의 傳令과 護衛에 任하고 巡視旗와 令旗등을 捧持하는 사람이다.

羅 卒——軍牢 使令등과 같은 사람이다.

舞 手——大猛船(板屋船)과 같은 큰 배에만 타는 사람으로 出陣, 還陣등 儀式때에 춤추는 사람이라고 보며 「舞上」이라고도 한 듯 하다.

伺挾船 또는 挾船——伺候船, 探船과 마찬가지로 같은 種類의 배라고 보며 鮑作船도 이와 마찬가지로 斥候用으로 쓰는 배라고 본다.

梭(사)船——위에서 말한 小型艦船들은 대개 그 모양이 옛날 民間에서 紡織手工業할 때 쓰던 織具인 「북(梭)」과 같으므로 이러한 배를 總括的으로 梭船이라 하는 것으로 보며 오늘날의 補助艦과 같은 뜻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戰役이 끝난 다음부터는 艦船種類를 概括하여 다음의 6種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1) 戰 船——大猛船, 板屋船과 同一.

(2) 防 船——中猛船과 同一하며 防牌船이라고도 하고 海鶻船이 이에 屬한다.

(3) 兵 船——小猛船과 同一.

(4) 伺候船——挾船, 伺挾船, 探船등이 이에 屬한다.

(5) 梭 船 — 모든 小型船舶의 總稱으로 鮑作船이 이에 屬한다.

(6) 龜 船

여기에서 龜船을 말하기 前에 먼저 中船級에 屬하는 防船과 海鶻船과의 差異를 살펴 보려는 바 防船은 乘組員이 55名이고 海鶻船은 56名으로 大差 없으나 그 用途가 多少 다르다

고 보는 것이다. 防船에는 火砲를 싣고 火砲手가 있으나 海鶻船에는 火砲가 없는 대신으로 射手(弓手)와 砲手(銃筒의 射手.)가 더욱 많이 乘務하고 있다.

防　船——射手 6名, 砲手 6名.

海鶻船——射手 10名, 砲手 10名이니 5對 3의 比例임으로 海鶻船은 砲(佛郎機砲, 霹靂砲, 子母砲등.)를 싣지 않아서 輕快하게 敵艦隊를 遠方에서 邀擊하거나 또는 急히 追擊하는데 有效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龜船——朝鮮 戰史上 有名한 이 龜船은 李舜臣이 完成한 것인데 「創智로써 大船을 만들어 그 形狀이 伏龜와 같으므로 名曰 龜船이라」고 많은 文獻들이 말하고 있다. 여기 대해서는 硏究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詳論하지 않을 것이로되 萬機要覽을 비롯하여 國朝寶鑑과 宣廟中興誌 및 李忠武公行狀등에서 말하기를 『創作한 戰船은 그 크기가 板屋船과 같으며 위에 板으로써 덮였고 板위에는 十字形의 細路가 있어서 사람이 그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모두 刀錐로 꽂았으므로 四方 모두가 발 딛을 곳(着足之處)이 없게 하였다. 앞에는 龍의 머리를 만들어 그 입이 銃穴이 되었으며 뒤는 거북의 꼬리가 되어 그 꼬리 밑에도 銃穴이 있었고 左右에 各各 六穴이 있었는바 대개 그 모양이 거북의 모양과 같으므로 龜船이라고 이름하였다. 敵과 만나서 싸우게 되면 編茅로써 錐刀위에 덮은 다음 先鋒을 삼으니 賊이 登船하여 陷滅시키려 하면 刀錐에 쓰러지게 되고 敵이 掩襲하여 包圍하려고 하면 左右前後에서 一時에 銃을 發하여 賊船이 비록 바다를 덮어서 雲集한다 할지라도 이 배가 出入하고 橫行하기만 하면 向하는 곳 마다 모든 敵이 쓰러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前後大小戰에 이것으로써 항상 이겼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海東繹史卷二十九 舟車條에 李忠武公全書圖說(原文第145號)을 引用한 바 있으니 이는 統制營 龜船이라 하겠으며 全羅左水營 龜船은 尺廣과 長廣이 위의 것과 大略 同一하나 『다만 龜頭밑에 또 鬼頭가 새겨져 있으며 覆板위에 龜紋을 그려서 左右에 各各 一門이 있으며 龜頭 밑에 砲(石駁)穴이 둘이 있고 舷板左右에 砲穴이 各各 하나씩이 있으며 舷欄左右에 砲穴이 各各 열개가 있고 覆板 左右에 砲穴이 各各 여섯개가 있으며 左右에 櫓가 各各 여덟개가 있다.』라고 同書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다. 이 당시의 軍船數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全羅右水營所屬——戰船 54隻, 伺候船 54隻.

全羅左水營所屬——同 42隻,　　同　52隻.

忠淸水使所屬——同 60隻.

總數로서는 戰船이 約 160隻, 伺候船이 百餘隻이었으며 慶尙左右水營所屬船은 開戰 初頭에 모조리 스스로 없새는 바 되어 右水使 元均이 거느리는 戰船 數隻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李舜臣은 癸巳年 12月까지로서 다음과 같이 合計 35隻의 戰船을 새로 만들었으니 당시의 最强勢力이 約 3百隻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順天—— 10隻, 興陽(지금의 高興.)——10隻, 光陽——4隻, 寶城——8隻, 樂安——3隻.

二, 日本軍의 兵器와 艦船

日本軍의 兵器는 옛부터 傳하여 내려오던 遠戰用의 弓箭과 接戰用의 刀劍, 槍과, 武具로 甲冑등을 들 수 있는데 戰國時代의 後半期 부터는 新式兵器의 出現으로 兵制와 用兵上에 커다란 變革을 가져 왔으며 特히 鐵砲(鳥銃)의 威力이 弓箭을 凌駕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急激한 普及을 보게 되어 一躍 兵器의 首位的 地位를 차지하게 되었다. 刀劍은 옛적에는 接戰上 重要한 武器였는데 戰場터에서의 銃의 使用이 盛行함에 따라 다만 護身의 役割만을 하게 되었다. 刀는 單刃으로 한 쪽에만 칼날이 있으나 劍은 兩刃으로 兩쪽에 모두 칼날이 있는 것을 말한다. 刀는 그 長短에 따라서 長刀를 太刀(TACHI)라 하고 小刀를 刀(KATANA)라 하였으며 實戰用의 刀는 그 길이가 처음에는 1尺 3寸에 不過하였던 것이 戰國時代부터 더욱 길게 되어 室町末期에는 4尺 8寸에 達하는 것도 있게 되었다. 小刀는 刺刀(SASUGA), 鎧通(YOROI-DŌSHI), 首搔刀(KUBIGAKI-KATANA), 合口(AIGUCHI), 懷刀(FUTOKORO-KATANA)라고도 하고, 室町時代以後에는 小刀에도 鍔(TSUBA)이라 하여 손덮개 같은 防護具를 씌워서 脇差(WAKIZASHI)라 하였고 大刀를 다만 刀라고 하였다. 小刀는 그 길이가 6,7寸이 보통이었다.

刀의 形態에는 平造(HIRA-TSUKURI), 切刃造(SEPPA-TSUKURI), 小鳥造(KOTORI-TSUKURI), 鎭造(CHIN-TSUKURI), 菖蒲造(SHŌBU-TSUKURI), 片切刃造(KATA-SEPPA-TSUKURI), 冠落造(KWANRAKU-TSUKURI), OSORAKU 造, 兩刃造(RYŌBA-TSUKURI)등의 區分이 있었고 刀匠에 따라 山城(YAMASHIRO), 大和(YAMATO), 備前(BIZEN), 相州(SŌSYŪ), 美濃(MINO)의 五傳(五家流)이 있었다. 劍은 刀에 比하여 많지 않았으며 全長이 60糎, 劍身이 45糎 程度의 것이었다. 이 당시에는 武士들은 大小刀를 같이 차고 있었는데 日本軍의 刀劍에 대하여 柳成龍은 懲毖錄에서 다음과 같이 칭찬하고 있다.

『이 때에 提督(李如松)이 거느리는 군사는 모두 北騎로서 火器가 없고 다만 短劍을 가졌는데 鈍劣하였다. 賊의 것은 步兵이 쓰는데 칼날이 모두 3,4尺이고 精利함이 比할 데 없어서 이것을 가지고 突擊하고 左右로 揮擊하면 人馬가 모두 쓰러지고 敢히 그 鋒을 당하는 者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槍은 鎗, 또는 鑓(日本의 俗字.)이라고 하였고 矛(HOKO)鋒의 進化된 것으로서 南北朝時代부터 만들게 되었다. 槍身(창끝)은 그 形態에 따라서 素槍(SUYARI), 鎌槍(KAMAYARI), 片槍(KATARI), 兩鎌(RYŌKAMA), 十文字(ZŪMONZI), 山形(YAMAGATA), 月劍(GWAK-KEN), 毘沙門形(BISHAMON-GATA)등의 區分이 있고 그 길이는 6寸 5分에서 7寸이 보통이고 그보다 더 긴 것도 있었으나 定尺은 없었다. 槍柄(창자루)은 9尺 乃至 1丈 8尺인데 2間에서 5寸이 짧은 것이 標準型이었다. 자루는 처음에는 나무만 으로(木地) 하였으나 黑漆柄, 靑貝柄, 玳瑁[(대모)거북의 一種]柄, 朱柄등도 있었고 朱柄은 武功 있는 사람에게만 使用을 許可하였

다. 槍身의 匠工에는 刀工의 兼業도 있었으나 寶藏院, 無邊, 富田, 神道, 建孝, 一旨등 여러 家流가 있었다.

本戰役 當時의 下級 武士級(足輕 ASHIGARU)의 槍은 長柄(NAGAE)이라 하고 上級 武士級의 것을 持槍(MOCHIYARI)이라 하여 區分하기도 하였는데 그 槍柄의 長短은 各 武家에 따라 一定하지 않았으며 그 數量은 어느 兵器보다도 가장 많이 保有하고 있어서 弓과 銃 二隊를 合친 量보다도 더 많았다.(數量一覽表의 一例는 附表第52의 其4, 其5와 같다.)

弓箭의 弓은 幹과 弦의 二部로 되어 있으며 幹의 길이는 7尺 5寸을 基準으로 하고 弦을 맺는데 두 사람의 힘이 必要한 것을 二人張(NININ-BARI)등이라 하였고 幹材에 따라서 梓弓(AZUSA-YUMI), 槻弓(TSUKI-YUMI), 檀弓(MA-YUMI), 柘弓(ZUMI-YUMI), 丸木弓(MARUKI-YUMI), 櫨弓(HAZI-YUMI), 桑弓(KUWA-YUMI)의 區別이 있었다. 또 木과 竹을 合하여 만든 것을 繼木弓(MAMAKI-YUMI), 伏竹弓(HUSHIDAKE-YUMI)이라 하였고 實戰用으로서는 伏竹을 많이 쓰고 실을 감은 다음 칠하거나 또는 藤나무로 맺는 것이었는데 그 製法에 따라서 重藤, 二所藤, 本重藤, 村重藤, 笛藤, 側白木, 塗籠藤등으로 區分하였다. 弓幹의 直徑은 6分에서 1寸 程度였다.

箭은 矢라고도 하며 矢幹(箆, 또는 YAGARA)과 簇(矢根), 羽의 三部分으로 되어 있는데 矢幹은 竹製로서 12束을 基準으로 하였다(束은 손으로 쥐는 길이,). 긴 것은 15束에서 18束까지 있었고 그 보다도 남는 것은 伏이라 하여 2伏 또는 3伏이라 하였다(伏은 손가락의 幅.). 鏃에는 石, 銅, 骨, 角, 木, 鐵등의 種類가 있고 그 形에는 尖矢, 雁又(KARIMATA), 腸抉(WATAKURI), 蟇目(HIKIME), 神頭(JINDŌ), 火箭, 舟矢(HUNEYA), 鳴鏑矢(NARIKABURAYA), 引目(HIKIME)(YOTSUME)등의 區分이 있었다.

羽는 鷲, 鷹의 羽을 가장 좋게 치고 鵠, 鷺, 鴨등의 羽를 使用하였고 보통 三片을 基準으로 하여 三立(MITSU-TATE)이라 하였는데 一般的으로 矢는 그 用途에 따라 野矢(NOYA), 征矢(SOYA), 的矢(MATOYA)의 3種으로 區分하였다. 戰陣에서는 每人當 24 乃至 36箭을 携帶하였고 射程은 百米 以上에 達하는 것도 있었으나 有効距離는 2,30米 前後였으므로 銃砲를 가지게 되면서 부터 그 用途가 갑자기 좁아졌다 할지라도 鐵砲(鳥銃)의 彈丸을 裝塡하는데 時間이 걸렸으므로 그 새를 메꾸기 위하여 使用되었던 것이다. 本戰役에 있어서는(附表第52, 其1, 其2) 弓箭은 銃砲의 約 半數를 占하였으나 後者의 實用的 價値가 增大됨에 따라 丁酉再侵때에는 弓箭을 銃砲數의 約 4分之 1로 減少케 하였다.(附表第52 其5) 附表第 52의 3에는 弓箭數가 없는데 이것은 弓組의 足輕을 別途로 保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다.

鐵砲(TEPPŌ)는 朝鮮에서의 鳥銃인데 日本에는 中宗 25年 庚寅(日本의 享祿3年, 1530年)에 南蠻船이 豐後府內에 와서 大友家에 火器를 보내고 이어서 同 38年 癸卯(日本의 天文12年, 1543年)에 葡萄牙의 배가 薩摩의 種子島(鹿兒島縣 熊毛郡)에 와서 鐵砲를 보냈으므로 島主인 種子島 時堯(TANEGASHIMA-TOKITARI)는 그 2挺을 받아 火藥調合法, 銃身製造法과 發射術을 배웠는데 이로써 이 鐵

砲를 種子島銃이라고도 하니 口徑이 18粍로서 鉛製의 球形彈丸을 使用하였는데 그 重量은 10匁이었고 1名 士筒(SAMURAI-ZUTSU)이라 하였다.

口徑이 14粍로서 3匁 5分의 彈丸을 쓰는 것을 足輕鐵砲(ASHIGARU-TEPPŌ)라 하였으며 또 小筒(KOZUTSU)이라는 것은 20匁 以下 彈丸을 쓰는 것, 中筒(NAKAZUTSU)은 30匁 內外의 彈丸을, 그리고 大筒(ŌZUTSU)은 百匁 內外의 彈丸을 使用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모두 口裝滑腔式(銃口에서 火藥을 넣고 腔綫이 없는 것.)이며 火繩으로써 點火하는 것이었다. 火藥은 黑色有煙藥인데 焰硝라 하였고 硫黃, 硝石, 木炭粉의 合劑로서 戰時에는 各自가 包袋가운데 넣어 가지고 다녔다. 重量이 가장 적은 2匁半의 銃은 狙擊用이었고 30匁 以上의 것은 攻城用 또는 城塞 守備用이었다. 銃의 射程은 百乃至 2百米였으며 野戰에 있어서는 敵前 50米까지 接近한 다음에 쏘는 것을 例로 하였다. 李舜臣은 忠武公全書에서 日本軍의 鳥銃에 대하여 評하기를 『倭人의 鳥銃은 좋은 點이 많은데 그 妙理를 시험하여 본 즉 體(銃身)가 長하므로 그 穴(銃의 彈道)을 깊이 팔 수 있고 穴이 깊은 까닭으로 砲氣가 더욱 猛烈하여 여기에 스치는(觸) 者는 반드시 부서지는데 我國의 勝字銃筒과 雙穴銃등은 銃筒의 體가 짧고 穴이 얕은 까닭으로 그 猛烈함이 倭의 銃筒만 못하고 그 소리가 雄壯하지도 못하다.』하였다.

砲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말한 大筒을 말하니 彈量이 百匁 以上의 것으로 3百匁에 達하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시 明 군사들이 쓰던 佛郞機砲에 比하면 그 性能이 매우 劣勢함을 免치 못하였다.

위에 말한 兵器 以外의 戰用裝具로서는 甲胄, 旗幟類와 攻城用 資材가 있는데 여기에서 綜合하여 살펴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甲胄를 鎧(YOROI), 兜(KABUTO)라 하였고 이것을 合쳐서 具足(GUSOKU)이라고도 稱하였으며 또 當世具足(TŌSEI-GUSOKU)이라는 略式 裝具도 있었다. 甲은 갑옷인데 袖(SODE), 胴(DŌ), 草摺(KUSAZURI)의 三部分으로 되어 있고 漆로 한 革片, 또는 鋼板을 連綴한 것이고 胄는 투구인데 鉢(HACHI), 錏(SHIKORO), 眉庇(MABISASHI)의 三部分으로 되어 있었다. 將領들은 여러가지 前立物이라는 것을 붙이기도 하였으며 鉢은 鋼鐵製가 보통이었다. 錏은 鞠 또는 錣라고도 하였으며 鉢밑에 달려서 頸部를 保護하는 것으로 그 枚數에 따라서 5枚兜, 또는 3枚兜라 하였다. 처음에는 威容을 壯大하게 만들어 裝飾도 加하였으나 戰國時代 以後부터는 銃을 使用하게 되어 鋼鐵製의 實用爲主의 氣風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本戰役에 있어서는 일부러 甲胄를 華麗하게 만들어 紅黑鐵甲 各色鐵頭, 金冠, 羽衣, 羽箒등을 併用한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말한 當世具足이라는 것은 實用을 爲主로 하여 革製인 小札(KOZANE) 대신으로 鐵板에 蝶番(CHŌTSUGAI)이라 하여 고리를 달고 胴丸式(모양이 竹筒같은 것)으로 만든 것으로 桶側(OKEGAWA), 雪下(SEKKA), 仙臺(SENDAI) 最上(MOGAMI) 등 여러가지 區分이 있었으나 大鎧에 比하여 輕快하고 簡略하여 步卒이나 그 밖에 輕裝을 主로 하는 경우에 많이 쓰게 되었던 것이다. 將領들의 完全한 軍裝에는 「大鎧」를

使用하고, 腹部만을 가리케 하는 略裝에는 「腹卷」 또는 「腹當」등을 使用하였으며 그 色彩, 強度, 輕重, 大小가 區區各各이었다.

旗幟를 昇(NOBORI)이라고도 하였는데 旗는 一面만을 竿(깃대)에 붙이지만 幟는 一面과 頂上部를 同時에 붙이는 것이고 보통의 경우에는 幅이 좁고 기장이 긴 것으로 各將領 所屬 領主들의 家紋을 表示한 것이며 그 色彩, 大小가 또한 區區하였다. 이것은 部隊區分을 表示하는 것이었고 主將 位置를 標하는 것은 「馬驗」(UMAZIRUSHI)이라 하였다. 또 敵과 我軍과의 識別을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鎧(갑옷)에 있는 受筒(UKEZUTSU)에 조그마한 旗. 또는 그 밖의 標識物을 꽂기도 하였으니 이것을 「指物」(SASHIMONŌ)이라 하였다.

위에서 말한 馬驗은 馬印 또는 馬標, 馬表등이라고도 하였는 바 將領의 高下에 따라 區分이 있었고 大將領은 大馬驗이라 하고 侍大將(SAMURAITAISHO)用은 小馬驗이라 하였으며 家紋이 아닌 것을 各自가 擇하여 使用한 것이었으니 例컨대 豐臣秀吉은 千成(SEN-NARI), 표주박(瓢簞)을, 또 그리고 德川家康은 七本骨의 부채(扇)를 장대 위에 附着하여 標示하였던 것이다.

楯(TATE)은 防牌의 一種으로 盾, 또는 干이라고도 하였으나 크기가 防牌보다 더 크고 攻擊 보다도 防禦用이라 할 것이어서 長이 4尺, 幅이 2,3尺으로 楠(녹나무)의 厚板 2枚를 左右로 合板하여 個人携帶에는 不利한 것이었다. 表面에는 家紋등을 그리고 裏面에는 支柱를 만들어 地面 위에 세워 두는 것이었다. 朝鮮軍이나 東征軍의 防牌같이 한 손에 쥐고 또 한 손에 刀劍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고 手楯(DEDATE)이라 하여 幅이 더욱 좁고 길이가 더욱 긴 것을 손에 들고 完全히 遮蔽하면서 進擊하는 것도 있기는 하였지만 本戰役에는 나타나지 않은 듯 하다.

紋幕은 陣營의 周圍와 將領 居所등에 치는 길다란 幕으로서 楯과 倂用하여 敵矢를 막는 것과 部隊를 標示하고 그 威容을 보이려는 뜻으로 家紋등을 그려 붙인 것이니 本戰役에도 많이 利用하고 있었다. 龜甲車라는 攻城具가 있어서 第2次 晋州城 攻擊때에 加藤淸正과 黑田長政의 隊中에서 使用하였는 바 安邦俊은 隱峰野史別錄에서 말하기를 『賊은 또 大櫃를 만들어서 獸皮로 씌워 놓은 다음에 負戴하고 와서 城을 破壞하였다.』하였는데 그 밖의 많은 文獻이 이것을 是認하고 있다.

日本軍은 이 밖에 竹束, 土豚등을 利用하여 正攻法으로 我軍守城에 近接하였는데 이것을 仕寄(SHIYORI)라 하였으며 또 城壁에 近接하여 올라 올 때에 「結梯」라는 것을 使用하였다. 日本軍이 宣祖 26年 7月頃에 各城寨에 保有하고 있던 兵器, 彈藥의 槪況은 附表 第53과 같다.

日本軍의 甲冑등에 대하여 李舜臣은 다음과 같이 忠武公全書 玉浦破倭兵狀에서 말하고 있다. 『대저 倭人들은 紅黑의 鐵甲을 입고 各色의 鐵투구를 쓰고 있으며 口角(입언저리)에는 말 갈기(鬣)가 縱橫으로 뻗쳐 있어서 마치 鐵광대(鐵옷과 鐵모자를 쓴 俳優.)같았으며 金冠과 金빛 나는 깃과 金

揷, 羽衣, 羽箒와 螺角등이 모두 奇形異狀하여 매우 사치하기도 하며 鬼神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여 보는 사람으로서 놀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였으며 姜沆은 倭情錄에서 말하기를 『將倭로부터 奴倭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長短의 두 劍을 차고 있어서 坐臥에도 풀어 놓지 않고 槍戟과 甲冑, 그리고 旗幟와 帳幕 및 舟楫(배와 노)에 아르기까지 모두 簡便케 하였는데 그 中에서 華侈한 것은 虎皮와 鷄尾로써 戰服을 만들고 또 金銀으로써 假面을 만들어 馬頭 또는 人面을 나타내게 하였는 바 그것을 매우 怪常스럽게 한 것은 그것으로써 보는 사람의 눈을 어지럽게(眩燿)하려는 것이리라. 壬辰年에 潰退한 우리 군사들이 모두 말하기를 虎豹와 도깨비〔魍魎(망량)〕들이 一時에 모두 일어나서 정신을 잃고 魂이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였다.』하였다.

다음으로는 日本의 艦船에 대하여 살펴 보려는 바 당시의 艦船에는 安宅(ATAKA), 關船(SEKIBUNE), 小早(KOBAYA) 등의 區分이 있었는데 安宅船(日本丸이라고도 한다.)은 가장 큰 배로서 가장 堅牢하여 樓가 있고 兩舷에 艣 80挺 以上이 있어서 海戰의 主力艦的 役割을 하였으며 關船은 艣 80以下 40挺 以上을 쓰는 中型艦이고 偵察連絡등에 專任하면서 때로는 戰鬪에도 썼고 小早는 가장 小型으로 艣 40以下를 쓰면서 偵察連絡과 海戰補助艦으로 使用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龍骨을 쓰지 않았으므로 朝鮮 艦船에 比하여 본다면 매우 弱하여 海上接戰에서 서로 衝突하게 된다면 곧 破船되는 것이 많았다는 것이고 李睟光이 芝峰類說 卷三 兵政部의 寇賊條에서 말하기를 『敵의 船隻은 매우 不便하여 廣面尖底로 動搖하므로 航行이 힘들고 攻擊을 받기 쉬우니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을 모두 보고 알고 있었으매 이 말이 옳다고 是認하였다. 壬辰 뒤에 우리 舟師가 能히 적은 數의 兵力을 使用하여 多數의 敵을 물리쳤으며 向하는 곳 마다 모두 이긴 것은 모두 이러한 까닭이라.』하였으니 日本 水軍의 艦船構造의 虛弱點을 指摘한 것이라 하겠다. 豊臣秀吉은 水軍將인 九鬼嘉隆의 設計로 된 安宅船(日本丸)의 造船을 다음과 같이 壬辰年 秋期 以後에 着手할 것을 命令하였다는 것이다.

九鬼 嘉隆——10隻　　　　前田 利家——5隻

그 밖에도 德川家康와 毛利 輝元등에게도 建造시킨 것으로 思料되나 그 竣工內容은 詳細하게 알 수 없다. 九鬼의 設計에 依한 諸元은 다음과 같다.

全長——111尺 5寸(約19間, 約33米)　　　　幅——39尺(6間半, 約12米)
備砲——3門　　　　乘務員(乘組員)——180名(指揮官包含)

그리고 日本船舶이 덮어놓고 脆弱하다고 斷定할 수 없으니 倭寇는 이 배를 타고 中國沿岸을 席捲하였으며 統制使 元均의 主力艦船이 覆滅되었던 事實을 指摘하여야 할 것이다.

三, 東征軍의 兵器와 艦船

步軍의 兵器는 銃手와 殺手에 따라서 그 種類가 달랐는데 步軍 一營의 人員 2千 6百 99

名中에 兵士는 2千百60名이 있었고 그 中에 銃手와 殺手가 各各 80名씩 同數가 있었으며 銃手는 藤牌, 狼筅, 長槍의 各手(長槍手는 弓箭手를 兼한다.)가 있고 钂鈀手(火箭手를 兼한다.), 大棒手(弓箭手를 兼한다.)의 5種으로 各各 2百 16名, 計 千80名으로 構成되었다. 馬軍의 兵器도 步軍과 마찬가지였고 馬軍一營中의 兵士數도 步軍과 같이 2千百87名이었는데 銃手, 快鎗手, 钂鈀手, 鎗棍手, 大棒手가 各各 4百 32名씩으로 되어 있으니 이러한 것으로 步軍과 馬軍의 保有兵器의 數量을 알 수 있을 것이다. 兵器의 種類를 大別하면 弓弩, 刀劍, 戈戟 및 火器로 區分할 수 있고 弩는 特異한 것으로서 數名의 힘으로 쏘는 機弓이었으며 城寨를 지킬 때에 쓰고 野戰에서 使用할 수 없었다. 刀劍은 大小輕重의 여러가지 種類가 있어서 片刃을 刀라 하였는데 刀에는 偃月刀, 眉尖刀 등의 特異한 것도 있었다. 그 밖에 钂鈀, 狼筅, 棍棒, 牌등은 朝鮮軍의 制와 大同小異한 것이었다.

火器에는 그 形式과 種類가 많아서 數10種에 達하였는데 그 大部分은 火箭과 拋彈의 類이고 砲에는 佛郞機砲, 大將軍砲, 子母砲, 威遠砲, 連珠砲, 虎蹲砲등 數種이 있었으며 銃에는 佛郞機銃이 있었고 鳥銃은 本役 以後에 비로소 만들어서 一名 鳥嘴(취)銃이라 하였다. 鳥銃에 대하여 武備志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火器는 中國에는 원래 傳한 것이 없었는데 倭夷로부터 비로소 얻게 된 것이다. 이것은 各色 火器와는 같지 않아서 그 銳利한 것이 能히 甲(갑옷)을 뚫으며 쏘면 能히 命中하나니 이같이 重裝한 갑옷이라도 뚫을 수 있는 銳利性은 그 銃身(腹)이 길다는데 있는 것이다. 銃身이 길다면 火藥의 威力(火氣)이 새지 않고 쏘아 보낼 때에 그 힘이 強하기 때문이다.』라 하였으니 鳥銃만은 日本軍이 앞서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火砲는 明에서 가장 빨리 발달을 보여 日本보다 훨씬 앞서 있었는데 第3世 成祖의 永樂年間에 交趾를 쳐서 神機鎗砲를 얻은 다음에 神機營을 만들고 이 砲를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그 뒤에 150年을 지낸 正德 12年(1517年)에 佛郞機國(당시의 歐羅巴 總稱.)의 商船이 廣東에 入港하여 비로소 佛郞機砲를 傳하였다. 이 砲 가운데서 가장 巨大한 것을 大將軍砲라 하였는데 長이 8乃至 9尺이고 重量이 1千斤이나 되었고 能히 石城을 뚫고 數10里까지 震動케 하였는 바 主로 海船城寨에 쓰여지고 野戰에서는 使用하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이러한 佛郞機砲는 一號에서 五號까지의 區別이 있었는데 그 길이와 무게는 다음과 같다.

一號——長 8,9尺 鉛彈重量 1斤　　二號——長 6,7尺 鉛彈重量 10兩
三號——長 4,5尺 同 5兩　　四號——長 2,3尺 同 3兩
五號——長 1尺 同 3錢

一, 二, 三號는 艦船과 城寨에 使用하고 四號 以下는 野戰에 使用하였던 모양이다. 霹靂砲는 飛雲霹靂砲라고도 하였는데 臼砲의 一種으로서 散彈을 쏘았고 威遠砲는 改造한 佛郞機砲로서 長이 2尺 8寸, 重量이 120斤, 鉛彈重量이 3斤 6兩이며 每 1門에 騾馬 1匹, 砲手 3名이 必要하였고 가장 큰 것은 2百斤이나 되었다.

虎蹲砲는 長이 2尺, 重量이 36斤이고 砲口徑이 1寸 3分(39粍)이며 一時에 散彈 百發을 쏠 수 있었으니 提督 李如松이 平壤攻城에 썼으며 統制使 李舜臣이 露梁海戰에 썼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佛郎機銃은 萬勝佛郎機銃이라고도 하였는데 子母砲라고 月沙集에서 말한 것이 이것인 듯 하다. 이것은 1母銃의 內部에 3個의 子銃이 있어서 3名으로써 1銃을 操作하였으며 鉛彈의 重量이 3錢이었다. 快鎗이라는 것은 神火鏢鎗이라고도 하여 火鎗의 一種으로 柄部의 長이 6尺餘이고 頭部에 1尺의 槍刃이 있으며 刃兩側에 噴筒 2個가 있어서 火器와 長槍兼用으로 馬軍이 가지고 다니면서 使用하였다. 盔(회)는 兜鍪(두무)라고도 하며 首鎧(개)이니 「투구」를 말하며 日本에서 말하는 冑와 같은 것으로서 鋼鐵製였고 그 制式에는 6種이 있었다. 그 1種에 藤壟牟라는 것이 있으니 이것은 藤製의 軍帽같은 것이라 하겠다. 甲은 「갑옷」이니 冑와 合하여 俗稱 「갑주투구」라 하였으며 鎧와 同一한 것으로 披膊, 臂縛등으로 區分되었고 鋼片으로 만들어서 紅色毛氈을 使用하는 등 各將領에 따라 여러 色을 썼다고 본다. 佛郎機砲의 起源에 대하여 武備志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顧應祥이 말하기를 佛郎機는 國名이고 銃名이 아니다. 正德 丁丑(武宗12年, 1517年)에 予가 廣東僉使로 있으면서 海道에 대한 任務를 맡고 있을 때에 큰 海船 2隻이 廣城의 懷遠驛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銃은 鐵로써 만들었고 長이 5,6尺으로 배(腹)가 크고 목(頸)이 길었으며 배에 長孔이 있어서 小銃 5個로써 나란히 재어 넣고(輪流) 火藥을 준비하여 그 腹中에 裝塡(安入)하여 쏘는 것인데 銃 밖에는 나무로 싸고 鐵로 조여서 破裂을 防止하는 것이였다.』하였다.

또 明史兵志에서는 말하기를 『正德末에 그 나라 배가 廣東땅 白沙에 오게 되자 巡檢인 何儒라는 사람이 그 製法을 알아서 銅으로써 만들었으니 長이 5,6尺이며 큰 것은 무게가 千餘斤이 되고 작은 것은 150斤이 되었다.』하였고 萬曆野獲編에서는 더욱 자세하게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嘉靖 12年(世宗朝, 西紀 1533年)에 이르러 廣東巡檢인 何儒가 佛郎機國의 投降人을 불러 오게 하고 蜈蚣船과 銃을 만드는 法을 얻게 되니 그 投降人의 功을 論하여 上元縣의 主簿로 올리게 하고 操江衙門에 命令하여 그 製造를 감독케 한 다음 江防을 굳게 하였는데 3年 만에 모두 完成을 告하였으므로 다시 宛平縣丞으로 올리게 하였는 바 中國에서 佛郎機가 盛傳된 것은 이로부터 시작된 것이다.』하였다.

위에서 말한 大將軍砲에 대하여 明史 兵志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嘉靖 8年(世宗때 1529年)에 右都御史인 汪鋐의 말에 따라서 佛郎機礮(砲)를 만들어서 大將軍이라 命名하여 여러 邊鎭에 配置케 하였다.』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兵仗局과 軍器局을 두고 火砲를 만들게 하였는데 將軍이라고 命名한 것에는 그 크기에 따라 5種이 있었고 또 奪門將軍에 大小 2種이 있었으며 神機礮, 襄陽砲, 連珠佛郎機礮가 있었다.』하였다.

이와 비슷한 內容으로서 武備志에 있는 것을 살펴 본다면 『誠齋 汪鋐이 兵部尙書가 되자 皇帝에게 請하여 千餘의 佛郎機砲를 만들게 한 다음 三邊에 나누어서 配置하였는데 그 가운데의 1種은 木架가 있어서 高低를 任意대로 할 수 있고 또 左右動을 할 수 있었다.』하였고

또 그 種類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한 것 밖에도 百子連珠砲, 迅雷砲등이 있다고 하였다.

李如松의 第3次 平壤城 攻擊에 있어서의 火器를 살펴 본다면 再造藩邦志 卷二에서 말하기를 『初7日夜에 火箭을 一時에 쏘게 하니 光明이 낮과 같아서 賊이 犯하지 못하였다.』하였으며 春坡堂日月錄 卷之九에서는 『大砲로써 一齊히 쏘게 하니 그 소리가 雷震과 같으며 烟焰이 漲天하여 數10里에 뻗혔더라.』, 또는 『大砲를 쏘아 門樓를 破하였다.』하였고 宣廟寶鑑 卷之八에서는 『萬砲가 齊發하여 聲震天地』라 하고 또는 『大砲로써 門板을 撞碎하였다.』하고 百拙齋遺稿 卷之二에서는 『大砲로써 普通門을 撞破하였다.』하여 모두 明 東征軍의 大砲 威力이 컸다는 것을 認定하고 있다. 또 兩朝平攘錄 卷之四에서는 『그 西南北의 三門밖을 에워싸고 鐵蒺藜를 數重으로 펴놓고 虎蹲砲등의 砲를 몰래 設置하여 놓은 다음 군사를 세워서 지키게 하였으며 毒火箭과 神火箭등 여러 火箭을 城안에 쏘니 毒烟이 하늘을 덮어 倭衆들이 昏眩하여 넘어져서 口吐하였다.』는 것이다. 火箭의 威力에 대하여서는 宣廟中興誌 卷三에 『火箭이 하늘을 누비기를 짠 것 같이(如織)하여 城中에서는 조금 있다가 烟焰이 漲天하고 林木이 皆燒라.』하였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東征軍은 小銃類보다도 火砲類에 있어서 당시의 日本軍보다도 훨씬 앞서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明의 艦船에 대하여 그 大要만을 대충 살펴 보려는 바 本文에서 이미 硏究한대로 東征軍의 水軍은 壬辰戰役에는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海上으로 軍糧을 보내 왔을 뿐이었는데 丁酉再侵때에 비로소 出動을 보게 된 것이고 廣東, 浙江, 直隷의 三省에서 水軍 1萬 3千이 艦船 5百餘隻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 艦船의 種類에 대하여서는 宣祖 26年 6月에 劉綎이 淸正에게 보내는 書信(文書第13號)에 依한다면 鳥尾福船, 樓船, 栢檣, 龍檣등이 있었는바 또 羅列하기를 沙船, 艙船, 銅鮫小艄, 海舠(드)같은 작은 것도 있었고 八喇唬, 八槳船같은 名稱도 내세우고 있으나 그 자세한 制式은 알 수가 없다. 또 再造藩邦志 卷五에 依하면 本役이 끝난 宣祖 33年 庚子(1600年) 11月에 經略 邢玠는 神宗皇帝에게 「禦倭圖說」이라는 書册을 바쳤다는 바 그 中에는 위에서 말한 것 밖에도 虎船, 茶船, 四劄(찬)船과 二劄船등의 名稱이 나타나지만 역시 그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다.

第5節 築 城

要 旨

本役 당시의 築城은 戰鬪와 不可分의 關係가 있었고 戰史取扱上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交戰 3國의 築城方式에 대한 根本思考까지를 다루어 보기로 하였으므로 얼핏 보기에는 必要以上 세밀하게 말하는 듯도 할 것이지만 戰術과 결합시켜서 考究할 問題도 있으므로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日本軍은 作戰地帶안에서 그들의 獨特한 築城을 직접 마련하였지만 東征軍은 모두 朝鮮의 邑城을 利用하였고 또 그러한 着想도 未備하였으므로 비교적 간략하게 取扱하지 않을 수 없다.

城이라는 말은 城廓 또는 城寨라고도 하였는데 封建諸侯들의 居城과 都邑地의 圍壁, 그리고 敵을 막기 위한 構築物로서 山岳과 江海沿岸에 만들어 놓은 堡寨와 壘柵등을 모두 總稱하는 것이다. 都邑地의 圍壁에 있어서는 日本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것이어서 거의 없다 하여도 過言은 아니지만 다만 封建諸侯들의 居城과 山城등을 말하고 있으며 朝, 明 兩國에서는 西洋 諸國의 例와 마찬가지로 都邑地의 周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朝鮮에서는 明 보다도 더 많은 山城을 가지고 있는 것이 特色이라 하겠다.

一, 朝鮮軍의 築城

本役을 大觀하여 볼 때에 朝鮮軍은 在來의 城을 利用하는 方途를 講究하지 않는 弊端이 매우 컸다. 元來 城의 目的은 自衛와 防禦를 위한 軍事的 設備이므로 堅固하기를 本旨로 하기 때문에 天然的인 地形을 利用한 다음 거기에 必要한 人工的인 設備를 加하는 것인데 朝鮮에는 山地가 많아서 少數의 군사로써 多數의 敵軍을 오랫동안 막아내려는 構想으로 말미암아 自然히 人工力도 적게 드는 山城의 發達을 보게 된 것이며 이러한 山城과 또 하나는 都邑地의 圍壁이 있는 것, 이것을 邑城이라 하였는데 主로 이 두가지의 區分으로 大別할 수 있고 長城은 鴨綠江 沿邊등에 小規模의 것이 있으나 거의 論議할 바가 못될 程度인 것이다. 따라서 山城은 朝鮮 固有의 것이라 하겠으나 邑城은 中國大陸의 影響을 많이 받아 그 制式에 있어서는 거의 分別하기 힘들 程度이다. 嚴密히 따진다면 山城이라는 것은 山岳地帶의 險山峻嶺을 根據로 하는 城일 것이므로 水原의 禿城山城, 高陽의 幸州山城등은 山城이라기보다는 차라리 平城 또는 邑城에 대한 野城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렇게 分類한 例가 朝鮮에는 없으므로 그대로 山城으로 取扱키로 하되 아마도 邑城을 除外한 그 밖의 것을 모두 山城으로 取扱한 듯 하다. 이 두 山城은 險한 山地에 依托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더구나 幸州山城같은 것은 漢江水가 바로 옆을 흘러 내려서 固有의 山城의 特徵이 적을 뿐 더러 그 築城工事도 3,4日間의 作業으로 끝낸 山寨에 屬하는 것이였으나 우리의 자랑인 幸州大捷과 禿城의 牽制作戰이니만치 구태어 그 名稱을 따질 必要는 없을 듯 하여 다시 再論치 않을 것이다.

朝鮮에 있는 主要한 山城으로 現在까지 그 遺跡을 찾아 볼 수 있는 山城은 約 50에 達하는데 道別로 본다면 嶺南方面이 가장 많아서 13城이나 있고 그 다음이 平安道 方面의 9 城, 京畿道와 黃海道의 各 8 城, 全羅道의 7 城을 들 수 있고 太白山嶺이 縱斷하는 咸鏡道, 江原道, 忠清道는 1乃至 2 城 程度 밖에 없다. 이것은 山城의 生命이 平野와 連結되는 瞰制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交通線과도 關聯되어야 한다는 示唆이기도 하다. 山城은 거의가 石築이지만 이 당시에는 南漢山城과 鐵山의 雲暗山城이 모두 土城이였고 鳳山의 蒜(산)山 山城의 大部分이 土城이였다. 內城과 外城을 具備하고 있는 山城은 義州의 白馬山城과 龍川의 龍骨山城, 그리고 宜川의 劍山山城 등이 있고 公州의 公山(雙樹)山城은 內外城밖에 左右翼城을 가지고 있었으며 殷栗의 九月山城은 左右倉이 있었다. 仁同의 天生山城은 本戰役이 끝난 다

음 辛丑年(宣祖 34年)에 外城을 新築하였으며 江華의 鼎足山城에는 璿源閣 史閣을 두고 있다. 또 善山의 金烏山城은 一部는 城壁이 없고 絶壁으로 된 것도 있으며 天生山城은 四面의 石壁이 削立하여 自然의 險城을 이루고 있다. 城壁의 크기는 山城에 따라서는 2萬尺을 넘는 것도 있으니 江華의 高麗山城, 黃州의 正方山城, 瑞興의 大峴山城, 載寧의 長壽山城, 東萊의 金井山城등이 있고, 작은 것은 4千尺에 不過한 것도 있으니 同福의 甕城山城, 水原의 禿城山城등이 있다. 큰 規模의 山城은 圓形에 가까운 谷地를 擇하여 그 周圍의 嶺上과 山背를 連하여 圍壁을 構築하고 이것을 谷地 入口에서 合하게 하였으며, 谷口, 또는 鞍部(山길에서 고개 넘는 곳.)에 門을 만드는 것이였는데 이러한 樣式의 것은 그 大部分이 城內에 溪流와 貯水池를 만들어 防守將兵의 飮料水를 供給하게 되었다.

周壁의 높이는 一定치 않고 또 같은 山城에서도 地形에 따라 高低가 不同하였으나 10數尺에 達하였으며 銃眼과 箭眼을 設備한 것도 있었으나 展望을 兼한 것이 많아서 오늘날 보면 死角消滅의 着意는 매우 不足함을 免치 못하였다.

丁酉再侵때에는 堅壁淸野之策으로 都體察使 李元翼은 都元帥 權慄과 의논하고 嶺南地方 各郡縣에 命令하여 山城을 修理케 한 다음 兵器와 軍糧을 貯藏케 하고 老幼男女로 하여금 여기에 入城하여 防守토록 하였는데 昌寧의 火旺山城, 大丘의 公山山城, 開寧(善山)의 金烏山城, 安陰(現安義)의 黃石山城, 晋州의 鼎蓋山城과 岳堅山城등이 이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姜沆은 看羊錄에서 다음과 같이 反對意見을 말하고 있다. 『여러 곳에 있는 山城은 邑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데 危急을 당하게 되어 비로소 邑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거두어서 山城에 들어가도록 하였는 바 賊이 아직 먼 곳에 있을 때에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山城이 險하고 먼 것을 꺼려하여 山城에 들어가서 지키기를 좋아 하지 않으며 賊이 가까이 온다면 멀리 山野로 도망쳐 달아나 命令을 좇지 않았거늘 하물며 傍邑의 사람들까지 모두 같이 山城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어찌 바랄 수 있으랴.』하였다.(이 問題에 대하여서는 第十八章 第3節 第三項에서 따로이 硏究할 것이다. 山城 所在地別一覽表는 附表 第6과 같다.)

邑城에 있어서는 高麗時代부터 中國大陸의 影響을 받아 都市의 周圍에 堅固한 圍壁을 쌓고 市民을 保護하는 風이 생겼는데 地形上 純全한 中國式을 따르지 못하고 山城形式을 加味한 것이 많으니 漢城府, 開城府, 平壤府를 비롯하여 東來, 晋州, 延安, 黃州, 義州등의 邑城이 이러한 것이다. 純中國式이라고 할 만치 그 形狀이 方形인 것은 慶州, 尙州, 忠州, 淸州 全州, 南原등의 邑城이 그렇고 不定形인 邑城에는 大丘, 順天, 光陽등이 있고 山稜의 半을 城內로 가지고 있는 泗川등은 모두 邑城의 形式을 取하면서도 多少 틀린 形態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邑城의 形式中에서 明의 制式(本節第三項)과 매우 다른 것은 垜가 있으나 雉가 없고 甕城도 없다는 것인데 다만 漢城府 邑城의 興仁門(東大門)밖에 만은 甕城을 볼 수 있는 것이고 羊馬墻은 南原城에 副總兵 楊元이 만든 것이 있었다.

漢陽城은 太祖 5年 丙子(西紀 1396年)에 畢役하였으며 近 百日間에 걸쳐 近 20萬의 延人員이

動員되었으나 世宗 4年 壬寅(西紀 1422年)에 다시 改修하였는데 東에 駱駝山, 西에 仁旺山, 南에 南山(木覓山), 北에 白岳과 서로 連結하는 全長 9千 9百 75步의 圍壁을 쌓았으며 高가 40尺이었다. 여기에 四大門과 四小門을 設置하였으니 東에 興仁, 西에 敦義, 南에 崇禮, 北에 肅靖의 四大門을 두고 東北에 弘化(中宗6年에 惠化라고 고치니 俗稱 東小門.), 東南에 光熙(俗稱水口門), 西南에 照德(뒤에 昭義라고 고치니 俗稱西小門.), 西北에 彰義(俗稱紫霞門)의 四小門을 두었다.

江華府城은 內外城밖에 倉城이 따로 있었고 平壤府城은 北城, 中城, 外城이 따로 있었다. 또 安州邑城에는 南塘城, 新城, 外城이 따로 있었고 高麗古宮城과 晋州 兵營城, 그리고 漆谷邑城에는 內城과 外城이 있었다.

圍壁의 構造는 거의가 石築이였으나 京畿道의 高麗古宮城, 江原道의 沃原城, 慶尙道의 咸陽古邑城, 全羅道의 臨坡古鎭城, 平安道의 中和城, 安州南塘城과 外城, 義州 古延州城같은 것은 모두 土築이였다.

圍壁의 크기는 大小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큰 것은 1萬尺을 넘는 것도 있었으니 黃州, 東萊, 晋州, 統營, 扶安, 咸興, 吉州, 定州, 龍岡 黃龍城, 穩城, 慶源등이었는데 寧邊邑城은 7萬 3千餘尺, 平壤邑城은 2萬 8千餘尺에 達하는 것이었다.

圍壁의 높이는 南原城이 13尺, 高敞邑城이 12尺인데 가장 낮은 것이 忠州邑城의 8尺이고 가장 높은 것이 珍島邑城의 741尺이니 이것은 自然岩壁의 높이까지 合친 것이다. 다음에는 築城學上으로는 邑城으로 보기는 힘들고 오히려 中國의 長城과 같은 理念을 가진 行城이라는 것이 있으니 그 길이는 반드시 길기만 하지 않고 鎭堡와 鎭堡의 中間을 閉鎖하는 役割을 하였으며 主로 鴨綠江과 豆滿江 沿岸에 많이 있었으며 그 狀況은 다음과 같다.

鴨綠江 行城——朔州 行城——千2百 30尺　　渭原 行城——千百 70尺
　　　　　　　碧潼 行城——190尺　　大小坡兒 中間——2萬4千 20尺
　　　　　　　　　　　　　　　　　　行城 西쪽　1萬3千 30尺
豆滿江 行城——穩城 行城——14萬3千7百 68尺　　會寧 行城——1萬1千7百 40尺

그 밖에 邑城의 一種이기는 하지만 軍事用을 主目的으로 하는 行營城, 水營城, 鎭堡등이 있는데 그 規模는 물론 邑城보다 작아서 圍壁의 길이가 길어서 4千, 작은 것은 千5百尺 內外였다.

다음에 우리나라의 築城에 대하여 意見을 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中의 몇사람의 所論을 參考로 들어보기로 한다.

柳成龍은 設柵之法에서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古人은 行軍할 때에 반드시 戰備를 갖추고 駐軍할 때에 반드시 營壁을 굳게 하였나니 그 생각이 매우 깊였던 것이다. 그런데 營壁을 施設하려면 반드시 먼저 地形에 適合하고 設置하는 法이 반드시 그 制式을 갖추어서 堅緻토록 힘쓸 것이며 그런 다음에 我軍이 믿는 바가 있어서 두려워 하지 않고 賊이 또한 來犯하지 못할 것이다. 所謂地形이라 함은 山勢가 斗絶하여 四面에 기어올라 갈 곳이 없고 視

界가 넓어서 數10里를 通望할 수 있으며 左右에 遮障이 없어서 賊의 往來를 昭詳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倭賊들은 地勢를 가장 잘 알고 또 設柵法을 잘 하여 그 陣은 반드시 要害地에 두었던 것이다. 그 設柵之法을 考察한다면 我國에서는 다만 弓矢만 使用하였던 까닭으로 흙을 발라서 壁을 만들고 겨우 화살만을 막게 한 것이고 盤回屈曲케 하여 서로 護蔽케 하였으며 孔穴을 뚫어서 放丸에 便케 하였으되 참으로 十步九顧로 너무 消極的인 것이었다. 이런 까닭으로 孤軍으로 깊이 쳐들어와서 千里에 뻐쳐서 營을 만들었으되 我軍은 3年동안이나 서로 바라보기만 하면서 그 一堡라도 能히 攻破하지 못하였으니 賊의 計策이 매우 周密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我國의 諸將들이 전혀 이 뜻을 알지 못하고 그 一處라도 堅守하여 必死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賊이 이르는 곳마다 모두 野에 散軍하여 버리고 枯木가지로써 둘러 싸서 柵을 만들었다가 賊이 왔다는 말을 듣기만 하면 곧 도망쳐서 숨는 것을 上策으로 여겼을 따름이었다.』라고 말하였는데 그는 이어서 築城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我國사람들은 가장 兵事에 익숙하지 못하여 그 築城에 있어서는 아무런 方策도 없이 다만 山勢를 따라 구불구불(逶迤(위이))하게 形態를 만들고 廣濶하기만 힘썼는데 더 크게 되면 더 지키기 힘든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古之城制에 依한다면 每 50堞마다 1雉를 두었으니(지금의 曲城이다.) 堞制의 높이는 城 높이의 3分之 1이었다. 城 높이가 이와 같으니 사람들이 任意대로 서 다니면서 矢石을 避할 수 있었는데, 今日 我國의 女墻은 겨우 數尺에 지내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두 匍匐하여 다니며 賊의 銃丸을 免치 못하였으니 이것이 그 不可의 第一이라, 兩堞의 사이는 狹少한 것을 좋아하고 겨우 활을 쏘고 眺望할 수 있게 하여 賊이 넘어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 古制였는데 我國의 女墻은 中間에 數人을 收容할 수 있으니 이것이 그 不可의 第二라. 甕城을 또한 드물게 만들었으니 비록 큰 都城이라 할지라도 漢城 東大門밖에 다만 一甕城이 있을 뿐이매 雉가 없는 城이 장차 무슨 所用이 있으랴. 이것이 그 不可의 第三이라. 城에 雉가 없다면 사람이 비록 一堞를 지키고 堞와 堞사이에 防牌를 세워서 外面에 대하여 矢石을 막게 한다 할지라도 賊이 城 밑에 와서 붙는 것을 보고 막을 수 없나니, 紀效新書에는 每 50堞마다 1雉를 設置하여 밖으로 2, 3丈 突出케 하고, 雉는 서로 50堞씩 떨어지게 하여 左右를 바라보면서 發射하기에 便케 하였으며, 敵이 城밑으로부터 기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壬辰에 있어서 余가 安州에 있을 때 一策을 생각하여 냈으니 城 밖에 地勢에 따라서 따로이 凸城을 만들어서 雉制와 같이 하고 그 가운데를 비워 놓고 군사를 넣은 다음 三面에 砲穴을 뚫고 大砲를 配置하여 그 위에 望樓를 세우니 兩樓가 6,7百步에서 千步의 距離를 두게 하였다. 그리고 大砲안에 鐵丸을 裝塡하고 兩쪽에서 交代로 發射하면 金石이라도 粉碎치 않는 바가 없으매, 이와 같이 한다면 他堞에 비록 守兵이 없어서 다만 數10名으로 砲樓를 지키게 한다 할지라도 敵이 비록 百萬이라도 敢히 近接하지 못할지로다. 所謂 雲梯와 衝車라도 쓸 수 없을지니 이가 참으로 守城의 妙法이오, 비록 雉를 모방하였다

고 할지라도 그 功이 雉보다 더욱 많을 것이 萬萬이로다. 近世에 中原에는 「懸眼」이라는 制式이 있나니 그 法은 城內로 부터 구멍을 뚫어 直接 城밖에 내놓고 城밑에 있는 賊을 보고 格殺하는 것을 꾸미게 하는 것이니 이 制式은 매우 좋다고 할 것이다. 또 「羊馬墻」이라는 制式이 있으니 城밖 濠안에 墻高 1丈쯤 되는 것을 만들고 下面에 大穴을 뚫고 大砲를 쏘게 하며 中央에 小穴을 만들어 小砲를 쏘게 하는 同時에 따로 勇力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여 城上과 더불어 서로 輔車之勢를 이룰 것이로다. 이와 같을진대 그 效用이 많고 반드시 多數의 守兵도 必要치 않고서 지킬 수 있는 바 만일에 한 砲樓를 設置한다면 許多한 城制가 모두 必要치 않으니 實로 甕城과 懸眼과 羊馬墻의 制式을 合하여 하나로 하여 衆力과 人工을 많이 쓰지 않고 簡易하게 하여 하나도 失策없이 할 수 있으리라. 各邑의 鎭堡에는 城柵이 있는 바 흙, 또는 나무로써 만든 것이고 外面에 흙을 두껍게 발라서 賊이 불태우지 못하게 하고 火藥과 火砲를 많이 備置한 다음 때때로 孔穴로 부터 쏘는 訓練을 하고 形勢를 보아 砲道의 遠近을 살펴서 군사들로 하여금 이것을 熟知케 한다면 이는 守城의 妙策이 되며 스스로 潰散하는 걱정이 없으리라.』하였다.

여기에서 柳成龍은 安州城에서의 自身의 築城考案을 記錄하여 비록 百萬의 군사라도 接近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本役에 있어서 安州城은 敵의 攻圍를 받은 일은 없었으나 萬若 이 築城法이 施行 實行되었더라면 禦倭에 큰 貢獻이 되었으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 築城法도 朝臣들의 甲論乙駁으로 實施되지 못하였다.

다음項에서 살펴보겠지만 日本軍의 築城術은 相當히 發達되어 最後抵抗線으로 效用되었으니 이는 武強의 餘澤이라 하겠고 明나라와 朝鮮에서는 百年이 如一로 在來의 것을 그대로 保存하기만 하였으니 이는 文弱의 遺產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에 柳馨遠의 築城論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는 本役이 끝난지 24年만인 光海君 14年에 出生하여 顯宗 14年(1673年)에 52歲로 病死한 사람으로 磻溪隨錄을 남기고 있는 바 여기에 나오는 그의 所論은 매우 適切한 것이 많으며 本役과 丙子胡亂에서 얻은 敎訓에서 提高하는 좋은 意見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무릇 城高는 반드시 5丈 以上이어야 하며 (城高는 垜를 除外한 것이고 周尺은 10尺이 1丈이다) 垜高는 1丈이고 城底는 4丈이며 밖에 濠를 만들어서 濠의 幅은 반드시 4丈이 되어야 하고 깊이 2丈이어야 한다. 또 濠岸은 반드시 甎石(벽돌)으로써 할 것이며 모든 城은 아래로부터 2丈까지는 傾斜하여 쌓고 2丈 以上은 垂直으로 올라가서 雉와 甕城과 羊馬墻을 紀效新書法대로 만들 것이다. 50垜가 1雉인바 地形을 생각하여 만들고 大略的으로 雉가 城밖에 4, 5丈이나 나간다면 그 橫長은 6,7丈으로 할 것이다. 城高가 만일에 5丈이라면 底濶(底邊幅)은 3丈이고 반드시 內外를 成築한 다음에 흙으로써 內岸을 平垣케 만들 것이며 石은 土에 依支케 하고 或는 土石을 서로 섞게 할 것이며 城의 基礎工事는 반드시 地下를 깊고 넓게 판 다음 大盤石으로 쌓고 돌위 3,4尺을 안으로 들어와서 비로소 築石하나니 城腰 以下는 大面石으로 깎아서 縱으로 세울 것이며 腰以上은 甎石으로써 石灰를 그

사이에 바를 것이고 堞는 반드시 磚石으로써 石灰와 混和하여 쌓을 것이다.』하였다.

柳成龍은 設濠之法에 대하여서도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무릇 城밖과 營柵밖에는 마땅히 2重濠를 設置하여 깊고 넓게 마련토록 힘쓸 것이며 濠 가운데는「木角」을 많이 設置하고 內濠는 그 幅이 外濠의 半으로 깊이를 約 1丈으로 하여 그 底面에 木板을 깔고 길이 4,5尺 되는 菱鐵을 세워 놓은 다음 그 위에 옆으로 長板을 덮게 하는 바 板腰에는 橫木을 만들어 받들게 하되 그 兩머리는 鑪冶의 鼓火之板과 같이 하여 敵이 그 머리 쪽을 밟으면 傾陷토록 하는 것이다. 敵이 쳐들어 오려 하면 軟灰를 그 밑에 쌓아 놓는 바 깊이 1尺에서 半尺 以上으로 할 것이고 板上에도 또 흙으로 덮어 敵이 알지 못하게 하면서 敵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대저 敵이 城을 陷落시키려고 한다면 먼저 鳥銃手 數千을 모아 놓고 城面의 조금 낮은 곳으로 부터 亂射하여 城上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를 내어 놓고 防備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따로이 勇力之人을 골라서 長梯, 大鍬, 그 밖의 陷城用具를 가지고 塹濠를 뛰어 넘어서 城밑에 直進한 다음 堞으로부터 기어 올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잠간 동안에 城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니 만일에 能히 미리 2重濠를 만들어 놓는다면 勇力이 있어서 城에 近接하는 敵으로 하여금 반드시 濠中에 빠져서 覆板이 기울어지게 되고 서로 부닥쳐서 바람이 일어나고 재가 날아서 敵의 눈이 모두 混迷하게 될 것이고 濠中에서 狼狽하게 될 것이니 이도 또한 守城의 一助가 될 것이다.』라고 空想 절반의 말을 하였다.

柳成龍은 또 防灘之法에서 다음과 같이 論하기도 하였으니 參考삼아 附記한다.

『菱鐵이 最上이지만 만일에 蒺藜鐵로써 水中에 設置한다면 沙石이 서로 混合하여 떠 내려가기 쉽고 未久에 모두 그 자리를 옮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깊이 沙中에 들어가서 障害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한 方法이 있나니 長이 3,4尺에서 10餘尺되는 雜木위에 구멍을 뚫고 따로이 菱鐵을 만들어 鐵끝아래 1寸에 兩갈구리(鉤)를 만들어서 下向케 하고 下端을 뾰족하게 만들어 木孔에 꽂고 그 多少에 따라서 縱橫으로 세워서 蝟毛(고슴도치의 가시털.)같이 한 다음 兩木頭에 구멍을 뚫고 江灘의 건널 수 있는 곳에 모래에 파묻어 놓고 나무 兩頭에 椓(착)材를 꽂아 水底깊이 埋設하여 움직이지 못하도록 設置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柳成龍은 이 모든 것을 實踐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關防集錄에 甬(용)道之法에 대하여 論하고 있으니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松都의 靑石洞에 道路를 橫斷하여 築城한 것이 있으니 그 모양이 甬道(巷道)와 같아서 長은 地勢에 따라 定하고 幅은 兩邊이 서로 隔하기를 20名이 列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 道路위에 關門을 設置한다면 마치 函谷關이나 山海關같이 될 것이며 功役도 많지 않고 僻處에 만든 山城보다도 有效할 것이니 다음의 各 要地는 모두 靑石洞의 甬道를 본 받아서 築城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한 다음 指摘한 要旨는 아래와 같다.

北路——摩雲嶺, 摩天嶺, 鐵嶺　　嶺東——大關嶺, 楸地嶺
嶺南——鳥嶺, 竹嶺, 火嶺, 秋風嶺, 掛方嶺　　湖南——八良嶺, 萬馬洞, 大蘆嶺, 小蘆嶺
海西——青石洞, 洞仙嶺

火田之禁에 대하여서는 本役이 끝난 뒤에가서 肅宗朝에 이르러서 비로소 備局에서 다음과 같이 啓請한 바 있었다.

『海西의 洞仙嶺을 비롯한 그 밖의 모든 嶺은 반드시 樹木이 있은 然後에 防守에 有益함을 期待할 수 있거늘, 오늘날에는 火田의 害가 無處不到하여 大小嶺이 모두 민둥민둥(濯濯)하지 않은 바 없소이다. 兵使는 本官(監司)과 더불어 嶺階에서 火田하는 것을 嚴禁케 하고 또 山直을 두어서 山火와 濫伐의 弊를 禁하게 하되 兵使와 虞侯는 春秋로 巡審하여 만일에 守令으로써 命令을 奉行치 못하는 者가 있다면 備局에 論報케 하고 入啓하여 그 罪를 다스리게 할 것이오며 本道 監司도 또한 이것으로써 守令들의 殿最(各官員의 成績의 劣優에 依하여 罰賞하는 것.)로 삼을 것이옵니다.』하였다.

木城之法에 대하여 關防集錄에서는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느릅나무(楡), 버드나무(柳), 탱자나무(枳), 가시나무(棘) 같은 나무를 密種한 다음 가지를 서로 얽어 매어 木柵을 삼나니 그 넓이는 5,60步를 限度로 하고 周圍를 서로 連結한다면 곧 한 木城이 될 것이다. 그 樹林의 空隙을 따라서 弓砲로서 待備케 한다면 我軍은 믿는 바가 있고 敵兵은 疑懼한 나머지 敢히 衝擊하지 못할지로다.』라고 하였다. 대체로 보아 本役前에는 築城을 非計라고 反對하던 朝臣들이 많았으므로 山城이건 邑城이건간에 實戰에서 制敵할 方途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本役後에 柳馨遠같은 人物이 提唱한 바 있었지만 亦是 偸安과 姑息의 大勢를 어찌하지 못한채로 無爲로 지냈다고 할 것이니 매우 遺憾된 일이었다.

二, 日本軍의 築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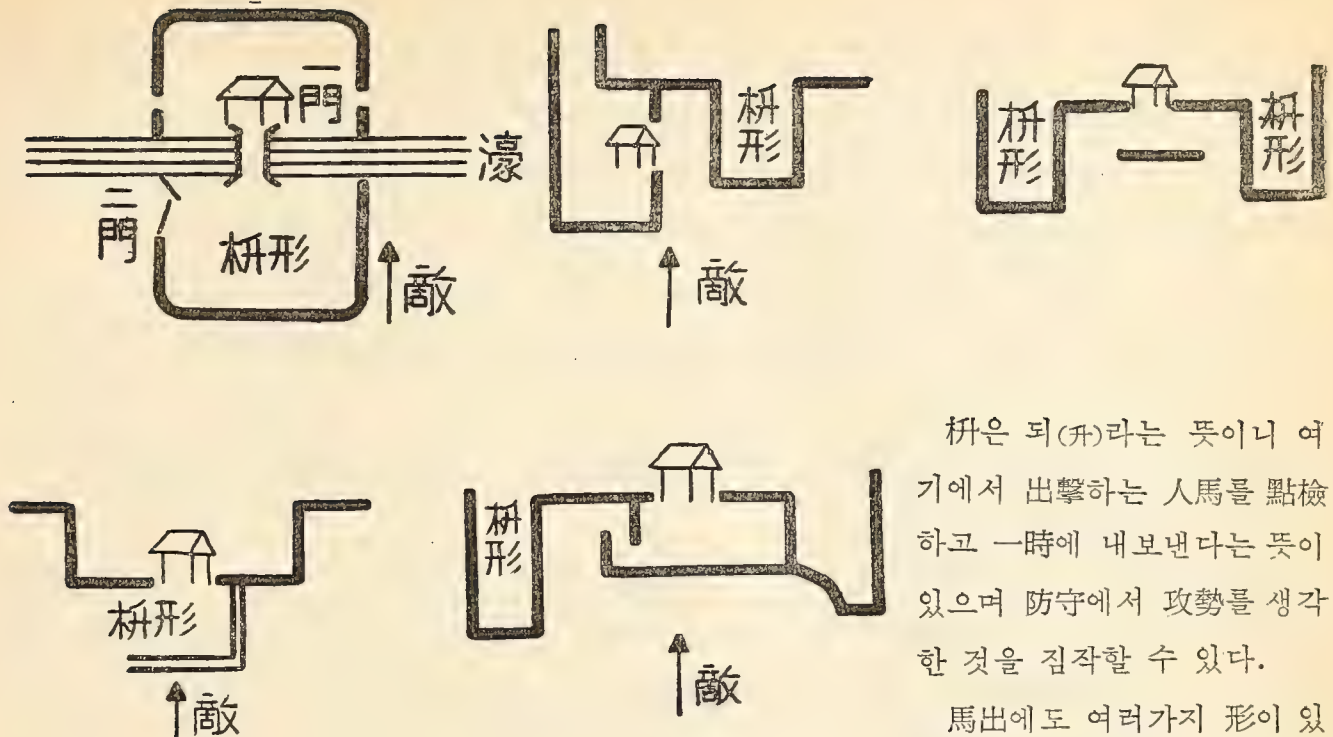
日本의 城郭에는 山城과 平城과 平山城의 세가지 種類가 있었는데 山城은 險阻한 山嶺을 擇하게 되고 平城은 平坦한 地域에, 그리고 平山城은 本城을 山地나 丘陵에 두고 外郭을 平坦한 開濶地에 두는 것을 例로 하였다. 또 城의 任務에 따라서는 名稱도 같지 않았으니 敵城을 攻擊하기 위하여 이에 對하여 만드는 城을 向城(MUKAIZIRO)이라 하였고, 主將이 오랫동안 戰野에 留하게 될 때에 臨時로 만드는 것을 陣城(JINSHIRO)이라 하였으며, 主要한 兩地區 사이에 約 1日 行程으로 分離된 곳에 쌓고 連絡線과 兵站線을 掩護하는 城을 繫城(TSUNAGINOSHIRO)이라 하였다. 이러한 것은 대체로 모두가 臨時로 쌓은 것으로서 이것을 掻上城(KAKIAGE-SHIRO)이라 하였으며 그 圍壁은 土壘로 된 것을 例로 하였다. 繫城은 支城이라는 것이 通稱이라 할 것인데 境目城(SAKAIMENOSHIRO), 또는 詰城(TSUME NOSHIRO)이라고도 하였고 이 보다도 더욱 작은 것을 砦(TORITE)라 하였다. 또 城의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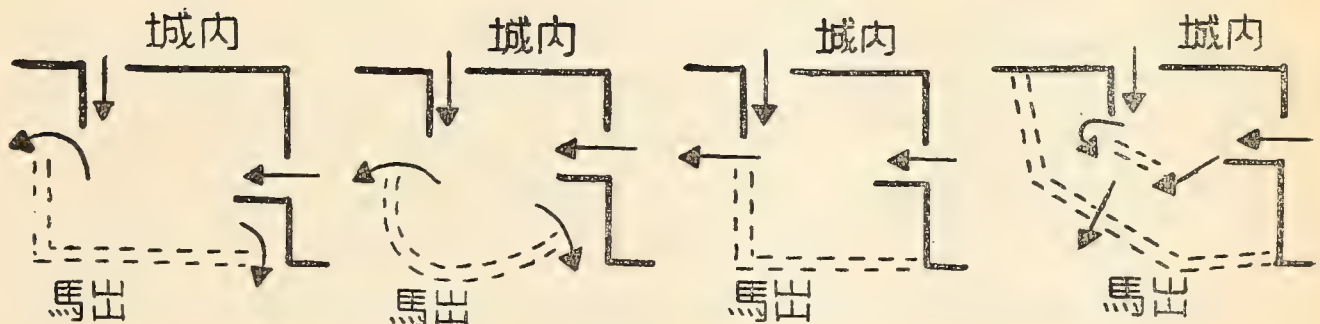
防禦區域을 廓(KURUWA)이라 하였으니 큰 規模의 것은 數10個가 있었다.

本城은 主將이 位置하는 곳으로 築城地域에서 中央의 가장 높고 核心部를 이루는 곳에 複廓을 만들고 그 中央 높이 쌓아올린 것을 本丸(HONMARU)이라 하고 이것을 圍繞하여 그 밑에 二之丸(NINOMARU), 三之丸(SANNOMARU)를 쌓아서 複廓을 形成하였으니 여기가 最後의 抵抗線이었다. 本城은 牙城이라고도 하는데 이 本城의 四周에 外廓線으로 總構(SŌGAMAE)를 만들어 抵抗할 수 있게 準備하였는데 이것을 總曲輪(SŌGURUWA)이라 고도 하였으니 城內의 總稱이고 本丸을 本曲輪, 二丸을 二曲輪, 三丸을 三曲輪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하면 「總構」가 第1防禦線이고 複廓이 第2防禦線이라 할 것인데 本戰役中의 蔚山城이 그 가장 좋은 例라고 할 것이다.(그러나 이 城은 加藤清正이 撤退前에 燒却하여 버렸다) 複廓中의 中心部를 이루는 「本丸」에는 樓櫓가 있으니 그 가장 壯大한 것을 天主閣(TENSHUKAKU)이라 하여 그 높이가 3層에서 5層, 7層까지 있고 各層 4方에 數個의 窓을 만들어서 展望用과 銃眼, 箭眼用을 兼하게 하였다. 이러한 樓櫓는 二之丸, 三之丸에도 있었는데 이것을 矢倉(YAGURA)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中世때까지는 平時에 여기다 矢箭등을 貯藏하였던 것으로 推測된다.

「總構」는 圍壁위의 높은 곳에 構築되었고, 그 四周에는 지붕이 있는 담(墻), 또는 지붕이 없는 것, 또는 柵을 設置하였으니 그 高가 約1丈이고 이 담에 銃眼과 箭眼을 設置하였는데 銃眼을 「鐵砲狹間」(TEPPŌHAZAMA)이라 하여 圓形, 三角形등이었고 箭眼은 「矢狹間」(YAHAZAMA)라 하여 幅이 좁은 矩形이었다. 담의 內部를 「武者走」(MUSHA-BASHIRI)라 하여 그 幅이 約1間이고 여기에 守兵들을 配置하였다.〔담外部에 있는 조그만 空地帶를 犬走(INUBASHIRI)라 하였다.〕 圍壁의 突角部에 있는 것을 角櫓(SUMIYAGURA)라 하여 2層 또는 3層으로서 四面에 窓이 있었다. 또 多聞櫓(TAMONYAGURA)라는 것도 있었는데 長方形의 平屋으로서 平時에는 武器庫로, 戰時에는 兵員의 居室로 使用하였다. 本城의 圍壁은 石築을 原則으로 하고 될 수 있는대로 屈曲部를 많이 만들어서 斜射와 側射에 有利케 하였다.

또 그 下部에는 塹壕를 만들고 水濠를 理想的이라 하였다. 城門은 圍壁 中間에 있어서 中古時代에는 木戶(KIDO)라 하였고 그 左右에 石壘를 쌓고 樓櫓를 만들어서 이것을 渡櫓(WATARIYAGURA)라 하였으니 곧 樓門이었다. 이 前方에 또 다시 門을 만들기도 하였으니 이 兩門의 中間을 武者溜(MUSHA-TAMARI) 또는 枡形(MASUGATA)라 하여 守兵을 駐屯시키기도 하였다. 日本의 築城中에게 가장 留意한 것은 大門으로부터의 城內 侵入을 極力 防止하는 것이었다고 보는데 出入口를 虎口(KOGUCHI)라 하고 正門을 大手口(ŌTEGUCHI), 後門을 搦手口(KARAMETEGUCHI)라 하였다. 또 위에서 말한 枡形 밖에는 馬出(UMADASHI)이라 하여 城門앞에 堤防을 쌓기도 하였다.

枡形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枡은 되(升)라는 뜻이니 여기에서 出擊하는 人馬를 點檢하고 一時에 내보낸다는 뜻이 있으며 防守에서 攻勢를 생각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馬出에도 여러가지 形이 있었으니 다음과 같은 例가 있다.

日本軍은 攻擊할 때에도 敵城 가까이 가서 조그만 城을 쌓고 準備하는 수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 이것은 付城(TSUKEZIRO)이라 하고 또 城을 지킬 때에 밖으로 小城을 내어 쌓는 것은 出城(DEZIRO)이라 하였으며 그의 臨時的인 것을 取出(TORIDE)라 하였다. 또 日本軍은 城門만이 아니라 本丸, 一丸, 二丸에 있어서도 그 出入口를 同一方向에 通視可能토록 내는 것을 避하였으니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刑曹佐郞 姜沆은 日本에 가서 見聞한 바에 따라 築城에 대하여 그의 著書인 睡隱看羊錄에서 다음과 같이 評하고 있다.

『城邑을 만드는데는 반드시 獨山의 頂上部 또는 江海의 바닷가에 擇하여 山頂을 平平하게 하고 그 四面을 急하게 깎아내리고 원숭이(猿狖(유))도 기어 올라가지 못하게 하며 그 城基盤部는 넓고 위는 뾰족하게 하여 四隅에 樓를 만들었는데 높은 곳에는 主將이 거처하였다. 軍糧과 軍器庫는 모두 樓 안에 設置하였으며 一門을 열어

<日本築城設計>

一路를 通하여 出入케 하고 門 안에는 沙石를 쌓아놓고 城밖에는 길다란 담(垣)을 만들었으니 그 高가 10尺 가량 되는 것이다. 담 안에는 數步마다 砲穴을 만들고 담 밖에는 城濠를 팠으니 깊이 8,9尺 가량 되고 江水를 끌여서 퍼붓고 濠밖에는 또 水柵을 만들었으며 江海에 沿한 여러 곳에는 배가 서로 잇대어(舳艫相連) 있는 것이다. 城 밑에서 사는 백성들은 날마다 물놀이(水戲)를 하고 있으며 精勇한 군사들이 城을 에워싸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直接 가서 見聞한 것으로 築城 모양을 잘 나타내고 있으니 日本軍은 熊川, 泗川, 倭橋등에서도 반드시 바다와 連하여 築城하고 있는 그 原則을 說破하고 있으며 이미 말한 바 있는 城下町의 一部 모습도 엿볼 수 있다.

또 壬辰年에 兵曹參知였던 黃暹은 日本軍의 築城에 대하여 그의 詩文集인 息菴集에서 다음과 같이 評하고 있다.

『築城하는 法이 다만 雜石을 가져다가 亂積錯峙케 한 다음 長短을 맞추어서 (句圭) 規格대로 整列케 하고 누빈 자리(縫痕)가 비록 있다고는 하지만 잘 맞아서〔脗(민)〕 빈 틈이 없으며 城밑(趺)에서부터 腰部까지는 서로 기대는 것(倚)같으며 또 서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 모양이 가파로운 언덕(峻坂)같고 腰部를 지내서는 그 面의 모양이 모두 直角으로 깎아서 墨繩이나 도끼로(繩斧) 만든 것 같으니 진실로 天下의 巧制로다.』라고 讃歎하였다.

또 柳成龍은 蔚山戰鬪에 대하여 말하던 끝에 敵의 築城을 다음과 같이 懲毖錄 卷二에서 評하고 있다. 『29日에 내가 慶州로부터 經理(楊鎬)와 提督(麻貴)을 가서 보고 또 敵의 城壘(蔚山城)를 바라보니 매우 고요하고 사람의 소리가 全혀 없으며 城위에는 女牆같은 것도 없고 四面에 長廊을 만들어서 守兵들이 모조리 그 안에 숨어 있다가 밖에서 군사가 城下에 이르면 銃火를 빗발 같이 쏘아대니 날마다 交戰할 때에 明 군사와 우리 군사가 城下에서 죽어서 그 屍體가 쌓였으며 賊船은 西生浦로부터 救援하려고 와서 水中에 碇泊하였는데 그 모양이 물오리 〔鳧(부)〕와 기러기떼 같이 보였다.』하였으니 日本軍이 반드시 江海에 一部를 利用하고 있는 모양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壬辰役에는 南海岸에 沿하여 12本城과 6支城을 만들었으며 丁酉役에는 또다시 8城을 새로이 만들었는데 그 築城 擔當區分과 守將에 關하여서는 附表 第31, 32, 第46, 47을 參照할 것이다.

위의 各表와는 別途로 各城別로 그 築城狀況을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다.(日本側文獻에 依하면 그들은 城名稱을 괴상하게 呼稱하여 一見 混同하기 쉬우므로 이것을 併記한다.)

(1) 西生浦城(蔚山郡 西生面 西生里); 日本軍은 SEKKAI 城이라 하였고 朝鮮軍에서는 外甑城이라 하였는데 加藤清正이 築城하였고 本丸(本城)은 30年에 淺野長慶(뒤의 辛長)이 修理하였는데 26年 以後부터 加藤清正과 相良 賴房등이 守備하였으며 丁酉役에 清正이 30年 7月에 全羅, 忠清道에 侵攻한 뒤에는 淺野長慶이 지켰다. 10月에 清正이 돌아와서 다시 지키다가 12月 12日 밤에 蔚山城에 赴援하러 들어갔던 것이다.

31年 1月以後부터는 毛利吉成, 島津忠豐, 伊東祐兵, 高橋元種, 秋月種長, 相良賴房의 諸將이 지켰으며 5月부터 黑田長政軍이 守城에 追加되었다.(第十一章 第3節第西項參照)

(2) 林浪浦城(東萊郡 機長面 林浪浦); 日本軍은 SEIGWAN 城이라 하였고 西生浦城의 守將 部下들이 分派되어 지키고 있었다.

(3) 機張城(東萊郡 機長面 竹城里); KUCHAN 城이라 하였고 朝鮮에서는 豆毛浦城이라 하였는데 黑田長政이 지키고 있었다.

(4) 東萊城(東萊郡 東萊邑); TOKUNEGI 城이라 하였고 朝鮮에서는 東甑山城이라고도 하였으며 陷城된 뒤에는 吉川廣家등이 지켰다.

(5) 釜山鎭城(釜山鎭 甑山); FUSANKAI 城이라고도 하고 俗稱 小早川(KOBAYAKAWA)城이라고도 하였는데 朝鮮 사람들은 凡川甑山城이라고도 하였다. 毛利輝元이 築城하였고 本丸은 海拔 120餘米이며 二之丸과 三之丸등 여러 廓이 이 本丸을 中心으로 하여 낮아지면서 階段形을 이루고 있다. 守將은,

26年 4月——毛利輝元, 小早川秀秋, 毛利元康, 吉川廣家

26年 7月——毛利輝元　　30年 9月——毛利吉成등

31年 1月——寺澤正成, 毛利秀元, 小早川秀秋 部下

31年 5月——毛利吉成등.

(6) 同城의 支城(釜山鎭 子城臺); SETOGUCHI 城, 또는 小西(KONISHI)城이라고도 하였고 萬公臺라고도 하니 經理 萬世德의 紀功碑가 있는 까닭이다. 31年 5月에 寺澤正成이 지키고 그 前은 本城과 같은데 牙城을 조그마한 언덕 위에 쌓고 石築의 外廓 및 10間幅의 濠水가 三面을 둘러 싸고 있다.

(7) 同城의 支城(椎木島 先端); 釜山港口의 椎木島에 있고 築城과 守備는 위의 子城臺와 같다.

(8) 甘筒浦城(東萊郡 龜浦面 龜浦驛의 北쪽.); KATOKAI 城이라 하고 朝鮮에서는 九法谷城이라 하였으며 小早川隆景과 立花統虎가 쌓아지키고 있었는데 31年에 毛利秀元이 重修하고 이해 3月부터 黑田長政이 지키고 있다가 5月 22日에 豊臣秀吉이 撤退를 命令하였으므로 長政은 여기에서 西生浦城으로 옮아갔다. 이 城 밑에 船舶을 碇泊할 수 있다.

(9) 金海城(金海郡 駕洛面 竹林里 駕洛山); KINKAI 城, 또는 竹島城이라고도 하였는데 鍋島直茂와 勝茂父子가 쌓고 지키고 있었으며 城밑에 까지 船舶이 出入할 수 있다.

(10) 同城의 支城(金海郡 酒村面 德谷里); 金海邑에서 約 10里, 熊川에서 約 20里가 되는 곳이며 朝鮮에서는 德橋城이라 하였다. 本城에서 擔當하여 쌓고 지킨 것으로 推測된다.

(11) 加德城(昌原郡 加德島 北端의 謁馬峰.); KATOKU 城이라 하였고 毛利輝元(一說에는 小早川隆景라고도 한다.)이 쌓고 小早川隆景, 毛利秀包, 立花統虎; 高橋統增 그 밖의 九鬼, 加藤등의 水軍將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加德의 北쪽 水道를 넘어서 安骨浦城과 맞대고 있다.

(12) 安骨浦城(昌原郡 熊東面 安骨里); ANKŌRAI 城이라 하였고 脇坂安治, 加藤嘉明, 九鬼嘉隆등이

쌓고 지켰는데 菅, 來島, 藤堂, 堀內, 杉谷, 桑山등도 加勢하여 지켰다.(第六章第2節 第四項參照)

(13) 熊川城(昌原郡 熊川面 熊浦의 南山); KOMOKAI 城이라 하였고 熊川縣 邑誌에 依하면 「古之薺浦」라 하였는데 小西行長이 쌓아 지키고 있었다.(第八章第3節 第三項參照)

(14) 同 支城(昌原郡 甘浦里의 西쪽 甘浦山城.); 忠武公全書의 笠巖이며 宗義智가 쌓아 지키고 있었다.

(15) 同 支城(熊川의 西쪽 甘浦山城 西方에 있는 山城.); 松浦鎭信 五島純玄, 大村喜前, 有馬晴信이 쌓아 지키고 있었다.

(16) 永登浦城(統營郡 巨濟長 木面 舊永里); KARAISAN 城이라 하고 俗稱 日本古城이며 唐島城이라고도 하였는데 福島正則과 戶田勝隆가 쌓은 다음 지키고 있었다.(第十章第1節 第三項參照)

(17) 松眞浦城(統營郡 巨濟 長木面 松眞浦 附近의 甑峯);唐島城이라고도 하며 實錄의 所津浦營, 徵毖錄의 蘇津之屯이니 島津義弘과 忠恒의 父子가 쌓은 다음 지키고 있었다.

(18) 長門浦城(統營郡 巨濟 長木面 長木里 倭城); 唐島城이라고도 하며 徵毖錄에서 場門之屯이라 하였다. 福島正則, 戶田勝隆, 長曾我部元親의 3將이 쌓은 다음 長曾我部元親, 蜂須賀家政, 生駒親正의 3 將이 지켰다.

以上의 18城이 壬辰役에 쌓은 것이고 丁酉再侵때에 다음 城을 쌓고 지켰으니 모두 8城에 達한다.

(19) 倭城洞城(統營郡 巨濟島의 西端 見乃梁沿岸.); 忠武公全書의 院浦인 듯 하며 30年에 宗義智가 쌓고 지킨 것으로 推測된다.(第10章第1節第 二第四項參照)

(20) 蔚山城(蔚山郡 蔚山 面 鶴城洞); 日本軍은 ULSAN, 또는 濶山城이라 하였고 朝鮮軍은 島山城, 또는 甑山이라고도 하였으며 蔚山邑의 東쪽 約10里에 있다. 30年 10月부터 加藤清正, 淺野長慶 太田一吉, 宍戶元續의 將領과 毛利輝元의 部下군사들이 쌓은 다음에 加藤清正과 淺野長慶등이 지키고 있었다.(第十三章第3節 第一項參照)

(21) 梁山城(梁山郡 梁 山邑坂); YAKSAN, 또는 RYAKSAN이라고 하였으며 30年에 毛利秀元과, 小早川秀秋의 군사들이 쌓고 黑田長政이 지키다가 31年 3月 13日에 豐臣秀吉의 命令으로 撤收한 다음 甘筒浦城에 들어가게 되었다.(勿禁驛附近의 甑山에는 我國 在來의 古城이 있으나 日本式城寨는 없다.)

(22) 昌原城(馬山市 舊馬 山의 海岸쪽.); CHAWAN 城이라고 하였는데 鍋島直茂와 勝茂父子가 쌓은 다음 지키고 있었다.

(23) 固城城(固城郡 固城 邑 南쪽高地)宍 KOSON, 또는 KOSHO 城이라 하였으며 30年에 吉川廣家와 桂元綱(두 사람 모두 毛 利輝元의 部將.)이, 그리고 31年에 宇喜多秀家와 藤堂高虎가 쌓은 다음 30年에는 毛利吉成이 지키고 다음해에는 毛利秀包, 立花統虎, 高橋統增, 筑紫廣門등이 지키고 있었다.

(24) 泗川城(泗川郡 邑南面 船 津里 東北쪽 高地.); 明史에 泗川新寨라는 것이 바로 이 城이며 SOTEN, 또는 SOSEN 城이라 하고 我軍은 泗川新城이라 하였다. 30年 12月부터 毛利吉成 父子와 相良賴房, 伊東祐兵, 秋月種長, 高橋元種, 島津豐久, 長曾我部元親, 中川秀成, 池田秀氏, 垣見一直등이 協力하여 쌓은 다음에 島津義弘와 忠恒 父子가 지키고 있었다.(第十四章第3節 第二項參照.)

(25) 南海城(南海郡 南海邑 東海岸의 船所里); 30年 11月 中旬부터 水軍將인 脇坂安治가 쌓고 宗義智가 지키고 있었는데 31年 11月 19日에 露梁海戰에서 陸上으로 逃亡친 日本將 梓山久高의 敗殘兵 一行이 이 城에 들어가 九死一生으로 겨우 살아서 撤退하였다.

(26) 順天城(順天郡 海龍面 新城里 南쪽 高地.); 順天邑에서 約 30里 떨어진 곳에 있으며 朝鮮에서는 倭橋城, 또는 曳橋城이라 하였는데 30年 12月에 宇喜多秀家, 藤堂高虎가 쌓고 小西行長이 지키고 있었다. 本書에서는 倭橋城으로 統一키로 하였다.(第十四章第3節 第三項參照.)

위의 26城은 一部 在來城을 增強한 것을 除外하고는 모두 新築한 것인데 海路와 直接 連結하게 한 다음 我軍 水師가 直衝하면 陸上에서 抵抗하게 마련한 것이었다.

我軍은 既存의 山城과 邑城도 제대로 利用하지 못하고 겨우 新築하였다는 것도 매우 보잘것 없는 것을 만들었는데(黃石山城, 幸州山城, 禿城山城등.) 民力을 溫存한다는 등을 口實로 하여 放置를 일삼았던 사람들이 築城論마저度外視하였으니 도무지 理解할 수가 없는 것이다. 侵略과 攻勢에서도 最後의 경우를 待備하여 築城에 努力한 결과 그 實効를 거두었던 日本軍을 用兵的 見地에서 높이 評價하는 바이다.

三, 東征軍의 築城

明 時代의 築城은 國境線 위에 連하여 쌓은 長城과 險한 山地에 쌓은 山城, 그리고 都邑各地의 四周를 方形으로 쌓은 邑城의 세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萬里長城은 渤海北岸의 山海關附近인 老龍頭에서 시작하여 河北, 山西의 兩省을 뚫고 陝西, 蒙古를 거쳐 甘肅省 嘉峪關에 이르는 5千 4百 40里의 長城인데 西紀前 3百 73年에 齊가 시작하였으며 4年後에 中山國이 築造하다가 63年 뒤에 秦과 趙가 그 工事를 引受하였던 것이다. 그 뒤에 秦始皇 때에 다시 補綴增築한 것인데 뒤에 가서 後魏등이 歷代로 修築하였으나 明代에 이르러 正統(6代 英宗)에서 嘉靖(11代 世宗)에 이르는 約 百年 동안에 걸쳐 荒廢한 城壁과 關口를 增補修하였다. 秦以前의 것은 土築이 많았고 始皇때에 石築으로 補強한 듯 하며 高가 20尺이고 上面에 幅 14尺의 道路가 있고 兩側에 磚(벽돌)築인 女墻(古稱은 堞, 陴, 또는 陴兒라고 하였다.)이 있으며 곳곳에 望樓를 設置하고 있다. 이러한 長城의 增補修는 韃靼族에 대한 防備를 위하여 注力되었던 것이다. 또 南部 滿洲의 女眞族에 대하기 위하여 「柳條邊牆」의 築造도 하였으니 이것은 土築堤防을 쌓고 그 밖에 濠를 파고 그 위에 柳枝를 列植하였으므로 이러한 이름이 생긴 것으로서 遼東과 遼西의 二部分으로 되어 있고 凹字形이었다. 그리고 邊牆內外를 通하는 交通上의 要地에는 邊門을 만들고 守兵을 두어서 出入하는 사람들을 監視케 한 것이었다.

山城은 우리나라에 比하여 發達하지 못하였다. 長城과 더불어 자랑할만한 것은 邑城이였는데 南京城은 明太祖의 洪武年間에 完成한 것이고 北京城은 長安城과 더불어 首都計劃의 代表的인 것으로서 遼代에 시작하였으며 元代의 燕京을, 明 初世에 北平이라 하고 3代 成祖가 永樂 15年(西紀 1417年)에 內城을 完成한 다음 北京으로 고치고 11代 世宗은 嘉靖 33年에

外城을 만들기 시작하여 43年에 完成함으로써 비로소 現在의 規模를 갖게 된 것이었다.

內城은 北쪽에 있는 것이고 外城은 南쪽으로 擴張한 것인데 東西 13里 南北이 15里요, 周圍의 城壁高가 37尺, 下底의 幅이 64尺이다.(內城의 周圍 27粁, 高 11米, 外城의 周圍 18粁, 高 6米 60糎가 正確한 數値이다.)

內城은 東쪽에 東直, 朝陽, 東便의 三門이 있고, 南쪽에 崇文, 正陽(正門), 宣武의 三門이 있으며, 西쪽에 西便, 阜城, 西直의 三門이 있고, 北쪽에 德勝, 安定의 二門이 있다. 外城에는 永定(正門), 左安, 右安, 廣渠, 廣安(彰義)의 五門이 있는데 城밖에는 護城河가 에워싸고 城壁에는 銃眼을 만들었으며 四周에 角樓가 있고 門 위에는 모두 樓閣을 만들어 놓았다. 北京城은 都城으로서 그 밖의 모든 邑城보다도 特殊한 것이 많으나 그 根本觀念은 邑城에서도 마찬가지로 繼承하고 있어서 軍隊만이 아니라 城民들 까지라도 모두 防守의 責任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 構造는 石造, 甎造,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土築도 있었는데 圍壁과 城門樓臺와 濠池등으로 形成되어 있었다. 圍壁은 方形으로 되었으며 一方一門을 通例로 하고 城의 基部幅은 上部幅의 2倍, 城高는 基部幅의 2倍를 基準으로 하였다. 圍壁上部에서 敵에 面한 外側에 凸字形의 障壁을 만들어 垜라 하였으며 垜의 高는 6尺이고 1垜의 幅은 8尺을 基準으로 하였다. 兩垜間의 凹字形으로 낮은 곳도 箭眼과 銃眼을 兼 할 수 있었다.

圍壁中에서 外部에 向하여 矩形으로 突出한 部分을 雉라 하였는데 이것은 每 50垜마다 하나씩 만드는 것을 基準으로 하였으며 큰 城에서는 突出面이 3丈이고 橫面이 5丈이며 그 다음 것은 2丈과 3丈, 가장 작은 城에서는 1丈 5尺과 2丈의 比例로 하는 것이 常例였다. 이 雉의 役割은 斜射와 側射를 할 수 있게 하여 死角을 없새게 하는 것은 勿論이다.

門은 城壁에 「아치」形(穹窿形)으로 通路를 만들고 여기에 門扉를 附設하였으며 그 防備를 完全히 하기 爲하여 門上에 樓臺를 만들어 놓고 門밖에 甕(옹)城을 加設하였는데 이것은 半圓形으로 門밖에 敵方으로 突出한 壁이며 左右 兩쪽에 各各 門을 만들어 敵側에서 直接 城大門을 透視하지 못하게 한 것인데 이런 것을 重門이라고도 하였다.

濠池는 城壁의 高低와 地形에 따라서 그 넓이와 깊이에 差가 있으나 대체로 城의 圍壁의 基濶(幅), 즉 下部 幅(厚)의 半을 基準으로 하였다.(基濶이 2丈이면 濠의 깊이가 1丈이고 濠底의 幅도 1丈이 되는 것이다.)

또 이러한 濠는 日本의 것은 城壁에 連接되어 있으나 明의 것은 城壁과 約 10步의 餘幅을 두고 파는 것을 特色으로 하였다.

濠池의 內岸(敵과 反對쪽 언덕.)에 羊馬墻(羊馬城이라고도 한다.)을 만드는 일도 있었는데 이 때에 그 垜의 높이가 約 8尺이었다.

城門部의 城壁위에 樓臺(樓櫓)를 設備하여 遠望과 監視, 그리고 守備兵의 屯所로 使用하였으며 그 밖에 魁星樓라고 稱하는 信仰的인 建造物도 가끔 볼 수 있다. 城廓外方에 若干의 距離를 두고 出城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關城이라 하였고 孤立한 것과 壘壁에 依하여 本城과

接觸하는 것의 2種이 있었다.

本役에 있어서 東征軍도 我國軍과 같이 防守의 立場에 있으면서도 築城에 대한 熱意가 不足하였는데 攻者인 日本軍이 堅實하게 먼저 築城을 하고, 그것도 自己防守에 가장 알맞게 마련한 것을 생각한다면 我軍은 無能과 怠慢의 흠을 免치 못할 것이다.

第6節 後 方 支 援

要 旨

現代 兵學上에서의 後方이라면 兵器, 兵站, 輸送, 通信, 工兵, 醫務, 化學등 여러 分野를 總稱할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通信의 一部인 撥站制度는 情報에서 이미 取扱하였고 工兵의 領域인 築城도 따로 이미 區分하였으며, 또 輸送은 補給을 위한 것만 取扱하여 本節에서 兵站과 같이 다루기로 하였다. 또 兵站이라는 兵學用語에는 給養도 包含되고 그 施設도 總括하리라고 보지만 本役 당시의 朝鮮實情으로 본다면 給養을 위한 調辨策과 그 輸送策이 더욱 問題가 되었으므로 먼저 이 問題를 다루고 다음에 補給實施 要領을 살필 것인데 여기에 附加하여 消費節約과 財政補充策의 一部를 같이 取扱키로 하였다. 그래서 이것을 後方支援이라는 項目으로 第一, 第二項에서 一括키로 하였고 第三項에서 交戰各軍의 醫務에 關한 狀況도 取扱키로 하였다.

一, 朝, 明 兩軍의 後方支援〔原文第146參照〕

먼저 軍糧 및 馬糧의 調辨策에 對하여 살펴 본다면 本役의 始終을 통하여 後方管理에 있어서 가장 問題 꺼리였으며 또 많은 打擊을 받은 것이 바로 給養을 中心問題로 하는 兵站關係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커다란 問題가 軍糧源의 確保와 그 補充이었다. 三大都市의 喪失은 곧 倉穀의 拋棄와 枯渴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打開하기 위하여서는 오늘날 우리가 敢히 想像조차 할 수 없는 일로 官爵을 公賣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朝野僉載 卷之二十七, 壬辰十二月條에 이르기를 『군사를 動員한지 한 해가 채 못되어 國家의 財政이 이미 다하여지니 할 수 없이 官爵을 팔게 되었는데 쌀 百石을 바치면 三品職을 주고 30石이면 五品職을 주게 하였다. 뒤에 가서는 1,20石이면 嘉善大夫나 通政大夫를 陞敍하였지만 사람들이 願하는 者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이었던가.

이와 類似한 記錄은 數없이 많으니 趙慶男이 亂中雜錄 卷三에서 말하기를 『大兵力을 補給할 軍糧이 不足함으로 官爵을 팔게 되었는데(賣官鬻爵) 이것만으로써 嘉善大夫와 通政大夫가 된 사람들이 길에 차 있었고 無名의 稅金은 一一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되었다.』는것이다.

또 25年 5月 23日에 价川의 富民인 李春蘭이 4千石을 바치고 堂上實職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宣祖實錄卷二十六, 二十五年五月壬午條) 드디어는 他人의 곡식을 이리저리 모아 바친 것도 큰 功이 되기에 이르렀으니 關西邑誌 平壤續一 古事條에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

『이 때에 天兵이 久留하여 食糧이 缺乏하거늘 本府의 士人인 李鶴禎, 金士仁, 趙涵, 金汝霖, 楊德祿, 楊懿直등이 義穀 3千石을 모아서 軍餉으로 補充케 하니 鶴禎은 通政을 特加하고 나머지는 모두 參奉으로 敍하였다.』고 하였다. 忠武公全書 卷二 狀啓의 裝送戰穀及方物狀과 裝送戰穀狀에 依하면 順天士人인 前訓鍊奉事 都思竣과 李義男, 校生 鄭憒등이 義穀을 모았으며 全羅左水使 李舜臣의 軍官인 鄭思竑(횡)이 海路로 義州行在地에 輸送한 것을 記錄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이미 25年末부터 험악하게 된 軍糧事情이었는데 明 東征軍이 大擧出動하게 된 癸巳年에 들어가서는 「納粟事目」을 定하고 鄕吏, 士族, 元有職者, 庶孽등에게 軍糧과 벼슬과 서로 바꾸는 定價表를 公告하게까지 되였으니 그 자세한 內容은 이미 第四章 第2節 2月中의 槪況에 記載한 바와 같으며 이것을 「納粟敍官」이라고도 하였다. 26年 3月 1日에는 義州行在地 附近에서도 軍糧을 모을 길이 없으므로 義州近方 6縣에 있는 士民으로서 正2月에 闕防(歸休兵과 같으니 군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것.)하고 3,4月에 赴防(軍에 服務하러 가는 것.)하는 軍人들은 모두 除防(軍 服務를 免除하는 것.)케 하고 그 대신 軍糧을 바치도록 하는 所謂「除防納米」 制度까지 만들어 다음과 같이 規定하였다.

騎兵——35 斗(白米)
步兵——25 斗(白米)
} 大豆면 倍量

이 規定대로 行在地 또는 平壤(이 때에는 李如松이 이미 收復하였다.)에 各自가 運搬하여 納米하도록 하였다.

<宣祖實錄卷三十六 (二十六年三月丙辰條)>

4月 18日에는 無記名 任命狀을 慶尙右道監司 金誠一과 左道監司 韓孝純에게 보내어 軍糧을 모으게 하였으니 이것을 「空名告身」이라 하였다.(空名은 無記名과 같은 뜻이고 告身은 職牒의 別稱이니 任命辭令狀이다.) 軍糧調達의 窮餘之策으로 이런일 까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同上卷三十七 (二十六年四月壬寅), 鶴峯集卷三狀請酬功移粟事宜狀>

2月 16日에 制定한 「納粟事目」에는 士族과 公私賤, 庶孽만을 規定하고 軍士에 대해서 規制한 바가 없었으므로 軍士들은 校生 또는 閑良(아직 任官되지 않은 武人.)에게 부탁하여 糧穀을 바치고 訓導(正九品, 司譯院, 觀象監, 典醫監의 一職.), 또는 影職〔實職의 反對이니 實際로 勤務하지 않는 職, 借銜(차함)이라고도 한다.〕을 받는 者가 많아서 軍糧에 支障이 많은 까닭으로 5月 22日에 備邊司에서는 軍士들로서 納粟하는 者에게는 一一이 따로 賞을 주기로 하였으니 말하자면 懸賞募穀이었던것 이다. <同上卷三十八 (二十六年五月乙亥條)>

27年 9月 20日에 備邊司에서는 繼糧策이 없으므로 王에게 進上하는 쌀을 따로이 耕作케 하는 「進上作米」와 소금을 구어서 곡식을 사 들이는 「煮鹽貿穀」에 대하여 戶曹로 하여금 곧 施行토록 할 것을 啓請하였다.

<同上卷五十五 (二十七年九月乙未), 西厓集卷七啓辭請措置粮餉啓條>

29年 6月 15日에 都體察使 柳成龍이 「糧料判官」을 任命하여 配屬하여 줄 것을 啓請하였는데 그 要旨에 이르기를 『전에 비록 空名帖(告身)을 啓請하여 諸道에 곡식을 모으게 하였으나

맡아 일하는 사람이 쓸 모 없다면 다만 民弊만 끼칠 뿐이오니 事變前에 備邊司에서 啓請하여 各道에 糧料判官 한 사람을 내어 군량을 맡아 관리케 하였다가 미처 효과를 보지 못하고 폐지되었던바 이제 또 臣의 幕下에서 計算하고 珠盤 잘하는 사람으로 糧料判官을 삼아 그 임무를 專任토록 하시기 바랍니다.』하였다.

<軍門謄錄丙申六月十五日啓, 懲毖錄卷五芹曝集 軍門啓辭條>

東征軍에 대해서는 軍糧만이 아니고 馬糧, 더구나 冬節季에 必要한 乾草(芻糧)의 準備가 가장 必要함으로 30年 10月 2日에 江原道에서 낫군(鎌子軍) 1千名을 뽑아서 上京케 하여 미리 풀을 베어 말려 두기로 하였다. <實錄卷九十三 (三十年十月己未條)>

이러한 馬草 準備를 위하여서는 下三道에도 督促하고 監督하기 위한 사람들을 많이 내려 보냈는데 그 수효가 너무도 많아서 監司, 都事(從五品官), 從事官, 分戶曹(王世子밑에 나가 있는 戶曹.), 兵曹등과 서로 얽히고 설혀서 백성들의 苦痛이 甚하였으므로 10月 30日에 이것을 다시 整理하여 不必要한 現地 出張者들을 모두 불러 올리도록 하였다. <同上十月丁亥條>

31年 2月 17日에 山東布政司 梁祖齡이 監軍으로써 備倭海防을 맡게 되자 4月에 遼東에 도착하여 朝鮮 國內의 군량이 不足하다는 報告에 接하고 山東의 粟 百萬餘石을 全羅道 古今島와 全州, 南原등地에 보내어 飢民을 돕게 하고 兼하여 군량에 보태게 하였는데 이 粟을 받은 農民들은 同年 가을에 白米로 바치게 하였으니 이것을 「換大米」라 하였다.

<宣祖實錄卷九十七 (二月壬辰, 丙子), 卷九十九 (四月庚辰), 卷百 (五月乙未), 卷百一 (六月甲寅條)>

두번째로 軍糧 및 馬糧의 補給輸送策에 對하여 살펴 본다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軍糧을 모아놓는 일이 얼마나 뼈저린 것이었던가를 새삼 느끼는 바인데 모아 놓은 이 軍糧을 適時에 戰線으로 補給輸送하는 일도 決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을 能히 짐작할 수 있다.

이 당시 朝鮮의 輸送機關으로서는 陸上에서는 牛馬의 힘을 主로 하고 河川과 海上에서는 船舶을 利用하였는데 本役에서는 人力動員도 많이 活用되었다. 여기에서는 主로 文獻에 나타난 바를 더듬어서 輸送策의 一班을 알아보기로 한다.

懲毖錄 卷之二에서 다음과 같이 平壤을 收復한 後에 黃州까지의 後方補給을 위한 輸送에 努力한 것을 記錄하고 있다. 『글을 平安道監司인 李元翼에게 보내어 金應瑞(당시 助防將)등이 거느리고 있던 군인 가운데서 戰陣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뽑아내어 平壤에서 부터 人力으로 負戴하여 黃州에 까지 輸送케 하였다.』는 것이고 簡易集에서는 山東에서 보내온 糧餉을 義州에서 漢城까지 陸路로 輸送하던 狀況을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平安調度使에게 委任하여 陸上輸送을 監督케 하였는데 黃海道를 거쳐서 漢城에 達하는 約 千餘里의 道路를 交代로 民間 人夫를 써서 길을 메우면서 잔등에 져서 나르게 하였는 바 여러 곳에서 疲勞한 나머지 中止하여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큰 힘이 되지 못하였다.』하였다.

또 다시 말하기를 『知樞(知中樞府事)인 柳根으로써 檢察轉運使를 삼고 海上輸送에 關한 業務를 專管케 하였는데 柳根은 여러 道의 公私船을 使用키로 하여 公船은 水軍에서 얻고 私船은

漁商으로부터 얻어서 그 功勞를 優待하면서 輸送케 하였으며 다시 새로이 140餘隻의 배를 만들게 하여 바다 沿岸에 사는 사람을 모아서 海上으로 輸送케 하였다.』는 것이다.

朝廷에서 26年 1月 23日에 都體察使 柳成龍등에게 下諭하여 各地에 있는 義兵들을 모두 모아서 糧餉을 補給토록 臨機措置를 取하게 하였다.(宣祖實錄 卷三十四, 二十六年正月戊寅條) 1月 未詳日에 遼東都司 張三畏가 通告하기를 『朝鮮國에서 牛馬 5百匹만으로서는 運糧에 不足하다고 하니 牛, 騾(노새), 驢(나귀) 151匹을 民間에서 사서 거두어 合力하여 米豆를 大兵軍前에 보내도록 할 것』을 提案하여 왔으므로 26日에 朝廷에서는 곧 施行할 것이라고 回報하였다.

<事大文軌卷三 遼東都指揮使張咨朝鮮國王買辦牛馬合力運粮 正月二十八日同回咨條>

2月 5日에 軍糧과 馬糧의 追送狀況이 不振함으로 戶曹判書인 李誠中을 推考케 하고 平安道와 黃海道의 僧軍을 빨리 모아서 補給에 全力을 다하도록 措置하였다.

또 이날 接伴使 李德馨이 아뢰기를 平安道 防禦使 金應瑞가 그의 군사를 모두 거느리고 軍糧을 수송할 任務를 맡고서도 아직까지 단 1石도 수송치 않았다고 報告하니 앞서 嘉善으로 陞敍한 것을 取消하는 同時에 平安監司인 李元翼으로 하여금 軍門에 잡아다 놓고 決杖케 한 다음 곧 나가서 軍糧을 감독하여 수송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李如松이 碧蹄에서 敗하고 東坡에 退하였다는 報告가 오니 다시 李元翼에게 指示하여 金應瑞로 하여금 李如松의 軍前에 가서 協力하여 싸우도록 하였다.　<宣祖實錄卷三十五(二十六年二月庚寅條)>

明 東征軍이 碧蹄에 敗한 다음 副總兵 楊元이 提督 李如松의 陣中에서 돌아와 軍糧도 제대로 追送되지 않고 軍機에 실수가 많다(多誤)하여 軍을 돌리려 하고 經略 宋應昌에게 決裁를 얻으려고 한 것이었다. 이 소문을 2月 7日에 備邊司에서 듣고 宣祖에게 아뢰기를 『상감께옵서 親히 楊元을 만나보시고 그 不可함을 懇請하신 다음 三縣近處에 前進하시어 糧草를 督運하시는 一方으로는 親進督運의 뜻으로 李如松에게 書信을 보내어 一軍의 憤怒하는 마음을 慰勞하여 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宣祖는 처음에는 親히 가기를 꺼려 하고 王世子를 대신 보내려고 하였으나 備邊司에서 그것은 未安한 일이라고 아뢰니 하는 수 없이 8日에 新安館(驛名)에 가서 楊元을 만나 본 다음에 糧草가 不足하여 많은 人馬의 死傷을 내게 한 것을 謝한 바 있었다. 또 이날 備邊司에서는 從軍하고 있지 않은 武科 及第者들에게 命令하여 軍糧 20斗씩을 順安縣과 平壤에서 李如松의 軍前까지 運搬케 하였는데 이때에 武科 及第者가 거의 4千名에 達하였다. 이들은 一箭으로써 科擧에 合格한 다음 집에 들어앉아 安居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同上二月壬辰癸巳條>

2月 9日에는 土着民의 兵丁(土兵)과 商人 및 山尺(山中에서 살면서 狩獵과 藥草 캐기를 生業으로 하는 賤民.)등으로서 牛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모두 끌어내어 軍糧을 運搬케 하고 또 山中에 들어가서 살고 있던 前職 벼슬아치(民品官)들을 모두 찾아내어 民間에 있는 穀類를 모으게 하였으니 李鎰, 洪世恭, 黃暹, 尹泂등이 이 일을 專擔하였다. 이 때에 李鎰은 平安道左防禦使로서 寧邊 西北쪽 山境界위에 있으면서 糧草運搬과 北道에 對한 防守에 任하고 있었던 것이다. 東征軍의 軍糧은

中和, 黃州사이에 산더미 같이 많이 滯留되어 쌓여 있었는가 하면 大兵力이 集結하고 있는 곳에는 絶糧狀態에 빠졌으며 鴨綠江을 건너온 馬糧은 義州에 쌓인채로 運搬하여 갈 줄 모르는 混亂이었으므로 明나라 將帥들이 이것을 보고 화를 내어 책망하여 마지 않는지라, 備邊司에서는 黃海道에 兵曹佐郎 朴文叙를 보내고, 京畿道에 弘文舘正字인 尹敬立을 보내어 牛馬와 人夫를 있는대로 動員하여 軍糧을 앞으로 推進시키는 同時에 義州의 馬糧은 護軍인 金友臯로 하여금 배로써 運送케 하였다. 그런데 經略의 糧餉(軍需參謀 같은 것.)인 艾維新이 몹시 憤怒하여 2月 1日에는 管糧官이며 知中樞府事인 金應南과 戶曹參判인 閔汝慶과 義州牧使인 黃璡에게 杖罰을 加하기까지 하였다. 朝廷에서는 하는 수 없이 艾維新에게 禮物을 厚하게 보내어 달래는 同時에 金應南으로 하여금 義州 한 곳에만 주저 앉지 말고 適當히 前方에 進出하여 軍糧을 監督토록 注意시켰으며 뒤이어 그를 交代하여 前江原監司인 柳永吉을 새로 任命케 하였다. 金應南은 戰亂 直後에 洪汝淳과 交代하여 兵曹判書까지 지낸 바 있는 堂上官이었는데 艾維新같은 者로 부터 杖罰까지 받고 드디어 管糧官까지 쫓겨 나는 이 可憐한 모습을 생각하여 보면, 國防力이 弱한 나라의 꼴을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이다. 10日에는 드디어 都元帥 金命元과 運糧使 權徵(前京畿監司.)이 訊問調査를 받게 되었다. 艾維新은 또 이날 朝鮮國이 運糧하는 海路狀況과 船隻과 船員의 實數를 調査하여 報告하라는 재촉을 내리기도 하였다. <同上 二月壬辰乙未 丙申條, 事大文軌卷三 朝鮮國王咨經理艾, 卷九經理征倭糧餉艾咨朝鮮國王條>

2月 14日에는 吏曹判書 李山甫를 檢察使로 삼아 黃海道에 急히 내려가서 軍糧輸送을 독촉케 하였으며 禮曹判書 尹根壽는 鳳凰城에 가서 經略 宋應昌에게 開城府의 軍糧이 中絶되어 兵馬가 飢困하였던 것을 謝罪하였는데 이때에 李如松은 開城에서 다시 平壤으로 後退하게 되어 軍糧事情은 근심 없게 되었다. <同上二月己亥 庚子 壬寅條>

丁酉・戊戌 作戰에 있어서는 30年에 日本軍이 再侵하게 되고 明에서 第2次 東征軍이 나오게 되자 8月 10日에 明 監軍御史인 蕭應宮이 軍糧補給에 대하여 朝鮮國의 意見을 問議하여 왔으므로 朝廷에서는 8月 18日에 다음과 같은 事項을 回答하고 海路를 利用할 것을 要請케 하였다.

(1) 水陸交通網의 狀況 (2) 軍糧의 集積狀況

(3) 敵의 駐泊地와 倉庫의 有無 <事大文軌卷二十二 (八月十日按察蕭咨朝鮮國王, 十八日朝鮮國王回咨條)>

12月 23日에 經略 邢玠가 軍糧을 재촉하여 빨리 補給할 것을 要請하고 또 全羅道에서 白米를 取得할 것을 希望하니 朝廷에서는 忠淸道와 全羅道에서 輸送할 것이라고 回答하고 兵曹佐郎 金倬을 全羅道에 보내 稻糧을 調査케 하였다.

<事大文軌卷二十四 軍門催調兵粮 軍門咨收稻粮條>

또 明의 管理糧餉 戶部郎中인 董漢儒가 全羅道와 慶尙道에 糧草를 求하고 平安道와 黃海道의 白米와 大豆를 빨리 보낼 것을 請하여 오매 朝廷에서는 먼저 明의 軍糧을 速히 輸送하여 올 것을 回答케 하였다. <宣祖實錄卷九十五 (三十年十二日己卯辛巳條)>

以上은 壬辰·癸巳와 丁酉·戊戌 兩役에 있어서의 主로 朝鮮軍側의 輸送策의 一班을 文獻上으로 살펴 본 것인데 다음에는 參考로 輸送(通信을 包含)機關과 그 施設에 대하여 더듬어 보기로 한다.

먼저 漕運과 漕倉을 살펴 보고 이어서 驛院制度를 알아 보려는데 漕運이라 함은 現物로 받은 租稅를 海路, 또는 河川을 利用하여 海運倉(沿海에서 輸送을 맡은 漕倉.) 또는 水運倉(江邊에서 輸送을 맡은 漕倉.)에 運輸하는 것을 말하며 漕倉이라 함은 여러 邑에서 모아둔 現物租稅를 一定한 期間内에 收合하였다가 京倉에 運送하는 倉庫를 말한다. 이 戰役前까지에 全國에 設置되었던 漕倉은 다음과 같은 九個處에 있었고 그에 所屬된 郡邑의 槪況은 다음과 같다.

- 京　　倉——舊龍山 및 西江(京畿 諸邑, 江原道 一部)
- 貢稅串倉——牙山郡 仁州面 貢稅里(忠南 諸邑, 忠北 一部)
- 可 興 倉——忠州郡 可金面 可興里(忠北의 大部, 慶尙道)
- 群 山 倉——益山郡 龍安(全北 大部, 全南 一部)
- 法聖浦倉——靈光郡 法聖面 法聖浦(全南 大部)
- 興 原 倉——原州 蟾江 北岸(江原道 半部)
- 昭陽江倉——春川邑 北쪽(同上)
- 金谷浦倉——延白郡 禮成江 金谷浦(黃海道 南半部)
- 助邑浦倉——金川郡 禮成江 助邑浦(同 北半部)

다음에 驛院制度에 대하여 그 大要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것은 運輸 및 通信의 中繼的 役割을 하는 制度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往來 및 宿泊의 便宜를 圖謀하고 各驛에서 驛馬를 提供하는 것을 任務로 하였다.

(1) 啓聞(報告) 및 進上(王에게 土産物을 바치는 것.) 할 때.

(2) 貢納 物品을 護送할 때.

(3) 鎭將과 驛官 및 沿邊에 있는 守令으로서 家族을 同伴하지 않은 사람의 通過(未挐家守 令).

(4) 軍事上의 緊急狀況이 있을 때.

(5) 各陵의 祭物을 가지고 갈 때.

(6) 備邊司의 公文을 示達回覽(回公)케 하는 官員이 通過할 때.

(7) 軍의 徵募業務 文書를 가진 軍官.

(8) 閣臣(奎章閣의 官員)의 公用.

이러한 奉使人員들에게는 朝廷에서는 兵曹에서 그 等數에 依한 帖(證明書)을 주고 尙瑞院(璽寶, 符牌, 節, 鉞등을 主掌하는 官衙)에서는 牌를 주며 觀察使와 節度使는 馬牌를 受發하였는 바 이들에게 許容된 馬牌의 數糧은 附表 第10과 같다.

3匹 以上의 驛馬를 使用할 수 있는 區分은 다음과 같으며 그 밖에는 모두 1匹을 原則으로 하였다.

2匹——九品官以上, 書狀官, 從事官　　3匹——六品官以上, 上使, 副使, 御史, 通信使
4匹——三品堂上官 以上　　5匹——從二品
6匹——正二品　　7匹——大君 및 議政(領, 左, 右議政)

各驛에는 驛長, 驛吏, 驛卒, 驛丁을 두어 驛路를 정돈하고 驛馬를 갖추어 管理 하였는데 公田을 주어서(班給) 그들의 生計를 돕게 하였다. 이러한 驛은 全國에 걸쳐서 40道에 5百驛을 두었으니 이것이 당시의 重要한 교통網이었으며 그 區分은 附表 第9와 같다.

이 表에 있는 40道에는 察訪(從六品)을 두었으며 5百驛에는 驛丞(從九品)을 두어 그 所管下에 있는 모든 道와 驛을 統轄케 하였다. 또 院은 交通中心地에 세운 國立宿舘으로서 驛制度와 같이 大中小路에 따라서 만든 것과 人家가 드문 곳에 行旅人의 便宜를 돕기 爲하여 設置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였다. 이것은 世祖朝에 세웠는데 院에는 院主를 두고 院主에게는 院主田이라는 公田을 주었으며 全國에 걸친 院의 總計가 1千2百20個所에 다달았다. 明에는 驛院과 같은 制度로서 「郵傳制度」가 있였고 北京에 「會同舘」을 마련하여 놓았으며 地方에 「驛」을 設置하였는데 역시 兵部의 所管下에 두었고 各驛에는 「驛丞」이라는 長을 任命하여 이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明 東征軍의 輸送에 대하여 살펴 본다면 東征軍은 主로 人馬에 依存하였는 바 「刷馬」(地方에 準備하여 두는 官用의 雇傭馬.)라는 馬夫制와 「扛軍」(강군이니 둘이서 物件을 같이 메는 사람.)이라는 擔夫制를 둔 것은 崔慶男의 亂中雜錄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니 『天兵이 往來하는데 道路에 끊길 사이가 없었고(絡繹) 一路의 各官들은 그들의 要求하는 需品을 대고 刷馬와 扛軍을 마련하느라고 커다란 곤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東征軍에는 「輜重車」의 制度가 있였는데 그들의 군량은 民船을 利用하여 天津과 山東등地에서 보내왔다. 이것은 天津에서 大沽를 經由하여 山東의 海豐, 青島, 萊州 沿岸으로부터 登州로 갔다가 다시 廟島, 鼉(타)磯(기)島, 皇城島등을 거쳐서 旅順에 到着한 다음 遼東沿岸인 三山島, 廣鹿島, 長山島를 거쳐 鴨綠江口인 彌串〔美串(미곳)이라고도 한다.〕에 이른 다음 여기에서 水陸交通網의 狀況에 따라 車船에 引繼되는 것이었다.

通信用으로서는 遞傳騎를 設置하였으니 이것을 「擺撥」이라고 불렀으며 甲午年 8月에 都督 劉綎은 每 30里마다 5名씩의 군사를 配置하였으며 釜山에서 北京까지 緊急傳令으로 活用하였다. 懲毖錄卷一과 卷六 辰巳錄에 依하면 宣沙浦僉使 張祜成이 大寧江에 公私船으로 浮橋를 만들고 老江僉使 閔繼中은 50餘隻의 배를 모아 淸川江에 浮橋를 만든 것은 作戰軍兵馬의 通過에 커다란 도움을 준 것은 勿論이어니와 뒤이어 따라가는 軍糧補給隊에 매우 큰 利益을 주게 된 것으로 보는 바이다.

세번째로 軍糧 및 馬糧의 補給實施 槪況에 對하여 살펴 본다면, 本役이 勃發하자 7月頃 까지는 補給問題가 論議될만한 겨를이 없었는데 明에서 副總兵 祖承訓이 3千兵力을 거느리고 東征하여 나오리라는 情報를 入手하게 되자 義州 行在地에서는 柳成龍을 接伴使로 하여 모든 군량 問題를 管掌케 하고 從事官 辛慶晋을 먼저 보내어 一路의 군량을 點閱케 하였다.

이에 앞서 洪世恭과 沈友勝, 洪宗祿의 세 사람을 調度使로 삼아 三路에 내려 보내고 이와 同時에 다음 사람들을 보내어 各驛站에서 糧草를 徵發케 하였다.

商山君 朴忠侃, 禮曹參判 成守益, 同知中樞府(從二品)事 李輅, 全城君 李準.

柳成龍은 「考功册」을 마련하여 軍糧에 대한 功績을 記錄케 하고 또 定州, 嘉山 등地에서 2千石을 모아 놓았으며 忠淸道 牙山倉의 稅米 1千2百石을 行在地에 보내려한 것을 定州 땅으로 돌려서 立岩浦에 回送케 하고 守門將 姜士雄으로 하여금 定州에 2百石, 嘉山에 2百石 安州에 8百石을 分送케 하였는데 定州는 日本軍에게 너무 가깝다 하여 淸川江上에서 배에 실은 채로 待機시키기로 하였다. 明에서는 鴨綠江線까지는 自國의 兵站給養에 依하였으나 朝鮮 國內 全地域에서의 給養은 모두 朝鮮自國 官民으로 하여금 調辨케 하였고 遼東鎭撫는 銀2萬兩을 풀어서 보태도록 하였다.

<寄齋史草下壬辰日錄二 壬辰六月初一日己丑條, 懲毖錄卷一, 卷六辰巳錄 一路軍粮措置緣由條>

이 當時에 여러곳의 官庫는 이미 亂民들에 依하여 掠取를 당하였는데 다만 定州牧使 李徵이 軍糧 3百石을 가지고 있었고 龜城府使 尹承吉이 그 所管 糧穀을 完全히 가지고 있으면서 補給에 힘쓰는 實情이었다.

<懲毖錄卷六辰巳錄馳啓條>

9月 12日에 遼東에서 사들인 木花 3百餘斤으로 옷을 만들어 力戰將士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宣祖實錄卷三十(二十五年九月戊辰條)>

군량問題는 提督 李如松의 大軍이 東征하기 시작하면서 부터 가장 큰 當面課題가 되기에 이르렀는데 朝廷에서 措置한 重要事項으로서는 다음 몇가지를 들 수 있다.

(1) 26年 正月 8日에 平壤을 收復하자 接伴使 李德馨을 보내 군량을 감독하여 조변케 하고 그 一方으로서는 戶曹判書 李誠中과 佐郎 金繼賢과 李自海등으로 하여금 東征軍을 따라 가면서 군량을 알선케 하고 또 朴忠侃(商山君)이 輸送을 재촉케 하였다.

(2) 前京畿監司인 權徵을 江華島 喬洞에 急히 보내어 從事官 黃致敬, 權悏과 中樞府經歷 申黯(암)등과 같이 協力하여 公私의 저축한 쌀을 徵發케 하고 또 忠淸, 全羅 兩道에서 올라오는 海上輸送을 독촉케 하였다.

(3) 司諫院正言인 黃克中으로 하여금 諸道의 官民들이 군량을 調辨하는 狀況을 按察케 하고 右議政 兪泓으로 하여금 모든 要務를 독찰케 하였다.

(4) 黃海道巡察使 柳永慶은 道內에서 얻을 수 있는 군량을 沿道에 모아 놓게 하고 平安道監司 李元翼은 防禦使 金應瑞등으로 하여금 平壤에서 以南으로 向하는 軍糧은 戰鬪를 감당치 못할 弱한 군사들을 뽑아서 수송을 담당케 하였다.

(5) 平壤 西쪽에서는 甑山縣과 咸從府, 그리고 三和縣의 세 곳에서 군량을 징발하여 水路로 黃海道로 보내어 東征軍의 開城 以南에 대한 進擊을 容易토록 하였다.

(6) 李如松이 開城에서 平壤으로 撤收할 때에는 淸川君 韓準과 巡察使 洪世恭이 一路의 군량을 담당토록 하였다.

(7) 4月 19日에 漢城을 奪還하고 5月부터 다시 南쪽으로 進擊하자 戶曹判書 李誠中을 내려 보내 군량조변에 힘쓰게 하였는데 그가 7月 7日에 咸昌縣에서 病死하자 現地에서 戶曹參判인 鄭光績을 그 代任으로 일을 맡아 보게 하고 또 다음과 같이 檢察使, 調度使등을 任命하여 現地에서 指導케 하였다.

忠州道方面——李山甫(吏曹判書), 姜籤(調度使)

全羅道 方面 ——金瓚(檢察使), 邊以中, 任發英(調度使)

이리하여 군량 數萬石을 모아서 軍에 給養하였고 朴弘老(弘文館副校理 從五品)는 兩道의 輸送을 감독토록 하였다.

(8) 慶尙監司 金玏(右道)과 韓孝純(左道)에게 諭示하여 道內에서도 군량을 모아 輸送케 하였다.

(9) 輸送을 촉진하기 위하여 兵曹佐郞(正六品) 朴文叙를 黃海道에 보내고 弘文館正字(正九品) 尹敬立을 京畿道에 보냈으며 義州의 군량은 護軍(正四品) 金友皐로 하여금 船便으로 보내게 하고 陸上에서는 牛馬夫役을 모아서 輸送을 돕게 하였다.

<宣祖實錄卷三十五 (二十六年二月己亥), 卷三十九 同年六月己酉, 懲毖錄卷十 辰巳錄 料理軍餉狀>

明나라 參將 吳惟忠은 經略 宋應昌이 보낸 連絡官인 徐一貫등에게 公文을 보내고 이어서 日本陣에 잡혀 갔다가 돌아온 王子 臨海君에게 軍糧事情의 苦痛을 직접 아뢰기를 『士卒들이 연달아 죽고 있으며 그 위에 善山府에서는 좋은 쌀을 감춰 두고 석은 쌀을 주었으며 鹽醬類는 먹을 수도 없나이다.』라고 그들의 窮情을 아뢰게 되었으므로 8月 23日에 備邊司에서는 慶尙監司로 하여금 善山府使를 調査한 뒤에 重杖으로 罰하게 하고 軍糧은 湖南에만 責任 지우지 말고 江原道의 嶺東 以南에 있는 郡縣과 忠淸道에서 食糧 事情이 좋은 邑에 命令하여 힘모아 運搬케 하는 同時에 檢察使 李山甫에 書面命令을 내려서 監督을 철저히 하라 하였다.

<宣祖實錄卷四十一 (二十六年八月甲辰條)>

이 당시에 朝鮮軍의 軍糧도 甚히 不足할 뿐 아니라 軍衣도 변변치 못하여 軍士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굶어 죽는 사람까지 있게 되니 宣祖는 特히 敎書를 내리고 都元帥 權慄에게 銀兩을 보내 여러 軍士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惠恤과 憫惻의 뜻을 表하게 하였다. 8月 26日에 慶尙監司인 韓孝純이 馳啓 하기를 『副總兵 劉綎의 군사는 秋氣가 漸次로 加하여지는데 두툼한 軍衣도 없으므로 날마다 돌아갈 생각만 더욱 하고 있소이다.』하였다.

朝廷에서는 忠淸道에 있는 貢納木綿(貢木)을 劉綎軍에게 供給하고 그 不足은 慶尙道 步兵의 價布(군사로 나가지 않는 사람이 바치는 木綿.)와 泰仁에 모아 놓은 木綿과 綿花로써 補充케 하였다. 또 그 나머지를 吳惟忠軍에게 支給하였으며 肅川에 있던 綿花도 또한 먼저 明 군사들에게 주고 그 不足한 것은 義州에서 사드린 綿花를 뒤에 보내주기로 하였다. <同上八月丙午 丁未條>

以上은 壬辰·癸巳作戰에 있어서의 後方補給의 槪況인데 다음에 丁酉·戊戌作戰時의 槪況을 살핀다면 30年 9月 2日 現在로 保有하고 있던 米, 豆, 雜穀의 量은 京中과 七道를 合하여

다음과 같으며 明 經理 楊鎬에게 이 數爻로써 報告키로 하였다.

米——22 萬 8 千 2 百 42 石(種子用 包 含)　　豆——22 萬 9 千 54 石

雜穀——48 萬 6 千 7 百 55 石　　<同上卷九十二 (三十年九月己丑條)>

經略 孫鑛의 要請에 依하여 다음과 같이 驛站을 加設하여 軍糧補給의 圓滑을 期하도록 하였다.

平安道——4 站　　慶尙, 忠淸, 黃海道——3 站　　全羅道, 京畿道——2 站

<同上卷八十七 (三十年四月庚辰壬午條)>

白衣從軍後에 다시 統制使를 拜한 李舜臣은 당시에 水軍의 軍糧事情이 蕩然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海路通行帖을 發行하여 大船은 3 石, 中船은 2 石, 小船은 1 石씩을 바치게 한 다음 「通行帖」을 받게 하여 沿海 公私船中에서 奸細人(間諜)을 찾아내기 쉽게 하는 同時에 兼하여 軍糧調達에 便케 하니 旬日(10餘日) 동안에 군량 1 萬餘石을 얻게 되었고 또 軍衣가 不足한 것도 補給하는 方途를 강구하여 效果를 거두었다.

30 年 12 月의 蔚山攻圍戰에 다음과 같이 군량 輸送을 擔當키 위하여 平安監司 韓應寅이 漢城에 모아 놓은 것을 以南地方으로 보내게 하였다.

左協——大 司 憲 尹承勳　　中協——吏曹參判 柳永慶

右協——戶曹參議 李時發　　西路——全羅監司 黃 愼

또 兵曹佐郞 南倬을 忠州와 兩湖에 내려 보내어서 쌀을 調査한 다음 조달하여 蔚山方面으로 보도내록 하였다.

<宣祖實錄卷九十五(三十年十二月己卯, 庚辰) 事大文軌卷二十四 軍門催調兵粮, 再造藩邦志卷四丁酉 十二月二十四, 二十五日, 朝野僉載卷二十九 丁酉三十年十二月二十四, 二十五日>

漢城附近에 駐屯하는 明 東征軍이 萬餘名에 達하고 軍資倉의 白米가 補給이 杜絶되려고 하니 朝廷에서는 31 年 2 月 9 日 甲子에 白川, 延安, 海州등地에 있던 官倉에서 貯藏米와 田稅로 받아드린 米豆를 빨리 船便으로 輸送케 하고 또 船舶을 故爲로 감춘 사람들의 罪를 다스리게 하였다.　　<宣祖實錄卷九十七(二月甲子, 乙丑條)>

明 督餉兵部侍郞 張養은 東征軍에 대한 軍糧補給問題가 매우 緊急하니 빨리 輸送토록 促進할 것을 朝廷에 要請하여 왔다.　　<同上 二月辛未條>

漢城에서 軍糧補給이 不充分하므로 다음과 같이 군사를 分散시켜서 防守케 하였다.

遊擊將 茅國器의 軍——→全州　　遊擊將 頗貴의 軍——→醴泉郡

<同上 二月癸酉條>

2 月 22 日에 다음과 같이 造船을 命令하여 海上運輸의 圓滑을 期하도록 하였다.

平 安 道 鐵 山——20 隻　　黃海道長山串(長淵郡)——10 隻

忠淸道安眠串(瑞山郡)——10 隻　　全羅道 邊山(扶安郡)——20隻 <同上 二月丁丑>

明 提督 麻貴는 日本軍이 大丘의 軍糧倉庫를 襲擊하리라는 情報를 듣고 다음과 같이 緊急措置하였다.

副總兵 解生——精兵 1千名으로 倉庫 防守

遊擊將 王國棟의 軍——尙州에 駐屯하여 待機 <同上 二月甲申>

明 東征軍이 漢城駐屯 以來 現在까지 消費한 軍糧의 石數는 다음과 같다.

京倉에서 補給한 我國의 米豆, 大麥——19萬6千9百28石

明에서 補給한 米豆——1萬6千5百22石

計 21萬3千4百50石

明 將官用 白米 數千石을 特히 豫備로 確保케 하였다 <宣祖實錄卷九十八 (三月戊子條)>

經理 楊鎬의 命令으로 4月8日에 龍山倉庫에 貯藏中인 米豆 1千1百80餘石을 忠州로 運搬케 하였다, <宣祖實錄卷九十九 (四月壬戌條)>

提督 劉綎이 全羅道로 군사를 거느리고 내려가려고 하니 朝廷에서는 7月 7日에 海西檢察使 柳根에게 指令하여 軍糧 15萬石을 미리 輸送토록 하였다. <同卷百二 (七月庚寅條)>

軍糧補給의 圓滑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擔當 責任者를 任命하였다.

慶尙右道調度使——鄭仁弘 慶尙左道調度使——李時彦

兩湖總管使——李光庭 四道(慶尙,忠淸,江原,咸鏡,)檢運使——柳永慶

<同上卷百二 (七月戊戌條)>

舟師從事官 權悏은 船舶 1百5隻으로써 天津에서 白米 7千4百餘石, 山東粟 1萬7千9百30餘石과 大豆 4千6百50餘石을 싣고 6月27日 壬午에 漢江으로 들어왔다.

<同上 卷百一 (六月)>

다음에 朝廷에서는 消費節約과 財政補充策으로 26年 3月5日에 釀酒禁止令을 내리고 闕內의 御供과 明 將領들을 接待하는 것 以外에는 各衙門과 그 밖의 모든 公私用務에 酒類를 使用하는 것을 禁斷케 하였다. <宣祖實錄卷三十六 (二十六年三月庚寅條)>

3月 14日에는 義禁府로 하여금 農牛를 屠殺하는 것을 禁하게 하였는데 8月 10日과 10月初 2日에도 같은 禁令을 내리고 司憲府로 하여금 禁斷痛治케 하였다.

<同上二十六年三月己巳, 卷四十一 (八月辛卯), 卷四十三 (十月壬午條)>

31年 5月16日에 宣祖는 軍糧과 官穀이 거의 없어져 가는 것을 근심하고 供上의 飯米를 半減토록 하는 同時에 戶曹로 하여금 여기에서 남게 되리라고 豫想하는 白米 50石을 放出키로 하였다. <同上卷百 (三十一年五月庚子)>

이러한 措置는 九牛一毛에 不過하겠지만 王者로서 飯米까지 節約하게 된 切迫한 事態를 打開하려면 特權層에 대한 果敢한 斷行措置가 必要하였으나 그러한 勇斷은 끝내 없었다.

27年 10月 10日에 端川 採銀官인 金繼先이 다음과 같은 銀鉛採得의 實績을 올렸으므로 敍職하여 賞하였다.

銀——5百餘兩 鉛——6百斤 鉛丸——2萬1百餘箇

(宣祖實錄卷五十六 (二十七年十月甲寅條)>

31年5月 11日에 鹽鐵에 課稅하여 軍用을 補充케 하였다. <同上 卷百 (三十一年五月乙未條)>

위에서 말한 것은 朝鮮軍을 中心으로 하는 東征軍 一部의 後方支援의 實情을 主로 宣祖實錄에서 찾아 본 것인데 三都를 陷沒당한 傷痍는 곧 軍糧缺乏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壬辰·癸巳作戰에 全羅道를 保全하고 西海岸에서의 制海權을 우리 쪽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 不幸中의 多幸이었다고 할 것이다. 또 丁酉·戊戌作戰에서는 日本軍이 大集團으로 稷山까지 北上하였다가 곧 南下하였으므로 漢城 以北은 간신히 死境을 벗어나게 되었으나 全羅道 全域과 慶尙道 南半部는 기각히는 困窮에 빠졌던 것이며 保布制와 保米制의 消極策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養兵의 根基가 補給力量에 있고 士氣昂揚의 捷徑이 또한 後方支援의 萬全에 있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眞理였다.

二, 日本軍의 後方 支援

日本軍이 釜山에 侵略하기 前해인 24年 12月에 豊臣秀吉은 九州에 있는 將領들이 管理하는 直轄地의 租米[이것을 藏納(KURA-OSAME)이라 하였다.]를 海路로 직접 名護屋에 보내어 쌓아놓도록 하였으며 이와 同時에 侵略軍 將領中에서 군량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大阪에서 우선 먼저 貸與하여 줄 것이라는 內訓을 내리게 하였다. 그는 또 爲替米(KAWASEMAI) 法을 規定하였으니 이는 九州와 中國地方의 大名(諸侯)中에서 米穀을 規定한 場所에 供出하면 京阪(京都 大阪)地方에서 必要한 同量의 米穀을 받음으로써 相互間의 輸送費와 時間節約을 期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또 博多와 名護屋에서 米穀의 標準價格을 定하였는데 당시의 市場價格보다도 多少 高價로 사들이게 함으로써 米穀의 集中을 容易케 하려는 것이었다. 위의 三든 施策은 日本國內에서의 給養確保策의 一端인데 그들이 不時에 쳐들어온 다음부터는 全的으로 侵略地內의 貯蓄米를 그대로 掠奪하여 自給케 하였으니 壬辰年 6月 8日에 安國寺惠瓊의 書面에 依한다면 당시 侵略地內의 各城에는 白米가 普通 4,5千石 以上이 있었고 雜穀은 그量을 헤아릴 수 없을 만치 있었다는 것이었으며, 6月 15日에 平壤城을 占領하였을 때에 城안에 10萬餘石의 곡식을 發見하였다는 것이었다. 同年 11月에 黑田長政은 黃海道에서 2萬石을 集積하여 豊臣秀吉로부터 칭찬을 받은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서도 아직도 군량이 不足하게 되면 直接 百姓들로부터 強制로 徵發을 恣行하였으며 당시 그네들은 朝鮮의 各道에서 保有하고 있던 米穀量을 모두 1千餘萬石으로 推算하고 있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慶尙道——70郡——2百80萬石	全羅道——58郡——2百26萬石
忠淸道——56郡——99萬石	京畿道——39郡——77萬石
江原道——26郡——40萬石	平安道——24郡——180萬石
黃海道——42郡——73萬石	咸鏡道——24郡——2百萬石

위에서 말한 郡의 數에는 州府郡縣을 모두 合친 것일 터이며 例를 든다면 京畿道가 39郡이

라 하지만 당시에는 11 郡(楊根, 安山, 安城, 高陽, 永平, 抱川, 交河, 加平, 朔寧, 麻田, 漣川)이었고 12 縣, 3牧(驪州, 楊州, 坡州), 12 府(漢城, 開城, 廣州, 利川, 竹山, 水原, 富平, 南陽, 仁川, 長湍, 江華, 喬洞,)가 있고 여기에 永宗鎭까지 合하여 39가 되는 것이다. 黃海道 42 郡은 23의 錯誤일 것이고 平安道의 24는 42의 錯誤인 듯 하다. 또 이 糧穀은 咸鏡道와 平安道의 量으로 보아 粟, 大豆등과 그 밖의 雜穀을 모두 合한 數量일 것이다.

釜山에서 平壤까지 사이에 配置된 日本軍의 警備部隊는 兵站業務까지 兼하였던 것인데 壬辰年 8月부터 癸巳年 初까지의 兵力槪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槪算하여 보아도 6萬名이 넘는 數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開寧縣, 漢城, 開城駐屯의 큰 部隊는 包含되지 않는 것이다.

釜山, 東萊——羽柴秀勝——8千名	梁山——谷衛友——1千名
密陽——別所吉治——5百名	大丘——稻葉貞通——5千6百名
仁同——木下重賢——2千3百名	善山——宮部長熙——1千4百名
尙州——戶田勝隆——3千9百名	聞慶——長曾我部元親——3千名
忠州——蜂須賀家政——7千2百名	陰城——生駒親正——5千5百名
竹山——福島正則——4千8百	陽智——中川秀政——3千名
牛峰——小早川秀包——4千名	平山, 龍泉, 白川——黑田長政——5千名
鳳山, 黃州——大友吉統——6千名	

이 밖에도 江原道, 咸鏡道 方面의 後方警備兵力을 合친다면 豊臣秀吉이 생각하지도 못하였을만치 많은 兵力을 釘着시키게 된 것이었는데 이 때 全羅道에는 侵略하지도 못하였던 時期인 것이다. 이렇게 많은 兵力을 配置하고서도 各地에서 벌떼같이 일어났던 義兵들의 挺身勇奮으로 말미암아 壬辰 9月에는 茂溪, 玄風등의 兵站線을 포기하게 되고 그들이 처음에 計劃하였던 靈山——昌寧——玄風——茂溪——星州의 線에서 洛東江의 水運을 利用하여 密陽과 開寧사이의 陸路를 打開하려던 策案을 挫折시키게 되었으니 이는 義兵將 郭再祐를 비롯한 義兵의 功이라 할 것이었다. 漢城近傍에서의 군량이 점차로 不足하게 되자 癸巳年 3月 10日부터는 宇喜多秀家, 毛利吉成등과 所屬未詳의 군사가 모두 萬餘名의 大掠奪集團을 組織하고 東大門에서 부터 楊州方面 一帶에까지 뛰쳐 나가 닥치는대로 糧穀強奪을 마음대로 하였으니 이 때에 漢城 장안에 駐留하고 있던 日本軍의 兵力이 5萬名을 넘었던 것이다.(여기에 集團이라 하였는데 作戰命令에 依하지 않은 行動部隊라는 뜻이다.)(附表第37參照)

同年 6月 29日에 晋州城이 陷落한 다음부터는 沿海地方에 18城寨를 쌓고 지키고 있었는데 이때 以後부터는 日本 本國에서 海上으로 군량을 輸送하여 自給한 듯 하며 豊臣秀吉이 規定한 諸城에 대한 군량 貯藏量의 一例로서 毛利秀元이 釜山, 東萊城, 釜山海峽(瀨戶口)등의 守備兵力 9千名에 10個月間 貯藏한 군량을 한 基準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

白米——1萬3千5百石　大豆——8百41石　木炭——千7百俵

이것을 白米로만 따져 본다면 1日1人當 5合의 計算이 되는 것이다. 甲午年 5月 24日에

豐臣秀吉은 釜山, 加德島, 東萊, 竹島등의 諸城의 貯藏米穀의 變質을 豫防하기 위하여 新舊米의 「交換蓄積」[積替(TSUMIKAE)라 하였다.]을 命令하였으며 福島正則과 毛利高政의 兩人이 이 業務를 主로 取扱하였다.

丁酉再侵에 있어서는 大部分의 物資取得을 掠奪에 依存하였으며 特히 秋收期를 前後하여 大規模의 匪賊行動을 敢行하였는 바 全羅道 侵略의 唯一한 目的이 군량掠奪이고, 強姦, 放火, 「上官狩」라 하는 地方官員의 虐殺을 일삼고 있었고 이와 併行하여 地方民衆들에게 公公然하게 賦課도 하였으니 丁酉年 10月初旬에 鍋島勝茂는 全羅道 康津縣에서 地租로써 白米 3千9百餘石과 大麥 27石餘를 課한 것이 그 一例인 것이다. 同年 12月 22日부터 다음해인 戊戌年 正月 4日까지 12日間에 걸친 蔚山籠城에서는 군량補給이 杜絶되어 日本兵들은 죽은 軍馬의 고기는 姑捨하고 壁紙와 壁土까지 먹었고 食水가 不足하여 九死一生의 苦難을 당하기도 하였다.

日本軍의 輸送은 海上과 河川에서는 船舶을, 그리고 陸上에서는 駄馬를 各各 備置하여 主要한 輸送과 通信으로 삼았으며 大阪과 名護屋間의 陸路는 다음과 같은 經路를 거치는 것이었다.

大阪—尼崎 (AMAGAZAKI)—兵庫 (HYŌGO)—明石(AKASHI)—姬路 (HIMEJI)—龍野 (TATSUNO)—岡山(OKAYAMA)—神邊(KANNABE)(廣島縣深安郡)—三原(MIHARA)— 廣島(HIROSHIMA)—岩國(IWAKUNI)—德山(TOKUYAMA—宮市(MIYAICHI)—長府(CHŌHU) — 下關(SHIMONOSEKI)를 지내서 小倉(KOKURA—蘆屋(ASHIYA)—赤間(AKAMA)—名島(NAJIMA)—博多(HAKATA)—唐津(KARATSU)에서 名護屋에 이르렀다. 또 海路로서는 다음과 같은 經路를 거치는 것을 例로 하였다.

大阪—兵庫—明石—牛窓(USHIMADO)[岡山縣邑久郡(OKU)郡]—鞆浦(TOMONOURA)(廣島縣沼隈郡) — 蒲刈(KABAKARI)(廣島縣賀茂郡島名)—二十日市(HATSUKAICHI)(廣島縣佐伯郡) —宮島(MIYAJIMA)—大畠瀨戶(ŌBATAKENO-SETO)(山口縣大島와 本陸과의 中間海路)—室津(MUROTSU)(山口縣熊毛郡) —三田尻(MITAJIRI)(山口縣波佐郡)를 經由하여 下關에 도착한 다음 小倉—若松(WAKAMATSU)(福岡縣)—蘆屋—宗像(MUNAKATA)(福岡縣宗像郡)—名島—博多—唐津에서 名護屋에 이르렀다. 또 名護屋과 釜山間의 航路는 壹岐島의 勝本(KATSUMOTO)港을 거쳐서 對馬島의 府中港[지금의 嚴原(IZUHARA)]을 건너온 다음 그 섬의 東쪽 海岸으로 부터 北部의 大浦(ŌURA), 또는 鰐浦(WANIURA), 佐須浦(SASUNOURA), 豐崎(TOYOZAKKI)등의 조그마한 港口로부터 天氣의 形便을 보아 釜山港에 直航하였던 것이다. 陸運用의 駄馬를 「傳馬」(TENMA), 또는 「次馬」(TSUGIUMA)라 하였는데 各驛站에 두었다가 乘用, 또는 運搬用으로 遞傳의 任務를 맡아보게 하였으며 그 荷物을 一駄라고 하였으니 白米 2俵와 같은 무게였다. 또 그 荷物을 半駄로 하고 乘用을 兼하는 것을 「乘掛馬」(NORIGAKEUMA)라고 불렀다.

船舶의 積載에는 「石積法」(KOKUZUKURINOHŌ)이라는 것을 規定하여 人馬, 兵器, 器材등을 모두 石數로 換算하는 것이었다.

壬辰年 8月에 關白 秀次는 大阪에서 名護屋까지 사이에 「遞傳馬」와 「遞傳夫」의 制度를 만들도록 命令하는 同時에 또 「遞船」의 制度를 規定하여 船賃등도 規格化하기에 이르렀으며 船夫는 沿岸에 있는 村落 百戶에 대하여 10名을 標準으로 하여 徵用하였던 것이다. 이 당시의 通信速度는 季節과 天候關係로 差가 많았으나 名護屋과 釜山間은 대체로 7日內外였고 名護屋과 京都間은 10日前後의 時日을 要하였다. 日本軍의 後方支援에 대하여서는 위의 몇가지 事項밖에는 文獻上 찾아볼 수 없었는데 대체로 豐臣秀吉의 後方措置가 당시의 狀況下에서는 適切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海上에서는 我軍의 活動으로 많은 艦船을 차례로 喪失한 결과 마침내 船腹不足으로 輸送의 不振을 免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한 各將領들은 自己 領國內에서의 自己 衣糧의 自家 補充이었으므로 名分이 서지 않는 싸움과 더불어 懷疑的感情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要素들이 士氣의 低下를 더욱 재촉하였을 것으로 推測하는 것이다.

三, 醫務(朝, 日, 明 三國軍)

먼저 東征軍과 朝鮮軍側의 醫務를 살펴 본다면 癸巳年 正月 27日에 碧蹄舘 戰鬪가 끝난 다음 明 東征軍안에는 馬疫이 크게 流行하였던 것을 알 수 있으니 懲毖錄 卷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때에 큰 비가 날마다 내렸으며 賊이 길가에 있는 모든 山을 불태웠으므로 山이 우뚝우뚝[兀兀(올올)]하여 말이 먹을 풀 한 포기 없었는데 겹쳐서 馬疫이 流行하여 數日동안에 쓰러진 말이 장차 萬匹을 넘으려 하였다.』는 것이다. 또 이해 5月에 東征軍이 漢城을 떠나 南下하려 하자 軍中에는 疾疫이 많았으며 戰馬가 쓰러지는 것도 많았으니 南兵 遊擊將인 錢世禎은 그의 著書인 征東實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5月初 2日에 我兵이 漢江을 건널새 日氣(天道)의 炎熱이 甚하였고 軍中에는 疾疫이 流行하여 戰馬의 쓰러지는 것이 많았으며 15日에 聞慶에 進攻하자 마침 四更인데 軍中의 疾疫으로 군사들이 일어나지도 못하였다. 黎明에 大軍이 모두 到着하자 提督公이 말하되 暑熱이 甚한데다가 士馬가 病들었으며 朝鮮에서는 運糧이 모자라서 持久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이 해 8月初 10日에 바친 李舜臣의 「陳倭情狀」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뢰고 있다. 『大槪 舟師들이 遠海에 留屯한지 벌써 五朔이오매 군사들의 마음도 풀어지고 勇氣도 꺾인 위에 流行病조차 크게 퍼지니 陣中의 軍兵들이 太半이나 傳染되어 죽는 사람이 續出할 뿐더러 軍糧마저 떨어져 계속해서 굶게 되고, 굶던 끝에 病이나면 반드시 죽으니, 定해 있는 군사 수효가 날로 減하고 달로 줄어지되 다시 補充할 사람도 없나이다. 臣이 거느린 水師만 가지고 보더라도 射手와 格軍(船夫)을 合쳐서 본시 수효가 6千2百餘名이옵는데 昨年과 今年에 들어서 戰死한 人員數와 또 2,3月 以後로부터 오늘까지에 病들어 죽은 者가 6百餘名이나 되옵니

다. 무릇 이들 죽은 사람들은 모두 健壯하고 활 잘 쏘며 배도 잘 부리는 士兵과 鮑作(복자기)들이옵니다.』하였다. 또 亂中日記 甲午年 正月 21日 庚子條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다.

『저녁녘에 鹿島萬戶(宋汝悰)가 와서 병들어 죽은 屍體 2百 14名을 거두어 묻었다 하다.』라 하였으니 病死者가 많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이 해 4月 20日에 올린「請罪閑防諸將狀」에서 말하기를『昨年 2月부터 시작하여 全羅左右道와 慶尙右道의 射夫와 船夫(格軍)를 整備하여 한곳에 모아 놓고 해가 넘도록 把守하였는데도 病死者가 많지 않았는데 今年 正月부터 陣中에 流行病(癘疫)이 크게 퍼져서 누워 앓는 사람이 서로 이었으므로 藥을 많이 準備하여서 百方으로 治療하건만 효험을 보는 者는 적고 죽는 者가 매우 많은데 그 中에서도 오래 앓는 사람은 배로 실어다 보냈나이다. 그런데 正月부터 2,3,4月까지 三道의 死亡者數와 患者數는 아래와 같나이다.

全羅左道 死亡者 4百 60名, 지금 앓는 사람은 1千 3百 73名.

全羅右道 死亡者 6百 3名, 지금 앓는 사람은 2百 22名.

忠淸道 死亡者 3百 51名, 지금 앓는 사람은 2百 86名.

三道를 合計하오면 死亡者數가 1千 7百 4名이고 患者數가 3千 7百 59名이옵니다.』하였다. 이어서「請送醫救病狀」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뢰고 있다.

『三道의 舟師가 한 陣에 모여 있어서 봄 부터 여름까지 사이에 流行病이 크게 퍼졌는데 藥品을 많이 準備하여 百方으로 治療하였사오나 効果를 본 사람은 적고 死亡者만 極히 많사옵니다. 無辜한 군사와 백성들이 나날이 줄어져서 많은 戰船이 움직이기 어렵게 되었사온데 이 危急한 때를 맞이하여 極히 걱정스럽나이다. 朝廷에서는 十分 참작하신 뒤에 좋은 醫員을 特命으로 내려보내셔서 救護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하였으니 얼마나 疾患으로 苦痛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東征軍에서도 流行病이 甚하였으니 崔慶男은 그의 著書인 亂中雜錄 卷二에서 말하기를,

『唐나라 流行病(唐疫)이 一國에 가득 퍼져서 大小男女로 앓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였다.

宣祖 30年 12月의 第1次 蔚山戰鬪때에는 明 東征軍側에 凍傷이 極甚하였으니, 懲毖錄 卷二에서 말하되『때마침 日氣가 몹씨 춥고 비가 와서 군사들의 손발이 얼어 터지고 이윽고 敵軍이 陸路로 와서 救援하매 經理(楊鎬)는 敵이 이 틈을 탈 것을 겁내어 갑자기 回軍하여 돌아갔다.』하였으니 蔚山城 攻圍가 如意치 못하였던 原因의 하나로서 이 凍傷을 꼽을 수 있을 것이며 申欽撰인 象村集 本朝被兵志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모양을 자세하게 記錄하고 있다.

『비가 온 다음 부터 北風이 연달아 불어서 군사들이 모두 손가락이 떨어지고 戰馬가 굶주리고 얼어서 그냥 쓰러지게 되매 군사의 威容이 초라(索然)하여져서 그 士氣가 全혀 떨치

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本戰亂中에 病死한 사람가운데서 主要한 人物들을 추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禮曹判書	權克智	25年 4月 28日	留都大將右議政	李陽元(斷食自決)	25年 5月 12日
漢城府判尹	朴崇元	25年 8月 4日	吏曹參議	李純仁	25年 8月 7日
王子	信城君珝	25年 11月 5日	慶尙右兵使	金沔	26年 3月 11日
慶尙右監司	金誠一	26年 4月 29日	原左議政	金貴榮	26年 5月 29日
義州牧使	李幼澄	26年 5月 29日	義兵將	金垓	26年 6月 19日
戶曹判書	李誠中	26年 7月 7日	大司成	禹性傳	26年 7月 19日
寅城府院君	鄭澈	26年 12月 18日	前司諫	朴東賢	27年 4月 17日
撫軍司檢察使	李山甫	27年 4月 30日	益城君	洪聖民	27年 6月 7日
左議政	兪泓	27年 12月 25日	潘城府院君夫人(王妃의生母)		28年 4月 18日
河原君	鋥(王의兄)	30年 10月 6日	右參贊	成渾	31年 6月 7日
平安調度使	洪世恭	31年 7月 11日	咸鏡監司	尹卓然	27年 9月 22

한편 東征軍中에서도 다음과 같은 病死者가 있었다.

遊擊將	周弘謨	27年 4月 23日	遊擊將	擺賽	31年 3月未詳日
監察御史	陳效	32年 3月 4日 歸國途中			

다음으로 日本軍의 醫務를 살펴보건대 이 當時에 日本軍의 陣中에 많이 流行되었던 疾病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있었다.

(1) 瘧(OKORI)—間歇熱이라고도 하니 오늘날의 마라리아와 같은 것이고 四國, 九州등에 많았으며 原菌의 種類에 따라서 三日熱, 四日熱, 惡性 마라리아 등으로 區分하였다.

(2) 疫病(EKIBYŌ)—오늘날의 膓窒扶斯의 一種인 듯 하다.

(3) 痢病(RIBYŌ)—赤痢, 膓炎등인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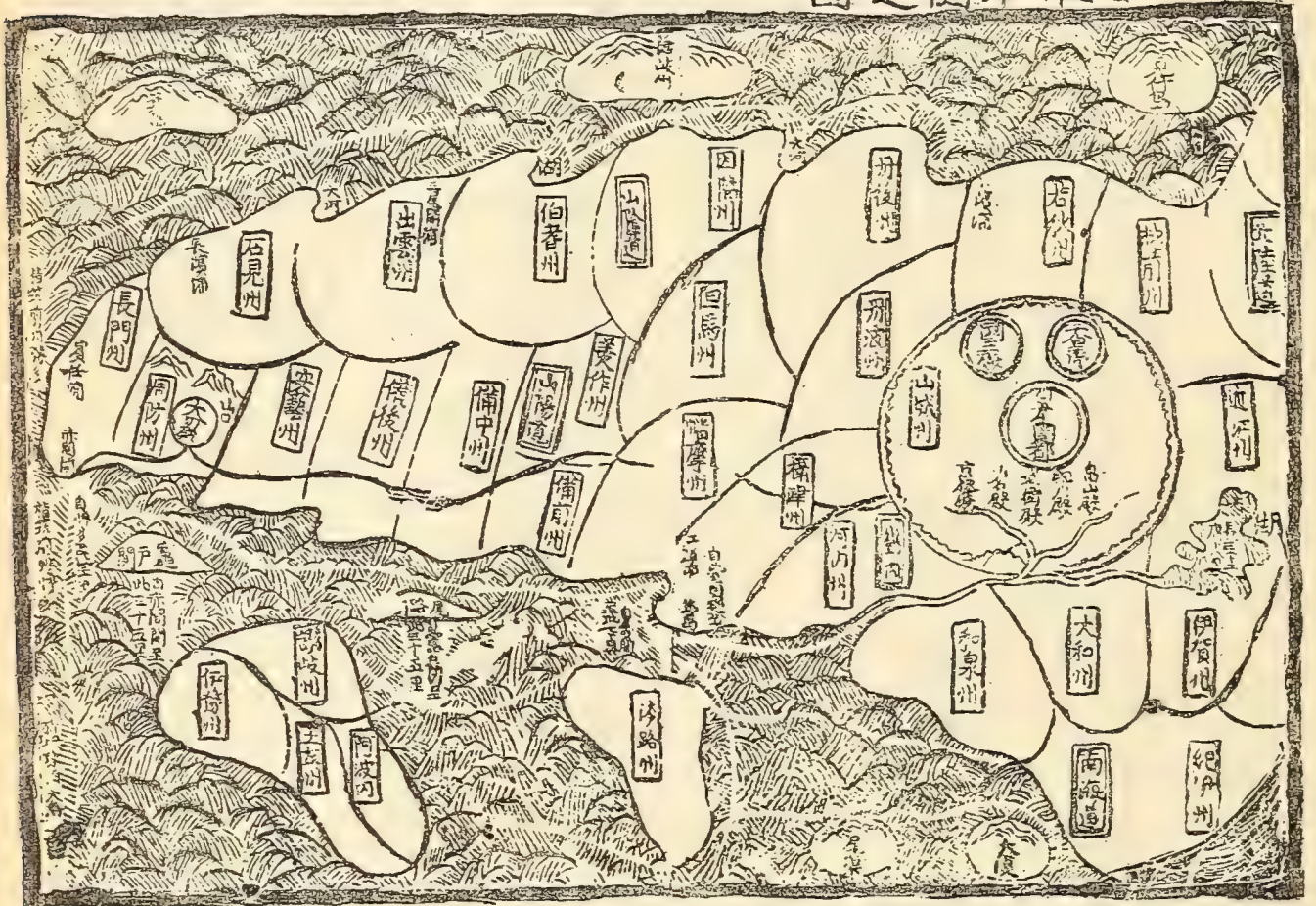
그 밖에도 夜盲症에 걸린 者도 많았으며 脚氣(KAKKE) 患者도 많고 死亡率이 十中九였다고 伊達家文書에서 傳하고 있다.

蔚山籠城 당시의 그들은 戰死者밖에 餓死者와 凍死者도 많았고 負傷者中의 死亡者도 또한 많았다고 淺野家文書와 大河內秀元記등에서 그 慘相을 傳하고 있다. 癸巳年 4月 18日부터 그들이 漢城에서 撤退할 때에는 病傷者를 그대로 남겨 놓고 南下하였으며 그들 病傷者는 龍山倉에 集團으로 收容되었는데 小西行長이 經略 宋應昌에게 請하여 朝鮮에서 給養과 救護를 담당케 하였으며 戊戌年 11月에 總退却할 때에도 病傷者들을 倭橋城과 四川城등에 남겨 놓고그대로 돌아가버렸으니 日本軍의 醫務的 措置가 未備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宣祖實錄卷三十八 宣祖二十六年五月乙丑, 經略復國要編卷八 檄李提督, 朝野僉載卷二十九 戊戌九月二十六日 同十一月十九日>

本戰役中에 陣中에서 病死한 主要한 將領은 대략 다음과 같다.

羽柴 秀勝——27歲——壬辰年 9月 9日死亡　加藤 光泰——57歲——癸巳年 8月29日同上
島津 久保——21歲——癸巳年 9月 8日同上　長谷川秀一——未詳——甲午年 3月　同上
五島 純玄——33歲——甲午年 7月28日同上

小早川隆景은 病으로 먼저 日本으로 돌아간 다음 戊戌年 6月 12日 國內에서 죽었으며 그 밖에 陣中에서 病으로 休養하고 있던 主要한 將領으로서는 毛利輝元, 吉川廣家, 蜂須賀 家正, 黑田如水, 小早川秀秋등이 있었다.

<海東諸國紀 所載>

위에서 軍事政策과 軍事行政의 대강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專門分野에서 본다면 더욱 파고 들어가야 할 事項이 많을 것이지만 이는 뜻있는 새로운 學者의 硏鑽에 맡기지 않을 수 없다. 著者로서는 日本軍의 人事異動에 關한 事項과 東征軍의 艦船에 關한 事項, 그리고 各軍의 後方支援에 있어서의 數値的인 硏究가 더구나 未備한 것을 느끼며 또한 이것의 糾明이 장차 必要하리라고 믿는 바이다.

第十八章 若干의 觀察

摘 要

本篇의 綜合的 硏究를 끝마치려 하는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本戰役全般에 關한 著者의 所見을 말하고자 한다. 먼저 宣祖의 治政에 있어 어찌하여 國勢가 沈滯되고 國防力이 不振하였던가 하는 因由를 따져 본 다음에 本役에 있어서 다른 戰爭때보다 特異한 要素가 무엇인가 하는 事項을 糾明하여 보고 마지막으로 本役에서 얻은 바 主要한 敎訓이 무엇이었던가를 回想하여 보려 한다.

第1節 國防力 不振의 因由 (主로 朝鮮軍)

要 旨

20餘年에 걸친 宣祖의 治政中에 크게 싹터서 限없이 번지기 시작한 分黨派爭과 紀綱의 紊亂에 대하여서는 이미 第三章 第2節의 第二項「開戰의 間接的 原因」에서 말하였으므로 여기에 再論하지 않을 것이며, 社會制度에서 오는 몇가지 弊端과 거기에 따라서 派生되는 道義觀의 墮落등 惡現象을 비롯하여 輕武思想으로 武備가 弱化된 채로 無事主義로 敵不來만을 믿고 있던 安逸姑息한 面을 살펴보고 事大思想이 비록 不可避하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大明의 藩邦으로 스스로 諦觀한 나머지 그의 그늘밑에 依支하면서 다만 王冠을 保存하고 貴族門閥을 維持하려는데 汲汲하였던 依他觀念을 파헤쳐 보려고 한다. 끝으로, 몇몇 朝臣들의 諫言이 있었는바 그 中에는 國家 經綸上 좋은 提案도 있었지만 國王과 一部 朝臣들의 받아들이는 바 되지 못한 實情을 밝히고 嶄新한 實踐의 努力이 적었던 것을 말한 다음 國防에 대한 自主的인 强化政策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였던 眞相을 指摘하고자 한다.

一, 社會制度의 弊端과 道義觀의 低弱

이미 第十六章 第2節에서 말한 바와 같이 部曲制度는 新羅時代에서 高麗時代에 이르러 더욱 늘어나기만 하고 賤鄕人과 罪人, 그리고 賤業者들은 奴婢와 同列로 代代에 걸쳐 賤待를 받기 마련이었던 것인데 이것이 近朝鮮 初葉부터 차츰 解放이 되기는 하였지만, 넘기 힘든 담은 社會各分野에 쌓여져 있고, 건너기 힘든 늪은 여기저기에 가로놓여 있어서, 兩班은 中人을, 中人은 常民을, 그리고 常民은 賤民을 눈아래로만 보고 兵役과 賦役은 兩班에게는 免除되었으며 地租 以外의 모든 稅도 또한 控除되었으니 군사라는 것이 다만 賤한 存在로 보여지고 따라서 그 힘이 弱하게 된 것도 當然한 노릇이였다. 栗谷 李珥가 兵曹判書로 있을 당시인 宣祖 16年 4月 中旬에 時弊를 極陳하되, 東西分黨의 對立을 鎭定調和하여 積弊를 없새고, 貢案을 고치며, 軍籍을 整理하고, 州와 縣을 併省하여 줄이도록 할 것이며, 監司를 오래도록 留任케 하고, 庶子와 孼子를 서로 許通케 하며 公私賤으로서 武才가 있는 사람을 良民으로 만들어서 당시 藩胡가 시끄럽던 咸鏡道에 入防시킬 것을 아뢴 일이 있었으나 弘文館과 兩司에서는 이러한 것이 모두 國典(나라의 法則)을 어기는 것이라 하여 庶孼 許通과 公私賤 放良을 反

對하고 어디까지나 支配層의 獨占을 強化하려고만 하였으니 栗谷같은 偉材가 王의 두터운 信任을 받고서도 이미 固疾化된 이 病弊를 어찌 하지 못하고 말았다. 또 같은 때에 刑曹判書로 있던 姜暹이 上疏하여 犯罪人들에게 軍糧을 바치게 하여 罪를 免하게 한다는 이른바 「納粟免罪法」을 施行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三司에서 邦刑(나라의 刑法)을 어지럽힌다 하여 反對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하여 果斷性 있는 改革이라곤 하나도 보지 못하다가 宣祖 22年 10月에는 이러한 賤民들의 不平의 틈을 타서 鄭汝立의 逆謀事件이 터지게 되고 여기에 관련하여 獄事가 濫行됨으로써 많은 朝臣들이 마침내 黨爭의 一環으로 말려 들어 犧牲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因한 國政의 沈滯와 民生의 不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 事件 槪要는 이미 第十六章 第4節에서 말한대로, 처음에는 社會에서 버림 받던 僧侶와 賤民들이 中心이 되었던 것이고 그 뒤 이에 대한 아무런 反省도 없었던 탓으로 本役初에 漢城안에서의 亂民暴行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再造藩邦志卷一에서는 王이 漢城을 버리고 西幸할 때의 慘景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敦義門을 나와서 沙峴에 다다르니 東쪽 하늘이 비로소 밝기 시작하였는데 城中을 바라보자 불이 일어나 煙氣와 火焰이 이미 하늘 높이 올라 있었다. 이것은 亂民들이 먼저 掌隷院과 刑曹를 불태운 것이니 그 곳에는 公私奴婢의 文籍이 있었던 까닭이었다. 이들은 또 內帑庫에 들어가 金帛을 掠奪하였으며 景福宮과 昌德宮, 그리고 昌慶宮을 불태워서 하나도 남기지않았다.

이리하여 歷代의 寶玩과 文武樓에 所藏되었던 書籍과 春秋舘의 各朝實錄, 그밖에 他庫에 所藏되었던 前朝의 史草와 承政院日記등이 모두 잿더미가 되어 버렸다. 藝文舘檢閱인 趙存世, 朴鼎賢, 任就正과 金善餘등도 또한 本舘史草를 불태워 버리고 城을 넘어서 도망쳐 버렸으며 이에 亂民들은 또 王子 臨海君의 邸宅과 前兵曹判書 洪汝淳의 집을 불살라 버렸다.』는 것이다. 王의 長子인 臨海君은 素行이 不良하여 王世子 册封에서도 빠질 만큼 民弊도 많이 끼쳤던 것이었다.

寄齋史草下 壬辰雜事에 亂民들의 행패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車駕가 지나가는 곳 마다 下人들의 作弊가 平時의 몇倍나 되었으며 宦者와 奴輩들이 百官을 보기를 奴僕보다도 더욱 甚히 하였으니 金岩에 다다르던 날에는 餠膳을 掠奪하고 御所에 까지 함부로 侵入하였으되 宣傳官과 그 밖의 모든 武官들이 모두 이를 禁하지 못하였으므로 王에게 바칠 飮食까지 빼앗기게 되었다. 新溪縣令인 丁胤祉는 하는 수 없이 거짓 땅에 엎드려서 눈을 부릅뜨고 氣絶한 모양을 한 다음 그의 下人으로 하여금 달려가서 큰소리로 외치게 하기를 「아무개가 갑자기 사람에게 맞아 죽었다.」하니 王은 크게 놀라 急히 그 作黨한 무리들을 잡아서 베게 하여 겨우 그 자리를 무마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라는 것은 꾀가 없어서는 안될 것이라, 오늘과 같은 騷亂이 있을 때에는 이 사람이 아니었드라면 能히 禁止할 수가 없었으리라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現象은 平素에 賤待를 받

고 있던 中人, 常人, 賤民들이 정신 없이 도망쳐 다니는 兩班族屬들에 대하여 憤풀이로써 저지른 行悖인 것이고 玉貫子, 金貫子의 賊이라고 도리어 업수이 여기려는 한낱 反撥이었던 것이다.

朝廷의 固陋한 老物들도 戰勢不利에 따르는 이러한 階級的 發怒와 反撥을 무마하고 緩和하여야 할 空氣를 알아차리게 된 것인지 庶孽許通과 公私賤放良을 인색하나마 차츰 施行하였으니 本役中에 있던 槪況을 더듬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作戰 第 1 年 인25 年 5 月 8 日에 庶孽禁軍을 許通하여 庶子의 子孫들이라도 內禁衛에 敍授케 하였으며 7 月 18 日에는 私奴 順伊와 蔣良등이 明나라 擺撥兒(遞傳兵, 通信連絡兵)을 따라 順安의 水冷川에 가서 한 사람은 日本軍의 머리를 베고 또 한 사람은 將의 말을 奪取하니 總兵 楊紹勳이 賞銀 30 兩과 段子 3 疋을 주고 遼東察院의 李時孳가 또한 銀兩을 주어 표창하였으므로 備邊司에서 免賤을 請하고 王이 允許하여 賤民에서 良民이 되게 하였다. 8 月 9 日에 王世子는 高陽땅 私奴인 明福과 明會의 兄弟가 日本兵의 머리 16 級을 베었으므로 許通케 하고 羽林衛에 敍授하였다. 11 月 12 日에 備邊司에서는 贈參判 趙憲이 第 2 次 錦山 戰鬪에서 父子가 모두 力戰하여 죽고 다른 嫡子가 없었으므로 妾의 아들인 完堵를 免賤許通케 하여 良民으로 대우하여 趙憲의 忠死를 慰勞케 하였으며 同月 16 日에 忠淸道 義兵將인 李山謙은 그의 아버지인 李之菡의 妾의 아들로써 衆望이 있었으므로 許通하여 良民으로 하였다. 25 年만 하여도 이 程度로 極히 限定되었던 것인데 作戰 第 2 年인 26 年에 들어가서는 2 月 26 日에 公私賤으로서 從軍하는 사람은 當初의 事目(規定)대로 良民으로 許通하기로 하고 또 庶孽이라도 納粟事目에 依하여 5 石이면 兼司僕・羽林衛, 또는 西班軍職을 주고 15 石이면 許通케 하고, 20 石이면 前所生까지 許通케 하였으니 이렇게 하여 百石이면 東班六品을 授職키로 하였다. <宣祖實錄卷三十五 宣祖二十六年二月辛亥>

6 月 14 日에는 公私賤을 試才하여 三醫司雜科의 例에 따라 그 入格者를 良民으로 하고 羽林衛에 屬하게 하였으며 作戰 第 5 年인 29 年 2 月 23 日에는 訓練都監의 行伍에 屬하게 한 奴僕들의 主人에게 賞을 주어 慰勞케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賤民의 障壁은 좀처럼 무너지지 않고 이 戰役을 끝마쳤으니 經國大典, 大典通編, 大典會通등으로 묶어 놓은 이러한 制令은 그 弊害를 느끼면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는 듯 하였다.

經國大典에서 規定한 限品敍用의 一例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文武官 二品 以上의 良妾의 子孫——正三品에 限한다.
文武官 二品 以上의 賤妾의 子孫——正五品에 限한다.
文武官 六品 以上의 良妾의 子孫——正四品에 限한다.
文武官 六品 以上의 賤妾의 子孫——正六品에 限한다.

이렇게 하여 같은 妾이라도 良民과 賤民에 따라서 그 子孫의 待遇가 判異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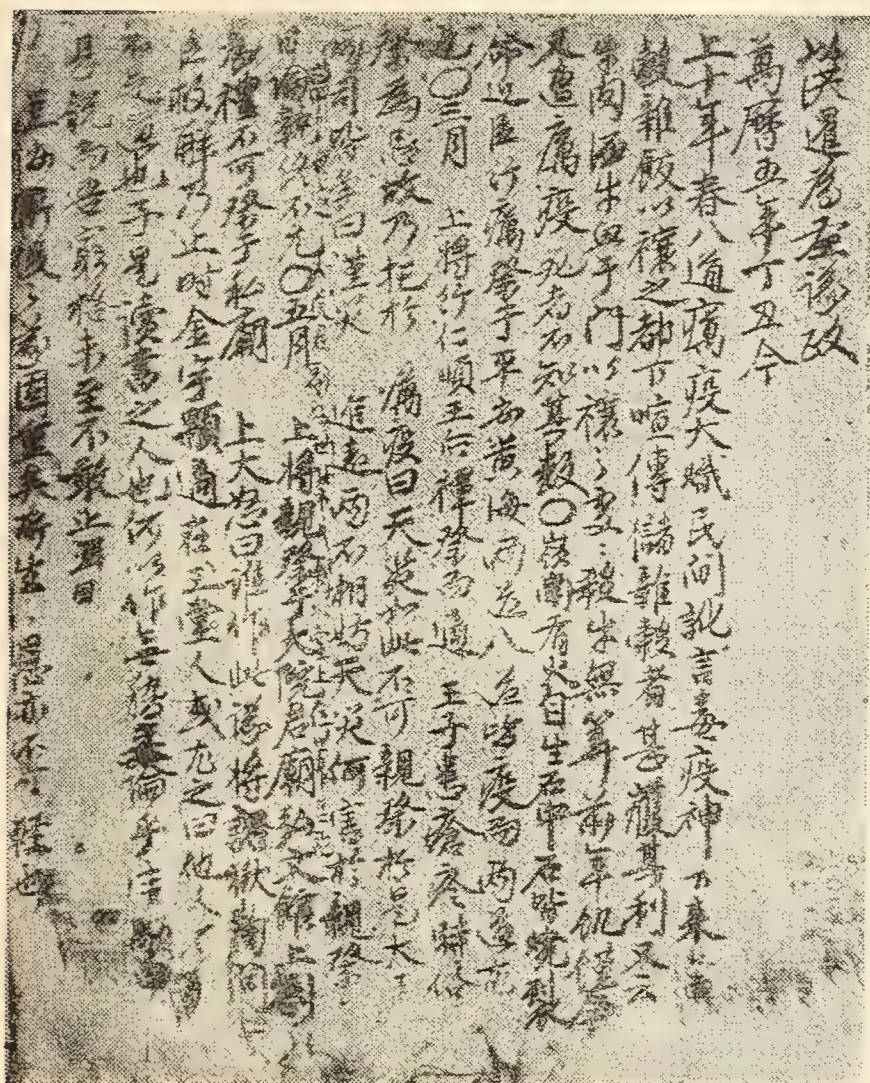
栗谷 李珥가 本役 10 年前에 이미 指摘하고 警鍾을 울린 바 있었으나 아무런 成果를 거두

지 못하고 말았는데 그는 強調하기를 『君主는 나라에 依하고 나라는 百姓에 依하여있사온지라, 그러므로 百官을 設하고 庶務를 나눔은 오직 民生을 爲한 것이오니 民이 이미 어지러우면 나라는 장차 어디에 依支할 것이오니까.』하고 民生을 救하기 위하여서는 다섯가지 弊端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主張하여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第一은 一族切隣의 弊端이오니 한 사람의 백성이 賦役과 稅金을 내지 않고 逃亡친다면 그 一家와 가까운 이웃이 대신하여 바쳐야 한다는 弊習이온바 한 사람의 도망에 대하여 그 患難이 千戶에 까지 미치게 되오면 마지막에는 百姓이 한 사람도 없어질 것이온즉 그러므로 前年의 百戶의 마을이 지금은 10戶도 못되게 될 것이옵니다. 이 弊端을 고치려면 四方의 郡邑에 令을 내려 그 簿籍을 檢査하시고 사실상 도망한 絶戶가 있다면 곧 그 이름을 削除하여 一族과 이웃을 侵害하지 말아야 할 것이옵니다. 이제 絶戶된 軍額에 대하여 그 一族만을 侵害하여 價布를 徵收한다 할지라도 만약 事變이 있어 군사를 出動시킬 때에는 一族이 槍을 메고 나오지도 못할 것이옵고 價布가 군사를 募集하지도 못할 것이오니 무엇때문에 虛簿를 아껴서 백성들에게 實害를 받게 하려는 것이오니까.』하였다. 그는 또 아뢰되,

『第二는 進上煩重의 弊端이오니 예전에는 聖主는 한 사람으로써 天下를 다스리게는 하였사오나 天下로써 한 사람을 받들게 하지는 않았나이다. 細項(욱)을 進上하지 않는 것이 없고 水陸의 産物을 빠짐 없이 찾아서 바치게 하고 있으나, 御饌에 바칠만한 것을 골라서 進上케 하오면 몇가지 되지 않을 것이옵니다. 進上의 目錄을 다시 講究하시어 不緊한 品目은 모두 깎아버리시고 上供에 適合한 것이라도 量이 너무 많은 것은 減縮토록 할 것이옵니다.』라고 하였으며 이어서 아뢰기를 『第三은 貢物防納의 弊端이오니 世道가 점점 낮아지고 弊習이 날로 불어서 姦猾한 吏屬들이 百物을 私備하여 두었다가 官司를 愚弄하고 백성을 가로막아, 백성은 비록 精美한 물건을 가졌을지라도 끝까지 抑制하여 바로 貢納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저희들의 私備物로 먼저 바치고나서는 百倍의 價格을 백성에게 要求하여도, 國法이 퇴폐하여 그것을 禁止할 수가 없이 되온지 이미 오래되어 國用은 毫末도 增加되지 않고 民間은 벌써 生計가 空虛하게 되었나이다.』하였고 다시 아뢰되 『第四는 役事不均의 弊端이오니 所謂 正軍, 保率, 羅將, 皂(조)隷등의 應役하는 모든 種類는 或은 長番도 있고, 또 或은 二番으로 나누어 지기도 하고, 或은 三番乃至 六七番으로 나누어지기도 하여 어떤 사람은 侵暴에 견딜 수 없어 도망도 치고, 또 어떤 사람은 生業을 편안히 하여 自保할 수도 있는 터이온데, 같은 赤子로 어찌 이같이 差別이 있사오며 어찌 憂樂이 同一하지 못하오니까. 마땅히 긴데를 잘라서 짧은 데를 補充하시어 一切의 役事로 하여금 모두 順番으로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均齊하고 方正하게 하실 것이오며 甚히 苦되거나 또 甚히 수월하다는 弊가 없도록 할 것이옵니다.』라고 말한 다음 마지막으로 다시 아뢰기를,

『第五는 吏胥誅求의 弊端이오니 權姦의 濁亂으로 부터 上下가 다만 貨賄만을 일삼아서 官爵도 賄賂(회노)가 아니면 陞進할 수 없고 訴訟도 賄賂가 아니면 勝訴할 수 없으며 罪囚도 賄賂가

아니면 放免되지 못하나니 百僚는 일일이 法度에 어기는 짓만 하고, 吏胥는 法律條文으로 弄奸만 하게 만들어 오직 貨賄의 等級으로 取捨의 標準을 삼기 때문에 一皀(조)와 一隷(皂隷는 官署의 사환이다)라도 약간의 所管만 있으면 반드시 討索을 일삼게 되었나이다. 예전에는 府吏와 胥徒가 모두 一定한 祿이 있었사오나 지금의 吏胥는 俸給이 따로 없기 때문에 討索을 하지 않고서는 飢寒을 免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야 말로 우리 國制의 未盡한 點이라 할 것이옵니다.』라고 위의 五件을 例示한 다음 其他事項으로 다음과 같이 添加하고 있다.

<經筵日記 (下册宣祖十年條), 李珥自筆(縱30糎, 橫24.8糎), 忠北堤川郡寒水面權益相氏所藏寫本>

『田畝(무)의 數量이 改正되지 않아 陳荒한 땅이 收稅를 免하지 못하고 佛敎寺院의 寺領(釋氏의 敎 區)이 그대로 있어 遊閑하는 사람이 田畝에 돌아가지 않으며 不時의 需要를 모조리 市民에게 負擔(辨出)시키기 때문에 市民이 등을 벗기우고, 橫侵의 毒이 坊內에 濫及되기 때문에 坊內가 뼈를 갉히우고, 이름없는 雜稅가 列邑에 濫發하여 徵斂이 貢賦보다 더 重하여지고, 從母之法이 良女에게는 適用되지 않아 父가 賤이고 母가 良이면 딸은 어머니를 따라 良이 되어야 할터인데 이것을 許容치않아서 良民이 私賤으로 轉換되고 不要不急의 官員(冗官)이 많아 虛費가 늘어나고 民戶는 줄어드는데 都邑만 너무 많게 되었으니 今世의 弊端을 다 말한다면 日力이 오히려 모자랄 것이옵니다. 지금에 있어서 今世의 政治를 變更하지 않으시오면 堯舜이 위에 있고 皐巙(皐는 皐陶이니 舜의 臣으로 五刑을 밝히고 五敎를 도왔으며 巙는 巙巙이니 元나라 文宗때의 大學士로서 順帝를 도와 經筵에서 啓沃하는 바가 많았고 翰林學士承旨로 文忠으로 卒諡한 名臣)가 밑에 있다 할지라도 治亂에 所用이 없을 것이오니 몇해가 못가서 民生은 반드시 魚爛土崩이 될 것이옵니다. 더구나 크게 걱정되는 것은 지금의 民力이 마치 死境에 든 사람의 氣息이 奄奄한 것 같아서 平日에도 維持하기 어렵거늘, 만약 外亂이 南北에서 일어난다면 이는 마치 疾風이 落葉을 쓸어버림과 같이 될 것이오니 백성은 그만 두고라도 宗社가 어떻게 될

것이오니까. 생각이 이에 미치매 慟哭이 아니 날 수 없나이다.」하였는데 그는 10年前에 벌써 本役을 미리 짐작하고 痛歎한 것이었으니 先見之明이 뛰어났던 偉材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뒤에 朝臣中에는 이러한 높은 眼識의 人物이 없어서 本役中에 湖南 軍兵의 亂을 비롯하여 鞠景仁의 叛逆, 土賊의 蠢動, 宋儒眞과 李夢鶴의 叛亂이 그치지 않고 일어났으니 이 모두가 社會制度에서 오는 必然的인 反撥이오, 道義感의 墮落을 如實히 立證하는 惡現象이라 할 것이다.

二, 輕武思想과 安逸姑息 (原文 147參照)

이미 第十六章 第4節에서 말한대로 幾千胡虜의 侵犯을 받고서도, 朝野上下가 얼마나 크게 근심을 했으며 심지어는 몇百名의 出動部隊에 대한 沿路의 給養마저 제대로 되지 못하여 守令들을 處斬하게 되는 事態까지 일어나게 되었으니 나라 모양이 거의 無防備狀態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自主的인 獨立國家로서의 체모가 말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藩胡叛亂에 대하여 이미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 보았는데 이 당시 栗谷 李珥가 國防의 將來를 근심하고 十萬養兵論을 말한 것은 一般이 잘 알고 있는 바이지만 輕武思想과 安逸性과 姑息을 다시 指摘하여 본다면 隱峰野史別錄에 이르되『壬辰 10年前에 栗谷이 鵝溪(李山海), 東岡(金宇顒), 西厓(柳成龍)등 諸公이 經筵에 들어갔는데 栗谷이 아뢰기를「國勢가 不振하온데 장차 닥쳐올 禍災를 미리 염려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10萬군사를 養成하시고 都城에 2萬을 두고 여러 道에 各各 1萬을 두어 一旦 緩急할 때에 미리 대비하셔야 할것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없이 세월을 보내고(恬嬉度日)공연하게 지내는 것이 習性이 되어(玩愒成習)一朝에 變이 일어나면 市民들을 몰아서 싸우는 것을 免할 길이 없사온 즉 그렇게 되면 大事는 虛事가 되는 것이옵니다.」하였다. 그러나 左右에 있던 사람은 한사람도 讚揚하는 사람이 없었다. 西厓가 말하되「有事時에 臨하여 잘 計謀하면 좋을 것이옵니다.」하고 이것을 말리고 退出하였는데 西厓가 栗谷에게 말하기를「방금 太平無事할 때에는 經席에서 힘쓰는 것을 勸할 것이고 聖學으로써 先務로 할 것이며 軍旅는 急務가 아니온데 公은 어떠한 所見이 있어서 저와 相議하지도 않고 스스로 이와 같은 것을 陳達하였소.」하니 栗谷이 말하되「俗儒가 어찌하여 時務를 알 것이오.」하면서 웃고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李珥의 이러한 主張에 대하여서는 宣祖實錄등 正史에는 없고 李廷龜撰인 李珥의 行狀에서 말하고 있다. 이 說을 主張하였다는 時期가 틀림없이 宣祖 15年頃이라면 이미 硏究한대로 藩胡의 叛亂이 시끄럽던 때이니 반드시 對倭策만은 아니었을 것이리라. 그러나 나라 形便이 과연 十萬養兵을 急速히 實現할 수 있었을까 速斷키는 어려운 그러한 世代였으니 서글프다 아니할 수 없는 일이였다. 그런데 李珥는 牛溪 成渾과 龜峰 宋翼弼을 비롯하여 恩菴 朴淳과 松江 鄭澈등 西人 領袖들과 道義로써 交分이 있었고 晩年에는 行道와 濟世로써 스스로의 任務를 삼았는 바 朝廷의 潰裂을 깊이 근심하였으니 그밖의 또 하나는 軍籍

(軍人의 名簿)의 頹廢요, 또 셋째로는 貢案(貢物의 簿 册)의 繁冗이다. 그는 力說하기를 첫째로 朝廷에서는 반드시 東西人의 分裂을 씻어버린 다음 保合하고 和同하여 王事에 힘쓸 것이오, 去短하고 取長하여 深法苛論하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軍籍에 있어서는 老弱한 사람을 陶汰하는 同時에 精勇한 人士를 뽑아내어 10萬名의 兵力을 充當한다면 可히 後日의 緩急之用에 쓸 수 있으리라 하였다. 또 貢案에 있어서는 燕山朝 以後로 부터 날마다 增加하여 백성이 조금도 生活이 安定할 수 없고 또한 郡邑에서의 貢物이 거의가 모두 그 郡邑의 生產物이 아니며 모두 이것을 사들여서 바치는 터이므로 이제 만일에 一大 改革을 斷行하지 않으면 장차 支撑해 나갈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力說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朝臣들이 모두 不可타 하여 反對하였으며 柳成龍도 極力 이것을 말리니 李珥는 大闕에서 물러 나온 다음에 柳成龍에게 이르되『國勢가 不振한지 오래건만 俗儒들이 時局을 認識하지 못하고 있는바 公도 또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이오.』하였다. 그 뒤부터 이에 이르도록 軍政과 民力에 收拾할 길이 없어지게 되고 柳成龍이 本役을 당하게 되자 李珥의 先見之明에 歎服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였다.

<李珥 筆蹟>

壬辰亂이 끝난 後 柳成龍은 戰亂을 回顧하여 쓴 著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壬辰년 봄에 慶尙右兵使 曹大坤이 年老하여 策應하기 困難하므로 朝廷에서는 李鎰로 하여금 大坤을 대신케 할 것을 請하여 먼저 내려가게 하였으며 邊防을 준비토록 하였으나 창졸한 사이에 主兵之官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 하여 行하여지지 못하였으며 또 兩南(嶺南 湖南)地方의 「制勝方略」이라는 制度가 군사를 分散使用하게 되어 適當하지 못하였으며 또 祖宗傳來의 「鎭管之制」를 다시 施行하여 鱗次的으로 變事에 待備케 하였으나 慶尙道에서는 施行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倭兵들은 鳥銃을 잘 使用하였으나 我國에서는 다만 勝字銃筒만 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對敵할 수 없었다. 이때에 倭國이 바친 바 鳥銃이 새로이 到着하였으므로 訓練副正인 李鳳으로 하여금 漢城의 上番軍士들에게 鳥銃使用法을 修習케 하도록 啓請하였으나 朝廷에서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모두 너무 迂遠한 일이라 하여 오랫동안 우물쭈물하다가 필경 아무런 效果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으매 그렇다면 倭兵이 오지 않는다 하여 防備를 소홀히 한 것은 實로 臣의 本意가 아니노라.』하였다. <西厓文集卷十六 雜著書壬辰事始末示兒輩>

이러한 당시의 朝廷안의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색다른 建議를 한 사람도 있기는 하였는데 王이 平壤에서 義州로 가기에 앞서서 國王이 親征하여 敵을 물리치겠다는 敎書를 내리도록 朝廷에 啓請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곧 康陵參奉인 李貴였다.

그는 行在地에 가서 아뢰기를 『賊勢가 크게 떨치온 바 만일에 一大壯擧가 없이는 그 勢를 막아낼 道理가 없사온즉 臣이 생각하옵건대 빨리 親征하시는 敎書를 내리시고 軍民을 激勵하시어 大小의 모든 臣僚로 하여금 臨津과 大灘을 힘을 다하여 지키도록 할 것이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賊을 마음대로 쳐 돌아다니게 하여 곧 浿江(大同江)을 넘어오게 할 것이오니 宗社(國家)의 禍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오리다.』하여 王의 親征之敎를 請하였다. 王은 備邊司에 命하여 의논한 다음 그 意見을 아뢰도록 하매 尹斗壽는 李貴를 불러서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알고 敢히 親征之議를 發說하는고.』 하니 李貴는 대답하되 『王께서 피난하시어 亡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찌 親征하시어 나라를 保存함만 같으리까. 돌이켜 보건대 이제 朝臣들은 코를 골면서 낮잠만 자고 한가스럽게 엎드려만 있으면서 (鼾睡閑臥) 一謀나 一計로서 敵을 막아서 물리칠 생각조차 하지 않사오니 그렇다면 앉아서 나라가 亡하는 것을 기다리시겠다는 것이오니까.』하였다. 尹斗壽는 이 말에 더욱 怒氣만 드높이고 말았다고 하는 事由를 宣廟中興誌 卷一에서 傳하고 있다. 國王이 義州一角에 까지 蒙塵한 뒤에 備邊司에서는 漢城合攻之計를 세우기도 하고,(實錄卷三十二, 二十五年十一月三日己未條) 決戰에 대하여 朝臣들을 모아놓고 의논도 하였는데(同十一月十九日乙亥條) 이미 기울어지고 시들어버린 大勢와 積年의 弊毒을 一朝一夕에 어찌할 道理는 없었다. 다만 左議政 尹斗壽가 王에게 아뢰어서 宣川 郭山에서 부터 海路로 南쪽으로 내려갈 것을 請하고 遼東으로 亡命하는 것을 反對한 것(實錄卷二十七, 二十五年六月二十六日甲寅條)만이 겨우 慰勞가 되는 程度의 것이었다. 이러한 戰亂통에서도 아직도 뿌리깊이 박힌 武將賤視의 固疾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이러한 輕武思想의 一端이라고 볼 수 있는 한 事例를 寄齋史草에서 찾을 수 있으니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宣祖는 이 날(壬辰12月24日)三摠兵(李如栢, 楊元, 張世爵)을 골고루 만나보시고 行在宮에 돌아오셨는데 將官으로서 같이 따라온 사람으로서는 摠兵 李平胡, 副摠兵 祖承訓, 高策, 李芳春이 있고, 參將으로서 張奇功, 方時春, 方時輝, 李寧, 郭夢徵, 査大受가 있고, 遊擊으로서 谷遂, 葛逢夏, 王問, 吳惟忠, 戚金, 韓宗功, 李如梅, 楊紹先, 樓大受, 李文成등 모두 40餘將이 있였다. 宣祖는 모두 골고루 引見하시려고 하였으나 都承旨인 柳根은 아뢰기를 許多한 將官을 어찌 能히 모두 引見할 수 있으리까, 다만 大將만 만나 보시면 足할 것이옵니다. 하였는데 尹斗壽(左議政)는 不可不 引見하셔야 한다고 여러번 아뢰었으나 宣祖는 氣力이 없고 疲困하다 하여 引見하지 못하였다. 明나라 東征軍 여러 將官들은 모두 怒하였으며 提督도 또한 疑訝하게 생각하였던 것인데 宣祖는 뒤늦게 그러한 말을 듣고 다시 引見하려고 하였으나 그 다음날 아침 일찌기 提督一行이 南쪽으로 進軍하였으므로 드디어 나머지 將官들을 引見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義州一角까지 蒙塵하여 갔던 國王이 어제는 손이 발이 되도록 哀乞伏乞하면서 東征救援을 빌다가 오늘에는 王者의 威風만을 固執하고 救援軍 將領들을 一一이 引見하지도 않았던 것이니, 이로써 보더라도 日本軍의 徹底한 覇道와 武斷, 그리고 輕文에

對決하려던 朝, 明 兩國이, 王道와 文治, 그리고 輕武一邊倒로써 呻吟하기에 이른 그 처량한 모습의 基因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栗谷 李珥는 萬言封事에서 軍政의 改革과 內外의 防備策을 아뢰되『我國兵制가 많이 闕한 바 있어 오직 兵, 水使, 僉使, 萬戶, 權管등의 官을 만들었을 뿐이고 이들의 生活을 保障할 準備가 없으므로 그것을 士卒에게 取辦하게 하니 邊將의 侵漁하는 弊가 여기서 부터 시작하였나이다. 法制가 점점 풀어지매 貪暴은 더욱 盛하고 더구나 銓選이 不公平하여 債帥(돈을 내고 되는 장수)가 연달아 생겨서 公言하기를 某鎭의 將은 그 값이 얼마요, 某堡의 官은 그 값이 얼마라고 하고 있사오니 그들은 다만 軍卒을 벗겨서 發身할 줄만 알 뿐이며 다른 일은 무엇을 생각 하겠나이까. 士卒이 留防함에 고생되어 綿布를 바치고 戍役(一線勤務)을 免코자 하는 者에게는 기뻐하여 이에 좇아보내고 그 留鎭者는 언제나 견디지 못할 役을 맡기고 감당치 못할 負擔을 지워서 기름불 속에서 다리고 찌는 듯 하니 사람이 木石이 아닌 바에야 누가 견디어 낼 수 있겠나이까. 수자리(戍)를 免한 者가 그의 집에서 便하게 起居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 하지 않음이 없어서 모두 그것을 본받으니 만약 戍役을 免하는 者가 많아서 鎭堡가 空虛하게 되면, 반드시 近處의 居民을 꾀어 點考할 때에 假名으로 대신 받게 하오니 巡按하는 官吏는 오직 그 數를 채워 볼 뿐이고 누가 眞僞를 물을 것이오니까. 戍役을 免하는 것은 비록 便하다 할지라도 綿布를 求하기는 어려운 까닭으로, 여러번 留防한 집은 이미 財產이 없어지고 支撑하지 못하여 도망하는 者가 뒤를 이었사오며, 다음 해에 帳簿에 依하여 戍役을 독촉하면 本邑에서는 반드시 그 一族으로써 役에 당하게 하고, 一族이 모두 도망치면 侵害가 一族의 또 一族에 까지 미치게 되니, 禍患이 蔓延하여 끝이 없을 것이고, 바야흐로 남아있는 백성이 없어지게 될 것이옵니다. 이른바 債帥들은 意氣揚揚하여 바리로 싣고 집에 돌아와 그 妻妾에게 자랑하니 貪者는 이리하여 富가 되고 權門에 賂物 드려 또 陞授되기를 도모하고 賤者는 이리하여 貴하게 되오나, 지금 論者는 이 弊를 改革코자 생각하지 않고 군인의 數가 不足한 것만을 걱정하고 있사옵니다. 臣의 생각으로서는 設使 군인의 數를 모조리 채워도 이 弊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邊將들이 얻는바 綿布를 덧붙일 뿐이온데 不過하고 防衛에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으로 믿는 바이옵니다.』하였다. 또 그는 節儉을 重히 여기고 奢侈의 風을 고칠 것을 아뢰어 말하기를『風俗의 奢侈함이 今日보다 甚한 때가 없사오니 飮食은 배를 채움이 아니라 食卓을 가득 채워 서로 자랑함이오, 衣服은 몸을 가리움이 아니라 華美케 하여 서로 다투고 있음이니 한 床의 費用은 可히 굶는 者의 數月의 糧이 될 것이며, 한벌 옷의 費用은 可히 헐벗은 者의 10人의 衣가 될 것이며, 10人이 밭을 갈아 1人을 먹임에 不足한 데 밭가는 者는 적고 먹는 者는 많으며, 10人이 베(麻)를 짜서 1人을 입힘에 不足한데 베짜는 者는 적고 입는 者는 많으니 어찌하여 民이 굶지 않고 헐벗지 않겠읍니까. 古人이 말하되 奢侈의 害는 天災보다도 甚하다 하였사오니 어찌 참말이 아니겠나이까. 만약 上監께서 부디 먼저 節儉에 힘써 이 弊害를 救하지 않으신다면 비록 刑法이 嚴하고 假使 號令이 秋霜같으시드라도 필경 徒勞가 될 것이오며 아무런 利

益이 없을 것이옵니다. 臣이 일찌기 故老의 말을 기억하오니 「成宗께서 病에 누워 大臣이 入問하여 본 즉, 寢所의 덮은 것은 茶褐色 명주이불이 떨어지게 되였어도 改備치 아니하셨더라.」하니 듣는 者가 지금까지 欽仰하여 마지 않사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殿下께서는 命하시와 祖宗朝의 供奉規例와 宮中用度를 考査케 하시옵고, 한결 같이 祖宗의 法舊과 儉約의 制를 따라 中外에 모범을 드리워서 民間의 奢侈風習을 고치시와 사람으로 하여금 盛饌을 베푸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고 美服 입음을 또한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여 天財를 아끼고 民力을 펴게 하소서.』하였다. 尙武의 風이 없던 당시의 上下風潮가 사회에 흘러서 나라의 威重이 없었던 것은 이 萬言封事 以後에도 繼續되어 아무런 改革의 成果를 보지 못하였으며 도리어 더욱 甚하여졌던 것이니 輕武思想에 뿌리 박은 安逸姑息性의 病弊가 참으로 컸던 것이다.

三, 事大思想과 他力 依存 〔原文 第148 參照〕

明나라를 父母之邦으로 믿고 宗主國으로 섬기는 동안에 朝鮮의 朝野上下가 받게 된 그 間의 苦衷이 얼마나 莫甚하였으며 宗系의 辨誣로 朝鮮 歷代의 君王들이 받은 바 心的 物的 打擊이 얼마나 極甚하였던가에 대하여서는 이미 말하였으므로 여기에 다시 反復하지 않으려니와 史卷을 펼쳐 볼 때마다 明나라를 上國, 大明國이라 하고 明兵을 天兵이라 하고 皇帝를 天子라고 하였던 우리 祖上들의 事大思想은 그 好不好와 願不願을 莫論하고 可謂 宿命的인 것이었다고 하겠지만 이러한 思考方式이 마침내 他力依存性으로 固疾化하고 더욱 肥大하여졌다는 것도 決코 偶然한 일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神宗皇帝때부터는 明나라에서 特記할 만한 橫暴를 부리지 않아서 宣祖初政에서는 아무런 憂患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고 使臣의 往來로써 敬愛를 敦篤히 하였다고 보지만 朝野官民들이 屬國 또는 藩邦으로서 항상 明나라의 눈치만을 살피고 지내왔던 그 心情에 깊은 同情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國王宣祖는 極端的인 事大思想의 所有者로서 그의 머리 위에는 오직 父母之邦 大明이 있을 뿐이고 그의 눈안에는 다만 王冠과 寶印, 그리고 愛妾과 王子가 있었을 따름으로 모두 自己中心의 利己主義로써 꽉 차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漢城을 버리는데 조금도 躊躇하지 않았고 장차 遼東으로 도망쳐 가려 할때 먼저 左議政 尹斗壽의 反對를 받았으나 마침내 追從者들의 同調를 얻게 되어 事前交涉을 시작하였는데 禮曹判書 尹根壽가 그의 吩咐를 받들고 鴨綠江을 건너서 摠兵官인 佟養正을 만나 뵈려 寬奠堡에 가는 途中에 마침 摠兵을 만나게 되니 摠兵이 하는 말이 『이제 皇帝의 聖旨를 받들었는 바 勅하시기를 朝鮮國王이 賊軍의 攻擊을 받아 內附를 願하는지라 朕이 아랫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仁愛(恤小之仁)를 생각하고 또 義理에 있어서도 拒絕할 수 없으므로 寬奠堡에 도착한다면 먼저 房室을 準備할 것이며 役員 10名을 거느리고 나가서 渡江하는 날에 맞아들인 다음 마음 놓고 留하시게 하라는 吩咐였소. 1日의 蔬菜는 銀四錢으로 하고 猪羊을 各 一口씩 준비하여 麵飯등 飮食을 되도록 豐足케 하고 衣食의 缺乏하는 걱정이 없도록 하시라는 勅諭가 내리셨소. 또 從官과 使用

人은 合하여 百名으로 하고 婦人은 20名으로 限定하여 따라서 江을 건너 오게 하여 援護에 過誤가 없도록 하라는 聖旨가 내렸소이다.』하였다. 尹根壽는 이 말을 듣고 돌아와서 王에게 아뢰었는 바(朴東亮著 寄齋史草下, 壬辰日錄三參照)이 얼마나 서글픈 노릇이었던가. 이에 王도 차마 斷行치 못하고 또 敵情이 多少 누그러졌으므로 마침내 義州久住之計를 세우게 되었으니 나라의 체모를 겨우 保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가 徹頭徹尾한 事大思想과 他力依存主義의 所有者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父母로 섬기고 있던 당시의 明나라 神宗顯皇帝는 10歲에 帝位에 올라 이해에는 30歲였는데 당시 41歲였던 王은 이해 7月 2日에 明나라에서 보낸 皇帝의 使臣인 夏時와 黃應暘, 徐一貫등 세사람을 義州 龍灣館으로 찾아보고 來援을 哭訴한 것을 비롯하여 副應敎 沈喜壽, 告急使 尹又新, 謝恩使 申點, 司諫 李幼澄, 工曹判書 韓應寅, 陳奏使 鄭崐壽등이 연달아 來援을 간청한 결과 明나라 朝廷에서는 마침내 朝議에서 東征軍을 보내기로 決定하게 되었으니 歷代王의 忠誠스러운 事大思想의 커다란 結實이라고 보아야 할 터이지만 역시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리하여 이해 9月 3日에 行人司 行人인 薛藩이 皇帝의 勅使로서 勅諭를 받들고 나왔는 바 그 大要에 이르기를 『그대 나라가 世世로 東藩을 지키고 항상 恭順을 다하여 衣冠文物이 樂土라고 號稱하였도다.』하였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매우 懇切하게 말하였으니 亦是 事大의 餘德이라 할 것이었다. 『近者에 듣자 하니 倭奴가 猖獗하여 크게 侵凌을 恣行하여 王城을 攻陷하고 平壤을 掠占하여 生民이 塗炭에 빠지고 遠近이 騷然하여 國王이 西쪽 海濱에 避한 다음 草莽에 奔越한다는 바 이제 그 淪蕩을 생각하면 朕의 마음이 惻然하도다. 昨日에 聲息의 急함을 傳하여 듣고 이미 勅命을 邊臣에게 내려 發兵救援케 하는 同時에 文武大臣 二員을 보내 遼陽 各鎭의 精兵 10萬을 統率케 하여 나가서 討賊을 돕게 하나니 그대 나라의 兵馬와 더불어 前後에서 挾攻케 하여 期於코 凶殘을 勦滅토록 힘씀으로서 遺種이 없도록 할지로다. 朕이 天命을 받아 華夷에 君主가 되매 方今 萬國이 모두 平安하고 四海가 모두 고요하거늘, 이 小醜가 蠢動하고 敢히 橫行하려 하니 다시 東南邊海의 諸鎭에 勅令하고 暹羅와 琉球등 여러나라에 宣諭하여 兵力 數 10萬을 모아 日本을 같이 치고 巢窟을 直擣하여 鯨鯢로 하여금 목을 바치게 함으로써 海波를 晏然케 하려 하노니 爵賞茂典에 朕이 또 무엇을 아끼랴.』하였으며 이어서 말하기를 『대저 先世의 國土(土宇)를 恢復하는 것은 是爲大孝요, 君父의 患難을 急救하는 것은 是爲至忠이라, 그대 나라의 君臣은 원시 禮義를 아나니 반드시 能히 朕의 마음을 仰體하여 故(舊)物을 光復하고 國王으로 하여금 都城에 凱還케 하여 宗廟社稷을 保全하고 길이 藩屛을 지킬 수 있으리로다. 바라건대 朕이 恤遠字小(먼곳의 조그만 것 까지 사랑함)의 뜻으로써 慰勞할지어다.』하였다.(文書第7號 參照)

朝廷에서는 君臣이 모두 皇恩에 感激하여 勅書를 八道에 頒示하고 또 한글(諺書)로 譯出하여 백성들에게도 널리 示達케 하였다. 그런데 다음해인 宣祖 26年 11月에 가서 明나라 朝廷에서는 朝鮮의 衰弱不振을 근심하고 論議가 많았는데 給事中인 魏學曾이 上本하여 東事를 論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要旨의 一條가 있었다.

『朝鮮이 이미 지키지 못하여서 中國의 근심을 남기게 되었으매 그 나라를 分割하여 2,3으로 하고 그 倭를 잘 지키는 者를 보아서 이것을 준 다음, 그로 하여금 措置케 하여써 中國의 藩蔽로 할 것이옵니다.』하였다. 이에 明나라 朝廷에서는 兵部에 내려서 이것을 의논케 하였는 바 尙書 石星은 이것이 不可타는 見解를 갖고 이에 行人司行人인 司憲을 보내어 奉勅宣諭케 하고 兼하여 朝鮮國의 事情을 視察케 하였다. 司憲은 이해 閏 11月 12日에 入京하였고 王은 慕華舘에 나가 迎勅하였는데 그 勅諭의 要旨는 다음과 같았다.

『倭奴가 한번 쳐들어오자 王京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原野에 暴骨하게 되고 宗社가 廢墟로 되었나니 이제 돌이켜 喪敗의 原因을 살펴 보건대, 어찌 모두 適切타 하리오. 或者는 말하기를 王이 細娛를 偸玩하고 群小를 信惑하였으며 民命을 不恤하고 軍實을 不修하였으므로 海盜를 啓侮케 하였다는 바, 이미 一朝의 일이 아니어늘 臣下에 忠言하는 者 없었다고 하니 前者之覆을 後車가 어찌 삼가지 않을손가. 그대 祖上의 福을 惠蒙하고 我師의 戰勝之威를 얻어서 王으로 하여금 君臣父子가 서로 保全할 수 있었으니 어찌 幸甚이 아니랴.』하며 王의 施政이 適當하지 못한 것을 暗示한 다음 이어서 말하되 『朕이 王을 보기를 비록 外藩이라 稱할지라도 朝聘와 禮文밖에는 원시 王에게 一兵一役을 시끄럽게 하지 않았으며 오늘의 일은 다만 大義로서 發憤하였을 뿐이오. 衰存式微(國勢가 衰弱하여 民生이 辛苦하는 것)는 오로지 王에게만 責任 지울 것이 아니라 朕의 不德의 所致라 할지로다. 大兵이 바야흐로 撤退하려 하니 王은 이제부터 스스로 나라에 들어가서 다스릴지로다. 尺寸의 땅이라도 朕은 상관치 않겠노라. 다시 또한 越國救援하는 것을 常事로 여기고 그대 나라가 이것을 믿고 設備를 하지 않는다면 곳곳에 불집을 놓게 되어 다시 또 졸지에 他變이 있을지라도 朕은 王을 위하여 다시 도모할 수 없을 것인 즉 이것을 미리 말하여 警戒케 하노라.』하여 매우 峻嚴하게 勅諭하였으며 다시 이어서 말하되 『外侮가 다시 일어날 때에는 病傷者를 慰恤하고 流散者를 招慕할지며 멀리까지 斥候하고 城隍을 修繕할 것이며 甲兵을 奬勵하고 倉廩을 豐足케 할 지로다. 또 酒色에 淫蕩하지 말 것이고 遊樂에 荒蕩하지 말지며 偏信獨任으로 下情을 不明케 하지 말고 峻刑苦役으로 民怨을 激化시키지 말지로다. 바라건대 殷憂(큰 근심이라)憤恥之後라야 先業(先王의 大業)을 可興하고 大讐를 可雪할지니 이는 곧 이제부터의 存亡治亂을 左右하는 바이며 이는 王에게 달렸으되 朕에게 달린 것이 아니니 삼가고 삼갈지어다. 그러므로 여기에 勅諭하노라.』는 것이니 嚴父가 어린애 달래듯 하였던 것이다. (文書 第17號)王은 秋霜烈日같은 이 勅諭로 말미암아 病으로써 國事를 다스리지 못할 뜻을 勅使에게 말하였다가 慰留를 받고 禪位問題는 끝마치고 말았는데 自己 힘이 모자라서 남의 도움을 請하고 여기에 依支하여 寄生한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는가. 그러므로 正二品職의 知中樞府事로서 前兵曹判書였던 金應南을 비롯하여 從二品職의 戶曹參判인 閔汝慶과 正三品職의 義州牧使 黃璡이 明나라의 經略糧餉인 艾維新에 依하여 決杖을 받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으며(宣祖實錄卷三十五, 宣祖二十六二月一日丙戌條) 經略贊劃인 丁應泰는 忠州에서 대접이 틀렸다고 하여 忠淸監司의 從事官 宋英耇를 몽둥이로 치고 聞慶縣에 이르러

서는 人夫들이 도망친 것을 화내어 燕岐縣監 李文蕡과 聞慶縣監 洪涵으로 하여금 人夫대신으로 그의 轎子를 메고 가게까지 하였다. <宣祖實錄卷百六(三十一年十一月十六日丁酉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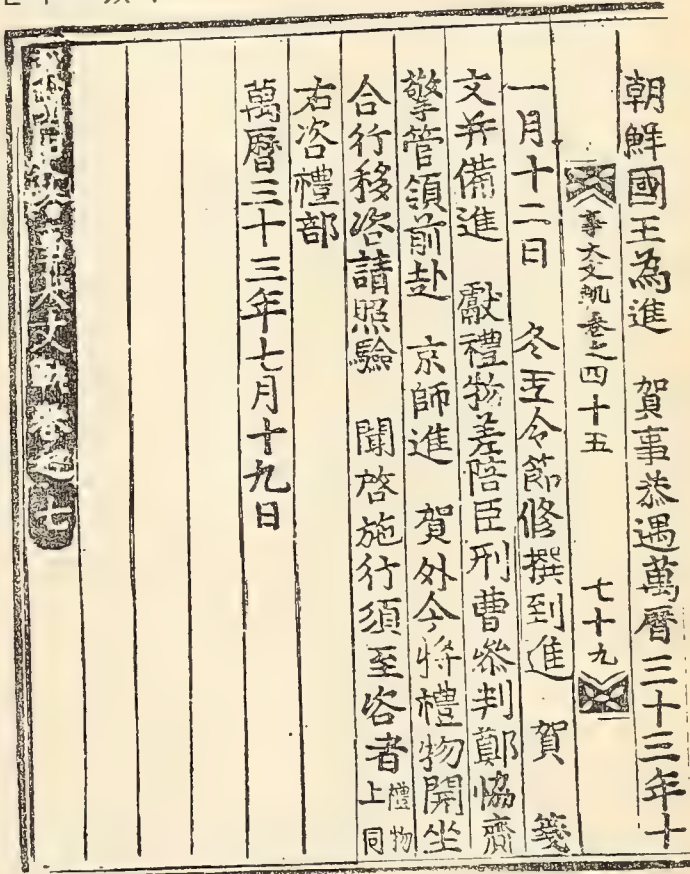
이러한 眼下無人의 狂態는 明나라 文武官과 兵卒들 있는 곳에는 항상 엿볼 수 있었고 웃지 못할 寸劇을 벌이고 있었다. 이 丁應泰라는 者는 朝鮮의 築城은 他日의 叛計를 위하여 미리 準備하는 것이라고까지 誣告하게 되니 朝廷에서는 陳奏使 崔天健과 書記官 慶暹을 보내어 奏文을 올려 그 억울함을 呼訴하기도 하였다.

<月沙集卷二十二 朝鮮國辨誣奏文 三十一年六月一日條>

25年 6月에 遼東巡按御史인 李時孳가 指揮 宋國臣을 보내 朝鮮이 日本의 嚮導를 한다고 疑心하여 調査케 한 것은 원시 朝鮮의 敗退하는 모양이 너무 빠르고 맥이 없었으므로 그렇게 疑心할 법도 한 일이로되 築城強化를 이렇게 보는 明나라를 上典으로 모시고 父母之邦이라고 尊大하여야 했던 우리 祖上들이 매우 가엾기 짝이 없다 할 것이다. 事大思想의 한 事例로서 尹國馨은 甲辰漫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朝鮮國王爲進 賀事恭遇萬曆三十三年十
(事大文軌卷之四十五) 七十九
一月十二日 冬至令節修撰到進 賀箋
文并備進 獻禮物差陪臣刑曹參判鄭協齎
擎管領前赴 京師進 賀外今將禮物開坐
合行移咨請照驗 聞啓施行須至咨者 禮物上同
右咨禮部
萬曆三十三年七月十九日

<事大文軌(卷之四十五), 著者所藏>

『中國사람들이 關王(關羽)을 존경하여 國家에서 廟를 세우는 外에도 家家戶戶마다 畫像을 붙이지 않는 집이 없으며 日常生活에 있어서 起居 飮食에 반드시 제사를 지내고 兵馬를 내 보낼 때에는 더욱 鄭重히 제사지내는 것이었다. 戊戌년의 봄과 여름 사이에 明나라 군사가 大兵力으로 나오게 되자 南大門 밖에 있는 都祭庫峴에 關王廟를 세우고 大小의 將官들이 參拜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聖上(宣祖)까지도 行禮하시도록 請하게 되었는바, 己亥年에 凱旋하여 군사를 돌이켜 돌아가게 되자 明나라 皇帝의 聖旨를 받들었다 하고 東大門 밖에 廟를 세우도록 指令한 다음 官員 한 사람을 머물러 두게 하여 役事를 감독케 하였다. 明나라에서 비록 代金을 내보내준다고는 하였지만 그 額數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工役이 많이 들었으며 이것은 모두 우리나라의 財力으로써 支辨되어 萬兩 以上이나 所要되었다. 그리하여 役事가 끝난 다음 國家에서 官員을 두어서 지키게 하였다. 都祭庫峴에 세운 것은 흙으로 만든 塑像이었고 東大門밖에 만든 것은 銅像이었다. 關王은 비록 그가 忠勇之將이라고는 하지만 그 몸이 敵의 손에 죽었으며 後世에 남긴 바 아무런 功도 없는 사람인데 中國에서 이같이 尊敬하니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또 平壤에 세운 三大將祠堂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으니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李提督이 箕城(平壤府)을 蕩平한 뒤에 我國에서는 提督과 亞將 張世爵 및 李如栢을 위하여 畵像을 두고 祠堂을 세운 다음에 春秋로 제사하였다. 이 祠堂은 箕城城中인 玄福峴에 있었으니 三大將祠堂이라고 이름하였다. 또 戊戌年 겨울에 南邊에 留陣하고 있던 賊이 모두 도망친 뒤에 大坪(平이 可할 것입)舘 西쪽에 軍門(經略) 邢玠의 祠堂을 세우고 殿下가 「再造藩邦」이라는 四字를 大書하여 金으로써 칠하여 걸어 두게 하니 聖筆이 神健하여 中朝사람으로 이것을 보는 者가 모두 歎服하지 않는 者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尹國馨은 尹先覺과 同一人物인 바 忠淸道監司로서 龍仁戰鬪에 敗한 사람이였다. 自己 힘으로 敵을 물리치지 못하고 明나라의 後援을 받게 된 그 서글픔이란 아랑곳 없이 明나라 至上主義로 他力依存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筆致라 하겠다. 그는 또 聞韶漫錄에 이르기를 『今年 初夏에 中朝에서 封倭使로 李宗城과 楊方(邦)亨의 兩人을 보내왔는데 이들은 龍節이라는 것을 받들고 왔다. 이 龍節은 일찌기 들은 바 없으되 그 制式이 대체로 黃色絲로써 만들었으며 갓끈(纓)모양으로 엮었고 그 길이가 1尺이며 龍亭에 安置하여 皇帝가 親臨하신 모양으로 尊敬하고 朔望(1日과 15日)에는반드시 禮拜하는 것이었다. 우리 朝廷에서는 禮官 奇自獻을 中路까지 보내어 問候케 하였는데 兩使가 일러 가로되 『國王이 百官을 거느리고 龍節을 郊外까지 마중 나와서 五拜三叩頭蹈舞의 禮를 하라.』하였다. 상감이 생각하시되 蹈舞는 慶賀스러운 行事에 하는 것인 바 封倭야 말로 本國에 있어서는 實로 不幸한 일이어늘 어찌 慶賀라 할 것인고, 하였다. 이리하여 다시 禮曹에 分付하여 儀式節次를 다시 定하도록 한 다음 奇自獻으로 하여금 가서 裁定토록 하였으나 兩使가 이에 좇지 않았다.

4月 28日에 迎詔門에서 禮曹가 이 問題를 다시 請하여 겨우 我國 禮式대로 좇기로 하고 蹈舞하는 一節次를 減하게 하였다. 南別宮에 들어가자 兩使는 그의 屬僚를 거느리고 먼저 朝禮를 行하였으며 상감께서는 群臣을 이끌고 그 다음으로 行禮하였던 것이다. 당초에 兩使가 비로소 南別宮에 들어오자 龍節이 먼저 들어오고 상감은 中門밖에서 版位(王의 位置하는 標板)에 서서 장차 祗迎하려 하였는데 兩使는 龍節을 隨行하였다. 이때에 兩使의 地勢가 매우 낮고 版位는 높은 곳에 있어서 보는 바 所見이 甚히 未安스러우니 右尹(漢城右尹 從二品) 李瓘은 副摠管으로서 侍衞하여 상감 옆에 있다가 啓請하여 版位를 撤去하고자 하매 상감이 允許하시었다. 侍者는 또 양산(陽傘)을 받들고 있었는데 余는 兵曹參判으로 옆에서 모시고 있다가 또한 撤去하기를 啓請하니 상감이 허락하셨다. 이 두가지 일은 모두 倉卒한 사이에 생긴 일로서 모두 兩使가 아직 大門에 들어오기 前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周旋이 甚히 多幸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尹國馨은 자기의 奇智와 才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듯하지만 그의 머리속에 깊이 박혀 있는 事大思想이 얼마나 이 나라 이 民族에게 害毒을 끼치고 있었는가를 미처 모른 듯도 하니 兵曹參判의 감투를 쓴 匹夫野人의 모습을 聯想케 하는

것이다.

王이 都城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義州로 向하여 달아날 때에 이미 마음속 깊이 父母之邦으로 믿던 明나라에까지 亡命할 뜻이 있었으니만치 徹底한 事大과 他力依存의 根性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神宗은 이러한 王을 마치 어린애 取扱하듯 한 것이 明白하였으니 창피 莫甚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위에서 말한대로 26年 閏 11月 12日에 行人司行人인 司憲이 神宗의 勅使로 나와서 諭書를 傳達하였는 바 이러한 諭書가 내리게 된 그 裏面에는 經略 宋應昌과 王과의 意思疎通이 不充分하여 王의 德性에 대하여 지나치게 좋지 못하게 明나라 朝廷에 報告한 것이 그 原因이었다고 생각하는 바 이것은 文獻上으로 어떠한 確證이 있는 것은 아니나 前後 事情을 살펴볼 때에 이렇게 짐작이 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人間들이 經略이라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朝鮮의 宰臣들을 어린애 取扱하듯 한 例는 非一非再인 것이다. 그의 弄奸으로 내려진 神宗의 勅諭를 宋應昌이 寫本을 만들어서 당시 遠接使로 遼東에 나가 있던 海平府院君 尹根壽에게 交付한 다음 王으로 하여금 알아서 善處하라고 부탁한 前後事情을 尹根壽의 密啓로써 비로소 알게 된 王은 위에서 말한대로 禪位의 뜻을 表明하기에 이르렀고, 領議政 柳成龍을 引見하여『予가 卿을 보는 것이 오직 今日뿐이로다. 卿의 才學으로도 予에게 섬김으로써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였도다.』하였고 成龍이 泣하여 대답하되『國事로 하여금 여기에 이르게 한 것은 모두 臣의 罪로소이다.』하였는 바 이로부터 連日 禪位騷動을 벌이다가 19日에 司憲이 떠나 가기에 앞서 王世子에게 傳位하는 것이 不可타고 手書하기에 이르렀고, 그 뒤에도 未解決로 소란을 피우다가 12月 1日에 비로소 內禪之教를 거두고 一段落을 보게 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明나라를 宗主國으로 섬기게 된 結果로 一國의 王者가 神宗의 苛烈한 諭告를 받고 禪位의 決心까지 하게 된 것이니 나라의 체모는 말이 아니었던 것이며, 依賴心만으로서는 國難을 打開할 수 없고 自國의 國事는 어디까지라도 自國의 힘으로써만 解決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四, 諫言에 대한 實踐力의 微弱

宣祖와 그 宰臣들의 治政이 크게 떨치지 못하고 日久月深할수록 凋落의 모습을 나타내게 된 것은 위에서 이미 말하였지만 그래도 몇 臣僚들은 混迷와 撞着의 本質을 파헤치고 濁政과 暗治를 指摘하여 改革의 斷行을 建議한 바 있었으니 그 中心人物이 곧 栗谷 李珥였다. 그는 宣祖 7年에 右副承旨로 在任하면서 「萬言封事」를 올려서 時局의 病弊를 서슴지 않고 指摘한 바 있었으나 果敢한 改革의 자취는 찾을 길이 없었으니 亦是 國運이라고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萬言封事에서 忠諫하되『紀綱으로 말한다면 私事만을 위하여 公事를 害하는 것도 옛과 같으며, 號令이 行하여지지 않는 것도 옛과 같고, 官僚가 職을 게을리 하는 것도 옛과 같으며, 民生으로 말하면 집에 恒產이 없는 것도 옛대로이고, 流轉하여 定處를 잃은 것도 옛대로

요. 放辟하여 惡을 일삼는 것도 옛대로이옵니다.』하였고 이어서 아뢰기를 『今日의 政事를 말한다면 貢案은 燕山君때의 虐民하던 法을 그대로 쓰고 있고 人材의 登用은 權姦의 請託하는 慣例를 따르고 있읍니다. 이리하여 德行이 높은 이는 마침내 小官에 屈하게 되고 門閥만을 重하게 여기며 賢才를 업수이 여겨 閥族이 시원치 않은 사람은 그 才能을 펴보지도 못하는 것이옵니다. 또 承旨가 御內에 入禀하지도 못하므로 近臣은 멀어지고 宦官이 가까와지며, 侍從이 朝廷에 參與하지 못하므로 儒臣은 가벼워지고 俗論은 무겁게 쓰이며, 한 官職에 오래토록 있지 아니 하여 淸顯의 職을 가지가지 지내는 것을 榮華로 삼으며, 職事를 分擔하지 아니하여 全혀 曹司(官職과 階級, 才能이 모두 末位에 있는 사람의 總稱)에 맡기는 것만 일삼으니 弊習과 誤謬를 縷述키 어렵나이다.』하였다. 그는 또 말하기를 『大官은 위에서 悠悠하면서 오직 앞뒤를 돌아보기만 애쓰고, 小官은 밑에서 泛泛하면서 다만 때를 보아 利를 取하기만 일삼고 있나이다. 官紀에 대하여서는 專혀 臺諫에게 맡기고 있으나 不過 一二姦細를 적어 냈을 뿐으로 責을 免하려 하고, 銓選(人事取扱)은 오직 請託에서 나오되 不過 一二名士를 按配했을 뿐으로 公議에 託하려 하고, 一般官司에 이르러서는 漫然히 맡은 바가 무삼 일인지도 모르고 다만 날을 쌓고 달을 채워 昇進할 줄만 알고 있나이다. 監司는 巡遊自娛하여 供饋의 厚薄과 文書의 巧拙로써 管下官吏의 成績 高下를 매기니 能히 公明하게 賞罰하는 者가 몇이나 있을 것이며, 節帥는 刑을 嚴히 하여 스스로 威를 부리고 剝奪하여 스스로 받들어 人民宣撫와 軍民精練의 두 가지가 모두 失策이 되었으니 能이 邊境의 任務에 忠實한 者가 그 몇 사람이나 되겠나이까. 守令은 오직 民에서 거두어 스스로 利하고 위에 媚附하여 名譽를 求할 줄만 알 뿐이고 能히 백성을 사랑하려고 마음 먹는 者가 손꼽아 보기도 힘들며, 邊將은 우선 軍卒의 數를 물어 받아들일 布의 數를 따질 뿐으로 能히 防備에 근심하는 者가 얼마나 있겠나이까. 이는 오직 胥吏의 무리가 中間에 끼어 있어 그 기회를 잡아 生民의 膏血은 거의 胥吏들의 손에서 다하여 버리고 있는 까닭입니다. 兵을 籍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大事인데 賄賂가 길을 막고 僞券이 眞을 덮어 村民이 소를 잡아 먹이고자 하나 係吏는 布를 索하여 소와 布를 서로 바꾸니 牛價가 暴落하여 京外가 함께 衆口로써 들끓거늘 하물며 他事에 있어서리까.』하였고 그는 다시 말하기를, 『今日에 一計를 아뢰어 無名의 稅를 없새기를 請하여도 列邑의 徵收는 如前하고, 明日에 一議를 올려서 田戶의 役을 고루기를 請하여도 豪家의 脫稅는 그대로요, 選上을 減하는 것은 장차 公賤을 蘇復시키려는 것이나 그 苦痛을 偏受하는 者의 流亡은 옛과 같고, 防納을 禁하는 것은 장차 民弊를 節減하려는 것이로되 그 賄賂를 要求하는 者의 橫行은 더욱 甚하옵니다. 貪吏를 파면한 즉 後任 된 者가 반드시 前任者보다 나은 바 없고 오히려 新舊官 迎送의 弊만 끼치며, 邊將을 다시 擇한 즉 人望이 重한 者가 반드시 新進보다 나음이 없고 도리어 忌憚하는 생각이 없으니 그 밖에 좋은 法令이 頒布됨이 한두번 아니언만 州縣에서는 오직 두어줄 書札만 傳할 뿐으로 村民은 그 內容을 알 길이 없사옵니다.』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萬言封事를 올렸으나 그 뒤 이 啓請을 받아 드린바라곤 別로 없이 病弊는 甚하여지기

만 하였다. 이리하여 그 뒤 數次에 걸쳐 忠諫을 되풀이 하였으나 뚜렷한 効驗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 또한 國運이라고 아니할 수 없없다.

다음에 諫言의 몇가지를 추려 본다면 宣祖 7年 11月 3日에 聖節使 朴希立을 따라 質正官으로 明京에 갔다가 돌아온 趙憲(本役에 義兵將으로 錦山 第2次戰에 陣歿한 사람)은 疏兩章을 바쳤는데 時務에 必要한 것이 八條요, 根本에 關한 것이 十六條였으며 모두 制度에 대해서 彼我의 得失을 論한 것이였으나 반드시 모두 適切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었고 徹底한 事大主義가 나타나 있기도 하였다. 그 八條의 疏는 要旨 다음과 같다.

(1) 聖廟配享——金宏弼, 趙光祖, 李彦廸, 李滉을 從祀할 것이다.

(2) 內外 諸官의 久任——人事異動의 頻繁은 不可하다.

(3) 貴賤의 衣冠은 華制를 따를 것이다.

(4) 飮食의 奢侈를 피하고 宴會때 술을 制限할 것이다.

(5) 師生接禮——相接禮, 朔望, 謁聖之規등 內外가 모두 中朝의 制를 따를 것이다.

(6) 鄕閭習俗——山海關 以西의 每村立約의 例에 依하여 鄕約을 定할 것이다.

(7) 士夫揖讓——朝廷의 坐起 및 士大夫 相接禮를 華制에 따라 傳習할 것이다.

(8) 軍師紀律——戚繼光과 楊照의 傳을 만들어 그가 만든 文三帖을 印刷하여 中外에 廣布하고 軍紀의 要를 알리도록 할 것이다.

또 그의 十六條의 疏文標題는 다음과 같다.

(1) 格天(하늘이 感銘하는 것)之誠
(2) 追本之孝
(3) 陵寢之制
(4) 祭祀之禮
(5) 經筵之規
(6) 視朝之儀
(7) 聽言之道
(8) 取人之方(人材起用의 公正)
(9) 飮食之節
(10) 餼廩(히름)之稱(官穀倉庫의 計量嚴正)
(11) 生息之繁(國民生計의 向上)
(12) 士卒之選
(13) 操練之勤
(14) 城池之固
(15) 黜陟(출척)之明(降等과 進級의 公明)
(16) 命令之嚴

<重峯集卷三疏質正官回還後先上八條疏, 卷四號擬上十六條疏>

다음은 大司諫 李珥의 東西士類保合論에 대한 것인데 宣祖 12年 5月 2日에 李珥를 大司諫으로 불렀으나 辭退하고 나오지 않았으며 上疏하여 아뢰기를 東西分黨을 論하고 東人이 西人을 攻擊하는 것이 甚하여 是非를 너무 強定하려는 것을 꾸짖고 東西를 打破하여 士類를 保合하고 한 마음으로써 國事에 이바지 할 것을 提請하였다.

<栗谷全集卷三十經筵日記三 萬曆七年己卯五月, 朝野僉載卷十九宣祖朝己卯十二年五月>

또 大司諫 李珥의 貢案改正論에 대한 諫言이 있었는데 宣祖 14年 5月 24日에 朝廷에서 그는 同僚와 함께 다음과 같은 要旨의 上箚를 올렸으나 이에 대하여 結局 하나도 實行에 옮

기지는 못하였으니 王은 祖宗의 法을 경솔히 고칠 수 없다 하여 領相 朴淳의 請마저 듣지 않은 까닭이였다.

(1) 弊法을 變通할 것이다.

(2) 貢案을 改正할 것이다.

(3) 州縣을 併省하여 簡略하게 할 것이다.

(4) 監司를 久任할 것이다.

(5) 賢材를 起用하고 人物을 養成할 것이다.

(6) 自身을 다스리고 治本을 깨끗이 할 것이다.

(7) 私朋을 버리고 朝廷을 和하게 할 것이다. <栗谷全集卷三十, 經筵日記三>

또 吏曹判書 李珥의 舊弊改革論에 대한 諫言인데 宣祖 15年 正月에 李珥를 吏曹判書로 拜하였는데 再辭하여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三啓하여 郞僚(屬官)의 專柄(버릇없이 專斷하는 것)을 말하고 辭意를 表하였으나 그래도 오히려 허락치 않으매 다음과 같이 舊弊를 改革할 것을 上疏하였다.

(1) 任路를 淸하게 하고 賢士를 뽑아서 臺閣에 列하게 할 것이다.

(2) 學行을 擇하여 師儒로 하고 廉恥 있는 사람을 起用하여 名節을 勸奬할 것이다.

(3) 監司의 選을 重하게 하고 守令의 薦을 嚴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時論이 이 上疏를 擅權之計라 하여 하나도 마음대로 되지 않으므로 얼마 안되어 病으로 辭退하고 말았다. <栗谷集卷八啓辭吏曹判書三啓>

또 兵曹判書 李珥의 時務六條論이라는 것이 있였는데 宣祖 16年 2月 15日에 다음과 같은 時務六條를 建議하였다.

(1) 賢能한 人材를 任用할 것이다.(任賢能)　(2) 軍士와 庶民을 잘 養成할 것이다.(養軍民)

(3) 國家의 財用을 充足케 할 것이다.(足財用)　(4) 藩屛을 堅固히 할 것이다.(固藩屛)

(5) 戰馬를 整備强化할 것이다.(備戰馬)　(6) 敎化를 밝게 할 것이다.(明敎化)

王은 이것을 備邊司에 내려 보내면서 말하기를『上疏한 말은 모두 나라 위한 忠誠이 至極하니 위로는 公卿으로부터 아래로는 士大夫에 이르기까지 關節簡請의 私를 하지 않는다면 비록 無爲라 할지라도 能히 다스려 나갈 수 있을 것이오, 그렇지 않다면 良法과 美意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베풀 도리가 없을 것이고 날마다 舊法을 고친다 할지라도 다만 無益徒勞만 될 것이리라.』하였다. <栗谷全集卷六啓八條啓>

또 兵曹判書 李珥의 時弊論이라는 것도 있었으니 宣祖 16年 4月 14日에 다음과 같이 時弊를 極陳한 바 있었다.

(1) 東西分黨의 論을 鎭定調和하고 積弊를 改革할 것이다.

(2) 東西에 偏黨하지 않은 中正한 人物로써 臺諫을 삼을 것이다.

(3) 貢案을 改正할 것이다.　(4) 軍籍을 匡正할 것이다.

(5) 州縣을 併省할 것이다.　(6) 監司를 久任할 것이다.

(7) 庶孼을 許通하고 公私賤으로서 武才있는 사람은 良民으로 하여 南北道에 入防케 할 것이다.

王은 이것을 備邊司에 내려 보내어 의논하고 實踐토록 하라 하였다. 그러나 필경 아무런 改革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栗谷全書卷七疏劄陳時事疏, 隱峯全書卷十八混定編錄前集癸未五月, 朝野僉載二十癸未十六年三月>

또 獻納 裵三益의 時務十條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宣祖 17年 6月에 司諫院 獻納(正五品)裵三益이 時務十條를 疏陳한 것이다. <臨淵納集卷五附錄年譜卷三疏時務十條疏>

<栗谷集(卷二封事, 萬言封事), 縱 28・8 糎, 橫 18・8 糎・서울 大學校附屬圖書館所藏>

또 前成均館博士 鄭滐의 上疏가 있었으니 宣祖 18年 7月에 前 成均館博士(正七品) 鄭滐이 上疏하여 時事를 論하는 上疏文 가운데서 상감의 好惡가 不一하여 좋고 나쁜 것을 잘 가리지 못하며 抑揚이 太過라, 感情에 左右되는 바가 너무 많다 하였다. 王은 政院에 내려보내 前後取捨하여 善處토록 命하였다. <春坡堂日月錄卷六宣祖十八年丁酉七月>

또 公州 敎授 趙憲의 四不備論이라는 것이 있으니 宣祖 19年 10月 20日에 趙憲이 上疏하여 李珥와 成渾의 學行이 卓越하고 忠國의 至誠이 있다고 極陳한 다음 時人이 나라 일을 그릇치고 賢能을 막아서 排斥하며 人材를 養育하는데 네가지 不備한 것이 있다고 論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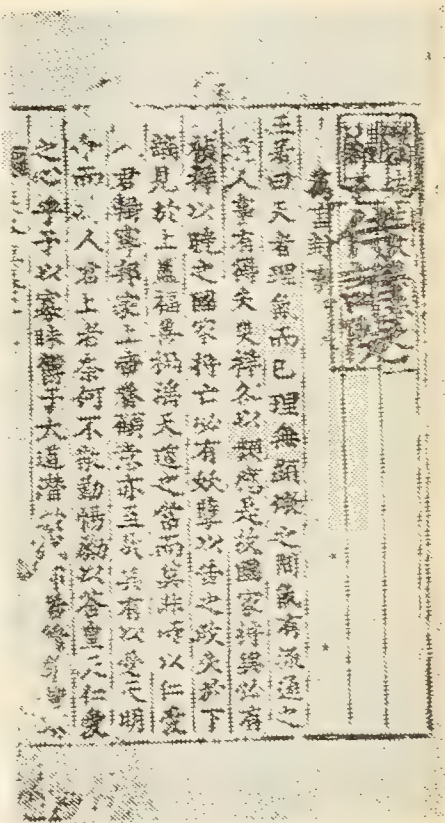
(1) 敎導의 非人——敎育指導하는데 人物이 없다.

(2) 激勵의 無方——敎育을 勸奬하는 方法이 拙劣하다.

(3) 禁防의 無術——國防用兵에 戰術的 力量이 없다.

(4) 輔翼의 非宜——王을 輔弼하는 人物이 不適當하다.

王은 陳疏하는 至誠을 嘉賞하고 各關係官僚에게 내려보내 의논토록 하였는데 東人을 主로 하는 宰臣들의 反對意見이 紛紜하였다. <重峯集卷五疏辨師誣兼論學政疏>

또 副提學 金誠一의 非計非政論이라는 暴論도 있었으니 宣祖 24年 11月에 副提學 金誠一은 세번이나 上疏하여 時弊를 論하였는데 이 當時에 朝廷에서는 日本사람들의 入寇憂慮가 있다 하여 城池를 補修強化하고 兵丁을 많이 뽑아내니 嶺南士民들의 원성이 자자하였다. 金誠一은 倭變있을 것을 그다지 걱정하지 않고 築城은 非計라고 아뢰었으며 또 備邊司에서 將才를 뽑아 起用키로 하여 李舜臣을 井邑縣監(從六品)에서 水使(正三品)로 拔擢한 것을 非政이라고 아뢰었다. 이리하여 兩司(大司諫과 大司憲)는 避嫌하고 大臣들은 待罪하는 소란을 피웠으니 참으로 奇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鶴峯集卷三劄請停築城仍陳時弊劄, 五峯集卷九劄玉堂劄>

이와 같은 諫言이 있기는 하였지만 果敢한 改革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明나라에서도 事大에 커다란 困厄을 주지 않았고 邊防의 憂患도 없었기 때문에 英主가 나타나서 壯快한 庶政刷新을 實現할 수 있는 絶好의 機會였었다. 그러나 宣祖는 不幸하게도 太宗, 世宗, 世祖, 成宗을 따를만한 人物이 못되어 아첨을 좋아하고 剛直을 미워하였으며 公私를 분간하지 못하고 다만 女性的인 感情이 銳敏한 사나이로서 小心無類의 人間이었다. 다만 그는 文才가 있고 筆力도 있었으므로 그러한 部類의 人間들만을 모아 놓았으니 首都를 버리고 義州까지 精神없이 달아날 때 그 馬前에 고삐를 잡고 忠諫한 大臣이라곤 단 한 사람도 없고 軍服으로 갈아입고 敵陣에 뛰어들기까지는 못할 망정, 首都에서 壯烈하게 목숨을 버리는 朝臣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고서도 이 무리들은 東萊城을 敵에게 陷沒당하였다 하여 府를 降號하여 縣으로 만들기도 하는 파렴치한 面을 보이기도 하였다. 王 한 사람의 눈치만 妙하게 살피면서 그 脾胃만 맞추는데는 넘쳐흐르는 奸智를 지나치게 가지고 있던 小人輩들이 王의 周邊에서 우굴거리고 李珥, 鄭澈, 成渾같은 人物은 명함도 드리지 못할 그러한 宮殿의 분위기를 助成하고 있었다. 그들이 미워하고 멀리 하였던 義兵將 趙憲, 招討使 高敬命, 府使 宋象賢같은 사람은 서슴지 않고 戰歿하고 있으니 決코 奇怪한 現象이 아닌 것이다. 모든 論功行賞도 自己中心이오, 王權爲主로서 나라와 국민이 모두 自己들만을 위한 附隨物로 여기는 惡習에 젖어 있었고 그러면서도 自己必要에 依하여서는 혓바닥에 침도 바르지 않고 눈물겨운 敎書를 내리기도 하여 自己罪를 뉘우치는 양으로 萬民을 속였으매 善良한 백성들은 이 妖術에 걸려 뜨거운 눈물을 뿌리면서 상감마마 위한다고 외치면서 일어섰고 말없이 地獄의 煉苦를 겪기도 하는 것이었다. 天下의 大勢를 大觀할 줄 모르고 이웃나라 日本에는 意識的으로 눈을 가리고 오직 앞 大門을 굳게 잠근 다음 温突房에서 酒色을 일삼는 中毒患者가 바로 宣祖였다고 보는 것인데 이러한 王에게 아첨을 일삼던 그 밖의 群小朝臣들이 몇푼짜리였던가는 可히 짐작이 가는바이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몇몇 사람의 人物도 있기는 하였다.

壬辰 12月에 王이 여러 臣下들을 불러서 入對케 하였는데 司諫 李幼澄이 나가서 아뢰기를 『最近 1,2年 以來로 宮闕안의 規律이 嚴하지 않고 朝廷(朝著 조저)안이 平安하지 않으며 賂物(苞苴)이 盛行하고 排斥과 謀陷하는 것이 風을 이루고 있나이다. 그 王子로 말씀한다면 사람의 田地를 빼앗으며 사람의 奴僕을 取하고, 그 宮闕로 論한다면 官을 팔고 獄事를 팔아서 利를 도모하였으며 요행을 꾀하여 人心을 흔들게 한 나머지 怨聲이 길에 차게 하옵나니 모든 邪惡이 政治를 흩어지게 하고 士林에 까지 禍가 미쳐서 賢不肖를 論하지 않고 다만 異同만 의논하게 되고 드디어 椒房(王后의 居室, 초방.)의 賤한 무리까지라도 그의 누이의 勢道에 붙어서 朝廷의 是非問題에까지 참견을 할 수 있게 되어 上下의 群情이 崩潰된지 이미 오래 되었나이다. 여기에 大賊이 뒤이어 밀려 들어서 叛逆하지 않은 곳이 없사옵고 北道의 變(鞠景仁의 亂등)은 前에는 아직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바이온데 殿下께서는 變을 당하신 以來 한 마디도 스스로 過

誤의 責任을 지시겠다는 말씀 조차 없으시고 다만 깊은 房에 앉으셔서 오직 宴安만으로써 일을 삼으실 뿐 아니라 群臣들을 자주 접촉하시지 않는 것이(罕接) 平時보다도 더욱 甚하오니 이러한 形勢로써 생각한다면 臣은 두려워 하옵건대 國勢가 드디어는 반드시 衰滅(滅糜)하고야 말 것이 아닌가 하옵나이다.』하였다. 宣祖는 머리를 숙이고 대답하지도 못하였으며 群臣들은 王의 얼굴을 쳐다 보고 或은 푸르게 되는가 하면, 또 或은 붉게 되어 모두 송구스럽게 여기면서 한마디 말도 못한 채로 退出하였다고 朴東亮이 그의 著인 寄齋史草下 壬辰日錄四에서 傳하고 있다.

李幼澄은 이 때에 31歲의 선비로서 그의 父는 戶曹判書 李誠中이였는데 國運이 不順하여 이러한 忠諫之士가 오래 朝廷에 있지 못하고 義州牧使兼兵馬節度使로서 이듬해 5月 30日에 長逝하였으니 매우 아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長壽하였던들 宣祖 治下에서는 마침내 大成하지 못하고 中途에 禍를 받았을 것이 推測되기도 한다. 그가 指摘한 바를 다시 要約하여 본다면,

(1) 規律이 문란하여 뇌물이 盛行하고 있다.

(2) 論爭만을 일삼고 있다.

(3) 金公諒등이 政治에 까지 참견하고 있다.

(4) 臨海君같은 王子들의 行爲가 悖慢無道하다.

(5) 王은 안방에서 酒色만을 일삼고 臣下들과 만나 國事를 의논하지도 않는다.

이 모두가 王의 肺腑를 찌르는 忠諫인데 다만 行次後의 나팔이오, 死後藥方文格이였지만 그 뒤의 王의 言動에는 아무런 改過의 자취를 찾아 볼 수 없고, 해마다 禪位問題만 내세우고 年例行事的인 騷動만 벌이면서 臣下들의 아첨을 再三 助成하기만 하였다. 이러한 忠諫을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이미 無氣力者가 되어버린 王에게는 아무런 影響을 끼치지는 못하였다. 어떤날 王이 群臣을 불러서 入對하였는데 司諫院 正言 黃克中이 나가서 아뢰기를 『오늘의 變亂은 실로 從前부터 宮闕의 規律이 嚴하지 않고 疑心과 아첨이 盛行하는 동안 人心을 잃어서 여러곳에서 원망하고 叛逆하여 上下가 서로 不信한 나머지 情義가 通하지 않고 아첨을 받아들이는 것(容悅)이 氣風을 이루었으매 言路(諫言하는 길)가 오랫동안 막혔던 탓이라 하옵니다. 이러한 危急한 날을 당하여서도 아직까지 고치려고(改絃易轍) 하는 움직임 조차 없으시오니 이러고서야 어찌 敢히 恢復을 바랄 수 있사오리까.』하였다.

이때에 左贊成 崔滉이 손을 내흔들어 말리면서 이르기를 『이때야 말로 敵을 討滅하는 일이 急한 것이며 이같은 말은 매우 穩當치 않은 말이오.』하니 具宬이 아뢰기를 『人心이 원망하고 叛逆하여 上下가 서로 疑心한다면 나라 일을 어찌 바랄 수 있으리까. 敵을 討滅하는 計謀는 이것부터 먼저 하여야 할 것이어늘 崔滉이 이제 關係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君上을 맞대놓고 속이는(面謾)것이 되오.』하였다. 崔滉이 크게 怒하여 펄펄 뛰면서 다시 말하려 하매 王이 말려서 이르기를 『이렇게 서로 다툴(相較)것은 없다.』하고 드디어 모두 물러 나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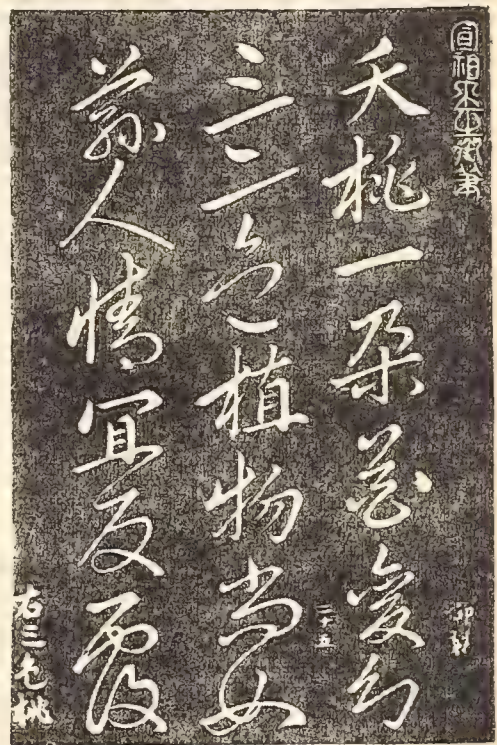
다는 것을 朴東亮이 寄齋史草下 壬辰日錄四에서 말하고 있다.

이 戰役 當時의 朝廷에도 一部 具眼之士가 또 있기는 하였으니 그는 漢陰 李德馨이었으며 本役中의 그 功勞는 이미 本文中에서 말한 바가 많았는데 그도 時弊에 대하여 근심한 바가 많았다. 漢陰集卷八啓辭에 時務八條라는 것이 있는데, 『一에는 民力의 保存이니 中外之民이 싸워서 죽고 굶어서 죽고 앓아서 죽었으므로 十中에 一만이 남아 있는 형편인즉, 이 以上民力이 消盡되지 않도록 留意指導할 것이옵니다. 二에는 屯田의 奬勵이니 첫째로는 飢民들을 살릴 수 있고, 둘째로는 兵糧을 補充할 수 있으며, 셋째로는 道路를 開通할 수 있나이다. 三에는 財政의 確立이니 我國은 바다에 쌓여서 나라를 이루었으며 魚鹽이 매우 많으므로 이것을 잡아서 販賣한다면 百事가 모두 잘 될 것입니다. 四에는 防守의 計策이니 먼저 形勢를 잘 살핀 다음에 遠大한 方策을 세울 것이옵니다. 五에는 軍兵의 訓練이니 깊은 생각과 至誠이 아니면 그 效果를 얻기 어려우며 그 사이에는 반드시 賞과 罰이 있어야 할 것이온즉 每事에 公明正大하고 果斷性 있게 하면서 모든 일을 激勵하고 勸奬한 然後에 衆心이 서로 合하여야만 離散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六에는 治安의 恢復이니 戰亂으로 荒廢한 뒤에 盜賊이 여러곳에서 일어나 있으매 이것은 비록 常例라 할지라도 빨리 治安을 바로 잡고 民生을 安定시켜야 할 것이옵니다. 七에는 頻繁한 人事異動의 弊이니 朝令暮改로 異動을 자주 하는 것은 古人들도 그 弊害를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九에는 民心의 收拾이니 國家를 維持하고 遠大한 經綸을 가지고 國政을 運用하는 根本이 民心을 收攬하는데 있는 것이옵니다.』

대체 이러한 內容의 것이었는데 王은 臣下들의 直諫과 誠心으로 나오는 治國安民策에 귀를 기울이는 雅量을 간직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果斷性 있게 改革하여 나가려는 熱誠이 不足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勇氣도 없었으며 大多數의 朝臣들의 無爲와 無能에 그대로 말려 들어가는 優柔不斷한 面을 많이 보이는 것이었다. 26年 6月에 明나라 經略贊劃 劉黃裳은 王에게 보낸 問安使 편에 回答(回帖)하기를 『三都(王京, 開城, 平壤)가 비록 收復되었다 할지라도 留守하는 군사가 2萬名에 不過하고 모두 돌아갈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 차라리 王國을 위하여 마땅히 釜山 윗쪽만 지킬 것이라는 것인가. 二王子가 비록 돌아왔다 할지라도 나라 사람들이 甚히 기뻐하지 않는 듯 하고 또한 나라에 一兵이라도 없다면 可히 倭兵이 侵犯하지 않는다고 保障할 수 있단 말인가. 王이 다시 西쪽으로 달아 나고자 하나 오히려 王의 자리가 오래도록 따스하지 못할까 두려워 하는지라, 中夜에 香을 피우고 조용히 앉아서 스스로 묻노니 그 마음이 장차 어찌 스스로 安定되리오. 이제 이르러서도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드디어는 일을 할때가 다시 오지 않으리라. 빨리(亟) 八道로부터 40歲 以下에서 20歲 以上의 強壯한 男子를 每道 1萬名씩 모아 劉綎에게 보내 주어서 그 衣甲을 주고 그 隊伍에 編入케 하여 軍糧을 쌓고 軍船을 整備하여써 倭가 쳐올 것에 對備할 것이니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敗亡을 可히 앉아서 기다리게 될 것이라.』云云하였다. 이 回帖을 본 王은 말하되 『劉員外(黃裳)의 回帖을 보니 비록 倨傲하기는 하나 我國을 근심함이 至誠이로다. 大臣

들의 근심하는 바가 모두 明나라 官員들이 근심하는 것과 같다면 不振한 것을 어찌하여 근심할 것인가.』하였다.

이것은 東國戰亂史 卷四 倭亂部의 第2次 晉州城 戰鬪條에 있는 記錄인데 朝廷의 大臣들이 나라 근심하기를 一個 明나라 經略贊劃 劉黃裳만도 못하게 王의 눈에 비쳤으며 이것을 歎息한 것이었으니 당시의 大臣이라는 人物들이 얼마나 無爲無能하였던가를 짐작할 수 있거니와 하필이면 이러한 部類의 人間들만 모아 놓게 한데는 王自身의 責任이 또한 없다 하지는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25年부터 30年까지 사이에 每年 禪位騷動을 벌였으며 나어린 王世子에게 國事를 떠맡기고 自己는 뒤에 물러 앉겠다 하여 大臣들의 忠誠心을 시험하고 그 아첨術을 더욱 助成케 하는 一方으로는 이를 契機로 더욱 專制의 基盤을 튼튼히 하려고 잔꾀를 부렸다고 보는 바이니 그가 表裏不同한 二重性格의 所有者로서 難局을 自力으로 解決하겠다는 王者로서의 抱負도 없고 責任感도 稀薄하였던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이 禪位騷動은 다음과 같이 자그마치 前後 14回에 걸쳐 되풀이 되었던 것이다.

(1) 世子의 國事權攝之命——25年 6月 13日
(2) 軍國機務를 王世子에게 專委下敎—25年10月20日
(3) 禪位를 政院에 敎示——26年 1月 13日
(4) 禪位諸事의 擧行之命——26年 8月 30日
(5) 內禪之意下敎(第1次)——26年 11月 10日
(6) 內禪之意下敎(第2次)——26年 閏 11月 14日
(7) 禪位速擧之命——27年 4月 4日
(8) 禪位下令——27年 5月 27日
(9) 世子攝政之命——27年 9月 18日
(10) 世子攝政速行之命——28年 1月 18日
(11) 王世子攝政之命——29年 8月 27日
(12) 視務不能을 下敎——30年 6月 21日
(13) 辭位之敎手書 承政院에封下——30年 9月 3日
(14) 辭位奏請之敎——30年 11月 8日

<宣祖 親筆>

그러면서도 그는 25年 11月 7日에 幼學 南以順과 宋希祿이 上疏하여 民情에 依하여 東宮에게 禪位할 것을 請하자 대답하기를 『內禪의 일은 予의 素志이며 即行코자 願하지 않은 바 아니로되 다만 上國의 地界에 있으니만치 處置 困難할까 두려워 하노라. 敢히 貪冒함이 아니로다.』하였는 바 이는 率直한 그의 心境일는지도 모르지만 당장에 納得하기도 힘든 일이어서 이 때 과연 여러 朝臣들이 또다시 忠誠心의 競演을 벌인 것이었다. 그는 論功行賞에 있어서도 國家의 利益보다도 自己個人의 利益을 먼저 생각하는 徹底한 利己主義者였다고 보는데 25年 6月 24日에 備忘記를 내리고 始終 扈從한 朝臣 24名에게 各各 一秩을 陞敍케 하

고 宦官 數10 名과 御醫 許浚, 掖庭員(宮內使用人)4,5 名과 司僕員(사복원馬丁)3 名에게도 功을 내렸다. 이러한 非常時에 王옆에서 補佐한 功을 잊지 않는 것도 人之常情이라고도 하려니와 이는 婦女子의 情愛에 屬하는 것이지 罪없는 萬民이 野에 彷徨하고 더구나 나라 위하여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 不可勝數인 이 때에 王者로서 또 或은 朝臣으로서의 이들의 眼光이 오직 自己側近數尺밖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니 어찌 能히 蒼生을 다스릴 수 있었겠으며 萬백성을 救할 수 있었겠는가.

五, 國防政策의 貧困 〔原文第149~1 參照〕

日本 侵略軍이 釜山浦 一角에 쳐들어온지 이틀만에 釜山鎭城과 東萊城이 연달아 무너지고 11 日만에는 都城에서 急히 내려오게 된 巡邊使 李鎰의 군사가 尙州城 北郊에서 대번에 瓦解하여 버렸으며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뒤에는 그 當時 朝野內外에서 唯一無二한 名將이오, 나라의 대들보로 믿고 있던 都巡邊使 申砬의 군사가 彈琴臺에서 사라지게 되자 16 日만에 王京을 버리고 이어서 開城을 떠나 마침내 平壤一城을 아낌없이 내버린 채로 義州를 거쳐 遼東으로 건너 가려고 한 것이 本戰役에 있어서의 朝鮮의 作戰初期의 眞相이였고 또 그 經過의 全貌였다. 險山峻嶺이 있고 巨鎭大城이 있으되 밀어 닥치는 狂波를 물리치는 防波堤의 구실을 하지 못하였고, 國王宰臣이 있고 方伯守令이 있었으되 無人之境을 橫行千里하는 豺狼앞에는 無力하기만 하였다. 이렇듯 秋風落葉格으로 떨어져가기만 하는 國運이었고, 蒼海鯨波에 一葉偏舟모양으로 九死에서 一生을 求하여 보려는 서글픈 國步였으니, 어찌하여 나라 모양이 이 地境에 까지 이르렀던 것일까, 母子가 相淫한다는 原始人이라도 그들의 局部만은 풀잎으로라도 가리우거늘 나라를 만들어 놓고 王侯요, 將相이오, 하는 人間들이 國防要務는 아랑곳 없이 집안 싸움만 能事로 하고 王室에 매어 달려 그 그늘 밑에서 專制와 酷政을 서슴지 않았대서야 어디 나라의 체통이 설 수 있었겠는가. 兩班階級을 만들어 놓고 自己네 外는 모두 常民이오, 公私賤이오, 하는 族屬들이 軍國大事에는 일부러라도 눈을 감은 채로 收奪과 特惠를 마음대로 恣行한대서야 民生의 安定과 國利의 增進을 어찌 바랄 수 있으며 이 民生과 國利에 뿌리박은 精兵과 良馬를 어찌 求할 수 있었으랴. 軍人이 弱하니 軍隊가 強해지는것이고 軍隊가 有名無實하니 外敵인들 어찌 노리지 않을 것이랴. 참으로 國民과 軍隊와의 關係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關係에 놓여 있으며 富國은 곧 強兵의 基盤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 戰役뿐만 아니라 李氏王朝 亡國에 이르기까지 軍人은 賤民들이 맡아 하는 職業으로 되어 있고 兩班子弟들은 힘깨나 쓰고 머리가 모자라는 것을 추려 武科에나 及第시켜 軍官으로 出身케 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그나마 西班의 길은 東班에 比하여 넓게 열려지지 않고 있었으니 이것은 비록 王朝 文弱世代의 常例라 할지라도 기각힌 일이 아닐 수 없었다. 中央에 掌隸院이 있어서 奴婢制度를 管掌하고 있었으니만치 私賤을 가장 賤하게 여겨 八般私賤이라

하여 才人들을 人間 以下로 取扱하였던 것은 且置하고라도 七般公賤에서는 군인들까지 꼽고 있었다. (皂隸, 羅將, 日守, 漕軍, 水軍, 烽軍, 驛保)원시 朝鮮에서는 軍이라는 것은 지겟군, 건달군, 투전군등으로 쓰여졌는데 周禮에 五師를 軍이라고 한 바 衆旅의 뜻을 이렇게 誤用하기에 이른 것이였고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花郞은 藝人이나 巫女등이 美衣를 입고 고약한 行實을 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지기도 하였으며 「閑良」은 任官하지 않은 武人을 말하던 것을 「閑良飮食」이라 하여 無錢取食하는 따위로 바꿔 쓰기도 하고 「환량군」이라고 轉訛하여지기도 하였다.

이렇듯 오늘날 가장 神聖한 義務의 하나인 兵役義務의 군인들을 가장 賤한 白丁, 奴, 婢 山尺, 海尺, 才人, 무당, 고자(火者, 鼓子, 內官)등 다음으로 賤하게 여겼던 것인데 이러한 社會制度의 積弊는 及其也는 首都棄城때에 亂民들이 掌隷院을 가장 먼저 불살라 버리게 되고 刑曹, 內帑庫, 昌慶宮, 文武樓, 王子 臨海君의 邸宅에 대한 행패로 나타나기도 한것은 1 項에서 이미 말하였다. 이러한 亂民의 中心人物이 모두 賤待 받던 群衆들로 形成되어 亂世를 타고 土匪流賊이 되는가 하면 日本軍에 붙어서 그 앞잡이 노릇도 하고 또 그 諜者가 되어 도리어 我軍에게 害를 끼치고 敵을 더 돕는 무리로 나타나기도 한 것이였다.

軍人은 國民中에서 가장 卑賤한 階層에 뿌리를 박고 짓밟힐대로 짓밟히면서 浮浪黨의 一員으로 自他가 共認하였던 곳에 씩씩한 官軍이 어찌 태어날 것인가. 軍隊는 老兵과 少年兵들이서로 뒤범벅이 되어 다만 寄食과 延命을 노리는 集團으로 化하여 버리고 王과 兩班階級은 그들의 힘의 培養을 어느 面에서는 도리어 꺼려하기까지 하였던 때에 祖國危難에 殉할 수 있는 훌륭한 國防威力을 發揮할 까닭이 없었다.

鄭汝立의 逆謀事件에 殘忍하기 比길데 없을만치 徹底하게 大逆의 뿌리를 뽑아 버린다 하여 많은 人材를 썩은 잎 같이 쓸어버린 宣祖였건만, 外患을 당하게 되자 內憂가 끊임없이 일어나 王子와 宰臣을 꽁꽁 묶어서 敵將의 손에 넘겨 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湖南 軍兵들은 監司의 出動命令을 服從하지 않고 盟主를 내세우고 官舍와 刑獄을 불태워 버렸으며 26年에서 28年에 걸쳐서는 湖南一帶에 盜賊의 무리가 橫行하여 官家에 反抗하고 良民을 죽이는 이른바 土賊의 亂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또 27年 正月에는 宋儒眞의 亂, 29年 7月에는 李夢鶴의 亂이 일어나 義兵將 金德齡같은 아까운 人物까지 誣告에 몰려 橫死를 당하는 그러한 서글픈 判局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그밖에도 25年 7月에는 珍島에 逆賊 李忠範과 徐夢獜이 不軌를 陰謀하였으며 靈山에서는 叛賊 孔撝謙이 日本軍의 嚮導가 되어 스스로 慶州府尹을 稱하다가 義兵將 郭再祐에게 잡혀서 죽였으며, 咸興生員 陳大猶는 日本軍에 붙어서 叛하였으며, 28年 11月에는 忠淸道 學生 李成男등의 謀叛이 있었다. 雜草는 뽑고 또 뽑아도 나는 법이지만 씨와 뿌리없이 나는 雜草가 어디 있겠는가. 이와 같이 秋霜烈日 같은 王의 威力을 逆謀에 기우려서 뽑으려 하여도 자꾸만 되살아 나는 逆臣과 叛賊이 外患을 타서 數없이 일어났다는 이 事實을 우리는 어떻게 보

아야 할 것인가. 비록 富國하지는 못할망정, 비록 強兵하지는 못할지라도 王이 眞正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이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할 때 雜草가 어디 있으며 叛賊이 어디 있을 것인가.

이러한 모든 惡現象은 王이 心腹으로 믿는 將領을 많이 거느리지 못하였고 또 方伯守令들에 대한 朝令暮改的인 頻繁한 人事異動으로 말미암아 이들 現地 將領들이 手足으로 믿는 精勇之士를 保有하지 못한데 그 原因이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國民과 軍隊가 올바른 姿勢를 取하지 못한데 그 病弊가 싹터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附表第 1,2,3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朝鮮의 兵制는 紙筆上으로는 그럴 듯 하게 마련되어 있었던 모양이나 자세하게 살펴 본다면 國防에 關한 基本政策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더구나 아무런 融通性을 간직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咸鏡, 平安 兩道에 防備의 重點을 指向하고 있는데 兩大江을 건너오는 胡虜에 대한 關心을 버릴 수는 없을 것이어서 三面의 바다쪽 보다 重視할 必要를 느끼기는 하지만 有事時에 있어서 兵力의 重點을 轉向할 考慮는 全혀 되어 있지 않았다. 李珥가 十萬養兵을 提高하였을 때에 都城에 2萬, 各道에 各 1萬을 主張한 것은 이미 이러한 融通性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豐臣秀吉이 堂堂하게 宣戰을 布告하여 왔을 때에 먼저 着手하였어야 할 重要案件이 바로 이 國防重點의 轉換問題인 것이었다. 附表 第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道邊地는, 曾經訓正, 또는 將家子弟로서 差選한다는 北道는 南道로 되었어야 하고 江界, 三水, 甲山등 邊將은 宣薦人으로서 差除하고 京職에 陞遷토록 待準케 한다는 內規가 먼저 南道에 適用되었어야 할 것이고, 咸鏡南兵使는 曾經兵使로써 擬差하는 것을 慶全兵使로 하였어야 될 것이다. 이 戰役에 兵使 李珏, 水使 朴泓이 部下將領인 僉使, 府使를 내버려 두고 먼저 도망쳤다는 事實自體가 이미 兵水使의 人物配置가 拙劣하였다는 證左라고 보아야 될 것이 아닌가. 附表 第 2 에 나타나 있는 慶尙, 全羅道의 萬戶는 沿岸警備를 위한 것이므로 登陸하여 內陸에 깊이 侵犯하는 敵에 대해서는 平安, 咸鏡 兩道에 있는 權管과 別將의 大部分을 南道로 옮겼어야 할 것이었다. (軍費增加 없이 措置하는 方式이며 만일에 軍事費를 더욱 增加한다면 新設이 마땅할 것이다)

山城보다도 먼저 邑城의 自力防守를 強化하기 위하여 王子를 巨鎭大城에 派遣하고 監司는 軍事經歷 있는 者로써 起用할 것인 바 이런 程度의 變革은 常識上으로라도 宜當 있어야 할 것이고 또 極히 손쉬운 일이였으나 不幸하게도 아무런 措置가 없었으니 政策의 貧困이라 아니 할 수 없였다.

附表 第 3 의 五衛兵力을 完全히 補充하여 먼저 王京 死守之計를 세우고 備邊司提調를 兼한 領議政이 守城大將으로 統轄하며 漢江線防禦使를 그의 指揮下에 두게 할 것이고 附表 第 4 에서는 忠淸水使는 全羅道로 增援케 하고 京畿水使는 忠淸으로, 黃海水使는 京畿로, 隨時增援토록 할 것이며 北兵使는 南兵使를 增援케 하여 鐵嶺을 扼守케 하고 平安兵使는 黃海兵使를 增援케 하여 臨津江線을 固守케 할 것이다. 이 程度는 戰術初步者라도 能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어늘 當時의 그 많은 大臣들은 一言半句의 意見도 내지 않고 다만 都巡邊使 申砬을 내

려보내 별안간 생소한 部下들을 거느리고 忠州에서 헛되이 敗死케 하고, 스스로는 王의 소매자락에 매어 달려 도망의 앞장들을 섰던 것이다.

領議政 李山海는 後宮 金氏의 오빠인 金公諒을 끼고 宮中에서 陰兇을 마음대로 하여 鄭汝立의 逆謀를 好機삼아 많은 人材를 쓸어버림으로써 朝廷에는 直言忠諫之臣이 없고 官家에는 清白愛民之士가 없었으니 대저 나라가 興하고 亡하는 것은 戰爭에 依한 外敵의 侵犯以前의 것에 屬함이 틀림 없지 않겠는가.

附表 第8의 烽燧經路 一覽表를 본다면 一見 그럴 듯 하기도 하지만 本戰役에 이 烽燧에 依하여 얼마나 큰 利益을 보았는지는 매우 疑問이 되는 것이고 그 信號를 위한 人的 物的 消耗를 생각한다면 直接 傳達하는데 더욱 注力함이 마땅할 것이였다. 더구나 이 信號는 백성들에게 먼저 널리 알리는 結果가 되어 人心을 騷亂시키는 不利가 더욱 많을 것인데 다만 朝廷에서 温突房에 앉아서 敵情을 알아보자는 八字좋은 수작 같아서 同感이 가지 않는다. 第2次 晋州城 戰鬪때에 攻圍를 시작한 것이 26年 癸巳 6月 19日이오, 陷城한 것이 同 29日인데 行在地에서는 7月 5日에야 비로소 이 事實을 알게 되었으니 이러한 朝廷을 믿고 무수한 勇將猛卒들이 죽어갔으니 아깝기만 하였다. 通信連絡은 軍의 神經이오, 耳目이 아닌가. 10日間 固守에 한사람의 援兵도 보내지 못한채 그대로 죽게만 만들어 놓고 무슨 備邊司요, 무슨 宰相이오, 王인가 말이다. 이러한 쓰라린 맛을 본 다음에도 아무런 改善이 없었으니 病弊는 차츰 甚하기만 하였다.

또 附表 第9의 驛遞制度를 보아도 여기에 所要되는 吏卒의 數는 全國에서 9萬 3千 5百 69名에 達하고 말이 3千 8百 41頭나 되는 바 여기에 官給하였던 驛田까지 合하면 國家의 消耗가 대단한 것이고 이것도 또한 特殊層의 地方旅行을 위한 八字 좋은 施設로만 보인다. 이것을 大膽하게 國防에 돌리지 못하고 各個人의 私的 便宜만을 앞세운 것이였으니 驛遞는 官의 連絡用으로 官에서 官으로 하는 原則이 必要하였을 것이다. 燎原의 불길같이 일어났던 義兵을, 官이 도망치기에 奔忙하였을 때에는 그대로 放置하여 두었다가 이들 義兵의 힘으로 治安이 恢復되자 그 그늘 밑에서 목숨을 겨우 붙이고 살아난 官家에서 다시 權勢를 부리고자 하여 義兵將을 괴롭힌 바가 많았던 것이다. 그 一例를 든다면 義兵大將 鄭文孚는 長津(別害堡)山邑에 들어가서 숨어 있던 咸鏡監司 尹卓然의 節制를 받지 않는다 하여 論功에서도 빠지고 中傷도 많이 받았는 바, 掃敵보다도 權利行使를 먼저 생각하던 당시의 老物들은 매우 거추장스러울 뿐인 存在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모두가 兵馬節度使를 監司가 兼하여 文武大權을 한 손에 쥔 餘弊였는데 平時라면 또 모르거니와 戰時에 있어서도 東班優位의 積弊를 그대로 固持하였던 탓으로 軍作戰이라는 것이 거의 보잘 것 없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都元帥는 이름이 都元帥이지 아무런 權威없는 存在로서 그 위에 體察使, 都體察使까지 隨時로 만들어 上典위에 또 上典을 만드는 재간 만은 非常하였지만 「閫外之事는 將軍이 專裁」라는 大

凡한 統轄을 全然 못하고 있었으니 이런 見地에서 본다면 王과 그의 宰臣들은 救濟하기 어려운 固疾患者요, 權威中毒患者에 틀림 없었다. 또 모모한 官職에 있던 人物들의 異動狀況을 찾아 본다면 그 빈번한 異動에는 두 손을 들 수 밖에 없다. 軍國大事를 치르면서 國家의 重臣들을 이와 같이 바꿔 놓으니 어느 여가에 計策을 세우고 또 이것을 實踐에 옮길 수 있겠는가. 監司 以上이 이 모양이니 兵使, 水使, 助防將 以下의 將領異動은 더욱 甚하였을 터인즉 어느 智勇之將이 있어서 能히 始終一貫된 作戰을 遂行할 수 있었으랴. 兵曹判書 李恒福은 그의 丈人인 都元帥 權慄을 가르켜 方伯守令으로서는 有能하였지만 都元帥로서는 無能하다고 말하였는데 權慄이 無能한 點도 多少 엿보이기는 하지만 그 보다도 兵制 그 自體에 重大한 缺陷이 있었던 것을, 故爲인지 어떤지는 알 바 없지만 그가 全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軍隊는 적은데 무슨 上典이 그리도 많았던가. 또 文臣의 武官職兼職이 그리도 많단 말인가. 이것은 附表 第1과 第2를 보면 明白히 알 수 있는 것이다. 由來로 優良한 兼職者 두 사람은 그렇지 못한 專職者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는 법이니 이는 마치 優良한 司令官 두 사람의 制度보다는 그렇지 못한 首將 한 사람만의 制度가 軍統帥上 必要하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본다. 軍政과 軍令에 대한 認識이 全혀 없었던 것은 無理가 아니지만 軍政마저 一般國政과 完全히 混同되어 있었다. 備邊司提調를 領議政이 兼하고 京外職의 中樞府, 五衛都摠府와 五衛는 閑職者의 養老院이 되고 있었다. 이에 比한다면 豐臣秀吉은 完全히 軍令과 軍政을 이미 分離하였고 各 責任將領에게, 基準이 되는 大綱만을 明示한 다음 그의 進止에 대하여 大幅的인 獨斷活用의 餘地를 주고 있다. 賞을 주는데는 매우 急하였지만 罰에는 愼重하였다. 小西行長의 平壤退却에 앞서 死守를 命令하지 않았으며 加藤淸正의 北道撤退는 그의 許可를 받은 것이 아니었으며 將領 한 사람의 全責任下에 適切하게 스스로 斷行케 하고 있다. 이렇게 行動의 自由를 가지고 있던 野獸의 무리에 대하여 一事萬事를 王이 直接 干涉하려 하여 兩팔에 새끼줄을 대어 놓게 된 朝鮮將領들이 같이 맞아 싸우려 한들 어찌 決勝의 神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王은 죽은 뒤의 賞은 잘 주었으나 살아 있을 동안에는 賞보다도 罰주기를 좋아 하였던 것으로, 李舜臣은 죽은 뒤에 右議政(戊戌年1 2月 4日)이 되고 살아서는 正憲大夫로 그치고 말았으며 鳴梁大捷에는 敍位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 그는 武臣보다도 大臣에게 敍位 주기를 더욱 좋아 하였으니 平安監司 李元翼은 李如松의 平壤奪還에 協力하였다는 功으로 살아서 이미 崇政大夫를 加하고 乙未年에는 살아서 右議政이 되고 있다. 이러한 文治主義에 徹底하였던 王이 武斷에 徹底하였던 豐臣秀吉과 맞싸운다는 것은 달걀과 바위돌의 衝突과도 같은 것이었다. 儒敎가 끼친 惡影響이 있다면 그 가장 甚한 것이 武를 輕視한 것이고 따라서 國防政策의 貧困을 가져 오게 한 것으로 본다.

著者가 苟且스럽게 이러한 말을 重言하고 또 復言하는 까닭은 國防政策의 先行要件이 國防의 重大性의 認識과 그에 따르는 軍令, 軍政問題의 重視에 있기 때문이다.

戰爭에서 國家意思를 貫徹하려면 威力의 行使가 必要하게 되는데 이것이 作戰力量으로 나

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力量의 構成要素는 그 나라의 國民이 가지고 있는 肉體的, 道德的, 經濟的, 知識的 四大要素로 되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國家의 利益을 防衛하고 確保하는데 必要로 하는 國家威力은 國民威力의 總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個人威力을 總集結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個人 威力이란 사람에 따라서 千差萬別이 있으므로 이러한 個人力量을 高度로 助成한다면 여기에서 얻는 質로써 量의 不足을 能히 充足하게 될 것이므로 3千萬 人口의 나라가 1億人口의 나라와도 能히 싸워 能히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비록 敵의 量이 많다 할지라도 그 積이 반드시 많지 않다는 虛點을 탈 수 있는 것이니 眞正으로 勇敢하여서 艱苦를 이겨 나가고 剛健한 國民生活을 營爲하여 나간다는 國軍이라면 柔弱한 生活을 하는 國軍에 比할 수 없으리만치 越等하다는 것은 自明한 노릇이니 所謂 兩班이라는 階級에 屬하는 人士들이 安逸을 일삼고 權勢에 便乘하여 그의 子弟로 하여금 賤民만이 從事하는 戰列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위에서 말한 四大要素中 特히 道德的, 知識的 水準을 낮게 할 것이고 中流 以下 사람의 子弟만으로 軍에 從事케 한다면 農漁村등에서의 肉體的 經濟的, 力量을 低下시킬 것이니 國家 總力量은 스스로 低下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國家 總力戰은 近代에서만 비로소 나타나고 또 必要한 것이 아니어서 本役 7年동안에 이미 그 眞價를 나타내고 있으니 山間僻地에 避難하였던 老幼婦女子들이 一線戰士에 뒤떨어지지 않으리 만치 銃劍의 威脅앞에 直面하게 되었고 義兵의 鋒起는 이에 대한 自衛策으로도 鄕兵의 形態로 더욱 熾烈한 불길로 일어나게 된 것이였다.

李睟光은 芝峰類說卷三 兵政部 寇賊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幽險한 곳이라 하여 避難民들이 山谷에 가득차게 되었으므로 도리어 賊을 끌어 들이는 結果가 되어 머리를 맞대고 죽는 者를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였다. 咸鏡道에 이르러서는 그 地勢가 甁項 모양이어서 한번 그 안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게 되어 賊의 鋒刃을 免한 者가 매우 드물였으니 도리어 平地에 있으면서 賊의 移動에 따라 東西로 빨리 피란하여 다니는 것만 훨씬 못하였다.』라고 全國的으로 山間僻地까지 被襲을 당하던 모양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願하든 願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本役에서 國家總力戰을 치루었는데 著者는 여기에서 이 國家總力戰의 本質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자 한다. 그것은 「平時와 戰時와의 關係를 國民과 軍隊와의 關係로 서로 調和시키고 一致케 하는 作用을 말함이니, 平時에는 戰時를 위하여 準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國民은 軍隊를 위하여 準備하고, 戰時에는 平時를 위하여 싸우는 것과 똑같이 軍隊는 國民을 위하여 싸우도록 眞正한 軍民一體化를 期하는 作用」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에 本役에 奮然히 各處에서 蹶起하였던 義兵將士들의 눈부신 活躍을 丁酉再侵에서는 全혀 볼 수 없었으니 이것은 어찌된 理由일까. 著者는 이 主要한 理由가 再侵때에 採擇한 據險積蓄과 堅壁淸野之策으로 말미암아 國家動員의 原動力을 全國都邑과 郡縣에서 송두리채 拔本塞源한 그 庸拙性에 있다고 보는 바 이 問題는 다음 第3節 第三項에서 取扱하여 볼 것이다.

第2節 本戰役의 顯著한 特徵

要 旨

自序에서도 잠간 言及한대로 本戰役의 本質을 分析하여 본다면 餘他의 戰爭에서 찾아보기 힘드는 몇가지 特異性이 있다 할 것이니 이 時代相으로 보아서 關係國間의 出戰兵力이 比較的 大規模였으며, 兵力에 比하여 情報活動이 微弱하였고 戰時外交의 長短點을 如實히 들어내었다 할 것이다. 또한 戰爭期間이 이 時代로서는 비교적 長期에 屬하며 따라서 戰鬪種類도 많았고 後方補給의 困難도 莫甚하였을 뿐 아니라 戰局의 終末이 有名無實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가장 顯著한 特徵이라고 보는 네가지만을 擧論코자 하니 豐臣秀吉의 方寸에서 나온 一方的인 名分없는 侵攻이었으며 그의 怒號에서 나온 바 再侵이었다는 것이 其一이오, 戰時 外交가 活潑히 展開되고 推進되었다가 마침내 決裂되고 말았다는 것이 其二요, 義兵의 活動이 壬辰·癸巳 作戰時期에 매우 刮目할 만 하였다는 것이 其三이오, 戰役과 戰禍는 不可分의 것이기는 하지만 本役에 있어서는 그 禍災가 참으로 커서 不可形言의 慘相을 이루었다는 것이 其四라 할 것이다. 本節에서는 이 네가지만을 提起하여 놓고 몇마디 所見을 말하여 보고자 한다.

一, 豐臣秀吉의 名分 없는 侵攻 〔原文第149～2 參照〕

敵襲에 豫告가 없다는 것은 兵戰의 常道로서 반드시 侵者와 被侵者가 있는 법이며 아무리 彼我가 同時에 動衆出師한다 하여도 반드시 先後가 있을 것이니 어떤 一方만의 侵略을 規定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或者는 말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豐臣秀吉이 아무런 理由도 分明치 않은데 自己 생각나는대로 마치 晴天霹靂같이 侵略을 斷行하였다는 事實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秀吉 밑에 있던 모든 將領들이 大驚失色하면서도 敢히 한마디의 反對도 하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 보면서 啞然하였던 것이고 그 中의 몇몇 아첨하는 무리, 例컨대 若冠 宇喜多秀家같은 사람만이 겨우 讃同하였던 것인데, 그러면 어찌하여 그가 이러한 白晝強盜式인 陰兇한 생각을 하게 되어 마침내는 아무런 所得도 없이 戰役途中에 죽게 되고 6歲로 남겨 놓은 後繼者가 그가 죽은지 17年만에 大阪城에 높이 솟는 불길속에서 母子와 같이 自決하여 한 사람의 뿌리도 남기지 못하고 滅亡하고 마는 悲劇의 씨를 뿌리게 되었을까.

그의 侵略動機가 무엇이 었으며 그가 願하던 바가 那邊에 있었던가에 대하여서는 이미 第三章「開戰의 直接的原因」에서 살펴본 바가 있었으므로 여기에서는 從來로부터의 여러사람들의 여러가지 見解만을 먼저 綜合하려는 것이다. 明史日本傳의 圖書集成에서 이르기를 『秀吉이 中國을 侵犯하고 朝鮮을 滅한 다음 이것을 所有하려 하여 그 전날에 이미 王直遺黨에게 물어본 結果 唐人(明나라 사람)들이 倭를 두려워 하기를 범같이 한다는 말을 듣고 氣가 더욱 驕慢하여졌다.』라고 하였으며 諸葛元聲은 兩朝平攘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秀吉이 이미 富強한 것을 믿고 明나라에 朝貢하는 各夷, 例컨대 琉球, 呂宋, 南蠻, 佛郞

機, 暹羅등을 侵掠한 다음 모두 貢物을 自己에게 바칠 것을 強要하고 日本으로 捕擄로 잡아가서는 生埋葬을 하니 그 慘酷하고 暴虐한 바를 比할 곳이 없었다. 諸州에 걸쳐서 殺害하고 그 都邑을 빼앗고 그 子女를 볼모(質)로 하였으매 各島에서 變亂이 일어날까 두려워 한 나머지, 또한 그의 子息이 바야흐로 젖먹이였으므로 이로 因하여 疑心이 되고 忌避하는 바 되는 者들을 모조리 徵傭하여서 이 征戰에 從事케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前後 兩次의 侵略將領들을 살펴 보면 모두가 秀吉이 信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 이 推測은 반드시 適當타고 보기에는 難點이 많다. 朝鮮에서는 金時讓이 紫海筆談에서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는 바 史實的으로 錯誤된 點이 몇가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金時讓 個人의 未備보다도 그 當時 朝野一般의 日本에 대한 知識水準의 未洽을 말함이리라.

『平秀吉이란 者는 日本人의 奴僕이라, 山에서 探(采)薪타가 關白(織田信長을 말한 것인 듯)을 途上에서 만났는데 左右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關白이 그의 容貌가 奇怪하다 하여 용서하여 죽이지 않았으며 關白의 幸寵을 얻게 되어 장수가 된 뒤에 여러번 功이 있었는바 드디어 兵權을 잡은 다음에 그 主人을 弑殺하고 自立하여 스스로 關白이 되었다. (信長을 殺害한 것은 明智光秀라는 사람으로서 秀吉이 光秀를 죽여 故主의 원수를 갚은 것이다) 그는 戰克勝하고 攻克取하여 드디어 諸國을 統合하고 하나로 만드니 國富兵強하여 마침내 跋扈之計를 가지게 되었으며 군사를 我國에 加하고자 하되 그 틈(釁)이 없으므로 핑계하여 말하기를 將次 中國에 入寇하려고 먼저 길(途)을 我國에 빌리는 것이라 하였다. 우리 宣廟께서는 大義로써 이를 물리치매 秀吉이 이것으로 兵端을 삼고 壬辰에 그 將인 平秀家(字喜多秀家)등으로 하여금 兵力 約 20萬을 거느리게 한 다음 4月 13日로써 바다를 건너 釜山과 東萊를 陷落하고 僉使 鄭撥과 水使 朴泓을 죽였는데(이것은 全然 錯誤로서 朴泓은 逃走하였다.) 府使 宋象賢은 朝服을 입은채 屈하지 않고 죽었다. 이 때에 昇平이 2百年으로 백성들이 군사를 알지 못하고 望風瓦解하여 敢히 그 鋒을 막는 者 없으므로 賊은 長驅(駈)하여 進擊하기를 無人之境과 같이 하였다.』는 것이다.

日本에서는 賴山陽이 그 著書인 日本外史 豐臣氏 第八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秀吉이 처음에 子息이 없었는데 이에 앞서 姬人 淺井氏[淀君(YODO-KIMI)]가 아들 鶴松을 낳아 秀吉이 絶愛하던 바 이해(宣祖24年, 天正19年 8月 5日)에 鶴松이 일찍 죽으매(夭死) 悲哀累月에 마음이 우울한 나머지 여러번 出遊하여 스스로 慰安을 삼던 것이다. 하루는 淸水寺(京都市東山區松原通淸水坂)閣樓에 올라가 西쪽을 바라보면서 從者더러 하는 말이 「大丈夫는 마땅히 武力을 萬里밖에 쓸 것이어늘 어찌하여 스스로 悒鬱하게 지낼소냐.」하고 돌아와서 곧 여러 장수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내가 諸君들의 힘을 빌어서 海內를 平定하였으니 또한 滿足스러운 일이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모든 醜夷들이 王化를 막는 바 있으매 내 깊이 이를 부끄러워 하노라. 내 國內政治는 內府(豊臣秀次인 듯)에게 맡기고 나 自身이 장차 朝鮮에 들어가 그 군사로써 先鋒을 삼고 大明國에 뛰어갈 것인 바 그가 나의 命令을 拒否한다면 곧 擊滅할 것이니 내가 直接 遼東에서부터 北京을 襲取한다면 어찌 그 나타가 있을손가. 土地(土壤)를 多割하여 諸君들에게 맡기고 여

러 功臣으로 하여금 모두 그 所望하는 바를 채우도록 할지니 또한 愉快하지 않을소냐 나의 籌策이 이미 完成되었는 바 일이 甚히 어렵지는 않도다. 諸君이 能히 나를 爲하여 힘을 쓸 것인가.」라고 하였다. 여러 장수들이 깜짝 놀라 서로 쳐다 보면서 敢히 대답하려는 者 없거늘 浮田(宇喜多)秀家가 나가서 아뢰기를 「殿下께서 이 空前의 盛事를 일으키시오매 뉘가 努力하지 않으리이까.」하였고 모든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敢히 異議를 내 놓지도 못하였다.』라는 것이다.

豊臣秀吉의 이러한 精神分裂症같은 病的心理를 分析한 日本의 貝原益軒(筑前 黑田侯의 儒臣, 名은 篤信, 字는 子誠, 別號 損軒)은 懲毖錄 序文에서 貪兵, 驕兵, 忿兵의 세 가지를 兼한 것이며 好戰이라고 指摘하여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지난번에 豊臣氏가 朝鮮을 친 것은 可謂 貪兵이라 할지며 兼하여 驕兵이고 忿兵이라 할 것이오, 義兵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不得已한 事情으로 用兵한 것도 아니므로 所謂 말하는 好戰이라는 것이다. 이는 天道가 미워하는 바이매 그가 마침내 滅亡하고 말았던 것은 極히 當然한 노릇이었다.』라고 義憤에 넘치는 正論을 펴고 있으며 儒者 安積澹泊(ASAKA-TANPAKU)(水戶藩의 儒臣, 字는 子先, 別號 老圃, 老牛)은 豊臣秀吉의 好戰思想을 大日本史賛藪에서 다음과 같이 攻駁하고 있다. 『朝鮮之役은 대체로 그 由來하는 바가 있어 그 初志를 貫徹하며 근심을 잊어버리려는데 핑계하여 發動한 것이리라. 그러나 信長(織田信長)이 在世하고 있는 그 時代라면 또 모르거니와 秀吉 自身이 直接 天下의 權을 左右할 때에 있어서 무슨 危懼의 생각이 있기로서니 반드시 그 初志를 貫徹하려고 하였던고. 그의 發端의 原因을 살펴 본다면 天下가 이미 平定되어서 武力을 쓸만한 곳이 없으매 自身의 驕侈한 마음을 물리칠 도리가 없으므로 威武를 外國에 빛내보려는데 不過하였을 뿐이리라.』하여 秀吉이 外征을 即興的인 광대노름과 같이 본 것을 탓하고 있다. 또 같은 儒者인 中井竹山(NAKAI-CHIKUZAN)[大阪의 儒者, 名은 積善, 字는 子慶, 號는 渫翁]은 다음과 같이 無謀한 征戰의 病弊를 恨歎하고 있다. 『豊臣氏가 戰亂時代를 당하여 兵力을 休息시킨다는 溫情도 없이 마음을 더욱 功名에만 사로 잡힌 結果, 군사를 窮地에 빠뜨리고 武力을 더럽혔으며 滿身瘡痍의 백성을 海外로 몰아내어 毒을 天下에 흘리게 하고 禍를 外國地域에 加함으로서 그 一生을 通하여 다시 한번 平安한 歲月이 없게 하였나니 그가 一時 全國을 平定하였던 功勳마저 蕩然히 땅에 떨어지게 하였도다.』라

高麗史節要卷之十九
元宗二
十二年 春正月削孔愉
安世貞職又以阿海畏縮不敎遣將軍印公
秀如蒙古以奏帝免阿海職召還○門下侍
中李藏用叅知政事崔瑛以與謀林衍免瑛
惟栶妻之外祖也○朴天澍至珍島賊迎致
碧波亭宴慰之潜遣兵船二十艘掠官軍奪
一艘殺九十餘人羅州司錄金應德與賊戰
獲一艘盡殺之○遣樞密院使金鍊如蒙古

<高麗史節要舊鑄字本(卷十九, 卷百.)縱25.5糎, 橫18.0糎,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所藏>

고 하여 功名心에 눈이 어두웠던 그의 幼稚한 마음씨를 冷笑하였는데 林道春(HAYASHI-DŌSHUN)(德川幕府의 儒官, 字는 子信; 號는 羅山, 儒家 林家의 祖)이라는 儒者도 秀吉의 이 暴擧가 玩兵黷武라고 規定짓고 다음과 같이 論하였다. 『唐太宗은 明君이었다. 明君이라는 이름을 좋아 하였으므로 해서 衆軍을 보내 高麗(高句麗의 뜻)를 치게 하여 敗績을 당하고 살아돌아온 者가 적었다. 秀吉도 또한 이 役에 있어서 거의 7,8年이 되었는데 果然 어떠한 利益이 있었단 말인가. 兩國 백성의 生命만 屠戮되고 없어졌을 뿐이었다. 이는 군사를 희롱(玩兵)하는 것이고 武力을 더럽히는(黷武)것에 不過하였으니 嗚呼라 아깝도다.』하였다. 또 그의 死亡에 대해서도 그는 天罰을 맞은 것이라고 하여 기뻐하는 形便이었으니 이러한 見地에서 본다면 그는 매우 「不幸한 사나이」이기도 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海東繹史卷六十五 征伐記에서 다음과 같이 評하고 있는 것이 그 一例인 것이다. 『秀吉公이 慶長 3年 8月에 죽어서 드디어 暴露之師를 모두 돌이키고 우리나라를 危難之域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니 참으로 多幸한 일이었다. 秀吉公은 아직 한번도 나라를 泰平하게 하고 백성을 平安케 하는 方案을 모색하지 못하고 다만 실없이 無益之師를 일으켜 멀리 이웃나라를 쳐서 罪없는 사람을 죽이고 千里에 軍糧을 보내서 우리의 生靈을 凋弊케 한 까닭으로 罪를 神明에게 얻고 그 몸이 죽었으나 3年을 지내지 못하여 倭國이 크게 흩어져 嗣子인 秀賴公은 필경 元和之役(光海君 7年 西紀 1615年, 元和元年)에 죽고 말았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小로써 大를 圖謀함은 항상 災殃이라 하였나니라.』라고 하였다.

이러한 여러 論者들과는 反對로 豊臣秀吉의 侵略이 深謀와 遠慮의 結果이며 一大 政略的 布石이라고 보는 側도 있으니 賴山陽은 다음과 같은 趣旨로 評하고 있다. 『太閤(秀吉)의 雄才와 大略으로써 8年동안에 60餘國을 平定하였은 즉 그의 餘力을 海外에 마음껏 뻗치는 것은 元來부터 當然한 일이라 하겠다. …中略… 그러므로 朝鮮之役에 있어서 그는 天下의 群雄들에게 命令하여 물어 뜯고 치고 받고 때리는 것을 마음대로 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力量을 削減케 하려는 것이었다.』하였다.

元是 陰兇하기 짝이 없던 秀吉의 뱃속에는 이러한 것을 노린 點도 없지는 않았으리라고 보지만 그러나 이것은 動機의 不過 몇分之一도 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이니 事實 그렇다면 秀吉의 心服之人은 되도록 自己밑에 最後까지 温存하는 것이 常識이라고 보는데 그는 小西行長, 加藤清正, 黑田長政등 가장 信任하는 將領들의 主力을 먼저 投入하고 있으며 九州附近의 가장 가까운 地帶에 사는 將領들에게 人的 物的 動員의 負擔을 많이 시키고 있다. 消耗戰略을 爲主로 하는 것이라면 가장 먼 곳에 있는 將領들과 가장 新附의 將領들, 例컨대 奥羽地方의 南部利直, 伊達政宗, 最上義光 등부터 먼저 動員하였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들에게는 都合 9百名만을 出動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自己自身이 直接 나가려고 數次에 걸쳐서 宣言하였고 또 뒤에 가서는 養子인 關白 秀次를 내보낼 것을 생각하기도 하였으니 그가 宣祖 28年 正月 16日附로 吉川廣家에게 보내는 書信中에서 『來年에는 關白(秀次를 말한다)이

出馬할 것이오.』하였는데 이때까지는 아직도 그가 養子 秀次를 믿고 있었으며 장차 그의 次子인 秀頼를 秀次의 女婿로 삼을 생각을 하였던 때인 것이다.

그가 侵略將領들에게 많은 賞狀(感状)을 주고 封祿도 많이 주기를 아끼지 않았으니(賞罰條 參 照) 頼山陽의 判斷은 곧 그대로 믿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秀吉은 2年뒤에는 天皇(後陽成)을 北京에 모셔가기로 하고 天皇도 그러한 말을 하고 있었으니 相國寺(SHŌKOKUJI)(京都市烏丸通今出川上所在, 臨濟宗派의 相國寺大本山)의 住持였던 有節和尙은 그의 著書인 鹿苑日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6月 13日에 主上(主聖)께서 말씀하시기를 太閤께서 入唐하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그대(有節和尙自身)를 거느리고 갈 것이로다, 하셨는데 이것은 聖帝(後陽成天皇)께서 직접 勅言하신 바라. 삼가 低頭하고 받았는 바 五山의 學僧(五岳出世衆)20名도 陪從케 하리라는 것이었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五山은 禪宗의 五大寺로서 京都五山(天龍寺, 相國寺, 建仁寺, 東福寺, 萬壽寺이며 南禪寺는 五山보다 上位에 두었다.)을 말하는 것이었다. 떡주기 前에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려는 格이었으나 秀吉의 뜻이 北京에 있였던 것은 事實이었다고 보는 바 그가 壬辰年 4月 25日부터 名護屋에 留陣하면서 侵略軍을 統督하게 되었을 때 捷報가 연달아 오고 또 王京(漢城)占領의 報告까지 받게 되자 自身이 直接 바다를 건너갈 것을 決心하고 沿道에 行營을 만들 것을 命令한 다음 關白 秀次에게 書面을 보내 그의 뜻을 말하기를 『皇都를 明京에 옮기고 그 附近 十國(省또는州, 縣)을 天皇의 直轄領(御領)으로 바칠 것이며 日本의 帝位는 皇儲 또는 皇弟로써 繼承케 할 것이오. 또 秀次를 明나라의 關白으로 삼고 北京附近의 百個國을 주게 할 것이며 日本의 關白은 羽柴秀保(秀吉의 義弟인 秀長의 아들), 또는 宇喜多秀家(秀吉의 養女의 夫로서 秀吉의 前 養子)에게 넘겨주게 할 것이오. 그리고 朝鮮에는 羽柴秀勝(美濃岐阜의 城主), 또는 秀家를, 그리고 九州에는 羽柴秀秋(小早川秀秋, 秀吉의 前養子로서 그의 本夫人인 北政所의 本家의 甥侄)를 두게 한 다음 나自身이 直接 明나라 寧波府에 들어가서 살 것이오. 今年內로 明京에 들어가 先鋒 諸將으로 하여금 나가서 天竺(印度)까지라도 略取케 할 것이오.』라 하였으니 그의 꿈은 매우 컸으며 決코 잠고대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 戰爭은 政略의 延長이라 하지만 明나라는 勿論이고 印度까지라도 侵略하고야 말겠다는 妄執一念에 사로잡혔던 秀吉을 가르켜서 蓋世의 英傑이라고 믿고 있는 日本사람이 오늘날도 또 있을까. 이러한 一方的인 侵略根性에 대하여 오늘날까지도 反省없이 도리어 禮讃하는 사람이 또 있다면 이는 日本民族 스스로를 위하여서도 커다란 또 하나의 不幸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二, 媾和交涉의 決裂과 再侵

이 戰役 7年동안의 절반이 되는 歲月은 媾和問題를 둘러싼 戰時外交로서 始終하고 있으며 끝내는 豊臣秀吉의 怒號一聲으로 決裂되고 말아서 마침내 다시 2年間에 걸친 戰亂에 突入하고 있다. 「和」의 一字는 壬辰年의 釜山鎭攻陷에 앞서 小西行長의 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처음에 그는 싸우지 않고 이기려는 政略的 意圖밑에서 東萊, 尙州, 臨津江, 平壤에서 꾸준히 着眼하고 提唱하였던 것으로 보는데, 明나라에서는 市井에 있던 一無名의 策

士인 沈惟敬이 兵部尙書(大司馬) 石星을 꾀어 遊擊將의 벼락감투를 얻어 쓴데서부터 시작되어 마침내 二波三波를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이었다. 이리하여 늙은 여우(狐)의 巧智와 피많은 늑대(狼)의 奸智가 서로 얽히고 설혀서 沈惟敬은 謝,徐 兩人을 勅使라 하여 豐臣秀吉을 속이게 하고 小西行長은 小西如安을 納款使라 하여 神宗皇帝를 弄絡케 한 것인데 이것은 天下의 大勢를 洞察하는 賢明性도 지니고 있던 이 兩人이 섬나라 日本의 酋長으로서 眼下無人이 되였던 驕兒 秀吉이 要求한 七條項이 到底히 媾和를 가져올 수 없음을 미리 看破하고 苦慮하였던 나머지 꾸며낸 演劇으로서의 降表僞造였으며, 또 虛喝로써 日本諸侯들에게 自己聲勢를 자랑하여 보려는 稚氣滿滿한 秀吉의 英雄心을 얕잡아본 結果의 日本 國王册封이었고, 또 秀吉의 答書假作이었던 것으로 본다. 이 脚本은 小西行長 一個人만의 獨斷에서가 아니고 文治派라고 일컬었던 石田三成등의 幕僚(奉行)의 作用도 있었던 것이어서 이들은 豐臣秀吉의 孟浪性과 虛榮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無名之師의 終局的인 結末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腐心하였던 나머지의 發作이라 하겠다. 그러나 武斷派라고 보여지던 加藤清正은 다만 愚鈍一路로서 二王子를 미끼로 하여 七條項만을 가지고 媾和하여 보려고 헛된 努力만 하다가 필경은 秀吉의 노염까지 사게 되어 戰地에서 召喚까지 當하였으며 (29年 4月에 命令을 받고 6月 9日에 釜山浦 出航) 媾和妨害의 巨魁로 指目된 결과 秀吉로 부터 다음과 같은 二項에 대하여 直接追窮을 받았던 것이다. 『어찌하여 小西만한 사람을 가르켜 堺浦(行長의 出生地)의 상놈(町人)이라 辱을 하여 同輩(傍輩)가 서로 不和하였는고. 또 어찌하여 허락도 없이 豐臣朝臣(ASON)이라고 北京에 보내는 答書에써서 家名을 欺稱하였는고.』라는 二點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清正은 다음과 같이 解明하였다고 古橋又玄은 清正記에서 傳하고 있다. 『小西行長은 日本 堺浦의 상놈이옵고 원래 大將은 아니옵니다. 對馬守인 宗義智의 親戚(義智가 行長의 사위)이므로 大明에 가는 길잡이로 義智와 같이 가게 된 것이옵니다. 大將이 아니니 도망치는 것(平壤에서의 退却을 말한다)도 無理가 아니옵니다. 또 豐臣이라고 쓴 것은 제가 4,5歲때부터 父母를 여의고 氏族도 잘 모르오므로 豐臣朝臣이라고 하여 大明使者에게 준 것이옵니다.』하였다. 이것은 明나라 册封使 一行이 日本으로 건너가기 直前의 일인데 이때에 大地震이 있어 매우 混雜통이었으므로 清正이 바친 虎皮 몇張의 덕과 清正이 伏見城 大破에 手兵 3百을 거느리고 가장 먼저 警護로 달려 갔던 功으로써 겨우 그대로 無事하게 된 것이었다. 이렇듯 豐臣秀吉은 媾和에 대한 關心이 대단하였으니 그는 이에 앞서 27年(文祿3年)正月 6日에는 伏見城의 新築에 着工하여 10萬의 工人을 動員하고 幾千萬金을 아낌없이 消費하였는 바 이는 明나라 册封使를 맞이하기 위한 準備의 뜻이 많았던 것으로서 駿馬의 戰士 10萬을 召集하여 明使 앞에 示威하려고 벼르고 있었던 것이었으나 마침내 地震으로 大破되어 하는 수 없이 大阪城에서 明使를 接見하게 된 것이었다. 대저 豐臣秀吉의 明京侵入의 꿈은 26年 正月의 平壤撤退에서 完全히 무너져버린 것이고 漢陽城 撤退命令을 내린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흙투성이가 된 自己 威信을 되찾아 볼까 하는데만 神經을 쓰게 된 것이었고 前年(25年) 10月에 뜻을 이루지 못한 晋州城을 다시 全兵力으로 攻陷하

여 그의 武力이 아직까지도 健在하고 있다는 示威를 하고 兼하여 그네들의 撤收兵이 바다에 陷沒되지 않도록 撤收時間을 얻기 위하여 미리 先手를 써서, 追擊하는 明나라와 朝鮮군사들에게 威壓을 주려는 뜻도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謝,徐 兩使에 대한 그의 接待는 대단한 것이어서 있는 精誠은 다 드리고 할 수 있는 아양은 모조리 떨어낸 것이었으니 『一超直入大明國하여 吾朝의 風俗을 4百餘州에 바꿔 놓겠다.』던 그의 豪氣는 이미 보잘 것 없이 된 것이었으며 그가 이 때 以後부터 媾和決裂에 이르기 까지 明나라 皇帝 되기를 꿈꾼 나머지 日本國王으로 册封되기를 拒否하였다고 보는 것은 史觀의 差異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미 硏究한 바와 같이 그는 名護屋에서 大明·日本和平條件의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내세우고 있다. 『和平誓約이 相違없을 것은 天地가 비록 다한다 할지라도 改變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라. 그런 즉 大明皇帝의 賢女를 맞아 日本의 后妃로써 모실 것이다.』하였다. 말하자면 日本의 王이 明나라 皇帝의 駙馬都尉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朝鮮四道를 먹겠다는 것인데 겨우 南海一角에 붙어 있으면서의 要求이니만치 이는 一種의 흥정에 지나지 않고 王子나 官員의 볼모를 要求하는 것이 그의 참뜻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平壤을 占領中이었다면 수긍도 가지만 時期的으로 보아 이것 또한 明京에 들어가겠다고 恐喝調로 외치던 그의 虛風의 一種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高壓的 態度를 完全히 씻고 至誠을 다하여 微官末職의 謝, 徐 兩使를 接待하였으니 이러한 秀吉의 모습에 대하여 日本側 記錄을 잠시 더듬어 본다면 甫菴太閤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小西는 唐使 兩人과 同道하여 名護屋에 와서 和睦이 된 것을 아뢰니 秀吉의 氣色이 매우 좋았다. 唐使一行의 宿舍에 대하여 家康과 利家에게 잘 周旋할 것을 羽柴下總守를 通하여 命令하였으며,

大明正使參將 謝用梓(別號 龍岩)——江戶大納言家康卿(德川 家康)

大明副使遊擊 徐一貫(別號 滄吾)——加賀大納言利家卿(前田 利家)

위와 같이 5月 15日부터 21日까지 각각 맡아서 잘 接待키로 하였다.』는 것이었다.

26年 5月 23日에 秀吉이 兩使를 接見할 때에는 德川家康, 前田利家의 大納言(DAINAGON) 2名과 織田秀信, 小早川秀秋, 上杉景勝의 中納言(CHŪNAGON) 3名의 重臣들이 모두 陪席하였으며 禮物目錄도 至誠을 다한 것이었다. 船遊會에 대하여 같은 記錄에 서 말하기를,

『將軍(秀吉)도 船中에 들어와서 勅使와 그 밖의 諸侯大夫에게 饗膳을 주시고 酒宴이 悠悠하였다. 그 뒤에 能(日本의 能楽이라는 一種의 樂劇)을 하신다 하여 觀世(KWANZE), 金春(KONPARU) 등(모두 能楽의 流派名인데 이때에 그 流派의 始祖들이 직접 招待된 것인 듯)을 불러서 시작하였는 바 音曲이 海上에 흘러나와 龍神마저 感應한 듯 하였고 勅使도 興에 겨워서 머리를 조아리고 感動하였으며 天人도 즐기는 듯 하였다. 天氣가 온화하고 海上이 조용하였으며 求景하는 上下 사람들도 寬德에 感化하고 悠悠히 구경하면서 俗世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었다. 또 그 다음 날인 6月 10日 아침의 茶會

에 대하여 錢謙益撰 初學集註에 말하기를 『秀吉이 茶를 다리고(烹) 술을 채려 놓은 다음 使者를 接待하였는데 그 모양이 甚히 恭遜하였다.』하였으며 『秀吉이 손수 茶를 點하니 使者들도 異國사람 같지 않게 鄭重하게 應待하여 今世의 佳風이었다.』는 것이고 6月 28日에 兩使가 돌아 올 때에는 茶器와 茶, 白米, 雁鴨, 生雞등을 船中에 넣고 비단등을 선사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이 豐臣秀吉은 兩使를 明나라 皇帝의 勅使와 똑같이 取扱하고 船遊會에서는 自身이 直接 能樂의 役者로서 演劇도 하고 茶會에서는 몸소 茶를 點하여 대접도 하면서 無盡한 精誠을 다 바치면서 媾和를 목말라 기다렸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끝내 晋州城 陷落을 命令하여 兩使가 떠날 때에는 이미 晋州最後의 날이였으니 이 무슨 自家矛盾이었으며, 이 무슨 變態患者의 兇行이었던가. 天人이 共怒할 이 蠻行을 저지른지 한달 만에 그가 바라고 바라던 二子秀頼가 出生하였으니 長子 鶴松의 夭死로 因하여 悲歎에 잠겼던 그에게는 다시없는 天來의 福音이었을 것에 틀림이 없었으나 著者가 보기에는 이는 神明의 깊은 뜻으로서 이 秀頼出生으로 그의 良知良識을 송두리채 뽑아버리고 그의 一身과 一家의 滅亡을 재촉하는 葬送曲으로서 그 한덩어리 肉塊을 最後發惡의 舞臺위에 亂舞시키는 첫 場幕이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秀頼의 두돌 잔치를 하기 半달을 앞서서, 養子요 關白이었던 秀次를 베어죽이고 그의 近親諸侯를 한칼로 쓸어 버렸으며 罪없는 妻妾과 어린애까지 모조리 목을 베어 죽이고 秀次의 居城과 그 附近一帶의 民家를 모두 헐어버리고 집터까지 없새 버렸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明나라 册封使를 맞이하기 위하여 27年 正月부터 伏見城 造營에 着手하여 25萬名의 工人을 動員하여 10個月만에 落成시키고 그의 專制君王的 威勢를 자랑하였는데 이것 또한 2年이 채 못되어 한달동안에 걸친 大震災로서 잿더미가 되어버렸으니 實로 關白 秀次가 죽은지 1年뒤였던 것이다. 이러한 上天의 啓示에도 아랑곳 없이 그는 册封使와 通信使를 怒聲大喝로 追放하고 再侵을 號令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賴山陽은 日本外史에서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이에 册書(誥命勅諭)를 秀吉의 옆에서 읽게 하여, 그대를 封하여 日本國王으로 한다는 말에 이르자 秀吉이 얼굴色을 변하고 그 자리에서 곧 (立) 王의 正服(冕服)을 벗어 땅에 던지고 册書을 들어서 찢어버리면서(扯裂) 욕지꺼리(罵)를 하여 이르되 『내가 日本을 掌握하였거늘 王이 되고자 하면 곧 王이 되는 것이지 어찌하여 髯(염)虜의 封을 기다릴 것인가.」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또 掘杏菴(HORI-KYŌAN)은 朝鮮征伐記에서 말하기를 『大明에서 나를 日本의 國王으로 封한다는 것은 言語道斷의 어긋나는 일(曲事)이로다. 내 스스로 日本의 王이 되었거늘 그가 어찌 나를 許하려는 것인고. 大明王으로 封한다는 小西의 말이었으므로 군사를 撤收시킨 것이로다. 小西를 불러내라. 목을 잘라 버릴 것이라 하고 욕지꺼리를 하였다.』는 것이다. 또 山鹿素行(YAMAGA-SOKŌ)은 武家事記에서 말하기를 『내가 武威로써 日本을 다스리고 있나니 어찌하여 明나라 王이 나를 日本의 王으로 封할 것인고. 내가 明나라를 滅하고자 하였으나 大明나라 王이 和를 求하고 나를 앉은 채로 大明의 皇帝로 모실 것을 말함으로 和

談을 하였던 터인데 이제 日本의 王으로 封한다는 것은 明나라 王이 나를 甚하게 속인 것이로다.』하였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册書를 찢었다는 것이 浪說인 것은, 『이 文書가 당시의 그대로 石川子爵家에 간직되어 있으니 事實이 아닌 것은 明白하다.』라고 德富蘇峰(TOKUTOMI-SOHŌ)이 朝鮮役이라는 그의 著書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의 問題되는 바「明나라 皇帝되기를 秀吉이 바라던 것인데 日本國王으로 册封되기만 한 것을 激憤하였다.」는 說에 대하여서는 그는 이어서 다음 要旨의 理由로서 그 根據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바 著者도 이 意見에는 全然 同感인 것이다.

『첫째로, 明나라 皇帝가 秀吉을 皇帝로 册封한다는 것이 常識上 있을 수 없다. 이것은 册封이 아니고 讓位인데 日本軍은 平壤에서 大敗한 다음에는 겨우 碧蹄舘一戰에서 그 南下를 막은 것이니 아무리 日本便을 들어서 에누리 하여 생각한다 치더라도 日本과 明나라 군대가 겨우 서로 半에 不過하며 더구나 그 싸움터는 朝鮮의 땅이어서 明나라 領土안에는 한걸음도 발을 들여 놓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形勢下에 어찌하여 明나라 皇帝가 寶位를 그에게 讓位할 것이겠는가. 어지간한 常識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이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로, 26年 5月에 秀吉이 媾和條件을 發表할 때에 大明國皇帝의 讓位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言及이 없고 또 要求한 바가 없으며 다만 大明皇帝의 皇女를 日本天皇의 后妃로 할 것만을 提示하고 있으니 아직까지 一兵도 鴨綠江을 건너 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秀吉이 제아무리 大魔王의 힘이 있다 치드라도 伏見城과 大阪城에 앉은 채로 中國四百餘州의 帝位를 따보려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明나라 皇帝의 벼슬을 바라고 있던 秀吉이라면 어찌하여 朝鮮四道의 分割로서만 滿足하였겠는가.

셋째로 아무리 行長과 三奉行들이 文字를 모른다 치드라도 그들의 陣中에는 僧玄蘇 같은 學者도 있었는데 册封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全혀 모를 理가 없으며 日本武將이 明나라에서 日本國王의 封을 받았다는 것은 足利義滿 以來 그 前例가 있으니 「册封은 皇帝讓位가 아니고 日本國王에 封한다는 것」을 誤認할 까닭이없다.

대체로 위와 같은 理由로서 豐臣秀吉은 日本國王에 册封된 것을 怒한 것이 아니라 다만 虛名만을 주고 그가 條件으로 提示한 것을 하나도 들어 주지 않은 것을 怒한 것이라』는 이 見解에 讚同하는 것이다. 또 그가 朝鮮國 使臣에 對한 不滿이라는 것은 『二王子와 三大臣(黃廷彧, 金貴榮, 黃赫을 말한 듯), 그리고 三都(王京, 開城, 平壤)와 八道를 天朝의 뜻에 따라서 돌려 보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卑官微物로써 來賀케 하니 小邦(日本)을 辱되게 하려는 것인가.』라는 全邊略記의 所見과 『然이나 倭는 朝鮮王子가 가서 謝하지 않음을 責하고 이전과 같이 釜山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皇明通記의 見解와 그리고 『天朝에서 天使를 보내 나를 封하여 王으로 하는 바 榮은 곧 榮이로되 朝鮮에 禮가 없으므로 和를 許할 수 없으니 마땅히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征伐할 것이라.』는 再造藩邦志의 論調로 보아서는 丁酉再侵의 原因이 日本國王으로 封한 明나라의 責任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朝鮮國이 無禮하여 卑官末職者를 뒤늦게 보낸데

있다 하여 朝鮮國의 責任이라는 것인데 著者로서는 이 경우에도 또한 明나라의 責任이 絶對的이라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朝鮮國에서는 册封之議에 대하여서는 徹頭徹尾로 反對하는 立場에 있었고 通信使의 派遣도 明나라의 強要로 말미암아 마지 못하여 보낸 것이었고 通信使가 秀吉을 接見도 하지 못하고 追放 당하다 싶이 한데 대하여서도 朝鮮 朝廷에서는 使臣의 責任을 全혀 追窮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아 朝鮮國의 責任보다도 求和에 汲汲하던 明나라의 責任이 더욱 크다고 보는 까닭이다.

三, 義兵의 奮起와 그 눈부신 活躍(原支第112參照)

本役에 義兵이 蜂起하여 壯快한 活動을 展開하게 된 文獻的 事實에 대하여서는 이미 第六章 第1節의 첫項에서 말하였으므로 다시 重復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義兵의 區分과 蜂起하게 된 原因, 그리고 그 構成要素에 이어 義兵의 變質과 叛亂에 대하여 살펴 본 다음 마지막에 가서 主로 丁酉再侵때에 組織을 보게 되었던 奮義復讐軍에 言及하여 보고자 한다. 이러한 問題에 대하여서는 史學硏究(韓國史學會 發行) 第八號에 실려 있는 崔永禧敎授의 論文인 「壬辰義兵의 性格」에서 啓發되는 바가 많았음을 感謝드리는 同時에 本觀察의 骨子가 이 論文에서 引用된 것이 또한 많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두는 바이다.

첫째는 義兵의 區分에 대한 問題이다. 義兵을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區分할 수 있으니 義兵將이 主動이 되어 義兵들을 모집한 것과 地方士人들이 義兵을 構成한 뒤에 義兵將을 推戴한 것으로 二大分할 수 있고, 나머지 한 가지는 本戰役末期에 義兵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 되자 國家에서 官製로 만든 奮義復讐軍을 들 수 있다. 또 그 內容에 있어서 순수한 義兵만으로서 構成한 것과 官軍과 義兵의 混成으로 된 것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主將이 現役官職을 標榜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大部分이 義兵으로 構成되었다 하더라도 官軍으로 取扱하려는 것이니 따라서 全羅監司인 權慄의 군사는 成分如何를 莫論코 官軍으로 보려는 것이다.

義兵將이 中心이 되어서 構成한 것으로는 郭再祐, 高敬命, 趙憲, 洪季男, 林仲梁, 禹性傳, 柳宗介, 朴思齊 兄弟등이 있고 後者의 경우로 推戴된 것은 晋州儒生 3百餘名이 서로 通文하여 義兵을 피한 것(宣祖實錄卷二十七, 二十五年六月丙辰)과 禮安의 全士子가 奮義起兵한 것(亂中雜錄卷一壬辰七月)과 같이 廣範圍하고 同等한 立場에서 서로 糾合하고 서로 의논하여 그들의 將領을 推戴한 것이니 永同士民이 鄕兵을 모아 縣監 韓明胤을 盟主로 모시고(鼓山集卷十七 行狀 牧使韓公明胤行狀), 牙山에서 前右議政 沈守慶을 義兵大將으로 모셨으며, 北評事의 現職官人인 鄭文孚가 兵使를 제쳐 놓고 校生, 武士, 有識者에 依하여 義兵大將의 稱號를 받게 되었던 것이 있다. 特殊한 例로는 넓은 地域에 걸쳐서 共同 謀議한 끝에 首謀者들이 各己 數人또는 數10人을 모아서 齊會한 뒤에 大將을 推戴한 것이 있으니 前奉事인 鄭經世와 察訪 權景虎등의 共同起兵을 들 수도 있다. 官軍과 義

兵과의 區分에 대하여서는 右參贊 成渾이 말한 바와 같이『召募之人이 곳곳에 있어서 義旅를 收集하고 各自가 軍을 만들어서 州縣의 號召를 받지 않는 者를 義兵이라 하고 守令들이 軍民을 調發하여 元帥의 節制를 받는 者를 官軍이라 일컫는다.』하였으니 義兵은 官權에 依하지 않고 自募에 依한 것이고 官軍은 守令의 調發에 依한 것이었으며 義兵은 大局的으로 國家의 統制를 받았으나 官人 아닌 義兵將의 指揮下에 있으면서 어느 程度의 行動의 自由가 있었던 것이라는 差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義兵이 蜂起하게 된 原因에 대한 問題이다. 처음에 義兵이 일어나게 된 原因에 대하여 宣祖修正實錄 卷二十六 宣祖二十五年 六月條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諸道에 義兵이 일어났는데 이 때에 三道帥臣이 모두 人心을 잃었고, 變이 일어난 뒤로는 兵糧을 督發하여 사람들이 모두 嫉視하고, 賊을 만나면 그대로 潰散하므로 道內의 巨族名門과 儒生들이 朝命을 받들어 倡義하고 일어서매 듣는 者들이 激動하여 遠近이 서로 應募하였는바 비록 크게 戰勝을 거두지는 못할지라도 人心과 나라의 運命을 여기에 걸고 維持할 수 있었다.』하였다. 이 당시의 民心의 惡化에 대하여 趙慶男은 亂中雜錄卷一, 壬辰 七月條에서 말하기를『豪悍한 奴僕들은 많이 主人을 죽이고 橫肆하였으며 或은 鋒刃을 서로 加하거나 또 或은 서로 淫穢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었는데 게다가 王의 西遷과 日本軍의 漢城占領의 소식은 더욱 큰 衝擊을 주었으니 同實錄六月條에 이르되『妖言이 일시에 일어나서 國家가 반드시 亡한다고 할새 縉紳으로 名望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自全之計만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車駕가 平壤을 버리고 또 다시 西巡하게 되자 日本軍의 占領地域下에서는 遠近의 民情이 系屬할 바가 없어서 弱한 者는 賊을 따라 生을 求하고, 強한 者는 이 때를 利用하여(乘時) 盜竊하는 者가 不知其數였다.』고 懲毖錄卷六 辰巳錄 探報黃海道條에서 말하고 있으니 이러한 民心의 離散속에서 憂國愛民의 義兵이 스스로 일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일어난 義兵들은 거의 모두가 儒生들로서 敎養이 있었으며 義兵將들은 兩班中에서도 文班出身이며 地方의 儒林名族들이었으니 龍蛇日記의 壬辰十一月十七日條에서 禮安의 姓名未詳의 一義兵將의 倡義通文을 다음과 같이 紹介하고 있다.『우리가 平日에 배운 것이 무삼 일이며, 講論한 것이 무엇이였는가. 그는 臣으로서 忠을 위하여 죽고 아들로서 孝를 위하여 죽는데 있는 것이 아니였던가. 과연 그렇다 할진대 어찌하여 홀로 오늘날 一介半介의 死忠死孝者를 아직도 못보았는가.』라고 儒敎에 源由하는 道義的 勤王精神을 唱道하였으니 이는 守令과 武將들의 無能과 卑怯, 그리고 官軍들의 潰敗와 逃避에 激忿한 것이었음을 말하여주는 것이다. 招諭使 金誠一은 道內의 邊將, 父老, 子弟, 閑良, 軍人들에게 보내는 檄文에서 말하기를,『이 染齒之徒(野蠻의 무리)가 우리 땅에 한번 들어 오자 곧 雄據할 뜻을 세우고 婦女를 係携하여 妾으로 삼았으며 壯丁을 屠戮하여 남기지 않았고 閭閻을 쓸어서 불태워 버렸으며 公私蓋藏을 모조리 그들의 所有로 만들어서 遍毒四域하고 流血千里하여 生民의 禍가 말할 나위도

없나니 이는 實로 志士들이 武器를 벼개 삼아서 싸울 때이고(枕戈之日) 忠臣들이 나라에 殉節할 때로다.』하였다. 이러한 氣運에 刺戟을 받고 義兵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된 것은 朝廷에서 낸 召募義兵의 命令과 義兵將에 대한 異例的인 叙職이였으니 25年 5月에 王은 罪己之書(自己를責하는敎書)를 八道에 내리고 召募義兵의 特使를 내려 보냈으며 王世子는 7月에 「諸路官義兵 勉以勤王朝」의 下書를 내렸고 이어서 그의 手書가 義兵將 金千鎰에게 傳達되어 七道에 移檄되었으며 또 都元帥 金命元은 이에 呼應하여 諸道의 官義兵에게 檄文을 보내게 되었다. 대저 義兵이란 亂中의 勤王으로 처음에는 朝廷과는 아무런 正式關聯없이 일어난 것으로서 守令이 嚴存하고 있는 以上 民衆으로서는 官軍에 應募하지 않고 義兵에 加擔한다는 것이 謀逆과도 通할 수 있으므로 뚜렷한 名分이 서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 召募義兵의 王命을 받고보면 이러한 危懼心이 없어지고 더욱 官軍보다도 名譽스러운 尊王攘夷의 大義를 내세우게 된 것이다. 더구나 守令이나 武將들이 官軍을 이끌고 敗戰만 거듭하였다고 糾彈될 때에 義兵將에 대한 異例的인 叙職과 論賞, 그리고 義兵에 대한 優待는 더욱 義兵蜂起에 커다란 鼓舞가 되었던 것이리라. 이렇게 하여 下三道義兵의 實情이 잘 알려지게 되자 備邊司에서는 壬辰 6月 29日丁巳에 그 叙職과 論賞을 의논하게 되었으니 啓하기를 『前掌令 鄭仁弘, 前佐郎金沔, 朴惺, 前參奉 盧欽, 幼學 郭再祐, 全雨, 李大期등은 變亂을 듣고 投袂하여 義兵을 모았으며 期約하여 賊徒를 勦滅하였는 바 그의 뜻이 매우 嘉尙되므로 모두 叙授하여 後來를 勸奬할 것이고 或은 罪辜之中에 있는 者는 마땅이 씻어 주어서 義擧를 돕게 할 것이옵니다. 또 羅州居人인 前府使 金千鎰도 義兵을 모아 7百餘名이 되고 곧 都城을 收復하려 하여 이달 13日에 天安에 이르렀다 하오매 이 사람도 또한 마땅히 急히 叙職하여 奬勵할 것이옵니다.』하니 王이 이에 좇아 金千鎰은 掌樂院正으로, 朴惺은 工曹佐郎으로, 鄭仁弘은 濟用監正으로, 金沔은 陝川郡守로, 郭再祐는 幽谷察訪으로 各各 叙職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義兵將은 朝廷에서 守令과도 같은 待遇를 받았고 實地에 있어서도 地方에서는 守令에 못지 않는 威嚴과 實力를 갖고 있었다. 이리하여 召募義兵과 義兵將의 叙職은 地方의 巨族들과 儒生들을 激發하였고 이들이 倡義起兵하게 되자 듣는 者가 激動하고 遠近이 應募하여 더욱 義兵의 蜂起를 재촉하게 되었던 것이다.

셋째로는 義兵의 構成要素에 대한 問題이다. 義兵中에는 奮義之士가 많았던 것은 事實이며 그렇기 때문에 義兵은 緖戰에 있어서 官軍보다도 훨씬 더 큰 戰果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癸巳年 正月 11日 丙寅의 集計에 依하면 官軍 8萬 4千 5百에 대하여 義兵이 2萬 2千 2百으로 約 4分之 1이였고 이 2萬餘의 義兵中에는 여러가지 成分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附表第17參照)義兵將은 地方에서 物質的으로나 精神的으로 많은 影響을 줄 수 있는 人物들이였기 때문에 그 밑으로 同族과 同系의 儒生과 家僕, 그리고 田地로 맺어진 農民과, 같은 部落 또는 隣接部落의 壯丁들이 모여 들었으며, 이 밖에도 相當한 數의 敗殘散卒과 官軍에서 投入한 者와 避亂民中의 浮動者들이 들어 있였으니 壬辰 9月에 備邊司에서 아뢰기를 『義兵은 무

릇 論賞에서 他軍보다도 特遇하였는데 그 軍籍名簿를 본다면 避亂逃散한 사람들이 各自 成群하여 官家를 厭避하고 괴롭혔으며 有利하다면 싸우고 強한 賊과 부닥치게 된다면 곧 解散하여 버리는 것이다.』라고 義兵中의 不純分子를 論難하기도 하였다. 또 官軍은 義兵을 다음과 같이 評하였다고 龍蛇日記 壬辰 十二月 初四日條에 記述하고 있다.『所謂 義兵이라는 者들은 비록 誠心으로 討賊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또한 托名便私하는 者가 없지도 않아 行止를 任意대로 하고 節制도 받지 않으면서 다만 그들의 鄕里를 自保하기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各自의 鄕土만을 지키는 弊端은 義兵自身이 지니고 있는 避할 수 없는 性格 때문인 것이었고 또 그들이 官軍을 싫어 하는 까닭은 한번 官軍에 들어가면 父母妻子있는 곳을 떠나 戰地를 轉轉하여야 하였고 軍의 節制밑에서 拘束된 채로 赴敵하여야만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民衆은 元帥의 節制도 받지 않고 生命의 危脅도 적고 故鄕에 그대로 머물 수 있으며, 또 義兵將은 대개의 경우에 그 地方의 土豪였으므로 軍糧補給에도 有利하였기 때문에 官軍보다도 義兵으로, 심지어는 官軍이 義兵으로 뛰어 들기도 하였다. 이렇게하여 義兵의 構成은 처음에는 金玉같은 것이 었으나 時間이 지남에 따라서 그 質도 低下되어, 마침내 玉石이 混同되고 마지막에는 玉보다도 돌조각이 많아지게 된 것으로 본다.

또 義兵將의 性分을 보더라도 여러가지 層이 있어서 隷下군사가 數千에 達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數10을 거느리는 사람도 있고 또 名目뿐인 自稱 義兵將도 있었다. 이들의 成分은 대개 進士, 生員, 士人 또는 儒生등 未仕官者가 前職仕官者의 倍나 가깝게 많고 前職仕官者中에는 文班職이 武班職의 倍以上이나 되는 많은 人員數를 보였는데 沈守慶의 右議政으로부터 府使, 參議, 牧使, 正郞, 郡守, 縣監, 掌令, 司成, 佐郞, 察訪, 正字등 여러가지 經歷者가 있다. 現職者로서 義兵將에 推戴된 特異한 例로서는 北評事 鄭文孚와 縣監 韓明胤이 있는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으며 前職武官으로는 僉使, 萬戶, 訓練奉事등 10名 以內에 지나지 않았는데 前後義兵將의 總數는 130餘名에 達하였다. 本役이 勃發하고 官軍이 日本軍에게 潰散되어 社會가 一朝에 無政府狀態에 빠지게 되자 國權을 恢復하려고 勤王을 부르짖고 일어날 수 있는 身分은 이들의 地方에서의 名門豪族들이었고 그들 中에서도 그 身分이 社會的으로 優位에 있는 文班이였다. 또한 氏族과 學識, 그리고 經濟力에 있어서도 그 地方의 代表的 人物들이었는데 이들은 地方의 守令과 方伯을 通하여서가 아니라 直接 사람을 王에게 보내어 王에 대한 勤王과 直結되는 것이였다.

넷째로 義兵變質과 叛亂에 대한 問題이다. 처음에 일어난 義兵들은 捨身報國의 至誠으로 討賊의 功이 컸는바 壬辰 10月에 召募大將 洪麟祥이 兩湖에 通文하여 官軍을 모았을 때에는 應募하는 者가 매우 적었는데도 不拘하고 그 뒤에 義兵은 兩後竹筍格으로 일어나서 官軍募兵에 障碍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軍粮의 不足과 義兵의 繁昌으로 그에 따르는 弊端과 統帥權의 確立問題가 擡頭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여 宣祖 26年 12月 3日壬子에 備邊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對策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變初로부터 忠淸道에서는 義兵으로써

군사를 일으킨 者가 無慮 50餘陣에 이르렀으며 이들은 모두 義兵을 稱托하여 任意대로 進退하였고 官軍의 調發에도 不應할 뿐 더러 朝廷에서도 區處하거나 收拾하는 바가 없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守令 邊將들까지도 賊鋒을 보지도 못한 채로 數百里땅에 도망쳐가서는 他道에 投入하여 官軍이 되거나 또는 自募를 假稱하거나 將帥를 詐稱하기도 하였다고 宣祖實錄 卷三十一 壬辰年十月 壬寅條에서 傳하고 있으니, 이와같이 逃避한 守令, 邊將까지도 募兵立軍하게 되고 따라서 義兵가운데는 名目뿐인 似而非의 義兵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宣祖實錄卷三十六宣祖二十六年 三月三十日 己亥條에 依하면 同福縣監인 奇孝曾은 비록 義兵將이라고 稱하였으나 討賊之功은 없으면서 지나가는 곳 마다 橫暴飮食을 마음대로 하고 迎送이 不如意하면 곧 刑訊으로써 이에 對하고 官庫를 任意대로 開閉하여 軍器와 軍粮을 마음대로 가져 갔으며 守令이 있다손 치드라도 敢히 입을 열지도 못하고 吏民들이 그 辛苦를 참지 못하여 먼저 그소리를 듣기만 하여도 도망쳤다는 것이다. 또 宣祖修正實錄 卷二十六, 壬辰年十一月條에 依하면『모든 義兵들이 草野에서 蹶起하는 者가 있으면 守令의 別立軍을 삼고, 行朝에서 朝士를 起用하여 召募使를 삼게 하여 起兵케 하면 또한 모두 軍號를 세워서 스스로 別兵이라 稱하였는데 1,2百名을 가지고도 스스로 軍門으로써 自處하면서 서로 그 長되기를 다투는 것이었고 더욱 紛然하기만 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行朝에서는 義兵들을 各道巡察使로 하여금 領率케 하고 또 前右議政 沈守慶에게 建議大將의 號를 주어 諸道義兵을 節制케 하였으나 실제로서는 여러 곳에 亂立한 義兵들을 한 사람의 힘으로 統率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宣祖 26年 正月 30日 乙酉에는 各郡縣의 守令밑에 統合되지 않거나 또는 將令을 어기는 者는 모두 軍法으로써 다스릴 것을 嚴達하기에 이르렀으며 明나라 東征軍이 平壤을 收復한 다음 부터는 朝廷의 가장 어려운 問題가 곧 軍糧의 缺乏과 그 輸送方法이었는데 朝廷에서는 義兵의 總動員計劃을 세우게 된 것이다.

王은 承政院에 吩咐하기를『京畿 義兵들은 糧餉만 徒費하면서 一事도 成功하지 못하였도다.』하고 이들로 하여금 軍糧을 運搬할 것을 命令한 다음 備邊司로 하여금 이 命令을 어기는 義兵은 群盜로써 論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原因은 義兵이 各處에서 呼應하였을 무렵에 東征軍이 戰爭의 主導權을 잡고 役初와 같은 戰鬪力과 民心維持를 위한 義兵의 存立意義가 稀薄하여 짐에 따라서 漸次로 官軍이 義兵보다 優位에 올라서게 된데 起因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義兵은 朝廷과 守令들의 強力한 統制下에 놓이게 되어 宣祖 26年 末에는 忠淸道 義兵은 忠淸兵使가 管掌하여 訓練하게 되고, 全羅道義兵은 官軍과 合同하여 進退하기에 이르렀는데 宣祖도 마침내 義兵을 評하기를『各道의 亂雜한 사람들이 스스로 서로 團聚하여 零賊을 치고서도 義兵이라 自稱하였고 建立之功을 세우지도 못하면서도 多弊之譏만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義兵將에 대한 叙職은 드디어 地方의 儒生들과 前職者들의 起兵을 競爭化하기에 이르렀고 그 中에는 零賊이나 討滅하고 또는 軍糧5斗로써 日本兵의 斬級 1首를 바꾸어 功을 세워 보려는 僞造義兵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同時에 初期

의 有能한 義兵將들은 漸次로 官人의 性格을 띄게 되었고 또 義兵들 가운데서도 將才가 있는 사람은 常規에 不拘하고 拔擢하였으므로 戰亂의 長期化에 따라서 漸次로 그 밖의 義兵들의 質을 低下시키게 된 듯 하였다. 이것은 義兵中에서 素質 좋은 사람이 官軍化되는 反面에 官軍을 忌避한 避役者들이 점점 많아져서 戰亂의 飢荒이 닥쳐오자 그들의 亂行이 더욱 甚하여지는데 拍車를 加하는 傾向이 많아진 까닭이었다. 뿐만 아니라 義兵은 敗하여도 罰이 없었고 이기기만 하면 大賞이 있었으므로 드디어 官籍에 있는 者도 義兵을 假稱하면서 富民을 劫掠하고 官家까지 威脅하기에 이르렀으며 中路에서 사람을 拉致하는가 하면 官馬를 掠奪하기도 하여 이로써 一路의 私藏公廩과 官騎私牛가 거의 모두 없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集團的 掠奪은 壬辰年 겨울부터 數年동안에 걸친 饑饉의 深刻化와 癘疫의 大流行으로 더욱 惡化되어 마침내 義兵中에서 群盜로 變하여버리는 者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傾向은 民生의 刻薄性과 더불어 더욱 甚하여졌는데 安集使 金玏은 癸巳年 4月에 馳啓하기를, 『慶尙一道에 土賊이 興行하여 百十으로 떼를지어 掠奪과 殺人을 끝없이 하였다.』라고 하였으며 乙未年 正月에는 納降土賊들이 如前히 結黨하여 여러 部落을 橫行하였으므로 朝廷에서는 이들을 訓練都監行伍에 編入하거나 農軍別哨에 充當하려고 하였다.

이 때에 吏曹判書인 李德馨이 말하기를 『投降之賊 가운데는 義兵으로서 饒健하여 倭人을 죽인 사람도 또한 많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土賊中에는 本來義兵으로 活躍하였던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밖에도 避役窮塞한 백성들 가운데는 往往 士族과 武士들이 끼어 있어서 儼然成群하여 橫行無忌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까닭은 士族과 武士들은 義兵의 主動이었고 또 될 수 있는 身分이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群盜는 마침내 甲午年에는 宋儒眞의 亂으로, 丙申年에는 李夢鶴의 亂으로 까지 번지게 된 것이였다.

마지막으로 義兵의 名聲을 떨친 것은 癸巳年 12月에 起兵한 忠勇將 金德齡이었는데 그도 또한 軍糧不足으로 起兵한지 3個月뒤에는 3千餘名의 義兵中에서 5百餘名만을 남기고 그 나머지는 모두 歸農시키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마저 마침내 李夢鶴亂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獄死하게 되자 (金德齡의 無辜한 獄事에 대하여서는 第十章 第1節 參照) 이로부터 義兵活動도 스스로 雲散霧消하게 되었던 것이니 江을 건넌 다음에는 뱃사공이 또다시 賤하게 보였던 까닭이었으리라.

다섯째로는 奮義復讐軍에 대한 問題이다.

錦山 第1次 戰鬪에서 義兵將 高敬命이 陣歿하자 그의 陣中士子들이 散卒 8百餘名을 召募하여 前府使인 和順사람 崔慶會를 推戴하여 盟主로 모시고 勤王한 事實에 대하여 宣祖修正實錄 卷二十八 壬辰十二月條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처음에 高敬命이 敗한 다음 그 아들인 前縣令 從厚는 縞素(白色喪服) 從軍하여 그 父의 나머지 군사를 모아 別軍을 만들었는데 이에 이르러 體察使 鄭澈은 朝廷의 뜻을 宣明하고 勸諭하매 洪季男이 먼저 諸道에 通文을 내렸고 趙憲의 아들 完堵등이 이에 應하였으며 또 從厚로 하여금 寺奴를 거두어서 군사를 만들게 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로써 볼 때에 奮義復讐軍이라는 別稱은 없었으나 義兵

將들 士子들이 그 父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別軍을 만들었고 朝廷에서도 召募復讐케 한 것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復讐軍이 正式으로 廣範圍하게 組織된 것은 丁酉再侵을 앞두고 宣祖 29年 12月부터 시작된 것이니 父母, 妻子, 兄弟가 日本軍에게 被害된 사람을 自募케 하여 그 가운데서 適材를 뽑아 大將을 삼고 그 人員의 多寡를 莫論하고 復讐軍이라 한 다음 全國에 이 趣旨로써 佈告케 한 것인데 이에 應한 首請人은 鄭經世였으며 王은 그에게 復讐軍召募의 計를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에 있어서 承旨 柳永詢도 復讐軍에 加盟하였고 이어서 右副承旨 金時獻과 執義 宋諄등도 會盟하여 軍中에 堂上郎聽을 두어 復讐軍聽을 設置할 것을 上申하게 되고 宣祖 30年 2月에는 南郊에서 親讐人 7百餘名과 宗室 91名의 奮義復讐軍이 會盟하게 되었다. 이때에 王子와 駙馬, 그리고 婦女도 이에 加擔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군사들은 直接的으로 義兵과는 關聯이 없으나 官軍外에 別軍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또 그 名分上으로 보더라도 一種의 義軍에는 틀림이 없었다. 이 復讐軍은 朝鮮王朝의 儒敎的인 孝에 대한 觀念과 家父長制인 大家族制度에 源由한 것이며, 義兵은 地方의 名門과 巨儒들이 蜂起한데 대하여 復讐軍은 王과 朝臣들이 主動이 되어 만들어진 事實로 본다면 官製的 義兵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復讐軍도 몇달 못가서 벌써 그 虛弱性을 나타내게 되었으니 實錄編纂者는 卷八十七 宣祖三十年四月戊寅條에서 이미 다음과 같이 評하고 있다. 『다만 我國사람의 人心이 浮輕無實하여 비록 名流의 家門에 있는 者라 할지라도 그의 父母가 賊手에 被害되어 復讐一念으로 나왔다는 者들로서 縱酒汰妓하기를 太平時와 같이 하고 아직 喪을 免치 못하면서도 스스로 起復從軍한 者들로서 推牛食肉하기를 平人과 다름이 없게 하나니, 軍中에서 나무라서 말하기를 아무개의 원수는 倭賊이 아니고 소(牛)로다라고 하였다. 士大夫들이 모두 이러 하거늘 하물며 軍卒로써 몸을 바쳐서 赴敵하는 者에 있어서랴. 군대를 만든 다음에 아직도 敵의 一陣을 치거나 一賊을 죽이지 못하고 다만 侵擾貪民하며 勒束爲兵하고 聚斂爲糧하나니 閭巷間에서는 愚夫와 愚婦들로 親讐者들이 그 辛苦에 견디지 못하여 서로 이끌고 도피하여 가로되 「復讐軍은 한 사람의 원수도 갚지 못하면서 헛되게 우리의 家庭만을 破滅케 한다.」라고 하였다. 슬프도다. 이 軍을 만든 것은 그 이름 듣기에는 매우 좋으나 그 實인 즉 마침내 웃음꺼리가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해 8月에는 奮義復讐廳에서는 復讐軍으로서 도망한 者는 梟示할 것을 公告하기에 이르렀으며 뒤 이어 12月에는 이 復讐軍 創設의 主動人物이었던 大司憲 金時獻과 鄭經世, 그리고 正言 趙濈(즙)등이 아뢰기를 『復讐의 命令을 받고 一賊도 죽이지 못하였나이다.』하고 이에 대한 罪를 스스로 들어 臣職의 命遞를 自請하기에 이르렀으니 丁酉再侵에 있어서 人心이 더욱 崩潰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좋은 例로서 忠淸兵使 李時言이 거느리던 2千餘名의 군사들은 이 때에 모두 逃散하여 버리고 겨우 50餘名밖에 남지 않은 實情을 들 수 있으니 이러한 時代的 低俗에 휩쓸려서 奮義復讐軍도 크게 그 期待에 어긋나게 되어 드디어 龍頭蛇尾格이 되고 말았다.

略 歷

韓 明 胤

淸州사람이며 字는 晦叔이고 副護軍 頤의 아들로 中宗 37年 壬寅(西紀1542年)에 出生하여 宣祖 23年 庚寅에 永同縣監이 되고 本役에는 군사를 모아 要害地를 死守하니 朝廷에서 助防將의 稱號를 兼帶케 하였으며 26年에는 尙州牧使로서 防禦使를 兼하다가 이해 10月에 戰死하니 時年이 51歲였다. 宣武原從二等勳에 錄하고 吏曹判書를 追贈하였다 <鼓山集>

四, 類例 없는 戰禍의 慘酷相 〔原文第149~3 參照〕

무릇 戰爭被害가 交戰國家와 國民에게 끼친 바 影響이 莫甚한 것은 유감되나마 極히 當然한 일이어서 이것을 戰役의 特質이라고 하여 새삼스럽게 내세운다는 그 自體가 우수운 일임에 틀림 없을 것이나 本役의 始終을 더듬어 보고 그 眞相을 살펴 볼 때에 우리가 눈물과 激憤을 참지 못할 만치 이 七年戰役의 災禍는 참으로 컸던 것이고, 오늘날에는 想像하기조차 힘들만치 우리 祖上들이 生地獄속에서 헤메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사람을 서로 잡아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悲慘한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 祖上들은 日本軍과 一部의 東征軍, 그리고 우리 同族의 惡한 무리로 부터 三重苦의 煉獄의 試練을 겪었던 것이니 敵軍으로 말미암아 코를 잃은 사람, 妻妹가 凌辱을 당한 사람, 長幼血親이 殺戮을 당한 사람은 말할 나위도 없고 東征軍의 戰功의 祭物이 된 사람과 甚至於는 우리 同族들에게 斬首及第의 犧牲이 된 사람까지 있었으니 이러한 慘變은 일찌기 딴 戰亂 때에 보지 못하였던 그러한 慘又慘, 酷又酷의 悲痛相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著者는 일부러 이 問題를 特質이라는 面에서 取扱하려는 것인데 백성들은 그 해 지은 農事로 그 해를 살아나가는 터이었음으로 離農하고 流浪하여 戰火속에 굶주린 無辜한 良民의 目不忍見의 慘景은 오늘날 到底히 想像하기 어려운 程度였다고 보는 것이다. 再造藩邦志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이 때에 賊이 漢城을 占據한지 이미 2年이 되었고 賊鋒의 陷落하는 바가 되어 千里蕭然하였으며, 백성이 耕種을 하지 못하여 모두 餓死하여 없어졌고 城中에서 남아 있던 백성들은 家族을 데리고 보따리를 짊어진 다음 數없이 明나라 군대 안으로 찾아 들어가게 되었다. 査摠兵(査大受)은 馬山으로 가는 途中에서, 어린애가 죽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는 것을 보고 불쌍하게 여겨그 아이를 주워온 다음 陣中에서 키웠는데 우리나라 사람을 보고 말하되 倭賊들이 아직 退却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辛苦가 이와 같으매 장차 어이할 것인고, 라고 嘆息하는 것이였다. 하늘에 愁心이 가득하고 땅에 慘狀이 넘치도다.(天愁地慘)』하였다.

또 같은 文獻에서 말하기를, 『全羅募召官 安敏學이 皮穀 10萬石을 배로 날라 왔는데 前郡守 南宮悌는 監賑官이 되어 松葉을 모아 가루를 만들어 솔잎 十合에 쌀가루 一合을 섞어 물에 타서 마시게 하였으니 사람은 많고 米穀은 적기 때문이였다. 明나라 將領들도 이것을 가엾게 여겨 自己의 軍糧 30石을 내어 補給케 하였으나 百에 하나도 되지 못하였다. 하루 밤에

는 큰 비가 쏟아졌는데 굶주린 백성들이 길가 左右에서 哀號소리를 질렀는 바 그 悲楚를 참아 들을 수가 없었으며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그 慘景이 참으로 狼藉하였고 죽은 者도 매우 많았다.』 하였으니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었겠는가.

亂中雜錄에 依하면 『癸巳年(宣祖 26年) 2月에 各道의 백성들이 流離失業하고 굶어서 죽는 사람이 서로 이었으며 乞人들이 길에 차게 되고 드디어 사람들이 서로 殺食하기에 이르렀으매 아기를 잃은 사람들이 많았고 山林의 풀잎과 소나무와 느릅나무(楡)의 껍질과 뿌리, 그리고 줄기가 모두 없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芝峰類說에 依하면 癸巳年과 甲午年에는 木綿 한 疋이 쌀 2升값이고 馬 1匹이 쌀 3,4 斗값으로, 쌀이 貴해지고 굶주린 백성들이 白晝에 서로 죽여서 서로먹게 되었으며, 거기다가 癘疫이 流行하여 道路에는 죽은 者가 서로 겹치게 되고 水口門(光熙門의 俗稱) 밖에는 죽은 屍體가 山처럼 쌓여지고 그 높이가 城보다도 數丈이나 높았으므로 僧徒들을 모아서 埋葬시키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책에서는 또 말하기를 『甲午年 여름에는 큰 소값이 쌀 서말에 지내지 않았고 細木(가늘게 짠木綿) 한 疋값이 粟 數升도 채 못되었으며 珍寶등은 賣買할 수도 없었고 사람들이 서로 잡아 먹어서 女子와 어린애들은 敢히 任意로 바깥 出入조차 못하는 形便이었다. 굶어죽은 屍體가 서로 이었고 飢民이 다투어 그 屍體를 먹었으며 死骨까지 벗겨서 그 국물을 빨아 마신 다음 곧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것이었다.

牛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明나라 군인들에게 팔았으며 明나라 군인들은 하루에 數百마리의 소를 屠殺하였으므로 民間에는 牛畜과 개, 닭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戰爭에는 나의 힘만이 오직 참된 힘이라 하겠다.

또 尹國馨의 聞韶漫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壬辰亂後에 백성들이 流離分散하여 비록 大家世族이라 하여도 모두 失業하고 거지(丐) 노릇을 하였으며 婦女에도 尊卑가 없어져서 賊手에 더럽히게 되는 사람이 甚히 많았다. 그러나 뛰어난 貞節을 지킨 사람에 대해서는 朝廷에서 사람을 시켜서 訪問토록 하고 旌表하여 칭찬 하였다. 쌓인 屍體가 野에 가득 하였으나 수렴(收殮)하는 者가 거의 없었으며 아비로서 자식을 팔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팔아(鬻) 먹게 되었다. 이리하여 癸巳년 봄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서로 殺食하고 屍體를 조개서 서로 다투어 먹었으며 骨肉이라 하여도 서로 다투는(相戕) 者가 있게 되어 東方에 變亂之禍가 있은 以來로 慘酷이 甚하였던 것으로 今日과 같은 것은 일찌기 없었다. 壬辰年에는 種子를 뿌리고 雜草를 뽑은 뒤에 敵이 왔으므로 곡식이 여물 수 있었고 癸巳年에는 종자를 뿌린 곳은 잘 여물었으나 다만 中外의 原野에는 쑥대(蓬蒿)가 가득하고 종자를 뿌린 곳이 三分之一에도 차지 못하여 兇年과 다른 바 없었다. 甲午年에는 癸巳年보다 종자를 뿌린 것은 많았으나 백성들이 굶어 죽고 病들어 죽은 者가 半을 넘었으므로 耕作을 할 수가 없어서 가을 收穫이 없게 되었으니 이것은 天氣가 나빠서 곡식이 익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다. 이 文獻에서 또 말하기를 『癸巳年 4月에 敵이 退却하고 5月에 내가 漢陽城 안에 들어가 본즉 兵火를 겪은 곳을 除外하고는 市街의 人家가 依舊하여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해 10月에 還都한 뒤에는 民間사람들이 집을 허물어서 薪木을 삼았으되 禁令이 行하여지지 않고 數年동안에 滿城이 쑥밭이 되었으니 所謂 말하는 바 百年동안 쌓아올린 것을 하루 사이에 부숴 버린다는(積之百年而不足이고 毀之一日而 有餘 라)것이 참으로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朝野僉載 卷之二十八 癸巳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冬 10月 初4日에 車駕가 還都하여 貞陵洞에 있는 月山大君의 舊宅(別 稱 明禮宮)으로써 行宮을 삼았는데 이 때에 都城안은 灰燼을 당한 끝에 荊棘이 滿城하고 여기에 겹쳐서 癘疫과 饑饉으로 죽은 者가 道路에 서로 잇달아 그 臭穢한 냄새로 가까히 갈 수가 없었다.』하였고 이에 앞서 이해 正月 20日에 李如松 提督이 小公主宅(뒤에 南別宮 이라 하였다)에 들어갔는데 그 前날 日本軍이 이미 城에서 나가 버렸는 바 『城中사람은 百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았으며 겨우 살아 있던 者들도 모두 굶주리고 貧困한 나머지 顔色이 鬼神과 같았으며 公私의 家舍가 비었고 宗廟와 三闕 및 鍾樓와 太學, 그리고 各司등이 蕩然하여 灰燼만 남았는데 다만 小公主宅은 宇喜多秀家가 머물고 있었으므로 겨우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日本軍에게 붙어서 아첨한 朝鮮사람도 있었으니 燃藜室記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또 賊에게 아첨하여 親近하여지고 그들의 嚮導노릇을 하여 惡行을 한 者가 있었는데 我國사람으로서 賊을 죽이려고 謀議한 사람을 賊에게 告하여 鐘樓 앞과 崇禮門 밖에서 태워 죽였으며 酷慘을 極함으로써 示威하였으니 髑髏가 그 밑에 山積하여 있었다.』라고 하였다. 또 姜沆은 睡隱看羊錄에서 말하기를 『丁酉之役에 關白이 여러 倭將들에 命하여 割鼻로써 首級에 대신케 하였으므로 倭卒들은 我國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번번히 죽이고 그 코를 베어 이것을 소금에 담아서 보냈다.』고 하였다. 여기 대하여 懲毖錄에서 말하기를 『이 때에 賊이 三道를 짓밟아(蹂躙) 지나가는 곳마다 廬舍를 모두 焚燒하고 백성을 殺戮하였으니 무릇 我國사람을 얻기만 하면 모조리 그 코를 베어서 功을 세우게 하고 兼하여 示威하였다.』라는 것이었다. 朝鮮 사람들은 日本軍에게만 生命을 빼앗긴 것이 아니고 斬首及第의 祭物이 된 사람들도 많았으니 春坡堂日月錄 卷之九에 이르기를, 『從軍하여 賊의 머리 1級을 벤 者에게는 곧 科擧及第를 허락하였으니 이른 바 斬首及第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뒤에는 굶주린 백성들이 그 首領을 保存하기 조차 힘들었으매 서로 죽인 뒤에 剃髮하여 倭賊의 머리를 만들고 비록 진짜 倭賊의 머리라 할지라도 他人으로부터 사들여서 바쳤으며 或은 賣買하는 價格으로 訴訟을 일으킨 일도 있고 이리하여 二三品의 秩을 陞叙받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亂中雜錄에도 이와 비슷한 內容이 있는데 『備邊司의 啓請에 依하여 各道에 命令하여 武士를 試取하였는 바 鐵箭으로 활을 쏘아 五矢一中이면 合格을 시켰으며 湖南에서는 南原에 모아 놓고 5千名을 얻어서 隊伍를 編成케 한 다음 嶺南쪽에 가서 防守任務를 맡아 보게 하였

고 敵의 머리 한개를 베면 科擧及第를 허락하여 이것을 斬首及第라고 하였다.』라는 것이다. 이어서 前記한 것과 같은 內容을 밝힌 다음에 다시 말하기를 『얼굴을 들어서 天日을 우러러 보고 어찌 부끄러움이 없겠는가.』하였다. 著者인 崔慶男은 그 다음에 다시 附加하여 말하기를 『前年에 義州에서의 科擧때에는 활을 쏘아 맞지 않으면 다시 弓射位置를 앞으로 옮겨서 쏘게 하였는바 어떤 사람이 이것을 비웃었지만 斬首及第에서의 가짜 머리에 比하면 오히려 나은 편이었다.』라고 하였다.

日本軍의 割鼻에 대해서 李睟光은 그의 撰인 芝峰類說卷三 兵政部 寇賊에서 다음과 같이 더욱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 『敵이 我國사람의 코를 베어 소금에 담아서 秀吉에게 보내면 秀吉은 이것을 본 다음에는 그 나라 首都 北쪽 郊外에 있던 大佛寺(京都市方廣寺의 大佛殿) 옆에 한 丘陵을 만들어놓고 그 곳에 모두 貯藏하여 그 나라 사람들에게 威嚴을 보이도록 하였다. 우리의 血肉들이 받은 慘狀을 이로써 可히 알 수 있나니 이 당시에 코가 없어지고 겨우 목숨만 扶持되었던 사람이 또한 많았다.』라는 것이다.

百鬼가 夜行한다는 말은 일찌기 들었으되 생사람의 코를 白晝에 진짜로 베어 가는 이 말이 한날 說話가 아니고 보면 이야말로 夜叉가 날뛰는 生地獄이 아니고 무엇이랴.

이러한 서러움은 王自身도 몸소 받았으니 그것은 王陵의 掘破事件이었는바 聞韶漫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亂初에 宣陵을 파헤치고 불태워 버리는 變이 있었는데 癸巳年에 敵이 물러간 다음에 비로소 改葬하였으며 靖陵도 또한 파헤치는 바 되고 구덩이(壙) 옆에 한 屍體를 내버려 두었었다. 或 이것이 中宗의 玉體가 아닌가 하고 大臣과 여러 宰臣들이 命을 받고 宮人과 中宗廟에 奉仕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實地로 檢證하였으나 그 眞否를 判定치 못하고 다만 다시 改葬하기만 하였다. 이 屍體는 다시 衣冠을 마련하여 딴 곳에 埋葬하였던 것이다. 또 康陵도 掘破를 당하였는데 半쯤 파다가 그만 둔 것이어서 그 나머지는 無事하게 되었다. 또 順懷世子(明宗의 王世子)의 德嬪尹氏는 壬辰 3月에 卒하였는데 아직 葬禮를 지내지 못한 채로 亂이 일어났으므로 그 屍體의 간 곳을 알지 못하였는 바 금년 여름에 朝廷에 報告하는 사람이 있어서 亂初에 昌慶宮 後苑에 埋葬하였다고 하므로 뒤에 그 곳을 파헤쳐 보았으나 알 도리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와 비슷한 記事는 朝野僉載 卷之二十八 癸巳五月條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더욱 자세한 一般 狀況은 이미 第十一章 第2節 第二項에서 말한 바와 같다. 이 王陵의 掘破事件은 朝野에 커다란 衝擊을 주어 이로 因하여 敵愾心이 더욱 強烈하게 되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이 役이 끝난지 9年뒤인 丁未年(宣祖40年)에 朝廷에서는 日本의 請和로 말미암아 通信使로서 僉知中樞府事인 呂祐吉을 보내기로 하여 校理인 慶暹을 上副使로, 佐郎인 丁好寬을 書狀官으로 任命하고 뒤에 通信使의 名稱을 꺼려서 回答使로 고치고 書狀官을 從事官으로 하였는데 李睟光撰 芝峰類說 卷四 官職部 使臣條에 이르기를 이 때에 擧朝가 詩를 지어서 餞送하였는데 그 詩 가운데서 가장 傳誦된 것이 同知中樞府事인 尹安性이 지은 詩였는 바 그 詩에 이르기

를 『使臣의 이름이 回答使라 하는데 장차 어디로 向하여 가려는 것인가. 오늘날 交隣을 한다고 하나 나로서는 알 수 없는 노릇이로다. 시험삼아 漢江에 나가서 江上 멀리 바라 볼지어다. 宣, 靖 兩陵 위에 서 있는 松柏엔 가지마저 나지 않고 있거늘…』이라는 뜻이였다. (使名回答句何之 今日交隣我未知 試到漢江江上望 二陵松柏不生枝)

이 때에 相國 李德馨은 다음과 같은 말로써 一聯의 詩句를 지었으니 이르기를 『臣子된 몸으로서 아직까지 二陵寢이 받은 恥辱을 씻지 못하였거늘 이보다도 먼저 書信이 犬羊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나.』하였다. (臣子未湔陵寢辱 簡書先入犬羊天)

이 兩陵 發掘을 朝野가 모두 萬世不忘의 원수로 생각하였던 것을 可히 짐작할 수 있다.

大量殺戮이라는 말은 決코 原水素彈이 생긴 以後에 새로 만든 말이 아니어서 이 戰役에서 日本軍은 이미 그 始祖노릇을 하고 있다. 晋州陷城때의 蠻行은 이미 本文에서 말하였거니와 漢城의 大虐殺에 대하여 李睟光은 다음과 같이 芝峰類說 卷三 兵政部寇賊條에서 말하고 있다. 『壬辰때에 倭賊이 처음으로 都城에 들어오자 계교를 꾸며서 愚民들을 죽이지 않는다고 꾀였으므로 漢城近傍에서 避亂갔던 사람들이 서로 이끌고 城안에 들어 와서 가득 차게 되었는데 다음해 癸巳年에 明나라 東征軍이 平壤을 쳐서 奪還하고 漢城에 進迫하매 倭賊들이 憤怒를 터뜨리어 夜間을 利用하여 城內에 있는 사람들을 불살라 모두 죽여 버리니 百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 남은 사람이 없었다. 이 때가 바로 正月 24日이었는데 每年 이날은 陰散하고 愁慘하니 이것은 바로 怨恨의 氣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애매한 죽음을 당하였던 우리 祖上들을 하늘마저 원통하게 여겼을 것이다.

丁酉再侵때에는 日本軍의 暴虐이 壬辰때보다도 훨씬 더 甚하였으니 金時讓撰 紫海筆談에 이르기를 『敵이 湖南에서 長驅하여 進擊하였는데 지나가는 곳마다 壬辰때보다도 더욱 甚하게 掠奪殺傷을 恣行하였는 바 사람을 만나면 모두 그 코를 베고 村落에 들어가서는 모두 焚蕩하여 林木마저 남기지 않았다.』고 하였다. 日本軍은 壬辰役때는 朝鮮官員들을 잡으면 捕虜로 잡아가는 例가 많았으나 丁酉再侵때에는 그들은 「上官사냥」〔上官狩(JŌKAN-GARŌ)〕이라 하여 朝鮮의 官員들을 山谷에서 뒤져내어 사람은 보는대로 베어죽이고 집은 닥치는 대로 불태워 버렸으니 丁酉年 9月에 日本將 宇喜多秀家가 佈告한 「康津縣檄文」이 이것을 證明하고 있는 바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一) 上官되는 사람을 곳곳에서 찾아 내어(所所尋探) 誅戮하라. 또 上官의 妻子와 從者들을 誅死토록 하라. 官人의 家宅은 放火하라.

(一) 郡縣안에서는 土民百姓을 가리지 않고(不限) 官人들의 숨어 있는 곳을 와서 告하는 者는 褒賞케 할 것이다.

(一) 지금 부터 死罪를 免하게 된 郡縣의 人民들이 돌아와서 살지 않고 山谷 고을(奧郡)에 가는 者는 모두 放火하고 誅殺하라.

(一) 이 榜文을 어기고 倭卒이 人民을 殺害하고 兇惡한 짓을 하는 者는 그 件件을 行長에게

게 書面으로 報告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一面으로서는 朝鮮의 官員들과 그 妻子, 심지어는 그들의 下人까지라도 忠節과 貞節을 지키면서 끝내 抵抗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如何間 이러한 殺人放火의 佈告文을 最高司令官名儀로 堂堂하게 내놓고 命令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殺人放火를 命令하였으니 그밖에 무슨 일인들 못 하였겠는가. (文書第40號 參照)

이와 同時에 朝鮮을 도우러 온 東征軍의 行悖도 甚하였으니 西厓文集에서 柳成龍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明나라 東征軍이 南下한 뒤로는 遼蘇宣大(遼東, 蘇州, 宣化, 大同)등에서 온 군사들이 沿道에서 떼를 지어 官吏를 毆打하고 下人을 결박하여 酒食을 強要하고 찾아 내어 먹고 마시는 일이 날로 甚하여 守令들이 도저히 지탕하여 내지 못하고 이것을 免하려고 山間僻地에 멀리 避하여 다만 下人으로 하여금 主管케 하였던 바 그들의 끝없는 侵害를 어찌 막아 낼 수 있었으리오. 여러 驛站에서는 말을 모두 몰아 내어 타고 간 다음에는 百에 하나도 돌려보내지 않았으며 이런 일이 아침에서 저녁까지 그치지 않았으므로 民間에는 소와 말이 모조리 없어졌는데 그래도 내놓으라고 졸라대니 生民의 災厄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따로 어떤 救해낼 方策이 없었고 다만 형편 닫는대로 接待에 힘쓰라고 命令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四川, 浙江등 南兵들만은 行悖가 甚하지 않아 對陣期間에 殘置를 請하였던 것이다.)

本役은 時間과 空間에서 볼 때 類例없는 長期였으며 거의 八道全域에 결쳐 被害를 입었는바 李睟光은 芝峰類說卷三 兵政部寇賊에서 避難民의 大量被殺에 대하여 말하기를 『壬辰倭變은 倉卒한 사이에 일어났고 我國地方이 偏狹하므로 거의 安全한 곳(乾淨處)이 없었으나 다만 湖南一道와 湖西右道만이 홀로 安全하였으므로 士女들이 많이 여기로 避難하였던 것이다. 倭賊들은 我國사람으로써 嚮導를 삼았으므로 먼 곳 까지 나가서(無遠不到) 뒤지게 되었는데 所謂 幽險한 곳이라 하여 避難民이 서로 다투어서 모여들어 山谷에 가득 차거늘 도리어 賊을 불러드리는 結果가 되어 虐殺 당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았다. (不知紀極)』는 것이었으니 그 慘狀을 짐작할 수 있다. 또 邑誌를 보더라도 烈女孝子條의 事由에 本役關係者가 매우 많으니 이 당시 朝鮮의 婦德과 孝行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反面, 그들의 苦楚가 얼마나 莫甚하였던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決斷코 우리의 烈女孝子를 자랑하는 것만으로써 滿足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의 國土가 明나라의 도움으로 保全되었다 하여 自主的 國防態勢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였다.

第3節 本戰役의 教訓

要 旨

教訓이라고 한마디로만 말한다면 作戰計劃과 그 實施에에서부터 兵制, 戰法, 情報, 人事, 後方에 결친 事項은 勿論이고 戰役의 本質에 까지 파고 들어가야 할 것이지만 이미 各戰鬪마다 小評이라는 卑見을 말하였고 또 그때마다 조금씩 愚見을 提示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重複되지 않는 範圍內에서

交戰各軍의 戰鬪力量을 다루어 본 다음에 帝王과 臣僚들의 責務를 말하여 볼 것이며 이어서 어찌하여 媾和交涉이 決裂되기에 이르렀던가 하는 문제와 끝으로 堅壁淸野之策에 대하여 主로 先人들의 見解를 紹介키로 하였다. 자세한 敎訓의 內容은 여기에서 구태어 밝히지 않더라도 讀者 스스로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이니 그것으로 足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一, 帝王과 臣僚의 責務

一國의 帝王과 宰臣들은 군대를 만들어 놓고 維持管理하는데 絶對責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國家의 政策과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和戰與否를 決定하는 것은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全權限인 同時에 最終 最高의 責任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國策을 貫徹하고 國利民福을 千秋萬代에 누리기 위하여 할 수 없이 戰爭에 呼訴할 것이냐, 또는 戰爭에 突入한 다음에도 끝까지 싸워 敵의 降伏을 기다릴 것이냐, 或은 適當한 條件밑에 和議로써 終結지울 것이냐의 與否도 이들이 그 主動的 立場에 서서 決定하여야 될 當面의 責任人物이 되는 것이오, 마침내 國民들에게 敗戰의 苦杯를 마시지 않도록 先手를 쓰고 그 對策을 마련할 中心人物도 또한 그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兵力補充源을 保障하고 培養하며 補給支援源을 強化하고 育成하는 主動的 役割도 또한 그들에게 屬하는 領域에 틀림이 없다. 本役에 있어서 宣祖는 議政府와 三司, 그리고 備邊司의 合坐會議, 또는 元老會議, 乃至는 群臣會議 같은 것을 열만한 마음의 餘裕는 姑捨하고 서로 狼狽하고 서로 다투어 首都와 開城, 平壤을 서슴지 않고 버리고 달아났으며 遼東에 까지라도 도망쳐 들어가려고 決意하였는데 비록 專制君主時代의 常例라고는 할지라도 最終一刻까지 最善을 다하지 않고 다만 몇 사람의 武官을 急派함으로써 首都棄城의 口實로 삼으려고 하였다. 또 이미 第1節 第5項에서 觀察 한대로 朝廷에서 能히 斷行할 수 있는 重點的 配置變更도 하지 않아서 慶尙道方面의 水陸防備策을 보잘 것 없이 만들어 놓은 채로, 또한 닥쳐올 國難의 眞相을 미리 檢討하고 解剖하지는 못할 망정, 先見之明이 있는 人士들의 忠言마저 默殺하여버리면서 오직 漠然하게 戰爭을 誘發하지 않으려고만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明나라의 그늘밑에 醉生하기에만 滿足하고, 敎育訓練과 裝備給養이 充分치 못한 兵力마저 제대로 活用하여 보지도 못한 채로 無辜한 백성과 기름진 農土를 송두리채 日本軍의 蹂躪에 떠맡겼는 바, 이러한 權利는 아무에게도 全혀 許容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이나라 이 江山이 어떠한 몇몇 個人의 私有物이 아니기 때문이며, 이야말로 明白한 反民族行爲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王과 宰臣들은 이와 같은 怠慢과 無責任과 越權을 恣行한 다음 마침내 斬首及第로 科擧에 登第케 하고 納粟事目으로 軍糧과 벼슬을 서로 맞바꾸고 空名告身으로 任命狀을 함부로 濫發하는 등, 닥치는 대로 그 手段方法을 가리지않고 누더기 보따리를 마구 펴놓은 다음, 最後發惡的으로 緊急對策에 精神 없었으니 이러고서야 나라의 威信이 어디 있으며 朝廷의 體面이 어디 서겠는가. 王도 이렇게 된데 대한 自身의 責任이 매우 重且大하다는 것을 늦게나마 느끼기는 하였지만 필경 一時的인 自己변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가 行在地에서 壬辰 7月 22日에 慶尙道 士民들에게 내린 敎書

첫머리에 말하기를, 『생각컨대 내가 임금 구실을 못하여서 능히 백성을 보전하여 安存을 도모하지 못하였으니 첫째 人和에 失敗하고, 둘째 國防에 실수하여 나라를 잃고 西쪽으로 옮아 義州에 물러 앉은지 이미 몇달이 되었다. 宗廟와 社稷은 쑥대밭이 되고 生民은 魚肉이 되었으니 悠悠蒼天도 무심하시매 나는 무슨 사람이라고나 할손가. 罪는 全혀 나에게 있으니 깊이 부끄러워 하노라.』하였다. 그는 또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即位한 以來로 이제 25 年이 되었다. 비록 仁德이 백성에 미치지 못하여 惠澤이 아래로 스며지지 않고 智慧가 萬物을 살피지 못하여 政治가 많이 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내 本心만은 어디까지나 백성을 사랑하고 만물을 불쌍히 여기자는 것으로 念願을 삼아 왔던 것이다.』라고 自己辨明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程度까지 眞正한 그의 마음일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王을 잘못 補弼한 宰臣들이야 말로 百번 죽어 마땅할 것이리라.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백성들에게 呼訴하고 있다. 『다만 近年에 邊境에 시끄러운 일이 많고 軍情이 解弛하여진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래도 城은 높고 못은 깊으며 兵甲이 銳利하므로 可히 侵略하여 오는 도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中外에 申飭하여 감독을 더욱 嚴하게 하여 왔던 것인데 實로 생각조차 못하였도다. 城壁이 더욱 높아 갈수록 國勢는 날로 낮아지기만 하고 城濠가 더욱 깊어 갈수록 民樂은 날로 얕아지기만 하여 이렇게 桑落瓦解로 쉽사리 허물어지게 될 줄이야, 더우기 宮門 안 단속이 철저 하지 못하여 백성들의 細利가 壟斷되고 刑獄이 中正하지 못하여 寃氣가 和氣를 傷하게 하였으며 王子가 山澤之利를 占하므로써 小民들이 生業을 잃고 굶주림에 呻吟하는 소리가 四方에 퍼졌으니 백성들이 宜當 나를 원수로 여길지로되 내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으랴. 有司에게 嚴命하여 모두 罷免할 것은 罷免하고 돌려보낼 것은 곧 돌려 보내도록 하였도다. 무릇 이와 같은 일을 내 어찌 다 알 바이랴만 내가 몰랐다는 것도 또한 나의 허물이니 생각이 이에 이르매 後悔한들 무엇하랴. 차라리 犧牲이 되어 天地百神과 宗社之靈에 謝罪하고싶도다. 내가 손가락을 깨물고 후회함이 〔咋(색)指〕 이와 같으매 바라건대 士民들은 나로 하여금 허물을 고쳐서 維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지로다.』하니 王者로서 이렇게 까지 말하는데는 同情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그가 다음과 같이 마지막에 애달픈 그의 心情을 吐露한데는 눈물마저 흘리지 않을 수 없다. 『龍灣一隅에 天步가 艱難하여 國運이 아슬아슬하게 되고 地維가 已盡하여 國境이 이미 가까웠으니 내 장차 어디로 갈 것인고, 人情이 이미 막달았으니 돌아갈 생각만 懇切하고나. 秋凉이 닥아오매 邊地는 벌써 차가와지도다. 저 長江의 물을 바라 보매 이 또한 東쪽으로 흐르거늘 돌아가고자 하는 一念이 저 물과도 같이 도도하기만 하도다.』 하였다.

이 敎書는 延陵府院君인 李好閔이 지은 글인데 王의 心情을 섬세하게 表現한 것으로서 많은 士民들의 눈물을 자아 내게 한 것이었다.

著者가 여기에서 特히 한마디 말하고자 하는 것은 國家가 있은 然後에 王이 있는 것이고 王이 있은 다음에 宰臣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그 國家는 國土와 國民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즉 國王은 國土를 아끼기를 家門一族보다도 더욱 所重하게 여겨야 할 것이오, 國民을 아끼기를 手足과 臟腑보다도 더욱 愛重하여 마땅하겠거늘 本役을 通觀할 때에 國土보다도 王家를 사랑하여 도망치기를 例事로 하고, 國民의 生命財産보다도 王妃王子를 먼저 아껴서 國民은 죽어도 혼자만은 살아 남겠다는 思考方式이 王과 宰臣들에게 꽉 차 있었던 것이 아닐까 疑心 되기까지 하는 것이다. 一片의 敎書로 그럴사 하게 名文을 늘어 놓으면 理由 없이 눈물짓고 아낌없이 敵과 生命을 걸고 싸우는 그러한 純眞無垢한 이 백성들이었다. 王의 소매자락에 매달려서 僞製品 忠誠心을 散發하기만 하고 國家大事를 自己 한 몸을 내던져서 救해 보겠다던 宰臣이라곤 京畿監司로 내려온 輔德 沈岱 한 사람 밖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軍糧의 補給이 不足하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그대로 明나라로 돌아가겠다는 副總兵 楊元의 客舘에 親히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回軍하기를 哀願하던 王이였건만, 提督 李如松의 轅門에 끌려 나가서 눈물 흘리고 軍糧補給의 不振한 罪를 謝過하던 大臣들이였건만 明나라 冊封使 渡海에 뒤이어서는 겨우 通信使로서 白面書生 黃愼을 派遣하여 그 힘으로 國家大事를 解決하려 하였으며 豐臣秀吉이 怒號한 다음에도 아무런 大計를 세우려 하지도 않고 國民을 生地獄에 몰아 넣는 危機를 겨우 淸野之策으로 막아 보려 하였다. 이런 部類의 王과 宰臣이라면 차라리 없는것만도 못하였다. 이들이 조금만 더 賢明하고 좀 더 勇斷性이 있었더라면 丁酉再侵만은 能히 막아낼수 있었으며 單純하기 짝이 없던 豐臣秀吉의 마음을 한 손에 움켜 잡고 國利民福을 마음대로 圖謀할 수 있었을 것이다.

著者가 여기서 反問하고 싶은 것은 만일에 豐臣秀吉이 二王子와 宰臣을 돌려 보내지 않고 그대로 日本 本土로 데리고 가서 마침내 殺害까지 하였다면 어찌 하였겠는가 말이다. 그래도 明나라에서 冊封使를 보내면서 朝鮮에 通信使를 보내라고 強要하였다면 黃愼 程度의 人物은 宜當 보냈어야 할 것이 아닌가. 二王子와 宰臣을 돌려 보낸 것을 豐臣秀吉은 다시 없는 善心을 쓰고 큰 恩德을 베푼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朝鮮朝廷에서는 이에 대한 對策은 아랑곳 없이 잡혀갔던 宰臣들의 罪를 다스리고 推鞫하는데만 모든 精力을 기우렸던 것이다. 잡혀갔던 罪만은 重한 것이오, 돌려보내는 善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論法인데 豐臣秀吉은 이 恩德의 代價로 二王子中의 한 사람이 直接 秀吉을 찾아가서 答禮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으며 王子의 禮訪으로써 秀吉 自身의 威信을 內外에 높혀 보자는 매우 單純하고도 當然한 希望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四道分割은 秀吉이 이미 斷念한지 오래였던 것이다. 그러나 내 몸 스스로 國難을 解決하겠다는 한 사람의 王子도 없었고 한 사람의 宰臣도 없어서 庸拙한 措置에 빠지는 王의 잔등에 업혀 無事主義一貫으로 닥치는 國難을 外面하기만 하였다. 이러한 點은 神宗皇帝와 그의 廷宰들도 마찬가지였었다. 誥命과 勅諭를 豐臣秀吉에게 匍匐하여 바쳐서야 어디 堂堂한 天朝의 威信이 서겠는가. 驕兒 秀吉의 콧대를 꺾어 놓고 秀吉이 匍匐하여 받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와 歸朝復命하여 마땅하거늘 戰國風霜에 이그러질대로

이그러지고 굵을대로 굵어진 武骨輩들의 殺氣 가득찬 威風에 눌려서 벌벌 떨면서 金印을 바쳐서야 어디 大明나라 皇帝의 체통이 서겠는가 말이다. 明나라에서 老成한 巨材가 勅命을 받들고, 朝鮮에서는 王子 한 사람을 모시고 柳成龍, 尹斗壽, 李元翼, 李德馨, 李恒福같은 人物中에서 正副使로 건너 갔더라면 秀吉이 精神病者가 아닌 以上 어디 敢히 怒聲을 發할 수 있었으며 어찌 再侵의 不幸이 있었겠는가 말이다.

不幸하게도 神宗과 宣祖는 그들의 廷臣中에서 難局을 혼자 짊어지겠다는 人物을 뽑지 못하였던 것이고 이리하여 다시 受難을 맛보게 된 것은 極히 원통한 일이었다. 또한 王子가 무엇이 그리 대단한가 말이다. 王世子 한 사람밖에는 다시 王子가 없었다면 또 모르거니와 이 당시 흔한 것이 王子였는데 陣頭에 서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 神國의 貴公子노릇만 하려는 愚物들이었다. 그의 한목숨으로써 萬百姓을 救할 수 있다면 이 어찌 王子로서의 本懷가 아니었겠는가. 不幸하게도 王子, 王妃등은 避難의 先頭에 서기만 하고 民心을 振作하고 興起시키는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커다란 妨害物 노릇만 하고 있었고 無骨之徒는 이들의 그늘 밑에서 不勞立功을 꾀하기만 하였다. 義州에 도망친 宣祖보다는 南漢山城에 籠城한 仁祖가 王者로서는 오히려 떳떳하였다고도 할 수 있고, 끝내 和議를 反對하다가 丁酉再侵을 겪은 宣祖보다는 차라리 淸帝앞에 降伏한 仁祖가 더욱 國土와 國民을 아끼는 人主로써 同情이 가는 것이다.

萬民의 幸福보다도 먼저 그 不幸을 代身하고 喜悅보다도 먼저 그 쓰라림을 몸소 甘受할 줄 아는 王과 宰臣, 이것이 정녕 貴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宣祖와 그 宰臣들은 여러번 내린 敎書와는 달리 그 뒤에 特히 뉘우치고 善政에 힘쓴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었다. 그의 論功行賞을 보아도 오직 자기 側近에 奉仕하던 사람만을 爲主로 하여 扈聖功臣으로 86名을 羅列하고 있으니 그의 眼光은 側近 數尺을 벗어 나지 못하고 邊防에 목숨 바친 사람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있는 印象을 주는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이 하여 王者로서의 大海같은 度量을 보여주지 못하고 深窓에서 자라난 兒女같은 狹量만을 많이 보여 주고 있는데 寅城府院君 鄭澈을 都體察使로 삼아 25年 7月 21日에 忠, 全 兩道에 내려 보낼 때에는『國家의 運命이 卿에게 달렸으니 모든 일을 맡아서 管掌하기 바라오.』하였는데도 不拘하고 그 혀에 침이 마르기도 前인 10月 12日에 鄭澈이 京畿水使 李蘋의 軍律 어긴 罪를 다스려 그 資(品階)를 削降한 것을 매우 못마땅 하게 여기고 곧 다시 그 資를 還授케 하였으니 그가 剛直한 鄭澈같은 人物은 끝내 싫어한 것을 알 수 있고 鄭澈 또한 狹量한 王의 비위를 잘못 맞추었던 것을 알 수 있다.

王은 또 愼重하기 比할데 없는 爲人으로서 9月末에 鄭澈이 上箚하여 定州에 行在를 옮기고 復興을 도모할 것을 啓請한 바 있었으나 끝까지 義州一角에만 움추리고 앉아 있었으며 平壤을 收復한 癸巳年初에는 마땅히 前方으로 進出하였어야 될 터인데 이해 2月 13日에 領議政 崔興源등이 進駐를 請하였으나 듣지 않았으며 日本軍이 4月 18日에 漢城에서 撤去

南下한지 近 半年 뒤에야 비로소 漢城에 還都하였으니 도망칠 때에는 脫兎같았으나 돌아올 때에는 牛步보다도 더욱 緩漫하였다. 그는 婦女같은 情愛心을 간직하기도 하였으니 義州를 떠날 때에 義州땅에 사는 大小의 功勞 있는 者는 私奴에 이르기까지 遺漏없이 論賞케 하고 1月 17日에는 都承旨 柳根과 右副承旨 沈喜壽로 하여금 告身(任命狀)과 免役, 免賤 帖등을 나누어 주게 하면서 敎書를 내리기도 하였다. 또 龍川郡守 具思欽과 沿道守令에게 指示하여 明나라 將兵들의 救療에 힘쓰게 하는 同時에 行次途中에 病患으로 돌아가는 明나라 將兵을 만나면 駐馬케 하여 慰問하고 屍體에 대해서는 銀兩을 내려 주기도 하였다. 또 提督 李如松이 親愛하던 家丁인 王審大가 죽었을 때에는 棺歛을 賜給하기도 하여 極盡한 政略的 人情을 베풀기도 하였으며 4月 12日에는 八道에 通文하여 士女로서 死節한 사람을 訪問케 하여 그 功을 表彰토록 하였다. 이해 6月 17日에는 禮曹에서 아뢰기를 我國사람들의 服色을 明나라와 같이 할 것을 請하였는데 王은 이것만은 允許하지 않았으니 事大思想은 王보다도 이들 朝臣들이 한술 더 뜬 셈이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王은 王者로서 不適當한 性格을 많이 具備하였으나 그가 固執이 強大無比하였다는 것은 統治者의 一面으로서는 큰 利益을 가져온 바가 있었으니 그가 日本과의 媾和를 徹頭徹尾하게 反對하였다는 一點은 높이 評價하여야 할 것이다. 26年 3月 16日에는 都體察使 柳成龍에게 下諭하여 媾和에 대한 말을 하기만 하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곧 목을 베어 梟示케 하였으며 延安守城의 名臣인 全羅監司 李廷馣이 求和保全을 密啓하자 곧 全州府尹으로 左遷시키는 등 끝까지 媾和에는 初志一貫으로 反對하였다. 28年 6月 30日에 明나라의 冊封正使 李宗城이 그의 差官인 金嘉猶등을 熊川 日本營에 보냈다가 돌아온 事由를 通事 南好正에게 말한 前後經過에 대하여 接待都監이 王에게 아뢰고자 하자 王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一蹴하여 버렸으니 日本에 대한 敵愾心이 얼마나 強하였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經略復國要編卷之一

初奉經略請勅稿

一爲遵

旨專責部臣經畧倭患事准本部咨該本部題奉

聖旨宋應昌便着前往薊保遼東等處經畧備倭事宜

就寫勅與他欽此欽遵備咨到臣臣本書生未閑軍

旅過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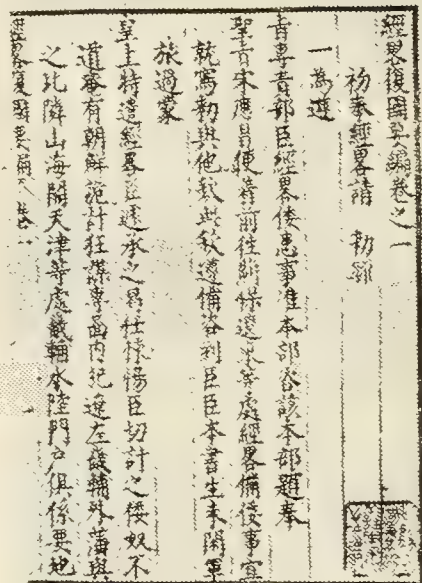
皇上特遣經畧臣遠承之命[illegible]臣切計之倭奴不

遵[illegible]有朝鮮[illegible]

之北[illegible]山海關天津等處[illegible]門戶俱係要地

經畧復國要編 卷一

<經略復經國要編(卷一, 初葉), 民國十八年十一月叢上景印本·原本江蘇第一圖書館藏>

『彼此(明나라와 朝鮮나라를 가리키는것) 서로 목을 빼어 돌려서 東쪽 하늘만 바라보면서〔翹(교)首東望〕 長賊(小西行長을말하는것)을 苦待하기를 王者와 같이 하도다. 予가 원시 心病이 있으니 이같은 말은 차마 듣고자 하지 않으매 다시 들어와 아뢰지 말지로다.』하였다. 이러한 그의 固執一貫은 豊臣秀吉의 七條要求를 끝내 拒否하고 더구나 四道倂呑의 野慾을 最後까지 막아 내는데 커다란 效能이 있었으니 그의 모든 罪過가 이 一事로서 能히 씻을 수 있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一國의 國王으로서 自己의 信念을 굳게 세우고 宰臣들을 이 信念 밑에 이끌어 나가고 마침내 確固한 國論으로 統一시켰다는 것은 가장 貴重한 일이며 이 때에 그 信念의 適否 如何는 그다지 問題되지 않으며 所信대로의 斷行 如何만이 重要한 關心꺼리가 될 것이다. 같은 帝王으로 같은 時局을 맞이 하였던 神宗은 비록 宣祖보다 11歲의 年少였으나 石星등 좋은 宰臣을 두어서 東征을 斷行하여 國境線밖에서 外寇를 막아내는데 躊躇하지 않았던 것은 明主로서 追仰할만한 일이였으나 뒤에 가서 和戰之妙理에 柔弱性을 보이고 마침내 封貢에 同調하기에 이르렀던 것이고 그 結果 부질없이 나라 威信만 떨어뜨리면서 國力의 消耗를 가져오게 된 것은 현명하지 못했던 일이 아닐 수 없었다. 侵者는 擊退하고 降者는 封貢하는 것으로써 王道로 여기던 明나라 帝王과 宰臣들이 封貢에 기울어진 것은 깊이 탓할 바 못되지만 神宗이 말하기를 『卿은 朕의 委託을 받아 軍國의 重務를 담당하였으매 이미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主張하라. 朕은 虛心으로 좇으리라. 그러므로 일이 成功하면 賞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그 責을 免치 못하리로다.』라고 따끔한 一針을 加하면서 石星의 奏請인 小西飛의 北京進入을 허락하기도 하였으니 그는 決코 暗主가 아니었던 것이고 宰臣은 마땅히 그 所信대로 斷行한 다음 그 成敗에 대하여 모든 責任을 질 것이라고 미리 宣言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小西飛와의 6個條에 걸친 問答 끝에 册封을 請하게 되자 神宗은 아직도 豐臣秀吉의 眞意가 어디 있는지를 疑心하였으므로 萬曆 22年 12月 17日에 會極門에서 聖諭하고 다음과 같이 措置하였다고 經略復國要編에서 傳하고 있다.

『朕은 卿들이 바친 바 條款의 譯書를 보고 倭使의 말과 倭使回稱의 說을 자세히 알았으나 아직 詳確하지 못한 것이 있나니 遠夷가 封을 請한다면 반드시 그 眞相을 얻어야 할 터인즉 平秀吉이 무슨 目的으로 군사로써 朝鮮을 侵掠하였는가. 戰敗하고서도 아직까지 釜山을 지키고 後退하지 않으며 이제 또 使者를 보내 上表하고 封을 請하나니 어찌 輕率히 하여 眞僞를 詳審치 않을손가. 禮部에서 封名을 詳議한 다음 먼저 二官을 보내어서 一은 行長을 論戒하여 釜山에 留住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倭夷가 모두 本國에 退還하여 一人의 留住라도 不許할 것이며 巢穴房屋을 모두 燒燬할 것이로다. 또 一은 朝鮮을 諭戒하여 倭의 退回를 기다려 册封을 奏請하여 오도록 할 것이로다. 卿등은 內閣과 같이 小西飛를 左闕門에 데리고 와서 文武 및 科道등의 官을 會同케 하고 夷語에 通曉한 通事로 하여금 當面하여 嚴하게 詰問을 加하게 하라. 陳述이 詳明하고 情誠이 至極하다면 訂盟이 오래도록 갈 것이며 다른 變更이 없을 것을 說明케 할지로다.』하였으니 이것은 司禮監大監인 張誠등에게 말한 것으로서 神宗이 平凡한 帝王이 아닌 것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그가 20歲 되던해(萬曆 10年)에 賢宰相의 稱이 있던 張居正이 죽은 뒤로는 그의 마음대로 大政을 左右한 결과 輔臣 申時行은 上疏하여 四害二患을 諫言한 바 있었으니 催科急迫이 一害요, 徵派加增이 二害요, 刑獄煩多가 三害요, 用度侈靡가 四害이며, 議論不一이 一患이고, 詔令不行이 二患이라는 것이었는데 本戰役處理에 있어서도 이러한 弊端을 免치 못하였고 明나라의 國運이 憂慮되기 시작하였던 것이

다. 진실로 國步가 艱難하면 할수록 帝王과 宰臣들의 責任이 더욱 두거워지는 것이다.

二, 媾和交涉 成敗의 要因

丁酉再侵의 唯一한 原因인 媾和交涉의 決裂이 어찌하여 이루어졌는가 하는 問題에 대한 一般의 通念으로서는 驕兒 秀吉이 日本國王으로 册封받은 것을 크게 怒하여 곧 다시 쳐들어 가라고 號令한 結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日本側 文獻에서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豐臣秀吉이 明나라 皇帝되기를 願하였는데도 不拘하고 다만 日本國王으로만 册封하고 아무런 實利를 거두게 하지 않은데 대한 不滿이라고 하였다. 再侵의 命令은 그가 내리고 있으니 元兇이 그였다는 데는 異論이 있을 수는 없으나 그가 明나라 皇帝되기를 꿈꾸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前節第二에서 論한 바 있었으며 明나라 册封使들이 和議決裂의 모든 責任을 豐臣秀吉에게만 돌리고 自己들의 過誤를 감춰보려고 애쓴 結果 그의 心情을 充分히 傳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는 바 著者는 먼저 그가 媾和成立으로 그의 威信을 세워보려고 眞摯한 態度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是認하지 않을 수 없다. 謝用梓과 徐一貫 兩使에 대한 극진한 그의 歡待에 대하여서는 第十一章 第3節 第二項에 있는 名護屋會談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으며 27年初부터 造營에 着手한 伏見城은 明나라 使臣接待를 위한 施設을 매우 重視하고있었으니 日本西敎史에서는 要旨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太閤殿下는 册封使(明의 使者)를 맞이할 準備를 命하여 「다다미」(疊) 千張을 깔 수 있는 宏大하고 美麗한 큰 居舘을 지었는데 木材는 모두 良品을 쓰고 그 안에 들어가면 다만 金빛이 耀然하기만 하였다.』는 것이고 이어서 말하기를 『太閤殿下는 10萬의 工人을 모아놓고 1隊는 나무를 베고 1隊는 돌을 깎으며 또 1隊는 집을 짓고 나머지 1隊는 濠를 파게 하여 晝夜로 독촉하면서 諸侯들의 疲弊를 돌보지 않고 居舘의 造營을 命하였는데 使者가 入覲하는 날에는 駿馬를 탄 사람 10萬을 준비할 것이라는 뜻을 傳하고 그 自身이 大阪에 가서 많은 군사를 모았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켜 그가 앉은채로 明나라 皇帝의 讓位를 받을 準備를 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다만 使臣을 맞아 크게 武威를 펴보려는 그 나름의 野望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다. 再造藩邦志 卷四 丙申 九月 二日條에서 말하기를 『天朝가 天使를 보내어서 나(秀吉)를 封하여 王으로 삼게 하나니 榮은 곧 榮이지만 朝鮮이 禮가 없으므로 和를 許할 수 없다.』하였으니 그가 册封 그 자체에 不滿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짐작이 가는 터이며 9月初 3日의 饗宴席上에는 豐臣秀吉이 明나라에서 보낸 冕을 쓰고 赤紅色(緋) 옷을 입고 德川公(家康) 以下 7人이 모두 明나라의 章服을 입었다는 것이고 續本朝通鑑에서는 『秀吉이 耀武하려고 하여 鮮赤의 옷을 입고 明冠을 쓰고 그 밖의 사람들이 모두 明나라 冠服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니 그들이 明나라를 항상 大明이라 불렀으며 이날 옷은 明나라 冠服으로써 하고 食膳(膳羞)은 大明의 禮法에 따랐다는 이 事實은 그가 册封 그 자체를 싫어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가 册封使를 위하여 一大閱兵式을 미리 計劃하였던 것도 事實이었으나 地震

으로 伏見城이 大破되고 武具와 그 밖의 裝備品이 모두 損失되어서 할 수 없이 中止한 事由에 대하여 川角太閤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금 있으면 遊擊(明使의 沈惟敬일 뜻이며 것이다)이 올 것이니 日本의 武人들을 動員하여 海道(東海道)에서 藤森(HUZINO-MORI)과 東福寺 앞을 지나 鴨川(KAMO-GAWA) 까지에 뻗쳐 整列케 한 다음 閱兵할 計劃으로 매우 크게 서둘렀지만 위와 같은 地震으로 밑의 사람에 이르기까지 裝備品(武者道具)을 損失하였으므로 延期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또 掘杏菴의 朝鮮征伐記에서 말하되 『太閤도 大明의 册使가 온 것을 기뻐하고 册使도 館에 돌아가서 오늘의 享宴(9月初3日)을 황송하게 여기고 喜悅에 잠겼었다.』는 것이었다. 또 册封使를 맞이하기 위하여 豐臣秀吉이 어떻게 마음 準備를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全邊略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平秀吉이 齋戒沐浴(齋沐)을 3日동안 한 다음 郊外에 出迎하여 使臣을 接見하고 封을 받아서 五拜三叩頭하고 山呼(帝王의 萬歲를 祝呼하는 것)의 禮를 行하였다.』는 것이다. 이 郊外出迎과 五拜三叩頭는 事實이 아닐 것으로 보는 바이나 하여튼 그가 册封 그 자체를 拒否하는 뜻은 없었는데 日本의 一部 學者(山鹿素行 掘杏菴등)들이 첫째로는 日本의 自主獨立性을 強調하고 둘째로는 豐臣秀吉의 偉大性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러 曲筆을 弄한 것으로 보는 바이다. 그러나 그가 2王子를 돌려보낸 것을 큰 生色으로 생각하였던 것인데 著者의 見解로서는 이는 當然한 일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論者가 或은 말할 것이니 아무런 理由없이 白晝強盜格으로 쳐들어와서 우리 叛臣손으로부터 물려 받은 2王子를 그냥 돌려 보내는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며 무엇이 그렇게도 善心을 쓴 것이 되겠는가 할지 모르지만 時代觀으로서 볼때에 覇道의 王者로써 自他가 共認하는 그가 2王子를 日本本土에 拉致하여 가서 볼모로 삼고 어려운 和議條件의 밑천으로 삼았다 한들 우리가 또 무엇을 어떻게 탓할 수 있었겠는가 말이다. 一言而蔽之하고 2王子의 放還은 그의 커다란 好意로 보는 것이 順理요, 妥當性 있는 일이다. 여기에 대한 朝鮮 朝廷의 措置는 확실히 옹졸하였는데 이 問題는 이미 前項에서 言及한 바와 같으며 그 다음에는 加藤清正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그는 大勢를 靜觀하는 見識을 갖추지 못한 人物이었는데 小西行長과는 犬猿之間으로서 事事件件을 反對하는 立場으로 終始한 凡俗物이라는 印象이 짙은 사람이었다. 媾和問題에 있어서도 豐臣秀吉의 七條를 그대로 믿고 和議를 推進하면서 行長과 功을 다투기도 하였는데 僧 惟政(松雲大師)과의 前後 4次에 걸친 西生浦會談에서도 5條의 要求를 끝까지 固執하고 아무런 進捗을 보이지 못하고 도리어 惟政에게 弄絡만을 당한 셈이 되기만 하였다. 行長의 努力이 奏效하여 册封使의 渡日이 實現을 보게 되자 그는 行長등의 報告로 말미암아 媾和反對의 巨魁로 指目되기에 이르러 드디어 豐臣秀吉에게 召還되어 2條項에 걸친 訊問을 받고 있으니 四道 分割을 그대로 固執하던 그가 끝내 召還되었다는 이 事實이야 말로 豐臣秀吉이 四道分割의 意思가 이미 抛棄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朝鮮朝廷에서도 이 問題만은 到底히 容納할 수 없는 것으로서 聽而不聞인양, 默殺하는데 熱中하였고 이로 因하여 媾和라면 一顧

의 價値도 없는 것으로 決定짓고 和는 곧 禍라는 그러한 固陋에 빠지게 되었으며 더구나 宣, 靖 兩陵의 掘破로 말미암아 王의 憎惡心은 다만 敵愾心을 더욱 助長하는 一邊倒로 기울어지기만 하였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延安完城의 殊勳者인 全羅監司 李廷馣같은 硬骨之士가 求和保全之策을 秘啓하다가 革職을 당하기도 하였으니 牛溪 成渾을 除外한 그 밖의 訶諛追從輩들은 敢히 和의 一言은 입 밖에도 내지 못하였다. 四道分割을 反對하는 것은 極히 當然한 노릇인데 이에 대한 一般輿論을 들어본다면 兩朝平攘錄 卷四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朝廷에서 倭賊들에게 撤兵하기를 재촉한 즉 그들은 말하기를 關白이 朝鮮三道를 分割할 것을 要求하였으니 곧 忠淸, 慶尙, 全羅道의 三道라. 沈惟敬은 처음에 册封에 대해 의논한 바 있었는데 利害를 따지지 않고 이것을 허락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全羅道와 慶尙道의 關係는 가장 重要한 것이어서 慶尙道는 朝鮮의 門戶이고 全羅道는 倉庫(府藏)라, 그러므로 慶尙道가 없으면 全羅道도 없고 全羅道가 없으면 비록 다른 道가 있다 할지라도 根本之計를 할만한 資力이 없을 것이니 海路上에서 말하여 본다면 敵이 全羅道에 根據하고 있을 때에는 멀리로는 西海一帶에서, 가까이로는 珍島와 濟州에 걸쳐 모두 敵의 巢窟이 될 것이고 敵船이 縱橫으로 海上에서 通하지 않는 바가 없으며 順風이라면 12日로 鴨綠江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인즉 開城과 平壤을 가지고 나라를 이룩할 수 없을 것이고 홀로 朝鮮만이 아니라 倭船이 바다에서 中國에 쳐들어감에는 반드시 全羅道와 慶尙道의 兩道로부터 相反되는 風向을 받아서만 들어갈 수 있으니 敵이 바다로부터 侵犯하지 못하는 것은 兩道가 그 방패 役割을 하기 때문인 것이다,(日本에서 朝鮮에 쳐들어 올 때에는 南風이고 朝鮮에서 遼東에 들어갈 때에는 西風이어야 한다.) 이제 만일에 全羅와 慶尙道가 亡한다면 敵은 반드시 陸路로 遼東을 侵犯할 것이 아니고 海上船舶으로 直接 山東을 向하여 들어갈 수 있고 또 海路의 東쪽으로부터 군사를 四方으로 分散하여 我國의 四鎭을 擾亂케 할 수 있으며 東海岸의 沿岸地方이 때때로 敵의 侵襲을 받을 염려가 있나니 이 모두가 我國으로서는 도저히 容認되는 일이 아니거늘 沈惟敬이 그 새에 끼어 돌아다니면서 緩逃의 罪를 延長케 한데 不過하며 처음부터 封事로써 中國을 속인 것이오, 이것은 또 三道로써 朝鮮을 속인 것도 되며 中國으로 하여금 이 三道를 버리고 撤兵하여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다.』라 하였다. 淸正은 이와 같이 도저히 可望 없는 條件만을 唯一한 口號로 내어 놓다가 필경 豊臣秀吉의 미움을 사고 召還되었다가 大地震을 당하였을 때에 맨처음으로 秀吉을 警護하려고 뛰어간 덕분으로 그의 憤怒를 풀게 되었는데 秀吉이 日本國王에 册封만 받고 그 밖의 모든 것을 허락받지 못한 것에 관해 再造藩邦志 卷四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날 저녁에 平調信이 와서 黃愼을 보고 말하되 「내가 使臣을 따라 여기 왔는데 意外에도 關白의 노엽을 받아 헛되게 오게 하여 헛되게 돌려 보내게 되었으니 매우 부끄럽게 여기는 바이오. 이번 일이 이렇게 되자 淸正만이 홀로 기뻐하였고 그 밖의 三奉行 以下는 모두 恨嘆하지 않는 사람이 없소이다. 이제 淸正이 關白에게 아뢰는 말을 들으니 처음에 淸正의 計策대로 王子를 돌려 보내지 않았더라면 朝鮮이 이와 같이 우리(日本)를 侮蔑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이제 만일에 淸正

으로하여금 다시 쳐들어가게 하면 淸正이 곧 朝鮮으로 하여금 王子를 보내 와서 謝禮토록 할 것이고 朝鮮이 또 만일에 淸正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淸正이 곧 兩王子를 사로 잡아서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關白이 이미 淸正등 5將으로 하여금 먼저 가게 한 것이 외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였다. 이로서 본다면 淸正은 自己의 先見之明을 자랑하고 小西行長등 反對派의 立場을 더욱 괴롭히기 위하여 再侵의 積極贊成者로 暗躍하였을 뿐 아니라 自己가 第1陣 先頭로 다시 쳐 들어 갈 것을 自進하여 請負 맡았으니 一種의 殺人請負業者가 된 것이였고 2王子를 必要하면 다시 잡아오겠다는 것은 一種의 狩獵品 豫賣業者가 된 것이였으며 豐臣秀吉의 再犯을 煽動하고 부채질한 共犯이 된 人物이였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册封正副使의 人物에 대한 것인데 이들이 明나라 皇帝의 勅使로서의 矜持를 조금도 갖지 못하고 明나라 威信을 많이 損傷시켰을 뿐 아니라 豐臣秀吉로 하여금 더욱 그 콧대를 세게만 만들고 그 獨尊意慾을 助成시켰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兩朝平攘錄 卷四 日本上 萬曆 二十四年 九月 二日條에 이르기를『楊(正使), 沈(副使)이 關白을 찾아보았는데 그 卑屈한 모습은 말에 담을 수 없을 지경이였으니 이것은 그들을 隨行하고 갔던 護勅官인 徐志登이 돌아와서 사사로이 어떤 사람을 대하여 말한 것이였다.』하였으며 續本通鑑에서는 兩使의 態度를 다음과 같이 비평하고 있다.『惟敬(副使)이 깊이 두려워하여 金印을 가진채로 匍匐하고 方亨(正使)은 다만 惟敬의 하는 바에 따라서 하고 戰慄만 하였다. 秀吉이 이들을 慰勞하니 兩使는 自己를 꾸짖는 줄로 알고 그들의 발이 휘청거리고 [趑趄(자제)] 그들의 입술이 파들거렸다.[囁嚅(섭유)]』는 것이다. 沈惟敬은 單身 平壤城中에 들어가 小西行長과 처음으로 直接 談判하고 50日間의 休戰을 約束하였던 人物로서 상당히 剛膽한 사람으로 秀吉이 참으로 猛將이라고 까지 칭찬하였던 것이였으나 秀吉 앞에 나가서는 그 빛나는 眼光에 눌리고 저도 모르게 金印을 받들고 匍匐을 한 듯 하니 민망스럽기 짝이 없고 正使 또한 이를 따랐다고 하니 驕兒 秀吉이 더욱 眼下無人이 된 것이 아니였을까. 하여튼 이 兩使가 秀吉의 覇氣를 超滿滿케 하는데 重要한 一役을 한 것은 틀림 없고 그가 다시금 大明國을 얕보고 兩使를 追放하다시피 한 心的動機를 만들어 준 것이다. 이들의 人物이 官職上으로나 風格上으로나 秀吉에게 조금도 屈하지 않는 偉容堂堂한 모습으로 臨할 수 있였더라면 單純한 面을 가지고 있던 秀吉이 쉽사리 追放의 暴擧를 取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이니 淸正이 共犯이라면 이들 兩使는 助犯의 役割은 充分히 하였다고 아쉬워 하는 바이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건대 使臣이 제 아무리 俊傑之士요, 蘇秦, 張儀같은 能辯之說客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國家背景이 튼튼치 못할 때에는, 다시 말한다면 使臣의 祖國이 貧國弱兵일 경우에는 戰時外交가 제대로 奏效하기 힘들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으며 和가 아니면 劍으로 能히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의 뒷바침만이 媾和成功의 要因이라 할 것이다.

三, 堅壁淸野之策의 長短點 〔原文第150 參照〕

邑城을 모두 비워 놓고 郡縣의 백성들이 老幼婦女子 할 것 없이 糧食과 家財를 가까운 山城에 날라 놓은 다음 이 山城에서 決死固守하여 敵에게 物的 惠澤을 남겨 주지 않는다는 것이 堅壁淸野와 據險積蓄의 意圖하는 바 참 뜻인 것이다. 그러나 이 方策에는 여러가지 問題點이 있다. 宣祖實錄 卷八十二 宣祖二十九年 十一月 癸巳, 己亥, 辛丑, 甲辰條와 同卷 八十三 同年 十二月 庚午條에 依하면 이 淸野之策에 대하여 要旨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11月 7日의 朝講때에 領議政인 柳成龍이 堅壁淸野와 據險積蓄의 策을 아뢰어 이르기를「都體察使 從事官인 金涌과 姜籤, 그리고 李時發로 하여금 各各 慶尙, 全羅, 忠淸의 三道를 分掌하여 管理토록 하고 江原道 防禦使로 하여금 忠淸道와 江原道 原州의 上流地方을 지키게 하되 京畿道防禦使가 힘을 合하여 지키게 할 것이오며 또 巡邊使 한 사람을 江原, 忠淸, 全羅道에 내려 보내어 서로 呼應(犄角)케 하면서 險要를 지케게 하는 一方으로는 體察副使 韓孝純과 都元帥 權慄, 그리고 統制使 李舜臣에게 비밀히 命令하여 水軍을 巨濟長門浦(場門浦)등에 내보내서 敵을 막을 準備를 시킬 것이옵니다.」하니 王이 允許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앞서 都體察使 李元翼에게 指示하여 山城 가까이 있는 곳에 米穀을 山城에 들여놓게 하고 또 먼 곳에 있는 곡식은 土窟속에 넣어두게 하였다. 또 11月 16日에는 金烏山城, 天生山城, 富山山城, 岳堅山城, 公山山城, 龍起(淸道郡)山城등에 들어가서 지키게 하고 또 火王(昌寧郡)山城을 急히 修理케 하였다. 다음해인 30年 正月中에 各道 各邑의 山城에는 附近郡邑의 米豆를 날라서 貯藏케 하고 各官의 衙門을 모두 城안에 設置하였으니 例컨대 南原의 蛟龍山城에는 雲峰, 長水, 鎭安, 任實, 求禮, 谷城등 六邑에서 들어가 지키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었다. 이러한 施策에 대하여 柳馨遠은 磻溪隨錄에서 다음과 같은 反對論을 펴고 있는데 全然 同感인 바 그 反對要旨는 다음과 같다.(山城과 邑城所在地는 附表 第 6, 第 7 參照)

『城은 본시 邑을 지키는 것이 그 任務로서 사람이 집에 있으면서 담으로써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邑이 貧弱하고 山地가 많으므로 山城이 있는것인데 이로 因하여 邑에 사는 사람의 防守策을 소홀히 하는 것은 本末을 알지 못하는 바가 매우 甚하다 할지로다. 대저 城을 딴 곳에 쌓고 危急할 때를 당하여 비로소 邑에 사는 백성을 뽑아서 지키게 하려고 하나 모두 들어가기를 꺼려 하다가 졸지에 敵이 쳐들어 왔을 때에 山城이 비게 된다면 百가지 일이 모두 틀려지게 될 것이오, 山城 안에 들어간 사람들도 山城에 愛着心(顧戀之意)이 없어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도망을 치게 될 것이라면 장차 누구와 같이 山城을 지켜나갈 것인가. 假使 또 山城을 能히 固守한다 치드라도 그 邑里에 있던 倉庫의 곡식과 살고 있던 사람과 家畜들을 모두 敵陣에 넘겨 주게 된다면 홀로 山城을 지킨다고 해서 드디어 무슨 所用이 있겠는가. 이는 必亡之道가 될 뿐이로다.』라고 하였다.

또 姜俔은 睡隱 看羊錄에서 같은 趣旨로 아래와 같이 主張하고 있다.

『敵이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山城이 險하고 먼 것을 꺼려 하고 一般백성들은 城안에 들어가서 지키려 하지 않을 것이고, 또 反對로 敵이 가까이 쳐들어 온다면 山野에 멀리 도망쳐 들어가서 官의 命令을 좇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山城近方에 있는 郡邑 사람들을 모두 山城에 몰아 넣을 수 있겠는가.』하였다.

더구나 여기에서 理解가 가지 않는 것은 邑城과 山城의 數의 差가 甚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을 조그마한 山城안에 收容하여 놓고 이떻게 衣食住를 마련하며 어떻게 長期持久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問題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邑城의 價値가 再評價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論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먼저 山城의 必要性을 어떻게 強調하고 있으며 그 論旨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 본다면, 柳成龍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옛날 唐太宗이 高句麗를 치려고 하여 群臣들에게 그 計策을 물어보았는데 모두 대답하되 高麗는 山에 依支하여 城을 쌓아 지키므로 갑자기 攻陷하기는 매우 어렵나이다, 하였으며 그 뒤에 契丹이 또 高麗를 치려고할 때에 그 臣下들이 諫하여 이르기를 高麗는 山城에 새와 같이 살고 있으매 大軍으로써 가서 치더라도 다만 功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두려워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우리나라는 自古로 國境을 保持하고 敵을 막는 데 있어서 모두 山城으로써 利롭다 하였으며 敵이 꺼려 하는 바도 또한 다만 山城에 있었던 것이었다. 兵法에 이르기를 먼저 高地를 占據한 者가 이긴다 하였고 孫子도 또한 말하기를 敵이 高地에 있으면 攻擊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뜻을 可히 알 수 있으리라. 我國의 郡邑은 대체로 山勢가 조금이라도 杜絶한 곳에는 古城의 基址가 없는 곳이 없나니 1邑에 或은 2,3處가 되며 많은 곳은 5,6處가 되는 터이어서 이렇다면 三國時代에서부터 高麗에 이르기까지 戰爭에서 이긴 것은 郡邑만이 아니고 반드시 險地에 據하여 비록 村落民居라 할지라도 處處에 險要한 곳을 保有하고 公私의 積蓄을 그 中에 두었다가 敵이 오면 清野入守하고, 敵이 退하면 下山하여 耕種케 하였으니 實로 保民守國의 良策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鄭圃隱(夢周)이 金海山城記에서도 자세하게 말한 것이어서 그 때에 山城을 修築하지 않는다 하여 先賢들이 나라 위해 근심한 때가 이미 먼 옛적이었던 것이다. 옛날에는 胡虜들의 長技가 馬足에 있었고 倭의 特技가 短兵에 있었으며 我軍은 城上에 있어서 弓矢로써 制壓하여 오히려 餘力이 있었는지라

<柳磬遠 筆蹟>

이제 倭는 鳥銃을 써서 멀리 가는 힘이 弓矢의 10倍가 되나니 무릇 城을 包圍하여서는 반드시 먼저 城堞의 高低와 壕塹의 深淺을 살피고 數千의 鳥銃으로 城을 向하여 亂射할 터인즉 城內의 守卒들은 엎드려서 膝行하면서 敢히 머리도 내놓지 못할 것이어늘 하물며 敢히 防禦할 수 있을손가. 이러는 동안에만 敵은 乘勢直進하여 木石과 草石으로써 亂投하여 壕를 메꾸고 높이를 城과 같이 하여 얼마 안되어 陷城케 한 것이였으니 壬辰에 있어서 金海가 떨어지고 丁酉에 있어서 南原이 陷城한 것이 모두 이 戰法에 依한 것이였다. 슬프도다, 이제 지키려고 하면 홀로 山城이 있나니 어찌하여 사람들이 이것을 能히 살피지 못하고 山城으로써 無益하다고만 하는고. 대저 山城은 높은 곳에 있으면서 아래를 내려다 보나니 敵의 長技가 이에 이르러 다하여지고 비록 鳥銃이 있다 하여도 하늘을 向하여 쏘아서 힘이 다하면 곧 떨어져서 사람을 殺傷하지 못하므로 이것이 利益의 一이오, 土山과 雲梯를 쓸 곳이 없고 城中의 動靜을 마침내 엿볼 수 없나니 이것이 利益의 二요, 賊이 비록 勇敢하고 突鬪에 能하다 할지라도 山밑에서부터 기어 올라와 城밑에 겨우 다다르게 된다면 氣盡脈盡하여질 것이고 我軍은 마음이 便하고 氣分이 安定하여 賊이 向하는 바에 따라 應하며 오직 大石으로써 굴러 내려뜨리매 敵이 奔潰치 않는 바 없스므로 이것이 利益의 三이라. 이제 古城을 보건대 往往히 깊은 僻地에 숨어서 있는 城을 볼 수 있는 바 이것은 避亂을 위한 計策이지 敵을 控制할 수 있는 計謀가 아니므로 이는 不可用의 一이오, 城은 堅固하고 작은 것을 貴하게 여기는 바 만일에 크기만 하고 衆力을 虛費한다면 지키기 어려울 것이니 古城들은 江에 沿하여 城堞을 세우고 높이가 數尺에 지나지 않고 언덕과 봉오리를 連結하여 彼此 서로 멀리 떨어져서 旗鼓와 耳目이 서로 미치지 못하여 將帥의 號令이 곧 서로 通하지 않으니 이는 不可用의 二라, 紀效新書에 이르기를 城밖에 土封, 石墻, 房屋이 있는데 곧 모두 毁撤하지 않으면 賊이 와서 그 가운데 依支할 것이어서 矢石을 베풀 길이 없나니 이는 지킬 수 없는 城이 되리라. 만일에 山賊이라면 더욱 童童兀兀하여 四面에 樹木이 없고 巖石이 없어서 賊이 쳐오더라도 隱伏할 곳이 없으며 城上에서 돌을 내려뜨리기를 板上에서 丸을 굴리는 것과 같이 하는 이러한 땅은 天險이라 할지로다. 세상 사람들은 山林이 深密하고 崖石이 壘壘하면 賊이 能히 쳐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여 이것이 진정 險地로서 지킬 수 있는 곳이라 하거니와 슬프도다, 뉘라서 所謂 險하지 않은 것이 眞正한 險地이고 所謂 險하다는 곳이 참된 險地가 아님을 알 수 있으랴.』하였다.

이러한 柳成龍의 所見을 다시 整理하여 본다면 지나간 高麗時代의 例를 내세우고 첫째로 山城防守의 必要性을 말하였는데 山城防守이면 萬能이라는 것은 아니다.

둘째로 邑城은 鳥銃에 대하여 弱하다고 보고 山城만이 強하다고 본 것인데 세가지 利點을 내세웠으니 첫째 利益으로 山城을 攻擊하는 敵의 鳥銃은 하늘을 向하여 쏜다고 斷定한 것도 우스운 일이고 둘째번 利益은 是認할 수 있으나 이것은 典型的인 山城을 想定한 一般槪論에 屬하는 것이어서 어떤 山城 하나만 있으면 그 周圍의 모든 瞰制高地를 모두 制壓하리라는

假想에 지나지 않으니 實地로 山野에서 野戰攻城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同感할 수 있는 問題인 것이다.

셋째번 利益도 우선 是認할 수 있으나 山城의 利가 오직 大石을 굴러내려트리는데 있다는 것은 舍廊房의 잡담으로서는 재미있는 意見이다. 이런 다음에 古城등의 不可用의 세가지를 들었는데 이것도 또한 原則論에 지내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그가 山城은 堅固하고 작은 것을 貴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堅壁清野之策을 내세우고 이 작은 城안에 많은 郡縣 백성들을 強制로 收容시켰다는 것은 現實上 모순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險하지 않은 곳이 참된 險地라는 것인데 이 뜻은 山城에서 大石을 굴러 내려트리기 쉬운 平坦한 傾斜面을 가진 곳이 通視가 良好하여 弓射에도 有利하고 投石防守등에도 便하므로 결국 險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反面에 敵의 夜間近接이 容易하고 大石을 굴러내려뜨리는 데는 그것을 拒止하는 方策, 例컨대 木柵을 併立하는 對策등이 可能할 것이다.

여기에서 邑城防守가 어찌하여 必要한가를 생각하여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 대하여 柳馨遠은 그의 築城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睢陽城中에는 數萬戶의 人口가 있었고 即墨城中에서는 千餘頭의 火牛를 準備하였는데 睢陽은 唐나라때의 大邑이니 그 繁盛한 것을 알 수 있으며 即墨은 列國의 屬邑으로 3年동안이나 包圍를 당하고 困窮한 터이지만 아직까지도 千餘頭의 소를 얻을 수 있었으니 그 平時에 있어서의 城中의 居民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張巡과 田單같은 名將이라도 어찌 能히 保守할 수 있었으랴. 우리나라의 列邑의 城堡들은 形式도 未備할 뿐 아니라 안에 住居民을 많이 收容할 수 없나니 이렇게 되면 어찌하여 能히 지키는 사람의 責任을 論할 수 있으랴. 무릇 城池에는 반드시 規制를 量定하고 民間백성(閭閻)을 收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하였고 그는 또 山城의 不利한 點에 言及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城은 本是 邑을 지키는 곳인데 이 곳을 버리고 山城안에 들어가서 지킨다고 한다면 平時의 交分을 생각하고 府庫民物에 因하여 같이 지킨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서로 父母 家室의 걱정이 있어서 利害가 相反되므로 설사 山城을 固守한다 할지라도 그 邑里倉庫와 人民과 家畜이 모두 賊의 손에 들어갈 것인 즉 그렇다면 홀로 山頂을 지켜서 結局 무슨 所用이 있으랴. 我國사람은 山城이 第一 좋다고들 하지만 前날에 遼東의 金州城이 平地에서 包圍된지 3年동안이나 서로 싸워서 끝내 陷落하지 않았거늘 만일에 孤絶山城에 猝地에 投入된 者들이라면 數日을 기다리지 않고 軍糧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分散하여 城을 保全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어찌 敢히 몇年 동안이나 지탱하기를 期待할 수 있으랴. 山城의 利害가 여기에서도 또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柳馨遠은 또 다음과 같이 繼續하여 築城法을 말하고 있다. 『我國의 山川은 서로 迫阨하여 州郡의 城邑은 매양 山底에 가깝고 敵으로부터 被壓됨을 꺼려 하였으며 또 道路는 溪澗을 지나는 難處에 만들어 놓았으니 이런 즉 다만 形勢의 便宜만 생각하고 道路의 不便을 考慮치 않는 結果가 되는 바 일찌기 傳錄을 按컨대 中國南方에서는 浙江과 紹興등의 城이

모두 大水를 건너서 쌓여졌는데 水門을 重設하여 三重四重에 이르게 하고 檣帆이 江물을 따라 出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였는 바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柳馨遠은 平野에 水路와 連接하는 邑城을 더욱 높게 評價하고 있으니 幸州山城은 漢江水路에 依支하여 補給을 받았으며 日本軍은 蔚山, 泗川, 倭橋에서 모두 海路와 서로 通하는 築城을 하여 利益을 많이 보게 된 事實을 想起할 수 있다.

그러나 著者의 所見으로서는 우리나라의 在來式 邑城이라도 꼭 이것을 防守하는데 重點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여러 邑城을 同時에 지키고 있다는 것은 敵의 兵力을 分散使用케 하는 利益이 있을 뿐더러 서로 呼應하고 서로 牽制하며 또 때에 따라서는 서로 救援할 수도 있는 것이니 비록 救援兵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攻圍하고 있는 敵에게 주는 精神的 威脅의 效果는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攻圍軍은 直接 城을 攻圍하는 外에 救援兵에 대한 對備力을 마련하여야 되므로 더욱 兵力分散을 하게 되는 것이오, 城內 守兵은 固守만으로 完城의 功을 이루어야 하므로 最後까지 必死的 努力을 傾注하게 되는 것이며 더구나 熱湯을 準備하고 石塊를 던지고 放火에 대한 消防에 從事하고 負傷將兵을 看護하고 宿食을 마련하는데는 老幼婦女子의 힘이 豫想外로 큰 것을 생각할 때, 또한 敵情을 監視하고 僞兵을 設置하는 등 直接交戰에도 有用하게 活躍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大都城 防守에는 居民의 힘이 最大限으로 必要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狹少한 山城에 一時에 收容한다면 敵에 依한 被害만 增大될 뿐 아니라 軍糧만 모조리 消費시키고 持久를 不可能하게 할 것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山城에 들어가 있다면 敵은 直接 攻圍하지도 않고 마음놓고 各邑城을 橫行하면서 그야말로 國亡山河殘의 悲慘한 情況을 손쉽게 만들 수 있고 山城은 싸우지 않고 自滅한다는 可恐할 結末을 가져올 것인데 이 問題를

<柳成龍 筆蹟>

어찌하려는 것일까.

第十七章 第1節에 있는 作戰用兵에 關한 諸說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王은 都體察使 李元翼에게 말하되『賊을 막아내는 일은 卿에게 맡기는 바이니 卿은 곧 嶺南으로 달려 내려가서 힘을 다하여 措置토록 할 것이며 寡人으로 하여금 다시 龍灣에 떠나가는 災厄이 없게 하기 바라오.』하면서 君臣이 서로 울었다는 것이다.

이때 朝廷에서는 百計를 다하여 마지막으로 案出한 것이 겨우 이 淸野之策이고 軍律로써 施行하여 山城에 옮겨 가기를 싫어하는 者와 딴 고장으로 옮아가는 者는 附倭로써 먼저 베기로 한 것이고 이 때의 王의 말투를 본다면 戰勢 如何에 따라서는 또 다시 龍灣으로 도망칠 뜻을 비쳤으며 都城에서 最後決戰할 생각은 秋毫도 없었으니 이는 甚히 遺憾이라 아니 할 수 없다. 王 스스로가 山城에 들어가지 않고 백성들만 들어가게 하여 모든 田野를 無人之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이 思考方式은 아무리 善意로 보고자 하여도 도무지 納得이 가지 않는다.

著者는 마지막으로 말하거니와 王과 그 밖의 宰臣들은 다른 사람으로 能히 바꿔 놓을 수 있으나 據險蓄積으로 잃어버린 平原과 堅壁淸野之策으로 내버린 沃土는 다시 찾기 힘들것이고 더구나 죽은 國民들은 다시 살아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저 國土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으며 國民 없는 王이 어디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戰術的으로 좀 더 다루어 본다면 이미 말한대로 幸州山城은 眞正한 뜻의 山城이 아니지만 여기에서 大勝하였다 하여 곧 山城의 價値를 높이 評價할 수는 없으니 黃石山城의 陷落이 이것을 證明하는 것이다. 또 第2次 晋州戰에서 필경 陷歿하였다 하여 당장 邑城의 利點을 無視하여 버릴 수도 없으니 延安城과 第1次 晋州城에서는 完城全勝의 功을 세우고 있는 것이니 말이다. 여러 州, 府, 郡, 縣의 四周를 쌓고 있는 邑城은 한낱 겉치례가 아니다. 元來 淸野之策의 참 뜻은 장차 쳐들어 오는 敵으로 하여금 荒野에서 彷徨하는 不利를 맛보게 하는 同時에 더 나아가서는 一切의 食糧과 休息의 便益을 주지 않음으로써 커다란 苦痛을 준 다음 敵의 疲弊한 틈을 타서 殲滅的인 打擊을 주고 곧 猛烈한 追擊으로 一擧에 擊破하자는데 있는 것이니 乙支文德將軍의 戰略이 이것이었고 姜邯贊公의 戰法이 이것이었으며 西洋에서는 奈翁一世에 대한 露西亞의 退却作戰이 이런 것이었다. 이 모두가 最後打擊을 加할 수 있는 機動兵力의 準備가 되어 있다는 事實 위에서만 그 意義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無抵抗逃避와 無條件 降伏이라는 가장 愚昧한 最後밖에는 다시 바랄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

四, 交戰 各國軍의 戰鬪力量 〔原文第151 參 照〕

한 마디로 戰鬪力量이라고 하지만 세밀하게 따지자면 精神的인 無形要素의 것과 戰技的, 肉體的, 또는 經濟的인 有形要素의 힘을 모두 合친 것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力量의 限度는

어떠한 統計的인 數字만으로서는 그대로 判斷을 내릴 수가 없을 뿐더러 또 여기에서 그러한 硏究까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느낀 바 몇가지를 抽象的으로 말하는 程度로 그치지 않을 수 없다. 著者의 見解로서는 交戰 三國의 無形의 力量에 있어서는 東征軍이 朝鮮軍을 당할 수 없었고, 日本軍이 東征軍을 당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고, 또 有形의 力量에 있어서는 朝鮮軍이 日本軍을 당할 수 없었고, 東征軍이 朝鮮軍을 당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日本軍은 白晝堂堂하게 神人이 共怒할 侵襲을 敢行하였던 것이고 朝鮮軍은 그 侵略을 받고서 일어섰던 것이다. 朝鮮은 祖國防衛의 正義의 戰士로서 最後關頭에 서서 싸웠고 日本軍은 入明假道의 허울 좋은 看板밑에 無名之師를 일으킨 不義의 軍閥들로서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屠戮을 일삼았던 것이다. 明나라 東征軍은 비록 藩邦을 救援한다는 美名이기는 하였지만 그 實은 舍廊房 불을 끄러 나온 안房 主人이었다. 著者의 이 말이 틀림이 없을진대 無形의 威力과 必死의 精力을 어느 쪽이 더욱 쏟았을 것이겠는가. 또 有形要素에 있어서는 日本軍이 20代의 靑年이라면 우리는 10代 少年이오, 明나라 東征軍은 50代의 老人이었다고 보는 것이니 著者의 이 見解에 過히 커다란 錯誤가 없다면 그 싸름의 決判은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彼我의 有形的 力量은 처음부터 問題가 될 까닭이 없었다. 그들은 一將一兵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職業屠殺人들이고 一地方 또는 一城의 領主를 中心으로 하는 主從關係의 鐵桶같은 團結을 이루고 있는 무서운 野盜의 大集團群이었다. 그들은 豊臣秀吉의 命令이라면 神의 뜻인 줄로 믿고 모두가 敎主인 그 한사람에게만 直屬되어 있는 狂信徒의 行動隊이기도 하였다. 將領들의 經歷을 보아도 豊臣秀吉을 비롯한 거의 全員이 13,4歲때부터 벌써 初戰〔初陣(UIJIN)〕에 參加하여 자기의 칼과 槍 한자루로 血路를 뚫고 그 地盤을 쌓아 올린 實戰의 戰奴들이었고 甲옷과 軍糧과 戰野가 그들의 衣食住의 全部였던 虎豹의 무리였으니 그 戰鬪力量이야말로 當代에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弓矢로써 鳥銃과 맞서야 하였으며, 棍棒으로 刀劍을 물리쳐야 하였고, 徒步로써 騎馬兵을 追擊하여야만 하였으니, 秋風落葉이 당연하고 一葉孤舟가 마땅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秀吉의 作戰命令은 現代戰史에 견주어 본다면 매우 稚拙함을 면치 못하겠으나 그러나 必要한 要式節次는 이미 갖추어져 있었고 세밀한 指示를 잊지 않는 程度의 것이었는데 우리 쪽은 將領의 任命이 곧 作戰命令이오, 不當한 干涉이 곧 作戰指示였으며, 그들은 앉아서도 戰局의 大要를 把握하고 適時適切한 命令으로 規制하였으나 우리 쪽은 깊은 안개속에서 敵情을 살펴 보면서 温突房안에서 눈비 나리는 戰野를 指示하는 格이었다.

이러한 失望에 가까운 要件속에서도 許多한 勇將猛卒의 輩出을 보게 되었고 더구나 한 사람의 投降將兵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永世에 걸친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으며 몇몇 將領에 있어서는 日本軍과 明나라 東征軍의 어느 將領에 比하여서도 조금도 遜色이 없는 巨星偉材를 보게 되었으니 陸將에 權慄, 鄭起龍, 黃進이 있었고 義兵將에 鄭文孚, 權應銖, 郭再祐, 金沔, 金千鎰이 있었으며 海將에 李舜臣, 鄭運이 있었다.

이러한 名將들 밖에도 숨은 人材가 또한 많았는데 이러듯 可驚할만한 現象은 우리 民族이 代代로 列國強豪의 틈바구니에 끼어서도 시들지 않고 마침내 다시 살아 온 民族魂의 所致라 아니 할수 없다.

宣廟中興誌 卷五 丁酉條에 다음과 같은 事實을 말하고 있다. 『全羅右兵營 虞侯인 李曄은 清正에게 사로 잡히는 바 되어 倭京에 까지 끌려가게 되었는데 秀吉이 極히 그를 厚待하여 錦綺로 입게 하고 帳御에서 먹게 하여 모두 그의 平生居處와 같게 하거늘 李曄이 나와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錦綺를 입는단 말인고, 하고 모두 딴 被擄人들에게 흩어서 준 다음 배를 사 가지고 도망쳐 나오려고 하였다. 배로써 장차 떠나려 할적에 詩를 지어서 그의 뜻을 나타내 이르기를 「나는 본시 三侯의 閥骨이어늘 어찌 異域에 와서 牛羊에 섞여 있을 수 있으랴.」(我是三侯閥骨 安能異域混牛羊)하고 赤間關(山口縣下關)에 다다르자 追擊하는 日本兵이 急히 오거늘 李曄은 劍을 뽑아서 스스로 찌른 다음 바다에 떨어져 죽고 말았으며 같이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流涕하지 않는 者가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民族魂은 錦衣玉食으로서도 바꿀 수 없고 高官榮爵으로서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尊貴한 것이었다. 또 朝臣들 가운데도 硬骨忠諫之士가 없지는 않았으니 이미 本章 第1節에서 言及한 바 있거니와 司諫 李幼澄이 王에게 諫하기를 『最近 1,2年來로 宮闕안의 規律이 嚴하지 않고 賂物이 盛行하며 排斥과 謀陷이 風을 이루어서 그 王子로 말씀한다면 백성들의 田地를 빼앗고 사람들의 奴僕을 빼앗아 갔으며 그 宮闕로 말씀한다면 官爵과 獄事를 팔아서 利를 도모하고 僥倖을 꾀한다.』고 하였으며 또 이어서 말하기를 『椒房의 賤한 者 까지라도 그의 누이의 勢道에 붙어서 朝廷의 是非問題에 까지 참견을 한다.』고 王앞에서 臨海王子와 後宮 金氏와 그의 오빠 金公諒에 대하여 敢히 堂堂하게 諫言하는 31歲의 선비도 있었으니 이는 戰塵에서 叱咤하는 猛將의 威風과도 같은 것이었다. 『臣이 이제 여기 죽사옵니다.』하고 갑옷위에 朝服을 입고 北向再拜한 東萊府使 宋象賢, 淮陽府使 金鍊光이 있고 重圍에 빠진 敵中에서 敵將의 목을 베어 가지고 돌아온 猛將 金應瑞, 黃進이 있었으며 한 손에 亡父의 屍體를 안고 또 한 손에 長劍을 빼어 들고 敵中을 縱橫無盡으로 쳐부신 京畿助防將 洪季男이 있었고, 敵中에 뛰어들어가서 잡혀갔던 主將을 奪還하여 나온 別將 鄭起龍이 있는가 하면, 紅衣를 입고 敵中을 馳驅하여 敵의 肝膽을 서늘케 한 義兵將 郭再祐가 있었고 또 不時에 敵大兵力과 마주치게 되자 悠然하게 几床위에 앉아 眼力 하나로 敵을 도망치게 한 招諭使 金誠一이 있었다. 敵의 暴行을 죽음으로 拒否한 數많은 烈女들이 있는가 하면 佛經을 던지고 一長劍 짚고 일어선 僧將 西山大師, 松雲大師, 釋靈圭, 處英등이 있었으며 삽과 낫을 가지고 田野에서 蹶起한 數많은 義兵들이 있었으니 日本軍이 비록 勇猛無雙한들 어찌 이 正義의 불길을 對抗할 수 있겠는가.

또 그 뿐이랴. 바다에서는 『戰船이 아직도 12隻이 있사오매 微臣이 죽지 않사오면 敵이 敢히 우리를 엿볼 수 없사옵니다.』하고 數百隻의 船團을 向하여 突進하고 있는 忠勇之將도 있었으니 日本軍이 어찌 이를 당할 수 있었겠는가.

戰爭에 있어서는 正義로써 不正義를 치며 直과 是로써 曲과 非를 치는 者가 이미 最後勝利의 半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매 明나라 經理 楊鎬가 豐臣秀吉에게 보낸 書信을 보더라도 正義와 人道 위에서 驕兒 秀吉을 어린애 타이르듯 訓戒調로 撤兵修好를 勸하였으니 그 要旨를 다시 한번 살펴 보면 『그대 이미 60餘歲로 壽命이 얼마나 될 것인가. 아들(秀賴)은 아직 10歲도 되지 못한 터인 즉 孤弱을 무엇으로 믿겠는가. 듣자 하니 各地方(各島)의 酋長들이 서로 같이 그대의 틈을 엿보고 復讐와 報怨의 擧事를 하리라는 바 그대는 군사를 죽게 하고 백성을 괴롭히나니 어찌 萬民을 平安케 할 수 있으랴. 그러고서도 날랜 장수들로 하여금 다시 군사를 海外에 몰아내게 하였으니 一朝에 그대의 여러 地方에 內變이 일어나 그대의 자리를 노리는 禍(蕭墻之禍)가 생긴다면 淸正같은 諸將들이 모두 서로 王되기를 생각할 터인 즉 어찌 하여 오래도록 그대 밑에 있기를 즐겨 할 것이며 將來라도 또한 어찌하여 그대 아들 밑에 있을 것이랴. 理勢로써 이것을 論한다면 그대는 빨리 罷兵을 하고 朝鮮과 修好함만 같지 못하도다.』라고 하였다.

正義와 함께 하는 사람은 항상 強하고 自己의 不正義를 是認하는 者는 항상 弱한 것이어서 楊鎬의 이 諭示앞에는 秀吉도 다시 무엇이라고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니 이는 곧 無形要素에 있어서 日本側이 가장 뒤떨어져 있었다는 산 證據가 될 것이다. 有形的인 戰鬪力量에 있어서도 우리는 明나라 東征軍의 여러 將兵에 比하여 아무런 遜色이 없었다고 보는 바이니 明나라 將臣들의 醜態에 대하여 谷應泰撰인 皇明記事本末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李如松이 平壤에게 크게 이기고 李如栢이 開城을 占領하여 四道를 다시 恢復하고 倭三軍을 사로 잡아서 廓淸의 功이 朝夕에 달려 있었던 바 碧蹄舘에서 輕進하여 군사의 意氣를 損傷케 하고 九仞의 功을 一簣에 무너뜨리게 한 것은 매우 아까운 일이였다. 또 麻貴가 蔚山에서 싸워 이기고 三協의 군사가 兵勢를 서로 겨누어서 倭敵의 城柵을 깨뜨리고 堡寨를 占領하여 그 銳鋒을 감히 당하는 者 없었거늘 首級을 베라는(割級) 命令을 내려 서로 戰功을 탐내게 한 결과 軍의 威信을 떨어뜨렸으매 僉都의 고기를 먹어서도 어찌 足하다 할 것인가. 하물며 沈惟敬은 市井의 徒輩로서 皇命을 더럽히고 李宗城은 淫貪으로써 正使를 拜하여 風月과 候節로써 속이고 壺觴(술병과 술잔)과 好會(좋은 會席)로써 거짓을 꾸몄으며 邢玠는 戰勝하였다는 急報를 날리고, 楊鎬는 功을 탐하는 일을 저질러 皇帝에 대하여 사사로운 일로써 損威失重케 하였으니 빛나는 天朝에 대하여 이같이 擧動한 것이야 말로 虛荒하고 怪異한 짓으로서 後孫들이 용서할 바 못되도다.』하였다.

여기에 좀 더 그들의 一班을 살펴 보기로 한다면 副總兵 祖承訓은 그의 平壤城 敗退의 責任을 우리에게 轉嫁시키려 하여 『朝鮮軍이 敵에 附逆하여서 졌다.』고 誣告를 하였으며 副總兵 楊元은 南原城에서 脫身逃走하였으되 우리의 將領(全羅兵使 李福男, 助防將 金敬老, 防禦使 吳應井, 南原府使 任鉉, 求禮縣監 李元春등)은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모두 最後까지 싸워서 죽고 있으며 또 當代의 名將 李如松은 碧蹄一戰에 敗하였으나 그로부터 16日 뒤에 우리의 名將 權慄은 같은 日本軍의 主力部隊를 幸州一戰에

서 擊破하고 말았다. 裝備에 있어서는 우리 쪽은 明나라 東征軍에 比하여서 實로 보잘 것없었거니와 用兵之妙가 存乎一心이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힘이었던 것이리라. 또 明나라 東征軍의 四路倂進으로 數萬兵力을 움직인 끝에 泗川, 倭橋, 蔚山의 3城을 攻圍하였으나 優勢한 兵力으로서도 마침내 攻陷의 功을 이룩하지 못하고 오히려 人質을 보내는 醜相을 보였으니, 만일 朝鮮 將兵이 그의 半程度만 있었더라도 이같은 부끄러운 戰績을 남기지는 않았을 것이 明白하다. 著者의 이 말이 公正하다고 보면 戰鬪力量의 優劣結論이 明白히 들어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여기에서 愉快한 것은 副總兵 李寧이 咸陽 沙斤驛 戰鬪에서 戰歿하게 되자 明나라 將兵들은 같이 合同作戰하던 慶尙右兵使 鄭起龍의 指揮下에 들어갈 것을 願한 나머지 皇帝의 特命으로 鄭起龍이 明나라 副總兵을 兼하고 그 將兵을 倂合指揮하였다는 事實인데 이는 곧 우리 將兵의 力量을 評價하는 한 例가 될 줄로 믿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銘心하여야 할 것은 우리 民族이 各個人이 가지고 있는 潛在力量은 日本이거나 또는 明나라 東征軍의 그것 보다도 確實히 優秀하였지만 이것이 모여서 集團을 構成할 때 千人은 반드시 1人의 千倍의 力量을 發揮하지는 못한 것을 指摘하여야 할 것인바 그 좋은 例가 龍仁戰鬪(25年 自5月28日 至6月6日)였다고 본다. 三道勤王師 5萬兵力이 日本의 水軍將인 脇坂安治의 2千未滿의 군사를 相對로 하여 도리어 敗走하고 있는 바 水軍이 陸上에 올라와 싸우는 것은, 돌거북이 陸地에 올라 와서 토끼하고 싸우는 格인데 아마도 토끼는 거북한테는 지기 마련인지 참으로 싱겁게 敗走와 潰退를 당하고 말았다. 우리 군사는 主將이 沈勇果敢할 때에는 實力 以上으로 勇敢無雙하여지는 것이어서 熊峙, 梨峙, 延安城, 晋州城, 永川城, 龜尾浦, 蟹踰嶺, 吉州城, 中和등의 陸戰과 鳴梁, 露梁, 閑山前洋, 栗浦등의 海戰에서 그 例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實力 以下로 急速히 低下된다는 이 事實을 우리는 直視大悟하여야 될 것이다. 또 우리의 力量을 分離시키는 逆作用도 많이 볼 수 있으니 義兵將 郭再祐를 괴롭힌 慶尙監司 金睟가 있는가 하면, 또 義兵將 趙憲을 百方으로 謀害한 忠淸監司 尹先覺과 公州牧使 許頊이 있고 義兵將 權應銖를 괴롭힌 慶尙左兵使 朴晋이 있었고, 忠勇將 金德齡을 中傷하여 獄死케 한 忠淸兵使 李時言이 있었으며, 또 서로 不和하였던 權應銖(慶尙左兵使)와 金應瑞(慶尙助防將) 그리고 李薲(巡邊使)과 李鎰(平安兵使)이 있었다.

東征軍에서도 朝鮮軍을 誣告한 副總兵 祖承訓이 있는가 하면 國運을 左右하는 엄청난 誣告를 하였던 兵部主事 丁應泰도 있었으며 朝鮮에서는 義兵大將이었던 鄭文孚를 끝내 獄中에서 죽게 한 臺諫 朴炡이 있었다. 이러한 人間들의 추악상은 千秋에 결쳐서 臭氣가 紛紛하거니와 許多한 英雄豪傑들이 풍기는 香氣는 彼我를 막론하고 萬代無盡으로 그윽하기 짝이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朝鮮軍의 戰鬪力量이 절대로 他軍에게 뒤지지 않았다는 事實을 自負하여 마땅할 것이지만 이와 아울러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戰陣間만 아니라 그 밖에 까지라도 우리가 露呈한 바 弱點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自家陶醉에만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당부의 한 마디를 남기지 않을 수 없다.

結　　論

여기 7年有餘에 걸친 本戰役史를 끝맺으려 하는데, 16世紀末의 是役이 朝, 日, 明 三國의 政治, 經濟, 文化, 社會, 軍事등 여러 分野에 끼친바 影響이 참으로 莫重至大한 것이 있으므로 우리가 東洋戰史를 論할 때에 이것을 度外視할 수는 없다. 이야말로 三國이 共同으로 당한 震災騷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中에서도 우리 先人들이 가장 極甚한 被害를 받게 된 震源의 中心部에 놓여 있게 되어 당시의 王侯將相들이 보여준 바 政, 戰 兩略의 指導와 水, 陸 兩面의 角逐은 단지 흘러간 한토막의 說話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깊이 파고드는 그 무엇이 있는 까닭이오, 나아가서는 우리 東洋 兄弟들이 어찌하여 서로 때리고 차고 피를 흘렸어야만 하였던가, 이것이 과연 三國發展에 어떠한 利得을 가져왔던가 하는데 대하여 우리가 깊은 關心을 아니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德富蘇峯은 그의 著인 「朝鮮役」에서 말하기를 『이 役은 平和에 있어서나 戰爭에 있어서나 日本 國民의 性格, 더구나 國民性의 커다란 缺陷을 赤裸裸하게 暴露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日本이 만일에 아무런 所得도 없이 다만 高貴한 人命과 巨大한 物資를 犧牲하였던 本役의 眞相을 明治初政부터 淡淡하게 再檢討하고 再反省하면서 東洋民族 서로가 손을 마주 잡고 互惠平等의 友愛之情을 두텁게 하였더라면, 그리고 朝, 明 두 나라가 또한 같은 마음으로 本役에 대한 成敗利鈍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서 國泰民安에 힘쓰고 東洋人을 위한 東洋의 樂土造成에 精進하였더라면 오늘날의 우리 天地는 그 樣相을 크게 달리 하였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우리가 豊臣秀吉의 不法的인 侵略과 好戰的인 弄兵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지없으나, 한편 돌이켜서 冷靜하게 생각한다면 원시 戰國世代에 태어나 覇道에서 뼈가 커지고 常勝無敗를 자랑하던 그였으니만치 弱하다고 보는 以上, 이것을 強奪하려는 것은 그로서는 오히려 당연한 風雲兒의 雄圖라고만 생각하였을 것이리라.

이러한 時代相을 全혀 외면한채로 다만 그의 侵略과 弄兵만을 탓하면서 自己의 脚下三尺을 反省하고 改過하는데 인색하다면 우리가 이미 흘러가 버린 이 戰史를 硏究할 값어치도 없고 또 그럴 興味도 없는 것이다. 最近代의 싸움을 一瞥하여 본다면 그 本質에 있어서 舊世紀의 屠戮과 慘酷으로 되돌아 갈 뿐 아니라 集團的인 戰爭犯罪까지 追窮하게 되고, 軍縮이라는 口號밑에서 軍擴에 狂奔하고, 恒久平和를 바란다는 口實 아래에서 全面戰爭을 차비하고 있는 이러한 現實인데 우리가 어떻게 晏然하게 남의 집 불구경으로 여길 수 있겠는가. 힘의 均衡이 무너지는 瞬間에 곧 優勝劣敗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人力으로서는 어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떤 사람이 외치기를 『自由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하였다. 이 말은 곧 『勝利가 아니면…』이라고 고친다면 우리의 戰爭觀에 그대로 맞을 수 있을 것이니 우

리는 決斷코 싸움을 願하지는 않으나 한번 일어서야 할 바에는 全民族의 興亡을 이 一擧에 걸고 最後勝利 있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이다. 지고서 또 다시 復興하거나 再造한다는 것은 오로지 한낱 奇蹟에 屬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번 싸웠으나 民族의 핏줄기를 끝내 이어내려 왔다는 事實 하나만 갖고 우리의 戰爭觀을 희미하게 서로 混濁하거나 우리의 國防觀念을 秋毫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本役 進行中에 있어서 몇몇 將相들은 媾和實現을 위하여 3年 以上에 걸쳐서 努力하기도 하였는데 그 動機가 個人功名心이건, 또는 窮塞한 나머지의 發作이건, 또 或은 不戰而勝을 노리는 策略이건간을 막론하고, 또한 그 結果의 成敗如何에도 不拘하고 人類의 共存과 共榮을 위하여 東西로 奔走하였던 그 精神만은 우리가 높이 讚揚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同時에 宣祖는 王者로서 여러가지의 失政과 不德을 犯하였지만 나라의 賊을 滅하지 못하고 따라서 원수를 갚지도 못한 채로 和議를 論할 수는 없다고 끝까지 固執하면서 힘에 依한 解決만을 摸索하는데 一徹하였다는 것도 여기에서 높이 評價하여 마땅할 것이다. 참된 平和는 오직 힘의 뒷받침위에서만 바랄 수 있고, 敵不來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에게 기다리는 바 있음을 믿어야 할 것이며, 또 이러한 바탕 위에서만 나라의 安保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著者는 위의 두가지 問題에 焦點을 두면서 古文獻을 뒤져 보았는데 이 拙著가 戰爭觀을 確立하고 和戰의 要諦를 糾明하는데 多少나마 一助가 되기를 期待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 民族의 一大受難의 記錄을 끝맺으려 함에 즈음하여 고요히 앉아 想念하여 보면 새삼스럽게 몇가지 느껴지는 바가 있는데, 皇天이 有心하여 우리 祖上들이 이 類例 없는 劫火속에서도 絶望하지 않고 모진 風霜과 鯨波를 무릅쓰면서 오히려 이것을 試練삼아 마침내 再生하고야 말았다는 事實 앞에서 神의 恩寵을 마음 깊이 느끼는 것이 感懷의 其一이다. 鐵火가 八道를 繡놓고 血雨가 郡縣을 물들여서 三大都城이 陷落됨으로써 內外가 一朝에 소란하여지고 上下가 깊은 憂愁에 잠겼을 때 明나라에서는 前後로 10餘萬 大兵을 보내 힘모아 이 醜敵을 勦滅코자 하였으니 이야말로 王道와 覇道의 一大對決場이었다는 것이 感懷의 其二이다. 赤地千里에 백성들이 농사 짓지 못하여 士庶는 山野에 流離하고 飢民은 窮巷에 彷徨하면서 七年腥風을 견디어 왔는바 先人들의 이러한 戰禍에 대하여 限 없는 哀切을 느끼는 것이 感懷의 其三이다. 官軍이 敗하여 主上이 播越할 때 선비와 農夫, 壯丁과 僧侶가 一時에 일어나 民族의 綱常을 永世에 扶植하였으니 本役初의 倡義活動이 青史에 찬란하다는 것이 感懷의 其四이다. 우리 將臣 가운데는 비록 時不利하고 運不足하였다 할지라도 차라리 殉國의 榮光을 찾아서 降伏의 恥辱을 물리치던 文武百官이 구름같이 많아 高貴한 그 精魂과 光彩 있는 그 場面에 눈물지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고 꺼질 줄 모르는 마음의 燈불로 길이 살아 있다는 것이 感懷의 其五이다. 彼我軍을 莫論하고 勇將과 猛士들이 自軍勝利를 위하여 往來接戰하는 동안에 남긴바 武德과 言行이 스스로 後世의 儀表가 되고 그 餘光이 오늘날까지 皎皎하여 限 없는 追慕의 情을 느끼게 하는 것이 感懷의 其六이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感懷가 뼈저리게 오고 간다는 것이야말로 本戰史가 간직하는 가장 所重한 部面이라 하겠다. 그러나 吾人은 이것으로서만 自慰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얻은 바 敎訓을 살려서 祖國의 來日을 위한 새로운 設計와 開拓이 있어야 마땅할 것으로 믿는 바이다. 由來로 戰史를 硏究하는 終局의 目的은 그 結果를 活用하여 國防用兵의 妙를 發揮하려는데 있는 것이며 決코 지난 날의 功過를 云謂하거나 成敗를 論難하거나 또는 부질 없는 自家陶醉에만 빠지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著者의 信條인 까닭으로 다음에 몇가지 問題를 總括的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는 少數精銳主義에 대한 問題인데 本役에 있어서 우리는 劣勢한 兵力으로써 매우 優勢한 多數의 敵과 맞부닥치면서도 도리어 有利한 戰果를 거두었던 例가 적지 않았다. 이와 反對의 例도 있기는 하였지만,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兵力의 多寡가 반드시 勝敗의 根本要素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元來 量에는 量으로, 質에는 質로써 對應하는 것이 最善之策이오, 어느 나라 치고 多數精銳를 願치 않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國民의 數爻와 國土의 廣狹, 그리고 그 나라의 財政經濟力과 隣接國家와의 勢力均衡 등, 여러가지 要素를 勘案하지 않고 덮어 놓고 物量戰法과 人海戰術을 그대로 模倣할 수는 없는 것이다. 國亡山河存이라 하였지만 이제부터의 戰爭은 그 山河마저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며 비록 戰勝한다 할지라도 廢墟化된 國土위에 國民 없는 榮光이 무슨 所用이 있겠는가. 本役에 있어서의 勝利의 記錄을 본다면 거의 모두가 그때에 直接 指揮하던 將領들의 武德과 品格이 뛰어나 隷下군사들로 하여금 스스로 一當百의 勇力을 나타내게 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며 勇將밑에 懦夫가 없다는 것을 證明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싸움은 士兵 하나 하나가 모두 本役 當時의 將領 以上의 比重을 차지하면서 立體戰의 나사못 하나 하나의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國家가 要請하는 兵力源의 最少限으로 참아 감으로써 民力을 温存하고 徹底한 質의 向上을 實現토록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는 一地固守에 대한 問題인데 本役에 있어서의 우리의 固守力量은 特筆大書 하리만치 뛰어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설사 固守타가 그 뜻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쪽에서 敵陣에 뛰어 들어가 降伏한 守兵이라곤 文獻上으로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 勿論 守城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도 間或 있기는 하였지만 敵에게 投降하지는 않았다는 뜻인데 日本軍이 太平洋戰爭 당시에 많이 쓰던 「玉碎」라는 말은 그 사람들의 專賣品도 아니고 特許品도 아니어서, 本役에서는 最後까지 싸워 守將 以下 모두 벼개를 같이 하면서 大義에 殉한 例가 매우 많았으니 死守한다는 氣槪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一地固守는 機動力이 없는 攻勢와 마찬가지면서도 그보다 훨씬 어려운 條件이 있는 것인데 攻勢에서는 防守로 轉換하거나 撤收로 移行하는등 숨 쉴 틈이 남아 있지만 여기에는 勝利 아니면 죽음 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固守防禦야말로 攻擊精神의 가장 高揚되는 局面이라고 할 것이며 여기에 強烈한 實績을 보여준 우리의 精神力量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斷定하는 同時에 이

분들이 우리의 祖上이었다는 것을 가슴 넓혀 자랑코자 하는 바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 氣象을 이어받아 後孫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作戰力의 強弱에 대한 問題인데 本役을 大觀한다면 우리는 山地作戰에 強하고 河川作戰과 邑城作戰에서는 시원스러운 實效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가 乙支文德公의 薩水大戰을 民族의 자랑으로 여기면서도 어찌하여 漢江, 臨津江, 大同江의 大自然 障碍物을 소홀히 取扱하였는지는 도저히 理解할 수가 없고 겨우 洛東江 一部에서 持久牽制의 利益을 多少나마 거두었을 뿐이었다. 또 이 당시 州, 府, 郡, 縣과 鎭堡에는 대개 城壁을 쌓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 커다란 人工築造物을 最大限으로 利用하지 못하였는지도 아직까지 理解가 가지 않는 바이다. 自然部落을 點으로 본다면 點의 連鎖가 線이 되고 面이 되는 것인데, 비록 他意라고는 하지만 國家總動員을 이미 斷行하면서도 그 힘의 核心이 없었고 自然發生의 僥倖을 바라면서 個別的 作戰指導에 빠지고 말았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의 海戰指導는 한 둘의 例外를 빼놓고는 모두가 훌륭하였으나 陸上에서의 呼應이 全혀 없었으므로 殲滅的인 短期終結까지 誘導하지 못한 것은 매우 遺憾이었고 대체로 夜間作戰도 低調함을 免치 못하였다. 진정한 精兵은 山岳에 가든, 河川에 가든, 또는 邑城을 지키든, 海岸을 지키든, 또 或은 夜間에 싸우든 간에 無所不能일 터인즉 이러한 作戰力의 強弱은 차라리 作戰指導力量의 高下라고 하여 마땅할 것이다.

넷째로는 軍統帥에 關한 問題인데 朝, 明 두나라에서는 文治一邊倒의 餘弊와 極端的인 相互牽制主義의 결과로서 閫外之大事와 門庭之小事를 彼此 서로 混同하여 接刃交鋒의 마당에서 있던 胄介之士가 作戰用兵에 專念할 수가 없었고 그칠 새 없는 中傷과 謀陷으로 말미암아, 또는 朝廷안에서 날뛰던 諫官과 監察組織으로 因하여 그들의 武名에 本意 아닌 흠을 남기게 된 例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朝鮮軍은 戰野에 섰던 將領들이 위로는 都元帥로부터 아래로는 九品職에 이르기까지 모두 層層侍下에 눈치밥을 먹으면서 文臣들의 콧기운에만 神經을 쏟은 나머지 獨斷活用의 妙를 바랄 수 없었고, 指示와 命令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으며, 自己의 所信대로 熟慮斷行하려는 美風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에 反하여 豊臣秀吉은 비록 바다 넘어로 고삐를 쥐기는 하였지만 重要하다고 보여지는 綱目과 準則만은 빠짐없이 提示하면서도 不必要한 干涉을 避하였고 現地 將領으로 構成되는 集團指導의 妙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情愛에 넘치는 細密한 指示도 하는 一方으로는 信을 깊이 大小將官의 腹中에 두면서 軍의 團合과 士氣昻揚에도 힘쓴 痕跡이 많으며, 더구나 事不如意한 失敗에 대하여서는 大海같은 度量을 보여주면서 責任追窮에 寬大하였고 再起와 奮發의 機會를 마련하였으며, 十數萬 大軍을 한손에 움켜 쥐고 마음대로 一縱一擒하였으니 蕞爾島國인 日本에서는 古今으로 드물게 볼 수 있는 將之將이었고 大軍의 統帥者였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로는 戰爭觀의 再確認에 대한 問題인데 本役의 始終을 通觀한다면 豊臣秀吉은 누구의 建議, 또는 協讚도 없이 自己의 決意 하나만으로써 거의 即興에 가까운 方式으로 好戰의

暴師를 풀어서 連綿한 王道에 挑戰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의 海賊船은 마침내 우리의 民族的인 怒濤에 휘말리게 되고 明나라의 盟邦的인 巨巖에 부닥치게 됨으로써 드디어 半破 상태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며 그가 죽은지 17年만에 그의 血族은 한사람 남기지 않고 滅亡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진실로 그가 우리 生靈을 앗아가게 하였던 鳥銃은 곧 그 自身에 대한 弔銃으로 化하여 버린 것이고, 그가 우리 江山에 치솟게 하였던 戰火는 드디어 大阪城에 대한 戰禍의 씨를 뿌리게 된 것이니 이것이 과연 好戰의 末路가 아니고 무엇이랴. 또 明나라는 45年 뒤에 毅宗이 自經하는 悲運을 맞이하였고 우리는 39年 뒤에 丙子戰亂의 災厄을 맛 보았으니 이것 역시 忘戰의 積弊라 아니할 수 있을까. 司馬法 仁本第一에 이르기를 나라가 비록 크다 할지라도 싸움을 좋아하여서는 반드시 亡할 것이고, 天下가 비록 泰平타 할지라도 싸움을 잊어서는 반드시 危殆롭다 하였으니 好戰과 忘戰이 모두 나라를 覆滅하고 民族을 삼켜 버리는 毒의 要素라 아니할 수 없다.

위에서 著者는 總括的인 私見 다섯가지를 말하여 보았는데 自古로 東西의 어느나라 치고 暴力의 亂舞만으로 戰爭의 有終之美를 거두었던 例가 없었다. 暴力은 어디까지라도 戰爭의 一手段에 지나지 않던 것이고 그 最終目標에 到達하여 그 所期의 目的을 끝내 貫徹하려면 武力以外에 外交折衝이 必要하였고 더구나 大義名分이 뚜렷하여 正義와 人道가 항상 같이 하였어야 되었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是役이야말로 우리에 있어서는 擧族的인 十字軍의 大進發이었으니 이는 不法과 無道에 대한 自守保國의 聖戰이었던 까닭이오, 이웃 明나라에 있어서는 王道的인 防守軍의 兩次 出動이었으니, 이는 결국 자기들의 鎭國安民을 위한 東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聖戰이오, 이러한 東征이었으므로 마침내 天佑神助가 같이 하였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結論에 代하는 바이다.

第Ⅵ篇　考證原文

第十九章 戰鬪關係 原文

第 1 節 第 1 期의 4 月作戰

一, 釜山鎭 戰鬪(壬辰年四月十四日)

萬曆壬辰夏四月十三日 倭兵大擧來犯 時鄭撥爲釜山鎭僉使 領鎭下三戰艦 蒼黃出浦則賊船己彌滿於絶影島內外洋中矣 撥且戰且退 入保鎭城 坐東門樓上 急治守城之具 戒城中 毋得驚動 令瞽吹簫於樓前 軍民晏然 賊衆下陸屯聚觀望 十四日鷄鳴 始薄城 撥厲氣巡城 士卒感奮 所射殺無數 賊屍山積者三區 矢盡 有一裨將 挽撥請跳 撥叱曰「男兒死耳 敢有復言者斬」及午 撥中丸而死 城遂陷 撥有一妾 名愛香 年十八 聞撥死 亦自頸 賊乘勝直向東萊

<壬辰遺聞, 元朝鮮奎章閣本老峯卷十>

其後商倭之往來者 亦稱壬辰之戰釜山城中黑衣將軍最難 當半日相持 殺傷甚多 若城固兵衆 終不可陷云 盖以撥穿黑色袍故也

<同 上>

大擧入寇 賊船蔽海而來 釜山僉使鄭撥 方獵於絶影島 謂爲 朝倭不設備 未及還鎭而賊己登城 撥死於亂兵中 <宣祖實錄卷二十六>

四月十四日 倭賊大擧入寇 陷釜山鎭 僉使鄭撥戰死 陷東萊 府使宋象賢死之 平秀吉以我國不許借途 遂發諸道兵二十萬 親領至一岐島 以平秀家等三十六將分領 以馬島主平義智及平調信行長玄蘇 爲導船四五萬艘 蔽海而來是月十三日 乘曉霧渡海 釜山僉使鄭撥 鑿沈戰船 盡率兵民守堞 翌曉 賊圍城百匝 乘西城外高處 發砲如雨 撥守西門 拒戰良久 賊衆中矢 死者甚衆 撥矢盡 中丸死 城遂陷

<宣祖寶鑑卷八>

四月十四日 倭船自對馬島 蔽海而來 望之不見其際 釜山僉使鄭撥出獵於絶影島 狼狽入城 倭兵隨之登陸 四面雲集 僉使閉門固守死戰 南門上有一武士 服紺色 彎弓射賊 射無不中 倭死者無數 其日幾不得陷城 適因城北隅頗有疎故賊乃踰城而入 兵皆迎戰于巷中 僉使亦力戰死而其妾以佩刀自刎 諸倭無不嗟嘆 其時能堅守者 唯有此城也 左水使朴泓見賊勢大 不敢出兵 棄城逃 賊分兵陷西平浦多大浦 僉使尹興信力戰被殺 <申靈撰 再造藩邦志卷一>

壬辰四月十三日 倭船蔽海而來 釜山僉使鄭撥出獵絶影島 狼狽入城 倭兵隨至登陸雲集 城遂陷 撥死之 左水使朴泓棄城逃 倭分兵連陷西平多大 多大僉使 尹興信力戰死之 左兵使李珏聞倭聲息入東萊 及釜山陷 退陣于蘇山驛

<朝野記聞卷之四 壬辰倭難>

壬辰四月十三日 倭賊數十萬犯境釜山 僉使鄭侯撥以戰艦三艘 下海拒戰 俄頃之間 賊船蔽海 侯且戰且退入城 治守禦具 且令瞽吹簫晏閑如平日 軍民和靜不驚 十四日曉賊薄城 侯厲氣巡城 士卒奮踴射殪賊無數 賊三處積尸如山 日午侯忽中丸絶 城遂陷 妾愛香年十八 亦自頸死 <尤菴集卷百十六 東萊南門碑>

又謂釜山之戰 黑衣將軍寂可畏 若城固兵多終不可破 盖鄭侯穿黑衣也 <同 上>

賊向巨濟右水使元均退遁露梁時沿途之賊向巨濟 均令虞侯守營馳到白川 寺見我國漁船以爲賊艘 蒼黃退遁露梁 虞侯聞之 督出城中老弱 死者甚衆 一島之師 望風皆潰 南海縣令奇孝謹 焚倉庫而走 賊時未犯境云

<春坡堂日月錄卷之八>

初賊旣登陸 均見賊勢大 不敢出擊 悉沈其戰舡百餘艘及火砲軍器於海中 獨與手下裨將李英男 李雲龍等 乘四船 奔至昆陽海口 欲下

陸避賊 於是水軍萬餘人皆潰 <懲毖錄 卷一>

今四月十三日申時 倭船不知其幾十隻 大概所見九十餘 左道柤伊島經過 釜山浦指向 連續出來 <慶尙右道水軍節度使元均第一回報告>

倭船一百五十餘隻 海雲臺 釜山浦指向

<同上 第二回報告>

今十三日 倭船四百餘隻 釜山浦越邊來泊

<慶尙道觀察使金睟報告>

壬辰四月十三日 烽火報急 公亟乘船下海 則賊船已蔽海矣 公只以三艦 且戰且退 還入城

<宋時烈撰 鄭撥墓碣銘>

四月十三日 倭兵大擧來犯 時鄭撥爲釜山鎭僉使 領鎭下三戰艦船 倉黃出浦 則賊船已彌滿於絶島內外洋中矣 撥且戰且退 入保鎭城 坐東門樓上 急治守城之具 戒城中毋得驚動 令瞽吹簫於樓前 軍民晏然

<孝宗末年의 東萊府使閔鼎重의 遺聞錄>

是日 倭船自對馬島蔽海而來 望之不見其際 釜山僉使鄭撥出獵絶影島 狼狽入城

<柳成龍의 懲毖錄卷一>

釜山僉使鄭撥出獵絶影島 急還入壁 鑿沉戰船 盡率兵民守堞 <李植의 野史初本>

鄭撥率舟師 大獵絶洋島 宿醉未解 十三日巳初 有人來言 海宗荒唐船出來云 撥曰 歲遣船不久來 今始到矣 不以爲意 稍近 自倭連放銃筒 撥始知其爲賊 蒼黃還鎭

<朴東亮의 否泰小錄>

(前略) 以三艦拒戰 俄頃之間 賊船蔽海 撥且戰且退 入城治守禦 晏閑如平日 軍民和靜不驚 賊投書請假途 撥不答 翌曉賊環城肉薄

<閔順之의 丹室居士壬辰錄>

倭賊等 釜山浦牛巖 分三運結陣 日出時圍城接戰 放砲之聲震天

<李忠武公全書, 荒嶺山烽燧軍裵突伊의 報告>

鄭忠壯公의 戰死

粤在壬辰之亂 釜山僉使鄭公撥 厲氣巡城 射殪賊無數 一日之內 賊屍之山積者 凡三處矣 及矢盡 偏裨請跳出待援兵 公曰 吾當爲此城之鬼 敢復言棄城者斬 士卒皆泣 莫敢離次俄而公中丸絶 城遂陷 公之幕賓副司猛李公庭憲 不去而亦死之 公之妾愛香 聞公死奔哭 自頸於屍傍 公之奴龍月 亦赴賊死 其後倭將言貴國之將 惟釜山黑衣將軍 最可畏也 蓋公臨戰時 穿黑衣故也 亂定後 朝家贈公左賛成 諡曰忠壯 又與東萊府使宋忠烈公象賢並享於忠烈祠 又有碑於東萊南門詳載公殉節時事 凡所以表揚公者 殆可謂靡有遺矣 然釜城即公死綏之地而獨無片石之記焉 後壬辰百七十年載河受命按嶺左水軍駐節於萊上 一登釜山而挹公之遺躅 遂慨然歎曰 此地安可無忠壯公戰亡碑也 於是伐石而竪之於永嘉臺傍 記蹟於碑陰 噫 釜鎭乃我國南徼之咽喉 蠻船往來之初程也 刻公之名而記之事 立之於此地者 將欲以激邊心而破賊膽也 三尺貞珉未必無助於金湯之固 衣袽之備云爾

<皇明萬曆壬辰後一百七十年辛巳之夏折衝將軍 慶尙左道水軍節度使朴載河撰銘曰>

鄭撥戰亡遺址碑

<朝鮮金石總覽下>

『嗚呼壬辰之變 釜山僉使鄭忠壯公 以一片孤鎭 當蔽海初薄之倭鋒 黑衣臨城 奮忠勵勇 射殪倭無數 一日之內 倭屍之如山者 凡三處矣 若使公假之以旬日 則足可以沮遏倭之勢遮蔽南維 而天方以彼爲長蛇封豕將次 蹂躪我八路 則公之翌日中丸 天也非人也 見此圖 則宜其淚志士於千載之下矣 至於所畜姬妾同日倂命 則亦可見公平日 忠勇孚感於一家之內矣 今則距壬辰久矣 昇平海晏 南氛不競而此倭不可忘也 此地不可忽也 繼公而鎭邊城者 皆以公之忠勇爲師 而遵養往時 則無往不復之天 未必皆如壬辰之爲矣 旣盡人事又得天時 則公之未卒之業庶有可成之日也 殉節圖之永傳 安知不爲他日之左契乎 改摹而藏之 以勗後之忠勇之士焉 崇禎紀元後百三十三年庚辰(朝鮮英祖三十六年淸乾隆二十五年)仲秋上浣 知府洪名漢敬題』

<釜山殉節圖序>

公慶州人…年二十五竟以弓馬取武科 選爲宣

傳官 俄出監海南縣…旣還由巨濟縣令 入爲籌司郎 盖武弁極選也 當公卿齊坐決事 公珥筆聰位雖奧文僻字 應聲立書 一座稱賞則 公又遜謝曰 偶然耳 自是聲譽藉甚 所衆別職至於八司 陞拜渭原郡守 秩滿拜訓鍊副正 移司僕司時 倭釁己啓 朝廷加折衝階 爲釜山鎭僉使 公至則日夜備具爲死守計 始公將行 泣辭于母夫人曰 忠孝不可兩全 今子爲王家急病 願母自愛勿以爲念 母夫人泣撫背曰 汝旣許國 何可顧私去矣 汝爲忠臣 吾何憾焉 顧謂妻曰 善養吾親 聞者莫不流涕…一男曰 水使昕 始公赴釜時 昕方十四歲 公與朴判書鼎賢 促軍親付以後事 昕從行至釜一日 與之酒使函歸曰 事急矣 汝徐行則殳矣 對曰 如此則何忍去 公曰父子同死無益也 汝歸養吾母與汝母 昕泣固請 公叱從者 扶出上馬而去 居十一日寇至…其後倭將平調信 見道通使黃公愼 極言公忠孝曰 其時我兵大挫於釜 又說愛香併命事而嘖嘖焉

<尤菴先生集卷一百三十五 釜山僉使贈判書鄭公墓表>

四月十二日(明曆四月十三日) 晴 兵船七百餘艘 辰刻發大浦 申尾到釜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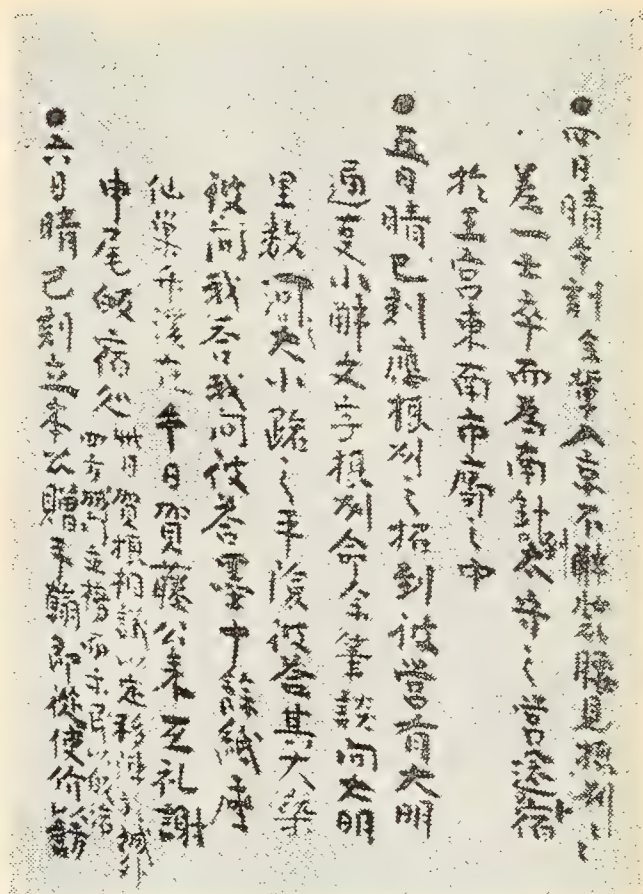
<倭僧 天荊의 西征日記>

十三日 半陰半晴 卯刻圍釜山之城而辰刻拔之 城中之軍盡授首 即時赴東萊 距城半里許而屯 午刻歸釜山之營

<同上>

先是宇喜多秀家聞行長孤軍直入 謂恐有不虞遂發舟抵釜山 會行長留守兵聞其消息

<秀吉譜，鎭西要略>

遂會諸將于其營議軍事 諸將皆將直向京城 秀家曰啓太閤而後發乎 將不啓而發乎 福島正則加藤淸正議論不合 小早川隆景問立花宗茂 宗茂辭讓再三而後曰僕嘗聞焉 將在軍君命有所不受 今出兵海外 每事遙取進止 恐失事機 今也王城警備未周 國中召募未集 不如長驅速取王城 隆景曰警備不周召募不集何以知之 宗茂曰如令根本堅固釜山東萊不可如此崩潰 以釜山東萊無備知王城亦無備 且僕頃問王城道程于生口曰有艱嶮要害地數所 如我淹滯 彼必

<日本僧天荊西征日記(卷一壬辰年五月四，五，六日條)，東京都前田家所藏>

分守要害 或請明援兵 如此我兵勢屈難進 不如果斷速進也 諸將皆伏宗茂言 遂發兵焉

<朝鮮聞書，國恩錄>

二，東萊城 戰鬪(壬辰四月十五日)

府使宋賢上南門樓 率軍民 守城以備賊 是朝左兵使李珏聞變 馳入城中 抄步卒數百 令助防將(時梁山郡〔守〕衆助防將而失其姓名云)迎擊到府南十里許 即還曰「賊衆我寡不可當也」珏曰「府使當守此城 吾輩在後繼援可也」即與助防將開門遁去 賊軍于聚兵場(峴名) 先使百餘人 持一木牌 立于南門之外而去 象賢令軍官宋鳳壽(武出身)等 出視之 有書曰「戰則戰矣 不戰則假道」象賢亦以木牌書 「戰死易 假道難」六字 投之賊中 賊兵遂分爲三 一自荒嶺山底 一自西大路 其一自聚兵場 直向南門 日未暮 圍城三匝 十五日朝 賊登城後山

由高壓下 時府民倉卒遇賊 皆入城爲固 城小人衆 賊兵數十萬一時爭入 城中塡塞 莫能轉動以此賊亦不能即肆兵刃 象賢令其下取朝衣來穿甲上 踞胡床 不變色 有一倭名平調益者 會隨信使至 象賢待之頗厚 調益感而思報 急趍前 目令先避 象賢不應 調益又牽衣 指城傍隙地 象賢已下床 北向拜矣 拜已爲書 以遺其父曰「孤城月暈 列鎭高枕 君臣義重 父子恩輕」又戒其從者曰「汝輩有得脫者 宜收吾屍 吾臍下有黑痣如豆 可驗」軍官宋鳳壽 金希壽等 四五人 鄕吏大宋伯 小宋伯 官奴鐵壽 邁同及唱等 列立左右 賊兵逼前 鳳壽 希壽 大宋伯等格鬪而死 象賢遂遇害 小宋伯 鐵壽 邁同等 就俘得不死 爲收象賢屍驗之 果有黑痣 葬于北山栗林之間 賊將聞而嗟歎 資其葬需 爲詩以祭之 引出害象賢者 斬之 自是譙樓之上 常有紫氣亘天 數年不滅 甲午(宣祖二十七年)朝廷令慶尙節度使金應瑞 言于賊將 使其家人入賊中與櫬歸葬 賊將路逢歸櫬 爲之下馬引避 象賢有妾 曰金蟾 咸興妓也 聞象賢索朝衣 知其將就義 踰垣奔住 爲賊所擄 罵不絶口者三日 亦見殺 賊義之 具棺並葬 有申汝櫓者 亦從象賢赴南 象賢知汝櫓有母 恐被賊 遣還 汝櫓途聞釜山陷 謂人曰「吾受公厚恩 臨亂敢愛死乎」還與同死 府民金祥及村女二人 同登屋上 二女碎瓦片 祥用以擊賊 賊去 祥母往視之 祥與二女同死 賊三人亦死於其側 知爲祥所殺也

<老峰集卷十雜著壬辰遺聞>

東萊府敎授盧盖邦密陽人也 爲覲歸家 聞賊報馳還 直到鄕校 則先聖祠板已移安于城中靜遠樓矣 遂叩城門大哭 象賢開門納之 其後六七十年(孝宗時) 鼎重(閔鼎重)爲東萊府使 萊以接倭爲事 而全無備禦之具 城亦不復築矣 每見父老訪問故事則皆涕泣言如此 嗚呼

<同 上>

巡察使金睟 初在晋州聞變 馳向東萊 至中路聞賊兵已近 不能前進還走右道 不知所爲 但檄列邑 諭民避賊 <懲毖錄 卷一>

東萊府使宋象賢聞賊至 招旁邑兵 守城 李珏欲去 象賢留與同守 珏下聽 只留牙兵二十人託言 我大將當在外犄角 與其別將開門遁去 出陣蘇山 <春坡堂日月錄卷之八>

象賢 上南門樓 率軍民以禦賊 賊軍于聚兵場先遣木板書 立城中曰 戰則戰 不戰則假我道象賢亦書木板 投賊曰 死易 假道難 賊遂圍之三匝 象賢督戰半日 且進且退 十五日黎明 賊兵自城後山大進 先作偶人 紅衣青巾 背負赤幟 帶長劍 縛之長竿 列示堞間 城中震駭號哭賊將劍擱人 助防將洪允寬 右衛將梁山郡守趙英珪 代將宋鳳壽 敎授盧盍邦等皆死之 象賢知不免 急取朝衣穿甲上 登南樓上 據胡床 賊來逼 端坐不動 乃數曰 隣國之道固如是乎 我不負汝 汝何至此 神色不變 賊怒 遂被害

<同 上>

象賢 登城南門 督戰半日而城陷 象賢甲上被朝服 坐椅不動 賊兵遂集 欲生執之 象賢以靴尖拒踢之 遂遇害 將陷 象賢知不免 手題扇面云孤城月暈 大鎭不救 君臣義重 父子恩輕 付家奴 歸報其父復興 既死 平調信見之 歎悼 爲棺歛埋城外 立標以識之 <宣廟寶鑑卷八>

後朝廷贈象賢資憲大夫吏曹判書 賜祭廩其家官其一子 又令慶尙兵使金應瑞入賊中求其屍與櫬而歸 遺民之服象賢之義而號哭送于百里之外者 幾七十餘人 平義智逢之 下馬避之 府人邁同者 遇其諱日及節辰 必盛設祭之 歲以爲常 <再造藩邦志一>

壬辰之亂 宋東萊象賢 守城死 將死貽書家親曰 孤城月暈 列郡瓦解 君臣義重 父子恩輕 辭語凜然 雖古之烈丈夫 何以加焉

<申欽撰 象村雜錄>

其一即李良女 亦隨象賢在東萊 象賢以賊將迫遣還京師 行一日 聞釜山城陷 慟曰吾寧死於所天 乃還東萊 及城陷 與婢萬介今春等 共被擄渡海 其容貌不甚美麗而年少神潔 諸倭爭犯之 李以死拒之 或誘以甘言 或怯以刀刃 終不回聽 諸酋多有率去者而不敢犯 諸倭中年少貌美者戲之曰 必見老者故厭薄而拒之也 如見我則豈姤是堅拒乎 或以銀貨易去 或相借以去 乃

美衣服治容貌　入其房而誘之 必欲亂其心而其操節堅確　如金石　然後莫不稱嘆曰　此節婦也更不敢以無禮加之　待之極敬 秀吉令與家康同在　爲諸婦之師 李常佩象賢綵纓 隨身不去 及今春先返　抽二枚屬之曰　公夫人若在　以此爲信　後因贖還歸家　與夫人交符而相與慟哭　聞者悲之　又有申汝櫓者　亦從象賢在東萊　賊將至　象賢以汝櫓有母　恐被賊殺遣還　汝櫓途聞賊陷釜山　謂人曰　吾受宋公恩厚矣　臨亂敢愛死乎　遂還詣東萊　與象賢同死　後朝廷贈象賢資憲大夫吏曹判書　賜祭廩其家 官其一子

＜再造藩邦志一, 大東野乘卷七＞

十四日癸卯陷東萊　府使宋象賢別將洪允寬皆死之　節度使李珏水使朴泓　棄鎭逃去　賊自釜山直抵東萊城下　狼奔豕突　勢甚猖獗　城中之人 皆惴不敢爲之備 象賢本書生　有將帥才 自顯官超爲是職　繕治粗完　訓練軍兵　日亦不足嘗於城外四面　治塹設柵　極其堅固　多樹以雜木　及是日巡城誓士　自守南門　賊犯附城外叢木之下　以防矢石　自卯至巳末　賊衆大至 別將洪允寬知事急　顧謂象賢曰　事已至此奈何　府後有蘇山　堅險可守　可與我同往守之 象賢曰不死守城　雖往保他境　朝廷必不饒我性命　且去又何之 允寬曰 然則我與公同死　言未畢 賊已斬之兩段 萬餘人無得脫者 水使之計 爲其率舟師 使賊不得近於岸也 見鄭撥之報　馳白東萊亦不入其城而逃　兵使李珏　本悖戾無行者　善事近習　有罪亦見放　聞賊報馳向東萊　又聞象賢將守城 懼不敢進　乃曰將守蘇山云

＜朴東亮 寄齋史草下 壬辰日錄一＞

公意氣安閑表朝衣穿甲上上譙樓踞胡牀拱手 端坐屹然如山嶽焉　賊來逼有賊平調益者 公曾款接之嘗德公思報亟進前目公使避　公不應又牽衣指城傍隙地則已下牀北嚮拜矣　拜巴修書訣其父遂遇害年四十二　於是論節義者雖媍孺必曰宋東萊云　生十歲悉通經史二十成進士六年而擢文科及通仕籍常恬靜自守而遇事不爲飢皷及其效節也從容整暇無異平日

＜朝野僉載卷之二十七＞

賊平調益者 嘗德公恩報 及是日公使避不應 又牽衣指城傍隙地則 已下床北嚮拜矣 遂遇害年四十二 公字德求 號泉谷 十歲悉通經史 與沙溪爲莫逆 交愼齋少受學於公時 視東萊爲死地公立朝正直爲時所要 及陞秩爲府使 名以才選而非善意也 當時論節義者 雖媍孺必曰宋東萊云(尤菴撰南門碑公碑)

＜朝野會通卷之十六 宣祖紀＞

裨將宋鳳壽金希壽等四五人及鄕吏宋伯等 力鬪皆死之…敎授盧盖邦　適寧親密陽急歸鄕校則先聖位板已移城中靜遠樓矣　叩城門大哭　公義而納之則 遂詣位板前行禮 仍侍立不少離 與諸生文德謙梁通漢同死　其妻硯亦 遇賊於密陽懷其夫紅牌 投崖死 府民金祥瓦屋擊賊 有二村女同乘撤瓦以助之 賊去祥母往視則 祥與二女相枕死而賊亦横尸其側矣　於是府使小宋伯官奴鐵壽邁同 收公尸瘞於北山栗老林 賊助其喪爲文而祭　＜尤菴集卷百十六 東萊南門碑銘＞

宋東萊者　名象賢字德求　礪山人　少卓犖有器局　在諸生已有名　年二十甫上庠　六年而登第自筮仕以將才稱屢試邊陣久之　歷臺省卒爲東萊府使 時倭賊平秀吉遣玄蘇平義智等　持土物來獻　覘我虛實　仍要朝貢於天朝　其視眈眈矣公莅任之明年賊悉國入寇萊久海堧也

＜申欽 象村集卷之三十一＞

申汝櫓者庶孽也　隨公赴東萊　公以汝櫓有母恐被賊　遣還汝櫓途聞賊陷釜山　謂人曰吾受公厚恩 臨亂敢愛死乎　遂還詣公同死

＜申欽 象村集卷之 三十一＞

李良女者亦公妾也　隨公東萊　公以賊將迫　遣還京師 行一日聞釜山城陷　蟾曰吾寧死於所天遽返東萊 與婢萬介今春共被擄渡海　秀吉將納之　李死拒之　秀吉義而捨之　令與前關白之女源氏處於別院 竟全節而歸　李之被擄佩公綵纓而去　恒隨身不去　及今春先返　李抽二枚屬曰公夫人若在 以此爲信 至李歸與夫人交符而相與慟哭 聞者悲之 ＜申欽 象村集卷之 三十一＞

金蟾者咸興妓也 有才貌年十三從公　嘗遭父喪能致哀　公恒重其操　隨公之東萊　事急公取朝

衣來 蟾知公將就義 即與女奴今春踰衙垣往公所則賊已坌集害公矣 蟾亦被虜 罵不絶口者三日 遂爲所殺 賊奇之具棺並公葬

<申欽 象村集卷之三十一>

八尺堂堂男子身　才全文武挺千人
擬將鰲柱擎南極　誰料欃槍掃北辰
義魄忠魂隨白刄　秋霜烈日照蒼旻
海雲天外曾遊地　悵望東南淚滿巾
右哀東萊府使宋象賢

<李廷馣 四留齋集 卷之四>

公生十歲悉通經史　十五魁陞補試考官驚異曰 此秀才他日必大鳴於世者 自是文詞脫口 必膾炙於人 所與遊皆一時俊彥 隆慶庚午中進士 萬曆丙子 擢文科 由承文院正字陞著作博士 薦授注書兼春秋舘記事官 出爲鏡城判官 入司憲府 屢爲持平執義司諫院司諫 以直去爲北道評事 銀溪道察防 白川郡守 或爲忠勳府經歷 戶禮工三曹正郞 司宰軍資二監正 再以質正官 赴燕 最後復以執義 爲東萊府使 公德量深厚 言語簡重　喜怒不形常沉潛經傳通貫子史而旁及兵家之流 性至孝 親在雖隆冬暑雨 侍立終日不脫巾帶 與弟象仁友愛甚至 奉養孀姉恩禮尤備 撫愛甥姪 無異己子 隣里感歎 皆以爲不可及 <尤菴先生集 卷一百四 碑 泉谷宋公神道碑>

乃聲言欲犯大明而東萊當賊初衝人　視以死地公主朝正直爲時所惡 乃於辛卯某月 陞通政爲其府使 名以才選而非善意也　<同　上>

當公之除東萊也 人皆來唁 公考監察公毅然曰 不辭難臣職也 死將焉避 此可見 公全歸之孝不在身體而在於德也 公字德求 號泉谷 礪山人 上世有松禮官至侍中 爲麗氏名臣 曾祖承殷忠佐衛副司猛祖王由進勇校尉　考復興文科 娶安東金氏 嘉靖辛亥正月八日生公 公配星州李氏 忠義衛溫之女 承旨文楗之孫 生二男一女 男長仁及文科正郞 次孝及進士　<同上>

字德求 號泉谷　壬辰爲東萊府使 倭兵猝至作書寄父 …中略… 城陷 正冠帶踞床不屈死 妾亦同死　賊葬其屍　誅擅殺者 朝廷贈吏曹判書諡忠烈 與金鍊光劉克良並享於崇節祠 遺址在北部禮賓里　<中京誌八>

四日半陰半晴　卯刻發釜山 辰刻圍東萊城 同刻拔之 斬首三千餘級 虜五百餘 鮮軍懼曰 東萊諸軍乃飛逾城 疑有翼乎 神乎鬼乎

<天荆의 西征日記>

左兵使李珏　聞變自兵營入東萊　及釜山陷 珏恇怯失措 託言在外猗角 出城退陣于蘇山驛 府使宋象賢 留與同守　珏不從 十五日 賊進逼東萊　象賢莅任幾二年矣 象賢字德求 礪山人也 少卓犖有器局 在諸生日 已有盛名 年二十 補上庠 六年而登第 自筮仕 以將才稱 屢試邊障久之歷臺省　卒爲東萊府使　至是登城南門 督戰半日而城將陷 象賢知不免 急取朝衣穿甲上踞坐床 賊來逼 不爲動 有一倭名曰平調益 前日往來之時　得見象賢待之款　調益感之 欲爲象賢報之 及是目象賢避於城旁隔地 象賢不應調益意象賢不覺 又擧手至牽衣指之 象賢已下床 北向拜矣 拜已　致書于其父福興曰 孤城月暈 列鎭高枕 君臣義重 父子恩輕遂 遇害 象賢未死之前　常令其下曰　吾腰下大痣如豆　吾死以此爲驗　而收吾尸 其下果以此得其尸　象賢有二妾其一名金蟾　咸興妓　有才貌　年十三從象賢 嘗遭父喪 能致其哀　象賢恒重其操 至是事急 象賢取朝衣　蟾知其將就義 即與今春 踰墻往象賢之所　則賊已坌集　害象賢　蟾亦被擄罵不絶口者三日 遂爲所殺　俄而平義智玄蘇等至　聞象賢之死　皆嘆惜之 出賊之害象賢者戮之 尋象賢與蟾尸 同葬於東門外 立大木表之

<再造藩邦志 卷一>

朴晋馳還密陽　縱火焚軍器倉庫　棄城入山　李珏奔還兵營　先出其妾　城中洶洶　軍一夜四五驚 珏乘曉亦脫身遁 衆軍大潰 <懲毖錄卷一>

二十一日　右道之賊　由靈山昌寧玄風等地　自清山(道？)屠過慶山 大丘自此江(洛東江) 左右路塞 進向蔚山左兵營等處 時十三邑兵齊到入城(左兵營) 安東判官尹安性守東門　珏欲空城出陣　<李星齡의 春坡堂日月錄 卷之八>

自東萊之陷　郡縣望風奔潰 左水使朴泓與右兵使李珏　合陣於彥陽　已而珏奔還兵營　先出其

妾 城中洶洶 軍中一夜四五驚 珏乘夜亦脫身遁去 衆軍大崩 泓退屯慶州 <再造藩邦志一>
時昇平二百年 民不識兵 望風瓦解 無敢嬰其鋒 賊長驅而進 如入無人之境 <紫海筆談>
李珏等以罪誅 慶尙右兵使李珏左水使朴泓 各率虞侯與防禦使成應吉 助防將朴宗男邊應星 安東判官尹安性 豐基郡守尹克仁 醴川郡守邊良祐 托以勤王棄嶺南踰竹嶺去 都元帥在臨津獲斬之 攷異(右錄出於巡營錄而 李珏外他人之下 無並斬之言 已甚不明而且癸甲錄則於四月十七日 下書珏棄營遁 朝廷命誅珏以 朴晋代之又無珏外他人之名 但於十七日則 朝廷處置似未遑及姑以巡營錄載之 俟考他書次)

<春坡堂日月錄卷之八>

兵使李珏自兵營馳入 俄聞釜山陷 托言 我大將 當在外掎角 即出陣于蘇山驛 城遂被圍

<宣廟寶鑑卷八>

李珏 自東萊馳還兵營 頓無戰守意 時十三邑兵皆入城 珏欲空城出陣 安東判官尹安性 以爲不可 珏曰然則公與諸將守城 願以公所領精勇屬我 我當出陣西山 候賊至城下 內外脅擊是也 亦一奇也 安性許之 珏遂從西門出 手指太和江而顧安性等曰 汝等不知賊鋒之已滿彼邊耶 即馳馬即走 安性臨城奮罵 撫劍目之 虞侯元應斗 亦欲出城 安性厲聲曰 吾恨不斬李珏 汝反欲效其走耶 應斗不敢動 已而亦遁 於是城中大潰 官吏望風奔竄

<宣廟中興誌卷一>

十五日府使宋象賢死節 郡守與軍官朴慶俊下吏朴璘安朴永遷等匿象屍中還本郡 時兵使李珏棄軍走 申德祺戰死 機張軍民一時驚散賊 分三路並進 無一防討 獨郡人出身徐仁忠與徐夢虎 起兵追擊 賊潰散退屯東萊 九月巡察使金睟兵使朴晋從人望以密陽人前萬戶金太虛 差假守招諭散亡 不旬月得兵三千 以郡人前縣監朴弘春定西面 將拒梁山釜山路 前奉事全應忠定南面將拒東萊機張 賊繕修公私船泛海者 以徐仁忠爲舟師將 以截水路 郡守自率手下兵三百 從急馳援 一月內七八戰 連續獻馘 諸賊莫敢來犯 自是郡兵精銳甲於八路 十月賊六船自機長來 陸賊三百又自阿介浦直向本郡 郡守與全應忠 領陸軍力戰 徐仁忠領水軍鏖戰 陸軍斬五十餘級 水軍斬四十餘級 又獲二隻全船之賊 朴弘春亦累度力戰 殺獲甚多 巡察使兵使並馳啓 陞差實郡守 癸巳諸賊欲雪累敗之憤 水陸合勢 四月四道並進 衆寡難敵 郡兵移陣慶州 時徐仁忠全應忠等 合力到利見臺中洋 接戰 斬射殺護不記其數 又於鳳吉里前長著小烽臺下 徐仁忠斬殺射殺 奪賊軍器 時本郡獻馘七百餘級 <嶺南誌 蔚山邑誌篇 龍蛇實記>
賊陷左兵營 時兵使李珏虞侯元應斗先遁去 十三邑兵入城皆潰 珏武藝絶倫 及在營別用海磨石 如彈丸者 試放之聲勢大振 人頗倚重而貪饕惟怯 到處先竄<朝野會通卷六十六 宣祖紀>
十五日甲辰 兵使李珏棄蘇山而逃 密陽府使朴晋敗走 晋少業文不成 旋登武第 累遷官 遂躐是府而拜辭之日 人皆以年少 恐不能稱巨府 聞釜山之陷 急領兵往赴之 東萊亦陷 晋謂珏曰蘇山不守 嶺南非我有也 我扼其前 公可據其後 我敗 公可救 我勝 公可夾攻 愼勿負 珏曰諾 晋自率五百人陣於前 賊見勢弱 長驅而至其鋒甚銳 珏望見晋軍不敵 遂棄去 晋退無後援亦奔還 <朴東亮著寄齋史草下 壬辰日錄一>

三, 密陽 附近 戰鬪(壬辰年四月十七日)

密陽府使朴晋 自東萊奔還 欲阻鵲院隘路以禦之 賊陷梁山至鵲院 見有守兵 從山後乘高蟻附 散漫而至 守隘者望之皆散 晋馳還密陽 縱火焚軍器倉庫 棄城入山 <懲毖錄卷一>
府使朴晋 自梁山遮守黃山棧道 賊乘銀轎 張銀傘而進 晋力戰斬數級 軍官李大樹 金孝友中丸而死 賊踰嶺 截其歸路 晋奔還本府 焚倉庫 突圍而去 <李星齡의 春坡堂日月錄卷 >
以一府之卒 當大勢之賊 遏賊黃山 親冒鋒刃血戰而退 <李恒福의 白沙集>
壬辰遭倭變 以鵲院戰功 陞拜左兵使

<密陽府邑誌>

鵲院　在府東四十一里　自院南方五六里　沿崖棧道甚危險　其一曲鑿石開路　俯視千丈之淵　水色深碧　人皆兢魂　疊足而過

<東國輿地勝覽卷二六>

十六日　賊散入蔚山梁山等地　大肆刼掠　翌日至黃山棧　密陽府使朴晉自東萊奔還　欲阻鵲院隘路以御之　賊陷梁山至鵲院　見有守兵　從山後乘高　蟻附散漫而下　守隘者望之皆散走　晉馳還密陽　孤軍不能敵　縱火焚軍器倉庫　棄城入山而據之　賊遂入密陽進逼金海

<再造藩邦志卷一>

十六日　朴晉大敗於密陽前江　當時監司金睟　分付各邑守令　相繼入送而或中逃去　或出門輒走　草溪守李惟儉　放其軍使之散　纔而逃　蔚山守李彥誠在東萊　爲賊所執　後二日脫還　兵使水使相繼棄鎭　其他僉使萬戶　難以悉記　自釜山至此　一無交戰者　獨晉所率三百餘人　自蘇山敗還　馳到密陽　欲以前江爲守　又欲呼召散卒　則人皆扶之　莫有應者　未及治兵　賊已來迫　是日大霧　莫卞尺寸　以此晉亦未來　放師已潰去　遂馳入城中　十七日丙午　賊到密陽前江　勢將逼城　晉自東萊還城之後　聚呼軍民　欲守待援　則內外居人　分散已盡　晉知無可爲之勢　遂焚燒倉困　馳赴金睟所駐處

<朴東亮著　寄齋史草下　壬辰日錄一>

『右畫本一件　中城而穹崇者　客館也　紅袍烏帽當庭而北向偃倭者　宋使君之　從容就義也　一人立使君之後　若將就死者　傔人申汝櫓也　蛉娉小娥　乘衙之墻　將就使君　爲賊所執　則侍妾金蟾　雖妓亦烈　靖遠一樓　當客館之左　中有二人　橫尸其欄者奕奕盧公　敎授是邑　奉侍位板在職死職　弟子文生　不負所學　又有梁潮漢(壬辰遺聞의　梁通漢)者　同死云　傳者不能詳　不敢併例　嗚呼惜哉　糾趙公梁山之守　忠憤慷慨來與同死　執弓射倭　賊斫之臂　勃勃如生　一身皆義　或戰于巷　或捍于隧　竭力殺倭　力竭而殞　彼三子者二裨　一吏　金希壽　宋鳳壽　宋伯其姓名也　彼美騎危于誰之屋　投瓦殺倭　二女助之　或撤于屋　或授之瓦　丈夫壯矣　女子何奇丈夫是金祥　女子是何人之妻或女也　名湮沒而不傳　悲夫　北門之外　有人走路　蒼黃失措　狂奔不顧　彼(慶尙兵使　李珏)平時高牙大纛　受國恩榮　何如一朝臨國家有事　不肯效一日之力　奉頭鼠竄　賭片時之活　使國有法　固當執而釁鼓　至今邊人羞道李兵使　夫人讀史　至忠臣烈士事　其人骨朽矣　其事影沈矣　非有情愛　親誼有干於我　我爲之流涕沱泗　而不能已者　誠以同賦之理　固在我心故也　況爲吾君　而死守此城而斃　其爲之慷慨悲傷　企慕尤也　在昔尹侯暄爲廟　祀宋公　閔公重鼎　李公之翼　詢之故老得其實　又乞於外王父尤齋宋文正公先生(守時烈)　以傳其事　鄭侯哲立碑　以壽其文　又將圖畫其事今余(東萊府使　權以鎭)於故城南門內買一隙地　爲祠屋　祀趙公　盧公　文生　於祠左爲翼廡　祭金希壽以下　吏之伯　民之祥　皆與焉移其碑　寘之庭　爲之屋　以覆碑　壁其屋之左右　命工　畫諸人之死義之狀　並及珏　逃走之形置　其間又得城陷後　遺民不附倭而起義討賊者二十四人姓名　書之傍　以終諸公勸懲之意　廟焉而不足　而又碑　碑焉而不足　而又畫　將以感夫同禀是理而爲心者　人孰無是心　有是心者　孰不具是理　寧有觀此畫而不生忠君死長之心者耶　邑人傳　城之初陷也　倭自城東山蹊云爾

萬曆壬辰後一百十八年　歲在己丑(朝鮮肅宗三十五年淸康熙四十八年)冬十一月下浣

府使安東權以鎭記』

七日　加藤淸正鍋島直茂到熊川　行長等旌旗指忠州向密陽　府使朴晉自東萊奔還　欲阻鵲院隘路以禦之　行長義智進而攻之　敵兵逃散斬首三百許　晉還密陽　縱火焚軍器倉庫　棄城入山李班　奔還兵營　軍一夜四五驚　遂遁去　行長等分道攻諸邑　無一人敢拒者

<宗氏家記　吉野覺書>

四，金海城 戰鬪(壬辰年四月十九日)

竹島　在府南十里　府之案　山古有三峰尖秀壬辰倭賊陵夷築山城　島山有竹　前三叉(洛東江下

流）一支江(金海江) 留泊戰船

<嶺南誌 第五 金海府山川條>

賊船自釜山移逼金海　時草溪郡守李惟儉守西門 禮元(金海府使徐禮元) 守南海(門？) 終日接戰 是夜 惟儉詐稱夜警 斫門者遁去 禮元稱惟儉 從西門出走 城遂陷

<李星齡의 春坡堂日月錄卷之八>

身乙同府(金海府) 以石戰軍置簿 四月十九日 倭賊圍城時 他軍士一樣城守爲如乎 金海府使(徐禮元)段 初守門而不定厥處 城中各處無不巡檢 草溪郡守(李惟儉)段 西門守城 終日接戰 時矣身東門射官白應良隨從以使內如乎 夜鷄鳴量 金海府使 聞草溪郡守棄守逃走之奇 追捉云云 西門了以亦爲突出 不還 軍卒等防禦無策西南北門洞開逃散之際 倭賊由東城越入 我軍被死者 不知其數矣

(龍蛇日錄 七月二十五日 金睟狀啓>

金海府使徐禮元 閉門城守 賊刈城外麥禾塡壕 頃刻與城齊 因踰城 草溪郡守李某先遁 禮元繼出 城遂陷 <懲毖錄卷一，再造藩邦志卷一>

賊分道長驅 金海府使徐禮元 閉門城守 賊刈麥塡壕因踰城而入 禮元出走 城陷 監司金睟自晋州聞變向東萊 賊兵已追 不能前 還走右道

<朝野記聞卷之四 壬辰倭難>

十四日 黑田長政偕大友義統至朝鮮沿海 聞行長既拔釜山 殊塗而向金海府 府使徐禮元守城遣兵防禦 列哨船于海岸 長政兵奪船上陸發銃奮擊 敵兵不支走而保城 長政令刈城外麥禾塡壕 頃刻與城齊 因踰城 艸溪郡守李某先遁 禮元繼出遂拔城 斬殺萬人

<黑田家記，黑田記略，長政碑陰>

五，第1次 慶州 戰鬪

(壬辰年四月二十一日)

賊一派 自彦陽從間道 迫慶州 時府尹尹仁涵以捕亡將在西川 判官朴毅長 長鬐縣監李守一等在城 賊一騎到東門外 植(楨？)牌文而去取視則有云「島主領兵來 判官速出門聽幼(約？)束」毅長等空城遁去

<春坡堂日月錄卷之八>

賊陷慶州 時府尹尹仁涵 以儒臣懦怯遞 判官朴毅長 獨在城 <燃藜室記述卷一八>

嶺南一路 無一人禦賊 倭兵乘虛長驅 所向無礙 倭人陷慶州府 毛利輝元分兵 自彦陽間道進攻慶州府 府尹尹仁涵 適在外 判官朴毅長 長鬐縣監李守一等 皆不戰而自走

<宣廟中興誌卷一>

六，第1次 尙州 戰鬪

(壬辰年四月二十五日)

乙卯倭變 改分軍法 盡破鎭管之制 割道內諸邑 散屬於都元帥巡邊使防禦使助防將及本道兵水使 名曰制勝方略 柳成龍請復鎭管之制 金睟以爲 制勝方略 行用已久 不可猝變 議遂寢 至是聞慶以下諸邑兵 皆野次以待鎰(李鎰) 者數日而賊報漸急 且値大雨 衆軍自相驚動 遂夜潰 鎰馳入尙州而列邑一空 獨判官權吉迎候倉卒搜索村民 編伍爲軍而無一堪戰者 二十四日(四月)癸丑暮 有告賊已過善山者 鎰以爲惑衆 斬之以徇 翌日鎰出城鍊兵於北川邊 兵革八九百 鎰立馬大旗下 從事官尹暹朴篪及權吉等皆立於後 有頃 有數人 從林木間 眺望而去 衆疑爲賊候 不敢言 旣又望見城中煙起 鎰始令一軍官往探 忽然銃聲發橋下 中軍官墮馬 一倭躍出 斬首而去 官軍望之失色 俄而賊兵突至 先以鳥銃數十衙之 前列披靡 乃分左右翼包之 砲聲鼓沸 官軍大亂 鎰策馬先走 顧謂尹暹朴篪等曰 願君從我 暹堅坐不動曰 將何面目歸拜主上乎 男兒到此 爲國死足矣 遂死之 邊璣從事官李慶流 失璣所在 亦在陣下 發憤格鬪而死 權吉等以下將士 死者甚多 賊逐鎰急 鎰被髮裸體 從山路步還 踰鳥嶺赴申砬 軍官朴篪入山谷 謂人曰 吾十八登壯元 受國厚恩 今日失軍亡師 將何辭以見吾君 遂自刎而死 時年二十二　<宣廟中興志上壬辰四月>

巡邊使李鎰 過歷咸昌至尙州 牧使金澥 託以支待巡邊使于出站 遁入山中 獨判官權吉守邑 鎰以無兵責吉 曳之庭欲斬之 吉哀告願自出招呼 達夜搜索村落間 詰朝得數百人以至 皆農民也 鎰留尙州一日 發倉開糶 誘出散民 從山

谷中 介介而來 又數百餘人 倉卒編伍爲軍 無一堪戰者 時賊已至善山 暮有開寧縣人 來報賊近 鎰以爲惑衆將斬之 其人呼曰 願姑囚我明早賊未至 死未晩也 是夜賊兵屯長川 距尙州二十里而鎰軍無斥候 故賊來不知 翌朝(二十五日)鎰猶謂無賊 出開寧人於獄 斬以徇衆 因率所得民軍 合京來將士 僅八九百 習陣于州北川邊 依山爲陣 陣中立大將旗 鎰被甲立馬大將下 從事官尹暹(弘文校理) 朴篪(修撰) 及判官權吉 沙斤察訪金宗武等 皆下馬在鎰馬後有頃 有數人從林木間出 徘徊眺望而回 衆疑爲賊候而懲開寧人不敢告 旣又望見城中 數處煙起 鎰始使軍官一人往探 軍官跨馬 二驛卒執鞚緩緩去 倭先伏橋下 以鳥銃中軍官墜馬 斬首而去 我軍望見奪氣 俄而賊大至 以鳥銃十餘衝之 中者即斃 鎰急呼軍人發射矢 數十步輒墜 不能傷賊 賊已分出左右翼 持旗幟繞軍後 圍抱而來 鎰知事急 撥回馬向北走 軍大亂各自逃命 得脫者無幾從 事以下未及上馬者 悉爲賊所害 賊追鎰急 鎰棄馬脫衣服披髮赤體而走 到聞慶 索紙筆馳啓敗狀 欲退守鳥嶺 聞申砬在忠州 遂趨忠州

<懲毖錄卷一, 再造藩邦志一>

初慶尙道守令引兵赴大丘 路次川邊待巡邊使已數日 賊報漸近 諸軍自相驚動 夜半潰散 守令皆以單騎奔還 李鎰入聞慶縣中已空 至尙州牧使金澥遁入山中 判官權吉獨留 鎰責以無兵將斬之 貰使招呼 鎰留一日 收得數百餘人 編伍爲軍 夕有開寧人 來報賊來 鎰將以惑衆斬之姑囚 是夜賊已至二十里之地而鎰軍無斥候故不知也 翌朝斬其囚 以其民軍八九百 習陣于北川邊 望見城中數處烟起 使軍官往探之 倭伏橋下以鳥銃中軍官 斬首而去 我軍望見奪氣 俄而賊大至 火鳥銃衝之 中者即斃 我軍發矢數十步輒墜而賊已分左右翼 圍抱而來 鎰撥馬北走 從事尹暹朴篪等下馬者 皆爲賊所害 鎰至聞慶 馳啓 聞申砬在忠州 遂棄鳥嶺赴其軍

<朝野記聞卷之四, 壬辰倭難>

七, 聞慶 戰鬪(壬辰年四月二十六日)

賊陷聞慶 縣監申元吉死之 賊自尙州連陷聞慶 元吉自變初不離官次是月二十六日賊猝入 人皆駭散 元吉獨騎馬避入山谷 賊追及欲降之 元吉奮罵不屈賊斷其四肢而後殺之

<慶尙巡營錄, 朝野僉載卷之二十七>

賊入聞慶 執縣監申吉元 欲降之 吉元奮罵之 賊斷其四肢然後殺之 比死罵不絶口

<宣廟中興誌卷一>

寅刻發尙州宿處 午刻過咸尙(昌) 酉刻到聞慶 聞慶之城 自放火而亡 <西征日記>

聞慶縣監申吉元墓碣(嶺南誌第三, 大邱府邑誌)

同　　忠烈碑(同上第十, 聞慶縣誌)

八, 忠州 附近 戰鬪(壬辰年四月二十七日)

申砬至忠州(二十六日) 衆才數千人 屯丹月驛 以李鎰 邊璣 爲先鋒 使之自效 砬獨與數人 馳至鳥嶺 看審形勢 金汝岉曰 彼衆我寡 難以爭鋒 宜守此險阨 伏峽中 俟賊入谷 然後乘高 左右射之 忠州牧使李宗張曰 今賊方乘勝而我在散地 扼險爲上 野戰非利 莫若據嶺阨 多張旗幟 煙火以疑賊心 然後方可出奇制勝也 砬曰不然 彼步我騎 迎入廣野 以鐵騎逐之 蔑不濟矣 遂還丹月驛 汝岉又請據高丘 逆襲之 否則入衛京師 李鎰亦曰 旣不據險 交鋒廣野 萬無一利 寧退守京城 砬皆不從 汝岉知必敗 乃寄書于子瑬*曰 三道徵兵 無一人至者 吾輩只張空拳 男兒死國 固其所也 但國恥未雪 壯心成灰 仰天噓氣而已 <宣廟中興志上壬辰四月>

二十六日 申砬至忠州 兵纔數千人 陣於丹月驛 以李鎰邊璣爲先鋒 使之自効 金汝岉謂砬曰 賊勢極大 難以嬰鋒 鳥嶺天險也 若不固守則爲彼所據矣 不若進至鳥嶺 伏兵峽中 俟賊入谷然後據兩岸乘高射之 蔑不濟矣 若不能當其鋒則退而入衛京師 亦一道也 砬曰 彼步我騎 迎入廣野 以鐵騎蹙之 無不勝也 砬不用汝岉之計 棄險不守 號令煩數 見者知其必敗

賊己由嶺路潛師而入至城中而砬不覺矣 初至嶺下 恐有埋伏 使人覘覷 然後知其無兵 鼓舞而過 有親信軍官(即族子也)密告 賊己踰嶺 砬以爲妄言惑衆 引出斬之 狀啓猶云 賊未離尙州 不知賊兵己在城中也 有詩爲證曰

鳥道于雲似劍門 緣崖攀木怵心魂

將軍棄險無良策 徒使諸人化鵠猿

二十八日 賊焚閭舍 然後我師知賊己踰嶺 無不驚懼而破膽 俄見賊衆由大路遍山以下 劍光閃爍 照耀日光 砬麾軍而出陣於彈琴臺前 臺在兩水之間 其水名曰薘川 軍皆背水而陣 金汝岉知其必敗 乃作書附于其子瑬(見上) 又作家書曰

我則己許死國 一家宜赴行在 不可逃于他處 封書付奴 使之歸報于家 己而賊四至 其地村街狹隘 左右多水稻田 水草交雜 不便馳馬 逡巡之間 賊遶出我軍之左右 勢若風雨 一路循山而東 一路沿江而下 砲聲震地 鐵丸如雨 塵埃漲天 喊聲撼岳 砬使汝岉立草狀啓 汝岉具甲胄腰弓矢 下筆如流 不錯一字 人皆壯之 賊勢益急 漸漸圍抱 四下無路 砬惶遽失措 策馬突陣者再三 不得出 還邊赴江 汝岉騎肩在前 幾至淺灘 砬呼汝岉曰 令汝求免乎 汝岉笑曰 我豈惜死之人乎 還馳至臺下 與砬格殺數十人 我師大亂 積尸如山 軍資器械 一時具盡 賊兵追砬益急 二人乃赴江而死 諸軍悉赴江中 流尸蔽江而下 李鎰從東邊山谷間脫走

<申靈著 再造藩邦志一>

三十日 申砬駐兵忠州 處事躁擾 朝令夕改 晝夜昏睡 不爲遮絶鳥嶺之計 及聞賊至 列陣草密低濕之地 爲賊所抱 無一人脫者

<朴東亮著寄齋史草下壬辰日錄一>

賊入忠州道內 兵會者八千餘人 且召李鎰邊璣等 俱到忠州 二十七日 軍官潛報 賊己踰 嶺 砬忽跳出城 一軍擾擾 不知所在 夜還客舍謂軍官妄言斬之 出陣於彈琴坮前 少頃賊分路而至 勢如風雨 砬與金汝岉赴江而死 李鎰脫身而逃 軍卒赴水而死 尸蔽江而下

<朝野記聞卷之四 壬辰倭難>

賊犯忠州 都巡邊使申砬 從事官金汝岉等戰敗死 時徵諸道兵未至 砬繼鎰而發 砬募取市井三醫司別侍忠贊等卒行收傍縣 二十六日 至忠州 衆纔數千人 鎰敗還請守鳥嶺 不聽曰 過海之賊不能趨走 遂背薘川 結陣干彈琴臺 二十七日夕 斥候將金孝元安敏等曰 賊鋒己逼 砬以爲驚衆立斬之 因下令改陣而潛師踰嶺 二十八日朝 賊大至出我軍之後 圍匝之 將卒驚惶 盡入薘川水 賊交刃亂斫 浮尸塞江 砬汝岉 皆水死(砬溤之孫 素有威望 士卒不敢仰視 立功北邊致仕宰列 於時論趙憲 甞上疏訟其爲國敢死 至是事急 人皆顧望 砬猕奮然挺身 自請赴難 見者壯之)

<春坡堂日月錄 卷之八>

賊兵入忠州 申砬敗死 初砬軍次丹月驛 獨與數人馳至鳥嶺 看審形勢 金汝岉曰 彼衆我寡 難以抵鋒 宜守此險阨以禦之 又欲據高丘逆擊之 砬皆不從曰 此地不可用騎 當於原野一戰 遂狀啓 請貸李鎰從軍自効 遂引軍還入忠州城 汝岉知必敗乃遣奴寄書于子瑬曰 三道徵兵無一人至者 男兒死國 固其所也 國恥未雪 壯心成灰 仰天噓氣而己 砬仍引兵出屯彈琴臺(在忠州邑內五里) 背江而陣 是月二十七日 賊踰嶺至丹月驛 翌曉 分路 大陣直入忠州城 左軍循達 川沿江而下 右軍循山而東 從上流渡江 戈戟耀日 砲響震天 砬衆大潰而賊己四圍 人爭投水 流屍蔽江 砬與汝岉馳射殺賊數十人 皆赴水死 李鎰從間路入山 遇倭數三射殺 得一級渡江馳啓 朝廷始知砬敗死 兵曹遂貰鎰罪

<宣廟寶鑑 卷之七>

砬出詣賓廳 見大臣將下階 紗帽忽落地 見者失色 到龍仁狀啓而不署名 或疑其心亂

<朝野會通 卷之十六 宣祖紀>

砬至忠州 本道兵會者八千餘人 欲退守鳥嶺 聞李鎰敗 膽落 還忠州棄險不守 號令煩撓 見者知其必敗 有所親軍官密報 賊己踰嶺 砬忽夜跳出 軍中擾擾不知大將所在 夜深潛還 明朝謂軍官妄言斬之 因出陣彈琴臺前 <同 上>

壬辰春分遣申砬李鎰巡視邊備 鎰往忠淸全羅道 砬往京畿黃海道皆閱月而還 所點者弓矢鎗

刀而砬素有殘暴之名 所至殺人立威

<朝野記聞卷之四 壬辰倭難>

賊兵入忠州 申砬迎戰 敗績而死 諸軍大潰砬至忠州 忠清道郡縣兵 來會者八千餘人 砬欲保鳥嶺 聞鎰敗 膽落還忠州 且召李鎰邊璣等俱到忠州 棄險不守 號令煩撓 見者知必敗 有所親軍官 密報賊已踰嶺 乃二十七初昏也 砬急跳出城 軍中擾擾 不知砬所在 夜深潛客舍明朝謂軍官妄言 引出斬之 狀啓猶云 賊未離尙州 不知賊兵已在十里內也 因率軍出陣于彈琴臺前兩水間 其地左右多稻田 水草交雜 不便馳驅 少頃 賊從丹月驛 分路而至 勢如風雨一路循山而東 一路沿江而下 砲響震地 塵埃接天 砬不知所爲 鞭馬欲親自突陣再不得入還赴江沒于水中而 諸軍悉赴江中 晃蔽江而下金汝岉亦死亂兵中 李鎰從東邊山谷間脫走

<懲毖錄 卷一>

彈琴臺 在州西八里犬門山 蒼壁斗絶二十餘丈俯臨楊津淇所 乃于勒彈琴之處 後人名其地曰彈琴台 <湖西左邑誌 忠州牧 古跡條>

九, 居昌 新倉 및 秋風驛 戰鬪

(壬辰四月 二十三日 二十八日)

趙儆之下嶺南也 昆陽出身鄭起龍自請從軍…儆壯其言 以爲突擊將 是時賊兵又自金海入右路 起龍獨率所部數十騎先進 遇賊先鋒五百於居昌新倉 衆洶洶莫敢發 起龍躍馬先登手斬百餘賊 士遂爭進破之而已賊連陷星州 開寧進至金山(四月二十三日)

<閔壬辰錄卷一 壬辰四月丁巳>

是時賊兵由金海入右路 起龍 (鄭起龍)獨率所部十騎先進 遇敵前鋒五百於居昌新倉 衆恟懼 起龍躍馬先登 手斬百餘級 士遂爭進破之已而敵連陷星州開寧至金山 趙儆到秋風驛 兵敗而走 爲賊所獲 起龍躍入斬其倭奪儆腋之以歸 賊望之皆披靡 <洪良浩著 海東名將傳卷五>

右防禦使趙儆兵 潰於金山 倭人入忠清道

<丹室居士의 壬辰錄卷一>

而各處潰散之卒 僅得四百餘名 分給防禦使趙儆 助防將梁思俊 使之馳救金山而趙儆梁思俊等 一自金山接戰之後 軍卒又散 自是以後雖督令各官使守令收合領來而亡卒等畏蒙其罪入處深山 唯恐不深 <龍蛇日錄 金睟狀啓>

丁巳(明曆四月二十八日) 趙儆禦之於秋風驛 兵潰 賊遂自秋風嶺入湖西 連陷州郡 儆復收餘兵禦賊 起龍爲先鋒 直進斫賊五十 伏兵忽出襲儆 儆敗走 爲賊所獲 起龍躍馬突入斬其賊 奪儆挾之以歸 賊披靡 <閔壬辰錄卷一>

第2節 第1期 5月作戰

十, 漢城 附近 戰鬪(壬辰五月二日)

五月初二日 賊先驅至 大軍不戰而潰 大駕出城 城中小民相聚爲盜 焚燒宮室 劫掠財貨都下大潰 李陽元知不可守 走楊州 城門不閉賊初至 見城門開 寂然無士馬迹 疑有伏 不敢入 初三日 乃知城實空虛 遂入城

<申欽의 征倭雜志>

至于漢江 倭奴毁沙平院家木與板子 先以大索橫截江流 又以長索繫於板 如槎形 載倭人于其上 引而往來如船 盡渡之 惟一槎終渡沈沒而且畏城內有人 留二日于漢江之頭

<龍蛇日記 慶尙道觀察使金睟聞記>

五月初二日 賊至漢江 漢江不守 初三日 賊入京城 <申欽의 征倭雜志 本國被兵始末志>

城中寂然 無士馬之聲 門且不閉 疑有伏兵不敢入 屯于門外 城中叛民 出迎敵 乃入據 焚燒宗廟宮闕公私家舍 括索帑藏 日輸其國

<燃藜室記述>

時敵兵尙未至京城 衆議皆咎其去邠之急 使申磼還入京城 審察形勢 是日敵先驅至漢江 都元帥金命元 副元帥申恪 在濟川亭 望見敵勢浩大 漫山蔽野 士卒股慄 無意戀戰 命元悉沉軍器于江中 變服以逃 申恪亦以匹馬奔竄于楊州山中 大軍崩潰 從事官沈友正叩命元馬 泣而謂之曰 今主上西幸 願守臨津 以遏其後 命元乃向臨津 留都大將李陽元在城中 漢江之軍

潰 知城決不可守 亦走出楊州 <再造藩邦志一>

都元帥金命元 在濟川亭 望見敵至 不敢戰 悉沉軍器火炮器械于江中 變服以逃 從事官沈友正 固止不從 李陽元在城中 聞漢江軍已散 知城不可守 亦出走楊州 <懲毖錄一>

淸正欲踰漢江 江廣水漲 無一舟楫 見北涯有浮鷗曰 敵已遁矣 誰能游水取敵舟者 從士曾根孫六 越中產也 進曰 臣長礪並川上 恒以游泳爲樂 請試之 即躍入水 游抵北岸取一艇自棹而至 淸正悅 以次濟其軍<豊太閤征外新史>

十一，玉浦 海戰(壬辰年五月七日)

(一)今五月初四日 丑時發船 本道右水使李億祺率舟師 繼臣之後事 移文緣由馳啓 同日同時舟師諸將 板屋船二十四隻 挾船十五隻 領率發行 至慶尙右道 所非浦前洋 日暮結陣經夜

初五日 曉頭發船 兩道曾與約會處之唐浦前洋馳到則 同道右水使元均不在約處 臣以所領輕快船於唐浦馳來之意 移文矣

初六日 辰時元均亦自同營境內 閑山島只乘一隻戰船來到 賊船多寡及留泊處 接戰節次 詳問之際 同道諸將 南海縣令奇孝謹 彌助項僉使金勝龍 平山浦權管金軸等 同騎板屋一船 蛇梁萬戶李汝恬 所非浦權管李英男等 各騎挾船 永登浦萬戶禹致績 知世浦萬戶李雲龍等 同騎板屋二船 初五日六日 續續追到 兩道諸將 招來一處 再三申明約束後 至巨濟島松未浦前洋日沒

初七日 曉頭一時發船 指向賊船留泊之天城加德 午時至玉浦前洋 斥候將蛇渡僉使金浣 呂島權管金仁英等 放神機報變 知有賊船 更飭諸將勿令妄動 靜重如山事 傳令後 同浦洋中 整列齊進則倭船五十餘艘 分泊玉浦船滄 大船四面圍張 畫綵雜文 帳邊列揷竹竿 亂懸紅白小旗 旗形如幡如幢 皆用文綃 隨風飄轉 望眼眩擾 賊徒入同浦焚蕩 烟氣遍山 顧我軍船 顚仆蒼皇 各奔乘船 呼噪促櫓 不由中央 緣岸行舟 六隻先鋒遁出 臣所率諸將等 一心憤發 放盡死力 舟中吏士亦效其意 奮勵激切以死爲期 東西衝突放砲射矢急如風雷賊亦放丸射矢 及其力盡以其舟中所載之物 投水 不暇逢箭者 不知其數 游泳者亦不知其幾 一時潰散 攀上巖崖猶恐居後 左部將樂安郡守申浩 撞破倭船一隻斬頭 一級 船中所載劍甲冠服等物 皆如倭將之物 右部將寶城郡守金得光 撞破倭大船一隻 我國被擄人一名生擒 前部將興陽縣監裵興立 倭大船二隻 中部將光陽縣監魚泳潭 倭中船二隻小船二隻 中衛將防踏僉使李純信 倭大船一隻右斥候將蛇渡僉使金浣 倭大船一隻 右部騎戰統將 鎭軍官保人李春 倭中船一隻 遊軍將鉢浦假將臣軍官訓練奉事羅大用 倭大船二隻 後部將鹿島萬戶鄭運 倭中船二隻 左斥候將呂島權管金仁英 倭中船一隻 左部騎戰統將順天代將前奉事兪熾 倭大船一隻 我國被擄兒女一名生生擒蛇擄後將臣軍官及第崔大成 倭大船一隻斬退將臣軍官及第裵應祿 倭大船一隻 突擊將臣軍官李彦良 倭大船一隻 臣帶率軍官訓練奉事卞存緖 前奉事金孝誠等同力 倭大船一隻 慶尙諸將等 倭船五隻 我國被擄人三名 生擒倭船二十六隻 銃筒放中撞破焚滅 一海大洋 烟焰漲天 登山賊徒 竄伏林藪 無不摧心 臣欲抄諸船射夫勇銳者 追捕登山之賊 臣濟一島山形險峻 樹木鬱茂 人不能容足 方在賊窟 船無射夫亦恐有繞後之患 日亦向暮 未遂其志 退駐永登浦前洋 令軍卒樵汲 以爲經夜之計

<李忠武公全書卷三 狀啓二，玉浦破倭兵狀>

凡倭人紅黑鐵甲 各色鐵頭 口角縱橫 至如鐵廣大金冠 金羽 金鋪羽衣 羽箒 螺角等 奇形異狀 極侈極奢 如鬼如獸 見之者 莫驚神 毁城諸機 如大鐵釘 沙索等物 亦甚兇恠 <同上>

旣而舜臣率四十餘艘 會于閑山島 與均至玉浦 前洋有戰艦三十餘艘 四面圍帳 竪白紅旗碇住洋中 分其游兵 登岸燒閭舍 烟焰遍山 賊見我師猝至 一時登船 促櫓而出 與舜臣遇於洋中 舜臣等督諸軍 進迫賊船火筒火箭 因齊齊發 焚其船二十六艘 海波盡赤 賊敗退而鄭運中丸死 於是我軍鳴金收軍 約以明日更戰 適

有自西方來者 傳言 車駕西幸 於是各歸本鎭 仍以捷上聞行在 百官引領相賀 陞舜臣嘉善大夫以褒之<大東野乘卷七(四六一面), 再造藩邦志二>

赴嶺南 至固城時 倭船五十餘艘屯于玉浦 李公率諸船進戰 左右將士畏而不敢逼 公(鄭運)居後部 見我師怯 遂奮然鼓行出 其前櫓者小怠 拔劍親督 直衝賊船 於是諸將亦 不敢後俱進力戰 賊不能支 棄船登岸而走 遂乘勝前進 遇賊輒破之 破則必燒其船 復整兵

<鄭忠壯公實記 卷一>

壬辰夏日本關白平秀吉 傾國入寇 連陷釜山東萊等城 分道西上聲言直犯中原 公會諸將計事 鹿島萬戶鄭運及公軍官宋希立 奮願以死自效 辭語慷慨 公大悅 以五月初四日 領水軍下海 慶尙右水使元均馳書與公約會于閑山島 時公有戰船八十餘艘 與均至玉浦前洋 有賊船三十餘艘 四面圍帳 竪紅白旗 碇住洋中 分餘兵登岸燒閭舍 烟焰遍山 賊見我師 猝至一時登船 促櫓出陣 公遇於洋中 督諸軍焚賊船二十六艘 約以明日決戰 有人從西來者傳言 主上西巡京城不守 諸將各還本鎭 時上在義州 南路阻遏聲聞不通 捷上行在 百官引領相賀 遂進秩爲嘉善大夫 <李恒福 白沙集卷之二十一>

全羅水軍節度使李舜臣赴援慶尙道 大敗倭兵于巨濟之前洋 倭兵之渡海也 慶尙右水使元均 知勢不敵 悉沈戰艦戰具 散水軍萬餘人 獨與玉浦萬戶李雲龍永登浦萬戶禹致績 棲泊于南海縣前 欲尋陸避賊 雲龍抗言曰 使君受國重寄 義當死於封內 此處乃兩湖咽喉 失此處則兩湖危矣 今吾衆雖散 猶可保聚湖南水軍可請來援也 均從其計 遣栗浦萬戶李英男詣舜臣請援 舜臣方聚諸浦舟師于前洋 欲待寇至而戰聞英男言諸將多以爲我守 我疆且不足何暇赴他道耶 惟鹿島萬戶鄭運軍官宋希立慷慨涕泣 勸舜臣進擊 以爲討賊無彼此道 先挫賊鋒則 本道亦可保也 舜臣大悅 彥陽縣監魚泳潭自請爲水路嚮導居前 遂會均於巨濟前洋 均使雲龍致績爲先鋒 到玉浦 遇倭船三十隻 進擊大破之 餘賊登陸而走 盡焚其船

<宣廟寶鑑卷之八>

十二, 合浦 海戰(壬辰年五月七日)

申時(壬辰五月七日) 不遠海中 又倭大船五隻過去 斥候將報變故領諸將追逐 至熊川地合浦前洋 倭賊等 棄船登陸 蛇渡僉使金浣 倭大船一隻 防踏僉使 李純信倭大船一隻 光陽縣監魚泳潭 倭大船一隻 部統屬防踏謫居 前僉使 李應華 倭小船一隻 軍官奉事卞存緖宋希立 金孝誠 李渫等 同力射矢 倭大船一隻 無遺撞破焚滅 乘夜促櫓 至昌原地藍浦前洋 結陣經夜

<李忠武公全書卷三 狀啓二>

十三, 赤珍浦 海戰(壬辰年五月八日)

初八日(壬辰五月) 早朝 聞鎭海地古里梁 倭船留泊之奇 即令發船 內外島嶼 挾攻搜討 過楮島至固城境 赤珍浦 倭大中船幷十三隻 海口列泊 倭人 浦串閭閻焚蕩之後 望我兵威 畏怯登山 樂安郡守 其部統屬 順天代將兪𣴥 同力 倭大船一隻 同部統將 郡居及第朴永男 保人金鳳壽等 同力倭大船一隻 寶城郡守 倭大船一隻 防踏僉使 倭大船一隻 蛇渡僉使 倭大船一隻 鹿島萬戶 倭大船一隻 部統將謫居前奉事朱夢龍 倭中船一隻 臣帶率軍官前奉事李渫 宋希立等同力 倭大船二隻 軍官定虜衛 李鳳壽 倭大船一隻 軍官別侍衛宋漢連 倭中船一隻 銃筒放中 撞破焚滅 令士卒朝食休憩 赤珍浦近處居向化人 李信同稱號者 望見臣等舟師 自山頂負其兒子 呼泣以進 以小船載來 臣親問賊徒所爲則 倭賊等昨日到此浦口 閭閻所掠財物 牛馬駄去 分載其船 夜初更 泛舟中流 屠牛飮酒 唱歌吹笛 達曙不止 暗聽其曲調則 皆是我國之音 今日早朝 爲半守船 半餘下陸 向固城矣 老母妻子見賊相失 罔知所向 哀怨泣訴 憐其情狀 慮其被擄 誘之以率往之意則 以其母其妻尋 見之故 不肯從之 一行將士及聞此言 尤極痛惋 相顧勵氣 同心戮力 直向天城加德釜山等處 殲滅其船計料而賊船留泊

等地 形勢狹淺 板屋大船 容戰甚難 本道右水使 李億祺 未及馳來 獨赴賊中 勢甚孤危 與元均相對畫計 別得奇策 擬雪國家之恥 本道都事崔鐵堅牒呈 慮外忽到 始知蒼駕移蹕 關西之奇 驚痛罔極 相携終日 五內焚裂 聲淚俱發勢不得己 各自回棹 初九日午時 率諸船無事還營 仍飭諸將 益勵舟楫 海口待變 開諭罷陣　＜李忠武公全書卷三 狀啓二 玉浦破倭兵狀＞

十四, 臨津江 戰鬪(壬辰五月十七日)

時李陽元李鎰申恪金友皐等在大灘　金命元韓應寅權徵申硈李薦李蓍劉克良邊璣等　在臨津命元部勒諸軍 列守江灘 歛江中舡隻 悉在北岸 賊衆結陣于南岸 無船可渡 日出游兵 循江挑戰 我軍不應 相持十餘日 終不能渡 一日賊焚江上廬幕 撤帷帳載軍器 佯爲退屯之計 以誘我軍 申硈 素輕銳無謀 以爲實遁 欲渡江追襲 京畿監司權徵與硈意合 約以十八日會戰 或曰 我軍雖多 擧皆疲弱 所恃者唯江邊土兵 遠來罷弊 若緩數日 待其休息而擧事則可以取勝 應寅以爲逗留 斬數人 命元以應寅新自行在來而且有勿受命元帥節制之命 故雖知其不可 而不敢言…中略…十七日乘夜渡軍 左衛將李薦遇賊於上流江岸 急與交戰敗績 劉克良亦遇伏於山後 軍皆奔潰…以下略…

＜申靈撰 再造藩邦志一＞

時咸鏡北道兵馬節度使申硈遞任而歸 中路聞變 追至所在上謁 仍以硈爲防禦使 留屯臨津

＜同上＞

守禦使申硈等襲賊于臨津 兵敗死 賊遂渡江 前水使劉克良死之 初金命元率諸軍防守十餘日 朝廷又以韓應寅爲諸道都巡察使 帥平安道江邊兵三千 赴臨津 賊藏兵山谷 示虛以誘之 硈欲渡江躡賊 克良以元帥別將 在軍固諫之 硈不聽 命元亦言其不可而硈不從 十七日 硈率克良等 渡江躡賊而爲賊所掩 我師敗北 賊奮刀亂斫 爭赴水 硈與從事官具鳳翔等皆死 克良身不離次獨戰力竭而死之 諸軍望見大潰 賊遂乘勝西下(硈砬之弟盖朝廷倚硈爲重使之乘便 進兵不受元帥節制故至於敗, 鳳翔於是日欲觀光從渡 命元止之 鳳翔極以硈等用兵爲快 固請從行 亦死於是云)　＜春坡堂日月錄卷之八＞

初命元擺布諸將 申硈劉克良李蓍李薦邊璣等扼守臨津諸灘 防備漸完 賊兵到南岸 相持八九日 不能渡 一日賊焚廬幕爲退遁狀 以誘我申硈以爲賊實退遁 欲渡江追躡 劉克良年老習兵 力言不宜輕擧 硈欲斬之 克良曰 吾結髮從軍 豈以避死爲心 所以云云者 恐誤國事耳 憤憤而出 率其屬先渡 遇賊邏騎數人斬之 硈軍畢渡 賊先伏兵於山後 依山整陣不動 硈進陣以逼之則 賊一時俱起 丸劍交接 諸軍遂潰 克良呼硈欲收陣而退 硈不應遂死 克良下馬地坐曰 此吾死所也 彎弓射賊 矢盡而死 軍士奔至江岸 賊從後斫殺 或延頸受刄 餘皆自投于江諸守灘軍皆散 命元應寅退詣行在 賊遂渡江而西　＜宣廟寶鑑卷之八＞

又以副元帥從申硈於臨津 時體察使金公命元守江灘 歛船艤北岸賊不得渡 日出兵挑戰 我師不應 相持十餘日 賊乃焚廬幕撤帷帳 載器械爲退遁狀 硈輕銳無謀 見其兵少 欲渡江襲之 京畿監司權徵與硈意合 刻日會戰 或曰我衆雖多 皆疲弱 所恃者惟江邊土兵 今遠來罷弊 若休息數日 勝之必矣 巡使韓應寅怒其沮軍情 斬以徇 金公以韓公新承命不受體察節制 故不敢言 公老將也 習兵事 以爲賊之羸誘我也力言不可 硈欲斬之 公憤曰逗留兵家大戮也 吾結髮從軍 豈敢避死所 不欲輕進者 恐誤國事耳 奮然而出 及硈乘船 公曰 大將渡 我何敢後率其屬隨之 六月十七日乘夜渡 左衛將李薦遇賊於上流急與之戰敗績 公亦遇伏於山後 遂下馬踞軺床曰 此吾死地也 麾兵力戰 手彎弓射賊 爲賊所害 硈狼狽還騎馬渡江溺死 賊遂渡臨津 上聞公死 敎曰劉某力戰死陣上 其忠義傑然 命贈兵曹參判 諡武毅 遣禮官招其魂 葬於□山赤巖 後與宋東萊象賢金淮陽鍊光 同享松都之崇節祠

＜三忠錄卷三 附錄傳 豐壞趙鎭寬撰＞

初命元在臨津北 分付諸軍 列守江灘 歛江中

船隻 悉在北岸 賊結陣于臨津南 無船可渡 但出遊兵 隔江交戰 相持十餘日 賊終不能渡 一日賊焚江上廬幕 撤帷帳 載軍器 爲退遁狀 以誘我軍 申硈素輕鋭無謀 以爲賊實遁 欲渡江追躡 京畿監司權徵 與硈合 命元不能禁 是日應寅亦至(遣知事韓應寅 帥平安道江邊精兵三千人 赴臨津擊賊 令勿受金命元節制) 將悉衆追賊 應寅所將 皆江邊健兒 與北虜近 備諳戰陣形勢 告應寅曰 軍士遠來罷弊 尙未食 器械未整 後軍亦未齊到 且賊之情僞 未可知 願少休 明日觀勢進戰 應寅以爲逗留 斬數人 命元以應寅 新自朝廷來 且令勿受己節制 故雖知不可而不敢言 別將劉克良 年老習兵 力言不宜輕進 申硈欲斬之 克良曰 吾結髮從軍 豈以避死爲心 所云云者 恐誤國事耳 憤憤而去 率其屬先渡 我軍旣入險地 賊果伏精兵於山後 一時俱起 諸軍奔潰 克良下馬坐地曰 此吾死所也 彎弓射賊數人 爲賊所害 申硈亦死 軍士奔至江岸不得渡 從巖石上自投入江 如風中亂葉 其未及投江者 賊從後奮長刀斫之 皆匍匐受刃 無敢拒者 命元應寅 在江北望之喪氣 商山君朴忠侃 適在軍中 騎馬先走 衆望之以爲命元 皆呼曰元帥去矣 諸守灘軍 應聲皆散 命元應寅 還行在 朝廷不問 京畿監司權徵 入加平郡避亂 賊遂乘勝西下 不可復止矣 元帥金命元及李薲等 結陣臨津 晝夜待變 賊兵不能渡江 一日大船三十餘隻 不意直渡 金命元等一時敗走 賊兵乘勝 直擣松都

<龍蛇日記 京城消息條>

二十七日 賊於臨津下流 乘小船以渡(一作有若直渡之狀以試我軍) 副元帥李薲不發一矢先遁 上下諸軍一時大潰 <朴東亮의 否泰小錄>

五月十八日 午後聞 我軍分三道 接戰敗衄先鋒將劉克良 申硈 邊璣 從事官洪鳳祥等 皆死軍人溺于臨津者 不可勝數 流屍塞江而下云

<李廷馣의 行年日記>

大灘 在州北七十四里 源有二 一出永平縣 白雲山 一出江原道鐵原府砌川 合流經漣川永平西南入于臨津 <東國輿地勝覽一 楊州山川條>

李陽元以檢察使領兵 留陣達(漣?)川大灘待變而聞賊入開城 即時棄陣 遁走江原 不知所去 賊由鐵原平康至淮陽歙谷敗退

<龍蛇日錄京城消息條>

李陽元聞賊已渡臨津 遂潰向北道

<否泰小錄上 五月二十七日條>

今朝臨津江之約變 鮮軍渡江而圍吾水上之陣 坡州之軍救水上之陣 奮擊破鮮軍 在洛諸將連旌旗 馳馬赴〔臨〕津江 去洛三里許而聞鮮軍敗走 即回旗歸洛 <僧天荊의 西征日記>

時(五月初八日) 朝廷衆議皆以爲 金命元申硈雖在臨津而兵勢甚孤 不如又差文武將官 協同防守 遂以韓應寅爲諸道都巡御史 李薦爲防禦使

初九日 李誠中來言 初三日賊入京城 留都李陽元不知去向 遂以兪泓爲右議政都體察使 授兵三千人發行

初十日 兪泓承命 逾日未有登道之色 上召問卿至今不發何也 泓曰脚底有腫以此不得行矣 大司憲李憲國大聲叱曰 公無才無德 旣承政丞恩至大矣 恇怯不行 乃曰脚底腫正如當筵之妓托足疾而不歌者也 公何敢如是 有若相毆者 上亦哂之曰 先送韓應寅可也 泓竟不行

十一日 韓應寅李薦 領兵五千辭朝 上臨行賜酒 慰勉而送

十二日 都元帥金命元啓曰 臣率李薲劉克良以下諸將二十餘人 軍士千餘人 把住臨津 設伏碧蹄等處 多斬獲 李陽元亦率李鎰申恪以下諸將十餘人 軍士五千餘人 駐兵大灘方圖進取 上下聞之 莫不懽喜 皆以爲不久當回鑾

十三日 京畿監司權徵馳啓曰 此賊孤軍深入 足腫氣疲 其勢已挫 請勅元帥 乘此機急擊勿失時諸將官皆言 賊勢已摧不得行步 朝廷信其說連降旨金命元 責其玩寇不進之狀 以李聖任爲巡察副使 領江邊土兵之還至者 往赴軍前 叅贊應寅軍務 先是聖任聞賊變 自請於朝 親往嶺南 募兵討賊 路塞不達而還 又請於朝 願助應寅討賊遣之

十四日 上諭韓應寅曰 今賊勢已摧 而都元帥

金命元 久無所爲 卿可刻日討賊 不可坐受命元節制 以誤軍機 慶尙左道兵使李珏 自本道脫身來現于臨津軍中 朝廷遣宣傳官 斬之以徇
十六日*臨津岸上列營之賊 一時燒營有撤去之狀 京畿監司權徵馳啓曰 此賊勢孤力疲 顯有燒屯遁還之狀 請勅諸將追擊之 朝廷亦以爲然 遂諭應寅等促追之
十八日 應寅盡其軍渡江 申硈統左軍 先薄賊壘 樵採之賊 望見奔回 金命元以下 遙見其狀 皆以我軍乘勝而進 檢察使朴忠侃及督陣官洪鳳祥以爲 我師必勝 懽呼踊躍 鳳祥則急渡江觀兵 已而賊七八赤身舞劍而出 直衝我陣 左右軍一時大潰 申硈以下 四散奔走 盡投江而死 鳳祥亦死 時命元應寅忠侃幷着青段衣 忠侃見事不成 遂騎馬去鞍而走 江上之軍見其走一時呼曰 元帥走矣遂潰去 命元應寅親出呼曰我在此我在此 始得還集 軍士餘者僅千人
十九日 報至 上下喪膽無復可望 遂徵江邊士兵未發者 盡赴軍 前僉使朴錫命有勇力 承命將赴戰 朝廷問擒賊之策 錫命曰我一箭可斃賊五六 一部箭可殺賊百餘 但有慰心之事 然後可盡吾勇力也 朝廷知其必無實效 且欲陞堂上 遂超授折衝以送之 朝廷以爲 賊中形勢邈無得聞亦無策應 遂令宣傳官李好誼金繼賢 入京城 探視而來 金命元啓曰 申恪違棄主將 招之不來朝廷以爲不可不誅 遂遣宣傳官 午後申恪戰於獮蹾嶺 斬賊七十餘級 捷書至 上命宥之 命至 頭已懸矣 南道兵使李渾 聞賊迫京城 遂起兵勤王 到漣川與李陽元合兵 具啓曲折 朝廷遣人嘉奬之 二十七日 賊於臨津下流 乘小船 若直渡之狀 以試我軍 副元帥李薲 不發一矢先遁上下諸軍一時大潰 李陽元等 聞賊已渡臨津 遂潰向北道 時朝廷以臨津之軍 足以抵當 不復設防 至是平安監司宋言愼兵使李潤德 面無人色 俱失精魄 着繩鞋以行

<朴東亮著 寄齋史草下壬辰日錄一>

初二日(六月) 都元帥金命元 巡察使韓應寅 只率軍官五六千來 李聖任李薦逃 上召對命元謂曰 今日夫復奈何 命元曰 屢敗之將 免誅足矣然成敗天也 臣則有死而已 上曰將帥之言也朝廷以臨津失守 皆應寅之罪 遂使防守江南諸處 使之立功自效 <同上 壬辰日錄二>

劉防禦克良 陣守竹嶺 敵陷忠州後 從間道 到稷山 願聽我節制 令仍守其地 未見回報 經向臨津敗死 其不守湖境則非矣 而死於國事 極可矜惜 <尹國馨著 聞韶漫錄>

大駕住在箕城時 金命元爲都元帥 領兵陣于臨津 以遏賊衝 六月初 間行在所以不克進攻京賊 命韓應寅爲都巡察使 來臨津督戰 未幾賊現形於臨津東北岸 遣將交戰大敗 元帥亦奔潰賊遂向西路 是月旬後 大駕移御龍灣

<尹國馨撰 甲辰漫錄>

劉公克良之先 吾里鄭某之失婢云 劉旣登第 來詣鄭 鄭不認延之入室 劉俯伏不敢上坐 執厮役之禮 鄭恠問然後始知賢而爲隱之 劉雖位高猶以舊主事鄭 入里門必步趨 人皆賢之 以此劉名益著 位至閫帥卒死於國 可謂忠矣

<金時讓撰 涪溪記聞>

登武科到門之日 其母哭 問其故 曰余本私婢誤碎玉盃 懼罪而逃遇汝父生汝 吾聞私賤所生 國法削科云 故哭 克良聞之大驚 即上京尋主家陳其情願削科爲奴 其主義之 爲給放文券 克良猶以主稱之 宰邑帥閫饋遺不絶 每至主家 自里門步進 所贈之物手自奉納 官至副元帥 壬辰之亂 從申硈守臨津 硈欲渡江背水擊賊 克良止之不聽 克良曰大將已渡 我何敢後 隨渡而去賊兵大至 硈馳還騎渡未半而沒 克良踞鞱床不動 麾兵力戰死之 贈兵曹參判 諡武毅 遺址在北部禮賓里(開城府) <中京誌八>

十五, 泗川 海戰(壬辰年五月二十九日)

五月二十七日 到慶尙右水使元均關內賊船十餘艘 已迫泗川昆陽等地 水使移舟南海境露梁云 若待初三日約會之日而發行則 慮有其間引類鴟張之患 臣軍官前萬戶尹思恭 留鎭將差定舟師助防將丁傑 以左道各鎭浦節制無人 留防興陽縣 策應待變事申飭

五月二十九日 臣獨領戰船二十三隻 與虞侯 李夢龜 率領 先期發行李億祺處 具由移文後 直到露梁洋中則 元均只率三隻戰船 移在河東船滄 見臣之舟師 促櫓來會 詳問賊蹤矣 不遠洋中 倭船一隻 出自昆陽 逼向泗川 緣岸行舟 先鋒諸將 促櫓窮逐 前部將防踏僉使李純信 南海縣令 奇孝謹等 追捕其船 倭人下陸 撞破焚船後

望見泗川船滄 則一山逶迤七八里許 形勢峻嶮處 賊倭無慮四百餘名 長蛇結陣 亂挿紅白旗麾駭眩人目 陣內最高山巓 別設帳幕 往來紛然似聽指揮 倭船狀如樓閣者十二隻 列泊岸下 結陣之倭 俯視揮劍 揭示陵轢 諸船齊進其下 欲爲發射則矢力未及 欲焚其船則潮水已退 板屋大船 容易直衝不得 加之 以彼高我低地形不利日又向暮

臣與諸將約曰 彼敵極有慢侮之態 我若佯退而去則 必乘船與我相戰 我當引出中流合擊 此甚良策 申約後回船

未一里 賊倭二百餘名 自陣下來 爲半守船 半餘屯聚岸下 放砲踊躍 若不與戰則反示弱 汐水將至 漸可容船

故臣嘗慮島夷之變 別制龜船 船前設龍頭口 放大砲 背植鐵尖 內能窺外 外不能窺內 雖賊船數百之中 可以突入放砲 今行以爲突擊 將所騎而先令龜船 突進賊船中 先放天地玄黃各樣銃筒則山上岸下 守船三屯之倭 亦放鐵丸 亂發如雨 間或我國人相雜發射 臣益增憤勵 促櫓先登直擣其船則諸將 一時雲集 鐵丸 長片箭皮翎箭 火箭 天地字銃筒等 發如風雨 各盡其力 聲振天地 重傷顚仆者 扶曳奔走者 不知其數 仍以退屯高陵 無敢有進前之意 中衛將順天府使權俊中部將光陽縣監魚泳潭 前部將防踏僉使李純信 後部將興陽縣監裵興立 左斥候將鹿島萬戶鄭運 右斥候將蛇渡僉使金浣 左別都將虞侯李夢龜 右別都將呂島權管金仁英 捍後將臣軍官前權管賈安策 及第宋晟 斬退將前僉使李應華等 迭相出入 倭船全數 撞破焚滅 金浣搜得我國兒女一名 李應華斬倭一級倭人等 遠立觀望 叫呼頓足 大聲痛哭 臣欲抄諸船勇士進斬計料而林藪蓊密 日且奄暮 反恐被害 勿令搜斬故留小船數隻 以爲引出殲捕之計 乘夜回棹 移至泗川地毛自郎浦結陣經夜接戰時 賊之鐵丸 中臣之肩貫于背而不至重傷臣軍官 奉事羅大用 亦中鐵丸 前奉事李渫 逢箭幷不致死

六月初一日 曉頭 慶尙右水使元均 謂臣曰 昨日相戰時 故留賊船二隻 遁騎與否探審後 兼爲搜斬逢箭致死之倭 元均敗軍之後 無軍將措制不得 故交戰各處 逢箭中丸倭人 次知搜覔斬頭矣 同日辰時 徑還言內 賊倭由陸遠遁 只焚所留之船 搜斬死倭三頭 其餘林莽鬱密 窮探不得云 午時發船 固城地蛇梁洋中止到 休兵勞軍 結陣經夜

<李忠武公全書卷三 狀啓二唐浦破倭兵狀>

二十九日(五月)戊戌晴 右水使(李億祺)不來 獨率諸將 曉直到露梁則慶尙右水使(元均) 來會 問賊所泊處 即賊在泗川船滄云 故直至其處 倭人已爲下陸 結陣峰上 列泊其船于峰下 拒戰甚固 余督令諸將一時馳突 射矢如雨 放各樣銃筒 亂如風雷 賊徒畏退 逢箭者 不知幾百數多斬倭頭 焚滅十三隻 軍官羅大用中丸 余亦左肩上中丸 貫于背 不至重傷 六月初一日 己亥晴 蛇梁後洋結陣經夜 <亂中日記>

廿九日公(李舜臣)夢白頭翁 蹴公曰 起起賊來矣 公起即領諸將 進至露梁則 賊果來矣 見公退走 追至泗川 燒破十三隻 賊被箭溺水者百數 是日公亦中丸 貫左肩至于背 流血至踵 公猶不釋弓矢 終日督戰 戰罷 使以刀尖 割肉出丸 深入數寸 軍中始知之 莫不驚駭而公談笑自若 <李忠武公全書卷三>

復戰于露梁津 燒賊船十三隻 賊皆溺死 是戰也 舜臣左肩中丸 猶終日督戰 戰罷始使人以刀尖挑出 軍中始知之 先是舜臣大修戰備 自以意造龜船 其制船上鋪板如龜背 上有十字細路容我人通行 餘皆列挿刀錐 前作龍頭 口爲銃穴 後爲龜尾 尾下有銃穴 左右各有銃穴六 藏兵其底 四面發砲 進退縱橫 捷速如飛 戰時覆

以編茅 使錐刀不露 賊超登則 搯于錐刀 掩圍則火銃齊發 橫行賊船中 我軍無所損而所向披靡 以此常勝 朝廷見舜臣捷報 賞加嘉善

<宣廟寶鑑卷之八>

公夢見白頭老翁 蹴公起曰賊來矣 公蹶然驚起 促領戰艦二十三艘 會元均于露梁則賊果來矣 初一交戰焚破一船 追至泗川洋中 遙見海上一山 有賊百餘長蛇而陣 其下有賊船十一艘 緣岸列泊 時早潮已退 港口水淺海 舟不得進 公曰我若佯退賊必乘船追我 今以計引出洋中 我以巨艦合擊 蔑不勝矣 遂鳴螺回船 行未一里 賊果乘船逐之 公嘗在本營 日以倭寇爲憂 創智造艦另出新制 上設板蓋 形如伏龜 至是公令龜船突進先嘗賊陣焚其船十二艘 餘賊遠望頓足叫呼 方戰賊丸中公左肩 貫徹至背 公猶執弓注矢督戰不已 及戰罷公令人用刀尖挑出 一軍始知公中丸 莫不愕然

<李恒福白沙集卷之二十一>

一日舜臣夢白頭老翁 蹴舜臣起曰 賊來矣 舜臣蹶然而起 促領戰艦二十三艘 會元均于露梁 賊果來襲舜臣之船 舜臣鳴鼓交戰 焚破一船 追至泗川洋中 遙見海上一山 有賊百餘 長陣而陣 其下有十一艘 緣岸列泊 是時早潮已退 港口水淺 海舟不得進 舜臣曰 此地海狹水淺 難於回旋 不如佯退誘賊 至海濶處 我以巨艦回擊則可以取勝矣 均乘憤欲直前搏戰 舜臣曰 公不知兵 如此必敗 遂鳴螺揮旗 引退而走 行未一里 賊乘船逐之 旣到隘口 舜臣鳴鼓一聲 諸船一齊回棹 擺列於海中 正與賊船相對 纔數十步 舜臣嘗在本營 日以倭寇爲憂 創智造艦另出新制 上設板蓋 形如伏龜 櫓者在內 如隔女墻 左右前後 多載火砲 縱橫出入 如梭如鳧 至是舜臣令龜船突進 先嘗賊陣 焚其船十二艘 餘賊遠望 頓足叫呼 方戰賊丸中舜臣肩 貫徹至背 舜臣猶執弓矢 督戰不已 及戰罷 乃令人用刀尖 挑出鐵丸 一軍始知 莫不愕然

<大東野乘卷七（四六一面），再造藩邦志二>

十六，蟹踰嶺 戰鬪（壬辰年五月中旬）

恪（副元帥申恪） 初從金命元爲副 漢江之潰 恪不從命元 隨李陽元于楊州 時咸鏡南道兵使李渾兵適至 恪合兵遇賊自京城出散掠閭閻 邀擊破之（斬首六十餘級） 自倭入我國 始有此捷 人皆踊躍 金命元在臨津 狀啓恪擅自他適 不從號令 右相兪泓 遽請誅之 宣傳官旣行而捷報至 朝廷使人追止不及 恪雖武人 而素淸愼 嘗爲延安府使 修城浚壕 多備軍器 後李廷馣守延安全城 人爲恪之功 死非其罪 且有九十歲老母 聞者莫不痛之 <懲毖錄一，再造藩邦志一>

副元帥申恪誅 漢江之潰 恪隨李陽元於楊州 南兵使李渾兵適至 恪合勢斬賊數十餘級 金命元啓恪擅自他適不從號令 大臣請誅 宣傳官旣行而恪捷報至 追止不及 <春坡堂日月錄卷之八>

副元帥申恪與賊戰于楊州蟹峴敗之 斬首七十餘級遣宣傳官即所在斬之 恪初從金命元防漢江命元軍潰 恪從李陽元于楊州 收拾散兵適會咸鏡南道兵馳使李渾入援 恪合軍成陣遇敵自京城出散掠閭閻 邀擊破之 自倭犯我國始有此捷遠近聞之聳動 陽元時在山谷間狀報阻絶 命元在臨津以恪託從陽元而跳去狀啓請罪 右議政兪泓 遽請斬之 宣傳官旣行而捷書至 上踵遣宣傳官止之而不及 恪雖武人而淸愼嘗爲延安府使修城浚濠多備軍器 後李廷馣守延安全城 人以爲恪之功 死非其罪 人皆嗟惜

<朝野僉載卷二十七>

第３節　第１期 ６月作戰

十七，唐浦 海戰（壬辰年六月二日）

初二日辰時 聞賊船駐泊唐浦船滄 巳時直到同處則倭賊無慮三百餘名 爲半入城焚蕩 又多城外據險 俱放鐵丸 倭船大如板屋者九隻 中小船並十二隻 分泊船滄 中層樓一大船上 斗起高可三四丈 外垂紅羅帳 帳之四面 大書黃字中有倭將 前立紅蓋 略無畏怖 故先使龜船直衝層樓船下 以龍口仰放玄字鐵丸 又放天地字大將軍箭 撞破其船 在後諸船 交發丸箭 中衛將權俊 突入射中倭將者 應絃倒落 蛇渡僉使金浣

軍官與陽保人陳武晟　斬頭賊徒畏遁中丸逢箭者 浪藉顚仆 斬首六級 盡焚其船後 諸船勇士將欲下陸 窮追搜斬之際 又倭大船二十餘隻 多率小船 自巨濟來泊事 探望船進告而地形似窄不合交鋒 將邀擊外洋 促櫓出海則賊船相距五里許 望見臣等舟師 遁避無暇 諸船追逐外海日已昏暮 接戰不得 晋州境昌信島 駐泊經夜 同日唐浦接戰時 虞侯李夢龜 於倭將軍 搜得金圖扇一柄 送于臣處而扇一面中央書曰 六月八日秀吉着名 右邊書羽柴筑前守五字 左邊書龜井流求守殿六字 藏于漆匣 必是平秀吉之於筑前守處 以爲符信之物 所非浦權管李英男 於倭將船 生擒蔚山私婢億代 巨濟兒女毛里等 而臣親問其億代招內　日不記十五餘日前　爲賊被擄 嫁從倭將 恒在一處 倭將身長過人 氣力強壯 年可三十　晝則高坐船上層樓　着黃錦衣頂金冠 夜則入房就宿 衾帳枕席 皆極奢侈 各船群倭 朝暮來謁 俛首聽命 如有違令 斬戮不饒 時或持酒來供 或笑或語而鴃舌之言 莫能解聽 但蔚山東萊全羅道等語則 一如我國之音 當日接戰時 倭將所坐層樓 箭丸交集 初中額上顏色自若 及其箭貫胸膛 失聲墜落云云 令之所斬倭將 必是筑前守 初三日曉頭 發向楸島傍近島嶼 挾攻搜討 并無賊蹤 仍而日暮 固城地古屯浦經夜 初四日早朝 巡屯唐浦前洋 令小船 候望賊船而巳時同浦居土兵 姜卓稱名人 避亂登山 遠望臣等 欣然來告曰 初二日唐浦接戰之 倭人等 多斬死倭之頭 同聚焚燒 仍向陸路路逢我人 無意殺害 痛哭而歸 同日唐浦外洋被逐倭船 今向巨濟云 故更與諸將 申明約束將欲發船 本道右水使李億祺 率戰船二十五隻來會于臣所駐之處 諸船將士 常慮孤弱而連戰方困之餘 得見援師 莫下踴躍 臣乃與李億祺討論破賊之策 仍以日暮 與之偕行 巨濟固城境鑿梁洋中 結陣經夜

<李忠武公全書卷三 狀啓二 唐浦破倭兵狀>

追至唐浦 又有賊船二十艘 列泊江岸 有一大船 上設層樓 外垂紅羅帳 有賊酋一人 金冠錦衣 指揮諸賊 舜臣令諸將促櫓直冲 順天府使權俊 自下仰射 正中其酋 賊應絃而倒 一軍稱慶 日暮回陣於蛇梁前洋 軍中夜驚 擾亂不止舜臣堅臥不起 良久使搖鈴 一軍乃定

<大東野乘卷七(四六二面), 再造藩邦志二>

舜臣自本營進陣于蛇梁 遇賊船于唐浦 賊將乘大艦坐層樓督戰 舜臣麾兵進擊 以篙箭叢射樓上將 倭先中箭墜水 遂掩擊大破之 旣而全羅右水使李億祺 盡以所領舟師來會

<宣廟寶鑑卷之八>

進至唐浦 又有賊船十二艘 分泊江岸 中有一大船 上設層樓 外垂紅羅帳 有賊酋一人 金冠錦衣 指揮諸賊 公令諸將 促櫓直衝 順天府使權俊 自下仰射 正中其酋賊 應弦而倒 一軍稱慶 日暮回陣於蛇梁前洋 軍中夜驚擾亂不止 公堅臥不起良久使人搖鈴 一軍乃定

<李恒福白沙集卷之二十一>

初二日 庚子晴 朝發直到唐浦前船滄則賊船二十餘隻列泊 回擢相戰 大船一隻 大如我國板屋船 船上粧樓高可二丈 閣下一倭將巍坐不動 以片箭及大中勝字銃筒 如雨亂射 一倭將中箭墜落 諸倭一時驚散 諸將卒一時攢射 逢箭顚仆者 不知其數 盡殲無餘 俄而倭大船二十餘 自釜山列海入來 望見我師 奔入介島

<亂中日記>

十八, 第1次 唐項浦 海戰

(宣祖二十五年壬辰六月初五日)

初三日(六月)辛丑晴 朝更勵諸將 挾攻介島則已爲奔潰 四無餘類 欲住固城等地則兵勢孤弱憤鬱留宿

初四日 壬寅晴 懸望右水使(李億祺)之來 日午右水使領諸將 懸帆而來 一陣將士 無不踴躍 合兵申明約束 宿鑿浦梁

初五日 癸卯 朝發到固城唐浦則 倭大船一隻如板屋船 船上樓閣巍巍 倭將坐其上 中船十二隻 小船二十隻 一時撞破 逢箭死者不知其數 斬倭將七級 餘倭下陸而走 然餘數甚少 軍勢大振

<亂中日記>

初五日 朝霧四塞 至晩乃捲 欲討巨濟逼迫之賊 懸帆出海 唐浦被逐倭船由巨濟移泊固城地唐項浦云 故促到同浦前洋……中略……問唐項浦海口形勢則 遠可十里 廣可容舟 故先使數三船 往審地理而賊若追逐則 佯退引出事嚴飭以送

臣等舟師 潛形隱迹 以爲狙擊之計而所送戰船旋出海口 放神機報變促赴 留戰船四隻於浦口使之伏兵後促櫓以入則兩邊山麓 挾江二十餘里其間地形不甚狹窄 可與容戰之地而諸船魚貫齊進 首尾連接 至召所江西岸則 黑質倭船 大如板屋者九隻 中船四隻 小船十三隻 依岸列泊其中最大一船 船頭設三層樓閣 丹青粉壁 有若佛殿 前立青蓋 閣下垂黑染綃帳 帳面大畵白花紋 帳內倭人無數列立 又倭大船四隻 出自內浦 聚于一處 皆揷黑幡而各幡白書南無妙法蓮華經七字及見臣等兵威 亂放鐵丸 如霰如雹 諸船圍立 先使龜船突入 放天地字銃筒 貫徹大船 諸船迭相出入 銃筒箭丸發如風雷 良久接戰 益振威武

臣之妄意以爲 彼若勢窮 乘船登陸 恐未盡殲而我當佯示退兵 解圍却陣則 彼必乘隙移舟而左右尾擊 庶可盡殲 專傳令後 退開一面則層閣之船 果由開路而出 黑染布帆 兩竹俱懸他船翼挾層閣 中流促櫓 故諸船四面圍匝挾擊 猶亟突擊 將所騎龜船 又衝層閣之下 仰放銃筒 撞破其閣 諸船又以火箭 射中其紗帳 與布帆則烈焰邊熾閣下一 所坐倭將 中箭墜落 他倭船四隻 乘此蒼皇之隙 懸帆北走

臣與李億祺等所率諸將 分運接戰 又盡圍抱許多舟中賊徒 或投水不暇 或攀緣岸下 或登山北走 戰士等持槍挾弓矢 各盡死力 追捕斬頭四十三級 倭船全數焚滅 後故留一船以開歸路日已曛 登陸之倭 未盡殲捕 乃與李億祺 乘昏還出海口

當日(六日)曉頭 移到唐項浦外口 俄有一倭船果自海口而出 僉使(防踏僉使李純信) 不意突擊則 一船所騎幾百餘名而我船先放地玄字銃筒 一邊長片箭 鐵丸 蒺藜砲 大發火等 連續射投 賊倭等奔遑罔措退遁 設計以要鉤金 牽出中洋 半餘投水沈死 其中 倭將約二十四五歲容貌健偉 服飾華麗 杖劍獨立 與其與黨八名指揮拒戰 終不畏忌 故僉使極力 射中杖劍者逢箭十餘度 後失聲墜水 即令斬頭 他倭八名軍官金成玉等同力射斬 當日(六日)辰時 焚船時 慶尙道右水使元均 南海縣令奇孝謹等追到同處 沈死之倭 巡覓拯出 斬頭多至五十餘級倭船之頭 別作凉房 房內帳幕皆極侈麗 傍有小櫃 內盛文書 取見則倭人三千四十餘名分軍記而各其列名下 著名塗血 必是歃血同盟之書件 記六軸 及甲胄 槍劍 弓弦 銃筒 豹皮 鞍甲等物 上使云 故臣親審其分軍件記 則著名血染之迹 果如所報之辭 其爲兇狀不可形言 倭則九級內 倭將頭 李純信 別標上使 倭人旗幟染色相殊 前日玉浦則赤旗 今日泗川則白旗唐浦則黃旗 唐項浦則黑旗 原其所自必分其衛部而然矣 歃血盟章 又致如是 曾懷叛侮之心 備設軍兵之狀 益加想焉 同日雨下雲暝 海程莫辨 移屯唐浦前洋 休撫戰士 夕向固城地 竹乙于場洋中 經夜

<李忠武公全書卷三 狀啓二, 唐浦破倭兵狀>

六月四日進至唐項前洋 全羅右水使李億祺 領戰船二十五艘來會 先是諸將常以孤軍深入爲憂 至是見億祺來無不增氣 翌日諸軍出外洋諸賊陣於唐項前浦 公先遣哨船 往探形勢 哨船纔出海口即放砲報變 諸軍一時促櫓 首尾連亘魚貫而進 至召所江 賊船二十六艘擺列港中中有一大船 上設三層板閣 外垂黑綃帶 前立青盖 遙見帳內隱隱有侍立之狀 知其爲頭酋戰未數合 公佯敗而退 層閣大船見公敗退 擧帆直出 諸軍挾擊 乘銳崩之 賊酋中箭而死 焚船百一餘艘 斬賊二百一十餘級 溺水死者甚衆事聞進階資憲大夫 <李恒福白沙集卷之二十一>

未幾又進唐項前洋 全羅右兵使李億祺 領戰船二十五艘來會 諸將方以孤軍深入爲憂 既得億祺之來 無不增氣 翌日諸軍出外洋 諸賊陣唐項前浦 舜臣先遣哨船 往探形勢 哨船纔出海口 即放報炮 諸軍一時促櫓 首尾連亘 魚貫而

進 至召所江 賊船二十六艘 擺列港中 中有大船 上設三層板閣 外垂黑緇帳 前立靑盖 遙見帳內 隱隱有侍立之狀 知其爲頭酋 戰未數合 舜臣佯敗而退 層閣大船 見我兵退走 擧帆直出 諸軍夾擊 乘銳崩之 賊酋中箭而死 焚船一百餘艘 斬賊一百餘級 溺水死者甚衆 事聞于行在 進舜臣資憲大夫 億祺嘉善大夫 有詩爲證曰

　鯨鯢出沒海之央　狂浪誰能一手障
　洒泣登舟天亦怒　中流擊楫日無光
　暫揮白羽三軍動　乍着金兜衆妖藏
　回首東韓飛將在　雄名千古汗靑芳

<再造藩邦志二>

遂偕至唐項浦 遇倭船大戰 又射殺船樓上賊將 取其首 摧破三十船 賊大敗登陸而散

<宣廟寶鑑卷之八>

十九，栗浦 海戰(壬辰年六月七日)

初七日(六月)乙巳晴 探賊船 朝到永登前洋聞賊船在栗浦 令伏兵船 指之則 賊船五隻 先知我師 奔走南大洋 諸船一時追及 蛇渡僉使金浣一隻全捕 虞候李夢龜一隻全捕 鹿島萬戶鄭運一隻全捕 合計 倭頭三十六級 初八日 丙午晴 與右水使留泊洋中

初九日 丁未晴 直到天城加德則 無一賊船 再三搜見 旋師還唐浦 經夜未曉 發船到彌助項前洋 與右水使話　<亂中日記>

初七日 早朝發船 至熊川地甑島洋中結陣而天城加德賊蹤探望船將鎭撫李荃 士兵吳水等 斬倭二級 巳時奔還 言內加德洋中三倭人 同騎一船 見我奔北 故極力追射 盡斬三級 內一級 慶尙右水使軍官名不知人 騎小船 威力強奪云 各別饋酒 即令還送于天城等處 午時到永登浦前洋則倭大船五隻 中船二隻 出自栗浦 適向釜山而諸船從逆風促櫓 相望五里許 追至栗浦外洋則賊倭等 船中卜物 盡投水中 虞候李夢龜 倭大船一隻 洋中全捕 斬頭七級 又一隻下陸焚滅 蛇渡僉使金浣倭大船一隻 洋中全捕斬首二十級 鹿島萬戶鄭運 倭大船一隻 洋中全捕 斬首九級 光陽縣監魚泳潭 加里浦僉使具思稷 同力 倭大船一隻下陸時 追捕焚滅 具思稷斬首二級 呂島權管金仁英 斬首一級 所非浦權管李英男 乘小船突入追射 斬首二級 其餘空船一隻 海中焚滅 倭人或斬或溺 殲盡無餘 諸船將士 心膽快然 因向加德天城 左道沒雲臺至 分兩邊挾攻搜討 賊徒移舟遠遁 並沒形影 初更到巨濟温川梁 松津浦經夜

初八日 昌原地馬山浦安骨浦薺浦熊川等處 賊蹤探見船定送而出陣昌原地甑島藍浦洋中　日夕望船還來 言內並無賊蹤云 故還到松珍浦經夜

初九日 早朝發船 到熊川前洋結陣 分遣小船加德天城安骨浦薺浦等處 更審賊蹤 俱無形影 到唐浦經夜

初十日 到彌助項前洋 與右水使李億祺 元均等 罷陣各還矣

<李忠武公全書卷三，狀啓二，唐浦破倭兵狀>

又戰于永登浦 捕得全船殲之 自此軍聲大振 捷聞賞加舜臣資憲　<宣廟寶鑑卷之八>

二十，淮陽城 戰鬪(壬辰年六月五日)

賊旣陷兩京(京城及開城) 分兵踰鐵嶺 以撓行在 會金公受命至府 未十日 城隍機械又皆蕩然 公知無可爲 以死自誓 或勸之少避 公曰「毋我守土之臣也 義當與國偕亡 舍此安歸乎」乃席藁大慟 比賊壓境 終不動 具朝服正坐 賊欲脅之 先斫手指 公奮罵不屈 仍被亂斫以歿 壽六十有九 實萬曆二十年某月某日也

<元白山黑水文庫本人物考卷七十九，金錬光墓碣銘 丹室居士(閔順之)의 壬辰錄卷二>

時錬光 到府未十日 城池器械 蕩然無恃 知無可爲 以死自誓 或勸之少避 錬光曰 嗟呼我守土臣也 捨此安歸 癸巳(六月初五日) 賊兵入府中 錬光具朝服 正坐不起 賊欲脅之 錬光手持印綬 奮罵不己 賊遂斫其手 血濆朝衣 猶據床自若 被亂斫以死 初錬光 令其妾避賊曰 并死無益也 妾曰公能爲國而死 妾獨不爲公而死

乎 至是同死一劍之下 鍊光有絕命詞曰

淮陽滐々 淮水浩々 孤城躑躅
事與心違 萬古長夜 知我者誰
温序有魂 我往從之

〈宣廟中興誌 卷二 壬辰〉

字彦精 號松巖 壬辰爲淮陽府使 賊兵犯境 人勸避之 公曰吾守土之臣 不可去而求生 冠帶而坐 賊脅之 先斫其手指 不屈 遂遇害 贈禮曹參判 遺址在南部郭莊里 〈中京誌八〉

府使金鍊光有學行 壬辰爲淮陽府使 賊壓境不離官 聚兵爲備禦計 賊覘之襲鍊光 鍊光謂妾曰爾可走避 妾曰君死於國妾死於君 賊迫鍊光降不屈罵不絶口 遂與妾同死一劍 賊以鍊光頭掛樹而去 宣廟朝旌閭給復十結

〈三忠錄卷二，三綱行實〉

二十一，茂溪 戰鬪(壬辰年六月六日)

前掌令鄭仁弘 前佐郎金沔 起兵討倭 仁弘陜川人也 素爲鄕中士友所畏服 至是糾集鄕兵 以前僉使孫仁甲 爲副將 仁甲武勇過人 異軍別鎭而稟令於仁弘 仁弘殲賊百人於茂溪 燒其屯粮而還 〈宣廟中興誌卷二 壬辰〉

二十二，龍仁 附近 戰鬪(壬辰年 自5月28日 至6月9日)

亂初駕次海西 有下三道監司 掃境來討京賊之命 湖西則中原西原黃澗等處 敗衂之後 人民散處山谷 僅僅收合 得八千餘兵 士武(李洸)亦於錦江罷兵之後 艱得萬兵 子昂(金晬)無兵 只領牙兵軍官百餘人 五月念後 會于温陽 留四五日 治行發程 餘之管下忠淸兵使申翌 防禦使兪沃 以八千屬焉 抵振威 吾三人與諸將議兵 欲先攻水原賊 開通道路 仍爲上進 適水原賊不攻自遁 余以爲 大軍一離振威則 畿湖之間 無一住兵之處 龍仁竹山之賊 若來絶粮道則危矣 振威宜留一陣 與槐山所留助防將李世灝之兵 相爲犄角 可無掩後之患云云 計終不行 至水原府內結陳 湖南方伯 發防禦使郭嶸 助防將李之 詩白光彦 領兵攻龍仁水原間焚蕩之賊 余亦以防禦兵使 共力討之 是六月五日也 李之詩白光彦皆敗死 餘僅免 退屯中路 即光校山之傍也 敗報未至之前 士武欲移陣進入 余以爲 交戰處僅一息 若進陣則與賊相去最近 設有不幸 軍無退屯之所而光校山近處形勢險易 亦探審而輕進則必有後悔 不如堅守此地 連續添兵以助聲援則 戰士之心 亦以有後援爲恃而無恐 計之上也 士武執不從 子昂以無軍之將 作寄公於士武 了無可否 吾計竟不行 申時移陣於光校近處山林壅蔽無通望之處 甚非形勢地也 翌朝賊至面前 諸陣皆潰 吾陣與士武陣 亦皆不支而退避 吾儕白面 不解兵家事規畫甚拙 終致此敗 追思至今 痛恨奈何

〈尹國馨著 聞韶漫錄〉

全羅道觀察使李洸 慶尙道觀察使金睟 忠淸道觀察使尹先覺 領兵八萬 直向京城 時忠慶二道 俱被殘敗 獨全羅一方 物力全盛 兵士器械軍資輜重 彌滿四五十里 遠近聞之 莫不雀躍朝廷亦以爲必能成功 指日待捷 睟於喪敗之餘僅率官軍百餘名 附庸於洸所領俱是精勇之士 顧凌轢慶尙道人 睟以下無不受侮蹙入而洸又庸怯不知兵 行師之際 有如驅羊就牧 散亂無統 首尾不相知 進陣于龍仁縣南十里外 賊初見其兵勢蕩蕩不敢出 先鋒將白光彦李之詩等 直到賊壘 斬賊之樵汲者十餘級 諸軍益輕賊 有驕色 先是 白光彦李之詩謂洸曰 我兵雖衆 皆列郡烏合之軍 勿論多寡 俱使本邑守令將之 某邑作先鋒 某邑作中軍 至於前後左右俱有所分 勿聚一處 各自爲陣 分屯十餘處 一陣雖敗 旁陣繼入 遠近諸陣 鱗次相救 一陣雖勝 遠近諸陣 爲之循序而進 如此則勝必全捷雖敗亦不至大衂 洸曰 臨機應變 自有共策 何可預定乎至是夜分 使白光彦等直斫賊營 光彦之詩突上賊屋 衆軍踰柵而入 揮刀亂斫 斬首十餘級 適大霧四起 咫尺莫下 留營之賊 已盡登岸 乘朦暗放銃 自後掩之 光彦等俱被亂兵所殺 衆皆潰還 喧噪之間 天曙霧開 賊衆約四五千 相對下營二三里地 賊銃一發 大軍遂潰洸等既不能招呼收集 又自變着白衣 相繼而遁

人馬踐踏 塡滿道路 八萬之衆 須臾散盡 賊見兵勢之盛 猶不敢追逼 歛兵而還 弓矢刀槍粮資器械衣服裝飾 狼藉委抛 塡溝盈壑 不可勝記 村民之竄匿山谷者 乘夜收拾 賴此全活者甚多 大駕未出京之前 李洸領兵十萬 已到錦江 及聞去邠 遂自罷兵而還 至是又敗 群心沮喪 無可爲矣 敗報至行在 朝廷上下面面相看長吁短歎而已

<朴東亮著 寄齋史草下 壬辰日錄三>

萬曆二十年壬辰六月二十一日己酉晴 上在龍川 慶尙道觀察使金睟 全羅道觀察使李洸 忠淸道觀察使尹先覺等 馳啓曰 臣等率騎步傔從幷六萬餘人 於本月初三日 結陣於水原地 欲由陽川北浦濟師而在京城不無腹背挾攻之勢 自朝廷急速指揮 臣等亦已通文韓應寅 待其回報矣 (睟等之來也 行軍無律首尾不相應 有似驅羊就牧 先鋒白光彥李之詩 斬賊之樵汲諸軍蹻蹻益輕賊有驕色 睟旣無軍挫氣 洸本庸愞 不知所以策應請命朝廷 以爲進退之計)

<朴東亮著 寄齋史草下>

壬辰令諸道勤王 湖南方伯李洸 率兵八萬到公州 聞上西狩 令軍中曰大駕西出 不知存沒 已無可爲 遂以軍退措身安地 聞行宮無恙而義兵四起 不自安 遂與湖西方伯尹國馨連兵十二萬進駐龍仁 見賊十餘騎 不戰而潰 士卒相蹂躪死 還者無幾 軍裝器械 皆沒于賊 事聞命竄洸而以權慄代之 國馨亦挫罷

<金時讓撰 紫海筆談>

初七日 車駕至平壤 全羅監司李洸領本道兵 入援 路聞車駕西狩 京城已陷 還全州 道內人心憤惋不平 於是更調兵 與忠淸監司尹國馨慶尙監司金睟 會於龍仁 總五萬餘 文人不閑兵務軍數雖多 號令不一 賊數人揮劍賈勇而前 諸軍望之大潰 聲如山崩 軍資器械 委棄塞路 賊悉焚之 諸道監司皆還本營

<朝野記聞卷之四 壬辰倭難>

先是全羅巡察使李洸率兵八千 到公州 聞西狩令軍中曰 大駕西巡都城已陷無可爲者 遂退軍旣而聞行宮無恙 義兵四起 助光彥見洸曰 君父播越而公手擁重兵 退縮不赴 有何意乎 遂拔劍瞋目 洸驚謝之 更調兵與忠淸巡察使李(尹之誤)國馨合軍而進 慶尙巡察使金睟亦率軍官數十來會 兵總五萬餘 至龍仁望見北斗門 山上有賊壘 洸欲擊之 權慄曰 大敵當前不可爭鋒於小賊 光彥亦言道狹樹密不可輕進 洸挾前憾 重杖之 光彥憤曰 寧爲賊所殺 裹瘡而起 與助防將李之詩 率先鋒 登山發射 賊不出 日晩見我師稍懈 挺白刃大呼突出 光彥等倉黃索馬欲走 皆爲賊所害 明日移陣光敎山 賊知我軍心怯 前列數人揮刀賈勇而前 忠淸兵使申益先走 三道兵一時大潰 聲如崩山 委棄敎書印符軍資器械 賊悉焚之 事聞洸竄以權慄代之國馨亦坐罷

<朝野會通卷六十六 宣祖紀>

洸(全羅巡察使李洸)令 嶸(防禦使郭嶸) 前擊龍仁賊營 公(權慄)謂曰 賊先據險非可襲之勢且大於此者 京城已爲賊有主 公擧一道之兵以來惟當直上涉祖江塞臨津 毋令賊西而形勢之便稟命 行在有路乃可以圖大 今不可爭鋒於小亦非萬全以損聲威也 先鋒白光彥 助戰將李之詩 各以精兵一千 自隨有輕進意 公又戒之要與相待則皆不能從光彥等至皆沒 是夜軍中虛驚朝則望賊大潰 諸軍皆還 公亦旣還光州

<幸州戰勝碑文의 一節>

僉知高敬命士人朴君玉等 奔走開諭 僅能收合敬命令其子從厚因厚 分領其衆 交於中道 洸乃自領兵二萬 以羅州牧使李慶福爲中衛將 以助防將李之詩爲先鋒 郭嶸分領二萬 以光州牧使爲中衛將 以助防將白光彥爲先鋒 洸自龍安渡江 由林川溫陽等路進 嶸自全州由礪山公州等路進 俱會于稷山 洸令嶸 迎擊龍仁之賊 權慄謂洸曰 賊已據險 勢難仰攻 今主公掃境入援 國家存亡 在此一擧 務在持重以圖萬全 不可與小敵爭鋒 徑費神威 當直渡祖江以塞臨津則西路自固 糧道亦通 得其形便 畜銳伺釁 以待朝廷之令可也 洸不聽 嶸先遣光彥 往視道路 還言道狹樹密 不可輕進 洸有慍色 且挾前憾 遂以違令杖光彥 重傷幾危 光彥憤曰 寧爲賊所殺 遂裹瘡而起 嶸曰 事將奈何 乃進兵洸

又令李之詩來助 翌日昧爽(即初五日也) 之詩光彥各領所部 意甚輕敵 慄戒之曰 愼無輕進俟中衛軍至乃戰 之詩等不用慄言 先自馳進 慄等未及至而見賊衆少 麾軍逆戰 賊拔劍大呼 順丘而下 我師披靡 只自逃生 賊乘勝亂斫 之詩光彥搏戰而死 是夜軍中虛驚 戰士莫有鬪志 朝日賊從山谷張旗而下 前列只有三賊 挺身以來 大軍望見 一時潰散 山崩潮退 莫敢遏止 軍實輜重 悉以遺賊 洸還全州

<大東野乘卷七 (四〇九面), 再造藩邦志一>

三道之師大潰於龍仁 初五日 李洸使先鋒將白光彥 覘賊于龍仁 時賊陣于縣北文小山 勢似孤弱 光彥易之還告曰 孱賊也急擊勿失時也 光州牧使權慄 時爲中衛將力言曰 京城不遠 大賊當前不可爭鋒於小敵 恍不聽 即以助防將李之詩及先鋒守令等付光彥等以爲虜在目中 肉薄挑戰 從卯至巳 賊不出 午時我解體 賊伏膝行 殺入軍中 左右斬斫死者 不知其數 李之詩曰 光彥及古阜郡守李允仁 咸悅縣監鄭淵等皆被害 大軍脫氣

初六日 李恍等進兵陣光敎山 令軍朝食 賊騎突至 先來五賊 着金假面騎白馬 持白旂揮劍直前 忠淸兵使申益以先鋒在前先潰 十萬將士一時皆散 賊數騎 追趕十餘里而去 恍等諸將敎書印符旗麾及軍器兵粮皆委棄賊盡燒之

<春坡堂日月錄卷之八>

全羅道巡察使李洸 防禦使郭嶸 發兵四萬 洸自領二萬 以羅州牧使李慶祿爲中衛將 助防將李之詩爲先鋒 嶸分領二萬 以公爲中衛將助防將白光彥爲先鋒 公以文人置諸前行人或豪之 公笑曰是吾職事也 以是月二十日兩軍分路而進 洸自龍安渡江由林川溫陽等路 嶸自全州由礪山公州等路 俱會于稷山 時慶尙巡察使金睟忠淸巡察使尹國馨 皆來會 忠淸兵亦且數萬軍容甚盛 遂進陣水原 洸令嶸 進擊龍仁 公曰賊已據險 今難仰攻 今主公掃境內入援 國家存亡在此一擧 務在持重以圖萬全 不可與小敵爭鋒 徑費神威 唯當直渡祖江以塞臨津則西路自固 粮道亦通 得其形便 畜銳伺釁 以待朝廷之令可也 洸不聽 嶸先使光彥 往觀道路 還 曰道狹樹密 不可輕進 洸有慍色 嶸曰事將奈何 遂進兵 洸令李之詩來助戰 以五月五日之詩光彥各領精兵一千 意甚輕敵 公戒之曰愼勿輕進 俟中衛軍至乃戰 公未至 光彥見賊少 促兵逆戰 賊拔劍大呼 順丘而下 我師披靡 賊乘勝亂斫 之詩光彥皆死 是夜軍中虛 驚戰士莫有鬪志 朝日賊從山谷張旗而出 諸軍大潰 公遂還光州曰主將當有分付整束以待久之 寂然公曰宗社灰燼鑾輿播越 人臣豈可坐待亡國 遂聚州境內子弟五百餘人 傳檄傍郡又得千餘名 進陣於慶尙界上 <白沙集卷之二十一>

二十三, 龜尾浦 戰鬪(壬辰年六月十日)

備邊司啓曰 驪州正當倭賊往來之路 牧使趙守興衰老 雖有民兵 調發無由 此州之事不比他邑而江原道助防將元豪號召鄉兵 連有斬獲於驪之上 今授重加 已聳民聽 趙守興遞差 元豪除授 仍兼助防將 兩道傍近之邑皆令節制極力勦滅 且陰竹縣監黃瑄年老不治 其代亦以訓鍊院奉事元褶陞差送 與元豪東西犄角協力勦殺 以合便宜 上從之

<宣祖實錄五月乙酉二十六日條>

既而豪再來 招集州兵 見賊屯龜尾浦 乘曉掩襲 斬五十餘級 餘遁去 而自是賊不入驪州路 柳永吉復檄召豪還 <李植의 野史初本卷十四>

助防將元豪擊殲驪江屯賊 豪以江原道助防將屯驪江甓寺 以斷津渡 江原監司柳永吉 函召豪還本道 豪去而賊始渡江北上 既而豪再來招集州兵 見賊屯龜尾浦 乘曉掩襲斬五十餘級 餘遁去 自是賊不入驪州路 <宣廟寶鑑卷之八>

元豪陞嘉善爲驪州牧使兼京畿江原兩道 防禦使豪自江原道復來招集州兵 見賊屯龜尾浦 乘曉掩襲斬五十餘級餘遁去 自是賊不入驪州路 啓聞獻馘稱賞特進秩 <朝野僉載卷之二十七>

江原道助防將元豪 自呂州還歸本鎭 賊兵出沒原忠楊廣等地豪 每勝其隋 初殲之于龜尾浦 又與利川府使邊應星 合兵船載射手 乘霧邀賊於

馬灘 殺賊極多 由此原州賊路乃斷

<再造藩邦志卷二壬辰六月>

初朝廷以豪爲江原助防將 使備東路 豪行收兵至平海 聞李洸兵潰 訛言大播 豪軍遂奔潰不可遏 乃脫身入原州驪州之間 復收鄕兵 擊賊于神勒寺殲之 捷奏上大加嗟賞 特拜驪州牧使兼京畿江原防禦 時賊自原州楊根 連營達于京城豪益收兵 夜襲賊壘於鴎*尾浦 敗之 斬獲數百餘賊遁去　<宣廟中興誌卷一壬辰五月>

二十四，馬灘 戰鬪(壬辰年六月未詳日)

利川府使邊應星 又船載射士 乘霧邀戰于馬灘殺賊頗多　<宣廟中興誌 卷一壬辰篇>

江原道助防將元豪 擊賊于龜尾浦殲之 又戰于春川 兵敗而死 時賊大陣在忠州及原州 連營達于京都 其在忠州者 取路竹山陽智龍仁往來 其在原州者 欲從砥平，楊根，楊州，廣州，抵京 元豪擊殲于驪州龜尾浦 利川府使邊應星又船載射手 乘霧邀賊於驪州之馬灘 殺賊頗多 由是原州賊路遂斷 悉由忠州之路 而利川，驪州楊根，砥平等邑之民 見遺於賊鋒者 人以爲豪之功也 巡察使柳永吉 又催豪擊春川賊 豪旣勝頗有輕敵之意 賊知豪將至 設伏以待 豪不知而進 伏發遂爲所殺 於是江原一道 無禦賊者

<懲毖錄一 (三八面)>

二十五，東大院 戰鬪(壬辰六月十日)

賊轉陷松京及海西一路 結三陣于大同江邊 扈來諸臣 召集散卒 守城設伏 收入紬三十餘同木四十餘同 軍糧七萬餘石 軍聲稍振 人心思奮 昌城官人任旭慶 所號壯勇 自募先登 率軍夜擊 殲賊中衛 斬倭先鋒將 賊勢大挫 糧盡欲退 中和人爲向導 京通事金德謙 助畫方略 導自王城灘　守將金億秋成鶩朴錫命金應瑞及監司宋言愼兵使李潤德等皆走 然而城守甚嚴(扈從典涓署別坐金應禎所傳變後消息)

<趙慶男撰亂 中雜錄一>

六月十一日 車駕出平壤向寧邊 大臣崔興源兪泓鄭澈等扈從 左相與金元帥李巡察元翼 留守平壤 余(柳成龍)亦以接待唐將留 是日賊攻城左相元帥巡察及余 在練光亭 本道監司宋言愼守大同城門樓 兵使李潤德 守浮碧樓以上江灘慈山郡守尹裕後等 守長慶門 城中士卒民夫合三四千 分配城堞而部伍不明……以下前掲(上頭)……　<懲毖錄一 (二五面)>

名曰疑兵， 隔江望賊 其兵不甚多 東大院岸上排作一字陣 列竪紅白旗 如我國挽章樣 十餘騎向羊角島入江中 水沒馬腹 皆按轡列立 示將渡江之狀 其餘往來江上者 或一二或三四 荷大劍挾小刀 日光下射 閃閃焉如電 六七賊持銃到江邊 向城放之 聲響甚壯 鐵丸過江入城遠者入大同舘 散落瓦上 幾千餘步 或中城樓柱 深入數寸 有紅衣賊 見練光亭上諸宰會坐知爲將領 挾鳥銃邪睨漸進 至沙渚上放丸中亭上二人 然遠故不能重傷 軍官姜士益從防牌內以片箭射之 矢及沙上 賊逡巡而却 都元帥發善射者 乘快船 中流射賊船 稍近東岸 賊亦退避 我軍從船上發玄字銃 大箭如椽過江 倭衆仰見 皆叫噪而散 其箭落地上 爭聚觀之 以下整兵舡 斬工房吏一人 以久不雨 江水日縮分遣宰臣 禱雨于檀君箕子東明王廟

<申靈撰 再造藩邦志一>

洪士信性傑驕 未嘗有屈下之色 駕將平壤 自做舍治行 將扈衛 道途亂民 持大杖擊其背曰金貫子玉貫子之賊 平時食厚祿 旣不能禦賊 又欲敎君棄我而去耶 仍亂棰墮馬僅免 與人語曰今日幾死矣 遂㧖背忍痛而坐 澄源曰 此人氣死於平壤人矣(澄源李幼澄)

<朴東亮著 寄齋史草下 壬辰雜事>

兪止叔將留守箕都 倉皇失措 不知所爲 急召其子大建謂曰 我將留此奈何 大建附耳良久 止叔請以公著爲副郞 出大同舘 高踞交椅 拔袖而坐 公著仰天曰 人生於世 旣逢此難 又爲兪泓之副 寧不辱乎 梧陰使余持 衆言謂止叔曰此處旣有監兵使 又別有巡察使 此足矣 扈從甚少 不必更置副 兪大怒曰 使我死乎 旣陷於死地 又欲奪副使 是殺我也 還報之 梧陰笑曰

杞城何怒焉 必大建怒矣 更告之 兪願謂其子曰 國事不與子弟論 然爾意若何 大建遂自椅後 潛身而起 以爲難許 兪即日 寧死不可從 明日余又以公事往焉 兪望見呼曰 子無乃又爲公著來乎 余曰爲公事也 且左相代公之任 公何爲在此 兪欣然曰 海原亦置副乎 曰否 兪曰海原懲我乎(止叔即杞城)

<寄齋史草下 壬辰雜事>

李鎰初守浿江下灘 城陷之後渡江而南 循黃海江原之界 募兵還平壤 陣于林原坪 與義兵將高忠敬連勢 頗有斬獲之功 遂以鎰代李薲爲巡邊使 <關西邑誌 平壤續一 古事>

先是行長義智等進至大同江南 李鎰防之淺瀨義智前隊進入江中 鎰兵以強弓射義智兵波多野須藤等戰死 我兵遂退 <宗氏家記>

二十六，鐵嶺 戰鬪(壬辰年六月十二日)

六月庚子(十二日)鐵嶺守兵潰 清正日行數百里 勢如風雨 所過赤地千里 鷄犬不遺

<丹室居士의 壬辰錄卷二>

壬辰六月 倭將清正長驅入北 十二日鐵嶺軍潰

<北路紀略卷三壬辰倭寇>

當初 北方事段 去六月十二日鐵嶺兵潰後 南道列邑軍民 罔有固志 望風奔散 仍致長駈之勢爲白去乙 <北評事 鄭文孚의 農圃集卷一 倡義起兵入守鏡城後擊斬倭賊>

李瑛 壬辰 南兵使來 六月南兵使李混戰敗于鐵嶺 金貴榮等奔王子承制 罷李混 移瑛爲南使 出住北青 <北關誌 會寧府宦案>

七月南兵使李渾 率兵禦之于鐵嶺遇賊 先鋒不戰而走 道內守令 皆棄城奔竄 齊民盡入山藪賊長驅如入無人之境 自安邊至吉州邑 置千百據城分守 監司柳永立 判官柳希津皆避亂于山谷 監司爲北青賊所執 府人金應田詐稱監司奴入于賊中 乘夜竊負而逃 監司仍奔平安道 判官柳希津 爲咸興賊所執 倉戶房成男倉使令玉良所指嗾也 我國起兵之後 判官遇害 賊誘民納米 納則給牌 各令還家 入山之民 信其言 又患糧盡 還入其家者太半矣

<文德教撰 東湖集壬辰錄>

當初北方事段 去六月十二日鐵嶺兵潰後 南道列邑軍民 罔有固志 望風奔散 仍致長駈之勢爲白去乙 上洛府院君臣金貴榮 徵兵北道 爲白良在乙 北兵使韓克誠亦所當領兵 親赴事是白乎矣 適音六鎭(會寧，鍾城， 穩城， 慶源，慶興， 富寧)諸胡 伺釁嘯聚 將有腹背受敵之患 乙仍于 兵使(韓克誠)段 留鎭吉州 以爲南北聲援爲白遣 即令斜𠄌洞權管高敬民 率精兵二百名 馳赴咸興 又令會寧府使李瑛 率精兵四百名 繼往北青爲白有如乎 賊勢益熾 不能防遏 李瑛等兵 退踰磨天嶺

<北評事 鄭文孚의 農圃集 九月二十月狀啓>

二十七，王城灘 戰鬪(六月十四日)

尹斗壽 金命元 柳成龍 李元翼在練光亭 宋言愼守大同城門 兵使李潤德守浮碧樓以上江岸慈山郡守尹裕後守長慶門 賊排作一字陣於東大院岸上 驕鋒銳卒猖獗輕躁而臨戰 長技最是鳥銃 鉛丸過江入城 或中樓柱 深入數寸 我軍狃放昇平 未習砲射 自城上放火砲箭 落江中聲亦不猛 賊輕易之 聚浴於江邊 浿江上 有王城灘 水駛多砥石 非熟諳灘路者 不能濟 賊兵阻水 累日不得渡 警備頗怠 金命元 欲乘夜掩擊 使高彥伯領精兵 從浮碧樓下 潛船渡軍 前襲第一陣 殺賊甚多 列屯賊驚起大至 我軍退走 未及乘船 渰死者多 餘軍從王城灘 亂流而渡 賊始在其水淺 乃渡軍 我軍守灘者 不能發一矢而潰 十二日夜 我師棄城潰散 賊陣于城外 登牧丹峰見城中寂然 施旗擺列 疑其設機不敢近三日而後始入城 庶尹南復避入龍岡 海曲楊德祿往說曰 避兵他境 於義不可 宜募兵聚糧 爲討賊之計 復與從其言 募兵得萬餘 分陣于府西三十里外 一陣將府判官李應獬 二陣將出身崔琛 三陣將權管金夢淵 四陣將部將李祿也 三和縣令趙沂 龍岡縣令申俔江西縣令柳曦 咸從縣令李璲 甑山縣令趙誼 永柔縣令黃淑 順安縣令河弘秀等 領兵來會 列陣於大寶

山西 本府士人李德嵓 楊德祿 楊懿 直募義兵三百餘人 會于篋津 號曰敵愾陣 左衛將盧德珪 右衛將金效剛也 曺三省 洪乃範等募義穀以餉軍 前禁事曺好益與本府人玄受白 金自澤 朴億等募兵百餘人 進陣東村 前判官張以德聚兵花園村 前部將高忠敬 陣於廣法洞 時義兵四起 見零賊必逐捕之 以至閭閻村夫 亦聚林薄間 登高候望 量敵多少 或進或退 皆以殺賊爲心 賊亦成群而出 遇我入必害之

<關西邑誌 平壤續一 古事>

賊陷平壤 十五日 留守大臣等遣諸將高彥伯等夜從綾羅渡濟 師襲賊 候時失期攻賊少有利而天已向明 賊衆大至 我師急矣 棄船涉王城灘以濟 賊乃知水淺 日晚擧衆並渡 尹斗壽等開城門奔向順安 城遂陷 <春坡堂日月錄卷之八>

尹斗壽等遣將夜擊倭營 不利而退 倭兵遂渡大同江 斗壽知不可守 先出城內老弱婦女 賊迫城 乃沈兵器江中 引兵潛出 或乘舟下江西倭將 遂據平安 <宣廟寶鑑卷之八>

萬曆二十年壬辰六月十九日丁未晴 早朝上發自宣川 宿于車葦館 左議政尹斗壽來啓曰 臣不能死守平壤 致有今日 願受軍律 答曰國勢已去 卿發此言

平壤之失守也 斗壽知事已去 遂使城中老少先出 繼軍器物件 皆沉于池 其從事官金信元謂斗壽曰 乘船向安岳 身可無事 斗壽笑曰 我大臣也 公可自去 況義不可乎 遂追到于此 <朴東亮著 寄齋史草下>

初賊兵分駐江沙上 作十餘屯 結草爲幕 旣累日不得渡江 警備頗怠 金命元等 自城上望見以爲可乘夜掩襲 抄擇精兵 使高彥伯等領之 從浮碧樓下綾羅渡 潛以船渡軍 初約三更擧事 失時刻 旣渡 已昧爽矣 見諸幕中賊猶未起 遂前突第一陣 賊驚擾 我軍多射殺賊 土兵任旭景先登力戰 爲賊所害 奪賊馬三百餘匹 俄而列屯賊 悉起大至 我軍走還趨船 船上人見賊已迫後 中流不敢艤船淹死者甚衆 餘軍又從王城灘 亂流而渡 賊始知水淺可涉 是日暮 擧衆由灘以濟 我軍守灘者 不敢發一矢 皆散走 賊旣渡 猶疑城中有備 遲回不前 是夜 尹斗壽金命元 開城門 盡出城中人 沉軍器火炮于風月樓池水中 斗壽等 由普通而出 至順安 賊無追躡者 從事官金信元 獨出大同門 乘船順流向江西 明日 賊至城外 登牧丹峰良久觀望 知城空無人 乃入城 <懲毖錄一 (二八面)>

二十八，金化附近 戰鬪(壬辰年六月十九日)

壬辰倭報急起 公爲江原道助防將 行收兵至平海 即時全羅監司李洸 畏賊不敢進 且忌諸路勤王 乃移檄曰「賊已踰嶺(鳥嶺)區事已矣」於是諸鎭皆潰 公軍亦散 公遂還原驪(原州及驪州)間 召募鄕兵 殲賊于神勒寺 捷上行在 上大嘉之 特陞嘉善 拜驪州牧使兼京畿江原防禦使 賊大陣在原州 連營隳突而其在驪州龜尾浦者 尤鴟張 公夜襲擊大破之 獲數百級 他殺傷不勝勝計 仍住兵上流 以遏賊衝江(漢江上流)南北數百里不見賊鋒 公之力也 旣而江原監司柳永吉檄趣公 擊北路賊 公去而江上無復捍禦東路賊遂入京 公引兵至金化 猝遇大賊 收兵上山 終日相持 士皆殊死戰 所殺賊甚多 然公兵亦盡矣 只麾下李暾等六七人在側 公氣益奮手射賊十數人 賊少却 已而復大進 公矢盡力窮 顧謂暾曰「吾受命討賊 此吾死所也 爾等可去矣」遂投千仞之壑 賊取公頭 之縣門 榜曰「朝鮮軍民皆已歸順 獨元某爲國抗我」縣人識其處 以標公屍 夜取頭藏之 公之孤至以告焉 得以歸 葬于原州西牛頭山卯坐之原 從先壠也 <元白山黑水文庫本 人物考卷七九 倭難時立節人 元豪의 墓表記事>

巡察使柳永吉 又催豪進戰甚急 豪旣連捷 頗有輕賊之心 賊知其將至 設伏以待之 豪不知而進 伏兵猝發 遂爲所殺 <再造藩邦志二>

江原道助防將元豪 擊賊于春川 兵敗死 豪前與賊戰於驪州之龜尾浦 又戰于春川 兵敗乃死(豪擊賊金化勝而後死 故後於其地立廟以祀之 然則與癸甲錄所記不同 且癸甲錄全無前後事案 不敢遽以死義書之可可)

<春坡堂日月錄卷之八>

江原監司柳永吉 避倭人春川 檄召豪 還救本道 豪去 驪州之上流一帶 遂無捍禦者 豪引兵而進 丁未(十九日)至金化 猝遇賊伏 遂收兵上山 賊急攻之 豪終日殊死戰 所殺甚多而士兵亦盡 只恃麾下六七人 豪氣奮 手射賊數十人 賊却之復進 豪矢盡力竭 顧謂麾下曰 此吾死所 爾等併死無益 任自散去 遂投崖而死 賊取其首 懸之縣門 縣人哀其忠義 夜偸而葬之 自是江原一道 亦無捍禦者

<宣廟中興誌 卷二壬辰>

二十九，雲巖 戰鬪(壬辰年六月二十五日)

今月二十五日 率加募義兵 到任實 倭賊萬千餘留屯雲巖 賊曾凱我懸入攔道 逆戰而彼衆我寡 竭盈不敵 遂爲出奇瞞敵計 分義兵兵馬作二隊 指授方略 左右夾擊 將士皆殊死戰 一以當百 賊陣中截奔迸四潰 所斬馘千餘級 川流亦赤 又獲我國被擄男女數百人 今方發向鹽巖 賊皆望風遁逃 明日當進軍到全州 緣由馳報 計開倭賊首一千二百七級 倭鐵衣四十三部 倭大環刀三十一口 小環刀八十六口 倭大小銃七十九柄 短戟二百三十介 長槍一百十二介 倭戰馬九十五匹 我國被擄人金壽玄朴載云等二百十四名 萬曆二十年六月二十六日 義兵副將梁

<梁大司馬實記卷五，呈招討使高霽峰敬命牒(梁青溪先生 諱大樸字士貞)>

先考以征倭義兵將 率加募義兵敢死者千餘人 自南原將赴全州也 聞茂朱倭賊還向嶺南 欲倍道進軍 與霽峰高公 合師並力爲北上勤王計 六月二十三日 犒士組鍊 軍容振肅
二十四日 早進軍次于任實之葛潭驛
二十五日 曉發將踰栗峙 先騎急來報曰 前有賊兵甚熾……彌布於雲巖長谷……莫如分我軍作二隊 衆皆曰 我軍孤弱 雖合一戰猶難敵矣 况分而爲二乎 先考曰 不然 我弱而彼強 若不出奇瞞敵 何以辦乎 不如先視弱以餌敵 爲聲東擊西計可也 一則自此直向挑戰 一則從間道潛伏待其戰酣後 急出不意左右夾攻 有若常山之率然 首尾互應則 彼賊不難破矣……義兵夾擊背腹 乘勝逐北 先考手所斬馘五十級而義兵之所擊殺 亦千餘 破腦塗地 流血漬草 雲巖川水亦爲之赤 遂整軍點閱則 接戰初義兵 爲砲丸所中 死者殆四十人
既破賊 翌日進軍渡橋轉至鹽巖……聞我兵至亦欲合戰 及見大紅幟書以義兵將梁公五字 皆望風奔潰……遂進次于全州之北亭……
自壬辰後 人國之居在雲巖者及行旅之 指點者至今皆曰 梁將軍(大樸，字士貞) 勝戰場云而雲巖南小峴下 有一村 村名曰伐亭 至今傳之 盖昔先生破倭後 小峴上伐樹勒功故 村名以是得也 <梁大司馬實記 卷一>

三十，草溪縣 馬津 戰鬪

(壬辰年六月未詳日)

鄭仁弘 與孫仁甲 往來剿賊 連有殺獲 士民多歸附 金睟乃以四郡兵屬之 時賊兵 船載所掠寶貨 浮洛東江順流而下 仁甲聞之 馳及於草溪之馬津 草溪高靈二郡兵 在岸不敢擊 仁甲遂連江綠兵馳射 江路深狹 箭道相迫 賊死傷殆盡 餘賊一船 急刺淺灣而走 仁甲遽躍馬 入水逐之 沙土溶軟 人馬俱陷而死 一軍慘然號慟而歸 閭閻亦泣 事聞 贈仁甲兵曹判書 鄭仁弘請於金睟 以巨濟縣令金浚民 代領其軍

<宣廟中興誌上壬辰六月>

第4節 第2期 7月 作戰

三十一，熊峙 戰鬪(壬辰年七月自七日至九日)

金堤郡守鄭湛 南海縣監邊應井 禦賊于熊嶺力戰死之 賊義之聚尸作大塚 立石書之曰 吊朝鮮忠肝義膽 初都伏兵將羅州判官李福男 陣中峯黃璞守其上 鄭湛守其下 李洸加將添兵以助之 初八日黎明 先鋒賊幾數千 揮劍直犯 放丸如雨 福男等捨死先登 軍皆殊死戰 賊兵稍却 日出賊大至 數不可計 肉薄登峴 分運迭鬪 俄而繼援之 賊又至合勢 黃璞力竭潰入羅州鎭 賊乘勝上嶺 羅鎭亦潰 湛曰加寧殺一賊而死 不

可退一步而生 遂與之鬪戰而死 福男等退屯于安德院(初湛從李洸自公山罷歸 憤恨導人必涕泣 常將佐曰 一蔬一粒何莫非君賜也 主上播越 惟我與爾忍享此饌乎 以死報國有何所憾 因嗚咽不自勝 至是果堅立射賊 賊皆應弦而倒矣 郡人尋尸於積骸中 得衣間所書姓名 可驗其平日之志云 後萬曆乙卯 郡□趙誠立等慕其義 呈書于檢察 明其死事之迹甚詳) 賊逼全州 巡察使李洸棄城遁 初九日 賊衆 耀兵于完山城外 李洸遁去 金溝衆一時皆潰 賊見我軍奔走 疑其襲後 即夜遁還錦山茂朱

<春坡堂日月錄卷之八>

錦山賊 長驅到熊峙 直向全州 監司李洸曰 大軍入守城中 坐使賊近我境 非計之得 我當分兵一半 作外陣城外 爾等宜竭力守城 內外夾擊 可以成功 其實欲逃之也 郡守鄭湛 縣令邊應井等 逆戰于十里外 斬首十餘級 自巳至午戰甚力 日將晡 大賊奄至 衆不能支 堪應井俱死 諸軍猶合戰不退 賊還屯錦山

<朴東亮著 寄齋史草下壬辰日錄三>

湛乃與助防將李葑 樹柵熊峙爲死守計 別將李福男亦列柵梨峴 欲相犄角……湛與將士 分柵而守 自當其最衝要處 語左右曰 此吾死所 決不可退一步爲僥倖免計 擺列纔定 賊大至……湛持弓矢 在陣前立不動 將士從之射矢如雨下 賊不能陣 復而復合者五 最後賊悉其後軍番休者並力急攻 前者斃後者繼 不復爲退計 湛勵氣督戰 戰益力 箭不虛發中或疊雙賊屍山積不可勝計 軍士有欲斬馘以獻者 湛輒怒曰 我知盡死以報國耳 豈上首級徼功者哉 俄有金盔銀甲 乘白馬賈勇而前者 湛曰此必其將也 身自射之 應弦而倒 賊氣沮 將遁 會日暮 諜知我矢還回軍還致勢急 李福男遽棄軍走 湛呼曰 汝何負國至此哉 汝雖去 留箭與我 福男不顧而去 湛矢盡無奈何 奮挺擊殺賊數人 遂死 李數及褊裨姜運 朴亨吉等 亦皆同日死 湛雖敗死賊之精銳盡殲於此 賊勢大挫 不敢窺全州境 撤屯宵遁 湖南一路 因此得全

<艮翁集卷之二十一 鄭烈士傳>

七月全羅節制使權慄 遣兵敗倭賊于熊峙 金堤郡守鄭湛死之 是時賊自錦山踰熊峙 欲入全州之境 羅州判官李福男 與義兵將黃璞 金堤郡守鄭湛等 據險迎擊 監司李洸遣兵助戰 賊先鋒數千 放丸麾劍直前 福男等冒死血戰 射殪無草 賊敗卻 翌曉賊擧軍大至 彌漫山谷 銃火如雷 福男等鏖戰 一陣不敵而退 黃璞軍潰入福男陣 鄭湛自初力戰親射殺紅旗下白馬賊將 賊被靡而卻 旣而羅州軍退 湛孤軍被圍 將佐勸湛退陣 湛曰寧殺一賊而死 不忍奉身而走 使賊長驅也 堅立不動 發矢必中 俄而賊兵四圍 兵皆散逸 湛力詘死之 從事官李葑亦死之 福男退屯嶺上安鎭院 賊知有備 不敢踰嶺而止 湛自聞君上播越 嘗涕泣奮憤誓以必死報國 發兵之日 殺牲祭社告誓而行 郡人感其忠義 追聞于朝 贈官旌門 <宣廟寶鑑卷之八>

賊聚熊峙陣亡之尸 埋路邊 作數大塚 書其上曰 吊朝鮮國忠肝義膽 <同上>

壬辰夏(七月初八日) 倭賊衝湖南者 由錦山內路將直擣全州 特除公淸州牧使 以淸內地改授金堤 刻日下送 公聞命即行單騎赴任 簽發吏民 激厲義氣 把截熊峴 身先當賊 矢無虛發 賊不敢近 有白馬賊將 橫突直前 公一箭殪之 賊大挫將退 有陣中別將二人 先呼矢盡恇怯而走 賊遂乘之衝柵甚急 公激瘡殘益奮厲 矢盡弓折猶持短兵獨鬪 力屈而死 賊亦銳挫撤鋒 終不能西者 公之力也

<鄭公忠烈錄 遺事(參奉李徵逸)>

洸(李洸)退全州 以公勇而兵精專令公遮熊峙且送助防將李葑副之 嶺是踰全直路 爲賊衝要 公晝夜樹柵試墩 與梨峴把將黃璡李福男相犄角……中略……賊遂自梨峴奪柵入 公矢盡死之 李葑及金堤出身姜運朴亨吉等 皆公心腹 援公甚力 同日死……中略…… 公死之後 全州勇士黃璞追斬一賊將 所戴銀盔公姓名刻焉 巡察使 擧而啓之 賊屯嶺底 不敢窺全城

<鄭公忠烈錄 鄭公墓誌銘>

時賊從慶尙右道 入全州界 湛(金堤郡守鄭湛) 應井(海南縣監邊應井)等 禦之於熊嶺 爲木柵

橫斷山路 督將士終日大戰 射殺賊兵無算 賊欲退 會日暮矢盡 賊更進攻之 二人俱死 軍遂潰 明日 賊至全州 官吏欲走 州人前典籍李廷鸞 入城倡吏民固守 時賊精銳 多死於熊嶺 氣己索 監司李洸 又試疑兵於城外 晝則多張旗幟 夜則列炬滿山 賊到城下 環視數周 不敢攻而去 悉聚熊嶺戰死者屍 埋路邊作數大塚 立木其上 書曰弔朝鮮國忠肝義膽 蓋嘉其力戰也 由是全羅一道獨全 <懲毖錄一 (三五面)>

時賊又從慶尙右道 入全州境 金堤郡守鄭湛 海南縣監邊應井 糾率官軍 極力禦之 終日大戰 射殺賊兵甚多 賊欲退去 會日暮矢盡 賊更進攻 二人力盡死之 軍遂大潰 明日賊乃至全州城外 官吏欲棄城走 本州人前典籍李廷鸞入城 倡率吏民 固守城堞 多設疑兵於城外 晝則張旗幟 夜則列火炬 出沒前後峯上 賊乃環視數周 不敢攻而去

<再造藩邦志二, 大東野乘卷七 (四六三面)>

三十二, 梨峙 戰鬪(壬辰七月八日)

公(權慄)亦旣還光州 寢不解衣 以更聽主將久之寂然即奮曰 此非臣子坐待國亡日也 遂聚境內子弟五百餘人傳檄旁邑 又得千餘人之慶尙界上軍焉 聞南原民先賊自爲亂少却以撫定之 巡察使得公報事符 公權稱都節制令督率列邑官兵以截賊自嶺而湖者 公進軍梨峙阻險而俟 七月遻賊疾擊之會 同福縣監黃進 在軍有勇名 中賊丸退 一軍爲氣沮 不覺賊躍入砦急甚 公提劍大呼 先冒白刃 戰士無不一當百 賊救死傷不給棄重狼藉以走 旣而行在遙拜公羅州牧使以羅重於光也 尋拜本道巡察使 教書至陣 公西向稽首泣甚悲 動一軍 公令防禦使代守梨峙身之全州發道內兵 萬餘以九月勤王……以下略…… <幸州戰勝碑의 一節>

陞同福縣監黃進益山郡守 梨峴捷聞 又陞忠淸助防將 加資折衝 <趙慶男撰 亂中雜錄>

巡察使李洸之起兵在南原 以權慄稱本道都節制使 督率諸軍 以遏奔衝 慄撫礪士氣 軍威日盛 部勒諸將 皆有法度 恩威並施 號令明肅 臨陣誓衆 義形於色 士卒奮勇 莫不用命 乃移住梨峴 時嶺南諸賊 勢甚猖獗 直擣全羅 分兵來向 慄聞賊勢甚張 阻嶺爲固 嚴兵以待 一日與賊遇於嶺上 縱兵急擊 同福縣監黃進 勇冠三軍 挺身搏戰 中丸而退 一軍沮喪 士無鬪志 稍稍韜戈抱頭而走 軍中洶洶 至晡時 賊乘其困 跳入砦內 慄乃挺劍大呼 親冒矢石 督戰不己 士卒皆奮勇登陴 極力拒守 無不以一當百 於是呼聲震地 矢石如雨 賊不能抵敵 遂棄甲曳兵以走 軍資器械 委棄狼藉 血流被道 賊不能再窺湖南 用爲根本 爲國保障 數年之間 東西分輓 以供軍儲 未嘗乏絶者 慄之力也 未幾 牧使未至官而拜本道觀察使 慄令防禦使代守梨峴 親到全州 發道內兵萬 西向京師

<再造藩邦志二>

權慄黃進等與賊戰于珍山梨峴大敗之 錦山之賊 數千餘名 焚掠珍山 伏兵將光州牧使權慄 同福縣監黃進等 督軍拒戰 進中丸而却 賊躍入寨 我軍驚潰 慄斬退者 冒死而戰 進亦扶瘡更戰 士卒無不一當百 賊兵大敗 盡棄器械而走 斬口餘級 郭嶸令光州判官 寶城郡守等探茂朱之賊 助防將李繼鄭探錦山之賊並潰還 時本道將士 累攻窟一未奏捷 每致崩潰

<春坡堂日月錄卷之八>

陞同福縣監黃進益山郡守及梨峴捷聞又陞忠淸助防將 加折衝 <同上>

倭將又擧大軍犯梨峙 權慄督黃進 提縣兵與偏裨魏大奇孔時億等 據峴大戰 賊攀厓而上 進依樹禦丸 射矢如雨 發無不中 終日交戰 賊兵大敗 伏尸流血 草木爲之腥臭 是日進中丸少沮 慄督將士繼之 故得捷 倭中稱朝鮮三大戰而梨峙爲最 李福男 黃進由此著名

<宣廟寶鑑卷之八>

巡察使李洸 聞公(權慄)起兵 以公權稱都節制仍令督率諸郡 以遏奔衝 公進駐梨峙 時嶺南諸賊勢甚猖獗 直擣全羅分兵來向 公聞賊勢張甚阻嶺爲固嚴兵以待 七月與賊遇於嶺上縱兵急擊 同福縣監黃進勇冠諸軍 中丸而退 一軍沮喪士無鬪心 稍稍韜弋抱頭而走 軍中洶洶 晡

時賊乘我困 跳入砦內 公乃挺劍大呼 親冒鋒刃 責戰益力 人皆死戰 無不一當百者 於是呼聲震地 矢石如雨 賊不能抵敵 遂棄甲曳尸以走 軍資器械委棄狼藉 血流被道川谷爲之腥臭 賊不能再窺湖南 用爲根本爲國保障數年之間 東西飛輓以供 軍儲未嘗乏絶者公之力也 秋除羅州牧使 未之官拜本道巡察使 公迎拜敎書于陣中 稽首西向而哭 哀動一軍 軍校將吏 士無不爲之揮涕 公令防禦使代守梨峙 親到全州

<白沙集卷之二十一>

公還光州奮曰廟社丘墟主上播越 爲臣子者 豈可坐待國亡 傳檄旁郡得兵一千五百 進屯梨峙扼兩南吭嶺南賊與錦山賊合力來攻 公挺劍而出 先冒白刃 諸將相謂曰儒者亦如是耶 士氣百倍敗之於嶺下 朝廷欲試之巨鎭 秋遷守羅州未之官躋擢全羅觀察使兼巡察使 公拜命痛哭大選全州自領精兵一萬 爲西上計 據水原禿城

<申欽 象村集卷二十八>

陞同福縣監黃進益山郡守 梨峴捷聞 又陞忠淸助防將 加資折衝　<趙慶男撰 亂中雜錄一>

倭犯梨峙 同福縣監黃進敗走之 倭又大擧犯梨峙 慄督黃進據峴大戰 賊攀崖而上進 依樹禦丸 射矢如破 終日交戰 賊大破 伏尸流血草木爲之腥臭 是日進中丸少沮而慄督軍繼之 故得捷 倭中稱朝鮮三大戰 梨峙爲最

<朝野會通卷六十六 宣祖紀>

權慄遂聚境內子弟五百人 傳檄傍郡 又得千餘名 進陣於慶尙界 南原之民自焚廬舍劫掠官倉 慄移陣本府 撫定人心 李洸聞慄起兵 權稱都節制 仍令督率諸郡以遏奔衝 慄 進駐梨峙 時嶺南諸賊 勢甚猖獗 直擣全羅 分兵來向 慄聞賊勢張甚 阻嶺爲固 嚴兵以待 七月與賊遇於嶺上 縱兵急擊 同福縣監黃進 勇冠諸軍中丸而退 一軍沮喪 稍稍韜弋抱頭而走 晡時賊乘我困 跳入砦內 慄乃挺劍大呼 親冒鋒刃 責戰益力 人皆死戰無不一當百 於是呼聲震地 矢石如雨 賊不能抵敵 遂棄甲曳尸以走 軍資器械委棄狼藉 血流被道 自是賊不能再窺湖南爲國根本 東西飛輓以供軍儲未嘗之絶者 慄之力也　<洪良浩著 海東名將傳卷四>

聞賊自嶺界向湖南還 還軍南下與諸軍守熊峙 嘗覘賊猝遇賊 擊退之守南原 又自南原移全州則 賊已到安德院 諸軍見兵盛 皆畏避 公獨直前大鏖之 殺其將 俄聞倭之屯聚錦山者 復將南下 遂約同志 孔時億魏大哥 黃璞 率三十人同諸將 往守梨峴 賊大至 公(黃進)自當要衝射必疊雙 有飛丸中腓而氣益厲 賊大蚵退却而卒放丸中公額上 盖賊已認公勇而 爲必取計也 公氣絶仆地 賊乘勢更進 孔時億等 復擊却之 賊遂退 公幸不死 麾下士舁公還同福

<尤菴集卷一百四十六 忠淸兵使黃公諡狀>

於是公大捷受凱 黃進裹槍而赴 權升慶亦來會 我軍死者數人 軍官死者一人 方鏖戰之時 士卒不用命者 公以劍督戰 標痕戰笠矣 收軍點閱 出其不用命者斬之 軍中戰惧 相顧曰 將軍神矣 爲先鋒左右督戰 身犯銃劍而標知不用命者而戮之 若非神勇 安能如此 <權元帥實蹟>

時安國寺又擧踰梨嶺入全州 慄與黃進及義兵將黃璞等合兵據嶺大戰 賊攀崖而上 進倚樹射賊 發無不中 或一矢疊雙飛丸中腓而氣益壯 賊列銃齊放丸 如聚雹 進中丸而遂不能振 賊兵躍入砦柵 軍官驚却 慄挺劍大呼 親冒賊鋒 諸將皆聳觀曰 書生能如是耶 齊出搏戰 無不一當百 賊兵大敗 伏尸流血草木爲之腥臭 盡棄輜重器械而走 自安國寺還入錦山 不復出全州 以故南民皆奠居不驚　<同上>

三十三, 閑山島 前洋(見乃梁) 海戰
(壬辰年七月八日)

李舜臣又於是月初六日 與元均李億祺等 會于露梁 知賊船七十餘艘 移泊於見乃梁 即整船前進洋中 賊見我師勢大 回船入港 港中元有老營七十餘艘 作綜列陣 港口淺狹 且多隱嶼難以周旋 舜臣少出兵以誘之 賊見之 悉衆追之 且戰且退 引至閑山島洋中 乃回船接戰 揮旗鳴鼓 箭砲俱發 賊船氣挫小却 諸將軍吏 歡呼踴躍 焚船六十三艘 餘賊四百餘人 棄船登

岸而走 諸將進至　　　＜再造藩邦志二＞

兩南舟師　會于巨濟之見乃梁 倭船大小合八十餘隻　來集于閑山島　三道諸船並進大敗之 賊船十隻脫走 珍島郡守宣居怡追之不及

＜春坡堂日月錄卷之八＞

初七日

東風大吹 不能行船固城唐浦 日暮樵汲之際 避亂登山同島牧子　金千孫　望見臣等舟師　奔遑進告內　賊船大中小幷七十餘隻　當日未時　自永登浦前洋　巨濟固城地境　見乃梁到泊云　故更飭諸將

初八日

早朝 指向賊船留泊之處　至中洋望見則倭大船一隻中船一隻　先鋒出來　探見我師後　還入其結陣處 追至則大船三十六隻 中船二十四隻 小船十三隻　列陣留泊而見乃梁　地形狹隘　又多隱嶼 板屋戰船 自相觸搏　固難容戰 賊若勢窮則依岸登陸 引出閑山島洋中　以爲全捕之計而島在於巨濟固城之間 四無游泳之路　雖或登陸餓斃丁寧 先使板屋船五六隻　追逐其先鋒之賊揚示掩擊之狀則諸船之倭　一時懸帆追逐 我船佯退而還 彼賊逐之不已及出洋中 更令諸將 鶴翼列陣　一時齊進　各放地玄勝字各樣銃筒　先破其二三隻則諸船之倭　挫氣退遁而諸將軍吏乘勝踴躍　爭先突進　箭丸交發　勢若風雷　焚船殺賊　一時殆盡 順天府使權俊 忘身突入 先破層閣倭大船一隻 洋中全捕倭將幷斬首十級　我國男人一名生擒 光陽縣監魚泳潭 亦爲先突 撞破層閣倭大船一隻　洋中全捕　射中倭將　縛致臣船　未及問罪　逢箭甚重　語言不通　即時斬首他倭幷斬十二級　我國人一名生擒 蛇渡僉使金浣倭大船一隻 洋中全捕　倭將幷斬首十六級 興陽縣監裵興立倭大船一隻　洋中全捕 斬首八級又多溺死　防踏僉使李純信倭大船一隻　洋中全捕　斬首四級而只力射殺　不務斬頭　又二隻追逐撞破　一時焚滅　左突擊將　及第李奇男倭大船一隻洋中全捕斬首七級　左別都將營軍官前萬戶尹思恭賈安策等 層閣船二隻　洋中全捕 斬首六級　樂安郡守申浩　倭大船一隻　洋中全捕斬首七級　鹿島萬戶鄭運　層閣大船二隻　銃筒貫穿　諸船挾攻焚破　斬首三級　我國人二名生擒　呂島權管金仁英 倭大船一隻　洋中全捕 斬首三級　鉢浦萬戶黃廷祿　層閣船一隻撞破　諸船挾攻　合力焚滅　斬首二級　右別都將前萬戶宋應珉　斬首二級　興陽統將前縣監崔天寶　斬首三級斬退將　前僉使李應華　斬首一級　右突擊將及第朴以良　斬首一級 臣所騎船斬首五級遊軍一領將孫允文　倭小船二隻 放砲追逐登山五領將前奉事崔道傳　我國人小男三名生擒其餘倭大船二十隻　中船十七隻　小船五隻等　左右道諸將　同力焚破　逢箭投水溺死者　不可勝數 倭人四百餘名　勢窮力盡 自知難逃 於閑山島 棄船登陸　其餘大船一隻 中船七隻 小船六隻等　接戰時落後　遙望焚船斬殺之狀　促櫓逃遁 終日接戰　戰將士勞困 日且曛黑 窮追不得見乃梁內洋結陣經夜

＜李忠武公全書卷三 狀啓二 見乃梁破倭兵狀＞

李舜臣大敗倭兵于固城見乃梁　是時倭賊大發舟師向湖南　舜臣與李億祺各促所屬而進遇賊于見乃梁　賊船蔽海而來　元均狃於前勝　直欲衝擊　舜臣曰　此處海港隘淺不足以用武　當誘出于大海而擊之　均不聽　舜臣曰　公不知兵乃如此　令諸將佯北　賊果乘勝追之　至閑山島前洋 還軍促戰　砲焰沸海 鏖盡賊船七十餘艘 腥血漲海　　　＜宣廟寶鑑卷之八＞

七月六日　公與元均李億祺等　會于露梁　聞賊船七十餘艘　移泊於見乃梁　我師至中洋　賊見兵盛回船入港　港中元有老營七十餘艘 作綜列陣　港口淺狹且多隱嶼　難以行船　公少出兵以誘之　賊果悉衆追之　公且戰且退　引至閑山洋中　回船却逐　揮旗鼓譟 箭砲俱發 賊氣挫少却諸將軍吏懽呼踴躍　焚賊船六十三艘 餘賊四百餘人 棄船登陸而走　　＜白沙集卷之二十一＞

七月六日　公與元均李億祺等　會于露梁　聞賊船七十餘艘　移泊於見乃梁　我師至中洋　賊見兵盛　回船入港口中 元有老營　七十餘艘 作綻列陣　港口淺挾 且多隱嶼 難以行船 公少出兵以誘之 賊果悉衆追之　公且戰且退引至閑山洋

中 回船却逐揮旗鼓譟 箭砲俱發 賊氣挫少却 諸將軍吏 歡呼踴躍 焚賊船六十三艘餘 賊四百餘人棄船登陸走

<湖南誌，故統制使李公遺事李恒福>

全羅水使李舜臣 於巨濟前洋 遇賊船四百餘艘 大戰良久 未有勝負 舜臣謂諸將曰 彼賊船上建三重樓 飾以金碧 有一賊 踞床指揮 此必大將 我之龜船 輕而疾行 又可避丸 若使二三龜船 直衝賊船 得梟此賊 餘必自潰 遂選壯士百餘人 分乘三龜船 出入賊船間 疾如飛梭 賊莫敢近 遂犯三重樓船 百餘人一時呼噪而出 矢如雨集 賊將避箭至三 猶不避箭 中腦始仆 舜臣等望見其戰甚酣 亦鼓噪直進 賊船遂崩潰 溺死者不能勝記 得器械無策 賊自是不敢直犯全羅道 蓋元均李舜臣 一處合戰之力而元均則本道物力 皆已蕩殘 得舜臣成此功云 至是報至 上遂陞舜臣正憲階 又設統制使 以舜臣爲之 使統三道水師 設鎭于閑山島 以防賊之由海向全羅等者 全羅右水使李億祺 又有戰功 遂與元均俱陞嘉義 朝廷以全羅等道聲問不通 必以大駕渡遼 莫爲之措也 遂遣大司成尹承勳 由宜川乘船而行 <朴東亮著寄齊史草下壬辰日錄三>

(上略)…旣而 舜臣率本營船四十艘 併約億祺(全羅右水使李億祺)到巨濟 與均合兵 進與賊船 遇於見乃梁 舜臣曰 此地海狹水淺 難於回旋 不如佯退誘賊 至海闊處相戰也 均乘憤欲直前搏戰 舜臣曰 公不知兵 如此必敗 遂以旗揮其船退 賊大喜爭乘之 旣出隘口 舜臣鳴鼓一聲 諸船一齊回棹 擺列於海中 正與賊船撞着 相距數十步 先是舜臣 創造龜船 以板鋪其上 其形穹窿如龜 戰士櫂夫 皆在其內 左右前後多載火砲 縱橫出入如梭 遇賊船 連以大砲碎之 諸船一時合攻 烟焰漲天 焚賊船無數 有賊將在樓船 高數丈 上施樓櫓 以紅段彩氈圍其外 亦爲大砲所破 賊悉赴水死

<懲毖錄一 (三四面)>

去七月初八日 慶尙道閑山島前洋接戰時 逢箭倭四百餘名 絶島下陸 有若籠中之鳥 當過旬日餓斃 丁寧令同道右水使元均 率其所屬舟師 圍抱四面無遺捕斬 臣(李舜臣)及右水使李億祺等 罷陣還師 元均厥後 誤聞賊船多至 解圍而去 下陸倭人等 伐木爲槎 盡渡巨濟 鼎裏之魚 終至脫漏 極爲痛憤 <李忠武公全書>

壬辰倭陷釜山東萊 長驅而進 公欲移兵擊之 麾下皆以離鎭爲難 公曰 今日之事 唯當擊賊而死 合諸堡兵將發 會慶尙右水使元均 遣人請援 公引兵赴玉浦 以萬戶李雲龍 禹致績等爲先鋒 先破倭船三十 至固城 聞京都已陷 大駕去邠 西向痛哭 引兵還營 均復請兵 公還赴露梁 破十三艘 追至泗川 丸中于肩 猶不釋弓 終日督戰 人莫知之 六月又戰于唐浦 賊駕層樓畫船而來 以片箭 殪金冠錦袍之酋 盡殲餘賊 日午 賊船又大至 公以所獲倭船 置前行 去賊里許而焚之 火藥暴發 焰騰響震 賊大敗而走 全羅右水使李億祺 亦來會合 戰於固城 又射層樓大酋殺之 破三十餘艘 賊登岸而走 遂與億祺還營 賊又向湖南 公又進兵固城 賊船蔽海而至 佯退誘賊 至閑山島 破七十餘艘 賊酋平秀家(脇坂安治가正確)脫身走 死者幾萬人 倭兵震恐 公在陣 晝夜戒嚴 未嘗解甲而臥 一夜月色甚明 公忽起 飮一盃 悉召諸將曰 賊多詐謀 無月時 固當襲我 月明 亦應來 不可不警備 遂吹角 令諸船皆擧碇 俄而候船告賊來 落月掛西 賊船從陰黑中來者 不可勝數 中軍放大砲吶喊 諸船皆應 賊知有備 遂不敢犯而退 諸將以爲神 公進擊釜山 欲覆其根 賊皆塞登高 遂燒空船百餘而還 公連奏捷音 上嘉之 加階至正憲下書褒美 公請移鎭閑山控制兩道 朝廷許之 遂置水軍統制使 使公兼領 統營之設始此 <李忠武公神道碑>

蓋賊本欲水陸合勢西下 賴此一戰 遂斷賊一臂 行長雖得平壤 而勢孤不敢更進 國家得保全羅忠淸 以及黃海平安 沿海一帶調度軍食 傳通號令 以濟中興 而遼東，金，復，海蓋與天津等地 不被震驚 使天兵從陸路來援以到却賊者 皆此一戰之功 嗚呼豈非天哉 <懲毖錄>

乙未二月 以元均爲忠淸兵使 初元均 以散兵依李舜臣 成功而朝廷察舜臣功大 一朝陞至統

制 均恥出其下 遂不遵制節 舜臣絶口不言長短 自咎乞遞 朝廷不得已移均忠清兵使 均積憾不釋 締交朝貴 搆誣舜臣百端 自是右均者衆 謗言盈廷 <宣廟中興誌卷五乙未>

元均怨公之位在己右 以爲 爲公所擠而然每逢人 必垂泣而道之 或至臨戰號令 亦不遵 公謂與賊對壘 必誤大事 乙未二月啓聞請遞己職 朝廷以大將 不可變易 遂移拜元均忠清兵使 裵楔代元均爲水使 楔性矜己傲物未嘗向人低心 及來陣中 見公處事 出語人曰不圖得見豪傑於此島之中矣 <忠武公遺事>

元均在忠清道 一以詆公爲事 故毁言日 至於朝廷而公略無所辨 亦絶口不言元短 時論多右元而欲傾公 <同上>

舜臣以本營地勢偏在 請移鎭閑山島 控制兩道 島在巨濟縣南 乃兩湖水路咽喉也 朝廷遂置水軍統制使 以本職兼領之 初元均以單舸控于舜臣 聯名奏捷而朝廷察舜臣功大 陞至統制 均恥出其下 始與之貳 舜臣每優容之而均粗暴肆忿 不遵節制 舜臣恐誤大事 引咎乞遞 朝廷不得已而移均忠清兵使 均積憾不釋締交朝貴搆誣舜臣 倭將平行長曾以馬島事我國 至是先驅入寇 慭見我人詐請通欵 朝廷欲脫出被俘王子使慶尙兵使金應瑞往復議事 平秀吉因此行間使行長麾下要時羅密報曰 和事不成 全由清正主戰 今方再來 若令舟師邀擊洋中 止殺此人則兵自罷矣 及指言清正船旗牌彩色 朝廷偏信之 促舜臣進擊 舜臣疑其言詐而不可測 守便宜持難者數日 要時羅又來言 清正已過海泊岸何爲 失此機會 於是臺諫交章劾以逗留之罪 體察使李元翼明其不然 柳成龍本以薦主嫌不敢救 蓋是時朝論已岐矣 上遣侍臣廉問 侍臣亦黨於均 反實以聞 丁酉二月舜臣遂被逮就拷 將置重典 相臣鄭琢白 上言舜臣名將宜赦罪責效上亦念其功 特原之 命從軍自效 時舜臣母 在牙山病沒 舜臣便道奔哭成服即行 歎曰吾一心忠孝 到此俱喪矣 軍民遮擁號泣 遠近嗟惜 元均代爲統制 盡反前政 貯妓于運籌堂 酣飮不省事 捶焚殘虐 一軍離心

<洪良浩著 海東名將傳卷四>

我兵死者無數 安治僅免歸金海 安治憤敗 又率殘兵 攻舜臣奪其船

<羅山撰安治碑陰，藩翰譜>

嘉隆嘉明舟七日(七月)抵加德 八日泊唐島 九日敵艦大小百餘艘來攻 火砲火矢如雨 我軍亦發大砲 互有殺傷 戰自辰及酉 敵船有以全鐵裝者 我砲不能傷而敵軍火箭用長大勁幹鐵箭咫尺而發 我將帥在樓者殆危急 及戰酣 見白衣烏帽人徜徉每船艫舳間 船人視而異之 嘉明軍師某曰此本邦諸神護之也 時敵所發火箭多半途而碎散 中船者無幾 將帥樓櫓無一中者 日旣晩兩軍交綏 嘉隆嘉明還釜山

<高麗船戰記>

二十九日 敵船數十艘至唐島 侵福島正則等營 正則伏兵于海岸 出輕兵誘之 敵以爲寡兵易與相競而進 義弘令其臣伊集院抱節齋援之 正則燒敵艦一艘 敵退去 十月朔 敵船逼義弘城下大發銃 義弘不遽戰 欲誘致而殲之 敵亦不戰而退 八日 唐島敵船皆徹回 先是義弘嫡子久保病卒 次子忠恒請赴朝鮮 秀吉許之 此月晦來唐島義弘營 <征韓錄>

三十四，安骨浦 海戰(壬辰年七月十日)

諸將進至安骨浦前洋 又有賊船四十餘艘 內有三船 上建層樓 諸舡以次列泊 賊旣累敗 懼其直冲 前據淺港 負固不敢出 舜臣督諸軍 休番迭進 日暮海霧四塞 餘賊二十餘艘 乘夜絶港宵遁 追斬一百五十餘級 溺水死者 又不紀其數 於是軍聲大振 進階正憲大夫 舜臣戰勝 輒戒諸將曰 狃勝必驕 諸將愼之 時賊累窺湖南信然未已 舜臣以爲 國家軍儲 皆靠湖南 若無湖南 是無國家也 極智殫慮 忘生殉國 遂斷賊之一臂 行長雖得平壤而勢不敢更進也

<申鑑撰 再造藩邦志二>

又逆擊援兵于安骨浦敗之 賊登岸走 燒其船四十艘 倭中傳言 朝鮮閑山之戰 倭兵死者九千人云 事聞舜臣 賞階正憲 下書褒美

<宣廟寶鑑卷之八>

諸軍進至安骨浦前洋　又有賊船四十餘艘　中有三船　上建層樓　諸船以次列泊　賊旣累敗　懼我直衝　前據淺港負固不敢出　公督諸軍　休番迭進　日暮海霧四塞　餘賊二十餘級　乘夜絶碇而遁　是役也　斬二百五十餘級　溺水死者又不紀其數　軍聲大振　進階正憲大夫

<李恒福白沙集卷之二十一>

初九日(壬辰七月)加德指向安骨浦　倭船四十餘隻留泊　探望軍進告故與本道右水使及慶尙右水使　相議討賊之策　日已向暮　逆風大起　不可進戰　亘濟温川島經夜

初十日　曉頭發船　本道右水使　同浦外洋加德邊結陣　我若接戰則留伏馳來事約束　臣率舟師鶴翼先進　慶尙右水使繼臣之後　到安骨浦　望見船滄　倭大船二十一隻　中船十五隻　小船六隻來泊　其中三層有屋大船一隻　二層大船二隻浦口向外浮泊　其餘船鱗次列泊　同浦地勢狹淺潮退則成陸　板屋大船　容易出入不得　再三誘引　其先運船五十九隻　於閑山島海中引出　無遺焚滅斬殺　故勢窮則欲爲下陸之計而據險結船　畏怯不出勢　不得已　令諸將等　迭相出入　天地玄字銃筒及各樣銃筒　長片箭等　如雨放中之際　本道右水使　定將伏兵　後馳來合攻　聲勢益倍　有屋大船及二層大船所載之倭　幾盡死傷而死傷之倭　一一曳出　用小船載出他船之倭　移載於小船　合入層閣大船　如是者終日　故亦爲幾盡撞破　餘生倭賊則　盡爲下陸而下陸之賊　未及盡捕　居民竄伏山谷者甚多　盡焚其船　致成窮寇則竄伏之民　未免魚肉之禍　故姑退一里許經夜

十一日曉頭　還爲圍抱　賊倭等蒼黃絶碇　乘夜逃遁　探見昨日戰處則戰死之倭　十二處聚積焚燒　尙有餘燼之骨　手足狼藉　同浦城内外　流血滿地　處處赤色　賊人死傷　不可勝計　同一巳時梁山江金海浦口　甘同浦口　並爲搜索　俱無賊形　自加德外面　東萊沒雲臺　列船結陣　嚴示軍威　探望賊船多寡　來告事　加德鷹峰　金海金丹串烟臺等處　候望軍定送　同日戌時　金丹串定送望軍　慶尙右水營水軍許水光　進告內　烟臺探望上去時　峰下小庵　有一老僧　率往烟臺　梁山金海兩江深處及以至兩邑看望　則賊船分泊之數　兩處合計　猶有百餘隻許　所見如是而聞近間　每一日五十餘隻　或作綜連十一日　自本土同江入來　昨日安骨浦接戰時　聞放砲聲　去夜幾盡遁還　只餘隻云云　可知其畏怖逃遁之狀十一日暮投天城堡暫留　欲使賊　疑我久駐之慮而乘夜回軍

<李忠武公全書卷三，狀啓二，見乃梁破倭兵狀>

三十五，第1次 錦山 戰鬪

(壬辰七月自九日至十日)

時高敬命之軍　次于礪山　將向尼山　聞鳥嶺之賊　分向黃澗踰錦山而郡守戰死　賊勢猖獗　麾下士欲還救本道　敬命亦然之　遂移兵珍山　將擊錦山之賊　銳士就募者愈衆…中略…遂向錦山　約防禦使郭嶸爲左右翼　自發精騎數百　直趨賊巢　爲賊所乘而退　敬命鳴鼓督戰　無不冒死爭先　還蹙賊兵于土城　盡焚城外舘舍　又以震天雷　延爇城内家舍　聲勢甚壯而被虜婦女　竭力汲水而救之　賊冒死突出　義兵四面攻圍　賊多被死傷不敢出　會日暮　官軍又不肯助戰　城且完厚　不可猝拔　乃退師還陣　是夕防禦使　使人約以明日合戰　敬長子從厚言于敬命曰　我軍得利　持此勝勢　全軍而返　可以相機更出　以困賊兵可也　若與賊衆　對壘野宿　不無夜擣之患敬命曰　爾以父子之情爲憂乎　吾爲一死職耳　從厚不敢再言而退　防禦使乃罪諸將不戰者　以待翌日更戰　是夜賊果謀襲　義師哨探　卒聞川上有人馬聲　散向田中候之　賊之先伏田中者　以爲義兵覺其謀　遂退走　翌日與防禦使　進兵距賊壘五里許　敬命先遣八百騎挑戰　賊空壁而出直犯官軍　靈岩郡守金成憲策馬先遁　賊又薄光州興德兩陣　防禦使望風而潰　敬命乃爲獨當之計　令將士皆持滿而待　忽有一人呼之曰　防禦陣潰矣　義軍因以崩潰　敬命坐而不起曰　吾不閑馬　今已敗潰　惟有一死耳　幕下士安瑛等　請敬命上馬曰　今且退保　更圖後擧可也　敬命曰

吾豈苟免者哉　君可速出　麾下士強扶而上馬馬逸而墮　安瑛下馬授敬命而徒步從之　賊逼洩急敬命方在危急之中　從事柳彭老馬健先出　顧問其僕大將脫乎　曰未也　遽策馬而還入　以從敬命其僕叩馬泣諫　彭老不聽　以劍斫之　其僕不得已釋馬銜　隨後從之　敬命見彭老之入　謂之曰吾必不免　爾可馳出　彭老曰　吾豈忍棄大將獨自救活　賊將及敬命　彭老及瑛　以身捍蔽　與之俱死…中略…時敬命次子因厚率武士前列　出入矢石間　及軍潰　下馬據床　整其所率部伍　搏戰良久　力盡而死　敬命長子從厚　乃收敬命之尸　權厝于山寺　更收拾散亡　號其軍曰復讐　先是敬命等遣梁山璹赴行在　其還上面喩曰　歸語敬命等　及時恢復　俾予得見爾等面目有日也　授敬命工曹參議知製敎兼招討使…中略…

梁山璹等至敬命之軍而敬命已死矣　山璹乃以敎書頒布宣諭　遺軍餘民　悍將頑卒　莫不揮涕飮泣　人比之奉天哀詔焉　山璹乃還向江都　詣金千鎰軍中　敬命以廢居大夫　一朝奮義　號召烏合　事雖不成　義烈昭耀　可愧肉食者　朝廷聞敬命之死　莫不歎惜　上亦痛悼　命贈敬命資憲大夫禮曹判書兼弘文舘大提學藝文舘大提學春秋舘成均舘事　贈因厚禮曹參議　贈彭老司諫院司諫　贈瑛掌樂僉正　因專祀光州　賜額曰褒忠祠　<申靈撰　再造藩邦志二>

高台軒敬命　樹義於壬辰之亂　台軒之子從厚　以復讐起兵　又死於晋陽城陷之日　父子同節　媲美於晋之卞門　從厚亦能文章　倚馬草檄　華藻驚人　<申欽撰　象村雜錄>

初敬命等起兵　前佐郞梁山璹面達形勢於行在山璹還　上面諭曰　歸語高敬命金千鎰等願爾等及時恢復　俾予得見爾等面目　遙拜敬命工曹參判　是月初九日　敬命與防禦使郭嶸合兵　盖敬命二子　從厚仁厚等各募南原金堤臨陂等邑糧兵　期會于礪山　因進兵湖京以達平壤矣　幕下諸將聞黃澗永同之賊　踰入錦山　固請還救本道且聞全州勢急　不得已移兵入珍山　與嶸爲左右翼　進屯錦山十里　敬命發精騎數百　侵賊軍官金廷昱馬傷退走　我軍稍却　至夕敬命使呈才人三十　走入城底　土城　焚城外公私家舍　放震天雷　延爇城內倉庾　日暮　各斂兵　郭嶸不能進兵同事乃遣珍山　倅來議明日之事　從厚進言曰　今日我軍得利全軍而返相勢更來困賊可也　恐有夜驚之患　敬命曰　爾以父子之情　畏我死乎　吾爲國一死何傷　是夜賊果謀犯邏卒所覺

初十日丁卯黎明　官義諸陣　進軍賊所　敬命遣八百餘騎　挑戰未合賊空壁而出　先犯官軍前鋒靈岩郡守金成憲先走　賊因逼光州興德等陣　郭嶸亦望風而潰　敬命爲犄當之計　令士皆持滿以待　忽人急呼曰　防禦陣潰矣　義軍因以崩潰　敬命嘗曰　吾不閑騎馬　不幸戰敗一死耳　至是左右請馬而跳　敬命曰　吾豈苟免者哉　麾下扶之上馬施　墜馬　馬逸　敬命麾下幼學安瑛下馬授之　徒走以從　從事柳彭老馬健　先出問其僕曰大將脫乎　曰未也　彭老策馬還入　敬命顧曰　吾必不免　爾可馳　彭老曰　吾豈忍棄將求活　賊鋒遂及　彭老自以身扞蔽　敬命遂與安瑛等同死　敬命次子仁厚在前列　及軍潰　下馬整其部伍　卒死之　長子從厚不知父弟之死　東出於潰軍之中收餘兵名曰復讐　近縣士民聞其死　哭聲振野　潰軍不知其死　稍集及聞不幸　皆號泣而散　敬命以白首書生　當板蕩之日　伏義而起　愚婦悍夫聞風爭赴　故旬月之間　義旅至數千人　人以爲義色發於至誠感動人故也　工參招討使之制及所賜敎書皆未及到　事聞贈左贊成

<春坡堂日月錄卷之八>

義兵將高敬命　討錦山賊兵　敗死之　敬命以所募兵六七千團束北上　軍次礪山　聞倭入湖界　麾下士還顧本道　爭請先討內賊然後北征　敬命從衆議　移兵珍山　時賊退據錦山　厚陣自固　敬命與防禦使郭嶸　逾嶺入險　直薄錦山城外　嶸先遣銳士數百　嘗賊爲賊所乘而退　敬命鳴鼓督戰還蹙賊兵于外城內　發火礮衝燒賊所舘舍　賊不敢出　翌日黎明　復與防禦使進兵城外　官軍攻北門　敬命攻西門　賊知官軍陣脆　悉衆以出奮擊官軍　官軍大潰　敬命令軍士　持滿以待義兵急叫曰　防禦軍潰矣　從而奔潰　敬命墜馬　馬逸從事官學諭柳彭老馬健　先出問其僕曰　大將免

乎 曰未也 彭老遽策馬還入亂兵中 敬命顧曰 吾必不免 爾可馳出 彭老曰 豈忍棄大將求活 遂與柒翼蔽敬命 同死於賊 敬命次子因厚亦赴鬪死陣上 敬命從事文學 不習弓馬 年又衰老至是首倡義兵徒以忠義激厲士衆 深入險阨 挺身當敵而死 功雖不就 義聲感人 繼起者多 國人誦其忠烈 久而不衰 初上聞敬命起義 命授工曹參議兼招討使 賜書褒勞 工曹佐郞梁山璹 自行在南還 上面諭曰 歸語高敬命金千鎰 願爾等及時恢復 俾予得見爾等面目有日也 命未至而敬命敗死 追贈禮曹判書 其後立祠于光州 賜額褒忠 <宣廟寶鑑卷之八>

高敬命起兵北上 聞衆已據錦山郡 有衝發之勢 敬命曰 我等皆恃湖南 爲之根本而見賊不逐 惟以北行爲意則 是自絶其根本 不如還兵擊之 以去後顧之心 然後衆情可安 遂還次錦山境 翌日欲決戰 時我國男女自賊中來言 我乃逃還人 敬命遂悉心撫循 置軍中 不疑其爲細作 是夜賊乘暗斫營 衆聞敬命已死 或戰或去 敬命子因厚 陷陣而死 正字柳顔老在外陣 聞敬命父子死曰 謀人之軍事 事敗死之 禮也 我豈可獨生 亦策馬赴鬪死 諸軍遂潰歸 敬命之起也 南中士子怡然從之 徒以忠義相勉 實不知兵 敬命對人言 廟社不守 至尊蒙塵 正吾輩致死之秋 草檄諭諸道 見者莫不曲踊而起 然師行無紀律 所到未有營陣之備 每日雖以赤手徒搏 至死不避則賊可勝矣 泛愛無備 竟至於敗 辛卯秋 敬命致書於鄭琢曰 敬命一家 明年當有大禍 父子俱不免 盖推占之辭也 朝廷贈禮曹判書大提學

<朴東亮著 寄齋史草下壬辰日錄三>

三十六，牛脊峴 戰鬪(壬辰年七月十日)

慶尙右兵使金沔卒 以崔慶會代之 以高 彦伯爲慶尙左兵使 沔以書生起兵 善戰積功 爲兵使督諸軍 進臨賊窟 倭退縮不敢動 妻子在近地 流離飢餓而一不相見 人稱其忠 至是遘癘以卒 <宣廟中興誌卷三>

沔高靈人也 與仁弘同時起兵 數日之間 聚衆二千餘人 擊敵于洛東江 獲兩全船 收其所載皆宮中寶物也 於是沔居昌屯 仁弘高靈屯 與再祐兵 相連聲勢 江右一帶 賴以安保

<宣廟中興誌卷二壬辰>

高靈人 前佐郞 故武將世文之子 於賊于居昌牛脊峴 累郤賊 事聞 擢爲右兵使 病卒於軍牛省草(居昌郡高梯面鳳溪里地境領) 六十峴(全北長水郡溪內面) <懲毖錄卷一>

三十七，第1次 平壤城 戰鬪
(壬辰年七月十七日)

時朝廷連遣使臣 請救於遼東 冠盖相望於道 遂遣副摠兵祖承訓 領七千兵馬以來 七月初 寬奠副摠兵佟養正 設撥兒于順安 與我軍同進退連日日斬賊積至千餘級 佟摠兵轉報撫安衙門遂調騎兵七千以遣 盖輕之也 祖摠兵率渡鴨江柳成龍金命元等以爲 天雨路滑 不宜急擊 祖摠兵以爲 我常以三萬騎兵 殲盡十萬㺚子 覷倭賊如蟻蚊耳 因要進兵 時我軍斥候將 順安郡守黃瑗 馳報於金命元曰 倭賊盡向京城 居留者極少 被擄女人 於城上屢呼官軍 乘此機攻城 可得成功 祖摠兵見此報 以爲信曰 我軍中亦有善占者 言十七日城可破 正與此報相符 遂下令軍中曰 明曉進城 破賊後當食 令旣布 遂進平壤城下 城門下閉 城上亦無一賊防守者 平明大軍由普通門入 哨軍已到大同舘前 呼吸前時無一賊出應之 大軍遂由大街駈而進 賊於左右傍室鑿壁穴 一時放銃 聲震天地 遊擊史儒中丸死 祖承訓見其死 遂策馬先遁 大軍潰亂奔走 賊追擊大敗之 遼軍還者僅三千人 祖摠兵一日馳三百里 柳成龍邀謂曰 我國則已矣 獨不念七千衆命乎 當留此處 收拾散卒 從容回軍 何若是去之顚倒乎 祖摠兵曰 我當到嘉山阻江以爲守也 是役也 人馬殆盡 器械無餘 賊若更出一步則 諸軍喪膽之餘 必不得晷刻支撑而賊亦見天兵聲勢 爲之斂避不出焉 時朝廷日夜待捷而祖摠兵恃勇廣敗 卷甲而還 上下喪膽相聚頓足而已

<朴東亮著寄齋史草下 壬辰日錄三>

承訓遼左勇將屢我有功　是行謂倭賊必可取　以史儒爲先鋒　自順安三更發兵行數十里欲止之占者王鑾子言此日軍行最吉承訓信之　遂進發到平壤　適大雨 城無守兵 冒大雨從七星門入直馳下大同館前　城内路狹多委巷馬不能展足 賊大驚突出亂發鳥銃　史儒遊擊戴朝弁及千摠張國忠馬世隆中丸即斃……誣告遼鎭方戰時朝鮮兵一陣投順于賊陣故不利云　摠兵楊紹勳移咨詰責　朝廷遣使辨誣……賊氣益蹲投書我軍有群羊一虎之語羊諭天兵虎以自諠聲言朝夕將西犯　義州朝野震懼　<朝野僉載卷之二十七>

是日至順安　三更行數十里　兩將議欲進兵　軍中有王鑾子者　號善卜 承訓問之 鑾子言　此日最良兵事　毋退 承訓然之　遂進兵　黎明抵城下揮兵毁城　承訓從七星門而入城内路狹　且多委巷　馬足不可展　賊依險阨　亂放鳥銃　鐵丸如雨史游擊挺身搏戰　軍馬多死 儒乃自城上射賊 賊知其爲將領　齊力放丸　中儒而墮　戴朝弁千摠張國忠亦中丸而死　承訓及馬世隆創傷奔還　世隆墮馬而死　後軍陷泥淖中　不能自拔者　悉爲賊所害　承訓軍潰 一夜馳二百里 竟卷還至安州城外 立馬呼譯官朴義儉曰 吾今日多殺賊矣 不幸史游擊傷死　天時不利　大雨泥濘　不能殲賊當添兵更進耳 語汝宰相無動 浮橋亦不可撤 言畢馳至二江　軍駐控江亭　盖摠兵既敗之後　膽慴心動　恐爲賊所追躡　欲前阻二江　故疾急如此……中略……承訓留控江亭二日　連大雨　諸軍露處野中　衣甲盡濕　皆怨承訓　不得已退還遼東 <再造藩邦志二, 大東野乘卷七(四七三面)>

中朝已發一枝兵來援　副摠兵祖承訓史儒等領遼軍三千　過江進攻平壤　史儒戰死　祖承訓引潰兵遁還　及黃應暢等(時上國地方訛言起至云朝鮮引倭嚮導傳徹京師兵部遣黃應暢等來覘實狀)回去　兵部審知實狀力奏請救

<攷事撮要上 (四〇面)>

十九日　承訓以儒爲先鋒　自順安三更發　軍行數十里欲止　占者王鑾子言　此日最吉　承訓信之　遂進兵 史儒先登城　中丸死　戴朝升 張世忠 馬世隆皆死　承訓乃退軍一夜馳二百里捲還遼東　先是摠兵楊紹勳移帖云 既不以社稷爲重遠避棄國則軍民亦因之無戰心　欲求不潰難矣國王立心果係如何　勿終於執迷　貽笑萬世　及承訓敗於平壤 報紹勳曰方戰之時　朝鮮軍中 有一小營　投順于賊 紹勳又移咨詰責

<春坡堂日月錄卷之八>

遼鎭遣摠兵祖承訓　參將郭夢徵 游擊史儒王守臣戴朝弁等　領馬兵三千　攻平壤不克　儒朝弁中丸死　承訓退還遼東　誣告　遼鎭方戰時　鮮兵一陣投降賊陣故戰不利云 上遣使申辨

<宣廟寶鑑卷之八>

壬辰五月 宣廟駕次平壤　移咨遼東告急乞師 六月駕到義州　續遣使遼東告急　中朝調遼兵三千餘人 副摠兵祖承訓領之 游擊將軍史儒爲副 七月渡江進攻平壤之賊 至順安遇雨　行數十里 兩將議欲止兵　軍中有王鑾子者　號善占　承訓問之 鑾子言此日最良　兵事毋退 承訓然之 遂進兵　黎明抵城下　麾兵毁城東北隅　儒登城射賊賊放火炮　中之儒死　承訓及千總馬世隆亦創傷世隆墜馬死　承訓軍潰　一夜馳二百里　竟捲還我國大震駭請援於遼廣者冠盖相望　兵部題請奉聖旨著遼東　發精兵一枝銀二萬兩　俾赴彼國犒軍　且差游擊將軍張奇功　發銀糴買芻糧　搬到義州以濟軍餉參將駱尙志　領南兵屯江岸 又差沈惟敬入平壤城　與行長等約限城外四十里立標毋得出掠而大兵猶未出

<象村集卷之五十六 天朝先後出兵來援志>

天將祖承訓史儒等圍攻箕城　大敗還 初承訓等自義州進軍順安　不知彼賊兵勢　亟欲交鋒　只緣兵少　留待繼援　至是承訓分軍四哨　每軍各使我人百名爲先導　史儒爲先鋒 夜行六十餘里黎明進薄平壤　攻破城門　喊殺連天　矢石如雨賊兵佯出大同門 史儒遽入城　行長等督軍逆賊亂殺靡遺　史儒死之　祖承訓等收餘兵　奔還遼東　<趙慶男撰 亂中雜錄一>

先是祖承訓　至義州　史儒以其軍爲先鋒　祖乃遼左勇將　累與北虜戰有功　是行　謂倭必可取至嘉山 問我人曰　平壤賊 無乃已走耶　曰不退

承訓擧酒仰天祝之曰 賊猶在 必天使我成大功也 是日 自順安三更發軍 進攻平壤 適大雨 城上無賊守兵 天兵從七星門入 城內路狹多委巷 馬足不可展 賊依險阨 亂發鳥銃 史遊擊中丸即斃 軍馬多死 祖遂退軍 賊不急追 後軍陷泥潦中 不能自拔者 悉爲賊所害 承訓引餘兵 還過順安肅川 夜中至安州

<懲毖錄一 (三二面)>

兵科給事中 許弘綱題據報 副總兵祖成訓 征倭兵馬攻入平壤城 遊總史儒張國忠馬世龍等俱傷 官兵多相失 承訓何人不遵相機進止之論而貪功取敗至此 反令全遼喪氣 倭勢鴟張 宜亟正失機之罪 仍令督撫申飭諸將 勿以小敗自阻 亦不必以深入爲功

兵部覆議如科臣言

命革承訓 任行巡按御史提問

<皇明實錄第三百九十一>

七月十六日 援師至安定攻平壤 時霖雨 我師不諳地利 馬奔逸不能止 爲倭擊盡殪史儒死之祖承訓僅以身免 報至 朝議震動 請止登萊天津旅順淮陽 所在添募設防

<皇明二祖十四宗增補標題評斷實紀卷之二十>

七月遼東巡按李時孳 遼陽守道荊州俊 奉命遣遼將祖承訓 同史遊擊 選卒三千人 渡鴨綠援朝鮮 時二將所統皆遼東馬軍 不諳地利 亦不知攻倭之法 又天時淫雨山水暴流 馬濘久蹄爛 一登坡嶺 足爪盡裂 倭又以逸待勞 七月十五至平壤安定舘 營未定 是夜賊至 我兵遂亂 倭衆多戴鬼頭獅面 官馬見之驚退 陷淖中不得起 士皆卸甲下馬 墜崖落奔入爛田中 倭劍逼及之 史遊擊沒于陣 承訓僅以身免 三千人回者數十人而已 報至擧朝震驚京師戒嚴

<兩朝平攘錄卷之四>

祖摠兵之敗還也 恐獲罪揣拊安鎭三衙門 謂其方攻城垂克之際 朝鮮一營 投倭助戰 矢石如雨 是以見敗 廣寧鎭守摠兵官掛印 將軍楊紹勳領兵到九連城 親爲之探虛實 上遣尹斗壽 極陳無理之狀 摠兵答曰 拊安兩御史 亦已知其誣也 況俺親聞本國情 豈不洞釋前疑 可放心

斗壽因言 人邦兵力已盡 朝夕就滅 小邦旣亡之後 必將爲天朝東顧之憂 提兵勦滅 存已絶之屬國 紓宵旰之殷憂 惟將軍事也 不然小邦君臣 未久爲鴨江之鬼 恐不得再見天日 泣不已 摠兵曰 天朝事體 動必萬全 朝裡已令多官會議 或有限鴨江爲之防守 不可遠救外國之論俺等亦具一本 時無下落 貴國亦當敦勅邊臣 十分截住 勿使疎虞 以待朝廷處置 貴國君臣 自此益堅事上之節 終始不貳則聖皇在上 自當降鑒 勿慮也 <朴東亮著寄齋史草下 壬辰日錄三>

譯官韓潤輔 以事到遼東 巡按御史李時孳召謂曰 爾國惡的將領官 投倭效順 使天兵折損過半 至於軍還之日 不放軍糧馬豆 率致倒斃 是何道理 對曰 小邦小性 原來脆怯不能作惡 雖或見槍苟從 亦不過畏死耳 豈有無故自就罪于天日 在萬無此理 至於兵敗之後 大軍日馳三百里 人馬安得不死傷乎 此小邦無福之致 其間曲折 有口不敢說 巡按笑曰 爾說的是 由此祖將之誣不得行 朝廷亦遣官卞誣 巡拊御史郝杰亦曰 此不過祖承訓欲脫罪 貴國勿多慮也 祖承訓前後事狀 自朝廷亦難於明言 未得可對之辭而韓潤輔以譯官 只擧有口不敢說一句話 能卞其誣而其敗衂顚倒之狀 又隱然而彰 時以爲能應變

<同上>

祖摠兵旣渡江而歸 揭報於遼東摠兵楊紹勳曰朝鮮悖順於戰之時 朝鮮有一小營 投戰于賊故戰敗 紹勳貽咨責之 山海關主事張棟亦信承之言 致疑不已 兵部乃差錦衣都指揮使黃應暘馳道義州 更審事情 上迎于中江 應暘欲得倭書以驗之 禮曹判書尹根壽以賊在大同江所遺書二度示之 應暘不信 李恒福自在京師時 已憂此事 乃搜求辛卯通信使等所賚倭書而來 乃以其書示之 應暘撫膺大痛 對上涕泣曰 貴國之情如是而不免天朝之疑 爲天朝受兵而反被惡名 天下寧有是理乎 吾當爲朝鮮伸理耳 即馳還告于兵部尙書石星曰 朝鮮君臣 奔越草莽寧以國斃 不負天子之恩 不可不發兵救之 石星聞而心動 乃請發兵救之

<再造藩邦志卷二>

三十八, 海汀倉 戰鬪(壬辰年七月自十八日至十九日)

北道兵使韓克誠(諴) 率六鎭兵 相遇於海汀倉 北兵善騎射 地又平衍 乃左右迭出 且馳且射 賊不能支 退入倉中 時日已暮 軍士欲少休 俟賊出 明日復戰 克諴不聽 揮其軍圍之 賊出倉中穀石 列置爲城 以避矢石 從其內多發爲銃 我軍櫛比而立 重疊如束 中必貫穿 或一丸斃三四人 軍遂潰 克諴收兵退屯嶺上 欲天明更戰 夜賊潛行環我軍 散伏于草間朝大霧 我軍猶意賊在山下 忽一聲炮響 從四面大呼突起 皆賊兵也 軍遂驚潰 將士向無賊處奔走 悉泥濘中 賊追至芠刈 死者無數 克諴遁入鏡城 遂被擒 兩王子臨海君順和君 俱至會寧府

〈懲毖錄卷一〉

李瑛等兵 退踰磨天嶺 與北兵使(韓克諴)合兵一千餘名 軍于吉州臨溟地 接戰斬倭七級 富寧府使元喜戰歿 妖言流聞 軍情益搖 北地精銳之兵 太半宵遁 翌朝賊兵來襲 餘軍一時自潰 兵使以下僅以身免 欲退守鏡城爲白良置 人心已散 城內(鏡城)如掃

〈鄭文孚의 農圃集卷一狀啓〉

三十九, 永川城 戰鬪

(壬辰年七月自二十六日至二十七日)

(一) 二十三日……朝 河陽兵至 公(權應銖)進軍瓦村 修軍器鍊士卒 抄選勇健人 登郡之西峰 候望賊衆多少 賊列陣馳馬于城外 或處處蜂屯蟻聚 不知其數 時 鄭大任率鄕兵百餘 自郡北來會 本郡守金潤國亦自本家趣駕馳來 並與同事 日晡時 青松義興等兵 皆來會 摠三千五百六十餘 分爲三部 以申海爲左摠 崔文炳爲右摠 鄭大任爲中摠 洪天賚爲前鋒將 推金潤國爲大將 潤國固辭曰 招諭使金公(金誠一)旣以公爲義兵大將 不可違命 且諸軍願屬於公 豈可推移於他庸下之人乎 乃以潤國爲別將 鄭世雄鄭湛爲贊畫從事 書諸旗曰 倡義精勇軍

二十四日　　　　黎明試旗鼓 公具堂上笠飭出坐 威儀儼然……乃下令曰 惶怯亂言者斬 見賊退五步者斬 任自擅斷不用將命者斬 臨戰失伍者斬 將士皆應曰 軍中聞將軍令 其敢有違當如約…… 時兵使朴晋 在安康 聞公討賊 使軍官邊應奎 致辭於公 以相勸勉 且送軍器火藥等物 是日辰時 整齊軍容 出屯于郡之前野 賊數百 浴馬南川 見我軍之來 走入城 城中之倭 登堞而望 公列陣楸坪 建精勇旗 取蒭作偶人 持弓矢列立于陣前軍人之間 令庶弟應平 率驛士五百人 馳突於賊所望見之地 又遣兵斫木立柵陣外 別遣軍人 登高峰候望他賊援兵之至

二十五日……四更後 月色如晝 公與應平潛往起登城外柳樹上 俯瞰城中則 被虜男女甚多 賊徒圍匝其外 使不得任意起動……公發片箭一矢貫三人 賊驚擾 燃火而向矢發處放丸……城中騷然 東方漸明 乃還 黎明又選壯士四百餘人 潛伏川邊林藪中 常逐汲水倭人 賊由是不得飮水 只茹乾糧 日益困疲 又遣兵千餘取枯柴乾草時積城外 以備火具 又慮其有濕氣難燒 紙裹火藥 蒺藜砲 藏於其中 伐山野大木長竹 輸入陣中 多造長梯 防牌楞杖 又撤取人家蓋草空石網席等物 以爲日後之用 伊時慶州人權士諤 孫時 崔震立等 得精兵數百而來 自安康登愚巷之後山吹角 我軍亦吹角以應之 遂合兵進至川邊 距城數百步許 馳突耀兵 賊鳴鼓吹角……是時湖南流來樂工 多在陣中 公使之鳴笳吹角 以示閑暇 賊望見大笑 愈益怠慢 於是公躍馬而出 射倒黑段衣將倭 登城之賊 即爲走入 日晡時賊向我軍 發大砲丸 如沙椀 我軍中死者三人 昏後賊列炬往來 有相與謀議之狀…… 是夜二更 令軍卒編長篠木 爲火簣 潛立東城外木簣內列立板木 又其內多積土 成阜平臨城內 以爲放矢避丸之地

二十六日……平朝饗士 乃選敢死者五百人使應平 李蘊秀 洪天賚領之 爲先鋒 三吹打後公與諸將統大軍 鼓行至城下 賊衆擺列城上 放丸叫噪 公登土阜上 建精勇旗 放號令砲 諸軍各持長梯 負防牌 薄城以示踰入之狀 將倭三人著銀盛金假面 錦袴鼎坐門上 揮扇督衆 開

門悉出兵 以逆之 蓋見我兵少 欲爲蹵路蹂躪也 公所選五百人 奔之衝其中堅 應平揮劍而進 賊之觸傷者亦多 連斬七級 李薀秀亦馳馬而進 馬蹶不能起 賊扼之 應平躍馬叱之 賊追蘊秀乃挺身上馬 亦斬二級 公與善射者 立於土阜上 射輒中 中必疊死 賊大懼莫敢前 俄而騎倭千餘名 又自城中齊聲放丸 我軍少却 公奮身大呼 親自揮旗 策馬馳突 縱橫發矢 他人一發 公則連發三矢 矢如注 所射殺幾至數十倭人應弦而倒 且令勇健之士 取賊屍破腹出腸或斬頭斫額 投諸賊中 賊見之驚駭 大亂失措自相踐蹂 僵屍如痲 我軍乘勝奮勇 無敢當其鋒者 人人所擊殺 多至數三十 少不下十餘 賊敗走入城 將倭見其兵敗 自投城下 鄭大任進斬之即賊之名將法化也 于時日已昏黑 按兵鼓吹而還陣 是夜遣人又作廣梯編木甚密 可一間許 以網席鱗次連附設置 以爲明日踰城之具

二十七日……平明大饗軍 卒直抵城下 無前日擺列雉堞之兵 間有傒倭 或以破衣畏頭者或流血被面者 或喪目傷額者 或着染血衣者而病瘡楚痛之聲 聞於城外 公抄發千餘兵 使各持楞杖鎗劍 分守城外四隅 以截踰城之賊 督諸軍使之踰城時 賊尙強莫利先入城 公之弟應銓亦諫止其輕進 公怒摘其在前不進者數人 即斬以徇 人人畏威奮勇而爭入 公分軍 或攻破城門 或登廣梯 或踰入城之頽圮處 數千軍兵一時鼓譟而入 聲震天地 先斬守堞賊十餘級 我軍兵威益勇健 勢如奔鯨 怒虎長驅而進 至客舍門外 賊兵之伏者四起 與賊巷戰 飛矢如雨是時大風果從東南起 銃藥飄散 賊不能放丸 只以銃筒相搏而已 我軍進斬三百餘級 賊大敗 不知所歸 棄其兵器 走匿客舍衙軒倉庫 或上明遠樓 公令李蘊秀大聲呼之曰 被虜人等 速出來 我今將火攻 於是被虜男女爭先出來 賊勢頓挫 不得禁束 有壯健倭十餘 大叫超乘屋上以瓦片向我而投 又放鐵丸 我軍之中者 亦三人 於是士一時放火 火烈風猛 城外積薪之火又延爇於城內 瞬息之間 烟焰漲天 火藥蒺藜砲 處處爆發 賊徒遑遑 如焚林之鳥 南城之賊投入水 水爲之不流 西北之賊 超越欲走 我軍爭相提擊 出于火者 斃於杖死於火者不可勝數先是賊多藏火藥於官廳 及是亦爲其火藥所衝直上雲霄間而散落川邊及山野 中者如秋風落葉火爛 藏藥之銃丸 自躍出 我軍亦有傷死者移時後有兩賊 超入水深處 我軍以爲必死而置之潜爲膝行於水中 良久乃出於越邊 登岸而走應平拔劍追之 不及而還 得脫而生者 僅是數三人 火焰達夜不絶 腥臭聞于十餘里 燒骨處處縱橫盈坑

二十八日……朝饗軍鼓樂 點閱我軍之死者八十三人 傷者二百三十八人 所得賊物 健馬二百匹 銃筒槍劍幷九百餘柄 寶鞍彩段亦多焉又閱被虜人之歸我者則 男女凡一千九十餘人……鄭湛謹記

<白雲齋實記卷之二 附錄永川復城記>

公奮曰 士平時固自重 國有難則 死之義也 先令諸子編行伍 爲檄募都兵 旬月衆至九百 當是時 郭忘憂起玄風 權應銖起新寧 相與掎角爲聲援而兵使朴晋 擁兵不戰 百計沮義兵 公密遣人上書招諭使金鶴峯誠一 請受其節制 由是進退得自由 卒能收復半嶺云 始遇賊于朴淵大踣之 又戰于永川時 永川賊大猖獗 四出屠掠 公耀兵于楸坪 據馬峴山 乘塵抄賊懼不敢出 乃令敢死士 踰城縱火燒之 軍聲大振

<嶺南誌 永川邑誌湖叟鄭世雅神道碑>

慶尙道永川義兵士子等 二圖滅本郡屯據之賊計策已定 請援于權應銖洪天賚 應銖率數邑兵與申鄭大任曺誠 幷進永川 耀兵于楸坪賊 追至江邊而還 翌日又如之 賊閉門不出又翌日諸軍合勢進圍 攻破城門 踴躍鼓噪而進賊惶怖走入官舍 乃因風縱火 燒殺殆盡 或投水溺死 斬數百餘級 兵使朴晋馳啓 應銖陞通政 大任爲醴泉郡守 曺誠等諸人 賞職有差

<同上 大東野乘卷之二十六>

晋(慶尙左兵使朴晋)乃令前奉事權應銖 鄭大任等 率鄕兵千餘人 圍賊於永川 士卒畏賊不進 二人俱有膽勇 即斬數人 挫身而出 爲士卒先 士卒爭奮 踰城而入 與賊大戰 賊不勝 奔

入倉中……以下略(懲毖錄과 同一內容)

<再造藩邦志二>

陞權應銖通政鄭大任爲醴泉郡守 曹誠等諸人賞職有差 時永川士民圖殲本郡屯據之賊 諸援于權應銖 洪天賚等 應銖率數邑兵 與申海大任誠並進耀兵于楸坪 翌日又如之 賊閉門不出明日諸軍合勢進圍 攻破城門 鼓譟以進 賊走入官舍 因風縱火 燒殺殆盡 或投水溺死 斬數百餘級 兵使朴晋馳啓有命

<春坡堂日月錄卷之八>

別將權應銖擊破永川賊 復其城 安東以下屯賊皆撤向尙州 慶尙左道數十邑獲全 應銖勇悍敢鬪 諸將莫及 事聞賞加通政 爲防禦使

<宣廟寶鑑卷之八>

九月(壬辰) 密陽府使朴晋於賊變初 有戰功 遂陞爲左兵使 率兵進攻永川 爲賊所襲 僅以身免其後新寧人權應銖 募兵千餘人 人持一束薪 乘夜進攻永川 因風縱火 賊大窘 冒火突圍而出我軍亂射之 賊不能出 數千之賊盡被燒死 餘者或投崖溺死 不可勝記 屍臭擁道 人不敢近擢應銖折衝將軍助防將

<朴東亮著寄齊史草下 壬辰日錄四>

永川前訓練奉事權應銖鄭大任擊破本郡賊復其城 應銖與大任等率鄕兵千餘人圍賊於本郡 軍士畏賊不敢進 應銖有擔勇即斬數人挺身而出爲士卒先士卒爭奮踰城而入與賊大戰 賊不勝奔入倉中我軍以火攻之燒死者甚衆 安東以下屯賊皆撤向 尙州慶尙左道數十邑獲全

<朝野僉載卷之二十七>

永川訓鍊奉事權應銖鄭大任等 以鄕士擊永川賊遂復 永川由是左道郡邑得全

<朝野記聞卷之四 壬辰倭難>

某日(八月二十一日) 分精銳一千 耀之楸坪 我以餘兵登馬峴山 乘風飛沙 賊必迷亂不敢出 蟻聚內埤 今有義兵數十人失期 當誅 姑贖其罪使之踰城縱火 賊可大蹶也 大任(鄭大任)曰 諾亦吾志也 計定請援于鄰邑諸將 約日皆來會 權應銖欲先犯 公固止之 乃與約束 四面並進 一時火發 賊窮蹙從東南門跳出 或從明遠樓投水我軍隨遇隨斬 無一倭倖免者 流血成川 腥聞十餘里

<湖叟實記錄之五>

世雅潛遣敢死者數十人 踰城縱火 賊兵爛死殆過半 冒燄烟而逃者 隨遇隨斬 腥血川流 伏屍丘積 由是賊路中斷

<同上 卷之八>

請新寧權應銖爲援兵 七月二十七日 合勢進圍因風縱火 燒殺無遺類

<同上>

四十, 宜寧附近 戰鬪(壬辰年七月未詳日)

學生郭再祐起兵討賊(四月二十七日也最先起) 再祐宜寧人 初聞諸城連陷 散家財募散卒 解衣以着戰士 脫妻子服衣戰士之妻子 收得勇敢士沈大升等十餘人 涕泣誓同生死 集壯士五十餘人 發宜寧草溪倉穀 又取岐江稾船稅米以餉士 人以爲發狂 或以爲作賊 陜川郡守田見龍至以陸賊報 使金誠一聞其檄以勸起士卒還集再祐不問賊之多寡 直前無畏戰時着紅綃帖裡具堂上笠飾 自稱天降紅衣大將軍 馳馬掠陣 隱見無常 賊莫測其端然後 盤馬回旋 擊鼓徐行賊不知其多少 不敢近逼 自結陣處 至賊路二三息之程 連設候望潛報平否 賊到百里之外 陣中先知預備故常逸而不勞 來賊若多於所望山上 令人持五枝炬 從夜擧之 喊聲相應 有若千萬賊徒 望輒遁去 又選精銳 潛伏於要害處 賊至輒射殺之 賊亦謂之紅衣將軍 不敢登岸 再祐又約軍中殺賊而已 斬級要功 非誠心也 以故終無獻級 金晬陣下武士金敬老等交構再祐再祐亦痛金晬之所爲 遂成嫌隙 金誠一以三嘉之兵 付于再祐 領二縣之兵 以尹鐸等爲大將 又以前府使吳澐爲召募官 助以聲勢 鄕之饒戶 出米擊牛 輪日餉軍 軍聲大振 江上下十餘淺灘 皆設伏往來相援 數邑人民作農如平日至是收復宜寧三嘉陜川等邑 右道之賊 頗撤去再祐陣鼎津 以備沿江之賊(出巡營錄)

<春坡堂日月錄卷之八>

十八日(宣祖二十六年六月) 賊兵自咸安渡鼎岩津 郭再祐勢不相敵 左次而退 李賓與權慄李福男等退向山陰 賊入宜寧焚蕩

<同上 卷之九>

玄風人郭再祐本儒生　早棄擧業　有武勇　亦自晦家頗饒財　聞賊渡海　盡散家藏　交結材武　以爲刼盜果悍異於平人　跟尋其類說以禍福　先得數十人　漸聚兵至千餘人　及賊入右道　倭將安國司者　聲言向湖南　再祐往來江上　東西剿擊　賊兵多死　常着紅衣　自稱紅衣將軍　出入賊陣　馳驟如飛　賊丸矢齊發不能中　忠讜果敢能得士心　人自爲戰善於應機合變　軍無傷挫　旣復宜寧等數邑　仍屯兵鼎津江右下道　獲安農作　義聲大彰　<宣廟寶鑑卷之八>

郭再祐者宜寧人　承旨趨之子　嘗業文　聞賊近宜寧　遂會諸里中人　諭之曰　賊已迫　吾父母妻子將爲賊得矣　吾里中少年可戰者　不下數百　若齊心據鼎津以爲守　可保鄕曲　惡可束以待死乎　衆曰諾　遂藏兵於津岸之後　又多得吹角者　率穿紅衣上山頂　四面羅置之　約逆至　四面角聲俱起　岸後伏兵又亂射之　賊駭散　遂斬百餘級　以此賊不敢更近　朝廷遂擢折衝將軍助防將　時八道義兵俱起　咸不受官軍節制　任其行止　官家倉廒　公然破出　戰勝受大賞　戰敗無小譴　官軍之有罪者　率投入其中　獨金沔曰　吾輩以義起事　當受官軍節制　戒勿侵掠　唯義之歸而已　不然安在其爲義兵也　嘗語人曰　郭再祐素非有識　其行事不足深責　至於鄭仁弘　稱其賢者　猶如此　無怍乎　初監司金睟　處事躁刻　積失人心　及變初　不能策應　避賊於全羅之界　大爲士人所譏罵　郭再祐旣得志　多不循法度　睟欲矯之　再祐大怒　遂移檄列罪不忠不孝　將殺之　金沔力止之　朝廷遂以金誠一代監司　召睟還　再祐又上疏請斬睟　上大疑之　密問于備邊司曰　此人欲擅殺道主　非賊而何　不除之　恐有悔也　尹斗壽以爲　觀其所爲　一狂童也　於將兵斬賊　能保鄕曲　東西赴救　不避險艱　自以爲義士　今日上疏　渠亦必以爲義氣所激而實不知自陷於大辟也　干戈搶攘之際　豈可人人盡責以禮法乎　上遂不報　<朴東亮著 寄齋史草下壬辰日錄四>

四十一，玄風 戰鬪(壬辰年七月末未詳日)

賊犯玄風　郭再祐拒却之　倭船十八艘　自護山驛上來　自稱政丞安國寺行次　乃前日稱全羅監司者也　至鼎津爲再祐所拒退　由靈山昌寧　將渡　岐江　同稱全羅監司向湖南　送先文迎待草溪宜寧之民　或竄匿或有迎候之語　再祐馳到諭以義理　發帑餉士　嚴兵設備　賊見郭兵曰　此必鼎津紅衣將軍　退由護山向星州

<春坡堂日月錄卷之八>

義兵將金俊民敗倭兵于茂溪縣　郭再祐又連敗倭兵于玄風昌寧間　賊撤屯而遁　自此右道賊路斷絕　賊兵由大丘中路往來

<宣廟寶鑑卷之八>

賊終不敢逼　朴思齊及前牧使吳澐　又募兵三千以屬再祐　軍勢漸漲　再祐仍欲進復江左州　勒兵渡江　抄精兵數百　直至玄風城外　設奇挑戰而賊終不敢出　再祐令人登琵琶山　鼓操揚兵　砲角並震　萬炬齊明　綿亘十餘里　忽焉火滅　寂若無人　頃之又登城後嶺亦如之　火光照城中　使人合聲大呼曰　紅衣將軍在此　明將屠城乃已　其無悔　遂一齊滅炬而退　賊震駭　棄城夜遁　昌寧之賊亦聞風撤走　<宣廟中興誌卷二>

四十二，靈山 戰鬪(壬辰年七月未詳日)

惟靈山賊　恃衆強不去　再祐請于金誠一　益發三郡兵　進薄靈山城外　賊出城搏戰　再祐親當矢石　意氣安閑　將士皆翼蔽死鬪　摧其前鋒　賊悉兵而出　別將尹鐸兵不廠而退　再祐徐收軍登山　褊將朱夢龍　躍馬衝賊陣　出入再三　賊遂退　凡大戰三日而賊不支　夜遁　茂溪之賊失援　亦遁歸星州　<宣廟中興誌卷二壬辰>

四十三，安城附近 戰鬪

(宣祖二十五年七月末)

安城之賊　殺京畿義兵將洪彦秀　彦秀與其子秀男　自初起兵　累立大功　斬馘甚多　以此秀男　陞堂上　拜京畿助防將　至是季男以合勢謀　適出他陣　賊倭突至　彦秀出戰敗死　賊持彦秀屍而去　季男聞事急　馳還本陣　業已兵敗父死　即以單騎馳往賊屯　當門大呼曰　汝殺吾父　吾亦死

于汝 賊投還彥秀之屍 因出奇兵 四面圍擁 季男左手抱父屍 右手揮劍當戰 賊不敢逼 置父屍于陣中 追斬數級 賊益憚之 閭里焚蕩之時人呼季男名則 賊必遁走

<趙慶男撰 亂中雜錄一>

庶人洪季男起兵討賊 季男陽城縣人忠義衛彥秀妾子也 有膽勇善騎射 屬禁軍從通信使 入日本 倭人觀其騎射記其名 至是彥秀起義兵擊倭敗死 季男馳入倭陣 收其屍歸 倭人知爲季男不敢相格 季男收父兵 築壘於高山頂 俯臨陽安數邑之地 屯兵伺賊 東西鈔擊 多斬殺 賊不敢入其境 京畿界湖南諸邑賴之 超授水原判官兼助防將

<宣廟寶鑑卷之八>

安城郡南十五里木村之傍 有山突兀若 累土而成者 凡數級 郡人相傳以爲故洪季男將軍陣處……父曰自修 自修之子震霽電雷而將軍其側出也……自修在安城率四子 起義兵 將軍己應募……自修擊竹山賊敗死 將軍兄弟五人 挺劍突入陣中 取其元而歸 賊惟坐視 嘖舌而 己遂移檄 湖西列鎭 請合兵復讐無可 上特命起復除畿湖兩道助防將 階折衝 且令道臣勸肉 將軍涕泣不食 一軍感嘆……癸巳秋 除永川郡守兼助防如故 一日與兵使高彥伯 陣于慶州 賊猝入慶之安康縣 掠男女五千餘人而去 諸將莫敢誰何 將軍獨憤然曰 豈忍立視而不之救乎 遂追擊而盡奪還之 慶人至今稱頌不衰 將軍嘗曰此賊不滅無以報君親之讐 在郡五載 練士卒整器械 常若寇至 丁酉卒 年三十五 一境悲號如喪親戚

<陶菴集 卷三十一 洪季男將軍故壘碑>

第 5 節　第 2 期 8 月作戰

四十四, 第 2 次 平壤城 戰鬪
(壬辰年八月一日)

八月初一日 巡察使李元翼 巡邊使李薲等 率兵數千 留屯於順安 別將金應瑞等率龍岡三和甑山江西四邑之軍 作二十餘屯 在平壤之西 金億秋等率水軍 在大同江下流 以爲掎角之勢 是日元翼等 約諸將齊進 從平壤城北 忽遇賊先鋒 猝然相合 射中二十餘賊 旣而賊大軍至 軍卒驚潰 江邊勇士 亦多折傷 遂還屯順安

<再造藩邦志 卷二>

元翼與巡邊使李薲 領兵五千人 屯順安 李鎰等 領五千人 屯江東 防禦使金應瑞 別將朴名賢等 將諸邑兵萬人 列十七屯於江西 咸從 以逼平壤 別將金億秋 將水軍 據大同江口 平壤庶尹南復興 募兵得萬餘人 屯于府西三十里 迭出抄賊 賊不敢輕出 行朝以爲賊勢少衰 可以進取 使命元進 戊子朔 命元令元翼等 三路進兵 抄擊零賊 至城下 俄而賊兵大至 官軍驚潰死者盈野 軍還 獨金應瑞一軍不返 衆皆爲以敗沒 逮暮 應瑞 斬賊將 奪所騎白馬 全軍而還 擧軍皆驚 應瑞捷有膽氣 時有挺身 儉入城中 探賊情形而出 軍中益服其勇 朴名賢亦以驍勇著

<宣廟中興誌上壬辰八月卷二>

八月初一日 巡察使李元翼 巡邊使李薲等 率兵進攻平壤 不利而退 時元翼與薲 將數千人往順安 別將金應瑞等 率龍岡三和甑山江西四邑之軍 作二十餘屯 在平壤之西 金億秋 率水軍在大同江下流 以爲掎角之勢 是日 元翼等從平壤城北進兵 遇賊先鋒 射中二十餘賊旣而賊大至 軍士驚潰 江邊勇力之士 多折傷 遂還屯順安

<懲毖錄卷一>

八月一日 李元翼與巡邊使李薲領本府及三縣十三鎭兵 進薄普通門外 遇賊先鋒 射殺二十餘級 旣而賊大至 我軍四潰 被賊追擊死者盈野 元翼敗還 順安助防將金景瑞一軍不返 元翼曰景瑞死矣 及日暮瑞斬賊將奪白馬 全軍而還 元翼馳啓行朝 陞拜防禦使 行長之副將(姓名未詳野史或稱小西飛) 有勇力絶倫者 嘗先登陷陣 行長倚重而委任焉 府妓桂香爲其所獲極見愛幸 欲脫不得 請詣西城 審問親屬 倭將許之 桂月香登城 哀呼曰 吾兄何在 連呼不已金景瑞應聲往赴 桂月香迎謂曰 若使我得脫 以死報之 景瑞許之 自稱桂月香之親兄 而入城桂月香俟倭將之中夜睡熟 引景瑞入帳下 倭將

方據椅坐宿張兩目 按雙劍 滿面通紅 有若斫人者 然景瑞拔劍斬之 倭將頭已落地而猶能擲劍 一着壁 一着柱沒入半刄 景瑞佩其頭出門 桂月香牽衣隨後 景瑞度不能兩全 揮斬之 踰城而還 翌曉賊知其死 大驚褫氣奪勢縮 賊毁撤人家 堅柵城外 築土窟於密德及牧丹峰 永崇殿北頂盡發摩砌 大作曲窟於練光亭北南 環大同門西至風月樓 <關西邑誌 平壤續一 古事>

翼等將數千人 別將金應瑞率龍岡等四邑軍 金億秋率水軍 從平壤城北進兵 賊大至 軍潰還屯順安 <春坡堂日月錄卷之八>

四十五，清州城 戰鬪(壬辰年八月一日)

乃擇吉月吉日 建旗鼓于公州 得精兵一千六百 時倭賊方據清州而防禦使李沃軍潰 憲(趙憲)乃率精銳 進逼清州(八月一日) 直擣城西門外 與僧將靈圭連陣而進 親冒矢石 竟日督戰 賊兵大敗 我軍將欲蟻附而上 忽一陣驟雨從西北而來 天地晦冥 戰士寒慄 憲乃嘆曰 古人云成敗在天 信然 乃鳴金少退 是夜有一女 自賊逃來 言曰 賊徒望見軍容 莫不失色 曰此義兵冒死直前 少摧折之氣 不可與爭鋒 乃燎火樹旗爲疑兵 悉焚積尸 已空營宵遁矣 憲等進入往鞫 請於防禦使 以米粟數萬石 分賑窮民 牛馬數百頭 分授各里 以備耕種之具 沃(沃耻其無功乃曰)不聽曰 已與巡察使議定 不可留此爲賊再據之資 悉焚其穀而去 軍中只餘糲米數斛而已 計無奈何 遂命軍各還其家 使治禦寒之具 決意西向勤王

<再造藩邦志二，隱峰野史別錄>

趙憲等復清州 時清州之賊方熾 是月日 憲與僧將靈圭 引兵逼之 遂合戰於州之西門外 終日力戰破之 賊大挫宵遁

<春坡堂日月錄卷之八>

義兵將趙憲復清州城 憲與數十儒生 結志倡義 募得千六百人 公州牧使許頊得義僧靈圭 使率僧軍助憲 憲合軍直薄清州西門 賊出戰敗却還入 憲將麾衆登城 忽有驟雨從西北來 天地晦冥士卒寒慄 憲歎曰 古人云成敗在天信然耶 遂退陣於對峰以臨城中 是夜賊燎火樹旗爲疑兵空營而遁 <宣廟寶鑑卷之八>

亂初 余在公州 儒生申蘭秀張德盖等 來見言曰 燕岐有僧 俗名鄭萬億者 能討賊 人呼僧將軍 名聲藉甚 牧使許頊亦言 本州僧靈圭自募曰 萬億甚劣 亦得將軍之名 我亦從軍 率同志僧九人 探審賊勢 以助討賊 其言可取也 余即招見 甚壯健而別無謀略 然似非碌碌者比 可使防一隅也 余試問探審賊勢 別無可建之功 若以僧軍若干付汝則汝可率領攻賊乎 即樂聞之 乃抄內浦僧軍數千 使領之 稱爲僧兵牌頭 旬日之間 整其部伍 出陣清州安心寺 寺去州十五里許 與防禦使李沃 相爲聲援 沃時在燕岐東津結陣矣 未幾 圭進陣于西門外氷庫峴 凡三陣也 時出精銳 邀掠四面 賊不敢恣行 時壬辰七月望念間也 念九防禦使及隣近官守令 與圭將攻清賊 凡節制皆聽於我 終日接戰 勝敗未決 沃與圭罷陣 余使公牧馳往沃陣 責其輕罷 更即督戰 乃於八月初一大戰 雖無斬級之功而賊徒多中矢丸 其勢甚孤 翌曉賊悉衆而逃遁 此後賊更不來犯 清境獲安 民得收穫 圭以此聲聞中外 <尹國馨著 聞韶漫錄>

清賊驅逐之報至義州 朝廷嘉之 授圭堂上職 至以段衣遺之 圭已死 不得受命 此後僧兵處處繼起 實圭倡之也 攻清之日 守令如或却步則靈圭以其所杖大稜木 叩背曰 平日則食肉而到此有欲避之心乎 守令莫敢或後 管下有不從令則 痛繩軍法 人不敢不從 此言燕岐縣監任兌見公牧許公而稱道云 (圭不解文稍辨人姓名)

<同上>

清州敗績後 防禦使李沃 從事官崔沂 皆來辭曰 乘輿播越 侍衛之臣必不多 欲往隨駕云云 觀其情狀 實欲逃也 大言責之 乃止 翌日沈輔德岱 自松都持標信 有旨 以發兵討賊事來 余以沃輩欲逃言之 沈亦峻責 終不敢動 聽我指揮 得遂清州逐賊之功焉 <同上>

忠清監司尹先覺啓曰 大賊入清州 分兵搶殺 有僧名靈圭者 能聚其徒 皆持鎌子 號令甚嚴 見賊不避 遂進攻清州之賊 連日相持 雖無大勝

亦不退北 賊遂棄城而去 皆靈圭之功也 遂陞堂上 爲僉知 賜段衣一襲

<朴東亮著 寄齋史草下 壬辰日錄三>

四十六，慶州 奴谷 戰鬪(壬辰年八月二日)

慶州人金虎等起兵討賊 時慶州判官聾奔竄 虎等聚軍爲討賊計 適招諭使傳令本府以虎爲都大將 前縣監朱士豪爲召募將 進士崔臣鄰爲召募有司 虎等益自奮勵

初二日(八月)賊五百餘騎 自彥陽向奴谷 虎等領軍一千四百餘名 圍以角戰 虎中槍而戰逾力 賊奔回本州大陣 我軍趕追斬五千餘級 慶州前後之捷 無出其右 <春坡堂日月錄卷之八>

慶州府判官皆犇竄 招諭左右道 傳令本府人訓鍊奉事金虎 爲都大將 前縣監朱士豪 爲召募官 進士崔臣隣 爲召募有司 金虎等業已聚軍討賊 至是益自奮勵 初二日(壬辰八月) 賊五百餘騎 自彥陽充斥奴谷 虎等領軍一千四百餘名 圍而角戰 虎中槍而死 戰猶不退 賊奔回本州大陣 我軍追趕厮殺 斬五十餘級 慶州前後之捷 無出其右 <趙慶南撰 亂中雜錄一>

四十七，居昌附近 戰鬪(壬辰年八月三日)

沔自星州之敗 還屯知禮 時金山開寧等地 賊勢大熾 相繼侵犯 金誠一 益發三郡兵 以屬沔 沔又聞金時敏得將士心 移檄請援 時敏領千餘人馳赴之 一日賊兵大至 沔與戰于沙即岩前 躍馬揮劍而呼時敏曰 國家待公以華秩者 正爲今日之用 男兒死耳 不可退也 時敏遂鳴弓突陣 連踣兩賊 諸軍乘勢 大呼崩之 賊兵敗遁 時敏中劍傷足 沔視瘡涕泣 沔等連戰皆捷 金山賊撤走 時敏遂還晋州 是時沔不解數月衣甲 無日不戰 晝則誘擊 夜則斫營大戰 十餘合 摧却三十餘度 以故能扼江右咽喉 兼爲湖南蔽 與郭再祐齊名 <宣廟中興誌 卷三>

金沔聞時敏得士卒心 使人請援 時敏即率千餘馳赴居昌 與沔合擊金山之賊 斬數十級 居數日 又戰斬級亦多 時敏中劍傷足 沔爲之泣下

未幾金山等處之賊 相繼遁去 時敏還官

<春坡堂日月錄卷之八>

時金山開寧等地 賊勢大熾 右監司金誠一益發三郡兵以屬金沔 沔聞時敏(金時敏，晋州牧使)得將士心 移檄請兵 時敏即率精兵千餘人 馳赴居昌 與沔合戰于沙郎巖前 沔揮劍躍馬而呼時敏曰 國家之待公以華秩者正爲今日也 男兒寧死不可退也 時敏鳴弓突陣 連踣兩賊 諸軍崩之 後數日又戰斬級亦多 時敏中劍傷足 沔爲之泣下 時敏遂還晋州

<洪良浩著 海東名將傳卷五>

四十八，第2次 錦山城 戰鬪

(壬辰年八月 自十七日 至十八日)

(一) 行至温陽 聞錦山之賊復猖獗 又有巡察使之使來謂憲曰 國家疆域 盡爲賊據 只兩湖不中兵禍 意者天其默相君 以開中興乎 憲頗然之 乃還公州 與巡察使會而議又不協 意甚不樂 巡察使又移文列邑 官軍私從義陣者罪之 各歸本隊 官軍之在憲幕下者 旣集而還散 只有七百義士願從之

將以八月二十五日(壬辰) 移兵向錦溪 有一別將力言 賊懲乙卯丑湖南之敗 今之據錦者 特精銳 數亦數萬 奈何以爲合衆當之 宜按兵觀勢 且俟朝家命令也 公泣誓曰 君父安在 敢言利鈍 主辱臣死 吾督一死而已 遂與靈圭聯兵而進 會與湖南巡察權慄 約以二十七日齊擧夾攻 巡察馳書改期 未到 公已抵錦郡之十里地以待南師 賊詗而逆之 乘我未陣 分其衆爲三迭出薄我 公乃下令軍中曰 今日只有一死 生死進退 無愧義字 士皆唯命 莫敢違 力戰良久 賊三北僅能軍而我兵已矢盡 賊遂闌入帳下 士挽公請跳 公笑曰 丈夫死耳 不可臨難苟活也 遂援枹督戰益急 士卒趨死 至張米拳相搏而猶不離次 竟與公俱死 卒無偸生幹免者 賊死亦相當 勢遂挫 收餘兵還陣 哭聲雷震 運其屍三日猶不盡 乃積而焚之 遂與茂朱屯賊皆遁 以故湖西南得全 <趙慶男撰 亂中雜錄一>

四月重峯(趙憲)自沃川 遣子完堵 遣平安監司權徵 延安府使申恪書 勸以浚濠完城豫修戰守之備 權公見書大笑曰 黃海道平安道豈有賊來之理乎 汝爺皆以妖妄目之 歸語汝爺 愼勿復出此言 申公然其言 因大修城池器械

<隱峰野史別錄>

憲起兵凡數月 未嘗笞鞭而皆用命 所至肅然 聞其擧義 遠近趨募 雖被當事者力沮而亦多愛悅不忍捨去 及聞其敗 湖右賤隷皆食素 巷哭相聞 行朝聞憲起兵 賜敎書拜奉常僉正而憲不及見 師敗翌日憲弟範 入陣所收尸于旗下將士皆死其側 至四日顏色如生 怒氣勃勃 人不覺其死之已久矣 高麗之季有趙天柱者 當紅巾之亂死事於安州 憲則天柱八世孫之爾

<春坡堂日月錄卷之八>

行到溫陽則 巡察恐入行朝 盡發其沮撓之狀 乃使重峯幕下士張德益等說曰 吾始與公相驩也 今有細人之言 與公有隙 吾亦覺悟今已悔恨 且西原之戰已督公爲國之忠勇 今則矢與公死生以之願故人釋此小嫌期成大公 今聞錦山之賊自招討戰敗之後 益復猖獗 將有侵軼兩湖之勢 若然則國家更無中興之望 公從行士卒亦必內顧而搖 豈能安心北行乎 不如同討錦賊後并力勤王亦未晩也 將士交謁更諫咸謂兩將和調 乃能濟事 今與巡察搆隙將不利 且國家區域盡爲賊據 只有兩湖尙完 莫如先滅此賊然後 治兵西上乃計之得也 重峯然其計 乃還公州又與巡察議不合 盖巡察只欲沮重峯之行而實無意於同事也 將士之還家治任者 皆被巡察所囚 只有七百義士願從重峯同死生者而已

重峯初破賊即抗諸于行朝 論事世獻又說巡察曰 今聞趙某疏中大詆令公云 此疏若達則必得重罪 巡察乃遣腹心吏韓從 托稱檢督舟師 禁士子登舟以沮尼之陪疏 儒生全承業 洞知其情乃示以疏本實無關涉巡察語 從乃許登舟而士子金止男等疏章則 以直斥其擁兵自衛沮攘義旅之罪 故竟不得達 至是又多方沮撓如此軍中莫不憤惋 <安邦俊撰 隱峯野史別錄>

憲弟範冒死入賊中 負憲尸歸沃川 至四日而殯顏色若生 怒氣勃勃 張目掀髯 人不覺其死已久也 淸州未復之前 朝廷聞憲起兵 下敎宣諭敎書未及到而憲已死 朝廷聞之 莫不嗟惋 追贈嘉善大夫吏曹參判同知 經筵義禁府春秋館事而褒之 其友寅城府院君鄭澈 摻文哭之曰

吾友汝式 學孔顏而慕誼 原欲死於直而
竟死於節 吁嗟乎汝式

是役也 憲子完基 狀貌魁偉 性度絶倫 及敗故華其服鄭代其父之死 賊認爲主將而砭其尸 僧將靈圭有勇力善戰 遇賊先登 賊皆披靡 憲之將死 突圍而入 憲尋不得 遂力戰而死 李光輔字仲任 孝友天植 慷慨有志 率數百賓賛憲擧義 竟與之同死 朝廷贈司憲府執義 奉事任 廷式者 賦性樸直 且有弓馬之才 以斥候在外 望見事急 策馬突進 格殺數倭而死 士人金節 首從憲 戰功居多 李勵者 故領議政鐸之孫 明學篤行 聞憲起兵 仗義赴難 又有萬戶邊繼 溫陽縣監楊應春 奉事 郭自河 武人 金獻 姜仁恕朴鳳瑞 金希哲 鄭元福 李仁賢 李養元 金仁男 黃三讓 朴春年 韓琦 朴賛 皆以偏裨 或先登摧堅 或鼓勇奮義 又有士人 朴世珍 金善後朴應吉 申慶一 徐應時 尹汝翼 朴渾 趙慶男金忠男 高明遠 姜夢祖等 或以文或以行 皆在幕下同事 至是俱死 後門人朴廷亮 金承節 收聚義骨 聚作一塚 號曰義塚 張谿谷題殉義碑詩曰

恨入秋陰欝不開 蟲沙無跡但黃埃
時危始覺忠言驗 兵敗猶令虜勢摧
一牙靑山留琬琰 千年烈氣挾風雷
何論墮淚羊公石 長有英雄不盡哀

<申靈撰 再造藩邦志二>

(二) 義兵將趙憲 義僧靈圭擊錦山賊 不克死之 憲孤軍獨進 欲直擊錦山賊 全羅監司權慄忠淸監司許頊 皆止之 請同時大擧約期而又延退 憲憤其逗留 只領七百餘人踰嶺 靈圭苦爭曰 必須官軍繼援在後 然後可入 憲泣曰 君父安在 主辱臣死正在此時 成敗利鈍何可顧也 鼓行而進 靈圭曰 不可使趙公獨死 乃與所部僧數百人 合陣俱發 文牒相續 從官軍繼進 憲軍

直抵錦山城外十里 結陣以待官軍 賊詗知無後繼 潛兵截後 悉出兵薄戰 憲下令曰 今日只有一死 當無愧一義字 士皆應諾 良久力戰 賊三進三北而憲軍己矢盡 憲坐幕中不動 左右請跳出 憲曰丈夫死耳 不可苟活 鳴鼓督戰益急 士以空拳相搏無一人離次者 皆與憲同死 圭亦死之 賊衆死者過當 運屍入城 哭聲連陣 翌日弟範潛入戰所收屍 憲死於旗下 將卒皆環側而死 四日而殯 顔色如生 張目掀髯人不覺其死己久矣 賊退之後 門生往收七百屍 作一塚表之爲七百義士塚云 憲子完基 狀貌魁偉 性度邁倫 及軍敗 故華其冠服 蘄以代死 賊認爲主將 取矺其屍 同死表著者 參奉趙光輪 孝友有節概 初募鄕兵數百 終始參謀 奉事任廷式 樸直有武才 以斥候在陣外 見憲急 策馬突擊而死 士人李礪 鐸之孫 有學行 士人金節首 募兵從征力戰 萬戶邊繼温 縣監楊應春 奉事郭自防 武人金獻 金仁男 李養立 鄭元福 姜仁恕 朴鳳瑞 金希哲 李仁賢 黃三讓 朴春年 韓琦 朴賛 皆以褊裨血戰以死 士人朴士振 金善復 卜應吉 申慶一 徐應時 尹汝翼 金聲遠 朴渾 趙敬男 高明遠 姜夢祖 皆入門人從軍而死 事聞贈憲吏曹參判 錄用其子完堵 月廩其家光輪贈司憲府執義

海南縣監邊應井 初與趙憲約共攻錦山 旣而與官軍皆後期 聞憲敗死 歎曰 奈何與義將約而背之 不俱死乎 即提兵獨進至城下 格鬪而死

錦山屯賊宵遁 賊雖敗 趙憲等兵而死傷甚衆 疑官軍繼至 乘敵乃捲 茂朱沃川屯兵 燒營夜遁 湖南復完 人以趙憲等之功 可比張睢陽云

<宣祖寶鑑卷之八>

趙憲聞高敬命敗死曰 錦山之賊 腹心之疾 移書靈圭 遂進次其境 期明日共擊之 令旣布 天下雨 營陣未具 靈圭謂憲曰 兵有備無患 作營未畢 明日不可戰 憲心思良久曰 此賊本非我敵 欲區區速戰者 徒以因忠義之激 乘士氣之銳也 翌曉賊引衆先出 時靈圭作營粗完 憲軍露立於野 賊遂薄之 將軍大呼合戰 短兵相交 殺傷相當 賊兵久而益至 憲軍見賊暫退 遂移入靈圭陣 賊踵後乘之 諸軍遂大亂 赤手搏戰猶不少挫 未幾 憲爲亂兵所殺 或謂靈圭曰 趙義將死矣 賊益至 不如去之 靈圭大呼曰 死則死矣 豈可獨生 鏖戰終日 靈圭亦死 諸軍盡死無敢退生者 賊亦於是夜 遁向慶尙道 賊自是不敢復犯湖南 盖大挫也 憲起之日 遠近皆曰 趙憲起矣 何患賊不平 至於平安黃海之民 在深村僻巷 雖平日未嘗見而知者 皆曰 此嘗持斫刃伏闕下者乎 人皆謂 此人眞忠臣 忠臣起兵 賊可平矣 至是敗歿 朝廷贈吏曹參判 靈圭破淸州 未久死於錦山 朝廷所賜段衣等物 中道而還 是時監司李洸 縮在一隅 人有功辜 不以上聞 敬命等之死 朝廷皆因人以聞

<朴東亮著 寄齋史草下 壬辰日錄三>

全羅巡察攻錦山不能拔 願得圭爲先鋒 余許之 圭率其兵 趨儒城陣焉 趙提督曾於初一再戰時 往赴圭陣 出兵數百人而助戰 知圭之可與有爲 追往儒城 與圭連營 督圭共入錦山 圭曰 全羅巡察將數萬兵 方謀進勦 請我爲先鋒 然時未定期 不可輕發 勸趙約日於權巡察 其報未回前 趙強執速討 領其軍先入 圭亦不得已從焉 其部下以爲 明知必敗 願勿往 圭曰 可否商確之時 猶可不從其言 彼旣先往而我若不從則 誰復相救 乃隨之 是八月十七日也 與趙連陣於錦之五里內 賊大至 趙陣先陷而圭陣次沒 我軍死者什八九 賊亦多斃 使趙若聽圭說 豈有此敗 痛哉痛哉 軍敗翌日 趙之軍官 持權約日之書來示我 然事旣無及 言之奈何奈何

<尹國馨著 聞韶漫錄>

公年二十九赴武擧 見屈時北鄙多事 朝廷悉遣操弓者戍邊 公亦在遣中 至咸興則 方伯愛公文才留之幕下 仍戰藝場屋魁解額 自是文名益藉甚俄而竟闡武科 爲越松萬戶 薦爲宣傳官 自越松歸 只以一劍相隨而已 未幾有南報 朝廷以海南 是賊路要衝 超授縣監……母夫人在京避亂 公作書以寄二弟以訣母夫人 辭意悲壯其主辱臣死之意 凜然如秋霜白日矣 又脫所衣服 剪瓜髮以送曰 我死以是葬焉 公鈐束甚嚴而撫士卒常激以義氣 士皆樂爲之用 無敢有旋

踵者 遂以孤軍大敗賊船於洋中 道臣李洸馳啓以聞　上陞拜本道水使而公未及見矣……是年八月 馳至錦山 與金堤郡守鄭湛 結義同盟 設柵熊嶺 與賊大戰 斬獲無算 會日暮 賊知矢盡無援 並力急攻兵(恐誤) 持短兵搏戰 遂死之是二十七日也……上命贈公兵曹參判　旌表門閭崇報之典 無復餘憾矣

<尤菴集卷一百三十五，全羅水使邊公墓表>

海南縣監邊應井初與趙憲約共攻錦山　既而與官軍皆後期聞憲敗死　歎曰奈何與義將約而背之不俱死乎 即提兵獨進至城下格鬪而死

<朝野僉載卷之二十七>

四十九，　第 2 次 慶州 戰鬪

（壬辰年八月二十日）

進攻慶州賊　與朴晋權應銖兵會于溪淵　公爲先鋒薄城 與賊大戰 朴晋兵潰 賊圍公急 公之子宜藩 三出入圍中 以救公而身被數十創 與麾下將士十一人 皆死之 然賊亦大挫　遂棄城走 於是永川慶州皆復而賊勢中斷不能支　退與右路賊合而江左獲全焉

<嶺南誌永川邑誌 湖叟鄭世雅神道碑>

慶尙左兵使朴晋　襲慶州之賊大敗　數邑奮義之士皆死　晋會諸將安康　以軍官權應銖 判官朴毅長 爲前鋒 率十六邑兵萬餘 夜行四十餘里平明薄州城 募壯士 焚城外廬舍 烟焰連天 咫尺不分 大軍圍而攻之 賊兵自州東十餘里 不意突進 襲我軍後　大軍驚潰　將士棄甲投兵而走 賊乘勝追殺 橫尸相枕 西川盡赤 盖前一日彦陽之賊 來藏谷中　偵俟我軍而諸將不察以致債敗人皆痛之

<春坡堂日月錄卷之八>

八月進攻慶州賊　公(鄭世雅)領兵五千人　與左節度朴晋兵 會軍鷄淵衆合數萬 公挺身爲前鋒馳馬直前　子宜藩與公俱生員崔仁濟李得龍李榮根李順福李廷芬，李之馣金演又從其後 踴躍鼓譟而進 聲動天地 進薄城門 賊迎擊 我軍殊死戰 賊大衂 死者無數 俄而賊從北門出奇兵襲其後 銳卒衝其前 節度軍大亂走西川 獨公在陣中挺劍督戰 宜藩身被數十創 與仁濟等十六人併力戰死之 公不可奈何 仍麾兵少退 與諸將更覘搶擊 賊度其不能支 棄城夜遁

<湖叟實紀卷之五>

八月欲擊慶州賊　聚義軍于古村則　至五千餘名也　二十一日行軍　至慶州陣場則　八郡之軍一時雲集邑內四面二十里之地 狹窄難容 先鋒義大將鄭世雅吾及生員鄭宜藩從其後　生員崔仁濟李得龍李榮根李順福又從其後　其餘李廷芬李之馣金演又從之 遂馳進西門城底 與賊血戰 倭兵死者無數俄而賊出北門 襲後兵使軍大亂 賊乘勝追逐 萬軍瓦斯　<同上卷之八>

五十，　第 1 次 星州城 戰鬪

（壬辰年八月二十一日）

初高敬命敗後 其子前縣令從厚 縞素從軍 收父餘兵爲別將 至是都體察使鄭澈 宣朝旨 勸諭洪季男 首通書諸道 趙憲子完堵等應之 又令從厚簽寺奴爲兵 義兵將崔慶會　任啓英　進屯嶺南初慶會啓英　連兵屯長水　與茂朱屯賊相持　至是兩湖諸屯賊　皆合于星州開寧等地 兩將遂引兵 援嶺南屯於居昌 與金沔 協攻開寧 未幾 啓英移屯陜川 與鄭仁弘協攻星州 以黃進爲忠州助防將　諸將合兵攻星州 敗績 開寧星州 賊兵熾蔓 官軍義兵 連兵不利 時鄭澈由海路入兩湖金誠一遣使乞兵 身令雲峰縣監南侃　求禮縣監李春元 率精兵五千赴之 與嶺南兵二萬餘人 協攻星州 賊乘其未陣 出城薄之 我軍大敗　死者甚衆

<宣廟中興誌卷三>

星州開寧屯據之賊　以極熾蔓　官軍義兵連戰不利　本道監司及諸義將　累報體察使　懇請援兵　鄭澈以雲峰縣監南侃求禮縣監李元春等爲領將　率本道官軍五千餘名　往助星開之戰　南侃等進兵海印寺 與嶺南諸將協攻星城　大敗而走 死者不知其數　<趙慶男撰 亂中雜錄一>

五十一，小川 戰鬪(壬辰年八月二十二日)

先是慶尙左道山峽海濱十餘邑　去賊路稍遠士族則依險避兵　閭里則如舊　皆以爲若有兵狀

祗以招賊 故絶無聚兵者 禮安人前典籍柳宗介獨募鄕兵數百 依大白山自保時晴正在安邊 與慶興賊相應 有一枝兵 從嶺東高城 江陵 掠過至平海之境 旁行搜掠 宗介卒遇賊敗死 自此鄕人以兵爲諱 安集使金玏與金誠一相應 共爲檄諭 士大夫鄕居者 如處處聚募 皆不成軍而止 倭素聞竹嶺路險塞難越 故不由其路 安東屯賊(毛利輝元의 兵) 自右道來 不放兵旁掠俄而撤回 故嶺下豐基 榮川 禮安 奉化以南靑松眞寶等列邑 幸而不被兵火 故世稱爲福地

<野史初本卷十四慶尙道義兵將柳宗介遇賊敗死>

八月……慶尙道禮安正字柳宗介 募兵討賊 未久敗死 先是 左道山僻十數邑 兵火稍遠 大小士民 以朝夕苟存爲幸 各護妻子 藏匿家財于山谷中 其間有一二慷慨之士 激勸武人逃卒諭以討賊之義而以爲引倭嫁禍 反咎言兵者 宗介不任慨憤 首先倡義 募得鄕兵數百餘丁 結陣于大山(大白山) 中聞江原道之賊焚掠平海蔚珍等郡 將踰廣比村 與掌書尹欽信 尹欽道等 領兵迎擊 先鋒之賊變服潛行 斥候者不覺伏兵者皆散 宗介等倉卒遇賊 敢戰不退 力窮無援 竟爲所害 賊遂焚掠禮安寧海而去 自是人皆以義兵以戒 不樂應募

<趙慶男의 亂中雜錄一, 春坡堂日月錄卷之八>

禮安義兵將前正字柳宗介逆戰死之 討捕使韓孝純(寧海府使)據險却之 還踰嶺西 蹂躪列邑將迫原州

<閔氏壬辰錄卷二>

五十二, 鴒原山城 戰鬪

(壬辰年八月二十五日)

吉盛重隆又自鐵嶺分向關東 旋自歙谷循海 止于平海 還踰嶺西躪列邑 將迫原州 牧使即金悌甲…中略…屢遷守宰方伯 皆有去後之思及莅原州 纔期年 政令未洽而賊入忠州 相距不遠 盡發精卒利器而援 城中無所恃 至是賊屯屯陣陣前後相續 金鼓相望 悌甲乃竪旌旗整行伍 募民丁畜粮餉 但無勇將可以統之 聞本州人鄭姓者 驍猛絶人 以累擯於鄕而鬱抑不伸乃招之前曰 賊勁吾弱 多寡懸殊 勇怯異情 欲戰則徒殺人民 欲守則城池不完 食乏器乏 無一可恃 何能束手待亡 但於此地有鴒原山城 可據而守也 古人得此而成功 吾才雖不如古人 志則同矣 不守此城則無可爲也 汝素有膽勇 可領此卒先據此城 吾繼赴之 鄭跪以對曰 敢不惟命 但賊勢之盛 非他賊比 今之時 又與古之時異 以是兵抗彼鋒 勢固不敵 徒恃其險 不可爲矣 唯宜少出以避 酌長短講利害 得其便而爲之 殆未晩也 悌甲大怒叱之曰 奴不足與謀也 因仰天嘆曰 吾死決矣 吾屢側淸邇 沐浴洪涯 衣食皆主上賜也 況爲守土吏 其職亦不可去 生以國生 死以國死 晷刻偸活 是可羞也吾當扼固搪阻 竭力以拒 賴天之靈 得挫其鋒斯亦幸也 如其不幸 唯有死國而已 不有愈於死私乎 遂跨馬而先導 爲士卒倡 人皆感激而懽趨 老弱負戴攀附以躋 自京城來者 亦扶携以前 不數日 城內盈滿 其城四面皆絶壁 前通一路 人皆魚貫而上 於是 內則峙糧儲器 積柴疏井 爲數月備 外則架車設檻 載石懸空 以俟寇至 堞上又列強弓毒矢 間以火銃 日夜躬自巡飭 城中恃以無懼 又與京中朴姓者約曰 賊必由可里嶺 嶺之險 馬不得兩 肩不能並 若以千兵扼其吭 賊雖百萬 不翼難過 庶可相持 萬一失其險 吾亦可以預備 君其勉之 朴應諾而去乃以一卒 偵賊之來 其卒不往 中路而還 紿之曰 賊緩而遠 朴信之 解鞍脫甲 臨川而息 不知賊之已襲其後 乃脫身而走 賊旣入本州 衆皆震恐 悌甲不爲動 誓衆益勵 衆乃服義咸泣賊旣知有備 乃爲書掛長竿 誘以利 脅以威 悌甲拔劍 手斬其使 還距于座 髮竪肩聳 屹如山重 人皆惶怖 懍懍不敢仰視 翌日知賊必大擧而來 乃令其下 緣其洞距五里許五峰上 各以一卒 列置爲候 見賊之至 使之吹角 天明而五角盡報 戈刀被山 鼓噪動地 蚍蜉之援 外無所恃 守堞之卒 不滿五千 城中危懼 是夕賊縱敢死者數十 緣崖隙潛進 穴城而升 吶喊突進麾大軍以越 城遂陷而悌甲猶着戎衣 距胡床不下 彎弓將射賊 賊先發射中悌甲 其箭在背 猶

不下 賊乃迫悌甲 下床令拜 悌甲終不屈膝 罵不絶口 遂與夫人及一子同死 賊義其不屈 莫不嗟嘆 其幕下士 趙文璧 幸得脫不死 收悌甲及夫人與其子之尸 埋于山麓 至今行路莫不流涕 時年六十八也

<再造藩邦志一 大東野乘卷七 (四一五面)>

萬曆壬辰之亂 東方自剖判以來所未有也 兇鋒所向 列邑望風奔潰 無能禦之者 時公守原州 奮義雪涕 募聚兵糧 保鴒原城 爲死守計以忠義勸勵士民 土人姓鄭者 素稱驍猛 公勗以同事 鄭對以賊鋒銳甚 宜出避乘便圖之未晩也 公叱曰 奴不足與謀麾而之仰天嘆曰 吾一死決矣 乃益修守戰備 晝夜躬自巡飭 城中恃以無俱賊詗知公固守 先遣一使誘令降且脅之 公立斬其使以徇軍中 人皆股慄莫仰視 衆議以爲明日賊必大擧而來 肆其忿莫如避之 公曰守土之官去將安之 敢言避者斬 衆議遂定 翌朝賊果大至四面 矢石雨集城中亦殊死戰 日過午矢盡力竭 城遂陷 軍官吳杭 力士也 欲背負以避 公曰平生受國厚恩 臨難豈忍偸生 若輩避之亦可也 遂朝服坐胡床 流矢中背 猶不動 賊執公迫之令拜 公植立不屈 罵不絶口 遂被害 少子時伯 終始不離側 與公同死 後夫人李氏亦伏劍而死 方有娠云 吳杭等乘夜入城 收得三尸與士人高峴 藁葬于州之酒泉縣 賊退始歸葬驪州地 後移葬于忠州福盛洞 城陷前二十日 寄子時獻書曰 余今復何爲哉 只期不失一節而已 至是果如其書 初守鴒原也 李判書塈以號召使在原之西界貽公書曰 縱欲守土死職 奈城孤事急何須來與塈共事驪原之境 隨勢進退可也 公復書 陳大義示以必死無貳 李公謂人曰 此人忠憤如此 豈人所移易者耶惜乎其死矣 嗟嗟不已韓西平浚謙代牧本州 報觀察窃念變起以來無一人效死守土者 獨前牧使金以死守城 至於闔門被害而不移其志 朝嘉其忠節 旣贈正卿之職則葬空之際 宜月優恤之典 請上聞于朝 噫公之自守之 確於寄子書可見也 公之見信於人於李公言可知也 公之節義之高於西平報可驗也 一城之中 一日之內 父而死忠 子而死孝 婦而死節 是昻發夫婦之變節 父子之并死可謂兼之也 捨命不渝不爲萬世三綱之標準 倘所謂臨大節不可奪者非耶 倘所謂刑于妻御于家者非耶 人貌榮名 豈有旣乎 萬曆戊申 故相國完平白沙一松諸公建白旋表門閭 今其里有忠臣孝子烈女之門 原人又爲之立廟以祠之 今上朝賜額曰 忠烈遣禮官致祭 公諱悌甲 字順初 姓金氏 安東人 爲人魁偉有大節 簡默好讀書 自號毅齊 登文科歷敭淸班三按兩道 其守原自求補外也 參判時獻其胤也 而無嗣 時寧越郡守尙重即時伯之孫而爲次嫡者也 今左相許積 牧使許秩其宅相也 秩又爲原州牧 繩其遺化士民懷之銘曰

死非難處死則難 惟君子捨生取義
當危急視如平素 勵忠憤不移終始
臣死忠婦貞子孝 扶植萬古之綱常
雉岳東峙兮 鳳川西流 先生之名 與之俱長

<朝鮮金石總覽下 (九四一面) 原州金悌甲忠烈碑>

時賊自鐵嶺分向關東 悌甲莅任纔一朞 盡發利器精卒入鴒原山城 城四面皆絶壁 前通一路人皆魚貫而上峙糧儲器積柴疏井爲數月備外架車設檻載石懸空堞上 又列強弓毒矢 間以火銃日夜射 自巡飭 賊知有備乃爲書 掛長竿誘以利 悌甲斬其使 還據坐髮竪肩聳 人不敢仰視 翌日賊大至 戈刃被山守堞之卒不滿五千 是夕賊縱敢死士數十 緣崖隙潜進穴城而登 吶喊突進 大軍繼之 城遂陷

<朝野會通卷之十六 宣祖紀>

在雉岳山南麓 石築周三千七百四十九尺 內有一井五泉今廢 三國史弓裔投北原賊梁吉 吉委之事 使東略酒泉奈城鬱島御珍等 四縣皆降之 後元冲甲據此城 破丹兵有功 宣廟壬辰 原州牧使金悌甲與驪州牧使元豪 爲倭奴所敗衄

<關東邑誌 原州邑誌篇城地>

鴒原寺

在雉岳山麓 距州東三十里 韓久菴集板有之

<同上>

金悌甲墓

在州西三十五里 安昌江邊 即宣廟國舅延興府

院君之墓　四時節祀官給祭需天啓 癸亥立表石乙丑立神道碑　<關東邑誌 原州邑誌篇>

金悌甲　萬曆十九年辛卯十一月十九日到任(原州牧使)　<同上>

山城寺　在鴒原城中　壬辰倭亂 牧使金悌甲 領兵入據　賊兵猝陷　州軍及避亂人民俱沒　悌甲死之　<奎章閣本「邑誌」原州邑誌佛守條>

賊兵陷原州鴒原山城 牧使金悌甲死之 先是 關東州縣皆被賊槍而原州獨全　賊旣敗元豪軍 遂即入原州　牧使金悌甲與州內士庶 擧家入山城恃險而不設備 賊再三至城外而還　城中人尤輕之 一日賊詐退 即回軍 乘虛掩襲 城即失守 悌甲不屈而死 妻子皆從死 人以爲一門三綱 倭遂屯原州 連營砥平縣 取路至京

<野史初本卷十四>

悌甲謹飭守備　躬自巡勵　衆合四千餘人　吉盛重隆至州境　知悌甲有備　乃遣使貽書誘之 悌甲納其使而手斬之　<文德敎의 壬辰錄>

第六節　第 2 期 9 月作戰

五十三，延安城 戰鬪 (壬辰年自八月二十八日至九月二日)

李忠穆公曾爲延倅時 牧民禦衆之才　爲人所心服　故諸壯士往告以守城之意　公義而許之　與之偕來 建大將旗鼓申明約束整頓部伍　士氣益銳自倍於前矣 一日候者來言　賊自海州而來 兵勢之盛 有若建瓴然張應祺馳往觀之　賊果已渡楓川橋　白應禧駐馬岸下使有餘力俟賊陣迫近然後大呼天鵝聲而突入賊中　賊大亂相失左次於路傍　應禧乃從間道回來則腥塵已漲西門外矣　賊欲擇留屯處令持旗者環視城基至北門外旗竿無風而自折　瞥然能續至東城旗又折　賊乃止壁於城西　使使者呼而語之曰自南至西所向無前　今乃以一隅彈丸敢抗 大軍比如檻虎鼎魚言之可哀　速出西門而降 否者我將一劍盡之矣俄而又呼曰爾有何樣兵器而爲此拒轍之計也願一見之　白受采挺身而出曰汝以其兵我以其義汝鬪以力我鬪以智　兵器貌樣不須問也 雖然我之兵器他有一焉　必欲見之示之何難 即以六兩矢彎大角弓而射之月鏃星流直過南山之嶺　賊聚首見之目動而神駭也　又有一賊背向城中俯而叩臀以示侮辱之意　李黜射之一矢即斃馬 是日始閉城門　各守信地部伍雖精軍額甚寡僅守城西北而未遑於東南矣　合戰數日軍器已盡而蛇豕之羣日滋　蜂蠆之毒益肆 民士空拳無以爲禦或以木石擊之或以湯水灌之　勢迫朝暮決難久守而士卒猶能有死之心無生之氣　莫不奮臂揮泣　俄有一女子夜至北門外呼守者曰我有所獻急受之守者意其賊人之詐聽而不應　其女呼之不已　守者睨而視之　女抱一圍長箭而立　容貌端雅語聲琅然　於是知非賊人之爲也　倚身城角俯而問之女曰妾即海州妓也　城中矢石想已俱盡敢將長箭十六筒以助守禦之備願勿疑也守者曰汝之獻箭意甚可嘉汝欲入城則吾當垂索也　女不許即還去至四五步許回身低聲而語曰未數日賊當潮退公等幸堅壁而待之　語畢而不見　自是城中恃而稍安矣 其夜又有鬼火聚于東門外其麗不億相繼入城　賊見之大驚曰鄰救大至不可犯也　翌日賊斫玄山長松造雲梯橫駕西城　又取羅津棺板去下隅而冒之緣城而上者有若魚貫然李大春以鐵箭射之　棺板退落在下者皆壓死　倭將謂其軍曰破此三里之城易如拉朽而曠日持久尚未拔焉　是汝諸軍不爲力戰之罪也　令日固決戰論其刑賞矣 使人樹望旗于北山之陽以之低昂督戰而樹之未久旗自仆地更竪其旗督戰益急　孤城欲摧危如累卵　城中之人無不驚懼而失措　時有一人從東門而亡去　張應祺追捕其人　拔劍責之曰君以食祿之人見危亡去是不忠也後有效此者當行司馬法矣　城中聞之悚慄莫敢有逃散之心　公曰事已至此無可 奈何賊若陷城我當焚死積芻于前齎火藥而待之　諸壯士亦撤城中廬舍積於城上一時燃火　于時火風從東起　烟焰漲天咫尺晦暝　賊爲風烟所觸少止其鋒　圍城凡四日我軍之死亡者少　城下之賊屍如山　賊進不得入　退無所掠　乃解圍而去　城中男女老弱皆鼓譟而追之　賊退陣於天拜山下所掠牛馬放之前野　李大春等徒步追之超大浦抵

陣前奪其牛畜而來　賊擧衆逐之大春等一邊射殺賊一邊屠牛畜

或斫其脚　或刳其腸取啖越浦而歸 賊壯而畏之 賊臨去時送一木櫃于公曰親自開見也　左右皆欲開之　公曰賊謀難測愼勿開乃鋻而視之 果有一小倭挾短劍臥其中　公即令引鉅斷之 公之深謀奇略雖古名將莫之過也

＜李廷馣 四留齋集卷之十二壬辰遺史載延安誌＞

賊將甲斐豐臣長政等　以延安城守不去 悉發海州平山諸州縣屯兵　大擧而來 城中色沮多言招討　非受命守城　宜避此銳鋒以圖後擧　廷馣泣諭之曰　余以經幄老臣　不能執羈靮從行　今承王世子招討之命　亟宜乘一障效死 安忍苟活且誘民而入城　敵至而棄之　吾豈忍爲也　下令曰不欲同死者 任其出走　使奴僕　積草持炬以待戒曰 賊若登城　余當坐此 汝即焚之 毋令賊手汚我　乃諭遣異議之士　從事官爲姣民出去　申明約束　誓一心力 於是軍中感憤 齊呼曰 大將判死命　我輩何用生　爲賊遂圍城 有一將負白旗乘白馬環城周視　旗忽爲風所倒 武士張應祺發一矢洞胸殪之　廷馣指示左右曰 此賊敗兆也賊晝夜進攻　鳥銃數千齊放　烟焰籠塞　丸下如雨　廷馣意色安閑 令守陴者 矢無輕發 俟賊攀城發必中殺　撤門扉樓堂縛積草爲炬 列鼎煑湯令老幼兒婦供役　賊以草柴塡塹以上則 擲炬以焚之 賊以長梯登城　或負板以毁城　碎以木石注以沸湯　無不糜爛　賊起飛樓于南山　穴板壁臨射則城中隨起土墻以障　賊乘夜霧潛上西城守陴者　以炬圍燒殺四十餘人　受圍四日　晝夜大戰　賊亦丸盡　啗叫噪而已　城中亦乘勝歡呼金鼓震地　賊乃聚積尸焚之而退即出兵追擊斬級鹵獲甚多　廷馣獻捷 但言某日圍城　某日解去　無他語　朝廷皆言戰勝不易 不伐功尤難 賞加嘉善　同知中樞　同守將士有功者　張應祺 趙宗男　趙瑞龍　奉堯臣等賞職有差

＜宣廟寶鑑　卷之八＞

以是年八月二十二日至延安　府中豪傑有宋德潤趙光庭等 聚徒百餘迎曰公有舊恩 在本土乞留活我　公笑曰吾今日得死所矣　即入城募得五百餘人　提衡以勒之曰疇能爲我管四門鑰 疇能坐甲登陴使賊不敢近壕　疇能管我糧餉疇繕我器械隨才部分訖聚礮於堞列釜於傍老幼趨事群能著職

二十八日　賊酋長政刼掠載信諸郡　攻陷海州以兵三千餘人　與江陰之賊　悉銳而來　城中色駭有欲出陣計者　公曰我旣與兵民約同死生 陷民自濟所不忍也 良怖甚者 任自出城不汝拘也 一軍咸願死守 日旣昃賊進圍三匝　俄有一賊帥 周觀城外摩壘而過　勢益張甚 門將張應祺一箭洞胸而死　賊氣死不敢輕出　別於西城　以飛樓下瞰城中　以大砲碎之則亂發火箭 圍中多草屋 人皆心內懼洶洶　廻風大起　煙焰外靡　賊計無奈何　撤廬舍塡壕塹 遂鼓士陵城 群而蟻附之 公知不可爲 乃坐積蒭 戒其子濬曰城陷可自焚 聞者感泣　一力而齊　致死如是者凡四日　賊亦死傷過半 是夜師　潛賊己聚死屍盡焚之　翌朝乃解圍去　我軍僅斬一千十八級 奪牛馬九十餘匹軍糧一百三十餘石 朝廷聞公被圍　上下憂危 及捷至　只言賊以某日圍城　以某日解去　一無張皇語　議者咸言　却賊易不伐功尤難　上特加嘉善爲本道都巡察使　文武將官皆聽公節制 仍賞諸將以下　　　　＜李恒福 白沙集卷之十七＞

奴子還自延安言『昨日白川之賊數十人 來到延安東門外　求入城封倉　府使與邑人射殺爲首一賊　餘賊退走 延安之人皆言 府使輕射賊倭 必有後患 賊若復來則當縛送府使』云

＜行年日記六月十六日條＞

食後聞　倭賊入延安　府使僅得走免　鄕吏洪大澤　李忠祿等被殺　　　＜同上六月十九日條＞

村人來傳 延安留倭 昨日盡還金谷　無遺在者云

＜同上六月二十五日條＞

同月二十七日 海州江陰倭賊　無慮五千餘名 一時作賊　二十八日爲始進逼城下　四面攻圍

＜李廷馣의　八月狀啓＞

是日　平山義將李英馳報內　海州之賊　不知其數　移向延安二十八日白川義將趙應瑞馳報內江陰之賊　悉銃而來　移向延安云

＜行年日記八月二十七日條＞

平明 賊解圍 退屯白川 騎步彌漫十餘里

＜行年日記九月二日條＞

本月二日 始爲退却 江陰了向歸

＜廷馣의 狀啓＞

聞 倭賊留白川 繕完城池

＜行年日記九月五日＞

海州 江陰 黃州 鳳山 牛峰等處留賊 或據堅城 或築土城 皆懷整居之計 未見退走之形 出沒隣邑 恣意焚蕩

＜四留齋集卷九，黃海道招討使李廷馣狀啓＞

送人 探賊聲息于延安 回言『賊於初三日渡白川 封金谷倉 入郡 分給還上 不殺一人 廬家亦不焚燒 見人則勉以農業 後直向平山』云

＜李廷馣의 行年日記六月六日條＞

六月初四日五日留花山(金川의 別名) 朝得日本榜文見之則大略以爲『黑田甲斐豐臣長政 通諭黃海道兩班人民等 日本非是前日之日本 要與天下共享太平 寬徭薄賦 按堵如舊 大軍之過大小迎謁 入山逃避者斬 自持軍器 盡納于官 違令者斬 雖宰相朝士避亂者 毋隱來見 公私賤當盡爲百姓』云 其文雜以吏讀 疑是我國胥輩(胥吏) 所撰者也 因此 一道之民 投棄兵器 先期迎降 受倭帖文 公然塗貼 惟恐其後至

＜同上 行年日記＞

初豐臣長政 自津上入海西 監司守宰 皆望風遁逃 長政通諭列邑 示以刑賞 吏民牛酒市遝 白川人金德誠 朴春榮等 遂邀參議李廷馣 謀起義兵 建牙白川 傳檄道內 延安人張應棋 宋德潤 起兵會之 世子聞之 便宜拜招討使 廷馣曰 今吾衆稍合而無譯壘自固 是殺道也 二十二日己酉 率衆入延安府 時城中一米 義兵來會者 僅五百餘人 遺民男女老弱隨之者 亦不過二千人 戰具糧械掃如 人皆危之 越六日 長政合海州平山諸屯兵三萬而來 烟焰已漲於四境 城中色沮 多言招討非受命守城 宜避亂鋒以圖後擧 廷馣泣諭之曰 余以經幄老臣 不能執羈勒從行 今承王世子招討之命 函宜乘一障效死 不猶愉於苟活耶 且誘民而入城 賊至棄之 吾不爲也 從事禹俊民 掌書記鄭汝忠 李臣甲等 固爭以爲不可守 惟子濬及從事官劉漢良 李繼祿等 力贊之 俊民怒責濬曰 此城朝暮且破而乃欲置爾父於死地耶 濬曰 父能殉國 子當隨父 孝孰大焉 廷馣乃下令曰 不欲同死者任自出城 不汝拘也 以禹俊民 有老親 諭出城而申明約束 誓一心力 於是軍中感激 齊呼曰大將判死命 我輩何用生爲 時賊兵已迫近郊 赴義士趙宗男 閔仁老 沈慶祜 以數騎馳入城中 人皆壯之 武士白應禧 出城覘賊 遇之楓川橋 大呼突入其陣 賊驚亂少退 應禧遂從間道 馳入城 城中氣倍 翌朝長政圍城 有一賊將 導白旗環城周視 旗忽爲風所拆 北門守將 張應棋 發一矢 洞胸殪之 躍出城 斬其首而還 廷馣指示左右曰 此賊敗兆也 倭將豐臣長政 攻圍之 賊至城下 謂之曰 吾自南來 所向無敵 全羅兵潰於龍仁 唐將敗於平壤 高敬命趙憲皆死 汝其聞之耶 今此固壘殘兵 將何所至 且有何樣兵器 可堪敵我耶 武士白受米 挺身出應曰 汝以其兵 我以其義 汝鬪以力 我鬪以智 士之強弱器之優劣 不須問也 雖然我有一兵器 汝試觀之 即抽大角弓 彎六兩箭而射之 月鏃星流 直過南山之嶺 賊皆仰看而射之 賊遂進迫西城 射以火箭 城中救火喧擾 廷馣 乃鳴鐸禁之 遂定 賊知不可犯 稍退 日入 賊斂兵靜息 廷馣曰 是欲懈我而承我不意也 即令嚴備 已而賊果大呼而進 鳥銃數千齊放 烟焰寵墓 聲勢震沸 廷馣意氣安閑 令守陴者 矢無輕發 俟彼聲衰 即令吹角鼓譟 示將出戰 賊遂却

翌日賊架飛樓船 射城中 隨起土墻以障之 又用大砲中碎之 長政 乃設柵城中 以障矢石 建大旗於北山 督進諸軍 積草塡塹 肉薄而登 廷馣作隔坮 登以壯士 左右俯射 無不踣斃 殺其將一人 而賊勢益盛 城中惱惧欲潰 廷馣乃積薪而坐其上 令家僮列炬侍立曰 不幸城陷 汝即火之 無令賊手汚我也 軍奮 咸爲爭先力戰 無不一當百 守將張應琪 軍官閔海壽 射賊無算 箭皆穿重鎧 沒羽 幕下士睦孝範 連作草炬投之 戰至夜深不已 賊暗抽一軍 乘西門無備梯絙突入 賊已登城 守將李大春 急熱火塞路

潰卒隨集 賊不能入 忽東風大作 烟焰外靡 燒斷長梯 延燒城外賊柵 遂乘勢 盡殺入城之賊 士卒益懽呼幷進 自城上投以大石 灌以沸湯無不靡爛 平明視之則尸積城中如山矣 是夜賊幷薄南門 守將李夢悅 趙儉等亦却之 賊皆鳴螺而未幾又作衝車 百道俱進 諸將膀力戰却之 日暮 賊更設木柵 作長梯數十 將欲再梯進而城中列炬呼噪 金鼓震地 賊驚懼不敢進 赴義士李希建 福死士 往往突出奮擊 賊皆披靡 或爲賊所逼 一躍而上城樓 時年十七 希建即宗張之子也 自其父殉節忠州 携劍獨出 誓報仇至是來附之　<宣廟中興誌卷三>

李知事廷馣 壬辰以吏曹參議避兵至延安 府使李某棄城遁 賊將長政以三千兵猝至 公曾爲府使遺愛在民 吏民聞公至皆願死守 公遂部署行伍分城而守 列礮具治樓櫓僅畢而賊圍之 公駈家屬納於公廨 塞其門積蒭其傍 峙薪于城門而坐其上 令軍中曰賊如登城 即火之 我與家屬誓不汚賊刃 人皆感激 賊蟻附而登 公命沸蕩千鼎以灌之 賊負薪而進 公命束火以投之 賊戴空棺而上 公命以石擊之 無不應手而墜 盖賊盡其力而戴之 小有所觸 棺輒自動 不能爲力故也 大戰三日賊技窮而遁 事聞 論其功 進公招討使　<金時讓撰 紫海筆談>

賊據海州 將進攻延安 人民率皆荷擔而立 及聞前參議李廷馣 自開城府至 遂迎入曰 今公若爲我等守此城 我等亦當死守 廷馣遂得武士四百餘名 共城中人約數千 晝夜治城 爲防守計粗完 賊引兵至 城中人謂廷馣曰 我等之盡死力 爲令公也 令公之不出去 爲我等也 今賊已迫 令公心若一毫不堅 城中數千命 皆斷送之 廷馣曰 爾等尙有未信我耶 遂令人建一草屋于城中高絶處 四面積薪 下令曰 城不守 爾等速火此 我當死於此 民咸曰 令公若如此 我等亦當死 賊分兵進薄城下 冒死仰攻 城上矢石如雨 老者運石以投之 婦人汲水而灌之 賊或乘雲梯 或冒木板或項屍 犯城築土 蟻附而上 城中束火投之 烟氣大盛 賊不能登 又於城外三重屋 俯視放鐵丸 城中又堅板屋 四面導起 賊晝夜分番迭入 百計攻之 城中亦隨機應之 大戰五日 賊解圍而去 城中人曰 賊衆分軍而戰有休息之時而我軍晝夜苦戰 目不交睫 氣力垂盡 少遲一晝夜安得抵當 非令公所感 我輩已爲丸下鬼 自此賊據白川一日程 更不躡延安之境 盖所憚也 由江華渡延安 西達于行在 南通于湖嶺 皆延安保障之力也 朝廷特陞廷馣嘉善世子賜敎書 稱以招討使 尋稱巡察使

<朴東亮著 寄齋史草下 壬辰日錄三>

廷馣遂傳檄遠近 諭以逆順 仍招集義旅 金德誠趙廷堅等來會 遂得數千官兵 王世子聞之 便宜拜招使 廷馣遂入延安城 建大將旗書奮忠討賊四字 及大捷 賊退據白川 自秋至翌年春 日來索戰 賊知不可犯 遂棄白川屯 追錄宣武功贈右贊成月川君 謚忠穆公

<昭代紀年卷六十一宣祖朝四>

初七日(壬辰九月) 海西之賊 進圍延安 招討使李廷馣助防將金大鼎等 大破逐之 初臨津之敗 海西二十四郡 曾無一人義士 鎭將邑宰 俱各偸生 一路州縣盡被焚掠 四境之內 幷爲賊窟 唯延安一府 僻在南邊 賊鋒未至 廷馣等收聚潰將散卒 同爲效死之計 盡括境內男婦 編於行伍 輸入近地錢穀 以備糧餉 謹設斥候烽燧 伏兵要害 日夜待變 至是本道屯據賊酋等合兵五六餘萬 浩浩蕩蕩殺奔延安來 圍迫攻城 廷馣先積薪草于鹽州舘 矢以不幸當者焚死 義不可辱 及 至城下 與諸將分隊守 日夜巡檢 慰諭軍民 誓以同死曰 八路地方 盡爲賊據 只此一城 國家所有 今又不幸事至於死 一死報國 其在於是而況不能守 我將何往 千百人命 一朝休矣 士卒聞之 無不奮激 勵氣先登 裹瘡出戰 賊勢日增 援兵不至 六日受圍 城甚孤危 廷馣入臥薪中 命着頭爇火 士卒聞之 飮血更登 疲兵再戰 一以當千 適東西風起 田見龍趙信玉等爇薪草投下 繼之無數 火烈風急 賊中昏亂相失 死者無知其數 餘黨奔還本陣 追斬之級甚多　<趙慶男撰亂中雜錄>

時黃海平安兩路 賊兵充斥而延安一城 孤危尤甚 吏曹參議李廷馣與弟廷馨 受同守開城之命及臨津師潰 急趨延安 府中豪傑宋德潤 趙光延 聚徒百餘 迎曰公有舊恩在玆土 乞留活我廷馣笑曰 吾得死所矣 即入城募得五百人曉喩之 且曰 誰能爲我管四門乎 誰能爲我坐申登陴 使賊不近壕 誰能管我粮餉 誰能繕我器械隨才部分訖 聚礎於墩 列釜於旁 老幼趨事 群能著職 一日賊酋長政劫掠載信諸郡 攻陷海州以兵三千人 與江陰之賊 悉銳而來 城中大懼有欲出陣計者 廷馣曰 我與兵民 約同死生 陷民自濟 所不忍也 若有怖甚者 任自出城 不汝拘也 一軍咸願死守 日旣昃 賊兵進圍三匝 俄有一賊帥 周觀城外 摩壘而過 守門將張應祺以一箭射之 洞胸而死 賊兵氣死 不敢輕出 乃於西城 以飛衝下瞰城中 以大砲碎之則亂發火箭 圍中多草屋 人皆心懼洶洶 忽回風大起 烟焰外靡 賊計無奈何 撤廬舍塡壕塹 遂向城上攀援蟻附而上 廷馣知不可爲 乃坐積蒭 戒其子濬曰 城陷可自焚 聞者感泣一心而齊致死力 或以巨石投之 或以熱湯潑之 或以火灰揚之 如是者凡四日 賊亦死傷過半 是夜賊將遁 乃聚死尸盡焚之 翌朝解圍而去 我軍追斬一十八級奪牛馬九十餘匹 軍粮一百三十餘石 朝廷初聞廷馣被圍 上下危懼 及捷文至 只言賊以某日圍城 以某日解去 一無張皇語 議者咸言却賊易而不伐功難 上特加嘉善大夫本道都巡察使 文武將官 皆聽廷馣節制 仍賞諸將以下有差 前歲申恪之爲府使也 趙憲以爲 倭寇將至 延安爲必守之地而城中無水爲憂 貽書於恪 引北神堂水入城中 爲守禦之備 至是賴之

＜申靈撰 再造藩邦志二＞

初七日 海西之賊 進圍延安招討使李廷馣助防將金大鼎等大破逐之 初臨津之賊 黃海一道無人抗義禦 冠州縣盡被焚掠並爲賊窟 惟延安未受賊鋒 廷馣等收聚潰散將卒 爲効死之計 盡招境內男女 編於行伍 輸入近地錢穀 以備粮鋒 設斥候烽燧 伏兵要害 日夜巡城慰諭曰 八路地方 盡爲賊據……以下略 亂中雜錄과 大同小異

＜春坡堂日月錄卷之八＞

五十四，釜山浦 海戰(壬辰年九月一日)

九月初一日 鷄鳴發船 辰時過沒雲臺 東風遽起 波濤洶湧 艱以制船 到花樽龜尾 倭大船五隻相逢而到多大浦前洋 倭大船八隻 到西平浦前洋 倭大船九隻 到絶影島 倭大船二隻 幷依岸列泊 故三道水使 所率諸將 及助防將丁傑等合力 無遺撞破 滿船所載 倭物戰具 勿令搜得 幷爲焚滅 倭人望風登山 斬頭不得 絶影島內外面 打盡搜討 無賊蹤 乃令小船 馴送釜山前洋 探審賊船則大槪五百餘隻 船滄東邊山麓岸下至列泊而先鋒倭大船四隻 邀出草梁項云即與元均 李億祺等約束曰以我兵威 今若不討還師則賊必生輕侮之心 乃指旗督赴 右部將鹿島萬戶鄭運 龜船突擊將臣軍官李彥良 前部將防踏僉使李純信 中衛將順天府使權俊 左部將樂安郡守申浩等 先登直進 先鋒大船四隻 爲先撞破焚滅 賊徒游泳登陸時 在後諸船 仍此乘勝 揚旗擊鼓 長蛇突前 鎭城東一山五里許 岸下三處屯泊之船 大中小大槳四百七十餘隻而望我威武 畏不敢出 及其諸直擣其前 則船中城內山上穴處之賊 持銃筒 挾弓矢 擧皆登山 分屯六處 俯放丸箭 如雨如雹至於發射片箭 一如我國人 或放大鐵丸大如木果者 或放水磨石大如鉢塊者 多中我船 諸將等益增憤惋 冒死爭突 ＜李舜臣釜山破倭兵狀＞

凡前後四次赴敵 十度接戰 皆致勝捷 若論將士功勞則莫逾於今番釜山之戰 前日相戰時 賊船之數 多不過七十餘隻而今則大賊巢穴 列泊四百餘艘之中 盛陳兵威 乘勝突進 略無畏挫 終日奮擊 撞破賊船百餘隻 使賊心摧膽落 縮首惶怖 雖未斬馘 力戰之功 超過於前時 依前參酌功勞 分等磨鍊 別狀開坐而順天監牧官 趙玎 慷慨發憤 自備船隻 率其奴子 牧子 自願赴敵 倭人多數射殺 倭物又多搜得之由 中衛將權俊 兩三論報 臣之所見亦如是 鹿島萬戶鄭運 起變以來 激發忠義 誓欲與賊同死 三度

討賊 每爲先突 釜山接戰時 亦爲冒死突進 賊之大鐵丸 貫穿頭頂而致死 極爲慘痛 諸將中別定差使員 各別護喪 其代以他有武才計慮人斯速差除催促下送間 臣軍官前萬戶尹思恭 假將差送 接戰時 中丸致死重傷士卒 防踏一船射夫順天水軍金千回 呂島船分軍色興陽水軍朴石山 蛇渡三船格綾城水軍金開文 營捍後船格軍土兵奴守培沙工鮑作金叔連等 中丸致死
<同 上>

九月一日 公隨李統制將赴釜山傳沒雲臺下 公曰雲與運俳音我其死于斯 仍戒左右曰我雖死毋使賊知我死 遂進攻 賊方酣戰焚艫 南海縣令奇孝謹 黷賊貨■水撲燄 鹿島之士多傷 公憤叱孝謹 驅帆乘勝到絶影島而日已夕矣 助防將丁傑謂公曰 日昏賊熾詰朝決戰何如 公奮然曰 丁公亦有是言耶 吾已夫一死 奚待詰朝 賈勇苦戰 遂中飛丸 <鄭忠壯公實記 卷一>

八月李舜臣進攻釜山 鹿島萬戶鄭運死之 舜臣引兵還 舜臣謂諸將曰 釜山賊之根本也 進而覆之 賊必失據 遂進至釜山 破其先鋒 游兵焚大艟三十 鄭運乘勝先進 賊列五百餘艘於海岸以待之 助防將丁傑謂運曰 日將暮 賊勢又盛莫如休兵觀勢 待明日一戰未爲晩也 運曰 我誓與賊不俱生 何待明日 即促櫓先登 舜臣大軍繼至 賊懼背棄船登岸亂放鳥銃 舜臣列艦繞岸射之 殺傷甚衆 仍碎其船百餘艘 賊下視而不敢救 戰久日曛 舜臣遂回船而退 未出中洋 鄭運忽中大丸而死 舜臣大慟曰 國家失右臂矣 時賊以重兵久居釜山 改建城壁樓櫓 盤據甚壯 舜臣知不可易攻 乃引兵還營以待天兵
<宣廟中興誌 鄭忠壯公實記卷二>

九月初一日 公(李舜臣) 與李億祺 元均 助防將丁傑等 相議曰 釜山爲賊根本 蕩覆其穴則賊膽可破 遂進至釜山則賊於屢敗之餘 畏我威不敢出 唯登高放丸而已 撞破空船百 有餘隻鹿島萬戶鄭運中丸死 公痛之不已 親作文以祭之 <李忠武公行錄>

五十五, 第3次 慶州 戰鬪(壬辰年九月八日)

朴晋復慶州 晋屯安康縣 夜潛兵從城外發飛擊震天雷 入城中墮於陣內 賊不曉其制 爭聚觀之 相與推轉揣摸 俄而砲自中一發聲震天地 鐵片星碎 中仆即斃者二十餘人 一陣眩倒莫不驚懼 以爲神 明日遂棄城 遁歸西生浦 晋遂入慶州 得餘穀萬餘石 事聞陞嘉善(飛擊震天雷 古無其制 火砲匠李長孫者創出 取震天雷以火砲砲口 發之能飛至五六百步 墜地良久 火自內發 最好陷陣而後無用之者)
<宣廟寶鑑卷之八>

慶尙左兵使朴晋駐安康 收集散卒 令朴毅長率兵 晝則馳突城底 以示兵威 夜則列炬峰頭 放砲驚之 由是慶州之賊 藏伏不出 未幾空城宵遁 毅長入城 收倉穀四百餘石 道路得通 府尹尹仁涵在杞溪 使毅長治兵守城
<趙慶男撰 亂中雜錄卷一>

慶尙左兵使朴晋復慶州 晋馳安康 收集散卒 令朴毅長率兵 晝則馳突城底以示兵威 夜則列炬峰頭 放砲驚之 賊空城宵遁 毅長入城 收倉穀四百餘石 道路得通 <春坡堂日月錄卷之八>

於是晋(慶尙左兵使朴晋) 乃率左道兵萬餘 進薄慶州城下 賊潛出北門 掩其不備 晋軍驚擾奔還安康 是夜更募敢死士千餘人 潛伏城下 多發震天雷 射入城中 散墜於諸處 賊不曉其制爭聚其處 相與推轉而諦視之 俄而砲自中發 聲震天地 鐵片星碎 中仆即斃 處處俱發 一砲所中 幾三千餘人 其不中者亦顚仆良久而起 賊衆莫不驚懼 不測其由 皆以爲神明 遂擧衆遁歸西生浦 晋遂入慶州 得穀數萬餘石 事聞 陞晋嘉善大夫 應銖通政大夫 大任醴泉郡守 以賞之 <再造藩邦志二>

左兵使朴晋 收復慶州 晋初自密陽 奔入山中朝廷以前兵使李珏 棄城逃走 即其所在誅之 以晋代爲兵使 時賊兵充滿 行朝聲聞 不通南方已久 人心搖動 不知所出 及聞晋爲兵使 於是散民稍集而守令往往從山谷中復出莅事 始知有朝廷矣 及權應銖復永川 晋率左道兵萬餘 進薄慶州城下 賊潛出北門掩軍後 晋奔還安康 夜又使人 潛伏城下 發飛擊震天雷入城中 墮於客舍庭中 賊不曉其制 爭聚觀之 相與推轉而

諸視之 俄而 炮自中而發 聲震天地 鐵片星碎 中仆即斃者三十餘人 未中者亦顚仆 良久而起 莫不驚懼 不測其制 皆以爲神 明日 遂擧衆 棄城遁歸西生浦 晋遂入慶州 得餘穀萬餘石 事聞 陞晋嘉善 <懲毖錄一 (三八面)>

我兵潛出北門 掩其軍後 晋奔還安康 夜又使人潛伏城下 發飛擊震天雷于城中 我兵聚觀 俄而炮自中發 聲震天地 鐵片星碎 中者即斃不中者顚仆 我兵未知其制 故異而驚還西生浦 震天雷飛擊 朝鮮古無其制 火砲匹李長孫者創製之 飛至五六百步墜地 良之火自內發

<征韓偉略卷之二>

震天雷者 古無其制 有軍器寺火砲匠李長孫創出新制 以鐵蔆鐵片等物同引火之具 裝成一圓球用火碗口載之 投火以發之能飛五六百步 墮地良久 火自內發賊最畏此物今不知其遺制之何如 可勝嘆哉 <再造藩邦志二>

五十六，第 2 次 星州 戰鬪

(壬辰年九月 自十日至十一日)

(壬辰九月) 星州屯賊 既無茂溪玄風之援 勢甚孤弱 鄭仁弘與金沔 約合勢進攻 金俊民以形勢不便 頗有難疑之色 衆議皆以爲可伐 遂決意進兵 諸軍咸集 各整部伍 環布數十里 軍容甚盛 仁弘與沔對陣可坪 近星城五里 諸軍次次齊進 圍迫城門 進退馳突 誘引挑戰 賊倭不出 只以鐵丸備之 終日進退 無陷城之具 日暮還陣 期以明日更擧 沔令裴楔設伏扶桑峴 以防開寧來援之賊 楔唯唯而退 語人曰 我豈聽書生節制爲渠設 伏于中路乎 遂不往 是夜星賊走開寧告急 開寧賊大來 我軍不知 明日方治攻城之機 援賊不意大至 張鶴翼圍抱 城中賊亦開門來擊 沔遽上馬先出 我軍棄旗鼓遁潰 仁弘堅坐不動 送儒生於沔 勸令鎭定 諸將士來持鞍馬 勸仁弘急避 仁弘不得已亦出 金俊民在後 且戰且退 捍衛諸軍 以此軍多免死 高靈假將孫承義中丸而死 射士李竹射斬金鞍倭將 右巡察金誠一拿致陜川義兵軍官 責其不稟擧事之失 杖之 <趙慶男撰 亂中雜錄一>

金沔鄭仁弘等攻星州之賊敗走 仁弘聞星州屯賊無援勢孤 與金沔約合勢進攻 金俊民以形勢不便難之 沔等不從 諸軍環布數十里 軍容頗盛 仁弘與沔對陣於星州五里地 諸軍次次齊進圍迫城門 馳突挑戰 賊終不出 終日進退 無陷城之具 日暮還陣 期以明日更擧 沔令裴楔設伏扶桑峴 以防開寧來援之路 楔唯唯而退 語人曰 我豈堪聽書生節制爲渠設伏乎 遂不往 是夜星賊走開寧告急 開寧賊大來 我軍不知而方治攻城之機 賊兵不意猝至 張鶴翼圍抱 城中之賊 亦開門來攻擊 沔遽上馬 軍遂遁潰 仁弘獨不動 將士挾持上馬而出俊民 在後 且戰且退 以此軍多獲免 高靈假將孫承義中丸而死 金誠一拿致陜川軍官 責其不稟擧事而杖之

<春坡堂日月錄卷之八>

星州屯賊 自失茂溪玄風之援 形勢稍弱 鄭仁弘與金沔 議攻之 將佐皆以爲可代 獨金俊民以爲不可 仁弘不從 與沔連兵進圍之 營幕連數十里 賊兵閉城不出 沔以爲開寧屯賊 與星州賊 輔車相依 勢必來援 令陜川郡守裴楔 伏兵扶桑峴 以截之 楔性素驕亢 佯諾而退謂人曰我豈書生喉下人耶 終不往 是夜賊告急於開寧 翌日賊兵果自開寧大至而峴無守兵 遂長驅而過 直衝義兵後 城中賊 亦開門協軍擊之 沔軍先潰 仁弘堅坐不動 麾下強扶上馬 仁弘別將孫承義 中丸而死 金俊民 獨殿而後 且戰且却 斬倭一將 遂得全軍而還

<宣廟中興誌 卷三>

鄭仁弘 金俊民 又破游賊四百餘人於星州 斬其將 獲其輜重賊將所騎馬 甚駿 額有肉角 俊民奪而騎之 <宣廟中興誌卷二>

五十七，鏡城 戰鬪(壬辰年九月十六日)

咸鏡北道評事 鄭文孚起兵復鏡城 時北界守將皆被土人執 與倭將逃出者十無一二 評事鄭文孚 嘗授書校生故變作之後 弟子數人庇護得脫 校生及武士有識者 聞文孚所在 皆就之 遂推

文孚爲義兵將 團集土兵壯士數百人 鏡城人前萬戶姜文佑 領率居前 即抵府城 鞠世弼方稱禮伯 莅兵使 印治府自若 猝聞兵至 閉門乘城拒之 文佑等脅以禍福 世弼知不敵 開門迎入納印 文孚下令曰 大小兵民勿問舊犯 仍令世弼領兵如故 遂傳檄南北州堡合兵三千人 又抄精猛突騎爲先鋒 吉州倭賊聞之 遣兵百餘人哨探至城西 姜文佑等開門出擊 斬數十人 餘賊遁

<宣廟寶鑑 卷之八>

壬辰之亂 北路將官多爲賊所虜 評事鄭文孚亦爲賊射中什田間 適賊日暮舍去 文孚間關 轉徙浮寄民間 及清正還北青 留其將屯吉州 鏡城鞠世必 會寧鞠景仁等 率北路以聽 鏡城儒生池達源等 欲起兵討之 無適從 聞文孚在民間往請之 文孚不信有難色 達源等陳其誠 文孚始肯從到南村 招募勇士姜文祐等僅二百餘人 鍾城府使鄭顯龍 慶源府使吳應台亦自山中至 遂建旗鼓入鏡城 世必倉卒出迎 文孚入據官以文孚等自衛 城中皆賊黨尙多反測 文孚等心恐 會吉州賊四十餘巡邏卒至 門閉不得入 城中騷擾 文祐請以鐵騎蹂之 文孚疑不許 強而後從之 文祐率敢死士二十餘騎 開門突出 賊出不意驚走 文祐縱騎逐之 至永康驛盡殪之 日暮雨下 文祐等不還 文孚大懼 慮文祐投賊 登城警備 夜三更文祐持賊首數十級而大呼叩門 文孚大喜出迎 士氣始振 城中效順之意益堅 遂斬世必以徇 <金時讓撰 涪溪記聞>

五十八，仁同附近 戰鬪

(第一次 壬辰年九月二十日 / 第二次 同 三十日)

慶尙道仁同鄕兵將張士珍 與本縣賊戰敗死之 士珍驍勇有膽略 自初銳意討賊 其弟士珪戰死 益自奮勵 爲別將 領軍守要 一日同縣屯賊數百不意猝至 士珍只率勇士數十 挺身力戰 先射錦衣銀冑之賊 斬首注槊 賊徒呼哭遁走 士珍乘勝追射 顚斃無數 後十日賊倭悉衆復至 先以十餘騎 誘引挑戰 士珍又突擊射賊 應弦而倒 遂乘勝追殺 埋伏之賊 卒然四合 腹背受敵 左攻右拒 力詘被害 事聞贈通政

<出慶尙巡營錄，趙慶男撰 亂中雜錄一>

鄕兵張士珍 及倭人戰於仁同 死之 士珍軍威校生也 驍勇有膽略 起兵仁同 弟士珪戰死 益自憤勵 每戰先登射賊 無不應弦而倒 賊遠避之 一日賊兵數百 猝襲士珍營 士珍只率數十人擊之 斬其將 取首注槊而舞 賊號哭而走 追擊破之 後十日 賊設伏誘之 士珍窮逐 陷伏中 矢盡兵潰 猶大呼搏戰 賊斷其一臂 獨以一臂奮擊 良久而事聞 贈水使 <宣廟中興誌 卷三>

第 7 節　第 3 期 10 月作戰

五十九，露峴 및 昌原城 附近 戰鬪

(壬辰年九月 自二十四日 至二十七日)

二十四日(壬辰九月) 釜山留屯賊藤元郎平調等 率東萊金海之倭三萬餘名 分道幷進 一軍自露峴 一軍自熊川 踰安民峴 犯昌原 兵使柳崇仁率官軍義兵 迎戰不利 時右道數邑之軍防戍露峴 賊出不意 亂殺無餘 翌日崇仁收散卒又戰大敗 賊八十餘名 直入昌原 焚蕩邑居即退屯于沙火村 崇仁與諸將士 結陣于馬山浦 翌日賊兵合勢 進屯于咸安 元郞謂信此是小酋今大來將又有其他而傳聞未及 故此出慶尙巡營錄 <趙慶男撰 亂中雜錄一>

太守……攻金海城 不終日而下之 殺傷一萬人 徑前擊破昌原城 梟首五百人

<黑田長政의 碑銘>

六十，晋州城外 戰鬪(壬辰年十月六日)

初三日(壬辰十月)賊兵分道向晋州 一軍踰馬峴一軍由佛還 直擣晋陽 翌日先鋒千餘騎 馳到州東峰上而還 兵使崇仁戰敗 單騎馳到願 入城同守 牧使金時敏以爲 兵使入城 則是易主將也 必節制乖方 以致不能相 拒之不納曰賊兵已合 城門戒嚴 少若開閉 恐有倉卒之虞 主將在外爲援可也 崇仁不得入還出 遇賊于城外

與泗川縣監鄭得悅加背梁權管朱大淸等戰敗死之 郭再祐聞時敏不納崇仁 歎曰此計足以完城晋人之福也

初六日 賊兵進圍晋州 時牧使軍三千七百餘名 昆陽郡守李光岳軍百餘名 在城中 分隊而守之

<春坡堂日月錄卷之八>

(上略) 頃之賊入晋州 時敏乘城拒守 公(鄭得說)聞警急 疾馳赴 時兵使柳崇仁陣城外 公亦將三百卒 以犄賊後 居數日 賊大至 崇仁與戰潰 公躍馬 大呼救散卒 欲更戰 會日暮 士卒無戰心 公氣益勵 援弓射賊 矢旣盡 乃手一鐵棍掊而鑿之 公素乘白馬 賊目之 曰白馬將軍 所到輒披靡 不敢近 已而賊悉兵 圍四五匝 砲丸如雨 公已決一死 冒槍劍左右馳 以衝擊前後 所傷殺甚衆 公亦力竭死之 三百卒 鮮有得脫者實壬辰十月初六日也 時敏嬰城 不敢救

<贈兵曹判書鄭公墓碣銘>

羽柴藤元郞即秀吉之從侄 羽柴 秀吉舊姓 留屯釜山兵力最强 至是合東萊金海之倭三萬餘人入右路 又發水軍 屯據熊川海港兩峽間 以遏湖南舟師 右兵使柳崇仁 與藤元郞 戰于昌原不利 收散卒 又戰大敗 十月初二日戊子 藤元郞乘勝入咸安 六邑兵皆潰 前後官軍 死者千餘人 庚寅(四日) 賊迫晋州 柳崇仁單騎馳到城下 呼金時敏 開門 時敏謂其下曰 若納兵使入城 是易主將也 節制乖方 兩不相能 大事去矣 遂答崇仁曰 賊勢方急嚴城 不宜輕開 公在外爲援可也 崇仁遇賊 與泗川縣監鄭得說 加背梁權管朱大淸等 敗沒於陣 鄭得說彎弓左右 射殺數十百人而死 時年二十八 郭再祐聞時敏不納崇仁 歎曰 此計足以完城 晋人之福也

<宣廟中興志上 壬辰十月>

六十一, 第1次 晋州城 戰鬪

(壬辰年十月 自五日至十日)

十月初五日 沿海留屯之賊 由咸安踰魚東嶺 焚班城倉 圍矗石城 公(金時敏)於是 閉門固守 戒士卒曰 毋恐懼 毋誼譁 各守壘堞 覘賊所爲 ……中略……公又揀忠信軍官六十餘人 遞番巡城 戒士卒 無懈 或親自巡視 ……中略…… 逐日調糧 計口優給 士飽而歌 一心而禦

第四日夜半 賊中吹角相應 公令軍中曰 無輕撓 各備禦具以候之 賊緣城 然後發之 猶未晩也 於是 三令之 五申之 俄而賊齊起齊聲 齊放鳥銃 鐵丸之落於城中者 如雨雹聲 無一人中者 賊去城十步許而止 城中寂無語聲 惟用鍾鼓絲竹聲 以示無懼 賊又伐鉅竹 作飛樓於城東北 放砲其上 於是用大岐箭 藏火藥 指樓放之 樓即破碎倒地 賊終不得逞其術 相持五六日

第五日 義兵將郭再祐 遣勇士沈大承等 抄率精銳百餘人 乘夜而進而人各持五枝炬 羅立飛鳳山上 吹角大呼 城中高聲以應之 賊徒疑有援兵大至 相顧失色

第六日夜半 賊又鳴鑼相應 公令軍中曰 今日非昨日比 須各嚴其備以候之 愼勿虛放矢石 食刻 賊一時高聲 急赴城底 塗城欲上 城中包火藥於枯荻 投諸賊中 或以湯水注其面 或以大石搥其胸 射矢知如雨下 無不中者 又選精銳送於北門公曰 地勢高危 賊必謂防禦疎虞 不無踰越之謀 急往觀之 賊果設雲梯於漆林上 騎馬鐵面者 方馳上 欲踰城 勇士數人 射中賊胸 騎馬者顚倒而落 諸人繼射之 男女爭集轉石 賊不得上 由是賊氣摧挫 不得迫城而退 解圍而去 是日 大雷雨晦暝 火起賊營 奔北而去 路上僵尸相枕 皆是爛死者 城中鼓噪 驩聲動天地 猶不開門逐北者 蓋用軍兵 窮寇勿逐者也

圍城 凡六晝夜……中略……賊北時 公在新北門樓上 射賊多中 中必斃 不知流丸自何方來落公額上 血流而不動 欣躍自若 軍民喜其無傷也 不幸因而吟痛 月餘不起 <忠烈實錄>

晋陽受圍屢日 援兵不至 賊勢日熾 牧使金時敏百出方略 晝夜拒戰 常以一心同死 勸勉諸軍 躬持食漿 奔救飢渴 鐵丸如雨 冒立不動 時時泣諭曰 擧國淪陷 餘存者少 只此一城 係國命脈 今又不利則我國家休矣 況一敗則城中千百人命 盡爲刀槊之鬼 嗟爾將士 戮力敢戰 期於置之亡地而後存 士卒感激 莫不殊死戰 戰久矢竭

城中危懼 時敏夜使人縋城出走報監司 監司欲送軍器而難其人 乃以重賞募得營吏河景海以付之 景海乘夜潛行 得達城下 開門納之 得長箭百餘部 以之繼用 士卒氣倍

固城義兵將崔堈李達等 皆發兵援晉 堈陣山 令軍各擧四五炬 或進或退 擂鼓吶喊 響動山谷 賊衆驚駭 城中將士聞之喜躍曰 此必固城義兵將崔堈李達來援也 達亦領兵陣于頭骨坪 縱擊斬殺

初十日 晉州牧使金時敏 大破賊于城下 餘賊遁還本陣 追至召村驛而還 本道右巡察使金誠一在居昌 捷書至 即馳到本州 見賊屍枕藉踐血滿地 不勝嘆服 因入城就牧使臥內(中丸臥內)慰藁久之 以金海府使徐禮元爲假牧 代領其衆 即日發啓云云　<趙慶男撰 亂中雜錄>

時大賊圍晉州 牧使李璥病死 判官金時敏及昆陽郡守李光岳等 晝夜苦戰 分兵爲六營 更迭迭出 晝夜不休 城中銃砲矢石 百計拒守七日 賊多死傷遂遁 朝廷陞時敏爲兵使兼晉州牧使 未久病卒　<寄齋史草下壬辰日錄四>

晉州牧使李璥 竄智異山 金誠一聞之 疾馳入晉州 令判官金時敏 聚兵守城 又以前郡守金大鳴爲募官 整頓器械 派直將領 賊來屯泗川 將向晉州 誠一選壯勇 渡江馳擊 賊乃退 又分兵薄泗川城下 絶其樵汲 賊退走固城 乃遣金大鳴等兵 義兵將前訓鍊奉事崔堈 合兵擊之 賊潰走熊川金海等邑 崔堈固城人也 天性剛直 有膽量驍勇絶人 至是同志壯士李達 起兵 兵雖不多而能得士心 與郭再祐齊名而禦衆之才 過也

<宣廟中興誌卷一>

十月 釜山等地屯賊 合兵大擧圍晉州 牧使金時敏大破賊兵 晉州圍解 初倭將悉兵數萬薄晉城 城中兵三千餘人 時敏分守諸堞 靜而待之 城中寂然 賊多張旗幟 盖婆金飾假面 服飾奇詭 日耀星爍 眩暈萬狀 倭將六人分陣督戰 銃手數千 常從山上齊放射 城內 勢如雷霆 呼聲動天地 時敏令軍士勿動 俟彼聲衰 即放砲鼓噪應之 賊大伐竹木松枝編作障行<實錄作術>築土塞其內 使我不覺 多造竹梯數千 廣可一間覆以網席 以爲大衆一時齊登之路 作三層山臺臨壓城堞 時敏預備火具 紙裹火藥 藏於束草城上分設大砲及大石 女墻內置釜鼎沸湯以待之 賊盖其攻具 四面肉薄 城中發玄字銃 射山臺賊墜之 以火藥草焚松障 以大砲碎竹編長梯 或灌沸湯 或投大石 以破諸攻具 九月初十日夜半賊兵佯退潛還 賊大將親督戰 諸倭皆擁牌裏頭初攻東門 一擁而上 後陣千銃齊發 使人不得立城上 時敏麾衆血戰 弓弩砲石俱下 賊兵隨至隨殪 僵尸如麻 一皆摧敗 方戰酣 又一大陣急攻北城如東門狀 萬戶崔德良等 冒死拒戰 備禦齊一達明少休 城中木石盖茨殆盡 時敏中丸臥 昆陽郡守 李光岳 射殺將倭 日中賊陣始退焚屍解圍而散 城受圍十餘日 大戰四五日 內外力戰而賊先遁　<宣廟寶鑑卷之八>

嗚呼急病禳夷忠所激也 死守不去義所決也 出奇卻敵勇所奮也 能是三者而轟轟烈烈至今□□□□□ 故牧使金侯是也 萬曆壬辰夏四月 倭奴傾國入寇 直擣三都 充斥八路 鑾輿霜露 廟社□□□□□列邑望風奔潰 首鼠恐後 獨侯以本州通判 許身殉國 揮泣誓衆 擊逐泗川固城之賊 擒倭將□□□□□送于行在 領兵赴金山攻破賊陣 大張威聲 使開寧錦山之賊 皆聞風退去 非忠之所激者□□□□□□未還之日 聞倭賊乘虛直犯之報 倍道疾趍入城中 奮田單即墨之臂 勵張巡睢陽之志不□□□□□亡非義之所決者乎 月暈方急 蟻援不至 日夜巡城 牛酒饗士雍容尊俎吹笛鳴琴 軍情自牢 恃以□□□應會捷出神挺身先士卒歃血督戰 賊勢大挫積屍如麻 孤壘偏師 實不滿千而乃能卻賊 十萬之師□□□於勇者能若是乎 忠如是 義如是勇如是 故人雷雨晦冥賊徒驚惑 褫魄宵遁 天所助也 賊□□□□□□□□意與之同仇人所愛也 天助之 人愛之而只恠夫命物兒多戲劇 賊退之日 適爲流炮所中而□□□□□□忽領 嗚呼痛哉嗚呼痛哉朝廷嘉侯之功 初旣陞牧增秩繼命擢拜摠兵終焉 特□□□ 馬□□□典其亦至矣…以下略……　<金時敏全城卻敵碑>

晋州牧使金時敏卒 時敏自中丸之後 不有其身 益以國事爲念 擧頭時時向北流涕 丸創不愈 因致未起 鎭中恐賊知之 秘不發喪 然而若喪考妣 哭聲相聞 年逾一朞 士女食素 旅櫬行到咸陽 得聞褒陞右兵使之命 因監司啓 以徐禮元 代爲牧使 厥後被擄人在倭國者 書報右監司曰 倭賊每稱晋牧 且其時倭將乃羽柴藤元郎云者 秀吉之從姪 兵力最強 敗衂退遁昌原 忿恨成疾 而死云 <趙慶男撰 亂中雜錄一>

壬辰藤元郎圍晋州 降中兵纔三千八百人 時敏分守各堞 靜以待之……時敏與其妻親持酒食 餉士卒晝夜不懈 無不感泣 以死戰爲心……夜令樂工吹笛門樓 以示閑暇 義兵將崔堈李達 自固城來援 夜登綱陳山 列炬呼噪 雷鼓震山 郭再祐遣其將沈大承以二百人乘夜潛進州北山 吹角擧火與城中相應 使人大呼曰 紅衣將軍連絡南兵 今將大至矣 賊大驚擾 義兵將崔慶會以二千人馳援 金俊民亦領兵至力戰 破賊於丹城 捍後將鄭起龍又破賊於薩川……城中木石 蓋茨殆盡 時敏中丸臥 昆陽郡守李光岳 替上將臺督戰 射殪一倭將日中藤元郎 始解圍退兵 盡棄所掠婦女牛馬而遁 金俊民自丹城追至晋州則圍已解矣 崔堈追擊斬獲而還 時敏患瘡猶以國爲念 時時擧頭北向流涕 竟不起 城中恐賊知 秘不發喪 士女如喪父母 或素食一朞

<洪良浩著 海東名將傳卷五>

上洛君金公諱時敏 余從兄也 少時落拓不學 魁梧壯偉喜爲夸誕之言 雖一家之人莫能知也 登虎榜選人軍器寺 李相憲國爲提調 獨加器異 屢補外輒請留 辛卯爲晋州通判 晋嶺南巨邑也 素多豪右號爲難治 公弛張得宜 德施而威行 吏戢民懷 聲治洋溢 壬辰兵興 牧使適死 公攝州事 修器械繕城池爲效死計 時列郡風靡 大駕西狩 賊兵橫行無敢拒者 獨晋嵬然爲湖嶺保障 朝廷聞之 擢公爲牧 與士卒同甘苦誓生死 遂破金山賊 擒鎭海賊將平少泰等送行在 宣廟嘉之超授節度 是冬賊悉兵來圍 雲梯池道盡九攻之術而公應之如神 賊輒挫退 內無精兵 外無蟻援 公只以忠義 激勵士卒 皆樂死登陴歷十四晝夜 殺傷無數 賊大敗而遁 公爲流丸所中病創 未及論賞而卒 城中士女哭聲如牛 湖嶺人士皆相吊出涕曰 吾其如何 還葬槐山故塋 路出湖南 士民爭輓車而泣曰我公也 無我公我死久矣 及晋之再被圍也 倡義使金千鎰 湖南節度崔慶會 湖西節度黃進等兵六萬守之 聲勢比前十倍 人皆以爲可守 有老妓獨憂之 千鎰招問其說 導曰前日兵雖小 將卒相愛 號令出一故勝 今軍無所統 將不知兵 兵不習將 妾以是憂之 千鎰以爲妖言斬之 數日而城陷 賊憤其前敗 遂夷其城而去 <金時讓撰 涪溪記聞>

□金時敏

字勉吾 安東人 封上洛君 銘曰 氣銳而剛 質毅而温 義以爲幹 忠以爲根 全城卻敵如其功 死於王事如其忠□□□巍晋水洋洋一石 千秋山高水長 <金時敏全城卻敵碑>

初五日(十日) 先鋒騎倭千餘名 直到州東馬峴北峰 周覽形勢 橫馳耀兵 牧使傳令城中 視若不見 不許妄費一箭一丸 但令城內通望處 建龍大旗 多張幔幕 盡聚城中老弱男女 皆着男服 以壯軍容 是日申時 賊徒還向來路 牧使即抄驍健人 登山候望則賊衆數萬結陣于州東十里臨淵臺等處

初六日 早朝 賊自大灘一時長驅 騎馬橫馳者或揮長柄圓金扇 或負白質黃文金翣 畫以雜彩因風飜動 光彩閃爍 或着雞羽冠 或着被髮假面 或着有角金假面 各員雜色旗麾 或長或廣不知其數 或奉青盖 或持紅盖 白刃耀日 殺氣連天 凡奇形異狀 驚惑人眼 分作三運 漫山下來 一運東門外順天堂山結陣 俯瞰城中 又一運自開慶院 直過東門 列立於鳳鳴樓前 又一運自鄕校後山 直越順天堂山 與鳳鳴樓倭 合爲一陣而其他各峰環立之倭 蜂屯蟻聚 將倭六名皆着黑單衣 雙牽馬 持鎗劍者 擁立前後 着白衲衣女人 亦爲雙牽馬 多率從倭 立於將倭之前 步隨女人 其數亦多 順天堂山結陣之倭銃手可千餘名 向城中齊發 鐵丸有似轟雷飛雹三萬餘倭 一時大呼 聲震天地 城中全不動搖

寂若無人 俟其勢衰(亦爲噪鼓) 放炮 俄而賊徒散入閭閻 或取門板 或持棺板 或浮抹樓板 列立於城外百步之地 潛伏板內 放丸不絶 餘賊四散 奔蕩西邊民家 又撤東邊草屋 或斫閭閻竹物 或輸藁草 一時結幕 連亘六七里 皆圍以靑帳 將倭則或入鄕校內 或住閭閻大家 是日載馱牛馬 自午至昏 自東而入 絡繹不絶 初更賊一處吹角 處處相應 衆倭高聲大呼 食頃而止 放丸之聲 徹夜不絶 結幕處處 終夜燃火 是夜郭再祐遣沈大承 率軍二百餘名 登鄕校後山 吹角擧火 城中之人 亦吹角相應 賊衆大驚擾亂 擧火登山 終夜不寐

初七日 賊衆自朝至暮 放丸不絶 又以長片箭亂射城中 分兵四散 焚蕩作賊 數十里內閭家盡爲灰燼 盡斫遠近公私長竹 或束或編 多取松枝 高積於陣外 斫取大木 連絡輸入 不知其何用也 牧使務要鎭定軍情 夜則令樂工吹笛於門樓上 以示閑暇 賊中兒童甚多 或爲京語或爲鄕言 每每周城大呼曰 京城已陷 八道崩潰 如篋晋城 汝何能守 莫若速降之爲愈也 今夕介山父來則汝將三首 當懸於旗上云云 城中之人 莫不憤怒 高聲欲叱之 牧使禁勿與言 是夜月落後 賊潛立竹編於東門外 橫亘數百步 竹編內列立板子 積盛土空石 層壘成阜 平臨城內 以爲放炮避箭之所而竹編前遮 故我軍初不覺也 及朝視之 已成土壘矣

初八日 賊多造竹梯 無慮數千 又作廣梯 編竹甚密 廣可一間 覆以網席 鱗次連排 以爲衆軍直上之路 又作三層山臺 爲輪轉壓城之計 牧使放玄字銃筒 三度洞貫 造臺之倭 驚懼退去 牧使料賊多積松枝者欲踰城也 前遮竹編者欲薄城也 預備火具而恐其生濕難燒紙裹火藥 藏於束薪中 擬投城外以燒松枝城上多設震天雷蒺藜炮大石塊 欲擊薄城之賊 又備長柄斧鎌等物擬破輪轉山臺 女墻內又多設金鼎沸水 揚湯灌賊 晝則伏兵陴內 使不立視 多造蒭人 彎弓持滿 出沒於城上 嚴勅軍人 勿放虛矢 常時投石 使賊不敢近城 是夜賊多設竹編 漸次近城 築土漸高 兩處山臺 構結四層 前面懸板 以蔽矢石 欲爲放丸之所 夜二更 固城假縣令趙凝 道州伏兵將鄭惟敬 率戰五百餘名 各持十字炬擧火 列立於南江外 晋峴上吹角 城中之人 望見援兵之至 即鳴大鍾吹角以應之 賊徒驚怖諠譟 即燃火各幕 分遣伏兵 遮列江邊 以截援兵

初九日 曉頭 二千餘名 向舟城之路 四散焚蕩 一運向丹溪縣 爲狹川假將金俊民所逐 一運向薩川之路 爲鄭起龍曹敬亨所逐 日暮還屯 留在之倭 放炮發矢 終日不絶 負土之役 比前尤急 賊登山臺 放丸無數 城中放玄字箭三度 穿過竹編 又貫大板 一矢則洞貫賊胸即死 厥後賊不敢更登山臺來 時伏兵將鄭惟敬率戰三百餘名 自晋峴至沙遷 列立觀兵 又抄勇士二十餘人 勦擊南江外焚蕩之賊 及竹物斫伐者 留陣倭人二百餘名 渡江追逐 鄭惟敬乃退 是昏賊列炬往來 有若相約之狀 有一兒童 走到新北門 乃本州被虜者也 引問賊情則答曰 明日曉頭 賊欲幷力攻城云云

初十日 四更 初明火各幕 載馱出去 佯示退歸之狀 以怠我軍 然後滅火潛還 四更中分二運 一運萬餘名 內薄東門新城 各持長梯 或負防牌或着鄕校籠器 或割網席裹頭 或以蒿草編草爲冠 以避矢石 作三層假面蒭人 次次登梯 以誑我軍 然後賊緣城 騎倭千餘名 隨後突進 放丸如雨 呼聲若雷 將倭則馳馬橫行 揮劍督戰 使在東門北隔臺 判官在東門擁城 率射士殊死戰 或放震天雷蒺藜炮 或投大石 或投火鐵 或焚藁亂投 揚湯灌賊 賊踏菱鐵 中弓弩 殞矢石焦頭額者無等 又爲震天雷所觸 僵死如麻 方城東酣戰之時 又一運萬餘名 乘暗潛行 突至舊北門外 持長梯負防牌 勢將騰入 守陴者皆驚潰 前萬戶崔德良牧使軍官李納尹思復 冒死拒戰 潰卒復集 隨方拒賊 一如東門 老弱男女亦爲之下石投火 城中瓦石盖茨殆盡 良久東方欲明 賊勢少歇 牧使左額中丸 不省人事 昆陽郡守李光岳代守北隔臺 率其射壬 奮勇力戰 射殪雙牽馬倭將 自四更交鋒 日加辰巳 賊始退兵 兩處戰所死者不知其幾而賊徒即爲曳去 投

之間閭烈炎中 斬級之數 僅三十餘頭而賊退後閭家燒骨 處處積在 將倭之屍 則入籠擔去 委棄被擄人牛馬 狼狽遁去而牧使中丸 將壬力竭又無繼援之兵 未得追擊殲盡 極爲痛憤 牧使生變之後 盡心國事 焰焇五百十餘斤 預先貴取 略倣倭制 新鑄銃筒七十餘柄 別抄境內幹能之人 常時習放 故臨戰之時 用火藥如水 至裹柴藁中以投城外 連絡放丸 以摧大敵 大槩一國崩潰之餘 無一人敢爲守城之計而牧使獨能堅守孤城 不藉外援 能却大敵 不特保全一道 抑又捍蔽湖南 使賊不得長驅內地 牧使之功 於是爲大 <趙慶男撰 亂中雜錄, 鶴峰集卷四, 馳啓晋州守城勝捷狀>

賊之一枝 又繞出海縣 進圍晋州 判官金時敏木川人也 登武科 有才略善騎射 方在城中 爲固守計 諸將議欲棄城 時敏誓軍中 以死自許因令敢言去者斬 收境內士民入城 男女雜編行伍 設器械樹旗幟 賊進至城下 圍之數匝 勢如壓卵 時敏與其妻親持酒食 巡城饗士 晝夜不懈 人皆感泣殊死戰 賊大敗 棄甲曳兵而走 不敢更窺晋州 以功陞本州牧使 方其戰時 飛丸中身 因以不起 是時朝廷以敎書宣喩本道軍民 <再造藩邦志二 (大同小異一春坡堂日月錄卷之八)>

日側 史料

秀吉遂催諸將 進取 軍監及諸將議將出兵 然開城大兵守之未易攻 將先攻晋州城而加藤光泰細川 忠興長谷川秀一等七人以後諸將而航海不多經戰 特進率二萬兵攻之 晋州地嶮稱名城 慶尙監司金士純以銳兵二萬守之 加藤等不知之 以爲寡兵易與 且七將名位相侔 不受節制爭前附城 城將見我軍無紀律 突出而戰 我軍皆亂 日漸畏矣 城兵彌進 七將不知所爲 僅免而歸 器械委塗 兵士多亡 從是不復出兵 軍監等復議曰如此而竟日必遭太閤譴 不如告實乞援 於是疏曰明兵二十萬素諸地理 且其兵日增我兵寡難敵 試攻晋州 不能拔之 黃海忠淸全羅慶尙皆在掌握而彼或據險嘯聚 道路梗塞 今有援兵至 多築壘 壓鎭諸道 與如松決戰掃蕩鮮地而後直入明不難也 秀吉令毛利秀元率兵二萬 先航海 猶欲多發兵 然京師警衛名護屋屯兵外無復可徵發 悵然嘆曰吾不幸生小國 兵不足將如之何 <征伐記, 秀吉譜, 黑田家記>

六十二, 朔寧 戰鬪(壬辰年十月十八日)

京畿監司沈岱 受命直到朔寧郡 召集軍兵 又使人入京城 諭以禍福 京城人民 久不知大駕所駐 及聞是言 或悲或泣 一時皆持軍器納于岱 連日絡繹 動以千百計 岱所領幾千人 收拾器械 約與楊州牧使高彦伯 圖爲收復京城計 賊覘知之 遂擧衆分路襲之 朔寧郡守張志誠 率兵伏於路 岱恃此不設備 上下皆達曙寢 張志誠見賊而逃 賊遂圍營燒之 岱猶不起 遂被害

<朴東亮著 寄齋史草下 壬辰日錄四>

京畿巡察使沈岱爲賊所襲死於朔寧 岱爲人慷慨自變初常憤憤奉使出入不避夷險代權徵爲京畿巡察使每巡行建旗吹角而行如平日 不畏賊聚軍自領之聲言欲復京城日遣人入城中召募約爲內應 城中人恐事定後以附賊爲罪聯名結狀赴岱軍前自言能內應者日以千百數名曰聽約束曰輸軍器曰報賊情往來人無所阻其間亦有爲賊耳目來察動靜者多出沒相雜而岱信而不疑 一日在朔寧郡賊詗之潛渡大灘乘夜襲之岱驚起披衣走出賊追害之軍官者捍蔽而死

<朝野僉載卷之二十七>

每巡行先發路文 如平日建旗鳴角而行 民相聚曰 不圖今日復見使相威儀 衆心始有依歸 公到列邑 以忠義激勵 兵民且言且哭 人莫不感憤 京城來報賊情者 日相續 公撫諭之 使爲內應 將剋期勦滅賊 有成汝諧者 嫁其妹倭酋 來求爲軍官 公不知其詐也 時鐵原賊 從淺灘潛渡 掩其不意 公敗績退屯朔寧 汝諧者乘公積勞病發 引賊殺斥候將 中夜合圍 軍官張姓人直入帳裏告曰 事急矣 請與跳出以圖後 公起視之 軍已陷矣 徐步出客舍後大樹下 倚樹而坐曰 此我死所也 援弓射賊 張姓人守不去 賊大呼曰 監司安在 張姓人出曰 我是監司 呼我何爲 賊斫其首以去 我人爲賊腹心者見之曰 此非監司首也 賊遂逼公與三從事 尹慶元 姜壽

男 梁誌 同時過害 實壬辰十月十八日也 尹以鹿皮纏股 姜紅絲繫髻 梁着白飾網巾 蓋與公約以死預爲 原隰辨屍之表也 公時年四十七 公之兄子大觀 收公屍 殯于郡後山麓 平其土以防賊害 賊以計欺守直奴 知其處 掘發取其元懸于京都鍾樓街上 面如生者五六十日 楊州牧高彦伯 購其函送于江華 與屍身葬于南陽 敗報至龍灣 上大震悼 遙贈吏曹判書 令道臣監其葬致祭 及還都降哀編 若曰 沈岱死國 予悼念之不能忘耳 其令地部月給米布以爲祭 終三年 既三年又敎曰 沈岱之子已除喪其除一縣無使孤寡飢寒 公之子大復特除橫城縣監 汝諧竟誅死 張姓人失其名 惜哉 甲辰錄扈聖勳加贈左贊成青原君 庚戌又加贈議政府領議政青原府院君 <樊巖集卷之四十八 沈忠壯公神道碑銘>

時畿伯及陽城縣監缺 上命速出其代 廷議難其人皆以爲忘身殉國無出 沈岱尹慶元右竟拜沈公爲畿伯 公爲陽城縣監 沈公要得贊畫人與俱廟堂又擧公及兵曺佐郎姜公壽男 以佐幕 盖以二公有衆望也 是年九月自行在所將向京城 二公慷慨執手泣曰 若夫成功則天也 唯有一死耳於是公以鹿皮纏股 姜公亦取紅絲綰髻 心已決死爲識屍也 行收兵進至漣川界 遇賊於澄波渡屢戰輒破之 賊挫少鋒 移屯朔寧 依山樹砦爲戰守計 時京城盡爲賊藪 沈公克期勦滅 多募城中人爲內應而機事不密 公憂之 屢以變生所忽爲戒 沈公未之信 賊果詗知之 乘我無備潛師夜薄之 軍既寡弱 賊勢猋至崩潰不可支 沈公設倚坐曰 此我死所也 賊大呼先犯之 公與姜公植立鋒鏑中 彎弓搦箭連殪賊數十 身被創血淋漓 格鬪愈益奮 竟與同死於陣前杏樹下 即壬辰十月十八日也 澄波之役 公所斬殺賊尤多賊深恚公 亂刀交斮之 體無完肌 被害之慘公最酷也 回鑾後 上追念公偉烈 特贈左承旨 錄原從功 英廟壬戌 加贈公大司憲 漆坪君 仍命旋閭 公字善餘 籍漆原　<漆坪君家狀>

京畿監司沈岱 爲賊所襲 死於朔寧 岱爲人慷慨 自變後常憤憤 奔使出入 不避夷險 是年秋代權徵爲京畿監司 從行朝(義州)赴任所……既乃聚集軍兵 悉以自隨 聲言欲復京城 日遣人入城中召募 約爲內應 城中人 恐事定後以附賊獲罪 連名結狀 出赴監司 自言 能內應者日以千百數名 曰聽約束 曰輸軍器 曰報賊情人人往來無阻 其間亦有爲賊耳目 來察動靜者多 出沒相雜而岱信之不疑 至是岱在朔寧郡 賊詗知之 潛渡大灘(漢灘川) 夜襲之 岱驚起 披衣走出 賊追害之 軍官張姓者亦同死 賊去 京畿人權殯于朔寧郡中數日 賊復出取其首 懸於鍾樓街上(京城) 積五六十日 面色如生 京城人哀其忠義 相與率財物 賂守倭贖出之 函送于江華　<懲毖錄>

京畿監司沈岱受命 直到朔營郡召集軍兵 又使人入京城 諭以禍福 京城人民 久不知大駕所駐 及聞是言 或喜或泣 一時皆持軍器納于岱連日繹絡 動以千百計 岱所領幾千人 收拾器械 約與楊州牧使高彦伯圖 爲收復京城計 賊覘恃知之 遂擧衆分路襲之 朔寧郡守張志 誠率兵伏於路 岱恃不設備 上下皆達曙寢 張志誠見賊而逃 賊遂圍營燒之 岱猶不起 遂被害
<朴東亮의 否泰小錄下九의 十二>

時我兵方屯朔寧 以圖鐵原之賊 賊乘夜掩襲 一軍殲焉 京畿觀察使沈岱亦死於賊事
<宣祖實錄卷三十一 (十月乙卯二十九日)>

沈岱得畿伯之命 即日登程 慷慨奮發 不避艱險 招募軍兵 分授器械 志欲討賊而既無寸略性且迂踈 志未伸而身死賊手 人皆悼之
<同上 編者附記>

沈岱者青松人 字公望 爲人慷慨……中略……賊退後 與尸身還葬故山 朝廷贈官 蔭其子大復 官至縣監　<再造藩邦志二>

書生沈岱爲人慷慨 代權徵爲京畿監司 時畿甸創殘甚 我兵日出焚掠 前監司守令以下躱避深僻 微服潛行以附害 岱不畏每巡行建旗鳴角而行 又聲言欲復京城 岱在朔寧我兵詗知之 潛渡大灘夜襲之 岱驚起披衣走出 我兵擊殺
<征韓偉略卷之二>

六十三, 吉州 長坪(長德山) 戰鬪

十月二十一日 潼關僉使李應星乙用良留 鎭將

差定率戰七百餘名　使守鏡城爲白　遣臣率軍千餘 進駐明川縣爲白乎如中 吉州牧使鄭澗績 輸城察訪崔東望　併爲來會爲白齊　倭賊千餘段據吉州城內三百餘段　在吉州南八十里　嶺東地相爲往來　聲勢相倚　或十百爲群　樵採山谷　或分兵四出　殺掠村家　恣意橫行　略不顧忌爲白齊臣與中衛將鍾城府使鄭見龍率鏡城以北軍千餘留　明川抄出精兵四百　分二道進屯古𨯶地　設伏要路爲白　遣左衛將高嶺僉使柳擎天乙用良嶺(領)吉州戰千餘　屯海汀以伺摽掠之賊爲白遣右衛將慶源府使吳應台段　率吉州兩里及西北堡土兵與本堡將 據堡抄出精兵 設伏洞口　以斷樵採之路　臣從事官前引儀土及第元忠恕段率精兵二百餘　屯吉州北三十里　阿間倉登山覘賊次　同月三十日早朝　倭賊可千餘名　張旗出城　向海汀加坡里爲白去乙　同元忠恕亦即即馳報　各處伏兵將爲白　遣率其部下　直要歸路次倭賊焚蕩村舍　刼掠財畜　虜其婦女　午後回還爲白去乙 元忠恕至賊接戰　斬其先導兩賊 倭賊北退爲白去乙　乘勢追擊　遇倭賊大軍　令其步卒　登山據險　身率精銳捍後　退保次古𨯶伏兵將防垣萬戶韓仁濟　聞報即時　率諸將士三百餘騎　馳往二息程　與元忠恕合擊倭賊狃於屢勝以爲誰何　先驅所掠卜馱向吉州　巨魁政丞稱號名直正者　監司稱號名都關汝文者　及節度使稱號名不知將等五人　率精勇軍四百餘名　敢死突戰多放鐵丸爲白去乙　左斥候將吾村權管具滉　右斥候將安原權管姜文佑　別將玉連萬戶安沃　臣從事官造山萬戶印元忱　戰官慶源土及第黃嗣元　鍾城府使戰官土及第朴銀柱等 各率所部 一時突陣　厮徒下卒無不鼓勇　射矢如雨　倭賊等皆下馬地鬪爲白如乎　猝遇突騎　自申初至日昏兩軍出沒交兵　力屈始爲登山北走爲白去乙 適音左衛伏兵將斜▯洞權管高敬民　亦率所部　遮絶山上爲白　遣我軍精勇　左右夾馳　直上峻山追至十餘里　一賊背上 矢中十數 幾盡殲戮 將帥五名併爲射斬　中箭墜崖　不知其數　所擄人畜全數還奪　軍裝雜物　併以獲得爲白齊　斬割左耳捌百貳拾伍箇段　封上送　馬壹百拾捌匹段各授所奪人爲白遣　環刀段　亂軍各自佩持　時未盡追爲白　有齊旗貳拾　玖甲伍拾部　冑捌部鎗拾陸柄 銃筒貳拾陸柄 鐵丸陸百肆拾陸箇 藥桶拾五筒等物段 留上爲白　在果大槪酣戰　日昏未能一一斬馘爲白良置中箭入城　逃竄山谷以死者　不知其數

＜農圃集卷之三 吉州長坪破倭賊狀啓＞

仁濟(中衛將韓仁濟)約東諸將　夜到吉州　縱火城外民家　烟焰漲天　城中之賊大驚　盡出城頭而望之　韓仁濟等退陣于明川古𨯶驛(古站)整旅待變　第三日黎明　候吏來報曰「賊無數出城(吉州)　向于明川海邊(加坡地) 韓仁濟等率兵馳往　遇賊於石嶺　左右夾擊　賊不敢於一丸圍立其將十餘匝 我軍四面亂射之　外匝先倒 內匝繼倒　次第盡倒　然後賊將一人　擁紅旗獨立一矢而倒　餘賊奔還　諸軍追擊　幾盡殲焉　斬馘至四百餘級矣 黃昏還軍 至古𨯶則夜已分矣　時鍾城府使鄭見龍以大將　自明川追到古𨯶　步迎韓仁濟于途　執馬上手曰　久在北邊　終立大功至於此 眞男子也 終夜飮酒盡歡而罷

＜文德敎의 東湖集 壬辰錄＞

十一月十五日　與倭合戰于吉州長坪石乙古介我軍乘勝大捷　斬馘不可勝計　倭將退入壁

＜朴興宗의 義旅錄＞

十一月　州(吉州)陣賊將巨道文　領千兵　出掠明川加富地　時內奴李培家甚饒　因巫祀釀酒方濃　諸賊飮而盡醉　大掠廻軍　許珍　金國信會議曰『賊還　暮當至石嶺　路挾傍多險阻　可伏兵』遂間行潛伏　賊果暮至嶺底　左右伏兵俱發　圍之數匝　賊震駭失措　或醉不能持兵器　許珍　金國信等齊射 發無不中 短兵隨發　大將(鄭文孚)亦領兵追至　積屍如山　巨道文獨跳奔　入壁痛哭　堅壁不動　　＜北關誌明川雜記＞

第 8 節　第 3 期의 11 月作戰

六十四, 咸興附近(黃草嶺) 戰鬪
（壬辰年十一月十日）

柳應秀 與李希祿等十餘人 來于本府高遷社 數

日之內 募兵得千餘人 先執黨賊者三人斬之 翌日遇賊十五人 盡殺之 即與朴中立 鄭海澤分三衛 陣于元平社 賊聞我起兵 大擧而來 焚刼岐川岐谷等地　柳應秀獨與騎步兵數十人突進斬賊首三十四級 餘賊奔還其陣 於是諸軍隨至軍勢大振 與賊隔水(城川江)而陣　發矢必中 賊不敢渡水而來 賊將一人指麾其軍 奮釼而前 有軍士張允琛 射之 一矢而倒……於是軍士勇氣百倍 乃送一衛 爲擊後計 賊懼而走 日已暮矣不得窮追 翌日聞之則城中(咸興城)多哭聲 必死傷者衆矣　<文德敎의 東湖集壬辰錄>

李惟一與生員韓敬商募兵 得三千二百餘人 陣于德山洞(咸興東北四十里　今德山面上岱里)遇賊德山舘(咸興德山面新豐里)前　設伏而夾擊 斬首四十九級 賊奔還城中柳應秀李惟一等送馘於別害監司大喜曰　此輩尙能討賊不足憂也 於是以甲山府使成允文爲大將 廟坡權管白應祥　爲咸興判官往討之成允文出陣于黃草嶺下(黑林川流域)　白應祥與柳應秀導陣于岐川(岐川面五老里附近)賊大擧而來 白應祥, 柳應秀等逆戰 挫其先鋒 賊北走 我軍乘勝 逐北至洪島(五老里附近) 賊大呼而反攻之 我軍稍却死傷者多矣 成允文來 陣于獨山下 賊請其兵於南官 悉衆而來 乘夜襲之(十一月初十日) 成允文罔知所爲 脫身逃走 我軍盡爲賊所陷 避亂老弱 亦恃大將(成允文)衛而下來 皆血兇鋒僵尸滿野 時柳應秀等 以大將令 陣于川北上端(川北은 咸興北쪽十里.) 欲爲尾擊而以賊來益衆 不得發焉 柳應秀曰『此賊必空城(咸興)而來 乘此時入城 庶可得志矣』朴中立 鄭海澤不之從 故未成奇計 後自城中來者曰『出戰之日 留城之賊 只有數十名』云　<同上>

成允文收散卒 入據德安陵 下令曰『毋或輕犯賊鋒』 自是賊益肆焚蕩 柳應秀慷慨曰『大將擁兵自衛 深入不出 其將奈何』獨率數十騎 來于川北 搜討刼掠之賊 賊望見而走 柳應秀單騎追至城下(咸興) 斬一賊而還 城中之賊 出城頭望之 莫敢來救矣 成允文怒曰「非大將令而擅自輕發 雖得斬賊 何功之有」將欲請罪於監司(尹卓然)而不果 盖允文恥已敗軍 忌人有功故也 加平(咸興北五十里)之戰 成允文先走之 不利而退 唯賊將有咸興判官稱號者 爲白應祥所射 倒載而歸 自是賊不敢出　<同上>

李惟一遇賊于德山驛(咸興郡德山面德山舘咸興東北三十二里)以衆寡不敵　先據峰頭 矢下如雨 賊不敢犯 居數日 賊數百向于洪原 李惟一遇賊於咸關嶺下 大戰良久 賊踰嶺而走 李惟一追至咸原站(洪原郡 龍雲面 仁興里洪元西三十里今仁興里) 下馬地鬪 賊將一人着朱衣揮釼而前 李惟一以片箭射之 應弦而倒 他賊一人 代着朱衣而來 又射而殪之 賊大敗而走 仍日暮 不得追 第三日 洪原縣監馳報曰『咸興來賊 被箭而死數十人 積于空舍中 縱火焚之其餘傷創者過半』云 自是南北之賊 畏不敢相通　<文德敎의 東湖集壬辰錄>

應秀等進至高遷社 數日募得千餘人 先搜黨賊者三人斬之 即與朴中立鄭海澤 分屯元平社 咸興屯賊聞之 出兵岐川 應秀獨與步騎數十突進遇賊先鋒斬三四十人 餘賊奮還其陣 於是諸軍隨至 與賊隔水相射 賊不敢渡 倭將一人 麾兵奮刼而前 官軍射殪之 應秀馬中丸而倒 應秀氣益壯 戰益勵 斬違令不出者 一人而徇之 士氣益奮 遂奮軍繞出賊後賊惧而走 會日暮不得進 翌日聞城中多 哭聲 益死傷多也 李惟一與生員韓敬南 募兵德山洞 得三千二百餘人 遇賊於德山舘前 斬四五十級 應秀惟一 送馘放別害 卓然大喜曰 此輩尙能討賊 賊不足憂也於是以甲山府使成允文爲大將　廟坡權管白應祥 爲咸興判官 統諸軍討賊 允文出陣黃草嶺下 賊大擧以來 白應祥 柳應秀 逆戰挫其先鋒追至洪島 賊益大呼 反攻之 官軍稍却 多死傷允文進屯獨山下 軍勢甚盛 賊益請兵於諸屯 十一月初十日丙寅 夜襲官軍 允文不知所爲 脫身而逃 一軍盡陷 避亂人來依官軍者 皆血戰鋒 僵尸滿野 時柳應秀 與朴中立 鄭海澤 別屯府北 應秀曰 賊必空城而出 亂此擣城 城可入也 中立海澤不從 後自城中來者曰 向日之戰 留城賊只數十人云 允文收散卒 入據安陵

禁諸軍無輕犯賊 賊遂益肆焚掠 應秀奮曰 大將擁兵自保 任城噬螫 將如吾民何 獨率數十騎 搜退抄賊 賊望風而走 應秀單騎追至城下 斬一賊而還 城中賊望之不敢出 允文怒曰 違將令者有功亦誅 將加罪而止 後又合軍戰於加平 允文先走 軍皆次之 惟白應祥 射殪賊將稱咸興判官者 自是賊不敢輕出 李惟一遇賊數百於咸關嶺下 擊走之 咸原下馬步鬪之 一賊酋着紅衣 揮劍而前 惟一一箭斃之 一酋繼至 又射斃之 賊大奔 自是賊勢中斷 南北不得相通 是時韓仁濟 柳應秀李唯一 皆咸興人也 一時俱以戰功者 人目爲三傑 仁濟以功爲北虞侯 白應祥延安人也 亦勇果善戰 後竟於殉陣 道內守令 惟端川郡守姜燦 介南北間 四無依援而亦能募兵討賊 人皆嘉之

<宣廟中興誌卷三>

六十五, 利原 附近 戰鬪

(壬辰年十一月十七日)

去十一月十七日 願所率兵向端川 行到利城縣施西院洞 整見烟火 即與約束 先以慶興府使羅廷彥 吾乙足萬戶宋思誠爲先鋒 吾(李聖仁)則率元(先?)軍 與兵使從事官李春祺 即向焚蕩處 賊倭百餘名 發射放砲 我軍來擊大呼 賊陽勢挫 我軍乘勝斬馘五級 奪五人(誤脫이 있을 것임.)環刀十五柄 銃筒三柄 火藥鉛丸入盛三囊 又奪還擄去女人二名及牛馬

<尹卓然의 癸巳日錄 癸巳正月十四日條>

端川郡守斬一級 李應福 李俊等斬賊五級上近論賞事……啓請書狀封進

<尹卓然의 癸巳日錄十月二日條>

六十六, 龍仁 金嶺驛 戰鬪

(壬辰年十一月未詳日)

京畿道進士元埏 起兵討賊 大敗于龍仁金嶺之賊 埏慶尙右水使均之弟(金嶺驛名在縣東三十里 此賊乃三十里置一屯之賊)

<亂中雜錄卷一>

六十七, 尙州 龍華洞 戰鬪

(壬辰年十一月未詳日)

尙州假判官鄭起龍 破倭人放郡西 初起龍 自金山軍潰以後 往依昆陽郡守李光岳 托起龍 使守本郡 而身赴晋州 金誠一 聞其言 召見大奇之曰鄭君前途未可量 他日國家之得力 未必非此人也 晋州之圍 使爲捍後將 有功 遂啓差尙州假判官(十月)　<宣廟中興誌 卷三>

尙州牧使金澥竄入州西龍華洞 州民恃其險阻 皆往依之 於是起龍倍道而進 直入甲長山中僧招集官義兵 適聞剽賊向龍華洞 急馳赴之 則賊已入洞 將肆屠掠矣 起龍以爲急擊則 必傷我民 乃於賊陣相望處 立馬長嘯 仍放馬上 或立或臥 或隱或現 跳騰百態 賊爭聚觀而奇之 謀欲生致 並進逐之 起龍且奔且止 誘出於平野 然後奮劍擊之 斬殺殆盡 以故洞中人民無一所傷 人謂起龍 半日不至則尙人無遺云 戰罷 入見金澥於洞中 澥大喜 事無巨細 悉諮而焉 於是起龍 日以單騎隻劍 出擊抄賊 斬首三百餘級 賊畏之 咸聚城中 不敢輕出 行路始通

<宣廟中興誌 卷三>

第 9 節 第 3 期의 12 月 作戰

六十八, 中和 戰鬪

中和人林仲樑 身長八尺美容儀 善談笑 敏於應變 鄕人服其智 尹鵬高麗文肅公瓘之後也 目光如炬 膂力過人 激昂有義氣 不屑於生産 人皆以爲似文肅公風 及大駕西巡 鄕里避亂人 恃鵬有勇略 爭願依附 鵬曰賊旣入平壤而列邑幷潰 吾境以南皆賊窟也 將焉避之 死義耳 與其枯死草間 孰若倡義討賊 天若助順 掃除兇醜往迎大駕 此丈夫立功名之秋也 衆皆從之 鵬遂與其兄麟及族人殷老 殷衡 郡人許士賢 平壤人金德濂等 往就仲樑 謀曰此地即賊咽喉也 今若從中起兵 斷其咽喉 賊必不敢舍我而更進 是恢復之勢也 遂推仲樑爲將 鵬副之 招集少年

四百餘人 築壘於郡西二十里之直山 距平壤四十里 浚濠塹 列烽燧 鑄農器爲兵 自夏涉秋屢與賊戰 仲樑善誘 鵬善鬪 斬殺無算 至是仲樑 引兵直抵平壤 立木於大同江岸 斫而書之曰 詰問我當勦爾巢 蕩爾窟 能戰則來 不能則速去毋留 平行長見之大怒 使其將 將數千人鼓噪而出 仲樑乍戰乍退而誘之 呼謂賊曰 汝必欲送死者 吾與汝相約可乎 汝宜於吾壘東北隅 相會無相負也 賊望其壘小 甚易之 答曰吾起自海上 所向無敵 如此蟻穴 立可踏平 汝其敢抗我乎 仲樑益大聲叱以挑之 與戰良久 佯敗入壘 偃旗臥鼓 以待之賊意其無備 駕雲梯蟻附而上 壘中鼓噪並起 競投瓦石 瓦石旣盡又以長柄瓢 亂洒沸湯 無不灼爛倒墜 又預燒土多作蜂腰甕 繫干鞭 伺賊上 揮其劍頸而罩下之 一擊殪 餘賊大衂引去 遂追擊幾盡殲之 尸與壘平 血流盈塹　　<宣廟中興誌 卷三>

十二月 義兵將尹鵬 爲倭人所襲死之 林仲樑尹鵬 旣破倭兵 益修兵械 爲進復平壤計 賊愈惡之 仲樑適墜馬傷足 出往人家調病 使鵬代守其壘 丁亥朔 大雪 陰霧咫尺不辨 鷄鳴 賊潛悉衆襲之 候卒失瞭 賊遂乘壘 將陷 鵬知不免 執兄麟手而泣曰 天不助順 弟兄俱死無益兄宜往護父母 弟則爲國一死決矣 麟曰是何言耶 弟少兄老 老者餘年不足惜死 其宜也 少者歸護父母可也 鵬曰 兄主家祀 弟爲將軍 主祀者護家 爲將者死綏 不易之義也 蓋各從其所安 遂反覆諭之 麟揮涕而去 纔出而城陷 軍校挽鵬請避之 鵬揮大叱曰 與人約死而避之 何面目視人 吾不忍爲也 遂奮力搏戰 殺賊無算而死 許士賢 尹殷衡 亦皆守信地死 或勸殷衡退 殷衡罵曰 棄城苟活 吾豈爲也 引大弓射賊矢盡 持木椎 左右擊皆靡 椎折而死 金德濂適出在家 聞城陷 急馳入 其妻挽裾止之 德濂斷裾而出曰 汝婦人何知 與友約以同死 臨難而背之 非天也 即脫半臂一枚 投之曰 我死以此招魂葬之 遂入同殉於陣壘中 四百餘人皆死 無一人逃者 郡人金仁卿 柳希龍 柳謙 金應亨 孫德蘭 平壤人林山麗 又其表著者也 賊去 麟覓鵬尸斂之 仲樑馳啓行在 以軍敗待罪上召問起兵及死事狀 嘉歎不已 即詮仲樑五衛將 贈鵬司僕僉正 殷衡亦皆贈職有差 命陞中和郡爲府 以榮之　　<宣廟中興誌 卷三>

上遂自江西 黃州進次海州 上自永柔向江西 輦陷於淖 幾危 安州牧使林仲樑 手掖輦而掀出之 上顧問曰誰也 左右對曰西陣義兵將林仲樑也 上曰微斯人 豫幾危 仍命除安州防禦使幷除子婿弟侄實職　　<宣廟中興誌 卷四癸已>

中和郡人前萬戶車殷軫及弟殷輅 亦皆有勇略善騎射 招集鄕兵數百 殷軫柵於雲鷲峰 殷輅築壘於鎭河山 在郡東三十里 賊若大至則殷軫先以兵誘入柵下 與殷輅夾擊破之 小至則直於野中 合力殲之 自夏至冬 屢獻捷 事聞命擢殷軫瑞山郡守 殷輅清道郡守 郡人稱殷軫兵爲東陣 仲樑兵爲西陣　　<宣廟中興誌 卷三>

六十九, 吉州 雙浦(臨溟)附近 戰鬪 (壬辰年十二月十日)

吉州留賊一敗之後 入據堅城 縮頭不出爲白去乙 鍾城府使鄭見龍 慶源府使吳應台 高嶺僉使柳擎天 各率所部合兵三千餘 再度圍城終日接戰爲白乎矣 倭賊四百餘名 列立城頭 抵死防備 鐵丸射矢 彼我俱傷 勢難猝拔乙仍于 分兵設伏 城外數里許 四五處晝夜候伺 出則勦捕爲白乎旀 三衛將併以移兵嶺東 先滅柵內之賊次及城中之寇計料爲白如乎適音 移兵之日嶺東倭賊四百餘名 出來臨溟村舍 焚蕩擄掠之際 左衛將柳擎天 定送爲白在 伏兵將吉州土兵金國信 爲先接戰爲旀 一邊以馳報大軍爲白良在乙 三衛一時馳突其中 六鎭精兵 爲先接刃 倭賊敗奔 三衛射斬 及城中留賊出沒時 捕斬合百餘級 左耳函封 軍功併以磨鍊狀啓

<農圃集卷之三 吉州臨溟破倭賊狀啓>

鏡城人 故僉使姜文佑子孫家 有吉州雙浦破倭之圖下面 列書

義兵大將評事鄭文孚

從事官輸城察訪崔東望

茂山萬戶李蘭
正字李成吉
中衛將鍾城府使鄭見龍
從事官茂山萬戶吳命壽
訓練奉事李繼男
左衛將高嶺僉使柳擎天
從事官訓鍊奉事吳大男
訓鍊奉事許大任
右衛將慶源府使吳應台
從事官乾元權管金慶福
阿吾地萬戶崔巖
訓戎僉使金滋（以下無部分）
防垣萬戶韓仁濟
美錢僉使金範黃
拓坡權管咸以良
安原權管姜文佑
阿山萬戶朴鶴壽
寶化堡權管李彥甫
老知權管柳大男
訓練奉事黃嗣元
森森坡萬戶韓大防
乾元權管車應憐
及第韓延世
德萬區堡權管朴名世
斜下北權管鄭夢辰
玉連萬戶安沃
吾村權管李凌雲
朱乙温萬戶金命新
內禁衛 金天錫 等姓名 <北關誌 吉州>

北道評事鄭文孚大敗賊兵于吉州 圍其城 文孚安集既定軍情 皆欲擊賊自効 乃卜日出兵 將發將士齊請曰 將討倭賊而國之叛賊尚在陣中不可不先討之 遂執鞠世弼等十三人 斬以徇衆曰 當初首倡 止此輩此外無與也 府人可勿疑衆皆歡悅 此文孚本謀也 復檄通六鎭 誅首倡亂者 會寧儒生申世俊 起兵 斬景仁 餘鎭皆復叛民或誅或逃 文孚進兵古站驛 遣兵誅明川叛賊 鄭末守復其城 吉州賊遂四出 焚掠一枝軍掠明川海倉 文孚進兵吉州南村 邀其歸路 賊兵大敗 斬六百級 賊一屯在摩天嶺下嶺東舘柵城 焚掠臨溟村 文孚回兵擊之 戰于雙浦 賊兵敗走 斬六十級 自是兩賊屯皆堅守不出 文孚分兵圍之 <宣廟寶鑑卷之八>

七十，第3次 星州城 戰鬪

（壬辰年十月 自十日至十四日）

全羅左義兵將任啓英 自居昌移陣陜川海印寺與嶺南義兵將鄭仁弘 協討星州之賊(詳見癸巳五月） 崔慶會因留居昌 與金沔同事開寧 .
<趙慶男撰 亂中雜錄一>

開寧賊熾 義將金沔力不得支 馳書告急 與崔慶會合勢同進 十月二十日 令副將張潤先鋒掩擊射中射殺斬二級 十一月初三日 又戰 射中射殺斬八級 星賊又熾 勢將衝突 縣義將鄭仁弘屢戰不利 求急之使 一日三至 崔兵因守開寧 我軍即向星州 同月十八日 使副將張潤進攻 與賊路遇技戰 射中射殺斬二級 二十二日又戰 十二月初二日又戰 初七日引戰設謀 進薄城下則騎倭 十餘先出 步者隨後 射倒先騎二倭 餘騎驚走入城 追射又中四倭 翌日八日被擄內應 官人黃彥告目于鄭仁弘曰 中矢倭六 即斃者五 其日倭將出西門 與馬落濠中 右臂折骨 幾至於死 衆賊方寧恐動云 因其摧挫 期攻星州 同月初十日 與義將鄭仁弘及官軍諸將約束 越四日(十二月十四日）我軍如約 盡日殊死戰 戰場及路盡爲血色 城下積屍如丘 士卒貪級 爭趨城下窮寇奮死回鋒 勇士被害十餘 副將亦馬困不走下馬步趨奮勇突入 一箭立斃 不知其數 賊乃退北 兇徒死者居三分之二而酣戰之時 射中射殺 難可枚擧 星州之復正在此日而此道諸將負約不援 不勝憤惋 <同 上>

英與星州屯賊 相峙屢月 賊勢漸困 十二月初一日 初二日丁亥(戊子의 錯誤)賊潛就開寧 啓英覘知之 設伏於扶桑峴 掩擊大敗之 殺獲甚衆 十二月十日 丙申 又遣張潤 追擊毛利輝元於開寧 潤一戰 殺二百餘人 奪被虜男子四百餘人 後三日 又戰殺二百人 翌日輝元撤兵 走入

中路　潤追擊至善山　於是右路州郡悉復　惟金海昌原爲賊所據　後張潤　以功拜泗川縣監

<宣廟中興誌 卷三>

七十一，秃城山城 戰鬪

（壬辰年十二月未詳日）

于時諸賊　分據平壤　黃海　開城而據京城者　爲大營　放兵四刼　西路已絶　勤王諸軍皆入江華阻江爲固而已 公以旣聞　上在義州 賊尙未過平壤　今惟先圖京城　使已西之賊　京於不暇於計爲得　遂軍水原之禿城　以聞則　上解劒馳賜曰諸將不如令者　以此從事京城之賊患　公居軍要害以其兵數萬　分爲三營擺布烏山等處　往來挑戰　公堅壁不應　惟時出奇兵以折角距賊則　無所得夜燒營去之　…以下略…

<幸州戰勝碑銘의 一節>

體察使鄭澈泊舟牙川　全羅監司權慄歷路進見因道勤王之意　澈曰　行在道路遼隔　難易得達且玉候平安　天兵大至　軍衆食少　資用甚窘　遠山之兵　不可輕進　退保封彊　今日上策也　慄不聽　進屯于水原府之禿城

<趙慶男撰 亂中雜錄一>

全羅監司權慄在原禿城　啓于行朝　上解劍馳賜曰　諸將不用兵者　以此從事　時京賊聞湖南兵又到水原　出兵數萬　分道來侵　慄堅壁不動　賊留下三塞于烏山等處　日日挑戰　慄亦不應　時出奇兵　埋伏射斬　賊夜燒營　還入京城　方賊侵犯之時　慄日報體察使　徵援于本道　鄭澈馳羽書于全羅都事云　兇賊彌滿水原之地　青回烏山之野　賊陣擺布　禿城之下　無日不戰　一道主將方在賊兵圍擁之中　四顧無援　日三飛報　本道軍官義兵　星火發送　以救水城之師云云　都事崔鐵堅　邊士貞任希進等義兵馳援　<同上>

是時賊酋行長　已拔平壤　入據其城　長政據黃海道　隆景在開城府　平秀嘉督率諸酋　領大兵屯京城　放兵四刼　西路已絶勤王　諸將皆入江華　阻江爲固　以避其鋭　聞上在義州　召諸將計曰　今平壤以南　皆爲賊壘　京城爲根本之地　不如先復京城　連綴行長　洞疑東顧　使不得一意西進則諸將無能爲也　今若轉入江都　示滅弱也遂進住水原之禿城　上聞慄住禿城　解劍馳賜曰諸將有不從令者　以此劍從事　慄祗受上命　日勵士卒　秀嘉憚其兵勢甚鋭　以兵數萬　分爲三陣　聯營於烏山驛等處　往來挑戰　慄堅壁固守不與交鋒　間出奇師應敵　所向以挫其鋭　賊機自牙壞角距俱落　剽掠無所　居數日　燒營夜遁畿內諸賊　次第入城　自此西路得通　列郡義兵望風蜂起　一時響應　至今論中興之功　以慄稱首

<申靈撰 再造藩邦志二>

十二月全羅巡察使權慄　進兵水原禿城　慄至稷山　體察使鄭澈　戒勿輕進　慄乃住軍以聞朝廷請下旨　責澈促慄進圖京城　慄懲前日野戰潰師進住禿城　上解佩劍馳賜曰　諸將不用命者　以此從事　京城賊分陣出兵往來挑戰　慄堅壁不應賊燒營而退　慄時出鋭卒鈔擊零賊　畿內賊皆斂入京城　自此西路得通行李　諸義兵鱗次進屯畿界以待天兵

<宣廟寶鑑卷之八>

遂進駐水原之禿城　上聞公駐禿城　解劍馳賜曰諸將有不從令者　以此劍從事　秀嘉憚公兵勢甚鋭　以兵數萬分爲三陣　聯營於烏山等處　往來挑戰　公堅壁固守　不與交鋒　間出鋭師應敵　所向以挫其鋭　賊機牙自壞角距俱落　剽掠無所得居數日燒營夜遁　畿內諸賊次第入城　自此西路得通　列郡義兵望風蜂起　一時響應　公起板蕩之餘　以孤軍在衆賊之間　虛喝強寇　扶護兩湖至今論中興之功者　以公爲稱首

<白沙集卷之二十一>

自領精兵一萬　爲西上計　據水原禿城　爲固　危動京師　直搖西路　秀嘉懼乘其虛　行長慮議其後　若防制水坐牢關西心　宣廟解尙方劍馳賜之曰諸將不如令者以此從事　又令義兵諸陣悉統於公　京城賊患公落其角距　出數萬衆　作三陣往來挑戰　公堅壁不應　間出奇兵摧之　居五日賊燒營遁　畿輔之賊亦捲入京城

<象村集卷之二十八>

權元帥駐兵於水原之禿城　城中水不足取食　細南川水　環城西北而流　倭人探聽城中無水之狀

乃悉力壅川於上流 水絶不流 元帥已於軍中儲水可支幾許日矣 乃於西將臺 高其帳座張樂宴飮後 取軍馬三三五五以水洗 刷之 洗馬之水波揚白 倭人望見而決水曰 城中有洗馬之水如彼其多矣 豈患渴飮 乃斬我國奸民之言無水者而去軍不患渴 洗馬之水 非水也 乃白米也耀日揚洗 遠望白白若水也 故至今禿城之人 號其臺曰 洗馬臺 <權元帥實蹟 耳溪撰權元帥傳>

公領兵西上 至水原禿城 陣駐山城 次觀賊兵動靜及天兵消息 賊侮其懸軍深入 夜擣乘城斷流絶汲 公隨變應機 折挫鋒銳 脫落角距 賊百計無施 歛兵遠去 不敢復近 <權元帥實蹟>

七十二, 咸昌 戰鬪 (壬辰年十二月未詳日)

倭衆屯據咸昌之唐橋 地形便利兵力最盛 上接鳥嶺屯 下扼左右道咽喉 左監 韓孝純 兵使朴晋 合兵屯安東 數月伺釁而卒不得發 先令左道諸義兵當之 至則皆大敗 至是本縣義兵將李逢等 與尙州義兵將鄭經世等 會兵擊之 不能克 乃請援於鄭起龍 起龍進軍合擊 一戰大破之 餘賊遁歸大乘山 起龍追擊殺之略盡 於是分遣麾下健將數十人 散屯隣邑要害 遇賊輒擊 動得數十百級 賊徒相戒 莫敢近尙州 一境始奠居焉 乃收塞北川戰骸 散賣首級倭貨 積穀賑飢 遠近輻湊 全活甚衆 仍募其驍健者爲兵 皆感恩効死 故號其軍爲敢死 乃開屯田 修破堰 給餽餉 勸耕種 一境始安業如常

<宣廟中興誌 卷三>

第10節 第4期 正月作戰

七十三, 第3次 平壤城 戰鬪 (癸巳年正月自六日至九日)

(一)我側 史料

初六日 天兵直抵平壤城外 部分諸將 包圍四面 倭賊一萬餘名 擺立城上 前植鹿角柵子 擁盾揚劍 勢甚猖獗 又有倭將領四五千名 建大將旗鼓 鳴螺擊金 巡視城中 指揮諸賊 又於本城內外設險 勢難仰攻 城北牧丹峰上 有賊二千人 建青白旗 列拒馬砲 鼓噪發喊而待 其峰高聳 形勢最要 提督乃遣南兵一枝 由牧丹峰路若仰攻者 我國亦令僧兵爲之助其聲勢 賊乘高放砲 衆軍佯退 賊始踰嶺追之 天兵棄鐵盾而去 賊爭取之 天兵回擊之 頗有斬獲 賊退據峰上 提督鳴金收軍 回營箚住 是日寅夜 有倭三千餘人 啣枚潛出 襲摠兵楊元摠兵李如栢都指揮張世爵等三營 三營將各統其兵 力戰殺退

初七日 夜 賊兵約八百餘人 復斫李如栢營 天兵一時撲滅旗灯 從拒馬木下 齊放火箭 光明如晝 賊不得犯

初八日 黎明 提督焚香卜日得吉 部勒諸將 喩無割級攻圍三面而缺一東面 屬吳惟忠攻牧丹峰 險取西南 以倭易麗兵 令祖承訓僞效其裝潛伏而待 提督傳令畢 喫飯裝束 與三營將 分統各該將卒 環城外西北 擺列陣勢於七星, 普通, 含球三門之外 賊乃於城上竪立紅白旗 戰提督親兵二百餘騎 進薄城下…以下中略…諸軍鼓噪齊進 奮勇薄城 負厤牌持矛戟 相雜而登 或發射砲 或仰刺守陴之賊 賊不能支吾 稍自引退 提督挺身先登 督諸將齊登 副摠兵駱尙志從含球門 持戟聳身攀堞而上 賊從陴上 滾下巨石 中其腹 尙志不爲動 大呼超登 又有浙兵 拔賊旗幟 立天兵旗麾 賊兵不敢抵當 我國官軍亦隨而入 頗有斬獲 賊方輕南面麗兵 承訓乃卸裝而進 露明盔甲 賊急分兵拒賭 承訓賈勇而進 張世爵等由七星門 用大砲撞破門樓整軍而入 李如栢等由含球門而入 楊元由普通門而入 乘勝爭先 游擊將軍吳惟忠 中鉛洞胸血流腹腫而猶能奮呼督戰 提督坐騎斃于砲丸毒藥薰身 易馬而馳 墮于塹中 鼻端火出 麾兵猶進 無不以一當百 四面攻殺 賊衆崩潰 奔入其幕 又以火箭焚燼殆盡 當陣斬首一千二百八十五顆……中略……其餘跳城溺水無算 行長等率餘賊 走入風月亭土窟 提督督運柴草 四面堆積 將用火箭 一時具焚而七星普通牧丹之

賊 並據諸土窟 不可猝發而 賊從窟中 多穿孔穴 如蜂窠 從穴放丸如雨 天兵僵死者相續 提督收兵還營 傳食諸軍 使通事張大膳往喩行長曰 以我兵力 足以擧殲滅而不忍盡列人命 開爾生路 爾可速領諸酋 來詣轅門 聽吾約束 行長答曰 俺等當退歸 無攔截後路 提督許之 令舌官告于我國 撤一路伏兵而密令李寧祖承訓葛逢夏等 埋伏于要路 夜半行長率餘衆遁去 李寧等邀斬三百五十九級 生禽二人 中和黃州連營之賊 聞平壤砲聲 先已遁去 時巡邊使李鎰與別將金應瑞 從含毬門入 已而退屯城外 至是始覺賊之遁歸 亦不追躡 提督咎之 且以鎰非將才 李薲可合其任 朝廷遣左議政尹斗壽問鎰罪 將行軍法 良久釋之 以李薲代領其衆 黃海道防禦使李時彦金敬老等 觀望不戰 李時彦但斬飢病落六十餘人 體察使柳成龍將誅之 提督止曰 其罪應死而賊未滅 一武士亦可惜 使之白衣從軍 惟黃州判官鄭曄 截行長之後 斬九十餘級 中路又斬三十餘級 提督旣克平壤 諸軍槍倭貨 惟錢世禎斂兵不取 提督留平壤 又令左協大將張世爵先鋒摠兵査大受等進兵 又令柳成龍接伴使李德馨急往前路 督辦蒭糧 起浮橋 朝廷又專差戶曹李誠中 率佐郞金繼賢李自海 隨軍一行 句當糧草 又催朴忠侃 仍應管察轉運 又差分戶曹判書權徵 帶從事黃致敬權吙中樞府經歷申黯 入江華喬桐 盡發公私藏蓄 添補軍餉 仍督忠淸全羅海路漕運 又遣司諫院正言黃克中 按視勤慢 以議政府右議政兪泓 總督諸務 并晝夜催儹 不許時刻稽緩 天朝亦令欽差經理征倭糧餉 戶部山東淸吏司主事艾維新以是月渡江 催促粮運 至是以粮運不及期 杖檢察使金應南戶曹參判閔汝慶義州府尹黃璡所過殿栗

初九日 天兵先鋒 已過大同江而南 笅槍塞路不可行 柳成龍等委曲疾行出軍

<申靈撰 再造藩邦志二>

巡邊使李鎰及別將金應瑞 從含毬門而入 及收兵 退屯城外 夜遁去 明朝始覺之 如松咎我軍不警守 使賊遁去而不知 以鎰非將才 李薲可合其任 如松移咨言狀 上遣尹斗壽至平壤 問鎰罪 將行軍法 良久釋之 以薲代領其軍 選三千騎 從提督而朝

<燃藜室記述>

初八日 大明提李如松大破賊於平壤 賊遁還是日早 如松傳食三軍訖與三營將 分統軍兵環城外 擺陣於七星普通含毬三門外 提督自領親兵百餘騎 薄城下 指揮諸將 俄發大砲各陣齊放 響如雷震 烟焰漲天 旁彌數十里 火烈風猛直衝城裡 先爇密德土窟延燒略盡 提督於是鼓諸軍乘城 賊用鉛丸大石拒之 天兵稍却 提督斬却退者一人巡視 挫身直前呼曰 先登者 銀五千兩 副摠兵駱尙志 從含毬門 持長戟 聳身攀堞以上 諸軍鼓噪從之 浙江兵拔賊幟立天兵旗麾 賊不敢抵當 提督與張世爵等攻七星門用大炮 破門樓 整軍而入 李如栢由含毬門 楊元由普通門 乘勝爭前 騎步雲集 賊縮入保其幕 焚殺幾盡 斬獲千餘 天兵入城 攻其內城 賊於城爲土壁多穿孔穴 望之如蜂窠 從穴中亂放丸 天兵多傷如松應窮寇致死 收軍城外 使張大膳往諭曰 以我兵力 足以殲滅而不忍人命 開爾生路 可速令諸酋來聽約束 行長答曰 俺等當退 請無截路 如松許之 令舌官報我國 撤一路 伏兵夜半行長率餘衆遁去 中和黃州聯營之賊 先已遁去 黃海監司柳永慶引防禦使金景老等 以自衛 不敢躡賊 防禦使李時言 但斬病倭落後者數十 獨黃州判官鄭曄 截後斬百餘級

<春坡堂日月錄卷之九>

二十六年癸巳正月 提督李如松領三協將 楊元張世爵李如栢等 進逼平壤 都元帥合諸陣兵從其後 分軍圍住 初八日提督傳令 三營一時進兵環城擺陣 我兵逼南城 浙兵逼西城 提督驅馬往來督戰 萬砲齊發 聲震天地 提督手斬怯退者一人巡示之大呼曰 先登城上者賞銀五十兩 駱尙志奮戟先登 浙兵鼓噪而從之 拔賊幟立天兵幟 賊不能抵當 退入土窟 我軍繼登提督與張世爵等 攻七星門 用大砲撞碎門板 整軍而入 於是李如栢由含毬門 楊元由普通門乘勢爭前 斬馘一千二百八十餘名 燒殺亦過半並擄投倭浙人張大膳行長入據練光亭土窟 諸

酋連據諸窟皆從穴放丸如雨 天兵攻之 多中傷
提督止營 使張大膳諭行長曰 不忍盡殺人命
開爾生路 可速領諸酋來聽約束 行長答曰 俺
等當退請無攔截後路 提督慮其窮寇致死乃許
行長 傳令我軍撤一路伏兵 夜半行長率餘衆
乘氷過江脫去 中和黃州屯賊先已撤去

<宣廟寶鑑卷之八>

癸巳正月 提督陣於順安 賊鋒甚銳 嬰城拒守
諸將不敢遽進 提督與公(韓應寅接伴使)議火
攻之策 遂以大砲 撞破普通門 諸軍乘勢進薄
天威震疊 賊不能支 遂空壘而宵潛 公言於
提督曰 賊褫魄 餘衆不多 乘此破竹之勢 悉銳
追之 可使片甲不還 提督即率先鋒 尾擊 斬獲
甚多 海西諸屯 松京漢都之賊 次第遁去

<百拙齋遺稿 卷之二>

官軍直抵平壤城外 部分諸將 圍抱本城 有倭
賊二千餘名 登城北牧丹峰 建青白旗 發喊放
砲 又有倭賊一萬餘名 擺立城上 前植鹿角柵
子 擁楯揚劍 勢甚猖獗 又有倭賊四五千名 建
大將旗 鳴鼓吹螺 巡視城中 指揮諸賊 本城裏
外設險 勢難遽攻 總兵收軍回營 本日貪夜 有
倭賊三千餘 啣枚潛出 襲都督揚元 都督李如
栢都指揮張世爵等營 被本官等銃兵殺退

<宣廟寶鑑卷之八>

初七日夜 有倭賊約八百餘名 復斫都督李如栢
營 又被本官殺退 初八日黎明 總兵焚香卜日
得吉 喫飯訖 與三營將官分統各該將領官軍人
等 擺陣於七星含毬普通等門外 總兵領親兵二
百餘騎 往來指揮 將士踊躍 咸思盡力 辰時分
諸軍 鱗次漸進 各樹火器 一時齊發 聲震天地
大野晦冥 火箭一枝着密德土窟 俄而赤焰亘天
延燒 殆盡守陣 倭賊亂用鉛丸湯水石塊 以死
拒守 又用長槍大刀向外齊刃 森如蝟毛 總兵
手斬畏㥘者一名 徇示陣前諸軍 鼓噪薄城 負
龐牌持矛戟相雜
齊進 或發射放砲 或仰刺守陴之賊 賊不能支
吾稍自引退 總兵挺身先登 督諸軍進入 天兵
一起 與本國官軍入含毬門 一起入普通門 一
起登密德東城 騎步雲集 四面欲殺 衆賊崩潰
天兵當陣 斬獲首級一千二百八十五顆 內查有
賊酋平秀忠平鎭信宗逸等二十五人首級 生擒
倭賊二名 幷通事張大膳奪獲馬二千九百八十
五匹 得獲倭器四百五十二件 救出本國被擄
男婦一千十五名口 天兵乘勝縱火 悉燒房屋
衆賊投竄被燒者約一萬餘名 臭聞一十餘里 餘
賊躲入風月樓小城 總兵督柴草 四面堆積 仍用
火箭飛射 一時焚燒 俱成灰燼 又有餘賊 跡城
過江 氷陷溺死者 不計其數 七星普通牧丹等
處諸賊 仍據土窟 堅固難拔 總兵收兵傳食曰賊
必夜遁 就遣副總兵叅將等官 李寧祖承訓葛逢
夏等領兵埋伏 總兵官楊李張三副將 由大路追
趕 本賊四散遁去 被李寧等伏路邀截 斬獲首
級三百五十九顆 生擒倭賊三名 餘賊棄甲拋戈
驚亂遁走 巴山嶺以西 悉底蕩平

<宣廟寶鑑卷之八>

是日(六日)左防禦使鄭羲賢 右防禦使金景瑞
等 領兵八千人 陣于含毬門外 賊兵潛出大同
門 環行水城外 自後掩擊 我軍大敗 續死者什
七八 <尹游의 平壤續志>

壬辰四月十三日 倭大擧入寇三十日車駕西巡
十二月天將李提督如松 率大軍而至 先生領兵
往迎于安州 正月初二隨天兵進圍平壤 從普通
門而入 賊兵甚盛 莫肯先登城者 天將駱尙志
吳惟忠等賈勇先登 先生隨之 衝突賊陣斬馘無
數 賊悉衆死拒 於是提督大軍並進力戰 賊不
能支退入內城 先生又隨天兵 乘勝攻內城賊於
城上 設土壁多穿孔 從穴中亂發銃丸 我軍多
中傷 提督急令收軍出城 退陣而開歸路 先生
度賊必走 即馳往浿江設伏以待 其夜賊果遁去
先生邀擊之 斬首數百級 又追擊於臨津大破之
前後擊賊斬獲甚多而一不報 聞及後論功 又讓
於幕下 故封勳不及而吳駱兩將嘗謂人曰 平壤
之戰 朝鮮諸將無敢先登城者 獨曹好益隨我冒
矢石入死地 意氣益倍 其定膽不及也

(出柳右所錄)

<芝山集芝山先生文集附錄 遺算>

天兵當陣 斬首級一千二百八十五顆 內查 有
賊酋平秀忠 平鎭信 宗逸等二十五人首級 生

擒倭賊二名並通事張大膳 奪獲馬二千九百八十五匹 得獲倭器四百五十二件 救出本國(朝鮮)被擄男婦一千十五名口 天兵乘勝縱火 悉燒房室 衆賊投竄被燒死者 約一萬餘名 臭聞一十餘里

<宣廟의 明神宗에게 보내는 克捷上奏文>

已而七星 普通等諸窟之賊 堅守不可猝下 提督會諸軍仰攻之 賊從中放丸 天兵僵屍相續 提督所騎馬中丸 諸將請提督 少退兵 晡時 提督以賊窟難攻 衆軍飢疲 退師還營

<宣祖實錄 卷三十四)

平壤之戰 天兵從普通門而入 李鎰及金應瑞等從含毬門而入 及收兵 皆退屯城外 夜賊遁去明朝始覺之 李提督咎我軍不警守 使賊遁去而不知 於是天將之會往來順安 與李薲相熟者爭言鎰非將才 獨李薲可 提督移咨言狀 朝廷使右相尹斗壽 至平壤問鎰罪 欲行軍法 良久釋之 更以薲代鎰 選兵三千騎 從提督而南

<懲毖錄 卷二>

七日 三營俱出 抵普通門攻城 佯退 賊開門出追 天兵還戰 斬三十餘級 逐之及門口

<宣祖實錄 卷三十四>

八日早朝 提督焚香卜日 傳食三軍訖 與三營將領 分統各該軍兵 環城外西北面 遊擊將軍吳惟忠 原任副總兵査大受 攻牡丹峰 中軍楊元 右協都督張世爵 攻七星門 左協都督李如柏 參將李芳春 攻普通門 副總兵祖承訓 遊擊駱尙志 與本國(朝鮮)兵使李鎰 防禦使金應瑞等 攻含毬門 <同 上>

諸軍鱗次漸進 望見 氷路馬脚 飛屑雜塵 如白霧漲空 初日下射 盔鎧銀光 燦爛眩耀 萬狀奇怪奪目 賊亦於陴上 多張五色旗幟 束長槍大刀 齊刃向外 爲拒守計 <同 上>

春正月初八日(宣祖二十六年) 提督李如松督諸將 攻陷平壤城 斬獲千餘級 前十餘日 如松自義州率諸將 剋期進兵 結寨干城外五里之地 一捧鑼響 三協將士 一時圍城 嚴設火具 爇城舍 燒死者甚衆 大軍乘之 賊勢披靡 駱尙志等亂投死屍干城上 賊兵以爲天兵飛入城 益自惶怯 聚保牡丹峰土窟 以死堅守 天兵不得拔 至昏斂兵 行長等收殘兵 夜半潛遁 翌曉如松知之 令諸軍勿追 自中和至 開城府 各處留屯之賊 一時撤退 如松遣陪臣柳成龍李德馨等 督辦京黃一路糧粮 方官軍臨城 賊丸如雨 不得緣城 及天兵死積內外平 然後大軍登城 死傷至此而提督大塞 少無驚喧

<趙慶男撰 亂中雜錄一>

黃州判官鄭曄截行長之後 斬九十餘級 中路又斬三十餘級 <朝野僉載卷之二十七，癸巳一月>

初六日辛酉昧爽 直抵平壤城外 都元帥金命元亦合諸軍從之 行長分兵二千人 據城北牡丹峰自建大將旗 奏鼓吹巡城 如松先遣南兵 攻牡丹峰 誘賊下山 天兵皆棄鐵盾而走 賊爭取之 天兵回擊破之 賊退屯峰上 如松收軍回營 行長夜發三千餘人 潛襲三營 天兵拒却之 翌日如松進陣普通門前 先出兵試之 我國防禦使鄭希賢 金應瑞 率輕騎先登 突出古里門襲之 希賢敗走 應瑞益北 以誘賊擊破之 是夜賊又發精銳八百 斫李如栢營 天兵一時撲滅旗燈 競放火箭 光明如晝 賊退黎明如松部勒諸將 攻城三面 屬惟忠攻牡丹峰 如松驅馬往來指揮 吳惟忠中丸洞胸而猶奮呼督戰 天兵齊發各火器以攻城 聲震天地 火箭布空如織 城中頃之烟煙漲天 林木皆燒 於是鼓諸軍登城 賊竭力拒守 銃丸湯石齊發 天兵死傷相繼 如松馬中丸而斃 遂易馬復進 手斬怯退者一人 巡示之大呼曰 先登者 賞銀五十兩 駱尙志 從含毬門聳身攀堞而上 大石中其腹而氣益奮 大呼躍入 浙兵鼓噪而從之拔旗幟 立天兵幟 我軍繼登 如松與張世爵 攻七星用大砲 撞碎門樓 整軍而入 李如栢入含毬門 楊元入普通門 天兵我軍 乘勝爭前 四面蹙之 賊衆崩潰 遂斬平秀忠 平鎭信 宗逸等二十五將 及士卒千餘人 奪馬三千匹及被虜男女千餘人 天兵遂縱火燒屋幕 賊兵焚死者 以萬數 行長躲入風月樓土窟 如松攻之不克 天兵多死傷 而七星普通牡丹等諸窟 皆堅固難拔 如松止營 遣使諭行長曰 不忍盡殺人命 開爾生路 可速令諸酋 來聽約束

行長答曰 俺等當退 無截後路 如松慮其窮寇致死 乃許之 令我軍 撤一路伏兵 夜半行長率餘兵 乘氷過江脫出而諸軍不覺 中和黃州屯賊聞平壤砲聲 先己撤走 翌日如松遣精騎 追之洞仙嶺不及 都體察使柳成龍 令防禦使李時言 金敬老躡之 時言敬老 皆觀望不戰 惟黃州判官鄭曄 截其後 斬百餘級 平行長等 連夜奔還京畿 如松遂祭箕子廟 慰門孤寡 以布天子德意 罷巡邊使李鎰 復以李薲代之 平壤之捷李鎰金應瑞與李如栢 同入含毬門 戰罷退屯城外 至是李如松處 李鎰不密警邏 致賊脫歸 且以爲鎰本非將才 不如李薲 上聞之 遂遣左議政尹斗壽 至平壤 問鎰罪 將行軍律 而止以薲代其任 <宣廟中興誌 卷三>

癸巳正月六日 李如松領三協將 率兵四萬二千七百餘人 進陣城北 北望日郊 部分諸將 進薄城下 賊二千餘人登牧丹峰 發喊放砲 賊萬餘人 擺立城上 前植鹿角柵子 擁盾揚劍 勢甚猖獗賊四五千人 建大將旗 鳴鼓吹螺巡視城中…中略…是日左防禦使鄭義賢 右防禦使金景瑞等 領兵八千人 陣于含毬門外 賊兵潛出大同門 環行水城外 自後掩擊 我軍大敗 死者什七八…中略…賊連夜潛出襲斫三協將營 被軍官殺退 時天兵蔽野連亘數十里 我兵西據雜藥山東屯木覔山 天將謂我軍曰 爾等上高山第觀之明日吾必破賊矣 初八日黎明 提督鳴鑼 一聲分統三軍 一軍攻七星門 一軍攻普通門 一軍攻含毬門 提督關親兵二百餘騎 往來指揮…中略…行長使張大膳傳語于提督曰 不意大老爺致怒如是 乞貸性命 提督使金自貴諭行長…中略…宋應昌奏捷曰 倭兵死者二萬餘級 鮮人之爲賊俘虜者一千二百人 各還其居云

<關西邑誌平壤續一 古事>

（二）明國 史料

萬曆二十一年正月四日 師次肅寧舘 行長以爲封使將至 遣牙將二十人來迎 如松檄遊擊李寧生拷之 倭猝起格鬪 僅獲三人 餘走還 行長大駭復遣所親信小西飛來謁 如松慰遣之 六日次平壤 行長猶以爲封使也 竚風月樓以待 羣倭花衣夾道迎 如松分布諸軍 抵平壤城 諸將逡巡未入 形大露 倭悉登陴拒守 是夜襲如柏營擊卻之 明旦如松下令 諸軍 無割首級 攻圍缺東面 以倭素易朝鮮軍 令副將祖承訓詭爲其裝潛伏西南 令遊擊吳惟忠攻迤北牡丹峯而如松親提大軍 直抵城下 攻其東南 倭弓矢如雨 軍少卻 如松斬先退者以徇募死士 援鈎梯直上倭方輕南面朝鮮軍 承訓等乃卸裝 露明甲 倭大驚急分兵捍拒 如松己督副將楊元等軍 自小西門先登 如柏等亦從大西門入 火器竝發 烟氣蔽空 惟忠中礮傷胸 猶奮呼督戰 如松馬斃於礮 易馬馳 墮塹躍而上 麾兵益進 將士無不一當百 遂克之 獲首功千二百有奇 倭退保風月樓 夜半行長渡大同江 遁還龍山 寧及參將查大受率精卒三千潛伏東江間道復斬級三百六十 乘勝逐北

十九日如柏遂復開城 所失黃海平安京畿江原四道並復 酋清正據咸鏡亦遁還王京

<明史卷 二百三十八 李如松傳，
海東繹史 卷六十二 本朝備禦考二>

癸巳正月初八日 大軍薄平壤 行長擁衆十萬設伏以待師 前軍遇戰斬倭十五級 生擒三人 次日兵集城下 倭守牡丹臺爲犄角 穿小孔 銃從孔出 如虎負嵎莫敢仰攖 提督乃遵指授 圍其西南北三門 外布鐵蒺藜數重 暗設虎蹲等砲而列兵守之 放毒火神火諸箭入城 毒烟蔽空 倭衆昏眩仆嘔 我兵各含解藥 蟻附而上 倭強賊敗奔 斬首一千六百四十七級 熏溺死者十倍之朝鮮國王報捷疏 謂火焰觸天穢聞十里 又謂平壤之捷快絶前聞 葢紀實也

<兩朝平攘錄 卷之四，海東繹史 卷六十二>

癸巳萬曆二十一年正月平壤大捷 我師于初四日 抵肅寧舘 倭酋行長遣將吉兵覇三郎 餘倭二十一人 同通事張大膳來安定 聲迎沈惟敬窺虛實 李將軍檄游擊李寧 生縛之 倭猝起格鬪止獲吉酋三輩 李將軍按寧申令 一軍肢栗 六日抵平壤 度地形 東南竝臨江 西枕山陡立而迤 北牡丹臺高聳最要 三倭列拒馬地砲以待遣南兵試其鋒佯退 是夜倭襲李如栢營 擊卻之

李將軍因部勒諸將 諭無割級 攻圍止缺東面 屬游擊呉惟忠攻牡丹峯陰取西南 以倭易麗兵 令祖承訓等 僞效裝潜伏 八日黍明鼓行抵城下 倭砲矢如雨軍稍却 李將軍手戮一人 我師氣齊奮聲震天 倭方輕南正爲麗兵 承訓等乃卸裝露明盔甲 倭急分兵拒堵 李將軍己督楊元等從小西門先登 李如栢等隨從大西門入 火藥竝發 毒烟蔽空 方戰酣時呉惟忠中鉛洞胸 血殷踵猶奮呼督戰 而李將軍坐騎于砲 易馬馳墮塹鼻端出火 麾兵愈進 我師無不一當百 前隊買首 後勁己踵突舞于堞 倭遂氣奪宵遁 凡得級千二百八十五 殲酋宗逸平秀忠平鎭信 餘死于火 及從東城 跳溺無算 腥聞十里 眞奇捷也 參將李寧査大受等 率精兵三千 前伏江東僻路得獲級三百六十二 生擒三倭 乘勝追襲 十九日 李如栢遂奪開城 得倭級百六十五

<皇明實記 卷之二十>

命將興師大兵甫至 平壤遂一鼓而下 前後節據揭報 大約擒斬倭奴一千六百有餘 焚溺死者以萬計 中國之威己大振矣 但平壤既得 防守宜嚴 該國君臣 豈宜仍前播越諸如經臣 宋應昌議諭令該王還居平壤

上曰平壤既復使行與朝鮮國王 仍舊居守還令乘勝鼓勇 會兵進勦務期蕩平

<皇明實錄 第三百九十二卷>

初七日夜 有倭賊 約八百餘名 復斫都督李如柏營 又被本官殺退 <征東實記>

七日 黎明如松下令諸軍 無割首級攻圍缺東面 以我兵素易朝鮮軍 令副將祖承訓詭爲其裝潜伏西南 <明史，明記事本末>

惟迤北牡丹臺高聳最要 三倭列拒馬地砲以待遣南兵試其鋒佯退 是夜倭襲李如栢營 擊之却 如松因部勒諸將 諭無割級 攻圍止缺東面屬游擊呉惟忠牡丹峯陰取西南以倭易 麗兵令祖承訓等 詭麗裝潜伏 八日黎明鼓行 抵城下攻其東南 倭砲矢如雨 軍稍却 如松手斬先退者以徇 募死士援梯鉤而上 殺數人不退 倭悉力拒守 倭方輕南面爲麗兵 承訓等乃卸裝露明甲 倭急分兵拒堵 如松己督楊元等 從小西門先登 李如栢等亦從大西門入 火藥並發 毒烟蔽空方戰時呉惟忠中鉛洞胸 猶奮呼督戰而如松坐騎斃於砲易馬馳 墮塹鼻出火麾兵愈進 我師無不一當百 前隊買首後勁己踵突 舞於堞 倭退保風月樓 夜半行長提兵渡大同江 遁還龍山是役凡得級千二百八十五 餘死放火反從城東跳溺無算 裨將李寧査大受等 率精兵三千 潜伏江東僻路獲級三百六十二 生擒三倭乘勝追襲

十九日 李如栢進復開城 得倭級百六十五

<明記事本末卷六二 援朝鮮>

（三）日側 史料

初秀家會三監軍及諸將議曰多拔朝鮮諸城敵兵瓦解 是由諸將功 然明必發大兵赴援 與之戰之策如何 黑田孝高曰京城去釜山十餘日程路遠而頗艱漕運 然弃之可惜 將軍及諸將守之爲本營 自京城至明寇路 一日程築砦數所分守之明兵來寇 自京城赴援以決勝敗于一戰如遠築砦守之 出援兵不便 行長曰不然 鮮人既奪膽素不足懼 縱令乞援于明 彼涉鴨綠艱矣 不足患也 諸君任其意 如行長遠出兵獨進逼明境拔城而守也 孝高曰近敵地則 明兵俄來圍之 孤城恐難支持 我欲赴援路程遙 無盆緩急又失守退去貽外邦譏不可不慮也 隆景亦諫 行長不聽 遂敗于平壤矣 <黑田家記>

孝高以行長執拗數規諫焉 行長不從 孝高言秀吉曰行長不容人言 其軍恐敗 果如其言

<仙巣稿孝高碑銘>

八日明兵入城 行長去既遠矣 至大友義統 鳳山城 義統既遁去無一兵 行長疲極休憩而憂追兵至 星夜進行 九日朝遙望龍泉城 見黑田氏中白旗飜 知其兵猶守城大悅 時明兵躡跡而至我兵在兩山阻隘中 明兵自兩山挾而雨射 我兵仰發銃 長政臣小河傳衛門守龍泉城 自櫓上見遣銃手 二隊迎行長 行長見隊長謝之且曰我兵困極難戰 請子等爲後拒 隊長發銃退明軍 行長入城 小河迎而慰勞曰此城險而糧銃丸無所不足 敵雖數萬 無如我何將軍安心上下共休 僕生兵也 代將軍而周旋 <黑田家記，魔釋記>

命爲粥以拯上下飢寒　行長大悅曰因子而得再生 小河以行長至告長政　長政迎入其居城白川給上下衣服饗之數日　行長曰明兵乘勝必來攻今我兵寡 恐難保城 請與子偕還京城 長政曰未見敵而退將所耻也 而子旣苦戰 子卒傷夷當姑休 豫在此城 俟明兵至當決勝敗於一戰也 行長謝而去 到久留米秀包牛峰城欲誘而去 秀包不肯與長政意同 行長遂還京城 長政令小河徹砦退 小河抵栗山四郞右衛門江陰寨 明兵旣近部將議謂我兵僅二千餘 何得敵大兵 當求援於白川 作書日明大兵至 今也旣交刃 請速發援兵栗山曰縱令援兵至 白川往還路程八里(日本里數) 何得救緩急 今發書 但告死耳 不須乞援之語 發書明兵旣濟河 我兵發銃一聲 揚喊突戰 死傷互無算 明大兵墜河水敗績 長政馳至深稱其以寡克衆 訪傷夷慰勞而還 十日明兵三萬襲白川 長政令曰令敵近至堞下 發銃只一次速突擊 城兵如令 明兵出其不意狼狽 長政乘機挺身奮戰 明兵遂敗退　<黑田家記>

此日立花宗茂高橋直次發兵將救行長 途與明兵戰 敵敗績 斬獲千餘　<立齋舊聞記, 國恩錄>

十三日軍監議謂 隆景長政等 以寡兵據城 防禦大兵 但損兵無益 不如皆會京城而戮力誘敵於近地廣原而決戰 使僧惠瓊說之 長政不聽曰視敵而退 非但一身貽本邦恥　<黑田家記>

隆景曰我自航海 無復歸志 今與明兵會 棄命戰場 老年之幸也　<征伐記, 秀吉譜>

秀包亦不聽 軍監大谷吉隆親來而說 於此隆景等還京城 <征伐記 秀吉譜 黑田家記 毛利家記>

稱小河傳衛門守龍泉功 將與一萬石令長政召至名護屋 就途病而死　<黑田家記>

以大友義統怯懦逃去 沒封國豐後 以其舊家冤死罪一等　<秀吉譜>

如松如栢等次肅寧舘 行長以爲封使將至 遣牙將二十人來迎 如松令遊擊李寧生縛之　<征韓偉略卷之二>

行長遣將吉兵覇三郞等 同通事張大膳來安定　<三大征考>

我兵猝起格鬪 三人爲所獲餘走還 行長大驚復遣小西飛問之 如松慰而遣焉 六日敵兵次平壤 行長猶以爲封使也 斿風月樓以待 我衆華衣夾道而迎 如松分布諸軍抵城下 諸將逡巡未入而形大露 我兵悉登陴拒守 朝鮮將李鎰金應瑞等攻城東 義智擊走之　<宗氏家記>

行長在牡丹臺 義智欲迎之平壤 敵絶中間 聲問不通 擇能使者 義智兵國分隼人曰臣願使焉 義智遣之 隼人單騎直進 明兵不敢遮 得報而還 義智兵迎行長 行長潰圍復入平壤 如松先遣吳惟忠攻之 拒而退之　<秀吉譜>

癸巳明萬曆二十一年 當日本文祿二年 大明將軍李如松 以兵五萬到安定館 合朝鮮軍勢 共二十萬許 向行長居城平壤 行長之兵僅不過五千 以不可敵 故遂敗走 急退于王都 敵追之 黑田長政之軍士小河何某 爲殿以禦之 得免死　<良安尙順著 和漢三才圖會>

初李如松攻平壤 行長遣使者義統等曰 明兵二十萬近日將攻我平壤 愼勿怠而來救之 義統素性惕所以日本兵再起也　<海東繹史卷六十二 本朝備禦考二, 同上>

城兵一萬五千人 如松軍加鮮人號二十萬　<征伐記, 黑田家記>

行長勵兵堅禦之 礮矢如雨明兵少却 如松斬先退者以徇募死士 援鉤梯直上 我兵輕南面朝鮮軍 承訓等乃卸裝露明甲 我兵驚急分兵捍拒 奮戰移刻 城兵聚一所 西方頗疎 我兵遂不支弃外郭而保風月樓　<征伐記>

自卯至午 我兵死者一千六百餘 明兵亦多死 猶進而逼風月樓 我兵發銃禦之 明兵死者數千 以日漸迫虞淵明兵退 將明日陷城 行長數馳使求援于大友義純及諸將 義統畏明大兵 遽棄營遁歸京城 黑田長政久留米秀包以兵寡 俟京城軍至 京城諸將亦擬議不決 至是孤城援絶矣　<征伐記>

將觀敵營疎密而潰圍 矢砲如雨 不能登樓櫓 有義智兵大石荒河助 脫甲胄著單衫 登高樓審察形勢告行長 行長大稱其勇 此日義智勇兵多戰死 大石尤勇悍善戰 手斬五十餘人<宗氏家記>

行長檢城兵 不滿五千　<征伐記>

糧盡營燬 <吉野覺書>

夜諸將會行長營 斥侯報曰敵軍圍繞無尺地不人 一人又報曰我船氷結不可用 騎而涉氷 遠望不見 援兵一人 有馬晴信曰明朝敵必攻城 內城狹隘下便防禦 請遠修外郭固守 或得俟援兵乎 松浦鎭信曰不然 大同氷可涉而援兵不至者恐明軍旣梗塞要路乎 援兵來不可恃 今欲死守徒隷爲毒火所薰殺 無供爨炊而凉山有中川 龍山有南條 不如分城兵爲二 一向龍山 一向凉山 明兵蹤跡則首尾夾擊 與中川南條黑田諸將併兵再取平壤如何 行長義智曰公所計實得其宜矣 公等遠退二山以圖再擧 予輩死戰以各成其志也 大村嘉前 五島純玄曰請共長死 軍監小野木某謂 我衆旣疲弊不可用 且衆寡懸絶 徒死無益不如從鎭信議 渡江合軍以圖善後 聞之殿下何謂不然 於是諸將從其議 各擕十日糧 分路而發 放火船隻照行路 乘氷涉大同江遁去

<松浦家記>

先是隆景還王京 不敢入城營于城外 諸將催令入城 隆景不肯曰明兵今尾而至矣 我將俟而戰 諸將強而迎議守城事 隆景曰敵大兵圍我城兵糧乏絶坐至危困 且自平壤退十日程 兵勢漸衰矣 不決勝敗于一戰 何恃而守城乎<毛利家記>

花宗茂曰我嬰城而守 敵合圍而絶釜山援路曠日彌久 援絶力盡何以敵大兵 彼今狃平壤勝意必輕我爲不能戰 出其不意而決戰取勝必矣

<立齋舊聞記>

義弘時在金化城 以素與宗茂交親 遣其臣有馬重純 率兵卒百人援宗茂 <征韓錄>

京城東大門長政護之 南大門隆景守之 隆景弟元康秀包及宗茂屬隆景而南大門 當明兵衝路 故遞番出兵于途以備焉 此夜宗茂兵巡行

<黑田家記>

七十四, 吉州城 南門外 및 端川 戰鬪

(南門外——癸巳年正月十八日
端川——癸巳年正月二十三日)

端川郡守姜燦 親到軍中言內端川 留賊恣意橫行爲良置 兵皆步卒 怯懦先潰 下手不得 分軍馳射 亦懇懇說通道白齊 吉州段置 兩處分兵與賊相持 移兵他通 勢似非便乙仍于 自前諸將論議不一 未果出兵爲白有如乎 節思量爲白乎矣 吉州兩賊 勢挫縮頭爲白有去等 坐休強兵 不討一國一道之賊 事理乖當爲白乎去 卽抄精兵二百騎 分四隊 一隊將具滉 二隊將朴銀柱 三隊將印元沈 四隊將高敬民 岐如定體 各率五十兵 同月二十日 多信里離發 由山路 二十二日到端川翌朝 四隊藏兵於城外二十里許 使端川軍三十名進次城外五里許 挑戰爲白乎矣 城中留賊 狃於屢勝 略不顧忌二百餘名一時出城 直追端軍爲白去乙 佯敗還走之際 疲馬之卒 爲賊所殺 賊又乘勝遠追 直至伏處爲白去乙 四隊伏兵 一時突出 或遮其前 或截其腰 或斷其後 射矢如雨爲白乎矣 倭賊猝遇突騎 倉皇失措 多放鐵筒爲白良置 皆爲虛放不中 奔走無暇 莫敢相抗 追至城底 幾盡射斬 僅餘三十餘名 帶箭入城爲白齊 大槪殺賊之數 少不下百餘名 是白良置 北軍騎兵 專以騎射 未得一一斬馘 轉戰二十餘里 端川步卒從後拾得耳級是如爲白良置 未知厥數幾何是白在果 四隊所斬段 一隊左耳二十一 二隊十四 三隊十五 四隊十一 合六十一箇 監封上送爲白齊 本月十九日 吉州城外伏兵將元忠恕馳報內 倭賊百餘名 南門外一里許 出屯 有一倭將 挾兩倭雙牽馬 向南出來 至二里許 牽馬二倭乙 落後隱置 軍騎至三里許 爲有去乙 同元忠恕亦親率精騎十餘名 潛伏伺候爲白有如可 一時高聲突出 賊將蒼黃不能制馬 四爲墜落爲白去乙 元忠恕射中 鍾城甲士申守斬頭步倭一名 中箭顚仆爲白有去乙 門外諸倭 扶曳入城 斬頭不得 同賊將左耳割取 亦爲監封上送爲白乎於 所着錦衣三件 環刀一柄 錦鞍馬段 接戰有功人 論賞分給爲白有於

<農圃集卷之三 端川破倭賊緣由狀啓>

鄭文孚復爲大將 還吉州 端川郡守姜燦親到軍中請援 具滉 朴銀柱 印元沈 高敬民 分四隊 各率精騎五十 到端川藏兵 使端川軍挑戰 賊狃勝直出 引至伏兵處 伏發 殺百餘人 倭退入城 伏

兵將元忠恕射殺倭將於南門外

<北路紀略卷四同時諸義士>

越明年癸巳正月二十六日 戰于端川地馬屹境

<朴興宗의 義旅錄>

七十五, 碧蹄舘 附近 戰鬪
(癸巳年正月二十七日)

(一) 我側 史料

二十七日曉 由德津下營于坡州 黎明 賊數百出陣于彌勒院前野 查大受與高彥伯 領數百騎進擊 斬賊一百三十級 馳稟于提督曰 賊已奪氣 願速進兵 提督與麾下數十人 鞭馬而出 三協大將(楊元, 李如柏, 張世爵) 亦與家丁數十 相繼馳赴 提督踰惠陰嶺 墜馬傷面 換乘而前 諸將鼓勇爭先 見賊陣而進 於是 提督揮其軍 爲兩翼而前 賊列植旗幟於礪峴 倭兵佯以羸兵誘之 陽北而引入泥淖中 遂陷泥濘 馬不得進 賊乃從山後 登山而陣 幾萬餘人 劍光閃爍 旌旗蔽日 天兵望之 無不心怯 俄而賊衆揮劍而進 圍之數重 提督所領皆北騎 無火器 只持短劍賊兵迫前突陣 左右揮擊 人馬皆靡 無敢當其鋒者 提督見勢危急 督將士殊死戰 從巳至午 有金甲倭將 直搏提督 幾及之 指揮使李有昇 以身捍蔽 刃數倭 竟中丸墜馬 爲倭支解 有昇遼東鐵嶺衛人 勇力絶倫 常隨提督 左右不離 至是死焉而李如柏李寧等 益遮繞 夾擊之 李如梅從傍 射殪金甲倭 會楊元率火軍斫重圍而倭遂退 天兵之精銳多死 天且大雨 近王京平地 多稻畦 氷解泥深 馬不得馳 人馬相蹊 器甲槍戈 散布路上 倭背山岳 面漢水 連珠布陣 廣樹飛樓 鳥銃自穴中出 應時斃人 天兵乃退 日暮提督還坡州 路上見元帥旗標喜曰保此不喪 幸矣 招李有昇婿王審 大痛哭曰 好男兒爲我死矣 見我國人 雖隱其敗而神氣沮甚夜以有昇之死 達朝痛哭 明日欲退軍東坡…中略…是時大雨連日 道路不通 賊且燒道邊諸山兀兀無藁草 重以馬疫 數日倒殞者 殆將萬匹是日三營將還渡臨津 陣于東坡驛前 明日自東坡又欲還開城府 成龍又力爭日 大軍一退則賊氣愈驕 遠近驚懼 臨津以北 亦不可保 願少住觀釁以動 提督佯許之 成龍等退而提督 跨馬還開城 諸營亦次第退去 獨留副摠兵查大受 游擊將軍毋承宣 領千餘人守臨津 柳成龍等追遣人請更進兵提督謾應之曰 天晴路乾則當進兵征勦而實無其意 有詩爲證曰

一自碧蹄衂	壯志乃暗消
還將羈縻計	徒使奴勢驕
漢家十萬師	不如說兵饒
回首望神都	殺氣于雲霄

<再造藩邦志二>

提督遣柳成龍李德馨等 督辦一路芻糧 直渡臨津 聞先鋒將查大受等 擒斬倭賊百餘級 於昌陵外 只率手下將官家丁等 馳到碧蹄 賊誘入泥淖 左右翼擊 勇兵多死 提督與諸將 爲殿而退賊踰前嶺 望見官兵大至 還走入京城

<攷事撮要上(四一面)>

先鋒到開城靑石谷賊數百 望見天兵遁走 天兵追斬三十餘級 松京賊亦遁還京城諸軍渡臨津 我國防禦使高彥伯亦至 副總兵查大受哨探於慕華舘而返 先鋒直到碧蹄 提督自平壤繼發二十五日入開城府 二十七日曉 由德津下營于坡州 黎明賊數百出陣于彌勒院前野 查大受擊斬一百三十級 馳稟曰賊已奪氣 願速進兵 提督與麾下精勇數十 鞭馬而出 三協大將亦與家丁數十 相繼馳赴 提督踰惠任嶺墜馬傷面 換乘以進 賊衆列植旗幟於礪峴 提督進戰 賊羸兵誘我陽北而入淖中 天兵汰進陷于泥濘 馬不得行 賊乃揮劍前殺 提督標下李有昇勇士八十餘人俱被死 賊復出左右奇兵截之 提督僅免人馬相蹂踐 粮鍋器甲散抛路上已而 天兵大軍齊至 賊見之 旋兵而走 提督下嶺見元帥標旗喜曰保此不喪幸矣 招李有升之婿王審大慟哭曰好男兒爲我死矣 翌朝渡臨津 下營于東坡留三日 開城決計還向平壤 及到寶山聞我國觀察使權慄幸州之捷 提督頗悔之

<象村集卷之五十六>

癸巳朝鮮之役 平壤大捷 李如松以平殄在邇 不欲他兵分其功 潛率家丁二千人 夜至碧蹄遇伏

一擧殲焉 其家丁李友昇者 積勞已至副總兵 隻身殿後戰歿 如松始得脫 昇初爲健兒 昵一妓因違令失期 當斬 如松惜其勇 因用重貲買并爲製奩具 共費千金 賜之 至是以死報云

＜萬曆野獲編＞

提督進戰 賊羸兵誘我 陽北而引 入淖中唐兵汰進陷干泥濘 乃揮劍前殺 提督標下李有升勇士八十餘人俱被斫死 賊出左右奇兵截之 提督僅免 人馬相蹂踐而已大軍齊至 賊旋兵而走提督招李有昇之婿王審哭大慟曰 好男兒爲我死矣暮還坡州 明日 如松欲退軍 東坡柳成龍兪泓金命元李薲等 請觀勢更進 如松示奏草有曰 賊兵二十餘萬在王城 衆寡不敵 又言臣病甚請以他人代其任云云 張世爵尤勸退兵 以足蹴李薲而叱退 是日三營還到臨津 陣于東坡 二十九日諸營悉退 開城獨留查大受毋承宣等數百守臨津　　　成龍等更請進兵 提督曰 天晴路乾則當進 按趙慶男亂中雜錄曰 如松到臨津而前前哨報先鋒査大受等已斬獲倭兵 如松喜 只率手下將士家丁等 馳到高陽碧蹄驛 賊示弱以誘之 唐兵到砥峴 適天雨泥 賊伏兵四起 斯殺如松所乘馬 陷於泥淖中 賊奮長刀爭救進 提督部將李有升等 以身翼蔽而死 部下勇士幾盡 如松諸將 爲殿而退 賊追至前嶺 見官軍至 退還京城 都元帥金命元等 疑其輕進 姑在後及其敗也 案兵還陣故我軍得全 先鋒查大受與副摠李如楠先乘勝至京城西小門外 賊兵逆戰 官軍敗如楠死于沙峴 (趙曰隨聞記錄而途聽不可自信云) 考異聞 古老言 提督 行到砥石峴以爲延曙陵谷錯雜 兵家所忌 將欲引退之際 前夜賊己從彰義門 隱伏於松林間 一時齊發 致有此敗 查總兵領馬軍 可二三百騎 後路己斷 故駐聚於延曙左平野 賊乘勢合圍 查把梟三枝槍 爲士卒先行鳴鼓退師以槍刺倭擲空後軍相吹 接擲望之 如風葉 賊兵捨死爭而終不敢擔過查 遂完還鎭　　＜春坡堂日月錄卷六九＞

(二) 中國側 史料

我師既連勝 有輕敵心 二十七日 去王京九十里 李將軍引梟騎二千 前往踏勘至碧蹄舘 猝遇倭圍數重 李將軍督將士 殊死戰 從巳至午一金甲倭前搏李將軍急 賴指揮李有昇死護 刃數倭竟中鈎墮 爲倭支解 李如栢李寧等 乃益遮擁夾擊 李如梅箭中金甲倭墜馬 會楊元援兵斫重圍入 倭遂潰而我精銳亦多喪 天且雨 近王京平地俱稻畦冰解 泥深騎不得馳 倭背岳山面漢水 連珠布營 城中廣樹飛樓 鳥銃自穴中出應時斃我師乃退駐開城 ＜皇明實記 卷之二十＞

李如松以屢勝輕敵 往相地形 僅以家丁二三千自隨 倭率精悍十萬 圍之碧蹄 如松鼓衆力戰一以當百 自午至申 殺傷相半 正屬危急 而楊元授兵踵至 内外夾攻 斬首一百六十七級 自是群倭咋舌咬指 無敢與天朝兵相抗矣

＜兩朝平攘錄卷之四＞

十九日如栢遂復開城 所失黃海平安京畿江原四道併復酋清正據咸鏡亦遁還王京 官軍既連勝 有輕敵心 二十七日再進師 朝鮮人以賊棄王京告 如松信之 將輕騎趨碧蹄舘 距王京三十里 猝遇倭圍數重 如松督部下鏖戰 一金甲倭 搏如松急 指揮李有聲殊死戰被殺 如柏寧等奮前夾擊 如梅射金甲倭 墮馬 楊元兵亦至斫重圍入倭乃退 官軍喪失甚多 會天久雨騎入稻畦中不得逞 倭軍岳山面漢水聯營 城中廣樹飛樓箭礮不絶 官軍乃退駐開城

＜明史卷二百三十八李如松傳＞

二十六日黎明 忽見李甯 孫守廉 祖承訓 率提督公家丁三千餘人 披甲乘馬而出城(開城) 諸將俱不與聞 迎問之 各支吾不令知 竊怪焉 追見提督公 察其意氣云何 公曰 吾當前往探路諸將各率百人 隨行可也 沿途解凍 澈泥濘滑艱難萬狀 抵臨津江 氷游 無舟渡 詢鄉導淺沙而濟 日暮抵烏山 去王京 八十餘里 諸將既非全戰 皆互散 無復伍

二十七日 俟令調遣 辰時(午前八時)而令不至遣人探之 提督公已率其家丁 赴碧蹄矣 未暗報馬馳至 云 賊於前泥 交撲酣戰 己久 頃之提督公率其屬而回 是日 兩戰互有損傷 亦得首級一百六十有奇

三十日復收兵回開城　　＜錢世楨의 征東實記＞

（三）日本側 史料

李如松旣陷平壤　　倭逐北至開城　使朝鮮兵數萬人爲遊兵 從王城四方　連夜放火　倭兵益懼且粮盡 人有飢色　或告如松曰倭之強卒盡于平壤 盡擧必勝 如松信之 使高昇　孫 守廉祖承訓 將二萬人爲前鋒　如松居中軍　朝鮮兵爲後 至碧蹄舘 隆景聞之 率統茂秀包等　爲前鋒整兵以待 正月二十六日　統茂兵與明兵暗中相遇 矢集如蝟 統茂勵勇不却 長政疾驅來援 遂以統茂歸 翌日如松又來攻倭 諸將爭爲前鋒 隆景諸君毋然 今日事惟老我在　秀家從之　隆景出兵二萬餘人 分爲三隊 統茂爲包及築紫上野介高橋九郎 以六千人爲先鋒 隆景以一萬二千人爲中軍 毛利元康以六千人爲殿　與敵遇 統茂兵隔小川 發鳥銃以却之　遂踰川交刃 秀包墜馬將被擒 以短刀仰擧之得不死 築紫高橋各協力助戰 監軍安國寺惠瓊　楊餓鬼旋進探𧘂子指揮奮擧破之 隆景望見如松旋旗 募左右翼直衝其中軍 左軍粟屋四郎小退 右軍井上五郎及元康求救 從巳至午酣戰 秀家在後軍以潰兵徇諸將爭先　如松將李如栢李如梅李寧李有昇楊元 亦殊死戰 李有昇手斬數人 中丸而死 如松墜馬 將爲井上郎所擒　會明兵數百人扶上馬逃明兵死者萬餘 於是隆景凱歌以還　＜征伐記＞

隆景與秀包及毛利元康 立花宗茂三將　合兵二萬 未至國都 三十里而陣 數日　候騎報曰 如松兵旣至碧蹄驛 蓋十餘萬騎矣　隆景曰 足以試我武矣 乃分兵爲六隊迎戰　前軍二隊不利郤隆景揮槍大呼而進 士卒皆奮　莫不一當百　三將自左右夾擊之 明軍遂大敗　如松墮馬　隆景將井上某鏦之不中 與其將李有聲鬪而斬之 如松厪以身免 逐北至臨津　斬首萬餘級而我兵死者厪百餘人　＜賴山陽撰 日本外史豐臣氏第八＞

明副總兵査大受與鮮將高彥伯領兵數百　先行偵探 與宗茂兵暗相遇於碧蹄南礪石嶺 宗茂臣十時傳衛門戰死 其餘死傷八十餘人 明兵亦多死　＜黑田家記＞

宗茂鎧上矢如蝟毛 登小丘而休 長政代奮戰明兵退　＜黑田家記，黑田略記＞

文祿二年正月廿五日の夜半過に　左近（立花左近）は手勢を引率し 南大門を出で 大手の門を 十町餘出でしに 早唐人の先手に行懸けしに 異國人も 取合ひて 火花を散らして 戰ひし 左近が郎等十時傳右衛門とて 數度譽ある者 眞先に進み出でて 戰ひしに 大勢に 押包まれて討たれ 其外究竟の者七十三人 枕を雙べて討たれ 手負數十人之あり 敵をも六百餘討捕りしなり 然れば戰ひし唐人共 如何思ひけるか 胴勢の中 引取りし 左近は 小丸山の ありけるに 取上り 手負共を 集め 氣を休めてありし 然れば跡より 井上五郎兵衛粟屋四郎兵衛 其次裳懸彌左衛門 其次隆景 其次桂宮內大輔 其次久留米侍從 其次毛利七郎兵衛元康なり　朝合戰のありし所を少し先へ越して こうやう原といふ所の 右の方の山下に隆景は勢を備へておはします　此所と都との間に少しの峠あり 峠より跡は吉川 其次黑 田甲斐守 其次大谷刑部少輔 増田右衛門尉　石田治部少輔 此三人は 一手になりて 出で給ふ 其次備前宰相殿 其外の衆　次第次第に出で給ふ 都合八萬餘の勢なれば 都迄支へたりとかや　＜毛利秀元記卷之二＞

監軍議謂止戰 使長政說隆景　隆景不肯 大谷吉隆自來說之 隆景曰敵在眼前 今退彼必追擊進退維谷 吾見其可進而進 子等指揮令諸將爲後繼　＜毛利家記＞

二十八日黎明我兵登高遙望明兵來旣里許　我諸將各求先鋒　隆景曰與明決勝敗在此一擧 我雖老頗有所思惟 今日之事請許我　軍監及諸將以隆景老鍊皆從之 於是分部不爲三　粟屋四郎兵衛第一隊 井上五郎兵衛第二隊　第三隊隆景自率之 宗茂元康秀包爲奇兵　屯嶺頭　宇喜多秀家長政諸將出京城 在隆景後　隆阪而陣　隆景亦與敵軍隔嶺端廻而進師
＜征伐記，秀吉譜，黑田家記，鎭西要略＞

揮增于山頭以爲號　＜毛利家記＞

先鋒粟屋進兵 與如松先鋒兵刃相接　粟屋稍退井上代而戰亦退　嶺頭奇兵宗茂秀包等見機而

下山 直衝如松中軍 隆景亦縱橫奮擊而如松兵有節制 進退自在 兩雄相會 戰甚苦自己至午

<征伐記, 秀吉譜, 黑田家記, 鎭西要略>

三成令義智鎭信當大受裨將張翼荀文亮 義智等鳥銃亂發 大呼奮擊 <松浦家記>

吉川廣家及秀家部將宇喜多安心爭先進戰

<安西軍策>

楊元來援 如松得力又進 隆景等戮力奮擊大破之 如松落馬 井上將刺之 <征伐記, 秀吉譜>

明兵扶如松遁去 明軍遂潰墜開城河 溺死無數 諸將欲追擊 隆景止之凱旋京城 此役明兵溺死外兵死一萬餘 如松遁去開城<征伐記, 秀吉譜>

後秀吉賞隆景功 奏請任中納言

<毛利家記, 黑田家記>

初牡丹峰之敗 諸將入王京 亦勸隆景入王京 隆景不可 屯開城 於是石田三成增田長成大谷吉隆 及立花宗茂 久留米秀包等從之 隆景乃分所率兵爲三列 一列者 粟屋四郎兵衛 其兵三千 二列者 井上五郎兵衛 其兵三千 三列者 隆景 其兵一萬 次立花宗茂 其兵二千五百 久留米秀包 毛利大藏 少輔元康 其兵六千 在隆景陣傍 旣而隆景以栗屋井上兵爲一列 從立花宗茂後 李如松先陣與宗茂郎等 十時傳右衛門交鋒 傳右衛門死之 明人亦多死 李如松督將士殊死戰 隆景指揮其兵 雷奔雹擊 縱橫衝戰 諸軍大挑戰 此地至王京 吉川(廣家) 黑田(長政) 大谷(吉隆) 增田(長盛) 石田(三成) 戮力在焉 次宇喜田等 凡八萬餘 圍李如松明兵大敗 如松落馬 井上五郎兵衛見之 知其爲大將 驅馬前搏之急 賴李有昇護扶 如松乘之於他馬而逃去 井上不得遂其志 切齒悔怒 諸將欲追如松 隆景制之 即歸王京

<毛利氏家記, 海東繹史卷六十二>

七十六, 白塔郊 戰鬪(癸巳年正月二十八日)

端川倭賊勦捕次分四隊 定將起送爲白有如乎 訓諫正具滉等達夜奔馳 正月二十七日 還到吉州 言內南通倭賊千餘名 己越磨天嶺是如爲白去乙 臣即領三衛兵 屯駐吉州臨溟地 抄發精騎六百 伏兵待候乎白有如乎 同倭賊嶺東留倭合勢 二十八日早朝始知瀰滿臨溟野中 入向吉州爲白去乙 伏兵將訓諫兵具滉 僉正朴銀柱 僉使姜文佑 判官印元沈高敬民 定虜衛金國信 各率所部 尾擊接戰 三衛段 遮前截腰 進退接戰自辰初至酉時 追至六十餘里 訓鍊判官元忠恕段 吉州城下二十里許 伏兵爲白有如可 亦爲突出接戰 射矢鐵丸 彼我俱發爲白乎等 以未得短兵相接 只以輕騎馳逐 地廣則挾擊 地窄則尾擊 從事官學諭李成吉 給傳令追至賊陣 使之督戰與賊相距十數步 終日馳射 流血滿道 中箭死者不知其數爲白良置 倭賊載屍而去乙仍于 未得一一斬馘爲白齊 大概本道軍民 爲倭賊積威所刼 猝遇大賊 多懷自沮 不敢交雜快戰乙仍干 使賊入城 極爲痛憤爲白乎於

<農圃集卷之三 與倭賊大軍戰白塔郊狀啓>

尹卓然 復以鄭文孚爲北兵將 平清正吉盛重隆撤還京畿 初尹卓然 奪鄭文孚兵 又數易將帥多誤戰機 俱不能成功 復起文孚爲將 文孚乃還軍 犒饗士卒 使具滉簡二百騎 往助端川郡守姜燦 殺賊二百於城下而還 元忠恕又擊賊將於吉州城下 遂斷其樵採 城中薪芻竭 至撤屋爲薪 是時平清正 聞行長敗入京城 將謀撤還而吉州賊 方爲文孚所截 不能自援 遂以二萬人 踰摩天嶺 與嶺東賊合兵來援 文孚諜知之悉其兵三千餘人 先據臨溟 設伏而待之 癸未黎明 賊兵被野而至 見文孚兵小 不顧而過 文孚發伏兵截其尾 自從輕騎 繞左右馳射 殺傷甚衆 流血被野 別將李鵬壽 射一倭將殪之 即挺身出文孚旗前 忽中丸而死 朱乙温萬戶李希唐亦力戰中丸而死 清正血戰開路 與官軍轉鬪六十餘里 日暮得入城 道路尙阻 兩西聲聞 邈然不通而文孚等 忽見賊勢浩大 疑其再逞 欲退守堡以待之 北虞侯韓仁濟曰 賊似有退意 莫若屯兵伺之 文孚不從 退屯明川而留仁濟詗之是夜清正積尸焚之 潛撤城中兵 乘夜縋城不暇炎爨而走 文孚馳來見仁濟 謝曰 君之料敵 何其神也 仁濟亟追之 文孚以方有虜警 不許而遣仁濟等 擊虜却之 清正遂盡撤沿道諸屯 恐南道

兵勦絶 不敢踰咸開嶺 沿海而走 李唯一勒兵將追至 成允文不許而奪其兵 清正又與吉盛重隆等 盡撤江原道諸屯 俱會于京城 韓克誠 被拘至楊州逃歸 後朝廷以爲媚賊脫身 遂并其子殺之 韓仁濟 雄偉有遠慮 人稱爲將帥才 朝廷以堂下虞侯 爲地望素卑 非所以見重於胡人也 以南虞侯韓希哲換差 李惟一以切僅爲甫乙下僉使 命下士皆解體 惟柳應秀 後因道臣李希得狀聞 得拜三水郡守 俄又陞嘉善

<宣廟中興誌卷三 癸巳>

鄭文孚部署諸將 分屯吉州四面 使韓仁濟 屯於城外 仁濟率百餘騎 進陣於城外 多作軍幕夜則擧火 晝則耀武 賊畏不敢出 清正率兵 自安邊來 鄭文孚謂諸將曰 清正必聞言州賊敗軍而來 將屠滅北道 我等當歸 保鏡城以禦之 韓仁濟曰 此賊撤兵而去 去時尾擊可也 鄭文孚怒曰 吾君材略過人 可以獨當任自爲之 惟軍士則歸我 於是鄭文孚奪其軍與諸將 馳入鏡城 鏡城明川之民 以爲大將 被逐而來 盡焚其家舍財物 奔走登山而老弱顚壑者多矣 韓仁濟獨與步卒三十餘人 留陣於吉州相望之地 窺探賊勢 第三日候人來曰 城中有火起 仁濟曰 賊必宵遁 即入城中 城中只有病倭二十餘人皆斬之 滅其火 官舍倉穀皆得全 即馳報於鏡城 鄭文孚馳來大慙曰 君何知賊之宵遁而處置得宜若是耶 我之北行何不固止之乎 歎曰爲儒者反不如一武夫乎 悔恨不已

<文德教撰 東湖集壬辰錄>

七十七, 竹山 戰鬪(癸巳年正月三十日)

召募使邊以中 討賊于竹山 大敗而走 初以調兵兩湖 效房琯敗軍之計 多備戰車車牛而去至是進軍竹山 設車陣鶴翼而入 賊兵逆出 横衝亂斫 我軍敗走 賊爇火防車 入車之兵盡焚死 以中僅以身脫 洪季男領軍馳援 斬數級 (大其槪如此云云詳則在不得知

<趙慶男撰 亂中雜錄一>

第11節 第4期 春季 作戰

七十八, 幸州山城 戰鬪(癸巳年二 十二日)

以癸巳二月中 分麾下精兵四千 令全羅兵使宣居怡 結營于衿川山 遙爲聲援 公自領精鋭二千三百 濟自陽川江進陣於高陽之幸州山城 欲以扼西路而覘京城也 時天朝大將軍李提督如松領大兵克復平壤 威名大震 賊酋清正在咸鏡道回軍京城 隆景長政亦奔還京城 行長與義智調信等 收散卒與諸酋合勢 京城賊勢日益熾大 公懸軍深入直迫西腋 賊見兵少不以爲意有靴尖踢倒之計 悉衆而出 二月十二日黎明 候吏白賊分左右翼 持紅白旗向本營而來 公令軍中無動 登高而望則去本營五里原上賊徒已彌漫矣 先鋒百餘騎 看看漸逼 俄有數萬餘兵蔽野而來 圍抱本營寂後以大兵繼進 我軍皆殊死戰 賊分兵爲三營 休兵迭進 自卯至酉凡三合皆不利則賊令軍中人持束芻 因風縱火焚我城柵 城中以水灌之 初令僧軍守西北面子城 至是僧軍少却賊大呼亂入 一軍披靡 公自用劍督諸將 諸將無不冒刃 搏戰 賊乃退 仍積尸爲四堆 聚芻焚之 臭聞十里 我軍收拾餘尸 斬一百三十餘級得軍資鎧甲旗幟刀槍無數 時李提督駐兵開城府 先遣先鋒遊擊將軍查大受 渡臨津江往來巡哨 聞公大捷 翌日遣其褊裨視昨戰處 致禮物爲賀 後數日請與相見 公整陣以侍 旗幟鮮明器械精利號令嚴明部伍不亂 天將待之加敬 至相謂曰權家軍與他陣自別 信外國有眞將也

<白沙集卷之二十一>

癸巳自禿城移柵於陽川 分兵列援欲直渡陽川江 進壘城西鞍峴 諸將力止之 軍於高陽之幸州山 京城賊萬盛 見公孤軍深入 二月十二日賊盡其精勇 分二路夜逼幸州寨 公起視之則兇鋒蔽野圍寨數重矣 公即令士卒 傳餐 擇善射者列於睥睨間 下矢如雨 且揀力士投石擊之 繼放車子火 自朝至暮 賊九進九却 已而賊持束草 縱火大喝登寨 公提尙方劍立督諸將 諸將

争先薄戰 賊遂潰 賊之將卒死者不紀其數 委其軍實而走 收斬一百三十餘級 捷聞特加資憲大夫 將士賞賚有差 皇朝游擊查大受來見公嘆曰外國亦有眞將矣 宋經略應昌移咨獎之 權布政可謂板蕩忠臣中興名將 賞以綵幣白金等物兵部尚書石星奏曰陪臣權慄獨守孤城 以抗強勁天子嘉之曰全羅斬獲數多 該國人民尚可振作公既蹂幸寇徙營坡州 坡乃迤西孔道賊憚之又欲報幸州之敗 刺血祭天謀犯公而竟不敢窺足而 四月京城賊遁去 公將以輕兵躡之 會李提督如松方用計退賊阻公使不得南

<象村集卷之二十八>

權慄聞天兵渡江 領湖南兵以應之 進屯幸州爲聲援 賊將平秀家自京城悉兵來圍 慄殊死戰 賊大戰終日死傷山積 日將沒 秀家中流矢 遂捲甲而遁 自幸州至京城 僵屍相屬 爲壬辰戰功第一 超授都元帥 <金時讓撰 紫海筆談>

權慄進屯幸州 平秀家出兵攻之 慄擊却之 移屯坡州時 京城賊合屯大熾 慄欲連絡天兵以圖京城 乃留兵使宣居怡 領全師屯衿川光敎山 身率助防將趙儆等 抄精兵二千三百 自陽川濟江陣于幸州之盃山 設柵爲圍 賊將平秀家等 見其孤懸深入 丁酉昧爽 出兵七萬圍之 擣鼓動地 柵中震慄申令鎭靜遂分遣軍迭進官軍占地高峻 後臨江壁 退轉無路 人皆殊死戰 矢石亂下自卯至酉 賊九進九却 賊荷大橋如樓 上載銃手數十 以射柵中 趙儆 乃取大砲 繫二大刀於砲箭放之 所觸蕩然粉碎 乃各持束草 乘風縱火燒柵 官軍以水撲滅之 賊毁西北隅柵 所守僧軍少却 賊大呼闌入 慄拔劍督諸將 無不冒鋒 搏戰賊不能支 一時奔潰秀家流矢走 委棄鎧甲器械甚多 積尸爲四堆以焚之 痛哭而歸

<宣廟中興誌 卷四癸巳>

諜知其以大軍壓之 乃設疑兵 若將守城 不意進軍 陣于高陽之幸州山城 距京二十里之地京城所據之賊大驚曰 全羅布政 應變將略龍虎莫測 若不勦殄 吾屬不知死所 且梨峙之讐 禿城之恥 不可須臾忘報 諸道所萃之賊 傾軍而來 公令軍各持濡巾一尺 盛灰一帒先造水車石砲 以待 賊滿野而來 將卒擧有懼色 公令曰 賊進三十步之近而告賊三面圍進 近入數十步 令接戰 賊先施銃丸莫售濡濕之巾 公親執桴鼓督戰 水車轉擊石砲齊放 矢石如雨 我軍賈勇聲震天地 無不一當百 弓弩鎗劍迭發短接 自卯至酉 賊軍休兵迭進者三而不勝支吾 顚蹶踐踏十之八九 其扶傷求生而走者 追後盡殲 江之北流爲之不流 於是公痛憤 倭寇之所爲 盡爲沈尸又解其肢體 掛於樹木 遂聚尸而焚之 臭烟乘風聞于京城賊 爲之奪氣回率軍 進陣坡平山城 <權元帥實蹟>

全羅巡察使權慄 自水原禿城中 分其麾下精兵四千 令全羅道節度使宣居怡爲前鋒 自領助防將趙儆軍二千三百人 由陽川江進陣於高陽之幸州山城 宣居怡結營於衿州山 遙爲之聲援 全羅召募使邊以中 亦率精兵數千 札住于陽川山自製火車三百分送于權慄陣中 京中之賊探知慄軍少 不以爲意 有蹴尖踢倒之計 悉衆而出十二日黎明 信吏白 賊分左右翼持紅白旗 向本營而來 慄令軍中登高而望則 去五里原 上賊已彌滿矣 先鋒百餘騎 看看漸逼 俄有數萬餘兵 蔽野而來 皆負紅白旗 張黃金傘鬼面獸形粉粧甚怪 圍抱本營冣後以大兵繼進 圍之數重慄即令軍中傳食 擇善射者 列於睥睨間 下矢之如雨 且揀勇士 投石擊之繼放車子 火石又放 各樣火器 賊分爲三營 休兵迭進 慄挺劍督戰 自卯至酉 賊九進九却 乃爲束蒭因風縱火焚我城柵 城中以水救之 初令僧處英率僧軍一千 守西北面子城 至是僧軍小却 賊大呼攔入一軍披靡 慄自用劍督戰 諸將無不冒刃搏戰 賊不能支吾 一時奔潰 積尸爲四堆 聚蒭焚之 臭聞十里 我軍當陣斬首一百一十顆 左耳二朶 奪獲弓箭盔甲刀銃倭器共七百二十七件 餘賊痛哭還城 <同上>

壬辰之亂 湖南召募使邊以中 製火車三百乘 分與巡察使權慄 以助幸州之捷 其制一車穿四十穴 安銃發火 聲振山嶽 倭人驚遁云

<亂中雜錄及龍城誌>

是戰也 公兄 分麾將卒 頭載銅鼎 巡諭諸軍

丸聲小歇則脫銅鼎盛水接戰士之口 俘獲無數 是役之大捷 公兄恂之功亦多云

<朝野輯要, 權元帥實蹟>

公(趙儆)請先視地形 夜渡江登一高丘 可駐兵 即幸州也 權某往其地陣焉 謂天兵大至 賊必不敢出 不欲設柵則 公以爲孤軍近大賊 不可無設城柵 公不聽 會體察使鄭公在楊州 招權某議事 公令諸軍作柵指敎兩日而柵成權某來亦喜設柵之計 <權元帥實蹟, 豐壤公趙儆碑銘>

十二日(宣祖二十六年二月) 全羅巡察使權慄大破賊兵于幸州山城 時西北之賊 皆聚京城 勢益熾大 聞湖南兵渡江居要 思欲厮殺 分道而出 其數不可計 是日黎明 候卒報警 慄令軍毋惑 使人探望 則去城五里 賊兵彌漫 浩浩蕩蕩 勢若風火 慄與諸軍謀曰 懸戰深入 奄遭賊鋒 勢不相敵 何以制勝 若不一死 無以報國 且以一心同死 勉諭諸將 嚴整部伍 持滿以待 則賊已迫矣 前鋒百餘騎 先到耀兵 俄而大兵乘之 勢不可測 分運爲三 出入迭戰 喊殺連天 鐵丸如雹 我軍殊死血戰 矢石雨下 慄親持食漿 奔救飢渴 自卯至酉 賊兵三進三退 乃持枯葦 因風縱火 延爇寨柵 城中以水救之 賊衆一時大叫 突進外城 僧兵潰入內城 一陣披靡 慄拔劍叱諸將 諸將爭逆戰 賊兵大衂 遂聚焚其屍而走 收斬之數 百三十餘級 旗幟鎧甲刀槍 所棄無數 方戰之時 弓矢幾盡 陣中危悶 丁傑以二船弓矢 從海面入城 以之繼用 時李如松軍開城 先鋒將査大受等 聞幸州大捷 翌日遣其麾下 來視戰處 又數日要慄相見 慄整陣而迎 大受至而見之 歎曰 外國有如此眞將也

<趙慶男撰 亂中雜錄卷一>

傳聞是戰也 慄亦惶惑不自定 其兄悛來觀曰 此易如耳 吾當敎戰 代慄分麾 慄頭覆銅鼎巡諭諸軍 丸聲小歇則脫銅鼎盛水接戰士之口 悛之功亦多云 爾時李如松軍開城 先鋒將査大受等 聞幸州之捷 遣人視戰處 又數日要與相見嘆曰 外國有如此眞將也 <春坡堂日月錄卷之九>

全羅巡察使權慄敗賊兵于幸州 時京城賊 合屯大熾 慄欲連絡天兵以圖京城 乃留兵使宣 居怡領全師 屯衿川光敎山 分抄精兵四千 自陽川濟江陣于幸州山上 設柵爲衛 賊見其孤懸 深入悉衆數萬 乘曉圍柵 鐃鼓動地 柵中震駴 慄申令鎭靜 賊分軍迭進 自卯至酉 內外皆殊死戰 我戰占地高峻 後臨江壁 逃走無路 皆懷死心 賊仰攻丸道不直 湖南壯軍皆善射 射必中傷 矢如雨注 賊輒披靡 乃各持束草 縱火燒柵 柵中以水撲滅 賊毁西北隅柵一間 所守僧軍少却 慄自用劍斬退者數人 復樹柵以拒之 矢將盡 水使李蘋舟載箭數萬以繼之 賊遂敗退 聚積芻爲四堆 覆芻以焚之 臭聞數里 我軍收斬餘尸一百三十級 翌日査大受來視戰處曰 外國有眞將軍 宋經略移咨慰奬用段銀爲禮奏聞于帝 帝遣鴻臚寺官 宣諭本國曰 朝鮮素稱強國 今觀權慄斬獲甚多 該國人民尙可振作 朕甚嘉之 慄移陣坡州山城 賊兵又來侵 皆不戰而退 提督聞之 頗悔回戰之遽 使張世爵 同李德馨 還到開城 蓄糧以待之 命權慄陞階資憲

<宣廟寶鑑卷之八>

權慄의 幸州山城大勝

癸巳二月 公二分麾下精兵四千人 其以界節度使宣居怡 軍衿州山 使爲聲援 公自領其一實二千三百人 濟自陽川江 軍高陽之幸州山城 于時天朝大將李公如松提督 敎師而東 已克平壤威名大震 賊之逃死平壤者 棄黃海者 棄開城者 自咸鏡聞風而遁者 皆聚京城 賊勢顧益熾大 懸軍以入肘腋之地 賊且知其兵少 不以爲意 容一蹴足踏之而已二月十二日黎明 候吏白有賊形 公戒軍中無動 升高而望 則去城五里賊已被原矣 先逼以百餘騎 俄盛兵桀之圍之 而倍者不可復測度 我軍殊死戰 矢石雨下 賊分兵爲三 迭休而進 自卯至酉 三合不利 則人持束葦 因風縱火 火及柵 城中以水救之 直西北子城 僧軍守者小撓 賊大叫以入 一軍披靡 公抽劍叱諸將 諸將爭逆鋒格戰 賊大衂 積屍爲四處 焚之而去 我軍收斬其餘 猶爲百三十餘級 得所棄旗幟鎧甲刀槍無數 時李提督軍開城 而先鋒遊擊査大受 聞公大捷 翌日遣其褊將 來

視戰處　又數日　要與相見　公整陣以迎　至則歎曰　外國有眞將也　旣而公移軍坡州之山城　賊以必報　幸州之敗　擧衆而西　望見公　壁壘如幸加嚴　相戒毋犯而還　如是者三焉

<幸州權都元帥慄勝捷碑文>

幸州之役　調度御史邊彦時　以所製火車三百輛助權慄軍　其制一車容勝字銃四十　令連發　火相繼不絶　<月沙集>

趙儆乃取大砲繫二大刀於砲箭放之　所觸蕩然粉碎　<宣廟中興志卷四>

全羅道巡察使權慄　敗賊于幸州　移軍坡州　先是慄以光州牧使　代李洸爲巡察使　率兵勤王　懲李洸等野戰而敗　至水原據禿城山城　賊不敢攻　及聞天兵將入京城　渡江陣于幸州山城　至是賊從京城大出攻之　軍中洶懼欲散而江水在後無走路　不得已還入城力戰　矢雨下　賊分爲三陣迭進皆敗　會日　賊還入京城　慄令軍士　取賊屍磔裂肢體　散掛林木　以泄其憤　旣而聞賊欲更生期必報　甚懼　毁營柵率軍至臨津　從都元帥金命元　<懲毖錄二(四七面)>

全羅巡察使權慄自水原禿城中　分其麾下精兵四千　令全羅道節度使宣居怡爲前鋒　自領助防將趙儆軍二千三百人　由陽川進陣於高陽之幸州山城　宣居怡結營於衿川山　遙爲之聲援　全羅召募使邊以中亦率精兵數千　箚住于陽川山自製火車三百　分送于權慄陣中　京中之賊　探知慄軍　少不以爲意　有靴尖踢倒之計　悉衆而出十二日黎明　候吏白　賊分左右翼　持紅白旗　向本營　慄令軍中　登高而望則　去五里原上　賊徒已彌滿矣　先鋒百餘騎　看看漸逼　俄而有數萬騎　蔽野而來　皆負紅白旗　張黃金傘　鬼面獸形粧粉甚怪　圍抱本營　最後以大兵繼進　圍之數重慄即令軍中傳食　擇善射者　列面睥睨間　下矢如雨　且揀勇士　投石擊之　繼放車子火石　又放各樣火器　賊分爲三營　休兵迭進　慄拔劍督戰自卯(午前六時)　至酉(午後六時)　賊九進九却乃知束芻因風縱火　焚我城柵　城中以水救之初令僧將處英　率僧軍一千　守西北面子城　至是僧軍少却　賊大呼闌入　一軍披靡　慄自用劍督諸將　無不冒匁搏戰　戰不能支吾　一時奔潰　積尸爲四推　聚芻焚之　臭聞十里　我軍當陣　斬一百一十顆左耳二朶　奪獲弓箭盔甲刀銃倭器共七百二十七件

餘賊痛哭還城　摠兵査大受方在臨津　往來哨探聞慄大捷來見　整軍以待　旗幟鮮明　器機精利號令嚴肅　部伍不亂　大受待之加敬嘆曰　權家軍與他陣自別　外國有眞將矣

經略宋應昌移咨本國　令行獎賞曰　自倭奴攙陷朝鮮王國　三都諸郡縣　悉皆望風奔潰　無一英雄傑士　倡義師　排大難　守封疆　以圖恢復者　王國可謂無人　獨全羅道觀察使權慄　扼守孤城　招集衆庶　屢出奇謀　時抗大敵　近復㲉沙爲粮　誘倭來槍而㓮之　此正王國板蕩誠臣　中興名將　今賞紅段絹四端　白金五十兩　以爲忠勇之勸宋經略且令我國　加之爵祿　以風本國宰僚　兵部尙書石星上本曰　朝鮮諸道　獨全羅布政用命陪臣權慄　能守孤危　以抗強勁　合有勸賞之典事

聖旨○○『朝鮮強國　今觀全羅道　斬獲數多該國人民　尙可振作　朕用嘉之　該部知道』於是　兵部差鴻臚寺官宣喩　賞賚頗多　自此以後　天朝文武大小將官　每聞慄名　必曰此莫是前日幸州奏報者耶　必送揭奴　以致殷勤之意　我國亦陞爲資憲大夫以賞之　有詩爲證曰

　巡察英名動海區　提兵直上壓王都
　橫戈壯氣能呑敵　揷血雄心在殞軀
　天書旨下三軍躍　玉劍纏頒列校趨
　勳合旂常存社稷　凌烟異日掛新圖

<再造藩邦志卷二>

李提督行至平山寶山驛　聞幸州之捷　悔其退師責李如栢曰　耽閣大事　至今不能成功　皆由於汝　盖如栢止其進攻王京也　提督乃令張世爵　同李德馨　再往開城府　使之蓄粮以待　提督因還平壤　留屯城中　<同上>

方戰之際　弓矢幾盡　陣中方危　丁傑以二船弓矢　從海面入送　得以繼用　<燃藜室記述>

全羅觀察使權慄　領兵數千　屯幸州山城　諸賊圍攻終日　死傷不記其數　退遁還京城

<攷事撮要下 (四二面)>

七十九, 第2次 尙州 戰鬪

三月以黃進爲忠淸兵使 進追敗倭人於尙州 初進從宣居怡等大軍屯漢南 賊以兵逆之 居怡等退却 進被圍數重 賊素進召必欲生得之 毋令相薄 粤(越)二日 進忽躍馬突出 左右揮擊 賊血洒面淋漓 奪賊駿馬 騎以歸 以功陞忠淸助防將 至是特授忠淸兵使 移陣安城 與竹山屯賊相持 已而賊撤屯而去 進 退及於尙州之赤岩大敗之 <宣廟中興誌 卷四 癸巳>

八十, 蘆原坪 및 牛貫洞 戰鬪

(癸巳年三月 自二十五日 至二十七日)

兼三道防禦使李時言 平安左防禦使鄭希立 京畿防禦使高彦伯 平安助防將朴名賢 助戰將朴震男等牒呈內 道節制據 三道防禦使 約束合勢 抄擇精銳 本月二十五日夕時 蘆原坪三角山底牛串洞等處 潛師先送 埋伏左右諸將而二十六日未明時 率大軍進陳樓院冷井峴 隱伏待變 辰時 京城倭賊 不知其數 出來蘆原牛串洞遍滿原野 諸將等率軍 與前埋伏之軍 左右相應 一時馳突挾擊之際 都元帥軍 巡邊使李薲軍 義僧將惟政軍 自東繼至 合力搏擊 射矢如雨 賊徒驚潰敗遁 諸將士卒 爭先賈勇 追至京城十里許 乘勝轉鬪 多數射殺 斬首四十七級又本月二十七日 倭賊多出 焚蕩於水落山等處高彦伯軍及僧軍等 乘高發射 賊之死傷者無數皆扶載以歸 但以衆寡不敵 而賊在山下 未能下山斬獲而射殺甚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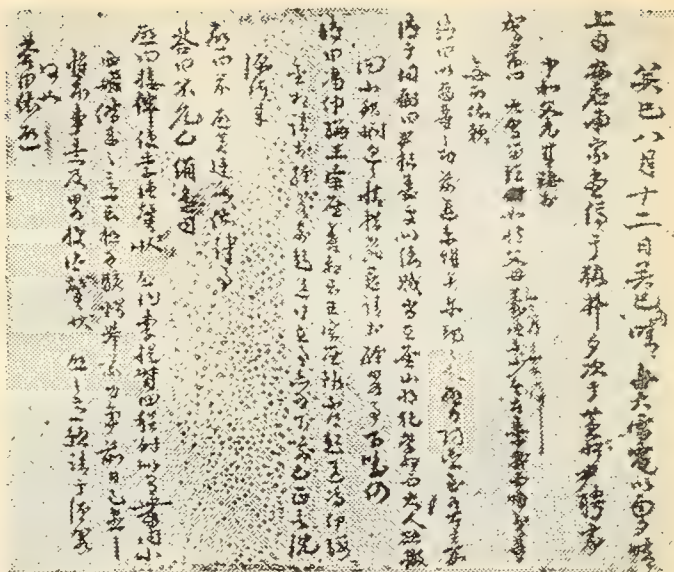
<懲錄卷十一 (二四四面 馳啓我軍勝捷狀)>

第12節 第4期 夏季以後 作戰

八十一, 第2次 晋州城 戰鬪

(癸巳年六月 自十九日 至二十九日)

(一) 我國史料

賊陷之後 賊連日屠殺戮不能盡計曰避入司倉大庫者免死 愚民被迫競入倉中 賊遂燒火盡殺

<雲川扈從日記(癸巳八月十二日條)金涌自筆>

之 鄭猉壽等數人從南江泳出生還 崔慶會 金千鎰 走保矗石樓 將士咸集 賊兵厮殺以進 李潛金俊民等 弓矢已盡 直以竹槍相對搏戰 賊兵暫不能近 竟力詘而死之 千鎰等相抱投江溺死云 <春坡堂日月錄卷之九 趙慶男撰亂中雜錄>

力戰殺賊屍如山積 身死然後城陷方 生則保障死則忠義 (此爲李宗仁等云云其後宗仁等旌門錄勳贈崇祿) 陷晋之賊 分兵四散 或向昆陽河東岳陽之路 或向三嘉丹城山陰之路 焚蕩殺掠權慄時在南原 拜元帥有旨 自京直下嶺南 因跟尋到此 慄夜半祗受于五里之外 翌日還向嶺南 李薲率宣居怡等諸將 自咸陽退來 與慄相遇留雲峯待變 <政院日記 同上, 亂中雜錄>

城中將士軍民死者六萬餘人 夷城塡壕壕井刊木 焚蕩室廬 牛馬鷄犬不遺 以快前憤

<西厓文集>

倭賊陷晋州 倡義使金千鎰 與其子象乾及慶尙兵使慶會 復讐將高從厚 佐郎梁山璹等北向再拜 投江以死 李宗仁轉鬪至南江左右 挾兩賊大呼投江曰 金海府使李宗仁死於此 進士文弘獻 正字吳玭 參奉高敬兄等皆從死 城既陷 賊大肆屠殺 巨濟縣令金俊民獨馳馬巷戰 左右突擊 賊衆披靡 終日追逐 丸劍皆不中 竟不知死處 城中士女奔波至江投死 流屍塞江 大約死者六七萬 壯士得脫者數三人 賊夷城郭焚家舍

一城爲墟城 被圍九日 晝夜大小百餘戰 賊死者相當而衆寡不敵 外救不至 諸將力盡而死 自倭變以來 陷敗之慘 義烈之著 無如晋城者 千鎰贈左贊成 慶會贈左贊成 宗仁贈兵曹判書 俊民贈刑曹判書 其餘贈職有差

<宣廟寶鑑卷之八>

六月 賊始還兩王子臨海君順和君及宰臣黃廷彧黃赫等 遣沈惟敬歸報而一面進圍晋州 聲言報前年戰敗之怨 蓋財放壬辰 圍晋州 牧使金時敏禦之 下克而退故云然也 八日而城陷 牧使徐禮元 判官成守璟 倡義使金千鎰 本道兵使崔慶會 忠淸兵使黃進 義兵復讐將高從厚等皆死 軍民死者六萬餘人 牛馬雞犬不遺 賊皆夷城塡壕泉井利木 以決前憤時六月二十八日也……中略……州城本四面據險 壬辰移東面下就平地 至是賊立飛樓八座 俯瞰城中 刈城外竹林 作大束環列自蔽 以防矢石 從其內發鳥銃如雨 城中人不敢出頭 又千鎰所率 皆京城市井召募之徒 千鎰又不知兵事而自用太甚且素惡徐禮元 主客相猜 號令乖違 是以甚敗惟黃進守東城 戰數日 爲飛丸所中死 軍人奪氣而外援不至 適天雨城壞 賊蟻附而入 城內人方束莿投石 極力禦之 賊幾郤 千鎰軍守北門 竟城已陷先潰 賊在山上 望見軍潰 一擁而登諸軍大亂 千鎰在 石樓 與崔慶會攜手痛哭赴江死 軍民得脫者數人而已 自有倭變以來 人死未有如此戰之甚者 朝廷以千鎰死義 贈以崇秩議政府右贊成　<懲毖錄二(五四面)>

賊酋秀吉以年前遣兵 見挫於晋州 令諸賊悉力攻夷其城 相戰累日城遂陷 城中將士倡義使金千鎰 兵使崔慶會 黃進 李宗仁等數十人皆死之 軍民死者六萬　<攷事撮要上(四二面)>

賊酋以前年圍晋州 牧使金時敏禦之不克而退遂悉衆攻城 相戰八日城陷 倡義使金千鎰兵使崔慶會黃進李崇仁等數十人 皆死之 軍民死者六萬　<朝野記聞卷之四 壬辰倭難>

晋州在慶尙左道 爲一巨鎭而西爲全羅道之要塞以故四隣調輸之糧 諸道官義之兵 皆聚於此爲必守之地而賊自釜山諸處 悉銳而進攻圍八日不遺餘力 終於屠陷 盖極慘矣 始遊擊沈以爲倭兵前圍本城時多被殺傷 以此必欲報怨 莫如空城而避之 竟亦止遏官軍之赴救者云矣

<簡易集卷四，回提督主事再回帖>

矗石旌忠壇碑

壬辰之禍 賊屠城邑 殺將吏 不可勝數而晋介湖嶺爲賊衝□□賊又先衂後奮併力 必取於是晋終見屠而忠義之士殲焉□湖南既閑山不利悉衆攻晋于時 判官金公時敏 先賊之□□振回軍馳入城 大修守禦具 以待賊 六月賊果大至圍□□卯而公擧止安閑有時 吹笛鳴琴 軍中恃以爲安督勵□□而退賊 退之日公忽爲流丸所中 殞於城上 州民將士□□攻時天朝以和誘賊 天將之追賊 在嶺南者皆按兵□□ 累下旨督諸將進戰 都元帥金命元 巡察使權慄以下□元等 先走 湖南倡義使金公千鎰 獨奮謂諸將曰 晋密□□若並力堅守 以遏賊勢 諸將不應多散去 公與□□將士十餘人 將兵入城 時金海府使李宗仁先□□禮元素恇㥘 不知兵 凡守禦區畫 皆出千鎰主□□各率兵往來 赴其急 約束璹定 人皆以死自誓六□鎰遣梁山璹 乞師於劉綎 綎畏賊 終不出師 其明日 賊又乘夜 進逼東門 大呼登城 聲震天地 進等擊却之 一日賊急□臨城俯攻進亦築高阜以當之 賊又設板屋 置大木上 於火□□□ 死之賊又築五阜於城東西 登其上放丸 姜希輔死□□□□ 油而焚之 其後賊潛來 穴城 進等殊死戰 賊酉一□使張潤代進旌又戰死 進潤智勇爲諸將最而一□元先走諸軍大潰 千鎰等在矗石樓 與其子□□ 姜熙悅等十餘人 奮劍斫賊 力盡而死 宗仁□□屠戮無一人得脫 牛馬鷄犬 亦不遺□□□□而諸公以弱卒 守孤城 外援不至 終必□□□壯義烈 固當與張巡匹美而至其乘機立□□又設旌忠壇於近城之麓 祀以春秋 贈領□□將高從會李潛 金海府使李宗仁 虞侯□□□□宣務郞梁濟學生朴安道在西列 贈承□□□□琦弼贈主簿 兪晗 生員李郁 守門將張胤賢□□著義烈昭久遠者 闕然不圖今御營大將徐公□□將士

謀所以彰示後世者 右兵使李公基夏 □□□□鳴乎 晋城之事 豈不悲哉 寇再逞而勢益 驚國□□而□肉 獨使夫志士仁人 張空拳兮樹上卓寧人謀之不臧豈天魄毅兮奮威怒酌縹清兮 薦芳腊祀春秋兮 耿南上

崇禎五十九年八月 日立

<朝鮮金石總覽>

晋州叙事(安邦俊撰雲峰野史別錄)

萬曆二十一年癸巳六月 倭賊陷晋州 守城諸將皆死之 先是壬辰夏 賊分路水陸謀寇湖南一路至閑山島 爲水使李舜臣所破 一路至晋州城 爲判官金時敏所拒 皆不得志 由是賊常忿恨 是年春天將與賊 連和京外諸賊 俱集嶺南於是兵勢大熾 賊酋淸正 聞于秀吉 請復攻晋州 仍擊湖南 秀吉許之大 時劉摠兵綎 呉游擊惟忠在大丘 駱參將尙志 宋游擊大斌在南原王游擊必廸在尙州 沈游擊惟敬在賊酋平行長所 宋經略應昌在京城 劉綎移書淸正曰 日出毀我屬國兵連禍結 上皇赫怒 特命節鉞分遣虎臣 意圖盡戮長鯨 永清東海 邇因沈惟敬往回面講 日本遂能傾心解甲納欵乞盟 盡行退還引類歸國 又從釜山遣小西飛禪(彈?)守 久大夫叩天朝俟命 一念至誠 深可嘉賞故天朝所遣百萬兵 盡止鴨綠江頭 大將李某統兵二萬駐王京郭總兵某李總兵某領二十萬駐遼東 呉副總某及他諸將領兵分布平壤開城者又十餘萬 俱按不動 恐一交鋒便爽約議失 我堂堂天朝覆載度量 不意汝等歸意 不快復攻晋州頓背前約云 洩舊忿 夫朝鮮八方地道已破其七士女横罹荼毒者 枕骸遍野 懸首盈竿 亦云慘極 更復何讐刻晋陽黑子之城 何必以小嫌介意而失大信於中國哉 及今尙且易慮改心 撤兵東返則 我輩必不擧兵 相加失信外國 若復執迷兵難遂寢必發鳥尾福船樓船栢槽龍槽沙船艙船銅蛟 小海舠八喇唬八槳等舡 裝載百萬 邀截海崖斷汝歸路絶汝粮餉 不待決戰 爾將自斃島嶼 片甲不還矣 且關伯與汝 原是比肩 爾等被彼牢籠俱聽驅使關白既慕天朝而納貢 汝等何向晋州而 復圖 今日進退之間 利害所關 非細三思 自審免悔噬臍 賊不聽沈惟敬力說 行長使止之 行長曰今日之擧 吾無所預 惟淸正力主此議 開喩百端不如先自空城 以快其情而已 及惟敬還都元帥金命元 巡察使韓孝純謂曰 晋州事急 願老爺力救之 惟敬曰 彼回去歲失志於此 是以忿恨鋭意再擧 今無他策 只令諸將一如行長所言可也 時官軍義兵俱在咸安等地倡義使金千鎰謂諸將曰 賊謀難測 只攻晋州之說 庸可信乎夫晋州密邇湖南迭爲唇齒 若棄之去 縱賊長驅則 禍必中於湖南 莫若並力堅守以遏賊勢 諸將不應 巡邊使李薲 紅衣義兵將郭再祐 自丹城經入山邑 左義兵將任啓英 自泗川直還湖南守令諸將亦多散去 獨倡義使金千鎰 右義兵將慶尙道右兵使崔慶會 忠清兵使黃進 巨濟縣令金俊民 海美縣監鄭名世 左義兵副將泗川縣監張潤 復讐義兵將高從厚及其副將呉宥 熊義兵將李繼璉 飛義兵將閔汝雲 彪義兵副將姜希輔等 各領兵來會 及入城諸將幕下士無可用者 聽其出去 凡數十人 惟千鎰幕下 子象乾及梁佐郞山璹 慶會幕下文進士弘獻 從厚幕下呉正字玭 内禁金獜渾 高參奉敬元等五六人不去 時金海府使李宗仁 先已入城議守禦 牧使徐禮元不肯宗仁張目叱之曰 議兵諸將今方來會 輕易棄城者斬 禮元恇怯人也 遂不敢違亡

八日

全羅兵使宣居怡 助防將洪季男等來謂曰 寡固不可敵衆 即還出陣于雲峰 時奮義兵將姜希悅以元帥令兼助防將 帶數邑軍兵 守求禮石柱棧道 聞之奮然曰 官命謀避尙不可 況義兵乎 遂疾馳而來 敵愾義兵將邊士貞 聞事急 遣其副將李潜行褊裨皆曰 大賊將至 規避者衆 我等何故 獨就死地乎 潜不聽 遂促兵進 方居怡季男之出也 城中之人 無有固志 及聞希悅等至莫不踊躍思奮 時千鎰軍五百 慶會軍六百 黃進軍七百 從厚軍四百 張潤李潜軍各三百 繼璉汝雲希輔希悅等軍各二百餘名 諸守令兵及本州兵民避亂士兵凡六七萬人 李薲傳令從厚出與居怡季男等 合勢爲外援 城中將士亦多勸

之 從厚皆不從 於是分城而守 以城南矗石 最爲絶 賊不可犯 惟東西北三面受敵可虞 令義兵守之 黃進李宗仁 張潤各率數十人 隨賊所薄 往來相救 幕下諸生 親持酒食 巡城餉士 約束既定 城中之人 皆以死自誓

十九日

天將與尙州牧使鄭起龍 來審城池曰 南有大江 北有深池 實天作之地 且劉總兵欲爲外援 自大丘動兵 前鋒已到咸陽 遣我輩先諭云

二十日

沈惟敬移帖來 其略即向來所喩空城避鋒之意也 是日呉宥李潜與本州武士鄭國祥等 出城覘賊 賊前鋒已入州境 二將策馬而走 國祥等還報曰 二將遇賊去 不復還必是亡走 俄而二將各斬數賊而來 城中鼓譟 或有拔劍而起舞者 天將歎曰 一城之人皆義士也 吾當告急赴援即與鄭起龍還 始千鎰自咸安來也 遣梁山璹 洪涵等賫書乞師於劉綎書 乃從厚所撰詞旨激烈 繼以山璹辭氣慷慨 感動於人 綎讀未訖 不覺斂綎改容 然終無出師意 涵於歸路棄山璹走 山璹泣曰 臨危局苟免使主將獨陷死地 非義也 遂單騎入城 一軍皆驚

二十一日

辰時賊騎數十出沒於東北山上 俯瞰而去 巳時又數百餘騎 登北山列陣耀兵 俄而大軍繼至 圍城三匝 不放一丸 城中亦按兵不動 賊乃退 自聞慶院至馬峴 大陣凡三處 其餘小陣星羅碁布不可勝數

二十二日

賊進簿城下 自朝至哺 鐵丸如雨 城中拒之甚力 賊乃退 姜希輔曰 賊勢如此 不可不遣死士求救於官軍 令其幕下林遇華 縋城而出 行未及五里 爲賊所擒 自後賊來輒縛遇華 置于前列以示之 是夜賊又逼東門 大喊登城 聲震天地 進等血戰 賊乃退 禮元顚倒 處事失措 千鎰慶會 議以張潤權攝州事 城中懽喜 義氣自倍 一日賊自西北隅 入喊而來 守陴者皆走 城幾陷沒 進奮劍大呼曰 今日吾得死所矣 於是諸軍還集射 賊乃退 賊又於東門外造山數仞 俯而攻之 進亦對築高阜 身自負石 男女皆感泣助役 一夜而成 遂用大炮 中破賊窟 賊乃退 賊又作木櫃 被以獸革 負戴而毁城進以大石滾下雜以射炮 賊乃退 賊又於東門外 建二大木上設板屋放火城中 屋比延爇 烟焰漲空 進亦設板屋 半餉而成 遂用大炮 中破賊窟 賊乃退 時天大雨 城一隅頽圮 賊大喊闌入 金俊民力戰死之 賊乃退 賊投書城中其略曰 萬民入城一時屠殺可慘 將帥一人送其邦 其餘安在城中可也 如欲講和則 脱笠三押書尾曰 六月二十七日羽柴備前宰相豊臣秀家再拜云 城中答書曰我固戰死而亡且況天兵三十萬今方追擊 汝等盡勦無遺 賊露臂叩之曰 唐兵已盡退去矣 遂築五阜於東西兩門外 結竹爲柵而放丸 姜希輔力戰死之 又進等放火箭毁柵 賊乃退 賊又作大櫃置四輪車上銳卒數十 各穿堅甲推挽而進以鐵錐鑿城 進等束火灌油而投之 櫃賊盡死 賊乃退

二十八日

禮元不謹踐更致賊潜來鑿城 進等覺之殊死戰 賊酋一人中丸而死 殺死者亦千餘人 進臨城俯視曰 今日之戰 賊尸盈塹 可謂大捷 忽有一賊仰而放丸中進左額而死 宗仁斂瘞于麻田中 時黃進張潤李宗仁金俊民呉宥李潜姜希輔姜希悅等皆殫力戰而進之忠烈智勇 爲諸將最一 城甚倚重焉 及其死也 莫不洶懼

二十九日

以禮元代進 爲巡城將 禮元脱笠而騎垂涕而行慶會怒將斬之而止 即以張潤代之 未幾潤亦中丸而死 時東門城子因雨頽圮 群賊蟻附而上 宗仁等與其親兵 捨弓矢持短兵搏戰 賊死殆盡 賊乃退 賊之精銳又自西北門揮劍踊躍而至 禮元先走 諸軍大潰 咸集於矗石 賊遂闌入於是象乾梁山璹 扶千鎰文弘獻扶慶會 呉玭金獜渾高敬元扶從厚 北向再拜 赴南江而死 山璹素善泅游 千鎰曰 汝可以免 努力更圖滅此仇賊 山璹義不獨生 遂與同死 宗仁希悅宥潜等十餘人奮劍斫賊抵死乃已 最後宗仁轉鬪至南江 左右腋各挾一賊大呼赴水曰 金海府使李宗仁死於

此云

七月初二日

賊發向湖南 前鋒將六毛里鹿加未等 一軍至河東 一軍至石柱 有一賊酋爲淸正謀曰 攻城十日 精銳挫甚 不可以此得志湖南 休兵爲善 淸正然之 卽令撤回 是夜林遇華從河東遁還 遇華博通籍 兼有膽略 其軍中諸將皆重之 每事在輒訪焉 乙未冬余見遇華於光陽縣 問當時事 遇華陳述不差一二繼之 以涕至於嗚咽 余甚義之 約以他日相遇未數年病逝去 余聞晋陽之圍殆將一旬內 守雖固外援不至 力盡然後見陷不屈且是役也 賊死過當不得渡江而西則 其蔽遮湖南之功豈非巡遠之匹也 噫諸將士 明白死義者不止一二而忠臣列傳及諸公記事闕遺者多 又未免吹竽混眞之譏焉 余於是時年踰弱冠出入義旅 聞知備詳故得丙申年間粗叙首末以圖不朽而顧拙語荒詞意不通 暢比得纛城日記參互考證則與余所錄大略相符 謹因其文更加删潤名之曰晋州叙事 凡我同志勿以人廢言如有所聞續爲添補 使精忠壯節不至於泯泯無傳 此余區區之願也

天啓丁卯孟冬旣望牛山病翁安邦俊書

<安邦俊撰 隱峯野史別錄>

十九日

全羅兵使宣居怡及洪季男等 領兵來會 以爲賊衆我寡 不如退守內面 金千鎰抗言止之 居怡季男等出陣于雲峰

二十日

賊二百餘騎 出沒於東北山上

二十二日

辰時 賊五百餘騎登北山 列陣耀兵 城中按兵不動 巳時大衆繼至 分爲二起一起陣於聞慶院山腰一起陣於鄕校前路 初一交戰 城中射中三十餘人 賊斂兵而退 初昏更進 大戰良久 至二更退三更更進 五更始退 先是 城中聞賊將至以爲城南矗石南江最爲險絶 賊必不敢犯 惟西北可以鑿濠爲潰 儲水其下 只有東邊爲受賊之地 至是賊鑿決其濠 待其乾涸 負土塡塞 作爲大路

二十三日

三戰三退 其夜又四戰四退 賊乘夜一時大呼 聲震天地 城中亂射 死者不記其數

二十四日

五六千添兵而來 陣於馬峴 又有五六百添兵 陣於東邊

二十五日

賊於東門外 塡土爲陵 因作土屋 俯視城中 放丸如雨 忠淸兵使黃進 亦於城內 導築高陵 自昏達夜 進盡脫衣笠 親自負石 城中男女感激涕泣 竭力助築 一夜而畢 於是放玄字銃筒 中破賊窟 賊旋爲改造 是日又三進三退 又四戰四退

二十六日

賊作木櫃 裹以生皮 各自負戴以防丸矢 來毁城子 城中以大石滾下 射矢如雨 賊乃退 賊又連二大木於東門外 上設板屋 多放火於城內草屋 一時延爇 烟焰漲天 牧使徐禮元畏㥘顚倒以義兵副將張潤爲假牧使 時天大雨 弓矢皆解兵力已困 賊以書投城中曰 大國之兵 亦且投降 爾國敢爲抗拒乎 城中以書答之曰 我國死而已 況天兵三十萬 今方追擊汝等 盡勦無遺賊褰臀叩之曰 唐兵已盡退矣 是日三戰三退 其夜又四戰四退

二十七日

築五阜於東西兩門之外 結竹爲柵 俯臨城中 放丸如雨 城中死者三百餘名 又作大櫃 爲四輪車 賊數十人各穿鐵甲 擁櫃而進 以鐵錐鑿城時金海府使李宗仁 膂力冠于軍中 宗仁連殪五賊 餘皆遁走 城中之人 束火灌油而投之 櫃中之倭 因皆燒死 初更賊更犯新北門 宗仁與其手下 力戰殺退

二十八日

黎明 宗仁還到所守城陴 則其夜徐禮元不謹警夜 賊潛來鑿城 城子將頹 宗仁大怒責之 賊進迫城下 城中殊死力戰 賊死者甚衆 賊酋一人中丸而死 群賊曳屍而去 黃進俯視城下曰 今日之戰 賊死者甚至千餘 有一賊 潛伏城下 仰放鐵丸 橫中木板 挑擲而中進左額 時黃進張潤最稱力戰爲諸將首 一城倚以爲重 進中丸而

死(或云中丸不死陷城時被殺云非是)　城中洶懼

二十九日

以徐禮元代進爲巡城將 禮元畏㤼 脫笠騎馬 涕泣而行 兵使崔慶會以禮元驚動軍中 將斬而止 以張潤代將 未幾潤亦中丸而死 未時東門城子因雨頹落 衆賊蟻付以上 宗仁與親兵 舍其弓矢 直用槍刀 相對搏戰 格殺死者 積堆如山 賊因以退去 又於西北門 高聲突進 倡義使軍潰散 皆聚於矗石樓 賊乃登城 揮劍踊躍 徐禮元先走 諸軍一時潰散 宗仁中丸而死 左右扶起千鎰 勸使退避 千鎰堅坐不動 顧曰 我當死於此 遂與其子象乾相抱投江而死 賊屠本城 作爲平地 城中死者六萬餘人 後監司金玏令沙斤察訪李瀞驗視 則城中積屍僅千餘 自矗石樓至南江北岸 積屍相枕 自靑川江至武峰 五里之間 死者塞江而下(高得賚南原人也 余明知其以右義副將 死於晋城而不與於此傳以此見之 他人之 漏錄亦必多矣)

<趙慶男撰亂中雜錄一, 春坡堂日月錄卷之九>

十九日 賊兵自宜寧直向晋州 浩浩蕩蕩 漫山塞野 丸聲動地 喊殺連天 分送斥候 或向丹城三嘉 或指昆陽泗川 以逐外援 全羅兵使宣居怡 與京畿助防將洪季男 領軍到晋城 言曰 衆寡相懸 不如退保 金千鎰大怒擯之 居怡等引軍還出 與李蘋等退向咸陽

二十一日 先鋒之賊數百騎 直到馬峴峰上 耀兵馳突

二十二日 大賊長驅而進 數不可量 勢如風火 一時圍城 侵攻甚急 城中應戰殺退 日日如是(見下)

自二十三日 至二十六日 受圍累日 賊勢益熾 誰孑不通 消息永隔 將士疲困 食息無暇 夜夜更更 賊衆吹角相應 高聲大呼 一時放丸亂落城中 有似轟雷雨雹 聲震天地 移時而止 及朝視之 我軍死者相枕 一日慶會千鎰登樓瞻望曰 援兵大至矣 諸將大喜 即鳴大鍾 爭望遠近 百里簇擁者 皆妖鋒矣 千鎰曰 天若助順 使吾證濟事朝天 則賀蘭之肉 可膾炙共食矣 固城義兵將崔堈李達赴援晋州 匪茹之勢 非上年比 不得下手 還退固城 時賊徒四散焚蕩 晋州咸安避亂之人 從堈者三百餘人 爲賊圍逼 幾盡鏖戮 堈乘馬馳突 竟夕酣戰 士民賴全而賊死甚衆 晋州生員韓誠亦在避亂人中 登山指而歎曰 千萬古册中 有如此勇將乎 惜乎任之不專也 時天朝提督李如松 留鎭京城 聞晋陽危急 督令駱尙志宋大斌等 由湖南進援 又令在嶺南劉綎諸將 協力往救 軍勢不敵 皆不用命 遞金命元以全羅巡察使權慄拜都元帥諸道諸察使兼議政府左參贊 以全州府尹李廷馣爲全羅監司 以洪世恭爲全州府尹 時權慄自咸陽退在南原 急聚境內士民 設守城計 府使趙誼不能措寘 慄發怒歐叱曰 國家錫爾高秩者 要爲今日用也 何其食人之食而不欲死人之事乎 孤負天恩 罪不可赦 乃杖治之 境內前木川縣監崔頔 與慄三從族也 慄聞其拒命 發軍官拿致曰 爾知我也不先斬汝 難濟大事 即令面縛塗灰 呼視城中於是品官校生謀避落後者 爭先登城 各充所掌女墻弓家 戒嚴待變 城內多設釜鼎高棚斧鎌等物人力竭盡

二十七日 參將駱尙志遊擊宋大斌 各率三千餘名 自全州任實入南原留鎭

二十九日 賊兵陷晋州 倡義使金千鎰 慶尙右兵使崔慶會 忠淸兵使黃進(以上三人爲三忠其後八年建三忠祠于晋陽祀之) 全羅復讐大將高從厚 右義兵副將高得賚 左義兵副將張潤 敵愾義兵副將李潜 靈光義將沈友信 泰仁義將閔汝雲 海南義將任希進 陶灘伏兵將姜希甫 義將李繼璉 金海府使李宗仁 泗川縣監金俊民 藍浦縣令宋悌 知州徐禮元等 皆死之(忠淸守令從兵使死者甚多而名不記) 賊連日屠戮不能盡詐曰 避入司倉大庫者免死云云 愚民被迫 競入庫舍 賊一炬燒之 南原人從諸義兵 入晋城者 三百餘名 自南江泳出生還者 鄭麒壽等數人而已 賊盡毁城濠 方賊入城 崔慶會金千鎰走保矗石樓上 將士咸集 賊兵厮殺以進 李潜金俊民等弓矢已盡 直以竹槍相對搏戰 賊兵暫不能近 竟力詘而死 千鎰等相抱投江溺死云 其

後領議政繁城府院君李恒福爲體察使 巡到晋州 訪問陷城曲節 作傳云

<趙慶男撰 亂中雜錄>

十九日（宣祖二十六年六月）自宜寧進向晋州 漫山塞野 炮聲震動 天地 分送斥候向丹城三嘉 或指昆陽泗川以阻援路 全羅兵使宣居怡京畿助防將洪季男 領軍到晋城 言曰衆寡相懸不如退保 金千鎰怒責不從 居怡等引軍還出與李賓等退向咸陽

二十一日 先鋒賊數百騎 到馬峴峰上 揮兵馳突 明日賊大至 勢甚風火一時圍城 受圍累日賊勢日熾 蟻子不通 消息永斷 賊吹角相應 一時放丸 亂落城中 聲如轟雷 及朝視之 我軍死者相枕 一日慶會千鎰登樓望曰 援兵大至矣 衆皆大喜 鳴大鼓爭望則 遠近百姓皆賊兵矣 千鎰慨然曰 天若助順 吾等濟事 朝天則賀蘭之肉可膾炙共食矣 固城義將崔堈李逵赴援晋州 賊勢非上年比 不能下還向固城 咸安避亂之人從堈者三百餘人 爲賊圍逼 幾不得脫 堈乘馬馳突 竟夕鏖戰 士民賴而得全 望之者 指爲千古勇將云矣

二十九日 賊陷晋州 倡義使金千鎰 慶尙右兵使崔慶會 忠淸兵使黃進（以上三人爲三忠 建三忠祠于晋陽祀之)全羅復讐大將高從厚 右義兵副將高得賚 左義兵副將張潤敵愾義兵副將李潛 靈光義兵將沈友信 泰仁義將閔汝雲 海南義將任希進 陶灘伏兵將姜希甫 義將李繼璉金海府使李宗仁 泗川縣監金俊民 藍浦縣令宋悌知本州府使徐禮元等皆死之（忠淸守令之從兵使死者甚多名不記云)

時千鎰領兵三百 進領七百 慶會領五百 從厚領四百 潤領三百 繼璉領百餘 邊士貞遣其副領三百 汝雲領二百 與禮元宗仁等方議守城

<春坡堂日月錄卷九>

彰義使金千鎰聞之 乃以其兵四百 先入城中 梁山璹從之 千鎰勸使出城自全 以兵屬副將 千鎰不聽 專守矗石面 慶尙兵使崔慶會 忠淸道兵使黃進 義兵復讐將高從厚 左道義兵將張潤 李繼璉 閔汝雲 金海府使李宗仁等 次第入城 崔慶會領右道義兵 所謂右義兵 號令嚴明 處事精敏 人倚以爲恃 宣居怡洪季男等以爲 賊衆我寡 不如退守內地 引兵出城 退陣于雲峯 金千鎰曰 湖南國之根本而晋州實爲湖南之蔽 不守晋州 是無湖南也 遂與諸將約守而創殘尤甚 器械蕩然 無可恃者 居數日 賊之遊騎 已至城東 抄出精騎擊却之 賊乃立飛樓八座 瞰俯城中 又刈城外竹木編作櫓楯中列砲穴 從其內多發鳥銃如雨 城中人不敢出頭 李宗仁金俊民等戰拒之 牧使徐禮元 判官成守璟 以天將支待差使員 久在尙州 至是亦狼狽而還 纔二日矣 賊又爲土山 起屋以壓之砲丸雨下 城中對築土山 發大砲擊碎賊山上屋賊將數人 會城東山頂 城中覘知之 密發砲 中第二坐者仆地

二十五日 賊投火于城中 延燒家舍甚多 烟焰漲天 城中氣沮 禮元恇怯失措 號令顚倒 且與金千鎰不相能 主客不和 有一老妓 從容言於幕下士曰 前日金牧使(金時敏)守城時 上下相和齊心一力 故終始固守 今觀形勢 頓異於前 我輩死生未可知也 千鎰聞之 以爲妖言惑衆斬之軍中急推張潤 代爲假守 行禮元之事 一軍稍安

二十八日 曉 黃進張潤先後中飛丸死 初進之赴晋也 義兵將郭再祐止之曰 晋州孤城 不可守而公且受忠淸之節 守晋州而死 非職也 進曰雖然吾已諾於彰義使矣 雖死不可食言 再佑知其意不可奪 遂執酒相別 及聞其死 痛悼不已金海府使李宗仁斂其尸而瘞之 自進潤之死 城中奪氣 外援不至 賊益添兵急攻之 呼聲動天地 適天又大雨 城堞融液善崩 賊將蟻附而上城內矢石俱盡 徒以竹木刺擊 徐禮元旣代黃進巡城而又驚走 遂一擁而登 金千鎰在樓上 左右犇潰 惟長子象乾及幕下士梁山璹等福裨親兵僅十餘人在側不去 且呼曰 事去矣 將奈何 左右勸跳 千鎰不動曰 起事之日 吾已斷吾死矣但爾曹可憐耳 堅坐不起 顧謂其子乾曰 當死於此 已而賊迫 千鎰與崔慶會握手痛哭 俱北向再拜 先投兵器水中 與其子象乾相抱 赴樓

下潭水而死 崔慶會高從厚 文弘獻 梁山璹 崔布立 姜布民等 皆死之 民死者幾六萬餘名 牛馬鷄犬不遺一拗 又夷其城塡其壍 堙井利木 以快前憤

朝廷聞晋州陷沒 諸臣皆死 莫不痛悼 贈千鎰右贊成 黃進崔慶會左贊成 張潤兵曹參判 其餘贈職有差

<再造藩邦志三, 大東野乘卷七 (五四一面)>

忠毅公崔慶會 壬辰倭寇充斥 大駕播越 公以自居草土 不得陪扈 與伯兄進士慶雲 仲兄掌樂院正慶正 曉諭鄕邑 鳩聚粮餉 收召戰士 使從子持平弘載領赴高霽峰敬命陣 助其兵勢 及敬命之師敗于錦山也 其幕下文弘獻等 收拾散卒 請公爲大將 公遂哭 辭凡筵墨裏 倡義 所向無敵 慶尙監司金誠一狀聞 特拜慶尙右兵使 晋陽之圍 力戰九晝夜 矢盡力竭 抱印投江而死 事聞 贈吏曹判書 仁廟朝 加贈左贊成 英廟朝庚午 獲印南江 事聞 遣官致祭 賜諡忠毅 <綾州牧邑誌>

今上(英祖)丁卯冬 兵營官奴貴同得孫 採艾江邊 獲一古印於穴中 刻慶尙右道兵馬節度使印 而篆畫宛然 印背以楷字 刻萬曆十年三月日造 來四月十一日爲始行用 字畫亦皆不刓 是癸巳城陷時 右兵使崔慶會 抱印投江者也 兵使狀聞 上感而異之 命鑄銅匣 以藏之 仍親製御銘及小序 以記其事 命藏於右閫<晋州牧邑誌>

忠毅公張公 諱潤 本木川人 居昇平(順川)以武進 壬辰龍蛇之歲 出監泗川縣 矗石城陷之日 攝陞晋州牧 慷慨起義 力戰而死之精忠義烈 尙今炳覲人耳目 宣廟癸巳贈貳卿曰 身長八尺 勇力絶倫 姜睡隱沆之言也曰 權攝州事 城中踴喜 義氣自倍 安牛山邦俊之言也 曰 捍禦孤城 衝犯賊壘 糜身鋒刃 不思偸生 柳西厓成龍之言也 曰 黃進中丸死代以張潤 城中倚以爲重 李白沙恒福之言也 <順天府邑誌>

牧使徐禮元 素恇怯不知兵 凡守禦區劃 皆出千鎰 主客不相能 城本四面據險 其東稍平 至是部署諸軍 分城而守 黃進, 李宗仁 ,張潤等往來赴其急 約束旣定 人皆以死自誓 六月二十日 賊之前鋒已至州境 呉宥 李潛等出城 謟賊斬數級而來 城中鼓譟 千鎰遣梁山璹 乞師於劉綎 綎畏賊 終不出師 其明日 賊大至 圍城三匝 進薄城下 柵竹自蔽 從其內 發砲丸如雨 城中人悉力拒守 賊又乘夜 進逼東門 大呼登城 進等擊却之 一日 賊急攻西北隅 城幾陷 進奮劍督諸軍 登陴射賊 賊乃退 賊又築土山臨城俯攻 進亦築高阜 以當之 賊又設板屋置大木上 放火燒城中屋室 進用火砲碎之 時久雨 城一隅潰 賊遂乘之 金俊民力戰死之 賊又築五阜於城東西 登其上放丸 姜希輔死之 進乃放火箭焚柵 賊又作大櫃 置四輪車上 被甲者挽車逼城 進乃束火 灌油而焚之 其後 賊潛來穴城 進等殊死戰 賊酋一人中丸斃 賊兵死者千餘人 賊退 進臨城視戰地 忽有賊丸 中進左額而死 <矗石樓旌忠壇碑銘序>

(二) 日本側 史料

行長淸正爲先鋒 黑田長政淺野幸長偕先鋒當城面一方 毛利秀元爲將 小早川隆景伊達政宗等屬焉 向城西宇喜田秀家爲將 島津義弘鍋島直茂長曾我部元親蜂須賀家政立花宗茂等屬焉 向城東凡六萬餘 <征伐記, 秀吉譜, 黑田家記>

我兵窺城寂如無人 斥候亦報云 城空無兵 諸將意旣遁去 義智鎭信曰鮮兵能潛守 嘗聞彼兵法 給以乾飯魚數日糧 善潛伏以誘敵不可輕動也 淸正曰彼實遁我速入城 何功之有 彼或潛伏必陷彼計 兵法曰午伏者至昏見 請少緩以察虛實 頃之果見伏兵之過 擧軍稱其練軍事

<松浦家記 小西一行記>

大櫃四輪車 淸正長政創意所作也 以堅木製櫃形如龜甲 以生牛皮裝之 付大繩進退號之龜甲車 此日二人相議 共以龜甲車遂撥牆石 城牆崩壞 淸正長政先登城 <黑田家記>

禮元逃匿林藪 秀家臣岡本椎丞搜得斬首問之生口曰牧司也 鹽漬傳于名護屋 此役淸正行長長政戰功相儔而淸正壞城牆最早 故爲最 正宗以寡兵善戰 秀元從西門急入 獲級尤多 秀吉大悅各賜狀稱焉 <征伐記, 秀吉譜>

此役慶州將朴好仁來援 入城勇戰 及城陷潰圍

走 元親兵吉田政重搏獲之 及翌年元親歸土佐 以其良將遇之以賓客禮 以終其身 子孫改稱秋月氏 其餘所俘獲八十餘人 元親憐之 賜宅地居之 皆販鬻爲業 時稱唐人街云<土佐物語>
直茂兵所俘獲有十二三童 士人浩氏之子也 名然號雲海 善書 直茂憐之 及師還常侍左右 浩嘗賦詩謝云

髫年漂泊日之東 莊越吟邊歲幾窮
蒼海浩恩無所表 寧趨明節訴微衷

直茂沒後事勝茂 勝茂亦善遇之 及勝茂沒 浩旣老矣 感懷悲慟遂殉死 <鍋島家記>
六月清正陷晋州 其攻晋州 清正行長爲先鋒 毛利秀元面一方 小早川隆景黑田長政淺野幸長伊達政宗等屬焉 浮田秀家面一方 島津義弘鍋島直茂長曾我部元親蜂須賀家政立花宗等屬焉 凡軍兵六萬餘人
<松下見林著 異稱日本傳, 海東繹史卷六十二>
文祿中 遣軍於朝鮮之時 長政帥五千兵渡彼地 與諸將議攻晋州城 城將牧司拒之嚴密而不抜 盖晋州朝鮮第一之要害 且憑明兵之援不肯屈 時黑田長政與加藤清正 相議而進攻 此時長政之勇臣掘平 先登城破之 後諸將相會 談晋州先鋒之事 長政前席曰 我爲先登 何人相爭乎 清正曰 信然 <上 同>
偖晋州へ 辰の刻に着かせ給ひ 隆景其儘城を三つ築き給ふ同日申の刻には 芝手塀墹迄出來して一つには隆景一つには吉川廣家一つには宍戶備前守を置き給ふ 御本陣は 隆景の城と 敵城との間の原なり 敵城との中間四町程之あり 請手の諸陣取 敵城を後になし 後攻の來らん方を面として 陣取るべき由御下知にて 其の如く陣取りてけり 揃鐵炮と鬨を上げん事は 責衆と同前に 請手の衆も勤め 候隆景仰に 城は頓て落去すべし 然れども下知なきに 城へかゝるべからず 當城に 昇三本上げたらば 城へ懸り候へ 落城と見たりとも三本の昇を見ざれば 懸るべからず 此儀を破り城に懸りて 何程の勇功をなしたりとも 不忠の罪たるべしと掟 を出し給ふ偖攻衆の內加藤主計頭 龜の甲の仕寄にて 城の大手の門迄掘入りしを 內より種々の物にて燒きてけり 城の廻は 石垣にて一門に一つ宛火灯す所ありて 夜に入れば 每夜火を灯す事淼し 又攻衆の陣へ 火矢を射かけゝれども 役には立たざりしなり 或時請手より揃鐵炮にて 石垣を十間計打崩したり 城乘あらば 能き道出來たりといひし所に 其夜 物音もなく築きつくろひてけり 主計頭又龜の甲を丈夫にして掘り入らせ 櫓を一つ燒崩しければ 其勢に 六月廿九日城を乗取りし 此時隆景直の衆三人 三吉が二人 彼是五人 いつの間にが懸付け 手手に首を取つて參りし 隆景仰せけるは 心懸といひ 手柄ととひ 不便なることにてはあれとも 最前の掟を背きたり 軍法を破りぬれば後々軍に失あるものなれば 後々の見せしめぞとて 則ち切腹させ給ひてけり 夫迄も後攻なかりしかば さらば昇を上げよと宣ひて 三本上げさせ給ひければ 思々に走り出し 城へ悉く乘込みし 城の南より東へ大河流れしに異國人共 詮方なしてや 岸より飛びつかりつかりせしを 筏に乘りて 河中にて討ちし事數を知らず 川端へと心懸けて出でし者 敵を討ちてけり 宍戶刑部 首二つ取りたいし 其內一つ牧司が首ぞといひしなり 偖晋州に 五六日滯留ましまして 城を破却して 諸將釜山に打入り給ひてけり 晋州の城を攻落し 大將牧司を討捕り給ふ 其外一萬餘の印を 日本へ渡させ給ふ 秀吉公大に御感ありて 秀元卿へ御感 狀此の如し

今度赤國內 晋州の城攻落し 剩へ大將牧司判官討取首差渡し 并に楯籠在之者共 悉討果し 印差越段忠節不淺候 最前其方渡海時晋州之城攻落 可擧日本之名由御直に 被仰聞候處 守其旨早速城取候事 粉骨之至 御感不斜候 其方若者之儀に候間 此以後 聊爾之働不仕全命彌可抽忠義事 肝要思召候 猶德善院 長束大藏大輔 木下大膳大夫可申者

也
　　七月廿五日　御朱印
　　　　　　　　羽柴安藝侍從どのへ
偖右の首は大佛の前に塚に築き籠め　首塚と號けられあり此時の賞に秀元卿を正三位參議に任ぜられしなり　<毛利秀元記卷之三>
赤國の内ちんしゆと申す城に　もくそ判官と申す者　楯籠り候を細川越中守殿 長谷川藤五郎殿 木村常陸守殿 御大將にて 其外五萬石 七萬石の衆 木を城へ御取懸り候を 敵 強く候て 此方の御人數打負け　ちやわんと申す所に引取り　在陣仕り侯に付いて 縱ひ如何樣の儀候とも　日本の御人數のひけに　なり申候間　彼のちんしゆ攻殺し候へ　其上を以て 御無事になさるべき由 仰せ出され候に付いて 日本の御人數 悉くもく曾城へ 御働きなされ　ちんゆ御取卷き候て　責口之あり御座候に付いて 加藤肥後守殿長政公御兩殿候て出し　矢倉の角へ御仕寄なされ候へと御定めなされ候に付いて　井樓など御付け候て 石垣の際迄御仕寄なされ　日々御攻めなされ候處に 敵城堅く相支へ埋草など石垣の際へ　附け候へば 城より投げ　續松にて 悉く燒拂ひ申候に付いて諸手共に御攻め啞みなされ候處に出し　矢倉の石垣の角石耳候て　相見え候に付はて 後藤又兵衛與力檜原牛之助　二宮右馬助 一人以上三人と挺子持ち　加藤肥後守殿より　楯持二人　御出しなされ　此方の挺子持石垣繕ぎ候間 人差籠め候て　角石を刎出し候故 石垣其儘崩れ申候處　野村太郎兵衛 後藤半内　堀平左衛門 輕屋與左衛門　上原與平次　竹井二郎兵衛　肥後殿より森本義太夫など　此方の者共同前に 石垣に一番に上り申候　夫より追續き 長政公御乘りなされ候に付いて　何れも御傍に罷在り候者共　御供仕り　乘入れ申候　其後諸手より乘り申すに付きて ちんしゆの城落ち申候
　　　　　　　　　　　　　　　　<黑田長政記>

八十二, 第４次 慶州 戰鬪(癸巳年八月六日)

倭賊犯慶州　唐兵大敗時　嶺南左道　賊勢尙熾　呉惟忠 駱尙志等　與我國諸將領兵屯守蔚山等賊　累次窺覘　至是賊兵數千　猝然突至　諸將悉兵出戰　大敗而走　天將一員戰死　軍人死者不可勝計　賊追後殺來　駱尙志爲戰以左右手持三枝槍　大叫逆戰　賊遂退去　尙志時年己六十餘兩手猶擧天字銃筒二柄　時號駱千斤云
　　　　　　　　<春坡堂日月錄 卷之九癸巳八月>
凶賊數千　突至慶州　天兵大敗　時嶺南賊勢偏熾於左道　遊擊呉惟忠參將駱尙志等　與我國諸將　領兵屯守　蔚山之賊　累肆窺覘　來探虛實至是諸將悉兵出戰 大敗而走 天將一員戰死 軍人死者五百餘名 賊兵追趕厮殺 駱尙志爲殿 以左右手三枝鎗　大呼馳突　連貫先鋒五六賊　整兵還戰　賊乃退去
（尙志時年六十有餘　初謂力擧千斤　云云）
　　　　　　　　　　　<趙慶男撰 亂中雜錄二>
八月 副摠兵呉惟忠王必廸 參將駱尙志 與倭人戰於慶州敗績　時嶺南左道　賊勢尤熾　呉惟忠駱尙志　移屯慶州 與王必廸及左兵使高彥伯等連兵　洪季男亦除永川郡守兼助防將　引兵會之賊兵數千　自蔚山猝至　諸將出戰大敗　天兵我軍死者五百人 天將一人亦死之 賊乘勝逐之 駱尙志奮雙戟　大呼盪陣　一發貫四人　賊大驚而退　一日賊兵大掠男女五千餘人而去 洪季男出擊盡奪之　　　　<宣廟中興誌 卷四癸己>

八十三, 咸安 및 熊川 安民嶺 戰鬪
（癸巳年九月二十九日）

倭兵自昌原出屯咸安　四散收獲　宣居怡等引兵攻之大敗　居怡中丸僅免　倭兵又自金海猝入熊川安民嶺 下道諸將爲其所圍　崔堈躍馬衝擊 所向皆靡　遂開一面以出 諸軍皆全 既出重圍 將士相賀曰 今日之生崔公之力也 堈前後力戰 驍勇無敵　名重南邊 至是始陞通政
　　　　　　　　　　<宣廟中興誌 卷四癸己>
固城義兵將崔堈　與諸將設伏于熊川安民嶺 金海之城　不知圍抱　將卒方危 堈馳馬突擊 一隅瓦解　列邑將卒　得脫虎口 今日之生　崔堈之力

也 坰以是望重南邊 陞堂上 後明年甲午 以金德齡別將繫獄被鞫 招辭明直 蒙宥 其後三十三年乙巳 以加里浦僉使 捕賊大船于濟州大洋 斬級獨多 功居第一 陞嘉善 拜順天府使 因超秩拜慶尙左水使 以將大有爲之資 未久病死

<趙慶男撰 亂中雜錄卷二>

八十四, 永善 戰鬪(癸巳年第一次十月二十七日 第二次一月未詳日)

二十七日(癸巳十月, 第一次) 鎭海屯賊 焚掠于永善縣(晋州) 李蘋遣諸將措捕 敗績而還 賊焚蕩山幕而去 <亂中雜錄二>

賊自鎭海入晋州永善縣 李蘋遣諸將擊之 敗績而還 城遂肆焚掠而去

<宣廟中興誌 卷四癸巳十月>

第 二 次

十一月 時劉綎領諸將因留八莒 本國元帥權慄率諸將 與尙志等留守慶州 李蘋率諸將 留守宜寧 宋大斌谷遂等因屯三嘉 昌原之賊 又出永善焚掠 李蘋領諸將措捕 不利而退 忠淸助防將沃川郡守(趙希仁)中丸死之

<趙慶男撰 亂中雜錄二>

八十五, 安康 戰鬪 (癸巳年十二月初二日)

十二月 倭人寇安康 吳惟忠擊却之 初二日辛亥 賊兵數萬餘人 分道入寇 直槍安康 以斷慶州糧路 高彥伯朴毅長等 各率精兵 連日血戰 不能當 吳惟忠王必廸駱尙志相議曰 賊繞出我後 若不出兵制之則 以單兵坐斃孤城 不得計也 即抄精銳數千出戰 衆寡不敵 殺傷相當 賊亦力疲夜遁 <宣祖中興誌 卷四癸巳十二月>

第 13 節 對陣作戰 期間中

八十六, 第 2 次 唐項浦 海戰 (甲午年三月四日)

今三月初三日………未時到固城境碧方望將諸漢國等馳報内 當日平明 倭大船十隻 中船十四隻 小船七隻 永登浦始出 二十一隻 固城境唐項浦七隻 鎭海境吾里梁三隻 猪島指向云云 臣即發傳令于慶尙右水使元均 全羅右水使李億祺等處 更嚴申約 一邊巡邊使李蘋處 依前約束 領軍馬馳進 勦捕下陸之賊事 移文後 同日戌時 三道諸將 無遺率領閑山洋中發船 乘暗潛行 二更到巨濟内面紙島洋中經夜

初四日………… 曉頭 留戰船二十餘隻於見乃梁 以備不虞 又抄三道輕銳船 全羅左道左斥候將蛇渡僉使金浣……中略…… 中衛右部將唐浦萬戶河宗海等三十一將抄擇 舟師助防將魚泳潭 定將唐項浦吾里梁等 賊船住泊處 潛師馳送 臣與李億祺元均等 統率大軍 永登 場門賊陣前洋之甑島洋中 鶴翼列陣 横截一海 前示兵威 後遏賊路矣 倭船十隻 出自鎭海船滄 緣岸行舟 助防將魚泳潭所率諸將等 一時突進 左右挾攻 六隻 鎭海境邑前浦二隻 固城境於善浦二隻 鎭海境柴仇叱浦棄船登陸 並無遺撞破焚船 鹿島萬戶宋汝悰 倭船被擄人 固城正兵 沈巨元 鎭海官婢孔今 咸安良女南月 等奪還 又被擄二名 賊倭斬頭棄去 唐項浦入泊倭船 大中小並二十一隻 望見煙焰 莫不摧心 自知勢窮 下陸結陣 巡邊使李蘋處 更爲催促移文 又令魚泳潭 領其所率諸將 直向同處矣 適汐水已退 日且奄暮 進擊不得 唐項浦浦口 把截經夜

初五日…………曉頭 臣及李億祺 結陣大洋以應外變 魚泳潭領諸將 直入同浦 同日未時到魚泳潭等 馳報内 賊倭盡爲逃遁 倭船二十一隻滿載盖瓦及王竹而列泊 故並爲撞焚破滅云云 全羅右水使李億祺 諸將所報亦爲一樣 假氣殘孽 莫敢抗戰 棄船宵遁 當此之時 水陸相應 一時合攻 則庶可殲滅而水陸駐兵 相距隔遠 未易馳通 使籠中之賊 未得全捕 極爲痛憤 固城鎭海橫行之賊 自是以後 庶有顧忌之慮 未能恣意出入 同日 舟師一軍全數合勢 充滿大洋 砲聲振天 東西變陣 揚示掩擊之狀則 永登 場門 薺浦 熊川 安骨浦 加德 天城等地雄據之賊 恐其直衝 伏兵假幕 盡數自焚 畏縮窟穴 頓

絶形影

初六日………… 固城境阿自音浦發船 從風懸帆 首尾相接而巨濟邑前 胷島前洋指向時 南海縣令 奇孝謹 以倭船一隻 自永登始出 越邊下陸 唐兵二人及倭奴八名 唐兵所持牌文 並爲輸送 牌文回答緣由 別狀俱由論啓矣 大槪一陣將士 乘勝躍踴 皆欲決死生直突 飢羸奄奄之卒 亦皆樂赴 倭船三十餘隻盡數焚滅 無一隻網漏 仍計塲門 永登之賊 次次勦滅計料而舟師所屬 羅州以上九官 加造戰船及元戰船至今不爲回泊 同道各鎭浦 亦因各官水軍不齊捉送 爲半整齊不得 忠淸水使 具思稷 尙未到陣 兵勢似爲孤弱 相勢巡勦次

今三月初七日………… 還到閑山陣中 三道諸將 賊船焚滅數 李億祺 魚泳潭所報 詳細磨鍊開坐于後 倭物以槍掠之賊 別無有關之物 只有衣粮釜鼎木器等雜物 故搜得軍卒等 各各分給 慶尙右水使元均 以賊船三十一隻 其道諸將 並爲獨當焚滅樣 成公事輸送 一陣將士 莫不駭詫 自朝叅商施行一以下略

<李忠武公全書卷四 狀啓三 唐項浦破倭兵狀>

八十七，第1次 長門浦 海戰
（宣祖二十七年九月二十九日）

二十九日甲辰晴 發船 突入長門浦前洋 賊徒據險不出 高設樓閣 築壘兩峰 略不出抗 先鋒賊船兩隻勦擊 則下陸逃遁 空船撞焚 漆川梁經夜

<忠武公全書卷六 亂中日記二 甲午年九月>

八十八，永登浦 海戰（甲午前十月初一日）

甲午十月初一日乙巳 與忠淸水使及先鋒諸將直入永登浦 則兇賊等 掛船水濱 一不出抗 日暮還到長門浦前洋則 蛇渡二船掛陸之際 賊小船直入投火 火雖未起而滅 極爲憤痛 右水使軍官及慶尙水使軍官 略論其失 蛇渡軍官則重治其罪 二更 還到漆川梁經夜

<忠武公全書卷六亂中日記二，甲午十月>

八十九，第2次 長門浦 海戰
（甲午年十月初四日）

初四日戊申晴 與郭再祐 金德齡等約束 抄軍數百 下陸登山 先鋒先送長門 使之出入挑戰 晩率中軍進迫 水陸相應則 賊徒蒼黃失勢 奔走東西 陸兵 見賊揮劍 旋即下船 還陣于漆川 宣傳官李繼命 持標信 宣 諭敎書到 內賜貂皮

<忠武公全書卷六亂中日記二，甲午年十月>

九十，鼎巖 戰鬪（宣祖二十八年未詳日）

二十年乙未（金德齡公二十八歲） 時公引兵到宜寧 與郭公同陣鼎巖 巖下有大湫 深不可測 賊忽立標木於上流淺灘 公問于郭公曰 賊欲何爲 郭公曰 賊必乘夜越川而劫我 故立標而避其深也 公曰然則兩陣不可合處 遂引兵涉川而伏 又拔其標木 移插深湫 賊果夜來及渡 公躡後吶喊鼓譟追之 賊望標而渡 盡沒 大獲全勝

<金忠壯公遺事卷二年譜>

第14節　第5期 日本軍 再侵作戰

九十一，漆川梁 海戰（丁酉年七月自十四日至十六日）

(一) 賊船自月初連絡渡來 元均令諸將進探 初八日 水兵諸將至熊川海洋 遇賊交戰 破船十餘艘 賊勢甚盛 乃退陣請援 時都元帥權慄 自南原到河東 移關于接伴使云 諸道都巡察使權爲倭情事

初八日 舟師諸將耀武於釜山海洋 慶尙右水使裵楔以大船二隻爲先鋒 行至熊浦 卒遇賊船 良久接戰 逢箭死倭不知其數 倭人等盡棄船隻登陸而走 所奪軍粮二百餘石 並船燒火 又千餘艘 自本土蔽海而來我軍橫截作綜 賊兵避去云云 權慄以元均不親下海 畏賊逗留 發傳令招致于昆陽 十一日 權慄到昆陽 元均承令而至 慄決杖曰國家待汝以高秩者 徒爲安享富貴之樂耶孤負天恩 汝罪罔赦 即還入送

<亂中雜錄三>

初均受杖於元帥　含憤而退　盡率餘兵馳到釜山　賊兵千餘艘　又自本土出來　均督櫓進船　賊兵波散　似有不能支我之狀　乘勢進薄　不知自至　舟人梢工皆曰 水嶺已過馬島　將迫運船失便 我無生道　均聞之　遂急令返掉舟逾逆洋便櫓無功　全羅右水使船七隻 先慄東走 均督諸船急退　晝夜櫓役　僅達加德島　賊兵知我軍失勢　即發新舊兵船五百餘艘　爭前亂逐　我軍退永登浦　賊揣我軍至此　必取薪水　夜發輕船五十餘艘　先下陸藏伏　我軍果至此浦以爲去賊稍遠　諸軍急下　軍人爭走薪水　忽聞砲聲震海　賊伏四起　均等蒼黃失措　急引船退於温羅道　賊兵大至　西日已暮　天水暝慘　彼此斂兵　均夜聚諸將　議之曰 賊勢至此　天不助順耶 爲之奈何　今日之事　一心殉國而已　裴楔奮臂大言曰　能勇能㥘　兵家要略　失勢於釜山海　見敗於永登　兇兵已迫　我勢孤弱　勇無所施　怯可用矣　均知其意怒曰　死而後已　汝勿多言　楔乃還船　私與所屬諸將　密議退師　夜半賊兵潛令鼻居舠密穿我船之間　候形勢　又以兵船五六　潛繞船　將卒皆未知之　是日平明　伏兵船先被焚破　均大驚擊鼓鳴鑼放火箭報變　忽各船之旁　寇突入　鐵丸交轟　軍卒失色　均始覺　追捕不及　卯時賊船圍迫　放丸如雨　均督諸軍　放碇接戰　勢如崩山　裴楔觀望退去　均使軍官拿致則　楔拒之　戰方酣　率管下十二船退走　均力不能支　與諸將擧碇而潰　棄船登岸　賊兵追下亂殺　均等遂皆遇害　諸將及軍人死者不可勝計　均素肥壯　日食一斗飯　五束魚　常腹重不善步　至戰敗　坐而被害　人或譏之　趙慶男所錄曰　均雖敗死　似非不忠不義之致而　後來譏之議者甚多　當時爲將超邁元均者有幾人哉　其後論功　均亦與於宣武元勳　嗚呼此見王法之公矣　　<春坡堂日月錄卷之九>

（元均死之）初均受杖於元師　含憤而退　盡率餘兵　馳至釜山 賊兵千餘艘 又自本土出來 均督櫓進船　賊兵波散　似有不能支我之狀　均乘勢進薄　不知自止　舟人梢工皆曰 水嶺已過 馬島將迫　運舡失便　我無生道 千萬水兵 未勦一賊而自蹈大禍　今日之事 誰任其咎　均聞之 遂令返棹　舟逾逆洋　使櫓無績　全羅右水營船七隻　漂向東海而去　均督諸船急退 晝夜櫓役 僅到加德島　賊兵知我軍失勢　即動新舊兵船五百餘艘　飛騰亂逐　我軍　退永登浦　賊兵度我軍至永登必取薪水　夜發輕船五十餘艘 經送永登下陸藏伏　我師果至其浦　賊勢稍遠　諸將急下軍人　奔走薪水　忽然炮響 喊聲震海　伏兵四起　左斬右斫　元均等蒼黃失措　無意救濟　急引船退至温羅島　賊船大來　浩蕩無數　西日已傾　海天暝暗　彼此斂兵　賊嚴待朝　均夜聚諸將議曰　賊勢至此　百難支矣　天不助順　爲之奈何　今日之事　一心殉國而已　裴楔奮臂大言曰　能勇能怯　兵家要略　失勢於釜海　致軍卒之恇擾　見敗於永登　助賊倭之乘勝　兇鋒已迫　我勢孤弱　勇無所施　怯可用矣　均知其意怒曰　死而後已 汝勿多言　楔乃還其船　私與所屬諸將密謀退師　夜半……以下略　　<亂中雜錄三>

先是統制使李舜臣被罪以元均代之　七月均領諸將　入加德前洋　見倭衆渡海者極盛　退還鎭海境　被賊夜迫　諸軍潰散　水使李億祺　崔湖等皆赴水死　元均下岸　被賊殺死

<攷事撮要上（四五面）>

八月初七日　全羅右水使　李億祺從船上投水死之　郡守安弘國中丸死　慶尙右水使裴楔率其戰船而走　至閑山島　縱火焚廬舍粮穀軍器　徙餘民之留在島中者……以下略……

<再造藩邦志二>

元均既代舜臣　盡變其約束　狼愎自用　軍心怨憤　嗜酒酗怒 刑罰無度　號令不行　時平行長 又遣要時羅　紿金應瑞曰　倭船某日添至　朝鮮舟師猶可邀擊　應瑞信之　言于元帥　促元均進兵　元均雖知其勢之難而既陷舜臣之逗留　慙無以爲辭 只得盡率戰艦進前 爲邀擊之勢　賊之在岸上者　俯視我國　戰士　搖櫓乘潮而出　互相傳報　均至絶影島　風作浪起　日且昏黑　船無所止泊處　遙望海洋　倭船出沒無數　均督諸軍進前戰　慶尙右水使裴楔力諫以爲不可猝戰　且島嶼有穿處不行船　宜移陣他處　均皆不聽　楔乃私

約所領船 戒嚴待變 見賊來犯將奪港而走也 均嗚鼓催進不已 舟中人自閑山終日搖櫓 不得休息 又困飢渴疲 不能運船 諸船縱橫進退 乍前乍陆 倭欲疲之 與我船相近 輒倘佯引避而去 不與交鋒 夜深風盛 我船四散分漂 不知去向 均艱收餘船 還至加德島 軍士渴甚 爭下船取水 倭兵從島中突出掩之 失將士四百餘人 均乃引退 至巨濟漆川島

<大東野乘卷七 (六七六面)>

均又引退至巨濟桼川島 權慄在固城 以均無所得 檄召均杖之 督令更進 均還到軍中 益忿懣飲酒醉臥 諸將欲見均言事不得 夜半 倭船來襲之 軍大潰 均走至海邊 棄舟登岸欲走而體肥鈍 坐松樹下 左右皆數 或言爲賊所害 或言走免 終不得其實 李億祺從船上投水 裵楔先是屢諫均必敗 是日又言桼川島淺窄 不利行船 宜移陣他處 均皆不聽 楔私所領船 戒嚴待變 見賊來犯 奪港先走 故其軍獨全 楔還至閑山島 縱火焚廬舍糧穀軍器 徙餘民之留在島中者使避賊而去 閑山既敗 賊乘勝西向 南海順天次第陷沒　<懲毖錄二 (六〇面)>

六日 賊兵襲破舟師 統制使元均死之(中略)夜半賊兵潛令十餘鼻居舠 密穿我船之間 候我形勢 又以兵船五六艘 潛繞我陣伏兵船 將卒皆不知之 是日平明 伏兵船已被焚破 均大驚 擊鼓鳴鑼 放火箭報變 忽然各船之傍 異船衝突 鐵丸交轟 軍卒失色 均始覺來現 追捕不及 卯時賊船圍逼 喊聲連天 放丸如雨 元均與諸將放碇接戰 勢如崩山卷海 莫敢當敵 裵楔觀望退却 均使軍官拿致 楔拒之 戰方酣 與管下十二船退走 均力不能支 與諸將 擧碇而潰 棄船登岸 賊兵追下亂殺 元均及全羅右水使李億祺忠清水使崔湖等死之 諸將軍人 死者不可勝數 元均躬殼肥壯 一食一斗飯 五束魚 鷄雉三四首 常時腹重 不善行步 至是戰敗 坐而被害人皆譏之 谷城生員吳天賚有詩云

閑山一島國南門　底事朝廷易將頻
不是元均初負國　元均之腹負元均

<亂中雜錄三, 國朝寶鑑, 燃藜室記述, 再造藩邦志卷四, 宣廟中興志>

（二）日側　史料(宣祖三十年七月十五日)

十五日夜 藤堂高虎脇坂安治島津忠恒等 襲元舟師 高虎先遣人覘其巢窟 夜參半 號砲三響 快舸急赴 其兵箕浦忠光等獲敵船

<藤堂家記>

義弘欲自陸攻之 與諸將期率兵三千 屯唐島 聞舟師喊聲 同發喊放大砲 水陸合勢攻之 忠恒跳乘一敵船勇戰 悉殺其兵 遂奪船

<征韓錄>

高橋直次筑紫廣澄 突出掩之 斬將士四百餘人

<宗氏家記>

十六日黎明 均率數百艘引退 據巨濟漆川島 高虎兵競擊 高虎甥高刑等 各有斬獲

<藤堂家記>

高虎臨發馳使告加藤嘉明 嘉明稍後而至 戰既酣嘉明見一巨艦列戈砲而待 跳躍而上舟 手斬數人 敵欲擊嘉明 嘉明甥灌七郎等奮戰而遂奪舟 嘉明又欲跳上敵別船 蹶而落海 抱舳而跳苦戰又奪一船 安治亦奪敵船十六艘 從兵多戰死

<秀吉譜>

高虎部下佐伯惟定家兵杉谷惟之長田惟氏等亦將奪敵巨艦 單舸挺進 以鐵搭勾之騰上直斬其將 餘兵匿艙底盡屠之　<藤堂家記>

敵兵遂敗績 棄船上陸 義弘豫謀分布手下兵二千于十五六里間 悉殺逃兵　<征韓錄>

時鍋島勝茂在竹島聞此戰馳舟至而 戰將終 猶見嘉明乘敵艦奮擊 勝茂憾不及戰酣 其臣中野某偶見敵船猶在岸畔 言之勝茂 勝茂大喜 速擊之奪其船 勝茂歸後數言 予幼而從太閤殿下覽芳野櫻 滿山白雪爛熳奪目 謂天下壯觀 後閑山役觀嘉明舟戰 芳野壯觀殆不如也

<鍋島家記>

勝茂分遣其臣成富茂安援高虎 茂安奮戰斬首七百餘　<九州記>

諸將相會論功 嘉明與虎爭功奮怒 諸將和解焉 松浦鎭信判曰藤堂將士 夜間先衆奪哨船 又獲大艦斬其將 功爲最 監軍言之秀吉併言諸將功 秀吉皆賜狀賞之　<藤堂家記>

東照宮亦賜書于安治賞之　<脇坂記>

後秀吉再褒高虎閑山之功 總督天下海船之政 仍賜桐花徽號茜紅舟幕 <藤堂家記>

九十二，高靈 戰鬪(丁酉年八月自十五日至十六日)

時賊又分兵 自宜寧三嘉進迫星州 又自洛東江泝流而上 入高靈 營陣彌漫 起龍率尙州鎭屬九郡兵 與金城將李守一(武相洸父) 協守金烏城 李元翼問將於權慄郭再祐 皆以爲非起龍不可 乃檄召起龍爲將 屬以二十八郡兵 使擊賊癸西望 起龍進屯高靈綠櫝田 夜遣斥候將李布春黃致遠 將四百人 覘賊 遇伏於官竹田 斬首百餘 翌曉 乃擧軍而進 賊兵數萬 出陣於龍膽川邊 與起龍軍 隔水相對 迭相進退 起龍設伏李同峴側 退師誘之 賊遂至峴下 起龍忽反旗鳴鼓 自揮大劍 躍入其陣 有一賊酋 紅衣白馬舞刀而前 起龍即馬上擒之以出 縛縣大旗上 以示賊 乃復鼓而進 官軍乘銳爭奮 伏兵又起 兵皆紅衣絳笠 奮挺陷陣 賊多大亂 起龍遂縱兵四面蹦躁 盡殲之 餘賊脫歸者 不滿千人 中途又瘡顚斃殆盡 戰罷 賊首級如大土屋者六 於是星州高靈以下五邑屯倭 皆望風遁 復地數百里 起龍入高靈縣 大射高會 將士鼓舞 威聲大振 士大夫爭詣軍門 謝曰微公吾其魚肉矣 捷至元翼 撫掌喜曰 鄭君果然名將也 初起龍將赴戰 遇元翼幕佐不爲禮 諸從事皆疵之 元翼曰介冑之士 豈拘事小禮邸 公等休嗔 且看大捷 至是起龍 獻賊馘 滿馱數馬而至 諸從事相顧慚服 時右兵使金應瑞 坐敗軍論罪 元翼 乃使起龍 行兵使事 <宣廟中興誌卷五丁酉>

是時忠淸兵使李時言 以兵二千七百屯李同院邊觀望不戰 及聞起龍勝捷 潜遣降倭 掠首級而去 起龍自持劍追殺之 將以其事狀報體府 時言函來懇謝 故遂止 <宣廟中興誌卷五丁酉>

九十三，黃石山城 戰鬪(丁酉年八月十六日)

(一) 安陰縣監郭䞭 入黃石山城 前金海府使白士霖 亦入城中 士霖武人 衆心依以爲重 賊兵攻城 一日士霖遁去 諸軍皆潰 賊入城 䞭與其子履祥 厚祥皆死 䞭女嫁柳文虎 文虎爲倭所擄 郭氏已出城 聞其夫被擄 謂其婢曰 父死而不死 爲其夫在耳 今夫又執 吾何生爲 自經死 前咸安郡守趙宗道嘗曰 吾久從大夫之後 不可與犇竄之徒同死草間 死則當明白死矣 率妻子入城中 作詩曰

崆峒山外生猶喜 巡遠城中死亦榮

是時遂與郭䞭同被害焉

<再造藩邦志四，宣廟寶鑑，宣廟中興志>

淸正等兵至咸陽 先鋒數千 進迫黃石城下 使通使招介山曰 爾父來此 開門出見 白士霖斬介山 投之城外 賊曰 雖殺百介山 吾何惜焉 翌日賊兵呼曰 空城出去則不爲追殺云 士霖縋城潰走 賊入城亂殺 咸陽郡守趙宗道安陰縣監郭䞭等 並家屬死之 近地疊入官將士被害者 多至五百餘名 (介山金海人其父自亂初附賊助賊陷城之謀) <趙慶男撰 亂中雜錄>

賊陷黃石山城(安陰地) 助防將白士霖出走 咸陽郡守趙宗道 安陰縣監郭䞭等 并家屬皆死之 淸正等兵至咸陽 先鋒賊數千進至黃石山下 使人招介山曰(介山之父金海人自初付賊) 爾父來此開門 出見士霖斬介山 投之城外 賊曰 介山爾人也 殺之吾何惜也 明日賊呼曰 空城出去則 不爲追殺 士霖縋城 潰走 賊入城亂殺 宗道等死之 將士之被害不知其數

<春坡堂日月錄卷之九>

八月賊陷安陰黃石山城 縣監郭䞭 前咸陽郡守趙宗道死之 初體察使李元翼 以黃石爲湖嶺咽喉 賊所必爭 隷三邑兵 命䞭守之 賊至䞭督戰晝夜不懈 城陷 䞭踞胡床神色不變 竟遇害 二子履常履厚抱持罵賊 賊並殺之 䞭女嫁柳文虎 文虎爲賊所擄 郭氏已出城聞之謂其婢曰 父死而不死爲有夫在耳 今夫又被執 吾何忍獨生 遂自經死 趙宗道以前郡守家居常曰 吾是食祿之人 不可與奔竄之徒同死草間 死當明白死耳 率妻子入城 作詩曰 崆峒山外生猶喜 巡遠城中死亦榮 遂與䞭同死 <宣廟寶鑑卷之九>

八月賊陷安陰黃石山城 縣監郭䞭(再祐 從 父)

前咸陽郡守趙宗道死之　初體察使李元翼以黃石爲湖嶺咽喉賊所必爭隸三邑兵命[illegible]守之　賊至趙督戰晝夜不懈城陷　趙踞胡牀神色不變竟遇害二子履常履厚抱持罵賊　賊竝殺之　趙女嫁柳文虎……　趙字養正號存齋　天資明粹孝友純至中歲廢擧業潛心聖賢之學硏窮義理 遇人輒諄諄誘掖各隨其業而勗之人無賢愚莫不愛慕焉以薦莅縣民安政擧一境大治　趙贈兵曹參判履常履厚贈工曹正郎……　宗道字伯由號大笑軒　賜吏曹參判　　<朝野僉載卷之二十八>

石築周回二千九百二十四尺　內有一溪與軍倉今無新增城　自麗代有之中古廢而不修　萬曆丁酉倭變　縣侯存齋郭趪　奮擧倡義　親自負石　繕城治械　指日誓心　以死自許　以安義居昌咸陽三邑人民守城　以禦賊倭　咸陽郡守大笑軒趙宗道　雖已遞職而挈家累入城曰　我亦王臣　獨不可以不以死報乎　作詩云崆峒山外生難樂 巡遠城中死亦榮　二公相與同死　金海倅白士霖爲出戰大將　陰懷二心 開門納賊 先出其家屬 己亦隨之　城遂陷　二公同日死節　郭公之子履常履厚　抱哭父屍 俱被賊鋒而死　履常之妻愼氏 聞其夫死　自縊林下　郭公之長女柳文虎妻　聞其夫被害　哭曰父兄俱亡　吾夫亦死　妾安得偸生亦縊而死　其餘人民 死者不可勝數

城仍廢不修　參判朴明榑記山城實蹟 又作郭義士傳　鄭蘊作傳以明　士霖開門納賊之罪　邑士禹惇劉義士 上疏請斬士霖

<嶺南邑誌 安義邑誌篇 城池>

清正自西生浦　轉向江右　兵號十萬　防禦使郭再祐　即勒四郡兵　馳入昌寧火旺城　期以死守 號令嚴明　清正兵至城下 將士望之 有懼色 再祐曰 無懼 賊亦知兵 豈敢輕我哉 清正仰見形勢斗絶　城靜肅 相對一晝夜 不攻而去 遂直赴安陰……略……前咸陽郡守趙宗道嘗曰　吾嘗從大夫之後　不可與奔竄之徒　同死草間　當明白死耳　至是率妻子入城作詩曰……略……　安陰士人鄭惟榮　始倡守城之策　至是亦死之　將士死者五百餘人　清正遂乘勝向南原　是時湖嶺城邑　處處崩潰　元帥以下皆望風引却　士皆逃散而郭再祐獨不動　李元翼慮再祐城孤難守 令解兵 再祐報曰齊城七十即墨猶存 唐師百萬 安市能抗　列郡雖潰 此獨不可保耶

<宣廟中興誌卷五丁酉>

（二）嘉靖十六年二月甲寅公生　生七歲能屬文十歲學於隱君子鄭斗先生　先生奇偉隱遁世　莫知者也　公聰明過人　於經史諸子　一讀終身不忘也 二十三陞上舍以公薦 初授安奇道察訪 時日本遣玄蘇以詩試我　多譏之　見公作必再拜而讀之　累轉掌隷院司評　因爲陽智縣監　繡衣以政淸　聞上賜表裏以奬之 後累官或起或不起 丁亥爲金溝縣令　有叛主奴托屬傍邑來訟 不以曲直　專以強弱爲勢　公不撓立決之　人心大服　己丑邑有上變事　獄事多寃　當捕囚　公心知其無事故脫之後　公亦坐連累與崔守愚先生幷逮係經冬 先生縣對獄卒呼叱如奴 公諧笑自若　獄中爲之語曰　崔司畜之呼叱　趙金溝之諧笑縲紲俱忘　崔守愚堂先生　竟瘐死獄中　公得釋　每言及崔先生　輒涕泣　壬辰有倭亂 列郡望風奔潰 賊乘風以前　公嘗至京城聞亂　南歸與正言李魯相遇慨然言討賊事　約爲同死生　至咸陽見招諭使金公誠一　大喜檄郡縣　即起兵　金公以公爲宜寧假守　至則郭公再祐已起兵於宜寧　公即推與之還見金公　道聞上西京不守　車駕已過重江以爲國亡矣　臨江欲自投而死之　金公曰道說不可信　且徒死無益也 公然之　時上幸龍灣　以義兵功賞　公爵掌樂院僉正　改丹城縣監　時當大亂之際　國內大饑　公發倉賑之不足　仍賜私貨以繼之　金公爲巡察使遘癘疫卒於軍公辦其喪 明年棄官歸　後有安州清風之命而公以病不起 丙申爲咸陽郡守　丁酉賊復大擧而西　公上書軆相乞全付一郡兵民以死效之　遂奬卒境內據險守之而己有命守黃石　公即與安陰縣郭公　趨謀繕城完堡　未幾公遞 咸陽人皆曰 守城邑又無官守君以去矣　公曰吾旣以死許　國賊已迫　義不去咸陽子弟初欲散去　聞公之義　即從之　守將白士霖曰　城險賊易與耳　及賊迫城　士霖夜毁城遁去　城遂陷　公與郭向北再拜而死　八月十六日也　公年六十一　妻李參贊俊民之女也　公知

事不濟以死自誓 令妻子出去李氏曰 當從死義不可去也 遣其二子曰 無令趙氏絶祠也 守節之而郭氏闔家皆死事 聞上以禮賜祭 初贈司僕寺僉正 後累贈吏曹判書 表忠臣 閭鄕人立忠賢祠以祀之 初葬黃石下 戊戌葬晋州……中略……見世道日汚 飮醉笑傲以自戲自號大笑軒……中略……柳相國成龍嘗稱之曰 伯由外鐵蕩而內守堅確 有丈夫風 有子男三人 長子英海早死 次子英漢 城陷被擄而還者也 英混最少女四人其婿 柳淪 金夢芝 盧舷 鄭盖孔 銘曰 許友不辭死義也 殺身而殉國節也 惟義惟節 忠臣之節也 <嶺南 誌晋州邑誌 大笑軒先生神徒碑>

白士霖

癸巳七月 宜寧右兵使 陣到任 陞通政丁酉以安陰黃石山城 都別將 入守 本府及安陰居昌咸陽等官俱被害 軍兵陷沒 白霖艱生 朝廷遣使斬之 <嶺南邑誌金海附事例>

郭 氏

存齋䞭之女 柳文虎之妻 父死黃石時 出城避兵 聞其夫虎於晋州城自縊死事 聞旌閭
<嶺南誌 玄風邑誌人物編>

九十四, 南原城 戰鬪(丁酉年八月十六日)

(一) 我國 史料(1)

天朝以副摠兵楊元 統領遼東兵三千東征 五月楊摠兵中軍李新芳 先領二千餘兵 與接伴使鄭期遠到南原 即令本道巡察使 急聚列邑軍卒 六月十三日 楊元自全州 領軍到南原 中軍及閔濬從之 摠兵留鎭龍城舘 沈惟敬移南亭 十九日 楊元令沈惟敬 馳往宜寧 見行長因探賊情 提督麻貴以遊擊陳愚衷 領其軍二千 進守全州城 以助南原之役

八月初六日 求禮縣監李元春 自石柱退還本城 焚倉庫 將入南原城 行到栗峙上回望求禮 烟炎張天 從者稍稍亡去 惟有一貢生 持印隨之 李曰汝亦納印於我 任爾所之 貢生曰 願死生以隨 遂同入南原

初七日 賊義弘等至求禮 先鋒轉入南原境 焚蕩村舍 楊元自城中發向元川 鄭期遠 任鉉從之 至宿星嶺觀兵而還 是夜我軍在城中者逃散而清正賊 己過陜川三嘉 所過赤地無餘
<湖南誌南原篇>

初八日 楊元分軍守堞 城上八百名 土墻內一千二百名 遊軍一千名 分遣家丁于我國諸陣 督入同守 是日雲峰縣監馳報內 嶺南左右之賊 巳到居昌山陰等地 盡爲焚蕩云云 遣問安使吳應井于南原摠兵府 因以應井爲本道防禦使 留在城中而未脫

初九日 兇賊踰屯山嶺 焚蕩山內諸村 雲峰縣監馳報內 賊兵自晋州求禮 入山搜索者 不知其數云云

初十日 求禮縣監李元春 退入南原城中 楊元疑縣兵入據 令府使任鉉 盡焚山城家舍 又焚本城外人家 金睟與李光庭 發自鄕校 退府北村 因向京

十一日午後 凶賊踰入宿星嶺 或十餘名 或二十餘名 看看零零 連續流下 行探原川村落 夜入城下 窺覘而還

十二日 行長等 率軍踰嶺 屯于原川院坪 前鋒已進蓼川邊 東南四五十里之內 烟焰蔽天 炮聲震地

兵使李福男 助防將金敬老 山城別將申浩等 皆入南原城中

十三日 賊兵大進城下 漫山塞野 浩浩蕩蕩 前鋒行長義智等 先到訪廣岩峯 結陣建大旗 放炮吹角 諸酋以此而進至蓼川邊 分三道圍擁 一運從防川由禪院 連亘鄕校前 過長城橋 至西門外結陣 一運自漆場橫截川流 歷德岾(陰)下舊紙所前 還越川 連亘栗場 過大毋泉 與西門外賊 相續結陣 連延互回 月暈百匝 遊兵直從垣途向東門 放炮吶喊 進退挑戰 將倭則或登鄕校山麒麟山 或登德岾峯氷庫峯 造幕結鎭 或在陣中指揮 時楊元與李新芳在東門 千摠蔣表在南門 毛承先在西門 兵使李福男在北門 分隊守堞 元令吹鑼放炮 傳令城中 切禁妄費軍器 午時賊五名直入東門外 列立石橋上 元潛

出門 立外城內 募力射賊 本國能炮手部將金翼龍 兼司僕梁得 別牌(陣)鄭金等 一時放丸 三賊立斃 餘賊輸屍退去 未時賊兵幾至數萬 自漆塬禪院 高喊前進 列立於城外百步之地 連絡放丸 高聲大呼 城中連放震天雷 賊兵死傷者甚多 凶兵還退 楊元料賊不計軀命 白晝敢進 夜必闌入 多植菱鐵于濠外 作釘板 暗埋于橋頭 是夜元親在門外待變 夜二更 暫有跡響 擧頭候之 果三賊己去板方過橋 天兵數人持鎗出戰斬之 元即令撤四門橋 四面賊陣 燃火達朝 吶喊放炮 徹夜不絶 餘賊四散焚蕩 百里之內 烟焰蔽天 時本道監司朴弘老己遞 黃愼代之 趨邊山避兵 都事金順命軍潰之後 獨在金城 與總府徵發差官 向南原 行至赤城津 遇賊退走

十四日 賊兵自宿星原川 漫山鶴翼而下者 少無間歇 至城外 分漆四圍 土木之役 倍前益急 多造發城之具 輸入草穀土石于大母泉隅 塡濠作路 橫結長木於其外 幾至百餘步 取來人家板子 依木列立 又穿城外墻壁 幷爲放丸之所 又結高棚于鍾橋隅 俯瞰城中 放火無數 天兵守此內外者 一時盡死 東南隅城堞盡空 午時賊兵又自漆田高喊突進 一時放炮 鐵丸有似轟雷飛雹 聲震天地 西門之賊 以輸車載萬福(寺名 西門外在二里 前有五百羅漢)四天王 回示城外(中)大軍益駭 楊元以爲 賊兵連日挑戰 我軍退縮 示弱於賊者 固不少矣 今日可出師擊之 中軍以爲 此非萬全計 不如 堅守以待救至 元不聽 即募兵千餘 開門出戰 賊兵佯退 我兵追至石橋外 賊兵自門外 上下潛伏 膝行而前 以爲圍抱斯(撕)殺之計 元急令鳴鑼 屢颭招搖 外兵還入 中丸死者數三 日暮斂兵堅守 是日賊兵五十餘名 焚蕩雲峰縣 搜山殺掠

十五日(八月) 元在東門 城上令鳴鑼數曲 城中寂然 使管家出立城上大呼聲 倭五名走到東門外 跪而請命 元使通事播說 倭走還廣巖峯 即還來報數語 元立命管家二人 出送使 使帶天兵向廣巖去 見賊酋論事 行長饋餉還送 夕時 倭使五名 直到東門 元坐龍城舘 見倭議話 使以行長言 請急空城 元曰 吾自十五歲爲將 橫行天下 戰無不勝 今以精兵十萬 來守此城 退保無命令也 倭使還 出南門去 倭又傳言曰 千餘殘卒 豈能當百萬之衆 天將有何恩於朝鮮 而致貽後悔耶 元說播數語而送 受圍累日 賊勢日熾我勢日蹙 內外天兵始相號慟 我國士女奔走哭泣 賊知之倍加侵攻 是夜大雨 賊兵乘暗攻城 兩軍拒戰 不遑寢食 時深山窮谷 賊蹤殆遍 雲峯居住之輩 皆被槍掠

十六日 凶賊陷城 天朝總兵中軍 李新芳 千總蔣表 毛承先 本朝接伴鄭期遠 兵使李福男 防禦使吳應井 助防將金敬老 別將申浩(灝) 府使任鉉 通判李德恢 求禮縣監李元春等 皆死之 楊元以五十餘騎出西門 潰圍而走 是日賊酋等 催楊元出城 元亦難脫 有棄師計 城中恟懼 哭聲如雷 賊兵肉薄城下 攻城益急 二更闌入南門 天兵及我國軍卒士女 驅聚北城內 賊兵揮劍撕殺 城中前後死者 幾至五千餘名 賊盡焚城內外公私家舍 (楊元欲活伴臣乘其逸騎與之偕出期遠不閑馳馬累次墜落不能從) 當初麻貴分付諸將曰 脫有緩急 南原告全州 全州告公州 公州告京城 次次馳援 至是陳愚衷在全州 下爲來援 又不告急 以致大軍覆沒

十七日 行長先鋒過任實 焚蕩作賊 淸正兵盡入雲峯 翌日行長等向全州 陳愚衷棄城遁走 淸賊自雲峯分二道向南原 一運直向安信院 一運行由九等窟 賊五名自原川到九等對話 兩路兵皆退 還雲峯留數日 亂入智異山搜索 或留宿寺刹 或聚宿山頭 殺掠之慘 不可勝言

十九日 賊兵入全州 盡爲焚蕩 毁夷城濠

二十日 淸賊自雲峯向長水 過南原東村 駐番岩鎭川等處 大搜於差山……以下略……

<趙慶男撰 亂中雜錄, 湖南誌南原篇>

我側 史料 (2)

八月十三日 倭兵直擣南原 城中所居人民逃散 楊摠兵獨率麾下在城 摠兵檄召全羅兵使李福男同守 光陽縣監李春元 助防將金敬老繼至 敬老在全州 聞南原危急 倍道前進 壯士林士美等皆從之 自蛟龍山下直入 士氣頗壯 是

日賊先鋒百餘到城下放鳥銃 頃刻而止 皆散伏田間 三三五五 旣去復來 城上人以勝字砲應之 倭大陣則在遠 時以遊兵迭出交戰而陣脚疎濶 故砲不能輒中 守城卒 往往中丸而死 倭兵一人到城下 叫城上人求與語 摠兵使家丁一人挾通事往倭營以倭書來 乃約戰書也

十四日 倭兵環城三面而結陣 以銃砲迭攻如前日 先是 城南門外 民家稠密 賊臨至 總兵使焚之而石墻土壁猶在……以下 懲毖錄과 同……全羅兵使李福男 南原府使任鉉 助防將金敬老 光陽縣李春元 接伴使鄭期遠等皆死之 八月十八日也 後李芝峰有詩吊之曰

憶昔孤城血雨飛 書生無力破重圍

至今遺迹空秋草 淚入斜陽濕客衣

南原旣陷而全州以北瓦解 不可爲矣 時全州有陳愚衷 忠州有吳惟忠 各扼險而全州去南原百餘里 勢將犄角 愚衷初至州 無斗粮 及勘十里外山寨中 多貯山谷者 恐倭至反 爲寇助也 南原告急乞援 愚衷懦不發兵 聞已敗而州民爭竄棄城而去 經理參奏拿去 棍一百 減死充軍

<再造藩邦志二>

至夜 賊軍中 囂聲大起 隱隱有運物狀 一面衆砲向城亂發 丸集如雹 城上兵縮頸而伏 良久聲止 則薪草已堆積 如城平矣 賊遂蹂躪登城城中大亂 天兵悉從北門亂遁 賊匝城外數三亘亂奮長刀斫之 僵如麻 楊元獨與數騎 潰圍而出 跳蕩如神 賊終不能害

<宣廟中興志>

武烈祠 在西門內(平壤) 萬曆癸卯 監司李元翼建 揭皇明兵部尙書石星 提督李如松 左協將楊元 中協將李如栢 右協將張世爵 五公畫像 丁卯亂 只存石星 李如栢像 餘皆見佚 代以位版 畫像即李臣欽所寫 最爲得意筆 華人咸稱肖似 初臣欽承命 赴軍門 請模諸公像 李提督坐椅許寫 而以手擦鬚 作髭鬆之狀曰 余相多和而少猛 須畫作虬髯 臣欽如其言寫之 楊副總元 縱理出口 横至頰輔下 忽折逆上 過耳後 又折而下 至頰輔而止 左右皆然 楊之子私語臣欽曰 大人有此異相 或言極貴 或言不吉 不能懸斷 後楊敗於南原 受律

<平壤續志>

楊總兵旣至南原 增築城一丈許 城外羊馬牆多穿炮穴 城門安大炮數三坐 鑿深濠塹一二丈 閑山旣敗 賊徒水陸而至 報甚急 城中洶洶 人民逃散 獨總兵所領遼東馬軍三千 在城內 總兵檄召全羅兵使李福男同守 福男遷延不至 連發夜不收催之 不得已乃至 而所率纔數百 光陽縣監李春元 助防將金敬老等繼至 八月十三日 倭先鋒百餘到城下放鳥銃 頃刻而止 皆散伏田畝間 三三五五作隊 旣去復來 城上人以勝字小炮應之 倭大陣在遠 出遊兵交戰 疎行迭出 故炮發不能中而守城卒往往中賊丸斃 旣而倭到城下 叫城上人求與語 總兵使家丁一人挾通事往倭營 以倭書來 乃約戰書也 十四日倭環城三面結陣 以銃炮迭攻如前日 先是城南門外民家稠密 賊臨至 總兵使焚之而石牆土壁猶在 賊來依牆壁間自蔽 放丸多中城上人

十五日 望見倭衆刈城外雜草及水田中稻禾 作大束無數 積牆壁間 城中不測 時遊擊將軍陳愚衷 領三千兵在全州 南原軍日望來援而久不至 軍心益懼 是日晩 守堞軍往往交頭耳語 準備馬鞍 有欲遁色 夜一更 聞倭陣中囂聲大起略相應和 有運物狀而一面 衆炮向城亂放 飛丸集城上如雨雹 城上人縮頸不敢外窺 經一二時囂聲止 草束已平壕 又推積羊馬牆內外 頃刻與城齊 衆倭蹂躪登城 已聞城中大亂云 倭入城矣 孝義(金孝義)初撥守南門外羊馬牆 慌忙入城 城上已無人 但見城內處處火起 走至北門 唐軍悉騎馬欲出門 門堅閉不可易開 馬足如束 街路塡塞 旣而門開 軍馬爭門而出 倭兵在城外 圍匝數三重 各守要路 奮長刀亂斫之 唐軍俛首受刃 適月明得脫者無幾 總兵與家丁數人 馳馬突出 僅以身免 或云倭知爲總兵 故使逸去也 孝義與同伴一人出門 一人遇賊死 孝義跳入水田伏草中 待倭收兵乃逸云 蓋楊乃遼將 徒知禦虜 不知禦倭 以至於敗 亦知平地之城守之甚難 詳記孝義之言 使後之守禦者 知所戒云 南原旣陷而全州以北瓦解不可爲矣 楊元竟以此伏罪 傳首徇示

<西厓文集卷十六雜著 記南原陷敗事>

初提督麻貴 入京城 分布諸將 令副摠兵吳 惟忠屯忠州 游擊將軍陳愚衷屯全州 楊元屯南原 戒之曰 賊勢若急 三州次第相報則 當馳大兵援之 楊元遂以三千人 入屯南原 行長兵乘勝漸迫 順天府使吳應鼎 求禮縣監李元春 皆入府城 元檄召兵使李福男同守 時福男兵亦潰只率麾下壯士林士美等五十騎 與助防將金敬老 蛟龍城將申浩等 合卒數百 馳赴之 賊兵已迫城下 福男乃瞋目唾掌 令大吹䗍角 由大路穿賊中 徐行入南原 賊却立駭視 遂問被擄人 如為福男 莫不壯之 楊元執福男手 附其背而泣曰 擁兵自保者 滔滔皆是而公獨以孤軍赴之 南朝一李侍郎矣 十三日辛未 行長 秀家 義弘等諸酋兵大集…中略…李福男 馳入府衙 據椅堅坐不動 元遣麾下 邀與同去 福男按劍叱曰 吾誓與此城同其存亡 豈可草間求活耶 乃令侍卒舁柴環滿之 風烈火猛 猶兀然於焰中 賊見之大驚異 摠兵中軍李新房 千摠蔣表 毛承先及吳應鼎 申浩 金敬老李元春及接伴使鄭期遠 府使任鉉 判官李德恢等皆死之 將士死者五十餘人

<宣廟中興誌 卷五 丁酉>

吳應鼎家狀曰 應鼎枹援督戰不去 其子棫勸走全州 應鼎不聽 遂整衣冠 北向再拜曰 臣吳應鼎謹死 遂投火藥以自焚棫及麾下數十人皆從死云

申浩家狀曰 浩蔭樹射賊 矢盡擊以大刀戰 披靡 傍有一奴不去 乃脫衣敲齒授之 使歸報家人遂死之云 但於國乘野史 不見有此語<同上>

丁酉天朝發兵來援 大將楊元守南原 陳某守全州 賊大擧攻陷南原 兵使李福男府使任鉉 接伴使鄭期遠等皆死之 楊元突圍 僅以身免 全州府尹朴慶新 聞南原失守之奇 稟帖于天將請棄城而去 不從 州人至殺把門唐兵 慶新斬關而逃 於是 賊蹂躪下三道郡邑 長驅至稷山京城洶洶 東宮奉廟社及中殿 由東大門出向關西

<知退堂李廷馨撰 東閣雜記下>

我側 史料 (3)

六月(丁酉) 楊元到全州 中軍馳往迎候 楊摠兵中軍李新芳 先領二千餘兵 與接伴使鄭期遠到南原 即令本道巡察使 急聚列邑軍卒 掌修城改築女墻 倍前高堅 又役天兵 築外土城 刻期督役 晝夜不徹

十三日 楊元自全州領軍到南原 中軍及閔濬從之 總兵留陣龍城舘 沈惟敬移南亭

<亂中雜錄三>

賊陷南原 摠兵楊元潰圍走 遠接使鄭期遠 兵使李福男 防禦使吳應井 助防將金敬老 別將申浩 府使任鉉 判官李德恢 求禮縣監 李元春皆死之 閑山既敗 賊水陸幷至 城中洶洶 楊元檄諸將同守 悉焚城外民家 賊來倚石墻土壁間間發銃丸 人多中死 一日賊刈城外雜草及稻禾作束積墻壁間 城中莫測 夜聞倭陣中囂聲有運物狀 一面飛丸如雨 人不敢外窺 一二時囂止而草束已塡壕 與城平 倭衆蹂躪登城 天兵蒼卒騎馬 爭門而出 足蹄如束 不能回旋 賊奮長劍亂斫 天兵俛首受刃 會月明 得脫者無幾賊列圍木柵 編束刃劍 摠兵驍勇鞭驅駿馬馬則超逸觸刃 而赴積與柵平 鞭兵躍馬踏死馬背而出欲接伴使偕出者再 伴使不閑騎 輒墮落不能從倭追急 摠兵齊放四五馬 犇馳之際 馬力疲 超跨他馬 周回而走馬 知人意散走 指呼則一齊聚首而集 被甲騰換有如易席 賊不能害 南原既陷 全州以北瓦解矣

<朝野會通 卷六十六 宣祖紀>

十三日 賊兵圍南原 義智行長等 先上訪岩峯建大旗 放炮吹角 諸酋以次而進 分三道 一從防川由禪院前 過長城橋至西門外 一自恭場截川流還越川過大母川與西門外賊 相續連延互回而遊兵直從坦道 向東門進退挑戰 將倭則互上山峯 造幕結陣指揮 楊元與 李新芳 在東門 千摠蔣表在 南毛承 先在西門 兵使李福男在北門 分隊守堞 元令吹纙放炮 傳令城中 禁妄費軍器 午時倭兵 直立東門 列立石橋上 元潛出立門外城内幕人射之 我國炮手部長金應龍等三人一時放丸 三賊立斃 未時賊數萬 自漆場 進於城外百步之地 連續放丸 高聲大呼 城中放震…中略…楊元驍勇 絶世突出 之時 賊列

圍以木 編束　刀劍　故元多驅駿馬　先鞭馬使之超逸則　馬觸刀以仆　又鞭次馬　連觸積累元遂躍馬　踏死馬背而出 欲活伴臣　使乘其逸騎與之偕出期遠　不閑馳騎　墮落不從　元再入帶出　又不能從　諸賊一時來逐　元齊放四五馬 馳奔之際 所乘力疲則 超跨他馬 如是周回而去 馬亦知人意　奔則散走　元指呼則一齊聚首而集　被甲超換 有若易席 賊終不能害之云 或曰元長於野戰守城非才而爲主將所忌 勒使保障 盖欲因此除去也 元累辭不獲終 至於敗云 似非實然而但元本　以先鋒出來則　到今使之守城亦異矣 初麻貴　領將脫有緩急　南原告全州 全州告公州 公州告京城 至是陳愚衷 至全州不爲來援 又不告急以致覆沒

＜春坡堂日月錄卷之九＞

九月賊將行長義智等 分道進兵圍南原城 相持累日 賊兵以薪草塡塹　乘夜肉薄而登　亂放飛丸城中大亂　總兵楊元與麾下數人　潰圍而走僅以身免 天兵及我師盡被斫殺 總兵中軍李新芳 千總蔣表毛承先　接伴使鄭期遠　兵使李福男 防禦使吳應井 助防將金敬老 別將申浩 府使任鉉 判官李德恢 求禮縣監李元春等皆死之

＜宣廟寶鑑卷之九＞

閑山島失守 賊乘勝進逼全羅道 直擣南原摠兵楊元不能敵 從西門遁　城中將士皆死　接伴使鄭期遠 府使任鉉等死之　賊鋒甚銳　長驅湖右縣逼畿輔 京城震怖 ＜申欽象村集卷之五十六＞

初福男自順天到玉果縣　縣監洪堯佐盡焚倉庾單身待變 福男所領軍　亦幾盡散　只有手下褊裨五十餘人 轉進南原西倉　方向城中　金敬老(助防將)自金城來 遇福男于柿田　福男忻然携手誓以同死 連轡進軍 踰飛鴻嶺則 函鋒已迫城下 福男望見嗔目唾手曰　爲君父急難　非此日乎 酬國家洪恩 非此日乎 兵由奮銃　師以直壯死生禍福 何暇論乎　令大吹鑼角擊鼓徐行　從萬福(寺名)前大路行軍 由南門從容而入 外村焚蕩之 賊 停火却立 指點觀光　城底之賊　按兵不動 駭視良久　血賊詰諸擄人曰　此是何人唐突若此 答之以本道兵使李某則莫不壯之

＜亂中雜卷三＞

清正兵亦至 遂與行長等連兵　同超全州　陳愚衷 望風棄城而走　後楊元陳愚衷　入天朝皆伏軍律 傳首我國　＜宣廟中興誌卷五丁酉＞

(二) 明側 史料

朝鮮水營將官元均 在閑山密謀擧兵　約會中國搗釜山巢穴不意 金應瑞在宜寧　陸路虛張聲勢將元均約中國 搗巢日期洩于行長　行長欲攻南原　正慮元均襲其後　一聞此信就中用計　遣豐茂等 領兵襲破元均水兵　遂奪閑山島　閑山一失　京西水道無處不通賊　於是倭兵水陸並進賊船不兩三日內　泊光陽豈耻津　距南原甚近釜山西生之賊 又由慶尙右 路俱會南原 權慄李元翼等兵勢不能阻截 皆佯趨於東偏　賊益肆行無忌 楊元一聞驚報　八月初十日　先遣家丁將行李二篤 押回平壤　十二日　行長倭兵至城下元與朝鮮全羅兵　馬節度使李福男　共守此城藥箭齊發 賊稍退　日每添賊四面攻打　採木打造雲梯 懸樓以扒城 又割田稻 積濠邊塡壕 又於濠外穿 木棚三層　以阻我兵突出　凡數晝夜不休 賊忽退緩　元等困倦少息 至十六日一更倭忽擁至南門　猝時登城先開城門　賊遂入城楊元在帳中聞之驚起 不及被衣跣足廳上 脫傳報官寧國胤衣靴 帶隨從家丁十八人　逃出西門無所統關 除李福男等　凡遼東營兵　并家丁雜流共三千一百一十七員名 及出圍　從大路西盆鳳山走 三日直至恩肆舘　查見在者　一百十七人而已 李福男等皆死城中　此時遊擊陳愚衷在全州 愚衷奉調以七月內抵王京　麻總兵即令守公州 總督慮南原有失　復調守全州　以接應南原 二城相去止百餘里 愚衷入城 時州官衙 城中並無升糧 二千人何以供給　及愚衷踏勘地勢見十里外山寨中　藏佇米豈盔砲鉛彈弓矢鎗刀筅牌等物 各千萬計 遂令搬運入城 州官堅意下肯　盖此時朝鮮雖賴中國兵援　然被兵殘害處亦不減於倭 所以不欲官兵在州　賊一至民即奔散 所以佇之十里外山谷間　恐賊不時入城　反爲冦助也 而愚衷不悟　自令人連夜運入城　分派各兵防禦 及南原告急 楊元星火差人求救 愚

衷即宜激厲所統 御枚疾赴 刻期密約 擧火爲號 使楊元裏應夾攻 賊可走也 即不然 能引兵而前 牽挽賊勢 賊必不能專力攻南原 南原知有外救 必且堅心拒守 亦未即破奈 何愚衷畏懦先一次回文曰 恐顧彼失此也 後又具稟曰 非不欲救 信地難以輕離 卒不肯發兵 及聞賊己破南原 全州百姓望風震駭 擧欲逃竄 官兵阻之反傷官兵盡燒積聚 乘夜撞出城門 愚衷無計至二十日寅時 哨探報倭兵將到任實(此地去城止二十里) 愚衷遂帶領所部 棄城北走 倭兵遂入全州 此時麻貴聞南原被圍 急遣遊擊牛伯英 提兵赴救南來 而愚衷己北遁 乃合兵一處暫止公州 以張聲勢　<兩朝平攘錄卷之四>

(惜者 且馬兵最不利禦倭 倭破馬兵 皆以夜至則 人不及騰馬不及鞍 祖承訓與楊元之敗賊皆夜攻 二人皆遼兵也 大抵北將不經倭戰每視爲易而卒難 南兵習慣征倭 視倭難而反易 如麻貴未至平壤 即欲輕師直取釜山經略以四萬人 即欲當倭衆二十萬 功而速總視之大易耳 楊元陳愚衷又何足責哉)

(愚衷初至 全州一空城也 即民不逃粮不 燬亦非效死勿去之民矣 似此守則坐困不 如捲甲而赴救 更可轉敗爲功 乃既不能救 又不能守而卒逃焉 欲以空城委罪愚衷之衷眞愚哉)

<海東繹史卷之六十三, 本朝備禦考三, 兩朝平攘錄 卷之四>

二十五年日本封事敗 起貴(麻貴)備倭總兵官赴朝鮮己加提督 盡統南北諸軍 貴馳至王京倭己入慶州據閑山島圍南原 守將楊元遁 全州守將陳愚衷亦遁 倭乘勢逼王京 貴別將解生守稷山　<明史卷二百三十八 麻貴傳>

八月十二日 倭圍南原 守將楊元本債帥無固志十六夜 倭猝乘城 元驚起帳中 跣足遁 時全州有陳愚衷 忠州有吳惟忠 各扼險而 全州去南原百餘里 勢相犄角 愚衷初至州無斗粮 及勘十里外山寨中 多貯米荳弓矢 蓋朝鮮苦我兵甚于倭 不欲在州 遠貯山谷者恐 倭至反爲助 寇也南原告急 愚衷懦不發兵 聞己破而民 爭棄城去 麻將軍急遣游擊牛伯英 赴援與愚衷合兵屯公州 倭遂犯全羅 逼王京

<皇明實記卷之二十>

(三) 日本側 史料

八月朔 始發兵 分三道向南原 一隊宇喜多秀家爲將 行長爲先鋒 島津義弘蜂須賀家政長曾我部元親加藤嘉明生駒一政等屬焉 兵凡五萬傍慶尙 略雲峰而向南原 一隊毛利秀元爲將清正爲先鋒 黑田長政淺野幸長鍋島直茂勝茂等屬焉 兵凡五萬 發慶州過密陽大丘出全義舘王城明兵出師將一戰而後向南原 豐臣秀秋在釜山 遣山口正弘等 將自密陽玄風入於忠淸道

<征伐記 秀吉譜>

秀家等將攻南原 惟敬既告行長曰陳愚衷在全州 將援南原 於是令義弘淸正遮援路 愚衷遂不能出兵　<島津家記>

楊元至南原 增築城一文許 城外羊馬墻多穿砲穴 城門安大砲三座 鑿深濠塹一二丈 聞我兵至 城中洶洶 人民逃散 遼東馬軍三千在城內元召全羅兵使李福男 福男至 所率纔數百 光陽縣監李元春助防將金敬老等繼至

十三日 我先鋒百餘到城下 發鳥銃 城兵以勝字小砲應之 我大陣在遠 出遊兵交戰 疏行迭出 故敵砲不能中 敵多中銃斃

十四日 進圍城三面 先是南門外民家稠密 楊元焚之而石牆猶存 我兵蔽而發銃 城兵多斃

十五日夜 發矢砲圍城 黎明將援城 時月色如晝 高虎與安治議謂至曉敵必堅守 不如乘月明先襲之 安治可之 俄發喊薄陴 城兵投石防之高虎梯城而突入苦戰 遂破外廓　<脇坂記>

此役藤堂高虎先登 斬首二百六十九 其兵磯崎家信年十四 獲朱衣將 渡邊宗戰歿 高虎獻馘干名護屋 秀吉遣使賜焉　<藤堂家記>

太田一吉亦率其勇兵大井何右衛門 毀南門 斬敵百餘　<武家盛衰記>

秀家行長等斬首三十餘級　<秀吉譜>

義弘遠陣北山頭 月色如晝 縱觀戰酣 城兵逃過山下 義弘出兵掩擊斬四百二十餘人 一人有攀木而匿者 義弘親發銃斃之　<島津家記>

傳馘于名護屋 秀吉贈書賞焉　<古簡雜纂>

安治獲首二千餘 後秀吉賞其功 加祿三千石
<藩翰譜>

愚衷在全州 及我兵破南原 百姓望風奔竄 城兵阻之反毁城燒積聚撞城門 二十日 我兵進至任實 愚衷懼北走我兵遂取全州
<征伐記 秀吉譜>

九十五, 稷山 附近 戰鬪

(丁酉年九月自六日至七日)

(一) 我側 史料

賊蹂躪三道 所過皆焚燒盧舍 殺戮人民 凡得我國人 悉割其鼻以示威 兵至稷山 都城人 皆奔散 九月初九日 內殿避兵西下 經理楊鎬 提督麻貴在京城而平安道軍五千餘人 黃海 京畿軍數千徵至 分守江灘 警守倉庫 賊從京畿還退 清正再屯蔚山 行長屯順天 沈安頓吾(島津義弘)屯泗川 首尾七八百里 是時都城幾不守朝臣爭獻出避之策
<懲毖錄二 (六四面)>

鎬到平壤 聞賊迫畿甸 移咨令固守無動 即兼程疾 馳軍吏諫勿輕進 不聽入王京 與麻貴等諸將 上國都南山 張軍樂布號令 夜選精壯 前往迎賊 又令二千騎爲後援 遇賊於稷山 鏖殺其先鋒諸 酋大挫 直歸海邊巢幕 是日經理提督請上 出視江上 人心恟懼 士庶皆荷擔而立及素沙捷至 京中乃安
<燃藜室記述>

楊鎬於我國 有再造之功而懲毖錄 全沒其事有若倭奴自退者然 素沙之捷 塗人耳目 而猶欲以私怨沒之 此爲成龍大疵痛
<靑野漫錄>

經理然之 自平壤兼程疾馳 軍吏諫勿輕進 不聽 遂於九月初三日 入王京中 提督諸將 責不戰之狀 與提督以下諸將 上國都南山 張軍布之 號令嚴密 提督定計 抄撥精勇 馬兵迎擊之夜挑選各營精壯二千 驍將十五人 使解生牛伯英楊登山頗貴領之 遣于天安而諸將莫知也

初七日 解生等四將遇賊于天安稷山之間 賊皆着白衣 天兵以爲我國人 初不爲備 及賊放砲始覺之 四將一時跨馬進擊之 賊披靡而走 中箭被棍而死者甚多 天兵當陣斬三十一級 頗貴手斬三級首 楊登山解生各自斬二級而還振威經理發各營兵 出陣於江上 又遣擺賽將二千騎爲繼後 賽疾馳遇賊於振威稷山之間 與四將合勢擊破之 斬六十四級 射賊將中之 賊皆遁還海上
<再造藩邦志二>

初六日(宣祖三十年九月) 天將總兵解生等大破賊兵于稷山 所莎坪清正等遁還(所莎坪一名日金烏) 初陳愚衷自全州潰歸 賊兵跟追己渡錦江經理楊鎬 自平壤聞賊迫甸 馳到都城 上日夜請經理 經理慰之曰 倘事不利 主君宮眷 亦可相救 即遣麻貴等領大軍 啓行設浮梁于銅雀津先送副總兵解生 參將梁登山 遊擊擺賽頗貴等數萬迎戰 麻貴領至水原下 賽遣兵葛院 伏于假川上下爲後援 解生等到金烏坪 以爲便於用武分兵三協 爲左右掩擊之計 賊自公州天安直向畿甸以初五日黎明 先鋒己至金烏 天兵右出柳浦 左發靈通 大軍從大路 鑼響三成 萬旗齊颭 軍皆燒酒 奮鐵鞭驟馬突之倭兵亂 遂乘勢逐之 賊尸遍野 一日六合 賊勢大挫 日暮斂兵賊酋等夜令諸軍 待明死戰 解生令軍中曰 賊明必決戰 努力致死 毋坐軍律 但狡賊走 必由山路 騎步異勢 不可窮追 翌日平明 賊連砲張兩翼以進白刃揮映 毒氣掩日 奇形恠伏驚眩人眼 解生等應砲突起 爭奮碓鞭之中者瓜折合戰未久賊大潰奈 遂從木川清州而走 大軍力竭且麻貴不許窮追 乃休兵分道逐之 其後賊稱朝鮮三大戰(平壤幸州金烏也) 然自壬辰以來 無此快捷也 自餘但能攻城 或自守也
<春坡堂日月錄卷之九>

初六日 天將副摠兵解生等 大敗賊兵于稷山金烏坪 清正等退遁流下嶺南 初楊鎬在平壤 聞賊兵己迫畿甸 日夜馳到京城 令本國設浮梁于銅雀津 先送副摠兵解生叅將楊登山遊擊擺賽頗貴等兵數萬 迎賊于湖西之境 解生等到金烏坪 巡審用武之便 分兵三協 爲左右掩殺之計陳愚衷自全州退遁 賊兵跟追 己渡錦江 上日夜泣愬于經理 經理慰解曰 倘官軍不利 主君宮眷 可想救活 即與麻貴 領大軍啓行 至水原下寨 遣兵于葛院 埋伏于介川上下 以爲後援

賊兵自公州天安 直向京城 初五日黎明 田愁站向洪慶院 先鋒已至金烏坪 天兵左協出柳浦 右協發靈通 大軍直從坦途 鑼響三成 喊聲四合 速放大炮 萬旗齊颭 鐵馬雲騰 槍槊電飛 馳突亂斫 賊屍遍野 一日六合 賊勢披靡 日暮各斂兵屯聚 清正夜令諸軍 決明朝死戰之計 解生密令諸將曰 今看賊勢 明當決死以退 努力敢死 毋坐軍律 但彼賊狡黠 倘至敗退 必由山路而去 險阻之地 騎步異勢 不可窮追 翌日平明 賊兵齊放連炮 張鶴翼以進 白竭交揮 殺氣漲天 奇形異狀 驚惑人眼 天兵應炮突起 鐵鞭之下 賊不措手 合戰未幾 賊兵敗遁 向木川清州而走 大軍力竭 且路出山僻 廊貴不許踉追 休兵分道追下 其後賊還巢 稱朝鮮三大戰 平壤幸州金烏坪云 (或云金烏之戰 天兵約陣于弘慶院暗埋火藥于幕草及賊至天兵佯奔陣走 賊兵爭入焚幕爲火傷死者多 此言近似且經理不往水原與上共登終南山望見氣曰 賊兵敗走)

<亂中雜錄三>

經理楊鎬使副總兵解生等 大敗賊兵于稷山 賊自陷南原 乘勝長驅進逼京畿 經理楊鎬在 平壤聞之 馳入京城招提督 責不戰之狀 與提督定計密選騎士之精勇者 使解生牛伯英楊登山頗貴領之 迎擊于稷山 解生等伏兵於稷 山之素沙坪 乘賊未及成列縱突騎擊之 賊披靡而走 死者甚多 又遣游擊擺賽 將二千騎繼之 與四將合勢追擊又破之 是日經理提督請上出視江上 人心洶懼 士庶皆荷擔而立 內殿避兵西幸 及捷報至京中 乃稍定 <宣廟寶鑑 卷之九>

賊勝乘而上至稷山弘慶院 天將解生 以鐵騎三千擊敗前鋒 賊知不可敵 捲甲夜遁 取路嶺南以還 於是兩湖完邑皆被殘破矣

<金時讓撰 紫海筆談>

賊自陷南原 乘勝長驅進逼京畿 經理在平壤聞之 馳入京城 招提督 責不戰之狀 與提督定計 密選騎士之精勇者 解生牛伯英楊登山頗貴領之 迎擊于稷山 解生等伏兵於稷山之素沙坪 察賊未及成列 縱突騎擊之 賊靡而走披死者甚多 又遣遊擊擺賽 將二千騎繼之而與四將合勢追擊 又破之

<昭代紀年 卷之十三 宣祖朝六>

清正轉陷湖西 將迫京畿 急報日至 朝廷請出避 廊貴亦欲引還 楊鎬方在平壤 接伴使 李德馨曰 賊一渡漢江則 江以西無復着手處 及今馳往 猶可爲也 鎬從之 軍吏諫勿輕進 不聽 遂疾馳入京 招廊貴等 責不戰狀即與貴定計曰 賊勢方銳 先摧其前鋒然後 可以大軍繼之 夜選各營精壯二千騎 驍將十五人 使副摠兵解生參將楊登山 游擊將軍頗貴 牛伯英領之 密送于天安而諸將莫知也 初七日乙未 解生等 疾馳至稷山天安之間 清正兵已至 望見賊多 皆着白衣 遍野而前 天兵疑其爲我人 初不之備 及賊放砲 始覺之 四將一時跑馬陷陣 賊披靡而死者甚多 忽一賊持白旗 上山麾之 賊大陣應時雲合 四將度不可敵 即斂騎還振威 鎬繼發各營兵 出陣江上

<宣廟中興誌 卷五 丁酉>

丁酉又遣游擊將軍擺賽 將二千騎爲後援 賽馳至振威 與四將(解生副摠兵楊登山參將頗貴及牛伯英 兩游擊將軍)合兵 進與清正 大戰於素沙坪 部下勁騎 皆出入如飛 斬其驍將一枝 清正遂擧軍而遁 解生曰 此賊狡黠 走必循山 騎步異 勢不可追也 遂斂兵止營 是時楊鎬廊貴 請上出視江上 人心兇懼 士庶皆荷擔而立 內殿避兵西幸 及捷報至 京中乃稍定

<宣廟中興誌 卷五 丁酉>

(二) 明側 史料

九月初七日 副總兵解生 恐倭直犯王京 分發部下于稷山水原等處防剿 而倭已至全義舘 距王京百五十里 城中人戶晝夜驚走殆盡 我兵弓溪五里迎遇之 同參將楊登山 游擊牛伯英頗貴直冲之欲死 倭二名落馬 因乘勢追趕十里之外 殺傷數多 後兩哨山谷倭執打 旗號擁衆齊出 適撫院下 千摠李益喬把摠劉遇節 引兵驟至灰塵大起 并力協攻良久 賊始大敗退去 解生見賊衆兵寡 乃收兵回 共斬首級二十九顆 降倭葉春 認得落馬者 係清正下倭將葉一枝也 此時官兵未集 倭目中已無王京 一戰挫其銳氣 雖

斬獲不多 然而王京之守自此方固矣

<海東繹史 卷六十三, 本朝備禦考三, 兩朝平攘錄>

九月 副將解生游擊牛伯英 頗貫于稷山水原設伏 各有斬獲 參將彭友德等亦報 追倭至青山 獲級首百十六 軍聲益振 經略乃移郞中董漢儒屯義州 海防使蕭應宮屯平壤 又聲言調南北水陸兵七十萬 且募至廣福浙直水兵 直搗日本倭聞風 遂不敢進 行長奔井邑 離王京六百里 清正踰竹嶺奔慶尙 離王京亦四百里

<皇明實記 卷之二十>

貴(痲貴)別遣副將解生守稷山 朝鮮亦令都體察使李元翼出忠清道遮賊鋒 生頗有斬獲功 參將彭友德亦破賊青山 倭將行長退屯井邑 清正還慶州 <明史卷二百三十八 痲貴傳>

自二城(南原全州)失 東西皆倭 我兵單弱 因退守王京依險漢江 痲貴請於玠 欲棄王京退守鴨綠江 海防使蕭應宮 以爲不可 自平壤兼程趨王京止之 痲貴別遣副將解生 守稷山 生頗有斬獲功 朝鮮亦調都體察使李元翼 由鳥嶺出忠清道 遮賊鋒 玠旣身赴王京 人心始定

<海東繹史 卷六十三, 本朝備禦考三 明史>

(三) 日本側 史料

痲貴遣副將解生守稷山 李元翼亦出忠清道遮我鋒 <朝鮮傳>

二十六日 高虎援稷山水寨 屢中矢石 殷血染鎧不以爲意益奮督戰 監軍使毛利友重欲跳入敵船 失足而溺 高虎兵長井氏勝今井忠重攘敵救之 戰自辰至酉斬獲三百八十餘 溺死無算 餘舟乘潮宵遁 高虎進兵忠清道累破諸壘 築城于安骨浦 令元親守焉 <藤堂家記>

七日 毛利秀元黑田長政自慶尙全羅到全義舘 解生兵屯稷山及水原要害 解生陣西山 長政先鋒黑田圖書助栗山四郞右衛門前行 與解生兵遇而衆寡不敵欲退而與長政麾下合 毛屋主水曰 我見大軍屢矣而無如參州長篠役 今察敵衆倍長篠兵 我退彼必追擊我兵殲焉 齊死不如進戰而死 且必死奪擊一陣必敗 我或全軍而退 衆然之將進 毛屋曰彼用鐵楯 不可以銃取勝 但以銃爲勢 突入排楯亂斫而莫取級 衆亦從之 發銃一聲乘烟大喊而勦 敵軍驚駛 回顧不支 我兵益奮 徹楯突擊 敵稍却 長政遙聞砲聲 率麾下三千馳至 先鋒將退隔橋而未能退 黑田三左衛門曰 先鋒寡兵殆將殲 大兵勝踰橋 我恐難支 是吾死所也 率手下踰橋先衆而進戰 衆軍踵進 橋頭敵兵敗走 後藤基次馳驅山頭 令不測我衆寡 長政登東山 觀敵軍曰敵兵十倍而我無後繼不可不死戰 母里後藤等進衝敵陣 短兵相接 時敵將楊登山牛伯英率衆而至 我兵與三將交戰 東西旋轉多斬敵 長政勵衆苦戰 三將遂敗走 時敵將季益喬劉遇節等又率大兵來援焉 解生得力復還戰 季劉生兵鋒銳我兵疲 戰死二十九人 長政躬親奮戰 敵死者百餘敵亦屈而退 時漢南兵多屯西山高處 我兵欲進而擊之 竹森新右衛門曰 彼多兵而我寡 不可無謀而戰 小我兵出敵右以餌之 總軍竊左轉其不意敵必敗 長政從之 敵果不虞左轉師 我兵俄衷之 敵擾亂不能成備 一時敗走 我兵追擊斬首無算 秀元兵亦至 敵餘軍不敢戰而退 以日逼虞淵 我兵亦綏 <黑田家記>

敵兵逃山上者以譯啓秀元營曰 我輩嘗援朝鮮 徵發而至 與貴國無仇怨 爾後不復與貴國爭 請憐而宥之 且請印記而爲信 秀元許之 印其旌而與之 <毛利家記>

戰後三日 解生遣使 贈白鷹於長政以乞和 秀吉大稱長政及其臣毛屋主水等功 長政屯于稷山十餘日 移營于牛峰 <黑田家記>

鮮王城守兵猶寡 上下人心不安 適解生齎稷山所斬首級來 僞言軍得大捷 守兵以爲信稍得安

<征伐記>

九十六, 鳴梁 海戰(丁酉年九月十六日)

(一) 初倭酋家政等六將 連兵數百千艘 向西海 舜臣兵寡不敵 遵海而上 家政等遂至務安 執佐郞姜沆問水軍所在 沆紿之曰 泰安安行梁 水路之天險也 天朝將召頣兩游擊 領戈船萬餘艘 橫截梁上下游 船已到群山浦 統制使以多寡不

敵 退與天兵合勢矣 賊聞之 相顧色動 遂回兵下順天 舜臣復還珍島 益募士卒 申明約束 賊聞之 又以來島守 爲水路大將 領毛利民部等諸酋兵十餘艘西上 來島守先遣九艘嘗之 舜臣擊走之 又夜遣兵放砲驚之 舜臣亦令放砲 賊知不可動引去 裵楔棄軍逃走 舜臣狀啓論罪 即所在誅之 來島守乃悉兵前進 舳艫亘海 不知其際 而舜臣所領才十餘艘 舜臣領避亂餘船 列遙海爲疑兵而中流下碇 以當之 賊先以百餘艟擁之 勢若風雨 兩諸將凶懼失色 謂舜臣不可復免 一時退散 舜臣親立船頭 勵聲督之 僉使金應諴 巨濟府使安衛等 回船以入 直擣其鋒 賊蟻附衛船 幾陷 舜臣回船救之 立碎其兩船 頃刻之間 連破三十艘 斬其先鋒 賊大駭而却 舜臣懸賊船首 張樂船上以挑之 賊奮怒 分軍迭出 舜臣乘勝縱火 延燒諸船 赤焰漲海 賊兵燒溺死者 不知其數 遂殺來島守 毛利民部落水僅免 其餘將帥死者數人 是日避亂士民 皆恃舜臣爲重 簇集山頂 望見舜臣 墮百重圍 砲雷白鈚 四面騰震 以爲舜臣軍必糜爛無遺 皆失色痛哭 良久戰氛開 見官軍船箇箇兀立 乃大驚爭先趨賀 捷奏上大喜 下書褒美 欲陞崇品有言舜臣爵秩已高 止賞將士 楊鎬聞而歎曰 此捷近日所未有也 遂銀段勞賞而奏聞天朝 舜臣遂進軍寶花島 戰士已至八千餘人而患乏粮 遂作海路通行帖 令曰三道公私船無帖 以奸細論…中略…軍士又患無衣 舜臣乃諭避亂士民曰 汝等何爲來此 皆曰恃使道耳 舜臣曰今天凍海寒士皆墮指 安能爲汝防禦乎 汝旣有贏餘之衣 何不分我士卒 於是士民競輸餘衣 又募民輸銅鐵鑄大砲 伐木裝船 事事皆辨矣

<宣廟中興誌卷五丁酉>

公聞命 單騎馳到會寧浦 道遇慶尙右水使裵楔時楔所帶戰船 只有八艘 又得鹿島戰船一艘 公咨楔以進取之計 楔曰事急矣 不如捨船登陸 自托於湖南陣下 助戰自效 公不聽 楔果棄船而去公召全羅右水使金億秋 使之召集管下諸將五員 收拾兵船 分付諸將 粧作戰艦 以助軍勢…中略…獨以瘡殘餘卒 領十三戰船 捷依無所 逡巡於碧波亭洋中 見者危之 一日忽下令軍中曰今夜賊必襲我 諸將各宜整軍戒嚴 是夜賊果潛師以來 公自起大喝令諸軍無動 各下碇以待 責戰益力 賊解圍 公回軍 在右水營鳴梁洋中 天明望見賊船 五六百艘 蔽海而上 先是湖南士庶乘船避亂者 皆聚陣下 倚公爲命至是公以衆寡不敵 先令避亂船 次第而退 排列布陣 爲疑兵 自令戰艦當前 賊見公整船而出 各促櫓直進 旌旗樓櫓瀰漫海中 時早潮方退 港口湍悍巨濟縣令安衛 順潮而下 風便汎駛 船行如箭直衝陣前 賊四面圍抱 衛冒死突戰 公督諸軍繼之 先破賊船三十一艘 賊少却 公擊楫誓衆乘勝而進 賊死咋不敢抵 賊擧軍而遁 公亦移陣於寶化島 時閑山諸將 各自投竄與本道避亂民人等 奔入諸島 公日遣偏裨通諭諸島 召收散兵 治戰艦備器械 貿鹽販貿二朔之內 得穀數萬餘石 將士雲集 軍聲復振 以戊戌十月十七日 進陣于古今島

<湖南誌 李恒福撰 李統制遺事>

七月 閑山敗報至 朝野震駭 上召見備局諸君問之 惶惑不知所對 慶林君金命元 兵判李恒福以爲 方今之計 唯復以李舜臣爲統制使 乃可 上從之 還授李舜臣官 拜三道水軍統制使時舜臣由晋州西路向求禮 見賊船已泊津口 由谷城指西海而去 時裵楔以十二船 退保珍島碧波亭 舜臣馳走 <李星齡의 春坡堂日月錄>

十五日(九月)癸卯晴 數小舟師 不可背鳴梁爲陣 故移陣于右水營前洋 招集諸將約束曰 兵法曰 必死則生 生則死 又曰 一夫當逕 足懼千夫 今我之謂矣 爾各諸將 勿以生爲心 少有違令則當軍律 再三嚴約 是夜神人夢告曰 如此則大捷 如此則取敗云

十六日(九月)甲辰早朝 別望進告 賊船不知其數 直向我船云 即令諸船擧碇出海 賊船三百三十餘隻 回擁我諸船 諸將自度 衆寡不敵 便生回避之計 金億秋退在渺然之地 余促櫓突前亂放地玄各樣銃筒 發如風雷 軍官等簇立船上如雨亂射 賊徒不能抵當 乍近乍退 然圍之數重 勢將不測 一船之人相顧失色

余從容諭之曰　賊雖千隻　莫敵我船　切勿動心　盡力射賊　顧見諸將船　則退在遠海　觀望不進　欲回船　直泊中軍金應諴船　先斬梟示而我船回頭　則恐諸船次次遠退　賊船漸迫　事勢狼狽　即令角立軍令下旗　又立招搖旗　則中軍將彌助項僉使金應諴　漸近我船　巨濟縣令安衛船先至　余立于船上　親呼安衛曰　安衛欲死軍法乎　汝不死軍法乎　逃生何所耶　安衛慌忙　突入賊船中　又呼金應諴曰　汝爲中軍而遠避不救大將　罪安可逃　欲爲行刑　則賊勢又急　姑令立功　兩船直入交鋒之際　賊將指揮其麾下船三隻　一時蟻附安衛船　攀緣爭登　安衛及船上之人　殊死亂擊　幾至力盡　余回船直入　如雨亂射　賊船三隻　無遺盡勦　鹿島萬戶宋汝悰　平山浦代將丁應斗船繼至合力射賊　降倭俊沙者　乃安骨賊陣投降來者也在於我船上俯視曰　著畫文紅錦衣者　乃安骨陣賊將馬多次(來島通總)也　吾使金石孫鉤上船頭則俊沙踴躍曰　是馬多時云　故即令寸斬　賊氣大挫　諸船一時鼓噪齊進　各放地玄字　射矢如雨聲震河岳　賊船三十隻撞破　賊船退走　更不敢近我師　此實天幸　水勢極險　勢亦孤危　移陣唐笥島　十七日乙巳晴　到於外島則避亂船　無慮三百餘隻先到　如舟師大捷　爭相致賀　又持斗斛之粮　以遺軍官　羅州進士林瑄　林懽　林業等來見　　　　　　　　　　　　　<亂中日記>

啓曰　自壬辰至于五六年間　賊不敢直突於兩湖者　以舟師之扼其路也　今臣戰船尙有十二　出死力拒戰則猶可爲也　今若全廢舟師則　是賊之所以爲幸而由湖右達於漢水　此臣之所恐也　戰船雖寡　微臣不死則不敢侮我矣

<李忠武公全書>

(二) 李舜臣鳴梁大捷碑

<所在：全南海南郡門內面東外里
李敏叙撰　李正英書　金萬重篆>

萬曆二十五年丁酉九月　統制使李公統舟師　進駐於珍島之碧波亭下　大破日本賊於鳴梁之口　賊由是大衂不敢窺海右逼湖圻　其明年賊遂罷兵歸　世謂中興戰功　公爲第一而鳴梁之戰最奇云　盖公初以全羅左水使　聞賊至慷慨誓衆　進兵於　嶺南界中　邀擊沿海賊初戰於　玉浦　再戰於唐浦　復戰於固城之唐項浦　皆以小擊衆　殺賊無算　卒乃大捷於閑山　威震海隅　乃進拜統制使　悉總三道舟師　仍屯閑山數歲　賊亦不敢復西海路　至是賊再擧大至　懲前之敗　蓄憾專力　欲衝海道直上　時公方被誣逮　命以白衣從元帥　俄復援舊職於是　元均已代公大出兵迎賊軍　遂陷盡喪其舟師器械蓄積而閑山已陷矣　顧公乘喪敗之後　無兵可戰　間關走海上稍收亡卒得戰艦十餘艘　遂進扼鳴梁　賊至者樓櫓蔽海　公督諸將　進舡當海之隘口連艫下碇　截中流待賊鳴梁　地迫涵潮方盛　水益急　賊從上流　乘潮搶之　勢若山壓　士卒無生意　公意氣益勵　乘機奮擊　將士皆殊死戰　舡出入如飛　砲火四起　海水盡沸　賊舡焚燒撞碎　沉溺死者　不可勝數　賊遂大敗遁去　始戰方酣　巨濟縣令安衛　少㥘　公立舡頭大喝　命左右取衛頭　衛懼還入疾戰　是日破賊舡五百艘　斬其將馬多時　時南民避賊從公者百餘舡　未戰　公令分舡泛海　爲疑兵　及戰　舡上觀者皆失色謂公兵少當沒　及賊退　戰氛息見我舟屹然無恙　皆大驚爭來賀　自是軍聲復大振夫自李鎰申砬敗後　官軍及義軍遇賊　輒奔潰　無敢略齟齬其鋒者及天子遣大兵來救　大震殲次第復三都然後　從軍稍稍掎角之　延安幸州之捷雖一時稱雋然皆籍天兵威重　僅能嬰城拒守得全未有獨當一面鏖戰全勝　如公之爲者也　故賊屯湖嶺六七年　不敢蹈西海一步地　南原旣蹈　賊勢尤張而猶狼顧不得逞者繄公是賴至若露梁之戰大戰而又大勝　臨陣殞命卒以身殉國公死而賊亦退　其後朝廷論平賊功　以公爲元勳　追賜宣武功臣號　贈官至左議政　立忠愍祠於露梁以祀之　公諱舜臣　守汝諧　牙山人　公平居循循雅飭如儒士　及其臨難討賊　決算出奇　雖古名將不能過而忠義奮發有可以貫日月而感鬼神者　是以所在克捷　威懾隣敵　義動中國　若公者　乃古所謂眞將軍可屬大事者　非專以一時取勝爲可貴也　其行己之大方　用兵之大略　國史及他銘述備矣　倭不少過鳴梁　觀公戰地　慨然太息　彷徨久之　想見其爲人　今南人立石於其地　使來

謁銘義不敢辭 遂略叙其舊聞系之 以詞 曰

鳴梁口兮隘而東　海潮蹙兮汨兩峽
兵因地兮利出奇　貔䝮醜兮勢莫支
士卒奮兮鼓方震　俄殲賊兮蕩餘燼
惟將軍兮勇義俱　扼海道兮浦無虞
怒濤擊兮蛟鯨趍　觀戰地兮想英謀
靈皇皇兮赫海隈　呵星辰兮走風雷
海不竭兮石不泐　昭壯烈兮耀無極
崇禎後己丑三月　日書

<朝鮮金石總覽下 (九九二面)>

(三) 賊酋來島守領兵船數百艘 先向西海 至珍島碧波亭下 時統制使李舜臣留鎭鳴梁 避亂舟子百餘隻 在後聲援 舜臣聞賊至 令諸將曰 賊衆我寡 不可輕敵 臨機策應 如此如此 賊見我軍孤弱 意謂呑噬 交競先登 四面圍掩 我軍無心戀戰 佯入垓心 賊喜我軍畏怯 肉薄亂戰 忽然將船螺角交吹 旗麾齊颭 鼗鼓聲中 火發賊艘 延爇諸船 烟焰漲天 射矢投石 鎗槊交貫 死者如麻 燒溺死者 亦不知其數 先斬來島守 懸首檣頭 將士奮勇 追奔逐北 斬殺數百餘級 逃脫者僅十餘隻 我船尙皆無恙 其賊回巢論兵 必稱鳴梁之戰　<趙慶男撰 亂中雜錄三>

舜臣亦回軍於右水營鳴梁洋中 天明望見賊船五六百艘蔽海以上 其將馬多時素稱善水戰 方欲犯西海 其勢極大 人皆憂懼 舜臣以彼衆我寡 難以力勝 可以謀破 曾有湖南士庶乘船避亂 皆依舜臣爲命 舜臣乃令避亂船次第而退 排列布陣爲疑兵 出沒洋中 舜臣自戰艦當前直出 賊見舜臣整船而出 各自搖櫓 鳴鼓擊鑼 奮勇直進 旌旗樓櫓 瀰滿海中 我軍見之失色 時早潮方退 港口湍悍 巨濟縣令安衛順潮而下 風便迅駛 船行如箭 直冲陣前 賊四面圍抱衛 冒死突戰不得出 舜臣督諸船繼之 先破賊船三十一艘 賊小却 舜臣擊楫誓衆 乘勝而進 賊死咋不敢抵敵 擧軍而遁 舜臣亦移陣於寶花島 是時舜臣已得戰士千餘人 患乏糧餉 作海路通行帖 令曰 三道沿海 公私船無帖 以奸細論 母得通行 於是凡避亂乘船者皆受帖 舜臣以船大小差次 使納米而受帖 大船三石 中船二石 小船一石 避亂之人 盡載財穀入海 故不以納米爲難而通行無禁爲喜 旬日間得軍糧萬餘石 又募民輸銅鐵 鑄大砲 伐木造船 事事皆辦 遠近避兵者往依 舜臣結廬造幙 販賣爲生 島中不能容 且閑山諸將當其崩潰之際 各自逃散 舜臣日遣偏裨 通諭諸島 壯士雲集 軍聲大振

<再造藩邦志四, 大東野乘卷七, 六八七面>

九月賊侵珍島 統制使李舜臣逆戰大破之 斬賊首來島守 來島守領兵船數百艘 先向西海 至珍島 時統制使李舜臣 留陣鳴梁 集避亂舟百餘隻 假爲聲勢 賊至 舜臣佯若不戰 賊見我師勢弱意謂呑噬 令來掩圍 舜臣整師不應 賊謂我輩㤼畏 肉薄亂戰 忽於將船 吹角旗麾齊擧 因風縱火 延爇諸船 舜臣遂乘勢奮擊 死者如麻 先斬來島守 首懸於檣上 將士賈勇義氣百倍 追奔斬殺數百餘級 燒溺死者 不可盡數 賊僅以十餘隻遠脫而我船皆獲無恙 其後賊中論兵 必稱鳴梁之戰　<春坡堂日月錄卷之九>

行長在陸路 義智在水路 飛謀蓄銳 以伺我隙 獨以瘡殘餘卒 領十三戰船 棲依無所逡巡於碧波亭洋中 見者危之 一日忽下令軍中曰今夜賊必襲 我諸將各宜整軍戒嚴 是夜賊果潛師以來 公自起大喝令諸軍無動 各下碇以待 賁戰益力 賊解圍　<李恒福 白沙集卷之二十一>

公回軍在右水營鳴梁洋中 天明望見賊船五六百艘 蔽海以上 先是湖南士庶乘船避亂者 皆聚陣下倚公爲命 至是公以衆寡不敵 先令避亂船次第而退 排列布陣爲疑兵 自領戰艦當前賊見公整船而出 各促櫓直進 旌旗樓櫓瀰滿海中 時早潮方退 港口湍悍 巨濟縣令安衛 順潮而下 風便迅駛 船行如箭直衝陣前賊四面圍抱 冒死突戰 公督諸軍 繼之先破 賊船三十一艘 賊少却 公擊楫誓衆 乘勝而進 賊死咋不敢抵敵 擧軍而遁 公亦移陣於寶花島 時閑山諸將各自投竄與本道避亂民人等 奔入諸島 公日遣褊裨 通諭諸島 召收散兵 治戰艦備器械 貢鹽販貿 三朔之內 得穀數萬餘石 將士雲集 軍聲復振

<李恒福白沙集卷之二十一>

朝廷始悟行長之詐 復以舜臣爲統制使 舜臣以十數騎 馳入順天府境 得兵船十餘艘 稍收亡卒數百 敗賊兵于於蘭島 朝廷以舜臣兵弱 使登陸進退 舜臣奏曰 臣一登陸則 賊船由西海直上京師 危矣 上從之 時湖南避亂士民百餘艘 散泊諸島 舜臣與之約束 團聚列于軍後 與爲聲勢 獨以十餘艘前迎賊于珍島碧波亭下 賊船數百來襲 勢若山壓 舜臣不爲動 一字整陣砲矢四發 賊兵披靡 巨濟縣令安衛 回船欲退舜臣立船頭 促遣小艓 命取安衛頭來 衛遂進船殊死戰 賊大敗 擒斬其名將馬多時 軍聲復振 捷聞上欲陞階崇品 言者以爵秩已高 止賞諸將以下 <洪良浩著 海東名將傳卷四>

統制使李舜臣 破倭兵于珍島碧波亭下 殺其將馬多時 舜臣至珍島 收拾兵船得十餘隻 時沿海人乘船避亂者無數 聞舜臣至 莫不喜悅 舜臣分道招呼 遠近雲集 使在軍後 以助形勢 賊將馬多時 號善水戰 率其船二百餘艘 欲犯西海 相遇於碧波亭下 舜臣以十三船 載大炮 乘潮至順流攻之 賊敗走 軍聲大振 是時舜臣 已有軍八千餘人 進駐古今島<懲毖錄二六四面>

九十七, 報恩附近 戰鬪(丁酉年九月二十日)

鄭起龍以遊兵四百人 至報恩赤岩猝値清正兵大霧中 起龍意氣整暇 當前立馬 射倒數十賊清正疑有備 良久不敢動 起龍故與相持而使快馬奔告 前路士民使速避然後 徐行而去 湖嶺避亂人 賴而獲免者數十萬

楊鎬又遣參將彭校德 追敗清正於青山 邢玠又聲言 天朝且發水軍七十萬 由海道直擣日本 倭聞風遂不敢進 清正退屯蔚山 與義弘行長等 互通聲息 沿海屯柵 連延九百里 以鄭起龍爲慶尙右兵使 當高靈戰功也 起龍遂開營於星州

<宣廟中興誌卷五 丁酉>

第 15 節 第 5 期 東征軍 反擊作戰

九十八, 第 1 次 蔚山城 戰鬪

(自丁酉年十二月二十二日
至戊戌年 正月 四日)

(一) 我國 史料

初二日(正月) 賊兵自西生來 又有自釜山來泊監浦者數百艘 經理(楊鎬) 令擺賽頗貴領兵往箭灘吳惟忠茅國器領兵把截江岸而自雨後北風連吹 士皆墮指 戰馬飢凍 仍以踣斃 軍容索然殆不能振 初三日曉 清正傳言 欲與經理面約而終不來 初四日經理提督(麻貴)督諸軍 四面攻城 欲爲火攻而賊於城外 先自明火放砲 經理斬士卒之退却者 又綁遊擊李化龍徇示軍中諸軍見之 爭相進擊 至天明 賊砲愈急 中死者甚衆 右協兵得倭書言 加德 安骨 竹島 釜山梁山等地十一倭將領六萬兵來救 堅守以待云而藍江賊船九十餘艘 齊入太和上流 陸路之賊又有繞出軍後之形 經理招德馨曰 城險難拔 救兵勢大 計將安出 德馨曰 清正圍在孤城天也此擧一失 後未易圖 大人以一萬兵專防箭灘彦陽之路 爲迎擊之計 此處戰場甚好 賊雖來 足以廝殺 經理曰 累日攻城 兵多損傷 不得不解圍而退 再圖後擧 當夜經理令撤各營 使擺賽楊登山爲殿 次第卷退 船上之賊 見天兵回 爭下陸 經理令突騎擊之 斬九級 賊乃却 經理令諸軍 燒糧餉器械 達夜 馳還慶州 吳惟忠 祖承訓諸將 在箭灘者未及撤回 爲賊所猝迫 浙兵多墮水死 是役也 天兵死者 幾千三四百人傷者數千人 陳寅 陳愚聞 楊萬金 并中丸 資糧器械 蕩然無遺 經理到慶州意甚茫然 經理提督還京城 <象村集卷五十六>

十二月 楊經理麻提督 領騎步兵數萬 下慶尙道 進攻蔚山賊營 時賊將清正 築城於蔚山郡海邊斗絶處 經理提督 乘其不意掩之 以鐵騎馳擊 賊披靡不能支 天兵奪賊外柵 賊奔入內城天兵貪擄獲之利 不即進攻 賊閉門固守 攻之不克 諸營分屯城下 圍守十三日 賊不出 二十九日 余自慶州 往見經理提督 望見賊壘甚靜暇 寂無人聲 城上不設女牆 環四面爲長廊 守兵悉在其內 外兵若至城下則銃丸亂發如雨 每日交鋒 天兵與我軍 死城下成積 賊船從西生浦來援 列泊水中如鳧雁 島山無水 賊每夜出汲城外 經理令金應瑞 率勇士伏城外泉傍 連夜擒百餘人 皆飢羸僅屬聲氣 諸將言城內糧絶 久

圍將自潰　時天甚寒陰雨　士卒手足皸瘃　已而賊又從陸路來援　經理恐爲所乘　遞旋師　正月天將悉回京師　謀再擧　<懲毖錄二六五面>

楊經理麻提督領騎步數萬　下嶺南進攻蔚山　以鐵騎蹙之　奪其外柵　圍之天兵與我軍多死　援兵又大至　師左次還京　戊戌邢軍門參謀丁應泰劾奏楊鎬欺罔僨事二十餘罪　鎬遂罷去　遣左議政李元翼具奏卞誣鎬去　上送于弘濟院涕泊以別　丁應泰連疏極毁　邢玠等諸官且憤本國申救極其醜詆　遣右議政李恒福兵判李廷龜等卞誣　<朝野記聞卷之四>

二十七日　天大雨　時藍江賊船近海岸　浙兵放砲中傷而退　清正副將通書干兵使成允文　請和經理還送諭之曰　清正若來降則　當奏朝廷除官厚賞　賊答曰　欲戰則戰　欲和則和　開一面容我出城　當議和事云　賊城中無水　每夜出城汲水我國別將金應瑞　令票下降倭　埋伏於泉傍　倭人之來者　一夜連擒百餘人　皆飢羸　僅屬聲氣　諸將言城內粮絶久圍將自潰　時天寒大雨　士馬凍餒　仍以踣斃　軍容索然　不能振　經理意甚不樂而已諸屯賊又來援云　經理召李德馨曰　城險難拔　救兵勢大計安將出　德馨曰　清正圍在孤城天也　此一擧一失後未可圖　賊雖來　大人以一萬兵足可撕殺　經理曰　屢日攻城　兵多損傷　不得不解圍而退　謀再擧　德馨心不服辭氣壯厲　經理深加器異曰　如李德馨者　雖在天朝　當瑞委廟堂而尙屈百僚之間　異哉　朝鮮聞之　即拜右議政(戊戌年拜相　年三十八)　<昭代紀年卷之十三　宣祖朝六>

冬　欽差經理都御史楊鎬與提督總兵麻貴　領兵四萬分爲三道　水陸并進　慄部署諸將　協隨天兵　自領輕騎　選梟將親隨提督營下　提督至聞慶　召三路大將密議軍務　提督語慄曰　天兵到蔚山　元帥亦令水軍　整備戰船　多載砲手　耀兵於前洋　以助聲勢　及提督攻蔚山不利　經理令慄獨領本國士　爲火攻　慄督諸將　突進斬後進者二人以徇諸軍無不勇躍　驩呼而進　本國大將兵使防禦使以下　蟻附而上　俱入棚內　進薄城下提督於帳前望見　擊案稱奇曰　元帥能行號令矣慄常言於經理曰　今攻島山　右道沿海　賊陣星列　聞島山之急　其勢必合兵來援　宜分一枝兵馬以遏來賊則　清正之頭　可致麾下　及天兵圍島山十二日　城小而堅　賊亦盛爲之備　百道攻之　終不能拔已而賊援大至　天兵爲之左次　戊戌　大軍遂回　<洪良浩著　海東名將傳卷四>

丁酉十二月　天將楊鎬麻貴領諸將　攻清正于蔚山　權慄率高彥伯鄭起龍從之　先鋒擺賽與起龍先進　曉薄賊壘射大箭挑之　賊出擊之　賽佯退以誘賊　楊登山又以二千騎繼至　合擊大破之　島山之戰　天兵不利　起龍爲賊所圍　縱馬揮劍而出　賊陣劃然中開　徐收散卒而歸　賊不敢逼　<洪良浩著　海東名將傳卷之五>

欽差經理都察院御史楊鎬　與提督總　兵麻貴領兵四萬　分爲三道　水陸並進　公(權慄)部署諸將協隨天兵　自領輕騎　選帶梟將　親隨提督營下提督至聞慶縣　召三路大將密議軍務　公亦在座提督密語曰天兵到蔚山元帥亦令水軍整備戰船　多載砲手　耀兵於前洋　以助聲勢　公一如其言　及提督攻蔚山不利　經理令公獨領本國士兵爲火攻　公督諸將　突進斬後進者二人以徇諸軍無不踴躍呼而進　本國大將兵使防禦使以下諸將　蟻附而上　俱入棚內　進薄城下　提督於帳前望見　暗暗稱奇曰元帥行號令　翌日經理亦稱　朝鮮軍兵　力戰助勢深爲可喜　公嘗言於經理曰今攻島山右道　沿海賊陣星列聞島山之急　其勢必合兵來援　宜分一枝兵馬　以遏外救則　清正之頭可致　麾下及天兵圍島山十二日　城小而堅賊亦盛爲之備　百道攻城終不能拔　公協隨周旋枕弋露處　鎧冑至生蟣虱而銳氣不衰　終以賊援大至　天兵爲之左次　一如公言　戊戌大軍旣回公以病上疏乞罷　<李恒福白沙集卷之二十一>

天子復賜經略尙方劍　以重其事　經略令麻將軍貴協同經理及左右　自忠州鳥嶺向安東趨慶尙專攻清正　恐行長自西來援　令中協向宜城東援兩協以扼全羅聞險　又于三協中　拍馬兵一千五百　同朝鮮兵合莒　由天安全州南原而下　大張

旗鼓 詐攻順天等處 以牽行長 大抵陸路粗備 獨水兵屢撤不進 經理領大軍 鱗次進軍 自率手下勇兵數百 輕裝戰巾 驅過鳥嶺 乃於十二月初八日 麻提督以下諸將所領合四萬四千八百人 提督至聞慶 召三路大將 密議軍務 都元帥權慄亦在座 提督密語曰 天兵到蔚山 元帥亦令水軍 整備戰船 多載砲手 耀兵於前洋 以助聲勢 慄一如其言 <再造藩邦志 卷四>

…前略…鎬甚俱 問李德馨曰 城險難拔 救兵勢大 計將安出 德馨曰 清正圍在孤城 天也 此擧一失 後未易圖 大人以萬人 專防箭灘彥陽路堅陣以待則我得形便 賊雖來不難制也 鎬曰 累日攻城 兵多損傷 不容不退 且圖後擧可也 德馨苦爭 辭氣壯厲 鎬雖不從而深器異之 乃令撤兵 使擺賽楊登山爲殿 賽獨請決戰 鎬不從 賽橫臥馬前不起 作歌諷之 鎬夜燒各營 馳入慶州 諸將爲賊所迫 浙兵多赴水死 獨副摠兵李芳春 斬賊百餘人而還 鄭起龍爲賊所圍 起龍縱馬揮劍而出 賊陣劃然中開 遂徐收散卒而歸 賊不敢逼 是役也 凡天兵前後死者千餘人 傷者三千人 參將陳愚聞奮勇先登入柵中中丸 得不死游擊將軍楊萬金 執金鼓登城 中丸舁歸 道卒資粮器械蕩然無遺 清正遂益完城柴 築甬道以通汲水 又於楊鎬駐箚山上 別築一城 爲堅計 鎬還京城 更遣貴於安東 李芳春牛伯英於南原 租承訓及游擊將軍茅國器盧得功於星州 以謀秋間三路齊擧 <宣廟中興誌卷五戊戌>

兵部尙書邢玠繼至 留鎭都中 鎬率諸將進擊 圍清正于蔚山境島山柵 賊固不下 會天大雨雪 人畜多凍死 粮運亦匱 乃班師

<知退堂李廷馨撰 東閣雜記下>

經理楊鎬自慶州督諸將 進攻清正于島山 焚燒伴鷗亭等處賊窟 斬獲甚衆 清正窮蹙 有逃遁之計 <趙慶男撰亂中雜錄三>

楊鎬麻貴圍島山十有三日 日夜攻城 賊兵大困加以糧盡井渴 死者日積 清正將欲自決每投金銀雜寳于城外 以緩我兵 天怒大雨 日甚凍冱我軍力盡 各處援兵蔽海而至 張鶴翼突進 大軍左次而退 楊鎬直還京城 麻貴與本國元帥權慄 領軍留慶州 <同上>

經理自領大軍 是月初八日南下 麻貴高策以下諸將 所領兵合四萬四千八百 十八日到義城 謂接伴使李德馨曰 我兵雖善哨探 不如鮮人便易吾欲遣哨軍宗好漢田倉與鮮人等 調探於島山德馨答曰 此輩雖入賊中 其間情形未易詳審 德馨有帶來降倭呂余文 伶俐有心計 若厚賞銀子與宗好漢帶去 到慶州 剃髮着倭衣 入賊營 則賊情可以細知 經理從之 二十日箚營于慶州 召諸將議進攻之策 二十一日 呂余文自賊營回 袖中出一圖 乃島山太和江賊窟也 兵卒多少 及清正喜八等窟穴俱在 經理見之大喜 以朱筆開進兵三路於圖上 示諸將 二十二日 派遣諸軍左協李芳春等從左路 中協高策等由中路 右協彭友德等由右路 三路一時前進 二十三日早 經理只與舌官宋業男等 前去接伴使李德馨 都元帥權慄隨之 夜半提督(麻貴)先到蔚山 距賊壘六十里 招楊登山擺賽頗貴等 問曰爾輩孰願爲先鋒 三將爭先 提督令擺賽爲先鋒 楊登山次之 賽善 登山怒 至欲拳毆賽 賽領精勇親兵千餘人 登山領驍騎二千 次第進發 未明 賽薄賊壘 以火箭射之 賊出趕 賽軍即斬四級 登山來屯近地 要爲聲援 賽佯退 賊追之 賽回軍 與登山合擊 斬賊四百六十餘級 生擒小將一人 已而經理提督至 箚營於賊壘相望之地 二十四日三協俱進兵 左軍圍伴鷗亭賊壘 中軍自兵營之路直衝賊幕 右軍圍太和江賊壘 經理躬自督戰諸軍鼓噪奮擊 砲聲動天地 火箭數百枚 相應俱發 風延火烈 亂燒賊幕 黑煙彌空勝乘拔伴鷗亭太和江兩窟 餘賊逃生 走入島山 天兵方槍首級而賊已入保 島山形勢絶險未易拔矣 經理麾步兵 令馬軍分爲入營 鱗次屯守 又令浙兵一營 分截江邊 以防水路之賊 經理與提督 上島山北邊高峰督戰 德馨等稱謝 經理笑曰 此是小捷 看我勦滅西生 釜山之賊 可言其喜

<象村集卷五十六志>

十二月二十二日 派遠諸軍左協將李芳春等從左路 中協將中軍高策從中路 右協將彭右德由右路 吳惟忠扼梁山 董正誼赴南原 盧繼

忠領二千兵屯西江只防水路

二十三日 早朝經理只與舌官前去 接伴使吏曺判書李德馨元帥權慄從之 夜半提督先到蔚山距賊壘六十里 提督招楊登山 擺賽 頗貴 問曰爾輩孰願爲先鋒 三將爭先 提督令賽爲先鋒登山次之 賽領精勇兵千餘 登山領驍騎二千次第進發 未明賽薄賊壘以大箭射之 賊出趕 賽手殺四級 賽佯退賊追之 賽回軍與登山合擊斬四百六十餘級生擒一小將

二十四日 三協俱進兵 左軍圍伴鷗亭賊窟中 軍自兵營之路直冲賊幕 右軍圍太和江賊壘經理躬環甲冑督戰諸軍鼓譟奮擊砲聲動天地火箭數百枝相應俱發風迅火烈亂燒賊幕黑烟彌空 乘勝拔伴鷗亭太和江兩窟餘賊逃生走入島山 天兵方搶首級而賊已入保島山形勢絶險未易拔矣經理麾步兵令馬軍分爲八營鱗次屯守 又令浙兵一營分截江邊以防水路之賊 經理與提督上島山北邊高峰督戰

二十五日 督三協進兵拿斬遲延者數人又拿在後者一割耳 衆皆奮迫城東而賊之防備甚密城又堅險不得毁城 遊擊陳寅中丸舁還京城 士卒雖蟻附仰攻而不能着足 有一賊衣綠衣持白旗者往來號令問于降倭則淸正云 日是以久戰兵疲鳴金收衆 招李德馨多備柴以爲明日攻城之用 此賊雖據窟穴無水又乏糧不久當自盡

二十六日 我兵與降倭持挨牌爲火攻且塡城下井使賊不得取水也 德馨與慄及諸將盡入木柵內土墻之間各以兵盡抵城底賊丸如雨透入牌死傷甚多不獲已撤回時 有賊船浮泊藍江者天兵多放火箭賊船被砲觸碎 有一賊詣軍前降賞銀出降者相屬 淸正嚴守城不許出入

二十八日 天大雨時藍江賊船近海岸 浙兵放砲中傷而退 淸正副將通書于兵使成允文請和 經理還送諭之曰淸正若來降則當奏朝廷除官厚賞賊答曰欲戰則戰欲和則和開一面容我出城當議和事云 賊城中無水每夜出城汲水 我國別將金應瑞令票下降倭 埋伏於泉傍倭人之來汲者 一夜連擒百餘人皆飢羸僅屬聲氣 諸將言城內粮絶久圍將自潰 時天寒大雨士馬凍餒仍以踣斃軍容索然不能振 經理意甚不樂而已諸屯賊又來援云 經理召李德馨曰 城險難拔救兵勢大 計將安出 德馨曰 淸正圍在孤城天也此擧一失後未易圖賊雖來 大人以一萬兵足可厮殺 經理曰屢日攻城兵多傷損不得不解圍而退謀再擧 德馨心不服辭氣壯厲 經理洨加器异曰 如李德馨者雖在天朝當瑞委廟堂而尙屈百僚之間 異哉我朝廷聞之即拜右議政(戊戌年拜相年三十八)經理將南下言于上曰不佞將擧兵南征顧與國王偕行 上應口而諾翌日上與經理聯轡出城 經理從險路躍馬而去 上而疾馳而及之容範安閒 經理顧笑曰王可與共事矣 上將下馬百官衛士無一人追及者 惟宣傳官柳承諸進而執靷及至江上 經理固要上還都 上乃還

＜朝野僉載卷之二十九丁酉三十年＞

二十一日(十二月) 呂余文(降倭) 自賊營回 袖中出一圖 乃島山太和賊窟也 兵卒多少淸正 喜八等窟穴俱在 經理見之大喜 以朱筆開進兵三路於圖上 示諸將

二十二日 派遣諸軍 左協李芳春等從左路 中協高策從中路 右協彭友德由右路 吳惟忠扼梁山 董正誼赴南原 盧繼忠兵二千屯西江 只防水路…以下象村集과 同一…

＜再造藩邦志卷四＞

二十五日 督三協進兵 拿斬遲延者二人 又拿在後者一人割左耳 衆皆奮迫城東而賊之防備甚密 又堅險 先登者不出 在外之軍 亦不得毁城 遊擊陳寅中大丸 舁還京城 士卒雖蟻附仰攻而不能著足 有一賊衣綠衣 持白旗者 往來號令 問于降倭則曰 即淸正云 日是 以久戰兵疲 鳴金收衆 經理提督馳赴水邊 看賊形勢 招李德馨曰 多備柴 以爲明日攻城之用 此賊雖據窟穴 城中無水粮 又乏井水 不久當自盡

二十六日 又招德馨曰 降倭等欲出計毁城 試使爲之 但此城極高險 我兵多傷 可憂也 天兵今日 四面列圍不動 刈草打粮 以爲休息之計爾國兵與降倭持乾柴 挨牌爲火攻 且塡城井泉使賊不得取也 德馨與權慄及諸將 盡入木柵內

土墻之間 各以兵盡抵城底 賊丸如雨 透入挨牌 死傷甚多 不獲已撤回 時有賊船浮迫藍江又欲進近海者 天兵多火箭 賊船一隻 被破砲觸碎 餘船出浦外 有一賊 詣軍前降 賞銀掛紅令駿馬跨示於賊 其後出降者相屬 淸正嚴守城門 不許出入

二十七日 天大雨 時藍江賊船近海岸 浙兵放砲中傷而退 賊數人揷書於竹竿 執旗下城 經理取見則乃淸正副將陽爲通書於我國兵使成允文者也 書曰 淸正在西生浦未回 只小將等在此 若差朝鮮將官一人 同我往西生浦講好則兩國之人 不至多死矣 經理還送諭之曰 淸正若來降則不但滿城之人免死 當奏朝廷除官厚賞決不負也 仍使舌官及天兵一人 給令箭使之出來 又令舌官朴大根及降倭越後 招諭於城下 賊答曰 欲戰則戰 欲和則和 開一面容我出城 且遣將官則當議和事云 賊城中無水 每夜出城汲水 我國別將金應瑞令票下降倭 埋伏於井傍 倭人來汲者 輒拿致之 一夜獲甚多 經理賞紅段一疋白金五兩

二十八日 雨不止 軍中凍餒無戰心

二十九日 西風大作 天氣慄冽 多備火具 爲攻城計而銃丸雨下不得前 經理反營 令諸軍設草房 圍住下營 爲久駐計 提督請開一面 使賊得遁 設伏於要路以邀之 經理不聽 時天氣嚴沍士卒墮指 經理意甚不樂 將更議進攻而未決

初二日 賊兵自西生浦來援 又有自釜山來泊鹽浦者數百艘 經理令擺賽頗貴 領兵馳往箭灘 吳惟忠茅國器 領兵把截江岸而自雨後北風連吹士皆凍慄 戰馬飢寒 仍以踣斃 軍容索然 殆不能振

初三日曉 淸正傳言 欲經理面約而終不來

初四日 經理提督 督諸軍 四面攻城 欲爲火攻而賊於城外 先自明火放砲 經理斬士卒之退却者 又綁游擊李化龍 循示軍中 諸軍見之 爭相先戰 化龍因參奏革職 至天明 賊砲逾急 中死者甚衆 右協兵得倭書言 加德安骨竹島釜山梁山等地 十一倭將領六萬兵來 堅守以待云而藍江賊船九十餘艘 齊入太和上流 陸路之賊 又有繞出軍後之形

是日夜 經理令撤各營 使擺賽楊登山爲殿 次第卷退 擺賽獨請決戰 經理不從 賽横 臥馬前不起 作歌諷之 尋以疾卒于軍中 船上之賊 見天兵撤回 爭下陸 經理令突騎迎擊之 斬九級賊乃退却 經理令諸軍燒粮器械 達夜馳還慶州吳惟忠祖承訓及諸將之未及撤回者 爲賊所猝迫 浙兵多有水死 祖承訓乃於夜半 率敢死二十人 潛入西生浦 拔吊橋上牌子而回 李芳春邀截賊路 斬百餘級 是役也 天兵死者 幾一千四百人 傷者三千餘人 游擊陳寅中丸舁還京城陳愚聞以先鋒將 分守東南隅 領家丁先登 手自斫賊 又放大砲及火箭破賊船 經理獎其壯勇以城北地險 命移其中攻之 愚聞先入柵中 家丁戒其輕進 不從 已而中丸 舁歸得不死 游擊楊萬金手執金鼓 登城力戰 中丸而墜 舁歸道卒 其他資糧器械 蕩然無遺 經理到慶州 意甚茫然 經理提督尋還京師

<申靈撰 再造藩邦志二>

(二) 中國 史料

十一月 經略渡鴨綠 二十九日 抵上京 共議進剿而所調宣大延浙諸勝兵並集 乃分三協 左李如梅 右李芳春解生 中高策 並以副總兵分將時監察爲御史陳效 上復賜經略尙方劍 重事權經略乃令痲將軍 同經理諭左右協 自忠州鳥嶺向安東 趨慶山 專攻淸正 恐行長自西來援 令中協兵馬 近宜寧東援三協 西扼全羅援倭 又于三協中摘馬兵千五百 同朝鮮合營 由天安全州南原而下 大張旗鼓 詐攻順天等處 以牽行長 我師陸路粗備 獨水兵屢檄不至 旣大聚兵經略與痲將軍于十二月二十日 會慶州探倭屯蔚山 蔚山之南島山並不甚高而城皆依山險 中一江通釜寨 其陸路間由彥陽通釜山 痲將軍欲專攻蔚山 恐釜倭由彥陽來援 令中協高策吳惟忠等扼梁山 左協董正誼等赴南原張疑 又遣右協盧繼忠兵二千屯西江口 防水路援

于二十三日 從蔚山進攻 游擊擺賽以輕騎 誘倭入伏獲級四百餘 倭盡奔島山 于前連築三寨翌日游擊茅國器統浙兵 先登連破之 獲級六百

六十一 倭堅壁不復出 島山視蔚山 高石城新築堅甚 我師仰攻多損傷 諸將曰倭艱水道 餉難繼 第坐困乏 清正可不戰縛也 經理以爲然 分兵圍十日夜 倭至嚙紙充餓飯 先用礮者 倭從隙用礮發 命中彈皆碎鐵 鐵爲之中多疊雜 瞰我師稍怠 佯約降緩攻而行長來援 行長亦慮我襲釜營 止選銳倭三千 虛張幟蔽江上 頃之經理開報即倉皇撤兵 倭襲兩協棄輜重無算 經略乃移各兵回王京 <皇明實記 卷之二十>

經略邢玠經理楊鎬先後至分兵三協 左李如梅右李芳春解生 中高策 貴與鎬督左右協兵專攻清正策駐宜寧東援 兩協西扼 行長諸軍至慶州倭悉退屯蔚山 如梅誘敗之 清正退保島山築三砦自固 遊擊茅國器率死士拔其砦 斬馘六百五十 諸軍遂進圍其城 城新築以石堅甚 將士仰攻多死 圍十日倭襲敗生兵 明年正月二日行長來援 九將兵俱潰 賊張旗幟江上 鎬大懼倉皇撤師以捷奏 既而敗狀聞 帝罷鎬責貴以功贖 與劉綎陳璘董一元分四路 貴居東當清正數戰有功 會平秀吉死 官軍益力攻十一月清正先遁貴遂入島山西浦諸路共俘斬二千二百有奇 明年三月旋師 進右都督予世廕

<明史卷二百三十八 麻貴傳>

倭乃退屯蔚山 十二月鎬(楊鎬)會總督邢玠提督麻貴議進兵方略 分四萬人爲三協 副將高策將中軍 李如梅將左 李芳春解生將右 合攻蔚山 先以少兵嘗賊 賊出戰大敗悉奔據島山結三柵城外以自固 鎬官遼東時與如梅深相得 及是遊擊陳寅連破賊二柵第三柵垂拔矣 鎬以如梅未至不欲寅功出其上 遽鳴金收軍賊乃閉城不出 堅守以待援 官兵四面圍之 地泥淖且時際窮冬風雪裂膚士無固志 賊日夜發礮用藥煮彈遇者輒死 官兵攻圍十日不能下 賊知官兵懈 詭乞降以緩之

明年正月二日行長(秀元等의 誤記일 것임.)救兵驟至 鎬大懼 狼狽先奔 諸軍繼之 賊前襲擊死者無算 副將吳惟忠 遊擊茅國器斷後 賊乃還 輜重多喪失 是役也 謀之經年 傾海內全力合朝鮮通國之衆 委棄於一旦 擧朝嗟恨 鎬既奔 挈貴(麻貴)奔趨慶州 懼賊乘襲 還王京 與總督玠(邢玠) 詭以捷聞 諸營上軍籍 士卒死亡殆二萬 鎬大怒 屛不奏 止稱百餘人 鎬遭父喪詔奪情視事 御史汪先岸 嘗劾其他罪 閣臣庇之 擬旨褒美 旨久不下 贊畫主事丁應泰 聞鎬敗 詣鎬咨後計 鎬示以張位沈一貫手書并所擬未下旨 揚揚詡功伐 應泰憤 抗疏盡列敗狀言 鎬當罪者二十八 可羞者十 竝劾位 一貫扶同作奸 帝震怒 欲行法 首輔趙志皐營救 乃罷鎬令聽勘 以天津巡萬世德代之

<明史卷二百五十九 楊鎬傳>

十二月 會慶州麻貴遣黃應暘 賄清正約和而率大兵奄至其營 時倭屯蔚山 蔚山之南島山俱不甚高而城皆依山險中 一江通釜塞 其陸路由彥陽通釜山 貴欲專攻尉山 恐釜倭由彥陽來援今中協高策吳惟忠等 扼梁山 左協董正誼等赴南原張疑兵 又遣右協盧繼忠兵二千屯西江口防水路援 二十三日 乃進攻蔚山 游擊擺寨以輕騎誘倭入伏獲級四百餘倭盡奔 島山於前連築三寨 翌日游擊茅國器統浙兵先登連破之 獲級六百六十一 倭堅壁不出方力攻山寨 時裨將陳寅身先士卒 冒彈矢勇呼而上 砍柵兩重 清正白炮躍馬督倭拒守 至其第三柵垂拔 楊鎬遽令國器竊割倭級 戰稍解 國器復以李如梅未至不便首功遂鳴金收軍 詰朝如梅至攻之不拔 島山視蔚山高石城新築堅甚 我師仰攻多損傷 諸將乃議曰倭艱水道 餉難繼 第坐困乏 清正可不戰縛也 鎬等以爲然 分兵圍十日夜 倭用砲者從隙發多命中彈皆碎鐵爲之 中多疊傷 然倭亦饑甚 瞰我師稍怠 僞約降緩攻而 行長來援 行長亦慮我襲釜營 不敢輕進 乃選銳卒三千虛張幟蔽江上 朝鮮將李德馨訛報海上倭船揚帆而來 鎬不及下令策馬西奔 諸軍無統御皆潰 清正縱兵逐北 我兵死者萬餘 游擊盧繼忠三千人殲焉 鎬貴奔星州撤兵還王京 會同邢玠露布言蔚山大捷 諸營上簿書士卒亡者二萬 鎬大怒駁正止稱百餘人 <明記事本末卷六二, 援朝鮮>

部將諫曰 部兵在蔚山者三之二 今又留半此地

在麾下者無幾　以寡敵衆　君臣徒死無益也　不如糾合諸將　戮力赴援以圖萬全　清正曰汝言似有理　然恐未悉　汝姑聽我所言　夫蔚山非他我所鎭也　待諸將而未及會集　令城陷　人將言清正恐怖強敵棄其鎭城　殺其士卒如此則其恥有大於死者　且諸將所居去蔚山遠今我城去之近矣　不可居近而俟遠援　如以利害言之　彼出師千里屯營未嚴　且恃多兵必輕我寡兵　出其不意是爲時　汝等從我命衝突而入城非難也　部下踴躍而進　直發艦焉

此夜我軍設新塞于蔚山島山之間　時嚴寒小鑿土植杭　漑以水堅冰固結如石　板牆排銃一夕而成

二十四日　麻貴茅國器等攻新塞　陳寅進破二三柵　殆將入塞而楊鎬素與如梅相得　以如梅未至不欲寅功出其上　遽鳴金收軍　<楊鎬傳>

是年十二月初四日　大聚官兵登壇祭告天地誓戒官兵　因宴賞諸將　犒賞三軍　祭旗時萬砲齊發　聲震天地　朝鮮臣民擧手加額曰　自生長來所遇兵革　未嘗見此威儀也　於是發兵南行　經理楊鎬帶領標兵隨營　麻總兵調度於東南　總督量留奇兵　住守王京　催儹兵餉并控制於西北 又令朝鮮王　遣李大諫　領紬作　暗送倭營　曉諭麗民　有私書送出　有內應外合之心

<兩朝平攘錄卷之四>

萬曆二十六年正月二日　行長援兵大至　將繞出軍後　張旗幟江上　鎬大懼倉皇不及下令　策馬西奔　諸軍繼之九將兵俱潰　賊前襲擊死者無算　副將吳惟忠　遊擊茅國器斷後　賊乃還　輜重多喪失　是役也　傾國內全力　合朝鮮通國之衆　委棄於一朝　擧朝嗟恨　挈貴奔趨慶州　懼賊乘襲　盡撤兵還王京　與玠詭以捷聞

<海東繹史卷六十四　本朝備禦考四 明史>

兵圍將十日　行長果引來援　時逼歲暮　行長又慮官兵乘其來救　襲破釜營　於是大兵原守大營止抽精銳一二千　每船不多入　惟遍挿旗幟蔽江而止 時二十六年正月初二日　塘報一至 經理慌懼　更不打探的實　亦不措置　遣兵阻截　即議初四撤兵　而初三賊兵彌近　鎬益無措　因不俟及期狼狽先行　盧遊擊二千兵在西江口　亦不傳知諸將聞經理提督已撤營去　紛紛連夜亂退　賊至援兵到　即開門襲擊 行援者盡被殺死 賴吳副將茅遊擊兩營南兵斷後　倭追數十里　見有兵防後方回而兩協喪失　併委棄兵餉器械不可數計……

……中略……

三協兵俱回慶州 更慮倭來　攻　復掘河築城 爲固守計　總督得報　亦大懊恨　然事已無奈　只得將各名撤回王京　以圖再擧 時贊劃主事丁應泰上疏劾經理之寡謀 將校之糜廩　於是楊鎬罷任去　諸將俱充爲事官　行戴罪剿賊

<海東繹史 卷之六十四　本朝備禦考四，
兩朝平攘錄 卷之四>

吳惟忠獨言於鎬曰 圍師必缺　今山城卒未破 恐當缺其一隅　俟逸出伏兵擒之　鎬張目擧手向惟忠曰　老將軍只要還我一個活清正　惟忠遂不敢復言　意鎬必有定見萬全無慮也　惟忠之言似矣然未盡機宜　大抵三塞旣破後即宜斂衆據險蓄養精銳　以俟南兵會集 水陸並擧　三路齊攻　方爲勝算　今以畏敵之孤旅　頓兵堅城下而即欲制敵死命　不難矣哉　<兩朝平攘錄 卷之四>

十二月會慶州　麻貴遣黃應　賜賄清正約和而率大兵掩至其營　時倭屯蔚山城依山險　中一江通釜塞　其陸路由彥陽通釜山 貴欲專攻蔚山 恐釜倭由彥陽來援　乃多張疑兵 又遣將遏其水路 遂進逼倭壘　李如梅偕參將楊登山　騎兵先進設伏海濱而令游擊擺賽　以輕騎誘倭入伏　斬級四百餘　獲其勇將　擊乘勝拔兩柵　倭焚死者無算　遂奔島山連築三塞　翌日游擊茅國器　統浙兵先登連破之　斬獲甚多　副將陳寅　冒矢石奮呼上破柵兩重　第三柵垂拔　楊鎬爲經理　宿與如梅　暱不欲寅功出其上　遽鳴金收軍 賊乃閉城不出 堅守以待援　島山視蔚山高石城堅甚　我師仰攻多損傷　諸將乃議曰　倭艱水道餉難繼　第坐困乏清正可不戰而縛也　鎬等以爲然　分兵四面圍之地泥淖　且時際窮冬風雪裂膚　士無固志　賊日夜發礮用藥煑彈　遇者輒死　官兵攻圍十日夜不能下　賊饑甚　且知官兵懈　詭乞降以緩之

<海東繹史卷六十三 本朝備禦考三, 明史>

(三) 日側史料

諸將相議欲修蔚山城據其要害 便舟路來往 清正監土木事而爲修舟路諸城 暫往西生浦在機張 令其臣加藤安政及秀元兵士在蔚山修築 明人謂清正猶在蔚山 凡我兵在朝鮮者十三萬餘

<征伐記, 秀吉譜, 清正記, 黑田家記>

二十二日 淺野幸太田一吉宍戸元續 以明日將入蔚山屯於彥陽 留斥候五百人於河水外 高策呉惟忠等黎明襲而鏖殺焉 幸長怒欲戰 宍戸太田知寡兵難敵止之 幸長少年輕鋭拒諫曰諸君任其所爲 如予不見敵不復還 言訖決然馳馬去 宍戸太田亦繼進 遽與明大兵遇 明兵見我寡圍之數重 幸長等潰圍且戰且走三里許 幸長被創漸近蔚山將戰死 幸長部將龜田大隅 適擊殺敵將敵軍亂矣 加藤安政開城門相迎 幸長等纔得入城 敵亦退去二十三日 李如梅楊登山率精兵攻蔚山 擺賽率輕騎城壁 城兵亂發鳥銃 開門突戰 擺塞佯走 城兵追擊 敵伏兵四起 城兵擊而走之 速入城 城兵死者四百人 明兵死者三千餘 李芳春解生泛舟蔚島二山間之河水 放火民屋 欲乘烟入城 城兵悟之 以火炮沿船 芳春解生僅免而歸　<征伐記, 秀吉譜>

時我兵有爲敵所虜者 敵問清正在城中否 虜詐言在城中 敵懼稍退而陣　<征伐記>

安政幸長欲遣使于機張招清正 難其使 幸長臣木村賴母曰某能之 馳詣機張告蔚山危急 清正曰我發本邦日 約幸長父彈正曰救幸長艱難 彼若戰死我何面復見彈正乎 令部下速具船

<征伐記, 秀吉譜, 清正記>

及期清正將出會 幸長尼之曰楊鎬之意不可測也 既入敵營君之勇無所施矣 君欲必住子代君往 諸將亦止之 於是清正不往 遣人謝楊鎬 鎬大怒 欲急發兵陷城 兵士不悅從 無幾我援兵至 楊鎬之事敗矣　<征伐記>

戊戌(宣祖三十一年, 明萬曆二十六年)正月 以蔚山危急 去歲我諸會西生浦議救之未決 黑田長政在梁山 馳至西生浦 決然令發援 諸將從之皆赴援 三日 長政及蜂須賀家政爲先鋒至蔚山近地 明兵在城東山上 長政進敗之 陣其山上 明兵隔河水 猶屯營一萬許 長政竊遣使于城中告來援 清正大悅 時小西行長兵二千四國兵二萬餘 既發順天遙見其旌旗 宇喜多秀家毛利秀元兵凡二萬餘 發釜山距蔚山一里陣山頭 (一里據毛利家記, 征伐記, 秀吉譜作十里) 秀元議謂敵兵頗衆 當分我軍 長政嘉明進擊山下敵軍 家政與予衛敵將陣 正成及勝信爲游軍 乘敵驚擾舟軍當自東方襲敵 以寡兵敵衆 當令彼分兵 是兵家之要也 諸將可之　<毛利家記>

長政隆景宗茂曰 敵恃衆必不備不虞 吾輩夜半先襲之 及曉衆軍繼之敗 必矣 衆不從

<淺野聞書>

四日黎明 長政遣毛屋主水 令候明軍 主水歸報曰 望敵陣炊烟甚微 是爲糧盡 改行伍而士卒搶攘者非來戰 將遁去也 長政曰汝所見是 謂部下曰敵將退 既退而追擊非勇也 不如及其未退而擊之遣使告諸將 時嚴寒 河水皆氷而陣頭河水海潮去來故不氷 長政先衆 單騎入河水 部下亂流競進 與明軍大戰敗之 秀秋秀元等又渡河水而戰

五日 長政等又渡河水 明兵二萬猶在河側 長政等奮戰 城兵見之開門突出來擊

<黑田家記 魔釋記>

吉川廣家抽衆而馳敵陣 英姿颯爽

<清正記>

明兵大敗 我兵追擊 僵屍盈四五里 委棄器械不可勝數　<黑田家記 魔釋記>

長政發蔚山也 其父孝高留後于梁山城 明兵來攻 孝高擊而退之 長政去蔚山而守西生浦

<黑田家記>

敵兵數來攻 長政善戰走之　<黑田略記>

後秀吉賜狀于長政稱其功

<清正記, 黑田家記>

加藤清正 淺野幸長(長政之子幼而有勇) 在蔚山城累月合戰 明兵數十萬以圍之甚急 幸長等出兵破敵軍 斬首數千級 於是後藤家信(隆信之第三子) 只一人 乘馬涉大河 士卒續涉之 黑田長政馳加竟破一方 乃清正幸長出萬死 清正

執家信之手 感謝其功（又云吉州廣家 秀吉朝鮮之役 廣家攻城略地 屢報捷 閑山府之雄飛蔚山援兵之先登 其最彰者也）

＜海東繹史卷六十四 和漢三才圖會＞

麻貴放火陷寨 我兵走蔚山島山 死者五百 敵死者萬餘

二十五日 麻貴攻島山 島山堀曲難攀援 我兵發銃如雨 麻貴欲強登 我兵亂投巨木石 明兵擾散 死傷無算 遂不能勝 ＜征伐記 秀吉譜＞

二十六日 明軍將大擧攻蔚山 黎明清正纔率五百騎 乘輕舸 着銀帽子兜鍪 挾眉尖刀 立舟頭指揮兵士 意氣凜然 舟馳如飛 明兵素恐清正望見而不能遮 清正直入蔚山城

＜征伐記＞

加藤安政謂清正曰 敵新至而圍未合先擊之 令彼不侮 且我衆心無所懼 不然敵兵衆而我兵寡生恐懼情 戰必不利 清正可之 安政率兵五百開門俄突戰 敵兵披靡 我兵果無所懼 敵兵謂我兵雖寡不易侮 遂得保城焉 ＜武將感狀記＞

明軍蟻附城壁 我軍得清正倍勇氣 防戰極力 明軍屢攻屢敗 ＜征伐記，秀吉譜＞

於是城中汲餉路絶矣 夜汲濠水 濠多屍水混血飮之以救渴 嚼紙或煮壁土而食 或食牛馬牛馬亦盡 竊出城外 取戰死者腰間糧 以充食 將帥供一飯 分數箸以與兵士 與之共艱苦 然守牆兵士 凍餒枯腊 無能興清正患之 欲以謀緩師誘楊鎬曰師連旬日 不忍多殺人 與子相會 通吾意 共休兵如何 ＜征伐記＞

明諸將議曰 秀吉諸將 清正最勇悍 先克清正則 餘從風解 乃向順天 以牽行長而諸軍會慶州 留高策于彥陽 以絶釜山援路而李如梅解生等 皆萃于蔚山 蔚山土木未竣 其役卒駭明軍至 入告清兵衛 清兵衛出戰 陷伏大敗 入城嬰守 淺野幸長 將往蔚山監役 行至彥陽 遇明兵麾衆而進 將士覩之 爭赴明軍 幸長身被十餘創 猶進不已 其將龜田大隅力諫 使二從士回其轡 而以刀鞘鞭馬 馬奔蔚山 清兵衛望見出城迎入

時楊鎬李如梅等 已破蔚山外郭 幸長代清正 率厲將士 嬰壁守之 明兵以幸長爲清正也 欲必獲之攻擊甚急 幸行自放銃 無不命中 時開門突戰 殺傷過當而敵勢不衰 麻貴茅國器鼓衆攀壁 前者墜後者登 晝夜不歇 城兵欲告急於清正 清正時在機張 相去三日程 敵衆充塞道路幸長曰 誰可往者 近臣木村某奮請往 幸長壯之 予以善馬 已出門 明兵麕集 木村一騎馳突萬衆中 一日一夜達機長 見清正告急

清正大驚 投袂而起 左右或止之曰 蔚山以孤城當大敵之衝而我寡兵援之 終不能保 不若棄之也 清正曰 淺配彈正囑我曰 緩急幸援兒 今餒之敵何以立天下 乃率見兵五百人 人負糧食 登舟赴援 與明候船戰江中走之 清正自蒙銀兜鍪杖薙刀 立船首 指麾士卒 明韓諸軍指目 莫敢能者 遂入蔚山 鎬貴謂將士曰 清正定入城矣猶檻虎而刺之也 明日合諸軍 蟻附而上 清正令士卒 投大石巨材 擊郤之 即夜 與數百騎襲明軍大獲而還 敵更起飛樓 以火筒佛郎機 百道竝攻 城壘震裂 清正與幸長 堅守不屈 鎬貴知其不可力取 乃下令休戰 合圍十晝夜 斷我汲道 城兵飢渴 皆囓紙煎壁土 刺馬飮其血 馬盡乃飮溺 夜出城外 搜明人尸 取其所佩糗糧牛炙 食之 天大雪 士卒戰[illegible] 有墜指者 而清正意氣自若 益修守具 用銃及紙礟 日斃明兵數百千人

鎬貴夜設伏而曉焚營 退走數里 以誘城兵 城兵欲追 清正不許曰 彼擧火曰退 退不設殿 不以夜而以曉 是將誘我而殲之也 久之 明伏稍稍出終復圍之 黑田孝高在梁山 使告釜山曰 蔚山急矣 即陷諸城隨之 不可不赴援 諸將然之 豐臣秀秋 毛利秀元 黑田長政 加藤嘉明 森忠政蜂須駕家政 藤堂高虎 其子高良 脇坂安治等將士卒五萬 自彥陽昌原 分道赴援 而行長自海上會之 三年正月 秀秋等 至彥陽 擊破高 策與昌原軍皆赴蔚山 行長益裝空艦 蔽海而至 楊鎬聞我軍自三面至 挺身先遁 麻貴解生 等乘夜解圍 長政使後藤基次 晨出候軍 得一馬簇于水涯還報曰 是日本制 我兵已有騎渡者 不可後矣長政即馳 躡明軍 藤堂高良等揮槍繼之 清正

與幸長 乃開門擊 敵衆崩潰 獨其將呉惟忠茅國器 殿能回戰 吉川廣家奮擊走之 明軍大走 遺棄糧仗蔽野　秀吉得蔚山捷聞　賜手書於清正賞之 爲餽糧食<賴山陽著 日本外史 豐臣氏九>

此の如く唐人急に敗れけるに　五百目三百目又は一貫目玉程の鐵炮あり　　城へ打ちたりしに 之を一挺も捨てず 兵糧と思しき物少しも捨てず 十三日居たりし跡なるに 人馬の汚少しもなし 奇特不審の事と 諸人申しけり

<毛利秀元記 巻之三>

秀元への御感狀

一. 最前註進申越候時 如被仰遣候 大明人以猛勢蔚山の城取詰候付 其方早速懸付 催人數後攻仕　大明人數萬討取　殘黨追散候事無比類手柄 御感不斜候事

一. 先年より以御目利 其方儀 大將被仰付候所に 先年晋州城主牧司を討捕り 今度大明人追崩候 度度忠節不可 勝計候事

一. 日本之儀者不及沙汰 朝鮮大明迄無隱 其方名譽といひ 又秀吉は日本にありて 加樣之大將差渡 百萬餘の大明人追崩候事 物深存候條可 別而御滿足に思召候 歸朝の節 御直可被成御褒美候 猶淺野彈正少弼 德善院增田右衛門尉 石田治部少輔 長束大藏大輔可申候也

正月廿一日　御朱印

羽柴安藝宰相どのへ

<毛利秀元記 巻之四>

秀元家中の諸士へ下されし御朱印此の如し

今度蔚山表敵取詰候處 盡粉骨の由 自安國寺具申越被聞召屆 神妙に被思召候 猶增田右衛門尉 石田治部少輔可申候

正月廿一日　御朱印

宍戸備前守どのへ　　淺口勝九郎どのへ
吉見長次郎どのへ　　三澤攝津守どのへ
三吉太郎左衛門どのへ　　日野新次郎どのへ
内藤修理丞どのへ　　天野五郎右衛門どのへ
和知勝兵衛どのへ　　平賀松介どのへ
三尾四郎兵衛どのへ　　三刀屋四兵衛どのへ
口羽十郎兵衛どのへ　　成羽紀伊守どのへ
桂孫六どのへ　　野山清右衛門どのへ
石蜘守郎どのへ　　伊達三左衛門どのへ
赤木丹後守どのへ　　周布吉兵衛どのへ
市川孫右衛門どのへ　　吉田孫右衛門どのへ
馬屋原彌右衛門どのへ　　楢嶇清兵衛どのへ
福賴左衛門どのへ　　有地民部少輔どのへ

右一紙に下され候なり

<毛利秀元記 巻之四>

九十九, 光陽 戰鬪

全羅兵使李光岳　攻倭人於光陽　不利　時倭營連絡海上　處處誘民納米　李光岳　收召餘兵　屯南原境　聞光陽屯賊寡弱　乘夜圍之　賊登陣拒戰　官軍不克而退　行長又遣兵援之　官軍敗潰求禮縣監金應西等　中丸而死　光岳收兵游擊分抄賊　頗有殺獲　未幾　賊棄光陽合于順天

<宣廟中興誌巻五 丁酉>

第 16 節　第 6 期 東征軍攻擊準備作戰

一百, 三嘉附近 戰鬪(戊戌年三月二十四日)

副摠兵解生　鄭起龍　破倭人於三嘉　時解生屯陜川　鄭起龍屯三嘉 二十四日己酉 起龍 諜知賊兵入擄縣境栗院　邀解生連兵而進　賊撤兵退解生起龍　追至縣南敵登山據險　起龍退軍誘致平地 而分軍挾擊破之 奪被擄民百餘人 以所獲首級盡歸之……(中略)……泗川儒生白弘悌 爲賊所獲　至對馬島　潛約被擄人　襲斬倭將奪我國人六十而還　起龍壯之　召爲別將　使擊三嘉屯倭克之 殺數百人　起龍上其功

<宣廟中興誌巻五 戊戌>

百一, 咸陽 沙斤驛 戰鬪(戊戌年四月二十日)

賊兵又抄掠居昌等地　楊鎬遣副總兵李寧　率二千騎擊之　寧率輕騎搏戰　殺傷相當　賊伏精兵誘之　寧逐之 賊伏齊起 圍寧數匝　寧力戰不支

中鎗而死
盖李寧之戰亡 在於是年四月 而象村倭亂之志叙是年九月 四路分軍錄副摠兵李寧亦入其中則必誤入也 此外又有參將李寧
<宣廟中興誌卷五 戊戌>
四月(戊戌) 賊一枝抄掠居昌等處 經理檄副摠兵李寧 率兵馬二千 邀截於險阨 以遏西上之勢 寧率輕騎搏戰 殺傷相當 賊伏精兵於山後而誘之 寧只領票下逐之 賊伏齊起 圍之數匝 寧力戰不支 中鎗而死 親兵把摠李欒 率家丁六百 挺身搏戰 僅以身免 經理乃飭諸將 各守信地 毋令賊兵侵略 <再造藩邦志 卷五>
副總兵李稅與倭人戰於咸陽 死之 帝令本國慶尙右兵使鄭起龍 代領其任 李稅與鄭起龍 合攻賊屯於咸陽沙斤驛 斬首三百 稅中丸而死 餘兵願屬起龍 事聞帝特許之 起龍遂兼領天朝副摠兵 時人榮之 楊鎬麻貴又皆票牌奬賞之 是時賊屯分諸郡 起龍以遊兵往來勦擊 皆捷之 以所獲首級分與天兵之來屬者 又帝令祖承訓 隷麻貴兵 責立功贖罪 起龍又以首級與之 承訓不受 <宣廟中興誌卷五戊戌四月>

第 17 節　第 6 期 東征軍四路併進作戰

一百二, 第 2 次 蔚山城 戰鬪 (戊戌年九月二十二日)

麻貴破平淸正於蔚山 貴至慶州 令解生等以六千人先發 解生直抵島山 敗賊兵千餘人於柵外 二十二日甲辰 貴領大軍 至島山下 選精騎挑戰 淸正兵乍出乍入 己而大出合戰 千總麻雲以二百餘騎 出其不意橫衝之 賊大奔奔迸 溺水死者甚多 天兵乘勝奪外柵 盡燒房屋粮草 賊入保內城 放丸如雨 天兵不能近 貴日出游兵挑戰 或變陣佯退 而淸正終不出 金應瑞又破賊兵於東萊府 <宣廟中興誌 卷六 戊戌>

一百三, 泗川城 戰鬪 (戊戌年 自九月十七日 至十月一日)

九月十八日 董一元自三嘉進晋州 先鋒藍芳威襲敗南江屯聚之賊 斬五十餘級 餘賊走下昆陽與昆陽賊合勢 退守泗川本城
二十日 董將自晋州督進諸軍 先擊泗川本城之賊 賊見我兵勢 走入大陣 一元練兵追殺 因圍法叱島
二十六日 董一元敗軍于法叱島 初一元進圍賊兵 連日攻戰 義弘登城備禦 日日示弱 一元謂諸將曰 可以滅此朝食 督軍薄城 義弘募兵 持熖焇數斛 潛埋城外 掘旁穴 持火潛兵 自領軍出戰 佯敗入城 城門不閉 天兵追入 義弘縱兵逆戰 死屍山積 俄而火發 軍中士卒燒盡 衆賊大呼乘之 死者不可勝言 一元僅以身免 遁向三嘉之路 賊兵追至晋州 屯于帝釋堂 未久還陣 即以大兵輸入南江站軍糧一萬二千餘石 一元至星州 收兵留鎭 居昌站軍糧八千餘石 亦爲散失 <趙慶男撰 亂中雜錄三>
董一元統大兵攻沈安頓吾于泗川 按察副使梁祖齡監軍提督與諸將會伽倻山下 窺察賊勢
是月(九月)十日督向三嘉 夜馳百一十里 黎明涉南江已於望晋峰前野 賊望見大軍而遁 昆陽永川新寧之賊亦焚寨而遁
二十一日提督遣麾下㺚騎 往昆陽斬十二級 提督留七日不戰 待西路之報
二十七日(九月) 我國將官等固請決戰 提督以步兵二千馬兵一千授鄭起龍爲先鋒 抽出各營精銳 合四千親領之 直抵泗川城下 賊出城拒戰 有賊將一人 錦袍金鎧躍馬以前 中軍方時新射中其頰斬之 盧得功先登中丸而死 諸軍合擊斬一百三十級日未暮 提督整軍回營
翌月初一日 提督復進賊柵逼之 火起 彭信古軍中各軍大亂驚潰 人馬相蹂 賊乘之挺劍亂斫 提督僅以身免 賊追至望晋峰 步軍死者三千餘人 騎兵亦多墮厓死 提督欲收散卒下營而諸軍已皆奔潰不能 軍遂留祖茅楊藍彭秦六將于三嘉 冐夜馳還 陜川左營軍稍集 我國運餉亦至 提督欲點兵箚營而彭信古誑提 督曰鄭起龍 軍又陷沒矣 提督信之即撤兵回星州 方時新病死 以葉思義代爲中軍 提督嘗倚用茅國器 國器之參謀史世用曾往來日本者也 國器欲因此

與賊講和而退之 及軍敗國器遣世用 哨探於賊中 沈安頓吾謂世用曰我幸大捷 當先破星州 次取王京而西 爾可見我於遼東 世用還言于國器 國器大懼 與提督急報軍門 軍門大怒曰勿復言和 吾先斬汝 世用恐怖而返 是月十一月十五日提督謀再擧

十六日(十一月)賊已撤去 十七日諸 將入東洋(逌洋倉)(泗川新城倉)只有病倭數人 我國女人三口

十八日提督至 燒夷房屋砦柵而回

<再造藩邦志五, 申欽 象村集 卷之五十六>

二十六日董一元敗于法叱島走還 一元進圍賊城連日交戰 賊將義弘登城備禦日自示弱 一元易之謂諸將曰可以滅此賊 朝食督兵薄城 義弘埋焰硝數斛於城外傍置火具自領軍出戰佯敗入城 城門不閉 天兵追入 義弘練兵逆戰 俄而火起 各軍驚潰大亂人馬相蹂躪 賊乘之挺劍亂斫積屍如山 一元僅以身免走向三嘉之路 賊追至晋州奪南江軍糧一萬二千石而去 一元收兵鎭居昌 馬文星師道立郝三聘先遁革職歸

<朝野僉載卷之二十九 丁酉三十年>

一元馳至伽倻山下 以詞賊勢 十九日(九月)辛丑 遂自三嘉 連夜馳百餘里 黎明渡南江 陣于望晋峰前 旋甲耀日 鄭起龍兼令老弱 鼓譟揚旗 以張盛勢 賊望風震駭 遂犇擊大敗之 城中賊從而奔潰 乘勝擊昆陽永春屯賊 皆破之 火其柵 大振士氣 一元欲留兵以待西路之報 鄭起龍固請乘勢決戰 一元乃以步騎三千 授起龍爲先鋒 又選精銳四千 親征之 己酉直抵泗川縣城 安資出城拒戰 一酋錦袍金鎧 躍馬以前(二十七日)中軍方時新 發一矢殪而斬之 盧得功揮戈先登 中丸而死 諸軍益奮力諸進大破之 斬其副將伽麻可末余九業 賊棄城奔入東洋倉 天兵追至城下 義弘自保不敢出 一元將乘勝攻之不下而援兵又集島山 往事可鑑也不若先攻固城 倭方挫未敢出救 固城拔則義弘援絶 此長策也 一元狃於屢勝 奮髯曰 疾雷不及掩耳 此將不戰而下也 時城中無井泉 賊方以爲憂 鄭起龍諜知之 告一元曰『困獸猶鬪 窮寇勿迫 今若攻圍四面 示之以必不活則 賊必死中求生 氣專力猛 勝負未可知也 今城中乏井 莫若闕一面而開其生路 不過旬日 渴而必出 然後左右蹙之 可不勞而定也』一元亦不從 義弘謂其下曰 吾若覆軍而歸 族滅而必矣 乃掘坎而坐曰 此我塚也

<宣廟中興誌卷六戊戌>

癸丑朔(十月一日) 一元進逼賊城 鄭起龍領先鋒兵 與游擊將軍彭信古 用大槓擊碎寨門 因破將堞 信古兵爭功先進 誤失火於藥櫃 亦焰滿空 軍中大亂 人馬自相蹂踐 賊遂大呼乘之 進擊至望晋峰前 步軍三千餘人 騎兵多墜崖死 失軍糧二萬餘石 一元僅以身免 諸將皆奔潰 獨祖承訓鄭起龍 全軍而還 一元走至陜川 將收軍箚營而彭信古誣之曰 鄭起龍軍 又陷沒矣 一元大驚 即馳入星州 不知所爲 茅國器曰 義弘素怨秀吉 可間也 一元乃使國器參議史世用 詣義弘議和 義弘大言曰 我今大捷 當先破星州 次取王京 鼓行而爾可見於遼東也 一元聞之益惧 急走世用報于軍門 邢玠大怒曰 勿復言和 我先斬汝矣 今宜速去 語賊曰 提督今方再整兵來也 世用震怖而退 復入義弘營 如其語語之 義弘色沮 不能答 遂棄糧馬 撤去兵入海 鄭起龍獨以百騎追之不及 馘餘兵五十而還

<宣廟中興誌卷六戊戌>

時董一元 主中路擊泗川賊 義弘賊見兵勢大 走入陣 一元縱兵追掩 因圍法叱島 (新城)賊示之弱 埋硝城外而置 火具自出 戰佯敗入城 天兵追入 賊回兵逆戰 俄而火發 各軍驚潰 賊挺劍亂斫 一元僅以身免 失南江軍糧萬二千石

<朝野會通卷之十六 宣祖紀>

明側史料; 中路倭將薩州義弘 素號狡悍而望津之寨 尤爲天險 北倚晋江(晋川江)東築永春西築昆陽 三寨鼎立 爲犄角 皆峙于新寨之前 新寨三面環海 一面通陸 石曼子義弘居之 外有石城木柵數重 引海爲濠 海艘泊於寨下者常數千 又築金海固城 爲左右翼而中造東陽倉 積糧萬計 屯重兵於舊泗川城 以守之 自望津至新寨 四十餘里 聯築八寨 步步爲營 勢甚猖獗 每迭出 搶掠于陜川 宜寧 咸陽 高靈之間

中路遊擊茅國器　初分得全州　自請救經略　謂中路義弘極狡黠　請自當之　經略壯其言　乃復增與兵改守星州　此時董一元　奏回宣府選募家丁　未是星州　三面受敵勢極孤懸　國器率浙步兵三千餘　遊擊盧得功馬兵三千守之　倭奴日出犯搶　雖有斬獲　以董提督未至不敢深入　四月間國器令侄指揮茅　明時作爲諭倭檄文　又令謀士史世用　擧平秀吉十惡大罪　遣倭將以離其心而携其黨至

八月　董一元方至尙州始議大擧　乃進駐高靈晋州　晋州前有大江　江之南即爲望津　望津之南皆賊巢也　倭據望津臨江固守　勢彌天險　我兵相持月餘　茅遊擊謂提督曰　細看倭營　自望津以至新寨勢若長蛇　望津其首也　碎其首如破竹矣　但晋江不能飛渡　當以計取之　董是其言　然未得間　一日茅兵出哨　忽一麗婦從倭營出　問其由　婦出一紙　內書云　此婦將度異域矣　吾甚憐之　損貲以贖放還故土　天朝兵將當憐其窮困勿加殺害　則救蟻之德也　尾云知吾姓者　令公之後埋兒之父問吾名者　有或之口　無才之按　理心書　我兵引婦來見　茅遊擊見書猶未解　摘下賛畫諸葛鑰解之曰　贖婦姓名必郭國安也　茅默然入語　參謀史世用聞之　躍然曰　郭國安先在日本時　與有舊約報效中國　今在倭營即可得間矣　因別遣麗倭三㮣往探　方知義弘尙在泗川老營　惟國安在望津營　乃復令三㮣持世用書　入倭營見國安　因約以九月二十日　伏兵於倭營屯糧處　俟我矣將渡　發火焚糧艸爲內應五日　茅整兵欲渡江　倭衆出營臨江堵截　忽望津寨中火勢焰天　倭大驚奔救　我兵乘勢畢渡　追殺斬獲立破望津大寨二座　樓房及倭房二千餘間　盡行燒毁　倭衆膽落棄城　退守泗川舊寨　是日申時提督遂分遣官兵東襲　破永春寨厥亦盡焚燒

二十二日五更　西破昆陽　月下交戰　倭退奔　我兵追斬寨厥盡付煨燼　營旣破　我等駐兵於江南矣

二十八日夜半(正月)　發兵襲泗川(舊寨)　李寧以大同驍將勇背衆先入　失道　反爲倭乘之　被倭亂斫死　及明　我兵大衆至　倭方四散　彼倭禾稻　見我兵　皆棄禾奔散城內　尙有數千倭　倉皇出戰　我兵衝擊　斬級幾百　盧得功以騎兵衝陣被鳥銃陣亡　賴步兵力戰　倭始棄城　敗奔新寨官兵遂燒東陽倉之糧　二日二夜　烟焰不息　倭不敢出救

我兵不旬日　屢戰　屢克　軍威大振……(以下董一元泗川大敗之條參照)

<諸葛元聲撰 兩朝平攘錄卷之四>

至二十九日　共議進兵取新寨　即義弘所居　沿海之大營也　茅國器曰　我雖連破數寨　而擒斬不多　倭盡併歸大營　守必竭力　攻之未必能下而各寨救且至　非全策也　不若先攻固城　新寨之倭　銳氣方挫　未敢來救　而固城　城小倭寡易破　固城一下　新寨援絶　然後相機而進　似爲全策　董帥　狃望津等寨之易破　便以輕敵　乃云本鎭看新寨　倭亦無幾何　固城易與耳　今先攻新寨　如疾雷不及掩耳　此寨破　固城不戰自潰矣遊擊彭信古　素輕敵寡謀　乃言　某親至彼探視　城中烟火不多　可取　遂決意發兵　十月初一日　茅國器，葉邦榮，彭信古步兵三營　直抵寨下攻打　其郝三聘　師道立，馬呈文，藍芳威四營馬兵　分作左右堵伏　止留步兵一枝　守老營於是茅葉二將　自卯至巳　用大將軍木槓　已打破大門一扇　城垛數處　而彭兵皆京城(北京)亡賴素不習戰　亦不善火器　忽木槓破　藥發衝起半天俱黑　各兵一時自驚亂　倭因乘隙　從前小門　殺出直冲　彭兵皆潰走　郝師馬騎兵　方環城而射　一見兵潰　各望風遁走　茅葉兩營　殊死鬪然已在重圍中　衆寡不敵　殺傷甚衆　藍芳威　駐兵十里外　斷後亦走　董帥不能約止　各兵遂大潰　墮崖落穽　不可勝紀　彭兵三千　止存五六十茅兵亦損六七百　茅營中軍徐世卿被捉去　不屈而死　及抵望津　茅遊擊謂　望津天險　得之不易若棄去　復爲倭據　前功盡棄矣　因會諸將　收散兵　欲復守望津　請命董帥　董帥曰　此地亦孤立倘固城倭　併力來攻　何以禦之　惟應暫還星州圖再擧耳　各將遂不敢留　盡日奔回　此時忍餒扶傷　天寒日暮　晝伏夜行　盤桓萬山中　奔走一二百里　哭聲震野　接殞道路者　又數百人　直抵陜

川 方得少息 倭以糧餉被燒 亦不敢遠追

<兩朝平攘錄卷四>

上以 中路失利 因驕將輕敵 懦將畏敵 主帥不能折驕鼓懦 分布無法 申令不嚴 致一軍少却衆軍皆奔 辱國損威 深可痛恨 俱當斬徇 着郝三聘 馬呈文 即軍前斬首梟示 彭信古等擬死著立功贖罪 仍究其軍中起火緣由 董一元降級立功 仍諭邢玠等 卒屬用心行事 不得畏阻 宜安重如山 憾搖不動 緩急進止 各有定算 相度機宜 以全取勝

<神宗實錄>

中路則石曼子據泗川 北恃晋江 南通大海 爲東西聲援 薩摩州兵剽悍稱勁敵 而行長水師番休 濟餉往來 如馳尤倭槩重 經路徵島山之失特于三路外置水兵 一路約日並進而中路李如梅尋調遼師 以董一元代……

董一元進取晋州 拔望晋 乘勝渡江南 連燬永春昆陽二寨 倭退保泗川老營 □戰下之 游擊盧得功役于陣 得級九十二 前逼新寨 三面臨江 一面通陸 引海爲濠 海艘泊寨下 以千計築金海固城爲左右翼 中通東陽倉 十月十一日董將軍一元分派馬步協攻 步兵游擊茅國器 彭信古 葉邦榮 前攻城 騎兵游擊郝三聘 馬呈文 師道立 柴登科四營 後應邦榮 步兵游擊芳威攻東北木門 副將祖承訓殿 攻圍自辰至未彭信古用大槓 擊寨門 碎城垛數處 步兵齊至壕 吹獲城棚湧入 忽營中槓破火藥 發烟漲天倭乘勢衝殺 固城援倭亦至 我師騎兵先潰 遂奔還晋州 經略查參 詔斬馬呈文 郝三聘以徇彭信古等充爲事官 董一元革官御 降府職三級各戴罪立功

<皇明實記 卷之二十>

亦至 郝三聘 馬呈文 率騎兵先走 遂大潰 奔還晋州（勘科徐觀瀾 奏四路喪敗旨下部斬馬呈文郝三聘以徇一元等各帶罪立功）

<明記事本末 卷六二 援朝鮮>

朝鮮再用師 詔一元隸總督邢玠麾下參贊軍事尋代李如梅爲禦倭總兵官 時兵分四路 一元由中路禦石曼子於泗川 先拔晋州下望晋乘勝濟江 連毁永春昆陽二寨 賊退保泗川老營 攻下之 遊擊盧得功陣歿 前逼新寨 寨三面臨江一面通陸 引海爲濠海艘泊寨下千計 築金海固城爲左右翼 一元分馬步夾攻 步兵遊擊彭信古用大棓擊寨 碎其數處衆軍進逼賊濠毁其棚 忽營中礮裂煙焰漲天 賊乘勢衝擊 固城援賊亦至 騎兵諸將先奔一元亦還晋州 事聞詔斬遊擊馬呈文郝三聘彭信古等職充爲事官 一元亦奪官保貶秩三等 會關白死倭遁走 石曼子爲陳璘所殲一元得還

<明史卷二百三十九 董一元傳>

董一元進取晋州 乘勝渡江南連燬永春昆陽二寨 倭退保泗川老營 鏖戰下之 游擊盧得功歿於陣前 逼新寨 寨三面臨江 一面通陸 引海爲濠 海艘泊寨下千計築金海固城 左爲右翼 中通東陽倉 十月董一元遣步兵游擊茅國器 彭信古 葉邦榮 前攻城 騎兵遊擊郝三聘 馬呈文師道立 柴登科繼之 遊擊藍方威 攻其東北水門 自辰至未 彭信古用火橫擊寨門 碎城垛數處 步兵競前拔柵 忽營中横破火藥 發烟漲天倭乘勢衝殺 固城援倭連珠布營 城中廣樹飛樓鳥銃自穴中出 應時斃我師 乃退駐開城

<明記事本末 卷六二 援朝鮮>

茅國器知義弘素怨秀吉 可間而携也 我間得入賊必難留 然後此要擊 可得

大志於倭 彼必不敢再犯朝鮮矣 議定約會各路

劉綎亦遣人諭行長 中路使督陣茅國科 持撫臺檄 賚金帛見義弘 動以大義 諭以利害 郭國安從傍贊之 義弘許諾 國安私謂國科曰 國有大故 勢當疾歸 所恃者釜山數月粮耳 不若密遣人 一炬焚之已而倭衆乏粮 歸心益迫 清正無粮 令人見義弘叩借 義弘曰 吾粮亦盡矣 奈何往叩 各營皆然 始相約撤兵 清正因人心變動即日先撤蔚島之兵 次石曼撤泗川 次行長撤順川 俱陸續渡海 茅國科問 許儀俊密報 ……中略…露梁海戰…… 中略官兵 奪下粮二千五百石 馬三百疋及倭器刀屛 不可數計 斬級亦三十二顆 皆又乘勢分擊 金海固城 倭皆一時宵遁 是役也 設非天奪其魄 用間出奇 力攻血戰豈旦夕所能奏績 統論四路 自晋江渡而望津破

中路之首功也　火粮儲而人血戰　中路之次功也八寨平而一倭不留　中路之全功也　海上之捷則陳璘功爲冣　至是三路二十一寨之倭　悉已蕩平　董一元入新寨　見大寨凡四層　倭房數千間石城外　又爲本城三層　極其牢密　寨内器用床几屛風　一色泥金　最爲精巧　又有違制金絲鸞駕　金絲掌扇(此二物非倭將携來恐是朝鮮王京所掠者)　炳耀奪目　董令悉焚之　望津固城二寨房董　亦付烈焰　此戊戌十一月事也　倭酋歸國朝鮮復安　<兩朝平攘錄 卷之四>

日側資料;

十日　義弘父子入海南城　點檢賦税　經略忠清道　朝鮮人據城者　皆望風遁去無迎戰者　遂轉還全羅道屯泗川營　泗川明人稱之新寨　<征韓錄>

義弘所築城　號之泗川城　其列砦者四　永春望津晋州故舘　明人稱故舘爲舊寨　<征韓錄>

義弘兵寺山久兼率兵二百臨江固守　先是義弘令望津永春昆陽守寨兵　皆退新寨　欲誘明兵令渡河壓之近地　明人不悟　渡河而陷三營　<同　上>

義弘兵欲出戰 義弘曰彼多兵也 不可容易戰 俟彼來攻一擧決勝敗　一元使茅國科詣新寨說義弘以和親　義弘不從　二十八日　明兵襲泗川舊舘　<征伐記 秀吉譜>

舊舘義弘兵川上忠實相良賴豐等　以兵三百守之　義弘既令忠實等退新寨　忠實將發　一元兵適　來攻 戰死百五十餘人　<征韓錄>

此日義弘忠恒追擊明兵　自午至申　斬首三萬八千七百餘　其餘投望津河水而死 義弘忠恒手親所斬殺許多　薩兵死者市來清十郎瀨戸口彌七二人而已　先是蔚山順天與明兵相持 此日明兵進圍城　聞泗川敗　皆解圍逃去 二日　義弘命鑿城畔地二十間　埋斬首　築塚爲京觀　<島津家記>

以其所劓　盛十大樽　贈於名護屋　自此明朝鮮彌畏石曼子兵威　明音呼島津國訓爲石曼子　<秀吉譜>

此日義弘發使于名護屋　報戰捷　利家景勝與東照宮議而答書　賞其大功　且令諸將退釜山而班師于本邦　<島津家記 古簡雜纂>

明主斬馬呈文郝三聘　彭信古等職　奪一元官　<董一元傳>

明兵之向順天也　明水軍至海口　義弘與寺澤正成議　發水師襲之　敵軍敗去　我兵追擊　燒其後去船二艘　<島津家記忠恒與薩州留守臣書>

張昻明南京人也　幼喪母　繼母惡昻欲害之　昻遁來本邦　居薩摩頴娃郡民原　土民憐而撫育焉天正十六年繼母歿而赴來　於是又還南京　以其久居本邦爲譯者稱孫次郎　寺澤正成問昻曰　泗川勝敗明人評之如何　昻曰我聞國器所言其說曰　我敗于新寨其失有五矣　島津令寡兵據望津險　吾誤謂兵多　自六月末至九月相持　遂令新寨修營堅固其失一也　予謂先拔固城泗川自潰而一元不從予言　攻泗川而敗其失二也　戰泗川也　令陳璘乘其虛　以舟師燒城而璘失期不至其失三也　予又謂彼軍無大砲而彼以大砲擊破且燒藥櫃出我不意其失四也　及彼虛城以逐我兵予欲乘機搗其虛而爲島津忠長所支吾其失五也噬臍何及矣　<征韓錄>

東照宮與利家等議謂　非義弘泗川大捷　我軍振旅不容易　其功爲最　於是賞元功賜長光刀于義弘加賜封邑四萬石　賜正宗刀于忠恒任近衛少將加賜出水邑地　<征伐記>

朝鮮には　城持の衆計にて　諸勢歸朝ありて無勢なれば 朝鮮人共島津が泗川の城にありしを攻落すべき由　評定しけるを　下居の者知り島津に告知らせし此者には過分に祿を與へ　用心稠くして待ち居たりけるに　敵十萬餘騎にて　明日は是へ寄せ懸り候と申しければさらばとて五百騎三百騎或は千二千　方々の詰り詰りに伏せ置き　城に火を三つ上げたらば 諸所の伏を起して　打つて懸るべしと　約をなして待ちし所を　未明に大勢懸り來りしに 鐵炮少々打懸け　弱々と引退きしを見て　朝鮮人共勝に乘つて追懸けしを　城傍迄引付け合圖の火をあげしかば　方々の伏勢思も寄らぬ所より　喚き叫んで懸りしに 朝鮮人叶ふべきやう

なくして　敗れけるを追付々々數萬討捕りし 玆に因つて 歸朝の時秀賴公御褒美ありて 五人の奉行衆より感狀給はりし　其狀此の如し
令度朝鮮國於泗川表 大明朝鮮人催猛勢 相動候處父子被及一戰 則切崩 敵三萬八千七百餘被討捕之段 忠切無比類 依是爲御褒美 薩州の內 御倉人給人分有次第被宛行畢 目錄別紙左之 并息又八郎被任少將 其上御腰物(長光)父義弘へ御腰物(正宗)被拜領候　於當家御名譽之至也 仍狀如件

安藝中納言　輝元
會津中納言　景勝
備前中納言　秀家
加賀大納言　利家
三河內大臣　家康

<毛利秀元記卷之四>

一百四，倭橋城 戰鬪(戊戌 年自九月二十日至十月三十四日)

(一) 我側 史料

冬十月初一日　劉綎與諸將　期明日攻城 至以所募先鋒數千　乘輪車兼輸竹編高梯 漸次近城大軍皆離陣露屯 本國將士從之 二日黎明 綎建大將旗 登山臺傳令指揮　一棒鑼響　大軍進薄 前鋒已入城下　馬兵萬餘　具甲冑列爲後援賊登炮樓 放大炮無數 木石不能支 前鋒在西北城下 依泊輪車於木柵 未容一步 無計攻城朝日已高 瘴霧初收 忽城西狐頭剝擊聲中 天兵散亂顚沛 賊倭或殺或擒 牽驅入城 走脫者或中丸 踏菱鐵 無一人全還 日午城北前鋒俱縮 防車因夜不寐 忘備困睡 賊倭或留城下 或出城穴揮劍亂斫　又自城內 投出薪草 焚爇輪車竹編諸具 死屍燒爐 烟焰張天 是日天兵死者八百餘名 賊亂出城外 肆然往來 少無疑忌日暮大軍暫退 賊兵又出逐追 俄而數賊走到兩間 爇火于薪草 土石火 連日不絶 提督慰衆曰以吾兵力之盛 滅此小醜 有何所難 今姑停戰者 要看賊勢云云 時本道兵使屬曺副總 進至城下 余在前鋒 亂射出城之賊 賊丸 如雹 旁人多死　及矢盡 告于兵使李光岳 以費用咎之 不許 本營漸退 天兵把摠李兪見余竭力射賊 極言于兵使 得片箭二部 寄余繼用

初三日 劉綎密通水路 約夜中潮入 水陸協擊陳璘許之 夜二更 驅諸船乘潮肉薄 侵攻水寨陸兵但作鵝聲相應 水兵以爲陸陣 已入賊城 交競先登 殊死混戰 夜潮急落 舟居陸地 賊兵闌入泥淖 圍擁唐船 緣登亂殺 天兵力窮 遂自焚其舟 凡四十三隻 火徹夜不絶 賊倭追捕脫出天兵 無慮數百 稱呼上官祝手求活之聲 聞于陸陣 本國船三隻亦在其中 艫甚高堅 射矢如雨 賊不敢近 翌曉潮至得出

初四日 陳璘發憤 悉引舟師 更入侵城 賊多設大炮船滄 亂放無數 舟師不能支 還退 陳璘大怒登陸到劉陣 手裂帥字旗 責之膓不好 即於劉前 具咨軍門 綎面色如土 未措一辭 但擧手扣胷 長呼大痛曰 將官無人 吾何獨能 是午賊自毁其西城十餘尺 出軍城外 輸入土石 不知其何爲也 及明曉視之 已作大門 爲馬軍亂出之路

初五日 賊兵 恣其出入 亂到寨外 放丸而去劉綎密發騎兵 追趕不及 是昏嶺南三天 (在泗川南三十里柳管堡也 後有烽應)後峯 擧火三柄倭橋三層閣上 亦擧火相應 都元帥即以忠清兵千餘名 遮截于蟾津陸路 李舜臣亦以慶尙右水使李純信 領兵把守露梁水路

初六日 劉綎有退師之計 令本國諸將 軍中老弱有病人 盡爲出送 權慄解其意 令軍卒先出者 輸軍糧一石

初七日 劉綎又令曰 麗兵在此無益 盍先退去權慄急令各陣退兵　綎又令陪臣接伴元帥兵使等 掃盡先出 夜半提督領大軍 盡棄甲帳而退屯富有 所餘天兵糧七千九百餘石 我國諸將私糧千餘石 盡爲棄來 牛馬亦多棄失 翌日賊見我陣寂然 大以爲恠 不敢輕犯 及至退來 盡燒糧器 居數日 皆會富有

十一日 王按察往谷城 劉綎自富有會話 綎即還軍 權慄令我國諸將 還進松峙 其入偵候 劉綎進陣雙岩 陳璘與李舜臣 因在倭橋海洋 日日挑戰 賊不敢動 後數日 劉綎自雙嵓進軍佛

隅 列寨山坂 <趙慶男撰 亂中雜錄三>

所謂史橋者 自古相傳而無橋 形勢絶勝 爲湖南之第一 至是倭酋據 築石臺極高 盖我國方音 橋與臺之義相似 故訛傳爲橋而所謂讖也耶 <大東野乘卷八 四二面>

十六日 劉綎親領大軍進倭橋 觀兵而退 陳璘與李舜臣 退屯瓦頭 出入偵伺 行長欲通消息于嶺諸陣 募人千金 冒夜乘潮 傍岸潛出 告急於泗川南海 又使人于劉 講約相退 劉許之 行長又傳言曰 水兵相逼 欲去未能 須以陸兵護過舟師云 劉綎以呉副摠具四十人 入送倭橋 行長大設宴享 接副摠于城外 呉廣付其人面議和事而退 <趙慶男撰 亂中雜錄三>

劉綎主西路 攻行長於順天倭橋 約與行長相會講和 粧旗牌官爲提督 虞侯爲接伴使 提督自着千摠服侍立而令王之翰等 乘行長出城 進兵薄城遮截而綎從中擒之 埋鴿二十於中路 放鴿爲號 計已定 行長未及草舍 望軍勢甚盛 持疑不進 俄而放哨鴿 東路兵遽進放丸 行長驚惑還走入城 提督催軍追趕 三路合勢 斬九十餘級 遂圍賊砦 密通陳璘水路夾攻 是夜璘乘潮肉薄水寨 聞陸軍鶩聲 意其已入城 殊死先登潮水忽退 爲賊所乘 自燒其船四十隻 僅得脫璘大憤 親到綎帳中 裂破綎帥旗 責以心腸不好 即欲俱報軍門 綎面色如土 扣胷大痛 以謝之 棄甲拋糧還屯富有 與賊約退 通于璘賊方解歸 可好放送 璘恚答曰 水陸異責各自爲之行長與綎約和 留首級器械而去 綎乃入城 搜出首級而我國被擄及質倭六人併斬 以克級 以金字大書西路大捷四字 飛報軍門 人皆不直之矣 <朝野會通卷之十六 宣祖紀>

初行長合諸營兵數萬 屯于順天曳橋 築砦數重綎進軍順天故城 與行長約爲會盟 伏兵兩路……中略……綎追之不獲 陳璘亦率水軍千餘艘以李舜臣爲先鋒 進屯順天前洋 船艦塡咽 悉以黑布爲帆 列竪雜彩旗 飛揚眩耀 岸上兵聳視 當是時 水陸連陣 軍威甚盛 見者咸謂指期可破賊 義兵將林懽入見綎 出語人曰 劉公無戰心 必以和退也 綎令造雲梯飛樓砲車 曠日訖工 甲寅綎乃令進兵攻城 陳璘亦率水軍協攻鼓噪齊進 飛樓砲車重不得速運 賊從城上放丸如雨 天兵多中斃 皆屛縮依樓車立 綎意沮不復號令 諸軍久立疲倦 或入車而睡 潮水漸落璘軍亦追賊 賊潛從掛窓下 縱百餘人 斫副摠兵呉廣軍 廣軍亂遁 賊入車斬數十人 盡焚飛樓砲車 天兵皆望風退 賊遂恣睢跳蕩 殺天兵八百餘人 李芳春牛伯英擊退之 是日諸將皆不能軍 獨義兵將林懽一陣不動 人皆目之曰 此進士軍也 綎命拿呉廣 廣憤不受命 綎與陳璘約明日夜攻 璘及期乘潮急攻 而綎不出兵 但鼓噪相應 璘軍以爲陸兵已入城 爭先騰進自初昏 戰至二更 李舜臣以潮退白璘 璘意氣方銳督戰益急曰 今夜盡賊乃還 夜潮急落 天兵船二十餘艘 一時膠淺 賊出兵圍擊 盡焚之 是夜賊城幾陷 行長所居屋三中大砲 賊悉聚東北面奔走拒戰 岸上兵望見水兵 千砲沸海 火光中劍戟競發 莫不躍躍思奮而被擄人又越城奔告曰 此面空矣 李德馨權慄 馳詣綎帳 函請殺入綎不從 軍中憤歎 是夜膠船兵 盡爲賊擒 有一卒拿槍殺賊無算 力竭投火而死 觀者壯之 李時言方在陸軍 潛發片箭手數百 從暗中多射岸上賊 賊遂開一面 天兵一百四十人 埋在泥中乘隙走上岸 所執刀鎗不血染而勾曲 可知其力戰狀也 我國船三隻亦在其中 制甚高堅 射矢如雨 賊不敢近 乘曉潮得出 時我國人見劉公所爲歎曰 此眞兒戲耳 若使揚撫臺在陣上 豈如是耶 璘大怒 馳入綎營 手裂帥字旗 責以心腸不美 即其具咎軍門 綎面色如土 但叩胸吁歎 歸咎諸將而已 綎旣攻城不克 又聞中路敗報 乃議退兵 李德馨力止之 綎佯許而先令權慄撤兵 遂焚營繼退 遺棄甲帳牛馬無算 失軍糧九千石 是日舟師乘潮而退則岸上軍已空矣璘益憤曰 寧爲順天鬼不忍效汝退也 監軍王士琦在南原聞之 急遣人止綎退兵 而將拿綎將王之翰司懋官斬之 綎不得已 復進順天 列寨觀兵而賊終不出(露梁戰時)行長乘其間 潛出猫島西梁 向外洋而遁 劉綎猶斂兵不動 (露梁戰後)劉綎入曳橋 取行長所留首級 併殺我國被擄人

南海得糧遺置者　以充之 稱以西路大捷　以報軍門

<宣廟中興誌 卷六戊戌>

劉綎與諸將　往覘順天　見倭軍據險　外設木柵知不可力攻 姑爲引出之計　先遣間使誘行長請以二十日(九月) 相會於隙地　講和休兵　綎應單騎俟中道　行長信而諾之 綎乃伏兵數千于途左右 中間設草舍 埋哨鴿二十餘　約 行長抵舍乍放鴿 則左右齊起　薄城遮截 必擒之 巡以巡察使黃愼與行長相知　使之赴迎 行長平服從數人 持寳刀一雙　至中路 望見天兵之多　始異之俄而數鴿飛散　伏兵四起　齊發砲 行長驚　躍馬回馳 綎麾軍 三路合擊　行長　馳入城　據壁固守 陳璘以水兵千餘艘　向順天以李舜臣爲先鋒船皆以黑布爲帆 自猫島 鼓譟 飈旋而進　二十一日夜令諸軍　各備五枝炬 俟中軍鳴鑼一時擧若將向城　賊兵應聲 連發砲銃 火蔓城外 明日又進擊　不利引退 綎造防車防牌 將又攻城 行長築新寨於城北海口 多設砲樓 樓下穿銃孔 分兵守之……(中略)……

十月二日　劉綎又募先鋒數千　乘輪車　編高梯漸逼順天城　我國兵皆從之　綎建大將旗　令諸軍齊攻　前鋒已抵城下　馬兵萬餘爲後援　賊登砲樓 放火砲木石　兵不能支 忽於城西狐頭 有聲剝鏨　天兵盡傷丸劍　又路菱鐵 散亂顚沛　城兵追槍　或殺或擄走脫者中傷　又從城穴　揮劍亂斫　投薪焚輪車竹編　死屍燒盡　天兵死者八百餘人　綎強以大言慰之 許令姑停 三日　綎密通陳璘　約待夜汐入　水陸並攻順天　水兵聞鵁鳥聲 以爲陸兵已入城　殊死先登 潮乍退 船膠淺 不能動 賊兵涉泥濘　圍而亂殺 璘 舜臣 頓足不知所爲 自焚其將四十三隻　兵多束手乞降四日　璘又引舟師進攻　又敗 乃大怒　登陸到綎帳中 手裂綎帥字旗 責以心腸不好　即具由 馳告邢玠　綎面色如土　扣胸大痛曰　將官無人 吾何獨能是乎　七日夜　綎急退陣　盡棄甲冑器械走富有 失糧餉七千九百餘石 賊見營中寂然 大怪之 使人伺之 無復隻兵留者　璘因泊海岸 綎從富有 移陣佛偶山

<燃藜室記述>

九月十五日　聞諸賊將欲撤歸 公及都督領舟師發行

十九日　至于左水營前

二十日　進陣於順天之曳橋(即倭橋) 乃賊將平行長陣前也　賊峙糧獐島　遣兵取來 盡焚其餘

<李忠武公行錄>

戊戌九月十五日丁酉晴　與陳都督 一時行師到羅老島　十六日　十七日　留羅老島　十八日庚子晴　未時行師　到防踏　十九日辛丑晴朝移泊左水營前洋則所見慘然　三更移泊于何介島　未明行師

二十日(萬曆二十六年九月) 壬寅晴　辰時到柚島　天將劉提督已爲進兵　水陸挾攻　賊氣大挫有惶懼之狀 舟師出入放砲

二十一日癸卯晴　朝進兵 終日相戰而水潮至淺不能追戰　南海之賊 乘輕船入來 哨探之際 許思仁等追之　賊下陸登山　其船與雜物奪來　即納都督

二十二日甲辰晴　 朝進兵相戰而遊擊中丸左臂不至重傷　唐人十一名中丸而死　知世萬戶　玉浦萬戶　中丸

二十三日乙巳晴

二十四日丙午晴　南海人金德有等五人出來 傳其境賊情　陳大綱歸

二十五日丁未晴　陳大綱還來 劉提督簡來傳 金鼎鉉來見

二十六日戊申晴　鄭應龍　來言北道事

二十七日己酉雨　西風大起　邢軍門送書　嘉水兵之速進　食後 見陳都督　從容論　夕　愼好義來見而宿

二十八日庚戌晴 西風大起 大小船不得出入

二十九日辛亥晴

三十日壬子晴　是夕 王遊擊 福遊擊 李把總 率百餘船到 陣燭炫煌 賊徒必破膽

十月初一日癸丑晴　都督曉到劉提督處 暫時相話

初二日甲寅晴　卯時進兵　我舟師先登　至午相戰　多殺賊 蛇渡僉使逢丸戰亡 李清一亦爲致死 薺浦萬戶朱義壽　蛇梁萬戶金聲玉　海南縣監柳珩 珍島郡守宣義卿 康津縣監宋向甫 中丸不死

初三日乙卯晴　都督　因劉提督之密書　初昏進戰至三更　搏擊沙船十九隻 號船二十餘隻被焚 都督之顚倒不可言　安骨萬戶禹壽中丸

初四日丙辰晴　朝進船攻賊　終日相戰　賊徒蒼黃奔走

初五日丁巳晴　西風大吹　各船艱難浮泊度日

初六日戊午晴　西風大吹　都元帥　送軍官致書曰　劉提督欲爲奔退云　痛憤痛憤

初七日己未晴　劉提督差官　來告督府曰　陸兵暫退順天　更理進戰云

初八日庚申晴

初九日辛酉　陸兵已撤　故與都督　領舟行到海岸亭

初十日壬戌　到左水營(亂中日記四)

劉綎統大兵攻行長於順天　將發全州　李德馨問進兵期　提督曰刑牲祭旗告天誓衆然後後漸次進兵　擇便下營　休兵數日　方有所爲　盖綎不欲進戰也　德馨又問曰差官自曳橋(順天賊陣所在之地名)出來所報如何　提督以行長答書示之曰聞關白已死　行長亦去其書　即行長遣差官杜趙兩旗牌者而書中但說初七八日間相會云

十一日　提督祭旗於敎場 天朝諸將及我國議政李德馨接伴使金睟都元帥權慄巡察使黃愼兵使李光岳李時言防禦使元愼等咸與在列　祭訖取雞血和酒盛銀杯置卓上　提督以下以次入讀誓文飮揖退其誓辭則乃悉聽天朝號令　凡調遣餽餉毋敢抗違云　下至千把摠哨官我國小將官無不參盟者　遂部署諸軍　吳廣領五千六百　同元愼入樂安之路　王之翰司懋官李寧領八千同李時言入求禮光陽之路　提督率李芳春等兵萬餘同李光岳入順天之路　哨探人來言晋泗賊酋皆會曳橋　提督密通董提督　使函進兵示進勦之形待晋泗之賊　還其巢穴然後進攻曳橋　二十日始到順天舊城　差人約行長來會　裝束旗牌官王文憲爲提督　提督自着千總冠服　虞候侯翰南爲接伴使　都元帥軍官卞弘達爲都元帥　往迎行長于中路而王之翰司懋官等　從光陽進兵　乘行長之出　薄城遮截而提督從中擒之　先埋哨鴿二十餘於中路　約於行長進住草舍之時　放鴿則兩路齊攻　行長出海農倉　未及草舍望見軍勢甚盛　持疑不進　俄而軍中放哨鴿　東路兵遽進放砲　行長驚惑走還入城　提督催軍追趕　三軍合力斬九十餘級　賊不敢出城　是夕水兵都督陳璘率舟師來屯前洋

二十一日　都督令舟師諸舡乘早潮進泊近岸　放大砲　賊不敢近　夕賊由西門出　揮劍進退　天兵一騎冒銃砲突進　奪其一旗而來　賊走入城　夜提督親兵巡各營達曙鑼警

二十二日　舟師乘潮而上 鼓噪而進 賊悉兵出城觀遊擊季金所騎舡閣於淺灘　岸上之賊　放丸如雨　天兵從舡上亦放大鉛子　行長揮兵督進　賊二十餘直涉淺攔止其舡　季金鼓其軍抗戰斬十餘級　賊少却　遂刺舡而去　提督令備雲梯飛樓炮車十餘日訖工　持久之際賊之姦計滋矣

二十九日搬運於城外　大張鼓吹水兵亦蔽海而來　各自耀武吶喊　砲銃有若霆擊地劃　賊錯愕喧叫不能定息

初二日　提督發軍攻城 王之翰軍先登木柵外十餘步 賊從城孔出以劍斫　天兵死者四十餘人 不得進而退　俄又進斬十餘級 時水兵已到前洋 提督麾衆前進而天兵多斃於賊丸　三軍氣沮　飛樓砲車重不得速運　僅致二十步　賊益放丸　衆皆屛縮依樓車立　賊大發喊　放大小砲　天兵進退維谷　氣已衰竭　潮水漸落水兵亦退　賊潜從掛窓下縋百餘人斫吳廣軍　廣軍亂　廣遁　賊入車斬二十餘人盡焚飛樓砲車　李芳春牛伯英等扞之 賊尋退去

初三日　陳都與統制使李舜臣乘潮來攻　督戰曰各舡各拿數舩來　今夜必盡滅此賊　無遺也 舜臣以潮退白之　都督不聽　各舡迭相進　奪賊船不覺潮退　沙船號船二十三隻　膠於淺灘　賊見之　坌集各舡圍之　船上人亂用刀槍下斫之　賊死者不知其數 天兵亦多死　我國兵用片箭從暗

中射之 賊始開一面 天兵之陷於浦口泥中者一百四十人 至是俱得脫 天兵舡被燒者十九艘 被擭者四艘 我國被擄人從城下呼曰賊衆悉聚東邊 此面空虛 若乘虛擊之可勝也 李德馨權慄金晬等□進請戰 提督不聽 及聞中路敗報 決意回軍 李德馨等又止之 提督佯許而軍情已動不可留矣

初七日 回軍先發步兵移屯於後峯 焚各營向潺水之路 是時潮水方至 舟師乘潮欲更圍賊穴 見陸軍已散 遂廻船 王參政士琦在南原 聞提督撤回 遣人止之 將拿王之翰司懋官治之 提督往見參政 參政欲以舟師先攻南海賊 提督不肯從 以王司吳曹四將兵一萬餘 屯順天 吳廣屯城內

十七日 提督上曳橋十里外高峯上 閱視各壘還雙岩寺

十八日 與吳宗道及降倭等密議與行長約和 提督遣金帛於行長 行長獻銃劍且請遣質官退兵 提督以旗手劉萬守王大功 稱爲參將 帶家丁三十而行 行長以家丁小請加二十人 提督從之 行長密謀曰我留首級器械而去 可入城取之

二十四日 悉衆發還 提督入其城 行長已出外洋矣 搜出首級我國被擄人散處山谷者幷被斬殺 行長所送質倭六人亦被斬以充首級 以金字大書西路大捷四字 飛報軍門 人皆不直之

<申欽象村集卷之五十六>

初二日——陸軍; 劉提督引兵乃於初二日攻城 王之翰軍先登木柵外十餘步 賊從城孔出 以兵斫天兵 死者四十餘人 不得進而退 俄又進擊 斬千餘級 時水兵已到前洋 提督麾衆前進而天兵多斃於賊丸 三軍氣阻 飛樓砲車 重不得速運 致二十步 賊益放丸 衆皆屛縮 依樓車立賊大發喊 放大小砲 天兵進退維谷 氣已衰竭潮水漸落 水兵亦退 賊潛從掛窓下 縱百餘人 斫吳廣軍 廣軍亂 廣遁 賊入車斬二十餘人 盡焚飛樓砲車 司懋官王之翰等 性剛不奉主將之令先遁 李芳春牛伯英等扞之 賊甚退去

初三日 陳都督與統制使李舜臣 乘潮來攻督戰曰 各將各拿數將來 今夜盡必滅此賊無遺也 舜臣以潮退白之 都督不聽 各將迭相進奪賊將 不覺潮退 沙船號船二十三隻 膠於淺灘 賊見之坌集 各船圍之 船上人亂用刀槍下斫之 賊死者不知其數 天兵亦多死 我國兵用片箭 從暗中射之 賊始開一面 天兵之陷於浦口泥中者 一百四十人 至是俱得脫 天兵船被燒者十九艘 擭者四艘 我國被擄人從城下呼曰 賊衆悉聚東邊 此面空虛 若乘虛擊之可勝也 李德馨 權慄 金晬等 再進請戰 提督不聽 及聞中路敗報 決意回軍 李德馨等又止之 提督佯許而軍情已動 不可留矣

初七日 回軍 先發步兵 移屯於後峰 焚各營 向潺水之路 是時潮水方至 舟師乘潮 欲更圍賊穴 見陸軍已散 遂回船 王參政士琦在南原 聞提督撤回 遣人止之 又遣旗牌官 將拿王之翰司懋官 欲斬梟示 提督聞之 止衆軍于順天故城 因往見參政 參政欲以舟師先攻南海之賊 覆其巢穴 斷其歸路 提督不肯從 以王司吳曹四將兵一萬餘 屯順天 吳廣屯城內

十七日 參政隨提督 上往橋十里外高峰上 閱視各壘還雙岩寺

十八日 與吳宗道及降倭等相議 與行長約和 提督曳金帛於行長獻銃劍 且請遣質官退兵 提督以旗手劉萬守王大功 稱爲參將 帶家丁三十而行長 以家丁小 請加二十人 提督從之 行長密謀曰 我留首級器械而去 可入城取之

二十四日 悉衆發還 提督入其城 行長已出外洋矣 搜出首級 我國被擄人散處山谷者 幷被斬殺 行長所送質倭六人 亦被斬殺 以充首級 以金字大書西路大捷四字 飛報軍門 人皆不直之 是時圍賊相持旬餘不決 李芳春語人曰 當有別議 未幾行長撤去 盖但用計退之而芳春知也 陳都督亦率舟師 乃於初一日與劉提督相見曰 我造梯衝未完 軍門添兵 及鄧子龍水兵亦未到 我欲待諸軍俱到擧事 都督曰 師徒暴露已久 賊必窺我情形 不知速戰之爲愈 提督不得已從之

初二日——水軍; 提督將進攻賊穴 提督領諸船

乘潮而上 過午陸兵不進

初三日——水軍 又乘晩潮大戰而陸兵又不至

初七日——水軍 又進而提督己撤陸兵矣 都督憤曰 我寧爲順天鬼 不忍撤兵 不要攻城 每戰殺倭數百 倭亦盡矣 連日進攻皆捷

<再造藩邦志五，大東野乘卷八 (四十七面)>

天朝總督軍門大司馬邢玠　用三大將三路再進 提督麻貴趍蔚山之路　提督董一元趍泗川之路 提督劉綎移順天之路 大軍將發 三大將各有希冀要得本國名將爲之協隨　麻貴劉綎皆要得權元帥 (權慄)爭之不己 上竟以公屬之劉綎 天兵至順天 圍倭橋不能拔 劉提督本無戰心 公憤恚自募各營敢死士勇於衝鋒者　大呼先登請與天兵協力齊進則　提督曰試召諸將議之依違而已 其意己決退矣 提督攻圍九日 軍竟無功

<李恒福 白沙集卷之二十一>

（二）明側　史料

九月東征將士分道進兵 劉綎進逼行長營 使呉宗道約行長爲好會 行長許以五十人往綎喜分布諸將 四面設伏令部將詐爲綎而 綎詐爲卒執壺觴侍令軍中曰　視吾出帳即放砲圍倭盡殲之翼日行長果率五十騎來　僞綎盤折於帳外迎及席 行長顧執壺觴者曰 此人殊有福 綎驚愕置壺觴出 司旗鼓者遽傳砲 行長騰躍上馬 從騎一字鴈列 風剪電掣 旋轉格殺 遊擊王之翰 急率黔苗兵來援 倭已奪路而去 明日行長遣人謝宴 綎亦遣官謝謂昨登席放砲敬客禮也 悮生疑心行長唯唯遣使遺綎以巾幗　綎進攻城奪其橋斬首九十二 陳璘舟師協堵擊毁倭船百餘 行長至蔚山 千餘騎扼之 綎不利退 璘亦棄舟走 麻貴潜出 據險割其糧稻頗有斬獲 倭僞退誘之 貴入其空壘 伏兵起 旗幟蔽空 遂敗

<明記事本末卷六十二 援朝鮮>

劉綎任西路 統率所部 居水源地方 攻順天寨倭 倭築近大海中 劉兵不能達 乃謀襲惟敬故智 欲誘行長出會擒之 因遣間使呉宗道等 入倭營告行長曰 先鋒昔年曾以請封 與中國盟誓本出誠心 特緣淸正狡謀 惑亂關白 致有今日我天兵遠來異國 尓衆亦渡海間關 今雨下師老財匱 終非久計 今提督欲親會通好 仍結前盟以遂夙願 行長初猶未信 後通事累次往 綎皆單騎俟於中道 以示不疑 行長覘知 因信諾 八月一日 相與約定 行長將出赴會而綎部中一倭千總 密洩其謀 行長大驚起中道遁去 綎計不就 遂率兵進攻 失利回 監軍王士琦 聞報怒綎不用力 傳令縛綎坐營 綎懼不敢歸 乃督諸將奮勇還戰 遂大勝 倭斬獲頗衆 倭敗入釜營 不敢復出　<兩朝平攘錄卷之四>

一百五，露梁 海戰(戊戌年十一月十九日)

(一) 戊戌十一月初八日 詣都督府 設慰宴 乘昏乃還　俄頃都督請見 即進則順天倭橋之賊(小西等)初十日間撤遁之寄 自陸地馳通 急急進師 遮斷歸路云

初九日 與都督一時行師 到白嶼梁結陣

初十日 到左水營前洋結陣

十一日 到柚島結陣

<李舜臣의 亂中日記>

十三日 倭船十餘隻 見形于獐島 即與都督(陳璘)約束 領舟師追逐 倭船退縮 終日不出 與都督還 陣于獐島焉

十四日 倭船二隻 講和事 出來中流 都督使倭通事迎倭船 戌時 倭將乘小船 入來督府 猪二口 酒二器 獻于都督云

十五日 早朝往見都督 暫話乃還 倭船二隻 講和事 再三出入都督陣中

十六日 都督使陳文同入倭營 俄而倭船三隻 持馬與槍劍等物 進獻都督

十七日 昨日伏兵將 鉢浦萬戶蘇秀男 唐津浦萬戶趙孝悅等 倭中船一隻 滿載軍糧 自南海渡海之際　追逐於閑山前洋則倭賊依岸登陸而走所捕倭船及軍糧 被奪於唐人 空手來告……

이것으로 日記는 絶筆.　<同上>

行長曰 兵貴不血 願假我途 璘許之 且令舜臣借途 舜臣責璘曰 將不可言和 讐不可縱遣 此賊 亦天朝難赦之賊而大人反欲許其和耶 璘默然……舜臣與璘爲夜攻計 蓐食潛發 舜臣於船上 焚香祝天曰 若殲斯讐 死亦無憾 璘舜臣分

軍 爲左右協　伏兵浦嶼間　整束以待　夜半 賊船五百餘艘　自光州洋直至露梁　於是　兩軍左右突發　賊散而復合　兩軍亂投薪火　延燒賊船　賊不能支　退入觀音浦港口　天已曙矣　賊旣入港而後無歸路　遂還兵殊死戰　諸軍方乘勝蹙之　舜臣親援枹先登　賊圍舜臣　急　璘犯圍　直入救之 賊又圍璘船　舜臣亦衝圍而進　合力血戰　副總將鄧子龍船中火起　一軍避之驚擾　船爲之傾　賊乘之　殺子龍　焚其船　我軍望之　誤相指認曰　賊船又火矣　遂勵氣爭先　益增歡呼　賊酋三人坐樓船督戰　舜臣盡銳攻之　射殪一酋　賊皆捨璘來攻　璘遂得出　與舜臣軍合　發虎蹲砲　連碎賊船　而飛丸中舜臣左腋　舜臣謂其下曰　戰方急　勿言我死　急命以防牌蔽之　言訖而絶　麾下士依其言　秘不發哭　麾旗督戰自如　柳珩　宋希立　皆中丸悶絶　少頃復起　裹瘡而戰　日午賊大敗　追焚二百餘艘　賊兵燒溺　俘斬殆盡　義弘等僅以餘兵五十艘脫走　行長乘其間　潛出猫島西梁　向外洋而遁　劉綎猶領兵不動　璘望見舜臣軍爭取首級倭貨　驚曰　統制死矣　已而果發喪　璘躍而仆者三　擊地大慟　兩陣號哭聲　殷海中

<李忠武公全書>

行長之遁也 統制使李舜臣以舟師追之大捷　戰方酣　舜臣中流丸　裨將孫文彧秘其死　擊鼓督戰如常時 天朝陳璘素服舜臣智略　待爲兄弟 是日望見舜臣舡爭首級　大驚曰統制使死矣　左右曰何以知之　璘曰吾觀統制使軍律甚嚴　今其舡爭首級而亂　是無號令也 戰旣罷問之則果然矣

<金時讓撰　紫海筆談>

十八日酉時　賊船自南海無數出來 依泊於嚴木浦　又來泊於露梁者不知其數　公約于都督　是夜二更同發　四更到露梁遇賊五百餘艘　大戰至朝　是夜三更　公於船上　盥手跪祝于天曰　此讐若除　死即無憾　忽有大星　隕於海中　見者異之　十九日黎明　公方督戰　忽中飛丸　公曰　戰方急　愼勿言我死　言訖而逝　時公之長子薈　兄子莞　執弓在側　掩聲相謂曰　事至於此　罔極罔極　然若發喪則　一軍驚動而彼賊乘之　尸柩亦不得全歸　莫若忍之以待畢戰　乃抱尸入於房中　惟公之侍奴金伊及薈莞三人知之　雖親信宋希立輩亦未之知也 乃麾旗督戰如前不已　都督船幾陷　諸將見公船俄麾　爭赴救解　戰罷　都督移船相近曰　統制速來速來 莞立於船頭　哭曰　叔父命休　都督仆於船上者三　大慟曰 旣死之後 乃能救我　又拊膺哭之良久　都督軍亦皆投肉而不食　柩發　自古今島返于牙山 一路民庶老幼男女 號痛隨之　士子備酒奠　操文哭之　如悲親戚　都督諸將　皆作挽以哀之

<李忠武公行錄>

追至南海界　舜臣親犯矢石力戰　有飛丸中其胸出背後　左右扶入帳中　舜臣曰　戰方急　愼勿言我死　言訖而絶　舜臣兄子莞　素有膽量 秘其死以舜臣令督戰益急 軍中不知也　陳璘所乘舟 爲賊被圍　莞望見揮其兵救之　賊散去　璘使人于舜臣謝救己　始聞其死　從椅上自投於地曰　吾意老爺往來救我　何故亡耶　拊膺大慟　一軍皆哭　聲震海中　行長乘舟賊過其營　自後逸去

<柳成龍撰　懲毖錄二>

十八日己亥　島津義弘與南海賊將平調信等　合兵來援　將近露梁　行長擧火相應　舜臣與璘　爲夜攻計　蓐食潛發　舜臣於船上　焚香祝天曰　若殲斯讐　死亦無憾　忽然大星隕海　見者驚異　璘舜臣　分軍爲左右協　伏兵浦嶼間　整束以待　夜半賊船五百餘艘　自光州洋　直過露梁　於是兩軍左右突發　賊散而復合　兩軍亂投薪火　延燒賊船　賊不能支　退入觀音浦港口　天已曙矣　賊旣入港而後無歸路　遂還兵殊死戰　諸軍方乘勝蹙之　舜臣親自援枹先登　賊反圍舜臣船急　璘犯圍直入救之　賊並圍璘　兩賊躍上璘船　幾及璘　璘子九經以身捍之　被賊所刺　血淋漓猶不動　旗官文煒　以戈斬之　賊船鱗集璘船下　圍若鐵桶　賊兵復振　璘令下碇不動　鼓噪放大砲　諸賊仰放鳥銃　飛丸四集　璘令軍依挨牌而伏　賊見之　一時挺劍而登 天兵齊起以長鎗俯刺之 落水死者以千數　將士皆捨死搏戰　已而璘搖鐸收兵　船中寂然無聲　賊疑之　稍却　天兵從高散噴筒於賊中　火盛風駛　賊艘數百　頃刻煨燼　大海

盡赤 舜臣亦衝圍而進 合力血戰 副摠兵鄧子龍船中火起 一軍避火驚擾 船爲之傾 賊乘殺子龍 焚其船 我軍望之 誤相指認曰 賊船又火矣 遂勵氣爭先 而李純信 又燒賊船十餘艘 我軍益歡呼 賊酋三人 坐大樓船督戰 舜臣盡銳攻之 射殪一酋 賊皆捨璘船來救 璘得出 與舜臣軍合 發虎蹲砲 連碎賊船 而飛丸中舜臣左掖 舜臣謂其下曰 戰方急勿言我死 急命以防牌蔽之 言訖而絶 麾下士 依其言 秘不發哭 麾旗督戰自如 柳珩 宋希立 皆中丸悶絶少頃起復裹瘡而戰 日午 賊兵大敗 追焚二百餘艘 賊兵燒溺俘斬殆盡 義弘等 僅以餘兵五十艘脫走 璘望見舜臣軍 爭取首級倭貨 驚曰統制死矣 己而果發喪 璘躍而臥者三 擊地大慟 兩陣號哭號殷海中 賊並焚諸島營柵而去 璘進入南海 得餘糧萬餘石 牛馬不可勝計

<宣廟中興誌卷六戊戌>

是日(十一月十八日)三更 公於船上 跪祝于天曰今日固決死 願天必殲此賊 祝罷自領銳師先進露梁 十九日四更 賊圍都督甚急 公直前救之 親冒矢石 自手擊鼓 忽中丸而仆 臨絶顧謂麾下曰諱言我死 勿令驚軍 都督聞公死 顚倒於船者三曰無可與有者 南民聞公之喪 奔走巷哭市者 爲之罷酒 及家人以喪歸南中士子操文以祭 老幼遮道而哭至界上不絶

<李恒福 白沙集卷之二十一>

曳橋及露梁海戰前經過概要

初舜臣至順天 召諸將問計 軍官宋希立曰 賊己據形便 難以力取 今天兵我軍 水陸俱下 若以陸軍進迫曳橋 水軍扼獐島 以遏嶺南海途 使賊內外俱阻 腰臂中斷則泗川之賊 必不能助 設欲相助 彼此號令不通則 無以相應 待其師老糧竭 氣挫勢窘 然後四面薄之 行長可生擒也 舜臣喜曰 正吾意也 遂與陳璘據獐島洋口 燒其積聚 使慶尙右水使李純信 截露梁水路 劉綎權慄 亦據曳橋西北而分兵截蟾津陸路 以斷泗川聲援 相守數月 行長果糧竭勢窘 璘舜臣連日進攻 水軍皆捷 行長大恐 潛遣人於劉綎 請假道歸國 綎從之 信使贈遺不絶 賊遂與綎兵貿糧 而綎不爲之禁 使人語璘曰 行長將撤歸 可無阻也 行長乃先發十餘艘 出猫島 水軍盡攻殺之 行長大怒 出綎使二人 斷臂送之曰 提督欺我如此 我必不去也 綎答曰 乞和陳公 可無事也 行長乃以銀貨寶劍遺璘曰 兵貴不血 願假我道 璘許之 且與舜臣借道 舜臣責璘曰 將不可言和 讐不可縱遣 此賊亦天將難赦之賊 而大人反欲許其和耶 璘默然 行長又發前銳十餘艘出海 舜臣又攻殺之 行長乃遣舜臣寶貨 舜臣怒却之曰 讐賊何敢乃爾 行長計窮 募人以千金將告急於島中諸屯 先請於璘曰 願送人諸屯 同約渡海 璘亦許之 小牒賊乃出 舜臣大驚 宋希立曰 賊此去 必刻期請援 潛通號令 諸賊不日當至 我若在此應之則 腹背受敵 吾多立盡 不如移兵大洋 決一死戰 海南縣監柳珩曰 賊邀援鬪我而爲自脫計 今若急却援賊 可斷歸路 舜臣曰然 遂定計而告于璘 璘始驚惧自責

<宣廟中興誌 卷六 戊戌>

壬辰倭犯釜山 希立時在忠武公李舜臣幕 力請進戰 公悅 及賊據倭橋 希立進據獐島 絶賊往來路 賊請和于陳都督 都督許之 忠武公大驚希立請曰 不如移陣大洋 決一死戰 遂進 賊己至閑山前洋 於是奮力鏖戰 賊被靡 丸忽中額仆地 氣絶 忠武公聞之驚起 中丸而死 希立乃裂衣累額入將座 忠武公子薈哭 希立 令掩口 解忠武公甲胄以氊累屍 代執旗鼓促戰益急戰大敗溺死無數遁走 乃發喪 後以功收全羅左水使

<湖南誌 李統制遺事 李恒福>

李天常驍勇善戰 長於水 故初以千摠出來 露梁之戰 斬倭二百六十九級 奪回被擄人三百餘口 論功陞遊擊 <再造藩邦志 卷六>

八月 統制使李舜臣大破賊兵于康津之古今島 舜臣與陳璘方宴 聞賊欲襲之 使諸將整束以待俄而賊船大至 舜臣自領水軍 突入賊中 發火砲燒五十餘艘 賊遂遁 <宣廟寶鑑卷之九>

行長築城于順天倭橋 堅守不退 劉綎復進攻之李舜臣與陳璘 扼海口以逼之 行長求援於泗川賊 沈安頓吾 頓吾從水路來援 舜臣進擊大破之 焚賊船二百餘艘 殺獲無數 追至南海界 舜

臣親犯矢石力戰 有飛丸中其胸 左右扶入帳中 舜臣曰 戰方急 愼勿言我死 言訖而絶 舜臣兄子莞秘其死 以舜臣令督戰益急 軍中不知也 陳璘所乘船 爲賊所圍 莞揮其兵救之 賊散去 璘使人于舜臣謝救己 始聞其死 從椅上自投於地 撫膺大慟 我軍與天兵聞舜臣死 連營慟哭 朝廷贈右議政　<宣廟寶鑑卷之八>

戊戌二月十七日 進陣于古今島 時行長斂衆據險陣於順天之倭橋 公距倭橋百里而陣 其年七月 天將陳都督璘以水兵五千 與公合陣 劉都督綎以苗兵萬五千 陣於順天之東 將水陸齊擧 天兵侵擾我軍 公令軍中撤其閭舍 都督璘問之 公對曰天兵時加侵擾 故小邦新集之民 將盡遠徙 都督大驚使公便宜行事 日後再有侵擾者許令罪之 自後天兵秋毫不犯 一陣賴以相安 行長憚公威名 遣其亞將 賚鳥銃長劍遺公 公却之曰 我自壬辰殺賊無算 所得銃劍自足爲用 賊又因都督欲遣以銀兩酒肉 公曰此賊於天朝 亦有難赦之罪 老爺反欲受賂耶 其後賊使再來 都督辭之曰 我於統制公旣已見愧 何可再爲 是年十一月十八日南海釜山諸賊來援 先鋒已到露梁 公言於都督曰我師前後受敵 不如退陣猫島 更約諸將刻意決戰 都督從之

<李恒福白沙集卷之二十一>

露梁 記事

<露梁在南海前洋 統制戰死時宋希立以裨將代令舟師 卒成大捷 後爲水使>

統制使李舜臣與賊戰于露梁死之 自鳴梁大捷後舟師稍稍補完 天朝救兵亦至於是相與合勢列營古今島 時倭將平行長大陣在順天倭橋 其餘各屯嶺南邊邑及諸島 形勢相連 公整齊舟楫移屯羅老島 進退觀勢 問于宋希立曰 賊勢若此何以取勝 希立對曰 賊已據倭橋地甚形便前洋水淺決難成功 抑有一策 目今天兵水陸俱下 陸路已屯順天 若進迫倭橋而舟師進據獐島以斷嶺南來路 使彼形勢不得相接則 必不能相助 設或欲來 彼此不相通則 莫以相救 待師老糧盡然後 水陸俱迫則 可以成功矣 公大喜曰 此計正合吾意 遂與天兵進據獐島洋口 陸軍亦據其西北 進退索戰 賊斂鋒不出 與嶺賊不得相通 如是數月 賊勢果窘而一日天兵不知水勢 乘勝輕進 掛爲賊所焚 我師進救過半得免 一日賊以大索潛置浦口 我師挑戰 潮退始還 賊控引其索 加里浦鉢浦戰舡爲賊所凝 諸舡欲救則潮已退矣 不得進救 兩舡俱沒 然賊日窘 請和于公願歸其國 公不許 賊又請于陳都督 都督許之 賊因請送人于嶺南諸師 與之俱還 都督不禁小舡乃出 公始知之大驚 即與將佐議之 希立曰事已至此 無可奈何 彼之送人者無他 請救於諸賊 約其戰日 諸賊不久當至 若在此應變腹背受敵 我師必敗 不如移陣大洋決一死戰 公曰善 即言于都督 都督亦大驚自責 兩師俱蓐食潛發 則東賊已至於閑山前洋觀音浦 整齊鳥銃待我 將發時天未明 遙見火繩點點如列宿滿天 諸舡爭進 以其天氣昏暗故舡上軍人皆放心睨視 賊炮一時俱發 先進船則軍人多死 因接戰洋中軍皆奮力 賊乃披靡 都督亦力戰 令如風雷 時賊舡萃於唐舡都督被圍 公極力救解 希立與船上將士 俱奮死力 箭不虛發 賊死者無數 賊散而復合 賊已知希立所在 乃東丸齊放丸中甲胄橫犯額骨 希立仆地幾絶 左右告公曰宋某中丸 公大驚起立 丸中腋下 船上驚遑曰使道中丸 希立聞之 乃起坐則 幸賴額破而不犯腦漿 以此厲氣流血被面衣前盡濕 乃裂衣裹額 即上將坐則公已氣絶 子薈將哭 希立令將佐數人扶持掩口止哭 解公甲胄以紅氈裹尸 又裹以草芚乃着其甲胄 掩坐芚上 代執旗鼓促戰益急 賊船大敗大砲所破 鉤引所沈不計其數 餘賊引遁 追奔至外洋而還 遂發喪 各船皆痛哭 都督亦哭曰擬還天朝當以此君忠勇告于天子前 今乃至此惜哉惜哉 倭橋賊陣 待東賊合戰經自遁去云

<安邦俊撰 隱峯野史別錄>

李舜臣忠烈廟碑(閑山及南海)

李舜臣左水營大捷碑(麗水)

篆題　統制李公水軍大捷碑(同上)
　　　統制使忠武李公忠烈廟碑銘(閑山及南海)

在昔壬辰南寇匪茹連艦泛海由嶺而湖者其蔽曰

閑山 其界曰露梁 其阨曰鳴梁 若失閑山 露梁不守 直壓鳴梁 畿輔搖心矣 疇克有庸式遏三險越乃元侯統制李公日君乏使命 余視師臨發有敎曰 故統制使臣李舜臣其勤王家捍衛我南藩無祿大命隕墜予惟寵嘉之廟宇不立無以勸忠汝往欽哉臣受命而退稽諸祀典以死勤事則祀之能捍大患則 祀之玆惟貞哉載在故府追惟 亂初公職在湖南 官守有限以國害爲深羞鄰灾 爲己憂 踰南海蹈寇地 玉浦之戰 露梁之戰 唐浦之戰 栗浦之戰 閑山之戰 安骨之戰 焚燒賊船二百二十餘艘 斬首五百九十餘級 溺水死者又不記其數 賊死怍不敢近公寨下 因陣閑山以遏賊衝至于丁酉代斲血指閑山敗沒 於是舟師 敎將奔卒及南土之民 擧咨嗟一口齊聲曰 李統制若在 豈使此賊窺湖南一步地 朝廷急而求公再莅前職 公單騎召收進陣鳴梁 猝遇夜襲用少致死以十三新集之艦 當大萬蔽海之寇 破船三十賈勇以前賊遂退遁 戊戌天朝大發兵來援 水軍提督陳璘 與公合陣 奇公之爲必稱李爺而不名 其年冬 賊合勢大來進至露梁 公自領銳師先嘗其鋒 天兵夾進與公犄角 是日鷄鳴 馮夷啓道蜚廉戢威四維褰擧軫 乃曉中兩軍齊作千帆飛舞 公先躍入乘銳崩之 賊乃蟻潰救死 不暇鼓音未衰將星沉彩公於黎明中丸而顚 猶戒衆諱言死曰 恐我師熸也 提督聞之 以身投於船者三曰 無可與有爲矣 天兵亦却肉不食 南民奔走巷哭操文以祭之 老幼遮道而哭者所在如一 嗚呼若公者可謂以死勤事能捍大患者非耶
……以下略……

<李恒福撰 金玄成書 金尙容篆>

李舜臣神道碑(牙山)

篆題; 尙忠宣武之碑
所在; 忠南牙山郡陰峰面三巨里

御製 有明水軍都督朝鮮國 贈効忠仗義廸毅協力宣武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舘藝文舘春秋舘觀象監事 德豐府院君行正憲大夫 全羅左道水軍節度使 兼三道統制使 謚忠武公李舜臣神道碑銘并序

生而車服以寵之 讌饗以勞之 管絃以被之 沒也 祀之五鼎養以世祿 銘乎旂少俾其耿光娉節昭于上下 配于山川以主其陰騭而庇休 福於民沓先王之敉 功臣也 成周以還其法浸泯焉 然碑率之有銘 猶傳旂常之遺義抑其特者 君之銘之也 王朝之篆首曰至德 元老徐達之篆首曰忠志無疵 歷千載幾人乎

嗚呼若我朝之忠武公李舜臣功 惟應銘法 予之銘之尙亦無愧辭哉 忠武字汝諧 世爲德水人 其生母卞夢其舅言 兒生必貴其命名舜臣 父貞聞而異之 占之曰吉 季五十當仗鉞爲名將 忠武旣員此異 幼倜儻且有大志 及長射藝絶倫中萬曆丙子武科初仕 邊屢立奇功 國人以將才稱文忠公柳成龍 力薦于朝遂擢爲全羅左道水軍節度使 時倭人聲言寇我 敵釁已成 忠武深憂之 日夜訓卒利兵治戰守備 別創船制爲伏龜形 名曰龜船 習水戰者 比之蒙衝 壬辰倭大擧入 拔釜山東萊 分道西上 忠武即引兵赴玉浦攻焚賊船二十餘艘 會慶尙水軍節度使元均于露梁夾擊賊 轉至泗川 焚十餘艘 進軍唐浦 遇賊二十餘艘 殪其酋殲其衆 與全羅右水軍節度使李億祺合軍于唐項浦 破賊酋三層樓船 誘至閑山島 又破大小七十餘艘 逐北至安骨浦 又燒破四十餘艘 軍聲大振 賊讋恐 捷聞 輒加階至正憲 癸巳朝廷剏置三道水軍統制使 命以本職兼之 移鎭閑山島 於是元均耻受節制 數嗾語風言官而忠武竟以逗遛劾下吏 均則代之 居數月 我師敗績 元均走死 朝鮮復以忠武爲統制使 忠武將數十騎 馳入順天府 得兵船十餘行收亡卒 破賊于蘭島 已又迎賊于碧波亭下破三十餘艘 斬其將馬多時 賊不能支 擧軍而遁戊戌天將陳璘以廣兵 劉綎以川兵 鄧子龍以浙直兵 先後至 忠武進據古今島 與陳璘合陣 璘心折其才策器幹 凡軍中機密無不咨決之 言于我宣廟曰 李舜臣有經天緯地之才 補天浴日之功 又具奏于顯皇帝賜忠武都督印綬 旣而關白死 行長欲撤兵 約昆陽泗川屯剋日竝進于露梁忠武與天將整舟謀協勦 即船上祝曰 今日固決死 天其許我殲此賊乎 祝已 河魁殞 一軍惡之夜四鼓邀賊艘戰 焚二百餘艘 尾擊不舍至南海

賊圍天兵數重 忠武親冒矢石 直前突圍 戰方酣中流丸死之 距其生 乙巳年五十四 明年子薈等返葬于牙山 甲辰策勳賜號贈議政府左議政德豐府院君 諡忠武立祠于戰伐遺墟 至今俎豆不輟斯足以救厥功乎 悲夫我國家人才之輩出 最稱穆陵盛際 皇朝命帥之簡勁赴援者 亦皆一時之雋 然當其魚跳蝦擲 海水群飛未有不退舍 持兩端而八季之間 戰必勝 守必保 國勢視三以強弱 賊鋒爲之挫頓 使環土營窟之狡奴狼顧不得逞而 以基我列祖中興之功者 維忠武一人之力 是賴不於忠武特銘之而誰銘 且予聞之烝民之詩 所以述樊侯之績而宣王之美於是乎在臣之能有成功君之明也 夫受君之命克終其今事以有功而 以其功載君之美於無窮古之道也之銘詩之義存焉 予烏可已於銘乃加贈議政府領議政 因其諡篆其首曰尙忠旌武之碑 又序而銘之以詔諸史氏銘曰 稽古司勳氏之銘于策也曰勳曰功曰多曰 庸曰勞曰力 若忠武者 孰不曰功于戰于王于國 一戰而閑山盪 再戰而碧波晏 三戰而露梁無倭 斯不亦多乎 謀士掉其舌 虎臣蹙其頸而用天子命 惟汝屬國之孤軍斯不亦勳乎 翠華反於土中 赤子奠於席上 重恢我萬億季大東 斯不亦功乎於戲噫嚱 烏頭在閭牲石在隧以卒受寵于篆首之章 江漢濯其靈而日月齊其光

皇明崇禎紀元後三

甲寅 月 日立

<忠武公碑銘>

十九日夜三更 李舜臣於船上跪祝天曰 今日固決死 願天必滅此賊 祝罷 自領銳師 先進露梁 都督與季金先行 諸營繼之 舜臣先導 出屯前洋……中略……賊圍李舜臣船累重 都督換乘我國船 犯圍直入救之 賊又圍都督船 賊攀都督之船 幾及都督 都督子九經以身扞之 至被賊刺血淋漓 猶不動 旗牌官世煒 以鐮鈀刺其胸膛投海中 九經得免 賊船鱗集於都督船下 都督令下碇 王元周福日昇二將 亦換我船挾都督船 都督令軍中吶喊放大砲 諸賊仰放鳥銃 都督令諸軍依挨牌而伏 諸賊見之 一時挺劍以上天兵以長槍俯刺之 墜水死者 以千數 諸將出死力薄戰 已而都督搖鐸收軍 城中寂然無聲 賊疑之稍却 天兵從高傾噴筒於賊船 風急火烈賊艘數百 頃刻煨燼 海波盡赤 舜臣望見都督被圍 亦衝圍而進 合力血戰……以下鄧子龍戰死條參照……子龍老而勇戰 若能盡其才 亦一時名將乃存時僅一偏將……是日我國統制使李舜臣先鋒船 又燒賊船十餘隻 有一賊船甚高 上施朱幙 金甲者三人督戰 舜臣悉衆合攻 射中金甲者一人 賊船捨都督來救 都督軍因是得出 與舜臣諸兵合勢 發虎蹲砲碎其船 餘賊褫魄 焚燒殆盡 時賊將行長棄城而遁 釜山蔚山河東沿海諸賊悉遁 都督與舜臣扼海口邀之 行長求救於泗川賊酋沈安頓吾 擧火相應 頓吾悉衆來救柳珩言於統制曰 賊邀援鬪我 爲自脫計 不如退擊泗賊 以斷歸路 乃自先登 大呼直進 翌日四更 賊圍都督甚急 舜臣率銳師冲之 焚賊船二百餘艘方戰之時舜臣手自擊鼓 忽有飛丸 中其胸出背後而仆 左右扶入帳中 臨絶顧謂麾下曰戰方急 愼勿言我死 毋令驚軍 言訖而死 舜臣兄子莞 素有膽量 秘其死 以舜臣令 督戰益急軍中不知也 賊遁入南海 或從露梁津而走 柳珩亦力戰 中丸而仆 俄而乃甦 始知統制之死痛哭 督戰益力 都督見制船上士卒 爭取首級倭貨 曰 統制必死矣 乃使人于舜臣謝救己 還言舜臣果死 都督從椅顚倒於地者三 曰 吾意老爺生來救我 何故亡耶 拊膺大慟 一軍皆哭聲震海中 行長從彌助項外洋遁歸 其不得捕斬行長 以劉都督誤之云 先是七月 倭酋平秀吉已死 故沿海賊屯悉退 我軍與天兵聞舜臣死 連營慟哭 如私親 柩行所至人民 處處設祭 挽車而哭曰 公實生我 今公棄我何之 道路壅塞 車不得進 行路之人 無不揮涕 贈議政府右議政於是海邊之人 相率立祠 號曰愍忠 以時致祭商賈船過其下者 人人祭之

<再造藩邦志卷五>

十二日 行長先發十餘艘 至猫島外 舟師盡破殺之 行長忿恚 拘縛四十天兵 斷割二人臂 出送劉陣曰 提督欺我 前後如此 吾當不去也 行

長密以小舠 告急于南海泗川 使之來援 又通于劉曰 水兵不和 須急定約 綎曰 乞和陳將可得解矣 行長以譯倭 具銀百兩 寳劒五十口進陳璘曰 兵貴不血 請假道還國 璘許之 行長又發送先鋒數隻 李舜臣攻殺之 行長通于陳璘曰 約和之後 何以兵刃相加 璘曰 非我所知乃本國統制使李將軍之所爲也 行長患之 又通泗川南海來援

十九日 陳璘李舜臣 大敗賊兵于露梁 斬九百餘級舜臣殉國 先是泗川賊酋義弘南海副酋平調信等 因信行長義智徵援 以軍老弱及被虜男女 載船先發 自領數百艘 乘夜潮赴援 舟師伏兵將慶尙右水使李純信走舠來報 陳璘與李舜臣 率諸船爲左右協 我軍屯于海觀音浦 天兵屯于昆陽竹島 撤碇待變 夜半賊船自光洲山濤(泗川南海來路洋名) 雲合霧集 直過露梁 方向倭橋 一捧鑼響 炮鼓兼動 兩軍突發 左右掩擊 矢石交下 柴火亂投 許多倭船太半延爇 賊兵殊死血戰 勢不能支 乃退入觀音浦 日已明矣 舜臣親自援枹先登追殺 炮賊伏於船尾 向舜臣齊發 舜臣中丸不省人事 急命將佐 以防牌支身體 使之秘不發喪 時其子薈在船 從父分付鳴鼓揮旗 日未午 賊船幾盡 投水死者無算 逃脫者僅五十餘艘 我軍收馘 盡納于天將(我國船則咸平戰艦)爲賊所焚 方酣戰之時 行長等撤兵潛出猫島西梁 向平山(堡名南海地也)洋而走 南海留在之賊 聞露梁之敗 由島中陸路 走出彌助項 義智收而同去 劉綎見倭橋烟焰蔽天領軍馳進 賊城已空 因留屯 本國壯士隨之 聞李舜臣死事 左相以忠淸兵使李時言假差統制以全羅防禦使元愼假差兵使 時言馳至河東則陳璘先以李純信假定 已領舟師 時言即還本陣陳璘率諸軍 入探南海陣 收得軍糧萬餘石 牛馬至不可數 因留流山 水兵前後斬馘滿千而其中多有我人誤死者 時島山賊酋淸正 先以撤兵渡海 邊徼掃淸 露梁事聞當宁震悼 贈李舜臣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 錄用子孫 其後庚子 賜諡忠愍 立碑于全羅左水營 賜祭 陣下軍卒 亦樹石思望 名曰墮淚碑 碑陰曰 營下水卒 爲統制使李公立短碣 名曰墮淚 盖取襄陽人思羊祜而望其碑者 淚必墮也 及甲辰論功 錄協力宣武元功十八人居首 除薈任實縣監 薈之淸簡克肖(陳璘親護上京可謂死有餘榮)

<趙慶男撰 亂中雜錄三>

(二) 中國 史料

五鼓隨潮下露梁 陳將軍坐大衝鋒船 揚旗伐鼓直進 會石曼子方與朝鮮水兵 統制使李舜臣兵船交戰 圍舜臣在中 璘見事同一體 不救有失挫吾銳氣 先勝于此尤爲奇功 且合兵助勇 遂揮衆將剿船提戈入援 賊蟻附蜂結 亦將陳船圍繞數匝 勢急 天向未曙 賊爭跳上陳船 其船三面勾釘 釘釘七八寸 跳上者刺入骨縫拉拽不脫喝家丁力砍 斷頭截肢即推下水 黎明副將鄧子龍駕船奔赴計投火毬 將倭船燎焚 陳璘見火 知鄧來救省悟火攻 傳言被我燒了 我兵得令各各放火 遇倭船即燒 倭見船船着火 我沙蒼各船又集慌忙轉蓬星散 如龍銜燭通海紅光 奔趕二十里收兵 燒過倭船七八百 賊奴數十萬 內視泛泛空船 有龍虎旗酒器床褥 近之石酋等屍塌焉 糧物浮萍屍骸塞海 除浮沉外 找級三百四十四顆鄧子龍死之 李舜臣亦死之

<海東繹史卷六十四 本朝備禦考四, 徐希震撰 東征記>

壬辰之役 朝鮮陪臣鄭六同陷于賊 平義智親信之 六同爲我內應 當露梁戰時 急焚火藥應我軍 賊是以大敗 <葉向高撰 蒼霞集>

石曼子引舟師救行長 陳璘統蒼號船邀擊之 得級二百二十四 副將鄧子龍 朝鮮統制使李舜臣衝鋒沒於陣 <谷應泰撰 皇明記事本末>

中路倭兵於十六日 行李上船 於是我兵各爲準備 陳璘在海上 聞此消息喜曰 吾等擊倭收功此其時矣 即令鄧子龍 協同朝鮮李統制 引千餘水兵 駕三巨艦 爲前鋒 破浪直攻南海 正遇倭船無數渡海 子龍欲奪頭功 親率家丁(皆江西人)二百餘 齊上高麗船 衝鋒奮擊 殺賊無數 不期後船用火器失手 反打鄧船 蓬檣俱著 我兵竄伏在一邊 被倭乘勢登舟 鄧副將及家丁 皆砍死 李統制見鄧將有失 奮勇前救 亦及於難 幸第三船把總沈理努力而前 火器齊發 當陣斬獲

眞倭一百三十餘級而陳蠶季金等 隨後邀擊 倭本不慣水戰 況無鬪志 當日艘被燒沈焰同赤壁 有棄船復逃上崖者 被我陸兵追剿 直逼海口 兩路夾攻 殺溺死者不下萬餘 各路斬獲共千餘 級陳蠶中軍陶明宰亦歿于陣 劉綎所當者行長也 是日行長未行 亦乘機邀截中路之倭 俱有斬獲 於是義弘行長 將毛國科八人及綎所差劉天爵等 皆留在船 護送渡海方得還國而亡失已甚多矣

<兩朝平攘錄卷之四>

鄧子龍 豐城人 貌魁偉 驍捷絶倫……中略……二十六年朝鮮用師 詔以故官領水軍從陳璘東征 倭將渡海遁 璘遣子龍偕朝鮮統制使李舜臣督水軍千人 駕三十巨艦爲前鋒邀之釜山南海 子龍素慷慨年踰七十 意氣彌厲欲得首功急攜壯士二百人 躍上朝鮮舟直前奮擊賊 死傷無算 他舟誤擲火器入子龍舟 舟中火 賊乘之 子龍戰死 舜臣赴救亦死 事聞贈都督僉事世廕一子廟祀朝鮮　<明史二百四十七 鄧子龍傳>

二十年朝鮮用兵 以璘熟倭情命添註神機七營參將 至則改神機右副將無何擢署都督僉事充副總兵官協守薊鎭 明年正月詔以本官統薊遼保定山東軍禦倭防海 會有封貢之議 暫休兵改璘協守漳潮坐賄石星爲所奏復罷歸

二十五年封事敗 起璘故官 統廣東兵五千 援朝鮮 明年二月擢禦倭總兵官與麻貴劉綎竝將部卒 次山海關鼓譟 璘被責 尋令提督水軍與貴綎及董一元分道 進副將陳蠶鄧子龍遊擊馬文煥季金張良相等皆屬焉 兵萬三千餘人 戰艦數百分布忠清全羅慶尙諸海口 初賊泛海出沒官軍乏舟故得志 及見璘舟師懼不敢往來海中 會平秀吉死 賊將遁 璘急遣子龍偕朝鮮將李舜臣邀之 子龍戰沒 蠶金等軍至邀擊之 倭無鬪志 官軍焚其舟賊大敗 脫登岸者又爲陸兵所殲 焚溺死者萬計 時綎方攻行長驅入順天大城 璘以舟師夾擊復焚其舟百餘 石曼子西援行長 璘邀之半洋 擊殺之殲其徒三百餘賊退保錦山 官軍挑之不出已渡匿乙山 崖深道險將士不敢進 璘夜潛入圍其巖洞 比明礮發倭大驚奔後山 憑高以拒將士殊死攻 賊遁走 璘分道所擊 賊無脫者 論功璘爲首綎次之貴又次之 進璘都督同知世廕指揮僉事師甫旋

<明史卷二百四十七 陳璘傳>

（三）日側 史料

明大兵猶競進而我兵寡 義弘所乘船亦太危急 從兵殊死戰 義弘纔得避而入唐島 宗茂正成直次從義弘苦戰 從兵半死　<島津家記>

行長等將退唐島 嶮浪激船 纔遁南海島

<征韓錄>

義弘臣喜入攝津守椛山權左衛門等 五十餘人(征韓錄作五百餘人)復爲敵所遮隔 不得從義弘棄船入南海 保宗義智所居空城 敵沈我船遮海口不能還 忠恒不知順天戰將發舟 本邦商舶適自順天來問之而聽順天消息 大驚馳舟而赴途會義弘舟 其舟斫壞矢着板如蝟毛 父子相伴入唐島　<島津家記>

喜入椛山等竊遣人于義弘請迎 義弘遣伊勢貞昌五代友泰等 先迎入興善島 正成議遣舟 迎入之唐島 十九日義弘等發唐島還本邦

<島津家記，征韓錄>

此役義弘戰獲明戰艦二艘朝鮮戰艦四艘

<征韓錄>

諸將振旅還對馬 十二月十日 抵覇家臺 石田三成迎勞告秀吉遺言 贈其遺物 諸將流涕且謝恩 十二月 抵伏見謁東照宮 各還國

<征伐記 秀吉譜>

行長乞援于義弘 鎭信曰輩一志 足以破明兵 何必乞援 行長不聽

<松浦家記 對馬島征韓記>

第二十章 叙事關係 原文

宣祖大王二十四年 正月朔戊戌○地震四方皆同京師
最甚
二月朔戊辰○特旨以李誠中爲忠淸監司前大司諫李海壽爲驪
州牧使 先是柳成龍鄭澈與誠中海壽私會澈言
當今大獄已畢此後國事可議者孰大成龍曰當今邊備事最大澈
曰然當進于領相共請面對建白可也又言吾輩勞苦多矣近須會
話于三淸洞相議此事如何諸人皆諾遂進于領相李山海山海許
之及期澈與誠中等先往山海稱病不會故罷又約直詣闕請對山
海又以病告誠中邊之通與同僚議上劄論時事十二條其一條建
備事也誠中方在家草劄有所知內監人來見曰內間有飛語云朝
廷近有大擧指其言甚惡須止上劄誠中疑而不信是夜有特旨中
外駭然○命遞吏曹判書俞泓參判李增特旨以右議政柳成龍兼
行吏曹判書崔興源爲吏曹判書 泓等以
進退人物爭當推考被遞李德馨初除參議不拜故至是特旨從授
成龍上章辭曰國朝以來未有此事恐他日有專擅之臣以爲藉口

<宣祖修正實錄 太白山本(卷二十五), 서울大學校附屬圖書舘所藏 鑄字本 (縱四二. 九糎, 橫三一. 六糎)>

第 1 節 開戰前

一百六, 橘康廣의 來期

遂有外侵之志 使康廣來求通信書辭甚倨 有今天下歸朕一握之語 康廣時年五十 容貌魁偉鬚髮半白 過仁同睨執槍者曰 槍竿太短矣 禮曹賜宴 酒酣散胡椒於筵上 妓工輩爭取無倫次 康廣嘆曰 汝國亡矣 紀綱壞矣 遂不許送使 秀吉怒族殺康廣 又送平義智等 遂遣黃允吉等報使

<朝野會通卷之十六 宣祖紀>

其定畿內 以橘康廣嘗諳韓事 擢爲使者 徵朝貢于韓 不得要領而返 秀吉疑與韓有私 族誅之 及定西海 宗義智送款焉 秀吉命掌使事 將伐關東 遂遣義智與僧玄蘇往韓 會琉球入貢 秀吉囑其國 求通於明曰 明不聽我言 我當發兵伐之 琉球王尙寧告之明 明不聽 義智至韓 韓王李昖乃使其大臣黃允吉 金誠一隨而入貢

<賴山陽著日本外史豊臣氏八>

韓王得書疑懼 誠一以爲虛喝 王使之私饗二人 探其情實 諷信曰 我主欲通明 明不答禮 故欲伐之耳 貴國盍居間和解之 誠一依違 玄蘇厲聲言曰 今日之議 不得首鼠兩瑞 不欲講和 乃欲戰耳 因辭訣還 韓始懼稍修邊備 明亦聞之申嚴海防 天正十九年夏 秀吉復遣義智 責昖在釜山旬餘 不得報 怒而還 秀吉之意決

<同上>

一百七, 通信使 黃允吉 一行의 派遣

允吉 筬及一行 上下大小人 皆以爲賊必大擧 獨誠一謂 賊萬無來理 平酋(秀吉) 亦是庸常底人物 廟堂以誠一 爲善使 陞堂上 悉罷防備諸事 允吉所帶軍官黃進 不勝憤怒 於衆中揚臂大言曰 以黃許之愚劣 賊情尙能知之況以誠一之慧黠 豈有不知之理乎 此不過書契中 多有犯上國不道之語而無一言受來 故誠一恐其得罪 巧爲如是之言 寧陷於不知之地 其心罔測矣 欲上疏請斬而爲人所止抑

<隱峰野史別錄>

蓋誠一之留日本也 與黃允吉 許筬論國分寺被辱 答客難論 觀光論 拜庭下堂上 副官請樂 入都出都 倭人禮單志等七書 往復論難 其答玄蘇前後書 力爭閣下方物入朝六字 答宣慰使 對馬島主兩書 極言大明之不可犯 辭語痛切 誠一之得名善使 其以此也 然答宣慰對馬兩書 非眞答 乃擬作也 有目者 無不洞見其心而當時滿朝諸臣 徒知偏黨 不許宣慰 對馬兩書爲擬

作 大言誇張 反爲之善使 識者皆以爲 文人諸名士 反不如一武夫黃進 相與唾罵之

<同上>

金鶴峯誠一 從黃同知允吉等使日本 強項自持少無畏懾 受書諸議皆力爭矯正 同行縮頸 敵人敬歎 亦可謂畢命君子矣 至稱以使四方不辱命 則吾恐有愧也 夫所謂專對者 豈指僥倖節目之事哉 鶴峯旣還 上問敵人情形 允吉等皆以爲賊來有徵 鶴峯抗言不然累千言 深攻允吉等自以爲備悉賊情 明年賊傾國入寇 至於廟社不守 民生魚肉 兵禍之慘自古無有如壬辰者 其不得要領如此 謂之專對可乎 如遇漢高之時 難免前使十輩之誅矣 <金時讓撰 涪溪記聞>

丁亥戊子年間 日本請通信甚力 朝廷牢拒 終乃不得已而遣之 庚寅春 正使黃允吉 副使金誠一 書狀官許筬 承命而往 久留東萊 五月始過海 辛卯春還來 允吉則以日本王秀吉 桀驁而兵精 後患可慮 誠一則以爲不足畏 爭於上前至壬辰 賊變大發 允吉之言驗矣 允吉亂前逝誠一爲慶尙右兵使 亂生之後 拿致王獄 以有捍賊功釋之 行至稷山 承招諭使之命 還入嶺右 盡力募義 右道義兵之多起 皆其力也 陞秩嘉善爲右監司 癸巳夏病逝於晋陽

<尹國馨著 聞韶漫錄>

此書 初有閣下方物入朝等語 允吉等貽書玄蘇請改六字 則蘇馳啓 改閣下方物四字 入朝二字則不許曰 此朝字非特貴國也 乃指大明也 允吉 筬 以其言爲信 惟誠一不以爲然 與玄蘇往復論難 蘇猶不聽 <安邦俊著 隱峰野史別錄>

第 2 節　壬辰・癸巳 作戰期

一百七，朝，日 兩軍의 緖戰 指導

十七日 邊報始至 乃朴泓狀啓也 以李鎰爲巡邊使 下中道 成應吉爲左防禦使 下左道 趙儆爲右防禦使 下西路 劉克良爲助防將 守竹嶺邊璣爲助防將 守鳥嶺 起復前府使邊應星爲慶州府尹 皆令軍官以去 俄而釜山陷報又至 兵判洪汝淳以不能任 遞改以金應南代之 柳成龍爲體察使 應南爲副 前牧使金汝岉方坐事繫獄使貸罪隨行以李鎰雖去無繼後策應 以申砬爲都巡邊使 與金汝岉同去 上引見賜寶劍曰 李鎰以下不用命者用此劍

<朝野記聞卷之四壬辰倭難>

以李鎰巡邊使 成應吉爲左防禦使 趙儆爲右防禦使 劉克良 邊璣爲助防將 南下禦倭 使李鎰下中路 成應吉下左道 趙儆下西路 劉克良守竹嶺 邊璣守鳥嶺 然無見兵 只令自擇軍官以行

<宣廟中興誌卷一>

鵝城府院君李公墓誌銘幷序

壬辰四月倭寇逼京群議欲移避關北 公料此賊非本國之敵欲上西狩告急未敢明言 宣廟召大臣議册國本委以監撫時坤殿無嗣 上問誰可公對曰此非人臣所敢與但在 聖念速降宸斷 宣廟擧今上號曰何如公起拜曰宗社臣民之福也 即命有司擧册儀 諸官纔拜賀而報賊已踰嶺矣翌晩大駕西遷儲宮亦隨發 公奉廟社主扈行 當是 國勢滔天遠近崩壞而民心有所繫者以能定大計於倉卒之力也 至開城兩司劾公首倡去邠罷職 到平壤又請以重律 命付處江原道平海郡 乙未宣廟諭侍臣曰非某予爲懷愍徽欽久矣其命放還拜領敦寧府事俄兼大提學辭遞己亥還拜領議政 庚子有一宰貪權橫恣望公同陞而公子與遂被仇陷罷歸 辛丑還拜府院君

<漢陰集卷十二雜著>

十七日 報至 中外大震 遂分遣八道左右防禦等使 以李鎰爲慶尙道巡邊使 即日拔遣別錄(是日邊報始至 京城中外大震 文武官 負聚于闕內 皆以爲 賊入寇之意 非於一日 不無四邊衝入 函速先出嶺湖南左右防禦使助防將 以李鎰爲慶尙道巡邊使 以遣之 夜四更辭朝)又遣義禁府都事 拿慶尙兵使金誠一而來 盖將治言倭必不來之罪

十八日 邊書告急 日且十數次 皆言賊勢浩大難以防禦 都內人心 遑遑惴惴 皆是崩潰之色

十九日 備忘記曰 當此兵變孔棘之日 不可徒守常規 凡士大夫被罪罷散者 勿論大小久近 咸

使錄用以聽調遣 武士居憂在家者 悉皆起復

二十日 以申砬爲三道巡邊使 柳成龍爲體察使 金應南副之 刻日發送 二十日李鎰到聞慶 馳啓曰 今日之賊 有似神兵 無人敢當 臣則有死而已 於是宮中亦有不固之志 遂貿繩鞋等遠行諸具 又命司僕寺整立馬 以待不時之用

二十二日 申砬將行 請面對啓曰 兵曹洪汝諄不能治事 大失群心 請罪之 上震怒 遂以金應南代之 又起復慶林君金命元爲都元帥 治兵於漢江

二十三日 上令內需司別坐金公諒 率內需司奴子能射者二百餘人 入宿大內 時南報漸緊 京城小民 多有避出外方者 各司官員 亦有亡匿不仕者 杞城府院君俞泓 左贊成崔滉 首出其家屬于鄉家 上以尹斗壽可用於一隅 命放還 臺諫啓以爲不可放 上不從 兩司合啓 請堅閉都城 勿令士庶闌出 又出繩鞋等物 以示效死 勿去之意

二十四日 府院君俞泓啓曰 繩鞋非禦敵之具 立馬豈鎭物之道 況我之所往 賊亦能往 不如君臣上下 同死社稷 上諭義禁府 金誠一勿令拿來 誠一到稷山而還

二十五日 以宗室補摠管衛將號 分番入直于闕內 以備宿衛

二十六日 兩司合啓曰 領議政李山海 身爲首相不能鎭定人心 致有土崩之勢 請出于都堂 上不允 吏曹判書李元翼 自言有敢死士十餘人 約爲同死生 願與此輩俱入賊營 斬賊將頭 少紓國家之急 雖死無恨 朝廷以爲迂濶 不之用

二十七日 生員具容權鞸上疏曰 柳成龍之講和李山海之誤國 實今日之秦檜楊國忠 請斬之 以謝百姓 不報 李鎰到尙州 未及布陣而一軍皆沒是日報至 閭巷一空 雖欲守城 已無人矣 賊到密陽 使人來言 願見李德馨 遂遣之

二十八日 冊封光海君爲世子 百官朝賀 草草不成東西班 無印章無敎書 宮僚亦不來 百司各上疏 請堅守都城 不報

二十九日 左議政柳成龍都承旨李恒福 請對 言自古國家大亂之日 分遣諸王 號召軍兵 以圖禦敵 請分遣諸王子于各道 以謀再圖 遂命金貴榮尹卓然 陪臨海 往咸鏡道 韓準陪順和君往江原道 又遣李元翼于平安道 崔興源于黃海道 盖前爲本道守令監司時 俱有惠政也

時自上欲去邠 已治行具而臺諫百司 俱以爲不可去 宮中遂密爲裝束 不使外人知之 都人或訛言 大駕已自宣仁門 着布衣向北道 久而乃定 如是者日三四

上以柳成龍爲留都大將 李誠中丁胤福爲左右統禦使 都承旨李恒福啓曰 今國事已去 若有請救中原之擧則 周旋應對之間 不可無柳成龍請勿令留都 遂以右議政李陽元代之

三十日 是日忠州敗報至 上自朝官 下至軍校相繼逃竄 城門不閉 夜漏不傳 人馬雜沓於仁政殿庭

至是上以標信授兵曹判書金應南 一任便宜 金應南項帶標信 欲有指揮而無一人應之者 時夜已三更 大駕將出而軍人未備

<朴東亮著 寄齋史草下 壬辰日錄一>

徐玄紀 性亢能斥人 壬辰四月 朝廷請止西行多有上章者 一日余言于諸僚曰 余等亦在本兵獨不言去邠之非乎 裕甫欣然應之曰 我當命意子其書之 有曰山川形勝無過於漢陽 殿下欲舍此何之 城隍峻嶮無過於漢陽 殿下欲舍此何之生齒之富蓄積之多 殿下獨不念乎 宗廟在此 社稷在此 陵寢又在此 殿下其忍去乎 至於西行之志 已決於內而榜諭內外 謂當死守 殿下雖欲欺民 祖宗神靈其可欺乎 祖宗且不可欺 況欺天乎 句不多而善轉圓 愈出愈切 一時皆不及 疏罷 裕甫曰 大義所在不可不如是而以一邊言之 置君父於圍城 亦臣子所不忍爲也 玄紀瞋目曰 若是則孟子亦不忠也 是日夕 裕甫私詣差備門外 請速出避 晦日又如是 玄紀憤然曰 李弘老以一外人敢如是 吾等亦於差備門外極諫之可也(裕甫李弘老字也)

<朴東亮著 寄齋史草下 壬辰日錄四>

一百八, 朝鮮軍의 漢城 防守와 撤收

是時朝廷將欲守都城 右議政李陽元爲守城大將 以李戩邊彥琇爲京城左右衛將 商山君朴忠

侃爲京城巡檢使修京城　起復金命元爲都元帥守漢江 及李鎰敗報至 人心洶洶 荷擔而立 內間已有去邠之意而外庭則不知矣　理馬金應壽來到賓廳 與領議政李山海耳語 去而復來 觀者疑之 盖山海時爲司僕提調故也 都承旨李恒福於掌中書立馬永康門外六字 以示柳成龍 於是臺諫劾山海誤國之罪 請罷其職 上不允 杞城府院君俞泓上疏 請固守京城同死社稷 且言綑鞋非宮禁所用 白金非禦敵之物 方今羽檄交急輒命貿易 殿下安得爲亡國之事乎 上召泓慰諭之 又宗室數十人 聚閤門外痛哭 請勿棄京城上敎曰 宗社在此 予將何適 衆遂退出 然事不可爲矣　兵曹抄發坊里民及公私賤胥吏三醫司分守城堞 計堞三萬餘而守城人口僅七千 率皆烏合 多有縋城逃散之心 上番軍士雖屬於兵曹而與下吏爲奸 受賂私放者甚多 官員不問去留臨 急皆不可用矣　　<再造藩邦志卷一>

以右議政李陽元爲守城大將　李戩邊彥琇爲京城左右衛將 商山君朴忠侃爲京城巡檢使 使修都城 起復金命元爲都元帥 守漢江 時李鎰敗報又至 內間已有去邠之意 李山海以太僕提調與聞立馬事 臺諫劾首相李山海誤國 請罷不允抄發坊里民及公私賤胥吏三醫司 分守城堞計三萬餘而人口僅七千 上番軍士則下吏受賂 私放甚多軍政之解弛一至於此 大臣請建儲 以係人心從之　　<朝野記聞卷之四 壬辰倭難>

初賊分三路而連陷諸郡 旌旗劍戟 千里相連 所過皆設營柵 留兵以守都元帥金命元 在濟川亭望見賊至 不敢戰 悉沈軍器于江中 變服以逃從事官沈友正固止不得 李陽元在城中 知城不守 亦出走　　<同上>

壬辰四月三十日 車駕出城 亂民先焚掌隷院刑曹 盖以二局公私奴婢文藉所在也 又入內帑庫搶掠金帛焚景福宮昌德宮昌慶宮無一遺者　歷代寶玩及文武樓弘文舘所藏書籍　春秋舘各朝實錄 他庫所藏前朝史草承政院日記皆灰燼 又焚王子臨海君宅 兵曹判書洪汝諄家 皆不待賊至而爲我民所焚

<西厓文集卷十六雜著記亂後事>

黃廷彧詣闕奏曰 自上雖勿許都民散出 平時無固結之本 臨亂徒欲以法繩之難矣 願分遣老成王子 召聚都民 問所疾苦然後 因即宣示德意庶幾有保合固守之望也 上不從 〈宣廟中興誌卷一〉於是西幸之議遂決 內醫趙英璇 書吏申德麟等十餘人 叩閤大呼 言京城不可棄 俄而衛士盡散 更鼓斷絕 上曉出敦義門西幸 王妣步出仁和門　　<同上>

四月月之晦 邊報一何急 一旬已過嶺 人皆荷擔立 白日慘無情 妖禽飛且鳴 廟堂坐無策 市人爲精兵衛卒盡星散神 京已空城 兵官但坐嘯乘輿惟遠行 五巡睿算定 洱都龍釆成 千官齊慟哭 萬室一呑聲 老天亦不助 大雨如河傾 奔波出西門 老弱顚誰持 婦女盡徒跣 貴賤何能知

<息庵集 卷之二 壬辰四月晦日記事>

出敦義門到沙峴 東方向明 回視城中火起 烟焰已騰空矣 盖亂民先焚掌隷院刑曹 以出有公私奴婢文籍所在地 又入內帑庫 搶掠金帛 焚景福宮昌德宮昌慶宮 無一遺者 歷代寶玩及文武樓所藏書籍 春秋舘各朝實錄 他庫所藏前朝史草 承政院日記 皆灰燼 藝文舘檢閱趙存世朴鼎賢任就正金善餘等 亦焚本館史草 踰城而逃走亂民又焚王子臨海君前兵曹判書洪汝諄家舍

<大東野乘卷七（三九六面）>

車駕所經之地 下人作獘 倍於平時 宦者奴輩視百官奴僕尤甚 及到金岩之日 搶掠餠膳 闌入御所 宣傳官諸武官 皆不能禁 御供之物 亦將見奪 新溪縣令丁胤祉 詐倒於地 仍開目直視有若氣絶者 使其下人行且呼曰 某倅被人殺死上大駭之 急使捕斬其作拏者 遂得免焉 或曰人不可以無術 今日之亂 非此人不能止也

<寄齋史草下 壬辰雜事>

出敦義門到沙峴 東方向明 回視城中火起 烟焰已騰空矣 盖亂民先焚掌隷院刑曹 以其有公私奴婢文籍所在地也 又入內帑庫 槍掠金帛 焚景福宮昌德宮昌慶宮 無一遺者 歷代寶玩及文武樓所藏書籍 春秋舘各朝實錄 他庫所藏前朝史草 承政院日記 皆灰燼 藝文舘檢閱趙存世朴鼎賢任就正金善餘等 亦焚本館史草 踰城而逃

走 亂民又焚王子臨海君前兵曹判書洪汝諄家舍 <再造藩邦志 卷一>

上御南門樓 聚一都父老 令各陳所懷 朴鐵壽 金慶溥 河緯坤等伏地言 願召鄭政丞 鄭澈也 又請斬三人頭 以謝一國 爲恢復之策 上問三人爲誰 對曰李山海金公諒及臨海用事奴也 觀聽皆聳 即命釋澈 頸用舊都人才 韓大用 韓溥 張寔 曹旭 韓洙 林大昌 田世龍 張虎臣 特除金吾郎 上留 開城二日聞賊已入京城 御駕倉黃發向西路 時廟社主奉安于穆清殿 仇瘞之(後因尹斗壽言遣禮曹參議奉出而去)

<中京誌一>

初三日曉 乃知城實空虛 遂入城中 士民奔避者 未久還集 坊里市肆 依舊塡滿 與賊相雜 販賣交易 賊多出精勇 緊守四門而我民之帶賊帖者 不禁出入 於是服役受帖 無敢違逆 亦有媚賊相昵 嚮導作惡者 如禮賓寺書員朴守英輩 尤甚於賊 城中人若有謀殺賊者及欲內應者 輒爲守英輩所告 燒殺於鍾樓前及崇禮門外 極肆其極 以示其威 髑髏白骨 堆積於其下 賊之初入城中 獨宮闕燒盡而其餘廬舍猶完

<申炅撰 再造藩邦志一>

時京城之人 皆奔避未久 稍稍還入 坊里市肆依舊 與賊相雜販賣 賊守城門 令我人帶賊帖者不禁出入 於是民盡受賊帖 服役於賊 毋敢違拒 亦有媚賊相暱 嚮導作惡者 如有謀議殺賊者 輒爲其民所告 燒殺於鍾樓前及崇禮門外 極其酷慘以示威 髑髏積其下 <燃藜室記述>

初三日 賊自東大門入城 是日上進駐平壤 史官金善餘焚史草 乘夜逃走 其餘臣僚亦相繼而逃 其時氣衆擧此可想 於是賊分兵列陣 但泼守備後守河遠 對馬守陣小公主洞 石田治部少輔三成陣明禮坊洞 大谷部少輔吉繼陣墨寺洞 增田右衛門尉吉盛陣鑄子洞 前野但馬守陣好賢坊洞 加藤遠江守陣長興庫洞 備前國羽柴宰相豊前家守利陣鄭士龍家富川紀伊守 宇喜多在京高毛花房助兵衛江原兵庫守明石楊部頭陣京陵洞長盤 紀伊守陣西學洞 明石右近助陣水閣洞 花房志摩助陣桂林君富家川玄番允陣古隱墻洞 黑田斟解由釜山黑田甲斐守生駒雅樂頭慶尙道 毛利 全羅道 大村常陸守蜂須賀阿波忠清道 富民田少輔小早川隆景黃海道 森昔政守江原道 加藤主計頭咸鏡道 小西攝津守平行長平義智平調信玄蘇等平安道

<安邦俊撰 隱峯野史別錄>

七日晴 入禁中 宮殿盡爲焦土 可謂一咸陽矣 傍有漏院 實火後一莖艸也

<倭僧 天荆의 西征日記>

東大門牢鎖牆壁高聳不能入 行長臣木戶作右衛門脫銃架衝門扉 扉開 行長令兵士曰勿亂妨 勿入酒肆 戒嚴入城而民既散去 城失守 城中寂無一人 行長分兵而守四門 <太閤記>

上欲使世子守平壤 斗壽命元等以爲 人心視大駕爲去就 大駕既出 雖世子守此無益也 仍啓曰 臣等當極力守之 世子不必留也 上允之 命中和等軍 疊入于平壤

初七日朝 副提學沈忠謙 率三司請對 言臣等之意 此非京城之比 不當死守 更思之 此外無如此城之固者 必以爲不可去也 盖賊勢稍緩故也 及午 中和郡人來 賊已到本郡 沈忠謙又率三司入對 言賊勢已迫 大駕不可留也

吏曹正郎李幼澄請對 極諫不可去之意 上曰 爾言則是 第予則切欲出城以觀變也

初八日 賊到大同江邊 上聞賊已到 遂命治行遼東巡按御史 遣鎭將一人來 上接見于大同舘歷言當初事情 鎭將登練光亭 望見賊騎橫馳曰是固倭也 遂不留而還 朝廷以爲 天朝若有詰問之事則 不可無應對之人 遂以尹根壽遣之

是夜賊使被擄人致書曰 願見漢陰李先生 指德馨也 廷議以爲 德馨接話之後 事若不順 不如使勇士擊殺調信等也 斗壽以爲 國勢雖如此 豈可效盜賊之智乎 只可見之而已 或以爲 見賊之後 若有不忍聞之說 受辱尤大 不如不送 德馨曰 見之則或有緩師之理 請見之 朝廷亦有萬一之望 遂遣之

初九日 李德馨到江上 賊將平調信玄蘇世俊等至 各乘船會於中流 酌酒話 德馨曰 今日之擧何名也 玄蘇曰 欲與貴國相通則自東萊至京城

皆不得傳語　遂輾轉至此耳　德馨曰　今旣與通彼此矣　盍退師乎　古之諸侯　陳師載盟皆退舍今可退師　徐有所議也 賊曰 今本但知進 不知退一步也　遂罷還　勇士朴成景等在傍　知事不成欲殺之　德馨目止之　先是　承旨閔汝慶盧稷等　聞臨津失守　皆稱病不仕 至是見國事已去首先出城　士大夫效此 多欲逃去者

初十日　駕將發　宮人多先出去者　城中人民持斧杖　要諸路 亂擊之 判尹洪汝諄被傷墜馬　父老男女　塡塞宮門之外　痛哭呼曰　我等之不出欲恃大駕爲之死守也 賊已到門外　遽欲棄我等去 是殺我也 寧死於上 不願死於賊　遂欲毁破宮門　逐散諸宰　兵曹佐郞朴東亮見事急　入謂承旨曰　民情如此 事將不測 今日停行以慰安然後方可行也　承旨等啓之　遂停行　承旨出謂曰今日停行　爾等可退去　衆不知信　猶喧聒欲亂李幼澄遂大書停行二字於板　使人登屋遍示之始稍稍散去

十一日　大駕發平壤

<朴東亮著　寄齋史草下壬辰日錄二>

二十九日　急報至　翌曉大駕西幸　監司宋言愼發本府兵　馳進黃州 扈衛而來 五月七日城中士民迎于栽松院　大駕渡浿入御上衙(卽今二衙)居數日　上御大同舘　父老羅拜於前　上慰撫之生員楊懿直　楊德祿上疏上疏極陳致亂之由 答曰今日之事　余之罪　疏陳之意　忠誠可尙　越翌日上御含毬門　擧手指問井田區畫　因講守城之策　命左議政尹斗壽　率都元帥金命元　巡察使李元翼等守城　時城中士民 聞車駕將欲出避 各自分散閭里幾空　舘門招集城中父老　令答旨諭以堅守之意　父老數十人拜伏痛哭 承命而退 分出招募悉還男婦老弱之竄伏山谷者　六月八日賊到大同江邊 尹斗壽遣李鎰 領兵　拒守下流淺灘處　朝廷議守與避　尹斗壽主守　鄭澈主避　柳成龍曰　今日事勢與京城有異　京城則軍民崩壞欲守未由 此城則前阻江水　民心頗固　可與堅守以待天兵之來援耳　李元翼進曰　國君但當死守社稷　雖父母之邦　義不可往　今去將安之　軍民皆曰　本城險固　兵糧又足　願以死守　及決西巡龍灣之計　命內殿嬪宮以下先行　宮人旣出玄輻峴城中士民遮道請留　紛囂雜遝不能禁　柳成龍出門 招諭其長老曰 汝輩欲竭力守城　不願車駕出避爲國之則至矣　而因此紛亂　驚擾宮門則不可也　衆民聞其言　俯首而退　朝廷摘發其首唱遮道者三人斬之　六月十一日　上出城舍輦而御馬　所着大布　直領泥土盡濕　路上觀者　皆流涕

<關西邑誌平壤續一古事>

一百九，朝鮮軍의 平壤城 撤收

六月初一日己丑　時臨津失守　聲息漸急　上命廟堂議去就　寅城府院君鄭澈首曰　此非京城死守之比　可令一大將守之　奉駕而出可也　沈忠謙李德馨又從而和其說　衆議皆以爲然　獨尹斗壽李幼澄朴東亮曰　此不可　我國封疆　南北不過數千里　欲往北道則窮無可往之地　欲渡鴨綠則一渡之後　無復可爲　雖或偸生朝夕　亦何益哉平壤四面絶險　易以防守　軍士過萬　城中壯士不[illegible]數[illegible]　糧食且多　離此一步國事決矣　上曰國事已付卿　好爲也　是夕李蕢至　上問曰　此城之外　無可往之地　不可更生他議也

上諭群臣曰　予當先向前路　世子可守此城　予當親諭父老　使之與世子共守之　遂出御大同舘門諭之　宣諭官沈喜壽　言語悲切　極其愴然　一城父老上下從官　莫不失聲哭

尹斗壽旣已請兵於天朝　凡接濟之策　不可不先爲講究　遂以沈喜壽爲接待使　先往義州　又以洪宗祿洪世恭沈友勝　爲三路調度使　分管粮餉吏曹佐郞許筬自言　願往江原道　召募軍兵　遂遣之

初二日　上諭群臣曰　中殿不可仍在此城　議去向以啓　皆曰自上去就定　然後方可議此事也 李鎰在道啓曰　臣率軍三千　前往行在　但願朝廷堅守平壤　勿生他計　臣當竭力畢命　以效一死　時群議洶洶　去留莫定　及觀此啓　上下頗有死守之心　上命兪泓　留守平壤　泓擧止失措　擧李誠中爲副　處事如中酒者　上命群臣議去就 尹斗壽曰　一城之人皆曰　願與大駕死守此城　大駕若出則當一時皆潰云　人心如此　若能協守　足以抵敵況以事勢言之　此城之外　不知何地可避　何

地爲固也 上曰 卿之言 大杳杳也

上又與群臣議去就 時上顏色慘沮 語甚悲切 臣僚不敢仰視 鄭澈出謂尹斗壽曰 左相之言 好則好矣 獨不見天顏乎 爲臣子者 安忍挽留 強欲守城乎 斗壽厲聲曰 公何爲誤國之言也 若使京城早有固守之計 豈至於今日乎 公不欲守此城 奉駕獨去之可也 澈無以應

李德馨沈忠謙 言於朝曰 觀今日之勢 大駕必不肯留守此城 若一朝動駕 住箚之地 不可不預加講定 今封疆已蹙 只有咸鏡一道而已 咸興爲府兵多糧廣 足以拒守 衆曰然 斗壽曰 咸興形勢 半不及此 脫使賊迫 厥後更有可去之地乎 且此賊不往北道乎 公等 何以咸興爲固而爲此不長之計乎 衆以爲此不可自外延定之 當請對陳可否 上召問之 皆曰 咸興城險糧足 且召北道土兵協守之 則大不如此城之危 上方欲出城 及聞是說 頗然之 斗壽曰 自上旣不欲守此城 則退住之處 自有三件 急往寧邊 繕修器械 召集江邊土兵以守之 事急則即向義州 赴訴天朝 以明仍賊入寇之說 上也 遠向江界 集諸郡之兵 嬰城固守 則可支一二月 事急則江界下流即鴨綠江也 乘船以下 乃上國寬奠堡 二也 咸興形勢 臣所備諳 城大而低 四面無險 欲召土兵則北虜必乘虛入寇 欲向南道則道路險絶 未易登過 賊踵其後 必成圍困 此則決不可行也 衆以北道路險而僻 賊必不往 猶以咸興爲往 計遂定 上又命金義元 先往陽德等處 探視道路 翌日又遣李希得 稱巡察使 往北道 又命兪泓 治行侍衛中殿 先向北道 尹斗壽出謂曰 李鎰宿將也 必有所見 待其來 當決北道之行 是午鎰至 滿朝官僚咸仰鎰ロ發何言 環擁而坐 斗壽問曰 平壤棄守 公意如何 或言咸鏡可往 亦如何 鎰曰 此賊不可當 平壤可以去也 咸興非此城最先受敵之比 可以往也 沈忠謙拊其背曰 眞將帥也 李德馨亦喜曰 所以李鎰也 斗壽曰 失性不足言

初六日 右議政兪泓 左贊成崔滉等 侍衛中殿 發平壤向咸興

時賊到臨津十日 朝廷猶不爲哨探 始募得勇士金珍任旭景等十二人送之 遇賊於黃州 斬二級而還

上巡視城上 召父老 諭以固守之意 咸泣曰 主上若留則皆當死守

上命左相尹斗壽 率金命元以下 留守平壤

一百十，朝鮮 朝廷의 渡遼之議와 分朝之策

十一日(壬辰六月) 大駕發平壤 左相尹斗壽都元帥金命元巡察使李元翼監司宋言愼兵使李潤德校理金信元吏曹佐郎李好閔等　送之普通門而辭 歷順安夕到肅川 多官議曰 今者國事已急 大駕北道之行 亦不可必 若是則中殿豈可獨留北道乎 不如退回于寧邊 觀勢去就可也 上從之 朝廷又以請兵天朝 事莫重焉 豈可只送譯官而望其救乎 遂遣大司憲李德馨 稱請援使 急往遼東

又遣洪汝諄 巡察陽德等處 以防自北向西之路

十二日 駕到安州雲巖院 人民逃散 遂闕膳……夕到安州 上見道上軍士還 問之則皆逃散者也 遂命持平李慶祺 馳往慈山等處 招集逃軍 赴軍前

十三日 駕到寧邊 城中人畜俱已散去 判官黃沂亦自外村始來 上下皆闕飯 是夜韓應寅馳啓曰 賊已渡江東外灘 只隔一灘 相與對陣 上遂召群臣謂曰 今日之勢 已無可爲 然予與世子同往一處則 更無可望 不如分往 但今日所向何定 承旨李礩曰 上國父母之邦也 今當往義州赴訴天朝 事若不利 君臣當同死鴨綠江 聲大義於天下可也 柳成龍李恒福亦曰 此言大是 請往義州 上曰予若渡遼 諸臣有能從我者乎 李恒福李礩泣對曰 臣等願從行 上顧謂崔興源李憲國李誠中曰 卿皆老矣 可從世子 又謂韓準曰 卿有父母 亦可從世子 群臣皆泣 上亦垂涕

十四日 時大駕世子將分行而侍衛之官 親承上命者外 皆不知所向 領議政崔興源遂列書姓名以啓 上遂落點 蓋上以渡遼則人所厭避而又非老病輩所能從 擇令無病可遠行者從駕 持平李廷信聞其當從駕不辭 上又以韓準方判戶曹 不可暫離 遂命從行 準托以落傷出城去

上又謂世子曰　國事已至此　更無望矣　吾父子同往一處　事若倉卒　後無可爲之事　今予當赴訴上國　世子奉廟社主　急往江界等處　以圖恢復可也　因相對哭
十五日　上辭廟社主痛哭 世子亦痛哭 上謂世子官屬曰　國家之事 付在世子身上 爾等盡乃心力好爲輔佐　以圖再造　駕將發 世子辭兩宮　從官各失聲　牽馬僕隸　莫不泣下沾襟
時世子遣韓德遠趙挺　問安于上(博川) 挺之還 上手書致世子曰　予生旣爲亡國之君　死將爲異域之鬼　父子相離　更無可見之日　惟望世子再造舊物　上慰祖宗之靈　下迎父母之還　臨楮涕下不如所言　時世子方駐開平驛　趙挺即向京畿不之傳　上三更發博川　平明到嘉山
十六日　駕到嘉山　賊聲漸急　從官散去　殆無餘者　上遣咨遼東　遂請內附　大駕到定州
十七日　寅城府院君鄭澈豐原府院君柳成龍　率大司諫鄭崑壽　欲請上授世子監國之任　遂入對上問曰　卿等有何所言　澈成龍等只言　國事如此　已無可爲　奈何奈何　遂退出　或曰　世子已受監國之任　澈等之意欲 上傳位 囁嚅不能發也
十八日　駕發定州向郭山 上召謂柳成龍曰 今日之行　專爲內附也　卿可先行　如遇天朝人之來必先道賊情　後言渡遼之意
二十日　次龍川郡　尹斗壽啓曰　今日之行　專爲赴訴天朝　以此兼程疾馳　已到于此　但遽到義州　人心大駭　將無以收拾　況今賊勢頗緩　先使義州等官　收集散兵　諭以不即渡遼之意　使有所恃然後更觀二三日後　緩緩征進則遠近不至失望矣　上從之

<朴東亮著 寄齋史草下壬辰日錄二>

…中略…　時渡江之議已決　左議政尹斗壽極力爭之　一日至有五啓　且曰宗社臣民　擧將誰托而輕爲此匹夫之行乎　郝上不聽　乃移咨於寬典堡　願率宮嬪　內附上國　寬典堡副摠兵佟養正稟報於遼東巡撫御史郝杰曰　朝鮮國王　兵敗棄國願率衆入遼　作何處置乎　郝杰據此上本曰
『該鎭據寬典堡副摠兵養正稟報　以爲朝鮮國王爲倭所敗　奔走義州　願率衆入遼　作何處置　據此等因　朝鮮素稱大國　世爲東藩　何得一遇倭至望風而逃　倘彼國之群臣　因社稷失守　奕爾來奔　其在守臣　拒之則㨗依無所　失外服仰賴之心　納之則事係非輕　臣子無專擅之義　倭奴譎詐異常　華人多爲嚮導　若挾私闌入　貽害非常　專侯稟旨指揮』
兵部尙書石星　又據此上本曰
『該部據遼東巡撫都御史郝杰所報 寬典堡副摠兵佟養正稟報　以爲朝鮮國王 果兵力不足 率衆內附云云　據此詳看　當令該鎭遣的　當人役　宣諭朝廷至意　使知來奔則復國無期　倭遂占據固守則援兵可集　倭自敗回　令彼駐箚彼國險阨處所　以待天兵之援 又令多遣陪臣　號召勤王之師以爲恢復舊疆之策　不得甘心敗亡　萬一該國危急　固請奔入　情難盡拒　宜勅令容納　亦須量名數　毋過一百　遵照施行　奉聖旨『倭賊陷沒朝鮮國王逃避　朕意憫惻　援兵當出　差人宣諭彼國大臣　着他盡忠護國　督集各處兵馬　固守城池控阨險阻　力圖恢復　毋得坐視喪亡』
佟養正差人賫咨　宣諭勅旨　然訛言未息　中朝不能無疑　又遣差官宋國臣賫咨而來　以探眞假國臣黃學士洪憲家丁也 會隨學士　奉詔東來 自言詳見國王故也　急馳渡江　與上相見後　歸報云　的是眞王非假王而副摠兵楊紹勳又移帖于上曰

> 『國王旣不以社稷爲重而遠避棄國則軍民因之無戰心　欲求不潰散難矣　幸察利害之輕重　毋爲渡江之計也』

上令大臣覆帖于摠兵　言其危迫不得已之勢而中朝尙無出兵之議　<再造藩邦志卷一>

百十一，明에 對한 請援

上乃發嘉山 夕至定州　賊報日急而天兵尙未出上下遑遑　莫知爲計　上召群臣問策　李恒福李德馨曰　事急矣　臣等請入天朝　上書求救　二人爭往　至夜分　上猶沉吟不決　沈忠謙曰　臣聞天下之事勢而今勢若可救　微二臣往 兵自當出 勢不可救　雖二臣並往無益也　二臣在國　人固信服　在中朝則不過一介陪臣　中朝何知其賢否而

肯爲此二臣者 回己定之論 況恒福方在本兵 尤不可遠離 無己則德馨可遣 上曰吾意政如此矣於是乃遣德馨 翌曉將急發 恒福送之南門 德馨曰恨無快馬兼程疾馳 恒福即解所乘馬與之曰 兵若不出 君當索我於重泉 獲無相見也 德馨曰兵若不出 吾當棄骨於盧龍 再不渡鴨水也 二人洒涕而別 見者動容 是日駕出定州 命柳成龍留守定州 州人己四散避亂 獨老吏白鶴松等數人在城中而己 成龍伏路次 送駕出城 坐延薰樓下有亂民數人 搶掠官庫 成龍分遣軍官捕斬之 己而金命元李薲等至 使之守定州 成龍追及上行於龍川 二十三日 車駕到義州 超拜李幼澄爲義州牧使 李誠中爲戶曹判書 誠中幼澄之父……中略…… <再造藩邦志卷一>

時天朝論議不一 或謂堅守鴨綠江 以觀其變 或謂夷狄相攻 自是常事 中國不必救之 當守鴨綠江 耀武示威而或謂外藩失國 在我不可不救石星且請先賜火藥禦敵之具 科道官等上本 以軍器火藥 禁賜外國 高皇帝之法 不可違也 石星爭之曰 所謂外國 羈縻荒遠 其成敗不關於中國者也 朝鮮事同內服 如使倭窟居朝鮮 侵犯遼東而及山海則京師震動 此乃心腹之憂 豈可以常例論之 假高皇帝在今日 必賜無疑 時謝恩使申點在玉河舘 石尙書呼至中庭 出遼東報變文書示之 點即號慟 與一行朝夕大臨 日日至衙門 力請援兵 於是皇上命會集文武大臣九卿科道等官雜議 <再造藩邦志卷二>

戊子間 日本遣使要我假道 朝貢于天朝 其實意不在於假道也 我朝不從其言 日本哄我猶不己 且請通信使 朝廷不得己許之 庚寅夏 以黃允吉爲上使 金誠一爲副使 許筬爲書狀官 送日本 辛卯春還來 金應南以節使赴京 備陳賊情 及乎福建間有被擄逃還者 見通信使 謂爲乞降 告于天朝曰 朝鮮遣三百人貢驢馬云云 朝廷聞此言 遣韓應寅 又報賊情 天朝初有疑我之心而見此乃釋 至是 中朝道路相傳 朝鮮爲賊嚮導來 以此疑我 遣差官黃應賜(暘)到龍灣 審視天顏 然後乃知避賊西遷而實無他也 盖應賜壬午間 隨天使黃弘憲行 曾見天顏者 故委遣而探之 又遣天使薛藩 賜銀幣而慰之 我朝請兵請糧 前後相望而帝皆允之 非聖上平日事大之誠有以感動乎帝心 <尹國馨撰 甲辰漫錄>

百十二, 義兵의 蜂起

全羅道儒生梁山璹郭賢來言 金千鎰起義兵 與全羅兵使崔遠 合兵到水原 高敬命趙憲亦起兵相繼來 慶尙道亦有金沔鄭仁弘朴惺郭再祐等起兵討賊 上召山璹等入 謂之曰 以予無狀之罪 爾等跋涉千里 出賊中而至 亟斬何言 山璹曰 千鎰軍中 精勇數多 半是儒生 只仗忠義而起至於成敗則天也 上泣曰 忠義所激 何事不成郭賢曰 臣素與趙憲厚 及臣起事之後 憲曰 近觀天文 我國無滅亡之運 賊亦終必不得志去矣上曰 是憲之言乎 賢曰 己丑年憲謫北道 能知逆變之發 又自辛卯年 明言國有大變 預講避居之所 此必觀天之驗也 上曰 若是其符乎甚有喜慰之色 遂陞千鎰爲判決事 稱倡義使 高敬命稱招討使 俱賜敎書 賜趙憲敎書 有悔不用忠言 致有今日之語 又賜金沔等敎書 己下罪己敎 有曰龍灣一隅 天步艱難 地維己盡 予將安歸 瞻彼江流 亦流于東 思歸一念 如水滔滔 敎下 遠近聞之 莫不流涕 皆李好閔之辭也

<朴東亮著 寄齋史草下壬辰日錄三>

泰仁前主簿閔汝雲 募聚鄕兵二百餘名 以態字爲章標 治械備糧 向嶺南

全羅道海南進士任希進 靈光前僉正沈友信 各募鄕兵數百 治糧械 幷赴嶺南 希進以彪字爲章標 友信以鼉爲章標 時前後擧義者 湖南凡二十餘將 八道皆然而其餘小小自募將 不可盡記

<趙慶男撰亂中雜錄一>

敵愾義兵將邊士貞 領軍向京 先是士貞單騎馳謁鄭澈 澈許以軍官李潛使爲副將 士貞與之同還 以爲其副 至是行至公州 因體察使分付 還向沃川 留兵討賊 <同上>

忠淸道老相沈守慶擧義兵 以曺大坤爲副將 健義爲章標 大坤先以慶尙右兵使奪職 從金晬向行朝 朝至湖西 守慶止之以爲副 其後行朝以健義將 爲八道義兵都大將 賜印及御刀<同上>

陞休靜嘉善 爲八道僧兵都摠攝 惟正折衝 爲副摠攝 討賊功多有是命 <同上>

以陜川郡守金沔 拜本道右兵使 全羅右義兵將崔慶會加資通政 <同上>

忠淸道人李山謙 收趙憲餘軍而起 治糧械討賊 <同上>

時各道起義兵討賊者甚衆

在全羅道者 前判決事金千鎰 僉知高敬命 前寧海府使崔慶會 千鎰字士重 率兵先至京畿 朝廷嘉之 賜其軍號曰倡義 已而不能軍入江華 敬命字而順 孟英之子 有文才亦率鄉兵 移檄郡縣討賊 與賊戰敗死 其子從厚 代領其衆 名曰復讐軍 慶會後爲慶尙右兵使 死於晋州

其在慶尙道者 玄風人郭再祐 高靈人前佐郎金沔 陜川人前掌令鄭仁弘 禮安人前翰林金垓 校書正字柳宗介 草溪人李大期 軍威校生張士珍 再祐 越之子 頗有才略 累與賊戰 賊憚之 固守鼎津 使賊不得入宜寧界 人以爲再祐之功 沔故武將世文之子 禦賊于居昌牛脊峴 累郤賊 事聞 擢爲右兵使 病卒於軍中 宗介 起兵未久 遇賊而死 朝廷嘉其志 贈禮曹參議 士珍 前後射殺賊兵甚多 賊稱爲張將軍 不敢入軍威界 一日 賊設伏誘之 士珍窮追陷伏中 猶大呼力戰 矢盡 賊擊斷士珍一臂 士珍獨以一臂 奮擊未已 遂死 事聞 贈水軍節度使

其在忠淸道者 僧人靈圭 前提督官趙憲 前淸州牧使金弘敏 庶孽李山謙 士人朴春茂 忠州人趙德恭 内禁衛趙雄 淸州人李逢 靈圭 勇力善鬪 與憲復淸州 後爲賊所敗皆死 雄 尤勇敢 能馬上立馳 殺賊頗多 戰死其在京畿者 前司諫禹性傳 前正鄭叔夏 水原人崔屹 高陽人進士李魯 李山輝 前牧使南彦經 幼學金琢 前正郎俞大進 忠義衛李軼 庶孽洪季男 士人王玉 季男最驍勇 其餘各聚鄕里 或百餘人 或數十餘人 以義爲名者 不可勝數而無可紀之績 皆遷徙日闋而已 又有僧人惟政 在金剛山表訓寺 賊入山中 寺僧皆走 惟政不動 賊不敢逼 或合掌致命而去 余在安州 移文四方 使各起兵赴難 文至山中 惟政展佛卓上 呼僧讀之流涕 遂起僧軍 西赴勤王 比至平壤 衆千餘人 屯平壤城東 與順安軍作爲形勢 又有宗室湖城監 率百餘人赴行在 朝廷陞秩爲湖城都正 使屯順安 與大軍合勢

其在北道者 評事鄭文孚 訓戎僉使高敬民 功最多云 <懲毖錄一>

惠居常高陽人也 與避亂士女 上城山 約束禦賊賊 添兵而來 士女驚潰 居常不動 曰吾年七十矣 且五十年名編羽林 食祿已多 更何惜死耶 雖老猶堪射賊 以吾一身當賊六七 則是亦報國矣 與其一家三人 力戰殺十餘賊 罵不絶口而死 <宣廟中興誌 卷三>

士人趙慶男 率民兵附李光岳(全羅兵使) 光岳以爲從事官 慶男南原人也 初南原被圍 慶男避兵于智異山 中夜望城中砲火震耀 失聲憤泣曰 丈夫寧忍草間求活 坐視孤城之陷而不爲之動耶 遂與勇敢士六人 共擊游賊 斬首四十級 奪人畜數十而還 平調信以兵五百 收稻於求禮山洞 慶男團結六十人 夜掩別隊殲之 仍驅馬上山 放砲鼓噪 東西出沒 如是兩晝夜 調信驚疑 焚幕而遁 又掩賊屯於咸陽 斬首百數十餘級 奪人畜數十 至是隸光岳軍 光岳令覘賊於昆陽海中 還過蟹峴 賊伏忽起截峴路 慶男不爲動 整隊馳登 賊少却 仍向賊大呼曰 我大軍先鋒也 一可當百 能鬪下來決戰 賊逡巡仍避 慶男乃徐行而過 賊駭視不敢逼 稍稍越峴而遁 慶男遂得令全隊而還

<宣廟中興誌 卷五 丁酉>

初從高敬命 及敬命死 姜希説奮泣還鄕 募兵數百

泰仁人主薄閔汝雲 靈光人僉正沈友信 海南人進士 任希進 亦皆募兵數百 後皆死於晋州 <同上>

咸昌人李軸 有膽勇氣 初手一槍一弧 乘間突出擊賊 斬殺甚衆 一日賊猝至 士民告急 軸乃以大網席 懸之左右 躍以趁 其疾知風 席爲之閃閃飄空 賊望而異之 不敢逼 士民以其間得逃難 遂屬鄭經世義兵 倭有一足者 驍捷善跳劍技如神 賊用爲先驅 所向無敵 軸揣其短於

折旋而無據地力 故誘入廻溪曲道 倭奮劍追 輒忽環忽走出其背 推諸水殺之 亂定 朝廷聞而嘉之 錄宣武原從勳 官至郡守

<宣廟中興誌 卷三>

昌寧保人曺悅 忠義衛成天裕 各聚兵六百人 合攻昌寧賊柵 破之 射殪其將

<宣廟中興誌 卷三>

忠義趙熊死於忠州 熊勇敢能於馬上立馳 募兵五百殺賊無算 一日賊乘霧襲之 熊中丸墮馬 斷手足罵不絶口 <朝野會通卷之 宣祖紀>

原任議政沈守慶 起義兵於忠淸道 時守慶退老湖西 召募義旅 以前兵使曺大坤 爲副將 建義爲章標 後行朝 以守慶爲八道義兵都大將 賜印及御刀 <宣廟中興誌卷三>

前參奉尹軫 聚義兵數百 守笠岩城 賊至衆 潰賊遂露刃而前 軫神氣不變 兀坐罵賊而死 妻權氏 參奉擘之女也 引佩刀自決

<宣廟中興誌 卷五 丁酉>

南原進士房處仁募聚軍卒 伏設光陽陶灘(晋州之界) 以陶灘義伏四字 印篆爲章標

<亂中雜錄卷二>

高陽人進士李櫓 有膽氣 與其徒入敬昌陵 聚兵林藪中 出沒射賊 賊遠避 由是二陵獲全

<宣廟中興誌 卷三>

義城人金致中 金麟祥 皆鄕兵募集討賊 爲其所敗 致中知不免死 與妻申氏 俱墜岸死 麟祥被執 奮罵而死

固城人諸末起兵擊賊 驍勇善戰 以功拜星州牧使遽卒 <同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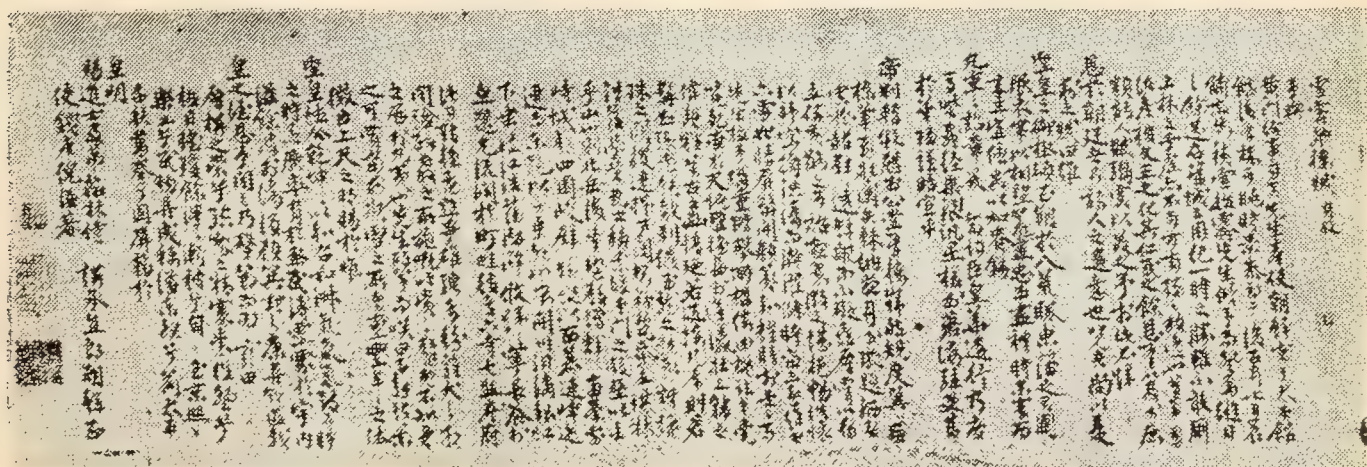
禹祭酒性傳景善 壬寅生也……亂生後奉其九十老母 漂泊海曲 擧義興兵 朝廷聞之 特許陞堂爲大司成 賜印信 自號其兵爲仗義 入江華與金千鎰相表裏 挾守湖海 癸巳賊退時 追至宜寧 病甚 舁還 卒於富平路中 得壽止五十二 上以不從延安赴援之命 削其官爵 自號秋淵

<尹國馨著 聞韶漫錄>

前府使禹性傳起義兵 以義爲號 畿內士民多從之 兵且數千人 入江華與倡義使金千鎰連兵時千鎰自水原蓋已先入保也 金千鎰募人詣漢城潛奉文昭殿位版 安于江華 亂初奉瘞于殿內故也 事聞命賞應募人 倭寇來泊松亭 問地名云何 亟發帆不入 盖其東來 卜得遇松則敗之兆故忌之云爾 <江華府志下>

全羅右義兵及復讐兵士子等 收拾殘兵數百 共推前提督和順崔慶長爲將 慶長慶會之兄也 以繼義爲章標 <亂中雜錄卷二>

百十三, 東征軍의 出動準備

明朝廷以八道被賊 俱皆蕩殘 非天朝兵力無以至此賊而遼人來者皆言 出兵之期 時無的息 遷延至此 坐待殘滅 請急遣一使臣 適謝恩使申點 還自北京 言遼東撫安鎭 俱題請發兵救援着九卿大臣會議 衆皆言 朝鮮遠在藩服之外 猝被倭侵 至於喪國烏竄 必有自取之殃 至於伊國情形 俱未暗知 不可輕動軍旅 遠事外夷 令

<明使 倪謙 筆蹟(奉使朝鮮唱和詩册所載), 羅振玉氏所藏>

勅遼左將領 嚴使防守 勿致疎失 獨兵部尙書石星以爲 朝鮮素稱禮義 侔擬中華 首尾二百年 恭愼無他 以是祖宗朝 優禮朝鮮 不與他外藩比 況此被兵曲折 前旣題奏 明有次序 決非挾詐覬覦之計 若折而入倭則 封疆之憂 不可勝言 亟請發兵救之 惟以建議欲不救 以此尙不之定 石尙書召洪純彦謂曰 爾國之事 我獨盡力而衆議如此 此時 爾國使臣來則 俺當爲之力矣 皇上亦憐爾國而寧夏方用兵 以此恐力分耳 爾國何至今不請兵乎 遂遣鄭崑壽沈友勝 星夜前往 崑壽之行 上親酌以送 語多悲慘 崑壽謂人曰 朝廷謂我爲異己 使之遠赴 此何事也 李誠中衆中叱之曰 從臣十五六 率衆四五事公旣閑官 又非衰病 今日之行 非公而誰 況當此時 雖使之入賊營 猶不敢憚 天朝父母之邦 尙不欲去 對人發憤色 必非忠臣義士之言也 崑壽大慙　<朴東亮著寄齋史草下 壬辰日錄三>

或云 雖奏天朝 焉肯出兵來救 假令出兵 兵當出遼廣兵馬 遼左之人 與㺚無異 必有憑凌橫暴侵擾之患 令七道皆爲灰燼 一國之中 一片乾淨地 只是平安一道 復爲天兵蹂躪則更無着足之處 此策決不可用　<再造藩邦志>

百十四, 東征軍의 和戰轉換

時傳言 清正亦欲繞出陽德孟山 暗襲平壤 提督旣有西歸之意 因此聲言 平壤乃根本 若不守大軍歸路 不可不救 遂令諸軍齊退乃向平壤 只留遊擊將軍王必廸 守開城府 因謂德馨曰 朝鮮之軍 勢孤無援 宜悉還江北 毋爲賊乘 柳成龍時在東坡 遣從事官辛慶晋 馳見提督 陳不可退軍之意曰 先王墳墓 皆在畿甸 淪於賊藪神人望切 不忍棄去一也 京畿以南遺民 日望王師 忽聞王師退去 無復固志 相率而歸賊二也 我國境土 尺寸不可容易棄之三也 將士雖力弱 方欲倚仗天兵 共圖進取 一聞撤退之令必皆怨憤離散四也 一退而賊乘其後則 雖臨津以北不可全五也 提督聽其言 默然而去 朝遣左議政尹斗壽 請勿退兵 提督亦不聽 斗壽若辭請東 涙隨言發 提督爲之動色 遂有泣閣老之稱 進士太玄沈朝煥 聞東事 作二律歎之(律略)　<再造藩邦志 卷二>

提督旣以稱病請代 且言 王京之倭二十餘萬 又有關白揚帆入犯之說 極其張皇 經略聞之 乃於三月 率原任薊鎭東協副摠兵後府署 都督僉事王承恩 統領遊擊將軍指揮同知王汝徵 中軍旗鼓張九經及隨營叅將蘇國賦 原任通判沈思賢 監生髙良佐 遊擊將軍呉宗道等 渡江進住安州 王承恩大寧前衛人 未久以私賣官馬 爲經略所叅革職去 王汝徵領馬步兵二千 經略使之分屯定州寧遠等處……中略……又分 遣副摠兵佟養正中軍王承恩等 往審鐵山海岸可設烟臺之地 行到鐵山 郡人以花席遺之 養正却不受 後以事革職　<再造藩邦志 卷二>

百十五, 日本軍의 漢城 撤退와 東征軍의 追擊

京城合屯之賊 相議退下 密令盡殺降民 未及避者皆死 十九日(癸巳四月) 京城之賊 撤兵渡漢流下湖西 李如松領兵馬 自松都入陣京城京畿忠清江原各處留屯之賊 一時流下 李如松在京城 休軍南下 將踰鳥嶺 沈惟敬自龍山出入後 因留倭營 隨下嶺南 遣管家請回兵完事如松還駐京城 權慄自坡州領軍入京 擬渡江追賊 李如松令遊擊戚金收津船 使不得渡 慄與宣居怡等還全羅 平秀家與行長等賊 會于忠州踰鳥嶺 以沈惟敬及兩君金貴榮等諸人 騎馬前導 又聚京中外方美女歌兒才人樂工 吹笙擊鼓大張音樂 不設兵伍 亘滿山野 晝夜作樂 以示凱還 及至聞慶 還向鳥嶺 再三上下 因流下嶺南 分屯沿路 二十九日 嶺南招諭使兼右道巡察使金誠一卒 以安集使金玏代之 兩湖體察使鄭澈及京畿江原道體察使兪泓 率將士入京城收掃陵寢 焚蕩之餘 一無所存 禾黍丘墟 摠是慘目 遣宰臣鄭澈柳根等 奉表陳謝三京收復　<趙慶男撰亂中雜錄一>

四月十八日 倭棄王京遁 如松與應昌入城 遣兵渡江尾倭後 將擊其撤歸 倭步步爲營分番迭休 官軍不敢擊 倭乃結營釜山 爲久留計 時漢

江以南千有餘里 朝鮮故土復定 兵部言宜令王還國居守 我各鎭兵久疲海外 以次撤歸爲便 詔可 應昌疏稱釜山雖瀕海南 猶朝鮮境 有如倭覘我罷兵 突入再犯朝鮮不支 前功盡棄 今發兵協守爲第一策 即議撤宜少需 俟倭盡歸量留防戍 部議留江浙兵五千 分屯要害 仍諭王蒐練軍實無恃外援 初朝鮮用師 劉綎請率川兵五千赴援 詔以副總兵從征 至則倭已棄王京遁綎趨尙州鳥嶺 嶺亘七十里峭壁通一線 倭拒險 別將查大受祖承訓等 間道踰槐山出鳥嶺後 倭大驚遂移駐釜山浦 綎及承訓等 進屯大邱忠州 以全羅水兵布釜山海口 朝鮮略定

<海東繹史卷六十二 本朝備禦考二，明史>

四月十三日 遣使宣諭倭營 倭將卒皆羅拜聽命退出王京 應昌乃遣重兵躡之 倭亦燒浮橋沉渡船以去 全羅慶尙二道者 宿星嶺南原等處 斬首三十五級 倭相顧驚 悉衆宵遁歸釜山 送還王子並宮眷陪臣百餘名 應昌念朝鮮爲中國吃緊屛藩 朝鮮安則中國四鎭可恃無恐 檄副將劉綎 督兵一萬六千 防守全慶要害 又選麗兵精壯者數萬 令綎教習訓鍊 使彼兵漸熟我兵漸歸 移王子光海君 出鎭重地 設險隘謹斥候 爲禦外之策 用賢能均徭役 爲安內之政 方苦心興舉 會石星一力議封 移文撤防 應昌回咨 謂官可罷防兵必不可撤 堅持不允 因上愼留撤酌經權一疏 疏上 本兵不悅 無何遂罷經略

<海東繹史卷六十二，本朝備禦考二，兩朝平攘錄>

廟堂之成算 乘戰勝之餘威 因而馳遣辯士說諭歸巢 仍間離其僞師 豈行長清正等委于前月十九日 等絡繹離王京而南 今已行過四五百里節經經撫塘報 時日又得一報 謂倭雖盡行而在路每人徒步 帶五斗糧日行不句四五十里 人聞自王京至釜山半路間 却又停止創建土城寨柵 爲久居之計 臣等臆決大約不過三端

其一 因入海無舡故 暫住傍山一帶伐木造船 過暑而行

其二 因關白在對馬島 或尙未稟命 或已經 稟命 被其中止

其三 聞鮮人積受荼毒 欲乘其遠歸飢乏之際 追襲報仇 或者因知此信 所以欲行復正立寨

自凡此皆不與中國事乃臣等獨憂 我兵忧于浮議昧于大體有如見利而動 亦爲鮮 爲則不惟自虧大信 其曲在我抑恐遠追穷勝 期已經節次貽書經略阻之 再惟兵家進退決機呼吸

<皇明實錄 第三百九十二卷>

體察使都元帥率諸官 詣宗廟墟痛哭 次至提督門下 見伺候諸臣 呼痛良久 明日朝更起居於提督 且言 賊兵纔退 亦應不遠 願速進兵急追之 無失期會 提督曰 吾意固然 所以不急追者以漢江無船故耳 體察使答曰 如老爺欲追賊則職等當先出江面 整備舟艦 提督曰 甚善 體府以下旣馳出江上 收拾船隻 適有京畿右監司成泳水使李蘋 已收大小船隻 俱會漢江 幾至八十餘艘 體府還報於提督曰 船已辦 兵可渡也提督令中協將李如栢 率萬餘兵出江上 軍半渡日已向暮 如栢忽稱足疾 乃曰 當還城中醫疾然後可進 遂乘轎而回 已在漢南之軍 亦皆還渡入城 盖提督實無意追 賊 但以謾辭紿應而已

<再造藩邦志二，大東野乘卷七，五三一面>

全羅巡察使權慄亦率兵馳入城中 知賊已渡江急令先鋒 領精銳疾馳 追躡賊後 慄亦將整點大軍 未及起程 提督聞之 與諸將議曰 朝鮮將官 惟全羅布政慷慨善戰 士卒用命 今若悉衆追躡 敗我和事矣 急遣游遊擊將軍戚金 馳至露梁津 收津船 使士卒不得渡 金乃送腹心人 邀慄計事 及到 金詰之曰 公不待李老爺分付 經先追賊何也 慄曰 賊走而追躡 俺等之職也 李老爺之不欲追躡 未及知之耳 金默然良久 乃暗令腹心人 覘其動靜 不得輕動 時宋經略聞賊捲歸 即渡清川江 進至平壤 督提督追勦賊兵移咨我國 協同進兵 朝鮮以尹根壽爲接伴使 以李廷龜黃愼柳夢寅爲跟隨

經略又令副摠兵劉綎 馳赴軍前 贊畫劉黃裳視師 皆令尾倭隨後 乘間擊其隋歸而倭賊步步爲營 用分番休迭法 緩緩而退 劉綎以五千兵 趨忠州鳥嶺 鳥嶺横亘七十餘里 懸崖鑱削中通一棧 灌木叢雜 騎不得成列 倭尙拒險 諸軍畏不敢逼 沈惟敬方在倭營 知大軍在後 恐阻和事

使人稟提督勿追 仍逶迤移向釜山浦 築居屯種如久住計 自蔚山西生浦至東萊金海熊川巨濟首尾相連凡十六屯 皆依山憑海 築城掘塹 計甚凶狡而副摠兵王有翼參將張應种趙之牧張奇功 依經略檄文回去 <再造藩邦志 卷三>

百十六, 朝鮮軍의 漢城 收復과 還都

二月既望諜報倭以二十萬衆入寇 如松令元軍平壤扼大同江接餉道 如栢等軍寶山諸處爲聲援大受軍臨津留寧承訓軍開城而身自東西調度 聞倭將平秀嘉據龍山倉積粟數十萬 密令大受率死士 從間焚之 倭遂乏食 初官軍捷平壤鋒銳甚 不復問封貢事 及碧蹄敗衂如松氣大索 應昌如松急欲休息而倭亦芻糧並絶且懲平壤之敗有歸志 於是惟敬款議復行

四月十八日 倭棄王京遁 如松與應昌入城 遣兵渡漢江尾倭後 將擊其惰歸 倭步步爲營 分番迭休 官軍不敢擊 倭乃結營釜山爲久留計 時兵部尙書石星力主封貢 議撤兵 獨留劉綎拒守如松乃以十二月班師 論功加太子太保增歲祿百石 言者詆其和親辱國屢攻擊之 帝不問

<明史卷二百二十八 李如松傳>

十月初四日 車駕還都以貞陵洞月山大君舊宅(今朝禮宮) 爲行宮 陽川都正家桂林君家爲大內 沈義謙家爲東宮 沈連源家爲宗廟 又以附近大小家 爲闕內 各司乙丙間就路東西邊建門用木作柵名曰 時御所

<朝野會通卷之十六 宣祖記>

上留平壤一月許 賊已逼大同江 或請守城 或請出避 朝議紛紛 累日不定 上決意出避 城中人民 願爲死守 至有發不遜之言者 中殿僅得先發 命監司宋言愼 斬亂民數人 然後稍定 大駕遂發 臺諫翰注 安州間逃者四五人 至寧邊大駕向義州 勢若窮蹙則爲渡遼計 東宮奉廟社主入山郡 遷移輾轉 七月間抵江原道 久留伊川 近畿士民 稍稍遂集 人心始有思漢者 人以伊川之行 爲中興之根本云 癸巳七月 天兵攻破箕城之後 大駕漸還東路 或留定州 或留江西 或留海州 十月初一日還都 是日儒生若干迎于盤松 都民亦出迎于此地 上下號哭 天地爲之動色云 邸駕自伊川 壬辰九十月間 移住成川 過冬於龍岡 癸巳正月 迎拜大駕于定州仍從駕還都 中原命邸駕總理兵防於全慶 故閏十一月南下 暫留公州 仍向全州過歲 甲午春還洪州 八月還都(在全州闢于朝設科取人文士九人武士數千人) <尹國馨著聞 韶漫錄>

百十七, 鞠景仁의 叛亂

王子轉入會寧府 聞賊兵追迫 欲向前鎭 土兵已謀反 佯請守城 自守門鑰 使不得出 翌日 土官鎭撫鞠景仁 聚徒作亂 自稱爲大將 以甲騎五百結陣 時巡邊使李瑛(南兵使兼南北道巡邊使) 府使文夢轅(他書는 軒으로 하다)在南門樓上 愕不知所爲 高嶺僉使柳擎天 果悍壯士也 耳謂瑛曰「景仁叛而本府兵從者半 未必盡其腹心 公於此團集一行軍官員役 戒嚴而臨之吾則往諭景仁 使解兵 即不聽 便斬首 諭衆使散 公自此呼聚受降 自然定矣」 瑛庸儒 搖首曰「愼勿爲此言」 景仁微聞其計 使人執軍官壯健者 盡斬之 擎天見言不用 即與麾下數人開西門出去 賊不敢追 景仁遂圍客舍 就執兩王子及夫人女侍一行奴婢等 與宰臣 金貴榮 黃廷彧黃赫並其家屬 皆綁縛 置一間房 如積峙器物 貴榮後妻李氏年少 賊欲刼之 即就舘中屛柱縊死 李瑛解甲 就賊中哀乞 請釋王子 賊執之 景仁以文書馳報于清正 清正至府 結陣城外 單輿入城 見王子諸臣 責景仁等曰「此乃汝國王之親子 及朝廷宰臣何困辱至此」解縛置軍中 饋供頗厚 <李植의 野史初本卷一四>

大駕西狩 前左議政金貴榮 長溪府院君黃廷彧及其子前承旨赫等 奉臨海順和兩王子 入北 七月到本府 留數月(日?) 府人鞠景仁作亂 執王子諸宰及南道兵使李瑛 府使文夢軒倂其婦女婢僕 囚于別舘 皆繫累頸脰 疊積一房 呼死之聲徹天 景仁馳牒 送欵于倭賊 賊將青 正單馬入城 解縛厚遇之 且責景仁等曰「汝輩忍爲此事 當誅不可賞」云 時金貴榮後夫人年少景仁等欲逼辱之 佯爲不知男女 欲探見其乳 夫

人拒不受 就客舍屛風機木縊死

<北關誌會寧府雜記>

李瑛……隨王子 七月二十一日到本府(會寧) 二十二日 全州流配人鞠景仁叛 執王子降倭 瑛亦爲景仁所執降 <北關誌會寧府官案>

去七月二十三日分 會寧驛子李忠卿 親軍衛金世彥鄉吏鞠景仁等 唱首作亂 王子君兩分及上洛府院君金貴榮 長溪府院君黃廷彧 前承旨黃赫 宣傳官趙仁徵 南兵使李瑛 會寧府使文夢軒 咸興判官李薰等乙捉 給倭賊

<鄭文孚의 農圃集卷二, 九月二十日 狀啓>

會寧叛吏鞠景仁段 受倭官 稱判刑 威制一府 以塞六鎭 徵兵之路 潛通倭賊 常爲挾擊鏡城之計爲白遣 明川寺奴末秀(鄭末守)段 稱大將用傳令輸載絡繹 締結吉州之倭 屠殺土豪 以遏義旅之與爲白乎等

<農圃集卷一(十月十四日狀啓)>

向前叛吏鞠景仁 亦要名於倭將 受判刑二字之名 擅權於城內 逞一己嘯聚之計 (同上)

先是 臨海君直向咸鏡道 順和君自鐵原 由大嶺向關東 流聞賊一隊自慶州轉向東海地方 彼此途窮 崎嶇山海間 深入北道 與臨海君會于會寧 縱豪悍奴僕 侵擾民間 逼責守令 大失人心 會寧土兵鞠景仁 與城中群不逞倡亂 叛據府城 執兩王子及宰臣金貴榮黃廷彧黃赫會寧府使李瑛等數十人 拘繫暗室 終乃累累縛致于賊壘 黃廷彧八歲孫兒 裂死於眼前 清正入城 遇王子稍加禮貌 桼溪君尹卓然路中稱病 從他路深入別害堡 同知李墍不從王子 留江原道皆免 柳永立被拘 在賊中數日 以爲文官 防禁稍懈 永立乘間脫走行在 賊以鞠景仁守會寧 以其弟 景弼守鏡城 退屯吉州 北評事鄭文孚起兵討誅景仁兄弟 <再造藩邦志一>

七月到會寧府 叛賊鞠敬 仁等 與城裏徒民羣不逞倡亂謀執兩王子以下大小人員 及京來將士拘繫暗室終乃纍纍縛致干賊壘 以須倭賊自斷呼吸必死謂弗類 赫曰吾父子鬚髯美好不可並此受傷潛以小刀子截去欲次第自裁忽被邏卒所覺察見守加密 及倭將清正入城遇兩王子稍加禮貌待一行以鄰國大夫別無拜揖酬答節目 此則其國俗蓋然也 上洛金相公貴榮與先君幽置別所漠不何問只以弗類爲王室忝親一行大小事皆令督察癡孫年八歲被伊賊磔死 遇有我國軍兵消息必使弗類通書 先君私謂弗類赫曰觀此賊情目前無可死之事第文書間十分謹密毋令倭奴得知我國式例致有萬一難處之患爲也 以故蒼黃傳報之際率用眞僞二狀僞以示倭賊眞以傳行在 癸巳春倡義使金公千鎰入送帳下人于王子前諉稱起居因要偵探都中賊勢 清正忽生一計請王子報聞于行朝乞與媾焉 謂爲平行長雖與天將沈惟敬講和 朝鮮獨與我通和可即解歸不爾關白殿下領兵渡海兩國干戈之禍魚肉矣弗類赫但依伊賊所言而爲辭非自我成狀不書姓名又不書臣字兩王子亦依此 別爲書一道又以諺書陳賊情 呈送大內陪官亦以蠟書具陳始末其授狀倡義幣下也 使之投僞書而傳眞狀丁寧戒囑會天雨夜黑卒失傳云 其時先君(黃廷彧)異處未及與知清正只使倭卒持以示之瞥眼看過而已 倡義金公傳之體察使軍門體察乃盡去 王子諸狀不奏只以所謂僞書謄書單傳請罪既而倡義公得覺而轉報軍門無幾矣云云

<黃赫獨石集先府君行狀>

鞠景仁者 會寧人也 族黨強盛 以豪富雄於鄕里 壬辰之變遂爲渠帥 擄王子諸宰迎降倭將 清正大喜 拜爲判刑使制北路 即我國之節度使也 及鏡城人推鄭文孚起義兵 復鏡城會寧 校生吳允廸等 恐家族被誅 密謀誅景仁事泄 景仁使其黨李彥祐田彥國等 捕允廸將斬 會犯夜 反接之將待明斬以威衆 校生等欲死中求生 遂刼都訓導申世俊爲謀主 世俊與腹心若干人聚公舘門前 乘夜半吹角鼓譟 以令城中 城中 不知所以賊黨誤認爲賊 亦俱至 世俊拔白刀刼之曰 吾鄕負國多矣 今 聞義兵己起誅亂逆 我輩若不效順必族滅 敢違者斬 衆慴莫敢枝梧 遂使力士招景仁撲殺之 斬彥祐彥國等 朝廷論其功 世俊拜僉知 <金時讓撰 涪溪記聞下>

義禁府啓曰 「以傳敎之意　更問于李弘業則云 臣於七月二十四日 被虜於鏡城 聞王子七月二十四日 亦爲被虜於會寧府 九月初 日不記 賊將淸正還軍時　王子一時出來 作有屋轎　上下四方以席包裹　王子兩夫人 皆使人擔持 兩王子則時或騎馬　下處則或云公衙或郡司或私家接宿 房舍則閉戶 以繩結之 多定倭人四面守直明火達夜 至安邊則兩王子館於公衙　倭賊等饋送生鮮及牛一隻以供 但聞此等事而已 別無困辱之事 金貴榮 黃廷彧 拘留於公衙各房 黃赫則非但夫妻分囚各房 以其連婚國家(王室) 頻頻困辱或 拔劍欲斬 韓克諴則城外龍堂倭賊所築土室之中 別處守直 文夢軒李信忠則與臣同囚一房 如有智謀之人 內外相應則或可以圖脫王子陪臣則遠處各囚　計無所出云

<宣祖實錄卷 三一(十月二十三日, 己酉)>

我國州郡於壬辰變初或力屈被陷　或奔潰不守則有之矣 無一人降附于賊者 唯會寧土兵鞠景仁叛據府城　執二王子及宰臣金貴榮黃廷彧北兵使韓克諴會寧府使李瑛等數十人　迎欵干賊賊以景仁守會寧 鞠世弼守鏡城退據吉州 評事鄭文孚等起兵討景仁等誅之　又甲山人殺南兵使李渾 送首于賊以爲嚮導 至癸巳 朝廷遣府使林恂以討捕斬　叛者二十餘人 然後始定 可見北道人心之強悍難馭也

<李睟光撰 芝峰類說 卷三兵政部寇賊>

大臣因請分遣王子于諸道 使呼召勤王 世子隨駕　以李誠中爲統禦使 統諸道徵兵 李直彦爲從事官 議旣定 大臣退出閤門外 乃得旨 臨海君則可往咸鏡道而領府事金貴榮柰溪君尹卓然從之　順和君則可往江原道而長溪君黃廷彧護軍黃赫同知李墍從之　盖赫女爲順和君夫人而墍是原州人 故並遣之 貴榮廷彧等 承命揮淚而出 迤向鐵原

<再造藩邦志一>

壬辰六月 倭將靑 正 長驅寇 北兵馬節度使韓克諴 欲守磨天嶺以保關北 軍潰而走 賊遂入吉明鏡富等鎭 入會寧擄王子

<北關誌鏡城府雜記>

第 3 節　對陣作戰期

百十八, 土賊의 亂

各道處處盜賊幷起　千百爲群者甚多 南原人金希李福姜大水等 聚黨于東村楸洞深谷　與右路賊高波等 聲勢相應　白晝橫行 出沒作賊 連結毋山北村人民 其不從者 行路者 村人入官門者聚首巷議者 潛發其徒　縛致屯中 並皆殺之 人民悚懼 閭里以目 道路阻梗 人物不通 兵勢日盛 官不能禁 鎭安長水雲峯南原之境 行路斷絶時兩麥成熟　不附大賊者　肆行草竊　守田之人多被殘害 金希等累賊于居昌安陰咸陽之地　本道右兵使金應瑞承元帥令　搜捕軍潰而退 權慄又以尙州牧使鄭起龍爲督捕大將　討金希 時嶺南人林傑年 亦聚徒屯于智異山般若峯　出沒作賊

<趙慶男撰 亂中雜錄二>

內賊高波率其黨八名　潛到南原南山外梨橋店店人來告本府 判官金騮發軍四百餘名　分道而進 黎明圍掩 賊兵全不動搖　從容取食 食後持滿突出 亂射官兵 官兵潰走 賊由山上而遁 判官收兵退還 高波走到宿星嶺 要路埋伏 待金騮過 一時突發 我軍無意逆戰　前走後却 高波乘勝　追至原川院下　射中金騮馬鞍　騮僅以身免走入城中 喪馬十餘匹 軍卒傷者亦多<同上>

十二月 權慄自星州巡過湖西　因下湖南　由全州到南原 密令近官措捕內賊　初五日　南原判官金騮承元帥令 與雲峯縣監南侃 會于境上 議捕楸洞之賊　日中兩倅未散　金希姜大水等　與高波合勢 率徒黨一百五十餘名 自番嵓(在南原府東四十里)　突至母山西下道磨硯村(在縣北五里)作賊 牛馬財貨盡數搜掠 年少婦女擄繫驅前而去 奉事許汝衡妻張氏亦在彼搶之中　南侃聞之　奔還本縣　密通于督捕將鄭起龍　起龍方在咸陽 即領軍三百餘名 馳到井東峙(在雲峯東北四十里咸陽地境) 與南侃相議 密令偵探則賊黨方屯栗谷(在雲峯北五十里) 置酒高會　連日飮宴 隣近官及本縣一境之人　以至南侃所帶軍官數百 半是金希之鷹犬也 言之無信 指之不直

唯許張一家以救妻爲急 跟尋走報 鄭起龍南侃冒夜圍 賊徒知之 益張歌舞 無意出戰 平明一時高喊 亂射突圍 官軍潰退 賊衆緩緩出去 向安陰之路 翌年正月 高波敗死于長城 張女等得還 林傑年盡屠智異諸刹 僧俗被害不知其數屯于香爐峯 爲雲峰軍夜襲敗走 <同上>

十二月 湖南守宰等討內賊軍潰走還 南原判官金瑠雲峯縣監南侃承元帥令 會于南原 土賊金希姜大水高波策合黨突入村間牛馬財貨標掠年少婦女緊擄驅前而去 南侃通于督捕將鄭起龍起龍領軍三百餘人馳會雲峯賊徒 方置酒大會近地官人及南侃所帶軍卒太半賊黨言之無信謀之多洩 鄭起龍等乘夜進圍 賊知之益張樂無意相戰 平明高喊突圍官軍潰走……乙未二十八年春嶺南軍官討殺內賊金希姜大水長城人又殺高波山郡道路始通

<朝野僉載卷之二十八癸巳>

湖南諸軍 厭赴遠戰 處處潰散 淳昌玉果之軍叛據蘆嶺作亂 推邢大元 趙仁 爲盟主 攻陷淳昌郡守金禮國 脫身走 潭陽府使 李景麟 亦爲所敗 已而禮國 獲大元誅 之 餘皆不問

<宣廟中興誌卷壬辰>

內賊金希姜大水敗死于嶺南 高波敗死于長城山郡道路 人物始通 <亂中雜錄二, 乙未正月>

百十九, 李夢鶴의 亂

秋七月(乙未) 忠淸道鴻山居逆賊李夢鶴兵起夢鶴本以兇狡之徒 初爲福裨從軍 見國事艱危陰懷射天之計 與同僚韓玄等 潛謀不軌 嘯聚黨援 是時人民困於亂離 百途之侵 一聞註語 從者靡然 不數日 軍至萬餘 初六日 進陷林川鴻山 轉陷靑陽定山等六邑 林川郡守朴振國並衙屬被擄 常留賊中 時李時言爲本道兵使 發兵措捕 官軍再潰 乃告急于元帥 權慄在全州即令全羅監司聚軍于全州 李夢鶴圍洪州 牧使洪可臣堅守拒戰 夢鶴數日攻城不得入 乃退曰韓玄若來則牧使之頭 當懸於旗 移向德山之路到處詐誘曰 邑里居民 安堵毋動 吾等此擧 欲救遺民於水火之中 又曰將軍金德齡永川郡守洪季男等 皆我同謀 當擧兵來 同向京城云云十二日 都元帥權慄 與全羅監司朴弘老 領率諸將軍卒 由礪山向尼山 權慄道聞賊勢甚盛 傳令忠勇將軍金德齡 領軍馳來 又分送軍官于嶺南諸鎭 收率降倭而來 時南原判官金瑠已遞 李德恢代之 至是率兵從征 賊兵聲言向京 都中洶懼 振威水原之地 人皆荷擔而立 時賊兵所過耘田者持鋤 行商者携杖 莫不奔走樂從 嗚呼是豈其本心哉 林川郡守出自賊中 進告于元帥曰瑞山郡李忠吉 率其弟三人 潛附逆黨 往來相助云 權慄令本道監司密捕忠吉 囚繫于公州 權慄令湖南兵進屯石城 全州判官以斥候將 先入覘賊 判官牙兵尹誠 募聚壯士十餘人 夜入賊中連放銃筒 高聲大呼 賊徒大驚喧譟 誠呼曰 都元帥全羅監司忠勇將軍 各率兵馬數萬 已到此地明當勦殺靡遺 汝賊之中 想多脅從 若斬將來降則可免俱焚之禍 賊徒聞知 爭持白刃 突入幕中 斬殺夢鶴於臥席 一時潰散 韓玄領數千兵屯于洪州地 李時言與本州牧使洪可臣 進兵擊之 賊兵敗走 玄就擒 斬之於軍中 湖右悉平 其後三十三年乙巳錄靖難功臣洪可臣等四人

<亂中雜錄 二>

丙申七月初八日 忠淸道巡察御史李時發狀啓來到 其啓曰 定山縣監鄭天卿所報內 縣居僉知李廷揚進告 縣人尹天機趙忠乞來言 李夢鶴以先鋒將 聚兵於本縣雙方築 幾至六七百 將犯鴻山縣 尹趙亦入於其黨而脫逃者也 同夕時發之啓又至 初六曉 夢鶴入鴻山 捕得縣監尹英賢 仍向林川 又捕郡守朴振國 愚民爭附 徒衆漸盛云云 朝廷震動 始發宣傳官 往探形止 又以措捕事 監司兵使御史處 拜爲指揮 賊初七陷定山 其倅鄭天卿挺身走 初八陷靑陽 其倅尹承渚又逃 數日之間 衆至數千 村野士庶 逃匿山中 有如避 倭時凶焰極熾 初九陷大興 其倅李質粹又逃入山中 作牒送人 由新平大津達京呈于備邊司 以大路已塞 不得通行之故也 備道賊據本縣 衆可三四千 持兵者 如軍官武士輩數百外 皆村氓赤手云 持牒人 命免賤爲司僕而

遣之 初九賊將犯洪州 州 官屬李希壽 申姓兩人告牧使洪可臣 吾等詐降 詳探賊形而來 俱往光時驛 路上跪言願屬 賊使於大興相見 到其縣賊坐大廳踞交椅 李申入見 賊下椅 行再拜 賊言 今日尙早 欲往洪州 李申曰 洪州守城堅固不可猝入 吾等先往 更觀虛實來報 然後可往吾等亦當爲內應 賊仍留不發 翌日待其回報 回報不來 晩乃發向 李申回告牧使 牧使聞變 已治城守之具 到此益加堅密 州居武將朴名賢 自初入城 牧使倚以爲重 朴素以勇悍著名 兩人協心 多聚武士之有名者 體察使從事官辛敬行 適到內浦 聞變而至 傳令隣邑守令 水使崔湖亦使來守 拜皆率兵而至 於凡百頭緖 未及措置者始得完備 此李甲行計緩賊之力也 賊行軍犯州境 朴名賢多遣武士邀賊 多有所捕 皆賊之先鋒者也 賊進陣州城之二三里許 凡五陣 陣各千餘名 臨夕賊將數人 馳馬於城下呼之曰 天運如此城中之人 何不出而應之 橫突爲輕侮之狀 夜城中放火砲 又放火箭 燒東門外近城人家 火焰燭天 兵使李時彦 由溫陽直指洪州 已到禮山無限城 御史李時發 陣於維鳩驛 將向洪州 中軍李侃陣於靑陽 將向洪州 軍聲大振 十一曉 賊自潰遁走 朴名賢督率城中之兵 追逐至靑陽地賊屯聚拒敵 崔湖及諸將之兵 又多來到者賊之管下 金慶昌林億命太斤等三人 斬取李夢鶴頭納之 棄尸於道下 烏合之衆 一時散落 衆兵追逐 或捕或斬 不知其數 京居兼司僕韓絢陰有逆謀 指援夢鶴 使之擧兵而渠則退在沔川鄕在 爲坐觀成敗之計 賊黨見捕者 多以絢爲謀首 捕絢鞫之情狀畢露 乃正典刑 同謀表表者盡爲逮捕伏誅 初逆報甚急 訓練都監大將趙儆自請領所操京兵八百往擊之 儆立時爲都監都廳 亦隨之 十一日發自京城 行至振威縣 賊之敗報至 命班師 黃海江原京畿兵馬皆徵之 至是皆停 金慶昌林億命 以賞特陞嘉善 太斤擢授六品實職 未幾 臺諫以慶昌爲次功 論降通政尹天機趙忠乞幷除六品實職 李申等亦除六品實職 諸將則李時彦以首功陞嘉義 崔湖爲次而陞嘉善 李時發陞通政 洪可臣以守城功陞通政 皆出於上命也 朴名賢之功 皆以爲獨出等夷而未得蒙賞 朝廷屢請 然後追陞嘉善

<尹國馨撰 甲辰漫錄>

百二十，大同江 會談

是日望見越邊 有一倭 以木末懸小紙 插江沙上令火炮匠金生麗 掉小舟往取之 倭不帶兵器 與生麗握手拊背 極致欵狎 附書以送 書至 尹斗壽不欲開見 柳成龍曰 開見何妨 斗壽開見則書面云 上朝鮮國禮曹判書李公閣下 盖抵李德馨書而平調信玄蘇所裁也 書中所言 槩欲見德馨議講和也 德馨請自親往賊陣 出謂李恒福曰兵苟無緩 當斬兩賊之頭而來也 恒福止之曰 堂堂國家 豈可行盜賊之事哉 德馨然之 乃以扁舟會平玄兩酋于江中 相勞問如平日 玄蘇曰 日本欲借道朝貢中原而朝鮮不許 故事乃至此 今亦借一條路 使日本達中原則無事矣 德馨責以負約 且令退兵後議和 調信等語極不遜 遂各罷歸 群臣諸將見其會者 無不悚然變色易容而德馨辭氣壯烈少無摧折　<再造藩邦志卷二>

百二十一，平壤城 會談

游擊沈惟敬來 惟敬浙江人 聞朝鮮受倭兵 自布衣請於兵部石尙書 願親入賊營 以計緩之 或用兵或羈縻 當以身任之 尙書許焉 至是到龍灣舘 上往見之 沈惟敬曰 俺當親入賊營 極陳皇上天威 仍使回巢 伊酋若執迷不退 當發大兵討之 上曰天威雖赫赫蕩蕩 伊酋一別毒種 豈聞空言而斂手自避乎 沈曰天朝事體 自異於尋常 第觀之 俺當以計 縶其手足 終使懼威而還勿慮也 翌曉起馬三日夜 馳赴順安 先使其家丁沈嘉旺等二人直入賊營 諭行長 日明當相會厥明只帶家丁六名 直進平壤 賊酋行長設帳供具於七星門外 見游擊至 出迎道左 極其恭敬去亦如之 但其語言 我國人無從行者 以此無得以聞之 接話自已至未 始罷還 賊酋於未到斧山院十里 竪一木以爲限 游擊出謂金命元曰賊受我分付 樹標分界 限五十日 勿相鹵掠 爾

國亦當如此 斂兵以待俺還 時賊勢浩大 我國數千里 無一人提一兵嬰其鋒者而沈惟敬單騎入賊陣 又能使斂惡韜兇 屈首聽命惟謹 沿道士民 處處聚馬首 千百爲群 咸曰 今日吾輩生矣 願老爺終始其惠 村民奔波 爭觀何狀男子 做如此事業 還到義州上曰 八道諸將 方欲同師決戰 失今不滅 延至深冬則軍情駭散 恐難收拾 沈笑曰 俺之縻賊 不過恐貴國不能滅此賊也 若能自靖其邦域則俺何必出入賊中 天朝亦安有東顧之憂乎 愼勿以俺之故廢大事也 即日過江去 <朴東亮著 寄齋史草下壬辰日錄四>

九月 天朝遊擊將軍沈惟敬來 初祖承訓既敗 賊愈驕 投書我軍 有羣羊攻一虎之語 羊喩天兵虎以自詑 聲言朝夕將西下 義州人皆荷擔而立 惟敬本浙民 石尙書以爲素諳倭情 假遊擊將軍號出送 既至順安 馳書倭將 以聖旨 責問朝鮮有何虧負於日本 日本如何擅興師旅 時倭變猝發 且殘毒甚 人人惴 恐 莫敢有窺其營者 惟敬以黃袱褁書 使家丁一人背負 騎馬直馳 由普通門而入 倭將行長 見其書 即回報求面見議事 惟敬將往 人皆危之 多勸止者 惟敬笑曰 彼焉能害我也 從三四家丁赴之 行長平義智玄蘇等盛陳兵威 出會于城北十里外降福山下 我軍登大興山頭望見 倭軍甚多 劍戟如雪 惟敬下馬入倭陣中 群倭四面圍繞 疑被拘執 日暮 惟敬還倭衆送之甚恭 翌日 行長遣書馳問 且曰 大人在白刃中 顏色不變 雖日本人 無以加也 惟敬答之曰 爾不聞唐朝有郭令公者乎 單騎入回紇萬軍中 曾不畏懾 吾何畏爾也 因與倭約曰 吾歸報聖皇 當有處分 以五十日爲期 倭衆無得出平壤西北十里外搶掠 朝鮮人毋入十里內與倭鬪乃於地界 立木爲禁標而我國人皆莫測

<懲毖錄一 (三六面)>

百二十二, 安邊 會談

行長據龍山 清正自咸鏡趨截鴨綠江 經略(宋應昌)前後阻倭 茫然無策 袁職方(兵部主事袁黃)幕下策士山險馮仲纓 願使清正乘間說其退兵 袁請于經略 經略許之 副以吳縣金相 清正勇而狡 平秀吉外雖控制 心内畏之 故遣行長將前軍而清正爲後繼 清正亦藐行長而貳于關白 仲纓心知其故 至咸鏡 留相(金相) 外觀形勢單騎入倭營 清正盛軍容以迎 仲纓立馬大言曰「汝故主源道義 受天朝封 汝輩世世陪臣 忍忘故主而慢天朝乎」仲纓欲暴關白之簒 故以故主桃(?)之 清正嚙指曰 「唯唯」 仲纓就帳宣言曰 「汝亘州世將 故主之介弟 封王盛典宜聽汝請 今行長儼然主封貢 挾天朝以爲重而汝甘心下流 可恥也 今與汝約 急還朝鮮王子陪臣退兵決封貢 勿蹈行長逗留不決自誤」清正手額奉教 解團花戰袍與仲纓 歃血約盟 隨令王子陪臣謁仲纓 叩頭謝訂期歸國 即日自王京解兵而東 <淸錢謙益의 牧齋初學集詩注>

同知(中樞府事)金宇顒啓曰 臣詣舘(兵部主事袁黃의 舘) 有參奉馮仲纓 謂臣曰「咸鏡道倭奴未退 吾等欲率數十人 星馳入貴國營中 助成形勢 以勦衆倭」臣曰「彼處倭賊各據城邑 小國兵少力弱 以數十人赴之 未知作何形勢以勦衆賊願聞妙算」仲纓曰 「兵詭道也 昨者王師卒至平壤 堅城一鼓而破之 倭即遁逃 虛實未知今咸鏡之賊 不畏朝鮮而畏弊國(明) 故欲以數十人入營中 設奇出不意攻之 要在乘機 不在多也」又要得我國兵符及彼中將官(清正) 處文移 臣曰「公等幾日要發去」仲纓曰 「若得兵符文移并嚮道入則明日亦可發去」云

<宣祖實錄卷三四 正月庚辰二十五日條>

嚮導將崔遇馳啓曰 前者送尹仁伯入安邊府 言大明差官講和事 今到境上云 則賊徒齊會 初甚疑畏 終乃歡喜 一面掃洒舘舍 一面馳報清正清正聞京城陷敗之奇 倍道出來大明差官入安邊府 清正亦到 安邊倭賊等出退于五里程外 則多有喜卒之態 事有可望之勢云

<宣祖實錄卷三五>

天將嚮導將崔遇馳啓曰 臣等陪馮相公入安邊府 時有倭四人前來 將一行人馬 使之接置東門外 久之賊魁(清正) 使三倭請來 會于客舍東軒清正西坐而東向 前據烏案馮相公東 坐而西向

臣等二人差後坐東 然後被擄進士韓格 能解倭語 清正召使傳語曰「天使因何事至此乎」馮相公答曰「朝鮮是大明屬國 其王子被擄 故特來講好解難」清正又曰 「公萬衆之中 單騎入來可謂搪突」已而茶罷 清正曰「我與天朝講和他不得預聞」使臣等出外 臣等仍出大廳 清正圍回幷障 與天使終日討談 人不得知

<宣祖實錄卷三六, 三月己未(四日)之條>

東師自碧蹄之助 軍氣大索有諜言 倭絶鴨綠遮我歸路 經略宋應昌俱袁黃幕客馮冲纓請給諭帖以往 冲纓單騎至倭營 令還朝鮮王子陪臣 行長以秀吉受封爲請 冲纓歸 又令沈惟敬諭使進降表行長曰 須天使至南戈會大閤裁之 惟敬還報應昌乃令賚諭帖往南戈崖

<朝野記聞卷之四 壬辰倭難>

十八日 復遣李如栢 率兵追襲倭衆 及於開城奮擊復斬首一百七十八級 時咸鏡遠在一隅尙未下 應昌料平壤旣破則其勢孤 固可先聲奪也 行次江沿 遣馮仲纓 以利害說之 清正不能自決會開城失守 遂棄咸鏡以遁而黃州中和鳳山等處倭將 悉望風奔潰 幷趨保王京

<海東繹史卷六十二本朝備禦考二兩朝平攘錄卷四日本上>

百二十三, 龍山 會談

李提督時在平壤 意甚踟躕 旣得查大受所傳倭書 決意講和而鄭(文彬)趙(如梅)在內 沈惟敬在外 舌瑞靡靡可聽 欲因此乘機 息兵封貢之議決矣 兵曹判書李恒福聞之歎曰十年之內 此議恐未了也 提督乃以倭書送于經略 且陳賊有退意 欲還王子陪臣 若及時圖還王子 可以全師渡江 經略信其言 乃裝遣謝用梓徐一貫等 扮作天使 諭賊捲還 又遣沈惟敬胡澤沈思賢之徒 將再與行長相見 諭其退歸 惟敬自平壤馳來 金命元見惟敬曰 賊忿平壤之敗 必有不善之意 何可更入 惟敬曰賊自不速退故敗 何損於我也 是日進向京城 人有危之者 提督亦於四月初七日還開城府 體察使與都元帥 呈文于提督 極言和好之非 不如進擊 提督批示曰 此先得我心之所同然者 然無意聽用矣 朝廷亦差人 累請進兵提督於是托以爲經略所制 不能任意爲辭 按兵不動……中略……自是提督遣人往來倭陣 相續不絶……中略……後日提督使游擊將軍戚金錢世禎等 以旗牌至東坡 招體察使柳成龍都元帥金命元觀察使李廷馨同坐 因從容言 賊酋請還王子陪臣 退出京城而去 今當從其所請 給賊出城 然後行計追勦得計也 體察諸人皆以爲 賊酋極狡詐 其言不可信 爭論不己 世禎性躁發怒大罵曰 然則爾之國王何以棄城逃去 成龍曰 遷國圖存 亦或一道也 戚金則但數數視成龍及世禎 微笑無言 朝廷聞天朝將欲講和 會大臣臺閣 問其當否 左右皆曰 以計羈縻 姑緩師期 無害於事理 唯尹斗壽李恒福等以爲決不可和 同副承旨李好閔亦曰 萬世之讐 一朝許和 殿下何顏拜於宣靖兩聖於宗廟乎 上厲聲曰 終始不屈於賊者 唯予與李好閔一人而己 乃遣使臣移咨於經略及提督處 爭其不可許之之意 兩衙門皆不聽理 沈惟敬旣得兵部令 乃於初九日 由江華船到龍山 清正行長俱會於船上 各請和 惟敬諭之曰 天朝以爾等不於期限退軍 攻破平壤 以示天威 若遵前約 誠心歸順豈必窮兵芟滅 今二賛畫統兵四十萬 一抵鳥嶺截爾歸路 一拒漢江阻爾糧道 經略提督又親統三十萬衆 今將至矣 爾等還王子陪臣 斂兵南還則 封事可成而兩國無戰爭之禍 豈不俱便 行長等猶欲圍住惟敬 固守王京 要封貢停當然后乃退 大將平秀家副將三成長盛吉繼隆景 俱以爲不可 即與諸營將三十七人來謝 約於十九日收兵回去 即搭造浮橋 將京城龍山遺米二萬石付沈思賢 平秀家諸酋以下皆退去 獨清正不還王子陪臣 沈惟敬亦與徐一貫謝用梓等二人偕行 十九日提督領大軍至東坡宿于查摠兵幕中二十日提督入京城舘於小公主宅

<再造藩邦志卷三>

百二十四, 朝鮮 朝廷의 媾和反對 運動

朝廷責以撤兵則云關白要割朝鮮三道 即忠清慶尙全羅也 惟敬初議封 不顧利害苟且許之 其

寔全慶關係最重　慶尙朝鮮門戶而全羅府藏也 無慶尙則無全羅 無全羅雖有他道 無所資爲根本之計矣 以海道言之 賊據全羅則遠而西海一帶 近而珍島濟州 皆爲窟穴 賊船縱橫海上無所不通 便風一二日可抵鴨綠 則開城平壤亦不足爲國 非獨朝鮮 倭船從海入犯中國 必由全慶二道地角 得反風而後能進(日本入朝鮮以南風朝鮮進遼東北西風) 故倭之不能從海入犯 恃二道爲我衛也 全慶亡倭不必陸犯遼東 舟帆可以直指山海 又從水路之東 分兵四出擾我四鎭 東隅沿海時時有切近之憂矣　此皆必不可許者而惟敬依回其間 不過欲延緩逃罪 始以封事騙中國此又欲以三道騙朝鮮 令中國 棄而去之也

<海東繹史卷六十三 本朝備禦考三, 兩朝平攘錄卷之四>

五月領議政柳成龍右參贊成渾同爲入侍　語及和事渾與成龍意合 陳其可奏之意 如成龍箚辭且力救李廷馣(先是忠淸監司李廷馣馳啓請與倭賊和故時議大斥臺論重發至請極典) 上曰此見與吾見不同矣益怒 渾成龍惶恐而退 上有詩曰一死吾寧忍求和 願不聞如何倡邪說 敗義惑三軍仍傳曰凡今朝廷處置及邊將所爲皆爲渾邪說所誤 命牓示朝堂 成渾無以自明受以爲罪臺臣金字顒等論渾罪曰必須早正王法然後無愧於祖宗有辭於後世　李爾瞻又攻柳成龍目以姦邪成龍辭免 又成渾上疏待罪辭職 答曰有懷必盡人臣之道 況人之所見不同 何妨之有 卿宜勿辭更加盡言所懷　<朝野僉載卷之二十八癸巳>

和　議　(宣祖詩)

一死吾寧忍　求和願不聞

如何倡邪說　敗義惑三軍

<朝野會通卷之十六 宣祖紀>

倭亂 宣靖陵有掘燒之變 康陵亦掘破及半而止其餘則無事焉　順懷世子之德嬪尹氏卒於壬辰三月未葬而亂作未知去處　今年夏間有告朝廷亂初埋於昌慶宮後苑 開見則無之矣

<聞韶漫錄, 朝野僉載卷之二十八 癸巳五月>

萬曆丁未　朝廷因倭請和遣通信使僉知呂祐吉校理慶暹差上副使佐郞丁好寬 差書狀官後 以通信爲嫌改稱回答使書狀官 改稱從事官 擧朝爲詩以餞其最所傳誦者 尹同知安性詩也

詩曰　使名回答向何之　今日交隣我未知
　　試到漢江江上望　二陵松柏不生枝

李相國德馨一聯曰

　　臣子未湔陵寢辱　簡書先入犬羊天

盖倭賊發 宣靖兩陵爲萬世不忘之讐故也 時宰聞之大怍 <李睟光撰 芝峰類說卷四官職部使臣>

百二十五，　明廷의 媾和 反對運動

總督顧養謙請撤兵 因疏請封貢 明主命九卿科道會議 時御史楊紹程奏 臣考之 太祖時屢却倭貢 慮至深遠 永樂間 或一朝貢 漸不如約 自是稔窺內地 頻入寇掠 至嘉靖晩年而東土受禍更烈 豈非封貢爲厲耶階聚 今關白謬爲恭謹 奉表請封之後 我能閉關拒絶乎 中國之釁必自此始矣互急止封議 勅朝鮮練兵以守之 禮部郞中何喬遠科道趙完璧等數人交章止封　石星恐不能羈縻秀吉甚張皇終主封貢不已 <明記事本末>

時沈惟敬挾賊將小西飛等 至遼東請款 兵部尙書石星於是一意主款議撤戍兵　兵科左給事中侯慶成乃謂 我與倭何讐 爲屬國勒諸道之兵 以力爭平壤 以權收王京 挈兩王子而歸之 存亡興滅 義兵聲爀海外矣 可以全師而還 天子乃諭國王 還都整師 使之自守 各鎭將士 久疲海外 悉令以次撤歸 賜山東糧米十萬石 以濟軍餉 兼賑飢民 天兵旣久暴露 一聞撤歸之令 勢難久羈也於是車駕自永柔移次于江西縣 留住焉　七月布政使韓取善戶部主事艾維新叅將郭夢徵李芳春游擊將軍王守臣周弘謨等 依經略檄回去　經略旣以師老無功 亦欲因賊退解職 乃謬依違其間然每陳倭奴多詐 兵難盡撤 陰主欵而諱言欵 奏揭前後異同 終無堅決　<再造藩邦志 卷三>

時小西飛等 久留遼東 封貢之議亦未決 南京陝西道御史蕭如松等 奏爲勿恃封貢 以嚴武備事……中略……聖旨 倭奴詐僞 何能恃和弛備 兵部知道　給事中許弘綱劾經略宋應昌妄許封貢誤國擾事 勒令致仕 革職回籍 以兵部右侍郞顧

養謙 代爲總督軍務 留屯寧遠衛 旣替經略 又力主封貢 天兵太半回去……中略……前日請款倭將小西飛彈守 方留廣寧 叩頭封貢 總督旣到遼陽 微聞關白表文且至 始主盡撤留兵之議 又從所俘倭將吉兵 歸諭行長 並遣游擊將軍周弘謨往來 自謂拘得倭情甚悉而多爲瞞 弘謨來往京中 未幾墮馬病死 皇上嘉顧總督養謙力主撤兵 以爲多膽略 賜勅褒之 兵部尙書亦謂朝鮮不給糧餉 可並撤劉綎兵而顧總督又請封貢並許其議……中略…… 詔令九卿科道等官會議 禮部儀制郎中何喬遠等 忿然請勿許封貢 給事中林村叅督臣朋欺誤國等罪 御史唐一鵬乃叅李如松開封釁 遼鎭都御史韓取善亦言倭情未定 封貢請令并絶而戶科給事中陳世恩上本極言封貢非計……中略……時言事者紛紜 攻本兵甚力 石星亦張皇辭說 恐關白不能就羈縻 會沈惟敬自釜山得關白降表二道 其將吏國人請立秀吉爲王 結狀十五道 其表文措語 疑非日本文字而石星信之 以爲秀吉實奉天朝約束 定議封貢而給事中許弘綱等 猶力爭其不可 我國亦遣陪臣許頊 陳奏賊情之反覆不可恃 至遼東則顧總督養謙 止頊不許前進 即遣叅將胡澤于我國 令改其奏姑請講好 其言縷縷千百……中略(顧總督書)……朝廷得此書 留胡澤于官舘頗久而議其亦未決 又分爲兩岐 柳成龍成渾李廷馣等 以我國力弱 依天朝之援 天朝亦不許出援則我不能自立 又當事者無以自強 乃冀其人講緩兵 獻議曰 請封議雖不可 總督居中攔阻 亦當姑從其意 以聽天朝處置 上乃許之而以和親之名不美 謂之羈縻 改撰奏本 以付許頊之行 石星因此上本請準 許其封貢 天子於是切責群臣阻撓封事 及本兵不能主持 眩於群議 以妄言追褫御史郭實等職 三月戶科給事王德完上本以爲 目擊東倭釁隙 請專傳修備禦…中略…於是兵部乃檄總督 細探倭情 使封貢之請 毋歸於虛套 總督乃令小西飛 入朝乞封貢 言者劾總督主和 攻之甚力 總督上本 極陳倭情 乞解軍務 四月回管部事 以兵部右侍郎孫鑛 代爲欽差總督 薊遼保定等處軍務兼理糧餉 經理朝鮮 鑛號月峰 紹興府餘姚縣人也 能文章多膽略 旣受事莅任 亦力主封貢 小西飛入京之後 兵部優遇如王公 小西飛殊愓愓 過闕不下馬 無恭遜之色 人皆憤歎 兵部欲結和局 不恤人言

<再造藩邦志卷三>

百二十六， 名護屋 會談

十八日 徐一貫謝用梓來我營 多賄行長請和 行長及長盛三成吉隆皆與清正不相善 故反朝鮮二子而欲弃 其功共同其議且兵食漸竭 士卒遭癘瘴疾死亡頗多 皆有歸志 惟敬屢勸焉 行長曰送還王子不可不受秀吉命 退兵在軍監處置也 長盛等尅日 以二十一日爲期 時朝鮮士民在王城者多於日本兵 諸將皆憂其與明兵合梗塞道路 議謂殺之乎 將驅逐乎 紛紛不決 從隆景而問隆景曰諸君之步卒其半非鮮人乎 若疑鮮人不恃城中士民也 悉放殺之何以供驅役以予觀之不如放火諸營 乘烟而退 諸將從之 臨發如言士民逃避無敢追者　<征伐記，秀吉譜>

行長之許和于惟敬也患諸將有異議 故與監軍議定約成而告諸將 鎭信曰惟敬之議和爲彼而不爲我 願弃和議長驅入明爲上策 行長曰碧蹄之役明兵氣挫力竭故請和耳 許之何不可之有 鎭信曰和成我兵退釜山 弃數戰功徒令惟敬成名其利何在 晴信曰客冬惟敬建標令彼此不爭地潛出如松師惟敬何足信 嘉前曰明失利故令說客緩兵 彼詐謀也 後日彼變約明公何有辭之謝殿下 純玄曰平壤之役 我兵偶弱如松幸之欲殲盡我軍 惟敬還言我不去平壤故所擊妄言也 今勢盡援兵未至 不得已請和 其情僞可見 速轘裂惟敬 絶其姦謀 義智曰諸君正言不諱 實國家之慶也 然和議旣就不可中止焉 後日當爲善後策也　<松浦家記 小西行記>

明主諭李昖還都王京 整兵自守以各鎭兵久疲海外 以次撤歸 應昌疏稱釜山雖瀕南海猶朝鮮境 有如倭覘我罷兵 突入再犯 朝鮮不支 前功盡棄 關白之圖朝鮮 意實在中國 我救朝鮮非止爲屬國也 朝鮮固則東保薊遼 京師鞏於泰

山矣 今日撥兵協守爲第一策 即議撤 宜少需時日 俟倭盡歸量留防戍 部覆 南兵暫留分布朝鮮 量簡精兵三千善後　　　<明史，明記事本末>

八日　行長義智偕明使沈惟敬徐一貫謝用梓發釜山 十五日(太閤記) 到名護屋 <宗氏家記>

秀吉舘之 命列侯諸臣　分番厚饗之　二十三日引見饗宴 賜與優渥及與僵　　　<太閤記>

贈惟敬銀千枚金裝長刀一　　　<征伐記>

席上什器悉用金器 陳設古器古畫　明使嘆稱曰雖吾邦所稀見也　因曰貴邦所尙古畫何物爲最 接伴答曰玉礀第一　馬麟次之 牧溪又次之 明使曰吾邦非必無之　歸後探索得其尤精妙者以呈焉 吾不食言 秀吉令僧玄蘇西堂承其意 與二使筆話　玄蘇等曰貴國謂我軍旣發全羅慶尙二道是鮮人虛誕也 貴國和親彌實我速收兵　但仄聞韃靼跳梁頗爲貴國患　和親成後以本邦爲貴國先鋒 席捲韃虜如運之掌上　粉骨碎身以酬貴朝厚意 是秀吉之意也 二使答曰朝鮮虛誕 朝廷不能無疑故馳幣使以觀虛實　今聞高談洒然于胸中 歸奏朝廷　下部詳議再差使而報　予言不僞 玄蘇等曰今日初通情思互知誠意　和親之事委之二卿 客中着褻衣佯佯啜茗傾寥以慰寂觴　二使曰太閤誠意可徹天地　歸奏之天顔有喜必矣 如有韃靼侵略專使請貴國援兵而今也幸宇内清寧 又得貴國通和是希世美事可嘉可尙　玄蘇等曰鄕等歸後奏太閤誠意於貴朝　必示我以和親之實不然二道兵未易收 夫太閤以三成吉繼長盛行長爲腹心 貴朝於兩卿猶又如此乎　兩朝君臣所視蓋同兩卿請莫空太閤所視　是僕所希也 玄蘇等又通太閤言於二使曰日者三年前以我所欲達貴國 托之李昖　李昖差使來諾之而遂邈然不通我不得已發兵將問其故而朝鮮遮路 故用干戈 然則日本起兵者由朝鮮欺我　今貴朝殊差二使來講和親而貴國再容朝鮮虛誕　寡人躬親到遼東以問貴朝意 二使以此奏焉　和親如實何幸之 二使曰去歲八月貴國先鋒將以貴意達於沈遊擊 遊擊回奏朝廷文武皆信焉而朝鮮獨不以實告 是以誤事　今也天子差二使來 欲知其實 所示諭與先鋒言如出一口 其實事可知矣　如此則二國和親萬年不渝　予輩亦有餘榮　玄蘇等曰太閤以和親事奏之朝廷　今以其事件視之二卿　二卿齋去奏之貴朝　和親彌成其實顯著太閤不須兵車以衣冠會歷遊貴地北京諸名區　是在二卿處置耳

二使滯留數旬數賞遊愛名護屋風景　謂髣髴瀟湘 嘗賦詩云

　　重疊青山湖水長　　無邊綠樹顯新粧
　　遠來日本傳明詔　　遙出大唐報聖光
　　水碧沙平退日影　　雨微烟暗送斜陽
　　回頭千態皆湘景　　不覺斯身在異鄕

又云

　　杳旋軺車來日東　　聖君恩重配天公
　　遍朝萬國播恩化　　悉撫四夷助至忠
　　名護風光驚旅眼　　肥州絶境慰衰朽
　　洞庭何及此清景　　空使詩人吟策窮

又云

　　一奉皇恩撫八紘　　忽蒙聖諭九夷清
　　晴光湧景靈蹤聚　　山勢抱口烟浪輕
　　虔境奇踪難鬪靡　　楊州風物寧堪爭
　　扶桑聞說有仙島　　斯處定知蓬又瀛

秀吉覽詩喜曰 猶令二使增興　泛船百餘艘干海 旌旗飜錦繡 款乃振波濤秀吉親乘船　召二使宴遊終日　又賜茶干山里園亭 二使大喜 二使進退有度辭令得宜　觀者稱而謂雍客大國之風　大勝朝鮮人物　　　<太閤記>

七月二十八日　謝用梓徐一貫還明　秀吉餞贈優厚 二使大悅　秀吉令長盛三成等傳其意干二使歸奏曰　和議彌成迎貴國公主爲本朝后妃　又曰兩國勘合船久　絶矣爾後官船商舶來往如舊　又曰兩國和好期長久執政大臣互通盟書　又曰朝鮮八道　四道入我版圖分四道還附李昖　又曰朝鮮王子及大臣當爲質吾邦　又曰去年所擒朝鮮二王子旣附沈游擊當還其國　又曰朝鮮大臣盟誓令累世不負我　　　<太閤記>

百二十七，西生浦 會談

十二日(甲午四月)　與李謙受(士人)及都元帥

軍官守門將申義仁 出身梁夢海通事出身金彦福僧俗幷二十餘名 出自左兵使陣以 李謙受爲前導而行……中略……至于賊陣十里許則 副將喜八郞 稱號 倭具鞍馬四匹及鳥銃軍四十餘名 親率迎來…… <奮忠紓難錄 乾>

十四日(甲午四月)朝飯後 群倭副將等皆來見之旣而副將喜八自淸正處而來示 沈游擊講話條辭曰此成不成事 細細答示可也 其條曰

一，與天子結婚事

一，割朝鮮屬日本事

一，如前交隣

一，王子一人入送日本永住事

一，朝鮮大臣大官入質日本事 五件事也

<同上>

十一月二十三日(甲午) 與左兵使軍官正邊翼星 主薄鄭希韶 防使軍官權應斗 出身宋仁海司僕李鶴男 主薄李謙受 直長蔣希春 通事金彦福 某所率正金思湜金應珍 副正安順長及牙兵幷三十餘人 直到左兵營城東倭奴伏兵處而賊奴輩望見我軍之行 走報其將則 副將喜八賊僧日眞各率十餘強奴 來見……

<奮忠紓難錄 乾>

一與天子結婚事則 昔漢帝以一宮女與單于和親 至于今千載以漢帝ロ實當此時 聖天子以堯舜之德 日月之明 覆臨天下 豈以其聖女結婚於萬萬滄波外耶 雖牧子柴童 況知此事之終不成也 況劉督府以天子庭耿之士 乃文乃武 明知成敗之數 運籌高明曉達義不義之理 豈不先知其事之成不成如何也

一割朝鮮屬日本事則 四海之內 莫非王土 雖片地寸草 皆爲聖天子掌握中物 奪與在於聖心中自斷如何耳 沈游擊一人豈能使天子奪與哉大抵日本萬萬慮外 動無名之師 擅踏天子之域塗炭生靈 至於此極 天子不得已 亦動應變兵防禦三年 猶自不已 豈有割與之理哉 萬萬無此事 以此知行長游擊之策 決不成也

一如前支隣和合事則 忘君父之讐 結爲兄弟之交 益知其不可也 天地間寧有是理 我等歸而告督府則 在督府處置如何耳

一王子送日本永住事則 萬萬尤不可 日本無故動衆 踐殺生民塗炭 我宗社陷沒 我倫紀傾蕩我室廬 爲臣爲子之心雖輸我民百萬 奪彼命一二次酬無窮之讐難洗 生靈之寃以此英雄之淚雖飯食間不乾而奚暇送王子於鯨海之外 住於異國也哉 雖如我僧一松雲 亦百死甘心而行長游擊送王子之議則 萬死不從矣 況我聖天子 以天下之主 億兆之父 庸與沈公等有如此劣劣事耶萬萬無此理 以此知沈行之事不成也 劉督府以中朝大臣 本以禮樂中生成人物 會知此義皎如日月 何待今日然後知也

一朝鮮大臣大官入質于日本事則 萬萬尤不可前日全盛時 對以交隣而未聞此事 今則忘其怨送大臣結爲兄弟 吾未知其可也 然而此等事 皆在於劉督府啓禀聖天子 然後處之如何耳

如右五件事皆不合大義 決如行長沈公之事不成也 非唯我等所知如此也 劉督府亦知此義夙矣 當此時大上官與劉督府 論議和諸事則 此必成事之秋也 幸斯善處之裁度之

<奮忠紓難錄 甲午四月入淸正營中探情記>

七月初六日 使蔚山郡守軍官蔣希春 付送先聲松雲及左兵使軍官北部主薄李謙受 忠淸防使軍官判官崔福漢 慶尙防使軍官主薄金彦福 松雲所率守門將金思湜 出身林彦豪金有徽及牙兵等 三十七人同行…… 十日直到賊陣……(十二日) 及暮喜八引松雲 李謙受蔣希春及通事金彦福等入于淸正處則 淸正先坐於堂中 與僧倭日眞等三人 對話引我等列坐 我以督府書給淸正 淸正使僧倭輩開見後 淸正執筆以日本之書 書給僧倭 僧倭以此國書 書 示我等 其辭曰

一，前日與天子結婚事如何

一，朝鮮王子一人入送日本事如何

一，割朝鮮四箇道屬日本事如何

一，朝鮮大臣入質日本事如何

一，如前交隣如何

又加二條曰

一，大明一人入質事如何

一，大明則以何物爲日本遁信乎

答曰 前五條事 松雲前日來時 分明書答 又今

來督府書中 亦以前日松雲之答 答之不可更論且 游擊行長之不成者 亦此事也 何須更論 下二條非我等擅論定議者　只在督府處之如何耳……清正曰

往在安邊與京城　唐使憑淑絃兵部袁老爺持牒求和 一來一往後無黑白 日本被欺一也

游擊等以和自誓 使我退下 出入大明 今已累歲迨無決言 日本被欺二也

王子君送還時 多有所約 一去而絕無音信 日本被欺三也

<奮忠紓難錄 甲午七月再入淸正陣中探情記>

百二十八，咸安 會談

（宣祖二十七年十一月二十二日）

<前後經過槪要>

十一月(甲午) 賊將平行長義智等 送要時羅于慶尙右兵使鎭 期會咸安 要與講約 金應瑞報元帥 權慄馳啓于朝 乃令應瑞進探倭情 二十一日　金應瑞抄率精銳百餘名先到咸安地谷峴則行長使人問安 俄而玄蘇竹溪調信等 率卒倭百餘名先來 遠處下馬 步入正廳 相揖對坐于超床

會談要旨

玄蘇等先曰…… 久仰聲華 每欲一拜 今日濫參帳下 不勝惶恐之至

兵使答曰…… 大人等昔日來朝我國時 僕適任北道 一未得見 今幸相遇 多遇多謝

玄蘇等答曰…… 今日來此者 欲論大明許貢之事 使道善示成事之道何如

兵使答曰…… 大明許貢之事 吾未能知也 然行長義智來參後 議事可也云 則曰……示敎極是自此默默良久而坐

兵使曰…… 公等皆戴唐冠 心亦唐禮乎

答曰…… 豈無心而體唐禮乎 進謁使道前 故如是耳

<行長等入來狀況>

辰時行長義智率卒倭三千餘名前導鎗劍鳥銃劍荷擔者 幾三百餘名 滿途而至 距帳幕五十餘步下馬 放三大炮 然後行長義智一時解刀步入正廳 相揖對坐超床 三千卒倭 齊放連炮 一時高喊 衆倭藏伏 形款寥

行長曰…… 使道冒寒先到 不勝惶感惶感 兵使答曰…… 聞名已久 今幸相見 實非偶然云則拱手而答 因曰…… 今朝甚寒 據床不可 願欲平坐　兵使從其言平坐則玄蘇竹溪調信跪坐行長則或危坐 平義智則疥瘡之發 起坐不便 立脚傾坐 諸酋皆有恐懼之心 接語不能自安

行長曰…… 今日不計艱危 來謁使道者 欲陳我之所懷 願賜開陳

兵使答曰……　我別無開陳之事而只聽大人之言 探其可不可 報元帥府云 則行長義智玄蘇竹溪調信 倭通事要時羅外 辟左右聚首于兵使前曰…… 日本以天朝乞貢三年 未得決正 遠來他國 將與卒皆懷思土 度一日如三秋 前日沈惟敬往還天朝 已許准貢封王 天使將出來之際朝鮮與劉總兵 奏聞止之云 是何故也

兵使答曰…… 吾未聞之也 豈有如是之理乎 此言出於何處

行長曰……　大明石老爺(名星時任兵部尙書) 簡通於在遼東大人故知之矣　伏聞朝鮮奏聞天朝 以助其力則三國昇平 餘民安堵 俺等歸國不亦宜乎

兵使答曰…… 我國時無如此之事矣 朝鮮與日本不共戴天之讐　加之以助天朝日本許貢之事乎

答曰…… 日本與兵出來 本非攻擊朝鮮之意 欲通開貢乞和之意於大明而朝鮮將官以干戈應之不得已相戰而殘害也 如此曲折 昇平昔時 玄蘇調信義智等　禮曹判書及宣慰使李德馨吳億齡沈喜壽 釜山僉使李鑛 通信使諸位前 極陳此意 貴國將相皆不信聽 不備兵革敗之如此 我等亦以嘆恨 日本將依托朝鮮 奏聞大明之事 渡兵之日　掛書契於釜山南門外則釜山令公不爲取見 應戰殺我日本兵 故不得已陷沒其城 至東萊又示書契則亦以不答 徒費兵器 亂射日本兵亦不得已陷城 東萊府使甲上着紅團領紗帽 拱手坐交椅 日本兵揮劍突入 少無搖動 至於斬刑施爲而略不變色 一不擧目 含口默言 愚劣卒

倭 斬頭納我處 鄙人於東萊太守 自前蒙恩 即爲斂襲 埋置于東門外立柱 此要時羅詳如矣 如有族收骨則指示爲計 其妾率婢四奴二 不爲汚辱 入送對馬島則關白曰 宰相之妻率來不可云而還送東萊 欲爲出送朝鮮而其時則朝鮮之人一不出入 無緣通奇 因置釜山 今年三月 關白還爲率歸 此女年可三十餘歲 有子云

兵使曰…… 何如人作好乎

答曰…… 以宰相之故物 不爲汚辱 令其奴婢看守 幸若和好則出送爲計 因曰…… 東萊陷城時 蔚山郡守名不知髥多者 被捕於日本兵 乞降求生 鄙人以日本所求事及朝鮮禍福書契 授之出送 其人亦不傳於朝廷 以致如此 悔之莫及其人生存否 此非我等無緣害朝鮮者也 然三國和好之事 指示何如

兵使曰…… 日本謀向天朝 使之借路 我國事大明 猶子之事父 是以事不諧 講和之遲 亦非我國之故也 朝鮮日本如前交和之事 尙亦難之 況天朝許貢之事乎 吾竊聞大明不許封貢之事 皆日本所失也 沈惟敬再定講和 日本兵退來海岸乃是畏天事大之意 且不忘昔日交隣之義 深嘆兩大人審機善處之道 旣與天朝 約和東萊之後陷我晋州 蹂我禾穀 殺我男女 以是弊邦不信兩大人講和之說 雖兵殘糧竭自知勢弱而在朝之臣 在野之民 皆欲一死而後已矣 僕前在左道 因東萊之人 聞三大人有致誠我國之事 特遣李弘發以取意耳 自古兵交使在其中 是以天兵亦交通於兩大人及淸正處矣 今者我國朝官亦非有他故也 盖在左道者 或與淸正通書 在右道者 或與兩大人通好矣 我亦欲托於兩大人不淺 故 在左道 通使於熊川 今又取便移位 右道 其欲與兩大人言者 實非偶然也 我前日與督府劉爺同在八莒 累通書於淸正 因淸正使者得聞日本之侵我國者 皆緣兩大人 且還王子 皆是淸正之功 故我國不知者 皆德淸正 欲與通話矣 大人等往來我國 故知我國有通大明之路且關白知我國可伐者 大人等言之 故關白動兵云 此亦淸正之言也 淸正又言於劉爺曰 行長欺關白 沈惟敬欺皇帝 行長言於關白曰 天子當降公主 妻關白之子云 沈遊擊欺皇帝曰 行長已盡撤兵 只在一二陣留釜山 請待封王准貢之命云而至今屯據不退 大人終不渡海則天子亦萬無准貢封王之理 若然則非但和好不成 兩大人必得罪於關白云 淸正之此言如何 我等忘宗廟社稷之讐 爲兩國生民之念 如是忘生而來矣 萬一本兵不爲渡海 天子趁不許封王准貢則我國當從大明之令 如是則何以爲之也 去七月天子以日本兵不爲渡海 令浙江寧波府張把摠乘舟察水戰道路 明年四月 率閩廣湖浙天津等衛防海舟師以來 只緣我國糧餉之竭 天朝船運南京之穀 恐四月之前 未及來也 幸趁此 時 前或令譚爺(愚疑今留倭營譚都司) 通書孫老爺(名憲今以兵部侍郞經略東征軍務者)軍門 再請和好何如 對馬一岐等島 與我相近 風俗言話 甚不相遠 以此聞兵亂之時 我國避亂之人遇對馬之人則必生 遇他島之人必死 我國之人亦然 雖値方戰之時 知對馬之人則皆不欲殺之矣 自今以來雖千百歲 日本之人稱兩大人爲解兵而活人 朝鮮亦稱吾等爲遊辭而寧國也 吾會以兩大人誠心我國之事 達于我殿下矣 今後雖有密言之事 只通於吾 不令人知之可也 三大人須心欽

行長答曰…… 陷晋州之事 關白之令 故有進無退 勢不得已進攻 然僕以空城活民之事 緣沈遊擊預通而朝鮮不信此言 此非我不恭之罪也朝鮮征伐之事 亦非僕主掌之事 日本諸將咸聚關白前 議定之事 淸正毁我而誣說 痛憤極矣又皇女求婚之事 亦非出於吾口也 大明天下之大國 日本乃海隅褊小之國 豈敢仰告天朝 以求許婚之事乎 關白雖無狀 設有此心而言及大明大明以無女子答之則奈何 以明知中有不測之人所作也 淸正素與我甚不相好 必是此人之言也 似聞前日朝鮮僧將(惟正) 入去淸正陣時 淸正以求婚割地之言 恐嚇天朝云 此文劵有之耶雖無着名文劵 禮曹以此事成文 送付僕處則即送于關白 使淸正伏罪而撤還其陣必矣 刈竹伐桑分地界 恐嚇文劵 亦爲覓送云 二王子護送之功 淸正自爲爲德云 未知是否 淸正將欲殺之

際 僕極陳關白曰 王子有無 不係勝敗之 數 速還朝鮮殿下可也云則關白意以爲然 天使(此天使則未詳)一時僕親侍海上 至金海護送 僕之有功無功 都在兩王子黃承旨(赫也)李兵使(榮與赫等癸巳生還) 心中矣 毁破朝鮮宗廟社稷之事 吾等亦以慚愧 其時守京城倭將 不戰卒下至有拔塚之名 尤增恐愧大明動舟師 蕩日本之軍云 實非得計 我等雖盡死 關白必念怒擧大兵年年侵攻朝鮮則朝鮮在兩國間 有自盡之勢 不是大憂乎 朝鮮力陳封貢之事 解兵還國則日本設朝鮮之恩德 朝鮮謂日本解憤矣 豈不美哉

兵使答曰…… 暫聞朝鮮之意 日本講和後 去年十一月 慶州之地 倭賊衝突 多殺天兵而沈遊擊欺皇帝曰 日本兵盡爲撤還 只行長義智留在釜山 待許貢之期云 則皇帝喜其日本恭順 即命准貢封王 天使將出來之際 又聞日本兵無一陣渡海留在朝鮮境上 屯結四十餘陣 至於多殺天兵皇帝震怒 即收封貢之命云云

行長曰…… 何以則成事也

兵使曰…… 我國之事 猶未能詳知 天朝大事何以形言 然吾意三大人論議 諸陣軍卒 盡爲渡還 只在一二陣而上乞降書 事可成矣 日本兵甚惡者 淸正林浪豆毛浦梁山九法谷巨濟之陣也 此陣之人 互相黨惡 頻頻擄掠生民 以此朝鮮之將 痛憤欲殺者也 自古成事之道 諸將協心同力 然後事乃成矣 吾聞淸正與大人 兩間多有乖悖之事 有淸正則大人所望之事 終不能成矣 淸正及諸陣 盡爲入送 大人等獨留圖之則幾得成事矣

行長曰…… 我之欲罪淸正極矣 無可殺之事 有憤不發 極爲痛切 朝鮮殿下 以淸正罪 書下于鄙人則不關諸陣入送之事 甚不難矣 兵使曰…… 大人之言如是則具由急報于元帥府 元帥轉達殿下 殿下盡矣

行長曰…… 在一二陣 似爲孤弱 出兵他國 豈無意外之慮乎 左右道星列結陣之意無他 日本軍糧載出之際 風勢不順 船之渡 未可定處 故以巨濟西生爲限耳

兵使曰…… 定約之後 日本船雖漂到全羅道 不爲勦殺 送于大人陣所必矣 勿爲疑慮 不關諸陣入送則 天朝知日本之意 唯允之命 不日將降矣

行長曰…… 吾亦將思之 馳達關白爲計 朝鮮以日本許貢之事 奏聞天朝則其恩德 千載何忘也 成事之後 以吾爲臣 僕亦不厭之矣 兵使曰…… 擧仇讐至於奏請封貢 決不可施之事 然大人等開陣前失 作爲降書 送呈我處及元帥府則依此馳啓于殿下 轉奏大明 庶可近矣 此外別無他奇策 大人相議 急速善處云

行長答曰…… 吾等降書 奏聞天朝則雖死從之 納降條件 使道成草以給何如

兵使曰…… 汝之納降之書 吾何以成草乎 汝等相議 從便爲之可也云則

答曰…… 如其言

兵使曰…… 若封王則用天朝正朔乎 因用日本正朔乎

行長曰…… 豈有受封於天朝而不用天朝正朔之理乎

因日暮未得一一開陳 兵使出示元帥府關及開諭條錄 宰相子弟被擄人姓名 各日賊兵出來焚蕩草則

玄蘇獨曰…… 宰相子弟被擄在此者 不分日夜搜覔出送 日本入歸者則亦當刷還 死者則已矣云日本人私自出入山藪作賊之事 非吾等所知痛憤莫甚 自此嚴加禁斷 以杜其弊 令貴國遺民安集舊基 使之務農 降附之事 吾等非不願也雖降附 朝鮮何以待之 日本關白 益加憤怒擧大兵 年年侵犯則其患何以當之 以如此不道之事諭之 似爲未安 莫若三國講和 各守其國 寧國家於億萬年可也(此間多有闕矣)

兵使還鎭 諸酋歸巢 揖別之時 三卒倭 隨三大炮聲齊放連炮一時吶喊俯伏 諸酋步出 初下處跨馬 衆倭高聲相應 一時起立 前導後擁 次以而去 <趙慶男撰 亂中雜錄二>

百二十九, 小西如安의 北京 入朝

……中略……時倭將小西飛等 在皇京既久 請和益堅 兵部尙書石星 乃會多官於闕下會議

仍引小西飛 以譯傳言 要以三事 一事則兵盡渡海歸巢 一兵不留釜山 一則但求封不求貢 一則永不犯朝鮮 如約則許封 不如約則不可許 小西飛指天爲誓 請永遵約束 兵部以聞皇上復諭兵部 更爲東關詳定 十二月二十日也 太僕小卿張文熙以爲 封貢不可許 請發浙閩南直廣東四省兵 直擣日本 以解屬國之憂 以防內侵之謀 議下兵部……中略……天子竟準許日本王號給金印

是月(十二月)二十日 石星復會集內閣大學士趙志皐等 定國公徐文璧等 吏部尚書孫丕揚及科道官俱集左闕 將小西飛請封始末情由 備細研審逐一登答

一問……朝鮮是天朝恭順屬國 爾關白上年何故侵犯

小西答曰……日本求封 曾教朝鮮代請 朝鮮隱情騙了三年 又騙日本人來殺 因此擧兵 一問……朝鮮告急天兵救援 只合歸順如何抗拒 有平壤開城碧蹄之戰

答曰……日本兵往平壤 要求封納款天朝 並無敢犯之意 二十年七月十五日夜 見兵馬殺平壤 不期天朝不信 去年正月初六日 進兵攻城傷殺行長兵甚衆 碧蹄亦是天兵追殺 死傷日本兵亦多退王京

一問……從來因何退還王京 送回王子陪臣 答曰……一則聽沈游擊准封言語 又說天兵七十萬已到 因比星夜退兵 送還王子陪臣 併七道送還

一問……旣退王京送回王子陪臣以求封 如何又犯晋州

答曰……晋州原係朝鮮 入去日本 相遇淸正吉長(異稱日本傳吉長當作行長) 兵馬殺了 因此相殺 後 見天兵即使還去

一問……旣許爾封 即當歸國待命 如何又運糧蓋房 久屯釜山不去

答曰……已前原封貢並求 因天朝不肯 關白行長未信 只是求封好了 又運糧蓋房 俱各守候天使 並無他求 天使一差 盡皆燒毁 一問……原約三事盡從方封 爾當傳行長等 即令倭戶盡去房屋盡燬 不復犯朝鮮 不別求貢市 爾能保關白行長盡從否

答曰……行長有稟帖上孫經略云 一一聽命不敢有違 此係大事 秀吉有命行長 行長有命小的方敢如此 對答定無反覆

一問……爾等雖一時遵約 至於日久能保永無他變否 爾當對此訂盟立誓 方與請封

小西飛誓云……天朝問的言語 小西飛彈守 藤原如俺 答的說話 如有一子虛說 關白秀吉行長小西飛等 俱各不得善終 子孫不得昌盛 蒼天在上鑒之鑒之

一問……爾前云 朝鮮旣爲請封 豈肯復犯 但秀吉受知信長 尙且簒奪 朝鮮一時代奏 彼豈不復再犯

答曰……信長者 簒國王不好 因爲部長明智被殺 見今關白豊臣秀吉 時爲攝津守 率行長諸將興義兵誅明智 歸併六十六州 若無秀吉平定諸州 日本百姓至今不安

一問……平秀吉旣平了六十六州 便可自王 如何又來求封

答曰……秀吉因見殺國王爲明智 又見朝鮮有天朝封號 人心安服 故特來請封

一問……爾國旣稱天皇 又稱國王 不知天皇即是國王否

答曰……天皇即國王 已爲信長所殺

一問……爾旣如此 當奏請許爾封 爾當寫書 差倭去報平行長速歸 令關白整備册使舡隻舘舍及一應恭候禮儀 一有不虔封仍不許

答曰……守候已久 件件不敢輕易 有違天朝之命 沈遊擊到釜山 兵馬即過海回家 行長守候天使

(已上皆司馬問小西已答然本部事專裝飾 豈不能預敎 如安爲此恭順語乎)

當日兵部 將此倭使面同多官 親書應情辭 俱封奏朝廷 皇上方准信卒定封王之議 詔遣臨准侯李言恭長子李宗城爲正使 都指揮楊方亨爲副使 賚策命印章冕服 封秀吉爲日本國王

<海東繹史卷六十二 本朝備禦考二,
兩朝平攘錄卷之四>

百三十, 熊川 會談
(宣祖二十八年二月十一日)

兵部又遣軍門票下差官婁國安 賚帖前往釜山 視倭賊形勢 又檄我國 選差伶俐陪臣 同往探審 朝廷即以司僕寺僉正朴振宗 跟隨國安 二月初十日巳時 進到熊川賊營 有平行長中軍倭無羅也叱知 出來迎接 先問天使何時出來 振宗答曰 俺起程時聽得 天使於今月盡頭 當到遼東 雖有倭衆多寡不等 陸續來問 振宗皆答如前 諸倭或微笑不信 或抵掌喜躍 十一日 行長令通事倭要時羅等 邀差官婁國安及朴振宗 迎入廳裏 玄蘇平調信在坐 行長令要時羅問曰 爲恩甚事 來到這裡 朴振宗答曰 俺蒙兵部石爺分付 來看你們進退耳 更無別樣句當 俄而行長進酒勸飮 打話移時而罷 本日及十三日 行長與婁國安 連次打話 振宗問國安曰 有甚說話國安曰 行長問俺出來緣由 俺回答聖上旣已准封 沈游擊多帶人馬 先天使出來 兵部石爺差遣俺等曉諭你們 先令撤兵過海 又移咨朝鮮 着差陪臣一員 跟我同看 覷你們動靜 以憑傳奏 以便天使進前 你們能欽遵聖旨 散兵渡海則 事當易就 行長答曰 俺自平壤至釜山 一遵天朝約束 不敢違背 俺不是欽遵聖旨者乎 今次大人又講撤回句當 非不遲耳俺回答你們以天使來否 爲之進退 俺回報石爺 催送沈游擊矣 十五日 平調信向朴振宗說稱 俺等虛費粮餉 苦海上委無他意 只爲等待天使 渴望之情 豈啻若赤子之望慈母 況俺等使異國 四年從戎 人情孰無父母妻子之念 天若不郞俺等 使不得生還故土 寃結心白 何時可已 煩乞大人爲俺等善爲區處 振宗答曰 天朝念本國累世忠勤 視同內服 故發兵運糧 極力極濟 准封事 係是天朝恩典 原非小邦所敢容贅 說罷 朴振宗乃留賊營 看得上下倭衆 並皆怨苦久留 等待天使 似是眞情而秀吉與淸正及諸頭倭 猜然未已 因和挾詐矣 振宗即將前後問答 馳啓緣由 又將差官婁國安 傳送賊酋平行長書契 送于禮曹

<再造藩邦志 卷三>

百三十一, 册封使의 日本 派遣

二十三年(乙未)正月二十一日 頒誥命 又頒日本國王誥諭一道 至二十三日 復頒勅諭一道……中略……二月初三日 又頒二使勅諭 及沈惟敬勅諭各一道 皆申勅三事各要遵行 册使前駐三浪江 必釜山營柵一倭不留 有朝鮮王奏到 然後渡海往封 司馬復委兵備副使楊鎬 往勘的實回報行事 沈惟敬初爲司馬建此議 希己爲册使及不與大失望 宗城紈袴子 不禮惟敬 惟敬亦輕宗城 且惟敬許倭七事 知非一封可了 前議三約決要一倭不留 令楊鎬勘實 朝鮮奏報方許往封 此皆奉有欽依 及二使往釜山營將一年 倭營不撤 惟焚小營併歸大營而已 楊鎬足蹟不到朝鮮 國王亦無一字奏報 司馬日促二使渡海則曰風潮不順 曰宮殿未成 曰禮節未備 則曰不可不加愼重 於是人言藉藉危疑叵測 司馬復差大同守備都司常鶴 單騎往釜山探聽 鶴回備陳倭情變幻 封事不可輕行 星不然之 復遣家人張竹王胡子 于四月渡海見倭 倭亦遣通事婁國安來報故信封事決成 十二月十一日 惟敬又私令探倭 委官吳邦彦等 將遼東寬奠官馬 及京營選擇馬二百七十七疋云 備從人騎用 悉發送日本南戈崖喂養 實以驅獻關白也 以故言者益甚謂二使必被刼留 <海東繹史卷六十二 本朝備禦考二, 兩朝平攘錄 卷之四>

惟敬等在倭營頗久 而行長渡海之意 久未能決 天使連遣使促倭渡海 項背相望 行長姑先撤熊川數陣及巨濟場門蘇浦諸屯 以示信而大陣則依舊不撤……中略……行長又自以帖稟曰

「我自前累見欺於天朝 故關白方以我爲欺已 今天使并帶小西飛而來 文書相議 不如面講 且淸正及衆倭 預爲撤回 海上無一倭 然後我獨率四五百留海上 方始請天使 若有一倭留海上 不敢請天使來 今天使不比前日徐謝之行 必有接待儀註 先爲講定 不得己我當從往約 今月二十四五日當回也」

宗誠見此帖曰 行長回來 我當進往釜山 七月初一日報至 則六月二十六日行長已回 關白差

豐臣正成長成　分管燒毁房屋　及接待等事　釜山大將門敦等三營先回　淸正等三營次之　只留釜山房屋　以待天使云　而別無搬運之狀　且曰恐如平壤見欺　願天使速入營中　當悉如約　八月　兵部以箚付催副使楊邦亨　先往釜山　宗誠乃與邦亨定計　邦亨以初十日先還　而倭遷延不即盡撤　更請上使　人多疑之　兵部尙書石星　既信沈惟敬言　意倭必無異情　又急於退倭　屢促宗誠前去　雖朝議多異　星獨奮然以身當之　宗誠乃以九月初一日發王京　十月入釜山　淸正等尙在　所撤只老弱疲病　及久戍未代者也　二使既到　促其悉數歸巢　然後方許渡海　行長亦不來見天使　只言關白所約三事外　行長等不敢他求中間往來行言　切勿信聽　今此諸營　糧餉器械甚多　不得一時撤去　姑待之　宗誠信之　不以爲應　行長乃托以將往復關白定奪　然後迎天使渡海歸國　丙申正月始廻　猶不明言撤兵之事　而沈惟敬亦留二使　又獨與行長渡海　詭言將講定迎天使儀節　人莫能測其意　惟敬於是錦衣登舟旗上大書調戢兩國四字　立船頭而去　惟敬既去久無回報　蓋惟敬先入日本　私奉秀吉蟒龍玉帶翼善冠及大明地圖武經七書　奉於秀吉　其他珍寶多所陰賂　又娶阿里廝女與倭合　故皆爲所操縱也　　　　　<再造藩邦志 卷三>

沈惟敬承命以後　又責令我國遣使隨其行　以通信于秀吉行長　亦曰　天朝既册封矣　朝鮮若不遣使　是獨天朝和爾　必得朝鮮使臣　和乃可成惟敬要我使甚勤　且必欲同行　遣其姪沈懋時催之　朝鮮依違答之　未有決言　兩天使乃於六月十六日　先渡海　連遣人催我國使臣　留沈懋時平調信催之　接伴官黃愼馳啓於朝廷曰　若不遣使則當明白痛絶　以示決無可遣之理　今者含糊兩間　萬一事機交急　必有後悔　朝廷頗然之而亦久未決　沈懋時又遣人　必欲與使臣同往　朝廷不得已將遣使臣　而久不差出　及聞賊怒　然後將以武臣李逢春等　稱跟隨陪臣以應之　蓋柳成龍以壬辰草檄中語　嗛之既久　此行欲以遣愼而以愼績勩　今又用愼則恐不可於衆憤　外擬他人而內實在於愼　乃啓曰「今事勢已迫　必得備諳賊情者　可保無虞　黃愼明敏膽略　且有夷險不貳之節　當今無以逾此　請就令黃愼陞敦寧都正爲通信正使　以大邱府使朴弘長爲副使」愼在倭營　已二年矣　至是又有是命　<再造藩邦志>

禮部范謙　請給豐臣平秀吉　皮弁冠服紵絲等項及誥命詔勅印章　先是小西飛稱日本已無國王以秀吉上請本部擬封爲順化三奉旨　平秀吉准封日本國王　故事外夷襲封例賜皮弁冠服及誥勅等項　惟始封　例有印章　日本自永樂初錫封錫有龜鈕金印時　小西飛供稱　舊印已無似宜別行請給　故彙有是請　詔從之　<神宗實錄 卷之二百八十一，皇明實錄第三百九十七>

正使敦寧都正黃　愼副使行上護軍朴弘長　漢學行上護軍朴義儉李愉　前判官文應樞　前直長金吉孫　倭學司正朴大根司猛金德元　前奉事金仁輱前銜李彦瑞　醫員前僉正張世寬　正使軍官前府使李祥　訓練院正李逢春等十六員　副使軍官立功自效前郡守金好恬　訓練院判官兪允謙等十五員　小通事金彦福等七名　陪史二名　牙兵八名砲手十七名　通引三名　羅將八名　吹螺赤十二名　驛者五名　刀尺六名　官奴六名　正使伴倘奴三名　副使伴倘奴二名　手把赤二名　都訓導金得鎭撫蔡文　無上尹今同等四名　沙工金風金等三名　紅匠二名　治匠二名　格軍成哲一百五十名　譯官奴子十三名　軍官奴三十名　總計一行員役三百九人

正使則自己未夏因皇上聖旨　跟同沈遊擊來駐態川釜山等處倭營　副使則以大丘府使方在本府故朝廷使譯官朴大根李愉順　賫國書自京城到慶州　　　　<東槎錄日本往復記>

通信使於是年八月初四日　自釜山乘船以閏八月十八日到界濱　留二十九日　復乘船以十一月二十三日到釜山　　　　<同上>

百三十二，册封正使 李宗城의 脫走事件

勳衛將軍李宗城奉使往日本經行之營在在索貨無厭　次對馬島太守義智　夜飾美女二三人　更番納行帷中　宗城安之　倭酋數請渡海不允　義智妻行長女也　宗城聞其美併欲淫之　智怒不許　適謝用梓姪隆與宗城爭通　宗城欲殺之　隆誑其左右

曰 倭三三兩兩躡足附耳 似有變 宗城俱棄璽書夜逃 比明失道 自縊於樹 副使楊邦亨檄聞朝議閔然 督撫直指皆言 倭情未嘗有變 正使自爲奸人誤耳 乃改邦亨爲正 惟敬爲副 立限渡海

<朝野記聞卷之四 壬辰倭難>

時福建人蕭鶴鳴 王三畏等 自倭中出來 見李宗城 極言關白桀驁 實無受封之意 將誘致册使拘囚而困辱之 要索歲賄於天朝 仍發兵更向朝鮮 和事終不可成 徒辱君命爾 宗城聞之甚恐 四月初三日 二更時分 挈親信家丁 扮作差官樣 背負黃袱面紗擎鑼而出 紿守倭曰 有急遞可開門 倭信而開之 遂跳去 月黑不辨行逕 取山路而走 誤抵蔚山 天明望之 乃賊壘也 竄於山谷中 不食者三日 適遇我國哨探人 指示歸路 僅以得達慶州 向王京 宗城跳出之日 倭不知其跳 天明之後始覺之 一軍俱動 以兵圍副使楊邦亨舘所 又發一枝兵 以沙古鴈門飛浪島等方行追趕 邦亨靜以待之 日高猶不起 義智等進至房外 令通官跪告曰 正使逃去 邦亨曰 痴人未見異國氣色 久在營中 悶不可耐 以此逃去矣 因謂諸將曰 今正使旣去則其票下將官皆當屬我 我不可坐視狼貝 因呼義智等 毋令侵暴諸官 亦勿追趕正使 內外乃安 日晩邦亨到正使衙門 將金印捧還下處 倭衆感激悅服 稱言印信在此 楊副使猶在 我們復何所慮 初邦亨入倭營 倭酋入庭行禮 邦亨謂行長曰 天高地卑 乾坤定矣 大明中天 天下一統 萬國誰不仰服 爾關白雖外海 外 安敢獨不效順乎 爾等領兵據此 已踰四年 皇上深悶兩國相持 生民塗炭 特遣使遠臨海外 是萬古所未有之大慶也 爾等何故未過海乎 因厲聲言之 諸倭相視肅然 初迎天使甚簡 至是辭氣卑恭 其後兩使同在一營 禮邦亨加於正使 敬服如此 故至是咸遵節制一營賴之

<再造藩邦志 卷三>

宗城卽皇明開國功臣文忠之後 臨淮侯言恭之子以勳襲爵長於綺紈癡騃不經事 性且恇怯 先是李恒福見宗城謂人曰紈袴子弟從事文墨必辱皇命 至是此言果驗

<朝野僉載 卷之二十八 癸巳>

封倭正使李宗城逃還京城仍歸皇都 遣沈友勝具由奏聞 帝怒命逮李宗城 下錦衣衛獄 命楊邦亨陞爲上使以沈惟敬爲副使 陳雲鴻奉敕來宣(宗城歸皇京納贖銀三萬兩蒙宥云未知是否也)

<同上>

四月 皇朝册封正使李宗城 至自皇京 挾小西飛裴爲天朝服飾 置於票下 出入必與之偕 先遣沈惟敬 至釜倭營 諭令倭衆渡海 又令本國差的當陪臣 跟隨惟敬入倭營 朝廷乃以文學黃愼爲沈惟敬跟隨陪臣 人有危之者 承命即行

<再造藩邦志 卷三>

於是遣陪臣沈友勝 具由奏聞 因請兵糧 遼東督撫亦馳奏宗城之逃 旣到王京 又揭稱關白執沈惟敬 要求七事 原不爲封 皇上大怒 命逮宗城 下錦衣衛獄 改命科道 往審北京 有作詩嘲姍宗城 其詩曰

貼肉暗藏蘇武節　抱頭忙着祖生鞭
還國好縫皮眼罩　羞將面孔向人前

<同上>

兵部題副使楊方亨奏稱臣奉命 往封日本 迄今已踰一年 游擊沈惟敬 同行長渡海之後 釜倭情勢帖然無譁 雖是被虜在倭之人 流言互異殊的據據倭將義智 沙古雁門等 各稟報關白開封甚喜 盖造官舍已完 迎册使在邇 但候風順行長即到 乃四月初三日夜 正使李宗城變服前去 中軍官王承烈 把摠王世賢徐延壽 續後亦去 其餘員役至曉方覺……其遺下行李 止有日本國王金印册使關防各一顆　<神宗實錄 卷之二百九十六，皇明實錄第三百九十九卷>

上命李宗城監侯 刑部先核李宗城 向在釜營經十四月而關白无一語相通 又云防範漸密 供應日減則 傳言沈惟敬之执固亦疑 然而云 中軍楊貴千摠謝隆 俱向宗城泣訴 謂關白志不在封要稱兵內犯 又云內有煩言不一則要挾之狀可知宗城穉子 惧而逃併失符節罪 亦安所逭哉 然以多證未集故 拘而待訊 刑部奏訪獲事

<神宗實錄卷之三百二，皇明實錄第四百一>

二十四年春正月 先是東封之使 久懷觀望 至是始抵釜山而沈惟敬詭云演禮同行長先渡海 私

奉秀吉蟒玉翼善冠及地圖武經　又驅壯馬三百南戈崖騎從陰獻秀吉　取阿里馬女與倭合李宗城執袴子經 行之營所在索貨無厭 次對馬島太守儀*智夜飭美女二三人 更番納行帷中 宗城安之 倭酋數請渡海不允 儀智妻行長女也 宗城聞其美 併欲淫之 智怒不許 適謝用梓 姪隆與宗城爭通 宗城欲殺之 隆誅其左右以倭將行刺 宗城懼 棄璽書夜遁 比明失路 自縊於樹 追者解之 遂奔慶州 副使楊方亨聞於朝 上震怒 逮問宗城 議戰守 會方亨復揭倭情無變 正使自爲奸人誤耳 上以方亨充使 加惟敬神機營銜副之

<明紀事本末 卷六二 援朝鮮>

當倭之據平壤也 天朝遣沈惟敬 通使軍前 盖惟敬之父 甞爲倭所虜 惟敬亦少隨其父 久在虜中 識其形情故也 平壤一捷之後 諸道分屯之賊 聚于漢京 無去計 惟敬復入賊中 諭以講和之意 賊即撤退 經略宋應昌以謝用梓徐一貫充使价而遣之 賊酋秀吉 待之甚落莫 只放還被虜臨海順和兩王子 及黃廷彧黃赫等 久之 賊將平行長等揚言 天朝若許和 送册封詔使則當退師 惟敬又往來通言天朝 欽差臨淮侯李宗城 總兵楊方亨 充上副使遣之 既入釜山虜營 不肯遣使迎接 又不許退還 宗城等留釜山虜營 幾一年 或密告宗城 以賊無好意 欲拘執使臣 宗城脫身跳出 倍道抵京城 擧國震駭 疑賊追捕宗城豕突也 賊竟不動 只固守方亨 方亨馳奏其由 於是拿宗城而去 以方亨升上价 沈惟敬充副使 俾完其事 及抵秀吉所居 秀吉待之極無禮 且言若許降皇女則當成和 我國亦因兵部 諭以不可不通使之意 於是以黃愼充上使 武官朴弘長爲副 隨方亨等而去 秀吉尤蔑視 不答國書 愼能不辱命而還 當初和事 兵部尚書石星主之 盖出於中國以禽獸畜夷狄之意　未爲全非而及其狡計已露而猶信惟敬詐謾之言　每以夷情爲可保 欲苟且結果 終至見辱於小醜 此則星之罪也 星惟敬俱下獄死

<知退堂李廷馨撰 東閣雜記下>

東征之議出於兵書石星　星見諸將翫寇賊未可殲　而會有辯士沈惟敬者 獻講和之策 星以爲然 賊亦詐請和 星建議 遣臨淮侯李宗誠 都指揮楊邦亨 爲册封使 封平秀吉爲東王 宗誠等既入行長之壘而秀吉不受封頗侵辱　宗誠乘隙夜遁賊縱兵追之不及而還 丁酉倭再動 科道官論星主和誤國 帝震怒 下星于獄斬惟敬于市 星竟瘐死獄中 人多寃之

<金時讓撰 紫海筆談>

百三十三，大阪城 會見

九月封使至日本 先是沈惟敬抵釜山 私奉秀吉蟒玉翼善冠地圖武經良馬 而宗城貪淫 爲倭守臣所逐 棄璽書夜遁 事聞逮問 乃以方亨充正使 加惟敬神機營銜副之 及是奉册至 關白怒朝鮮王子不來謝 止遣二使奉白土紬爲賀 拒其使不見 語惟敬曰 若不思二王子三大臣三都八道 悉遵天朝約付還 今以卑官微物來賀 辱小邦耶 辱天朝耶 且留石曼子兵於彼 候天朝處分然後撤還 翌日奉貢遣使賫表文二道 隨册使渡海到朝鮮 廷議遣使於朝鮮 取表文進驗 其一謝恩 其一乞天子處分朝鮮 初方亨詭報 去年從釜山渡海 倭於大阪受封 即回和泉州然後倭方責備朝鮮 仍留兵釜山如故 謝表後時不發 方亨徒手歸 至是惟敬始投表文案驗潦草 前折用豐臣圖書 不奉正朔 無人臣禮 而寬奠副總兵馬棟 報清正擁二百艘屯機張營 方亨始直吐本末 委罪惟敬 並呈石星前後手書 帝大怒 命逮石星沈惟敬案問

<海東繹史 卷六十二 本朝備禦考二，明史>

十二月楊方亨等至日本 秀吉抱兒出見 辭氣倨傲 方亨奉詔勅 使拜跪受命 秀吉稱以脚瘡不肯拜跪 又不備謝表 又使人拒責黃愼等曰 朝鮮使臣 官卑且不送兩王子備謝 是慢我也 遂却書幣且欲拘留愼等 倭酋要時羅 曾在行長營 與愼相識 來言其故 仍令求解於沈惟敬 愼正色曰 若和事不成 欲爲拘留則任留一年十年 雖至殺戮亦所甘心 不須往見沈天使 只可任他也 要時羅默然而去

<宣廟中興誌 卷五 丙申>

丙申年 六月十五日 惟敬隨從四百餘人渡海封

倭 倭將行長清正等 亦先後撤兵同回日本 閏八月十八日 册使方至日本沙浪浦 朝鮮素知倭人乞款 厚無實心本不欲遣人 爲惟敬逼促 只得差全羅道觀察使黃愼 同將官朴弘長 隨二使同往 二十九日 册使向五沙浦 日本人民聞天朝封關白 倶翕然震動 及抵國門 關白先遣平調信來言 主怒朝鮮王子不來謝 二使不許同册使相見 九月初二日 册使入見 方亨在前 惟敬捧金印立階下 良久忽殿上黃幄開 一老叟曳杖 從二青衣從內出 即關白也 侍衛呼吶人皆竦慄 惟敬先匍伏 方亨只得隨之 老叟大有責讓 語侍臣行長曰 此天朝送禮人 宜優待之 始出赴館 (楊沈見關白卑屈狀有不堪言者 隨行護敕官徐志登歸私對人言之) 次日宴册使 惟敬方發言撤兵通好 關白即怒曰 天朝遣使封我 我姑忍之 朝鮮決不許和 天使亦不須久留 明日可上船 我當再調兵馬 前往朝鮮厮殺 初四日方亨等即還沙浦郞 關白深怒朝鮮欲兵其使 得僧諫方止 又喚清正等商議日期 惟敬與方亨商議 我等萬理遠來 不得一的信回去 有何面 且勅書三事皆再三講定 還浼行長去申前約

<兩朝平攘錄 卷之四>

百三十四, 交涉의 決裂

初八日 方亨只得約黃愼等 收拾同回 且云到中國時 天使可明白奏上 不然恐誤大事 關白遣人贈二使禮厚 皆行長調停其間 初九臨發平調信私告黃愼 昨日清正向關白說 「我今再往朝鮮擧手可定 當令朝鮮遣王子來謝 若不肯當虜這兩個王子」 因此關白著清正等四將 先發過海 期明年二月大兵隨後調進 黃愼以告二使 惟敬猶未信 及使船回至那古耶 訪之島人則云連日 長政在豐前州 清正在肥後州 各召募兵衆將渡海矣 衆聞無不失色 獨惟敬自若 須臾忽倭將齎關白書來 衆謂是謝恩表文 及詢審 乃責朝鮮一撤 內列朝鮮三罪 詞甚倨 大約言「前年朝鮮使來 雖委悉下情中不達皇朝 無禮多多 其罪一 既依沈都指揮 寬宥二王子 並夫妻以下 不先致謝禮 乃隨天朝過海之後 歷數月 其罪二 大明日本之和交 依朝鮮之反間經歷數年 其罪三」 書至 朝鮮不敢隱匿謄寫進呈 並乞發名湜防

十二月十七日 方亨等 至釜山商議回京復命念五日 離釜山行至陝川 有朝鮮京畿道體察使李元翼 先已會黃朴二使 備知關白情由不肯休兵 此日請見册使于海印寺 問日本情由 方亨一一備白 元翼欲趁釜營 勢寡急攻破之 惟敬曰 虛固當乘 動亦宜愼 差之毫釐謬以千里 兵家所以謀萬全者 稱良將也 (元翼因其言 未敢擧兵) (倭兵此時尙未渡海 一擊釜倭傾其巢穴 然後以重兵守其止所謂先發制人 元翼計未爲失也 奈何惟敬阻之 又失此機會)

<海東繹史 卷六十二 本朝備禦考二, 兩朝平攘錄卷之四>

……中略……而初八日 黃愼等詣楊邦亨衙門稟曰 陪臣等當初受國王之命 隨老爺而來 一聽老爺指揮而往返之教 丁寧在耳 今者窃聞老爺將欲發行 陪臣等亦將奈何 楊天使曰 吾今明日間當乘船 陪臣亦治行李隨吾還歸可也 愼對曰 陪臣等奉命來此者 欲傳國書於關白也 今若不得傳命而歸則 無可以回報國王者 陪臣等奉命 無狀 事至於此 寧欲死耳 楊天使曰 若以國書傳於關白 關白裂其書而棄之 又辱使臣則死亦可矣 今陪臣奉國書而來 關白不受 但當奉還進於國王之前 何害焉 陪臣跟隨吾行而吾輩還歸則 陪臣亦當隨而還國 此自然之道 此外無他道理也 又曰 死者匹夫之勇也 若當死則吾豈不死 但徒死無益 故不爲也 愼曰 老爺已頒皇勅 且傳封職之典 此則皇朝之事已畢矣 陪臣等尙未傳命 將以徒手還國 故欲死耳 楊天使曰 毋謂天朝之事 已畢吾已傳皇勅已授金印而尙無謝表 天朝之事 亦未結局也 反不如汝輩尙保國書在身上耳 自初至終 受大辱極矣 汝輩雖留十年 事無結局 汝輩三百人盡死 事不可成矣 不如隨我而還 同議於國王之前 明白奏 聞於天朝可也 若不明白 必誤大事矣 使臣等辭退 又往見沈惟敬衙門稟曰 陪臣等受

命來此 專恃兩老爺而今事己至此 不得結局 陪臣何以處之 沈天使曰 勢將還歸 陪臣亦知此意 治行而待 譬如客到人家門前 主人不迎則公何何何強留 關白所爲 甚可惡也 難以好意待之 又曰 人在井上 方能救井中之人 今吾亦同在井中 何能相救 吾輩但當遠歸 更議此事 陪臣亦當隨往可也 黃愼等辭歸舘中 上下相議治行 ……中略……兩天使及我國使臣 乃於初九日乘船發程　<再造藩邦志 卷四>

第 4 節　丁酉・戊戌 作戰期

百三十五, 日本軍의 再侵略

日本自惟敬行後 即遣清正 統領部將豐茂守等騎船二百餘艘 於正月十三日 順風一日渡海十四日到朝鮮入竹島舊壘 與原留倭衆合勢 仍在機張住箚 隨攻梁山逐太守出城 追留住民居之 十五日行長等兵船自釜山外洋 進入豆毛等浦不絕 于岸上樹四色旗 高叫朝鮮人民勿懷疑議還來安揷也

念二日倭船直入西生浦周覽下營形勢 仍示牌文一紙云「日本國加藤主計頭清正 受太閤殿下之命令 再航海至於此道 便遣使者于朝鮮京城 回報之間 慶尙左道之民 更勿疑此書 莫恐怖而退散 玆先遣我臣金大夫 以令告報也 慶長二年(丁酉)正月日 平清正書牌」 自此倭兵絡繹渡海不絕 各營糧餉陸續搬運 二月初一行長將釜山原住瓦房 採木修築內建高樓 外掘三層濠 周圍木柵 爲據久之計 朝鮮士民初以和好事成 逃亡漸復 一聞倭兵復至 竟夜驚惶 皆荷擔而俟 且數年來 自王京至釜山一帶殘破已久 全羅地方初脫兵燹 城垣頹敗未暇修擧 倭兵猝至 擧國危懼 國王先將宮眷移住海州 軍民各將家口奔徙遠境 留屯漢兵禁之亦不聽 柳承寵(謹案當作成龍) 托言搜山城糧草 束裝奔尙州 將官權慄等 各避極京地境 皆不戰而逃 報入中國 朝鮮告急之文無日不至 聲言倭兵百萬分作一三運 將向天朝

<海東繹史卷六十三 本朝備禦考三, 兩朝平攘錄>

二十五年 二月十六日(丁酉) 冊使方入關 亦各厚載而回 惟敬乃將屈辱眞情隱下 假捏秀吉十分恭順頂冠披袍叩首謝恩等語 惟敬先在日本時 即捐所攜金 托行長贊買猩猩毡四條 天鵝羢及大小倭金器皿 計櫃三十餘擡 牌上明開日本國王豐臣秀吉 相贈什物先解赴兵部 及抵京即以諸物作關白貢獻進 朝鮮群臣無不哂詆 然謝表竟不至 三月後惟敬再往釜山 方差官具進又無年月 徐黃門斷其假捏無疑

<海東繹史 卷六十三, 本朝備禦考三, 兩朝平攘錄 卷之四>

六月十八日(丁酉) 平調信忽駕船九隻 帶倭五百至海邊 差人到宜寧 喚惟敬講話 乃爲朝鮮兵阻回 其使又同張龍 從陸路回釜山 楊元聞之曰 事急矣 自南京星夜馳至宜寧十里許 迎見惟敬方欵載狐貂先行 楊元一見問倭情何如 惟敬曰 成不得了 元云既成不得何不赴見本鎭以符前言 曰我且不去 明日往慶州 差人與清正講話 一月半方回 元視惟敬言若狂而色己變 當時與軍門差官六人 出示鈞票挐回至丹城地方 押送軍門請旨 監固惟敬擒日本之嚮導 中國之禍根方得絕矣 後八月十四日 御史況上進抄晾澹如家 搜出倭旗一面 長短倭刀倭劍共三百三十六口 倭衣倭器細絹犀帶日本圖等項共三百六十三件 人心莫不暢快

(惟敬海上數年難盡沒其緩倭之功 此後反覆變幻彌縫 詭詐年復一年 月復一月 使中國耳目不明 戰守旡據迨於姤家城 媚日本撤軍戍 費餉損威 欺悞本兵 厥罪不小 總督身未渡遼 先計除心腹之患 然後軍中 動靜倭將旡由知之 謀亦臧矣 彼蕭應宮欲釋惟敬 要亦爲利口所惑耳)

惟敬痛恨楊元 無由報復 被擒之日 暗令要國安 脫身報與行長南原虛實 令其起兵掩襲南原 東有雲峰烏嶺 南有三浪大江 直通金海竹島此爲全羅門戶 可以屯聚馬兵 乃朝鮮最要害處而閑山島在朝鮮西海水口 守此以阻截倭船 又爲

南原右障 故總督未出關 先使副總兵楊元 以遼兵三千往扼其地 延綏遊擊陳愚衷 統兵二千住全州以協助之 且恃朝鮮將金應瑞李元翼兵在雲峰之外 權慄兵閑山之內 閑山又有元均 統舟師守把 各爲障蔽也

<海東繹史 卷之六十三 本朝備禦考三, 兩朝平攘錄 卷之四>

百三十六, 東征軍의 再出動

乃將各處兵馬四萬餘人 分爲三協 左協副總兵李如梅 統領馬步一萬二千六人 部將盧得功(遊擊) 董正誼(遊擊) 茅國器(遊擊) 陳寅(南兵遊擊) 陳大綱(川兵千摠) 中協中軍副總兵高策 領馬步官軍一萬一千六百九十人 部將祖承訓(立功副總兵) 頗貴(宣鎭遊擊) 李寧(大同遊擊) 李化龍(保定遊擊) 柴登科(遊擊) 范進忠 吳惟忠(副總兵) 右協副總兵李芳春 解生 共領馬步官軍一萬一千六百三十人 部將牛伯英(遊擊) 方時新(守備) 鄭印(眞定都司) 王戩(眞定把摠) 盧繼忠(遊擊) 楊萬金(遊擊) 陳愚聞 其巡撫標下參將彭友德 楊登山 大同遊擊擺賽 坐營張惟城 以上俱聽臨期調遣 東西策應 其監軍道監察御史陳效也

又爲總督 奏請尙方劍 先斬後奏 以重事權 此時總督主意 令麻貴同楊鎬 提督左右二協兵欲自忠州鳥嶺 向安東而趨慶州 專攻清正 然恐行長自西來援 則令中協兵馬近宜寧一帶東援 左右協西扼全羅 救援之賊 使不暇顧 又于三協中 摘發馬兵一千五百人 同朝鮮兵合營由天安全州南原而下 大張旗鼓作爲攻取順天等處之狀 以牽制行長 又大發牌使平壤一帶預備行糧十二萬 聲言續調陸兵二十萬到其隨行 軍門守王京者 不過楊廉, 安本立, 陳國賓兵千餘人而已 其朝鮮人馬則忠清道節度使李時言兵二千 幷平安道兵二千 貼入左協 慶尙道兵馬節度使成允門兵二千 防禦使權應銖兵二百 慶州府尹樸*毅長兵一千 咸鏡江原道兵二千 貼入中協 慶尙左道兵馬節度使鄭起龍兵一千 黃海道兵二千 防禦使高彦伯兵三百 帖入右協 其火器則大將軍砲一千二百四十四位 火箭十一萬八千支 火藥六萬九千七百四十五斤 大小鉛子一百七十九萬六千九百六十七斤 皆遼陽分守張登雲運至於三眼銃 鐵鬚狼 鐵悶棍 火砲 火筒 團牌 佛郞機等器 皆倭所深畏者 無一不備 其糧餉足供一月 皆令中國朝鮮專官催運 王京以北則委郎中董漢儒 督催平安黃海等道節度使韓應寅等 將中國所運之餉 俱運至王京 然後轉運各營 國王又分委大司憲尹承勳 專管左協營 吏曹參判柳永慶等 專管中協營 戶曹分司參議李時發 專管右協營 觀察使黃愼等 管西路 全羅各營進兵之時 即令跟隨催督 仍令自備十日烘炒以備緩急 時下王師陸路兵粗備 惟水兵缺少 總督極以爲憂 屢疏揭到部 催促閩浙南直水兵 皆淹延未至

十二月初 天津巡撫萬世德 議水兵一萬幷馬步標兵六千 設立參遊五員 分布旅順登萊 應援犄角 而朝鮮海口我中國無一兵 況倭素怯者水兵水戰而行長西據逼近水營 亦慮我水兵之截其後也 今水兵止三千三百名 孤弱難倚統督不得已令水兵遊擊季金 統率 仍朝鮮官李仁前去 與水軍節度使李舜臣合營 舜臣水兵亦二千人 又清正東據機張一島 賊巢百餘里而中有朝鮮水兵官李應龍 領水兵五百餘名……中略……總督乃咨國王 加以銃手二百名 抽眞保定長箭手一百名 委南兵把摠楊貴 鄕導把摠于承恩統領

<海東繹史 卷六十三 本朝備禦考三, 兩朝平攘錄>

天將將分三營進兵故 以李時言配於一營而平安道兵二千員名屬焉 以成允文配於二營而卿(權應銖)與朴毅長及咸鏡江原等道兵二千員名屬焉 以鄭起龍配於三營而黃海道二千員名屬焉 此外郭再祐李光岳黃愼 各令招募成軍爲諸軍後援 此在都元帥節制 皆當稟聽施行 但事係軍機不可漏洩 只宜自知而處之…以下略…

<白雲齋實記 卷之四 附錄諭書 丁酉十一月十一日條>

邢玠分諸將 四路征倭 邢玠分割兵將四路進兵使厤貴主之東路攻蔚山 董一元主中路攻泗川劉綎主西路 陳璘主水路協攻順天 刻日勛進兵合十四萬二千七百餘人 權慄李光岳屬劉綎李舜臣屬陳璘 鄭起龍屬董一元 金應瑞權應銖屬按察副使梁祖齡 監厤貴董一元軍 參政王世琦監劉綎陳璘軍 厤貴破平清正於蔚山 貴至慶州令解生等以六千人先發

＜宣廟中興誌 卷六 戊戌＞

百三十七～1, 兵部主事의 誣告事件

軍門贊畫丁應泰爲人凶狡巧於誣揑 游擊將軍陳寅中 周陞性亦狡詐 島山之役 得罪於楊鎬心銜之 譖於應泰 島山之役 多折軍士 以帶來雜役賣買人補闕 不給諸軍糧餉 又應泰遂誣奏楊鎬厤貴貪猾 喪師欺罔天聽 鎬聞之大笑曰諸將不能辨事 我欲裁之以法 讒言至此 作事亦難矣 遂上辭本 請罪求回 上聞之 函遣陪臣崔天健等陳奏島山戰陣始末 以明其誣 諸將亦上本 合辭申救 於是鎬歸啓周陞囚之 邢玠票下將周晃以浙江兵三千住京城 與周陞善 聞陞被囚 大怒嚴鼓呼兵將攻鎬 鎬令票下諸將 環甲勒兵大關門以待之 晃不敢發

＜宣廟中興誌 卷六 戊戌＞

日本封事敗其年八月進署都督 僉事充禦倭副總兵赴朝鮮援剿 時厤貴三路進師 令如梅將左軍與右軍共攻蔚山 如梅偕參將楊登山騎兵先進設伏海濱而令遊擊擺賽以輕騎誘賊 斬首四百有奇餘賊遁歸島山 副將陳寅冒矢石奮呼上破柵兩重至第三柵垂拔 楊鎬爲總理宿與如梅暱不欲寅功出其上 遽鳴金收軍 翊日如梅至攻之不能拔 已而賊援至 如梅軍先奔 諸軍亦相繼潰贊畫主事丁應泰劾鎬幷劾如梅 當斬者二 當罪者十 帝不納旋用爲禦倭總兵官 會其兄如松戰歿即命如梅代之

＜明史卷二百三十八 李如梅傳＞

百三十七～2, 終戰과 戰後處理

總督經理 部署諸將 各引兵還朝 講善後之策各營兵馬盡撤 至星州 以丁應泰疏勘存故實數先令給事徐觀瀾勘之畢 四提督俱回 復令李承勛統所留兵 杜潛監其軍 暫駐王京防守 劉綎因播事動先促歸 茅國器陳蠶尙留釜山 水兵留張良相等 張榜留巨濟 因徐勘不伏 復差刑科給事中楊應文 在義州再勘(唱名逐一勘過 至剪髮剃眉) 二十七年四月念六日也

九月方得起行 二十八年正月 兵方入關 願散者 沿道散去 臺兵復歸邊營 召募者 復還各鎭浙兵歸者 多收入羅水營 刑公晋爵南大司馬萬經理往王京 善後未回 大司農計度支 自二十五年 邢經略出關至二十八年歸 凡用餉銀八百餘萬兩 火藥器械馬疋 不與焉

＜兩朝平攘錄 卷之四＞

徵發浙 陝 湖 川 貴 雲 緬 南北兵 通二十二萬一千五百餘人 往來諸將 及任事人三百七十餘員 糧銀約五百八十三萬二千餘兩交易米豆銀三百萬兩 實用本色糧米數十萬斛諸將賞金三千兩 山東粮二十萬斛

＜燃藜室記述＞

自關白侵東國 前後七載 喪師數十萬 糜餉數百萬 中朝與朝鮮 迄無勝算 至關白死 兵禍始休 諸倭亦皆退守島巢 東南稍有安枕之日

＜明　史＞

天兵來援者 壬辰初攻平壤用三千三百十九人癸巳攻破平壤用四萬三千五百 追到者八千人丁酉以後先後來援者十四萬二千七百餘人 己亥以後留兵二萬四千餘人 通共二十二萬一千五百餘人

糧十萬餘石 銀四萬餘兩

＜申欽 象村集 卷之五十六＞

亂定後 平行長平義智 遣人請和 不止一二 朝廷延拖不許 厥終以爲 今時與賊在境上時不同乃許焉 其間曲折甚多 不能盡記 丁未春初 呂祐吉爲上使 慶暹爲副使 丁好寬爲書狀 稱爲回答使而遣之 盖避通信之名 以回答倭請爲名也 乙巳夏間 廷議以爲 渠必捉送犯陵賊 然後可遣使 通於行長等 則捉二倭送來曰 此犯陵賊也 朝廷使監兵使率諸將設軍儀 用獻俘儀受

之 至遣金吾郎宣傳官拿來 囚之禁府 三公諸大臣 會坐司僕寺 鞫二倭 一者則壬辰年纔十餘歲 一者則原不出來爲供 屢鞫而終不得情 初擬獻俘廟庭而畢竟只行斬刑 仍責行長輩欺瞞而使臣則依前儀遣之 當其鞫也 原任大臣不齊參鞫 或三公會而空罷 或請召而猶有不參者

<尹國馨撰 甲辰漫錄>

二十七年(己亥)五月玠條陳東征善後事宜十事

一留戍兵馬步水陸共計 三萬四千有奇 馬三千匹

一定月餉 每年計銀 九十一萬八千有奇

一定本色 合用米豆分派 遼東天津山東等處十三萬石

一留中都海防道 一截餉司

一重將領 一添巡捕

一分汎地 一議操練

一責成本國

廷臣議數年疲耗 今始息肩 自宜內固根本 不當更爲繁費 況彼國兵荒之後 不獨苦倭之擾兼苦我兵 故今日善後事宜 仍當商之 彼國先量彼餉之贏絀 始可酌我兵之去留 至於增買馬匹 添補標兵創立巡捕 以至管餉府佐 悉宜停止 帝命督撫 會同國王酌奏 十月請留水兵八千以資戍守 其撤回官兵 駐箚遼陽備警

<海東繹史 卷六十四, 本朝備禦考四 明史>

倭酋歸國朝鮮復安 通國君臣頂戴天朝 歡若更生矣 總督經理部署諸將 各引兵還朝 講善後之等 各營兵馬盡撤至星州 以丁應泰疏勘存故實數 先令給事徐觀瀾勘之畢 四提督俱回 復令李承勛統所留兵 杜潛監其軍 暫駐王京防守 劉綎因播事動先保歸 茅國器陳蠶尙留釜山 水兵留 張良相等張榜留巨濟 因徐勘不伏 復差刑科給事中楊應文 在義州再勘 二十七年四月念六日也 九月方得起行

<同 上, 兩朝平攘錄>

平秀吉七月初九日死 各倭酋業有歸意 我師因水陸乘勝交擊而中路東路不利 水路大捷音纔至 而播州苗軍楊應龍復反 及命劉綎督川兵先發 麻陳董三帥率令撤回 軍門奏留經理萬世德善後 又請大將一員屯王京 天子乃以欽差提督南北水陸官兵朝鮮防海禦倭摠兵官左軍都督府都督同知李承勛 統率大軍 以欽差協理兵備山東按察司副使杜潛監軍 所統一萬五千餘人 天子又發帑金十萬兩 犒賞前後戰士

<再造藩邦志 卷五>

三月…… 水兵游擊將軍白斯清 步兵游擊將軍張榜 因經略檄文回去

四月…… 經略票下招撫海嶼把摠姜良棟亦回去 良棟號令明肅而其御下有法 經理亦憚之

九月…… 水兵游擊將軍萬邦孚回去

十月…… 兵部奉聖諭 檄諸兵盡撤 於是萬經理世德 李提督承勳 杜按察潛 張游擊良相 李游擊天常 李游擊香 李守備應昌 盡撤而回

十一月…… 永平通判陶(劉)良性 游擊將軍吳宗道等皆還 良性是年八月復來 至是回去 宗道領水兵 久住江華 至是亦回去

<再造藩邦志 卷六>

秀吉之薨也 遺言曰我死後姑秘喪 淺野長政石田三成速赴筑紫 令鮮地諸將皆還本邦 如班師不易德川殿及利家 深謀遠慮 莫使十萬兵士爲外土枯骨 東照宮令長政三成赴筑前覇家臺 督歸師事 <秀吉譜, 征伐記, 寬永系圖>

八日 德永壽昌至泗川 傳遺命 令翌月十五日諸將皆會於釜山旋師 又至順天告之行長 時義弘戰捷後 明人大懼 十三日國器遣參謀史龍涯與友理及譯人張昴于新塞議和 行長正成亦相會 和議成矣 十七日以國器弟國科爲質 送于泗川(征伐記曰國科等八人) <征韓錄>

劉綎亦請和于行長 行長許之 綎以劉天爵爲質於是諸將相約 以翌月十日爲旋師期晦 義弘義智宗茂行長連署 檄諸將曰順川南海泗川固城四所 期日而當會唐島 先鋒船當以順次發

<征韓錄>

而明懲泗川敗 不敢出師 時泗川之勝未達本邦

<征伐記>

京畿訛傳 西征師太危 明軍益大至 歸路旣絶

<藤堂家記>

東照宮憂之 將親航海 遽徵東國兵 利家適寢

疾篤之三德川殷輕動內難必作 我當奧突如肥卧董軍事 家推藤堂高虎常其任 東照宮命之令高虎遄赴朝鮮 護諸將還 高虎言𤲞家臺聽義弘大破明兵無復後顧之憂 諸將得振旅遂還

<征伐記 藤堂家記 黑田家記>

十一月 諸將遵秀吉遺令 徹營皆旋師 清正先發蔚山 舟路不還歎（十一月 據明史）

<清正記 征伐記>

加藤安行爲殿 火營而去 <本山覺書>

十五日 行長及大村嘉前五島孫右衛門尉（按大和守純玄文祿三年卒 此蓋玄雅也）有馬晴信松浦鎭信發順天 時郭國安知秀吉薨我師還 旣告陳璘 璘喜曰此成功名之時也 候變和議

<征韓錄>

第 5 節 綜合的 硏究

百三十八，鄭汝立의 逆謀

賊臣鄭如立全州人 博覽强記貫穿經傳 論議高激踔厲風發 見栗谷爲時所推重 傾身事之執弟子禮 至有孔子已熟底柿子 栗谷未熟底柿子之論 栗谷奇其才延譽之 遂躋淸顯 名聲籍甚 栗谷旣卒 汝立見時議漸變 遂背之諂附李潑兄弟一日上問李珥何如人 群臣未及對 汝立極言其短 不遺餘力 上深惡之曰汝立今之邢恕 汝立怒目而退 棄官歸全州 屢徵不起 武斷鄕曲 潛謀不軌 事發自殺 <涪溪記聞 金時讓撰>

鄭汝立拜弘文修撰 承召入來 李珥未沒前 汝立尊珥 至比於孔子 癸未年東人攻珥時 汝立至欲上章伸救 聞成渾陳疏即止 倡起南儒徐台壽等 抗疏救珥 甲申年珥沒後 汝立叛附東人東人遂崇奬次遽 特拜是職 汝立於榻前 揚臂大言 以珥爲誤國小人 攻珥之徒無不雀躍 及汝立與珥往復書出後 汝立遂退歸

<尹宣擧撰 混定編錄三>

己丑鄭汝立潛謀大逆 與其黨安岳人趙球及行法主等諸賊聚兵九月山 約日謀犯闕事泄 趙球上變 安岳郡守李軸載寧郡守朴忠侃聞變來議於公（韓應寅）即具由馳啓 朝廷因有逮捕之命汝立與其子玉男及其黨邊崇福朴春龍等 亡命入鎭安竹島 陳兵器自衛 官軍迫之 汝立與崇福自刎 玉男春龍俱伏誅 賊黨金世謙等擒於載寧 公又機捕械送 正刑獄

<百拙齋遺稿 卷之二>

百三十九，作戰用兵論

我國嘗南創倭矣 倭攴一劍而驅千里之地 如無人也 遇於野則不敢戰而北 遇於城則不敢守而散 非爲兵也 不習於用也 今又西阨虜矣 一出師而全軍覆兩降甚矣 其不習猶昔也 以不習之兵介於倭與虜之間 民安得不困 國安得不危

<象村集 卷之四十用兵篇>

萬曆二十九年(辛丑)二月 兵部覆奏 經督條陳七事

一練兵士 麗人鷙捍耐寒苦 而長衫 大袖訓練無方 宜以束伍之法敎之

一守衝要 朝鮮三面距海 釜山與對馬相望 巨濟次之 宜各守以重兵 并蔚山開山等處 皆宜戍守

一修險隘 王京北倚叢山南環滄海 忠州左右鳥竹二嶺 羊腸繞曲 有一夫當關之險 今營壘遺址尙存 亟宜修葺

一建城池 朝鮮八道十九無城 平壤西北鴨浿二江 俱南通海 倘倭別遣一旅 占據平壤則 王京聲援斷絶 皆應修築屯聚

一造器械 倭便戰陸不便海 以船制重大不利攻擊 今准福唬 造百十艘爲奇兵 並添造神機百子大箭

一訪異材 朝鮮貴世官賤世役 一切禁錮往往走倭 走敵爲本國 患 宜破格搜採

一修內治 國家京南臨海 以登旅爲門戶 鎭江爲咽喉 應援之兵 不宜盡撤 我自固 亦所以固朝鮮也 詔朝鮮刻勵以行

<海東繹史 卷六十四 本朝備禦考四，明史>

養兵以養民爲本 不養民而能養兵者未之有也 我國之兵不爲預養而倉卒調用 遇敵崩潰勢所必至雖使韓白爲將亦無奈何 壬辰之已事可鑑

今內而訓練都監外而諸道列邑設砲殺束伍之制 視往時軍容稍若可觀而民力已竭 倒懸日甚 旣失休養生息之方 恐無緩急效用之實 任事者盍亦思其本乎

<李睟光撰芝峰類說 卷三兵政部 兵制>

薊貴總督蹇達의 備倭五策

(1) 儲糧餉以便征發 (2) 令重臣以便調度
(3) 抽南兵以備應援 (4) 留班軍以便戍守
(5) 預戰艦以便堵截 <神宗實錄>

張位沈一貫 陳經理朝鮮事宜 請於開城平壤建置重鎭 練兵屯田通商惠工 省中國輸輓 且擇人爲將帥 分置朝鮮八道 爲持久計 事下朝鮮議 其國君臣慮中國遂並其土 疏陳非陳便 乃寢

<明史>

唐順之曰 經理朝鮮事宜 莫若于開城平壤二處間府立鎭練兵屯田 西接鴨綠旅順之師 使有所望而歸依 東爲王京鳥嶺之援 使有所恃而奮躍 勢便則遣輕兵而趨利 與倭決勝 勢不便則虎踞以壓其邪心 而禁其無橫逸 須得寔心練事才力兼合者爲巡撫司道而專任之

<唐順之編 荊川左編，海東繹史卷六十二，本朝備禦考二>

康陵參奉李貴 詣行在奏曰 賊勢長驅 若非大擧措 無以阻遏其勢 臣意以爲急下親征之敎 激厲軍民 使大小臣僚 戮力把守於臨津大灘可也 不然而縱賊闌入 直渡浿江則 宗社之禍(禍) 不忍言也 上命備邊司議啓 尹斗壽招貴切責曰 此何等時而敢發親征之議乎 貴曰與其播越而待亡 曷若親征而圖存 顧今朝臣 鼾睡閑臥 未聞有一謀一策而反阻此計 然則坐待覆而已耶 斗壽愈怒 <宣廟中興誌 卷一>

壬辰倭變出於倉卒而我國地方褊狹殆無乾淨處 唯湖南一道湖西右道獨全 士女多歸之 且倭賊以我國人爲嚮導 故無遠不到 所謂幽險之處則避亂人爭相投集彌滿山谷 反爲賊招斮死者不知紀極 至於咸鏡北道 地勢如瓶項 一入而不得出 其免於鋒刃者甚罕 反不如在平地隨賊去向東西奔避之爲愈也

<李睟光撰 芝峰類說卷三 兵政部寇賊>

百四十，敎育訓練論

初平壤之復也 上詣謝李如松 問天兵前後勝敗之異 如松曰 前來北方之將 恒習防胡戰 故戰不利 今來所用 乃戚將軍紀効新書 御倭之法所以全勝也 上請見戚書 如松秘之不出 上密令譯官 購得於提督麾下人 使柳成龍 與從軍官李時發 講解 又得儒生韓嶠 爲郎專掌質問於天將衙門 及上還都 命設訓練都監 成龍爲都提調 武官趙儆爲大將 兵曹判書李德馨 爲有司堂上 文臣辛慶晋李弘胄 爲郎屬 募飢民爲兵 應者四集趙儆 設法以限之 能擧一巨石超一丈墻者入格 旬日得千人 敎以戚氏三手練枝之法 部分演習 悉如戚制 未數月而皆精練上親臨習陣 常令宿衛扈從

<宣廟中興誌 卷四癸巳>

駱尙志言于相臣柳成龍曰 朝鮮方微弱而賊猶在境上 此時鍊兵最急 乘天兵未回 學習技藝則數年間皆成精銳 可以禦倭 成龍馳聞於行在因使所帶軍韓士立 招募得七十餘人 請敎於駱將駱撥帳下張六三等十人 爲敎師 習槍劍狼筅等技 上命設都監 以大臣尹斗壽 領其事

<東國文獻備考 卷五十二，兵考>

自古外國外患 中國遣兵救之者多矣 然皆有本國兵與中國相爲犄角 以討賊 未有獨遣中國兵擊賊如我國者也 我國兵精聞於天下 弓矢之藝雄視萬國有擧天下之力而取敗於我者 今玆島夷之來 一矢不發 至於城門不閉 士卒不戰中外土崩 自古喪敗之禍 未有若此之甚者也幸賴天朝 得有今日 南邊諸將 列陣向敵 亦可謂粗能自守矣 然兵不滿數百 皆飢困不堪戰鬪而旋逃旋收 繫累其妻子 蕩析其家業 內地先困 人心大怨 行軍制置不成模樣 極爲寒心 且賊情強弱 列閫不知軍前利害 朝廷不知 以此而望折衝強虜 圖存於喪師之餘 不亦難乎
且遠斥候明間探 用兵之常法 雖三尺童子莫不知之而我國諸將 最不留意 賊能用我民 來探虛實而我軍不能使我民 哨瞭賊陣 行師之際

又不設斥候 每爲賊掩襲而敗 尤可痛心 且選將練兵聚糧修械 四者一不立則不可以言兵

<牛溪集 卷三>

麗朝時 將帥各有家兵 往往有跋扈犯上之變 然以之平蕩外寇 則其力也 夫佳兵不祥之 器況可藏於家乎 本朝深創若是 武將之在都下者不與兵權 廩祿亦少 或僅有一僮一馬者凉薄甚矣 是故軍無久領之將 將無常隸之軍 鍊習不素名面不熟 倉卒臨戰何以責其死力 謂宜稍變其制而弛張之 庶或可矣

<李睟光撰 芝峰類說 卷四官職部將帥>

設訓鍊都監 募選丁壯 敎演浙江技藝 因令各道爲之丸者稱炮手 鎗刀者稱殺手 弓者稱射手 統名之曰操鍊軍 束定之際 吏緣爲姦 其後二十年間 京砲手三手狼之獘 人不聊生 域中騷動

<趙慶男撰 亂中雜錄二>

兵曹判書李德馨 令各道抄括兒童 敎戚氏三手技 吏緣爲奸 閭里爲騷 或告德馨曰 與我綿布百匹 可得戰馬百匹 德馨曰 焉有是理 曰入濟州買稚馬百 喂養四五年用也 德馨曰 賊滿彊埸 憂在朝夕 四五年之說何其迂也 對曰 然則公徒知馬而不知人也 五六歲兒 亦可爲今日用乎 養馬雖遲而無後灾 括兒事遠而禍速矣

<宣廟中興誌 卷五 丙申>

百四十一，情報活動論

大駕回鑾 自永柔向江西 中路遇雨 本府儒生吳諒上疏以爲霾雨不霽 請待晴啓行 上不聽臨發又跪駕前請留 上曰我行已定不可中止 是日大雨 入府西村崔嵩家一宿而行 時天兵絡繹往來 作浮橋于大同江以濟之 如是者累年 且自軍門限一舍連置擺撥

丙申十一月 賊釁復開 人心益惱 上引大臣及備局諸臣曰 清正渡海則 必有直擣之擧 我國之事 每患臨機蒼黃 必須預定可也 領相柳成龍曰 駐駕之所平壤何如 上曰西依上國便矣 左相金應南曰 平壤寧邊皆好 天岳亦可恃也 右相李元翼曰 須以關西之地 每爲根本可也

<關西邑誌 平壤續一 古事>

要時羅傳告本國曰 清正以單舸渡還 海中遇風波 留泊小嶼數日 我急通于李統制而統制疑懼不來 坐致誤事云云 朝廷方啓舜臣 虛張大話欺罔君父 遣都事拿鞫 以全羅兵使元均兼三道水軍統制使 以羅州牧使李福男爲全羅兵使 南民以閑山爲保障 舜臣爲干城 及聞其罷 人無所倚 荷擔而立 (要賊前後所爲皆是罔我之事而本國不知之可痛) 十五日(丁酉二月) 沈惟敬自京到南原 接伴使李光庭監司朴弘老從之二十二日 惟敬向嶺南宜寧 接伴使從之……

賊倭要時羅到慶尙右兵使鎭 言于兵使曰 來秋上京時 我爲使道來此晋州之路云云 即還金海方出營門 盡脫我國所賜衣冠 投之地而去 (痛矣哉要賊前後行間誤我者非一而如講和之約構李舜臣等事尤爲不可赦至是所爲亦如此蔑如而猶不能置之死 許令任意來往噫國無人矣)……

二十一日(戊戌三月) 賊酋行長以約和事 出送手下將要時羅于本國

二十三日 要時羅率卒倭二十餘名 由富有到谷城 翌日到南原 天兵及平安本道諸軍 結陣示威 要賊曰 上年八月陷城時 我在東門外 至十月在谷城 聚米五百餘石 本縣人有主之者云云翌日李芳春差兵送要賊于京 至任實縣囚獄 要賊請見吳宗道 宗道往本縣見而還 二十四日(五月)拿要時羅上京 因送天朝誅之 <亂中雜錄三>

譯倭要時羅行長管下也 出入慶尙右兵使鎭輸誠納欵 願爲我國人 金應瑞特加厚恤 論報元帥 優賜褒賞 自後往來無常 歸彼則着其斑服來此則衣我衣冠 倭中聲息 一一轉報

<趙慶慶 亂中雜錄二>

五月副摠兵李芳春 執倭將要時羅 送天朝誅之要時羅嘗以和事 往來鎭營 誣辱我國甚多 是時時羅 以萬餘人屯谷城 行長累請和好 遂遣時羅入南原 見李芳春 芳春執送天朝誅之

<宣廟中興誌 卷五 戊戌>

百四十二，人事行政

刑曹佐郎姜沆 督餉湖南 目見其弊 後被擄拘

在倭京 以密疏陳奏倭情 且曰臣伏見我國將卒數易 鈐束無暇 體統不屬 將何以䮕死地 制敵人之死命哉 李福男爲南原府使 暮爲羅州牧使 今日爲防禦使 明日爲節度使則不可也 李舜臣爲水路長城 罪狀未著而卒從吏獄 以元均代其任則不可也 閑山旣破 賊兵己犯湖南而巡使朴弘老始論遞 新使黃愼 始踐更則不可也 賊兵己圍南原而吳應台姓爲防禦使 金敬老始助防將則不可也

……以下略……

<宣廟中興誌卷五丁酉>

我國平時中外軍額十八萬零戶保通計則無慮五十萬而自經倭變見存僅六萬 雖年年設法充定而絶戶流亡者尙多未充 至於京外哨軍不下數萬而元軍及公私賤並入編伍 實數亦少 緩急難恃極可寒心 是雖亂後生齒未敷 實由士族閑遊者衆而應役之民寡故也 若非大段更張 恐無善策 爲國者宜致思焉

<李睟光撰 芝峰類說卷三兵政部兵制>

備邊司啓曰 前監司宋言愼兵使李潤德 以一道之主 深入峽中 久無形影 洪世恭旣承調度之命 遷入熙川 天兵去來 邈不相聞 韓準親承從駕之命 托病落後 又自言親見大駕渡遼 使人心崩潰 獻納李廷臣持平李慶祺注書任就正朴鼎賢檢閱趙存世金善餘 以侍從之臣 不辭逃去 俱失人臣之義 不可不分輕重科斷 宋言愼韓準罷職 李潤德白衣從軍 洪世恭降一資 李廷臣等六人 併削其職何如 上曰允之

<朴東亮著 寄齋史草下 壬辰日錄三>

趙憲郭再祐金沔鄭文孚鄭起龍五人之功 皆超絶諸人 及不得參焉 識者稱屈

<宣廟中興誌卷六戊戌>

初澈成龍相議曰 今之事勢 惟有渡遼而己 世子付廟社之托而只受監國之命 萬一大駕渡遼之後 音問不通則其間事勢 非早定大位則不可也 吾策可與兩司入啓之也 嗚呼澈等此計 皆失之矣 古之國家 若遇變亂則或雄藩大鎭 或忠臣烈士 各奉宗室 保有一隅 雖不得廣復舊物 亦能綿不絶祀 今日之勢 幅員偏少 八道俱被侵迫 旣無雄藩大鎭之可以爲依 又無忠臣烈士之可以成事 雄當投竄山谷 終歸於糜滅而止耳 設令大駕渡遼 天朝之人 問以廟社安在云則雖以傳寄世子 豈是奉廟主建一鎭 爲恢復萬一之望哉 大臣唯當歷擧如許曲折 還奉世子兩宮同行 爲一處死生之計而己

<朴東亮著 寄齋史草下壬辰六月十八日丙午>

百四十三，規律과 賞罰

朝廷以李洸於四月起兵到公州 聞大駕出京 無瑞罷兵而去 未久又罷於龍仁 又棄全州欲爲自全之計 大失人臣之義 上命拿治之 尹斗壽入對言曰 光州牧使權慄 有氣骨 有度量 眞將帥才 全羅監司 非此人不可 遂以慄爲巡察使

<朴東亮著 寄齋史草下 壬辰日錄四>

備邊司啓曰 吏曹佐郎許筬 初受召募之命 未有募一軍措一事而今乃偃然復命 豈人臣受命盡職之道乎 請罷職以懲其罪 上允 <同上>

世子在伊川 聞江原監司柳永吉 避賊在嶺東 未有迎接之事 遂起復姜紳代之 請命于朝廷 遂之 初朝廷聞士大夫妻子 避山谷中 多餓斃者 江原道最甚 遂諭令賑恤 勿致顚仆 永吉執以爲不可曰 人人而悅之 日亦不足 以官穀施私惠吾不爲也 李誠中曰 汲黯矯詔發倉 永吉格旨閉粜 彼誠何心 此誠何心 <同上>

慶尙右兵使曹大坤 變初老㤼先遁 咸安郡守柳崇仁有戰功 遂陞爲兵使 未幾聞晋州被圍 往救之 遇賊於路 戰敗死 <同上>

因備邊司啓令各道試取武士鐵箭五矢一中者湖南則聚南原得五千 其後編作隊伍 赴嶺防戍 斬一級許科 名之曰斬首及第 自有是科之後 飢民益不能保全首領 多被剃髮 雖納正倭馘者 多買於人而爲之 後或有爭價相訟而竟陞二三品之秩 擧顔天日 寧無愧乎(上年義州之科不中則更進草前而射 人或譏之比之於此則正矣)

<趙慶男撰 亂中雜錄二>

天朝大加褒奬 仇賜銀絹 頒賞主奏聞諸臣將…

…中略…… 於是西崖(柳成龍)海原(尹斗壽)諸公 皆得銀絹 蓋奏聞一事 專出於重峰(趙憲) 而西崖 海原 無一言推讓 反以爲自得大臣無廉恥如此 國安得不亡乎

<隱峰野史錄別>

明나라의 軍紀

天朝文武將臣 前後出來者甚多而其中如楊經理 簡伉少許可 律己甚嚴 梁布政清約自飭 其餘雖以軍門之尊貴 未免煩鄙之譏而萬經理代楊而來也 緩無法度 營營求利 小無所忌 歸時馱載盈路 或云杜按察潛 亦頗簡重 此則最晚出來 余從梁在嶺外 不及見知 不敢信其必然(萬經理陞爲摠督軍門留鎭軍門未幾卒)

<尹國馨撰 甲辰漫錄>

臣觀支持天兵之事 其間耗失疊受之弊 不可絶極 雖竭國內之力爲之 其勢亦將難支 近自南下以後 遼薊宣大等處之兵 沿途作拏 歐打官吏 結縛下人 要索酒食 日以益甚 守令不能支當 遂以苟免爲計 遠避山僻之地 只使下人主管 其泛濫侵突 何所禁止 至於刷馬每站 責出騎持而去 百不一還 朝朝暮暮 相繼不絶 民間牛馬一空 責出猶不已 其爲生民之厄 亦不可忍言 然他無可救之策 只宜令接待使從便 呈稟於提督 出令于管下諸將 庶可少戢於萬一而亦未知如何徒爲憫歎耳 <西厓先生集>

日本軍軍紀

亂初宣陵有掘燒之變 癸巳賊退之後 改葬靖陵亦然而壙外有一屍軀棄置 或疑其爲玉體 大臣及諸宰承命 率宮人之及侍中廟者審驗而未辨眞贋 亦只爲改葬矣 其棄屍則備衣冠 瘞於別處 康陵亦掘破 及半而止 其餘則無事焉 順懷世子之徵嬪尹氏 卒於壬辰三月 未葬而亂作未知去處 今年夏間 有告朝廷 亂初自埋於昌慶宮後苑 開見則無矣 <尹國馨著 聞韶漫錄>

賊由湖南長驅而進 所過殘滅甚於壬辰 逢人則殺皆取其鼻 遇村則焚不遺林木

<金時讓撰 紫海筆談>

嶺南諸屯倭賊 厭其久戍勞役 多有降附我國者 金應瑞所招幾至百餘名 其酋曰金向義 向義與其衆多立戰功 官至通政嘉善 其後三十年間 降倭等屯居于密陽之地 務農桑長子孫 名其里曰降倭鎭(降倭無功於我國者分居西北後皆誅之)

<趙慶男撰 亂中雜錄二>

姜沆聞見錄曰丁酉倭賊再逞時 平秀吉令諸倭割鼻以代首級故倭卒遇我國人 輒殺而割鼻沉鹽 送于秀吉 秀吉閱視後悉藏于其國北郊大佛寺 傍作一丘陵 以威示國人云 血肉之慘擧此可知而是時我國之人 無鼻而得生者亦多矣

<李睟光撰 芝峰類說卷三 兵政部寇賊>

壬辰倭賊初入都城 計誘愚民不殺戮之 故近京避亂之民 相率投入殆滿城矣 翌年癸巳 天兵攻援平壤 進逼京城 倭賊發憤 乘夜焚蕩盡屠城內居人百無一脫 乃正月二十四日也 每年是日陰曀愁慘盖怨氣使然耳

<李睟光撰 芝峰類說卷三 兵政部寇賊>

正月天兵復平壤 平行長等奔還 疑我民爲內應設詐一夜盡焚城內家舍 殺人民殆盡 存者無幾 惟南山下一帶 倭人所接處頗得全

<西厓文集卷十六 雜著 記亂後事>

文祿二年秀政放鷹出遊(中川秀政) 朝鮮伏兵襲而殺之 其臣議以實告之家必絶矣 僞報曰秀政欲擇城地要害 自觀地形 遇伏戰死 秀吉命以其弟秀成襲封 <藩翰譜>

先是朝鮮軍中死者將帥豊臣秀勝長谷川秀一加藤光泰以病死 中川秀政戰死 其餘陣亡者許多 秀吉憐之 釜山守兵外暫還日本 賜諸將邸第于伏見 於是衆情大悅 <征伐記 秀吉譜>

賊之初入城 獨宮闕燒盡而公私廬舍猶完 其將平秀家館於宗廟 夜聞多怪倭卒之止其內者 往往暴死人言此朝鮮宗廟有神靈不可久處 秀家懼移寓小公主宅(今南別宮) 而焚宗廟 正月天兵復平壤 平行長等奔還疑我民爲內應設計 一夜盡焚城內家舍殺人民殆盡 存者無幾 惟南山下一帶倭人所接處頗得全

<朝野僉載卷之二十七>

百四十四，民　　事

十月萬經理　始至王京　世德山西人　意氣頗能任事　撫天津時人樂從之　及至朝鮮　以成畫粗定　不能別爲更張　又見倭築寨固守　非旦夕可平　乃欲設策　用間以離其黨而攻其隙　故自己修一檄文　令人持諭倭將中間　深明關白不道　各島民無罪　何苦八年於外　萬里捐軀　本院愍恤　爲約三章

(1) 反旆操戈　歸殺關白　推擇酋長　統領海邦　保全人民　傳襲子嗣　策之上也

(2) 明鑒順逆　解甲來降　策之中也

(3) 釋構罷兵　各全性命　策之下也

各路倭將　見經理檄文　頗亦感動　未幾人傳秀吉已死

此月直茂在咸興　郡邑有稱六伯三職者　吏房戶房禮房工房兵房刑房曰六伯　勸農色掌書員曰三職　令之各修其職　安輯居民　檢納賦稅　軍得不乏　遂入吉州攻安平城拔之　斬首六百餘　餘城望風潰去　直茂遣其臣分守諸城而自屯長橋

<鍋島家記>

百四十五，朝鮮軍의 兵器와 艦船

本朝李忠武舜臣所制也　公爲全羅左水使　知倭將制　刱智作大船　船上覆以版　版上置十字細路　以容人行　悉以錐刀布之　前龍頭後龜尾　銃穴前後左右各六　以放大丸　遇賊則編茅覆上以掩錐刀而爲先鋒　賊欲登船則離錐刀　欲來掩則一時銃發　所向莫不披靡　壬辰之役　大小戰以此收功者甚夥　狀如伏龜　故名龜船　甞考忠武公全書　其制底版(俗名本版)　聯十　長六十四尺八寸　頭廣十二尺　腰廣　十四尺五寸　尾廣十尺六寸　左右舷版(俗名杉板)　各聯七　高七尺五寸　最下第一版長六　十八尺　以次加長　至最上第七版長一百十三尺　並厚四寸　艫版(俗名荷版)　聯四　高四尺　第二版左右　穿玄字礮穴各一　舳版(俗亦名荷版)　聯七　高七尺五寸　上廣十四尺五寸　下廣十尺六寸　第六版正中穿穴經一尺二寸　挿舵(俗名鴟)　左右舷設欄(俗名信防)　欄頭加橫梁(俗名駕龍)　正當艫前　若駕牛馬之臆　沿欄版周遭植牌　牌上又設欄(俗名偃防)　自舷欄至牌欄　　高四尺三寸　牌欄左右各用十一板(俗名盖版又龜背版)　鱗次相向而覆鎼　其背　一尺五寸　以便竪桅偃桅　艫設龜頭　長四尺三寸　廣三尺　裏設硫黃焰焇張吐烟如霧以迷賊　左右櫓各十　左右牌各穿二十二礮穴　設十二門　龜頭上穿二礮穴　下設二門　門傍各有一礮穴　左右覆版　又各穿十二礮穴　挿龜字旗　左右舖版下屋各十二門　二間藏鐵物　三間分藏火礮弓矢槍劍　十九間爲軍兵休息之所　左舖版上屋一間　船居長之　右舖版上屋一間　將校居之　軍兵休息處舖版下　戰則登舖版　納礮于衆穴　粧放不絶　<海東繹史卷二十九舟車條>

朝鮮龜船布帆竪眠　惟意風逆　潮落亦可行

<同上　華鈺撰海防議>

朝鮮舟狀如亭　上覆重茆下布紋席　棟樑櫰桷丹青炳耀　四面皆蔽懸以素幙

<同上　陳繼儒撰　偃曝談餘>

其制船上覆以大板　板　上置十字細路　以容人行　悉以錐刀布之　四無着足處　前龍頭後龜尾　皆有銃穴　前後左右各六　以放大丸　藏兵器其底　遇賊則編茅覆上　以掩錐刀而爲先鋒　賊欲登船則　陷於錐刀　欲來掩則　一時銃發　所向莫不披靡　大小戰以此收績者甚夥

<東國文獻備考　卷五十五兵考四>

朝鮮之習火器　自東征始也　其法以木爲牌並列如墻　開穴置銃　銃力頗猛

<海東繹史卷二十三　茅元儀撰　武備志>

我國之人　徒尙弓矢　不習火器　西厓集云　壬辰之前　只有金墀所製　勝字銃筒大中小三様而已　此不過戚繼光所云快槍之類　只可虛放以助軍聲　不可以命中　<同上>

我國火砲始于麗末　有判事崔茂宣者　學得於元焰焇匠云　先王朝有火砲匠池壽　慶源陷城時被擄胡中　胡人使習放而觀之　壽故令觀者聚於一邊以砲殺之　胡人怒而支解　嗚呼烈哉

<李睟光撰　芝峰類說卷三兵戰部征戰>

日本軍의 艦船

倭兵不利水戰　其造舟雖多　尖小而脆薄　不

足當我舟之平衝 又其人利跳躍 其器便刀銃 一入舟風濤震 益跳躍無所施 刀銃不相應 我以長槍大弩火炮攻之 其攻之 勢必不支 故避朝鮮舟師不擊 禦倭先講水兵 所謂禦之於海外也

<諸葛元聲撰 兩朝平攘錄>

百四十六, 朝, 明 兩軍의 後方支援

大軍到開城府頗久 軍糧已盡 惟從水路括粟及茭草於江華 又船運忠淸全羅道糧草 稍稍而至 隨到隨盡 其勢愈急 一日諸將以糧乏爲辭 請提督旋師 提督怒甚 招體察柳成龍戶曹判書李誠中京畿左道監司李廷馨等 跪於庭下 大聲詰責 欲加以軍法 成龍只推謝不已 流涕而已 提督愍然轉怒 謂諸將曰汝等昔日從征西夏時 軍中不食數日 猶不敢言歸 卒成大功 今朝鮮偶數日不支糧 何敢遽歸耶 汝輩欲去則去 我非滅賊不還 惟當馬革裹尸 諸將皆頓首謝 成龍等辭退而去 以放糧不時 杖開城經歷沈禮謙 已而全羅道海運米豆二萬二千餘石 黃海運草數萬束 來泊後西江 僅得無事 是夕提督使摠兵張世爵召柳成龍等慰之 且論軍事

<再造藩邦志 卷二>

六月經理來駐平壤 九月聞南原城陷 經理謂接伴使李德馨曰 事已危矣 今日吾當進軍王京 即放砲三聲 幅巾行衣鞭馬而出 萬軍隨之 時天兵久留 乏食 本府士人李鶴禎 金士仁趙涵 金汝霖 楊德祿 楊懿直等 募義穀三千石以補軍餉 鶴禎特加通政 餘皆除參奉

<關西邑誌 平壤續一 古事>

百四十七, 輕武思想과 安逸姑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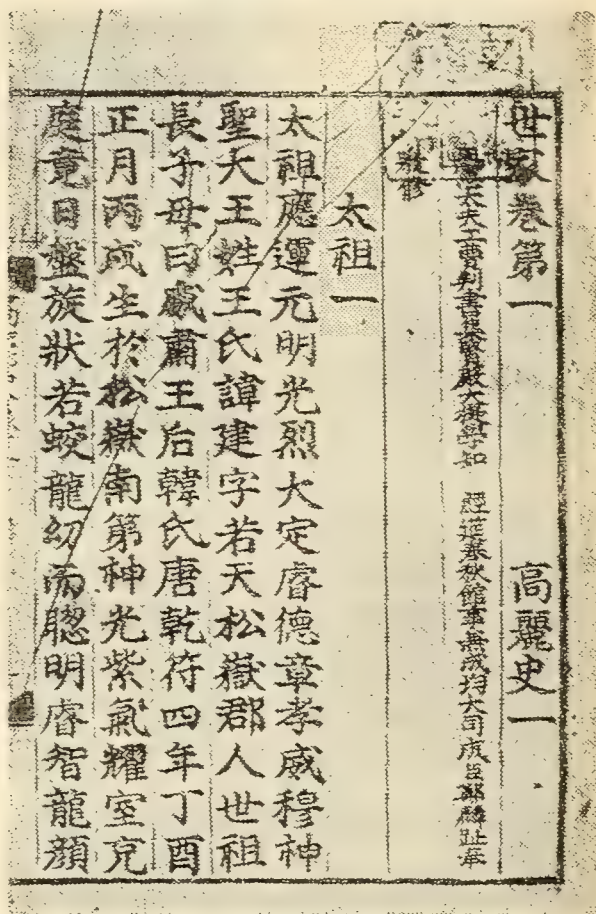
上於是日(壬辰十二月二十四日) 歷見三摠兵而還 將官從行者 如摠兵李平胡 副摠兵祖承訓 高策 李芳春 參將張奇功 方時春 方時輝 李寧 郭夢徵 査大受 遊擊谷燧 葛逢夏 王問 吳惟忠 戚金 韓宗功 李如梅 楊紹先 樓大受 李文成等四十餘員 上皆欲歷見 都承旨柳根以爲 許多將官 豈能盡見 只見大將足矣 尹斗壽屢言其不可不見 上以爲氣力疲甚 不能從 諸將官皆怒 提督亦訝之 上晩聞其言 欲見之 翌曉提督起行遂不果

<朴東亮著 寄齋史草下 壬辰日錄四>

世家卷第一　　高麗史一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奉

太祖一

太祖應運元明光烈大定睿德章孝威穆神聖大王姓王氏諱建字若天松嶽郡人世祖長子母曰威肅王后韓氏唐乾符四年丁酉正月丙戌生於松嶽南第神光紫氣耀室充庭竟日盤旋狀若蛟龍幼而聰明睿智龍顏

<高麗史(卷一, 卷首),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所藏>

萬曆壬辰夏四月 日本賊大擧入寇 先是十年前栗谷李先生珥 與鵝溪李山海東崗金宇顒西厓柳成龍諸公 同入經筵 栗谷啓曰 國勢不振久矣 前頭之禍 不可不慮諸 養兵十萬 都城二萬 諸道各一萬 以備緩急 不然而恬嬉度日 玩愒成習 一朝變起 不免驅市民而戰 則大事去矣 左右無一人贊揚 西厓至 以臨事好謀沮之 及退 西厓謂栗谷曰 方今太平無事之時 經席勸勉 當以聖學爲先 而軍旅非急務 公有何所見而不與吾輩相議經 自陳達若是耶 栗谷曰 俗儒何知時務 笑而不答 <隱峰野史別錄>

時左議政柳成龍在賓廳 謂同列曰 叔獻每欲鍊兵 當時無事 吾亦以爲擾民 到今思之 李文靖眞聖人也 叔獻即李珥字也……中略…… 與成

牛溪渾宋龜峯翼弼 朴思菴淳鄭松江澈 爲道義交 晩以行道濟世爲己任 深憂朝著之潰裂 軍籍之頹廢 貢案之繁冗 以爲朝著則必須洗滌東西 保合和同 戮力王事 去短取長 勿爲深法苛論 軍籍則必須汰去老弱 抄出精勇 以充十萬之數 可爲後日緩急之用 貢案則自燕山以後 日增月加 民不聊生 且郡邑所貢 多非其所產 率用貿買 若不大加匡正 將無以支 群議皆以爲不可 柳成龍亦力止之 珥退謂成龍曰 國勢不振久矣 俗儒不達時宜 公亦有是言耶 至是軍政民力 莫可收拾 故成龍發此歎

<再造藩邦志>

五月 上御書講 副提學金睟進曰 平秀吉 乃狂悖一夫 其言出於恐動 以此無實之言 至於陳奏 詎是事宜 <宣祖實錄>

上國(明國)福建一路 與日本只隔一海 商賈通行若我國陳奏 則倭無不知之理 既奏之 後又無犯順之事 則天朝必笑我無實 倭國必致深怨 <同上>

壬辰春以慶尙右兵使曹大坤年難策應 於筵中請以李鎰代大坤 使之先期下去 措置邊備以擬倉卒而主兵之官難之而不行 又以兩南制勝方略 分軍失宜 請復祖宗鎭管之制 使之鱗次待變事下本道不能行 又以倭兵善用鳥銃而我國但有勝字銃筒 不可敵 時倭國所獻鳥銃新到 啓請以訓鍊副正李鳳 領京上番軍士使之訓習鳥銃而議者皆以爲迂日久悠悠 竟亦無效然則以倭不來而緩於防備者 實非臣之本意也

<西厓文集卷十六雜著 書壬辰事始末示兒輩>

百四十八, 事大思想과 他力依存

李提督蕩平箕城後 我國爲提督及亞將張世爵李如栢 置畫像立生祠 春秋祭之 祠在箕城城中玄福峴 名曰三大將祠堂 李領相元翼 壬辰秋冬間 以平安監司 領兵馬陣于順安縣內 以禦箕城之賊 癸巳正月賊遁後 入城中收拾燼餘撫摩存恤 極其誠懇 人民愛戴 畫像立生祠 祠在三大將祠傍

戊戌冬南邊留賊盡遁之後 大坪舘西偏 立邢軍門生祠堂 殿下大書再造藩邦四字 塗以金揭之 聖筆神健 中朝人見者 無不嘆服

<尹國馨撰 甲辰漫錄>

中朝人尊敬關王 國家建廟之外 家家戶戶無不設像 起居飮食必祭 至於出兵馬尤致敬焉 戊戌春夏間 天兵大至 就南大門外都祭庫峴 立關王廟 大小將官 無不禮言 至請聖上行禮 己亥臨罷師還 稱爲奉聖旨 建廟於 東大門外 留一官員董役 中原雖曰給價 其數無幾 功役浩大 皆出我國財力 動以萬計 事完 國家治官守之 都祭庫則塑像 東大門外則銅像 關王雖是勇之將而身死人手 非功存後世之人而中原尊敬如此 未知其然 <同上>

尹根壽承命到鴨江 將見佟摠兵于寬奠堡 道逢摠兵 摠兵曰 今奉聖旨 朝鮮國王 即薄於賊 願乞內附 朕念恤小之仁 義不可拒 着寬奠堡 先具房屋 率役十員名 即於渡江之日 迎接留下悉心保存 一日蔬菜銀四錢 猪羊各一口 麵飯等物 務使豐足 毋使缺乏愁惱 從官及人役 共通百名 婦人二十名 只許從渡 勿令混援致誤 根壽歸啓之 <朴東亮著 寄齋史草下 壬辰日錄三>

今年夏初 中朝以封倭遣使 李宗城楊方亨兩人奉龍節而所謂龍節 曾所未聞 其制大概 以黃色絲造之 如結纓狀 其長齊尺 安之龍亭 敬之如皇帝親臨然 朔望必拜之 問禮官奇自獻 候于中路 兩使謂之曰 國王率百官 朝節於郊外有五拜三叩頭蹈舞之禮云云 上以爲 蹈舞係是慶賀事 封倭 在本國實是不幸 何關於慶賀 令禮曹更定儀註 使奇更往裁定 兩使不從 四月二十八日 迎詔門固請之 於是從我國儀註 減蹈舞一節 入南別宮 兩使率其屬 先行朝禮 上率群臣次行之 當兩使始至南別宮也 龍節先入上立中門外版位 將祗迎 兩使陪節隨行 地勢卑甚而版位則高 所見甚爲未安 右尹李瓘以副摠管 侍衛在上傍 啓去版位 即允之 侍者又捧陽繖 余以兵曹參判侍傍 亦請去而上從之此二事出於倉卒 皆趁兩使未及入門而周旋幸甚

<尹國馨著 聞韶漫錄>

百四十九～1, 國防政策의 貧困

十二月(壬辰) 上召群臣入對 司諫李幼澄進曰 近自一二年來 宮禁不嚴 朝著不靖 苞苴盛行 排陷成風 以言其王子 則奪人田地 取人奴僕 以言其宮禁 則賣官鬻獄 牟利規倖 動拂人心 怨言盈路 群邪亂政 流禍士林 不論賢不肖惟視議論異同 遂使椒房賤豎 托勢厥姝 朝廷是非 亦得參聞 上下群情 崩潰已久 大賊繼至 無處不叛 北道之變 前未有聞 殿下遇變以來 無一言自引爲過 但坐深房 惟事宴安 群臣罕接 甚於平日 以此形勢 臣恐國勢終必糜滅而後已 上俛首不答 群臣仰見天顏 或靑或紅 皆聳懼不發一言而退

<朴東亮著 寄齋史草下 壬辰日錄四>

上召群臣入對 正言黃克中進曰 今日之事 實由於從前宮禁不嚴 諂諛盛行 積失人心在處怨叛 上下相疑 情義不通 容悅成風 言路久塞 當此急急之日 未聞有改絃易轍之擧 以此而安敢望恢復乎 崔滉以手麾而止之曰 此時討賊之事爲急 如此等語 大不關也 具宬曰 人心怨叛上下相疑 則國事何所望乎 討賊之謀 此爲第一 而崔滉乃曰不關此 面謾君上也 崔滉大怒欲再言 上止之曰 不須相較 遂罷出 <同上>

兩司合論 洪汝諄宋言愼李弘老 交結李山海金公諒 作爲爪牙心腹 濁亂朝廷 流禍士林 使人心怨叛 國事危亡 無非此人等縱諛同惡之致 請命遠竄 上曰予觀此人等 嘗劾鄭澈之奸而已 論之三日 始允之 翌日上曰 近日精神太減 語多顚錯 昨者兩司批答 當曰此人等頗以鄭澈爲奸而已也 <朴東亮著 同上>

百四十九～2, 一方的인 侵略

豐臣氏當韃橐之日 不知休息之誼 益鋸心於功名 窮兵黷武 驅瘡痍之民於海外 毒流天下 禍加殊域 沒其世 無復寧歲 一時戡定之勳 蕩然掃地 <中井竹山>

曩者豐臣氏之伐朝鮮也 可謂貪兵兼驕與忿 不可爲義兵 又非不得已而用之者 所謂好戰者也 是天道之所惡 其終亡者 固其所也

<貝原益軒의 懲毖錄序文>

朝鮮之役 蓋有所由來而欲遂其初志 託忘憂 以發之也 雖然 在信長之世則猶之可也 及躬操天下之大權則何危懼之有而欲遂其初志哉究其端緖 不過天下既平 無所用武 不能自克其侈心而欲耀威武於外國而已 <安積澹泊>

以太閤之雄才大略 八歲定六十餘國則以其餘力 逞之海外 固其宜也……中略……故朝鮮之役 是令天下群雄 肆其螫齧搏擊 以殺其力也

<賴山陽>

秀吉恃己富强 侵掠朝貢 各夷如琉球 呂宋南蠻 佛郞機 暹羅 皆逼令奉貢往 日本生理 且其慘酷暴虐 殺害諸州 奪其都邑 質其子女 恐各島生變 又己之子方在乳抱 故疑忌者 盡發從征 <諸葛元聲의 兩朝平攘錄>

秀吉欲侵中國 滅朝鮮而有之 聞故時王直遺黨知唐人畏倭如虎 氣益驕

<明史日本傳 圖書集成>

唐太宗者 明君也 而以好名故 遣衆擊高麗而敗績 生還者鮮矣 秀吉亦有此役 殆七八年 果何益也 二國之民命屠滅而已 玩兵黷武 嗚呼惜哉 <林道春>

秀吉初無子 先是姬人淺井氏生男鶴松 秀吉絶愛之 是歲鶴松夭 乃悲哀累月 心忽忽不樂 因屢出遊以自遣 一日登淸水寺閣 西望謂從者曰大丈夫當用武萬里之外 何自悒鬱爲 乃還 大會諸將帥謂之曰 吾藉諸君之力 平定海內 亦可以休矣 特諸醜夷有阻王化者 吾深羞之 吾欲以邦治委內府(秀次)而自將入朝鮮 以其兵爲先鋒 以入於明 彼拒我命則擊滅之 遂自遼東直襲北京 奄有其國 多割土壤 以予諸君 使諸功臣 皆厭其望 不亦快乎 我籌之已熟 事非甚難 諸君其能爲我出力耶 諸將帥愕眙 相視莫敢對者 浮田秀家進曰 殿下與此無前之事 誰不努力者 衆莫敢異議

<賴山陽著 日本外史 豐臣氏第八>

平秀吉者 日本人奴也 采薪于山 遇關伯于途左右欲兵之 關伯奇其狀貌釋不誅 得幸於關伯

以爲將輒有功 遂秉權弑其主 自立爲關伯 戰克勝攻克取 遂統合諸國爲一 國富兵強 遂生跋扈之計 欲加兵於我而無其釁 託言將入寇中國 假途於我 我宣廟以大義却之 秀吉執爲兵端 壬辰遣其將平秀家等 勒兵約二十萬 以四月十三日渡海 陷釜山東萊 殺僉使鄭潑及水使朴泓 府使宋象賢朝服不屈死 時昇平二百年 民不識兵 望風瓦解無敢嬰其鋒 賊長驅而進如入無人之境 <金時讓撰 紫海筆談>

秀吉公以慶長三年八月 薨 遂盡班暴露之師 脫我邦於危難之域 嗚呼幸矣 秀吉公未有詒國安民之術 徒發無益之師 遠伐隣國而殺無罪之人 轉輸千里凋弊我生靈 故得罪於神明 其身以死 不越三年倭邦大亂 嗣子秀賴公 竟沒于元和之役 故曰以小擧大者殃也

<海東繹史卷六十五 征伐記>

百五四十九～3, 類例없는 戰禍의 慘酷相

時賊據京城己二年 鋒陷所被 千里蕭然 百姓不得耕種 餓死殆盡 城中餘民 間關扶携 擔負來投我軍 不計其數 査總兵(査大受)於馬山路中 見小兒飮死母乳 哀而牧之 育於軍中 謂我國人曰 賊倭未退 人民如此 將若奈何 因嘆息曰 天愁地慘矣 <再造藩邦志>

適南方糧船 來泊江岸 全羅募召官安敏學 亦募得皮穀十萬 船運而至 即以前郡守南宮悌爲監賑官 取松葉爲屑 松屑十合 和米屑一合 投水而飮 人多穀少 唐將(明將)亦哀之 自分軍糧三十石給之而百不能及一 一日夜大雨 飢民在左右 哀號之聲 悲楚不忍聞 朝起視之 狼藉而死者甚多 <同上>

二日(宣祖二十六年) 各道人民 流離失所 餓殍相屬 行乞盈路 意至人相殺食 失兒者多 山林草葉松楡之皮 根幹幷盡

<趙慶男撰 亂中雜錄>

淸正等賊在朔方 聞平壤之敗 即卷三十餘陣之兵 晝夜退來 由嶺東嶺西 流下嶺南 所過赤地山川盡變(淸正在賊中 兇毒爲最 故前後所經之地 焚蕩之酷 殺掠之慘 非他賊可比 所謂山川盡變者 遇山即山 遇水即鑿山通道造作橋閣之事) <趙慶男撰 亂中雜錄一>

癸甲年間(癸巳, 甲午, 即萬曆二十 年, 二十一年)木綿一匹 直米二升 一馬價不過三四斗 飢民白晝 屠剪相食 重以癘疫 道路死者相枕 水口門外 積屍如山 高於城數丈 募僧徒瘞埋之 訖 <芝峰類說>

癸巳 春大饑 各道人民 流離失巢 餓孶相屬 人相殺食 山中草葉 松楡皮根 並盡 甲午 夏 大牛之價不過米三斗 細木之直未滿粟數升 珍寶不得售賣 人相殺食 女子稚兒 不敢任意出入 餓莩相續 飢民爭食其肉 至剝死骨 取汁咽下 亦不旋踵而皆斃 有牛馬者 賣于明兵 明兵一日屠殺數百牛 故四境牛畜犬鷄 殆盡

<同上>

從軍斬賊一級 即許科 所謂斬首及第也 自是之後 飢民多不能保其首領 率相剃髮作級雖納眞倭之馘者 多買於人而上之 或有爭價相訟而亦陞二三品之秩 <日月錄>

明參將呂應鍾의 詩:

毒世妖蛇走大海 呑人暴虎入深山

追兵百萬成何事 饋餉徒傷百姓錢

壬辰亂後 人民離散 雖大家世族 擧皆失業行丐 婦女無尊卑 見汚賊手者甚多 表表立節者朝廷方可訪問旌閭之 積尸遍野 收瘞者無幾 父而賣子 夫而鬻妻 至於癸巳春 人相殺食 斫尸爭啗 骨肉亦有相戕者 自有東方變亂之禍 慘酷之甚 未有如今日者也 壬辰則付種除草後賊至 故不至失稔 癸巳付種處則頗熟 但中外原野 蓬蒿極目 付種未滿三分之一 與凶年無異 甲午則付種視癸巳移多 飢病死者過半 不能鋤耘 秋無所穫 非天時不熟也

癸巳四月賊退 五月余入都見之則 除經兵火外街巷人家依舊者猶多而其年十月還都之後 閭巷之人 撤屋爲薪 制禁亦不得行 數年之間 蓬蒿滿城 所謂積之百年而不足 毁之一日而有餘者正謂此也

癸巳十月還都 以陽川都正桂林君家爲大內 沈義謙家爲東宮 沈連源家爲宗廟 不知王氣亦曾

蕩然於斯地歟 小公主宮爲義安君新宮而賊酋久據而出 今爲天使唐將接寓之所

<尹國馨著 聞韶漫錄>

冬十年初四日 車駕還都以貞陵洞月山大君舊宅(今明禮宮) 爲行宮 灰燼之餘荊棘滿城重以癘疫饑死饉者相枕於路 臭穢不可近

<朝野僉載卷之二十八癸巳冬>

是月二十日京城復天兵入城 提督館於小公主宅 前一日賊已出城矣 城中人民百不一存 其存者皆饑困面色如鬼 公私家舍一空 宗廟三闕及鍾樓太學各司蕩然 惟餘灰爐而已小公主宅秀家所止故見遺爾

<朝野僉載卷之二十八癸巳二十六年正月>

鬻官兵興一歲國用已匱竭 不得已賣爵百石爲三品職三十石爲五品職 (後年後則一二十石陞嘉喜通政而人無願者矣)

<朝野僉載卷之二十七壬辰十二月>

以大軍糧餉 賣官鬻爵 人不自由 嘉喜通政 相接於道 無名之稅 至不可數 <亂中雜錄三>

百五十〇, 堅壁淸野之策의 長短點

令諸郡縣皆淸野 朝廷見黃愼之啓 又因日本還往人 知淸正再寇之擧 急令各邑人民 父母妻子 盡入付近山城 家財穀物 盡爲輸入 數多難移者 及途遠未易 埋葬近山 淸野以待之 李元翼入對 上以賊情言之 元翼亦陳淸野之策 上掩泣曰 禦賊之事 委卿 卿其馳下嶺南 戮力措置 毋以予復有龍灣之厄也 元翼涕泣 拭淚而退 直下嶺南 爲淸野計 傳令兩湖 刻日奉行 違令者 施以軍律 厭憚山城移避 移避他境者 此是付倭之人 摘發先斬 <春坡堂日月錄>

百五十一, 交戰 各軍의 戰鬪力量

方李如松平壤大捷 李如栢進拓開城 四道復平三倭生禽 廓淸之功朝夕俟 而乃碧蹄輕進兵氣破傷 功虧一簣良足悼也 又若麻貴蔚山之捷三協度師 勢相犄角 砍柵拔寨 鋒銳莫當 而割級之令 解散軍威 僉都之肉豈足食乎 況於沈惟敬以市井而啣皇命 李宗城以淫貪而充正使以至風月候節之給 壺觴好會之詐 邢玠飛捷之書 楊鎬冒功之擧 罔上行私損威失重 煌煌天朝擧動如此 毋怪荒裔之不賓也

<海東繹史卷六十五, 谷應泰撰 皇明記事本末>

全羅右兵營虞侯李曄 爲淸正所擄 送于倭京 平秀吉 待之極厚 衣以錦綺 帳御飮食 皆如其所居 曄出曰 何汝錦綺爲 遂散于被擄人 買船逃出 將發作詩見志曰 我是三侯閥骨 安能異域混牛羊 行至赤間關 追者甚急 曄引劍自刺 墮海而死 被擄人聞之 無不流涕

<宣廟中興誌 卷五 丁酉>

召村察訪李耆慶 故相陽元之子 壬辰隨其父 多在楊 州抱川之境 屢見倭陣 凡分軍必爲五 一陣當敵後二陣張左右翼圍繞之 左右兩頭過敵則又後二陣繞出其外 常使我軍在其圍中而使之目眩心怯 故不戰而先自潰散 到處用此術以取勝 而我國之將終不悟 每集軍一處俱進取敗 此倭知用兵之法而我將則不知故也 此一款耆慶在備邊司 爲餘言 又降倭一人在訓練都監 使之試爲其國陣法極簡易 以見在軍人分而爲三爲三疊陣成行列 立前一行持旗幟 中行持鳥銃後行持短兵 遇敵則前行持旗幟者 兩邊分開而爲圍抱之狀 中行持鳥銃者 一時俱發衝賊陣敵多爲鳥銃所傷 陣動而又見左右已有圍兵必遁走 於是後方持槍劍者 從後追擊 肆其斬刈云 此雖非古法而亦要術也 兵無常勢 惟主於勝敵而已 昔武穆亦云陣而後戰 兵法之常運用之妙 存乎一心 若無運用之心 惟屑屑於古法則其不爲趙括者 幾希矣

<西厓文集卷十六 雜著 倭知用兵>

中朝人許儀後被擄在日本 壬辰年前如倭奴將入寇密報于天朝 其言日本用兵之事 曰多張旗幟以壓敵氣 一兵十旗者有之 異粧服色以驚敵心 牛頭鬼面者有之 勝則長驅不顧 敗則喪膽亂奔 長於陸戰 唯知亂殺 短於水戰 不識火攻假和詐降以敗敵國 善築城圍以陷敵城 最懼急攻 惟善緩 戰急則措手不及 緩則從容養威 其船隻最不便 廣面尖底難以動搖甚易攻也 以已驗者觀之此言皆是 壬辰以後我國舟師能用少擊衆所向皆捷 以此故也

<李睟光撰芝峰類說 卷三 兵政部寇賊>

第二十一章　人物關係 原文

第1節　關係武將

百五十二，申　砬

甲申以穩城府使來 癸未公任穩城時 藩胡于乙知栗甫里尼蕩介等 率衆多則一二萬騎 少則數三千騎 數寇大鎭邑堡者 殆無虛月 大爲邊患某邑某堡 聞有急警則 公輒以領輕騎 馳進救解 斬獲甚多 故賊有知面者 望見揮弓退走 如是者數矣 一月鍾城府阿山安原等堡之被圍也兵使累戰不利 公引兵督戰 斬數百級誘捕尼蕩介 直屠其部落 盡焚其穹廬而還 自此虜不敢梗化 以是朝廷特加嘉善階 拜本道防禦使 甲申陞拜兵使　<北關誌 鏡城官案條>

先是公擊北虜尼湯介蕩覆巢穴 名震戎醜……事急時相請遣公 上難之曰 是予爪牙 此時何可去 請之不已 召問公 公不辭 時徵諸道兵 皆未至 遂募都下武士閑遊人爲兵 三醫司亦與焉出武庫兵又命朝臣各出戰馬以給之 金(汝岉)公適以事逮繫 公請以自從 公將發 上引見 手賜尙方寶劍……且使行收兵 比至忠州 衆僅數千人 李鎰自尙州敗走 公始欲斬以徇 惜而止問計鎰曰 衆寡甚懸 莫如退守京城 公叱曰 若復敢沮撓吾軍耶 第立功自效 遂以爲前鋒 金公請先據鳥嶺公計賊已逼嶺底曰 未及其嶺而相遻則 事危矣 且我兵皆是白徒 又非素撫循者 不置之死地則 難得其力矣 遂背達川以陣盖公欲於平地 突騎蹴之 以少擊衆也 賊踰嶺彌山 滿野劍光 奪日 砲聲震地 公麾諸軍進戰欲親自突陣者再而堅不得入 賊先已繞出我師之右 東西挾攻 勢如山壓 公還到彈琴臺 謂金公曰 男兒死耳 義不可苟活 金公曰 吾亦從公矣 遂屬金公 草啓付麾下走上之 同薄賊陣 擊殺十數人 乃相與投江水 公平山人 字立之 壯節公 崇謙後壯節……公年二十二 中武科 由宣傳官兼備邊郞 歷郞摠都事經歷 出爲晋州判官……公連守慶源慶興 卒爲穩城府使……時李清江濟臣以節度使 每歎公勇略 捷聞陞爲北兵使……上嘗問卿子女有幾而約爲婚姻 後公長女爲信城君珝夫人 移拜平安兵使 入判漢城府 還朝日 都人聚觀皆俯伏 不敢仰首 兼管衆務 且將委以本兵矣 公沒于壬辰四月二十八日

<尤菴集 卷百十八 平陽府院君申公墓竭碣>

柳成龍(都察使)謂 金應南(兵曹判書，副體察使) 申砬曰 寇深矣 事急矣 將若之何 砬曰 軆察使雖下去 本非戰將 鎰以孤軍在前而無後繼何不使一猛將星馳下去 爲鎰策應耶 觀砬意欲自行援鎰 柳成龍與金應南請對啓如砬言 上即召申砬問之 遂以砬爲都巡邊使 砬具啓曰臣爲平安兵使時 金汝岉爲義州牧使 知其爲人矣 非唯才略勇力絶倫 臣今先行 請以屬臣 上亦許之 砬出闕門外 自行招募 無願從者 成龍在中樞府亦治行 砬至其所 見庭間有應募者色甚怒 指金應南謂成龍曰 如此令公者 大監帶去安用乎 小人願爲副使而行 成龍知砬怒武士不從己 笑曰 同是國事 何分彼此 令公之行既急則吾所得軍官 可先帶去 吾當別募隨行因以軍官單子授砬 砬爲回顧庭中曰 汝輩隨我而來 乃引之而出 諸武士皆憮然而去 金如岉亦同去而意甚不樂 朝廷益發都中武士材官 並三醫司閑良人能射者 皆屬焉 令朝官各出戰馬一匹以助之 發軍器寺軍器以資之 砬臨行 上引見問曰 賊勢如此 卿料此賊其可當乎 砬曰 賊不知兵 豈有孤軍深入而不敗者也 上曰 邊協每言倭最難敵 卿何易言之也 仍賜寶劍曰 李鎰以下不用命者 用此劍 砬既辭出 上嘆曰 邊協良將 予常不忘 此人若在 豈憂倭奴哉 嘆嗟久之 砬又詣賓廳見大臣 將下階 頭上紗帽 忽落

在地上 見者失色 到龍仁啓事 狀中不署名 人或疑其心己亂 有詩證曰

元戎寄國命 安危繫于斯
齊以田單安 趙以趙括危
方寸若己亂 何能𧨏闢奇
嗟哉三韓域 生民爲流尸

<申靈撰 再造藩邦志一>

公姿貌端嚴 喜怒不形 平居循循雅飭 若經生學子及其臨陣對敵則　雖左右親信　亦莫不震慄無敢竊視者 然御下有恩絶甘分　少疾病者　躬親勞問之　故士皆樂爲之用　蔚然有古名將風 盖自壯節公 世有名人至公兄弟而尤盛　公仲兄磔 以諸生 嘗爲栗谷李先生 上章伸理　仍斥群小之朋讒 御批直哉爾言 爾弟砬 盡忠報國 力守邊城 虜不敢近爾　又抗疏斥邪是何一家幷生忠義若是邪　後公弟硈以兵使　與倭戰於臨津亦效節　磔時蔭仕奉母夫人　避兵猝遇賊　母夫人投身崖下　磔亦自投以死　一家忠孝　可謂卓卓矣

<尤菴集 卷一百十八 平陽府院君申公墓碣>

壬辰變初 巡邊使李鎰到尙州　不明斥候　人告賊逼 鎰怒其惑衆斬之以徇　故賊己入境而無敢告者 鎰聞賊砲聲 始出屯城外 賊兵滿野 我軍驚潰 死者山積　鎰僅走免　時副元帥申砬駐忠州 金牧使汝岉在軍中 請把截鳥嶺 砬不從 乃背㺚川而陣　賊逾嶺直擣我軍　流尸蔽江　砬亦赴水死　二人乃一時名將而　臨事齟齬如此 盖其素不習戰故也

<李睟光撰 芝峰類說 卷三
征戰兵政部>

百五十三, 權　應　銖

訓練副奉事權應銖鄭大任等 以鄕兵　擊永川賊破之 遂復永川 應銖　永川人　有膽勇　與大任率鄕兵千除人 圍賊于永川　軍士畏賊不進　應銖斬數人 士卒爭奮 踰城而入 與賊巷擊　賊不勝奔入倉中 或上明遠樓 我軍以火攻之 悉燒死臭聞數里　餘賊數十　遁歸慶州　自是新寧義興義城安東等處賊 皆聚一路而左道郡邑得保 永川一戰之功也　<懲毖錄一（三八面)>

宣祖二十五年八月初一日　賊自永川稱封庫御史 向新寧　安東義兵將權應銖與鄭大任鄭世雅曹誠等 遇賊於朴淵大捷　斬馘甚多　獲兵器錢穀文書等物

<出慶尙巡營錄，趙慶男撰 亂中雜錄一>

我兵屯于永川 永川權應銖有膽勇　率鄕兵攻永川城 我兵不利避慶州　自是新寧義興義城安東等我屯軍皆聚一路　鮮兵保左道郡邑　左兵使朴晋自密陽奔入山中　李沿以前兵使李珏*棄城走誅之　以晋代之　時我兵充滿　李沿所在　聲聞不通南方人心搖動　及聞晋爲兵使散民稍集及權應銖復永川　晋率左道兵萬餘　進薄慶州城下　<征韓偉略卷之二>

白雲齋忠毅公(權應銖)年譜

明宗元年丙午十一月二十一日　生于新寧縣楸谷里第

宣祖十六年　(三十八歲)應武擧　冬授展力副尉

十七年 八月　中別試武科

十八年乙酉（四十歲）春　補修義副尉權知訓練院副奉事　夏四月　戍義州龍灣

十九年丙戌（四十一歲）在義州
夏四月　陞秉節校尉

二十年丁亥　春三月　陞果毅校尉

二十一年戊子（四十三歲）正月 陞定略將軍

二十四年辛卯（四十六歲）春　佐慶尙左　水使朴泓幕　秋　授振威將軍
冬　陞禦侮將軍

二十五年壬辰（四十七歲）四月辭朴泓幕歸
四月二十七日　倡起義兵
五月　破賊于大洞　又戰漢川大破之
又討土賊希孫等平之
十八日　追討間倭斬五級
二十七日　斬倭十級　又窮捕土賊二十餘名盡斬之
六月　赴兵馬使　朴晋辟召己而辭還

七月 爲義兵大將 列邑諸義兵 皆屬焉
十四日 與賊戰于朴淵上破之
二十二日 追擊賊于召溪破之
又擊逐賊于沙川
二十三日 進軍瓦村
二十四日 列陣于楸坪
二十五日 使軍卒多備火攻之具
二十六日 進圍城斬百餘級而還
二十七日 遂進兵以火攻之 復永川城
二十八日 點閱被虜人 各還其故土
八月 會諸將 戰于鷄淵 復慶州
九月 陞折衝階 拜慶尙左道兵馬虞侯
十二月 移拜慶尙左道兵馬助防將
二十六年癸巳（四十八歲）
二月 與巡察使韓孝純 合七郡兵 軍于唐橋以邀賊 遂襲擊勦滅之
二十五日 又擊賊山陽塔前斬百級
是月特拜慶尙左道兵馬節度使
四月 與賊戰于安東 慕恩樓下大破之
又追之九潭 獲首虜百餘級而還
七月 擊密陽賊 大破之
九月 遷拜忠佐衛副護軍兼慶尙 左道防禦使
十月 詣闕謝恩
二十七年甲午（四十九歲）
正月 特陞嘉善大夫 龍驤衛大護軍兼慶尙道兵馬左別將
四月 擊破賊黃龍寺下 遣軍佐權應心 獻馘于王世子行宮
七月 兼忠淸道防禦使(代領李恩命軍) 與恩津縣監李毅破賊于倉巖 賊帥淸正走
二十八年乙未（五十歲）
正月 兼慶尙左道防禦使
四月 大破賊 兄江上
三十年 丁酉（五十二歲）
九月 與觀察使李用淳 兵馬使金應瑞等追及賊達城下大戰 破之
十一月 上命公屬於 李摠兵回三遣 宣傳官諭密旨
又命公統咸鏡江原兩路兵 移屬于副摠兵解生 公自大丘迎解生於尙州 又隨解生回至慶州 會于楊經理營下以期大擧
十二月 從戰島山 燒殺伴鷗亭下諸賊
三十一年戊戌（五十三歲）
正月 請經理解島圍還
八月 上命公移屬于麻提督貴
十月 從天朝將士進兵迫賊壘
十一月 賊走湖嶺 兩南悉平
三十二年己亥（五十四歲）
二月 兼密陽都護府使
三十三年庚子（五十五歲）
五月 拜義興衛副司直
三十六年癸卯（五十八歲）
二月 除忠武衛護軍
三月 入侍經筵
六月 賜効忠仗義協力宣武功臣 號封花山君
七月 進階資憲大夫 被召還朝兼都摠府都摠管
三十八年乙巳（六十歲）
正月 削職下禁府 尋被釋
二月 叙付護軍兼武勇將
三月 復封君
四月 兼都摠管
三十九年丙午（六十一歲）
八月 拜慶尙道防禦使
四十一年戊甲（六十三歲）
四月 兼南營將
五月 病遞
七月 丁酉辰時終于漢城之旅舘
仁祖二年甲子正月　贈効忠仗義協力宣武功臣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花山君
肅宗十七年辛未七月 贈諡忠毅公
<白雲齊實記 卷之一年譜>

百五十四　權　慄

壬辰之亂尙忍說哉 自有東土而來 兵禍未有若

斯之烈者也 三京俱燼八路幾覆不亡者 特一線耳 賊之棄漢京而遁 實由於幸州之大創 自有賊變以來 武將銳卒每戰輒北 殆不能軍 公獨以書生受推轂之寄 指天誓衆背水力 戰挫其方張之勢 賊之死傷如積 竟至垂翅而退斯捷也 鯫儒亦能言之中興之戰功無兩焉 此當宁之所深奬而武夫之所羞顔也 公沒而至有褒贈之命 有司乃只進一秩 夫中朝之人 謂公力於王事如得公者 數輩恢復無難 上國亦知公功而有司於贈職之典 厪厪止此惜極品而不與何哉 公久困公車晩而登第 余謂公雖今始發軔 不數年當陞宰列 既而果然 人或謂余具眼余亦自幸言之有中豈料其纔周一甲子而遽爾摧折乎 痛矣哉 公膺元帥之任七年 勤瘁奔馳 海上風霜 瘴霧凡所以暗鑠其眞元者何限而島山之戰 晝夜嚴寒露處者爲特甚榮衛 焉得以不傷疾病 焉得以不乘乎 雖美疢難瘳而猶不敢以欲以緘告豈所謂鞠躬盡瘁死而後已者非耶 余與公少同筆硯誼分特深 埋玉樹於地中 胡忍云云

<尹根壽 月汀集卷之七>

秋七月都元帥權慄卒 慄字彦愼領議政轍之子也 年四十六以明經登第十許年潦倒超拜義州牧使坐事罷歸變初上曰予聞權慄有可用之材以試其才即拜光州牧使與同福縣監黃進等討賊有功移拜羅州牧使未之官拜本道巡察使以幸州之捷特拜都元帥或遞或復多從天將而以體統受制有先見之言而不用有先登之勇而不效然而中朝之人聞名必欽其爲人倭酋必問權元帥起居 經略宋應昌嘗曰王國無人獨權慄抗守孤城能抗大敵 此正板蕩忠臣中興名將是夏以疾乞歸死田里歸江華疾篤入京就醫卒年六十三 贈左贊成後策宣武勳贈領議政永嘉府院君謚莊烈 慄御人帥物能和愛推城不專嚴毅故得其悅服緩急是賴……其婿鰲城府院君李恒福

<朝野僉載 卷之二十九>

字彦愼 領議政轍之子也 門閥煒爀 不以貴勢自挾年四十 猶不試 或勸以蔭仕笑不應 宣祖朝始以明經中文科 補承文院正字 陞典籍郎署出爲鏡城府判官 踰年棄官歸 萬曆辛卯義州牧使缺 朝廷知其有器局薦授之……壬辰四月拜光州牧使 慄謝恩輒行……秋移除羅州牧使陞拜本道巡察使 慄迎敎書于陣中 稽首西向哭……六月陞拜都元帥 督諸軍移駐嶺南 甲午以病乞解 上特遣內醫看病 有一武官 憚於赴戰逃匿全州 自託於天將 慄巡到本州 發吏捕之天將苦請貸命 不聽 竟斬之 居無何 國相有視師南方者 武官之家構訴於國相 慄竟坐免 笑人曰 爲大將三年 斬一逃兵 至於解官耶 歸拜漢城府判尹備邊司堂上戶曹判書 尋拜忠清道觀察使 時賊久不退 復拜元帥 慄上疏乞免 不許己亥夏在嶺南得痰疾 乞歸死田里 上許之是年七月卒 壽六十三 慄無子 女婿鰲城 府院君李恒福 撰墓碑傳于世

<洪良浩著 海東名將傳 卷四>

壬辰倭亂 公累立奇功 皇帝詔曰 今觀全羅道斬獲甚多 該國人民 尙可振作 因差鴻臚寺官宣諭 天朝東征將士相謂曰 權家軍與他鎭自別總督軍門經略宋應昌移咨本國 另行奬賞 略曰王國三都諸郡 悉皆望風奔潰 曾無一英雄傑士倡義師 掛大亂守封彊 以圖恢復者 王國可謂無人 獨權某扼守孤縣 招集衆庶 屢出奇謀 時抗大敵 近復囊砂爲糧 誘倭夾槍而劫殺 此正王國板蕩忠臣 中興名將 兵部尙書石星奏本以爲陪臣 權某獨守孤危 以抗強勁 宣祖大王前後奬諭備至 至曰忠勞茂著 勇略超世 名聞天下 威讋敵國 又曰非卿國家何以得至……當時如忠武舜臣 猶不免放對吏幾死則 公之以忠信善道 自結於君上者可知也 主聖臣良 可謂千載一時也

<尤菴集 卷一百三十六 都元帥權公墓表>

朝廷徵權慄 慄方在星州 聞命遂疾馳入朝 上驚曰 南方賊勢方熾 何遽入朝 慄對曰有旨矣 左右乃曰 賊兵已迫 廷議欲截漢江以守 故徵矣 柳成龍 仍請使慄把截江西 上允之 慄當亂初 屢却賊兵 頗有威名 朝野想望 成龍及爲都元帥女婿李恒福謂人曰 權公 爲方伯則可 爲元帥則過矣 其後作事 稍不如前 至是賊兵登岸 慄無一方略 只望風引避而已 所望大損

<宣廟中興誌 卷五 丁酉>

提督董一元趨泗川之路 提督劉綎趨順天之路 大軍將發 皆願得權元帥 上竟以屬之 劉綎天兵至順天倭橋不能拔 劉提督本無戰心 慄憤恚自募各營敢死士 大呼先登 請與天兵協力齊進則 提督曰 試召諸將議之 但依違而已 提督攻圍九日 軍竟無功 慄閣手仰成受其羈靮 不敢有所主張 豈非天耶

<洪良浩著 海東名將傳 卷四>

百五十五, 黃 進

黃進字明甫 長水人 翼成公喜之五世孫也 爲人嚴重尙氣節 長身美鬚髯形貌甚偉 自幼業弓馬 膂力絶人 趫捷如飛 宣廟丙子登武科 庚寅從從叔黃允吉使倭 倭酋秀吉已有構亂計 威脅屈辱無所不至 一行多懾慄而進氣彌壯不少挫 倭人欲誇示 其藝能 射帿(射布也)於路傍相去僅五十步 進即設小的於帿傍 發無不中 又連發二矢 並落雙鳥 倭人驚伏 將歸 進傾槖買寶劍二口曰 非久此虜必動 吾將用此矣

<洪良浩著 海東名將傳 卷之五>

長溪縣人 故相翼成公喜五世孫 父贈左議政允恭 娶南陽房氏女 嘉靖庚戌生 公偉軀美髯 勇力絶人 性剛毅有大志 年二十七中武科 爲宣傳官 母憂廬墓三年服除 除居山道察訪 癸未問罪 時箭叛胡先登有功 授安原權管 分所獲虜級 脫其友戴罪自效者 人義之 復拜宣傳官亡何從通信上使黃允吉 往日本 同行者爭以越槖市利 公不顧 獨買二寶劍 人恠問之由 明年虜必渝盟 吾將用此殲之 不知者反疑大言後見公志還上問虜情 上使言賊來 副使金誠一言必不來 公欲上疏請斬之 且陳舟師 禦虜之計 爲時議所沮 除濟用監主監 同福縣監 日習戰用備未嘗自逸 明年虜果掃境……中略……公獨全師以歸 戰于熊峙 又戰于梨峴 皆大捷湖南賴以全 領軍過全州 州人感德 壺漿塞路幕府掩其功賞 止訓鍊副正 體臣承制假守益山命許即眞全羅兵使宣居怡之進兵水原也 以公斥候 爲虜所圍 見賊騎善馬者 奪騎潰圍馳還事聞陞折衝忠淸助防將 癸巳陞本道兵使 京城賊遁 追擊于尙州赤巖 屢捷 又追至咸安移陣晋州 倡義使金千鎰 慶尙右兵使崔慶會 金海府使李宗仁 復讐將高從厚等次第來會 時已有賊先聲不日奄至 不見其際 公氣益壯 意欲呑諸賊 日夜身陴陴間不少懈 賊乘雨超城缺處公親負土石以補之 士爭感泣忘身 又奮力殺賊無算 近城草木爲諸賊 百道並進 器械甚盛 公輒以計破之 又射殪其將 自退 適一賊挾丸竄壕暗 中公左額遂不救 一軍如喪父母

<淸陰集 卷之二十九 南原貞忠祠碑>

公以嘉靖十九年庚戌十月十八日亥時 生于南原周 浦里公幼而自知孝順 及長尙氣概有風度不事產業 武藝絶倫 超越溝渠 未半食頃往還四里許山坂 世傳判樞公嘗出獵發矢 著大樹沒羽人 比之李隴西開石公之材力 蓋有所自云嘗赴擧于慕華舘 諸健兒共追飛雉 公後發而先獲之 觀者皆驚焉 年二十七 竟以素業捷科 從使臣往觀皇京以宣傳官 爲居山道察訪 忤當路見罷而無所悔 作歌以見志……庚寅復爲宣傳官 從從父黃允吉使倭虜時 倭酋秀吉已有構亂計 威脅屈辱無不至 一行多懾慄而公氣彌壯不少挫 倭人欲誇示其藝能 射帿於路傍相去僅五十步 公即設小的於帿傍 發無不中 又連發二矢並落雙鳥 倭人驚伏焉……由濟用監主簿出爲同福縣監 縣有挾仙樓 公嘗得逸足於鹽車甚有相得意 每衙罷擐甲馳聘 超登樓上 其臨亂致力之意切矣 適値大水 人民漂沒 公親自救之 有老嫗旣免而呼曰 亦取我瓢子也 縣人傳說至今云……龍仁, 熊峙, 梨峙略……時主將上功不以實故 朝廷只陞公訓副正 體察使鄭相公澈 採訪功狀以便宜陞攝益山郡守兼助防將 事聞朝廷使之即眞 時大駕西幸龍灣 倭據京城 公瘡益完 遂從大軍進討京城賊 至漢江南岸 賊以兵逆之 諸將退却 公被圍漢江之南岸 公被圍數重 蓋賊知公爲名將 必欲生得之 毋令相薄 粤二日公忽躍馬突出 左右揮擊 賊血灑面淋漓 亦取賊馬而歸 以功後陞折衝 爲忠淸道助防將 癸巳

三月 特授本道兵使　移鎭安城　以與竹山屯賊相持　己而竹山賊退去　公追及於尙州之赤巖大敗之……晋州略……公之將入晋州也　義兵將郭再祐謂曰 晋州臨水爲城　賊若截其要衝而救兵不至則危矣　且公職主他道　又非有朝命以今日干城之身　何必就必死之地乎　公曰 旣與倡義有約　何可臨亂而苟免　郭取酒相訣　家人往尋公尸 得人指告其處 發而歸葬 事聞 上震悼贈議政府右賛成 賜以宣武原從勳　後加贈左賛成……賜祠額於晋州曰 彰烈　南原曰 旌忠 晋州則與金公千鎰 崔公慶會同亨焉

＜尤菴集 卷之一百四十六，忠淸兵使黃公諡狀＞

百五十六，鄭 起 龍

昆陽人也……從防禦使趙儆南下以禦賊之路 儆喜以爲別將 大敗賊五百于居昌　又從擊金山賊方戰酣 儆爲賊所獲　公奮劍入中堅　奪儆以歸……昆陽守李光岳方赴戰晋州 以公爲假守　時金公誠一爲嶺南兵使　檄召公　使將遊兵捍後俄以爲尙州判官　牧使金澥素聞公能每事咨焉賊方據州城 公旣擊殺分抄賊四百餘　上級于巡營 又夜以火攻城大鏖之事　聞拜眞判官……上使權牧于尙俄即眞兼敢死軍大將……丁酉倭奴再逞 與九邑官　率家屬守金烏城　體使李公元翼公召爲將 大戰於高靈 公躍馬入萬人中 取紅衣賊將而歸 捷奏陞折衝　拜慶尙右兵使　開營于星州 俄而由尙州踰嶺　進討湖西永同屯賊……公遇於報恩赤巖　當前立馬　射倒數十賊 意甚整暇 賊疑有備　良久不敢動　以故湖嶺避亂人 獲免者數十萬人　淸正旣過尙州　公追躡之殺零賊　又與天兵擊破慶州賊　天將楊經理鎬戰于島山　公爲前鋒　旣先登而天兵左次 公遂揮刃馳還 賊不敢追　自是連殺居昌咸陽安陰金山尙州星州泗川賊 其攻咸陽　天將李寧 戰敗而死 其餘兵願屬公　事聞皇上許之　仍以爲天朝摠兵官　公大小六十餘戰　皆以小擊衆　未嘗挫衂　楊經理麻都督貴　皆甚獎賞遣以票牌及史世用　贈詩二章以美之……初朝廷爲李公舜臣置三道統制使 以領水軍　後公以輔國崇祿大夫居其職 天啓壬戌二月二十八日卒于營　年六十　字景雲

＜尤菴集 卷一百九，統制使鄭公神道碑＞

趙儆之下嶺南也　起龍以武出身　自請從軍儆問計於諸將 起龍對曰　倭賊畜謀已久　卒銳器精 以我昇平未鍊之卒　決難取勝　不如選壯馬騎才爲奇兵置之 前行遇賊　以奇兵出其不意而衝之步軍乘之以助聲勢則勝之必矣　得一勝則賊有懼心 我亦知賊之長短而銳氣生矣 此外無奇策矣　儆壯其言以爲突擊將 (趙儆爲右防禦史　下西道)　＜洪良浩著 海東名將傳卷之五＞

百五十七，李 舜 臣

鹿島萬戶宋汝悰 與漢船俱進擊賊　獲船六首級七十 漢人無所得　陳方與舜臣接宴　聞之悳怒舜臣曰　大人來統我軍　我軍之捷即天兵之捷何敢私焉　請盡納所獲　願大人悉以奏聞　陳大喜曰 素聞公東國名將　今果然矣　宋汝悰失望自訴 舜臣笑曰 賊首乃腐肉也 與漢人何惜　汝功自有吾狀奏 汝悰亦服　自是陳察舜臣治軍制勝　節節欽服　借我板屋　大船自駕　軍務大小動必咨訪　每言舜臣非小國人物　若入仕中朝當爲天下上將　惜乎屈於此　上書宣廟言　李某有經天緯地之才 補天浴日之功 蓋心服也

＜洪良浩著 海東名將傳 卷四＞

丙子中武科 爲鉢浦萬戶　罷官家居　甲申丁內憂 丙戌服闋以司僕寺主簿　爲造山萬戶　丁亥朝廷設屯田于鹿島以公掌其事　公以地絶兵少累請添兵 其年八月　賊襲圍田寨　有賊數人衣紅氊 最著在前　公連射殺退開寨追擊　奪還被擄男婦六千餘名口　方戰公中流矢　潛自拔矢顏色不動　一軍無有知者　時主將拿公至營門將入就勘 友人宣居怡懼不免　執手流涕　勸酒壓驚 公正色曰 死生有命 飮酒何爲　及對勘公不服曰 我以兵少累報請益　事聞上曰　某非敗軍之類 可白衣從軍 其年冬 從時錢之役　立功放還 己丑爲井邑縣監　辛卯以珍島郡守　旋陞

加里浦僉使 擢爲全羅左道水軍節度使
<湖南邑誌，故統制使 李公遺事 李恒福)

朝廷聞清正渡來 咎公之不能擒討 臺論大發 請以縱賊罪之命拿鞫 時公領舟師 往加德海 聞有拿命還本陣 計陣中所有付于元均 軍糧米 九千九百一十四石 在外之穀不與焉 火藥四千 斤 銃筒除 各船分載之數 又有三百柄 他物稱 是 <忠武公遺事>

舜臣少時 英爽不羈 與群兒戲 削木爲弓矢 遊 里閭中 遇不如意者 欲射其目 長老或憚之 不 敢過門 及長善射 從武擧發身 李氏世業 儒至 舜臣始得武科 補權知訓鍊院奉事

及長有權略 善騎射 尤長於書字 弱冠盡棄儒 業 從武擧出身 嘗爲造山萬戶 時北邊多事 舜 臣以計誘致胡酋于乙其乃 縛送兵營斬之 虜患 遂息 巡察使鄭彦信令舜臣護鹿屯島屯田 一日 大霧 軍人盡出收禾 木柵中但有十餘人 俄而 虜騎大集 舜臣潛伏柵內 有賊數人 衣紅氈最 著在前 舜臣以柳葉箭 從柵內連射殪之 虜乃 驚駭退走 舜臣開門 乃以單騎 大呼逐之 還奪 被擄男婦六十餘人 方其戰時 流矢中肩 潛自 拔去 一軍無有知者 主將拿至軍門 將入就鞫 友人宣居怡 懼其不免 執手流涕 勸酒壓驚 舜 臣正色曰 死生有命 飮酒何爲而已事得白 其 從容壯烈如此 己丑爲井邑縣監 是春爲珍島郡 守 俄陞加里浦僉使 至是左議政柳成龍薦之 有詩爲證曰

天爲吾東出異才 早年征戰破虜回
君侯忠憤由天性 腹裏風雲智綱恢

兵曹正郞徐益 有所親在訓鍊院 欲越次薦報 舜臣以院中掌務官 執不可 益牌招舜臣 詣庭 下詰之 舜臣辭色不變 直辨無撓 益大怒盛氣 臨之 舜臣從容酬答 終不少沮 益本多氣傲人 雖同僚亦憚之 難與爭辨 是日下吏在階下 皆 相顧吐舌曰 此官敢與本曹抗 獨不顧前路耶 日暮 益愧屈令去 識者以此 往往知舜臣焉

方在獄時 事不可測 有獄吏密語舜臣兄子芬 有賄則可免 舜臣聞之怒芬曰 死則死耳 安可 違道求生 其有操執如此

舜臣爲人 寡言笑 容貌雅飭 如修謹之士而 中 有膽氣 忘身殉國 乃其素所蓄積也

兄義臣堯臣 皆先死 舜臣撫其遺孤如己子 凡嫁 娶 必先兄子而後及己子 有才無命 百不一施 而 死嗚呼惜哉 <懲毖錄卷一>

賊船犯近島 舜臣遣兵敗之 獲賊首四十級 悉 以與璘爲功 璘益喜過望 自是凡事 一咨於舜 臣 出則與舜臣幷轎 不敢先行 舜臣遂約束唐 軍與己軍無間 有奪民一縷者 皆拿致捆打 無 敢違令者 島(古今島)中肅然 璘上書於上 言 統制使有經天緯地之才 補天浴日之功 蓋心服 也

舜臣天資英銳 器局沈凝 治軍簡而有法 不妄 殺一人而三軍一志 雖負氣倔強者 望風自屈 臨戰意氣安閑 常有餘地 見可而進知難而退 必三吹打耀兵 而在軍 軍務浩穰 簿書山積 左 右剖決 筆翰如流 遠斥候 嚴警衛 賊來必先知 之 故一軍整暇如平時 每夜休士 必自理箭羽 常以空弮與射士 待賊逼前 然後散箭與之 又 親冒賊鋒 賊丸落左右而不動 將士扶掖諫止之 則' 我命在天 豈令汝輩獨勞 戰勝獲賞 即散 施諸將 一不吝之 將士畏而愛之 各盡其力 前 後數十戰 未嘗一衄 以故鎭安南洋 斷賊一臂 實基中興之業 以至名聞天下 人推以爲中興第 一名將 至是湖嶺人悲之如悲親戚 迎柩奠千里 不絶 或喪之三年 或處處設齋曰 活我命復我 讐者公也 先是陳璘謂舜臣曰 吾夜觀乾象 東 方將星病矣 祈禳之事 古有行之者 惟子圖之 舜臣對曰 精誠才識 皆下古人 而但效祈禳 何 益有之 璘盖料其死也 命贈左議政 錄用子孫 賜謚忠武 立祠致祭 時舜臣威名日盛 人稱海 中王 舜臣知禍且不測 遂免冑先登 自中丸而 死云 <宣廟中興誌 卷六 戊戌>

舜臣字汝諧德水人 成廟朝直臣四靖公邊玄孫 父不仕舜臣少時英爽不羈與群兒戲削木爲弓矢 ……中武科補權知訓鍊院奉事 兵曹判書金貴 榮有孼女欲與舜臣爲妾舜臣不肯人問之舜臣曰 吾初出仕路豈敢託迹權門媒進耶 爲造山萬戶 得罪白衣從軍時鐩之役立功放還 己丑爲井邑

縣監 翌年以珍島郡守旋陞加里甫僉使 柳成龍爲相薦其可用超授全羅左水使 遂爲中興名將至是卒年五十四 <朝野僉載 卷之二十九>

事聞于朝皆咎舜臣 臺諫請拿鞫 前縣監朴惺玄風人亦上疏極言舜臣可斬 遂拿來 上猶疑所聞不盡實 特遣成均司成南以信往閑山廉察 以信反奏曰清正留海上七日 我軍若往可縛來而舜臣逗留失機 於是下金吾命大臣議罪 判中樞府事鄭琢言舜臣名將不可殺 軍機利害難可遙度其不進未必無意請寬恕以責來效 拷問一次減死充軍 舜臣老母在牙山聞舜臣下獄 憂悸而死舜臣出獄道過牙山成服 即赴都元帥權慄陣中人皆聞而悲之

<朝野僉載 卷之二十八，丁酉三十年>

我國戰艦制甚宏壯 人言倭船數十不能當我國一戰船 李舜臣 爲全羅左水使 創智造船 上設板盖 形如伏龜 謂之龜船 至壬辰用以制勝 盖賴於舟楫之利也 然元均代舜臣則以百餘戰船敗衂無餘 舜臣代元均則 以十三戰船摧破六百艘衂海之賊 亦在乎將得其人而已

<李睟光撰 芝峰類說 卷三 兵政部征戰>

李楚客詠水營有詩曰

地勢連南極 雄臨日出東
孤城前左水 一島古今風
控禦關防重 丹青海廟空
哀哉李統制 千載誦奇功

又愍忠祠詩曰

第一中興將 艱色活我東
山河餘怒氣 宇宙有雄風
對馬春濤息 扶桑曙靄空
至今滄海上 誰復嗣戎功

又作七言律 以悼其戰死之狀曰

威名久懾犬羊群 盖世奇勳天下聞
蠻祲夜收潮外月 將星晨落海中雲
波濤未洩英雄恨 竹帛空垂戰伐勳
今日男兒知幾箇 可憐忠義李將軍

<再造藩邦志五，大東野乘卷八（五〇面）>

李舜臣移營古今島 島在康津前洋 形勢奇險舜臣移兵設鎭 募民屯耕 將士復雲集 南民繦屬歸之者數萬家 軍容之壯 十倍於閑山時 舜臣聞興陽屯賊 四出殺掠 遣鹿島萬戶宋汝悰將奇兵抄之 賊不得樵採 棄城奔順天 賊船十六艘 入近浦漁採擄掠 舜臣擊滅之

<宣廟中興誌 卷五 戊戌>

百五十八，李 如 松

字汝契高祖英自朝鮮內附 授世鐵嶺衛指揮僉事遂家焉 成梁英毅驍健有大將才家貧不能襲職 年四十猶爲諸生巡按御史器之資入京乃得襲積功爲遼東險山參將 隆慶元年進副總兵 遼陽三年進秩一等 同四年遼東總兵官王治道戰死擢成梁署都督僉事代之 明年進署都督同知世廕千戶 萬曆二年進左都督世廕都指揮同知三年加太子太保世廕錦衣千戶 四年加太保世廕本衛指揮使 同年論功封寧遠伯歲祿八百石九年錄功增歲祿百石世廕一等 十年賜甲第京師世廕錦衣指揮使 同年錄功增歲祿百石世廕指揮僉事 同年錄功增歲祿二百石改前廕指揮僉事爲錦衣衛指揮使 十三年增歲祿百石改廕錦衣指揮使爲都指揮使 二十九年叙勞加至太傅卒年九十 弟成材參將 子如松如栢如楨如樟如梅皆總兵官 如梓如梧如桂如楠亦皆至參將

<明史 卷二百三十八 列傳>

翌日朝 進圍平壤 攻普通門七星門 賊登城上列竪紅白旗拒戰 天兵以大砲火箭攻之 炮聲震地 數十里間山岳皆動 火箭布空如織 烟氣蔽天 箭入城中 處處火起 林木皆焚 駱尙志吳惟忠等 率親兵蟻附登城 前者墜後者升 莫有退者 賊刀槊下垂城堞如蝟毛 天兵戰益力 賊不能支 退入內城 斬戮焚燒死者甚衆 天兵入城攻內城 賊於城上 爲土壁 多穿孔穴 望之如蜂窠 從穴中銃丸亂發 天兵多傷 提督慮窮寇致死收軍城外 以開走路 其夜賊乘氷過江遁去

<懲毖錄 卷二>

總兵(李如松)領親兵二百餘騎 往來指揮 將士踴躍 咸思盡力 辰時分(午前八時)諸軍鱗次漸進 各樣火器一時齊發 聲震天地

俄而發大砲一號 各陣繼而齊發 響如萬雷 山嶽震搖 亂放火箭 烟焰彌數十里 咫尺不分 但

聞吶喊聲 雜於砲響 如萬蜂鬨鬧 少遷 西風忽捲砲烟 直衝城裏 火烈風急 先著密德土窟 赤焰亙火 延爇殆盡 城上賊幟 須臾風靡
提督鼓軍薄城 賊伏於堞中 亂用鉛丸 湯水大石滾下拒之 又用長槍大刀 向外齊刃 森如蝟毛 衆軍稍却 提督手斬恇退者一人 巡示陣前 提督挺身直前 呼曰 先登者賞銀五千兩
<宣祖實錄 卷三十四>

於是 李如栢由含毬門 楊元由普通門 乘勢爭前 斬獲一千二百八十餘名 燒殺亦過半 並擄投倭浙人張大膳 行長入據練光亭土窟 諸酋連據諸窟 皆從穴放丸如雨 天兵攻之 多中傷 提督止營　<國朝寶鑑 卷八>

翌日(二十五日)副總兵査大受　與我將高彦伯領兵數百 先行偵探 與賊相遇於碧蹄驛南礪石嶺 斬獲百餘級 提督聞之留大軍 獨與家丁騎馬者千餘 馳赴之 過惠陰嶺 馬蹶墮地 其下共扶起之 時賊匿大衆於礪石嶺後 只數百人在嶺上 提督望見 揮其兵爲兩翼而前 賊亦自嶺而下 漸相逼 後賊從山後遽上山陣 幾萬餘 天兵望之 心懼 而己接刃不可解 時提督所領 皆北騎 無火器 只持短劍鈍劣 賊用步兵 刃皆三四尺 精利無比 與之突鬪 左右揮擊 人馬皆靡無敢當其鋒者 提督見勢危急 徵後軍未至而先軍己敗 死傷甚多 賊亦收兵不急追 日暮 提督還坡州 雖隱其敗而神氣沮甚 夜以家丁親信者戰死痛哭 明日欲退軍東坡　<懲毖錄一>

如松母宿氏 亦女中裴郭也 生于將家 熟暗邊務 性且方嚴而尤喜御將士 其在遼鎭也 歲必一歸鐵嶺衛 所過臺堡城堞之完塌 士伍部曲之精疲 車馬旌旗之整敝 無不考閱焉 故諸鎭裨將之敬畏夫人 不異於寧遠(李成梁)六子中 五子其所育者　富貴俱極而身猶自持女紅　諸子婦輩 貂鐺充塞而其生日獻酬 必令皆以青布等物以示儉約之當務　此亦學士大夫之所難能況婦人乃如此乎 人所罕及者也 年纔四十 即勸寧遠納側室而因又求購美姝王氏而進之　身自往來于道路中　使王氏專房而又令諸子女及諸婦 待王氏如待己 若稍不稱意則即責罵其諸子女曰　王氏者我所置也　慢王氏則是乃慢我也於汝心安乎　諸子業己曳玉衣錦矣而微有觸忝者 則即伏地受杖 如嬰兒然 無敢爲偃蹇者矣有一女嫁於蘇氏者 與其壻反目 幼子往助其姉夫人聞之大怒曰 汝己出嫁則是出家矣 而爾輩仗門戶之盛而還倨爾丈夫 乃如是耶 即呼幼子跪之於庭中 立杖撻數十 其女泣訴其故 夫人不理其言曰　爾自今以後不得意于夫壻及姑舅者 毋見我也 其敎訓之嚴正亦如此 故如松等服膺不失 終樹大勳 而夫人之能享祿壽者 皆由於此　<再造藩邦志 卷二>

時平秀嘉據龍山倉 積穀數十萬石 以京城爲窟穴 提督乃以李寧祖承訓等 領萬騎駐開城 命楊元軍平壤 扼大同江接餉道 李如栢軍寶山驛等處 爲聲援 査大受依舊守臨津而提督身自東西調度 又密令査大受勇死士從間道 縱火龍山積穀 倭乃乏食 出掠東南諸邑 恣意搶奪 地窟所藏米穀 盡被掘取 又向加平抱川 深入春川 焚搶殆盡 清正又分遣其卒千餘人 或數千人出掠不己 環畿郡邑塚墳亦發 慘目傷心 可謂於悒　<再造藩邦志 卷二>

沈惟敬復于石司馬處 呶呶不己 遂將陳璘之兵調守薊鎭　李承勛之兵調守山東而沈茂之兵遣還浙江 於是進不堪策疲卒 退望救援 晝夜焦勞莫知所出而龍山倉者在王京　朝鮮二百年租賦之所入 盡積于此 行長率兵就食焉 應昌乃密遣査大受李如梅戚金等　率死士夜往焚之倭絶食張惶 於是平秀嘉始懼 遣使納款 竪降旗漢陽江山 願駐釜山 以待上命 應昌欲假此退賊 乃具揭以聞　尋奉旨　倭如恭順赦不窮追
<海東繹史 卷六十二 本朝備禦考二, 兩朝平攘錄>

百五十九, 吳　惟　忠

吳惟忠亦以經理之檄 往來嶺南 以爲應援 性清嚴 與士卒同甘苦 多露處 人勸入廨舍 答曰士卒暴露 吾豈可獨安舘宇 號令明肅 所過不折一草 瓜蔬之微 必易以價 嶺南一路 皆立碑

頌之 避兵之民 聞吳軍至則 俱來集盡力供頓 陳御史劾知其材可任大將 慰薦陞都督 其麾下之人 謂惟忠票下官曰 以副將陞提督 當用五百金 然摠兵清白 爾輩若以二百金與事可諧 惟忠聞之 招其中軍梁守忠責之曰 我從此徑作官 吾之爲大將 固已久矣 今豈可爲此 遂止

<再造藩邦志 卷五>

百六十，劉　綎

劉綎 字省吾都督顯子 勇敢有父風用廕爲指揮使 十一年遊擊將軍 進副總兵予世廕 二十年召授五軍三營參將 會朝鮮用師 綎請率川兵五千赴援 詔以副總兵從征
天啓初贈少保世廕指揮僉事立祠曰表忠
李蓍宣居怡遞 以李鎰爲巡邊使 李時言爲全羅兵使 鎰自京直下宜寧留鎭
二月二十七日 巡邊使李鎰自嶺南到南原 因往順天留鎭
三月初三日 都督劉綎自星州八莒移兵向全羅 初九日 到南原留鎭 城中兵凡五千餘名 接伴使金纘從之 二十日 清正送小倭林小智于安陰 請見督府 劉綎自南原往安陰 見而還之 諸將請殺小智 綎曰大將殺無赦 小將殺之無益

<亂中雜錄二>

明年五月 朝鮮再用師 詔綎充禦倭總兵官提督漢土兵赴討 又明年二月抵朝鮮則楊鎬李如梅已敗 經略邢玠乃分軍爲三 中董一元 東麻貴西則綎而陳璘專將水兵 綎營水源倭亦分三路 西行長據順天 壕砦深固 綎欲誘執之 遣使請與期會 使者三反 綎皆單騎俟道中 行長覘知之 乃信期以八月朔定約至期 綎部卒洩其謀 行長大驚逸去 綎進攻失利 監軍參政王士琦怒縛其中軍 綎懼力戰破之 賊退不敢出 諸將三道進 綎挑戰破之驅賊入大城 已賊聞平秀吉死將遁 綎夜半攻奪栗林曳橋斬獲多 石曼子引舟師救 陳璘邀擊之海中 行長遂棄順天乘小艘遁班師 進綎都督同知世廕千戶 遂移師

<明史 卷二百四十七 劉綎傳>

時行長築城于順天芮橋(倭橋)堅守 劉綎以大兵進攻不利 還順天 旣而復進攻之 李舜臣與唐將陳璘 扼海口以逼之 行長求援於泗川賊沈安頓吾 頓吾從水路來援 舜臣進擊大破之 焚賊船二百餘艘 殺獲無算

<懲毖錄二>

劉提督 初二日(十月)攻城時 諸軍前進城下六十步許 賊之銃丸如雨 提督終不偃旗督戰 吳副總(吳廣)廣兵苦待大將號令 或有人栖車而困睡者頗 于時潮水漸落 水兵亦退 倭奴 見陸兵不卽齊進 綎城直下 前攻廣兵 被殺二十餘人 廣兵驚退百步 各營之氣己沮 當日所爲有同兒戲 旣不督進 又不捲回 令各兵立過半日 徒引賊之鉛丸 提督所爲 殊不可曉
初三日 水兵乘潮血戰 大銃中行長房室 倭人驚遑 俱就東邊 若從西邊進入則城可陷矣 金睟排門請戰 提督有怒色 終不動兵 城上有女人呼曰 此時倭賊空虛 天兵連入云云 機會如此而袖手差過 提督行事 正如奪魄之人 將卒皆輕侮 適見泗川敗報 事情已亂 決意退兵 尤爲痛泣 <宣祖實錄 卷百五 宣祖三十一年十月>
提督之與水兵不協 則因初有爭功之心而終力處事益錯 尤不勝痛泣

<同　上>

右議政李德馨 馳啓曰 提督乘夜捲退 軍兵散亂 自倭橋至順天 白粒狼道上 倭橋餘糧 尙有三千餘石 並令焚燒 未燒者 未免資於賊手

<同　上>

百六十一，小西行長

行長在平壤 欲俟明兵至決戰而明兵未至 於是遣人言京城諸將曰我爲先鋒渡鴨綠江直入明諸君請速繼發 諸將相議謂慶尙全羅二道城有未降者 先蕩平二道而後從事 敵在後而進取非謀也 行長憤懣 檄李沿曰日本與明大小懸殊 然我朝國富民饒 其興兵者非貪地報怨耳 而其入明必經貴國 故不得已假道而貴國繕修遮我前行 吾不得不用干戈 自釜山到平壤 旌旗所指無不摧陷 今聞大王欲屯鴨綠江 吾鼓行而相會在近也

<秀吉譜 征伐記>

劉綎累移警勅 行長請以單騎 中路面約 綎許之 及至夜中相賓 目光如炬 及退 綎嘆曰 天

生英傑於海外 中國不得安枕矣
<趙慶男撰 亂中雜錄>

鎭信晴信嘗議用火牛 行長從之 豫爲其備 距彈琴臺十五町 及夜大燃炬如白晝 砬軍望見先奪氣 行長放火牛 牛跳入砬軍
<松浦家記, 小西一行記, 對馬征韓記>

行長夜襲忠州城 城兵奮戰 行長竊遣兵于城後火之 遂拔城 <秀吉譜, 征伐記>

初六日夜半 平調信來見黃愼曰 今日午後 行長 正成 三成(石田) 二長等 來五沙浦 傳關白言曰 天朝差天使 封我爲王 榮則榮矣 朝鮮無禮故不可許和 當再擧兵征戰 豈有撤兵之理 天使久留無益 明日登船發程可也 朝鮮使臣亦當出送 吾一面聚兵 今年內當向朝鮮 又聞已招清正 議再入朝鮮之計 清正若得志 事有甚難者 行長及吾輩只有待死已耳 調信又曰 吾初見關白 關白問朝鮮何爲不遣 王子乎 吾答曰 王子年少 且於壬辰往北方 處事多乖 大失人心 爲土兵所執而降 國王論罪 遠謫未歸 今遣使臣 爵秩亦高矣 朝鮮畏日本 皆言 使臣若往則必殺之 或拘留不還 莫不厭避 此使臣獨以爲自古無殺 使臣之國 日本雖強 決無此事 自請以來矣 關白大笑曰 然則速見其使 與天使同時遣歸可也 即以筆定舘所 楊天使將舘于家康家 沈天使將舘于平秀家 朝鮮使臣將舘于賈賀秀家 預爲修理 又定相會之日矣 中間忽聽讒人之言 心變至此 今後關白已發怒 清正又贊助之 故大事不成 今夕行長謂長成曰 吾三四年力主此事 終不得成 吾寧刺腹而死 長成曰 何用如是 吾輩之心 亦可恨也 然不能言 極是鬱鬱 調信又曰 使臣必欲先通事情 若定送之人 則吾以輕船潛送 與沈天使相議 同時出往可也 愼曰吾受我國命 尙未傳國書 何可任意出去 調信曰關白初喜天使而發怒之後 亦使催歸 雖欲獨留 何可得乎 明日吾當陪使臣而往至釜山爾 自關白發怒之後 諸倭或言 關白將欲拘留使臣 或言到郎古耶幽囚 訛言日某 一行頗擾恂懼 <再造藩邦志卷四>

楊方亨沈惟敬等 來此時日本民窮兵疲 惟敬亦屬石星私就 行長執和議 欲回王子自立功 行長不知字 是故行長以封王二字 爲封秀吉于大明皇帝之意 勸秀吉旋師 如三奉行皆以爲是 實沈惟敬飛州等 知其不學而相欺也 行長嘗妬嫉清正執王而若久力戰 故與計秀長三成等 才弱敵強羣疑滿腹 欲班師 於是惟敬計行長乘勢獨步 期明主以秀吉請封日本國王 誑秀吉以許大明國王 秀吉不及深謀遠慮 乃令諸將徒回王子 空還所略之五都地 遣柳川調信 賜金銀雜物于册使 清正素有大志 將一擧攻戰 以行長主和卑之 意甚不平 故不服關白 與行長不相能 秀吉以楊方亨等 所賫來明帝璽書 令禪僧知漢字者讀之 聞以秀吉封日本國王事 大怒曰 我元自主日本 何假明帝書乎 乃擲璽書于地 再發兵征朝鮮 沈惟敬恐得罪于明 僞撰秀吉謝表 楊方亨直吐顚末也 惟敬行長同心爲奸所日本兵再起也 (又曰 關白忌清正世臣借兵事出之全慶間 清正記云 小西石田刎頸之交也 二人同心讒清正 秀吉大怒 將賜清正死 清正召在伏見城 會慶長元年七月十二日夜大地震 清正率二百人步卒 護伏見 自明無罪 秀吉遂免其罪歸采邑) <異稱日本傳, 海東繹史六十二>

沈惟敬到宜寧 使人邀平行長 行長單騎出來 議話而還 惟敬力言勿侵本國 行長曰我之心 天使已知之 清正等力主再擧 不聽吾言 爲之奈何云云 <亂中雜錄三, 丁酉二月條>

楊元令沈惟敬 馳往宜寧 見行長議和 因探賊情 惟敬發向嶺南 孫侍郎差官即日到南原 問惟敬去處 楊元以實告之 即與差官同向咸安 二十七日(丁酉六月) 到宜寧 拿惟敬而還
<同上>

天子命經略 掩捕沈惟敬 經略謬爲慰藉而欲潛圖之 以屬楊元 先假更換撤營兵 以掎惟敬所在 及倭兵下陸漸移向內地 惟敬益懼 又聞石司馬罷而大兵又出 乃以兵赴宜寧 爲欲會行長之說 暗欲走倭而平調信果以五百人來迎 楊元聞之 旣以單騎入丹溪 襲執惟敬 機送天朝 惟敬以厚貨賂山東按察使蕭應宮 冀上本救已 應

宮乃以書抵軍門 經理以爲 惟敬可保無他 將草上奏 邢軍門大恠 以應宮乃書奏之 應宮遣軍門贊畫楊位丁應泰 極力救解……中略……遼東巡按御史聞之 忝應削職回籍 下惟敬錦衣衛獄 天子又命下尙書石星于獄……中略……初惟敬本一無賴 星誤中其游說 借款息兵 意雖爲國馬堅于持議 遂讋通國之言 藉口省餉 盡撤戍兵 欲倚小人成功難矣哉……以下略……

<再造藩邦志 卷四>

百六十二，加藤清正

壬辰六月 倭將淸正 長驅寇北 兵馬節度使韓克誠 欲守磨天嶺以保關北 軍潰而走 賊遂入吉明鏡富等鎭 入會寧擄王子 從渡江攻掠老土部落 還由鍾城門岩渡江 歷入穩城慶源慶興取沿海路 還赴鏡城 於是鎭堡叛兵爭縛守將 擧城附賊 鏡城則寺奴鞠世必 爲酋受倭署 置有官號 聲勢尤張 八月淸正使一偏將分領千步兵據吉州以摠攝諸鎭 身歸南道 北靑安邊各置重兵以爲聲援

<北關誌 鏡城府>

庚寅來 壬辰禦倭嶺東 軍潰被擄 到楊州逃來朝廷將原之 尋賜死　<北關誌 鏡城官案條>

太師言大明之兵沓至 是我所愿也 朝鮮弱兵而無向我敵也 對大明之兵 快作一戰則 朝鮮國者 不足言 大明北京燒却之 不可回首 幸又幸也 餘不具

<答松雲大師書>

二子寄書于淸正臣加藤右馬允謝淸正曰「兩王子臨海君順和君兩府夫人陪官長溪君上洛君行護軍大將南兵使等 自壬辰年七月二十四日被擒日本大將軍主計頭淸正 入城相見即加禮遇一行下人幷給衣糧撫恤頗至 又禀關白殿下到釜山浦 還許放還京城 其慈悲如佛 眞個日本中好人也 況素聞關白殿下雄傑無比四隣皆畏之且善於分別 待隣國王子諸官 稍存舊意 愍其渡海 使復于京 其恩厚與此海俱深 一行之人其敢或忘 後日若對日本主計頭 復發雜談少有背負之意非人情也 天地鬼神共罰之矣 修好之日通書寄情事 初淸正擒二王子時令其臣九鬼廣隆護衛 至是臨海君手書與之 曰相過之後凡百之事力達大將軍 不爲渡日本而還京極甚可喜我還京之後 九鬼四郞兵衛之恩多報平生 亦永世不忘

<王子手記 眞跡搨本>

二王子復贈書于直茂謝之　<鎭西要略>

此月 朝鮮禮曹司李榮春尹起辛等 贈書于秀吉謝淸正禮遇二王子曰 竊以交隣惟道自古有之無故動兵稽舊無之 貴邦以有易無 是可忍孰不可忍也 若彼哉彼哉而退之道外則必失玉石之別 時哉時哉而視秦之肥瘠則恐傷漂母之恩 故差遣使价 以布一義 關白閣外所禦中主計淸正自壬辰歲踰境以來 不貪利欲不快庸雜 爲奔王事 實心丈夫之威 杖鉞鳥嶺之上 旗影飄拂烟雲 秣馬岳山之麓 嘶聲上徹中宵 覆道漢江之波 小西失信 席捲北狄之藪 煮山赤地 龜車蠢及晋城 諸將因之奏功不隨牧場山會 衆術互解神耶人耶 眞可謂男子中之男子 又於會寧致犯王子時 少無彼敵泛濫之忽 卑辭下己 謙恭俾禮 自整日域之風 山長驛路水遠釜山浦 終始如一 憐神龍之失水 憫寄胡之孤苦 使復京師廼全綱常之好 天耶數耶 眞可謂仁人君子中之君子也 以壯略武勇觀之則雖良平信噲 何足比肩 以克己復禮博愛寬洪 籌之則雖呑蛭割股之仁 何能及乎 若此非凡大有人員 不可以一視同隊魚 故越甲午夏 使畫者山之僧釋崴密投其陣 秘竊移繪淸正象容于絹 營作廟堂南大門外蓮池岸 掛幅位焉 以牲物祭奠生祠 臨海順和兩君親祝祭文 以黃庭琥柳源浩鄭應國各祿三千石宛復戶 公司任治 可一年春秋兩等 廣施永從留嚮 使後世撫劍疾視輕薄疎忽人之法則也 然欲檢玆影似與否 招岡本及平太夫等 使進參則右人等或悚怖驚駭納履而退 或棄佩劍曳腰帶而遁加藤君主自何日到此安然乎 我等昔者得責於前 罪人也云 汗出添背 僅僅懇懇然後知釋崴僧之手品也哉 閣下忿設醴酒 若疑斯文則馳使點檢亦明垂貴國忠臣名將錄 幸甚幸甚 照鑑考納 不勝惶忭之至」

<外國往來書>

是冬十二月 楊鎬以麻貴兵 進圍淸正克其外城

清正退守內城 樵汲道絶 詐約降以緩師 將十日大雨士馬凍餒多死 泗川釜山之賊來援 鎬恐腹背受敵 引兵而退 天朝招楊鎬還而更遣萬世德經理 又遣兵部侍郎邢玠 開軍門于京城
＜金時讓撰 紫海筆談＞

百六十三, 島津義弘

新寨兵將救泗川 義弘曰棄泗川兵固不忍也 然大軍尾敗兵而入城 城不可保 各守其營勿敢出 然義弘臣伊勢貞昌馳馬 護敗兵而入新寨
＜征伐記 秀吉譜＞

義弘謂諸臣曰 彼火望津欲乘騷擾而挫我似得謀矣 然如其涉河 當據永春昆陽而爲營 數遣輕兵于新寨 挑戰以察我虛實而後決戰 謀不出于此 燒永春昆陽 失其所據 野次暴露其無智亦甚矣 必其來戰是送死也 ＜征韓錄＞

明人果遣使于新寨曰 明日朔 董茅二將率十萬騎兵 將攻新寨以使告知 ＜島津家記＞

義弘忠恒登櫓指揮兵士 發銃矢 義弘亦親發銃東門互以銃矢爭 北門敵競進而城兵纔二千 義弘謂寨兵遂難永保城 下令曰殺出以決勝敗于一時 將開門 忽有赤白一狐 自城頭走入酣戰場 義弘自櫓上見曰此戰勝之祥也 城兵爲之彌競 後見一狐被傷死城外 一狐不知所之 義弘瘞之令僧誦經弔云 ＜島津家記＞

國器邦榮察我兵空城逐北謂乘虛陷城 其兵一萬許 旋旆將再攻城 島津忠長悟之 防敵兵手下兵纔不盈百 忠長令曰我兵逐北 無相援者而地濱大海 以寡敵衆 是我死所也 皆令下馬 短兵相接苦戰 明兵恃衆競進 圍之數重 寺山久兼謂 敵陣後必有步擔隷卒 擾之以試 竊分兵俄發矢銃 輿隷驚 前軍廻顧 忠長乘機奮戰 敵遂退 我兵益競追擊 ＜征韓錄＞

十七日 義弘將救行長等 與子忠恒及立花宗茂寺澤正成高橋直次議 先詣興善島 忠恒適病駐島將明日發 義弘分兵而發 夜詣順天泊舟于海岸 ＜征韓錄, 島津家記＞

明先鋒鄧子龍等襲順天 行長既去故將襲泗川

十八日黎明 朝霧溟濛 子龍船近義弘舟 兩軍互相驚 ＜島津家記＞

以鐵搭鉤我舟 拋火器于舟中 火發 我兵徙敵船 戰死五十四人 ＜島津家記＞

第2節 關係 義兵將

百六十四, 郭再祐

字季綏監司越之子 少從曺植學年四十餘棄擧子業釣魚自娛 壬辰之變杖劍首起揭號天降紅衣將軍固守鼎津斬馘甚多 賊頗畏之 不敢窺三嘉宜寧之間皆以爲再祐之功也 連拜星州晉州善山安東慶州尙州慶尙左右兵使或赴或辭 自靈巖宥還後永絶人事辟穀導引屢拜統制使咸鏡監司全羅兵使漢城府左尹皆辭謝不就…… 萬曆四十五年丁巳卒年六十六…… 再祐請繕修島山城以作必守之地朝廷不許 再祐上疏棄官歸靈巖郡 ＜朝野僉載卷之二十九, 庚子三十三年春二月慶尙左兵使在任時＞

再祐善以少擊多 應機合變 忠讜果敢 能得士心 撫士卒如家人 雖最下者皆得盡其情 號令嚴明 用法雖親不貸 壬辰之亂 扼江累捷 遮蔽湖南 大小數十餘戰 未嘗一首虜以邀賞 上特獎諭之 然國家任之不專 故未能盡其才氣 人以此惜之 後承召入京 名公賢士 皆願與之交所至都民聳觀 街巷塡咽 至是朝廷 招拜慶尙左兵使 再祐至則請大繕島山 朝議不許 再祐曰 不得識則可去 且見朝政日紊 不可有爲 遂抗疏棄鎭歸 臺官洪汝諄 劾以慢 遂謫靈岩 未久放還 再祐喟然歎曰 吾本宜寧一田夫 素無聞達之志 不幸値壬辰之亂 偶立尺寸功 以報國家 今寇亂已平 吾身已榮 吾可以止矣 自是連拜右尹 監司 統制使 而皆不就 入琵琶山 飧松辟穀 學道引 上累徵不起而卒 郭公當光海朝 疏救永昌大君 北奴初起 尹月汀 以爲再祐先朝名將 才略無雙 請召之付以邊事 光海從之 遣使特起之 公不起 其多有異事 世傳仙去云 ＜宣廟中興誌 卷六 戊戌＞

字季綏 號忘憂堂 壬亂首起義兵 名見華夷止左尹 肅宗朝追贈兵曹判書 賜諡忠翼公 與存齊先生同享禮淵院 有集刊行

<嶺南誌 玄風邑誌篇人物條>

壬辰八月 金沔駐居昌 以禦知禮金山之路 鄭仁弘屯星州 以當高靈陜川之路 郭再祐陣宜寧以備咸安昌寧靈山渡江之賊 右道一帶 賴以奠安 <趙慶男撰 亂中雜錄一>

壬辰六月中全羅監司稱號 倭自昌原直到咸安欲渡宜寧之鼎津 爲郭再祐所遏 即還金海

<同上>

陞郭再祐通政 爲星州牧使兼本道助防將(癸巳年八月) <同上>

玄風郭再祐 見德齡之來 亦率家奴及鄕曲豪傑盡散家財 以供軍費 固守鼎津 斬馘甚多 賊頗畏之 號紅衣將軍 賊之不得窺宜寧界者 人以爲再佑之功 <再造藩邦志二>

慶尙兵使郭再祐上 歸去疏 棄鎭歸家 命拿鞫再祐馳至京待命 下義禁府 論以誹訕 竄全羅道靈岩郡 <亂中雜錄四>

百六十五，金 沔

初金沔之起義也 先家僮七百以倡之 遠近爭應往來星州草溪陜川之間 多斬獲 民倚以安居 遂擢沔爲兵使 <寄齋史草壬辰日錄四>

倭兵自知禮入寇居昌 倭將乘銀轎 建三大旗鼓噪而至 金沔力戰却之 倭兵十餘人 又自錦山潛還嶺南 沔伏兵於知禮境 破走之

<宣廟中興誌同上>

百六十六， 高 敬 命

敬命子而順自號霽峯又稱苔軒長興人 能詩文有才壬子年二十司馬一等戊午文魁選湖堂以校理斥補外罷還沈屈下僚幾三十年 庚寅陞拜東萊府使翌年以非罪歸鄕里 至是首倡義兵徒以忠義激厲士衆深入險扼挺身當賊而死功雖未就義聲感人繼起者多……長子從厚文科縣令起兵誓復父讐與倡義使金千鎰入晋州城 城陷同死 因厚亦文科正字能文章從父死 女子爲士人盧尙龍妻丁酉之亂罵賊而死 忠孝義烈萃於一家

<朝野僉載卷之二十七>

七月庚申 公遂移兵珍山 將擊錦山之賊 銳士就募者愈衆 軍聲益振 丙寅遂部分將士入錦山與防禦使郭嶸 爲左右翼 公先遣精騎數百 直趨賊巢 爲賊所乘而退 公鳴鼓督戰 士皆殊死戰 還蹙賊兵于土城 焚城外舘舍 又以礮延爇城內 聲勢甚壯 賊冒死突出 義軍四面攻圍 賊多死傷不敢出 會日暮 官軍又不肯助戰 土城厚完不可猝拔 乃退師還陣 是夕防禦使 遣人約以明日合戰 公之長子從厚 言于公曰 今日我軍得利 持此勝勢全軍而返 可相機更出以困賊 與賊對壘野宿 或虞夜驚 公曰 爾以父子之情 畏我死乎 吾爲國一死職耳 是夜賊果謀犯竊出設伏 爲卒所覺 翌日丁卯 公與防禦使進兵 公去賊五里許止陣 與防禦使相望 公遣八百餘騎 挑戰未合 賊空壁而出 先犯官軍 防禦管下金聲憲 策馬先遁 賊薄光州興德兩陣 防禦陣 望風而潰 公爲獨當之計 令士皆持滿以待 人忽急呼曰 防禦軍潰矣 義軍仍而崩……以下略

<白洲集卷之十八 贈議政府左贊成霽峯高公諡狀>

皇明世宗皇帝嘉靖十二年(中宗二十八年)癸己十一月三十日生于光州 三十一年明宗七年壬子(公二十歲) 是歲中司馬兩試進士壯元

三十二年癸丑(公二十一歲) 春聘夫人蔚山金氏 副提學諱百鈞之女也

三十三年甲寅(公二十二歲)正月 子從厚生

三十七年戊午(公二十六歲)十月 中文科甲科第一人 上臨泮試士公居魁賜直赴殿試又擢第一，拜成均館典籍 移拜戶曹佐郞

三十八年己未(公二十七歲) 春拜世子侍講院司書承命祈雨

三十九年庚申(公二十八歲) 是歲中文臣廷試第一名 賜馬遷司諫院正言 夏移拜刑曹佐郞 選知製敎

四十年辛酉(公二十九歲) 春拜司諫院獻納 夏拜弘文舘修撰復拜獻納 移拜司憲府持平 閏五

月子因厚生 秋承命入侍 移拜弘文舘副修撰冬陞拜弘文舘副校理 奉使關西 十月承宣召入侍
四十一年壬戌(公三十歲) 正月十五日 入直玉堂 病遞授典籍 夏移拜修撰 尋陞副校理 九月二十四日泛舟東湖十月二十六日 承召入侍
四十二年癸亥(公三十一歲) 陞拜弘文舘校理 秋左遷典籍補蔚山郡守未赴遞還本第 時公爲當路所忌罷還鄕里惟探賾墳典或遊覽山水以自娛家食者十九年
四十四年乙丑(公三十三歲) 七月子遵厚生
四十五年丙寅(公三十四歲) 六月二十八日 明宗昇遐
三年己巳(公三十七歲) 二月子循厚生
神宗皇宗萬曆二年 宣祖七年甲戌 (公四十二歲)十一月子由厚生
五年 宣祖十年丁丑(公四十五歲) 正月子用厚生 子從厚登第
七年 宣祖十二年己卯(公四十七歲) 子因厚登司馬
九年 宣祖十四年辛巳(公四十九歲) 拜靈巖郡守 尋差辨誣使書狀官 移拜成均館直講兼司憲府持平
十年 宣祖十五年壬午(公五十歲) 春復命拜瑞山郡守 秋差遠接使從事官 移拜宗簿寺僉正 遷司贍寺僉正
十一年 宣祖十六年癸未(公五十一歲) 春拜漢城府庶尹 移拜韓山郡守 冬以文翰事拜禮曹正郎辭不 就徑還卿里
十二年 宣祖十七年甲申(公五十二歲) 夏拜宗籍寺僉正 移拜司僕寺僉正 冬拜司藝
十三年 宣祖十八年乙酉(公五十三歲) 春超三階拜軍資監正夏補淳昌郡守
十六年 戊子(公五十六歲) 夏遞淳昌
十七年 宣祖二十二年己丑(公五十七歲) 子因厚登第
十八年 宣祖二十三年庚寅(公五十八歲) 夏拜內贍寺正 移拜承文院判校知製敎兼春秋舘編修官 秋陞通政拜東萊府使
十九年 宣祖二十四年辛卯(公五十九歲) 夏遞東萊入京旋斥還鄕 時言者論松江以公爲鄭公所薦並斥 子循厚登司馬
二十年 宣祖二十五年壬辰(公六十歲) 五月二十二日公在本州村舍聞車駕播越日夜號哭使二子從厚因歲領本州散亡之卒 到水原戰所付於本州牧使丁公允祐而還
二十九日戊子 設壇于秋城舘焚香誓天北向再拜乃建義旗 衆推爲將 歃血同盟 學諭柳彭老幼學安瑛 學官梁大樸爲從事官 正字崔尙重 楊士衡幼學楊希廸等爲募糧有司 右道則推金千鎰爲大將 左道推公爲大將
六月初一日己丑檄道內
拜工曹參議知製敎兼招討使
六月十一日己亥 出師潭陽到泰仁 到全州會南原兵因移關本道列邑
六月二十日戊申 貽書體察使鄭公澈 陳倡義顚末
六月二十二日庚戌 自全州移軍進次礪山
二十七日乙卯 進軍次恩津
七月初一日戊午 進兵向連山 初五日壬戌移書于忠淸義兵將趙公憲 約以同濟荊江共討此賊
初九日丙寅 自珍山進軍入錦山 與防禦使郭嶸分爲左右翼
初十日丁卯 公殉節 麾下安瑛柳彭老亦從而死之次子因厚率勵武士 常爲前列 至是整其部伍誓欲復讐 竟又殉節
十月庚寅 返葬于和順縣黑土坪之原
上聞公父子殉節 命贈禮曹判書 後加贈議政府左贊成 次子因厚贈禮曹參議 後以其子傳川錄勳加贈議政府領議政諡毅烈(天啓 八年 贈諡忠烈公) 二十一年癸巳 長子從厚殉節于南江聞命贈都承旨後加贈吏曹判書 諡孝烈
二十九年辛丑 特命建祠于本州 長子從厚次子因厚月坡柳公彭老 淸溪安公瑛並享焉

<霽峯年譜>

百六十七, 趙 憲

公乃還公州 與巡察意又相左 盖起兵之初 公

移書責其擁兵自衛　無意勤王而抑忠臣義士之氣巡察嗛之　至是文移列邑 凡應募在公麾下者囚禁父母妻子　且下令官軍　使不相應援　麾下兵既集而還散　只有七百義士　願從公死生者而已　<懲毖錄卷一>

事聞當宁爲震悼　贈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舘事錄其子完堵泰陵參奉　月廩其家 嗚呼此可以觀君臣矣

<隱峰野史別錄, 再造藩邦志二>

五月二十一日　重峰分檄于湖嶺 召募義旅應者雲集而巡察使及列邑守令　以爲不利於官軍 多方沮撓　重峰乃往見巡察于公州 力言君臣大義巡察不得已勉從　數日之內　應募者近千人　安宗道之子世獻　素悖戾無行亂初多殺我國人 剪去頭髮作倭形以要功　重峰倡言其罪 世獻怨之乃說巡察曰　公擁一道兵馬而曾無尺寸功 趙某則奮起於放逐之中　先公着鞭　趙若得志則　必治公逗留之罪　竊爲公危之　巡察然其言　乃文移列邑　囚繫應募人父母妻子　又使靑陽縣監任純以率百餘人　劫義旅囚公州獄　純不從焉　以此既集者還散 重峰貽書巡察大責之　因往湖右招募　下籍於官軍者千百人　乃以八月一日直擣淸州　<安邦俊撰 隱峰野史別錄>

全羅義兵將高敬命深憤李洸逗留不臣之狀檄書之中昭數厥罪　募兵之際多聚官軍洸也以此嗛之　其擊錦山之賊　不啃添兵助戰防禦使郭嶸坐見　敬命力戰二日　不使其兵出救以致敬命無援而敗死　敬命與臣有約　同濟荊江期以共討此賊而典兵之官　實殺敬命　臣竊慟焉　臣以七月二十九日午濟荊江追懷敬命之言　有詩吊之曰

　東土貔貅百萬師　如何無術濟艱危

　荊江有約人何去　擊揖秋風獨渡時

臣以爲國有軍律則　洸嶸之罪皆可斬也　臣於忠淸巡察防禦皆有素交　故其擊淸賊之日　簡書相戒不一而足先覺李沃不至深怒而 其幕下裨將多發慫慂之言　至謂義將節制巡察與防禦進兵之際　屢使人促之而沃之裨將　相望不進　非臣鳴鼓進陣以促諸軍則　幾不免爲敬命之死矣 臣慣見湖西將驍卒惰之習　置而不責則 雖聚兵十歲決無泒復之理　<趙憲 重峰集卷八啓淸州破賊後狀啓, 別紙壬辰八月初一日>

倭酋秀吉　弑其主源氏　遣使來覘我國　擧朝無敢以斥絶爲言者 先生(趙憲)上疏曰　嗚呼臣逐其君　人倫之大變　天地之所不容　謀國者縱不能提戈往誅　其忍與交使　助其聲勢乎　仄聽　屢日未聞有倡義告絶之議　是可謂國有大臣乎 方伯亦不轉聞　先生徒步詣闕　並前未達之疏請以三事備訊而後許之　其一　大明一統　日本僭號不可不亟去也　二　我國鄕導反噬之人　不可不刷致也　三　彼奴無厭歲幣之數　不可不滅定也又論李山海之誤國不可不黜　上大怒　命焚其疏先生遂退歸　己丑夏　先生又持斧伏闕　極言朝廷得失…中略…是歲朝廷竟遣信使　秀吉亦送玄蘇等回謝　聲言　犬擧犯上國(明)　上下莫知所措　先生自沃川白衣詣闕 請斬虜使曰　臣竊料　今日安危成敗　只在呼吸　惟有斬虜使　飛奏天朝　分致肢于琉球諸國期使天下同怒以備此賊　若天朝疑我國與賊連謀　興師問罪　聖主將何以謝過臣民何以免死乎　假使不然謂我淪胥爲夷　堂堂禮義之國不亦羞辱之甚乎…下略

<文烈公趙憲神道碑>

夏四月　前縣監趙憲上萬言疏竄吉州 憲又持斧伏闕上疏請明聖學 省刑罰戒奢侈節嗜慾蠲租賦回極言朝廷　得失時人 欺君誤國黷軍害民之狀以爲將有劇盜内煽而外侮難禦　疏奏兩司交章請竄或以爲狂妄　或以爲陰險屢日連啓不允 後回副提學金宇顒之箚乃命配吉州嶺東驛

<朝野僉載卷之二十七>

擬上十六條疏(甲戌十一月)

一曰　格天之誠	九曰　飮食之節
二曰　追本之孝	十曰　餼廩之稱
三曰　陵寢之所	十一曰　生息之繁
四曰　祭祀之節	十二曰　卒伍之選
五曰　經筵之規	十三曰　操鍊之勤
六曰　視朝之儀	十四曰　城臺之固
七曰　聽言之道	十五曰　黜陟之明
八曰　取人之方	十六曰　命令之嚴

<重峯卷九疏>

大驚西幸 先生聞變痛哭 即往清州與李瑀李逢金敬白等 謀起義兵 時昇平日久 士民不識兵革皆蒼黃失措 不可收拾 先生乃還沃川 與門人金節金籥朴忠儉等 募得鄉兵數百 遮截報恩之車嶺 與賊相遇 幾爲所害 賴門徒力戰而却之……時巡察使尹先覺 與守土者 皆以病爲 兵民之可用者 多應義旅不利於官軍 多力沮撓之 先生乃與門人全承業等 欲西赴行在 歷見巡察于公州 力言君臣大義 巡察請先生 留與同事 數日之內 應募者近千人 有安世獻者 素悖惡無行 變初多殺我國人剪髮爲倭級 以要功 先生倡言其罪 世獻怨之 往說巡察曰 公擁一道兵曹 無尺寸之功而趙某則 奮起於放廢之中 先公着鞭 彼若得志 必治公逗留之罪 巡察然之乃移文列邑 因繫義兵之父母妻孥 又以青陽縣監任純以卒百餘 隸先生繫於公州 將加軍律 以此既集者還散 先生以書責之……巡察見書大不悅 先生以爲既忤主將 難可有爲 遂往湖右則 前參奉李光輪 士子張德盖 申蘭秀 高擎宇盧應晫等皆慕先生之義 相率而來招募其不籍於官軍者 遠近坌集 得千有六百餘人 建旗分部 巡撫定山温陽等地 以聲勢控制 人心大安遂自洪州直抵懷德……清州略…… 先生以爲然乃還公州 又與巡察議不合 盖巡察只欲沮先生之行而已 實無意於同事也 將士多被巡察所囚麾下稍稍散去 只有七百義士 願從之 先生慨然 以八月十六日 移向錦山……錦山略……

<尤菴集一百五十 重峯趙先生行狀>

憲久與門生等欲西赴行在 歷見監司于公州力言君臣大義 監司請憲留與同事數日之內應募者近千人 有安世獻者素悖惡無行 變初多殺我國人剪髮爲倭級以要功 憲倡言其罪 世獻怨之往說監司曰公擁一道兵 曾無尺寸之功而趙憲則奮起於放廢之中先公着鞭彼若得志必治公逗留之罪 監司然之乃行關列邑因緊義兵之父母妻孥 以此既集者還散 憲以書責之……監司見書大不悅…… <朝野僉載卷之二十七>

先生之始起兵也 行朝聞之下敎嘉賞拜奉常僉正而先生未及見及歿追贈 吏曹判書同知經筵義禁府春秋舘事并與完基旌表其居 錄完堵爲泰陵參奉月禀其家 光海之爲世子也 召見仲子完堤而賜食與布 遣從官致祭復役減租 甲辰 先王加贈先生及其考並爲吏曹判書後聽建書院賜額曰表忠俾祀于春秋夫人辛氏籍寧越郡通德郎世誠之女也 生一男即完基娶大護軍朴彪之女無后完堵完堤完培及女二人皆先生之側出也

<重峯集附錄二 附錄>

與延安申府使恪

第瞻熒惑久耀尾箕之分而移入南斗者 又將浹月 自古如此之歲未有兵塵之不作者也 惟令公浚濠完城 曉民以親上事長之義 期使常山截然難犯而隱然爲畿海保障 以慰上下之望幸甚幸甚 辛卯四月某日 憲拜 <重峯集卷九書>

趙憲徒步起義 鏖戰錦山 雖天不悔禍 大功不集 使國家不受忠義之報 然秉節而死 殉身無悔 又令烏合之衆 張空拳蹈白刃 向敵爭死 殺賊無數 使方張之虜 不能自立 燒營夜遁 以之保全兩湖 爲國根本 趙憲之功也

<牛溪集 卷三>

先生(趙憲)又與巡察(許頊)不合 外爲好言 實從沮之 知公決意勤王 見先生曰 吾始與公相歡也 今有細人之言 少不相能 吾已悔之 今則矢與公死生以之 今聞 錦山賊將侵軼兩湖 不如同討錦賊之議後者 然後勤王 未晩也 諸將佐亦言 先滅錦山諸賊 先生以爲然乃還公州 公之麾下 多被巡察所囚稍稍散去 只有七百義士願從先生 以八月十六日 移軍向錦山 或言 錦賊皆精銳 數且數 不可輕嘗大敵 先生泣誓曰君父安存 敢言利鈍 主辱臣死 吾知一死耳 遂與靈圭 聯兵以進 會與湖南巡察權慄 以十八日 齊聲協攻 權移書改期 而先生已抵錦郡之十重(地名, 延昆坪) 賊詗知兵無後繼 乘未備而逆之 先生令曰 今日只有一死 死生進退 無愧義字 士皆唯命 力戰良久 賊三北幾潰 我兵矢盡 無可爲 會日且入 吏士無人色 先生意氣若 督戰益急 賊悉銳攻之 遂入帳下 有褊裨數人欲脫先生 力請跳出 先生笑解馬鞍曰 此吾殉節地 大夫死則已 不可臨亂苟免 遂援鼓之 士

爭趨死 至張空弮相搏而猶不離次 七百人無一逃生者　　　　<文烈公趙憲神道碑>

百六十八，鄭　文　孚

北評事倡義起兵 誅土賊破倭冠 以克定關北 公乃以所率軍馬屬之以歸 三月除永興府使 乙未移穩城 丙申移吉州牧使 丁酉御史上公治行 賜表裏以褒之 移安邊府使 又移公州牧使 陞嘉善階 甲辰除長湍府使 庚戌以謝恩副使 朝京辛亥南原府使 壬子再牧吉州 戊午爲昌原府使 癸亥三月 仁祖大王御極 爲全州府尹 公以名出逆招被逮 請囚以實供 無異辭 公寃狀自白例當見原□詩案之禍又出矣 公寃在 昌原 公餘偶作詠史十絶 其詩曰「楚雖三戶亦秦亡 未必南公說得當 一入武關民望絶 孱孫何事又懷王」仍置之休紙軸 至是塗壁於廬幕 有一勳臣來訪 就壁熟視而去 傳播儕友間 臺官以詩意有指 啓請 鞫問 澤堂李公植浦渚趙公翼 時爲問事郎 言於委官曰 詩人詠史之作 非有深意何可爲罪也 力爭而不能得 終至栲死於獄中 即十一月十九日也 遠近聞者 莫不寃之

<農圃集卷之五 諡狀 禮曹判書閔鎭厚>

吉州人許珍 金國信 許大成亦聚兵爲聲援 當是時 淸正令偏將領精兵數千據吉州 身率大軍屯南關(安邊) 以護之 十一月遇賊于加坡將戰鄭公(文孚)部署諸將 見龍(鄭見龍)爲中衛將屯白塔(吉州南側) 應台(吳應台)及元忠恕爲伏兵將 分屯石城 毛會 韓仁濟爲左衛將 屯木柵 柳擎天爲右衛將 屯浧河(羅乙河) 金國信許珍爲左右斥候將 分屯臨溟(吉州南方六十一里)方峙 賊狃勝不甚備 諸軍幷起搶擊 乘銳蹙之 士無不疾呼登者 賊敗走 縱兵追之 殺其將五人 斬獲無數 盡奪其馬畜兵械 於是遠近響震將吏亡伏者 爭起應之 衆至七千餘人 賊收入吉州城 窘不敢動 列伏于旁遮邀其出輒剿之而已 城津賊大掠于臨溟 率輕騎襲之 筭山設伏伺其還夾擊 大破之 又斬數百人 遂剖其腹膓暴之大路 於是兵聲大振 賊益畏之 十二月又戰于雙浦(吉州南方七十八里)戰方合 偏將引鐵騎橫衝之 迅如風雨 賊失勢 不及交鋒皆散走 乘之又破之 明年(宣祖二十六年)正月 又戰于端川 三戰三勝 還屯吉州休士 旣而淸正知軍不利 遣大兵 退還吉州賊 孚軍尾擊至白塔大戰又破之 是役也 李鵬壽 許大成 李希唐戰死然賊遂退 不敢復北　　　　<北韓大捷碑>

鄭文孚年譜

明宗二十年二月十九日　生于漢師南部盤松坊南小洞第

宣祖二十一年戊子(先生二十四歲)　秋登明經科 金時獻榜下甲科第二人

二十二年己丑(二十五歲)二月　除承政院注書

四月　授弘文舘記事 七月　遞授承政院副正字 十月陞正字　十二月拜弘文舘修撰歷司諫院正言兼中學敎授

二十三年 庚寅(二十六歲) 拜知製敎，拜司憲府持平

二十四年 辛卯(二十七歲) 七月除咸鏡北道兵馬評事，九月巡行北道諸鎭

二十五年壬辰(二十八歲) 七月 先生遂謀擧義前監司李聖任亦在奔還中 窮尋往見 共謀倡義 衆潰而未就 八月 先生從間道脫身 南歸行至龍城 投巫人韓仁侃家 居數日遇崔配天池達源等同至鏡城漁郞里 李鵬壽家 因與雯謀擧義

先生讓主盟於鄭見龍(鍾城府使) 見龍固辭 士卒亦願屬先生 於是先生爲大將 鄭見龍爲副將李鵬壽爲別將 姜文佑爲斥候將 九月 十六日 先生率義兵入守鏡城 九月 十九日進擊吉州留屯倭賊大破之 二十日 啓聞于行朝 九月 二十八日 再檄于州郡 十月 十四日 擊斬叛賊鞠景仁 鄭末秀等 即馳啓聞于行朝 先生移之會寧 諭景仁來降 景仁不從 與吉州倭將協攻鏡城 會寧儒生吳允廸 都訓導申世俊等擊斬景仁及其黨六人 獻馘軍門 明川人又團結子弟攻末秀 以應先生 反爲賊所敗 先生潛遣吾村權管具滉及姜文佑 率精騎六十餘 晝夜并行 猝入明川 末秀駭惶

棄城走 文佑等追擒斬之 繼誅叛賊鞠世弼 啓聞于行朝 十月 二十一日 遂率三衛兵 進次明川 十月 三十日 明川賊與吉州賊 合勢四世出 大掠 先生分付諸將進擊大破之 斬其大將直正都關汝文等斬首八百餘級 大獲軍裝 十二月 二十五日 擊破吉州臨溟倭 賊搜誅六鎭叛亂黨 以評事本職 巡行北邊 招服藩胡

二十六年 癸巳(二十九歲) 正月 初九日 朝廷賞先生斬世弼 陞通政階 十五日 進軍擊破野人藩胡 二月 初一日 又大破清正于白塔郊 清正撤其衆 乘夜逃遁 關北悉平 四月以兵馬屬兵使歸覲判書公于靑松住所

二十七年 甲午(三十歲) 三月除永興府使

二十八年 乙未(三十一歲) 六月 移穩城府使

二十九年 丙申(三十二歲) 三月 移拜吉州牧使

三十年 丁酉(三十三歲) 御史柳寅吉 表上 先生治行 賜表裏以褒之 八月 移安邊府使 十一月 移拜公州牧使

三十一年 十一月 遞還

三十二年 己亥(三十五歲) 拜掌隷院判決事，拜戶曹參議 中文科重試壯元

三十三年 庚子(三十六歲) 遞付龍驤衛副護軍

三十四年 辛丑(三十七歲) 陞嘉善階 特命加資拜禮曹參判

三十六年 癸卯(三十九歲) 拜中樞府同知

三十七年 八月 判書公憂

三十八年 乙巳 居廬于墓側

四十年 丁未(四十三歲) 二月除長湍府使

四十一年 戊申(四十四歲) 宣祖昇遐，拜安州牧使

光海君 四十三年 庚戌(四十六歲) 以謝恩副使朝京

四十四年 辛亥(四十七歲)六月 除南原府使

四十五年 壬子(四十八歲) 拜刑曹參判不就 請求外邑以爲便養，三月 再牧吉州

四十六年 癸丑(四十九歲) 春自吉州棄官歸家

四十八年 乙卯(五十一歲)六月 除副總管旋拜兵曹參判 皆不就

四十九年 丙辰(五十二歲) 在松山楸下

時有權臣欲引爲己援 來訪先生而諷之曰 公之貧苦令人傷心 其何以自遣 先生即應曰吾將帶弓矢 入深山射猛虎以資生 匪分富貴 非吾願也 其人慚而去

五十年 丁巳(五十三歲) 四月 以前職有徵命而又不就 六月 不參廢母廷請議

五十一年 戊午(五十四歲) 二月 又有徵命而不就，九月 爲凶黨所擠斥 補昌原府使，十月赴任

五十三年 庚申(五十六歲) 九月遞還

先生持身清約 見世之貪利嗜貨者 常唾鄙之平生未嘗爲經營產業計 其罷官而歸 行李蕭然 至家之日亦不免假貸而爲食 時先生在官而長子執義公 南下省覲 先生不許乘官馬 執義公氷霜千里 跋涉間關 家法之清嚴如此

仁祖大王元年(五十九歲) 四月 除全州府尹

州有姦儈 交通權貴 多貸官貨久而不償 先生嚴囚以徵 朴炡爲姦儈以求解 至於一旬三抵書而先生終不聽 督刷乃已 朴大啣之

二年 甲子(六十歲) 正月 賊适反 上命起 復先生爲副摠管 先生病欲不得進 上將幸公山 命起復先生 先生舁疾追到龍仁面陳 賊勢非久討平之狀而腫勢加劇 不得運身 未參執靮之列 先生深爲痛恨 俄而賊平

十月 被逮繫獄

時朴來章等 謀不軌 私相議曰 鄭某有文武材 可合大將聞醫人李大儉 以治腫往來其家可使大儉言及云云 及事覺 此言出於賊 招先生被逮 與大儉面質大儉曰 此言果聞於來章等而 一番治腫下鍼之醫 安得發此言於分疎之宰臣乎 鄭某實不聞此言 於是先生寃狀自白 將見釋而臺論詩案之禍繼發

先生嘗在昌原 公餘有詠史十絶 其一乃楚懷王事也 詩曰……略……

一時暢詠之作 置諸亂稿中 居憂時此作同入於休紙背帖壁間矣 一日勳臣崔來吉來訪先生 坐久因見其詩 就面熟視而去 傳播儕友間 至是臺官朴炡尹暄 以詩意有指 啓請鞫

問時 澤堂李公植 浦渚趙公翼爲問事郞 言於委官曰 此乃詩人詠史之作 且無包藏底意 何可以此詩罪此人乎 力爭而不能得 先生竟未免梧棘之寃

十一月 十九日卒

(盖來吉與先生長男 執義公 同爲益城君女婿 來吉回譎輕躁 與執義公器局懸殊益城君於來吉待之不無疎厚 來吉積憾久矣)

<農圃集附錄年譜>

百六十九, 金 千 鎰

賊盤據嶺海 將西窺湖南 諸軍多左次 以避其鋒 公謂湖南 國之根本而晋州爲湖南之蔽 請守晋以捍湖南 不待報而入于州 州倉殘甚 城池器械無可恃者 公與節度使崔慶會 黃進 復讐將高從厚 義兵將張允等 約以死守 居數日 賊遊兵已至城東 公出精銳 擊却之 無何賊大至 環城列柵 步騎直薄城門 公令輕弩射之 賊不得近 乃編竹木爲櫓盾 中列砲穴 以攻城 我師亦隨機應之 賊又爲土山 山上起屋 以瞰城中 砲丸雨下 公亦於城中對築土山 發火砲 擊碎賊山上屋 賊將數人 會城東山頂 公覘知之 密發砲中第二坐者伏地 公素病脚 不能行 肩輿行城晝夜不小休 手糜以哺守堞士 士皆感厲 益致死初酋秀吉 憤諸酋賊皆無功 爲使責讓 諸將必欲屠一名都以取賞 故是役也 城久不下 賊死者過當 而猶不退 會久雨 城土融善崩 大將黃進張允 中丸先後死 城中奪氣 賊益添兵 急攻城 呼聲動天地 肉薄爭登 城中矢石俱盡 徒以竹木刺擊 賊乘勝闌入 城遂陷 公在矗石樓上 左右皆奔潰惟長子象乾 及幕下梁山璹等 褊裨親兵僅十人 在公側不去 泣且呼曰 事去矣 將奈何 公怡然曰 起事之日 吾已斷吾死矣 但爾曹可憐耳 遂起北向拜 先投兵器水中 與子象乾 赴樓下潭水 將佐從死者 不可勝紀

<倡義使金公碑>

當晋州之急 千鎰以義兵將適在道內 時無上將傳令指揮之事 以二十四日獨領三百家先入城然後黃進崔慶會高從厚張潤李繼璉閔汝雲等聞風次第入城 此其一難也 及宜居怡洪季男二人最後入城 以爲賊衆我寡不如退守內面 二將素有慣戰之名而其言如此 諸將咸以爲然而千鎰於座中抗言止之 遂定守城之計 居怡季男獨自出陣于雲峰 此二人身統官軍進止有節制然出城而無禁千鎰以義將 進止任意 獨不能出城自全乎而乃能如此 此其二難也 城陷之日 李宗仁守東門而死 軍中大亂 徐禮元驚走賊登 城將迫 左右扶起千鎰勸使暫避 千鎰堅坐不起 顧謂其子象乾曰當死於此 竟如其言 此其三難也

<李恒福 白沙集卷之十三>

是役也 城久不下 賊死者過當而猶不退 會久雨城土融善崩 大將黃進張允 中丸先後死 城中奪氣 賊益添兵急攻城 呼聲震天地 肉薄爭登城中矢石俱盡 徒以竹木刺擊 賊乘勝闌入 城遂陷公在矗石樓上 左右皆奔潰 惟長子象乾及幕下梁山璹等 褊裨親兵僅十人在公側不去 泣且呼曰 事去矣 將奈何 公怡然曰 起事之日吾已斷吾死矣 但爾曹可憐耳 遂起北向拜 先投兵器水中 與子象乾相抱赴樓下潭水 將佐從死者不可勝紀

<谿谷集卷十三 倡義使金公旌烈祠碑>

金千鎰起義兵而至 大破賊悍 避難亂士族奈相賀 民之頑障者 稍稍慴伏 守令以此稍行號令自是之後 亦有起義兵而殺賊者 民知有國 國勢稍振 皆千鎰倡義之功也 道路之傳 雖曰過實首事之功不可誣也 又移兵入江華以保天險 使行朝之命 達於兩湖 道路流通 亦千鎰之功也晋州之陷赴水死之 守死之節 無愧古人矣

<牛溪集 卷三>

百七十, 金 德 齡

時皇朝遣沈維敬 議倭封貢 朝廷止公毋進 公因留山陰或居昌 後以豆峙伏兵將移兵晋州 屢請出戰而朝廷不許 忌之者又百端沮撓 公知大功不成 將有禍患感憤成疾 日飮酒消憂 時公弟德普除服從公軍 公謂德普曰 汝若有我之勇 我若汝之智 身可免而功可立矣

初軍中有一二吏卒犯罪公重杖之 因傷而死 猜嫉者乘此構誣 謂公起兵三年 未建寸功 徒事殘酷多殺無辜 都體察使令晋州官逮囚 仍啓于朝 至是宣傳官下來 拿致禁府 公在獄中 上宰相書自訟 又有上疏訟冤 大臣鄭公琢亦力救 上引見慰諭 賜御廐馬命還陣

<金忠壯公遺事卷二 年譜>

時忠淸兵使李時言 慶尙右兵使金應瑞等尤忌公 欲殺之 會逆變起 時言分遣其腹心十餘人 傳播訛言於道路 以公爲逆黨謀主 使人心疑懼 時言又移書 朝著間士大夫言公有叛狀 其書轉入闕內 上大驚 欲下拿命則 恐其亡叛 先以密旨諭都元帥權慄 晋州牧使成允文設謀捕送 未幾時言密啓至 上問諸大臣曰 德齡能飛行空中云何以渻乎 承旨徐公渻曰 德齡萬無叛理 一武士足以械來 上曰汝何易言也 即命渻親往逮捕 前日被拿時 公所乘馬不食數日 至是其馬又不食十餘日 公心甚憂之 允文旣得密旨以書請公曰 切有面議事 可即馳來 公曰此必朝廷有命捕我也 促馬而進 允文與諸將同坐迎公 入以密旨示公 公免冠下階俯伏 諸將不忍執縛 相顧默然 公謂允文曰 德齡虛名過實 致有此禍 若不嚴具器械 令公亦必得罪 滿座揮涕 乃械繫以送 至雲峯與渻相遇 渻遂監押以來 時言恐其獄事不成 又陰嗾逆黨二人援引公 鄭相與金相應南又力救 鄭相則至於草救解啓辭以示鞫廳 金相曰此辭至當 請聯名入啓 柳相不答 鄭相乃袖草而退 自是無敢復爲公言者 遂加嚴刑死於獄中 知與不知 莫不痛惜 後李知事廷馣上疏訟冤請贈不報

<金忠壯公遺事卷三 安牛山集三 冤記事>

上問諸大臣曰 德齡何以處之 諸大臣皆曰可赦 惟柳相不對 上問卿何無一言耶 柳相對曰 此後萬一有不虞之變 縱而還擒臣未之思也 遂加嚴刑一日二次 連四日八次而死……德齡起兵後以南原居 崔聃齡爲有勇力 強起之 及德齡被拿聃齡亦繫獄 德齡死 柳相啓曰 崔聃齡處心行事爲國忠誠 非德齡之比 請以其軍付聃齡 上許之 聃齡上疏曰 德齡欲示威敵國 以臣稱爲將軍 留置軍中而已 臣實無勇 設使臣勇力過於德齡德齡旣以叛逆而死則 逆賊之軍臣 何敢用之 固辭而還 自是以後 南中之人 父戒其子 兄勗其弟 視義兵如豺虎毒藥 是以丁酉之亂 順天居金大仁倡義討賊 有識之士皆不附 所募者惟賤隸之徒 僅五百餘人 後大仁亦死於獄

<金忠壯公遺事卷三 實記>

德齡被拿 冤之者衆 當路皆忌 無一救者 時有飛語 德齡殺人如麻 又叛形已具 不誅必有後患 且囑羅卒使之速殺 凡二十餘日 刑訊六次 脛骨已絶 尙能膝行 終杖肫脾猶存軀灸 動止如常 從容納供曰 臣若有異志 豈於當初承元帥之令 來 雲峰 又承令領軍還鎭乎 但有萬死罔赦之罪 癸巳歲 慈母終堂 忘三年之哀 憤一天之讐 割情變服杖劍倔起屢歲 終未建寸功 不伸於忠 反屈於孝 罪至於此 萬死難逭 區區寸忱天地鑑臨 臣今已矣 夫復何言 但言勿殺無辜崔聃齡竟死獄中

<昭代紀年卷之十三 宣祖朝 六>

金德齡者 光州校生也 有勇力自稱遁甲 李貴信之薦于撫軍司曰 解捕逐龍虎 飛走空中 智如孔明勇過關羽 世子召見獎勵 拜翼虎將軍 宣祖命改其號曰超乘將軍 於是一國聳動以爲神將 德齡亦自信不讓 其實使酒枉法不可用也 對賊壘二年無寸功 卒以虛名夢鶴之黨所引考死 亦自取之禍也

賊黨引德齡也 上大驚 即辟左右與諸大臣議曰 德齡勇冠三軍 且有親兵 如不就捕則奈何 柳西厓對曰必不敢拒命 徐渻新自嶺南來 必知事情問之 渻對曰臣久在南州 視其所爲 妄庸人也請雖有勇力亦非絶人 大失物情 親兵皆懷異心 雖欲拒命亦不能也 上曰爾能捕之耶 對曰如使逃匿 臣不能捕 不然捕之易如反掌也 上危之 西厓曰渻何敢於天威咫尺之下 大言無當乎 臣保其言可必用也 渻曰韓明璉方在嶺南 亦驍果使明璉圖之而以金應瑞降倭五十人助之 德齡何敢枝梧 以臣計之 德齡必拱手就擒 必不至此於是上命渻乘急傳往捕之 行到全州 則都元帥權慄已囚于晋州矣 慄亦慮其拒命 密使成潤文

之 潤文密請德齡議軍務　德齡不覺　以單騎來坐旣定 潤文就執其手曰 朝命捕君 德齡即跪曰上有命 何至如是願反接我　潤文哀其寃不忍但鎖其兩手送于獄 渻聞德齡已就囚　狀聞于朝曰權慄使德齡討夢鶴 則四日遲留觀望成敗　故囚之 其八字遂爲德齡之 斷案而不得免 人皆咎之

<金時讓撰 紫海筆談>

幼學金德齡聚軍潭陽　得數千餘名　稟令於元帥權慄　以超乘軍使爲章標　德齡又自標褊裨曰赴節師　牙兵曰捷平旅　下吏曰信牒　德齡光州人少有起乘之名　至是臨喪起復

<趙慶男撰 亂中雜錄 卷二>

朝廷因李廷馥狀啓 賜金德齡翼虎將軍號

<同上>

元帥權慄因駐陜川　令僧義將僉知處英修築南原蛟龍山城 英自宜寧領兵出來　留鎭而修之

<同上>

遣宣傳官宣諭金德齡　又賜忠勇軍號

<同上 甲午正月>

忠勇軍金德齡 拜東宮于全州　邸下親御北亭令試其勇 德齡鎧甲馳馬　即還潭陽　<同上>

二十二日(萬曆二十二年正月)　金德齡自潭陽軍到淳昌　翌日到南原　留陣廣寒樓　日日調兵觀者甚多 南原幼學崔聃齡爲別將(聃齡少有將軍之虛稱)　<趙慶男撰 同上>

金德齡屯守晋州 役其兵太設屯田事　元帥又以全州出身全屬之命　罷諸道義兵　盡屬于忠勇軍全羅監司移關云 朝廷已罷各道義兵　本道左右兵亦罷　自餘義兵等　不可因存以長弊習　敵愾義兵將(邊士貞)年滿七十老病之人　經年赴戰其功甚多 因定南原蛟龍山城守禦將　因率兵入守事云云 時處英已畢修城之役　<同上>

金德齡 年譜

宣祖元年 戊辰 十二月 二十九日　公生于光州石底村

萬曆 十五年　丁亥(公二十歲)　受業于牛溪成先生

二十年 七月　公伯氏(德弘)　與高霽峰敬命同殉錦山

二十一年 癸巳(公二十六歲)八月　丁潘夫人憂十一月以墨縗起義傳檄 十二月上遣使　賜軍號忠勇 都元帥權慄標公所領軍曰　超乘　公又自標偏裨曰 赴節帥牙兵曰 捷平旅 下吏曰信牒　光海分朝駐全州 聞公起兵 召見之賜號曰 翼虎將軍

二十二　年 甲午(公二十七歲) 正月初六日 發路文移檄嶺南 二十三日 引兵到南原留陣 以崔聃齡爲別將　四月進屯晋州　上特命罷諸道義兵　盡屬忠勇軍

二十三年　己未(公二十八歲)　大殲倭兵於鼎巖下　還屯晋州　屢請戰于朝　不獲命　十月 初八日 被逮已而得釋

二十四年 丙申(公二十九歲)　七月被拿鞫八月二十一日　公卒于獄

二十五年 丁酉　夫人李氏殉節於秋月山

顯宗大王二年　特命伸雪……領中樞李景奭,左議政沈之源,　右議政元斗杓,　判中樞鄭維城,判府事鄭太和

九年　戊申　贈兵曹參議,　以工參判李端夏疏陳其寃也

肅宗 七年 四月 二十四日　加贈兵曹判書 賜院(碧津書院)額義烈 遣官賜祭

一百五十八年 己巳九月初八日　上特命議諡贈公兄學生德弘持平　弟別提德善執義

一百六十一年 戊申 四月　初七日　特命公昆弟並享義烈祠

十月 二十九日　賜諡忠壯賜祭

十一月　十七日　特命立石表其里

一百六十二年 己酉正月十四日　加贈左贊成四月 初九日　特命別定主祀不絶香火

<金忠壯公遺事 卷二年譜>

百七十一, 釋　休　靜

賊陷三京 車駕西狩龍灣　休靜伏劍迎謁道左上諭之曰 國事棘矣 爾能發慈悲普濟耶 休靜泣而拜曰 臣老病不堪從戎 臣之弟子散在諸路 謹當激倡義旅　山中緇徒當令在地焚修以祈神助

上義之 即命爲八道十六宗摠攝 諭方岳任其號召 於是惟政率七百餘僧起關東 處英率一千餘僧起湖南 休靜率門徒及自募僧一千五百 合五千餘名 會于順安法興寺 官給兵仗軍糧 休靜指揮號令 扼賊咽喉以應天兵 緇徒莫不感憤願死 遂與天兵爲後先以助聲勢 戰牧丹峯下 斬獲甚多 癸巳正月又與天兵 大破賊於平壤城北 賊捲甲宵遁 三京皆復

<洪良浩著 海東明將傳 卷之五>

前略…壬辰大駕西幸龍灣 師即杖劍進謁 宣廟敎曰 世難如此 爾可弘濟耶 師泣而拜命請曰 國內緇徒之老痛不任行伍者臣令在地焚修 以祈神助 其餘臣皆統率悉赴軍 前以效忠赤 宣廟義之 命爲八道十六宗都摠攝諭方岳禮遇之 於是松雲率七百餘僧 起關東 處英率二千餘僧起湖南 師率門徒及自募僧一千五百合五千餘名會于順安法興寺 與天兵爲後先以助聲勢 戰牡丹峰斬獲甚多天兵遂克平壤 復松都 京城賊 宵遁師以勇士百人迎大駕還京都 天朝提督李如松 送帖嘉奬有爲國討賊 忠誠貫日 不勝敬仰之語題詩贈曰 無意圖功利專心學道禪今聞王事急摠攝下山巔 諸將官爭先送帖 贈遺賊退師啓曰 臣年垂八十 筋力盡矣 請以軍事屬於弟子惟政及處英 臣願納摠攝印 還香山舊棲 宣廟嘉其志 憫其老 賜號國一都大禪師禪敎都摠攝扶宗樹敎普濟登階尊者 自是義益高 名益重 道益尊 遝來於頭流楓岳妙香諸山弟子千餘人 名可名者七十餘人 甲辰正月二十三日 會弟子於妙香圓寂菴 焚香說法 取自家影幀書于其背曰 八十年前渠是我 八十年後我是渠 作書附松雲訖 趺坐而逝 年八十五 法臘六十四 異香滿室三七日……以下略…… <淮陽清虛堂休靜大師碑 李廷龜撰 申翊聖 書竝篆>

休靜字玄應自號清虛子 以多在香山故又號西山 俗姓完山崔氏 名汝信 外祖縣尹金禹 得罪燕山朝 謫居安陵 遂爲安州人 父世昌鄕擧爲箕子殿參奉 不就 詩酒自娛 母金氏老無子 一日夢一婆來曰 胚胎丈夫子 故爲駒孾來賀云明年庚辰三月 果誕師 作詩(登香爐峰)

萬國都城如蟻垤 千家豪傑若醯鷄
一窓明月清虛枕 無恨松風韻不齊

<洪良浩著 海東明將傳卷之五>

當是時也 擧國逃難 如魚在鼎 禪門緇流 亦皆奔走 於是 有清虛禪師休靜者 起於妙香山中僧尼所尊稱西山大師者也 僧姓崔氏 其先完山人 行高律嚴 淹貫釋典 又能詞翰 編交朝中士大夫 其高弟上足 遍滿一國 至是糾率門徒一千五百人 伏劍上謁於行在 上謂之曰 國難如此 爾未可弘濟耶師泣且拜曰 國內緇徒之老病 不任行者 臣已令所在之地 焚修以祈神助 其餘臣皆召募以來 欲赴軍前 臣等雖非人類 生於國內荷聖上恩育 何惜一死 願效忠赤 上大嘉 命賜一國都大禪師八道禪敎都摠攝扶宗樹敎普濟登階尊者之號 乃率其衆 屯于順安伏興寺 傳檄八路寺刹 健禿勇衲 莫不來赴 休靜高弟處英 起於智異山 來赴權慄幕下 惟政起於金剛山 惟政號松雲 又號四溟山人 容貌魁傑 留髥不去 性度恢曠且通內典 是時在表訓寺 講徒賊兵入山中 寺僧皆走 惟政獨趺坐不動 賊見之不敢逼 或合掌致敬而去 及勤王敎書 休靜檄文至山中 惟政乃展之佛卓上 呼諸僧讀之流涕淋漓 曉喩之 悉起山中之僧 七百餘人 西赴勤王 比至平壤 衆千餘人 屯城東 與順安之軍作爲聲援 <再造藩邦志 卷二>

百七十二, 釋 惟 政

祭松雲文

惟松雲大師禪聯胤胄鸞翥風神燒木佛於霜天不縛禪寂戱墨卷於雪竇久嚼詩腴誰知急病而讓夷有能出家而徇國千峯獨鳥界擲孤錫而誓徒八霜戎馬場仗尺鍛而嘗敵每憶風餐露宿之夕慣聽懸河注海之談 偉哉 奮緇流之首而楊其名至於闢武夫之口而奪之氣 重入賊窟則讋悍啻於片言一涉海航則伏殊域於玄敎是驗全稟之有養每令厚祿而無顏紫陽與磐山精神會形骸之外

<漢陰集卷 十二雜著>

送松雲赴日本

紛紛蛙坎自爲多　誰識搏風九萬餘
道可適幾心要細　言能驚俗氣須和
此間有周無人會　難處輸君與世諍
記得老師廻棹日　盡傳殊域伏降魔

<李德馨 漢陰集 卷二>

又有僧人惟政 在金剛山表訓寺 賊入山中 寺僧皆走 惟政不動 賊不敢逼 或合掌致敬而去 余在安州 移文四方 使各起兵赴難 文至山中 惟政展佛卓上 呼諸僧讀之流涕 遂起僧軍 西赴勤王 比至平壤 衆千餘人 屯平壤城東 與順安軍作爲形勢　<懲毖錄一 (四〇面)>

第3節　關係 文臣

百七十三，尹 斗 壽

平調信玄蘇等 持書契自回 朝廷自是乃覺賊情殊異 自上引諸臣問計 兵曹判書黃廷彧對曰 賊之兇謀已露 必須熟講禦寇之道 大司憲尹斗壽亦未退 請並召問 尹斗壽進曰 事係上國 機關甚重 殿下至誠事大 天日上 豈可容隱 臣終始以爲奏聞便當 廷彧曰 計無出此者 尹斗壽之言是矣 臣亦以爲奏聞當 領議政李山海曰 兩人之言雖好 第恐皇朝罪我私通倭奴 不如諱之 右議政柳成龍曰 因事往來 隣邦有國之所不免 有事則陳奏 何害於義 但凡事不思而行之 恐未免疎漏矣 領相之言是也 斗壽曰 君臣父子之間 何事不達 凡事必須直陳無諱 然後可無後日之責矣 他不可計 因旁引經義 爭之甚確 上曰 都憲有計慮 故雖非當與密議者 予許之矣 卿言是也 竟用其議 遂因聖節使金應南之行 具奏倭情　<再造藩邦志 卷一>

七月(二十三年二月二十八日)平秀吉 執送叛民賊倭 秀吉保平調信 縛獻叛民沙火同及犯境倭人緊時要羅 三甫羅 望古時羅 三ロ曰入寇之事 我所知 上御仁政殿受之 命斬於城外 賞義智等 於是頒敎中外 中外進賀 以爲無憂 議遣通信使 上命諸臣議否可 諸臣皆以爲通信可 獨李山甫以爲不可 尹斗壽以爲奏聞天朝然後可遣 李山海柳成龍 力以主通信之議 成龍以爲速定議回謝 勿致生釁可也 邊將邊協亦曰遣使報答 且詷彼中動靜 非失計也 通信之議遂決

<宣廟中興誌 卷一 萬曆十七年條>

上思尹斗壽之言 特命放釋 馹召之日再三問其來 及至即復原封 令祠官奉廟社先行 世子隨後發 信城君定遠君陪從 上戎服執鞭 出敦義門 內殿率侍女十餘人步出仁和門 夜黑不辨咫尺李恒福執燭前導 內殿問其姓名 勉以忠義

<朝野會通卷六十六 宣祖紀>

六月初一日 上命廟堂議去就 寅城府院君鄭澈首曰此非京城死守之比可令一大將守之奉駕而出可也副提學沈忠謙李德馨從而和之議者咸欲棄平壤獨尹曰此大不可京城往事不須言我國封疆不過數千里欲向北道則窮無可去之地一渡鴨綠則雖或偸生後無可爲唯此府雄富一大鎭四面絶險軍又過萬最多精勇城中壯士亦不下千人離此一步國事決矣 上召問之尹力主固守之說且曰國事至此急請救於遼東且待元帥諸將之還以圖死守之　<朝野僉載卷之二十七>

義 州 作

大水漫漫渺八荒　萬民都載一危航
白頭閣老成何事　扈聖龍灣淚萬行

亂後過平壤有感

萬戶傷心瓦礫餘　練光浮碧亦成墟
衝冠怒髮緣何事　不斬樓蘭憤未攄

<梧陰遺稿 卷之二>

百七十四，李 德 馨

尙州之敗 有倭通事景應舜者 在李鎰軍中 爲賊所獲 倭將平行長 以秀吉書契及送禮曹公文一道 授應舜送之 且曰 在東萊日 生得蔚山郡守授以書契放還 尙今無報 朝鮮若有意於講和可令李德馨於二十八日會我 於忠州也……中略…

所謂蔚山郡守 即李彥誠也 賊中回而畏其得罪 自言逃來 不傳其書故朝廷不知也 應舜既至京 上會群臣議 諸議者不知所爲 或謂事急矣 若因此或緩兵奉矣 德馨聞之 趨詣闕下 亦請自行 出見李恒福 引其手曰 今賊求見我 我欲往見矣 寇已深 若之何辭難 旣向賊陣而馳去

<再造藩邦志一>

陳時務八條啓

一, 中外之民兵死餓死癘疫死什一猶存漸益消盡
一, 屯田之擧一以活飢民一以備兵食一以通道路
一, 我國傳海爲國魚鹽甚饒取此販賣百事皆可濟矣
一, 防守之策必先審形勢以爲遠圖
一, 訓練軍兵非深慮至誠難以見效其間必有賞罰明果臨事激勸然後衆心漸合而不離散矣
一, 兵荒之後盜賊興起此其常事云
一, 官數易之弊古人之言備矣
一, 國家之所以維持而經遠者唯在民心

<漢陰集卷八 啓辭>

李德馨自定州 晝夜馳二百餘里 及至遼東 六上書乞出援兵 因到巡撫帳下 立庭痛哭 辭氣慷慨 終日不退 郝杰爲之改容 未及上奏 便宜調發本鎭兵馬五千餘人 以副摠兵僉署右軍都督府事 祖承訓領之 以游擊將軍史儒副之…中略… 又以遼東調兵參將郭夢徵 領步兵五百人 廣寧游擊將軍王守臣 領馬兵三百騎 遼東游擊將軍戴朝弁 領馬兵一千餘騎 皆統于承訓 期以七月濟師

<再造藩邦志一>

順天城外偶吟

廢城衰草小江南　落日憑高意不堪
翠竹黃柑餘廢巷　名樓畫棟變空巖
玉溪澹色涵秋影　松嶺愁容帶晩嵐
多少繁華歸一夢　景賢遺址獨停驂
海城霜落草初乾　朝日光生劍戟寒
萬里皇威天下震　七年逋寇掌中看
朝開畫檻檣竿簇　風獵紅旗壁壘閑
勒石何人傳盛事　漢庭方待凱歌還

<李德馨 漢陰集卷二>

百七十五, 李　元　翼

壬辰四月倭賊入寇　大駕西巡命公爲本道都巡察使　公謂七路瓦解　惟本道數十邑　爲乾淨地 必須恢拓此路 爲中興根本 時當機務浩穰 人心波蕩 公與體察使柳公同心協事　雖簿領堆積而公能左枝右梧 倉卒所處皆中機宜冬　天兵復平壤城　明年九月　大駕還都　命公因留本道累階至崇政　乙未拜議政府右議政受宣武功臣之號 封完平府院君 還朝兼四道都體察使　開督府于嶺南　是時天兵壓境　公能調度饋餉不至於闕軍實且謂制敵之要 舍守城無它策　乃繕葺各處山城　時軍律弛紊　諸路閫帥多不法　皆拿致而杖之 雖驍悍無知皆服其嚴明無怨意　戊戌自嶺南還朝時　經理楊鎬領天兵 追討稷山留屯之賊 上將褒奏於皇朝 時有主事丁應泰者　傾陷經理不遺餘力 上欲擇相公有文辯善處變者遣之時　議謂領相當行公請於上曰　領相非但有九十老母 且當此板蕩之日 不可使柳某在外臣雖勞甚　請代行 上可之前　此有漢人史世用者在日本以其所聞而奏云 倭奴欲假道朝鮮 入犯中國 華人互相傳播 疑本朝黨於倭　是時公行至鴨江遇有丁應泰行出來 丁知公行必褒奏經理大憾之　昏後數三將官追及公於遼界欲回一行催還火急　公爲華語解之且曰 吾等奉國王命入天朝　今若中止 是違君命也 爾等力可綁縛一行倒載而行 吾等可有辭於國王其能之乎……以下略……

<朝鮮金石總覽>

七月遞都元帥權慄 以右議政李元翼 爲四道都體察使兼領元帥府事　李元翼 至誠憂國　深察民弊　巡行南方　守宰諸將皆敬憚之　殘民賴蘇然而 短於才略 受任三年 訖無成效　元翼又入閑山島 巡撫水軍 將發 李舜臣密請曰 今公之來　當大設犒饋以激三軍　不爾士將失望矣　元翼曰吾初不備來　奈何 舜臣曰　吾己爲公辨之 公若聽許則當以公命犒之 元翼大喜從之　於是

椎牛開擢酒　大饗之　士卒歡踊　八月都察使李元翼　啓罷全羅兵使李福男　以朴晋代之　元翼以福男又濫刑拿入軍門　責供　福男但書世守清直　棘不阿人　八字曰此外無他事　元翼遂杖之啓罷其職　福男爲人豪爽峻潔　在營招募義士金世器數百人　置之帳下　與同甘苦　且以紀律不嚴　守令邊將多不遵節制　遂皆一裁之　以軍法隨輕重施罰　不以權要而少貸　所以動得讒謗不能久於職也　時朝廷有和議　士無鬪志

福男擊劍慷慨　作詩見志曰
睿聖留朱幅　將軍奮赤忠　位高二品上
膽大萬人中　清直持身苦　婁非織錦工
秋風動蕭氣　鳴釼恥和戎
<宣廟中興誌 卷五 乙未>

百七十六，李　廷　馣

(上略)……月川君李公　諱廷馣　字仲薰　故爲吏曹参議　時主上西巡　以公弟廷馨　前守開城寄惠未亡　命留鎭之　廷馨乞與兄同守　及臨津師潰　公擇形便　爲分守計　以是年八月二十二日　至延安　府中豪傑　有宋德潤趙光庭等　聚徒百餘　迎曰　公有舊恩在本土　乞留活我　公笑曰吾今日得死所矣　即入城　募得五百餘人　提衡以勒之曰　疇能爲我管四門鑰　疇能座甲登陴　使賊不敢近壕　疇管我糧餉　疇繕我器械　隨才部分訖　聚礮於墩列釜於榜　老幼趨事　羣能著職二十八日賊酋長政劫掠載信諸郡　攻陷海州　以兵三千人　與江陰之賊　悉銳而來　城中色駭　有欲出陣計者　公曰我旣與兵民　約同死生　陷民自濟　所不忍也　良怖甚者　任自出城　不汝拘也　一軍咸願死守　日旣昃　賊進圍三匝　俄有一賊帥周觀城外　摩壘而過勢益張甚　門將張應祺　一箭洞胸而死　賊氣死　不敢輕出　別於西城　以飛衝　下瞰城中　以砲碎之　則亂發火箭　圍中多草屋　人皆心懼洶洶　忽廻風大起　烟焰外靡　賊計無奈何　撤廬舍塡壕塹　遂鼓士陵城　群而蟻附之　公知不可爲　乃座積菼　戒其子濬曰　城陷可自焚　聞者感泣　一力而齊致死如是者凡四日　賊亦死傷過半　是夜師熸　賊已聚死屍　盡焚之　翌朝乃解圍去　我軍僅斬十八級　奪牛馬九十餘匹　軍糧一百三十餘石　朝廷聞公被圍　上下憂危　及捷至　只言賊以某日圍城　以某日解去　一無張皇語　議者咸言　却賊易不伐功　尤難上特加嘉善　爲本道都巡察使　文武將官　皆聽公節制　仍賞諸將以下有差　<延城大捷碑>

百七十七，金　誠　一

我使將回　不時裁答書令先行　誠一曰　吾爲使臣　奉國書來　若無報書　與委命於草莽同　允吉懼見留　遽發至界濱待之　答書始來而辭意悖慢非我所望也　誠一不受　改定數次然後行　凡所經由　諸倭贈遺　誠一皆卻之　允吉還泊釜山　馳啓情形　以爲必有兵禍　旣復命　上引見而問之允吉實如前　誠一曰　臣不見其有是　因言允吉搖動人心非宜　於是議者　或主允吉　或主誠一余(柳成龍)問誠一曰　君言與黃使不同　萬一有兵　將奈何　曰吾亦豈能必倭終不動　但黃言太重　中外驚惑　故解之耳……中略……遞慶尙右兵使曹大坤　特旨以承旨金誠一代之　備邊司啓誠一儒臣也　不合此時邊帥之任　不允　誠一遂拜辭而行……中略……逮慶尙右兵使金誠一下獄　未至　還以爲招諭使　以咸安郡守柳崇仁　爲兵使　<柳成龍 懲毖錄卷一>

當初黃允吉金誠一等回自日本　二人所言賊執不同　余一日親見誠一問之曰　君言與黃使有異萬一倭果來則如何　誠一曰　吾亦豈必倭之終不來邪　但黃言太重　似若倭踵使臣而來　人情洶駭故如此言之耳

<西厓文集卷十六雜著 書壬辰事始末示兒輩>

誠一見書辭悖慢　嘗稱殿下而稱閣下　以所送禮幣爲方領納　且一超直入大明　貴國先驅等語　是欲取大明而使我國先驅也　<宣廟寶鑑>

乃貽書玄蘇　譬曉此大義云　若不改此書　吾有死而已　不可持去　玄蘇有書稱謝　諉以撰書者失辭　改書殿下禮幣等字　其他慢脅之辭　託言但此是入朝大明之意而不肯改　誠一再三　移書請改不從　黃允吉　許筬等　以爲蘇倭自釋其意如此

不必相持久　誠一爭不能得　遂還　<同上>
二十四年辛卯三月　通信使黃允吉等　回自日本　倭使平調信等偕來　允吉馳啓情形　以爲　必有兵禍　旣復命　上引見而問之　允吉對如前　誠一曰　臣則不見如許情形　允吉張皇論奏　搖動人心　甚乖事宜　<同上>
慶尙右道水使元均　遣軍官李冲啓曰　臣與全羅左右水使李舜臣李億祺　於巨濟前洋　破賊船五百餘隻　斬首獲級　大致克捷　冲之來也上問以嶺南之事　對曰　監司金睟在咸安等處云而不知群賊　由直路而行　故左右道分爲兩界　號令不相及　但聞兵使金誠一率軍官　猝遇賊衆　欲散走　誠一遂下馬踞胡床　攔路而坐　賊見其唐突疑有伏　盤桓因去云
<朴東亮著 寄齋史草下 壬辰六月二十一日條>

百七十八，柳　成　龍

余(柳成龍)使從事官辛慶晋　馳見提督　陳不可退軍者五
① 先王墳墓皆在畿甸　淪於賊藪神人望切　不忍棄去一也
② 京畿以南遺民　日望王師　忽聞退去　無復固志　相率而歸賊二也
③ 我國境土尺寸不可容易棄之三也
④ 將士雖力弱　方欲倚仗天兵　共圖進取　一聞撤退之令　必皆怨憤離散四也
⑤ 一退而賊乘其後則雖臨津以北　亦不可保五也
提督默然而去　<懲毖錄二 (四七面)>
五月初三日　到開城府　治山海誤國之罪　竄平海　上命倂黜柳成龍　朝論不可　上亦不從　蓋上欲薄山海之罪　故黜成龍以分其罪　所以抑朝議也　是日賊入京城　京城之民欲盜弊藏者　已先焚宮闕矣　<金時讓撰 紫海筆談>
不幸本道水陸將皆恇㤼　其在海中也　左水使朴泓　一兵不出　右水使元均　雖水路稍稍遠　所領舟艦旣多　且賊兵非一日俱至　可悉衆前進　耀兵相持　幸而一捷則賊當有後顧慮　未必遽深入而乃望風遠避　不一交兵　及賊登陸　左右兵使李珏曹大坤　或遁或遞　賊鳴鼓橫行　蹈數百里無人之地　晝夜北上　無一處敢齟齬少緩其勢者不十日　已至尙州 李鎰 客將無軍　猝與相角 勢固不敵　砬未至忠州而鎰先敗　進退失據　事是以大謬　嗚呼痛哉　<懲毖錄二 (一四面)>

百七十九，黃　愼

愼字思叔　號秋浦　檜原人　高麗平章石奇之後壯武公衡之曾孫　愼性聰慧敏達　少從李栗谷珥成牛溪渾　鏃礪浸灌　辨志居業　年二十七壯元及第　聲明藹蔚而爲娼嫉者所擠　陸沈郞署者久矣　癸巳與李月沙廷龜　同選講學陪臣　見宋經略于平壤　經略稱之以端敏誠懿之士　至是承遠行之命　人皆危之　愼即日發行　馳詣倭營　初至倭營　賊將行長設一宴　請沈游擊惟敬及愼　愼再三不可　強而後往則天將立壁　行長居西　坐愼於東而賊僧玄蘇居愼之上　愼却立不坐　惟敬問其故　愼答曰和尙在上坐　嫌於聯席　移和尙之坐　然后可坐耳　惟敬笑而從之　移玄蘇之坐於西　然后乃坐　賊始嚴憚之　不敢慢侮　在久倭營　凡事之難處者　朝廷一以委愼　當時事端錯出　酬應萬緖　臨機揣摩　前後馳啓 上稟朝廷 下答夷情　絲分縷析　中綮解節　賊亦歸化久而愈敬　愼於暇日作古詩一首　以見其志　其詩曰
丈夫不怕死　怕死非丈夫
白刃尙可蹈　鼎鑊尙可趨
所願全吾節　安得全吾軀
賢哉鴟夷郞　抵死心不渝
<再造藩邦志卷三>
年二十一中進士　往遊牛溪門下　二十七擢謁聖壯元　歷敭主簿監察　陰竹縣監　戶兵曹佐郞兼知製敎　庚寅始爲正言　遞復拜　前年己丑汝立謀反伏誅　李山海曾爲吏判時　嘗擬汝立金提郡守　公追論其幾誤事機　又斥山海欺隱之狀　忤旨黜爲高山縣監　旋以劾罷　壬辰叙爲侍講院司書　兵曹佐郞　復爲正言　以司書從行世子還　又爲體府從事　拜兵曹佐郞　乙未辭遞拜司憲府掌

令 又辭遞還鄕 以御前通事召還 又以命赴熊川倭營 承接天將 偵探倭情 丙申還朝 特加折衝階 再赴倭營時詔使李宗誠 自倭營跳走 仍差沈游擊接伴使 差通信使 還朝後 以贊畫使赴體府還朝 未幾又赴沈游擊軍門 南路報警 遂更拜全羅監司 特命迎養母夫人 公隨劉提督綎圍賊於順天 兵罷而還 己亥接伴刑軍門玠徐給事觀瀾 爲漢城右尹 以行大司諫兼籌司提調 吉三峰……略……上怒遞公職出郊待命辛丑以事階嘉義 壬寅充謝恩使 朝京回來……略……

<尤菴集卷之一百三 秋浦黃公神道碑>

百八十，　宋　應　昌

經略(宋應昌) 聞平壤之復 始渡江 留連於定州安州間 未嘗擧一趾爲向東計 未幾被彈還燕(北京) 其所製詩有曰 驅車入平壤 恢復朝鮮國 又有謁箕子墓詩 至於刊印而歸 意必誇張於上國 其浮誕乃如是 何能成大功也 蘷侍郞養謙代事 久留於遼 號令嚴肅 議論暢達 觀其所爲 文可知 及其被論而還也 孫侍郞鑛代之 宋顧皆主和 蓋中原 物力兵力俱盡 其論不得不如是 而孫則不主攻不主和 只欲保守鴨綠以西以我國(朝鮮) 存亡 爲不足輕重 而其爲人平平無振厲之氣 所遣將士 侵暴我邦 不能檢 變生之後 三易經略 顧爲第一 而宋不及顧 孫則下於宋又甚遠 中朝人物 亦可想見 此賊豈若狗鼠窃發 而其志只在於殘我國而已哉 孫不思脣寒之戒 只欲保守鴨西 其慮不遠 誠可歎也

<聞韶漫錄>

都元帥金命元巡邊使李蘋全羅兵使宣居怡追賊下嶺南 忠淸兵使黃進全羅防禦使李福男各以其兵會 權慄領新兵踰雲峰赴嶺南 皆列屯昌寧宜寧等邑 相機進剿 經略又發牌使之追賊頒咨提督依遠 提督自聞慶廻見經略盛言賊勢之大不可搏戰 經略信之 乃請天朝赦不可窮追專主和好又使沈惟敬往諭倭令渡海又使徐一貫謝用梓越海見關酋 <朝野僉載卷之二十八癸巳五月>

百八十一，石　　星

是時楊邦亨見廷論已峻 始直吐顚末 委罪沈惟敬 並以本兵及總督手書 進呈御覽 天子大怒惟敬賣國而本兵彌縫罪狀 命逮惟敬 初倭要七件書 一曰割地 二曰封王 三曰進貢 四曰印顆 五曰蟒龍衣 六曰冲天冠 七曰欲如單于之於漢室而婚公主 而惟敬諱其四事 只言封貢印三事 故和事不成 而天子始知其詐 而切責本兵 兵部尙書石星上本辨明 總督孫鑛乞解兵樞 天子乃下楊邦亨于獄 勘問如律 勅刑部會卿科覆議…中略……這看問事情 爾等既說 石星心欲息兵省餉 但輕聽誤國 情有可愿 姑且革了職 還候旨定奪 又說淸正再來 非因孫鑛所致 今遜避恐失事機也 着革了職回籍聽勘 其薊遼總督員缺 如便會推久歷邊疆熟兵事的數員來看 楊邦亨反覆小人 本當重究 姑念其遠使之勞 着革職了任永不叙用 該部知道 於是 九卿會東闕下 推以前兵部尙書田樂 代石星爲兵部尙書 其時樂致仕 退在田里 未朝之前 以刑部尙書蕭大亨 暫署兵部事 又挺推兵部左侍郞邢玠 代孫鑛爲欽差總督蘇遼保定等處軍務經略禦倭兼理糧餉 進兵部尙書兼都察院右副都御史……以下略……　<再造藩邦志 卷四>

時擧朝紛紛歸罪司馬 司馬責惟敬 猶然說謊 謂倭兵此來 不過責朝鮮禮節 今專聽天朝處分 非有他也 兵科徐成楚折之曰 世有興師十數萬浮海數千里 爭一禮節 奈一王子陪臣者哉 因請速乘其未定 或用間襲虛 或遣人暗燬其積聚 或說客離其心腹 總督孫鑛 巡撫李化龍輩 皆老成謀國 當册使甫還 朝鮮一有實報 即勸司馬預爲隄備 而星謾不爲意 且聽惟敬游詞云 唉平調信至宜寧 明切與言 朝鮮王子斷無往理 陪臣一節當委曲圖之 先使正成親報關白 說明回報」

二月十八日 石星無奈 亦疏請削去官保職銜 親自帶同贊畫司馬一二員 將領數人 仍假便宜前往朝鮮 諭令兩國會盟退兵完事 如終無濟 即撣大兵前進 仍治臣以付托不効之罪 上不肯許時連歲用兵國計頻絀 今議出兵非四五萬人不可 朝鮮亦乞先調南兵三四千 星火進駐要害 以

爲聲援　奔何封事一起　已將東征士馬　盡撤回藉　劉綎兵已還泗川　其天津登萊戍守南兵　俱各議罷　平壤南兵撤回時　以王賞不給(如松攻平壤時　約先登者給銀萬兩　南兵果先登)鼓噪于石門寨　總兵王保　與南兵有小忿　遂以激變聳惑軍門　千三百名保盡誘殺之 人心乞憤惋 故召募鮮有應者　擧朝無策可施　咸欲請誅石星 永彰國典　後至戊戌年夏　卒殞于獄

<兩朝平攘錄卷之四>

至是惟敬到開城　傳石星意于如松　又與行長議謂和議成如所約　封秀吉日本國王　且以明主公主爲日本皇帝皇后　時軍監增田石田等久帶異地　歸思甚切故悅惟敬言　<征伐記，秀吉譜>

惟敬謂行長曰七條悉就還朝鮮二王子　日本兵去王城歸朝　然則李如松亦旋師于明也　行長素主張和議　然疑平壤之役　惟敬爲反間故未信從　惟敬還明　與石星議使監生徐一貫謝用梓

<黑田家記>

命武健之將　選精銳之師 出其不意急擊勿失 如陳湯甘延壽之於康居　策之上也　其或因糧於賊分兵斷道坐而困之　窮蹙自斃　如趙充國之於金城　策之次也　又或始則震以兵威　繼則結以恩義　開城布信　堅明約束　如諸葛武侯之於孟獲　策之又次也　<谷應泰撰　皇明記事本末>

百八十二，楊　鎬

丁應泰回到遼東　又上本劾諸將官　極陳楊鎬之罪　天朝以欽差禦倭東路監軍兵備山東按撫使司僉事贊畫主事徐中素　乃代應泰而來　兼監軍務　其中軍鄒良臣　領馬兵二千七百而來　六月(戊戌)中素聞父喪而回　天子見應泰前後上本乃勅太學士張位閑住　以位密揭薦鎬奪情破賊今又朋欺僨事也　又令刑部勘劾如律　刑部乃會九卿科道覆議曰……中略……

「乃輕率寡謀　致于喪師　又朦朧欺蔽　奏報不實法紀何在　楊鎬革任回籍着　邢玠速赴王京　暫經理軍務　且將士被堅執銳　臨敵　對壘　不避寒暑　倏爾死生　奏報不實　各有司存　廠貴李如梅姑着　策厲供職　俱候勘明　具奏處分　其經理負缺便着……以下略……」

於是　楊鎬革職回去　上率官泣送于弘濟院　都中士民男女垂髫戴白　皆出祖郊外　我國立碑於慕華舘而頌其功德　諸臣以詩爲別　天朝乃以欽差經理朝鮮軍務都察院右僉都御史萬世德　代楊鎬統大軍進勦　<再造藩邦志卷五>

天朝罷經理楊鎬以都御史萬世德代之　鎬將還上出餞于弘濟院爲之泣 鎬亦慘然動容　都中士民男婦垂髫戴白皆出祖郊外我國立碑於慕華舘而頌其功德 (上初命竪碑於沙峴使李海龍書之後經理回我國使行謂曰朝朝爲我立碑請印一本以送　上恨其碑小而不能悉起　即命改立豐碑李廷龜製文金玄成書之)

<朝野僉載卷之二十九 丁酉三十年>

三月乙巳(丁酉) 山東右參政楊鎬　爲僉都御史經略朝鮮軍務　已未兵部侍郎邢玠爲尙書　總督薊遼保定軍務經略禦倭 楊汝南丁應泰　贊畫軍前　<海東繹史卷六十三 本朝備禦考三 兩朝平攘錄>

經理聞之 自平壤兼程疾馳入王京　招提督諸將責不戰之狀　與提督定計　抄發精勇馬兵迎擊之密選各營精壯二千驍將十五人　使解生牛伯英楊登山頗貴領之　遣于天安而諸將莫知也　解生等四將遇賊於天安稷山之間　賊皆着衣 天兵以爲我國人　初不爲備　及賊放炮始覺之　四將一時跑馬進擊之　賊披靡而走　中箭被棍死者甚多天兵當陣斬三十一級　頗貴手斬三級　楊登山解生各斬二級而還　軍威振　經理發各營兵出陣於江上　又遣擺賽將二千騎爲繼援賽疾馳　遇賊於振威稷山之界　與四將合勢擊破之　斬六十四級射賊將中之　賊皆捲退　經理提督請上出視江上上從之　渡銅雀津登高阜　審察形勢　請有心計陪臣一員差官往水原探倭賊勢　上命體察使從事官韓浚謙往 是時人心洶懼 城中士庶一空 百官皆荷擔以立　稷山捷音至　京城乃稍定

<申欽 象村集卷之五十六>

是年七月　公(楊鎬) 提偏師渡江　到平壤　聞賊陷南原直上先鋒已迫畿南　公移咨我昭敬王令

修繕京城固守毋動 即日兼程疾驅 軍吏諫勿輕進 不聽 遂於九月初三日入王京 與提督麻貴以下諸將上國都南山 張軍樂布號令夜 挑選精壯募各營驍將 前往迎賊 又令二千騎爲後援 公與我昭敬王渡銅雀津審守禦形便初七日 諸將遇賊於稷山 一戰大捷斬首累百級 塵殺先鋒賊將諸酋大挫直走海邊巢幕 行長屯順天 清正據蔚山 東西列郡盡爲賊屯 公貽書邢總督定議先攻清正 以斷賊左臂 先遣麻提督以下諸將擁兵而南選兵凡四萬 乃以十二月初八日 公只率手下勇兵數百 輕裘戰巾馳過鳥嶺 贊成臣李德馨儐公迎自界上至是隨公常在 軍到義城 公與德馨謀先遣降倭呂余文潛入賊營 盡得其形勢

是月二十日 進到慶州 軍聲大振風迅電擊諸將不意 公卒至震慄益用命 抹馬礪刃鼓勇爭首敵都元帥權慄率本國諸將官 水陸兵一萬餘亦聽公節制

二十二日 公遂進陣賊壘十里外 少出兵誘賊 賊悉銳追之 公與麻提 督督諸將合擊大敗之 斬一千餘級獲其勇將 僵屍布野日暮箚營休軍

二十三日 曉 公親上陣薄戰 炮烟晦天旗彩耀日 各兵乘勝齊喊 海岳皆振 用飛炮火箭亂燒賊幕 遂拔伴鴎亭太和江兩柵 賊焚死者無算盡獲器仗輜重 清正僅以身免走保島山 悉力死拒城峭險士皆蟻附仰攻壁堅未易拔 公令各營分兵迭休 圍守數匝 賊衆 渴饑多斃 清正閉壁不出 屢乞降求緩師 公慮其詐不聽攻之益急期殲盡乃已 賊每夜出樵汲 公令本國將金應瑞伺捕無遺 類日不可勝計如是

十三日 賊益窮蹙軍吏競賀謂清正就縛在邇 會天寒大雨 路沒膝人墮指 士馬多飢凍死 賊援大至 將繞出軍後 公密察事機 麾諸軍退 舍身自爲殿 賊欲追躡 公反騎突擊斬累十級 賊披靡不敢近 遂按兵還王京 休師蓄糧以圖再擧

＜李恒福 白沙集卷之五十五＞

二十日 經理提督與三協將士 皆會於慶州 哨探賊巢俱屯聚蔚山 而蔚山之南爲島山 二山不甚高 而城皆依山爲固 勢甚險峻 中有一江可通釜寨 其陸路則由彥陽通釜山 麻總兵欲專力攻蔚山 恐釜山諸城由彥陽來援 即令中協高策吳惟忠等 統領官軍 由彥陽梁山 把截適中要害 去處又摘 令左協董正誼等 統兵前赴南原求禮 一帶張勢牽制其水路上 仍令季金于承恩統南兵同朝鮮水兵 由長鬐珍島至鴈山島(謹按即閑山島之訛) 張疑設備 又當日先分遣右協盧繼忠 率兵二千至西江ロ屯住 以防水路援兵而以左右兩協馬步 率議于二十三日進攻蔚山(防釜山之援者不一而足及援至 竟不聞一兵阻之何也 且兵力愈分愈弱未免 亡羊於多岐矣)

在協副將李如梅 同巡擺標下參將楊登山騎兵先到 各挑選輕騎近岸埋伏 傍海拒援而令遊擊擺賽 以五百騎 於是日已時 抵巢誘賊 賊縱萬餘徒 各被帶鮮明盔甲 銃砲齊發 喊聲震地 各揮刃迎敵 擺賽佯北 賊衆乘勢追趕 我兵伏者四起 奮勇剿殺 在陣斬賊首級四百四十餘顆 生擒倭將一員 已而右協副總兵李芳春解生等 由西路馬村齊至掩殺 我兵馬步相兼先後俱進 勢焰張天煙塵蔽日 賊皆望風奔潰 半由江邊爭船逃渡 覆舟四五隻協死無數 其餘盡歸新修島山城 我師至晚收兵列營住札 與賊相去二三里 當審陣獲被金甲倭將 共稱清正見在城內 次日進兵 倭賊于路連築三寨 伴鷗亭 城隍堂 太和江皆在島山之前 樹爲屏幛四園俱塞 壘城各多設銃眼 倭伏於內 麻總兵申嚴號令 督率官兵努力向前 此日遊擊茅國器 統領浙兵 因李如梅已得首功 不待催督各奮命先登 連將三寨打破又斬首六百六十一顆生 擒倭四名 得獲倭馬器具盔甲刀銃旗幟無算 又燒毁寨內舖面 及住房萬餘間 倉糧牲蓄盡數燒毁 倭見我兵勇戰 奔上島山城寨 各軍奮勇直前攻城數陣不克 蓋島山比蔚更高 其石城新修堅固 我兵一到城下 被賊齊用鳥銃火砲弓矢擂石拒堵 我兵多用挨牌布簾木梯迎遮 第山城高險仰攻不能遽上 我兵亦有損傷 即行收兵屯住 俟次日相機攻剿 次早齊奮力圍攻 城上砲石如雨 如此連日攻不得下 我兵傷死甚衆 諸將謂楊鎬曰 此城水路甚艱糧運難繼 我兵第四面圍而守之 即不戰清正可坐縛也 鎬以爲然 於是各營兵分屯山下 周

匝圍繞密不令透 清正於酋中最強悍 嚴厲有謀 先聞大兵來 即以降人及疲弱者置外 而悉斂精銳保守山城 至是圍困十日十夜 汲餉不敷 倭奴至嚙紙充饑 飲溺解渴 每造飲 先食能用礮者而餘聽其餓死 衆心皇皇朝暮不保 清正全然不懼 惟死守以俟釜營之救至 然山下皆爛田 我兵無著脚處 倭從銃隙用礮 發無不中 彈皆碎鐵爲之以藥煮過 發之無聲中者立倒 有一彈傷人兩者 伏則銃難及 起必橫趨方免 而伏者又苦泥沒膝 晝夜圍守氷雪裂膚 故城不而死傷我兵數百人 倭瞰我兵意怠 令人求緩攻約 降經理信之 䟽報云倭將清正勢迫乞降 臣不信之 必當生擒以處闕下 聞者無不喜躍

<海東繹史卷六十三, 本朝備禦考三, 兩朝平攘錄卷之四>

文　　書

<第一號>

宣廟의 秀吉에게 보내는 國書

朝鮮國王李昖 印 奉書日本國王殿下 春候和照 動靜佳勝 遠傳 大王一統六十餘州 雖欲速講信修睦以敦隣好 恐道路湮晦使臣行李 有淹滯之憂歟 是以 多年思而止矣 今令與貴价 遣黃允吉金誠一許筬之三使 以致賀辭 自今以往鄰好出于他上幸甚 仍不腆土宜 錄在別幅 庶幾笑留 餘順序珍嗇 不宣

萬曆十八年三月　日

朝鮮國王 李 昖 印

別幅(略)

<兩朝平攘錄卷之四>

<第二號>

宣廟에 對한 秀吉의 答書

日本國關白秀吉 奉書朝鮮國王閣下 雁書薰讀 卷舒再三 抑本朝雖爲六十餘州 比年諸國分離 亂國綱 廢世禮 而不聽朝政 故予不勝感激 三四年之間 伐叛臣 討賊徒 及異域遠島 悉歸掌握 竊按予事跡 鄙陋小臣也 雖然 予嘗當于托胎之時 慈母夢日輪入懷中 相士曰 日光之所及 無不照臨 壯年必八表聞仁風 四海蒙威名者 其何疑乎 依有此奇異 作敵心者 自然摧滅 戰則無不勝 攻則無不取 旣天下太治 撫育百姓 憐愍孤獨 故民富財足 土貢萬倍千古矣 本朝開闢以來 朝廷盛事 洛陽壯觀 莫如此日也 夫人生于世也 雖歷長生 古來不滿百年 焉鬱鬱久居此乎 不屑國家之隔山海之遠 一超直入大明國 易吾朝之風俗於四百餘州 施帝都政化於億萬斯年者 在方寸中 貴國先驅而入朝 依有遠慮 無近憂者乎 遠邦小島在海中者 後進者不可作許容也 予入大明之日 將士卒臨軍營 則彌可修隣盟也 予願無他 只顯佳名於三國而已 方物如目錄領納 珍重保嗇 不宣

天正十八年仲冬日

<續善隣國寶記>

<第三號>

宣廟의 秀吉에 對한 書(答書)

朝鮮國王李昖 奉復日本關白殿下 使至 獲審體中佳裕 深慰深慰 兩國相與 信義交孚 鯨波萬里 聘問以時 今又廢禮重修 舊好益堅 實萬世之福也 所遺鞍馬器玩甲胄兵具各般甚夥 製造亦精 贈遺之誠 夐出尋常 尤用感荷 但奉前後二書 辭旨張皇 欲超入上國而望吾國之爲黨 不知此言奚爲而至哉 自弊邦言之則語犯上國 非可相較於文字之間而言之不酬 亦非交隣之義 敢此暴露 幸有以亮之 惟我東國 卽殷太師箕子受封之舊地 禮義之美 見稱中華 凡幾代矣 逮我皇朝 混一區宇 威德遠被 薄海內外 悉主悉臣 無敢違拒 貴國亦嘗航海納貢而達于京師 況弊邦 世守藩封 執攘是恭 侯度無愆 故中朝之待我也 亦視同內服 赴告必先 患難相救 有若家人父子之親者 此天下之所共知也 夫黨者 偏詖反側之謂 人臣有黨者 天必殛之 況舍君父而黨隣國乎 且丁未年間接遇之違例 雖未詳其故而事在已往 時亦異代 非百世必報之怨而殿下新立 謂宜安靜鎭撫之圖 豈可以小謀大 妄動干戈於天限海塹之外哉 嗚呼伐國之問 仁者所恥聞 況於君父之國乎 弊邦之人 素秉禮義 知尊君父 大倫大經 賴而不墜 今固不以私交之厚而易天賦之常矣 豈不較然乎 竊料貴國今日之憤 不過恥夫見擯之久 禮義無所效 關市無所通 不得並立於萬國玉帛之列也 貴國何不反求其故 自盡其道而惟不臧之謀是依 可謂弗思之甚也 二浦(薺浦鹽浦)關路之事 在先朝約誓已定 堅如金石 若以使价一時之少倦而輕改久立成憲則彼此俱失之矣 其可乎哉 不腆土宜 具在別幅 天時正熱 只冀若序萬重 不宣

<再造藩邦志卷一,(辛卯) 燃藜室記述春川志芝川集卷三書契答日本國書契>

<第四號>(其一)

柳川調信의 求和書

(壬辰年五月十五日)

日本國差來先鋒小監平調信　謹啓朝鮮國執事

足下 臣今日來于此 退吾軍者無他 爲講和也 軍士在渡ロ 則貴國之人疑之 故先退兵矣 臣先是屢使于貴國 陳以成敗之事 貴國不聽臣之言也 今至敗亡 蓋吾殿下假道於貴國 復怨於大明 去歲審告貴國通信使 臣亦達書於廷下 雖然貴國藩臣 梗邊以不通吾道路 加之動干戈於是乎吾軍擊破之 遂到尙州 奉書於廷下不敢賜回敎 却聞國王己出洛陽矣 於是諸將之兵入洛陽 由是觀之 夫滅朝鮮者 非日本 亮察亮察 臣竊慮之 還國王之駕於洛陽 以講和於大明則 貴國之策莫良焉 如此則 解吾軍陣 待命於畿外者必矣 若疑之 出質子以爲證 然則 日本之與大明和親 貴國亦復國 不然則貴國長雖國 亦未可知也 伏願足下熟計之 今日在江邊以待回翰 速送之 自愛不宜

<日本國民史朝鮮役>

<第四號>(其二)

小西行長의 求和書

(壬辰年五月十六日)

再啓 昨日呈愚書 以陳講和之事 貴國不信之亦宜哉 吾軍經萬里風波之難 江山之險 直入洛陽 今也無故而欲講和 貴國不信之 亦宜哉臣爲貴國解之 吾殿下欲假道而擊大明 雖諸將奉命 來于此 不欲自此經數千里入大明 是故先與貴國和親而後 借貴國一言 以講和於大明也 貴國亦以一言 大明講和於日本 則三國平安 良策莫良焉 諸將免勞 萬民蘇甦 是吾諸將之議也 殿下亦不欲與貴國絶交 貴國失隣好之道 拒吾軍 故吾亦動于戈而己 臣虛受貴國大職 豈忘鴻恩乎 奉國命以先諸將 固不獲止也 今也傾盡肝膽 陳縷縷 足下察之 尙不信之 則是亦可也 傳義智行長兩人一紙之書 自愛不宜

<日本國民史朝鮮役>

<第五號>

檄 文

(宣祖二十五年六月)

大日本國雲伯兩備藝石防長隱九州太守羽柴氏安藝宰相輝元 奉綸命 告郡中官人黎民 今玆關白太閤殿下 欲攻大明國 爲其先鋒者 日本公侯將相 帥數萬精兵 假道于此國也 於釜山東萊 以攻城野戰之功 而令朝鮮國歸掌握 旣陷洛陽 旣擊義州江 是故日本諸軍 輻湊八箇道 而無處不至也 雖然 官民會不來服 因玆今分諸將 遣八箇道 欲撫育國家 安居官民也 來于此宰相輝元者 治慶尙之一道而己 汝等此于戈 成一朝一夕之思則無遠慮也 永行日本禮樂於此邦 而要移風換俗也 上百官下至萬民 得此心則速出山中受降而在其官者 事官役 業其農者 勤耕農 各隨豐險 營日用 可療餓者可乎縱在山中海外 潛身匿跡 經百年 亦終無益者也歟 今出山而受降者活之 又可與恩賞也 不改舊惡 於不來服之輩者 尋求山間 可殺之也可憐生 若復各居縣邑之日 我日本之人 或奪官民之妻子資財 或致濫妨狼籍者 即日縛其人可誅罰也 然則有誰妨之哉 右條目 天道昭鑑不可敢容疑 若逃民有可訴之旨 速錄以可論之忽奏宰相公 可達汝素望也 慮之 不宜

日本天正二十年壬辰六月

安藝宰相代 宍戶元次

三浦元忠

<毛利氏四代實錄考證論斷>

<第六號>

告宣廟檄文(日本이 僧 玄蘇 及宗逸에게 傳)

大同江會談前, 沈惟敬行長會談前

(壬辰年八月)

日本與大明 動干戈 是九牛一毛大海一粟也 雖然以難違國命 要借路於朝鮮 吾國一統以來 國富民豐 無望奪國 又無意掠財 只以欲復怨也(指前蔣洲客船泊奧山事 借言也) 朝鮮介於兩國之際 路經入大明 除朝鮮外又何圖乎 是故到朝鮮則 處處構城墩 塞道路 是以戰者戮之降者容之 遂無一土當鋒而自釜山到平壤者 不越一月 加之 遣豐臣淸正於平安道至豆滿江邊擧歸一握 承前欲屯陣於鴨綠江 先是數日 呈書於禮曹判書李公 待其持章 送於平壤 不敢

邇也 亮察　　　　　　<兩朝平攘錄卷之四>

<第七號>

明帝勅書(行人司行人薛藩奉勅降喩)

(壬辰九月三日)

爾國世守東藩　素效恭順　衣冠文物　號稱樂土　近聞倭奴猖獗　大肆侵凌　攻陷王城　掠占平壤　生民塗炭　遠近騷然　國王西避海濱　奔越草莽　念玆淪蕩　朕心惻然　昨傳告急聲息　已勅邊臣　發兵救援　又專遣文武大臣二員　統率遼陽各鎭　精兵十萬　往助討賊　與該國兵馬　前後挾攻　務期勦滅凾殘　俾無遺種　朕受天命　君主華夷　方今萬國咸寧　四溟安靜　蠢玆小醜　輒敢橫行　復勅東南邊海諸鎭　並宣喩暹羅琉球等國　集兵數十萬　同征日本　直擣巢穴　務令鯨鯢授首　海波晏然　爵賞茂典　朕何愛焉　今特遣差行人司行人薛藩　齎勅喩　爾國王常念祖宗世傳基業　何忍一朝輕棄　凾宜雪耻除凶　力圖匡復　更當轉喩該國文武臣民　各堅報主之心　大奮復讐之義　夫恢復先世土宇　是爲大孝　急救君父患難　是爲至忠　該國君臣　素知禮義　必能仰體朕心　光復故物　俾國王奏凱還都　仍保宗廟社稷　長守藩屏　庶慰朕恤遠字小之意　欽哉

<再造藩邦志 卷二>

<第八號>

行人司行人薛藩奉勅後復命書(要旨)

(壬辰年九月)

事勢之可慮者　不在于朝鮮而在我國之彊場　不在于我國之彊場而在我國根本之地矣　夫遼鎭者　京師之左臂而朝鮮卽遼鎭之藩蔽也　永平者畿輔之重地而天津又京師之門庭也　二百年來福建浙江　常遭倭患而遼東天津　不聞有倭寇者以朝鮮爲之蔽障耳　若使倭人據有朝鮮則　遼陽之民　不得一日高枕而安臥　風迅一便　揚帆而西則　永平天津　首受其禍　京師其能無震驚乎臣到之日　聞其聲言　西向觀兵鴨綠　朝鮮君臣狼狽無所措　幸得沈惟敬　單騎通言　約以五十日　緩其侵犯　以待我大兵之至　然我以此術愚彼亦安知彼不以此術　却愚我乎　倭素狙詐狡猾其陷平壤之日則　曰欲假道而復仇　今則曰　欲假道而朝貢　方以不能與中國抗衡　爲千古之遺忿　又得沈惟敬說　成可通朝貢之機　倏然爲嫚罵之辭　倏然爲恭順之語　臣料其意　不過詐願招安　以緩其兵耳

<栢谷集卷三, 赴京日錄 壬辰九月十八日>

<第九號>(其一)

行長與惟敬書

(壬辰九月初二日)

日本差來先鋒豊臣行長　謹啓大明遊擊將軍沈公閣下　日本絶朝貢者久矣　數年雖求計和議於朝鮮　朝鮮不應日本之求　故起兵矣　惟時閣下來平壤　實兩國復舊規之起本乎　抑閣下以轉奏　遣天使於日本　以爲和親之驗則　幸莫大焉若見許天使則　相待者以中間五十日爲期　若又悞期者則　難留中本諸將於朝鮮城中　伏乞亮察誠恐頓首不宣

計開　鎧一甲　鋒一挺　　　　冑一首
　　　弓一張　鞴一腰(付十矢)　單刀一個
　　　長劍一挺

(其二)

同　　上

(壬辰九月初三日)

昨呈兵器若干　更有鳥銃之求　雖裝飾甚醜　纔以一奏書一道　從來命呈上之不知適貴也否　又書尾示到義州　進發上都　又行差人馳覆云云　不知是何事乎　請莫少留義州好矣　若中路而遲滯則　恐佳期出五十日乎　是以云爾　又示說　僕及傍姓名官位　僕攝津州前司小西秘書少監豊臣行長　傍將對馬州前司宗拾遺侍中豊臣義智　粗書呈焉

又示　北虜唵達之事　渠以閣下登庸　開貢則開日本朝貢之路　亦未爲難事　祝祝餘付譯舌　惟時霜遲菊未花　自受保重　頓首不宣

壬辰九月初三日

豐臣行長 花押

<兩朝平攘錄, 宣廟實錄, 朝鮮征伐記>

<第十號>

勸 諭 文

(癸巳年一月七日)

欽差經略防海禦倭軍兵部武庫清吏職方清吏司員外郎劉黃裳司主事袁黃 爲勸諭義帥 共圖匡復 照得爾國 素敦文物 世篤忠貞 邇者倭夷不道 長軀荐食 致君臣播越草莽 鎖尾流離 何其困也 大明皇帝念爾二百年來恪守臣節 不惜萬金之費 命將徂征 爾國中豈無宗戚 守重寄忠憤薰心 豈無縣官 守地方慷慨委命 豈無忠臣懷主辱臣死之念 豈無義士 蔔捐軀報國之思 宜承天威震疊 速招義兵 名提一旅之師 共伸九伐之志 今倭雖強 其勢必滅 爾國雖微 其勢必勝 試與籌之 首論天道 朝鮮分野 屬板木之次上年木星纏寅而日本來侵 是我得勢而彼侵之逆天而行 雖強必弱 一也 倭畏寒 今歲厥陰風木司天 陽明燥金爲初之氣 立春後尙有二三十日寒氣未消 天時可乘 二也 爾國君臣俱在此城 晨起望氣 鬱鬱葱葱 如練如畵 王氣在我 勢必恢復 三也 次論人事 大國雄兵 如虎如熊 無敵火炮一發千步 彼不量力 當成壓粉 一也 經略宋 沉機蓄謀 神鬼難測 提督李 一腔忠義 百戰餘勇 有古名將之風 職素仗忠貞 同心協贊 誓滅此賊 以報天子 合兩國之師 驅此窮寇 如振落 二也 關白暴虐 上以怯制其主 下以虐使其民 天欲亡之 假手于我 昨見國王 擧動安詳 耒姿俊偉 勢必中興而爾國前所遣諸使 請兵天朝 誠意懇惻 涙下如注 庶幾申包胥泣楚之忠君臣如此 豈終淪困 以此討賊 何功不成也 倭奴所恃惟烏銃而三發之後 即難繼矣 其兵雖衆強者無幾 但殺其前行一二百人 餘皆望風遁矣此可勝之機 正志士立功之秋也 我朝出令 不論我國爾國而但人 擒斬平秀吉 次及僧玄蘇者賞銀一萬兩 封伯世襲 擒斬秀吉家臣平行長平義智平鎭信等有名諸酋者 每賞銀五千兩 世襲指麾使 以下凡干斬獲 名有賞格 爾國臣民 但能乘時糾衆 共立大功 旣可復本國之社稷 又可以徼天朝之厚賞 以衰國之遺黎 爲起家之始祖 豈不暢哉 爲此咨請 須速傳示各道臣民義兵 已起者便爲前進 未起者速爲招集 或協力以挫其威 迭出以分其勢 或遏其惰歸 或斷其餉道 諸所機宜 皆聽自便 爲此具咨 須至咨者

<趙慶男撰 亂中雜錄一>

<第十一號>

秀吉이 沈惟敬에게 보내는 書

(宣祖二十六年五月下旬)

日本國前關白秀吉 書大明國之使遊擊將軍沈宇愚麾下 大明日本爲和親於朝鮮國 趨而入予前驅營中 切詢起兵故實猛將也 長盛吉繼三成行長四臣 具奏達之矣 急雖可裁瓊報 前年倭關白職於秀次 秀次可達之於天聽也 任予思慮雖可決大事 不紊大綱者世禮也圖之 王京去此地 水雲遼遠 依之大明使者 停臺輿於此營中勿涉猶豫 不舍晝夜以命侍臣 馳羽檄 檄書待相達 可投回報 餘者附四臣舌頭 盡底蘊 方物如別錄領納 特長刀十振 投贈焉 以黃金纒裹之 不宣

仲夏日 秀吉朱印

達 沈惟敬遊擊將軍

<太閤記>

<第十二號>

兩王子가 加藤淸正에게 보내는 書

(宣祖二十六年六月)

兩王子臨海君(珒) 順和君(玒) 兩府夫人 陪官長溪君(黃廷彧) 上洛君(金貴榮) 行護軍大將(黃赫) 南兵使(李瑛)等 自壬辰年七月二十四日 被擄日本大將軍計頭淸正 大城相見 即加禮遇 一行下人 并給衣糧 撫恤頗至 又稟于關白殿下 到釜山浦還 許放還京城 其慈悲如

佛 眞箇日本中好人也 況素聞 關曰殿下 雄桀無比 四隣皆畏之 且善於分別 待隣國 王子諸官 稍孝舊意 愍其渡海 使復于京 其恩厚 與此海俱深 一行之人 其敢或忘 後日若對 日本及計頭 復發雜談 少有背負之意 非人情也 天地鬼神共知之矣 脩好之日 通書寄情事

萬曆廿一年六月初二日

順海君(華押) 行護軍(華押) 南兵使(華押)
臨海君(華押) 長溪君(華押)

<紀伊德川家所藏文書>

<第十三號>

加藤清正에게 보내는 劉綎의 書

(宣祖二十六年六月, 七月十二日
會談때에 僧惟政이 傳達한 것)

日本侵犯朝鮮 毁我屬國 兵連禍結 比歲無休 皇上聞之 赫然震怒 特授節鉞 分遣虎臣 意圖盡戮長鯨 永清東海 邇因沈惟敬 往回面講 日本遂能傾心解甲 納款乞盟 盡行退還朝鮮地方 引類歸國 又從釜山 遣小西飛驒守久大夫 叩天朝俟命 一念至誠 深可嘉賞 故天朝所遣數百萬兵 將盡止鴨綠江頭 大將軍提督李(如松) 統兵二萬駐王京 郭總兵李總兵領二十萬駐遼東 吳副總領兵二萬 與諸將分布平壤開城者 十萬有餘 俱按不動 恐一與交鋒 便爽約議 失我堂堂天朝 覆載度量 不意 汝等歸志不決 復攻晋州頓背前盟 云洩舊念 夫朝鮮八方地道 已破其七 士女橫罹荼毒者 枕骸遍野 懸首盈竿 亦云慘極 更復何讐 矧晋陽黑子之地 何必以小嫌介意而甘失大信於中國哉 及今尙當易慮改心 速速撤兵東返則我輩必不擧兵相加失信外國 務令汝等不遭鋒鏑航海生還 若復執迷兵難遂寢 必發鳥烏尾福船樓船栢船龍艚沙船艙船銅蛟小艄海舠叭喇唬八槳等船 裝載水軍百萬 邀截海涯 斷汝歸路 絶汝糧餉 不待決戰爾將自斃島嶼 片甲不返矣 且關白 與汝原是比肩 爾等被彼牢籠 俱聽驅使 關白旣慕天朝而納貢 汝等何向晋州而攻圍 今日進退之間 利害所關非細 三思自審 免悔噬臍

<亂中雜錄卷一, 癸巳六月>

<第十四號>

秀吉의 媾和條款

(宣祖二十六年六月二十八日)

一, 和平誓約無相違者 天地縱雖盡玆矣 不可有違變也 然則迎大明皇帝之賢女 可備日本之后妃事

一, 兩國年來依間隙 勘合近年及斷絶矣 此時改之 官船商船可有往來事

一, 大明日本通好 不可有變更之旨 兩國朝權之大臣 互可懸誓詞事

一, 於朝鮮遣前驅追伐之矣 至今 彌爲鎭國家安百姓 雖可遣良將 此條目件之於領納者 不顧朝鮮逆意 對大明分八道 以四道並國城可還朝鮮國王 且又前年 從朝鮮差三使 投木爪之好也 餘蘊附與四人(石田, 增田, 大谷小西) 口實也

一, 四道者旣返投之 然則朝鮮王子 並大臣一兩員爲質 可有渡海事

一, 去年朝鮮王子二人 前驅者生擒之 其人順凡間不混和 爲四人 度與沈遊擊 可歸舊國事

一, 朝鮮國王之權臣 累世不可有違却之旨 誓詞可書之 如此者爲四人 向大明唐使 縷縷可陳說之者也

文祿二年癸巳六月二八日　秀吉朱印

<第十五號>

小西行長에게 보내는 劉綎의 書

(宣祖二十六年十一月)

天皇帝因汝日本侵犯朝鮮 風霆震怒 遣將徂征 汝等畏威 退離王京 悉屯海上 差小西飛驒守 稽顙赴闕 乞貢求封 亦見汝恭順之心 所以經略老爺(宋應昌) 提督老爺(李如松) 爲汝奏上天皇帝欲令歲時貢獻 按兵不追 此我中國 待汝外夷 恩信至矣 汝須當俛首聽命 渡海而歸 却乃復肆猖狂 攻陷晋州 屠戮甚暴 皇帝一聞 愈加震怒 除舊兵二十餘萬 新調精銳六十萬 海

舡二千號 特命本部總督 勦殺汝等 以靖東方 念汝旣已遣貢 不卽追勦 姑念恩信 如何又却 急攻打慶州(安康)者 遂發兵勦殺 汝等不能自看 反爲大將軍 失信於外夷 爲今之計 若能聽本長之言 將前所擄朝鮮男女老幼 盡數放回 令人解送 本部還當重賞 解一百則一百之功 解一千則一千之功也 本部復將汝効順 寬心奏聞 經略老爺 轉奏皇帝 准爾款員 爾等生回 重見父子兄弟 豈不快哉 豈不快哉 倘包藏禍心 執迷不悟 天兵席長驅 自取喪身亡命 彼時悔無及矣 汝等再三思利害 愼之愼之

<亂中雜錄卷二 癸巳十一月, 春坡堂日月錄卷九 癸巳十一月, 朝野僉載卷二十八 癸巳十二月>

<第十六號>

劉綎에 對한 行長의 答書

(宣祖二十六年 閏十一月四日)

日本差來使豐臣行長 誠恐謹啓 大明總兵劉老爺麾下 回書縷縷 薰誦再三珍重 先書問天使及沈爺(惟敬) 僕小西飛驒守 赴北京也否之事 盡示其所在乎 至於陷晋城之事 則具在天使及沈爺口布 故不重說焉 示除舊兵二十萬 新調精銳雄兵六十萬 特命本部總督 盡殺汝等 以靖東方云云 僕謹聞焉 天兵縱盡殺先鋒以下數十萬 亦兩國爭屬太平乎 除和親外 太平奇策別有何乎 僕思在玆 但麾下意如何 論在東萊以倭兵犯慶州之事 不審 全州日本之命也 士卒私犯也乎 大軍不能一一制之和親若遲延 則小寧之事 必多乎 亮察 以天使及沈爺誓約之旨 倭兵大半歸國 今猶遺數十萬衆之兵 在浦浦之營 且待天使再來 因天意取兵於日本 是天使及沈爺之所約也 定達貴聽乎 於熊川左右則僕堅制搶挫稻穀之事 誰知賊徒伺隙而作禍乎 莫怠乎防嚴好乎 又示還朝鮮男女等事 和親以定則留之日本何益乎 亦亮察 此後寄倭諸將之書 僕必達之 惟秋抄 風烈波急 故留使節先送還之 聊不使節怠慢也 勿嗔 除僕之三副將(石田, 增田, 大谷)外 別無知兩國和親事者 異日莫寄書於他將 縱又他將有呈書於麾下者 決莫信之 況於其回書乎 餘付使舌 惶惶頓首不宣 <亂中雜錄二 癸巳十一月>

<第十七號>

明主가 宣廟에 보내는 書

(宣祖二十六年 閏十一月十二日)

(明使行人司行人司憲)

昨者 王以大兵 驅賊出境 還歸舊國 上表進方物來謝 朕心深用嘉悅 念玆復國重事 不可照常報聞 今特遣使降諭 因賜王大紅紵衣二襲 彩匹四表裡 以示朕惓惓爲王遙慰之意 顧朕又惟該國雖介居山海間 傳祚最久 昔在先朝 未沾王化 尙能拓地守險 雄視諸夷 今爲我朝春秋貢獻之邦 以世世憑席寵靈 蓄養財力 宜益富強 乃近倭奴一入而王城不守 原野暴骨 宗社爲墟 追思喪敗之因 豈盡適然之數 或言 王偸玩細娛 信惑羣小 不恤民命 不修軍實 啓侮海盜 已非一朝而臣下未嘗有言者 前者之覆 後車豈不戒哉 惠徼福於爾祖 及我師戰勝之威 俾王之君臣父子相保 豈不幸甚 第不知王新從播越之餘 歸見黍離之故宮 燒殘之邱 壟與素服郊迎之士衆 噬臍疾首 何以爲心 改絃易轍 何以爲計 朕之視王 雖稱外藩 然朝聘禮文之外原無煩王一兵一役 今日之事 止以大義發憤 哀存式微 固非王之所當責德於朕也 大兵且撤 王今自適國而治之 尺寸之土 朕無與焉 其可更以越國救援爲常事 使爾國恃之以不設備則處堂厝火 行復自及 猝有他變 朕不能爲王謀已是用豫申告戒以古人臥薪嘗膽之義勉之 其尙及今息肩 外侮再展國容之時 撫瘡招流散 遠斥候繕城隍 厲甲兵實倉廩 毋淫於酒色 毋荒於遊盤 毋偏信獨任以閉下情 毋峻刑苦役以叢民怨 庶幾殷憂憤恥之後 先業可興 大讐可雪 此則計自今存亡治亂之幾 在王不在朕 其戒之愼之故諭 <東閣雜記, 再造藩邦志>

<第十八號>

沈惟敬에 주는 小西行長의 書

（宣祖二十六年 閏十一月四日）

日本差使來先鋒豐臣行長　謹白天朝遊擊將軍沈老爺麾下　麾下去歲(宣祖二十五年) 八月二十九日　會于平壤府外 所約麾下之言變而僕之言不變　其件件　書以備歷覽第一件　去歲平壤西北分界 是以倭人不過界　麾下如何制之乎 朝鮮人超界變約之事　第二件　麾下於靑石嶺　有墮馬之失　故誤來期　雖然　醫療得㢤漸　頃月順安云云　因玆爲問安　或爲延接　差僕小臣竹內吉兵衛則擒渠不還　出兵圍平壤之事 第三件 麾下再到漢江　講和之日　諸將皆不信之　僕獨取信　從麾下之言　引兵退王京　遺二十餘萬糧物不燒滅之　長途所築倭營　亦不能損滅而收兵浦浦事　第四件　朝鮮二國胤 及陪臣等　從漢江所約　送還之事　第五件　因與麾下相約　不出兵於全羅道　至今日其安穩　事　第六件　與麾下相約之者　是携小將飛驒守(小西如安) 赴北京　直聞石老爺(石星) 口中之言　重導大官天使來者不出三四個月　且又隔二十日通書信云云　雖然至今日未通一書飛驒亦久留王京　然後居平壤不達北京　徒送光景　僕信麾下之言　奏太閤殿下　差飛驒從麾下　今如斯者　不知如何之事　第七件　差譯官法釋打　護送二天使(謝用梓　徐一貫) 天使達王京之日　即送還云云　蓋是二天使之言也　定達貴聽　何不送還而留之乎　縱留之亦從飛驒者　是理也　在別處　如何之事　右七件皆麾下違約而僕毫厘無違約者　今譚爺(宗仁) 帶宋(應昌) 李(如松) 二老爺之書　求太閤殿下表文　且告收兵對馬　事事紛然　何捨何用乎雖云天寒路遠麾下速來面則相　議殿下者必矣故少留譚爺於鄙營　以待麾下　麾下若不來則何以爲證乎　又須有表文　除麾下之外　別度與誰乎　萬事克始克終者　是日本之道法也　是以云爾　麾下不來　天使亦遲延則在浦浦之諸將　豈徒送日乎　出兵馬者必矣　方于此時　莫言僕變約　又收兵對馬者　不知是何事乎　麾下重導天使來則縱不命之　亦收兵者也　何不導天使來而有此命乎　所示一一如磨牛踏舊轍　莫重說如此之事　餘期會面之日　恐惶頓首不宣

十一月五日

<宣祖實錄卷四十五>

<第十九號>

劉綎에게 再復하는 行長의 書

（宣祖二十六年十一月）

日本先鋒豐臣行長　誠惶頓首　謹啓大明總府劉老爺麾下　前月二十七日所封之書　今月初四日開封　所示之旨　粗如前書　其報章　度與使節今又何言乎　至于兩國和親之事則何在怖畏人處乎　天朝若不許和親而而後怖畏人亦妨乎　縱聞麾下之言　安有怖畏之意　亦不聞日本之命　豈引兵歸去乎　又搶掠人財之事　僕一切制焉　賊伺隙而搶掠者　不是僕之所知也　請命里民　鎮役之則可也　餘在先書　故不能細陳　誠惶頓首不宣　　<亂中雜錄>

<第二十號>

關　白　降　書

（宣祖二十六年十二月二十一日）

萬曆二十一年十二月二十一日 日本關白臣平秀吉　誠惶誠恐 稽首頓首　上言請告　伏以上聖普照之明　無微不悉　下國幽隱之曲　有求則鳴　披瀝愚衷　仰于天聽　恭惟　皇帝陛下　天佑一德日清四方　皇極建而舞干羽于兩階　聖武昭而柔遠人于萬國　天恩浩蕩　遍及遐通之倉生　日本微眇　咸天朝之赤子　屢託朝鮮而轉達　竟爲秘匿而不通　控訴無門　飲恨有日　不得已而構怨　非無謂而用兵　且朝鮮　詐僞存心　乃爾虛瀆宸聽若日本　忠貞自許　敢爲迎刃王師　遊擊沈惟敬忠告諭明而平壤願訂　豐臣行長等　輸城向化而界限不逾　詎謂朝鮮反間　構起戰爭　雖致我衆死傷　終無怀棺王京　惟敬舊約復申　日本諸將初心不易　還城郭　獻芻糧　益見輸誠之悃　送儲心歸土地　用盡恭順之心　今差一將小西飛驒守

陳布赤心 冀得天朝龍章銀錫 以爲日本 鎭國寵榮 伏望陛下廓日月照臨之光 弘天地覆載之量 比照舊例 特賜册封藩王名號 臣秀吉 感知遇之洪休 增重鼎臺 答高深之大造 豈愛髮膚 世作藩籬之臣 永獻海邦之貢 祈皇基丕贅於千年 祝聖壽綿延于萬歲 臣秀吉無任膽天仰聖 激切屛營之至 <宣祖實錄, 亂中雜錄>

<第二十一號>

神宗皇帝의 詔諭

<宣祖二十八年正月二十一日>

朕受天命 覆幬無私 仁育遐荒 有同宇下 惟爾日本 遠隔鯨濤 昔受爵于先朝 中乃自 攜于聲教 爾平秀吉 能統其衆 慕義承風 始假道于朝鮮 未能具達 繼歸命于闕下 猶見眞誠 馳信使以上表章 于屬藩爲之代請 恭順如此 朕心嘉之 玆特遣後軍都督府署都督僉事李宗誠 充正使 五軍營右副將 署都督僉事楊方亨 充副使特節封爾爲日本國王 錫以冠服金印誥命 凡爾國大小臣民 悉聽敎令 共圖輯寧 長爲中國之潘維 永奠海邦之黎庶 恪遵朕命 克祚天休 故玆詔示 俾感知重

萬曆二十三年正月二十一日

<皇明實錄神宗顯皇帝實錄卷二百八十一, 萬曆二十三年正月丁亥 卷七百八十二, 二月丙午, 乙卯, 日本國民史朝鮮役 明史卷二十, 本紀二十, 萬曆二十三年正月癸卯 皇明從信錄卷三十八, 兩朝平攘錄卷四>

<第二十二號>

明皇帝가 秀吉에게 주는 書

〔封秀吉爲日本國王〕〔誥命〕

(宣祖二十七年正月)

奉天承運皇帝 制曰 聖仁(神) 廣運 凡天覆地載 莫不尊親帝名(命) 溥將曁海隅日出 罔不率俾 昔我皇祖 誕育多方 龜紐龍章 遠錫扶桑之域 貞珉大篆 榮施鎭國之山 嗣以海波之揚 偶致風占之隔 當玆盛際 宜纘彝章 咨爾豐臣秀吉 崛起海邦 知尊中國 西馳一介之使 欣慕來同 北叩萬里之關 懇求內附 情旣堅於恭順 恩可靳於柔懷 玆特封爾 爲日本國王 錫之誥命於戱 寵賁芝函 襲冠裳於海表 風行卉服 固藩衛於天朝 爾其念臣職之當修 恪循要約束 感皇恩之己渥 無替欵誠 祗服綸言 永遵聲教 欽哉

萬曆二十三年正月二十一日

<皇明實錄卷二百八十一 萬曆二十三年正月癸卯, 石川子爵家所藏文書, 兩朝平攘錄卷之四, 秀吉譜, 明朝記事本末卷六十二, 皇明從信錄卷三十八>

<第二十三號>

明皇帝가 秀吉에게 보내는 書

〔封秀吉爲日本國王〕(勅諭)

(宣祖二十七年正月二十三日)

皇帝勅諭日本國王平秀吉 朕恭承天命 君臨萬邦 豈獨而安中華 將使薄海內外 日月照臨之地 罔不樂生而後心始慊也 爾日本平秀吉 比稱兵于朝鮮 夫朝鮮 我天朝二百年恪守聽貢之國也 告急於朕 朕是以赫然震怒 出偏師以救之 殺伐用張 原非朕意 迺爾將豐臣行長 遣使藤原如安 來具陳稱兵之由 本爲乞封天朝 求朝鮮轉達而朝鮮隔越聲教 不肯爲通 輙爾觸冐以煩天兵 旣悔禍矣 今退還朝鮮主京 送回朝鮮王子陪臣 恭具表文 仍申前請 經略諸臣 前後爲爾轉奏 而爾衆 復犯朝鮮之晋州 情屬反覆 朕遂報罷 邇者 朝鮮國王李昖 爲爾代請又奏 釜山倭衆 經年無譁 專俟封使 具見恭謹朕故特取藤原如安來京 令文武群臣 會集闕庭 譯審始末 并訂原約三事 自今釜山倭衆 盡數退回 不敢留住一人 旣封之後 不敢別求貢市 以啓事端 不敢再犯朝鮮 以失隣好 披露情實 果爾誠 朕是以推心不疑 嘉與爲善 因勅原差遊擊沈惟敬 前去釜山 宣諭爾衆 盡數歸國 特遣後軍都督府僉事署都督僉事李宗城 爲正使 五軍營右副將 左軍都督府署都督僉事楊方亨 爲副使 持節賚詰 封爾平秀吉 爲日本國王 錫以金印 加以冠服 陪臣以下 亦各量授官職 用溥恩賚 仍詔告爾國人 俾奉爾號令 毋得違越世

居爾土 世統爾民 蓋自我成祖文皇帝錫封爾國迄今再封 可謂曠世之盛典矣 自封以後 爾其恪奉三約 永堅一心 以忠誠報天朝 以信義睦諸國 附近夷衆 務加禁戰 毋生事於沿海 六十六島之民 久事徵調 離棄本業 當加意撫綏使其父母妻子得相完聚 是爾所以仰體朕意 上答天心者也 至於貢獻 固爾恭誠 但我邊海將吏惟知戰守 風濤出沒 玉石難分 効順既堅 朕豈責報 一切免行 俾爾絶後釁遵守朕命 勿得違天鑒孔嚴 玉章有赫 欽哉 故諭

萬曆二十三年正月二十三日

<兩朝平攘錄 卷之四, 日本宮內省圖書寮所藏>

<第二十四號>

關白의 謝恩表

(宣祖二十九年十一月)

日本國王 臣豐臣秀吉 誠惶誠惶稽首稽首 伏惟日月照臨 仰大明於萬國 江海浸潤 措聖化於無疆 皇運高承 天恩普濟 恭惟 昭神宗德 安人民心 遠近巨細霑恩 不減堯舜之聖世 威儀進止合禮 蕩乎周夏之隆風 何計 東海小臣直蒙中華盛典 誥命金印 禮樂衣冠 盛併恩籠 臣一一遵崇感戴之至 擇日必具方物 申謝九重 虔盡丹誠 願察愚悃 天使先回 謹附表以聞

<神宗顯皇帝實錄 卷三百四 萬曆二十四年十一月癸巳>

<第二十五號>

哀 痛 教 書

(宣祖二十七年四月)

凡我中外人民 聽予哀痛之言 予之否德 作民父母而恬於久安 意其已治而民怨于下而予不能聞 天怒於上而予不得知 馴致禍亂 以至三年予今雖悔 悔亦何追 嗚呼兇鋒所過 白骨如山千里蕭然 無復人烟 哀我生民死於兵戈之下者不知幾萬人也 流亡溢目賑救無方 顚坑仆壑 自相枕藉 哀我生民 飢餓而死者 亦不知幾萬人也 就其存者 瘡痍餘命 莫非菜色 掃地赤立 不能聊生而誅求侵虐 倍於平日 財則益殫而賦益煩 力漸竭而役漸重 哀我生民 豈暇念朝廷之不得已也 嗚呼持男易粟 古聞其語 其在今日人自棄子 奈之何民不爲盜也 草根自活 古聞其語 其在今日 人自相食 奈之何民不爲盜也 皆由予之膏澤不下 由予之撫摩失宜 使吾民至於如此 興言及此 戴履無面 予用深矜 如痛在身抑亦由予奉命之臣 或有驕橫 由予守土之官或有掊克 使吾民至於如此 官不得人 亦予之罪民宜咎予 予何辭焉 嗚呼惟我生民 皆予赤子予雖不辟 豈忍坐視 不思所以安集之策乎 諸道之民力已盡 限事定蠲減其進上 軍士困窮已極過番者 永減其價布 分憂佩綬之臣 當此艱虞 貪殘益甚 并令摘發 一一嚴治 軍糧刷馬之事悉委色吏 怨咨盈路 裁其闊狹 務令均一 兵務在精 不務在多 抄軍冗雜者 并令汰去 使無侵擾之弊 賞功之典 宜不踰時而文書日積 查考日遲 使我立功之人 未蒙朝家之賞 並皆所在自言監司 即爲啓聞 須賞使無遲滯之患 民之困窮 莫此時若 已極倒懸之冤 寧無可祛之弊 方十分講究 務令便民 嗚呼凡我中外之民 恕予既往之咎責而許予將來之自新 庶幾如今姑惟堪忍而他日昇平 各安其業 不亦樂乎 故茲教示

<趙慶男撰 亂中雜錄二>

<第二十六號>

顧養謙書 (參將胡澤携帶)

(宣祖二十七年甲午四月)

倭奴無端侵爾 勢如破竹 據王京開城平壤三都會有爾土地人民十八九 虜爾王子陪臣 皇上赫怒興師 一戰而破平壤 并進而得開城 倭奴竟遁王京 送還王子陪臣 地二千餘里 所費帑金不貲 士馬物故亦不少 朝廷之待屬國 恩義止此皇上罔極之恩 亦已過矣 今餉已不可再運矣 兵已不可再用矣而倭奴亦畏請降 且乞封貢 天朝正宜許之封貢 用之爲外臣 驅倭盡數渡海 不復侵爾 解忿息兵 所以爲爾國久遠計矣 今爾國糧盡 人民相食 又何恃而請兵耶 既不與兵餉於爾國 又絶封貢於倭奴 倭奴發怒於爾國而爾國必亡安可 不早 自爲計耶 昔句踐之困於會

稽也 豈不欲食夫差之肉乎 而姑忍耻含詬(子)以有待也 身且爲臣 妻且爲妾也 況倭奴請爲臣妾於中國 以自寛而徐爲之圖 是愈於句踐君臣之謀也 此而不能忍 是倖倖小丈夫之見耳非復讐雪耻之英雄也 爾爲倭請封貢 若果得請則倭必益感中國而且德朝鮮 必罷兵而去 倭去而爾國君臣遂苦心焦思 臥薪嘗膽 以修句踐之業 天道好還 安知無報倭日也

<再造藩邦志 卷三>

<第二十七號>

許封秀吉事移咨本國文

〔石星이 尹根壽에게〕

(宣祖二十八年一月三十日)

本部因貴國仰奏爲 頃因倭犯朝鮮 勢危告急致廑我皇上 命將興師 遠爲拯救 勞兵費餉 始得恢復境土 再造生靈 比自關白特小西飛 具表乞封 意雖誠懇 尙未概允 繼因朝鮮具疏代請荷蒙皇上姑准一封追復欽奉聖諭 會集文武多官 研加譯審明確 本部一力擔當 題奉聖旨 這倭使旣譯審明確 封名册使 着議具奏 你部裏先差官宣諭倭將 率衆盡數回巢 待朝鮮王奏致之日 遣使往封欽此 隨經題准 封關白爲日本國王 欽遣册使二員 同小西飛 於正月內出境 暫住遼陽 俟釜山倭衆盡數回巢 該國奏到而往封薄海內外 莫不聞知 無非爲朝鮮計也 令特專官傳檄 該國君臣 務意誠心 仰體聖明字小之仁責差的當陪臣 前到釜山 親會行長 諭以天朝恩威 兩相修好 不念舊惡 俟彼釜倭盡歸 柵房燒毁之後 遵旨據實奏報 以便册使渡海往封 萬勿遲疑 <再造藩邦志 卷三, 宣祖實錄卷六十二 宣祖二十八年四月己酉>

<第二十八號>

行長書契 (禮曹에 보내는 書)

(宣祖二十八年二月十一日 裵國安傳達分)

日本先鋒豐臣行長 謹啓朝鮮國禮曹大人閣下 天朝兵部尙書石星 差裵國安及馮堂等 宣諭封事實信 貴國命官一人 護送入營 爲天朝存忠誠 爲日本修舊好幸甚 日本於天朝 爲篤恭順求册封侯天使者 三霜于玆矣 天朝人嫌疑未解 時時差人示撤兵之事 行長先是三年 沈游擊入平壤結約以後 無一違約 分界不超之 退王京到釜山 脫淸正手 還王子陪臣 今雖在浦浦乎犯貴國封彊 運日本用度 只蘇渴是貴國溪水而已 若非候天使 爭徒滯浦浦乎 天朝人疑心未休者何也 伏望貴國上書兵部 先差沈游擊入營相議 天使進營 乃是貴國平安 倭兵還國良策也 勿怠勿怠 餘期嗣音 惟是之望

<再造藩邦志 卷三>

<第二十九號>

沈遊擊의 兵部에 대한 稟帖

(宣祖二十九年十月)

爲完報東封事 閏八月十八日 卑職等 奉到欽鏰龍節璽書等件 秀吉擇以九月初二日 迎於大坂受封 卑職先往敎禮 奉行惟謹 至期迎請册使直至中堂 頒以誥印冠帶服等項 率衆行 五拜三叩頭禮 件件頭項 習華音呼萬歲 望闕謝恩 一一如儀禮畢 開宴使臣及隨行 各官 是晩秀吉親詣卑職寓所 稱謝 次早謝揚正使 饋以衣刀甲馬 各官亦饋刀幣 極言感戴天恩不盡 再三慰勞 卑職特諭速撤釜兵 彼言 今受皇帝賜封王爵 當即撤以修隣好 但恐朝鮮前怨不釋 仍聽皇帝處分 再候命下 卑職正色開諭 面雖首肯 尙未見行 卑職至初四日 回至和泉 一面調集船隻 一面屢行催諭 初九日登船 卑職遣正成行長往日本 中途回言 即當如命行 至名護屋 卑職復遣正成往促 俟回日 備悉中情飛騎馳報 爲此先行具稟

萬曆二十四年十月 日

遊擊 沈惟敬

<宣祖實錄卷八十三 宣祖二十九年十二月戊寅癸未乙酉, 亂中雜錄二 丙申十二月, 春坡堂日月錄卷九, 日本往還日記 丙申十二月初七日 初八日 初九日>

<第三十號>

周孔敎之疏（石星彈劾文）

（宣祖三十年六月）

……前略……星誤國之罪 即擢髮難數 臣姑擧其一二 星原奏 一倭不留 方許册使渡海 今册使渡海而還矣 而倭有增無減 此其欺皇上一也
星原報 清正被殺 今清正儼然領兵矣 此其欺皇上二也
星原奏 一封之後 不許侵犯朝鮮 今册使未還而倭船二百 己泊朝鮮 梁山一道己奪矣 此其欺皇上三也
自古大臣未有使家人入外夷者 舊歲六月 星使家人張行 潛入倭營 直至十二月方回 傳聞金帛珍寶 往來綢繆 就中機關 直不可曉 此其欺皇上四也
十二月 又造僞表一紙 送科臣徐成楚 成楚曰表年月此僞表也 今據遼東巡按李孝思奏報 原無謝表矣 此其欺皇上五也
明知倭無謝使 懼陛下之譴責也 預先誑奏曰 不必來謝以滋騷擾 則昔日小西飛者之來 獨不騷擾久 使非皇上洞燭其奸 責今來謝 則咫尺之僞表 取之楊邦亨之袖中而具 此其欺皇上六也
倭酋方稱兵與我爲仇 動輒誑奏爲屬國 未有屬國而不遵約束者 是欺誰久 此其欺皇上七也
明知關白所欲者 朝鮮土地也 誑奏曰 責禮文關白何愛於朝鮮一禮文 而至費十年之訓錬 五年釜山之坐守 久此其欺皇上八也 不惟八欺 且有五誤
平壤倭己退 而守王京矣 當時講固退 不講亦退 乃信沈惟敬之邪說許七事 而講墜倭術中此其一誤也
先是 川淅之戍兵不撤 朝鮮庶可無奈何 撤之以媚倭也 今朝鮮顚蹶之後 遠水能救近火乎此其誤二也
方李宗成棄印而逃 倭情己露矣 皇上赫然震怒下廷臣會議之 無非可行者 星原閣不行 急則申飭塞責而己 故督府請餉不與 請兵不與 名爲申飭而實中制之 此其誤三也
倭之所小馬耳 星又以名馬五百匹 棄之以資倭此何爲者 此其誤四也
言倭變者 目爲之樂禍 言不變者 喜之爲護己言修備者 目之爲張皇 偸目前者 稱之爲安靜盖自講封以來 倭日練兵 日修甲 蓄銃以伺釁我日撤兵 日弛備 措手以待敵 此其誤五也 從此東南半壁 脊脊多事矣 陛下何負於星而負陛下如此 眞可痛恨者 昔人有言 事不成思動輒言誤 誤不可數也 譬猶變者 前着雖差 後着猶可救也 若着皆誤 何以取勝 自星當局 誤着甚多 敗局己見 國家大計 豈敢幾誤 今社稷安危 在此一着 拯溺救焚 如恐不及 陛下又向惜此欺罔之人 以重誤大事 伏望皇上將石星速賜議處 函選文武忠赤大臣一員 代管樞事 急修戰守 更置將吏 沿海去處某 爲緊要當防 沿海官員某 爲廉勇可倚 一一留意振刷 庶可内治既固 外侮自絶 不勝泣血祈禱之至 奉聖旨

<再造藩邦志 卷四>

<第三十一號>

傳諭朝鮮國王（陳效）

（三十九年三月）

朕念爾國 近在東藩 世孝恭順 曩年倭奴殘破爾疆土 國王奔播義州 哀籲請援 朕爲惻然 特遣文武重臣 帥師東征 不啻救焚拯溺 爾時擧國猶有固志 共助天討 復纂土地 還爾王子陪臣 己倭奴畏遁 俛首乞封 朕念爾生聚未復 姑從其請 無非爲寧爾也 胡休息數年不加訓練 狡倭再入 張皇奏牘 謗救天朝 于是復有東征之役 勞兵轉餉 深歷險阻 爲爾防援 朕字小之仁 邺難之義 亦勤矣 玆遣御使一員 監軍督戰仍賜寶劍一口于軍門 將士有不用命者 並令斬後奏 爾君臣宜擧國努力 以助王師 無得自絶于天 致貽後愉云云
(丁酉三月 帝又命御使陳效 監軍邢軍門 差官齎奉勅書云)
(遣陪臣鄭崑壽 奉表謝恩)
(出玫事但玫事此 勅在南原陷沒 之後而愚以文勢觀之似當在此 故書于此) <亂中雜錄三>

<第三十二號>

權應銖論功敎書

……前略……肆策勳爲宣武二等圖形垂後超二階爵 其父母妻子亦超二階 無子則甥姪女婿超一階 嫡長世襲不失其祿 宥及永世 仍賜伴倘六人奴婢九口丘史四名 田八十結銀子七兩表裏一段內廐馬一匹至可領也 於戱指山河而爲誓 勳業旣煥於凌烟 與國家而同休 忠貞益篤於異日 故玆敎示想宜知悉

元勳十八人位次

一等 李舜臣 權 慄 元 均

二等 申 點 權應銖 金時敏 李廷馣 李億祺

三等 鄭期遠 權 愀 柳思瑗 高彦伯 李光岳 趙 儆 權 俊 李純信 奇孝謹 李雲龍

萬曆三十二年十月 日

<白雲齋實記卷之四 附錄>

賞 賜 敎 旨

惟卿花山君權應銖 有宣武二等功臣 將永川案付 仁壽府婢介德 義興官婢連介 義興官婢愛心 慶州官婢良生 金堤官婢春環 忠州官婢應今 特賜賞 卿可傳永世者 <同上>

<第三十三號>

漢城의 日本軍六將이 豐臣秀吉에게

(宣祖二十六年四月十七日)

一, ……ゆうけき將軍(沈惟敬) 去九日に 小西陣所へ罷越候て逗留仕 今日十七日に 大明より日本へ 相渡候勅使兩人(謝用梓, 徐一貫) 罷越候 則ゆうけきも 釜山海迄送可申に 相定候事

一, 一都の兵糧は手さきへ 相越候奉行共 改置候通 藏共に書付を以 請取 ふうき付置候此中支配仕候處 右之書付よりおほく御座候 五月上旬迄之分御座候 乍去釜山海より之御兵糧 何と被仰付候ても 都迄不相續儀に御座候條 此面之儀 此中差急 前後之衆無越度樣に 申談候 右之分に御座候間 大明勅使官人召連 都一兩日中に 打入可申候 彼官人之儀 即なこやへ 差渡可申候事……以下略……

卯月十七日

小西攝津守 行長
增田右衛門尉 長盛
大谷刑部少輔 吉繼
石田治部少輔 三成
小早川左衛佐 隆景
備前宰相 秀家

<第三十四號>

秀吉이 羽柴安藝宰相 毛利輝元에게 보내는 書

(宣祖二十六年五月二十二日)

書狀披見候 從大明國勅使差越 候雖然和平儀御勝手には可爲其分候 不應御意候は 被聞召間敷候 所詮無事には不相構 最前如被仰遣候もくそ城取卷 悉討果 其上 城々普請等 入情可被申付候 行陳於退屈者 被成御渡海 可被入替候條 可被得其意候也

五月二十二日 朱印

羽柴安藝宰相とのへ <毛利家文書>

<第三十五號>

秀吉이 立花宗茂에게 보내는 書

(宣祖二十六年九月二十三日)

其方手前居城(加德島城)普請等之儀 度々如被仰遣候 彌入念 丈夫に可申付候 大明無事之儀 惣別正儀に不可思召に付而 城城被仰付各在番候 九州同前に 令覺悟有付可之候 東國之者共 令在洛 普請等仕儀(伏見城의 築城을 말함) 校候へ者 其地者心安儀候 重而諸勢渡海之儀 被仰付 赤國(全羅道)を始 可被加御成敗候 於其上 大明御詫言申上候は 隨其可被仰出候條 彌不可有油斷候

九月三日 朱印

羽柴柳川侍從とのへ <立花文書>

<第三十六號>

秀吉이 加藤淸正에게 보내는 書

(宣祖二十七年正月十六日)

……前略……從大明佗言之筋目 乗而より 實儀とは 不被思召候條 城城丈夫に被爲仰付候就は 朝鮮之儀 九州同前に思召候間 行行は何も 內輪替に被仰付 面面も歸朝仕 致御目見候てより 可被遣候此通下下にも申聞 無退屈之様に 可令覺悟候……後略……

正月十六日 朱印

加藤主計頭とのへ　<紀伊國文書>

<第三十七號>

幸州山城 敗報 (諸將이 秀吉에게)

(宣祖二十六年二月十八日)

一, 都より 三里許西 都川(漢江)之末 河端の山(幸州山)に 一城相拵 富國之者共 島島方方より 二萬計取上 大明勢之兵糧よせ候由申候間 大明人數不罷出以前追拂度存 去十二日 各打出 先取詰外構之丸に 即時乘崩丸土居柵仁付 面面有之內 諸手より鐵砲にて城中之者 數十人うたせ申候間 二の丸に責入 數百人切捨 本城土居付而相戰申候へは少少手負出來候間 先先山半分程くつろけ申候夜責にも 可仕かと 各存候つれとも此方自然可然者なども手負候へば 如何と存打入候處 昨日十七日に 彼城自燒を仕候而逃退申候事

一, 右の責申候城下に 番船をも百五十艘計掛置申候都より五十丁はか聞の內へ 廿艘卅艘計 此中乘上申候へとも昨日城明退候てより 船も下申候 定而舟之儀者 何時も可罷出候哉之事……以下略

二月十八日

増田 長盛　大谷 吉繼　石田 三成

加藤 光泰　前野 長康　黑田 長政

小西 行長　小早川 隆景

<第三十八號>

長束正家로 부터 小早川隆景에게

(宣祖二十六年五月十九日)

一, 今度 都無異儀 御引取 殊從大明之勅使有御同道 日本へ 被差渡候事 御手柄 不及是非候 大閤様御機嫌御推量之外候

一, 勅使同道候て 兩四人(三奉行과 行長) 名護屋え參上被申候 仕合能候間 先以可被御心安候……略……

五月十九日

長束大藏大輔正家

隆景様

<第三十九號>

黃石山城 戰鬪後 秀吉이 諸將에게

八月十七日 注進狀 並繪圖到來 加披見候 赤國と白國之境 安陰郡內 黃石山之城 金海上官相拘候處 仕寄申付 八月十六日夜責崩 彼上官首 黑田甲斐守手へ討捕 其外於城中三百五十三 并谷谷つき崩候處 於手前 數千人切捨候由 粉骨之至 神妙に被思食候 彌先先動之儀左手之衆申談 不可有由斷候……

九月二十二日 朱印

羽柴盛親, 毛利秀元, 長曾我部元親, 吉川廣家, 安國寺, 鍋島直茂 父子, 池田秀氏, 中川秀成, 黑田長政, 加藤淸正, 早川長政, 垣見一直

<第四十號>

康津縣 檄文

(宣祖三十年九月)

一, 郡縣自今以後 於土民百姓者 各還住鄉邑而專可務農耕事

一, 於爲上官者 所所尋探 可令誅戮事 付上官妻子從類 可誅死事 付於官人之家宅者 可令放火事

一, 郡縣之內 不限土民百姓 官人伏隱處 於告來者 可褒賞事

一，自今 被免死罪 郡縣之人民等 於不還住者 如奧郡 悉令放火 可誅死事
一，背比榜文 倭卒殺害人民 致兇惡者 件件到行長 以書可告報事
右條條 不可有僞者也
慶長二年九月 日
日本備前中納言秀家朱印
<鍋島直茂譜考補>

<第四十一號>

撤退方法에 關한 協議文

（宣祖三十一年十月晦日）

覺

一，東目之衆 引取候以後 各申談 日限相定 順天 南海 泗川 固城 四け所 唐島迄可引取事
一，順天泗川兩ロ申拵 御無事之儀 兩方共相澄儀に候へ共 一段可然候一方に於相究者 一日成共はやきかたに 人質請取 可相澄事 何の道にも 可引取刻者 先手より 次第次第可引取事
付，泗川，固城之船， 順天へ差遣 可引取候，泗川之船を 南海迄 固城之船者 唐島瀨戶(見乃梁海峽)迄送屆可及事十月晦日
小西 行長 羽柴 宗茂
羽柴 義智 羽柴 義弘

<第四十二號>

泗川戰功褒賞文

（宣祖三十二年正月九日）

今度於朝鮮國泗川表 大明朝鮮人 催猛勢相働候處 父子被及一戰 則切崩 敵三萬八千七百餘被切捕之段 忠功無比類候 依之 爲御褒美 薩州之內 御藏入拾人分有次第 一圓被宛行 目錄別紙有之 并息又八郞被任少將 其上御腰物長光 義弘へ御腰物正宗 被爲拜領候於當家御名譽之至候也 仍狀如件
正月九日
安藝中納言 輝元 會津中納言 景勝
備前中納言 秀家 加賀大納言 利家
江戶內大臣 家康

<第四十三號>

明經理楊鎬咨平秀吉文

（丁酉年五月十六日）

欽差經理朝鮮軍務 都察院右僉都御史楊 咨爾平秀吉 大明皇帝 因朝鮮王代爾請封 嘉爾恭順 不忍爾兩地之相戕 傷天和 用遣使臣渡海勅封爾秀吉爲日本王 爾得據有名號 雄長諸島 自宜銜戴皇恩 韜戈修德 以樂爾餘年 貽慶爾幼子 斯爲永圖 胡使臣甫歸遽敢違制背盟 以朝鮮禮文爲辭 又復侵占釜山機長之間乎 今朝鮮赴告 皇帝震怒 已遠譴使臣更置兵部總督 另設經略經理 興問罪之師於海上 爾度爾之力 即抗朝鮮 且勝敗難必 若天朝視蕞爾日本 即爾六十六島中之一島耳 況爾既受王封 已爲臣屬 臣與君抗 天理不容 神明且殛之 昨年爾國地大動搖 此其兆也 尙不安靜祈福 而欲日尋于兵乎 爾已六十餘歲 壽命幾何 子未十齡 孤弱何恃 聞各島之酋 俱覘爾之隙 爲復讐報怨之擧 爾不銷兵綏衆 安妥人情 乃使悍將擁兵于外一旦配島內變 蕭墻禍起即清正諸將 各思爲王 豈肯久居爾下 將來又豈肯居爾子之下者 以理勢論之 爾不如速行罷兵 修好朝鮮 憑藉天朝之威靈 默消諸島之睥睨 其前所乞 朝廷與爾處分者何事 可明白奏來 朝廷量包乾坤視 爾與朝鮮皆爲臣子 必無偏重 爾如不自悔禍 任爾以數十萬百萬壓朝鮮 在天朝仁恩拯溺 義必討逆亦不遠勒大兵 但勅馬步十萬 薄釜山 助朝鮮之順 福浙水兵十萬 分兩道以樓船從南海 與爾秀吉 見于烏沙盖 且問山城君安在也 爾其愼思之
萬曆二十五年五月十六日
<山口市櫻圃文庫所藏>

附 表

<附表 第1>

地方別武官配置一覽表

<大典會通卷四參照>

外官職	道別	京畿	忠淸	慶尙	全羅	黃海	江原	咸鏡	平安	摘要
陸軍	兵馬節度使	1	2	3	2	2	1	3	2	從二品, 一은 觀察使兼
	虞侯	0	1	2	1	1	0	2	1	從三品, 慶尙은 右左道, 咸鏡은 南北道
	評事	0	0	0	0	0	0	1	1	正六品, 咸鏡은 北道에
	防禦使	1	0	0	0	0	1	1	2	從二品
	節制使	1	0	1	1	0	0	0	1	正三品, 慶尙은 慶州鎭에
	僉節制使	10		7	4	1	3	25	26	從三品
	同僉節制使	16	15	24	19	16	11	7	20	從四品
	萬戶	6	0	0	0	3	0	12	10	從四品
	節制都尉	12	36	39	33	9	12	4	11	從六品
水軍	水軍統制使	1	0	1	0	0	0	0	0	從二品, 京畿는 統禦使(江華留守兼), 慶尙은 統制使
	水軍節度使	2	2		3	2	1	3	1	正三品, 一은 觀察使兼, 京畿一은 統禦使가 兼
	中軍	1	0	1	0	0	0	0	0	正三品堂上(京畿)從二品(慶尙)
	虞侯	0	1	1	2	1	0	0	0	正三品堂上(慶尙) 從四品(全羅)(左右道) 正四品(忠淸)
	防禦使	1	0	0	1	0	0	0	2	從二品
	節制使	0	0	3	1	0	0	0	0	正三品, 慶尙은 左右道各一, 一은 觀察使가兼, 全羅는 濟州鎭
	僉節制使	3	4	4	7	2	1	0	6	從三品
	同僉節制使	2	0	2	3	4	0		0	從四品
	萬戶	1	1	15	15	1	1	1	0	從四品
巡營中軍		1	1	1	1	1	1	1	1	正三品堂上
鎭營將		4	5	6	5	5	3	6	9	正三品, 府使가 兼
衛將		0	0	0	0	0	0	10	0	正三品, 府使가 兼
監牧官		5	1	3	5	3	0	3	1	從六品, 府使가 兼
權管		0	0	2	0	0	0	14	18	從九品, 堡壘等 獨立된 要地에
別將		8	1	8	7	5	0	2	7	從九品, 島嶼 山城 渡江口等에

備考

1, 節度使는 主鎭, 節制使 僉節制使는 巨鎭, 同僉節制使 萬戶 都尉는 諸鎭이라 稱함.
2, 北道邊地는 曾經訓正 또는 將家子弟로서 差送함.
3, 江界 三水 甲山邊將은 宣薦人으로서 差除하고 京職에 陞遷하도록 待準케 함.
4, 西北外諸道兵使는 已經水使人으로서 備擬하고 南兵使(咸鏡道)는 曾經兵使로서 擬差함.
5, 僉節制使, 萬戶는 以試武藝者로 差之함(武科兼司僕, 內禁衛는 不在此限)
6, 宰相으로서 軍務奉命者는 隨品稱號.
議政은 都體察使　　一品以下는 都巡察使
從二品은 巡察使　　三品은 察理使

<附表 第2>

武官管轄區域一覽表

職責別 / 道別	兵馬節度使				水軍節度使							
	僉節制使	同僉節制使	萬戶	節制都尉	僉節制使	同僉節·制	萬戶	鎭營將	衛將	監牧官	權管	別將
京畿	10	16	6	12	3	2		4		5		8
	楊州 長湍 礪峴 月串 坡州 喬洞 驪州 南陽 白峙 長串	利川 楊根 竹山 富平 仁川 安山 安城 通津 金浦 高陽 交河 加平 永平 朔州 麻田 草芝梁	濟物梁 寅火堡 龍津 德津 昇天堡 井浦	砥平 陰竹 陽智 果川 抱川 積城 振威 陽川 龍仁 始興 陽城 漣川	永宗 德積 德浦	花梁 注文島	長峯島	前一廣州府尹兼 左一南陽府使兼 中一楊州牧使兼 右一長湍府使兼 後一竹山府使兼		有牧場守令兼(諸道同) 江華一草芝僉使兼 水原 南陽 仁川一永宗僉使兼 長峯島萬戶兼		文殊山城 臨津渡 三田渡 楊花渡 露梁渡 漢江渡 長山堡 船頭堡
忠淸	3	15		36	4			5				
	忠州 淸州 洪州	淸風 丹陽 槐山 天安 沃川 報恩 林川 韓山 舒川 瑞山 泰安 沔川 溫陽 大興 德山		延豐 陰城 永春 堤川 稷山 木川 文義 懷仁 淸安 鎭川 永同 黃澗 靑山 全義 定山 恩津 懷德 鎭岑 連山 魯城 扶餘 石城 燕岐 平澤 鴻山 靑陽 庇仁 結城 藍浦 保寧 牙山 新昌 禮山 海美 唐津 公州	所斤浦鎭 馬梁鎭 平薪鎭 安興鎭		舒川浦	前一洪州 左一海美縣監兼 中一淸州 右一公州 後一忠州		瑞山一平薪僉使兼		元山
慶尙	7	24		39	4	2	15	6		3		8
	安東 東萊 尙州 晋州 金海 善山 星州	蔚山 永川 興海 寧海 靑松 醴泉 榮川 豐基 順興 金山 陜川 草溪 咸陽 昆陽 居昌 河東 昌原 咸安 巨濟 密陽 淸道 仁同 漆谷 梁山		淸河 延日 長鬐 彦陽 義城 奉化 眞寶 軍威 比安 禮安 盈德 龍宮 英陽 開寧 知禮 高靈 聞慶 咸昌 泗川 南海 三嘉 宜寧 山淸 安義 丹城 漆原 鎭海 固城 熊川 大丘 慶山 河陽 玄風 義興 新寧 靈山 昌寧 慈仁 機張	釜山浦鎭 多大浦鎭 加德津 彌助項鎭	西生浦 龜山浦	豆毛浦 開雲浦 包伊浦 西平浦 天城浦 安骨浦 薺浦 助羅浦 玉浦 知世浦 蛇梁 平山浦 加背梁 唐浦 永浦登	前一安東 左一尙州 中一大丘 別中一金海府使兼 右一晋州 後一慶州		晋州 蔚山 東萊一多大浦僉使兼		長木浦 南村 金烏山城 禿用山城 烏嶺山城 蟾津 架山山城 金井山城

職責別 道別	兵馬節度使 僉節制使	兵馬節度使 同僉節制使	兵馬節度使 萬戶	兵馬節度使 節制都尉	水軍節度使 僉節制使	水軍節度使 同僉節制使	水軍節度使 萬戶	水軍節度使 鎭營將	水軍節度使 衛將	水軍節度使 監牧官	水軍節度使 權管	水軍節度使 別將
全羅	4	19		33	7	3	15	5		5		7
	羅州 長興 南原 順天	益山 金堤 古阜 錦山 珍山 礪山 光州 靈巖 靈光 長城 淳昌 茂朱 樂安 寶城 綾州 珍島 大靜 旌義 潭陽		全州 井邑 興德 扶安 萬項 沃溝 臨陂 金溝 龍安 咸悅 高山 泰仁 咸平 高敞 茂長 南平 務安 任實 谷城 鎭安 龍潭 玉果 雲峯 昌平 長水 康津 海南 光陽 求禮 興陽 同福 和順 判官 濟州鎭	蛇渡鎭 臨淄島鎭 加里浦鎭 古群山鎭 法聖浦鎭 群山浦鎭 蝟島	防踏 荏子島 古今島	會寧浦 呂島 鹿島 鉢浦 多慶浦 木浦 智島 南桃浦 薪智島 於蘭浦 明月浦 遠梁 突山浦 金甲島 馬島	前—順天府使兼 左—雲峯縣監兼 中—全州 右—羅州 後—礪山府使兼		興陽 順天 羅州 珍島 濟州		黑山島 古突山 威鳳山城 笠巖山城 金城山城 南固山城 所安島
黃海	1	16	3	9	2	4	1	5		3		
	黃州鎭	平山 瑞興 鳳山 安岳 載寧 遂安 谷山 信川 文城 善積 東里 蒜山 延安 白川 豐川 金川	文山 所己 位羅	新溪 兎山 文化 長連 松禾 殷栗 康翎 長淵 海州鎭判官	椒島鎭 白翎鎭	登山串 許沙浦 吾叉浦 龍媒梁	助泥浦	前—鳳山郡守兼 左—豐川府使兼 中—安岳郡守兼 右—谷山府使兼 後—平山府使兼		海州登山僉使兼 豐川椒島僉使兼 長淵白翎僉使兼		
江原	3	11		12	1		1	3				
	江陵鎭 鐵原鎭 春川鎭	三陟 襄陽 平海 杆城 高城 通川 旌善 寧越 平昌 淮陽 伊川		蔚珍 歙谷 原州判官 麟蹄 橫城 洪川 楊口 狼川 金城 平康 金化 安峽	三陟浦		越松浦	左—春川府使兼 中—橫城縣監兼 右—三陟				

職責別 / 道別	兵馬節度使				水軍節度使							
	僉節制使	同僉節度節	萬戶	節制都尉	僉節制使	同僉節制使	萬戶	鎭營將	衛將	監牧官	權管	別將
咸鏡	25	7	12	4			1	6	10	3	14	2
	甲山 安邊 三水 惠山鎭 永興 北靑 端川 長津 厚州 慶源 會寧 鍾城 穩城 慶興 富寧 訓戎 潼關鎭 高嶺鎭 柔遠鎭 吉州 魚游澗鎭 乶下鎭 城津 茂山 美錢鎭	定平 高原 德源 文川 乶波知 明川 北西	撫夷 阿吾地 阿山 朱乙 森森坡 在德 豐山 古豐山 防垣 永遠 廢茂山 梨洞	利原 洪原 鏡城鎭判官 咸興鎭判官			造山浦	前一洪原縣監兼 左一甲山府使兼 中一永興府使兼 別中一端川府使兼 右一三水府使兼 後一德源府使兼	南道 前一富寧府使兼 左一鏡城判官兼 中一茂山府使兼 右一明川府使兼 後一吉州牧使兼 北道 前一會寧府使兼 左一鍾城府使兼 中一穩城府使兼 右一慶源府使兼 後一慶興府使兼	咸興 端川府使兼 穩城府使兼	小農堡 同仁 舊乶波知 雲寵 鎭東 仁遮外 羅暖 吾村 寶化堡 梁永萬洞 乾原 黃柘坡 安原 西水羅	中嶺 赴戰嶺
平安	26	23	10	11	6			9		1	18	7
	成川 江界 渭原 楚山 碧潼 寧遠 滿浦鎭 安州 昌城 朔州 麟山 龜城 碧團 昌洲高山里鎭 淸城鎭 委典鎭 神光鎭 牛峴鎭 阿耳鎭 寧邊鎭 嘉山鎭 定州鐵山 龍川 敦山鎭	平壤鎭庶尹 中和 成從 雲山 熙川 肅川 古城 德川 价川 慈山 順川 祥原 安義 西林 淸江 上土 柔院 天摩 車嶺 恃寨 博川 天水 革兎城	伐登 仇寧 幕嶺 玉江 方山 靑水 水口 山羊會 吾老梁 植松	龍岡 甑山 順安 江西 泰川 永柔 陽德 孟山 三登 江東 殷山	宣沙浦鎭 老江鎭 廣梁鎭 三和鎭 宣川 薪島鎭			前一肅川府使兼 左一德川郡守兼 中一中和府使兼 右一順川郡守兼 後一成從府使兼 別前一龍川府使兼 別左一龜城府使兼 別右一嘉山郡守兼 別後一寧邊府使兼		鐵山宣沙浦	乾川 廣平 廟洞 甲嵸 雲頭里 於汀灘 大吉號里 小吉號里 乶軒洞 大坡兒 楸仇非 馬馬海里 楸坡 乷怪 崑洞 從浦 平安 小坡兒	林土 慈母山城 黃龍山城 保山 白馬山城 劍山 西城

備考

1, 京畿防禦使는 坡州牧使兼
2, 京畿節制使는 廣州에
3, 京畿水軍統禦使는 江華에
京畿水軍防禦使는 永宗僉使兼
4, 慶尙兵馬節制使는 慶州
5, 全羅兵馬節制使는 濟州
6, 全羅水軍防禦使는 濟州牧使兼
全羅水軍節制使는 濟州에
7, 黃海水軍節度使의 一은 瓮津府使兼
8, 江原防禦使는 鐵原府使兼
9, 咸鏡防禦使는 吉州牧使兼
10, 平安防禦使二는 昌城府使兼과 江界府使兼
11, 平安節制使는 義州에
12, 平安水軍防禦使 二는 三和府使와 宣川府使兼

<附表 第3의 1> **五衛五部兵力擔當區分一覽表**

部 衛	中 部	左 部	右 部	前 部	後 部
義 興 衛	開城府, 京中部 楊 州, 長 湍 廣 州 水 原	江 陵 原 州 淮 陽	公 州 洪 州	忠 州 淸 州	黃 州 海 州
龍 驤 衛	京東部 大 丘	慶 州	晋 州	金 海	尙 州 安 東
虎 賁 衛	京西部 安 州	義 州, 昌 城 龜 城, 昌 州 朔 州, 方 山 麟 山	成 川	寧 邊, 江 界 碧 潼, 碧 團 滿 浦, 高 山 渭 原, 楚 山	平 壤
忠 佐 衛	京南部 全 州	順 天	羅 州	長 興 濟 州	南 原
忠 武 衛	京北部 北 靑	三 水 惠 山	穩 城, 柔 遠 慶 源, 美 錢 慶 興, 訓 戎	鏡 城, 鍾 城 富 寧, 高 嶺 會 寧, 潼 關	永 興 安 邊
備 考	(1) 義興衛——中衛이며 甲士 1 萬 4 千 8 百名이고 補充隊가 屬한다. 龍驤衛——左衛이며 別侍衛 1 千 5 百名과 隊卒 3 千名이 屬한다. 虎賁衛——右衛이며 族親衛와 親軍衛 40 名(永安南北道人)과 彭排 5 千名이 屬한다. 忠佐衛——前衛이며 忠義衛, 忠贊衛, 破敵衛 2 千 5 百名이 屬한다. 忠武衛——後衛이며 忠順正兵과 壯勇衛 6 百名이 屬한다. 兵力合計 2 萬 7 千 4 百 40 名 (2) 各部에 4 統이 있으며 統將이 있고 4 統은 騎步 各 2 統이 있고 그 中의 1 統은 戰鬪, 1 統은 駐營하는바 統內人員은 5 名으로 伍, 25 名을 隊, 125 名을 旅라 한다. (3) 命令系統은 大將→衛將→部將→統將→旅師→隊正→伍長→卒				

<萬機要覽軍政篇一 五衛總例參照>

<附表 第3의 2>

五衛兵一覽表

(經國大典)

區分 兵種	兵力(元額) (上番兵)	任務	出身	分番數	服務(月)	遞兒職	去官 仍任限界	試取科目 및 給保
甲士	14,800 (2,960)	衛兵 (中央軍의主力)	兩班 良人上層	5	6	從4品以下 2,000員	從四品(實) (正三品影)	木箭, 片箭, 騎射, 騎槍 2保, 兩界2保1丁
別侍衛	1,500 (300)	衛兵	兩班	5	6	從4品以下 300	從 3 品 (正3品)	同上 (無保)
親軍衛	40 (20)	親兵	同上 (咸鏡道人)	2	12	從4品以下 20	同上	同上
破敵衛	2,500 (500)	步兵	良人	5	4		從 5 品 (正3品)	木箭, 片箭 走(1) 力(1)
壯勇衛	600 (120)	奴	賤人	5	6	從6品以下 15	從 6 品 (正3品)	木箭 走(1) 力(1) 1保
彭排	5,000 (1,000)	役	身良役賤	5	4	從8品以下 1,020	從 8 品 (從6品)	走(3以上)力(3以上) 1保
隊卒	3,000 (600)	使令	同上	5	4	從8品以下 601	同上	同上
正兵	42,500 (5,310)	義務兵	良人 兩班下層	8	2	從 5 品 正3品(影)	從 5 品 (正3品)	無試 騎1保1丁 步1保
忠順衛	無定額	同上(?)	兩班	7	12		從5品(散) (正3品)	無
族親衛	同上	勳位	同上 (宗室遠親)	長	長	從5品以下 23	從 4 品 (正3品)	無
忠義衛	同上	同上	同上 (三功臣子孫)	長	長	從4品以下 53	從 3 品 (正3品)	無
忠賛衛	同上	同上	同上 (原從功臣子孫)	5	4	從6品以下 20	從 5 品 (正3品)	無
補充隊	同上	主로 使令	賤人 (賤妾子孫)	4	4		從 9 品	無

備考

1. 甲士의 試取에서 捉虎甲은 走力도 試하게 된다.
2. 正兵의 兵力(定額)은 成宗 3年에 規定한 것이고 그 以前에는 無定額.
3. 遞兒職이란 現職을 떠나는 文武官으로써 任命하는 職이며 俸祿만 주고 實務는 하지 않는 것.
4. 元額이란 오늘날의 基本兵力數이니 T/O와 같은 것.
5. 仍任이란 任期가 끝난 官員을 繼續 任命하는 것.
6. 試取科目이란 武(文)科의 試驗科目.
7. 給保란 군사들에게 保布를 주는 것이니 오늘날의 給與手當과 같은 것.
8. 走(1) 力(1) 등은 走力과 힘의 級數이니 1級은 3級보다 上位인 듯.
9. 身良役賤은 良人身分이지만 賤民의 일을 하는 사람.

<附表 第3의 3>　　**鎭管官兵 編伍의 一例**

鎭管 編伍	安　州	寧邊府	龜城郡	義　州
營　將	1	1	1	1
中　軍	1	1	1	1
旗 牌 官	3	3	3	1
書　記	4	3	2	4
軍牢馬夫 合計	15	12	6	17
吹 打 手	36	31	21	37
旗　手	79	37	35	58
把　總	3	2	2	3
哨　官	11	7	6	9
旗　總	27	20	18	28
砲殺手隊 合計	492	366	331	484
射手隊 合計	465	330	324	382
留 哨 官	2			
留 旗 總	3			
留射手隊 合計	105			
旗 鼓 官		1	1	
號 銃 手		2		5
工　匠				7
合　計	1,247	814	751	1,037

<附表 第3의 4>

各官下雜流의 一例 (鎭管官兵編伍冊殘卷 1, 2)

各官 區分	營將下	前司把總下	中司把總下	後司把總下
中軍	1			
旗牌官	3			
書記	1	1	1	1
軍牢	4			
號砲手	2	1	1	1
哱囉手	2	1	1	1
喇叭手	2	1	1	1
瑣吶手	2	1	1	1
鼓手	2	2	2	1
鉦手	1	1	1	1
鳴鑼手	1			
摔鈸手	1	1	1	1
五方旗手	5	5	5	5
高招旗手	5	5	5	5
門旗手	2			
角旗手	4			
巡視旗手	4	2	1	2
認旗手	1	1	1	1
塘報旗手	8			
旗鼓官	1			
號笛手	1			
備考	1. 前, 中, 後哨官下에는 認旗手 1, 馬夫 1이 있다. 2. 塘報旗手, 號砲手, 號笛手 등은 各鎭管에 따라 꼭 一定한 것은 아니다. 3. 中軍은 訓鍊奉事 또는 出身이 旗牌官은 正兵 또는 出身이 任한다.			

<附表 第3의 5> **各色名數定額一覽表** (西厓年譜草記 三)

		上番定額	(奉足)保數	合計
騎兵		23,700	3保	94,800名
步兵		16,200	1保	32,000
甲士		4,644	2保	13,920
定虜衛		2,161	(奉足 2)	6,483
別侍衛		1,119	同上	3,357
各司奴婢		37,000		37,000
各司諸員		2,177	(奉足 2)	6,531
各司皂隷		3,628	(奉足 1)	7,256
公賤		37,000		37,000
掌樂院	樂工	700	(奉足 2)	3,000
	樂生	300		
總計		238,027名		

備考

1. 本表는 宣祖27年 甲午에 領議政 柳成龍이 算定한 王都 在留官員과 군사의 數이다.
2. 이 定額은 平時의 基準이며 「其間有流亡未充之處而大概則如此矣」라 하였다.
3. 奉足이라 함은 下人의 뜻.

<附表 4~1> 五衛都總部各衛

道	管區	前營		左營		中營	
江原	營將			春川府使兼		橫城縣監兼	
	牧					原州	
	府			春川, 伊川, 鐵原, 淮陽		寧越	
	郡					旌善	
	縣			金化, 安峽, 楊口, 平康, 金城, 狼川		洪川, 麟蹄, 平昌	
黃海	營將	鳳山郡守兼		豊川府使兼		安岳郡守兼	別中營將 蒜山僉使兼
	牧	黃州					
	府			長淵, 豊川			
	郡						載寧, 信川
	縣	東里僉使		殷栗, 長連, 文化, 松禾, 康翎			
平安	營將	肅川府使兼	(別)龍川府使兼	德川郡守兼	(別)龜城府使兼		
	府	肅川		慈山			
	郡			寧遠, 价川			
	縣	甑山, 順安	彌串僉使	孟山 殷山 寧越僉使	泰川 安義僉使 植松萬戶		
咸鏡 南兵使	營將	洪原縣監兼		甲山府使兼		永興府使兼	端川府使兼
	府	北靑		甲山		定平	
	萬戶			雲龍, 鎭東			梨洞
	僉使	利川縣, 洪原		惠山 同仁權管, 雙靑權管, 黃土權管			
咸鏡 北兵使	營將	(南)富寧府使兼	(北)會寧府使兼	(南)鏡城判官兼	(北)潼城府使兼	(南)茂山府使兼	(北)穩城府使兼
	府						
	萬戶	廢茂山	古豊山	森森坡, 朱乙溫 吾村權管, 寶化權管	防垣	豊山, 梁永萬洞權管	永達, 黃拓坡權管
	僉使		高嶺 甫乙下	漁游澗	潼間		柔遠

管區一覽表（上四道）

右營		後營		山城其他
三陟 三陟，江陵，襄陽 平海，杆城，高城 通川，歙谷，蔚珍，越松萬戶				防禦營一鐵原府使兼
谷山郡守兼 谷山，遂安 新溪，兎山 文化僉使 文山萬戶 位羅萬戶		平山府使兼 海州 金川 瑞興，白峙僉使 善積僉使 所己萬戶		正方山城一黃州 首陽山城一海州 九月山城一殷栗 太白山城一平山 大峴山城一瑞興 長壽山城一載寧
順川郡守兼 成川 江東 三登 陽德 兎城僉使 龍淵別將	(別)嘉山郡守兼 博川 古城僉使	咸從府使兼 江西，龍岡	(別)寧邊府使兼 价川，雲川，熙川 委曲僉使，金城別將，柔院僉使，	防禦營一義州府尹兼 僉使一淸城，麟山 萬戶一靑水，方山，玉江，水口，楊下 權管一乾川 淸南防禦營一三和府使兼 淸北防禦營一宣川府使兼 左 防禦營一昌城府使兼 僉使一昌洲，恃寨 權管一甲巖，雲頭里，廟洞，於汀灘 大吉號里 右 防禦營一江界府使兼 僉使一滿浦 上士 神光 高山里 萬戶一平南 楸坡 從浦外叱怪 伐登 權管一馬馬海 獨鎭將一定州牧 府一鐵山，朔州，理山 郡一郭山，碧潼，渭原
三水府使兼 三水 仁遮外，神方仇非，羅暖 魚面 別害，茄乙坡知 權管一小農江口，廟坡，舊茄乙坡知，自作仇非		德源府使兼 德源，安邊 文川郡，高原面		
(南)明川府使兼 在德	(北)慶源府使兼 阿山 安原權管 乾原權管 訓戎	(南)兼防禦營，吉州牧使兼 西北，城津(兼守城將)	(北)慶興府使兼 造山 阿吾地 撫夷 西水羅權管	山城 慈母一慈山府使兼中營將 成川 永柔 黃龍一龍岡　保山一平壤 劍山一宣川　東林一宣川 白馬一義州 鐵甕一寧邊 龍骨一龍川 雲暗一鐵山 別中司一居山察訪

<附表 第4～2> **五衛都總部各衛管區一覽表** (下四道)

道	管區	前營	左營	中營	右營	後營	山城其他
忠淸	營將	洪州	海美	淸州	公州	忠州	
	牧	洪州		淸州	公州	忠州	
	府					淸風	
	郡	舒川，林川 保寧，韓山	大興，温陽 沔川，瑞山 泰安	天安	沃川	丹陽	
	縣	靑陽，定山 鴻山，庇仁 藍浦	結城，禮山 平澤，牙山 新昌，德山 唐津	文義，靑山 黃澗，淸安 稷山，懷仁 報恩，永同 鎭川，木川	燕岐，扶餘 連川，鎭岑 全義，石城 恩津，尼山 懷德	堤川，永春 延豐，槐山 陰城	
全羅	營將	順天	雲峰縣監	全州	羅州	礪山府使	濟州牧使一兼兵馬水軍節制使 縣一大靜 旌義 萬戶一明月 別將一朝天 涯月 遮歸 慕瑟 水山 西歸 笠巖山城一長城府尹 府一長城 縣一泰仁 高敞 井邑 興德
	牧	順天			羅州，光州 綾州		
	府	長興	南原	全州			
	郡	珍島，樂安 寶城		金堤，古阜	靈巖，靈光	益山，高山 錦山	
	縣	康津，同福 興陽，光陽 海南	谷城，長水 昌平，玉果 求禮	鎭安，任實 金溝，萬頃 扶安	和順，南平 務安，咸平 茂長	龍安，臨陂 珍山，咸悅 沃溝，龍潭	
慶尙 左道	營將	安東		大丘		慶州	東萊府城將一府使兼 縣一梁山 機張
	府	安東，寧海 靑松，順興		大丘，密陽 仁同		慶州，蔚山	
	郡	醴泉，豐基 榮川		淸道		興海，永川	
	縣	義城，龍宮 奉化，英陽 盈德，禮安 眞寶，比安		慶山，靈山 玄風，昌寧 慈仁		淸河，迎日 長鬐，彦陽	
慶尙 右道	營將		尙州	金海府使	晋州		架山山城一漆谷 府一漆谷 縣一義興 新寧 軍威 河陽 金烏山城一善山 府一善山 郡一金山 縣一開寧 知禮 禿用山城一星州 牧一星州 縣一高靈 鳥嶺山城一聞慶 縣一聞慶 咸昌 矗石一晋州
	牧		尙州		晋州		
	府			昌原，金海	河東，咸陽 居昌		
	郡			咸安	昆陽，陜川 草溪		
	縣		聞慶，金山 知禮，咸昌	漆原，固城	泗川，丹城 安義，三嘉 南海，山淸 宜寧		

道	管區									
京畿	營將	廣州府尹兼	南陽府使兼	水原府使兼	楊州牧使兼	北漢管城將	坡州牧使兼	竹山府使兼	長湍府使兼	三田渡別將
	牧							驪州		
	府	利川								
	郡		安山		加平，楊根，		高陽，交河	安城	朔寧，麻田	
	縣	龍仁	衿川.果川	禿城山城	抱川，永平， 砥平		積城， 臨津別將 長山別將	陰竹， 陽智， 振威	漣川	

<附表 第5> 水軍管轄區域一覽表

三道統禦使——兼京畿水使 （喬洞）					
德浦僉使	花梁僉使	注文島僉使	德積僉使	長峰萬戶	
三道統制使——兼慶尙右水使 （固城）					
晋州牧	巨濟府	昌原府	金海府	河東府	昆陽郡
固城縣	南海縣	鎭海縣	泗川縣	熊川縣	加德僉使
彌助項僉使	龜山僉使	赤梁僉使	助羅浦僉使	永登浦萬戶	唐浦萬戶
安骨萬戶	薺浦萬戶	玉浦萬戶	知世浦萬戶	加背梁萬戶	蛇梁萬戶
平山浦萬戶	天城萬戶	南村別將	新門別將	長木浦別將	晴川別將
舊所非別將	蟾津別將	栗浦權管	三千權管		
忠淸道水使 （保寧）					
洪州牧	沔川郡	瑞山郡	舒川郡	林川郡	韓山郡
泰安郡	庇仁縣	藍浦縣	保寧縣	結城縣	海美縣
唐津縣	安興僉使	平薪僉使	所斤僉使	馬灘僉使	舒川浦萬戶
全羅道左水使 〔順天，梧桐浦，(麗水)〕					
順天府	長興郡	樂安郡	興陽縣	光陽縣	寶城郡
防踏僉使	蛇渡僉使	呂島萬戶	鹿島萬戶	鉢浦萬戶	會寧浦萬戶
古突山別將					
全羅道右水使 （海南）					
羅州牧	靈巖郡	珍島郡	靈光郡	海南縣	務安縣
咸平縣	法聖僉使	群山僉使	古群山僉使	蝟島僉使	臨淄僉使
古今島僉使	加里浦僉使	南桃浦萬戶	金甲島萬戶	於蘭萬戶	梨津萬戶
薪智島萬戶	馬島萬戶	木浦萬戶	多慶浦萬戶	智島萬戶	荏子島萬戶
黔毛浦萬戶	黑山島別將	格浦別將			
慶尙道左水使 （東萊）					
蔚山府	機長縣	釜山僉使	多大浦僉使	西生僉使	開雲浦萬戶
豆毛浦萬戶	西平萬戶	包伊萬戶			
黃海道水使 （甕津所江鎭）					
海州牧	豐川府	長淵府	延安府	安岳郡	白川郡
殷栗縣	長連縣	康翎縣	白翎僉使	登山僉使	椒島僉使
許沙僉使	龍媒僉使	吾乂浦僉使	助泥萬戶	甕津別將	
平安道防禦使 （安州）					
老江僉使	廣梁僉使				

<大典會通卷四參照>

<附表 第 6> 山城所在一覽表

所在地 道	所在地 府郡	山城名稱	主要諸元（周）	備考
京畿	水原府	禿城	1,800步	宣祖癸巳年
	開城府	大興	6,000步	肅宗丙辰築
	江華府	鼎足	5里	楚君子三郞所築,英祖戊午改築,璿源閣史閣所在
		高麗	19,372尺	
	廣州府	南漢	6,297步	温祚古城 仁祖丙寅改爲石築
	楊州	北漢	7,620步	
		大母	9,006尺	
	通津	文殊	15里	肅宗戊戌始命築之
忠淸	淸州	上黨	7,275尺	
	公州	雙樹	5,469尺（公山）	外城 및 左右翼城이 있음
江原	原州	鴒原		萬機要覽에는 記錄이 없음
黃海	黃州	正方	24,475尺	
	平山	太白	12,111尺	
	瑞興	大峴	20,238尺	
	鳳山	蒜山	長43,659尺，石城 5,030尺	文宗壬申에 改築. 石城
	載寧	長壽	31,908尺	
	海州	池城	(首陽)24,795尺	肅宗丙辰에 改築
	延安	鳳勢	5,400尺	
	殷栗	九月	14,366尺	城形이 如大船. 左右倉이 있음
全羅	全州	威鳳	5,097把	
	長城	笠巖	東邊1,300把，西邊1,400把	
	潭陽	金城	4,940尺	
	茂朱	赤裳	16,920尺	
	同	蘊城	3,874尺	
慶尙	梁山	城隍	4,368尺	
	東萊	金井	69,570尺	新羅始祖王始築. 四面에 石壁이 創立
	仁同	天生	外城 3,612尺	宣祖辛丑 郭再祐啓聞築外城
	咸昌	禿用	4,581步	
	善山	金烏	7,644尺 無城絕壁661步	
	居昌	乾興	3里	
咸鏡	永興	聖歷	2,982尺	
平安	義州	白馬	內城2,600步 外城2.103步	
	鐵山	西林	2,485步	
		雲暗	2,445步	英祖丁卯改石築
	龍川	龍骨	內城 370步 外城2,103步	
	宣川	劍山	內城1,025步 外城 995步	仁祖辛未增築
	郭山	凌漢	3,907步	
	寧邊	藥山	2,760尺	英祖庚辰改築
	成川	紇骨	3,510尺	
	慈山	慈母	12,733尺	

摘要

1, 萬機要覽에 記錄이 없으나 다음과 같은 山城도 있음.

京畿道陽川(安城)——無限山城 慶尙道星州——伽倻山城 慶尙道河東——鼎蓋山城
同 龍仁陽智間——石城山城 同 聞慶——御留山城 同 三嘉——岳堅山城
全羅道 南原——、龍山城 平安道龍岡——黃龍山城 同 陝川——李崇山城
同 羅州——錦城山城 京畿道始興——衿之山城 京畿道竹山——鷲峰山城
慶尙道 大丘——大丘山城 同 利川——婆娑山城 慶尙道淸道——龍起山城
同 宜寧——鼎津山城 慶尙道宜寧——之南山城 同 昌寧——火旺山城
同 三嘉——三嘉山城 同 晋州——帝釋堂山城
慶尙道 陝川——冶爐山城 同 咸陽——黃石山城

<附表 第 7>

邑城一覽表

京畿	
漢城府	9,975步，高 40尺，八門(崇禮，肅靖，興仁，敦義，惠化彰義，光熙，昭德)
水原府	4,600步，正宗甲寅始築
靑石鎭	756步
江華府	內城 15里 343步，外城 43里 290步，倉城 703步
高麗古宮城	土築，外城 37,076步
臨津鎭	133步
長山鎭	100步
喬桐邑城	1,006尺
吐呑城	積城，1,937尺

忠淸	
忠州邑城	3,650尺，高 8尺
永春古城	1,523尺
淸州邑城	3,328尺，正宗乙巳改築
洪州邑城	5,850尺
韓山邑城	2,071尺
舒川邑城	3,525尺
瑞山邑城	2,717尺
庇仁邑城	3,505尺
藍浦邑城	2,476尺
結城邑城	3,325尺
保寧邑城	2,109尺
牙山貢津倉城	380尺
海美邑城	6,630尺

江原	
江陵邑城	2,782尺
三陟邑城	三面石築 2,054尺，一面絕壁 431尺
沃原城	土築 507尺
平海邑城	2,325尺
月松鎭	628尺
蔚珍邑城	2,560尺
鐵嶺古城	嶺上에設關，嶺東九邑軍이 始設，翌年罷

黃海	
黃州邑城	1,4170尺，兵營在城中
舍人巖城	1,970步，鳳山，一名洞仙關
防垣鎭城	600尺，左右行城이 있음. 遂安
文城鎭	嶺上築小城(檢巖嶺)，谷山
海州邑城	13,120尺，恭愍王時築，英宗丁卯改築
延安邑城	1,389尺
雉嶽城	12,600尺，高句麗時築. 白川，四面險峻
甕津邑城	5,880尺
所江行營城	1,540步，高九尺
長淵古城	3,280尺

慶尙	
慶州邑城	4,075尺
蔚山兵營城	9,316尺
甑城	一名島山，其形如甑
外甑城	在西生鎭
淸河邑城	1,353尺
興海邑城	1,493尺
迎日邑城	2,940尺
長鬐邑城	2,980尺
彥陽邑城	3,064尺
東萊邑城	17,291尺
水營城	9,190尺
多大浦城	1,860尺
豆毛浦城	1,250尺
安東邑城	2,947尺
寧海邑城	1,278尺
豐基登降城	世傳高麗太祖南征時留于此城七日，百濟降書至，遂名以此
盈德邑城	2,397尺
大丘邑城	2,124步
密陽邑城	4,677尺
淸道邑城	1,570步，宣祖庚寅始設，二年訖功
吠城	
慶山邑城	1,200尺
亐谷城	
漆谷邑城	內城 4,700步，仁祖庚辰 外城 3,754步，肅宗辛巳 中城 602步，英宗辛酉築
尙州邑城	3,883尺
星州邑城	6,052尺
善山邑城	1,448尺

→

→

聞慶鳥嶺城	南北 18里，18,509步，城在三處，肅宗戊子築
姑夫城	與姑母城相對
姑母城	990尺
晋州兵營城	内城 1,930尺，外城 10,330尺
防禦山城山	
東梁城	1,182尺，有僉使廳
三千鎭城	2,050尺，權管移屬固城
咸陽邑城	7,035尺，英宗己酉築
古邑城	土築 735尺
昆陽邑城	3,765尺
南海邑城	2,876尺，世祖己卯築
平山浦城	1,558尺
城古介堡	760尺
牛古介城	913尺
彌助項城	2,146尺，中宗壬午置鎭
曲浦城	920尺
居昌城山城	3里
泗川邑城	5,015尺
三嘉邑城	3,259尺
宜寧邑城	2,570尺，宣祖己丑築
金海邑城	4,683尺
昌原邑城	2,004尺
咸安邑城	7,003尺
巨濟右水營城	2,620尺，宣祖甲辰移于固城縣頭龍浦，因置加背萬戶
玉浦城	1,074尺
知世浦城	1,605尺
固城邑城	3,524尺
統營城	11,730尺
所乙非浦城	825尺
漆原邑城	1,595尺
鎭海邑城	446尺
熊川邑城	3,514尺
薺浦城	4,313尺
安骨浦城	1,714尺

全　羅

全州邑城	2,618步
益山箕準城	3,900尺
古阜邑城	2,369尺
萬頃邑城	2,820尺
臨陂邑城	3,674尺
古鎭城	土築 10里
扶安邑城	16,450尺
汶濬邑城	3,330尺
古縣城	3,490尺
龍安邑城	4,240尺
羅州邑城	3,126尺
靈巖邑城	4,369尺
梨津鎭石城	1,407尺 高 8尺
於蘭鎭城	1,407尺
靈光邑城	1,469尺
咸平箕山城	1,850尺
高敞邑城	3,080尺 高 12尺
茂長邑城	2,639尺
務安邑城	1,700尺
木浦鎭城	1,302尺
珍島邑城	2,400尺 高 741尺
古珍島城	3,870尺
南桃鎭城	1,040尺
金甲島鎭城	1,050尺
康津邑城	8,402尺
加里鎭城	3里 中宗辛巳設鎭
南原邑城	8,190尺 高13尺
海南邑城	2,857尺
右水營城	3,848尺
光州邑城	8,253尺
長興邑城	9,004尺
會寧鎭城	1,990尺
順天邑城	3,383尺
左水營城	3,336尺
樂安邑城	1,590尺
寶城邑城	2,953尺
光陽邑城	974尺
求禮邑城	4,481尺
興陽邑城	3,800尺
蛇渡鎭城	1,800尺
鹿島鎭城	1,400尺
呂島鎭城	1,100尺
鉢浦鎭城	1,200尺
濟州邑城	5,489尺
朝天鎭	428尺
涯月鎭	549尺
明月鎭	3,020尺
別防鎭	2,390尺
旌義邑城	2,980尺
水山鎭	1,164尺
西歸鎭	825尺
大靜邑城	4,090尺
慕瑟鎭城	315尺，三面臨海，地形入海如熨斗狀

→

→

城名	備考
禾北城	660尺
遮歸鎭	1,466尺
咸　鏡	
咸興邑城	12,659尺, 監營在城内
定平隨時里城	1,192尺
文川雲林鎭	1.213尺, 高麗顯宗時始築
北靑府城	今廢
端川邑城	9,489尺, 世宗戊辰始築, 英宗癸丑修築
黃土岐堡	1,031尺
利原邑城	3,026尺
甲山邑城	3,300尺
三水邑城	5,735尺
羅暖堡	3,360尺, 燕山庚申置萬戶
仁遮外堡	363尺, 舊屬甲山置權管, 燕山8年陞萬戶
小農堡	1,300尺 燕山庚申置權管
茄乙波知堡	3,500尺, 燕山庚申始築初置權管陞僉使鎭
舊茄乙波知堡	1,570尺
自作堡	765尺, 置權管
魚面堡	1,915尺, 陞置萬戶
神方堡	1,357尺, 置萬戶
廟坡堡	1,800尺, 仁祖丁丑置權管
別害堡	1,321尺, 燕山 7年置權管, 中宗庚辰置萬戶, 宣祖丙申置僉使
加乙波知廢堡	726尺
鏡城邑城	4,610尺
吉州邑城	11,850尺
西北鎭	一名陽山鎭 1,542尺, 置萬戶
城津鎭	1,034尺, 光海甲寅始築, 置僉使, 肅宗辛巳設防營
明川邑城	4,970尺
在德堡	4,900尺, 有萬戶鎭, 宣祖乙巳移設于永平山城
斜卩洞城	1,173尺, 有萬戶鎭 移于永平山城
會寧邑城	1,383步, 4尺
行城	11,720尺
古豐山堡	1,034尺, 古有萬戶 肅宗庚寅移鍾城府細川
同廢堡	2,205尺, 顯宗甲寅移設于新豐山
鍾城邑城	4,882尺
潼關鎭	2,980尺
防垣堡	2,288尺
豆滿江行城	62,408尺(石築) 85,600尺(土築)
童巾城	632尺(石築), 1,121尺(絕壁)
穩城邑城	15,560尺
柔遠鎭	3,687尺
美錢鎭	3,639尺, 成宗甲辰設鎭
永達堡	3,308尺, 太宗戊戌設置
黃拓坡堡	1,690尺, 中宗癸未設置
豆滿江行城	1437,680尺
豐川堡	1,560尺
慶源邑城	10,47[illegible]尺, 世宗戊申始築, 仁祖甲戌改築, 宣祖癸卯改修
慶興邑城	5,022尺
阿吾地城	2,100尺
富寧邑城	3,139尺
玉蓮堡	1,480尺, 萬戶鎭, 肅宗庚寅移于廢茂山
廢茂山堡	2,764尺, 初置萬戶後陞僉使肅宗甲子陞都護府
梁永堡	670尺, 肅宗甲子移設于車踰嶺外江邊
茂山邑城	6,226尺
豐山城	4,920尺, 英宗庚戌始築
平　安	
平壤邑城	28,800尺
北城	1,818尺, 起自乙密臺城隅繞牡丹峯過浮碧樓屬之本城
中城	5,260步
外城	土城, 3,681步
保山鎭城	910步
中和城	土城舊址
龍岡黃龍城	12,580尺
安州邑城	3,043步, 兵營在城中
南塘城	土築, 1,800步, 英宗己丑附邑城
新城	410步
外城	土築
定州邑城	12,228尺
城洞城	石雜築 31,709尺
義州邑城	3,644步
白馬山内城	2,600步
同外城	2,103步
國内城	一云不而城, 高句麗琉璃王所築
古延州城	480尺
玉江城	620尺, 四面絕壁
箭門嶺古城	11,610尺
嘉彌城	7,300尺
古長城	302尺, 高麗德宗所築 俗稱萬里長城
林泉城	10里
龍川邑城	13,308尺
昌城邑城	2,155步
當峩城	土築(7,470步 太宗戊子始築英宗丙寅改築)
朔州邑城	2,933尺
鴨綠江行城	1,230尺
龜城邑城	4,075步
宣川東林城	4,016步
寧邊邑城	73,081尺, 太宗丙申始築, 肅宗乙卯改築
新城	13,140尺
北城	10,154尺
殷山邑城	土築 5,168尺
江界邑城	14,660尺
渭原邑城	4,047步
鴨綠江行城	1,170尺
嶺路乫軒洞堡	541尺
直洞堡	1,000尺
楚山邑城	3,905尺
鴨綠江行城	2,870尺
阿耳鎭	9,784尺
山羊會堡	914尺
碧潼邑城	13,000尺
鴨綠江行城	190尺
碧團鎭	1,754尺
楸仇非堡	400尺
廣平堡	55尺
小吉號里堡	254尺
大坡兒堡	480尺
小坡兒堡	420尺
大小坡兒間者	長 24,020尺
行城在西者	13,030尺
備考	(一) 特記하지 않은 城은 모두 石築임. (二) 本表의 步數, 尺數는 城周를 表示함. (三) 参考 : 萬機要覽軍政篇.

<附表 第 8>

烽燧經路一覽表

<萬機要覽軍政篇參照>

炬區分	直間烽	始 點	經 由 地 點	終 點
第一炬	直 烽 (120)	慶 興 (西水羅堡牛巖)	慶源 穩城 鍾城 會寧 富寧 鏡城 明川 吉州 端川 利原 北青 洪原 咸興 定平 永興 高原 文川 德源 安邊 淮陽 平康 鐵原 永平 抱川 楊州	峩嵯山烽
	間 烽 (60)	茂山南嶺 會寧魚磵遮山 吾村堡下峰 朱乙温堡佛巖 南老知堡下田坡 寶化堡松峰 森森坡鎭東峰 西北鎭西山 吾乙足浦 (隱龍德) 魚面堡龍峰		會寧 鏡城 吉州 北青 端川
第二炬	直 烽 (40)	東 萊 (多大浦鷹峰)	梁山 彥陽 慶州 永川 新寧 義興 義城 安東 禮安 榮川 奉化 順興 豐基 丹陽 淸風 忠州 陰城 竹山 龍仁 廣州	天臨山烽
	間 烽 (123)	東萊于飛烏 巨濟加羅山 熊川天城堡 南海錦山		安東 忠州 永川 忠州
第三炬	直 烽 (79) [間烽 (22)]	江 界 (滿浦鎭餘屯台)	渭原 楚山 碧潼 昌城 朔州 義州 龍川 鐵山 宣川 郭山 定州 嘉山 博川 安州 肅川 永柔 順安 平壤 中和 黃州 鳳山 瑞興 平山 金川 開城府 長湍 坡州 高陽	毋岳東烽
第四炬	直 烽 (71) [間烽 (35)]	義 州 (古 靜 州)	龍川 鐵山 宣川 郭山 定州 安州 肅川 永柔 順安 平壤 甑山 咸從 龍岡 三和 長連 安岳 殷栗 豐川 長淵 瓮津 康翎 海州 平山 延安 白川 開城府 交河 高陽	毋岳西烽
第五炬	直 烽	順 天 (防 踏 鎭)	興陽 長興 康津 靈岩 海南 珍島 務安 羅州 咸平 靈光 茂長 扶安 沃溝 臨陂 咸悅 龍安 恩津 魯城 公州 天安 牙山 稷山 陽城 水原 南陽 安山 仁川 富平 金浦 通津 江華 陽川	開花山烽
	間 烽 (34)	喬 桐 (長 峰 島)		江 華

<附表 第 9>

驛遞制度의 驛名一覽表

<萬機要覽軍政篇參照>

區分 / 行政道	驛遞道	驛의名稱	驛의數
京畿 馬 444匹 吏卒 4,175名	迎華	樂生 駒興 金嶺 佐贇 分行 無極 果川邑站 海門 加川 康福 水原本站	11
	延曙	碧蹄 馬山 東坡 靑郊 中逵 梭貌	6
	平邱	雙樹 綠陽 仇谷 奉安 娛嬪 田谷 白冬 甘泉 連洞 安奇 梁文	11
	慶安	德豐 吾川 阿川 楊花 新津 安平 留春	7
	重林	盤乳 谷石 金倫 南山 終生	5
	桃源	駒化 百嶺 玉溪 丹裵 湘水	5
忠淸 (公忠) 馬 274匹 吏卒 10,466名	連原	可興 黃江 永山 長林 龍安 丹月 安春 新豐 仁山 坎原 泉南 安陰 令泉 吾賜	14
	栗峰	猪山 長楊 雙樹 台郎 德留 時化 含林 元巖 增若 嘉和 土坡 順陽 化仁 會洞 新興 田民	16
	成歡	金蹄 廣程 日新 敬天 維鳩 丹平 平川 迎春 長命 金沙	10
	金井	花川 長時 時興 昌德 日興 光時 世川 靑淵 海門 汲泉 夢態 豐田 下川 順城 興世	15
	利仁	楡楊 恩山 靈楡 龍田 宿鴻 藍田 靑化 豆谷 新谷	9
全羅 馬 272匹 吏卒 6,349名	碧沙	可申 波靑 楊仁 洛昇 鎭原 通路 彔山 南利 別珍	9
	獒樹	東道 應令 昌活 引月 知申 洛水 良栗 德陽 潺水 益申 蟾居	11
	景陽	昌申 德奇 大富 黔夫 人物 加林	6
	濟原	所川 達溪 丹嶺 玉包	4
	靑巖	永申 仙巖 靑巖 申安 永保 靑松 烏林 光利 景申 加里 綠沙	11
	參禮	半石 良才 川原 烏原 蘇安 扶興 鶯谷 居山 葛潭 才谷 內寸 永原	12
慶尙	黃山	由山 渭川 德泉 仍甫 蘆谷 掘火 肝谷 阿月 新明 蘇山 休山 水安 龍賀 德山 無屹 金洞	16
	省峴	烏栖 買田 楡川 西芝 押梁 凡於 琴川 舌化 幽山 雙山 內也 一門 温井	13
	安奇	琴韶 松蹄 雲山 鐵坡 靑路 靑雲 梨田 文居 和目 角山 寧陽	11
	松羅	望昌 大松 峰山 南驛 朱登 柄谷 陸驛	7

→

→

區分 / 行政道	驛遞道	驛의 名稱	驛의數
慶尙 馬 900匹 吏卒 21,483名	長水	牛谷 華陽 山驛 淸通 淸鏡 阿火 毛良 義谷 沙里 朝驛 仇於 鏡驛 仁庇 富平	14
	昌樂	昌保 平恩 甕泉 幽洞 安郊 宣安 通明 竹洞 道深	9
	自如	新豊 近珠 安民 省法 赤項 南驛 金谷 大山 昌仁 靈浦 巴水 春谷 保平 良洞	14
	召村	平居 文和 富多 永昌 東溪 官栗 松道 丘墟 背屯 烏壤 常令 指南 完沙 良浦 德新	15
	幽谷	聊城 大隱 知保 守山 安溪 雙溪 召溪 洛原 洛東 洛陽 德通 洛西 長林 洛平 迎香 仇味 安谷 上林	18
	沙斤	蹄閑 臨水 正谷 新安 碧溪 召南 安間 正守 有鱗 新興 栗元 馬田 橫浦 平沙	14
	金泉	秋風 楊川 楊原 高平 安彥 安林 金陽 長谷 省草 茂村 文山 扶桑 東安 踏溪 茂溪 八鎭 作乃 勸賓 聖基	19
江原 馬 503匹 吏卒 9,034名	銀溪	新安 昌道 直木 生昌 豐田 瑞雲 山陽 原川 芳川 含春 水仁 長奴 富林 嵐校 林丹 玉洞 乾川 龍潭	18
	保安	丹丘 神林 蒼峰 蓮峰 保安 仁嵐 安保 富昌 楊淵 延平 由原 神興 烏原 泉甘 芳林 珍富 高丹 餘浪 碧呑 藥水 安昌 葛豐 安興 原昌 雲交 大和 橫溪 臨溪 好善 平安	30
	祥雲	連倉 麟丘 降仙 元巖 淸澗 竹泡 雲根 明波 大康 高岑 養珍 朝珍 登路 巨豐 貞德	15
	平陵	交柯 史直 平陵 新興 龍化 原沃 興富 水山 德新 達孝 洛豐 安仁 大昌 木界 丘山 冬德	16
黃海 馬 222匹 吏卒 5,316名	金郊	興義 金巖 寶山 安城 龍泉 劍水 洞仙 敬天	8
	麒麟	位羅 所串 所坪 茶滿 元山 延陽 直木 朴山 文羅 安山	10
	靑丹	維安 新竹 金洞 文羅 金剛 望汀 深洞 金谷 南山	9
平安 馬 301匹 吏卒 4,351名	大同	安定 肅寧 生陽 林畔 安興 嘉平 新安 雲興 車輦 良策 所串 義順	12
	魚川	開平 所吉里 入舘 狄踰 城干 央士里 牛場 昌州 大朔州 下北洞 隨營 草川 長洞 立石 從浦 古理山 龜州 上北洞 古延州	19
咸鏡 馬 925匹 吏卒 32,391名	高山	南山 奉龍 朔安 火燈 鐵關 良驥 通達 險守 和原 草原 蓬臺 平原 德山	13
	居山	咸原 平浦 慈航 黃水 熊耳 虛川 惠山 施利 基原 臨溟 古站 新恩 五川 濟人 終浦 呼麟 虛麟 積生 谷口 雄平 邑明	21
	輸城	吾村 朱村 石堡 痲田 寧安 櫟山 撫安 撫寧 馬乳 古阿山 雄撫 永康 懷綏 邑站 豐山 古豐山 鍾慶 鹿野 德明 燕基 江陽	21

<附表 第10>　　驛遞制度에 依한 馬牌保管數量一覽表

<萬機要覽軍政篇參照>

馬牌受發者		馬牌保管責任數			
道別	官職	四馬牌	三馬牌	二馬牌	一馬牌
京畿	監司		1	1	5
	水使			2	
忠清	監司		1	2	9
	兵使			2	6
	水使				3
全羅	監司	1	2	5	6
	兵使				5
	左水使				3
	右水使			2	5
	濟州牧使			1	6
慶尙	監司		1	3	6
	左兵使				6
	右兵使				6
	右水使				3
	統制使				11
	尙州牧使				3
	安東府使				4
	東萊府使				5
黃海	監司			2	6
江原	監司		1	2	7
平安	監司			6	6
咸鏡	監司			2	18
	南兵使		1		10
	北兵使				5
合計		1	7	30	156

<附表 第 11> 本朝東西班散階 (外命婦及土官雜職並附)

品階	散階
正一品	大臣輔國崇祿 輔國崇祿大夫 宗親 顯祿 興祿大夫 儀賓 綏祿 成祿大夫 宗親大君妻府夫人
從一品	崇祿 崇政大夫 宗親 昭德 嘉德大夫 儀賓 光德 崇德大夫 以上文武官妻 貞敬夫人 宗親妻 君夫人
正二品	正憲 資憲大夫 宗親 崇憲承憲大夫 儀賓 奉憲通憲大夫
從二品	嘉義 嘉善大夫 宗親 中義正義大夫 儀賓 資義順義大夫 以上文武官妻 貞夫人 宗親妻 縣夫人
正三品	通政大夫 折衝將軍 通訓大夫 禦侮將軍 宗親 明善大夫 彰善大夫 儀賓 奉順大夫 正順大夫 文武官妻 淑夫人 宗親妻 愼夫人
從三品	中直 中訓大夫 建功 保功將軍 宗親 保信 資信大夫 儀賓 明信 敦信大夫 以上 文武官妻 淑人 宗親妻 愼人
正四品	奉正 奉列大夫 振威 昭威將軍 宗親 宣徽 廣徽大夫
從四品	朝散 朝奉大夫 定略 宣略將軍 宗親 奉成 光成大夫 以上文武官妻 令人 宗親妻 惠人
正五品	通德 通善郎 果毅 忠毅校尉 宗親 通直 秉直郎 土官 通議郎 建忠隊尉
從五品	奉直 奉訓郎 顯信 彰信 校尉 宗親 謹節 愼節郎 以上文武官妻 恭人 宗親妻 溫人 土官 奉議郎 勵忠隊尉
正六品	承議 承訓郎 敦勇進勇校尉 宗親 執順 從順郎 宗親妻 順人 土官 宣職郎 建信隊尉 雜職 供職 勵職郎 奉任 修任校尉
從六品	宣教 宣務郎 勵節 秉節校尉 以上文武官妻 宜人 土官 奉職郎 勵信校尉 雜職 謹任 効任郎 顯功廸功校尉
正七品	務功郎 廸順副尉 土官 注功郎 敦義徒尉 雜職 奉務郎 騰勇校尉
從七品	啓功郎 奮順副尉 以上文武官妻 安人 土官 注功郎 守義徒尉 雜職 承武郎 宣勇副尉
正八品	通仕郎 承義副尉 土官 直務郎 奮勇徒尉 雜職 勉功郎 猛健副尉
從八品	承仕郎 修義副尉 以上文武官妻 端人 土官 直務郎 効勇徒尉 雜職 赴功郎 壯健副尉
正九品	從仕郎 効力副尉 土官 啓仕郎 勵力徒尉 雜職 服勤郎 致力副尉
從九品	將仕郎 展力副尉 以上文武官妻 孺人 土官 試仕郎 殫力徒尉 雜職 展勤郎 勤力副尉

<附表 第 12>

扈從人物一覽表 （壬辰 4 月 30 日）

<朴東亮著 寄齋史草下壬辰日錄>

官職	姓名	備考
領議政	李山海	
左議政	柳成龍	
右議政	李陽元	留都
左贊成	崔 滉	
右贊成	鄭 琢	
左參贊	崔興源	巡察黃海道去
舍人	尹承勳	餘員皆缺
吏曹判書	李元翼	巡察平安道去
參判	鄭昌衍	
參議	李廷馪	
正郎	趙 挺	
同	柳永慶	崔興源從事官去
同	鄭光績	江原御史未還
佐郎	李好閔	李元翼從事官去
同	金時獻	餘缺
戶曹判書	韓 準	參判以下未記
禮曹判書	權克智	卒(四月二十八日)
參判	朴應福	參議以下未記
佐郎	李慶流	死于尙州
兵曹判書	金應南	(洪汝淳의 誤記인 듯)
參判	沈忠謙	
參議	鄭士偉	
參知	黃 暹	
正郎	李弘老	到開落後
同	具 宬	到開罷職
同	宋 諄	坡州
同	柳熙緖	金命元從事官去
佐郎	徐 渻	到坡州落後
同	朴東亮	
同	李 覺	到寧邊從世子
同	崔 瓘	平壤病去
刑曹判書	李 增	以下未記
工曹判書	李德馨	賊中未回一判書以下未記
漢城判尹	洪汝諄	左尹以下未記
大司憲	李憲國	
執義	權 悏	
掌令	鄭姬藩	
同	李惟中	
持平	李慶祺	到博川不辭去
同	南 瑾	初不來
大司諫	金 瓚	到平壤上疏去
司諫	李 碅	
獻納	李廷臣	寧邊不辭去
正言	鄭士信	初不來
同	黃 鵬	平壤落後
弘文館校理	李幼澄	
校理	沈 岱	

官職	姓名	備考
修撰	朴東賢	
同	任義正	不來
副修撰	尹 暹	尙州死
同	朴 箎	同上
都承旨	李恒福	
左承旨	李忠元	
右承旨	李廷馨	
左副承旨	盧 稷	平壤落後
右副承旨	申 磼	
同副承旨	閔汝慶	平壤落後
注書	朴鼎賢	安州不辭去
同	任就正	同上
奉教	奇自獻	追到平壤
待教	尹敬立	上疏赴父任所
同	趙存世	安州不辭去
檢閱	姜秀峻	平壤上疏去
同	金義元	餘缺
閑散官從行者		
杞城君	俞 泓	
海平君	尹根壽	
海原君	尹斗壽	
護軍	李山甫	
同	柳 根	
同	洪 進	
同	洪麟祥	
同	閔 濬	
同	尹自新	
同	黃廷式	
同	李廷立	
同	李 瓘	
同	成壽益	
各司官從行者		
大司成	任國老	平壤上疏法
直講	沈友勝	
博士	李效元	
司僕僉正	朴應寅	
內乘	朴東彦	
同	安 滉	
宗薄僉正	閔 善	坡州落後
掌樂直長	李慶全	平壤落後
司贍奉事	李愼誠	坡州落後
奉常奉事	洪鳳祥	
世子從官		
輔德	沈 岱	
弼善	沈友正	
文學	李尙毅	
說書	李光庭	

翊衛司官員皆不來 獨副率姜絪來

<附表 第 13>

通信使一行名單一覽表

職責	官職	姓名	其他
正使	敦寧都正	黃愼	
副使	行上護軍	朴弘長	
漢學	行上護軍 同 前判官 前直長	朴義儉 李愉 文應樞 金吉孫	
倭學	司正 司猛 前奉事 前御	朴大根 金德元 金仁軾 李彥瑞	
醫員	前僉正	張世寬	
正使軍官	前府使 練院正	李祥訓 李逢春	外 14員
副使軍官	前郡守(立功自効) 訓練院判官	金好恬 俞允諒	外 13員
小通事		金彥福	外 6員
陪吏			2名
牙兵			8名
砲手			17名
通引			3名
羅將			8名
都訓導		金得	
鎭撫		蔡文	
無上		尹今同	外 3名
沙江		金風金	外 2名
格軍		成哲	外 149名
其他	吹螺赤 驛者	12名 5名	手把赤 2名 船匠 2名
	刀度	6名	冶匠 2名
	官奴	6名	譯官奴子 13名
	正使伴倘奴	3名	軍官奴 30名
	副使伴倘奴	2名	一行總員 309名

<黃愼著 日本往還日記參照>

<附表 第 14>

論 功 行 賞 一 覽 表

功臣	等級				
扈聖功臣(八十六名)	一等	李恒福(鰲城府院君)	鄭崑壽(西川府院君)		
		(忠勤貞亮竭誠效節協力扈從功臣)			
	二等	信城君珝	定遠君琈	李元翼(完平府院君)	尹斗壽(海原府院君)
		沈友勝(清溪君)	李好閔(延陵府院君)	尹根壽(海平府院君)	柳成龍(豐原府院君)
		金應南(原城府院君)	李山甫(韓山君)	柳 根(晋原府院君)	李忠元(完陽府院君)
		洪 進(唐興府院君)	李 磤(漢川君)	柳永慶(全陽府院君)	李幼澄(旌善君)
		朴東亮(錦溪君)	沈 岱(朔寧府院君)	朴崇元(密城君)	鄭姬藩(温城君)
		李光庭(延原府院君)	崔興源(寧平府院君)	沈忠謙(青林君)	尹自新(龍原府院君)
		韓 淵(清溪君)	海豐君 耆(宗室)	順義君 景温(宗室) (耆의 子)	順寧君 景儉(宗室) (耆의 子)
		申 磼(平川府院君)	安 滉(廣陽君)	具 宬(綾海君)	
		(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三等	鄭 琢(清山府院君)	李憲國(完山府院君)	柳希霖(文陽君)	李有中(德原君)
		任發英(汭陽君)	奇孝福(高興君)	崔應淑(和陽君)	崔 賓(海綾君)
		吳定邦(咸原君)	李應順(益興君)	李壽俔(和山君)	宋 康(原陽君)
		高 曦(瀛城君)	姜 絪(晋昌君)	内侍金起文(眞城君)	内侍崔彦俊
		内侍閔希騫(驪原君)	醫官許 浚(陽平君)	李延綠(廣陵君)	馬醫金應壽(益城君)
		理馬吳致雲(碧城君)	内侍金 鳳(寧城君)	内侍金良輔(陝川君)	内侍安彦鳳(武陽君)
		内侍朴忠敬(鰲原君)	内侍林 祐(蔚陵君)	金應昌(開城君)	内侍鄭漢璣(清河君)
		内侍朴春成(密山君)	内侍金禮楨(花川君)	内侍金秀源(伽城君)	内侍申應瑞(唐城君)
		内侍辛大容(奈城君)	内侍金璽信(樂城君)	内侍趙龜壽(花城君)	醫官李公沂(韓溪君)
		内侍梁子儉(瀛海君)	内侍白應範(漢南君)	内侍崔潤榮(鰲山君)	内侍金俊榮(益城君)
		内侍鄭大吉(鳳陽君)	内侍金繼韓(延陽君)	内侍朴夢周(豐慶君)	李士恭(慶陽君)
		柳肇生(完原君)	楊舜民(洪陽君)	慶宗智(浪城君)	内需司別坐崔世俊(鷄林君)
		司謁洪澤(唐溪君)	理馬全 龍(石陵君)	理馬李春國(喬林君)	理馬吳 連(石城君)
		理馬李希齡(海愼君)			
		(忠勤貞亮扈聖功臣)			
宣武功臣(十八名)	一等	李舜臣(海豐府院君)	權 慄(永嘉府院君)	元 均(原陵君)	
		(效忠伏義廸毅協力宣武功臣)			
	二等	申 點(平城府院君)	權應銖(花山君)	金時敏(上津君)	李廷馣(月川君)
		李億祺(完興君)			
		(效忠伏義協力宣武功臣)			
	三等	鄭期遠(萊城君)	權 悏(吉昌君)	柳思瑗(李恒福妹夫) (文興君)	高彦伯(濟興君)
		李光岳(廣南君)	趙 儆(豐壤君)	權 俊(安昌君)	李純信
		奇孝謹	李雲龍		
		(效忠伏義宣武功臣)			
靖難功臣(五名)	一等	洪可臣			
		(奮忠出氣合謀廸義靖難功臣)			
	二等	朴名賢	崔 湖		
		(奮忠出氣廸義靖難功臣)			
	三等	辛景行	林得義		
		(奮忠出氣靖難功臣)			

<宣祖實錄卷百七十五 宣祖三十七年六月甲辰, 宣廟寶鑑卷十宣祖三十七年甲辰六月, 朝野僉載卷三十 宣祖朝甲辰三十七年六月, 七月, 李相國日記二 甲辰>

<附表 第 15>　**我軍配置狀況一覽表** (壬辰 6 月末現在)

官職	姓名	駐屯地	備考
安集使	金玏	安東	忠州에서 移動
安東府使	申之悌	同	禮安縣監으로 兼
安東假將	安霽	同	前都事
同	金涌	同	前檢閱
豐基假將	黃曙	豐基	前博士
義城假將	權希舜	義城	訓練權知
醴泉假守	李愈	醴泉	前縣監
清道助防將	朴慶新	豐基	前部將
殷豐縣將	金光燁	殷豐	正字
豐基守城將	李蕖	豐基	進士
眞寶縣監	金希契	眞寶	
盈德縣令	韓璡	盈德	
淸河縣監	鄭應聖	淸河	
興海郡守	崔翰臣	興海	
淸道郡守	裵應褧	淸道	
榮川義將	金蓋國	榮川	
同副將	李興門	同	
龍宮縣監	禹伏龍	義城	作戰出動中
義僧	原悟	安東	
摘要	이當時 敵의 狀況은 다음과 같다. 安東方面——毛利 元康　禮安方面——吉見 元賴		

參考：<栢巖集卷五狀啓陳慶尙道軍情形勢狀啓條, 亂中雜錄卷一壬辰七月>

<附表 第16> **我軍配置槪況一覽表**(壬辰年 10月 20日頃)

官職 ＼ 區分	姓名	駐屯地	備考
左防禦使	李鎰	江東	
平安兵使	李薲	順安	
右防禦使	金應瑞	永柔——江西間	11處에 結陣
陣將	金士洞	平壤附近	
權管	金夢淵	同	
郡守	玄德良	溫陽	
縣監	朴夢說	黃澗	
同	李曇	恩津	
同	金舜卿	延豐	
郡守	權希仁	沃川	
縣監	愼好義	木川	
同	李龍沈	陰城	
郡守	李安繼	靈光	前僉使
縣監	申應榘	泰仁	前佐郞
同	楊士衡	長城	前直長
同	具惟謹	報恩	宣傳官
牧使	金澥	尙州	
判官	鄭起龍	同	
府使	丁景達	善山	
縣監	韓明胤	永同	永義將
同	邊好謙	鎭岑	
同	南景誠	懷德	
助戰將	宣義問	善山附近	
昌義將	李逢	同	
尙義將	金覺	同	
忠義將	李命百	報恩附近	
崇義將	盧景仁	同	
黃義將	朴以龍	永同附近	
懷義將	姜節	同	
靑義將	南忠元	同	
忠報將	金弘敏	尙州附近	

参考：<宣祖實錄 巻三十一 (二十五年 十月丁未條), 黔澗集辰巳日錄十二月十八日條>

<附表 第17> **我軍兵力配置一覽表(宣祖 26 年正月上旬)**

道府	郡縣 (將領및兵力)	官職	姓名	兵力	摘要
京畿道	江華府	全羅道節度使	崔遠	4,000	
		京畿巡察使	權徵	400	
		倡義使	金千鎰	3,000	
		義兵將	禹性傳	2,000	
	水原府	全羅道巡察使	權慄	4,000	
	楊州	防禦使	高彦伯	2,000	
	楊根郡	義兵將	李軼	600	
	驪州	京畿巡察使	成泳	3,000	
	安城郡	助防將	洪季男	300	
忠清道	稷山縣	忠清道節度使	李沃	2,800	各處義兵 5,000
	平澤縣			3,000	
慶尙左道	安東府	左道巡察使	韓孝純	10,000	
	蔚山郡	左道節度使	朴晋	25,000	
	昌寧縣	義兵將	成安義	1,000	
	靈山縣	同上	辛砰	1,000	
同右道	晋州	右道巡察使	金誠一	15,000	
	昌原府	右道節度使	金時敏	15,000	
	陜川郡	義兵大將	鄭仁弘	3,000	
	宜寧縣	義兵將	郭再祐	2,000	
	居昌郡	義兵大將	金沔	5,000	
全羅道	順天前洋	左道水使	李舜臣	5,000	各處分屯 10,000
		右道水使	李億祺	10,000	
咸鏡道	咸興府	節度使	成允文	5,000	
	鏡城府	義兵大將	鄭文孚	5,000	
		別將	金友皐	100	
	安邊府	助防將	金信元	100	
江原道	麟蹄縣	江原巡察使	姜紳	2,000	
平安道	順安縣	平安巡察使	李鎰	4,000	
	同, 法興寺	平安左防禦使	鄭希賢	2,000	
		義兵將	李柱	300	
		召募官	曹好益	300	
	龍岡縣	平安右防禦使	金應瑞	7,000	
		助防將	李思命	1,000	
	大同江下流	舟師將	金億秋	300	
黃海道	黃州	黃海左防禦使	李時言	1,800	
	載寧郡	同右防禦使	金敬老	3,000	
	延安府	黃海巡察使	李廷馣	4,000	
備考	(1) 軍馬合計 172,400 名 (2) 宣祖 26 年正月 10 日現在임				

<宣祖實錄卷三十四 宣祖二十六年正月丙寅>

<附表 第18>　　我軍狀況一覽表(26年2月中旬, 幸州山城戰鬪後)

區分 / 官	姓名	駐屯地	摘要
全羅監司	權慄	高陽臨浦	高陽郡 知道面 江梅里
忠淸監司	許頊		金浦郡 陽西面
京畿水使	丁傑	陽川縣	加陽里
建義副將	曺大坤		
全羅兵使	宣居怡	露梁	漢江 南岸地區
秋義將	禹性傳	高陽深岳	高陽郡松浦面 南山里
京畿水使	李蘋		
倡義使	金千鎰	江華	
京畿防禦使	高彦伯	蟹踰嶺	楊州郡廣積面
巡邊使	李薲		
防禦使	李時言	坡州	
都元帥	金命元	臨津	
檢察使	李山甫	黃海道	吏曹判書, 軍糧輸送의 督察

參考：宣祖實錄卷三十五(二十六年二月壬寅條)

其他
- 龍津——楊根郡守 李汝讓
- 安州——經略 宋應昌
- 平壤——副總兵 楊元 (提督 李如松은 2月 26日에 到着)
- 寶山驛——同 李如栢
- 開城——同 祖承訓, 遊擊將 王必廸, 參將 李寧
- 臨津江右岸——同 査大受

<附表 第19> 我軍兵力配置一覽表(宣祖28年 1月 28日 現在)

職位＼區分	姓名	兵力(名)	駐屯地	任務其他
慶尙左兵使	高彦伯	牙兵, 砲手 560 義勝軍 344	慶州府	義勝軍은 四班上下로區分
防禦使	權應銖	牙兵, 砲手 340 義勝軍 380	同上	同上
助防將	鄭希玄	牙兵, 砲手 120 義勝軍 184	密陽府楡川站	同上
同上	金大虛	牙兵, 砲手 100	同上	
同上	洪季男	同 385	慶州府	
同上	朴惟仍	牙兵 205	靑松府	
慶州府尹	朴毅長	牙兵, 弓手 499	慶州府	
東萊縣令	李得弼	牙兵 10	東萊縣	
機長縣監	李弘春	牙兵 20	機長縣	
彦陽縣監	魏得和	牙兵 25	雲門寺	密陽—淸道의 敵路哨探
慶尙右兵使	金應瑞	牙兵, 砲手 453 義勝軍 804	宜寧縣	義勝軍은 四班上下로區分
全羅兵使	李時言	牙兵, 砲手 485	同上	
助防將	郭再祐	牙兵 208 義勝軍 132	同上	義勝軍은 四班上下로區分
金海府使	白士霖	牙兵 100	金海府	
昌原府使	鄭彦中	牙兵 40	咸安漆原等處	敵海路哨探
別將	金得齡	民兵, 弓砲手 80	晋州城內	
水軍三道統制使	李舜臣	砲, 弓手 717 梢水軍 3072 戰船 26隻 龜船 5隻 哨探船 31隻	閑山島	
慶尙右水使	李億祺	弓手, 砲手 55 梢水軍 398 戰船 10隻 哨探船 10隻	同上	
慶尙左水使	李守一	牙兵, 砲手 31 梢水軍 240 戰船 3隻 哨探船 3隻	長鬐縣海口	
全羅忠淸巡邊使	李鎰	弓, 砲手 5百	長興府	
都元帥	權慄	牙兵 298	咸陽縣	
兵力合計	陸軍	牙兵, 弓手, 砲手 4,828名 義勝軍 1,844名		
	水軍	牙兵 弓兵 弓手 砲手 803名 梢水軍 3710名 戰船 39隻 龜船 5隻 哨探船 44隻		

(事大文軌卷之十二 遼東都指揮使司咨朝鮮國王, 査問本國軍兵, 同回咨條)

<附表第 20—1>

戰鬪序列及戰果一覽表(玉浦 海戰)

戰鬪序列		戰果	
官職	姓名	艦船	其他
左部將 樂安郡守	申　浩	撞破大船 1	斬頭 1 級
右部將 寶城郡守	金得光	同上	我國被擄1生擒
前部將 興陽縣監	裵興立	同上 2	
中部將 光陽縣監	魚泳潭	中船2, 小船2	
中衛將 防踏僉使	李純信	大船 1	
右斥候將 蛇渡僉使	金　浣	同上	
右部騎戰統將鎭軍官保人	李　春	中船 1	
遊軍將 鉢浦假將訓練奉事	羅大用	大船 2	
後部將 鹿島萬戶	鄭　運	中船 2	
左斥候將 呂島權管	金仁英	中船 1	
左部騎戰統將順天代將前奉事	兪　熵	大船 1	我國被擄女1生擒
捍後將 軍官及第	崔大成	同上	
斬退將 軍官及第	裵應祿	同上	
突擊將 軍官	李彦良	同上	
軍官訓練奉事	卞存緖	大船 1	
前奉事	金孝誠		
慶尙諸將		倭船 5	
綜合戰果		倭船撞破26雙 我國被擄生擒3	

<附表第 20—2>

戰鬪序列及戰果一覽表(合浦 海戰)

戰鬪序列		戰果 (撞破, 焚滅)		
官職	姓名	大船	中船	小船
蛇渡僉使	金　浣	1		
防踏僉使	李純信	1		
光陽縣監	魚泳潭	1		
部統屬防踏謫居前僉使	李應華			1
軍官奉事	卞存緖			
同	宋希立			
同	金孝誠	1		
同	李　渫			
綜合戰果		大船 4, 小船 1		

<附表 第 20—3> 戰鬪序列及戰果一覽表(赤珍浦 海戰)

戰鬪序列		戰果 (撞破, 焚滅)		
官職	姓名	大船	中船	小船
樂安郡守	申 浩	1		
其部統屬順天代將	兪 攝			
同部統將郡居及第	朴永男	1		
保人	金鳳壽			
寶城郡守	金得光	1		
防踏僉使	李純信	1		
蛇渡僉使	金 浣	1		
鹿島萬戶	鄭 運	1		
部統將謫居前奉使	朱夢龍		1	
軍官前奉事	李 渫	2		
同	宋希立			
軍官定虜衛	李鳳壽	1		
軍官別侍衛	宋漢連		1	
綜合戰果		大船 9隻 中船 2隻		

<附表 第 20—4> 勇戰奮鬪將士一覽表(泗川 海戰)

官職	姓名	摘要
中衛將順天府使	權 俊	
中部將光陽縣監	魚泳潭	
前部將興陽縣監	裵興立	
左斥候長鹿島萬戶	鄭 運	
右斥候長蛇島僉使	金 浣	
左別都將虞候	李夢龜	
右別都將呂島權管	金仁英	
捍後將軍官前權管	賈安策	李舜臣의 軍官
及第	宋 晟	
斬退將前僉使	李應華	

<附表 第 20-5～A> 我軍被害狀况一覽表(泗川, 唐浦, 唐項浦, 栗浦 海戰)

死傷區分		官職	姓名	摘要
戰死	銃彈	正兵	金末山	
		虞侯船放砲鎭撫	張彥己	
		順天一船射夫	裵貴實	
		二船格軍	莫大	
		同	鮑作	
		同	內隱名	
		寶城一船射夫	起伊	
		興陽一船箭匠	難成	
		蛇渡一船射手鎭撫	張希達	
		呂島沙工土兵	朴古山	
		同 格軍	朴宮山	
	劍	興陽一船射手牧子	孫長水	
	弓矢	順天一船射夫保人	朴訓	
		蛇渡一船射夫鎭撫	金從海	
戰傷	銃彈	順天一船射夫	柳貴希	不重傷
		光陽船格軍鮑作	南山壽	
		興陽船船將水軍	朴百世	
		同 格軍鮑作	文世	
		同 訓導正兵	陳春四	
		同 射夫正兵	金福壽	
		同 內奴	高明世	
		樂安統船射夫	趙千軍	
		同 水軍	宣進近	
		同 無上	世遜	
		鉢浦一船射夫水軍	朴長春	
		同 土兵	張業同	
		同 放砲水軍	禹成福	
	弓矢	防踏僉使의 종	彥龍	
		光陽船放砲匠	徐千龍	
		同 射夫	白內隱孫	
		興陽一船射夫正兵	裵大檢	
		同 格軍鮑作	末孫	
		樂安統船長興助防	高希星	
		綾城助防	崔蘭世	
		寶城一船軍官	金益水	
		同 射夫	吳彥龍	
		同 無上鮑作	欣作	
		蛇渡一船軍官	陳武晟	
		同	林弘楠	不重傷
		同 射夫水軍	金億壽	
		同	陳彥良	
		同 新選	許福男	
		同 助防	田光禮	
		同 放砲匠	許元宗	
		同 土兵	鄭於金	草稿에는 於叱金
		呂島船射夫	石千介	
		同	柳修	
		同	宣有石	

<附表 第 20～5 B>

勇將奮鬪將士一覽表(同上)

職名	姓名	摘要
中衛將	權 俊	
前部將	李純信	
中部將	魚泳潭	
後部將	裵興立	
左部將	申 浩	
右部將	金得光	
左斥候將	鄭 運	
右斥候將	金 浣	
龜船突擊將及第	李奇男	
李舜臣의 軍官	李彥良	
左別將	李夢龜	
右別都將	金仁英	
捍後將,李舜臣의軍官	賈安策	前權管
李舜臣의 帶率軍官	卞存緖	奉事
同	羅大用	
同 前奉事	宋希立	
同	李 渫	
同	申榮海	
同 及第	金孝誠	
李舜臣의 帶率軍官	裵應祿	
同	定虜衛	
同	李鳳壽	

<附表 第 20-6> 我軍被害狀況一覽表(閑山島, 安骨浦 海戰)

戰死傷		官職	姓名	官職	姓名
戰死	銃彈	營二船鎭撫順天水軍	金鳳壽	防踏一船別軍光陽	金斗山
		呂島船格軍興陽水軍	姜必仁	同	林必近
		同	張千奉	蛇島一船申士	裵中之
		鹿島一船興陽新選	朴應龜	唐津水軍	姜莫同
		二船格軍長興水軍	崔應孫 (草稿에는崔加應孫)	樂安船射夫	筆同 (草稿에는夫叱同)
		營龜船士兵	金末孫	同	丁春
		興陽二船格軍	上左	同	貴世
		同	末運	營傳令船順天水軍	朴戊年
		鉢浦一船長興水軍	李機同 (草稿에는加比同)	興陽水軍	金軒
		興陽三船	孟水		
戰傷	銃彈	李舜臣船格軍士兵	金國	同	朴凡
		同	金延近	同鮑作	張同
		同	高風孫	防踏一船格軍士兵	姜突每 (草稿에는乭每)
		同水軍	鄭貴連	同	金水億
		同	金士化	同士兵	鄭德成
		同	孫元希	防踏二船格軍正兵	蔡洽
		同水軍	梁世卜	同	河丁
		同射夫新選	金勳	防踏龜船格軍水軍	金元方
		同	徐于東	同	金仁山
		同	金加應赤	同	李水背
		同	宋雙傑 (草稿에는雙乞)	呂島船破陣軍	金漢京
		同士兵水軍	趙尼孫 (草稿에는叱乙孫)	同	宣有守
		同水軍	李匡亥 (草稿에는光海)	同	林世
		同	尹希同	同	孟彦浩
		同	田銀石	同	鄭大春
		同放砲匠	徐億世	同	朴春文
		同	金錦近 (草稿에는伊斤)	本營一船水軍	鄭元方
		同鮑作	李甫仁	同士兵	朴突同
		蛇渡一船水軍	崔宜式 (草稿에는衣食)	同	金今同
		同沙工	朴近世	同	崔白
		同水軍	金弘屯	同	兪必丁
		同	李應弘	同	朴彦海
		同	申哲	同	姜牙金
		同軍官	田光禮	蛇渡二船格軍	鄭可當

→

戰死傷		官職	姓名	官職	姓名
戰傷	銃彈	同	鄭于當	同	呉凡同
		鹿島二船軍官	成吉伯	同新選	金德壽
		同水軍	姜永男	同	朱必尙 (草稿에는必上)
		同	崔永安	同士兵	毛老孫
		同射夫長興軍士	閔時澍	格軍興陽水軍	李彦丁
		樂安一船格軍鮑作	業同	同	世千
		同	李淡	同	孫望龍 (草稿에는亡龍)
		樂安二船射夫	金鳳壽	同鮑作	禾里同
		同壯軍	朴如山	同	難孫
		寶城船無上	呉欣孫	同格軍	季皮 (草稿에는夫皮)
		興陽一船鮑作	高邑同 (草稿에는古邑同)	同	南文同
		同	進同	同	之南
		興陽二船放砲匠正兵	李爛春 (草稿에는亂春)	同射軍	呉茂世
		同格軍	風自東 (草稿에는風破同)	同	大福
		同	金孫	同保人	朴千梅
		同	八連	同	欣每
		同	每孫	同	克只
		同	朴鶴鯤	光陽船都訓導	金温
		同無上	金談代	同格軍	先同
		營龜船格軍士兵	金延浩	同	億基
		同	洪允世	同	丁傑
		同	張水	同	崔夢漢 (草稿에는夢汗)
		同水軍	鄭希宗	同	趙彦季 (草稿에는彦夫)
		同	朴開春	同	全巨之
		營三船鎭撫	李自春	同	趙得
		同	朴先厚	同	張梅年
		同格軍鮑作	李文世	同士兵	金年玉
		同	鶴梅	同	永駬 (草稿에는永耳)
		同	朴外同	鉢浦一船士兵	李老郞
		同	李仇連	同水軍	趙道本
		鉢浦二船水軍	崔己	同	金信末
		同	崔永文	興陽三船私奴	風世
		同鮑作	馬仇之 (草稿에는亡仇之)	同	望己 (草稿에는亡己)
		同	欣福		
	累計死傷	戰死	19名		
		戰傷	115名		

<附表 第 20-7> **我軍戰死傷一覽表(釜山 海戰)**

死傷	原因	職名	姓名
戰死	銃彈	防踏一船 射夫順天水軍	金千回
		呂島船 分軍色興陽水軍	朴石山
		蛇渡二船 格軍綾城水軍	金開文
		營捍後船 格軍土兵	守培
		同 沙工鮑作	金叔連
戰傷	銃彈	李舜臣船 格軍土兵	張開世
		同 水軍鮑作	金億富
		同	金開東
		營捍後船 水軍	李宗
		同 格軍土兵	金江斗
		同	朴成世
		營龜船 土兵水軍	鄭仁伊
		同	朴彥必
		呂島船 土兵	鄭世仁
		同 射夫	金希全
		蛇渡一船 軍官	金鵬萬
		同 沙工土兵水軍	安元世
		同 格軍土兵水軍	崔翰宗
		光州 水軍	裵植宗
		興陽一船 格軍鮑作	北開
		營虞候船 射夫鎭撫	仇銀千
		防踏一船 格括軍奴	春好
		同	韓灘
		同鎭龜船 格軍軍奴	春世
		同	延石
		寶城 水軍	李加福
		寶城船 無上	欣孫
	弓矢	李舜臣船 土兵水軍	金永見
		同 鮑作	金今同
		防踏龜船 順天射夫新選	朴世奉
綜合損失	戰死	5名	
	戰傷	25名	

<附表 第 20-8> **戰鬪序列及戰果一覽表(第2次 唐項浦 海戰)**

戰鬪序列		戰果		
官職	姓名	大船焚滅	中船焚滅	小船焚滅
折衝將軍舟師助防將	魚泳潭	2		
右斥候將訓練副正兼呂島萬戶	金仁英	1	1	
右副將西部主簿兼鹿島萬戶	宋汝悰	1		1
右突擊將訓練主簿	李彥良		2	
左斥候將折衝將軍蛇渡僉使	金浣		1	
左別都將前僉使	裵慶男	1		
訓練判官	李渫			
左部步戰統將前訓練奉事	崔道傳			
左斥候一領將正兵保	盧天紀			1
二領將正兵保	曹長宇			
繼援將水軍虞侯	李廷忠	1		
前部將海南縣監	魏大器		1	
左鷹揚將訓練判官兼於蘭萬戶	鄭聃壽	1		
右鷹揚將訓練判官兼桃浦萬戶	姜應彪		1	
中衞左部將訓練判官兼金甲島萬戶	李廷彪		1	
左衞左部將訓練判官兼木浦萬戶	田希光			1
右衞中部將康津縣監	柳瀯		1	
右部將主簿	金南俊			
右斥候一領將兼司僕	尹鵬			
右鷹揚助戰將	裵胤			1
中衞左部步駐統將正保兵	郭好信			
慶尙道右水使	元均		2	
右斥候一先鋒將泗川縣監	奇直男	1		
右突擊將軍器寺副正兼固城縣令	趙凝道	1		
左斥候先鋒都將熊川縣監	李雲龍	1		
遊擊將河東縣監	成天裕		1	
左部將唐浦萬戶	河宗海			
左先鋒將訓練判官兼所非浦權管	李英男	2		
右突擊部將訓練正兼蛇梁萬戶	李汝恬		1	
前部將巨濟縣令	安衛		1	
右游擊將鎭海縣監	鄭沆		1	
慶尙右道彌助項僉使	金勝龍			
中部將珍島郡守	金萬壽			
左遊擊將南海縣令	奇孝謹			
戰果綜合		12	14	4
		30隻		

<附表 第 21> 第 1 次東征軍戰鬪序列(宣祖 25年 12月 7日)

經略 宋應昌 欽差經略蘇遼保定山東等處防海禦倭軍務

贊畫 劉黃裳 同 袁 黃——欽差贊畫防海禦倭軍務

幕將 指揮 吳宗道, 同 譚宗仁, 守備熊正東, 遼東都司 張三畏, 千摠 李大諫, 副總兵 劉綎, 參將胡澤, 馬世隆, 謝用梓, 黃應暘, 宋大斌, 楊五典

總指揮官 提督 李如松

副總兵	佟養正	參 將	張奇功(馬兵 1千)
遊 擊	趙文命(馬兵 1千)	同	高 徹(馬兵 1千)
副總兵	李平胡(馬兵 1千)	遊 擊	施朝卿(馬兵 1千)
同	王守官(臣)(馬 3百)	參 將	方時春——中軍
備 禦	韓宗功——旗鼓官	戶部主事	艾維薪——糧食
兵部員外郞	劉 黃 裳 ——贊畫		
兵 部 主 事	袁 黃 ——贊畫		

左協 1萬1千7百餘名

大將	親兵 2千名	副總兵	楊 元			
	馬兵 1千2百名	副總兵	王有翼	馬兵 1千餘名	參 將	李如梅
	馬兵 1千餘名	副總兵	王維貞	馬兵 1千餘名	參 將	楊紹先
	馬兵 5百餘名	參 將	李如梧	馬兵 1千餘名	副總兵	孫守廉
	兵 1千餘名	副總兵	査大受	兵 1千餘名	參 將	李 寧
	馬兵 2千餘名	遊 擊	葛逢夏			

中協 1萬2千5百名

大將	親兵 1千5百名	副總兵	李如栢			
	兵 1千名	副總兵	任自强	馬兵 2千名	遊 擊	高 策
	馬兵 2千名	參 將	李芳春	步兵 1千名	遊 擊	戚 金
	馬兵 1千名	遊 擊	錢世禎	馬兵 1千名	遊 擊	方時輝
	兵 1千名	遊 擊	周弘謨	馬兵 1千名	遊 擊	王 問
	馬兵 1千名	遊 擊	高 昇			

右協 1萬1千5百名

大將	親兵 1千5百名	副總兵	張世爵			
	馬兵 1千名	副總兵	祖承訓	步兵 1千名	副總兵	王必廸
	步兵 1千5百名	副總兵	吳惟忠	馬兵 1千5百名	參 將	張應种
	馬兵 1千名	參 將	趙之牧	步兵 1千名	參 將	陳邦哲
	步兵 1千名	參 將	駱尙志	馬兵 1千名	遊 擊	梁 心
	馬兵 1千名	遊 擊	谷 燧			

其他——樓崇政 李 郁 鄭有知 胡 鸞 周 易 李 杜
吳希漢 傅廷立 毋承宣 李有昇

<象村集卷五十七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記 李提督以下諸官一時往來各衙門, 皇明實錄神宗顯皇帝實錄卷二百五十一 萬曆二十年八月壬辰, 卷二百五十二 萬曆二十年九月甲子, 兩朝平攘錄卷四日本上, 宣祖實錄卷三十四 宣祖二十六年正月丙寅, 宣廟寶鑑卷八宣祖二十五年壬辰十二月, 再造藩邦志卷二(壬辰十一月) 亂中雜錄一, 朝野僉載卷二十七, 國朝故事二, 攷事撮要上, 平壤續志二 古事>

<附表 第 22> 敵軍撤退後의 我軍側配置狀况表(宣祖 26年 5月)

區分 / 軍別	守將 官	守將 姓名	配置地	摘要
東征軍	副總兵	王必廸	尙州	뒤에 慶州로
	副總兵	吳惟忠	善山鳳溪	兵力 5千名, 뒤에 草溪로 갔다가 慶州로 赴援.
	參將	李寧	居昌	뒤에 咸陽으로
	副總兵	祖承訓	同上	
	參將	駱尙志	南原	뒤에 慶州로 내려갔다가 12月에 漢城으로 올라와 集結.
	副總兵	劉綎	大丘	兵力 5千名, 星州八莒로移動. 27年 3月 3日에 南原으로.
	遊擊將	葛逢夏	居昌	뒤에 咸陽으로.
	副總兵	査大受	全州	
	遊擊將	宋大斌	南原	
我軍	都元帥	金命元	宜寧	協力將領
	巡邊使	李薲		慶尙右兵使 崔慶會
	全羅兵使	宣居怡		同 左兵使 高彦伯
	同監司	權慄		星州牧使 郭再祐
	忠淸兵使	黃進		(뒤에 助防將 洪季男이 慶州로 轉進)
	助防將	洪季男		
	全羅防禦使	李福男		
	義兵將	金千鎰	善山	
	助防將	趙誼		
	義兵將	任啓英		
	同	房處仁		
備考	一, 宣祖實錄卷三十九 宣祖二十六年六月己丑 慶尙左道兵使權應銖馳啓, 戊戌慶尙左道觀察使韓孝純馳啓 二, 事大文軌卷八 萬曆二十二年三月十七日遼東都指揮使咨朝鮮國王			

<附表 第 23> 第2次東征軍 戰鬪序列(宣祖 30年 11月)

職責	姓名	官職	兵力
總督 邢玠　欽差總督薊遼保定等處軍務經略禦倭兼理粮餉			
副總兵	高策	欽差薊遼軍門管中軍事院統領中協征倭兵馬後軍都督僉府事	2,500
署都督僉事	戴延春		
中軍旗鼓官	蔣弘濟	原任守備	
旗鼓官	張九經		
參將	楊廉	騎兵左營守備, 都指揮僉事	900

—→

→

職責	姓名	官職	兵力
副摠兵	祖承訓		遵化步兵 7,000
遊擊將	葉思忠	原任	
同	喬一麟		
指揮使	宗應魁	原任	
同	張隆	騎兵	馬兵 760
游擊將	藍(用)芳威		夷兵 300
千摠	斯天爵	永平後部	馬兵 7,000
同	王成	左營	步兵 1,150
委官	王宗義	大同委官	馬兵 980
指揮使	蔡仲宇	遼兵營	馬兵 760
千摠	李輔國	右營千摠	880
廳用	龎涥		
同	李大諫		
同	張彥池		
按察使	蕭應宮	欽差整勅遼陽等處海防兵備山東接察使	
粮餉戶部	董漢儒	欽差管理備倭山東淸吏司郎中	
右參議	張登雲	遼鎭東寧道帶管防海道事	
外郎	楊位	欽差贊畫軍務兵部職方司員	
經理楊鎬		欽差經理朝鮮軍務都察院右僉都御史	
副摠兵	彭友德	中軍副摠兵署都督僉事	
旗鼓官	李開先	守備指揮僉事	馬兵 1,520
備禦指揮僉事	李逢陽		
指揮僉事	劉武仲		
千摠	李勝	遼營親兵千摠	馬兵 800
千摠	李益喬	統領調兵千摠	馬兵 1,290
寬典中軍	章煥然		
指揮使	黃應暘		
提督麻貴		欽差提督南北官兵禦倭摠兵官後都督府都督同知	
副摠兵	吳惟忠	欽差備倭右翼副摠兵原任都督僉事	步兵 4,000
同	楊元	同	馬兵 2,000
同	李芳春	同 都督僉事	馬兵 2,000
同	李如梅	同 署都督僉事(左翼)	遼宣二營兵 1,500
同	解生	同	大同馬兵 2,000
同	佟養正	協守原任	
同	李寧	協守備倭，署都督僉事	保定營馬兵 2,000
游擊將	牛伯英	三屯中右營，都督指揮僉事	薊鎭馬兵 600
游擊將	陳愚衷	都督指揮同知	延綏營馬兵 2,000
同	頗貴	原任 同	宣大馬兵 3,000
同	柴登科	密雲前營，都指揮同知	馬兵 1,400
同	茅國器	統領浙直勝營兵，同	步兵 3,000

→

→

職 責	姓 名	官 職	兵 力
同	李化龍	統領保定營兵，僉事	馬兵 2,500
同	楊萬金	統領大同兵，都指揮僉事	馬兵 1,000
同	擺賽	統領宣大招募夷兵，同	馬兵 3,000
同	盧得功	統領三營屯兵，同	馬兵 3,000
同	陳寅	統領薊鎭永平添防南北官兵，同	步兵 4,000
同	塗寬	統領廣福調兵，同	馬兵 850
同	安本立	統領宣府營兵，都指揮僉事	馬兵 2,500
營官	薛虎臣	眞定營坐營官，都指揮同知	馬兵 3,000
游擊將	季金	統領浙直水兵，都指揮僉事	舟師 3,300
參將	盧繼忠	統領南北調兵五軍四營，都指揮使	馬兵 2,770
同	楊登山	恊守東路，都指揮使	馬兵 1,100
同	李寧	統領西路，都指揮同知	大同馬兵 2640
同	陳愚聞	遵化營兵，都指揮僉事	馬兵 1,500
千摠	葉邦榮		浙兵 1,500
同	葉朝桂		步兵 300

<皇明實錄卷三百七，卷三百十四，皇明從信錄卷三十八 萬曆二十五年二月，象村集卷五十六志，明朝記事本末卷六十二 援朝鮮，朝野僉載卷二十九丁酉正月，明史卷二十一本紀二十一 神宗二， 宣祖實錄卷八十六 宣祖三十年 三月乙巳 己酉>

<附表 第 24> 蔚山戰鬪後東征軍兵力配置一覽表(宣祖 31年 2月 3日以後)

職位＼區分	姓 名	分屯地	摘 要
副總兵	李芳春	安東府	
遊擊將	牛伯英		
同	盧得功		
同	葉邦榮	龍宮縣	醴泉郡龍宮面
副摠兵	吳惟忠	忠州	
遊擊將	陳愚聞	水原府	
同	藍芳威	稷山縣	
參將	李寧	公州	
遊擊將	董正誼	全州	2月 18日 遊擊將 茅國器 追加配置
同	柴登科		
同	秦得賚		
同	擺賽	安城郡	
同	頗貴	醴泉郡	2月 18日 以後
同	王國棟	尙州	2月 29日 以後

<宣祖實錄卷九十七 宣祖三十一年戊午條>

<附表 附 25>

蔚山戰鬪後東征軍兵力一覽表
(宣祖 31年 3月 29日以後)

區分/四路	官職	姓名	駐屯地	摘要
東路	提督	麻貴	尙州	南兵
	參將	楊登山		
	遊擊將	擺賽	安東府	
	都事	薛虎臣		
	副總兵	吳惟忠		
	參將	王國棟	永川郡，新寧縣	
	遊擊將	陳蠶		
	同	陳寅	義城郡	
	同	頗貴		
	副總兵	解生	義興縣	
	遊擊將	陳愚聞	醴泉郡	
	同	彭信古		
	同	許國威	迎日縣 長鬐縣	
中路	副總兵	李如梅		
	遊擊將	塗寬	善山府	
	同	葉邦榮		
	同	盧得功	星州，高靈縣	
	同	茅國器		
	副總兵	李寧	尙州	
西路	提督	劉綎	全州	本營
	副總兵	李芳春		
	指揮	陳國寶		
	遊擊將	牛伯英	南原府	
	同	藍芳威		
	參將	李寧	全州	
水路	都督	陳璘		本營
	遊擊將	張良相		
	同	季金	全羅道	
備考	1. 東路의 參將 王元周 把總 李天常은 吳松의 군사를 거느리게 하다. 2. 中路의 副總兵 張榜은 大同의 군사를 거느리게 하다. 提督 董一元은 7月에 星州에 와서 統率하다. 3. 西路의 遊擊將 傅良橋는 南蠻의 군사를 거느리게 하다. 4. 水路의 遊擊將 張良相은 廣東水兵, 同 沈茂는 浙江水兵, 遊擊將 福日昇은 狼山水兵, 把總梁天胤은 江北水兵을 거느리게 하다.			

<宣祖實錄卷九十八宣祖三十一年三月甲寅，明朝記事本末卷六十二援朝鮮萬曆二十六年二月>

<附表 第 26>

第3次 東征軍戰鬪序列(四路併進部署)(宣祖 31年 9月 20日)

區	將	領		兵力
東路	提督 麻貴 24,000餘名	參將	楊登山	馬兵 1,000
		指揮同知	薛虎臣	步兵 3,000
		副總兵	吳惟忠	步兵 4,000
		參將	王國棟	馬兵 2,000
		遊擊將	陳蠶	步兵 3,000
		同	葉思忠	步兵 2,000
		同	陳寅	步兵 3,000
		同	頗貴	馬兵 3,000
		副總兵	解生	馬兵 2,000
中路	提督 董一元 14,000餘名	遊擊將	彭信古	步兵 1,000
		同	塗寬	步兵 500
		同	郝三聘	馬兵 1,000
		同	葉邦榮	浙兵 1,500
		同	盧得功	馬兵 3,000
		同	茅國器	馬兵 3,000
		副總兵	張榜	步兵 4,500
西路	提督 劉綎 13,600餘名	同	李芳春	馬兵 2,000
		遊擊將	牛伯英	馬兵 600
		同	藍芳威	南兵 3,000
		參將	李寧	馬兵 2,500
		副總兵	吳廣	狼土兵5,500
水路	都督 陳璘 13,200名	遊擊將	許國威	步兵 1,000
		參將	王元周	水兵 2,000
		把總	李天常	水兵 2,700
		遊擊將	季金	水兵 3,000
		同	沈懋	水兵 1,000
		同	福日昇	水兵 1,500
		同	梁天胤	水兵 2,000
南北兵合計 143,700餘名				
上記外에 參政王士琦 管粮同知 韓初命 副摠兵 曹希彬 遊擊將 馬呈文				
備考: 我軍은 東路에 平安, 江原, 慶尙左道兵力 5,500餘名, 西路에 忠淸, 全羅兩道兵力 10,000餘名, 中路에 京畿, 黃海, 慶尙右道兵力 2,300餘名, 水路에 全羅, 忠淸 兩道水軍兵力 7,300餘名이 各各屬하다.				

<宣祖實錄卷百四，象村集卷五十六志，亂中雜錄卷三春坡堂日月錄卷十>

<附表第 27>東征軍攻擊部隊軍隊區分(泗川城, 宣祖 31年 10月 1日)

縱隊區分	合計兵力	兵種及兵力	指揮官姓名
先 鋒	7,500	步兵 3,000	遊擊 茅國器
		步兵 1,500	遊擊 葉邦榮
		步兵 3,000	遊擊 彭信古
右 翼	4,000	馬兵 1,000	遊擊 郝三聘
		步兵 3,000	遊擊 師道立
左 翼	4,000	馬兵 1,000	遊擊 馬呈文
		步兵 3,000	遊擊 藍芳威
本 隊	21,200	步兵 4,500	副總兵 張 榜
		步兵 500	遊擊 塗 寬
		馬兵 3,000	副總兵 祖承訓
		步兵 1,000	遊擊 安本立
		馬兵 3,000	遊擊 故盧得功의 兵力
		馬兵 2,000	參將 故李 寧의 兵力
		步馬兵5,000	提督 董一元
		步馬兵2,200	鮮將 鄭起龍等
合計兵力	36,700餘名		
備考	1, 上記以外에도 若干의 部隊가 있었는듯 하나 詳細하지 아니함.		

<附表 第 28>

全國動員軍隊區分(壬辰正月 5 日命令)

順 位	總兵力	各擔任兵力	姓 名	居城
1番隊	13,700	7,000	小西攝津守行長	宇土
		3,000	松浦刑部卿法印鎭信	平戶
		2,000	有馬修理大夫晴信	島原
		1,000	大村新八郞喜前	大村
		700	五島大和守純玄	福江
2番隊	22,800	10,000	加藤主計頭淸正	熊本
		12,000	鍋島加賀守直茂	佐賀
		800	相良宮內大輔賴房	人吉
3番隊	11,000	5,000	黑田甲斐守長政	中津
		6,000	大友侍從吉統	豐後府內
4番隊	13,500	2,000	毛利壹岐守吉成	小倉
		10,000	島津侍從義弘	栗野
4番隊		1,500	高橋九郞元種	延岡
			秋月三郞種長	財部
			伊東民部大輔祐兵	飫肥
5番隊	12,400	4,800	福島右衛門大夫正則	伊豫國府
		3,900	戶田民部少輔勝隆	板島
		3,000	長宗我部侍從元親	岡豐
		700	來島出雲守通總	來島
6番隊	12,700	7,200	蜂須賀阿波守家政	德島
		5,500	生駒雅樂頭親正	高松
7番隊	15,700	10,000	小早川侍從隆景	名島
		1,500	小早川侍從秀包	久留米
		2,500	立花侍從統虎	柳川
		800	高橋主膳正統增	三池
		900	筑紫上野介廣門	福島
8番隊	30,000		毛利參議輝元	廣島
9番隊	10,000		宇喜多參議秀家	岡山
10番隊	17,550	1,000	龜井武藏守眞矩	琉球
		1,500	南條伯耆守元續	羽衣石
		2,000	宮部兵部少輔長熙	鳥取
		850	木下備中守重賢	若櫻
		400	垣屋隱岐守恒總	浦住
		2,000	前野但馬守長康	出石
		800	齋村左兵衛尉廣英	竹田
		800	明石左近允則實	城崎
		500	別所豐後守吉治	八木
		3,500	長岡少將忠興	宮津
		1,500	木下侍從勝俊	龍野
		500	木下宮內少輔利房	
		200	木下右衛門大夫延俊	
		3,000	中川右衛門大夫秀政	三木
11番隊	24,960	2,500	淺野左京大夫長慶	小濱
		1,200	大谷刑部少輔吉繼	敦賀
		3,000	木村常陸介重玆	府中
		160	太田半次郞一吉	
		200	山田藤三郞	
		4,000	長谷川侍從秀一	東鄉
		800	青山甚左衛門忠元	丸岡
		1,400	青木紀伊守一矩	大野

→

→

順位	總兵力	各擔任兵力	姓名	居城
11番隊		7,000	堀侍從秀治 同 美作守親良	北莊
		1,500	溝口伯耆守秀勝	大聖寺
		2,300	村上周防守義明	小松
		900	丹羽侍從長重	松任
12番隊	10,000		前田參議利家	金澤
			同 侍從利長	守山
13番隊	6,450	500	岡本下野守重政	龜山
		400	一柳右可遊	
		800	服部釆女正一忠	松坂
		750	牧野兵部大輔政玄	岩手
		10,000	水野和泉守忠重	神戶
		3,000	織田中將信包	安濃津
14番隊	13,750	8,000	羽柴少將秀勝	岐阜
		1,100	伊藤長門守盛景	大垣
		1,400	稻葉侍從貞通	郡上
		2,300	森侍從忠政	粂山
		800	金森五郎八可重	高山
		150	佐藤六左衛門方政	上有知
15番隊	4,100	300	日根野織部正高明	高島
		1,000	毛利侍從秀賴	飯田
		800	石川出雲守數正	深志
		1,000	仙石越前守秀久	小諸
		1,000	加藤遠江守光泰	甲斐府中
16番隊	12,050	5,000	德川大納言家康	江戶
		2,000	佐竹侍從義宣	水戶
		300	宇都宮彌三郎國綱	宇都宮
		150	那須衆	那須
		100	佐野法印了伯	佐野
		100	里見侍從義康	舘山
		500	眞田安房守昌幸	上田
		3,000	上杉參議景勝	春日山
		300	最上侍從義光	山形
		500	伊達侍從政宗	岩手山
		100	南部九郎利直	三戶
水軍(船手衆)	3,980	1,,500	脇坂中務少輔安治	洲本
		750	加藤左馬助嘉明	志知
		230	菅平右衛門達長	岩屋
		1,500	九鬼大隅守嘉隆	鳥羽
番外1番	15,000		羽柴參謀秀保	郡山
番外2番	6,200	1,000	京極侍從高次	八幡山
		2,000	石田治部少輔三成	佐和山
		1,000	增田右衛門長盛	
		1,000	小野木縫殿助重勝	福知山
		800	山崎左馬助家盛	
		400	小出信濃守吉政	岸和田
旗本	8,600	6,400	前備衆	
		2,200	織田常眞	
		1,800	弓鐵砲衆	
	20,400	12,000	馬廻	
		7,600	後備	

兵力合計 281,840名

備考：(1) 1番隊에 宗義智, 4番隊에 島津忠豐을 脫하였으나 3月 13日 命令으로 追加되다.

(2) 其他 蒲生氏鄕等 若干의 遺漏가 있는 듯 하나 詳細히 알 수 없다.

<附表 第 29—1>

壬辰侵略軍隊區分 (3月 18日 實施命令)

區分	總兵力	差出擔當兵力	姓名	居城
1番隊	18,700	5,000	宗義智	對馬府中
		7,000	小西行長	肥後宇土
		3,000	松浦鎭信	肥前平戶
		2,000	有馬晴信	同 島原
		1,000	大村喜前	同 大村
		700	五島純玄	同 福江
2番隊	22,800	10,000	加藤清正	肥後熊本
		12,000	鍋島直茂	肥前佐賀
		800	相良賴房	肥後人吉
3番隊	11,000	5,000	黑田長政	豐前中津
		6,000	大友吉統	豐後府內
4番隊	14,000	2,000	毛利吉成	豐前小倉
		10,000	島津義弘	大隅栗野
			高橋元種	日向縣
			秋月種長	同 財部
		2,000	伊東祐兵	同 飫肥
			島津忠豐	同 佐土原

→

→

順　　位	總兵力	各擔任兵力	姓　　名	居　城
5 番　隊	25,000	4,800	福 島 正 則	伊豫國府
		3,900	戶 田 勝 隆	同 板島
		3,000	長曾我部元親	土佐岡豐
		7,200	蜂 須 賀 家 政	阿波德島
		5,500	生 駒 親 正	讃岐高松
		700	來 島 通之 通總	伊豫來島
6 番　隊	15,700	10,000	小早川隆景	筑前名島
		1,500	小早川秀包	筑後久留米
		2,500	立 花 統 虎	同 柳川
		800	高 橋 統 增	同 三池
		900	筑 紫 廣 門	同 福島
7 番　隊	30,000		毛 利 輝 元	安藝廣島
8 番　隊 (對馬在陣)	10,000		宇喜多秀家	備前岡山
9 番　隊 (壹岐在陣)	11,500	8,000	羽 柴 秀 勝	美濃岐阜
		3,500	長 岡 忠 興	丹後宮津

兵力總合計　158,000名

<一　般　方　略>

(1) 諸部隊는 上記序列로써 速히 朝鮮에 向할 것임. 但 順風이 없으면 晴日을 擇하여 島嶼에 沿하여 渡航할 것임. 萬若 日氣不順할 때에 航行하여 一馬一兵을 喪失하거나 또는 順風에도 不拘하고 渡海치 않거나 하면 모두 其過失의 罪를 論할지로다.

(2) 馬匹은 비록 渡鮮後라고 할지라도 工事實施中에는 不必要한 故로 兵員이 全部 上陸한 後에 渡海케 할 것임.

(3) 上揭한 諸隊 外는 全員 名護屋에 在陣할 것임. 萬若 一人이라도 渡海하면 罪로써 다스릴지로다.

(4) 今次 出征에는 船舶이 매우 重要하니 多數를 準備한 것을 其功으로 할지며 諸部隊의 船舶을 記錄하여 이것을 船舶監理官(船奉行)에게 交付하고 其區處를 받은 後에 逐次로 渡海할 것이며 鮮地에 上陸을 完了하면 各隊의 船舶에는 自家의 監理官(奉行) 一人式을 附하여서 對馬에 送還하고 後續部隊를 乘船케 할지로다.

(5) 朝鮮王이 入朝를 承諾하면 前揭의 序列로써 順次로 上陸할지며 萬若 不承諾하면 艦船을 附近 島嶼에 集結하고 總軍이 協議한 後에 上記 序列 如何에 不拘하고 一時에 朝鮮諸浦에 上陸하여 陣地를 選定하고 築城工事를 堅固히 할 것임. 其時에 臨하여서는 九州,四國,中國의 兵力은 勿論이고 淡路兵(脇坂, 加藤嘉明等) 九鬼嘉隆等의 水軍도 同時에 渡鮮할 것임. 云云.

<附表 第 29—2>

敵의 軍隊區分 變更 一覽表

(壬辰年 6月 3日)

區分	總兵力	差出擔當兵力	主 將 姓 名	摘　　要
1番隊	18,700		小 西 行 長	變更 없음
2番隊	22,800		加 藤 淸 正	同　上
3番隊	25,000	5,000	黑 田 長 政	舊 3 番隊와 4 番隊를合하였음. 高橋元種外에秋月種長, 伊東祐兵등이 있음.
		6,000	大 友 吉 統	
		10,000	島 津 義 弘	
		2,000	毛 利 吉 成	
		2,000	島 津 忠 豐	
			高 橋 元 種	
4番隊	8,700	4,800	福 島 正 則	舊 5 番隊所屬
		3,900	戶 田 勝 隆	同　上
5番隊	7,200	7,200	蜂 須 賀 家 政	同　上
6番隊	9,200	3,000	長曾我部元親	同　上
		5,500	生 駒 親 正	同　上
		700	來 島 通 總	同　上
7番隊	15,700		小 早 川 隆 景	舊 6 番隊 人員은 變動 없음
8番隊	10,000		宇 喜 多 秀 家	變更없음
備考	1. 總兵力 130,000 名 2. 3 番隊兵力을 增强하고 舊 5 番隊 25,000 名을 分割하여 4, 5, 6 番隊로함 3. 舊 6 番隊를 7 番隊로 고치고 舊 7 番隊의 毛利輝元의 30,000 兵力을 削減하였음.			

<附表 第 30>　敵의 兵力配置一覽表 (壬辰 5月中旬頃)

駐屯地	主將	侵略編隊	兵力	摘要
龍仁附近	脇坂安治	水軍	1,500	
竹山府	福島正則	5番隊	4,800	
忠州	蜂須賀家政	〃	7,200	
聞慶縣	長曾我部元親	〃	3,000	
善山府	小早川隆景	6番隊	10,000	
金山附近	立花統虎	〃	2,500	
	高橋統增	〃	800	
	筑紫廣門	〃	900	
星州	毛利輝元	7番隊	30,000	6月 12日에 開寧에 移動
釜山附近	羽柴秀勝	9番隊	8,000	
玄風縣	島津義弘	4番隊	12,000	5月 9日에 京城으로 北上
備考	7月 以後의 配置는 本表 第34 參照			

<附表 第 31>　敵의 築城計劃表 (宣祖 25年 5月 20日) (秀吉命令文)

豫定城	築城擔當豫定
釜山本城 椎木島(絕影島) 陸上岬角(今의龍尾山?)	毛利輝元父子
熊川城 同支城	小早川隆景　小早川秀包 立花統虎　高橋統增 筑紫廣門
巨濟島의 1城	蜂須賀家政　生駒親正
同 1城	長曾我部元親　福島正則 戶田勝隆
加德島城	九鬼嘉隆 藤堂高虎
本城	毛利吉成　高橋元種 秋月種長　島津忠豐 伊東祐兵

豫定地	築城擔當豫定
本城 1, 支城 1	加藤淸正　相良賴房
本城 1	島津義弘
本城 1	黑田長政
本城 1, 支城 1	鍋島直茂　其子 勝茂
本城 1	小西行長
支城 1	宗　義智
支城 1	松浦鎭信　五島純玄 大村喜前　有馬晴信
合計 本城 11 支城 7	

<附表 第 32>敵의 築城實施表(宣祖 25年 7月以降)

築城名 本城	築城名 支城	築城擔當者姓名	備考
西生浦	1	加藤淸正	
林浪浦		毛利吉成	
機張		黑田長政	
釜山	1	毛利秀元	
金海	1	鍋島直茂	
東萊		吉川廣家	
加德島	1	小早川隆景 立花統虎等	
安骨浦		脇坂安治 九鬼嘉隆 加藤嘉明	3人이 3年間式交替
熊川	2	小西行長 宗義智 松浦鎭信	
巨濟永登浦		島津義弘	
巨濟長門浦(甑峰)		福島正則 戶田勝隆 長曾我部元親	3人이 1年間式 交替
同上(倭城)		蜂須賀家政 生駒親正	2人이 1年間式 交替
合計 本城 12, 支城 6			

<附表 第 33>

敵軍連絡守備地一覽表 (宣祖 25年 7月頃)

守備地	守將姓名	兵力
中和	小西行長等의 兵力	未詳
黃州	志賀小左衛門(大友의 部將)	6,000
鳳山	大友吉統	
龍泉山(瑞興附近)	小河傳右衛門(黑田의 部將)	
平山	黑田의 兵力	5,00
牛峰	黑田長政	

<附表第 34>

敵의 兵力配置一覽表 (宣祖 25年 7月以降)

地域	兵力	主將	其他
京城	10,000	宇喜多秀家	(1) 增田, 石田, 大谷, 長谷川, 木村, 加藤, 前野의 七將은 7月 16日入京 (2) 長岡은 7月 23日 入京 (3) 長谷川, 木村, 長岡의 三將은 8月上旬慶尙道方面에 轉進
	3,000	增田長盛	
	2,000	石田三成	
	1,200	大谷吉繼	
	5,000	長谷川秀一	
	3,500	木村重玆	
	1,000	加藤光泰	
	2,000	前野長康	
	3,500	長岡忠興	
果川	?	花房職之	宇喜多의 部將
新築城(地點未詳)	?	長船紀伊守	同上
龍仁	?	宇喜多左京進	(1) 同上 (2) 6月까지는 脇坂安治가 兵力 1,500 名으로 守備하다
陽智	3,000	中川秀政	
新築城(地點未詳)	?	福島正則의 兵	
竹山	4,800	福島正則	
陰城	5,500	生駒親正	
忠州	7,200	蜂須賀家政	
新築城(鳥嶺附近)	?	同上 兵力	
聞慶	2,000	長曾我部元親	
咸昌	1,000	同上 兵力	
尙州	4,000	稻葉貞通	8—9月頃戶田勝隆이 兵力 3,900으로交代하다
善山	1,000	宮部長熙	
	400	垣屋恒總	
開寧 安東 禮安 茂溪 聞慶	30,000	毛利輝元	一部兵力約 10,000을小早川隆景의指揮下에들게하다
金山	2,500	立花統虎	
	800	高橋統增	
	900	筑紫廣門	
	200	加須屋武則	
	300	新庄直定	
	160	太田一吉	
錦山	10,000	小早川隆景	
	850	木下重賢	
仁同	1,500	南條元淸	
大丘	800	齋村廣英	8—9月頃稻葉貞通의 兵力

地 域	兵 力	主 將	其 他
大 丘	800	明石則實	4,000이 增加
淸 道	?	木造長政	羽柴秀勝의部將
密 陽	500	別所吉治	
	450	谷 衛友	
梁 山	350	石川康勝	
	?	稻葉典通	貞通의子
東 萊	?	品崎小傳次	秀勝의部將
釜 山	8,000	羽柴秀勝	一部兵力을星州, 玄風守備로 差遣
	7,000	小西行長	
	5,000	宗 義智	
平 壤	3,000	松浦鎭信	
	2,000	有馬晴信	
	1,000	大村喜前	
	700	五島純玄	
中 和	?	小西行長의兵力	
黃 州	?	志賀小左衛門	大友吉統의部將
鳳 山	6,000	大友吉統	
龍泉山	?	小河傳右衛門	黑田長政의部將
平 山	?	黑田長政의兵力	8—9月小早川秀包兵力交代
江 陰	?	栗山利安	黑田長政의部長
白 川	5,000	黑田長政	12月初旬立花統虎(2,500)高橋統增(800)筑紫廣門이參加하다
牛 峰	?	黑田長政의兵力 8~9月頃小早川秀包兵力 1,500과 交代	
開 城	3,900	戶田勝隆	(1) 8—9月頃 小早川隆景(10,000)과 交代하고尙州로轉進
	(10,000)	(吉川廣家, 天野元政 毛利元康)	(2) 11—12月 毛利輝元의 部將이來到
鐵 原	500	伊東祐兵	
永 平	10,000	島津義弘	島津義弘은12月에金化로轉進
春 川	500	島津忠豐	
	2,000	毛利吉成	
原 州	500	秋月種長	
	500	高橋元種	

<附表 第 35>

敵守備兵力變更一覽表
(宣祖 25年 8月 7日)

守備地	主 將 姓 名	兵 力
平 山	小早川秀包	
牛 峯	同 兵力	1,500名
開 城	小早川隆景	
長 湍	同 兵力	
臨津鎭	岡景忠(隆景의部將)	10,000
高 陽	隆景의 兵力	
白 川	黑田長政	
江 陰	栗山利安(長政의 部將)	5,000 (龍泉山守兵缺)
平山附近	長政의 兵力	

<附表 第36>

敵의 兵力配置一覽表 (自宣祖 25年末 至 同 26年初)

咸鏡道方面 兵力 22,000餘名
- 吉州, 洪原間 — 加藤淸正
- 咸興, 德原間 — 鍋島直茂
- 安邊 — 加藤淸正
- 北靑 — 相良賴房

平安道方面 兵力 18,000餘名
- 平壤 — 小西行長
- 中和 — 同上의 一部

黃海道方面 兵力 11,000餘名
- 黃州, 鳳山 — 大友吉統
- 龍泉, 白川間 — 黑田長政

開城方面 兵力 25,000餘名
- 平山, 牛峯附近 — 小早川秀包(毛利秀包)
- 開城, 高陽間 — 小早川隆景

京城方面 兵力 20,000餘名
- 京城 — 宇喜多秀家(三奉行包含)
- 果川, 龍仁間 — 宇喜多의 一部
- 竹山 — 福島正則
- 陽智 — 中川秀成

江原道方面 兵力 14,000餘名
- 鐵原 — 伊東祐兵
- 金化 — 島津義弘
- 春川 — 島津忠豐
- 原州 — 毛利吉成

忠淸道方面 兵力 15,000餘名
- 陰城 — 生駒親正
- 忠州, 鳥嶺間 — 蜂須賀家政

慶尙道方面 兵力 41,000餘名
- 聞慶, 咸昌 — 長曾我部元親
- 尙州 — 戶田勝隆
- 善山 — 宮部長熙
- 開寧及其附近 — 毛利輝元(12月에 撤退)
- 仁同 — 木下重賢
- 大丘 — 稻葉貞通
- 淸道 — 羽柴秀勝(9月死亡)
- 密陽 — 別所吉治
- 梁山 — 谷 衛友
- 東萊, 釜山 — 羽柴秀勝의 兵力
- 機張 — 龜井眞矩
- 昌原 — 長谷川秀一

<附表 第37>　漢城集結日本軍兵力區分表(宣祖 25年 7月以後)

區　　分	總 兵 力	差出兵力	指揮官姓名(職)	駐　屯　洞
1番隊	19,200	10,000	羽柴備前宰相(宇喜多秀家)	鄭士龍家 小公主洞
		3,000	增田右衛門尉	鑄字洞
		2,000	石田治部少輔	明禮坊洞
		1,200	大谷刑部少輔	墨寺洞
		2,000	前野但馬守	好賢坊洞
		1,000	加藤遠江守	長興庫洞
4番隊	15,550	3,000	淺野左京大夫	水閣洞
		1,000	宮部兵部少輔	
		1,500	南條左衛門尉	
		850	木下備中守	
		400	垣屋新五郞	
		800	齋村左兵衛	
		800	明石左近	
		500	別府豊後守	
		300	中村右衛門大夫	
		1,400	郡上侍從	
		800	服部采女正	
		400	一柳右近將監	
		300	竹中源介	
		450	谷出羽守	
		350	石川備後守	
3番隊	25,470	8,000	羽柴岐阜少將	
		3,500	丹後侍從	
		5,000	東鄕侍從	
		3,500	木村常陸介重茲	
		1,000	小野木縫殿助	
		700	牧野兵部大輔	
		500	岡本下野守	
		200	糟屋內膳	
		200	片桐東市正	
		200	片桐主膳正	
		300	高田豊後守	
		200	藤懸(掛)三河守	
		120	太田小源太	
		200	古田兵部少輔	
		300	新庄新三郞	
		250	早川主馬助	
		300	森兵部大輔	
		1,000	龜井武藏守	

兵力合計 60,220名

<附表 第38> 漢城駐留敵兵力一覽表(宣祖 26年 3月 20日 現在)

總兵力 53,000名餘

小西行長等	6,629	增田長盛	1,629
加藤淸正	5,492	石田三成	1,546
鍋島直茂	7,644	島津忠豐	293
黑田長政	5,269	小早川隆景, 同秀包, 吉川廣家等	9,552
大友吉統	2,052	立花統虎, 高橋統增	1,132
毛利吉成	1,425	筑紫廣門	327
高橋元種	288	宇喜多秀家	5,352
秋月種長	252	加藤光泰	1,400
伊東祐兵	597	前野長康	717
大谷吉繼	1,505		

<附表 第39> 敵의 水軍兵力區分一覽表(宣祖 25年 4月 9日)

紀伊水軍	4,500	2,000	藤堂高虎	粉河
		1,000	桑山一晴	和歌山
		850	堀內氏善	新宮
		650	杉谷氏宗	田邊
備前水軍	4,500	1,500	九鬼嘉隆	鳥羽
		1,500(?)	脇坂安治	洲本
		750	加藤嘉明	志知
總指揮官	宇喜多秀家 1,000			
三奉行	石田三成	2,000		
	大谷吉繼	1,200		
	增田長盛	1,000		
五奉行	加藤光泰	1,000		
	前野長康	2,000		

<附表 第40>

敵의 殘置兵力配置一覽表(甲午年 初頭 現在)

區分 本城 및 支城	守將	兵力	摘要
西生浦城	加藤淸正	6,000	
同支城	相良賴房	400	
	毛利吉成	1,000	
林浪浦城	伊東祐兵 高橋元種 島津忠豐 秋月種長	1,500	
機長城	黑田長政	2,000	
東萊城 釜山城 同支城	吉川廣家 毛利元康 穗田元淸	5,000	病故中 7月에 다시 渡海入寇. 毛利輝元은 前年 8月에 病故로 撤退
金海城 同支城	鍋島直茂	6,000	
加德島城	小早川秀包	1,000	小早川隆景은 前年 8月에 病故로 撤退
	立花統虎(宗茂)	1,000	
	高橋統增	300	
	筑紫廣門	500	
安骨浦城	脇坂安治	700	3月에 九鬼嘉隆과 兵力交代
熊川城	小西行長	4,000	
同支城	宗義智	2,500	
同	松浦鎭信	1,500	
	有馬晴信	1,000	
	大村喜前	700	
	五島純玄	400	7月 28日 病死後 五島玄雅가 交代守備
巨濟島城	島津義弘	6,000	子 忠恒이 10月에 入寇하여 같이 守備
同支城	戶田勝隆	1,000	
同	福島正則	1,000	正月 23日에 再入寇
兵力合計	4萬3千5百名(最大限算出量)		

<附表 第41> **敵의 殘置兵力配置一覽表(乙未年末 現在)**

本城及支城	守將	摘要
西生浦城	加藤清正	
同支城	相良賴房	
林浪浦城	毛利吉成 伊東祐兵 高橋元種 島津忠豊 秋月種長	
機長城	黑田長政	
釜山城	毛利元康	東萊城의 吉川廣家撤退(10月)
同支城	穗田元清	
金海城	鍋島勝茂	父 直茂와 交代(10月 28日)
加德島城	小早川秀包 筑紫廣門	立花宗茂 高橋統增 撤退(9月)
安骨浦城	九鬼嘉隆	
熊川城	小西行長	
同支城	宗義智	東萊城으로 移陣(7月)
同上	松浦鎭信 有馬晴信 大村喜前 五島玄雅	
巨濟島城	島津忠恒	
同支城	戶田勝隆	
同上	福島正則	
兵力合計	約 3萬 8千名	

<附表 第42> **敵 城寨及守將一覽表(對陣作戰中 計劃한 것)**

本城及支城區分	守將의 姓名	位置
西生浦城	加藤清正	
同支城	同兵 及 相良賴房	未詳
林浪浦城	毛利吉成 伊東祐兵 高橋元種 島津忠豊 秋月種長	
機長城	黑田長政父子	豆毛浦
東萊城	吉川廣家	
釜山城	毛利元康 穗田元清	釜山鎭
同支城	同兵	現龍尾山
金海城	鍋島直茂(鍋島勝茂)	竹島
同支城	同上	龜浦
加德島城	小早川隆景	
同支城	立花宗茂 小早川秀包 高橋統增 筑紫廣門	
安骨浦城	脇坂安治 九鬼嘉隆 加藤嘉明(3名 1年交替)	
熊川城	小西行長	南山
同支城	宗義智	笠巖(地點未詳)
同支城	松浦鎭信 有馬晴信 大村喜前 五島純玄(玄雅)	未詳
巨濟島 1城	島津義弘(島津忠恒)	永登浦(舊)
同 1城	戶田勝隆 福島正則 長曾我部元親(3名 1年交代)	長門浦의 甑峰
同 1城	蜂須賀家政 生駒親正	同 倭城
計 本城 12, 支城 6		

<附表 第43>

丁酉再侵初期敵城寨及守將一覽表

守城	守將의 姓名
西生浦城	加藤清正 淺野長慶
釜山城	小早川秀秋 宇喜多秀家 毛利秀元
加德城	島津義弘 高橋統增 筑紫廣門
安骨浦城	毛利吉城 伊東祐兵 島津忠豐 高橋元種 秋月種長 相良賴房
竹島城	鍋島直茂父子
熊川城	小西行長 宗義智 加藤嘉明 脇坂安治 藤堂高虎

<附表 第44—1>

丁酉再侵軍隊區分表

區分	總兵力	差出兵力	指揮官姓名
1番隊	10,000	10,000	加藤 主計頭 清正
2番隊	14,700	7,000	小西 攝津守 行長
		1,000	宗 侍從 義智
		3,000	松浦 刑部卿法印 鎭信
		2,000	有馬 修理大夫 晴信
		1,000	大村 新八郎 喜前
		700	五島 淡路守 玄雅
3番隊	10,000	5,000	黑田 甲斐守 長政
		800	島津 又七郎 忠豐
		2,000	毛利 壹岐守 吉成
			同 豐前守 勝永
		600	高橋 九郎 元種
		300	秋月 三郎 種長
		500	伊東 民部大輔 祐兵
		800	相良 宮內大輔 賴房
4番隊	12,000	12,000	鍋島 加賀守 直茂
			同 信濃守 勝茂
5番隊	10,000	10,000	島津 侍從 義弘
6番隊	13,300	3,000	長曾我部 侍從 元親
		2,800	藤堂 佐渡守 高虎
		2,800	池田 伊豫守 秀氏
		2,400	加藤 佐馬助 嘉明
		600	來島 出雲守 通總
		1,500	中川 修理大夫 秀成
		200	菅平 右衛門 達長
7番隊	11,100	7,200	蜂須賀 阿波守 家政
		2,700	生駒 讃岐守 一正
		1,200	脇坂 中務少輔 安治
8番隊	40,000	30,000	毛利 參議 秀元
		10,000	宇喜多 中納言 秀家
備考	(1) 1番隊와 2番隊는 抽籤으로써 2日交代로 先鋒이 됨. (2) 8番隊의 毛利와 宇喜多의 兩隊는 更番하여 本隊가 됨. (3) 陸上總兵力 121,100名.		

<附表 第44—2>　　條條(30年 2月 21日)　<毛利秀元記卷之三參照>

一，先手働之儀 加藤主計頭，小西攝津守，以鬮取上二日 替たるべし 但非番は二番目に可相備事.

一，三番目，黑田甲斐守，毛利壹岐守，島津又七郞，高橋九郞，秋月三郞，伊藤民部大輔，相良宮大輔 可相備事.

一，四番，鍋島加賀守，同信濃守.

一，五番，羽柴薩摩侍從.

一，六番，羽柴土佐侍從，藤堂佐渡守，池田伊豫守，加藤左馬助，來島出雲守，中川修理大夫，菅平右衛門.

一，七番，蜂須賀阿波守，生駒讃岐守，脇坂中務少務.

一，八番，安藝宰相，備前中納言 此兩人胴勢可爲替替事.

一，釜山浦城，筑前中納言御目付太田小源吾在番り仕 先手の注進無油斷可仕事.

一，あくがうらいの城，羽柴柳川侍從在番.

一，かとくの城 高橋主膳，筑紫上野介在番.

一，竹島の城，羽柴久留米侍從在番.

一，西生浦城，淺野京左大夫在番.

一，先手の衆爲御目付 毛利豐後守，竹中源介，垣見和泉守，毛利民部大輔，早川主馬頭，熊谷内藏丞，此六人被仰付候條 任誓旨 惣樣働等之儀 日記相付候て善惡共に見隱し 聞隱さず 日日可令注進事.

一，諸事高麗にての樣體 七人より注進申上ぐる儀正意にさせらるべき旨 被仰聞候間 存其旨 縱雖爲緣者親類智(知？)音 贔屓偏頗なく 有樣に可注進事.

一，先手働之儀 各以相談の上 多分に付 可隨其儀拔駈に一人二人として 申破候者 可爲曲事事.

一，於何方も 可爲野陣事.

一，赤國不殘悉く一篇に 敗北申すに付 靑國其外の儀は 可成程可相働事.

一，舟手の働入候時は 藤堂佐渡守，加藤左馬助，脇坂中務少輔 兩三人申次第 四國衆菅平右衛門 并諸手の警固舟共 可相働事.

一，右働相濟む上を以て 仕置の城城所柄の儀各見及び 多分に付きて城主を定め 則ち普請等之儀 爲歸朝衆 令割符 丈夫に可申付事.

一，右七人の者共にも 七枚起請書かせられ 諸事有樣の體 可申上旨被仰付候條 忠功の者には 可被加御褒美候 自然背御法渡族有之者 右七人申次第 不寄誰誰 八幡大菩薩 可被加御成敗候條 得其意 不可有油斷事.

一，自然大明國の者共 朝鮮國の都より 五日路も六日路も 大軍にて 罷出於陣取者 各令談合 無用捨可令注進候 御馬廻迄にて 一騎懸に被成御渡海 即時に討果 大明國迄 可被仰付候事 案の中に候條 於油斷者 可爲越度事 以上.

慶長 二年 二月 廿一日

御　　朱　　印

羽柴安藝宰相どのへ

<附表 第 45>　**敵의 守備兵力一覽表(丁酉再侵時)**

城	兵　力	指　揮　官
釜　山	10,000 390	小早川中納言秀秋 太田飛驒守一吉(軍監)
安骨浦	5,000	立花侍從統虎
加德島	500 500	高橋主膳正統增 筑紫上野介廣門
竹　島 西生浦	1,000 3,000	小早川侍從秀包 淺野左京大夫長慶
備　考	總計 20,390名(侵略軍守備軍合計 141,490名)	

<附表 第46>

敵의 築城擔當區分一覽表(稷山戰鬪後)<宣祖 30年 10月以後>

城　名	擔當者姓名	備　考
固　城	吉川廣家桂元綱등	
南海城	脇坂安治	
昌原城	鍋島 直茂　同 勝茂	
倭橋城	宇喜多秀家　藤堂高虎	日本軍은 順天城이라 稱함
梁山城	小早川秀秋　毛利秀元	
蔚山城	淺野長慶　太田一吉　宍戶元續	宍戶는 毛利의 部將임
泗川城	長曾我部元親　伊東祐兵　中川秀成　池田秀氏　垣見一直　島津忠豐　高橋元種　秋月種長　毛利吉成 父子等	

摘　要： (1) 以上은 새로이 地를 相하여 倭式 築城을 新築하는 것임.

(2) 築城 完了後의 守備豫定은 下記와 같음.

蔚山城——加藤淸正　　梁山城——黑田長政
昌原城——鍋島의 兵力　　泗川城——島津義弘 同 忠恒 父子
倭橋城——小西行長　　南海城——宗義智
固城城——毛利吉成

<附表 第 47> 敵諸城配備一覽表(宣祖 31年 5月 22日 以後)

城 別	兵 力	守將의 姓名
蔚山城	10,000	加藤清正
西生浦城	5,000	黑田長政
釜山本城	5,000	毛利吉成等(島津忠豐 相良賴房 伊東祐兵 高橋元種 秋月種長)
同丸山城	1,000	寺澤正成
竹島城 昌原城	12,000	鍋島直茂, 勝茂
見乃梁城	?	柳川調信(宗의 部將)
固城	7,000	立花統虎等(小早川秀包 高橋統増 筑紫廣門)
泗川城	10,000	島津義弘
南海城	1,000	宗 義智
順天城(倭橋)	13,700	小西行長等(松浦鎭信 有馬晴信 大村喜前 五島玄雅)
兵力總計	64,700	

<附表 第 48> 敵의 行軍部隊 戰鬪序列(碧蹄館戰鬪前)

先鋒 小早川隆景 指揮 兵力合計 20,000		
第 1 隊	3,000	立花統虎(後의 宗茂), 高橋統増(後의 直正)
第 2 隊	8,000	小早川隆景
第 3 隊	5,000	小早川秀包 毛利元康 筑紫廣門等
第 4 隊	4,000	吉川廣家
本隊 宇喜多秀家 指揮 兵力合計 21,000		
第 5 隊	5,000	黑田長政
第 6 隊	5,000	石田三成 増田長盛 大谷吉繼
第 7 隊	3,000	加藤光泰 前野長康
第 8 隊	8,000	宇喜多秀家
漢城留守——小西行長 大友吉統등 平壤戰의 敗將		

<附表 第49~1> 敵軍晋州攻城軍隊區分表(第2次)(26年 自 6月 19日 至 同 29日)

隊區分	總兵力	差出兵力	指揮官姓名
第1隊	25,624	6,790	加藤淸正
			相良賴房
		5,082	黑田長政
		7,642	鍋島直茂
		1,671	毛利吉成
		2,128	島津義弘
		741	高橋元種
		388	秋月種長
		476	島津忠豐
		706	伊東祐兵
第2隊	26,182	7,415	小西行長
			宗 義智
			松浦鎭信
			大村喜前
			五島純玄
			有馬晴信
		2,470	長谷川秀一
		2,296	長岡忠興
		4,400	昌原11人部隊(姓名未詳)
		4,000	淺野長吉
			同 長慶
		4,018	故羽柴秀勝의兵
		1,258	伊達政宗
		325	黑田如水

隊區分	總兵力	差出兵力	指揮官姓名
第3隊	18,822	7,785	宇喜多秀家
		1,646	石田三成
		1,535	大谷吉繼
		1,823	木村重玆
			太田伴助
			山田藤藏
		638	稻葉貞通
		363	明石則實
		370	齋村廣英
		313	別所吉治
		406	一柳可遊
		246	竹中重利
		693	服部一忠
		340	谷 衛友
		298	宮部長熙
		201	恒屋恒總
		450	木下重賢
		803	南條元淸(元續의弟)
第4隊	13,600		毛利秀元
第5隊	8,744	6,596	小早川隆景
		400	小早川秀包
		1,133	立花統虎
		288	高橋統增
		327	筑紫廣門
合計	92,972		

<附表 第49~2>

敵軍諸城守備隊一覽表
(第2次 晋州城攻擊時)

城區分	總兵力	擔當兵力	指揮官姓名	摘要
釜山	6,990	3,000	毛利 輝元	糧食管掌 東萊城守備가 必要할때責任을지게됨
		1,624	增田 長盛	
		922	前野 長康	
		1,097	加藤 光泰	
		347	早川 長政	
金海	520	520	毛利 重政	이 2 城에增援이必要하면釜山에서派遣키로 함
機張	1,336	1,336	龜井 眞矩	
巨濟長門浦(甑峰)	6,950	4,500	蜂須賀家政	
		2,450	生駒親正	
同上(倭城)	7,430	2,590	長曾我部元親	
		2,500	福島 正則	
		2,340	戶田 勝隆	

<附表 第49~3>

敵水軍兵力一覽表
(第2次 晋州城攻擊時)

指揮官姓名	保有兵力	總兵力
九嘉 嘉隆	834	2,724
加藤 嘉明	314	
菅 達長	106	
故來島通總	570(殘兵)	
脇坂 安治	900	
藤堂 高虎	1,473	2,736
堀內 氏善	574	
杉谷 氏宗	185	
桑田 一晴	504	
同 貞晴		

備考 : (1) 水軍은 加德島에 位置하고 巨濟島의 四國地方兵力과 協同하여 敵의 水軍에 對備케 함
(2) 來島通總은 海戰에서 戰死하였고 그 殘兵을 部將(姓名未詳)이 指揮한 것으로 推想함

<附表 第50-1> 敵進攻部隊의 軍隊區分

(南原攻擊前)〔宣祖30年 7月中旬〕

區分	指揮官	兵力	備考
右軍	計 64,300名		
	加 藤 淸 正	10,000	
	黑 田 長 政	5,000	
	鍋島直茂, 勝茂	12,000	
	池 田 秀 氏	2,800	
	中 川 秀 成	2,500	
	長曾我部元親	3,000	
大將	毛 利 秀 元	30,000	
	軍監——早川長政 垣見一直 熊谷直盛		
左軍	計 49,600名		
	小 西 行 長	7,000	
	宗 義 智	1,000	
	松 浦 鎭 信	3,000	
	有 馬 晴 信	2,000	
	大 村 喜 前	1,000	
	五 島 玄 雅	700	
	蜂 須 賀 家 政	7,200	
	毛利吉成, 勝永	2,000	
	生 駒 一 正	2,700	
	島 津 義 弘	10,000	
	島 津 忠 豐	800	
	秋 月 種 長	300	
	高 橋 元 種	600	
	伊 東 祐 兵	500	
	相 良 賴 房	800	
大將	宇 喜 多 秀 家	10,000	
	軍監——太田一吉 竹中重利		
水軍	計 7,200名		
	藤 堂 高 虎	2,800	
	加 藤 嘉 明	2,400	
	脇 坂 安 治	1,200	
	來 島 通 總	600	
	菅 平 達 長	200	
諸城守備隊	計 20,000名		
	淺 野 長 慶	3,000	(西生浦城)
	小 早 川 秀 秋	10,000	(釜 山 城)
	立 花 統 虎	5,000	(安骨浦城)
	小 早 川 秀 包	1,000	(竹 島 城)
	筑 紫 廣 門	500	(加 德 城)
	高 橋 統 增	500	

<附表 第50-2> 敵軍戰鬪序列

(南原城 攻擊時)

區分 攻擊正面	總兵力	差出兵力	指揮官
城 東	14,900	7,200	蜂須賀家政
		2,700	生 駒 一 正
		2,000	毛利吉成父子
		800	島 津 忠 豐
		300	秋 月 種 長
		600	高 橋 元 種
		500	伊 東 祐 兵
		800	相 良 賴 房
城 西	15,900	7,000	小 西 行 長
		1,000	宗 義 智
		3,000	松 浦 鎭 信
		2,000	有 馬 晴 信
		1,000	大 村 喜 前
		700	五 島 玄 雅
城 南	12,800	1,200	脇 坂 安 治
			軍監竹中重利
		10,000	宇喜多秀家
		2,800	藤 堂 高 虎
			軍監太田一吉
城 北	13,200	10,000	島 津 義 弘
		2,400	加 藤 嘉 明
		600	來 島 通 總
		200	菅 達 長
摘 要	總合計兵力 56,800名		

<附表 第51-1>

蔚山城防禦部署一覽表

(宣祖 30年 12月 23日)

區分	指揮官
本陣(本丸)	
東 側	太田一吉
南 側	淺野長慶
西 側	加藤安政
第 2 陣(二之丸)	加藤淸正, 毛利兵, 宍戸元續 桂孫六
第 3 陣(三之丸)	加藤與左衛門, 近藤四郎右衛門, 口羽元良, 和知元盛, 日野元重, 吉見廣行
第2, 第3陣中間	美濃部金大夫, 九鬼廣隆

<附表 第 51-2>

蔚山城赴援軍部署一覽表
(宣祖31年 1月 2日)

隊別	兵	力	主　　將
1番隊	4,550	1,600	鍋島直茂, 勝茂
		150	毛利吉成 同　勝永 秋月種長 高橋元種 伊東祐兵 相良賴房
		2,200	蜂須賀家政
		600	黑田長政
2番隊	3,770	70	加藤嘉明
		50	中川秀成
		500	生駒一正
		150	脇坂安治
		3,000	山口宗永
3番隊	3,900	?	池田秀雄, 早川長政,
		?	谷直盛, 毛利秀元
水軍		?	長曾我部元親, 池田秀氏, 加藤淸正의 兵力
兵力總計	約 13,000		

<附表 第 51-3>

蔚山城戰鬪後의 各城 守備兵力表

區分 / 城	兵力	守備指揮官	備　　考
蔚　　山	10,000	加藤淸正	1. 釜山城에는 毛利秀元, 小早川秀秋의 兵 2,000이 屬하다 2. 柳川調信은 宗義智의 部將임 3. 兵力合計 66,000餘
西 生 浦	5,000	毛利吉成, 伊東祐兵, 島津忠豊, 相良賴房, 高橋元種 秋月種長	
釜　　山	3,000	寺澤正成	
加 德 島	5,000	黑田長政	
竹島 昌原	12,000	鍋島勝茂	
見 乃 梁 (巨濟島)	?	柳川調信	
固　　城	7,000	立花統虎, 小早川秀包, 高橋統增, 筑紫廣門	
泗　　川	10,000	島津義弘	
南　　海	1,000	宗義智	
倭　　橋	13,000	小西行長, 松浦鎭信, 有馬晴信, 大村喜前, 五島玄雅	

<附表 第 52-1>

立花及高橋兩隊軍役表

兵種 / 區分		戰 鬪 員	非戰鬪員
將士	騎　　士	150	馬　　卒　300
	步　　士	150	挾 箱 持　150
	計	300	450
兵卒	鐵 砲 足 輕	200	小　　者　200
	弓　足　輕	100	小　　者　100
	槍　足　輕	500	
	昇　足　輕	100	
	徒差物足輕	200	小　　者　200
	計	1,100	500
輸　　卒			豫備輸卒　650
合　　計		1,400	1,600
		3,000	
備考	1, 本表는 宣祖24年에 秀吉이 出征部隊를 編成하는 標準으로 下令한 것을 一例로 例示한 것임. 2, 立花統虎와 高橋統增은 兄弟間이며 立花는 祿額이 8萬石이고 高橋는 2萬石 合計 10萬石임. 3, 이 標準으로 立花는 2,400名, 高橋는 600名을 軍役에 差出하였을 것임.		

<附表 第 52-2>

毛利家侵略軍役表

隊　　長	附屬將士	石　　數	人　　員
宍戶備前守元續	22家	59,432石	2,935名
毛利大藏大輔元康	11	66,212	3,311
天野讚岐守元政	12	55,825	2,790
益田玄蕃頭元祥	31	60,874	3,056
福原式部少輔廣俊	84	65,651	3,389
椙杜下野守元緣	78	13,149	679
三輪加賀守	60	5,039	164
吉川侍從廣家		70,000	3,500
計		396,186	19,824

註 1. 石數 百石에 5名의 軍役이고 20石 未滿은 除去함.
2. 人員은 非戰鬪員을 包含함.
3. 毛利氏의 隊는 本表外에 直屬部隊 及 水軍合計 萬餘名을 保有함

<附表 第52-3>

蜂須賀家侵略軍役表(宣祖 30年)

石 數 別	昇	鐵砲	鑓	兜	小指物	人員	家數
7,000	8	30	20	7	30	98	× 1倍
5,000	6	15	20	5	20	66	× 3
4,000	5	12	16	4	15	52	× 1
3,500	4	12	13	3	13	45	× 1
2,800	3	10	10	2	10	35	× 1
2,500	3	9	10	2	10	34	× 2
2,000	2	8	8	1	8	27	× 2
1,500	2	6	7	1	6	22	× 5
600		2	3	1	1	7	× 4
500		1	3	1	1	6	×17
400		1	2	1	1	5	×14
300		1	1	1	1	4	×16
200			1	1	1	3	×30
合 計	80	315	438	160	363	1,359	
備 考	1, 本表는 戰鬪員의 課賦만을 記하고 非戰鬪員을 包含치 아니함. 2, 本表外에 直屬部隊가 있었다고 함.						

<附表 第53-4>

五島純玄隊 編制一覽表

區	分	人員	馬匹	備 考
將士	侍 大 將	1	1	1, 軍奉行은 參謀, 用人은 經理, 大目付는 憲兵, 祐筆은 書記임.
	奉行(軍旗, 弓, 鐵砲, 長柄)	5	5	2, 五島氏는 1萬5千石의 祿中에서 留守를 除하고 1萬石의 兵賦임.
	使 番	3	3	
	用 人, 大 目 付	2	2	
	騎 士	11	11	
	醫 師, 祐 筆, 僧 侶	5	5	
	步 武 者	40		
	計	67	27	
兵卒	鐵 砲 足 輕			
	弓 足 輕			
	長 柄 足 輕	120		
	旗 手			
	計	120		
雜卒	小 人	38		小人은 從卒
	下 夫	280		下夫는 輸卒임
	船 頭 水 主	200		
合 計		705	27	

<附表 第52-5> 立花統虎隊編制表(宣祖 30年)

區分 \ 階級	將		士	兵			卒	雜 卒	計
	主 將	隊 長	騎 士	旗 手	銃 卒	弓 卒	槍 卒	徒步者	
馬廻旗本	1	4	84	36	114	37	209	339	824
1 番 組		2	25	13	80	14	118	225	477
2 番 組		1	40	12	68	16	155	300	592
3 番 組		1	92	5	41	13	83	195	367
4 番 組		2	23	6	47	11	75	183	347
計	1	10	201	72	350	91	640	1,242	2,607
	212			1,153					

備 考
1, 主將은 統虎, 馬廻隊長은 小姓頭, 鐵砲大將, 昇大將, 母衣(호로)大將임.
2, 1番組 大將은 立花三左衛門, 2番組는 小野和泉守, 3番組는 由布長三郎, 4番組는 吉弘賀兵衛임.
3, 徒步者는 鳥卒, 從卒, 擔槍卒, 輸卒의 總稱이고 非戰鬪員이며 全人員의 47.6%임.

<附表 第 53> 敵軍諸城의 兵器彈藥保管量表

城	別	加德島 및 金海	巨 濟 島	東萊 및 釜山
鐵砲	大 筒	1	1	1
	50 匁筒	10	10	15
	30 匁筒	10	5	16
	20 匁筒	10	5	26
	13 匁筒	4	2	6
	6 匁 筒	10	10	26
	2 匁半筒	150	72	160
彈藥	煙硝(斤)	450	400	650
	彈 丸	4,500	4,000	未 詳
	硫黃(斤)	45	40	
	藥 (〃)	800	400	
	鉛 (〃)	450	400	
武器	矢	6,000	2,000	未 詳
	槍	200	100	
	刀	450	400	
	弓	300	100	
甲 衣		17	15	未 詳
兜		10	7	未 詳
守備人員		5,000	2,000	釜山 5,000 東萊 3,000 海岸 1,000

備 考
1, 西生浦, 熊川 等 大城은 加德, 金海와 類似하고 其他는 巨濟島와 類似함.
2, 本表는 宣祖 26年 7月 秀吉의 命令에 依한 量임.

<附表 第 54>

明朝世系表

<附表 第 55>

足利氏世系表

附　圖

附圖 第 1
彼我兩軍狀況要圖
宣祖二十五年 (自四月中旬 至十二月末)
鄭文孚
加藤清正
相良賴房
長德山
別害堡
成允文
7月17日
所波温城
鍋島直茂
金命元
李元翼
祖承訓
南復興
5月15日
小西行長
大友義統
黑田長政
李廷馣
禹成傳
老里峴
加藤清正
高山驛
沈岱
島津義弘
宇喜多秀家
5月2日
5月2日
初期에 戶田勝隆 後에 小早川隆景 吉川廣家 交代
金千鎰 (後에 權慄)
中川秀政
福島正則
沙平院
龍津渡
楊根
原州
陰竹
毛利吉成
蜂須賀家政
禮安
4月28日
生駒近正
長宗我部元親
河豐津
4月25日
權慄
小早川隆景(後에 開城으로 轉進)
鄭仁弘
金沔
郭再祐
崔慶會
金時敏
茂溪津
稻葉貞通 (後에 戶田勝隆)
毛利輝元
4月25日
鵲院
黃山驛
蘇山
4月21日
羽柴秀勝
左兵營
左水營
竹島海口
多大浦
長谷川秀一
4月18日
4月13日
凡例
一番組 小西行長의 前進路
二番組 加藤清正의 前進路
三番組 黑田長政의 前進路
森吉成의 前進路
島津義弘의 前進路
明軍主力部隊 前進路
我軍部隊 駐屯地
明軍部隊 駐屯地
日本軍部隊 駐屯地

附圖 第 2

明軍管區境界一覽圖

遼東
左軍都督府
朝鮮
黃海
山東
中軍都督府
南京(南直隷)
親軍都督府
浙江
江
福建
東海
琉球
臺灣
後軍都督府
山西都司
大寧都司
萬全都司
山西行都司
109衛
32所
646,240名
前軍都督府
湖廣都司
福建都司
江西都司
廣東都司
湖廣行都司
福建行都司
興都留守使司
77衛
124所
578,000名
中軍都督府
中都留守司
河南都司
50衛
26所
309,120名
右軍都督府
陝西都司
四川都司
廣西都司
雲南都司
貴州都司
陝西行都司
四川行都司
111衛
94所
726,880名
左軍都督府
浙江都司
遼東都司
山東都司
66衛
71所
449,120名
413衛
347所
2,701,440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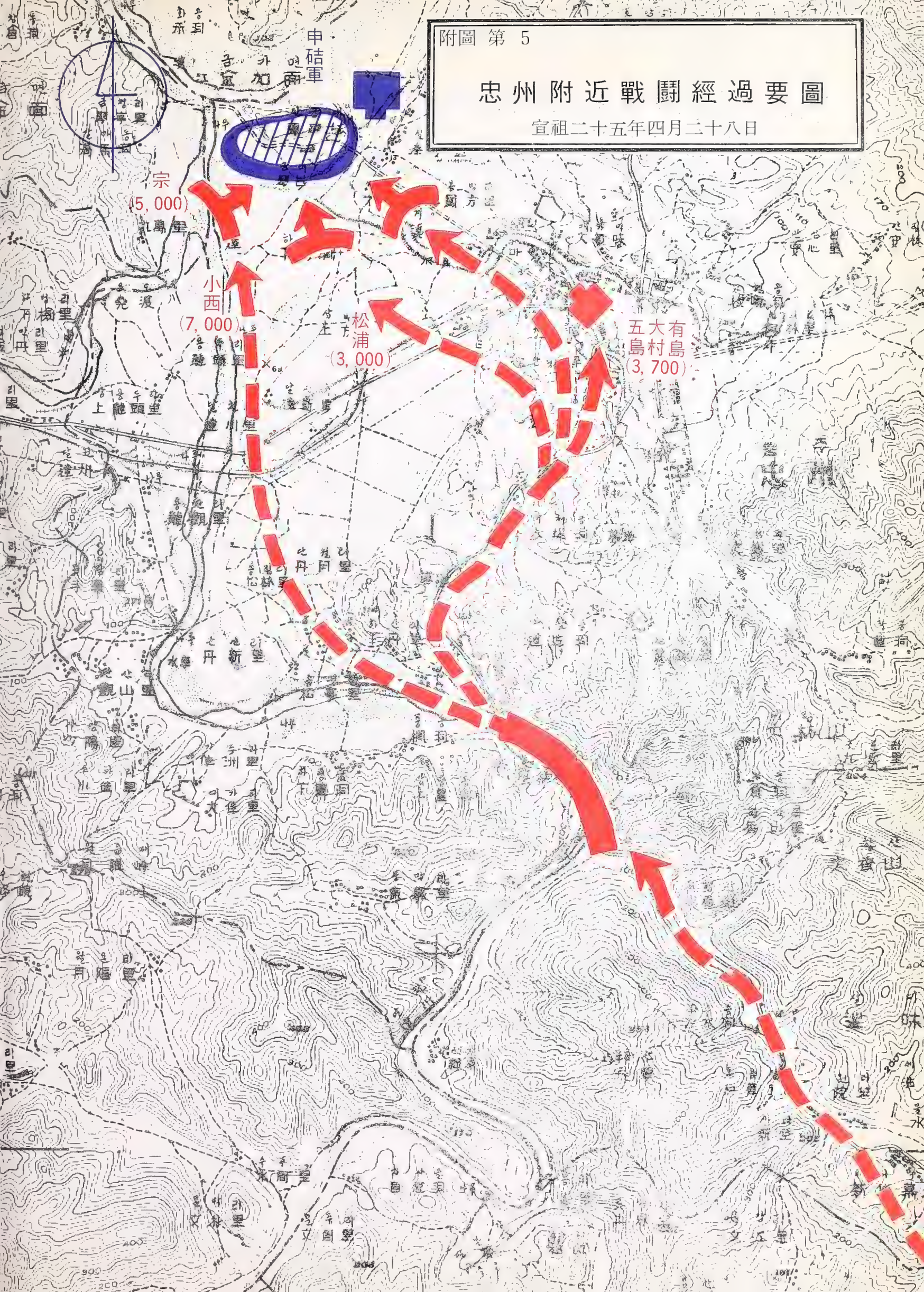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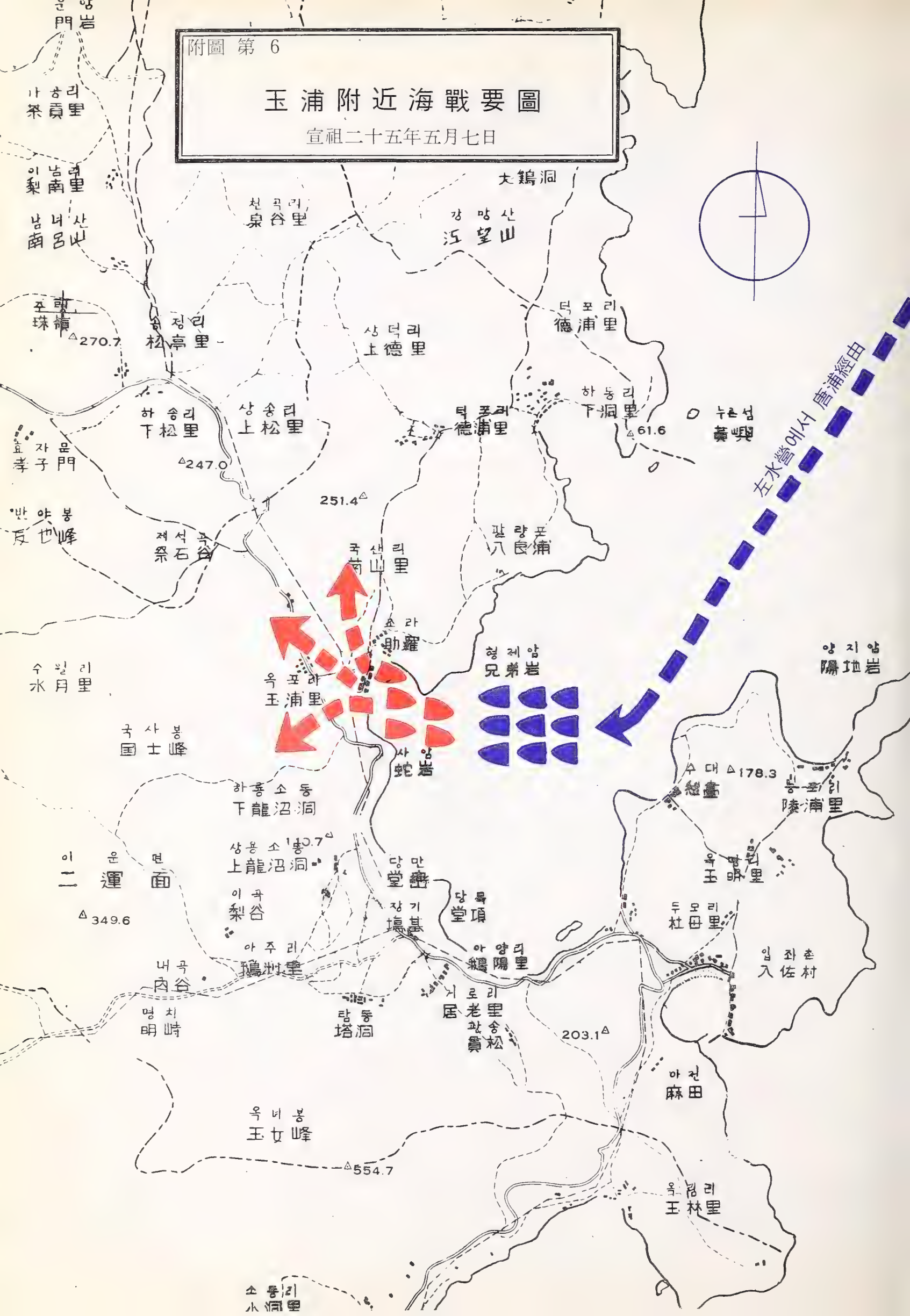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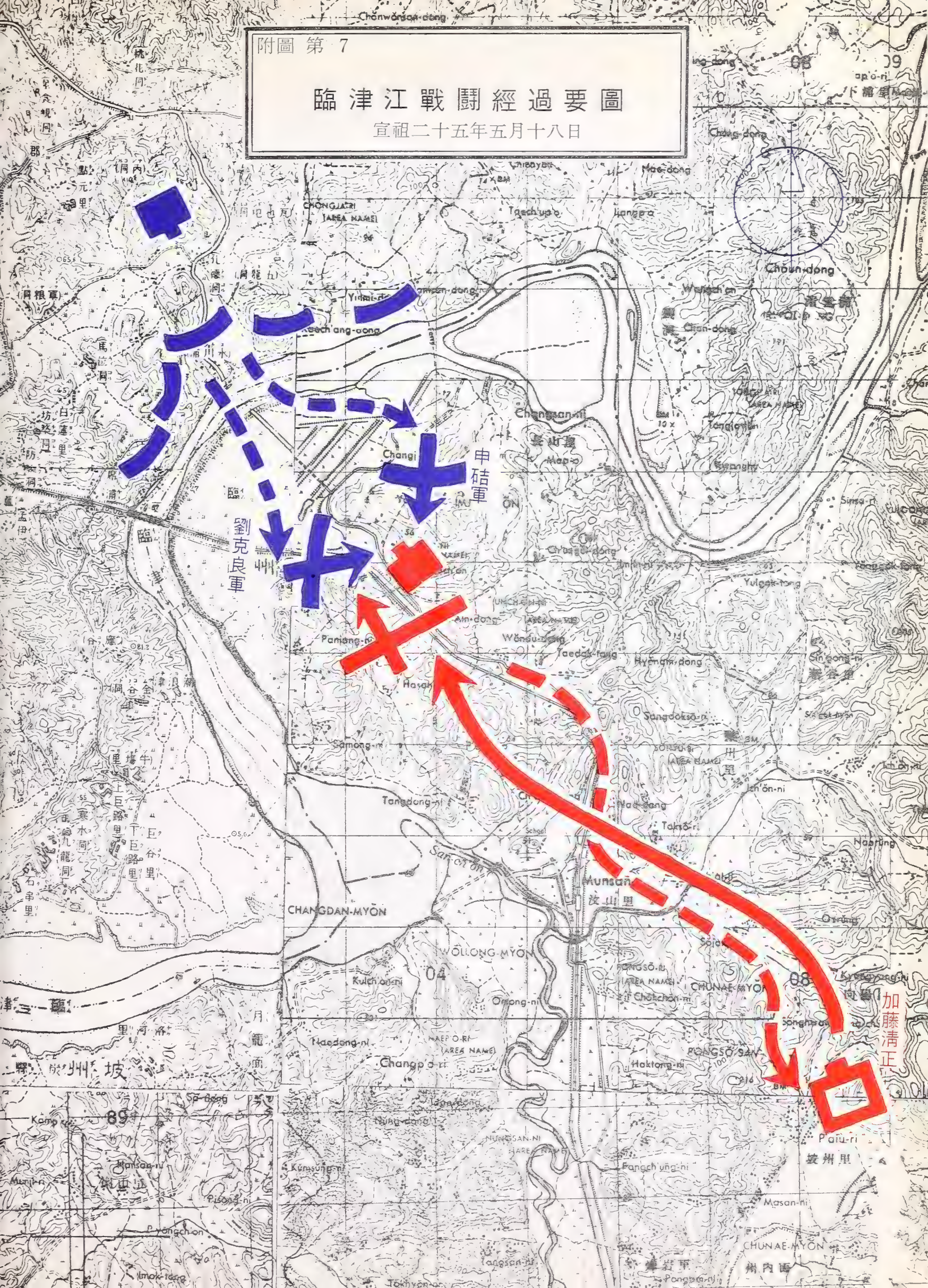
附圖 第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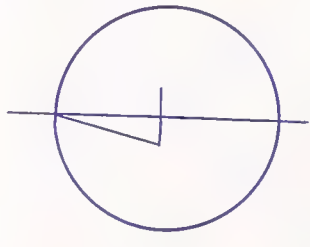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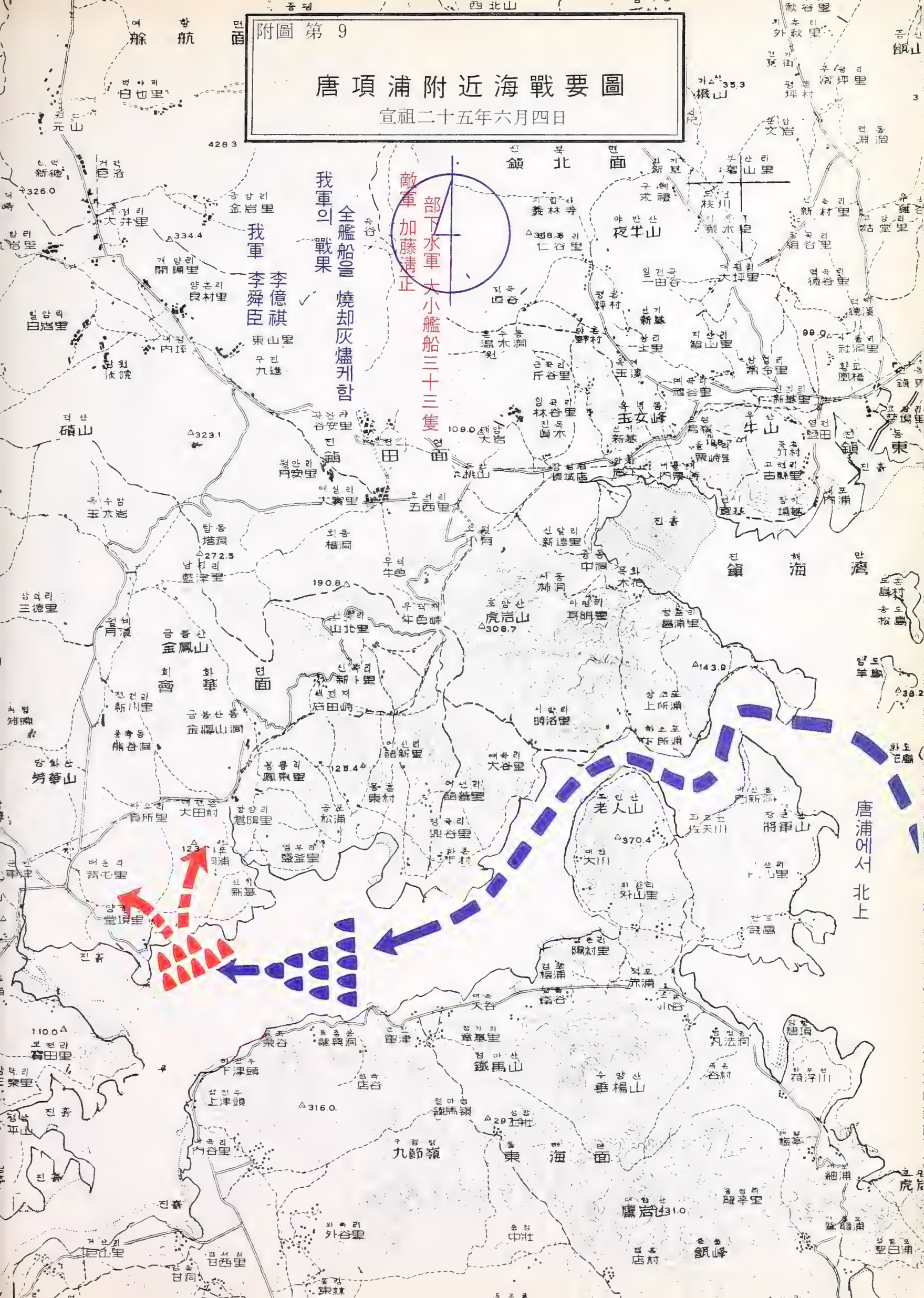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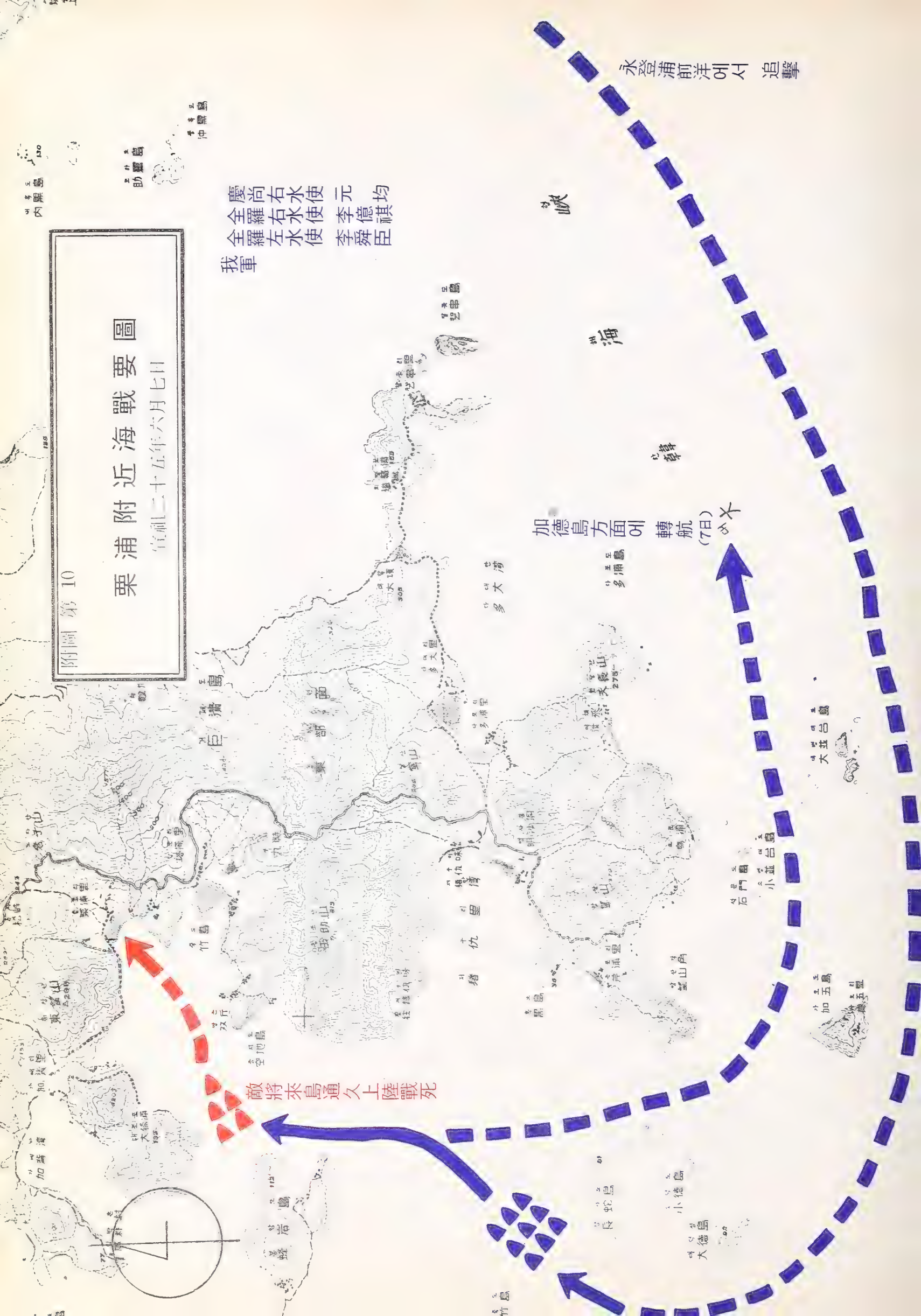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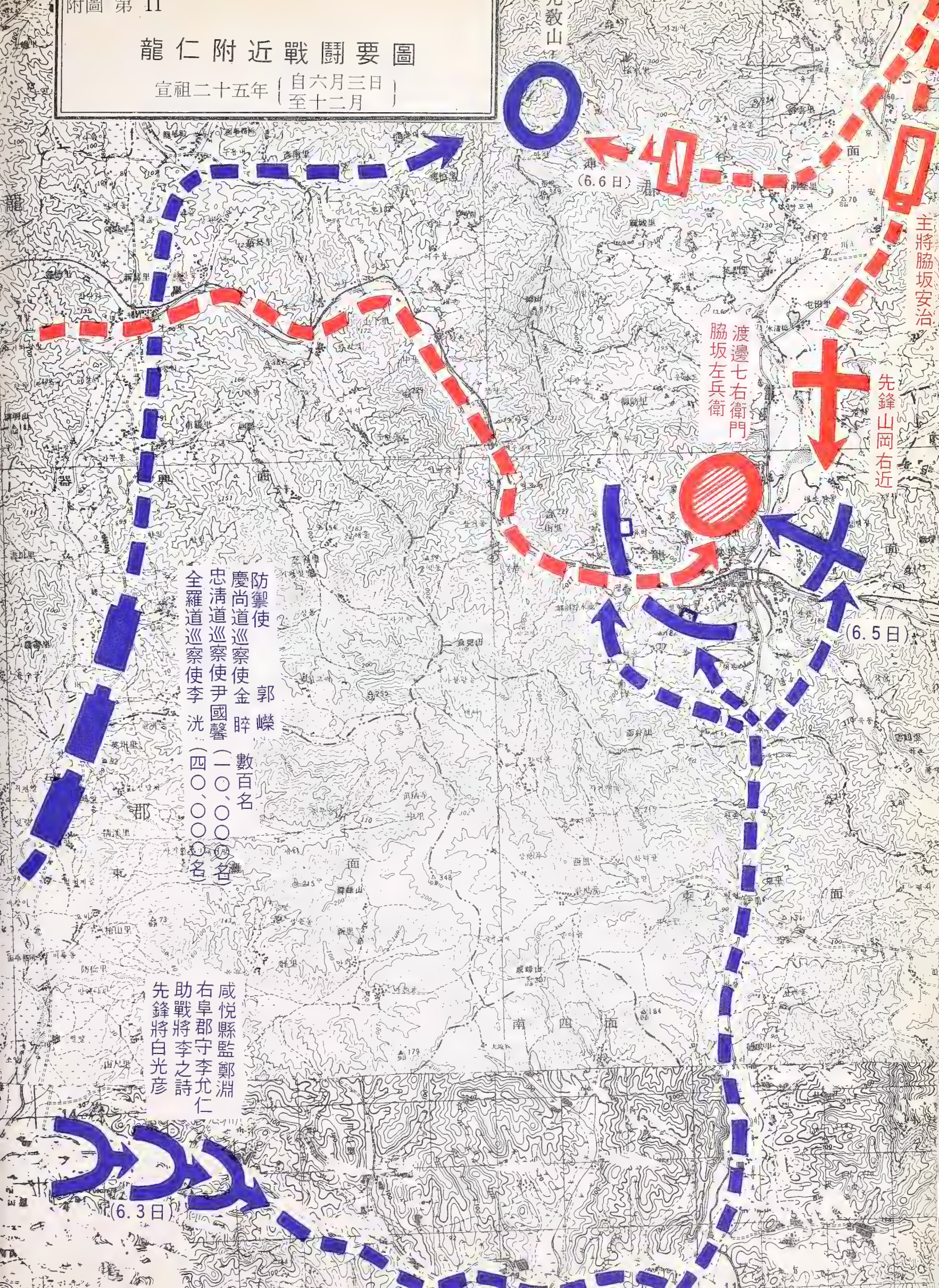
侵略諸將의國內割據狀況要圖

番號	姓名	居城	擔當兵力(祿高石)	年齡
一	小西攝津守 行長	肥後宇土	(二四〇,〇〇〇石) 七,〇〇〇	
二	松浦刑部卿法印鎭信	肥前平戶	(六三,〇〇〇石) 三,〇〇〇	
三	有馬修理大夫晴信	同島原	(四〇,〇〇〇石) 二,〇〇〇	
四	大村新八郞喜前	同大村	(二五,〇〇〇石) 一,〇〇〇	
五	五島大和守純玄	同福江	(一四,〇〇〇石) 七〇〇	
六	加藤主計頭淸正	肥後熊本	(二五〇,〇〇〇石) 一〇,〇〇〇	三十二歲
七	鍋島加賀守直茂	肥前佐賀	(三五,〇〇〇石) 一二,〇〇〇	五十七才
八	相良宮內大輔賴房	肥後人吉	(一八,〇〇〇石) 八〇〇	
九	黑田甲斐守長政	豊前中津	(一二〇,〇〇〇石) 五,〇〇〇	二十四歲
一〇	大友侍從吉統	豊後府內	六,〇〇〇	三十五歲
一一	毛利壹岐守吉成	豊前小倉	二,〇〇〇	
一二	島津侍從義弘	大隅栗野	(六〇〇·〇〇〇石) 一〇,〇〇〇	
一三	高橋九郞元種	日向縣	(五〇,〇〇〇石) 五〇〇	
一四	秋月三郞種長	同財部	(三〇,〇〇〇石) 五〇〇	
一五	伊東民部大輔祐兵	同飫肥	(五七,〇〇〇石) 五〇〇	
一六	福島左衛門大夫正則	伊豫國府	四,八〇〇	三十二歲
一七	戶田民部少輔勝隆	同板島	三,九〇〇	
一八	長宗我部侍從元親	土佐岡豊	(二二二,〇〇〇石) 三,〇〇〇	五十五歲
一九	來島出雲守通總	伊豫來島	(一四,〇〇〇石) 七〇〇	
二〇	蜂須賀阿波守家政	阿波德島	(一七七,〇〇〇石) 七,二〇〇	三十五歲
二一	生駒雅樂頭親正	讃岐高松	(一五〇,〇〇〇石) 五,五〇〇	六十五歲
二二	小早川侍從隆景	筑前名島	(五九〇,〇〇〇石) 一〇,〇〇〇	六十歲
二三	小早川侍從秀包	筑後久留米	(一三,〇〇〇石) 一,五〇〇	二十七歲
二四	立花侍從統虎(後의 宗茂)	同柳川	(一三〇,〇〇〇石) 二,五〇〇	二十六歲
二五	高橋主膳正統增(後의 直次)	同三池	八〇〇	
二六	筑紫上野介廣門	同福島	(一八,〇〇〇石) 九〇〇	
二七	毛利參議輝元	安藝廣島	(一,四二〇,〇〇〇石) 三〇,〇〇〇	四十歲
二八	宇喜多參議秀家	備前岡山	(六一〇,〇〇〇石) 一〇,〇〇〇	二十一歲
二九	南條伯耆守元續	伯耆羽衣石	一,六〇〇	
三〇	宮部兵部少輔長熙	因幡鳥取	(五〇,〇〇〇石) 二,〇〇〇	
三一	木下備中守重賢	同若櫻	(二〇,〇〇〇石) 八五〇	
三二	垣屋隱岐守恒總	同浦住	四〇〇	
三三	前野但馬守長康	但馬出石	二,〇〇〇	
三四	齋村左兵衛尉廣英	同竹田	(二二,〇〇〇石) 八〇〇	
三五	明石左近允則實	同城崎	八〇〇	
三六	別所豊後守吉治	同八木	(一五,〇〇〇石) 五〇〇	
三七	長岡少將忠興(後의 細川)	丹後宮津	(二三〇,〇〇〇石) 三,五〇〇	二十九歲
三八	木下侍從勝俊	播磨龍野	五〇〇	
三九	中川右衛門大夫秀政	同三木	(七〇,〇〇〇石) 三,〇〇〇	
四〇	淺野左京大夫長慶(後의 幸長)	若狹小濱	(二一七,〇〇〇石) 二,五〇〇	四十七歲
四一	大谷刑部少輔吉繼	越前敦賀	(五〇,〇〇〇石) 一,二〇〇	三十四歲
四二	木村常陸介重玆	同府中	三,〇〇〇	
四三	長谷川侍從秀一	越前東鄕	四,〇〇〇	
四四	靑山甚左衛門忠元	同丸岡	(四六,〇〇〇石) 八〇〇	
四五	靑木紀伊守一矩	同大野	(八〇,〇〇〇石) 一,四〇〇	
四六	堀侍從秀治	同北莊	(三〇,〇〇〇石) 七,〇〇〇	
四七	溝口伯耆守秀勝	加賀大聖寺	(六一,〇〇〇石) 一,五〇〇	

附圖 第 4
尙州附近戰鬪要圖
宣祖二十五年四月二十五日
李鎰軍
宗義智隊
(5,000)
五島純玄隊
大村喜前隊
(1,700)
松浦鎭信隊
(3,000)
小西行長隊
(7,000)
善山方面에서
尙州
尙州邑
洛東面

附圖 第 5
忠州附近戰鬪經過要圖
宣祖二十五年四月二十八日
申砬軍
宗
(5,000)
小西
(7,000)
松浦
(3,000)
有馬
大村
五島
(3,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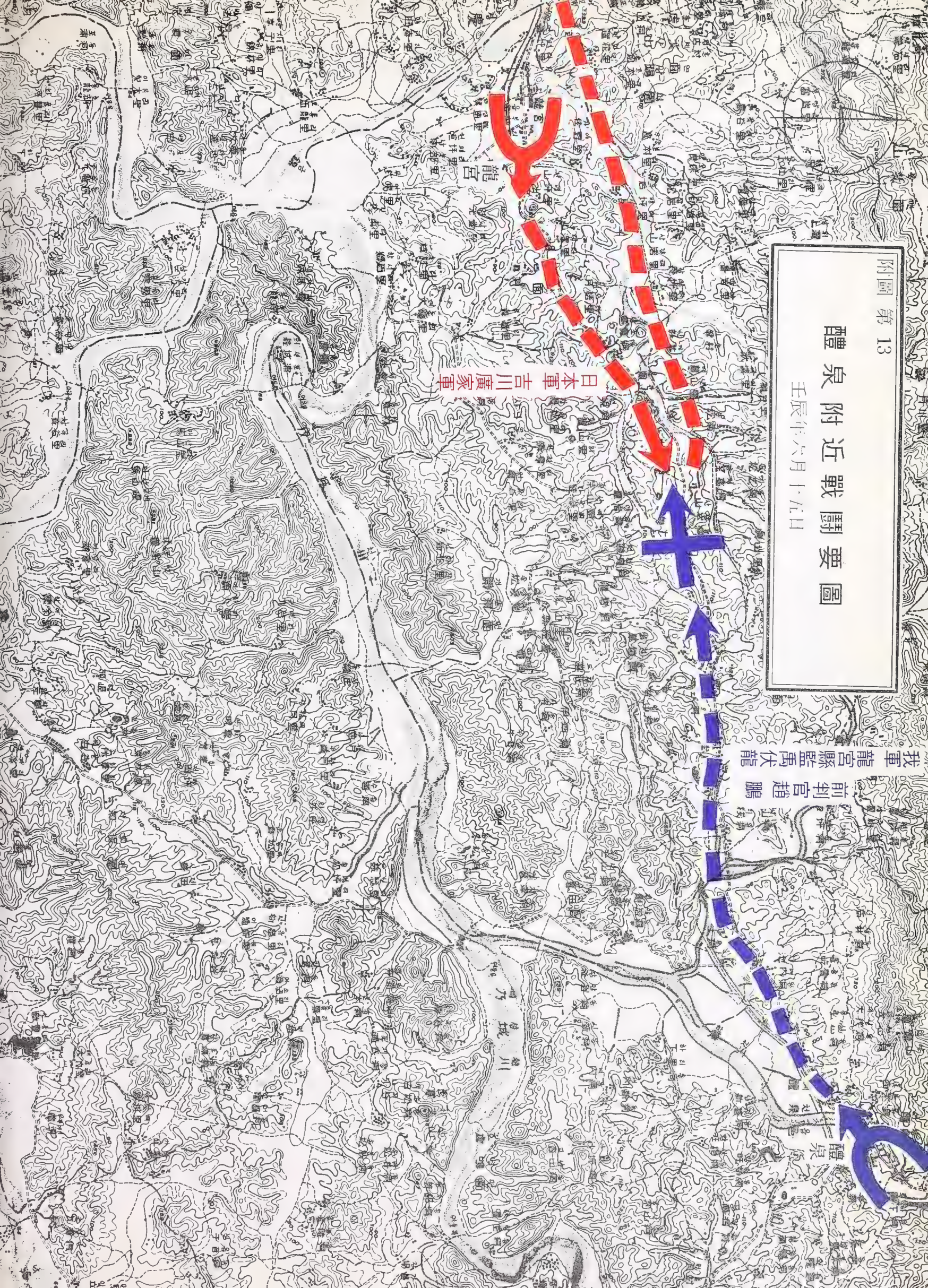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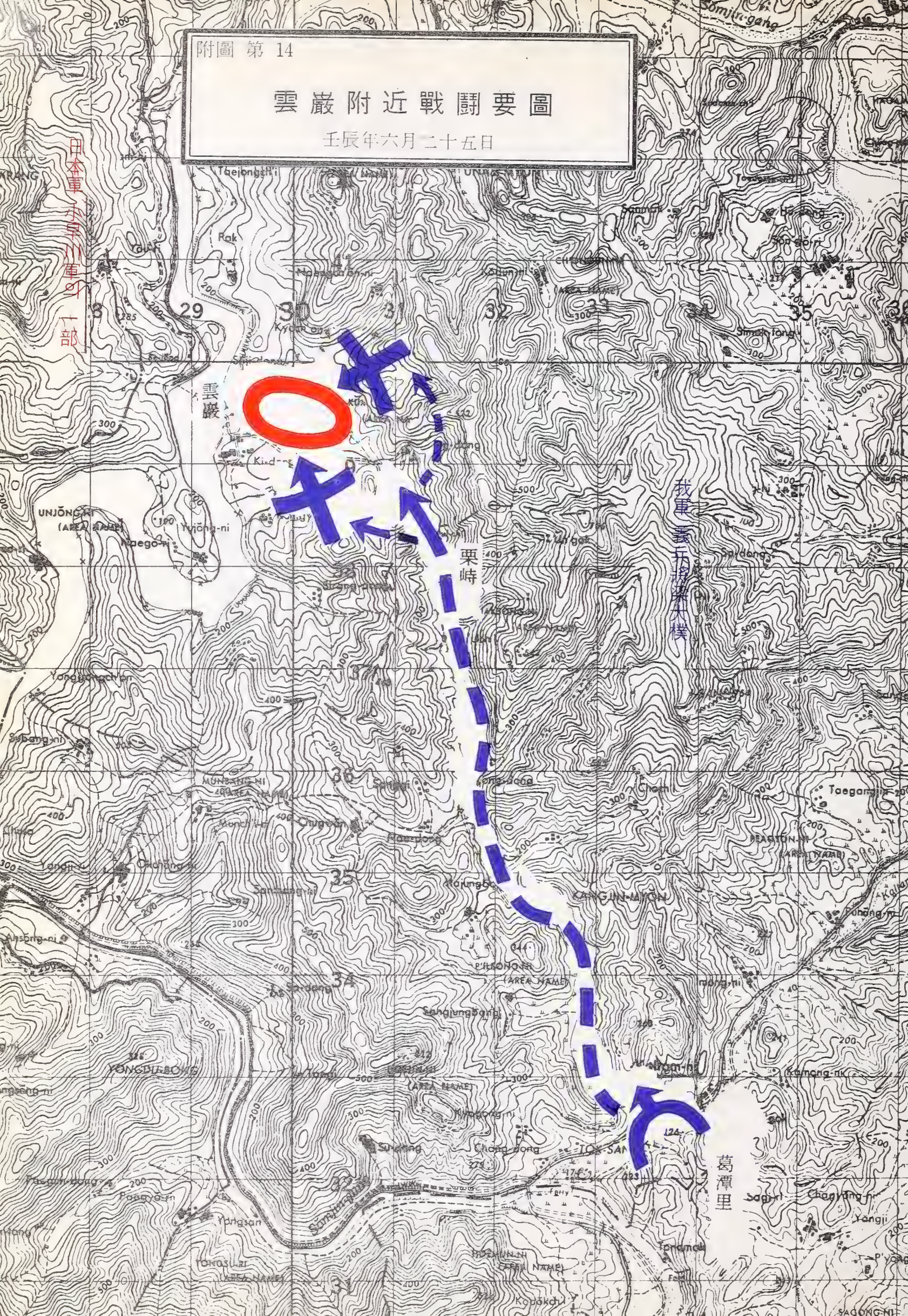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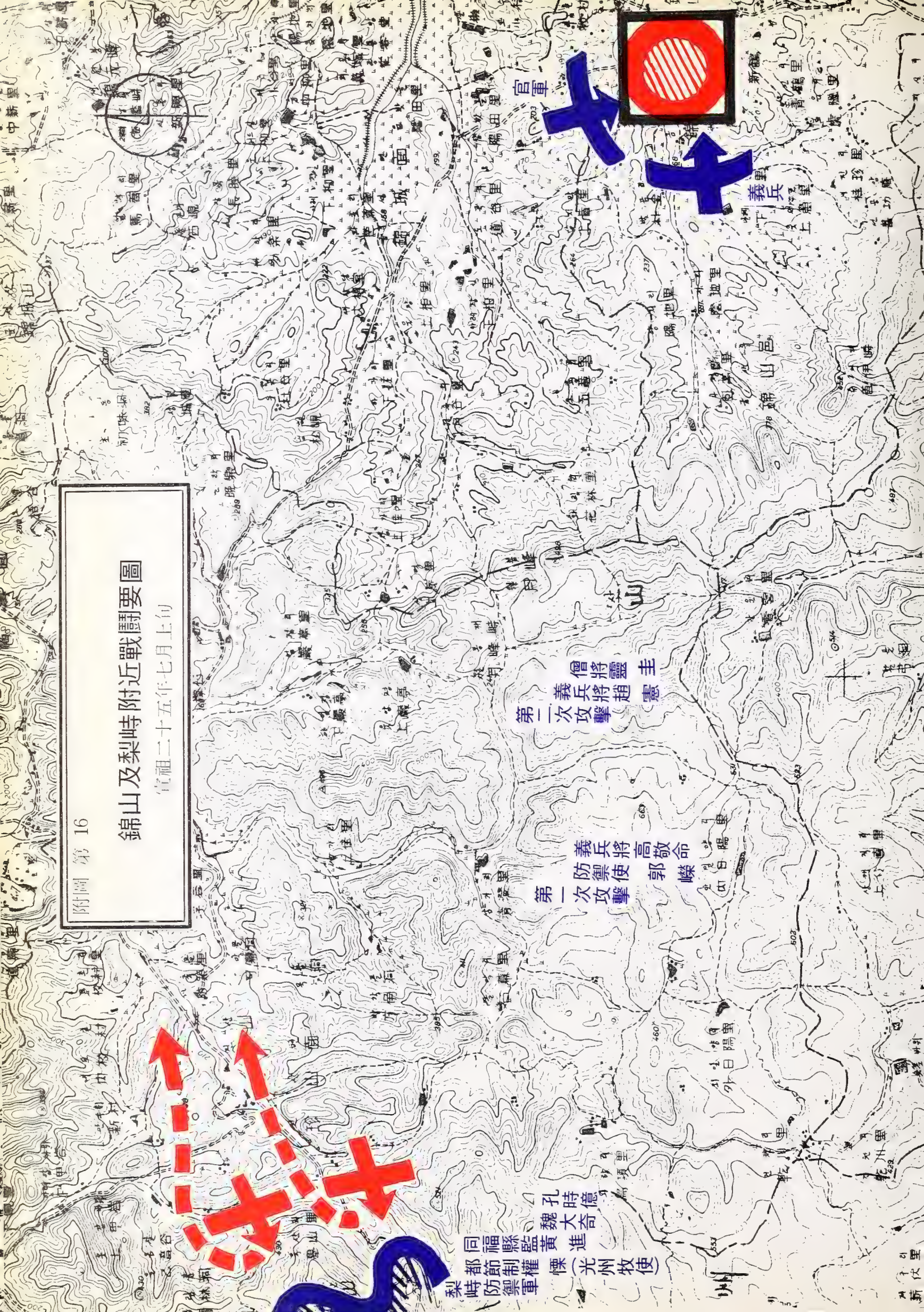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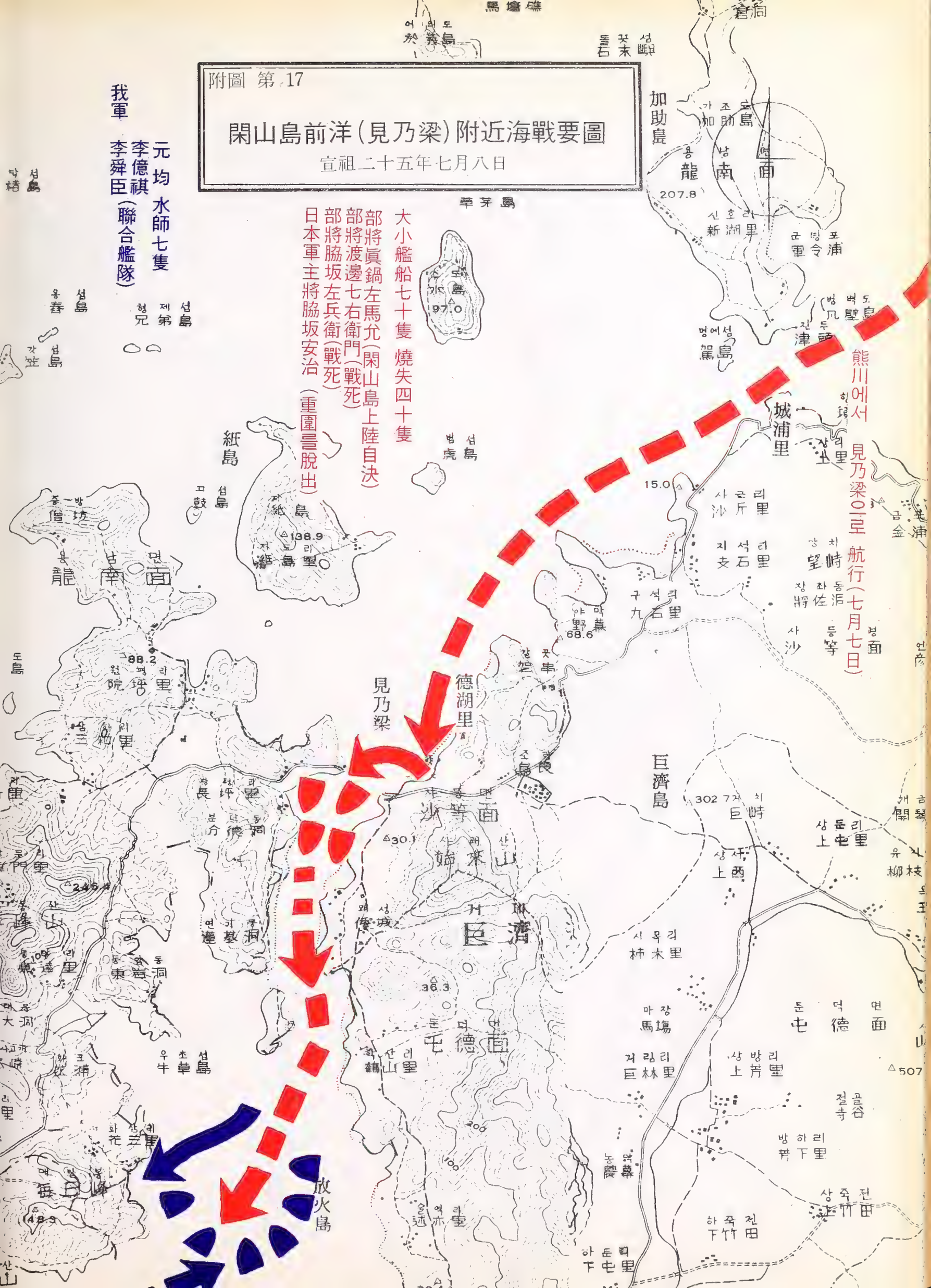
附圖 第 6
玉浦附近海戰要圖
宣祖二十五年五月七日
左水營에서 唐浦經由
玉浦里
蛇岩
兄弟岩
助羅
二運面
德浦里
上德里
汯望山
泉谷里
大鵝洞
下洞里
松亭里
上松里
下松里
孝子門
祭石谷
八良浦
水月里
下龍沼洞
上龍沼洞
梨谷
堂項
杜毋里
玉明里
陽地岩
入佐村
麻田
玉女峰
玉林里
居老里
塔洞
明峙
內谷
鶴陽里
塘基
270.7
247.0
251.4
61.6
178.3
349.6
203.1
554.7

附圖 第 7
臨津江戰鬪經過要圖
宣祖二十五年五月十八日
申硈軍
劉克良軍
加藤清正
臨津江
汶山里
坡州里

附圖 第 8
唐浦附近海戰要圖
宣祖二十五年六月二日
午前八時에 蛇梁島出船
李舜臣戰船
李億祺戰船二十五隻來航 (六月三日)
唐項浦로 向하다
日本軍
主將 龜井眞矩
艦船二十一隻
陸上兵力 數百名
我軍의 戰果
艦船全部燒夷
彌勒島
山陽面
彌勒山
將軍峰
大晴洞
延和里
中和洞
小將軍島
昆里島
甑島
釜島
大長頭島
小長頭島
楸島
楮島
松島
鶴林島
鶴林洞
晩地島
烟谷里
烟台洞
烟台島
椒島
白嶼

附圖 第 9
唐項浦附近海戰要圖
宣祖二十五年六月四日
敵軍 加藤淸正
部下水軍 大小艦船三十三隻
我軍 李億祺 李舜臣
全艦船을 燒却灰燼케함
我軍의 戰果
唐浦에서 北上
鎭北面
鎭田面
會華面
東海面
鎭海灣
唐項
玉女峰
老人山
虎岩山
金鳳山
鐵馬山

附圖 第 10
栗浦附近海戰要圖
宣祖二十五年六月七日
我軍
慶尙右水使 元均
全羅右水使 李億祺
全羅左水使 李舜臣
敵將來島通久上陸戰死
加德島方面에 轉航 (7日)
永登浦前洋에서 追擊
巨濟島
栗浦里
竹島
空地島
加德島
大德島
小德島
長蛇島
蜂岩島
加五島
大並台島
小並台島
石門島
多浦島
多大浦
韓 海 峽
內黑島
助羅島
沖黑島

附圖 第 11
龍仁附近戰鬪要圖
宣祖二十五年（自六月三日 至十二月）
光教山
(6.6日)
主將脇坂安治
渡邊七右衛門
脇坂左兵衛
先鋒山岡右近
(6.5日)
防禦使 郭嶸 數百名
慶尚道巡察使金睟
忠清道巡察使尹國馨（一〇、〇〇〇名）
全羅道巡察使李洸（四〇、〇〇〇名）
咸悅縣監鄭淵
右皐郡守李允仁
助戰將李之詩
先鋒將白光彦
(6.3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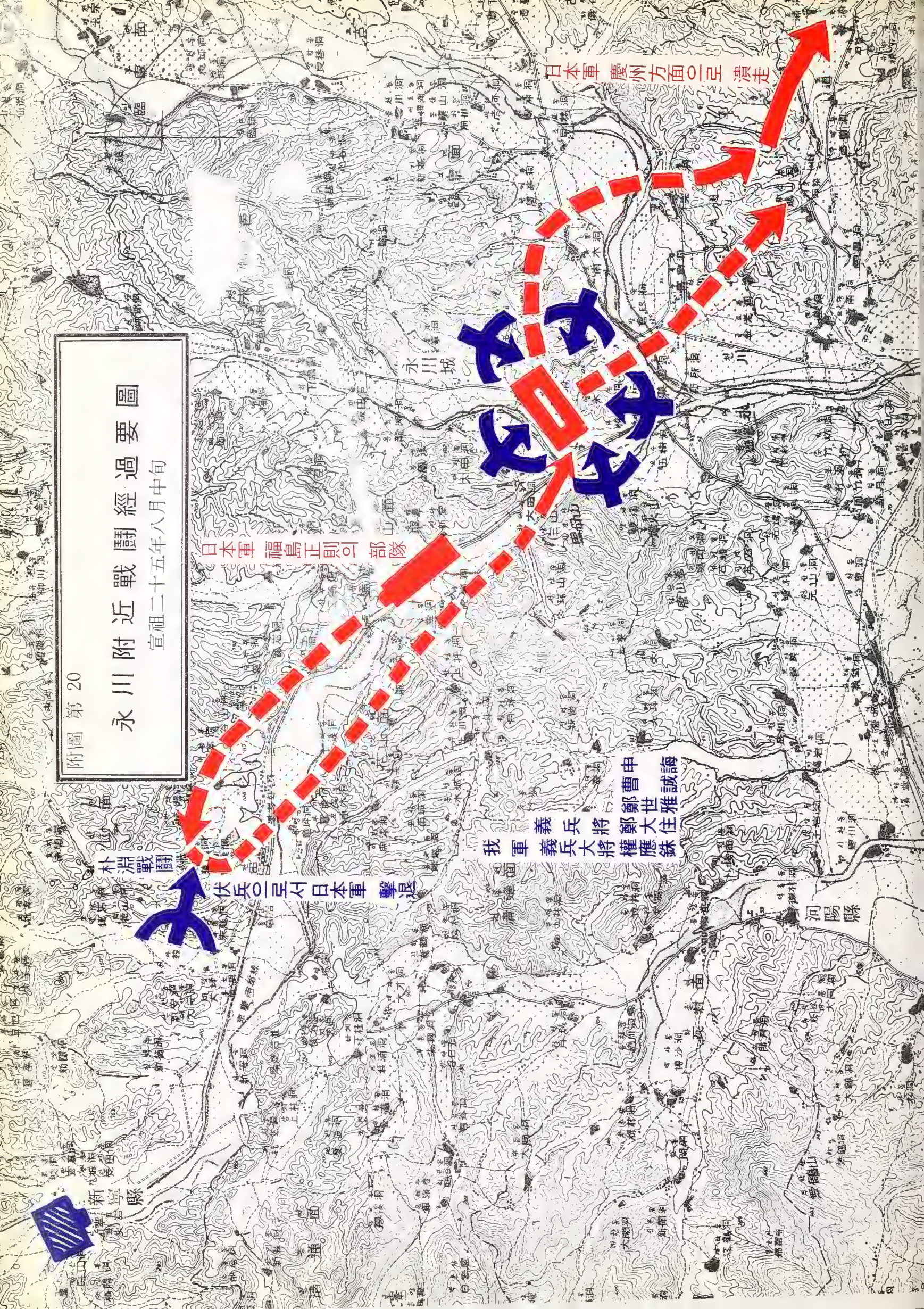
附圖 第 12
亀尾浦附近戰鬪經過要圖
宣祖二十五年六月中旬
亀尾浦
日本軍 全滅
我軍 江原道助防将元豪
日本軍一部亀尾浦에 向하다
高橋元種 (五〇〇名)
秋月種長 (五〇〇名)
毛利吉成 (二、〇〇〇名)
利川에서 漢城出發
驪州

附圖 第13
醴泉附近戰鬪要圖
壬辰年六月十五日
我軍 龍宮縣監禹伏龍
前判官趙鵬
日本軍 吉川廣家軍
醴泉
龍宮
乃城川

附圖 第 14
雲巖附近戰鬪要圖
壬辰年六月二十五日
日本軍 小早川軍의 一部
雲巖
栗峙
我軍 義兵將 梁大樸
葛潭里

附圖 第15
熊峙附近戰鬪要圖
宣祖二十五年七月上旬
熊峙防禦部隊
義兵將黃璞
羅州判官李福男
金堤郡守鄭湛
嶺上에서 徹夜하고 全州로
後에 錦山으로 退却
日本軍 六番隊의 一部
小早川隆景
退却
熊峙
珍山
鎭安
鎭安
馬靈面
富貴山
大頭山

附圖 第 16
錦山及梨峙附近戰鬪要圖
宣祖二十五年七月上旬
官軍
義兵
第二次攻擊
義兵將趙憲
僧將靈圭
第一次攻擊
防禦使郭嶸
義兵將高敬命
梨峙防禦軍
都節制權慄（光州牧使）
同福縣監黃進
魏大奇
孔時億
錦山邑
錦城面

附圖 第17
閑山島前洋(見乃梁)附近海戰要圖
宣祖二十五年七月八日
我軍
元均 水師七隻
李億祺
李舜臣(聯合艦隊)
大小艦船七十隻 燒失四十隻
部將眞鍋左馬允(閑山島上陸自決)
部將渡邊七右衛門(戰死)
部將脇坂左兵衛(戰死)
日本軍主將脇坂安治(重圍를脫出)
熊川에서 見乃梁으로 航行(七月七日)
見乃梁
德湖里
放火島
巨濟島
城浦里
加助島
龍南面
紙島
虎島
鼓島
沙等面
屯德面
巨濟
牛草島
兄弟島
春島
笠島
鷲島
堂島
華芽島
207.8
97.0
138.9
15.0
68.6
88.2
30.1
36.3
507

附圖 第 18
安骨浦及熊川地域海戰經過要圖
宣祖二十五年七月十日 (自午前八時 至午後六時) 安骨浦에서
宣祖二十六年 (自二月十日 至三月六日) 熊川에서
熊川
熊川灣
安骨浦
(一〇日) 攻
李舜臣艦船
元均艦船 (一〇日)
李億祺艦隊 待機
釜山에서
假泊 (八日)
(九日)
第五次攻擊 三月六日
第四次攻擊 二月二十二日
第三次攻擊 二月十八日
第二次攻擊 二月十二日
第一次攻擊 二月十日
南陽
佳洞
城谷
芳根里
花田里
新日里
新湖里
龍院里
牟馬島
土島
水島里
竹島
船倉里
訥次里
洞埋山
長木面
鎭海灣

駐兵地	兵力	指揮官
吉州	一、五〇〇	加藤右馬允, 加藤安政
海汀倉	五〇〇	近衛四郎右衛門
端川	五〇〇	加藤與左, 九鬼廣隆
利原	五〇〇	小代下總守
北青	八〇〇, 五〇〇	相良賴房, 吉村吉左衛門
洪原	五〇〇	多田茂左, 並川金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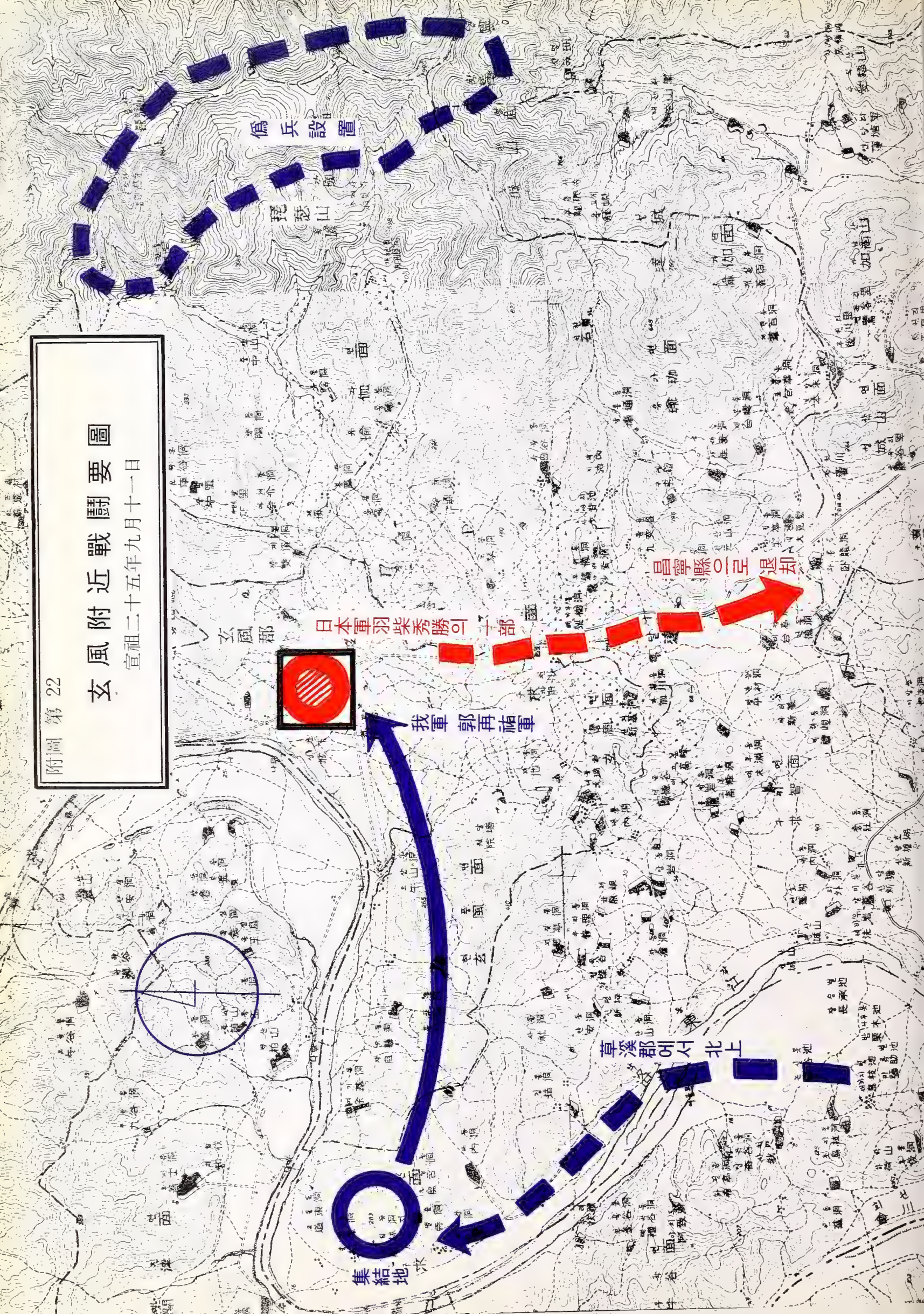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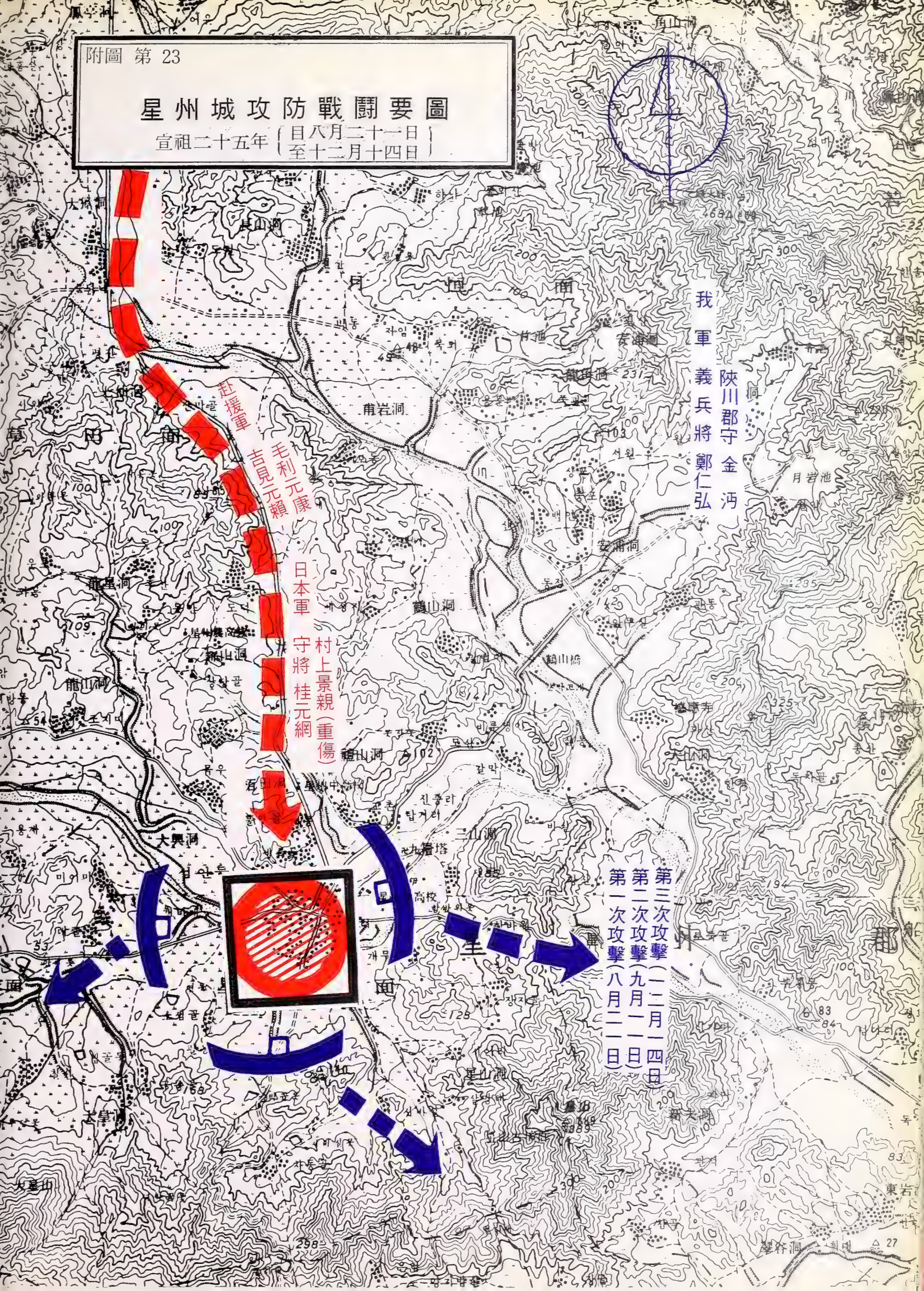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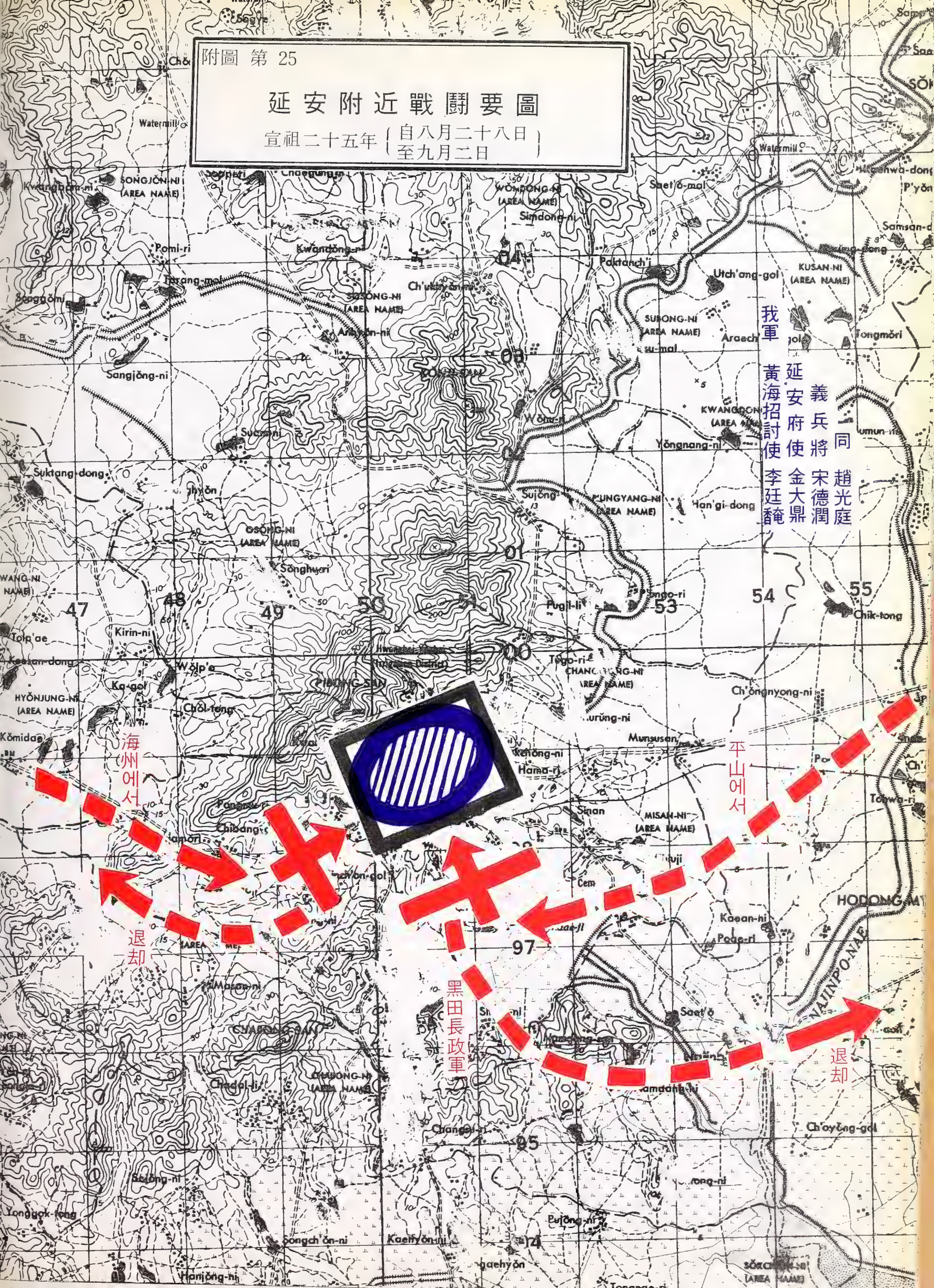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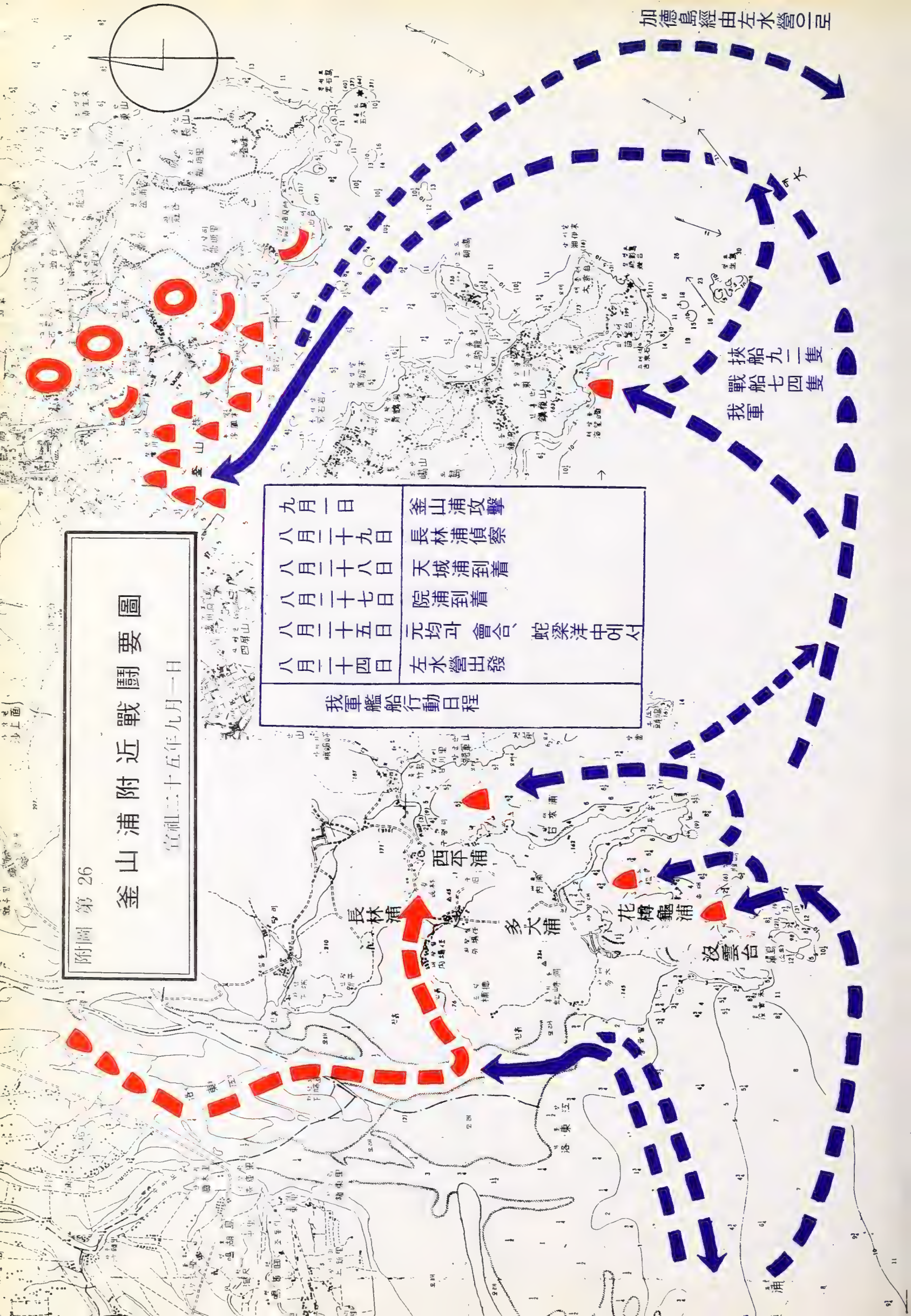
附圖 第 20
永川附近戰鬪經過要圖
宣祖二十五年八月中旬
朴淵戰鬪
伏兵으로서 日本軍 擊退
日本軍 福島正則의 部隊
永川城
日本軍 慶州方面으로 潰走
我軍 義兵大將權應銖
義兵將 鄭大住
鄭世雅
曹誠
申誨
新寧縣
河陽縣

附圖 第21
宜寧附近戰鬪要圖
宣祖二十五年六月上旬
安國寺惠瓊軍
郭再祐軍
咸安方面에서
退却
乾畛洞
長命里
鳳山里
長池里
三堂山
五堂洞
沙內里
中岩里
場基
郡面
咸安
防禦山
北面
柳峴里
石山
新基
丑岩
西街
末山里
冠洞
新音里
鳥南山
槐山里
德村
新昌
東村里
西村
大德谷
九水洞
下林里
坪館里
申洞
迎運里
苧末
知谷
慕老里
堂洞
流谷
中村
拜陽洞
鳳南里
菊谷
小浦里
毛亭洞
學谷
沙道里
越谷
儀鳳
梧桐村
月村里
江岸
下村里
大山洞
五甘洞
鶴橋
陰地
陽地
朴谷里
新基
上村
舞洞
內洞
戰谷里
塔
揚草
屯林
浮浦
鳴隱
石浦
鄕田
坪村
槐峴
新洞
釜谷
永道谷
江洲里
鷹岩
大堂
拔龍
新基
論實
杏谷
茁沙里
苗洞
長明里
先旺
新邑
坊杖
三奇
池洞
新村
士樂
內洞
道項里
德垈里
香谷里
廣井里
舌谷里
開谷
掛鍾
伽倻里
外洞
下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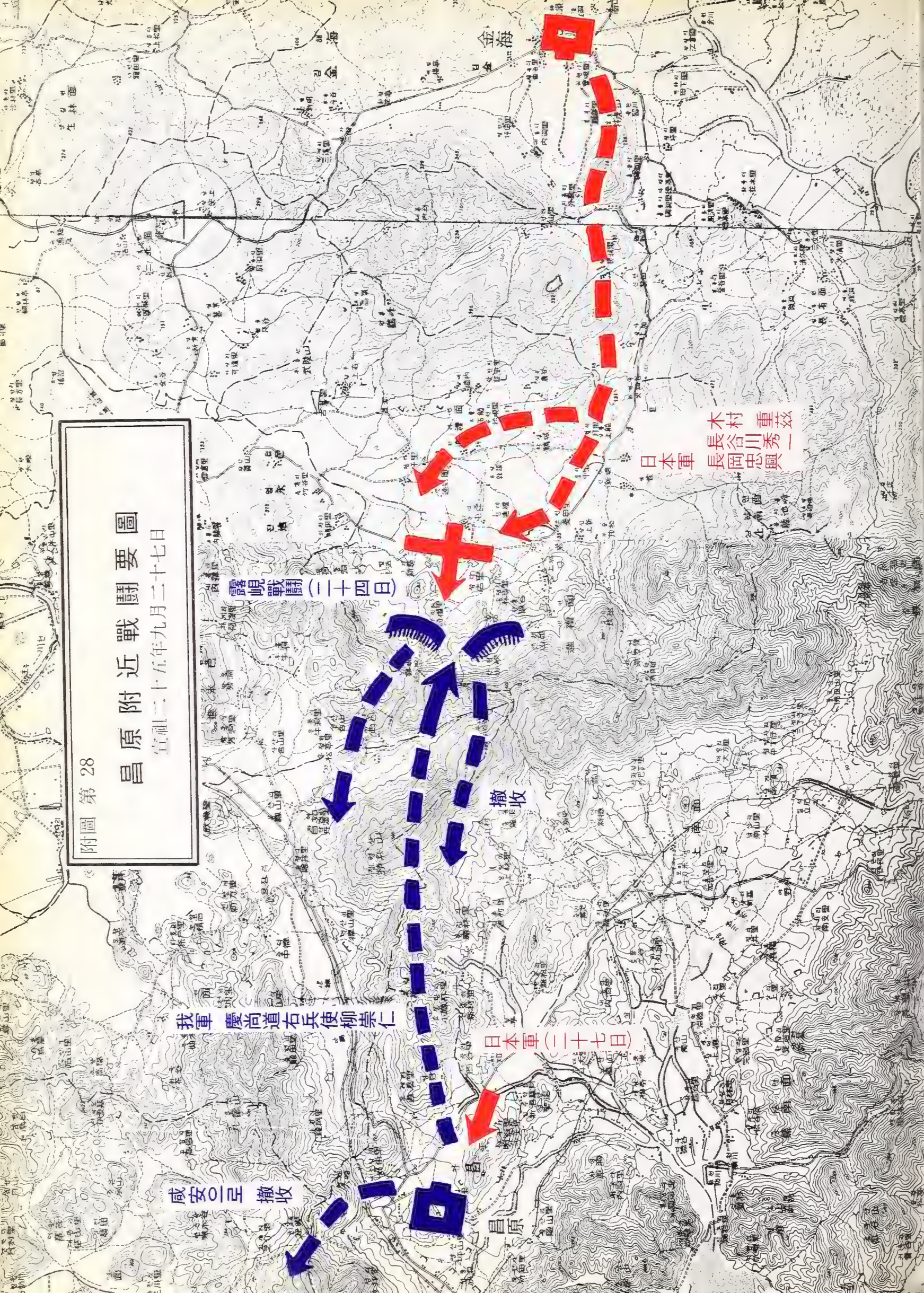
附圖 第 22

玄風附近戰鬪要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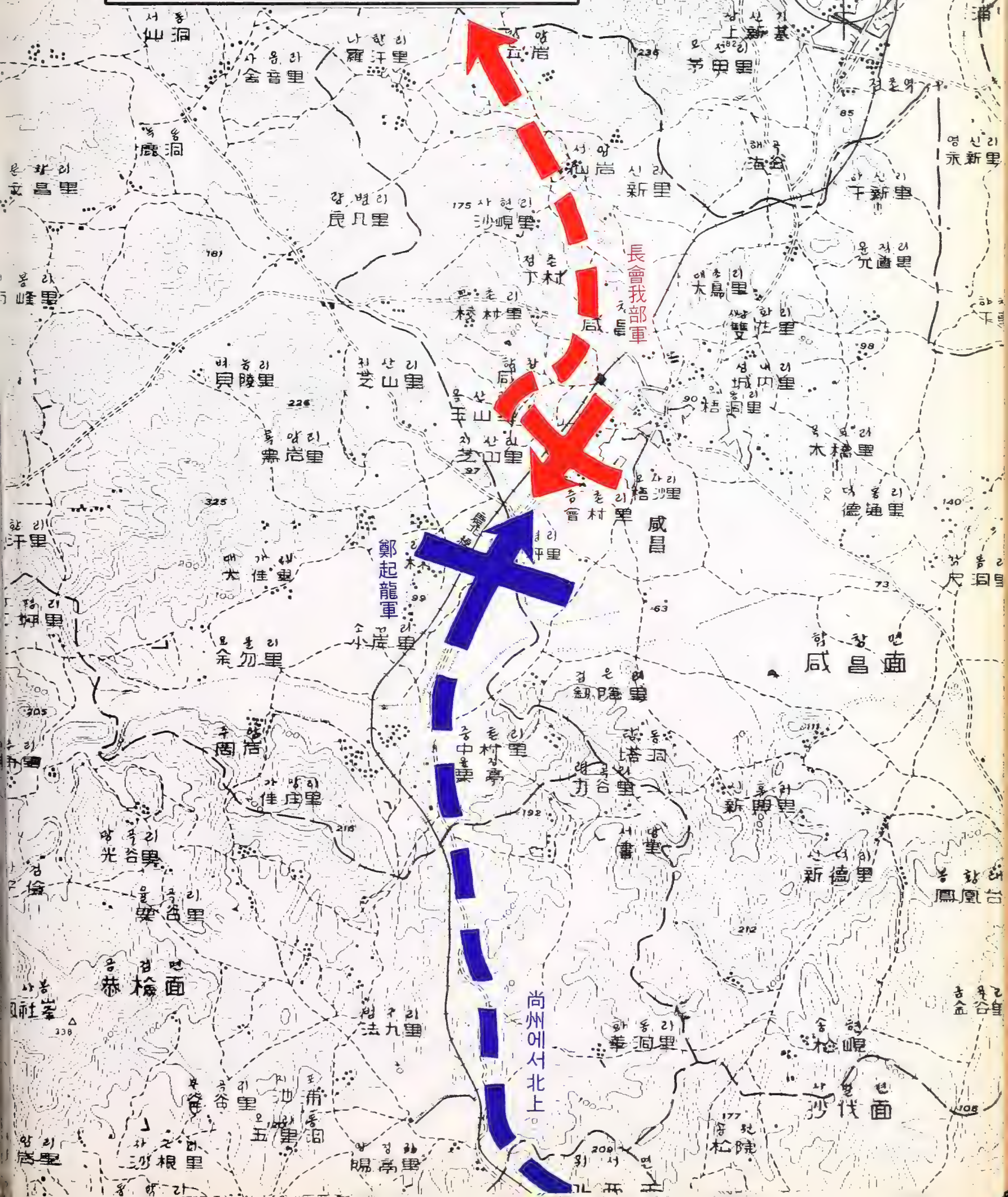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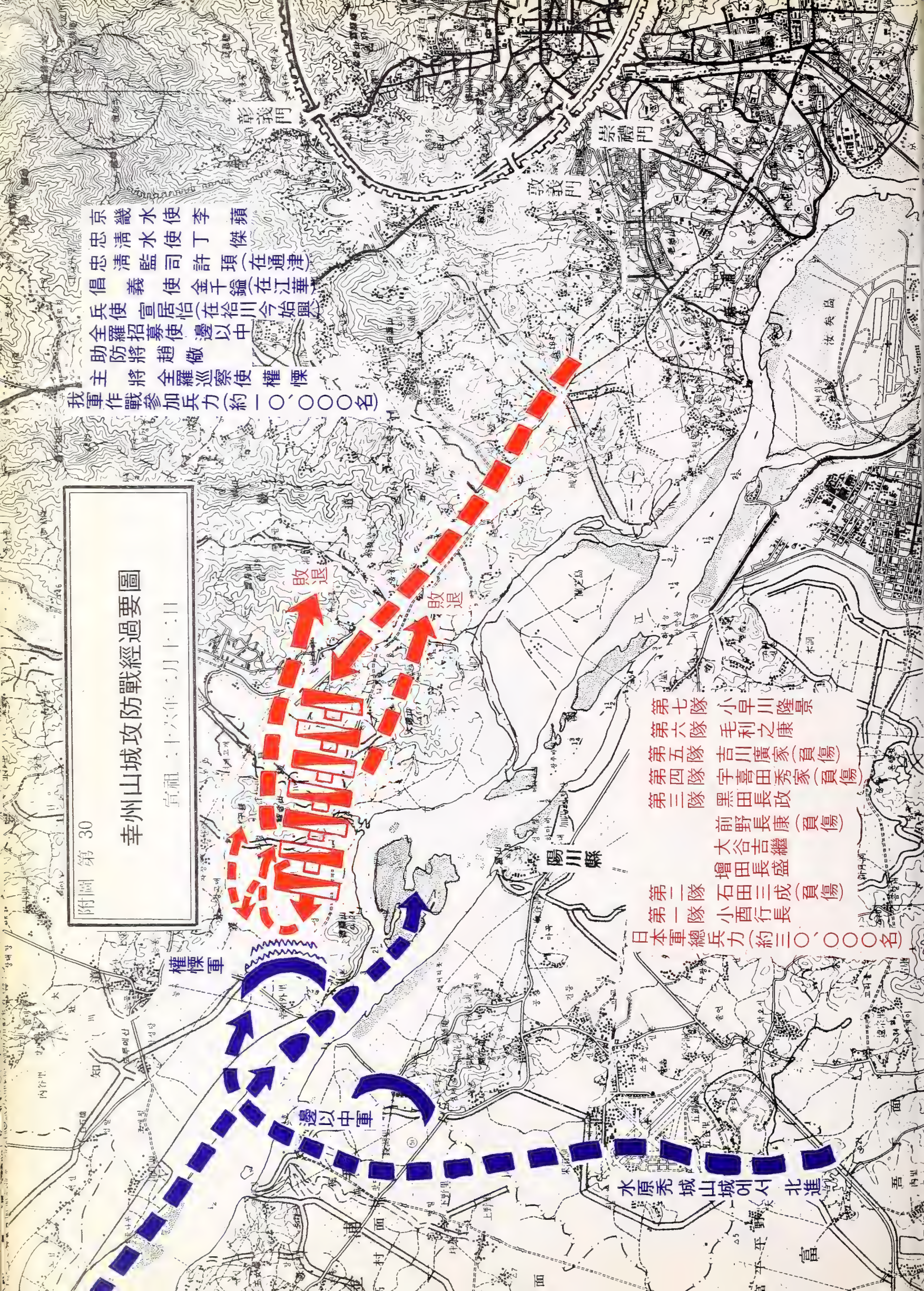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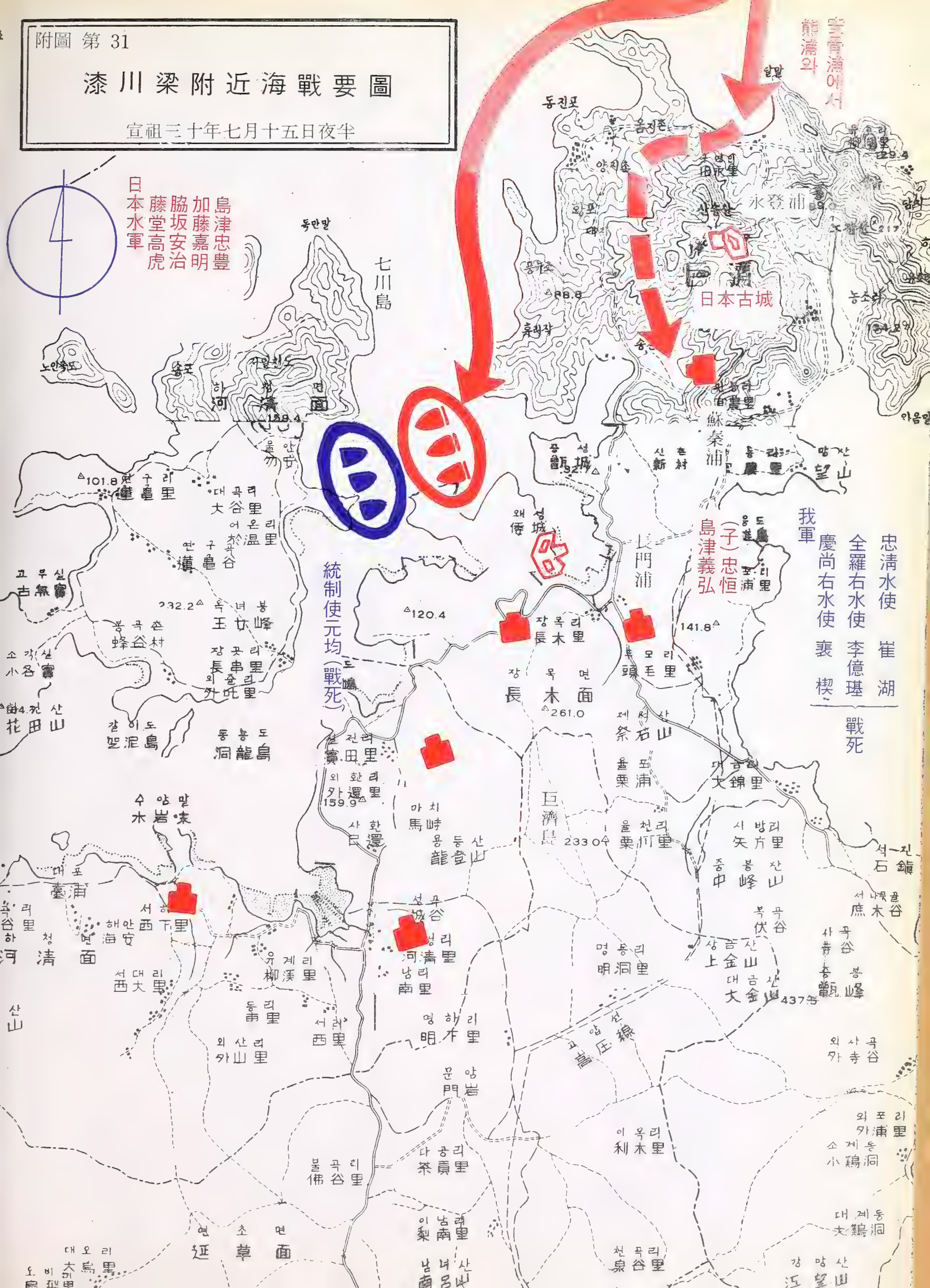
宣祖二十五年九月十一日

附圖 第 23
星州城攻防戰鬪要圖
宣祖二十五年（自八月二十一日 至十二月十四日）
赴援軍 毛利元康 吉見元賴
日本軍 守將 桂元網 村上景親(重傷)
我軍 義兵將 鄭仁弘 陜川郡守 金沔
第三次攻擊(十二月十四日)
第二次攻擊(九月十一日)
第一次攻擊(八月二十一日)

附圖 第 24
鴒原山城附近攻防戰鬪要圖
宣祖二十五年六月中旬
我軍 原州牧使 金悌甲(約四千名
從事官趙 嶙
鴒原山城
日本軍約三千名
毛利(森)吉成
高橋元種
秋月種長
原州

附圖 第 25
延安附近戰鬪要圖
宣祖二十五年（自八月二十八日 至九月二日）
我軍
黃海招討使 李廷馣
延安府使 金大鼎
義兵將 宋德潤
同 趙光庭
海州에서
平山에서
退却
黑田長政軍
退却

附圖 第 26
釜山浦附近戰鬪要圖
宣祖二十五年九月一日
我軍艦船行動日程
九月一日 釜山浦攻擊
八月二十九日 長林浦偵察
八月二十八日 天城浦到着
八月二十七日 院浦到着
八月二十五日 元均과 會合、蛇梁洋中에서
八月二十四日 左水營出發
加德島經由左水營으로
我軍
戰船七四隻
挾船九二隻
長林浦
西平浦
多大浦
花樽龜浦
沒雲台
洛東江
釜山
四屛山
長山
東山

附圖 第 27
慶州附近戰鬪要圖
宣祖二十五年九月
義兵大將 鄭世雅
慶尙道左兵使 朴 晋 權應銖
我軍兵力(一〇、〇〇〇名)
日本軍
主將、多川內記
安東
慶州
慶州市
江西面
安江邑
見谷面
月城
江東面
武陵山
玉女峯
安胎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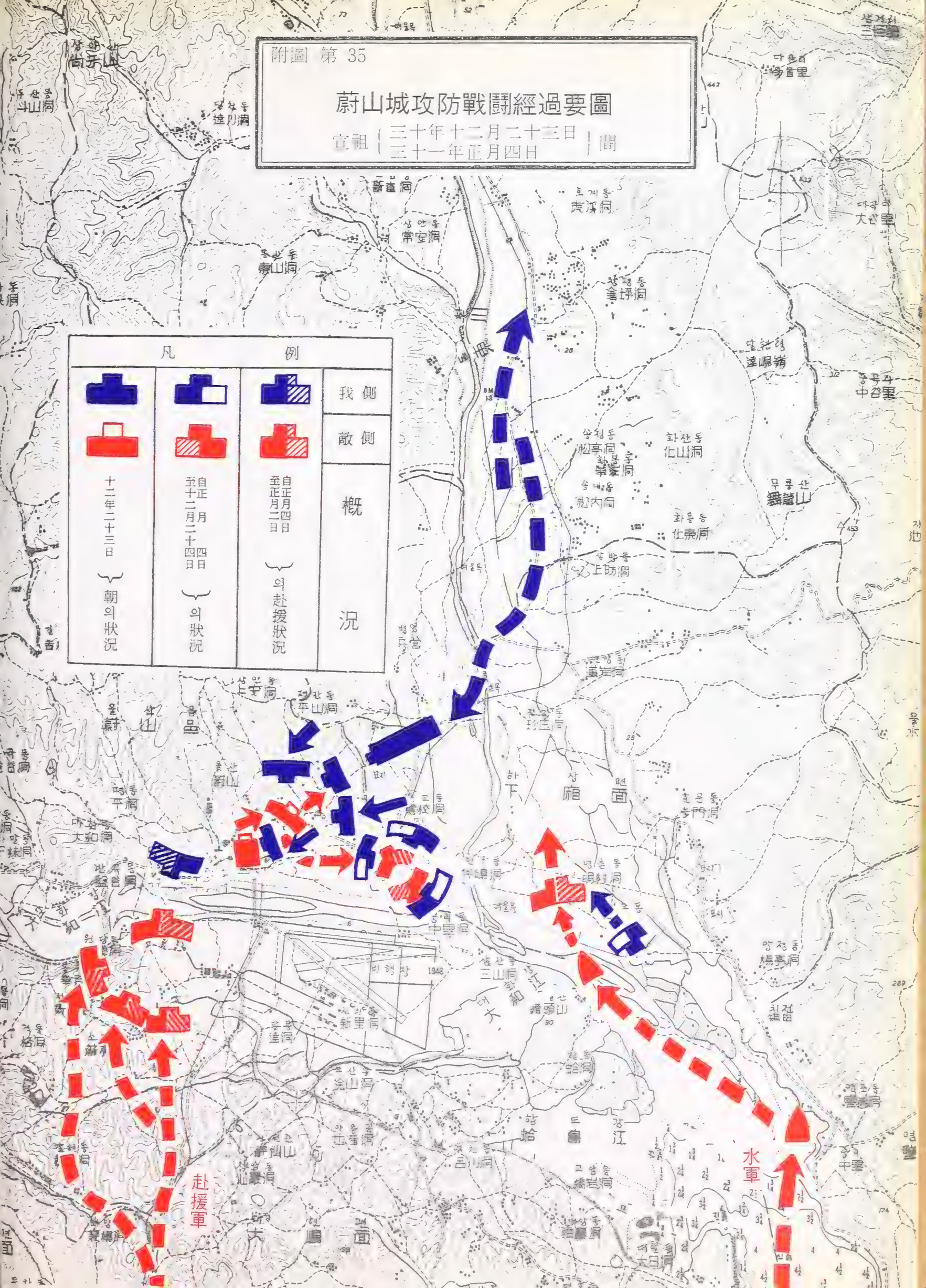
附圖 第28
昌原附近戰鬪要圖
宣祖二十五年九月二十七日
咸安으로 撤收
我軍 慶尚道右兵使柳崇仁
露峴戰鬪(二十四日)
撤收
日本軍(二十七日)
日本軍
木村重茲
長谷川秀一
長岡忠興
昌原
金海

附圖 第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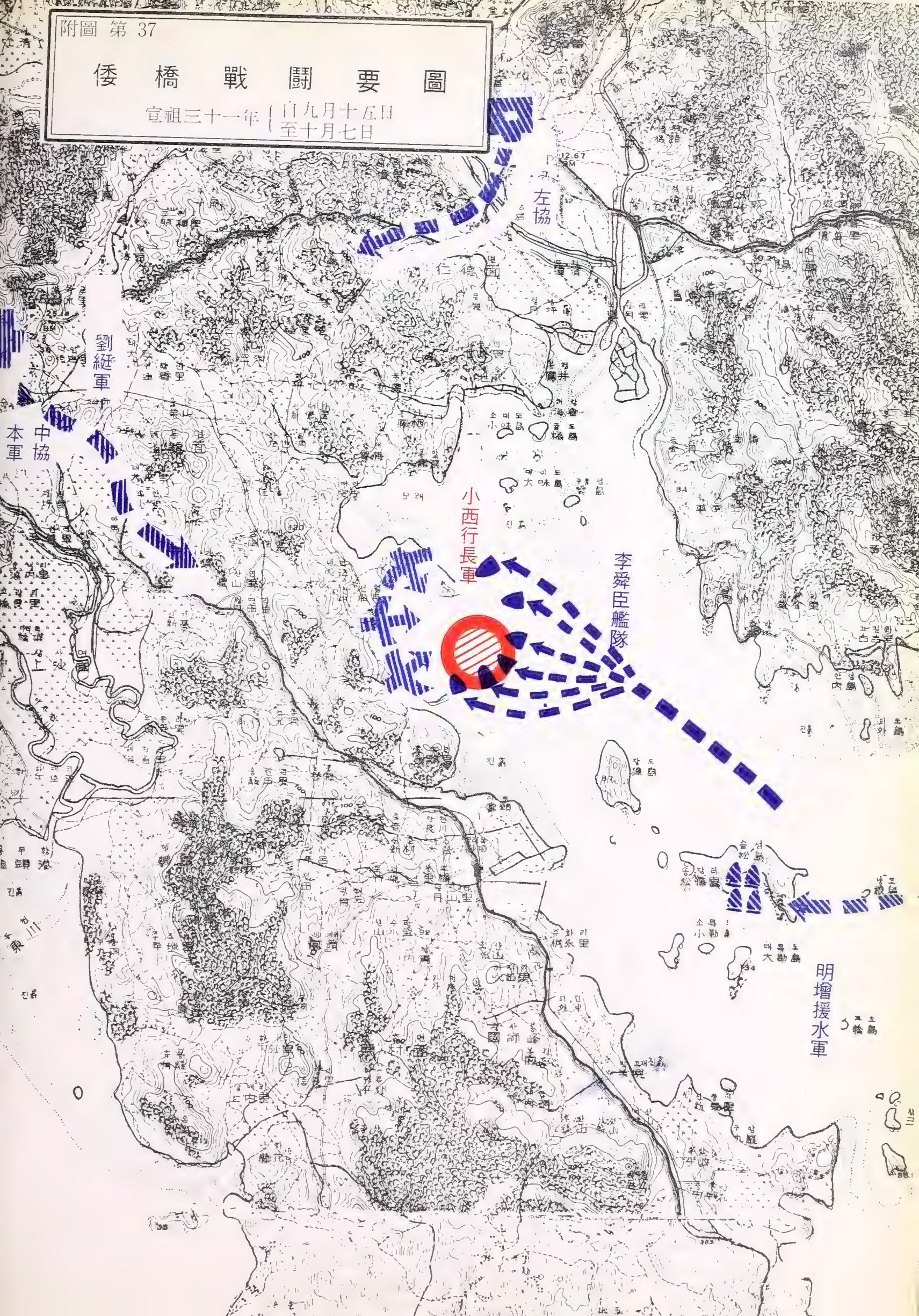
咸昌戰鬪槪要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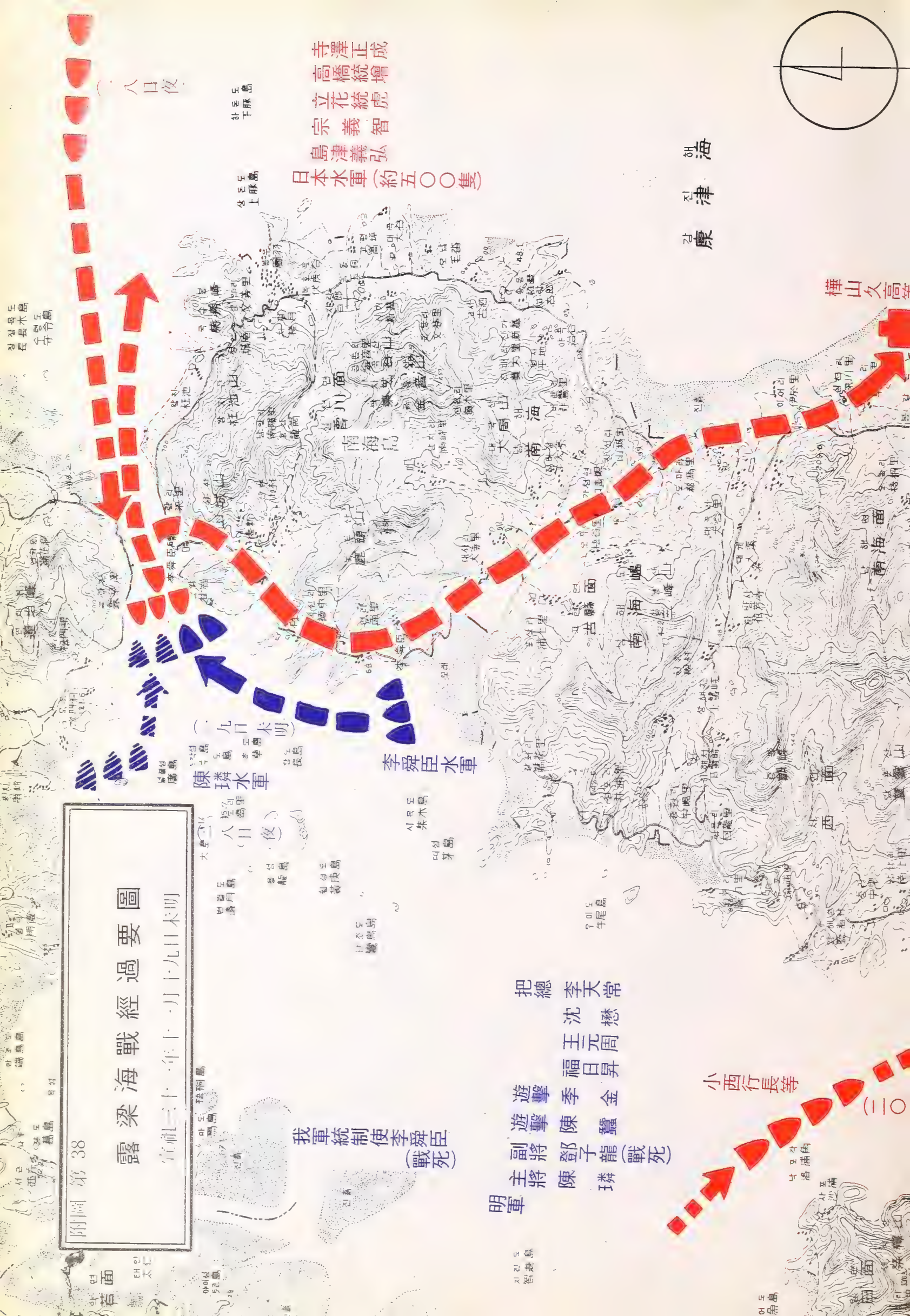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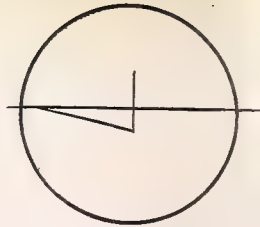
壬辰年 (月日未詳)

附圖 第30
幸州山城攻防戰經過要圖
宣祖二十六年二月十二日
京畿水使 李蘋
忠淸水使 丁傑
忠淸監司 許頊(在通津)
倡義使 金千鎰(在江華)
兵使 宣居怡(在衿川今始興)
全羅招募使 邊以中
助防將 趙儆
主將 全羅巡察使 權慄
我軍作戰參加兵力(約一〇,〇〇〇名)
權慄軍
邊以中軍
敗退
敗退
陽川縣
水原禿城山城에서 北進
彰義門
敦義門
崇禮門
第七隊 小早川隆景
第六隊 毛利之康
第五隊 吉川廣家(負傷)
第四隊 宇喜田秀家(負傷)
第三隊 黑田長政
前野長康(負傷)
大谷吉繼
增田長盛
第二隊 石田三成(負傷)
第一隊 小西行長
日本軍總兵力(約三〇,〇〇〇名)

附圖 第 31
漆川梁附近海戰要圖
宣祖三十年七月十五日夜半
日本水軍
島津忠豊
加藤嘉明
脇坂安治
藤堂高虎
七川島
統制使元均(戰死)
我軍
忠清水使 崔湖
全羅右水使 李億琪
慶尚右水使 裵楔
戰死
(子)忠恒
島津義弘
日本古城
巨濟
永登浦
蘇秦浦
長門浦
倭城
長木里
長木面
頭毛里
巨濟島
河淸面
延草面
石鎭
望山

附圖 第32
黃石山城附近戰鬪要圖
宣祖三十年八月十六日夜
咸陽郡
我軍
前咸陽郡守 趙宗道
前金海府使 白士霖
安陰縣監 郭䞭
趙宗道
郭䞭
白士霖
黑田長政
加藤清正
鍋島直茂父子
日本軍은 戰後六十嶺經由 鎭安 全州方面에 進出

附圖 第 33
稷山附近戰鬪要圖
宣祖三十年九月七日
赴援軍(二、〇〇〇)
解生軍
毛利秀元의 赴援
天安
凡例
第一次
第二次
第三次

附圖 第 34
鳴梁附近海戰要圖
宣祖三十年九月十六日
碧波津
我軍統制使 李舜臣
全羅右水使 金億秋
珍島
古郡面
郡內面

附圖 第 35
蔚山城攻防戰鬪經過要圖
宣祖 三十年十二月二十三日 三十一年正月四日 間
凡例
我側
敵側
概況
十二月二十三日 朝의狀況
自正月四日 至十二月二十四日 의狀況
自正月四日 至正月二日 의赴援狀況
新亩洞
常安洞
虎溪洞
東山洞
倉坪洞
達川洞
松亭洞
化山洞
上防洞
上安洞
平山洞
蔚山邑
明村洞
中里洞
三山洞
新里洞
大和洞
太和江
大峴面
赴援軍
水軍

附圖 第 36
晋州及泗川城附近戰鬪要圖
宣祖三十一年 自九月十九日 至十月一日 間의 陸上戰
宣祖二十五年五月二十九日의 海上戰
董一元軍 (4.5萬)
寺山久兼
川上久智
(九月一九日)
(一〇月一日)
望晋
提督董一元
退却路
進攻路
泗川舊城
川上忠實
(九月二九日)
(一〇月一日)
左翼
(4,000)
先鋒
(7,500)
本隊
(21,200)
右翼
(4,000)
泗川新城
(一〇月一日)
島津義弘
(九月二二日)
泗川
昆陽面
(五月二九日)
李舜臣左肩負傷
軍官羅大用負傷
(五月二九日夜)
露梁에서
五月三十日向蛇梁島
凡例
陸上戰
海上戰
東征軍
日本軍
我軍

附圖 第 37
倭橋戰鬪要圖
宣祖三十一年 自九月十五日 至十月七日
左協
劉綎軍
中協
本軍
小西行長軍
李舜臣艦隊
明增援水軍

附圖 第38
露梁海戰經過要圖
宣祖三十一年十一月十九日未明
日本水軍(約五〇〇隻)
島津義弘
宗義智
立花統虎
高橋統增
寺澤正成
(一八日夜)
陳璘水軍
(一九日未明)
(一八日夜)
李舜臣水軍
我軍統制使李舜臣(戰死)
明軍
主將 陳璘
副將 鄧子龍(戰死)
遊擊 陳蠶
遊擊 季金
福日昇
王元周
沈懋
把總 李天常
小西行長等
(二〇
樺山久高等
南海島
康津海

附　　録

一, 參 考 文 獻

我 國 之 部

備考: (　)內의 番號는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 整理 番號임. (1964年 8月 1日現在)

宣祖實錄 (春秋館編) 二百二十一卷 百二十五册, 印本(12732, 12756, 12773)

同 修正實錄 (同) 四十二卷 八册, 印本 (12733)

宣廟寶鑑 (肅宗命編) 十卷 五册, 印本 (1388)

國朝寶鑑 (世祖命編) 七卷 三册, 印本 (1137. 1596)

懲毖錄 (柳成龍著) 朝鮮群書大系續第一輯, 十六卷 七册, 印本 朝鮮古書刊行會編

壬辰日錄 (朴東亮著) (6968)

鎭管官兵編伍册殘卷 (4206)

亂中日記 (李舜臣著) 李忠武公全集所載, 李殷相譯註本

亂中雜錄 (趙慶男著) 十六册, 併續(6586)

再造藩邦志 (申炅著) 四卷 四册, 木活字 (4491)

宣廟中興志 (著者未詳, 年紀未詳) 六卷 六册 (版心書名中興誌) (15213)

朝野輯要 (編者未詳, 年紀未詳) 二十八卷 二十一册, 寫本 (7472)

海東繹史 (韓致奫著) 七十一卷 二十六册, 寫本 (7931)

朝野會通 (編者未詳, 年紀未詳) 二十八卷 十六册, 寫本 (4218)

燃藜室記述 (李肯翊著) 續集과 別集이 따로 있음. 二十九卷 二十九册, 寫本 (0210, 5778)

朝野僉載 〔尹衡聖(器)著〕 五十卷 別錄二卷, 合二十九册 (5797)

朝野記聞 (編者未詳, 年紀未詳) 五卷 五册 (12714)

默齋日記 (李貴著) 三册 (7160)

象村集 (申欽著) 六十三卷 二十册, 印本 (6731)

隱峰野史別集 (安邦俊著) 隱峯全集三十八卷 十五册, 印本 (5349)

看羊錄 (姜沆著) 睡隱集 (5879)

聞韶漫錄 (尹國馨著) 大東野乘所載

芝峰類說 (李睟光著) 三十四卷 十册, 印本 (7117)

甲辰漫錄 (尹國馨著) 大東野乘所載

寄齋雜記 (朴東亮著) 朝鮮古書刊行會印行本 (6968)

寄齋史草	(朴東亮 著)	朝鮮古書刊行會印行本
梧陰遺稿(卷三)	(尹斗壽 著)	四卷 三册, 印本 (4030, 4054)
漢陰文稿	(李德馨 著)	十二卷 六册, 印本 (4770)
湖臾實記	(鄭世雅 著)	八卷 二册, 印本 (4056—86)
鶴峰集	(金誠一 著)	十六卷 十册, 印本 (4292)
西厓集	(柳成龍 著)	二十四卷 十二册, 印本 (1067)
白沙集	(李恒福 著)	三十卷 十五册 (2937, 2938)
月汀漫筆	(尹根壽 著)	月汀集十一卷七册, 印本, 月汀漫筆, 大東野乘所載
月沙集	(李廷龜 著)	六十八卷 二十二册, 印本 (5318)
四留齋集	(李廷馣 著)	十二卷 五册, 印本 (5285)
龍蛇日記	(李魯 著)	全, 朝日文化硏究所譯註
鄭忠壯公實記	(鄭熔 編)	二卷 二册 (4645)
權元帥實蹟	(編者未詳, 年紀未詳)	一卷 (4254)
東湖集	(文德敎 著)	(7724)
重峰集	(趙憲 著)	(4088)
農圃集	(鄭文孚 著)	六卷 四册, 印本 (1672. 6739)
牛溪集(卷三)	(成渾 著)	十二卷 六册, 印本 (3428—25)
芝山集	(曺好益 著)	五卷 二册 (3986, 6298, 6299)
獨石集	(黃赫 著)	一册 (488)
芝川集	(黃廷彧 著)	六卷 三册, 印本 (5191, 5630)
正氣錄	(高由厚 編)	一册, 印本 (3424, 3636, 4170, 4751)
春坡堂日月錄	(李星齡 編)	寫本 (6636)
四溟堂集	(釋惟政 著)	七卷 一册, 印本 (6327)
息庵集	(黃暹 著)	三卷 一册, 印本 (4227)
簡易集	(崔岦 著)	九卷 九册, 印本 (1637, 1679)
李忠武公全書	(李舜臣 著)	李殷相譯註本 (457)
奮忠紓難錄	(南鵬 編)	二卷 二册, 印本 (3420)
東閣雜記	(李廷馨 著)	大東野乘所載
荷潭破寂錄	(金時讓 著)	同上
紫海筆談	(同 上)	同上
涪溪記聞	(同 上)	同上
漢陰遺事(同年譜)	(李基讓 編)	同年譜, 四卷 三册, 印本 (4331)
東國文獻備考	(英祖命 編)	正宗朝에 李萬運등이 增補, 百卷 四十册 (5216, 4146, 6197)

亂後雜錄 (柳成龍著) 朝鮮史料叢刊第九(朝鮮史編修會編)
攷事撮要 (魚叔權等編) 許篈, 朴希賢, 崔鳴吉등이 增補, 三卷 三册, 印本 (661)
龜巖集 (李元培著) 十六卷 八册, 印本 (5209)
梁大司馬實記 (洪良浩著) 十一卷 五册, 印本 (1490, 1496)
海東名將傳 (同) 六卷 三册, 印本 (3617, 4184)
朝鮮金石總覽(下) (朝鮮總督府編)
日本往還日記 (黃愼著) 東槎錄 (7019)
向化人謄錄 (禮曹編) 一卷, 寫本 (9881)
國朝榜目(卷三) (禮曹編) 寫本 (11655, 5002)
樊巖集(卷四十四) (蔡濟恭著) 五十九卷 二十七册, 印本 (3133, 3134)
艮翁集 (卷二十一, 鄭烈士傳) (李獻慶著) 二十四卷 十二册, 印本 (6765, 7114)
尤庵集 (同年譜, 卷百三十五) (宋時烈著) 百五十八卷 五十三册, 印本 (3627, 4069)
淸陰集 (金尙憲著) 四十卷 十四册, 印本 (5103, 4247)
經國大典 (崔恒등編纂)
北關誌 (李端夏篇) 二卷 二册 (1261)
龍灣誌 (徐命善編) 金應洙 增補
栗谷全書精選 (陶菴李縡編) 李丙燾譯註本(栗谷先生紀念會刊)
己丑錄 (黃赫著) 大東野乘 所載
谿谷漫筆 (張維著) 二卷 一册, 寫本 (6860, 6750)
霽峰年譜 (高濟寅編) 一册, 印本 (4644, 5171)
百拙齋遺稿 (韓應寅著) 二卷 二册 (5860, 5409)
龍灣聞見錄 (鄭琢著) 一册, 寫本 (4881)
唐山義烈錄 (李萬秋編) 一册, 印本 (7776)
大典會通 (趙斗淳編) 朝鮮群書大系續第十八輯, 六卷 五册, 印本
八域志 (朝鮮古書刊行會編)
江華府志 (金魯鎭編) 一册 (10699, 10703)
同 (編者未詳) (12194)
平壤志 (尹斗壽編) 十六卷 十册, 印本 (4885, 1601)
嶺南志 (議政府編) 十七册 (12173), 三十四册 (12174)
東國郡縣沿革表 (朝鮮古書刊行會編)
四郡志 (柳得恭著) 朝鮮古書刊行會編
北漢誌 (釋聖能著) 一册, 印本, 朝鮮古書刊行會編

東京雜記(東京誌)	(閔周冕, 成原默등이 增補)	朝鮮古書刊行會編
中京誌	(金履載編)	朝鮮古書刊行會編, 十一卷 六册, 印本
松都誌(松京誌)	(鄭昌順補編)	七卷 二册, 印本 (朝鮮古書刊會編——增補한 것을 中京誌라 함)
關北邑誌	(編者未詳, 高宗九年, 同三十年)	五册, 寫本 (667, 10995, 1270)
昭代記年	(編者未詳)	二十七卷 二十七册, 寫本 (5546)
小華外史	(吳慶元著)	五卷 一册 (5126)
春官志	(禮曹篇)	三卷 三册 寫本 (963)
通文舘志	(金慶門篇)	十二卷 六册, 印本, 朝鮮群書大系
壬辰錄	(文德敎編)	東湖先生文集附錄內 (7724)
閔氏壬辰錄	(閔順之著)	
湖南節義錄(卷一)	(高延憲序)	(古 4658)
平壤續志二(古事)	(孫游編)	添補한 것을 後續志라 함. 四册 (1601)
慶尙道邑誌	(編者未詳, 純祖朝)	七十一卷 二十册 (666)
列朝通記	(安鼎福編)	二十八卷 十册, 寫本 (7475)
磻溪隨錄	(柳馨遠著)	二十六卷 十四册, 印本 (5384, 3626, 3975, 3597)
朴毅烈公誌狀	(朴章鎬編)	一册 印本 (1171)
尹慶元行狀	(尹師國編)	一册, 寫本, 柰原君家狀 (11585)
金忠壯遺事	(肅宗命編)	三卷 一册, 印本 (1342, 1343, 1502, 3445)
忠烈實錄	(鄭德善編)	二卷 二册, 印本 (5572, 718)
崇節祠三忠錄	(趙鎭寬等編)	三卷 一册, 印本 (4090, 4091)
旌忠錄	(黃暐編)	四卷 一册, 印本 (987, 990, 991, 992)
白雲齋實記	(權應銖著)	四卷 二册 (15460)
雲川扈從日記	(金涌著)	雲川集 四卷 (15415)
壬辰錄 (東湖先生文集附錄內)	(文德敎著)	一册 (古 3436—14)
鵝溪遺稿	(李山海著)	六卷 三册 (4761, 6322)
國朝記略	(編者未詳)	五册, 寫本 (965)
倡義錄(靑溪倡義錄)	(梁大樸著)	二卷 一册, 印本 (1715, 3982)
壬辰筆錄	(編者未詳)	一册, 寫本 (1039)
李忠武遺事	(李舜臣著)	一册, 寫本 (1489)
李舜臣事蹟	(同上)	一册, 寫本 (9784)
藥圃集	(鄭吾道著)	二卷 二册 (1544)
白洲集	(李明漢編)	二十卷 九册 (7302, 7577)

桐溪集(卷四)	(鄭蘊著)	四卷，附錄二卷，合五册(5186，續集 12042)
李相國日記	(李元翼著)	四卷 四册 (49，古 4250)
愚伏集(卷十五)	(鄭經世著)	二十卷，別集，合十六册 (1640)
同別集	(同上)	八卷 四册 (3140)
陶菴集	(李縡著)	二十九卷 二十五册 (1617)
鼓山集(卷一)	(任憲晦著)	二十卷 十册，同續 (4476，11474)
大典通編	(金致仁編)	(201—3)
眉巖日記草	(柳希春著)	朝鮮史編修會刊行本
自菴集(卷二)倭寇	(金絿著)	二卷 一册 (4571)
高峰集(卷二)倭書契修答	(奇大升著)	三卷，思錄二卷，合五册 (1475)
東皐遺稿(卷三)	(李浚慶著)	五卷 四册 (6801)
治平要覽(卷百四十九，國朝)	(鄭麟趾等受命編)	七十二册 (11072)
德溪集(卷五)	(吳健著)	八卷，年譜二卷，五册 (5121)
海槎錄(鶴峰集)	(金誠一著)	十六卷 十册 (5500)
東國輿地勝覽	(宣城君盧思愼撰)	新增은 李荇，洪彦弼增補
萬機要覽軍政篇	(李萬運編)	(6936)
秋官志	(朴一源編，正祖五年)	十卷 十册 (1012)
都元帥權慄戰捷碑	京畿道高陽郡知道面幸洲外里	宣祖三十五年壬寅 崔岦撰
延城大捷碑	黃海道延白郡延安面模井里	李恒福撰
李忠武公神道碑	忠淸南道牙山郡陰峯面三巨里	正宗十八年甲寅 正祖撰
晋州金時敏全城却敵碑	慶尙南道晋州市內城洞	進士成汝信撰
東萊壬辰戰亡遺骸塚碑	東萊郡東萊面余古里	英祖七年 辛亥
矗石樓旌忠壇碑銘	晋州市內	肅宗十二年 丙寅
金悌甲忠烈碑	原州市內原州驛前廣場	生員鄭□衡撰
趙憲戰場紀績碑	淸原郡淸原面相生洞	肅宗三十六年庚寅 金鎭圭撰
申砬淸邊碑	穩城郡穩城面東和洞	英祖二年丙午 尹鳳朝撰
鄭撥戰亡遺址碑	釜山市佐川洞	英祖三十七年辛巳 朴載河撰
忠臣義士壇碑	尙州邑武陽里	正祖十七年癸丑 正祖撰
鄭宜藩詩塚碑	慶尙北道永川郡紫陽面聖谷洞	英祖二十八年癸酉 吳光運撰
李時發神道碑	忠淸北道鎭川郡草坪面龍亭里	孝宗九年戊戌 宋時烈撰
李元翼神道碑	京畿道始興郡西面所下里	仁祖十二年 甲戌
淸虛堂休靜大師碑	江原道淮陽郡長楊面長淵里	仁祖八年庚午 李廷龜撰

四溟大師石藏碑	慶尙南道陜川郡伽倻面海印寺	光海君四年壬子十二月
左水營大捷碑	全南麗水邑西洞	李恒福撰(別碑南九萬撰)
洪履祥神道碑	京畿道高陽郡中面一山里	光海君九年丁巳
金景瑞神道碑	平安南道龍岡郡陽谷面南相里	正祖二十五年己未 閔鍾顯撰
四溟大師紀績碑	江原道杆城郡梧垈面冷泉里乾鳳寺	正祖二十四年庚申 南公轍撰
李舜臣忠烈廟碑	慶南統營郡閑山面頭億里(南海郡古縣面車面里)	李恒福撰
南海明張良相東征詩碑(東征磨崖碑)	慶南南海郡南海面船所里	宣祖三十二年己亥
金命元神道碑	京畿道高陽郡碧蹄面大慈里	肅宗二十一年乙亥 金夢臣撰
公州明藍芳威種德碑	公州郡州外面錦城里	宣祖三十二年己亥 鄭磻撰

中國之部

兩朝平攘錄	(諸葛元聲著)	海東繹史合本(7931)
武備志	(茅元儀著)	三十九册 (支 3660)
明史	(張廷玉等編)	(支 2578)
明史記事本末	(谷應泰編)	(支 6550)
紀效新書	(戚繼光著)	十九卷 六册 (支 2207)
練兵實記	(戚繼光著)	(0230—17, 9950—3, 102—105)
皇明實錄	(神宗顯皇帝實錄)	四卷 (2490, 4230)
蒼霞集(草)	(葉向高編)	五十六册 (支 4464)
皇明從信錄	(陳建, 沈國元撰)	(4366—17)
練兵指南	(戚繼光著)	(古9950—6)
經略復國要編	(宋應昌著)	(4366—19)
皇明紀略	(編者未詳)	六卷 三册, 印本 (2873, 5267)
大明會典 (卷三十一)	(徐溥等受命編)	(支 2851)
三才圖會	〔王恩義(王圻)編〕	百八卷 百七册 (支 2888)

日本之部

異稱日本傳	(松下見林著)	(4100—44)

碧蹄戰史 (附幸州戰 蔚山戰) (渡邊金造著) (4280, 77)

日本戰史朝鮮役 (参謀本部編) (9910, 5)

征韓偉略 (川口長孺著) 水藩彰考舘編修 (4160—69)

文祿慶長の役 (池内宏著) (4150)

軍事的批判豐太閤朝鮮役 (杉村勇次郎著) (9910)

豐太閤朝鮮役 (青柳綱太郎著) (9910, 142)

近世日本國民史朝鮮役 (德富猪一郎) (4160—14)

毛利氏家記 (毛利大藏編)

和漢三才圖會 (良安尙順著)

黑田長政記 (黑川眞道編) (4103—128)

毛利秀元記 (黑川眞道編) (4103—126)

秀吉의 朝鮮經略 (京口元著) (4150)

日鮮關係 (栢原昌三著) 朝鮮史講座特別講義 (4200—2)

壬辰役雜考 (田保橋潔著) 靑丘學叢四

文祿慶長役을 中心으로 하는 事情 (中村榮孝著) 歷史敎育十二의八

日本外史講義 (賴山陽著) (4120—63)

二, 經　過　一　覽　表

(1) 前　　文

年	月	日	朝　　鮮	日　　本	明
20	2	2	倭船興陽侵犯(李大源戰死)		
	6	26	趙憲 上疏		
	9	4	公州提督官趙憲 罷職		
		24	造山萬戶李舜臣胡賊防戰	國王使橘(柚谷)康廣一行來朝	
	10	19	勝字銃筒創製(前兵使李墀)		
21	1	4	趙憲上疏		
	2	16	惠山鎭僉事李迡戰死(胡賊)		
	3	4		橘一行 歸國	
	10	15	南兵使申砬罷職		
		39	北兵使李鎰罷職後仍任 (11月 17日)		
	11	20	右議政李山海		
	12	26	右議政柳埈	國王使僧玄蘇平義智一行來朝	
22	2	1	柳成龍兵曹判書		聖節使尹根壽差遣
	5	5	趙憲定配(吉州嶺東驛)	國王使一行再次入朝, 5月 27日 鶴松誕生	
	7	12		對馬島主生孔雀 1 雙을 獻納하다.	
	8	28	宣祖日本國使接見	國使鳥銃數件, 鞍俱馬1匹을 獻納	
	9	21	日本通信使差遣을 廷議決定		
	10	14	鄭汝立自刎		
	11	3	趙憲放免		
		8	右議政鄭澈		
		18	日本通信上使黃允吉以下任命		
	12	3		平義智 馬와 鷹子를 請求하다	
		16	柳成龍을 吏曹判書		
		29	李舜臣井邑縣監		
23	2	28	領相李山海, 左相鄭澈, 右相沈守慶		
	3	6	平義智一行과同道通信使發程	日本通信使一行과 同道歸國	
	4	15	僧休靜就鞫		
	5	29	柳成龍右相		

→

→

年	月	日	朝鮮	日本	明
	12				聖節使李山甫差遣
24	1	28	通信使黃允吉一行釜山着歸朝	日本國使 僧玄蘇, 平調信 通信使 同行來朝	
	2	6	通信使書狀官許筬을 囚禁		
		13	左相柳成龍右相李陽元		
			全羅左水使李舜臣		
		16	京畿水使邊彥琇		
	3	29		玄蘇一行 漢城到着	
	4	4	高敬命(東萊府使)罷職		
			宋象賢東萊府使		
		29	宣祖日本國使引見		
	5	4	日本書契奏聞當否論議	日本國使玄蘇, 調信一行歸國	
	6	25	尹根壽(右贊成)削奪官爵		
	7	2	兵曹判書黃廷彧罷職		
		8	尹斗壽會寧定配		
	8			秀吉明國侵略期日決定 (明年3月1日)	
	10	21	尹斗壽延安移配		
		24			陳奏使韓應寅差遣
	11	2	聖節使金應南回來		謝恩使尹又新差遣
	12	25	大司憲李憲國 大司諫李墍 大司成 任國老	秀次關白職(24歲)	
			大提學兼吏曹參判李德馨		
			同福縣監黃進, 兵曹參議李廷馣		
25	1		金汝岉下獄(前義州牧使)		
	2		諸道兵備巡視(申砬, 李鎰)	御陽成天皇이 聚樂第에 行次	
	3	3	順懷世子嬪尹氏卒		
		13		秀吉大明侵略部署決定	
	4	11	慶尙右兵使曹大坤遞 (金誠一代任)		
		13		日本先陣侵略	

(2) 宣祖 25年(壬辰) [明萬曆20年 日文祿元年 西紀 1592年]

月	日		干支	朝 鮮	日 本	明
	明曆	日曆				
4	14	13	壬寅	釜山鎭戰鬪(鄭撥戰死)	小西行長等 上陸侵攻	
	15	14	甲辰	東萊城戰鬪(宋象賢戰死)		
	17	16	丙午	鵲院關戰鬪 巡邊使李鎰以下出動	加藤清正等 上陸侵攻	
	18	17	丁未		彥陽攻略(淸正等)	
	19	18	戊申	金海城戰鬪	黑田長政等 上陸侵攻	
	20	19	己酉	三道都巡邊使申砬以下出動		
	21	20	庚戌	第1次慶州戰鬪	慶州攻略(淸正等)	
	22	21	辛亥	兵曹判書洪汝諄을金應南과交代	秀吉이 侵略軍狀況報告入手	
	24	23	癸丑	義兵招募에着手 (招募使金誠一, 郭再祐起兵)		
	25	24	甲寅	尙州附近戰鬪(第1次)	行長等 尙州攻略	
	26	25	乙卯	聞慶戰鬪	咸昌, 聞慶攻略, 鳥嶺通過	
	27	26	丙辰	右議政李陽元을漢城都檢察使에 任하다		
	28	27	丁巳	忠州附近戰鬪(申砬戰死) 去邠之議 建儲之議 秋風驛戰鬪	長政等 星州에서 金山侵攻	
	29	28	戊午	光海君琿을王世子로封하다 西幸之議決定		
	30	29	己未	棄城西幸		
5	1	1	庚申	宣祖開城到着		
	2	2	辛酉	領議政李山海罷職 漢江附近戰鬪	南漢江渡河(行長)	
	3	3	壬戌	平壤移守之議決定, 宣祖開城出發	漢城攻略	
	4	4	癸亥	都元帥金命元臨津固守之計		
	5	5	甲子	宣祖鳳山到着	諸軍漢城入城	
	6	6	乙丑	韓應寅을諸道都巡察使에 任하다		
	7	7	丙寅	宣祖平壤到着駐留, 玉浦및合浦海戰	玉浦海戰에 敗하다	
	8	8	丁卯	世子冊封之敎, 赤珍浦海戰	赤珍浦海戰에 敗하다	
	14	14	癸酉	慶尙左兵使李珏을斬하다 蟹踰嶺戰鬪(五月中旬)	蟹踰嶺에 敗하다	楊紹勳總兵이 明廷에 敵情報告
	16	16	乙亥	金千鎰起兵	漢城攻略報告를秀吉이 接受	
	17	17	丙子	請援使柳夢鼎急派를決定하였다가保留 臨津江戰鬪(劉克良戰死)	秀吉이 名護屋에 留駐 毛利輝元等 星州入駐	
	18	18	丁丑	副元帥申恪을斬하다		
	19	19	戊寅	李恒福을兵曹判書에 任하다		寬奠堡副總兵 佟養正義順舘到着
	20	20	己卯	湖南軍兵의亂을平定하다		
	22	22	辛巳	江原道助防將元豪에 加資		

→

→

月	日 明曆	日 日曆	干支	朝鮮	日本	明
	23	23	壬午	全羅左水使李舜臣에 嘉善을 加하다		
	26	26	乙酉	迎慰使柳根을 義州에 差遣	臨津江渡河	
	29	29	戊子	泗川船倉의 海戰 聖節使柳夢鼎을明에差遣	泗川海戰에 敗하다	
6	1	1	己丑	平壤城去守之議	諸道에分向	
	2	2	庚寅	寧邊移幸之議決定, 唐浦海戰	唐浦海戰에 敗하다	遼東精兵一枝를 發하여 應援하다
	3	3	辛卯		秀吉의 作戰部署決定下達	遼東鎭撫 林世祿 平壤에 馳到
	4	4	壬辰			
	5	5	癸巳	唐項浦海戰(第1次) 淮陽戰鬪(金鍊光戰死)	唐項浦海戰에 敗하다	
	6	6	甲午	龍仁戰鬪, 茂溪戰鬪	茂溪戰鬪에서守將村上景親이重傷하다	
	7	7	乙未	栗浦海戰, 平壤去守之議	栗浦海戰에 敗하다	
	8	8	丙申		先鋒이 大同江邊에 侵攻	
	9	9	丁酉	大同江會談(李德馨, 柳川調信等)		
	10	10	戊戌	北行之議決定, 龜尾浦戰鬪	龜尾浦에서全滅하다	
	11	11	己亥	宣祖平壤出發 肅川到着 請援使 李德馨 差遣 東大院 戰鬪		
	12	12	庚子	宣祖 安州 到着	毛利輝元等開寧에 入據	
	13	13	辛丑	李恒福의 內附之議	江東外灘渡河	林世祿安州到着, 答咨文傳達
	14	14	壬寅	宣祖寧邊에서渡遼之議決定 王世子江界路發向, 分朝下教, 王城灘附近戰鬪	大同江渡河, 平壤入城	副總兵佟養正의 使者義順舘到着
	15	15	癸卯	宣祖 博川 駐留 醴泉附近戰鬪		沈喜壽請兵을爲하여湯站駐往 同上駐還
	16	16	甲辰	告急使任命 (知中樞府事尹又新)		
	17	17	乙巳	宣祖定州駐留 遼東內附의 咨文을 通事로하여금 請援使 李德馨에 傳給	淸正等咸興侵攻	遊擊史儒 參將戴朝弁渡江
	18	18	丙午			史儒 參將郭夢徵 林畔舘到着 史儒義州還向, 遼東巡按御史李時孳의 使臣宋國臣宣川到着
	19	19	丁未	金化戰鬪(元豪戰死)		參將郭夢徵遊擊王守臣軍渡江
	20	20	戊申	宣祖龍川到着		遼東調兵參將郭夢徵 義州到着
	22	22	庚戌	宣祖 義州 到着		
	25	25	癸丑	昌城進駐之議, 雲巖戰鬪(梁大樸)		
	26	26	甲寅	海路南行之議, 義州久住之計決定, 武科設定		左議政尹斗壽 祖承訓을 問安하다
	27	27	乙卯			
	29	29	丁巳	金海府使徐禮元 白衣從軍 忠淸兵使申翌 白衣從軍		
7	1	30/6	戊午			明使徐一貫 黃應暘來着하다

→

月	日		干支	朝 鮮	日 本	明
	明曆	日曆				
	2	1	己未	大同察訪尹[illegible] 安州牧使李民覺, 肅川府使洪世英, 寧邊判官 黃沂을 白衣從軍	秀吉이 淸正의 臨津戰功을 賞하다	明使歸還
	4	3	辛酉	王世子谷山到着		遼東都指揮司移咨
	5	4	壬戌	趙憲, 高敬命等義兵이 蹶起하다		
	7	6				明總兵楊紹勳等渡江의 通報到着
	8	7	乙丑	熊峙戰鬪(鄭湛戰死) 梨峙戰鬪 閑山島前洋海戰	梨峙攻擊에서 敗退하다 閑山島海戰에서 敗하다 (脇坂安治)	
	9	8	丙寅	錦山第1次戰鬪 (高敬命等戰死)		
	10	9	丁卯	安骨浦海戰 全州附近戰鬪 牛脊峴戰鬪	安骨浦海戰에서敗하다 (九鬼嘉隆) 全州에서撤退하다 (小早川隆景) 牛脊峴에서退却하다	
	17	16	甲戌	第一次平壤城戰鬪	明軍을擊退하다	祖承訓平壤城을攻擊하여 失敗하다(史儒等戰死)
	18	17	乙亥	海汀倉附近戰鬪 (元喜等戰死		
	22	21	己卯	全羅前監司李洸 白衣從軍		
	23	22	庚辰	謝恩使申點 明나라에서 歸還鞠景仁의 亂	淸正等會寧에入城하다	
	24	23	辛巳	鳳山附近戰鬪	日本軍五百餘名擊退潰走하다	
	27	26	甲申	永川城戰鬪 義兵將權應銖에通政을賞加하다 第2次茂溪戰鬪(金俊民)	永川城戰鬪에서敗退하다	
	28	27	乙酉	王世子成川에向하다 玄風戰鬪	玄風, 昌寧, 靈山서撤退하다	
8	1	29/7	戊子	淸州戰鬪, 第2次平壤戰鬪 (李元翼敗退)	淸州城에서撤去하다	
	2	1	己丑	奴谷戰鬪(金虎戰死)		尹根壽를狄江에差遣하여 副總兵佟養正에請兵 尹根壽歸還
	3	2	庚寅	居昌戰鬪		
	4	3	辛卯			李德馨 明將楊紹勳에게 請兵함
	6	5	癸巳	長湍戰鬪		
	7	6	甲午	金誠一右監司, 韓孝純左監司		大司憲李德馨과佟養正會見하다
	13	12	庚子	趙儆 邊應星 白衣從軍		司諫李幼澄 明總兵佟養正에게 來援을 請하다
	16	15	癸卯	順安戰鬪	順安進攻에서擊退되다	
	18	17	乙巳	第2次錦山戰鬪 (趙憲父子等戰死)		14日에工曹判書韓應寅이 佟副總兵에게來援을請하였다
	20	19	丁未	第2次慶州戰鬪		
	21	20	戊申	第1次星州戰鬪		24日陳奏使 知敦寧府事鄭崐壽 發兵을請
	22	21	己酉	小川戰鬪(柳宗介戰死)		25日司諫李幼澄이 速援을 巡按에게 呈文
	25	24	壬子	鴒原山城戰鬪(金悌甲戰死)		
	29	28	丙辰		秀吉生母死去로大阪에歸還하다	遊擊沈惟敬順安到着
9	1	29/8	丁巳	釜山浦海戰(鄭運戰死)	小西行長 沈惟敬會談(降福山下)	沈惟敬朝日間境界線設置

→

→

月	日		干支	朝鮮	日本	明
	明曆	日曆				
	2	1	戊午	延安城防禦戰鬪	黑田長政 延安城 解圍退散	問禮官許筬을湯站에差遣
	3	2	己未			明使薛藩(發兵救援勅書)來着
	5	4	辛酉			明使歸還
	7	6	癸亥	第3次慶州戰鬪	清正等 鏡城에서安邊으로撤退	
	8	7	甲子	尹根壽韓應寅이中路에沈惟敬往見	慶州棄城, 西生浦通還	
	9	8	乙丑	忠淸監司尹先覺削奪官爵	羽柴秀勝病死 茂溪에서撤兵(11日丁卯)	
	11	10	丁卯	第2次星州戰鬪		
	13	12	己巳	忠淸兵使李世灝罷職從軍		
	14	13	庚午	聖節使柳夢鼎歸國		
	16	15	壬申	義兵大將鄭文孚鏡城奪還	鏡城戰鬪에敗하다	
	17	16	癸酉		茂朱錦山에서撤兵	寧夏平定
	20	19	丙子	延安守城將李廷馣에加資		
	21	20	丁丑	禮曹參義閔仁伯白衣從軍	秀吉이京都에서清正使者引見	
	22	21	戊寅			尹根壽等 狄江에서 參將駱尙志會見
	30	29	丙戌	仁同戰鬪(張士珍戰死)		
10	3	2	己丑	露峴및昌原戰鬪	2日秀吉이名護屋에向發	
	4	3	庚寅			副總兵佟養正 參將駱尙志渡江來着
	6	5	壬辰	↑	晋州城을攻圍開始	
	9	8	乙未	第1次晋州城戰鬪		遊擊葛逢夏副總兵査大受行在衛護
	10	9	丙申	↓	攻圍에失敗撤歸	
	16	15	壬寅			提督李如松 赴援케하다
	18	17	甲辰	朔寧附近戰鬪(沈岱戰死)		
	20	19	丙午	金貴榮 李瑛 官爵削奪		
	21	20	丁未	金悌甲에加資		
	25	24	辛亥	王世子成川에서安州路發向	中川秀政 陽智에서敗死	宋應昌 遼陽에到着
	27	26	癸丑	鄭運, 邊應井에追贈官爵		
	30	29	乙卯	吉州長坪(長德山)戰鬪	長坪(長德山)戰鬪에敗하여吉州城에 遁入하다	
11	2	1	戊午	王世子 肅川到着		
	3	2	己未			
	4	3	庚申	李洸을 碧潼에 流配		
	5	4	辛酉	王子 信城君珝 卒하다		
	7	6	癸亥	幼學南以順等禪位를上疏 王世子安州到着		沈嘉旺平壤에서遼東歸還
	10	9	丙寅	咸興附近戰鬪		宣祖鄭文彬 (山西潞安府同知)接見
	12	11	戊辰	權慄三道義兵을統率하다	鄭文孚의吉州城包圍, 苦戰하다	獻納金庭睦을遼東에差遣
	14	13	庚午	沈岱追贈, 星州第2次戰鬪(任啓英)		
	16	15	壬申	尹根壽 遼東에서 歸還		
	17	16	癸酉	利原戰鬪		宣祖 沈惟敬接見
	18	17	甲戌	前永興府使安世熙削職從軍		

→

→

月	日 明曆	日 日曆	干支	朝鮮	日本	明
	19	18	乙亥	決戰之議		22日工曹判書韓應寅을催兵으로遼東差遣
	24	23	庚辰	沈守慶에게 建義大將의 號를加하다	淸正이 吉州에 急援兵 派遣	
	26	25	壬午			沈惟敬 平壤에 再往하다
	28	27	甲申	金睟를三道巡察使에任하다		
	29	28	乙酉	尹根壽等 九連城에서 回來復命		
	?			龍仁金嶺戰鬪 (京畿進士元埏)		
12	1	29/11	丁亥	金睟罷職, 中和戰鬪 (尹鵬戰死)		
	2	1	戊子	全羅防禦使郭嶸拿鞫定配		經略宋應昌 韓應寅 接見
	4	3	庚寅	柳成龍을平安道都體察使에任하다		
	8	7	甲午	陳奏使 鄭崐壽一行 歸還		提督李如松遼東到着
	10	9	丙申	雙浦戰鬪(鄭文孚)	雙浦에서敗走	
	11	10	丁酉			遼東都司張三畏 尹根壽接見
	13	12	己亥			游擊王必迪 樓大有 領兵渡江하다
	14	13	庚子	第3次星州戰鬪	星州城에서撤去	游擊吳惟忠 領兵渡江
	?			禿城山城戰鬪	禿城山城攻擊을 斷念하고撤退	宋應昌,李如松 吏曹判書李山甫와 個別面接
	17	16	癸卯	經略宋應昌의 移咨文接受		
	21	20	丁未			張三畏 安州에서 龍灣舘에 到着
	23	22	己酉			李如松鳳凰城에서閔汝慶接見
	25	24	辛亥			提督李如松大兵領率渡江
	28	27	甲寅	王世子安州到着		李如松義州出發
	29	28	乙卯	王世子寧邊到着		
	?			咸昌戰鬪		李如松 定州 到着

(3) 宣祖 26年(癸巳)[明萬曆21年 日元祿 2年 西紀 1593年]

月	日		干支	朝鮮	日本	明
	明曆	日曆				
1	1	29/12	丙辰			備禦王价 領兵渡江
	3	2	戊午			李如松 安州到着, 柳成龍接見
	4	3	己未		竹內吉兵衛等 順安에서 生擒되다	
	6	5	辛酉	↑		經略贊畫袁黃渡江
	8	7	癸亥	第3次平壤城攻擊	行長 平壤城 撤收 退却	第3次平壤城 攻擊戰鬪(李如松)
	9	8	甲子	↓		李如松平壤入城
	11	10	丙寅	謝恩使寅城府院君鄭澈差遣		
	15	14	庚午	星州城收復	星州城에서 撤兵	
	18	17	癸酉	宣祖義州出發, 吉州城南門外戰鬪	行長 漢城에 遁入	
	22	21	丁丑	康陵 泰陵 掘破之報	三奉行이 漢城退却決定	
	23	22	戊寅	端川戰鬪		
	27	26	壬午		碧蹄舘에서 李如松軍을 擊退	碧蹄舘戰鬪(李有昇等戰死)
	28	27	癸未	白塔郊戰鬪(李希唐等戰死)	吉州城에서撤兵	
	30	29	乙酉	竹山戰鬪(召募使邊以中)		李如松軍 開城集結
2	10		乙未	進賀兼奏聞使韓準을 差遣	第1次熊川海戰	
	12		丁酉	幸州山城戰鬪(權慄)	山城攻擊에 大敗하고 吉川廣家戰傷	
	15		庚子	第2次熊川海戰	加藤清正의安邊會談	馮仲纓의 安邊會談
	16		辛丑		秀吉 平壤敗報에 接하다	
	18		癸卯	第3次熊川海戰		李如松 平壤에 退却
	20		乙巳		吉州以南兵力을 咸興에 集結	
	22		丁未	第4次熊川海戰		
	24		己酉			經略宋應昌 渡江
	27		壬子		諸將 漢城에 會盟	
	29		甲寅	30日, 第2次尙州戰鬪	清正 漢城에 後退集結	
3	4		己未	奏聞使洪麟祥差遣,		馳啓, 馮仲纓과 加藤清正會見(嚮導將崔遇)
	7		壬戌	宣祖 肅寧舘에 李如松提督接見	龍山第1次會談	
	9		甲子			皇帝 銀3千兩賜送
	10		乙丑		秀吉이 漢城撤退를 命하다	宋應昌 尹斗壽接見
	11		丙寅	慶尙右兵使金沔卒		
	13		戊辰			李如松 遞代를 自請

→

→

月	日		干支	朝 鮮	日 本	明
	明曆	日曆				
	15		庚午		行長 沈惟敬과 龍山第2次會談	
	21		丙子	宣祖의 哀痛敎書下達		
	24		己卯	宣祖 大同舘에 李如松接見		
	27		壬午	曹好益에 招討使, 權慄에 都巡察使		副總兵劉綎 5千名을 거느리고 渡江
	29		甲申	蘆原坪牛貫洞戰鬪	蘆原坪牛貫洞戰鬪에 敗하다	管理錢糧王君榮 宣祖와 接見
4	2	1	丙戌	奏請使 張雲翼 差遣		
	7	6	辛卯		秀吉의 撤退命令 漢城到着	李如松 開城에 進駐
	8	7	壬辰		龍山 第3次會談	
	12	11	丙申	僧惟政을 堂上特陞		
	18	17	壬寅		漢城屯據軍撤退南下	謝用梓 徐一貫 京城到着
	19	18	癸卯			副總兵劉綎 肅川舘到着
	20	19	甲辰			李如松 漢城入城
	29	28	癸丑	慶尙右道觀察使金誠一卒		
5	2	1	乙卯			李如松 漢城을 出發南下
	9	8	壬戌		行長 三奉行 明使一行과 釜山浦出發	謝用梓 徐一貫 日本에 渡海
	19	18	壬申	北道兵使成允文의 遞差를 許		17日,周維翰來朝
	20	19	癸酉	謝恩上使鄭澈一行差遣		
	21	20	甲戌		秀吉晋州攻城의 方略을 定하다	
	23	22	丙子	二王子等 釜山浦에 到着	秀吉이 明使接見	名護屋會談
6	2		乙酉	聖節使洪麟祥(吏曹參判)差遣 翌日停行	小西行長 石田三成等 釜山浦에 歸還	
	6		己丑	都元帥金命元遞差, 權慄을 代任		遊擊將戚金副總兵으로 陸進(未詳日)
	18		辛丑		晋州城攻圍에 着手, 先鋒馬峴到着	
	20		癸卯		黃廷彧을 還送	
	22		乙巳	↑		
	24		丁未	第2次晋州防禦戰鬪(金千鎰以下戰死)		
	29		壬子	↓	晋州城 陷落	28日 謝, 徐 兩使 名護屋出發歸還
7	7	6	己未	戶曹判書李誠中卒		
	8	7	庚申		內藤如安(小西飛)漢城來着	沈惟敬日本使와 同行漢城來着
	15	14	丁卯		13日秀吉이 輝元 隆景等을 召還하다	謝用梓 徐一貫 日本에서 釜山到着
	16	15	戊辰	奏請使 黃璡 出發		
	22	21	甲戌	二王子明使一行과 同途 釜山出發 還都		
	?			李舜臣 閑山島에 移營	3日 秀吉의 子 秀頼 出生	

月	日		干支	朝鮮	日本	明
	月曆	日曆				
8	6	5	丁亥	宣傳官으로 하여금 二王子護來케 하다	秀吉在鮮軍歸還을 命하다	第4次慶州戰鬪(吳惟忠등)
	7	6	戊子	晋州城殉節將에 追贈하다	淺野長吉父子 毛利重政 羽柴秀勝軍등撤退	8日 明軍3萬餘名이 漢城에서 出發(楊元, 李如松, 張世爵, 査大受, 錢世禎, 李如梅)
	9	8	庚寅	黃廷彧을 吉州에 遠竄케 하다		
	10	9	辛卯	二王子夫人等入京		李如松漢城을 出發하여 遼東歸還
	14	13	乙未	19日(庚子)訓練都監 設置		宣祖 黃州에서 李如松, 楊元을 接見
	27	26	戊申		25日 秀吉이 大阪에 歸還하다	經略宋應昌 義州에 還到
	28	27	己酉		加藤光泰 死亡	李如松 龍川에서 義州에 還到
	30	29	辛亥	李舜臣을 三道水軍統制使로 陞用	內藤如安(小西飛)沈惟敬 同道漢城出發	
9	7	6	戊午	豆恥伏兵將長興府使柳希先을處斬		5日에 遼東巡按周維翰平壤에 到着
	8	7	己未	星州牧使郭再祐를 慶尙右道助防將에 任	島津久保 死亡	
	10	9	辛酉	左承旨洪進을 漢城府判尹에 任		
	11	10	壬戌	冬至使許晋을 明에 派遣		
	13	12	甲子	遠接使尹根壽 宋應昌隨行	伊達政宗撤退	宋應昌 李如松 渡江歸遼
	23	22	甲戌	宣祖 延安에 到着		劉綎이 都督으로 陞進裁可
	29	28	庚辰	咸安및熊川安民嶺戰鬪(全羅兵使宣居怡戰傷 義兵將崔堈勇戰)	熊川 安民嶺戰鬪에 失敗하다	
10	1	29	辛巳	宣祖 京城에 歸還		
	5	閏4/9	乙酉	王世子海州駐留		劉綎을 備倭副總兵署都督僉事에 任
	6	5	丙戌	慶尙左右道를 合하다		
	15	14	乙未	宣陵 靖陵에 慰安祭를 行하다		
	20	19	庚子	忠淸監司 許頊을 拿鞫		
	22	21	壬寅	京畿防禦使에 邊應星을 任		
	24	23	甲辰	斬首及第制 施行		
	25	24	乙巳	領議政崔興源遞 柳成龍을 領議政에 任		
	27	26	丁未	第1次永善戰鬪(巡邊使李薲)		
	28	27	戊申	前兵使邊彦琇를 斬		
	30	29	庚戌	大司成禹性傳 削職	宇喜多秀家, 毛利秀元, 福島正則등撤退完了)	
11	3	2/10	癸丑			
	6	5	丙辰	宣祖 游擊胡尙忠을 接見		九日에 皇帝의 聖諭傳達(遼東都司張三畏)
	12	11	壬戌	宣祖 鳥銃親製		
	17	16	丁卯	宣祖 內禪의 뜻을 거두게 하다		遼東都司張三畏還遼
	18	17	戊辰	宣祖 戚金接見		副總兵戚金漢城歸還到着(兵力 1千, 遊擊將에서 陞叙)

→

月	日		干支	朝鮮	日本	明
	明曆	日曆				
	25	24	乙亥	尹根壽 遼東에서 歸還		
	27	26	丁丑	王世子海州出發, 王妃海州駐留		
	30	29	庚辰	第2次永善戰鬪 (趙希仁戰死)		
閏11	1	30/10	辛巳	宣祖 南別宮接見(胡澤, 戚金, 沈思賢)		戚金이 柳成龍, 崔興源歷訪
	3	2/11	癸未		小西行長沈惟敬에게 書面抗議	譚宗仁 熊川派遣
	10	9	庚寅	謝恩使鄭澈歸還	譚宗仁을 熊川營에 軟禁	沈惟敬 宣祖 接見
	12	11	壬辰	皇帝勅使來京(司憲)		勅使行人司行人司憲來朝
	14	13	甲午	宣祖 內禪之意		
	19	18	己亥	王世子 湖南向發		南別宮에서 勅使 餞宴
	20	19	庚子	勅使 離京		劉綎 入京하여 勅使와 面談
	23	22				劉綎 嶺南으로 歸還
12	2	1	辛亥	鳥銃, 三穴銃, 鐵丸製作		
				安康戰鬪(高彥伯등)		安康戰鬪(吳惟忠등)
	7	6	丙辰	謝恩使金睟, 兩湖巡邊使李鎰		劉綎이 星州八莒還駐
	13	12	壬戌	金德齡起復從軍		經略宋應昌과 顧養謙交代新任
	21	20	庚午	請糧使許頊(18日鄭澈卒)		劉綎이 王世子全州進駐催促
	23	22	壬申	漢城에 武科設置(鳥銃)		
	24	23	癸酉	安集使鄭崐壽, 副使權徵		千總邵應忠의 放砲變陣法
	25	24	甲戌	賑恤御史 李時彥 (王世子全州到着)		遼東巡撫差官 錢萬照入京
	30	29	己卯	金德齡에 忠勇軍號 土賊의 亂		駱尙志등 撤兵하여 京城에 向하다

(4) 宣祖 27年(甲午) [明 萬曆22年 日 文祿 3年 西紀 1594年]

月	日		干支	朝鮮	日本	明
	明曆	日曆				
1	3	2	壬午	宋儒眞 謀逆하다	伏見城 造營에 着手	
	5	4	甲申	忠勇將 金德齡 除職		
	9	8	戊子	請糧使 許頊 發向		
	14	13	癸巳	賊魁 宋儒眞을 京中에 拿來		
	22	21	辛丑	奏請使 黃璡을 拿來	23日 福島正則 大阪에서 다시 渡海侵略	20日 沈惟敬 熊川出發(關白降表)
	25	24	甲辰	宋儒眞 處斬		
	29	28	戊申	告急使李廷馨을 遼東에差遣		
2	2		辛亥	近臣高仁恕를 遼東에 差遣	加藤淸正이 左兵使高彦伯에게 通信(未詳日)	
	7		丙辰		高彦伯이 淸正에게 蔣希春 派遣(未詳日)	沈惟敬 所謂 關白降表를 京城에 齎來
	10		己未			副總兵 戚金 遼東發向
	11		庚申	王世子 全州에서 公州回駐		
	19		戊辰	慶尙右兵使成允文 罷職(朴晋交代)	21日 淸正의 答書(蔣希春)	駱尙志, 宋大斌, 谷燧등 歸國(日未詳)
	23		壬申	王世子定山靑陽經由洪州到着		
3	3		辛巳			劉綎星州에서全羅道移向
	4		壬午	第2次唐項浦海戰, 鎭海 固城海戰	水軍船撞破	指揮譚宗仁 舜臣에게 牌文 傳達
	9		丁亥		4日, 淸正에게 李謙受派遣(劉綎)	劉綎 南原 留陣
	10		戊子	冬至使 許晋 歸還	小西行長이 劉綎에게 書面抗議(5日海戰)	
	14		壬辰		九鬼嘉隆 다시 渡海侵略(未詳日)	遊擊 周弘謨 來京
	21		己亥	降倭의 焰硝煮取		
	29		丁未	鎭管制實施	長谷川秀一 死亡	王必迪歸國(未詳日)
4	4		壬子	賊胡 甘坡堡 陷落의 馳報(尹卓然), 禪位 速擧의 命	1日, 淸正의 劉綎에게 대한 答書	
	6		甲寅	閑山島 設科		
	12		庚申			
	13		辛酉		淸正과 僧惟政의 第1次會談(西生浦)	
	17		乙丑	延安府使 朴應寅 罷職		
	23		辛未			周弘謨 任實에서 病死 彭士俊 來京
	25		癸酉			參將胡澤 守備李大諫來京
	26		甲戌	朴東亮 兵曹參議, 李聖任 吉州牧使에 任		
	?			宣祖 哀痛敎書 宣布		
5	1		戊寅	聖節使 黃佑漢 差遣	降倭60餘名을 諸將에게 分屬(5日)	6日, 豐臣秀吉 擒斬之議
	13		庚寅	梁山郡守邊夢龍 拿來(敵에 通書)		

→

→

月	日 明曆	日 日曆	干支	朝鮮	日本	明
	24		辛丑	金應瑞를 慶尙防禦使로 復起		17日，胡澤，宣祖接見(封貢奏請決議)
	27		甲辰	全羅監司李廷馣을 遞 (求和保全)		
6	4		辛亥	兵曹判書李德馨을遞(喪中) 金應瑞，高彥伯(慶尙兵使) 有隙		遼東都司張三畏 封貢奏請을 勸하다
	5		壬子	沈忠謙을 兵曹判書에 任		
	10		丁巳			把總張鴻儒 來京後 歸明
	13		庚申			行人司憲을 削職
	18		乙丑	謝恩使金睟 歸還		
	24		辛未	水原府使李廷鸞 寧越郡守李邦弼 罷職		
	25		壬申	京畿防禦使邊應星을 起復察任	26日，淸正에게 李謙受派遣	參將胡澤 遼陽 還向
	29		丙子	黃璡을 全州府尹에 任		
7	3		己卯	李廷馣을 全州府尹에 任		
	4		庚辰			孫鑛(兵部左侍郞)을 經略에 任
	11		丁亥	倭人劍槍法의 傳習		
	12		戊子	義嚴大師를 都總攝으로	淸正 惟政의 第2次會談	
	26		壬寅	李恒福을 兵曹判書에 任		
	27		癸卯	鍾城府使 金景福 遞差		
	28		甲辰	江界府使 梁思俊 遞差 徐渻을 慶尙道觀察使에 任	五島純玄 死亡 (五島玄雅가 代任)	
	29		乙巳	江界府使金星報 再遞差 仁川府使金纘 罷職	吉川廣家 다시 渡海侵略 東萊城 守備(未詳日)	
8	2	1	丁未	鏡城府使 金鋏等 遞差		總兵劉綎 南原에서 漢城向發
	6	5	辛亥	尹斗壽(左議政) 全羅道體察使에 任		
	9	8	甲寅	冬至使 閔汝慶 一行을 差遣		
	11	10	丙辰	邊夢龍을 充軍自效		
	13	12	戊午		萱島木兵衛等 投降意思表明	劉綎入京
	22	21	丁卯	尙州牧使 鄭起龍을 討捕使堂上에 陞	19日，萱島를 折衝將軍行上護軍으로 任命	
	23	22	戊辰	王世子 水原府 到着		
	24	23	己巳	海州兵使 趙仁得 遞差		
	25	24	庚午	王世子 入京		
	28	27	癸酉	固城戰鬪 (伏兵將 崔堈 義兵將 金德齡)	行長 義智等 金應瑞에 修交를 請하다	
	30	29	乙亥	行長 修交書를 利用하는 行間策		
9	3		戊寅	宣居怡를 忠淸兵使로 任	立花統虎 高橋統增 撤退(未詳日)	
		12	丁亥	奏請使 許頊 北京 入城		劉綎 歸國
		18	癸巳	世子攝政之命		

→

→

月	日 明曆	日 日曆	干支	朝鮮	日本	明
	29		甲辰	第1次長門浦海戰 (李舜臣 元均等)	長門浦에서 應戰치 못하다	24日, 指揮周應奎 來京
10	2		乙巳	永登浦海戰 (李純信 李雲龍等)	柳川調信에게 諭書	
		4	丁未	第2次長門浦海戰	要時羅와李克試의東萊面談	
		6	庚戌	朴晋을 順天府使에 任	3日에 淸正에게 王子書信을 交付	
	11		乙卯	易水部落戰鬪 (北兵使鄭見龍)	16日, 吉川廣家撤退(未詳日)	
	13		丁巳	都體察使尹斗壽 南原에서 歸京	小西行長이 禮曹判書에게 書信(小西飛 傳達)	經略差官徐龍 孫統 入京
	18		壬戌	投順軍 編成(李榮白領率)	13日, 行長과 淸正에 대한 反間之計	
	25		己巳	王世子嬪 入京(海州에서)		
	30		甲戌	尹斗壽(左議政) 遞免	島津忠恒 渡海侵略(未詳日)	
11	6		庚辰	兪泓을 左議政, 金應南을 右議政	小西行長이 金應瑞에게 面談要請	
	8		壬午	李德馨을 吏曹判書에 任	金應瑞(右兵使)가 李弘發을 熊川에 派遣	
	19		癸巳	兵曹正郎 李成吉을 遞	18日, 金應瑞 行長 使臣과 接見	
	22		丙申	僧惟政을 僉知中樞府事로 (1日)	咸安會談	
12		29/11	甲辰	元均을 忠淸兵使, 宣居怡를 忠淸水使에 任	伏見城 落成, 秀吉이 秀賴와 같이 入城	4日, 錢立仁 賈鴻儒 譚德 來京
	13	12	丙辰	宋象賢(東萊府使)을 褒賞表忠하다	內藤如安 早田四郎兵衛 朝見禮(北京)	6日, 参軍葉靖國 來京
	14	13	丁巳	南陽府使를 遞		
	19	18	壬戌		脇坂安治 다시 渡海侵略 安骨浦城(月日未詳)	遊擊陳雲鴻 遼東에서 來京
	22	21	乙丑	宣祖 駱一龍 接見		守備 駱一龍 來京
	23	22	丙寅		淸正 惟政의 第3次會談 (淸正 不出席)	
	25	24	戊辰	左議政 兪泓 卒		
	29	28	壬申	郭再祐를 晋州牧使兼右道助防將		
	30	29	癸酉		內藤如安 小西行長等의 授職을 請하다(北京)	李宗城을 冊封正使, 楊方亨을 副使로 하다

(5) 宣祖 28年(乙未)〔明 萬曆23年 日 文祿 4年 西紀 1595年〕

月	日		干支	朝鮮	日本	明
	明曆	日曆				
1	13		丙戌		小西行長 陳雲鴻과 會見(第1次熊川會談)	遊擊陳雲鴻 熊川日本營에 到泊 (21日出營)
	24		丁酉	李山海를 領敦寧府事로 任		
	26		己亥	春川府使 沈友勝罷職		
	30		癸丑			册封使一行 北京出發
2	1		甲辰	鄭琢을 右議政, 俞大儀를 兵曹正郞에 任		
	4		丁未	慶尙道에 左右監司를 復置하다		
	11		甲寅		小西行長 婁國安等과 會談(第2次熊川會談)	兵部差官婁國安, 馮堂日本營訪問
	23		丙寅	黃璡을 義州牧使, 洪世英을 穩城府使에 任		
	28		己巳	左議政金應南을 都體察使로 任		
	28		辛未			都司章應龍 西生浦 日本營 訪問
	3		丙子		加藤淸正章應龍等과 會談(西生浦第四次會談)	
3	4		丁丑			陳雲鴻 歸還
	7		庚辰	兵判 李恒福과 吏判 李德馨과 相替		
	12		乙酉	李憲國을 刑判에 任		
	27		庚子	奏請使 尹根壽 歸還 (皇帝勅諭)		王世子 全慶總督任命(明나라 皇帝勅命)
4	3		乙巳	穩城府使 崔鉠을 遞改		
	7		己酉	4日에 宣祖 王世子 軍務專決의 命을 거두다	內藤如安(小西飛) 沈惟敬同道歸還	遊擊沈惟敬 漢城 到着 册封正使一行 義州 到着
	8		庚戌	謝恩兼奏請使韓準 差遣		
	10		壬子		島津義弘 撤退(日未詳)軍隊殘置	參將劉維藩 到着後 南原向
	11		癸丑	黃愼을 沈惟敬 隨行으로 定하다		
	14		丙辰	趙仁得을 兵曹參知로 任		
	19		辛酉	韓孝純을 兵曹參判에 任	沈惟敬 釜山 日本營에 入	
	25		丁卯	聖節使閔仁伯 差遣		
	23		庚午			册封使 漢城入城
	30		壬申		行長 渡海歸國, 沈惟敬 日本營에 留	
5	1		癸酉		↑	遊擊陳雲鴻 兵部에 馳報
	2		甲戌	趙仁得은 兵曹參議, 黃佑漢을 京畿監司		
	8		庚辰			千總李大諫等 正使에게 稟帖呈上
	11		癸未	李思命을 京畿水使로 任		
	20		壬辰	咸鏡監司 李希得을 遞差		

→

→

月	日 明曆	日 日曆	干支	朝鮮	日本	明
	21		癸巳	洪汝諄을 咸鏡監司로 任	小西行長 日本 滯留	
	29		辛丑	黃暹을 兵曹參議, 吳億齡을 兵曹參知	沈遊擊 釜山日本營 留住	
6	1		壬寅	李元翼을 右議政, 尹承吉을 平安監司		
	2		癸卯	宋言愼을 江原監司	7日 行長의 心腹人이 明差官을 隨行 入京	7日에 正使差官楊賓등 熊川에서歸京
	14		乙卯	安集使를 提調로 改稱	降倭 誘出之計	
	15		丙辰	咸鏡監司 洪汝諄 辭朝		
	18		己未	黃海監司 鄭光績을 遞差		
	24		乙丑		秀吉이 撤兵許可之報	參將劉維藩 入京
	25		丙寅			正使差官李恕 熊川에서 入京
	26		丁卯		小西行長 日本에서 熊川陣營歸還	指揮譚宗仁 日本營에서 出來
	28		己巳		29日 秀吉이 鍋島直茂에게 歸還命令	
	30		辛未		秀吉이 釜山, 東萊, 以外에서 撤退決意	正使差官 金嘉猷 熊川에서 上京
7	11		壬午		寺澤正成 渡海入寇, 15日秀次被殺	封倭副使 楊方亨 漢城에서 南下
	19		庚寅		宗義智 東萊移住	守備 熊正東 本國被擄男女를 收拾하다
	23		甲午		張萬祿 小西行長을 宣諭하다	正使答應官 張萬祿을 嶺南에 派遣
	24		乙未			楊方亨副使 居昌 到着
	26		丁酉	都元帥 權慄을 遞 右議政李元翼을 都體察使兼領元帥府事 三陟府事의 瞞報		
	27		戊戌	平安兵使 罷職(鐵山强盜)		
8	1		辛丑	全羅兵使李福男을 拿致杖治		
	4		甲辰			指揮 譚宗仁 上京歸着
	13		癸丑	建州衛 胡人 越境		譚宗仁 歸國 發向
	16		丙辰	冬至使 鄭淑夏 差遣		
	24		甲子	前三陟府使洪仁傑拿鞫定罪		
	28		戊辰	李恒福을 大提學		
9	4		癸酉	接伴使戶判金睟 正使隨行		封倭正使 李宗城 南下
	6		乙亥	邊應奎를 平安兵使로 任	立花統虎 高橋統增이 撤退(未詳日)	
	15		甲申	文官宰臣을 舟師大將으로 하다		正使 南原 到着
	17		丙戌	前全羅兵使 李福男을 拿來入京		
	22		辛卯	金命元을 左參贊, 韓準을 右參贊		
	24		癸巳	趙儆을 北兵使 柳根을 漢城府判尹		
	29		戊戌	南兵使 林詗을 遞差		

→

→

月	日		干支	朝鮮	日本	明
	明曆	日曆				
10	1		庚子	柳根을 京畿監司 邊良俊을 南兵使		
	9		戊申	權慄을 漢城府判尹, 李山海를 大提學		
	10		己酉			副使楊方亨 釜山日本營에 入
	12		辛亥	四道都體察使設置(14)	小西行長 楊方亨 會見	
	14		癸丑	朴弘老를 忠淸監事		
	15		甲寅	平安兵使申礏을 推考治罪	吉川廣家 歸國하여 伏見城에서 秀吉接見	
	24		癸亥	大提學 李山海 遞差	28日, 鍋島勝茂 渡海侵略, 直茂撤退	李宗城一行南原 歇荒山出發
11	1		己巳	李成男等 謀叛		
	7		乙亥	王子定遠君琈夫人解產 (綾陽君倧, 仁祖)		
	10		戊寅	王妃 還宮		
	16		甲申			
	22		庚寅		小西行長 柳川調信으로 하여금 秀吉에 馳報	正使一行 釜山陣營에 入
	23		辛卯	兵曹判書 李德馨 胡大受(遊擊)往見 尹根壽 左贊成, 李恒福 右參贊	↑	正使 釜山界限 立柱를 累言하다
	30		戊戌	權慄을 戶曹判書	柳川調信 日本滯留	
12	5		癸卯		脇坂安治再侵, 安骨浦城守備, 九鬼嘉隆撤退(月日未詳)	遊擊胡大受 差官余希允 滿浦鎭에서 入來
	26		甲子	奏請使 韓應寅을 差遣	↓	
	29		丁卯		柳川調信 歸還 (惟敬에게 我國使臣 派遣 要請)	

(6) 宣祖 29年(丙申)〔明 萬曆24年 日 慶長元年 西紀 1596年〕

月	日 明曆	日 日曆	干支	朝鮮	日本	明
1	4	3	辛未	兵判李德馨 沈懋時 往見	小西行長 沈惟敬 同道 日本으로 歸還	參軍沈懋時釜山에서入京
	15	14	壬午	忠勇將 金德齡 掌鞫後 特赦	敵의各陣撤退準備着手	16日,沈懋時는 使臣派遣을 要請
	17	16	甲申	韓德遠을 江原監司		
	21	20	戊子	戶曹參判具宬을陳奏使로差下		
	26	25	癸巳	權慄을 都元帥에復하다		
				李恒福을 大提學에	釜山城 毛利元康등 撤退(日未詳)	
	29	28	丙申	鄭述를 江原監司	長機城 黑田長政등 撤退開始(同上)	
2	1		戊戌	前忠淸監司 朴弘老 罷職	安骨浦城 脇坂安治등 撤退開始(日未詳)	遼東察院差官 程學聖등 釜山訪問(日未詳)
	14		辛亥	毒藥과 各樣火器製法의 敎授	金海城 勝茂등 撤退開始.	
	15		壬子	郭再祐를 助防將에 任	巨濟島城 戶田勝隆 福島正則 등 撤退開始(日未詳)	
	17		甲寅	日本陣法의 學習,鍊兵敎師		遼東巡按差官鐵萬照釜山訪問(日未詳)
	19		丙辰	李用淳을 慶尙左道監司		
3	2		己巳		要時羅(梯七大夫)李弘發會見	
	4		辛未	都元帥權慄 順天留駐 平安兵使 卒		
	5		壬申	善山府使裵楔慶尙道助防將兼		11日,兵部差官劉夢麟來京
	7		甲戌	李福男을 羅州牧使		11日,正使李宗城辭意表明
	17		甲申			遊擊胡大受差官余希允建州衛往復
	19		丙戌	本國陪臣二員日本同行要請(正使咨文)	加德島城 小早川秀包등撤退(日未詳)	千總劉朝臣釜山에서上京
	23		庚寅	兵部 回報		唐必勝 來京(正使差官)
4	3	2	己亥		行長名護屋에서 急據釜山歸着(沈惟敬 日本殘留)	封倭正使李宗城脫出逃避
	15	14	辛亥	李宗城件遼東都指揮使司에 移咨		李宗城 漢城 入來
	24	23	庚申	23日,李恒福이 千總羅秉臣 會見		李宗城 還國
5	2		戊辰		柳川調信 通信使 進來를 催促하다	
	3		己巳	4日에 遼東에서 咨文 3通이오다		楊方亨正使, 沈惟敬副使로 累進
	10		丙午		加藤淸正 西生浦 撤收歸還	
	21		丁亥			游擊陳雲鴻 北京에서 入京
	28		甲午	崔遠을 黃海兵使에 任		8日, 遊擊葉靖 入京 宣祖接見
6	3	2	己亥	進慰使 盧稷(吏判)差遣		
	15	14	辛亥		行長松浦鎭信等 明使와 同行歸國	楊方亨 釜山 出發
	25	24	辛酉	黃愼 朴弘長을 跟隨使臣으로 하다	釜山에 宗義智 加德島에 島津忠恒만 殘留	
7	6		辛未	李夢鶴 鴻山(扶餘)亂		
	8		癸酉			誥勅 釜營에 到着 (兵部差官 劉應選)

→

月	日 明曆	日 日曆	干支	朝 鮮	日 本	明
	9		甲戌	奏聞使 柳永詢(工曹參判)差遣		
	11		丙子	李夢鶴 被殺		
	17		壬午	韓絢誅殺		
8	4	閏7 3/7	己亥	金德齡 親鞫, 獄死		中軍 李大諫등 渡日(誥勅)
	8	7	癸卯	通信使 黃愼一行 渡海	柳川調信 渡海 9日부터 大地震(1個月間)	
	19	18	甲寅	冬至使朴東亮 (吏曹參判)差遣		
	21	20	丙辰	兵曹判書 李德馨 辭任		
	23	22	戊午	李恒福을 兵曹判書에 任	25日, 通信使一行府中出發	李大諫등 通信使 一行과 同行
	27	26	壬戌	王世子 攝政下命		
閏8	9	8/8	癸酉	陳慰使 李軸(工判)差遣		李宗城을 下獄
	18	17	壬午		沈惟敬 秀吉과 接見	楊方亨 正使, 通信使堺濱到着
	28	27	壬辰	閑山島에 武科設置		
9	2	1	乙未		秀吉 大阪城에서 明使 接見	
	3	2	丙申			正使一行 大阪에서 堺濱歸着
	9	8	壬寅	通信使一行 明使同途 發程乘船		明使一行 堺出發
	20	19	癸丑	都體察使 李元翼 承命還朝		
10	10		癸酉		加藤淸正, 黑田長政등 再侵準備 着手	册封使 一行 名護屋 回到
	25		戊子			册封使 一行 對馬 島到着
11	7		己亥	領議政 柳成龍 淸野策을 啓하다		
	12		甲辰	告急奏聞使 鄭期遠 差遣		
	17		己酉	右議政兼下四道都體察使李元翼東下		
	22		甲寅	奏聞使 盧稷 歸朝		
	23		乙卯	通信使 黃愼 一行 釜山 到着		
12	8		庚午	復讐軍의 創設	小西行長 釜山 到着	
	21		癸未	通信使 一行 入京		册封使一行 釜山 回到
	24		丙戌		釜山 倭營에서 出火	
	27		己丑		文祿5年을 慶長元年으로 改元하다	

(7) 宣祖 30年(丁酉)〔明 萬曆 25 年 日 慶長 2 年 西紀 1597年〕

月	日 明曆	日 日曆	干支	朝鮮	日本	明
1	2	1	癸巳		小西行長 黃愼 往訪에 出見치 아니하다	
	6	5	丁酉			册封正使楊方亨 漢城入京
	14	13	乙巳		加藤淸正 渡海, 多大浦着岸 西生浦着陣	
	22	21	癸丑		淸正 僧惟政의 來見을 請하다	
	24	23	乙卯	告急使 權悏(僉知中樞府事)差遣		
	25	24	丙辰			册封副使 沈惟敬 漢城入京
	26	25	丁巳	李廷馣을 黃海監司		
	27	26	戊午	元均을統制使로, 李舜臣拿來 李福男을全羅兵馬水軍節度使		
2	7	6	戊辰	慶尙右水使 裵興立遷差		5日, 兵部尙書田樂, 經略邢玠를 交代任命
	8	7	己巳		小西行長 金應瑞와 淸正謀殺을 密約하다	沈惟敬 南原에 向發
	11	10	壬申		淸正 兩王子 答書를 請하다	
	18	17	己卯	告急使 鄭曄(禮曹正郞)差遣		16日, 楊方亨正使歸朝復命
	21	20	壬午	黃愼을 沈副使 接伴使에 任하다		
	22	21	癸未		秀吉再動之計, 出兵部署下達	
	25	24	丙戌		要時羅와 沈惟敬 宜寧會見	
3	1	29/2	辛卯	李恒福을 兵曹判書		
	6	5	丙申		柳川調信等 宜寧에서 沈惟敬과 會見	
	9	8	己亥	元均의 誘出詭計 失敗하다	日本兵 巨濟島 伐木	
	19	18	己酉	戶曹判書 金睟를兩湖에差遣		
	21	20	辛亥	都元帥 權慄 馳啓 (西生浦會談)	8日, 淸正 惟正 第4次會談	
	25	24	乙卯	奏聞使 鄭期遠 義州 歸着		
4	4	3	甲子	北道武士의 試取		
	8	7	戊辰	都元帥權慄 嶺南에서 南原到着		
	10	9	庚午	謝恩使 尹承勳(刑判)差遣		
	28	27	戊子			僧惟政과 沈惟敬 會見
5	2	1	壬辰	聖節使 南復興 差遣	1日, 島津義弘 加德島에到着	
	3	2	癸巳	洪季男 堂上에 超陞		
	8	7	戊戌			副總兵楊元 領兵漢城到着
	12	11	壬寅	奏請使沈喜壽(左贊成)差遣		
	21	20	辛亥		22日, 小早川秀秋가 大阪出發	楊元 南原 向發
	25	24	乙卯			經理 楊鎬 秀吉에 移咨
	26	25	丙辰		行長 沈惟敬에 稟帖 (金應瑞補用件)	

→

→

月	日		干支	朝 鮮	日 本	明
	明曆	日曆				
6	2	1	辛酉		同上(本國의 失信 失義)	
	3	2	壬戌		喜八(美濃部金大夫)과 蔣會談	蔣希春 西生浦 往訪
	7	6	丙寅	李元翼 全州에서楊元과接見		
	14	13	癸酉		11日, 淺野長慶이大阪出發	副總兵吳惟忠 領兵 漢城到着
	15	14	甲戌		柳川調信이 秀吉命令을 諸將에 傳達	
	18	17	丁丑			副總兵楊元 南原到着
	19	18	戊寅	安骨浦및 加德海戰(安弘國戰死)		
	25	24	甲申	全羅監司 朴弘老 遞		
	26	25	乙酉	任國老를 全羅監司에 任		
	26	25	戊子			甯國胤(楊經理差官)漢城入京
7	3		壬辰	張雲翼 (吏判)接伴使에 任(麻貴)		都督 麻貴 漢城 入城
				任國老 遞, 黃愼을 代任		
	5		甲午	武藝 敎習		沈惟敬 拿去(楊元)
	8		丁酉	唐島前洋海戰 (慶尙右水使裵楔)	日本大軍 渡海	
	11		庚子	都元帥權慄統制使元均杖罰		
	12		辛丑			監軍 蕭應宮 漢城 入京
	13		壬寅			副總兵楊元 吳惟忠 漢城出發
	14		癸卯 ↑	忠淸監司에 丁胤祐 全羅監司朴弘老		
	15		甲辰 ↓	漆川梁海戰(元均以下戰死, 16日 乙巳)		
	17		丙午		小早川秀秋 釜山浦 到着	
	20		己酉	宣祖 接見禮 (解生 楊登山張維城)		
	22		辛亥	李舜臣三道水軍統制使復任		
				權俊忠淸水使	25日, 淸正 西生浦에서 西進하다	
	27		丙辰	進慰使 李睟光 (刑曹參判)差遣	秀吉毛利秀元에 全軍 渡海를 傳하다	
	29		戊午	公山, 鼎蓋, 黃石, 岳堅山城 防守	28日, 宇喜多秀家泗川에向하다	楊元 南原 歸還
8	3		辛酉		大將 小早川秀秋 左右兩軍併進下令	
	4		戊戌	婁國安(遼東差官)小西行長의 書信 傳達		
	7	6	乙丑			李宗義(遊擊頗貴配下)斬首
	11	10	己巳	金命元을 兵曹判書에 任	左軍(宇喜多등)이 河東에서 南原으로 侵攻하다	
	14	13	壬申	奔避計者를 推考治罪(朝廷)	13日, 南原城 攻圍	
	15	14	癸酉	高靈戰鬪(鄭起龍)	高靈戰鬪에 敗하다	

→

→

月	日		干支	朝鮮	日本	明
	明曆	日曆				
	16	15	甲戌	南原城 戰鬪(李福男등)	南原城 攻略(左軍)	副總兵 楊元 逃走
				黃石山城戰鬪(郭䞭등)	右軍이 黃石山城 攻略	
	17	16	乙亥			
	20	19	戊寅			京城固守之計(楊鎬, 麻貴)
	25	24	癸未	李廷馣을 海西招討使에 任	全州城 占領	麻貴都督 提督으로陞, 陳愚衷 全州 棄城
	29	28	丁亥	李舜臣統制使珍島到着 (碧波亭)		
9	1		戊子	礪山恩津附近戰鬪(朴名賢)		
	2		己丑	李舜臣 鳴梁口에서 待變	倭橋에 結陣(左軍)	
	3		庚寅	宣祖 辭位를 手書封下		經理 楊鎬 漢城 入京
	5		壬辰	咸鏡監司 赴召入援		4日, 石星下獄(南原敗報北京到達)
	7		甲午			稷山戰鬪(解生等)
	8		乙未	前府使曹好益江東義兵募聚		
	9		丙申	三道都體察使柳成龍을 沿江制置大使로 任		10日, 解生이 使臣을 黑田長政에 보내다
				王妃 王世子 出行		
	11		戊戌			指揮呉宗道漢城에서下向
	14		辛丑	李恒福兵曹判書, 金命元慶林君으로 封	井邑軍議	
				金溝戰鬪(元愼, 金彦恭)		
	16		癸卯	鳴梁海戰	鳴梁海戰에 大敗하다	
	18		甲辰		左軍 長城에서 羅州에 後退하다	
	19		丙午			副總兵 李如梅 領兵着京하다
	20		丁未	報恩戰鬪 (鄭起龍이 敵을 破하다)	右軍分道南下, 加藤淸正이 報恩戰鬪에 敗	
	23		庚戌	奏聞使 尹唯幾(禮判)差遣		
	?			李光岳을 全羅兵使 元愼을 助防將에 任		
10	1	30/9	戊午	忠淸兵使 李時言에 加資		
	7	6	甲子	王世子 還京		
	8	7	乙丑	兩湖人民에 哀痛敎書	淸正은 西生浦 蔚山, 秀元은 梁山, 長政은 東萊 後退	
	9	8	丙寅	統制使 李舜臣 右水營還陣		
	11	10	戊辰	前慶尙右水使裵楔斷罪		
	12	11	己巳	慶尙右水使 李應彪 遞		
	16	15	癸酉		島津忠豐 鍋島勝茂등 羅州光州에서 潭陽 淳昌 進出	提督麻貴 全州에서 任實到着
	25	24	壬午	王世子 經理楊鎬往見	島津忠豐 泗川으로, 鍋島勝茂 金海로 後退	
	27	26	甲申			提督麻貴 漢城 歸還
11	4	8	辛卯			季金 李舜臣과 會見 (古今島)
	6	4	癸巳	王世子嬪 遂安에서 還京		

→

月	日 明曆	日 日曆	干支	朝 鮮	日 本	明
	8	6	己未	海西招討使李廷馣 遞差		
	10	8	丁酉			經略邢玠 三協進勦를 議하다
	12	10	己亥	黃海監司柳永詢拿鞫		
	13	11	庚子	冬至進賀使奇自獻 (戶曹參判)差遣		
				權悏을 黃海監司로 任		
	14	12	辛丑	咸鏡道巡按 復設(南北兩道兼察)		
	16	14	癸卯	尹晫(咸鏡巡按御史)遞		
	28	26	乙卯	接伴使尹斗壽(判中樞府事)李元翼(右議政)		經略 邢玠 漢城에 着京
12	1	28/11	丁巳	謝恩使鄭崐壽(領中樞府事)差遣	順天 倭橋의 築城工事 竣工	
	4	3	庚申	權慄等 明軍과 共同作戰으로 南下하다		提督麻貴 領兵南下
	6	5	壬戌			副總兵 李芳春漢城 出發
	8	7	甲子		小西行長의 一隊가 樂安에 築柵	經理楊鎬 南下
	10	9	丙寅		島津義弘 京都에 使者 (竹內兵部少輔)派遣	
	11	10	丁卯	左議政 金應南遞, 李德馨을 吏判에 任		
	14	13	庚午	星州牧使 李守一以下 決杖從軍		
	17	16	癸酉	沈喜壽를禮判에 任 (拉致男女奪還)	義兵將蘇希益, 別將 金雲成에게 拉致男女 5百名被奪	
	18	17	甲戌	光陽戰鬪(金應瑞戰死)		
	19	18	乙亥	禿城守城將兼助防將에 超擢		
	21	20	丁丑			楊鎬 麻貴 慶州 到着
	22	21	戊寅		島津義弘 泗川新城에 移陣	
	23	22	己卯	↑ 蔚山外廓의 攻略	冷泉元滿(毛利部將 戰死)	明軍 三道에서 蔚山에 進擊하다
	24	23	庚申			三協 島山城攻圍
	27	26	癸未	蔚山戰鬪	日本側 救援諸軍 派遣	
	28	27	甲申			
	29	28	乙酉	權慄의 火攻戰		蔚山捷報 漢城에 到達
	30	29	丙戌	統制使李舜臣 古今島에 ↓ 陣하다		游擊季金 南原 時羅山에 陣하다

(8) 宣祖 31年(戊戌)〔明 萬曆 63年 / 日 慶長 3年 西紀 1598年〕

月	日		干支	朝鮮	日本	明
	明曆	日曆				
1	3		己丑	蔚山城攻擊戰鬪	救援軍 水陸兩路에서 來着	蔚山城 最後總攻擊
	7		癸巳	前金海府使 白士霖 拿鞫		
	9		乙未			遊擊葉邦榮領兵平壤到着
	14		庚子	前安城郡守柳夢經을 斬		
	25		辛亥	尹承勳을 慶尙監司에 任	秀吉 蔚山再修를 命하다	
				柳永慶을 兵曹判書에 任	安骨浦 會議	
	27		癸丑	徐渻을 兵曹參議에 任	小早川秀秋釜山出發歸國	遊擊盧繼忠(蔚山戰死)을 致祭
2	4		己未	宣祖 親幸致祭 (遊擊楊萬金戰死)		
	9		甲子	迎慰使崔岦 拿鞫罷職 (不復命)		
				判尹 柳自新을 遞		
	13		戊辰	都元帥權慄 右道遊擊戰		
	16		辛未			楊鎬辭任을請하다不允
	17		壬申	李舜臣 寶花島에서 古今島에 移陣		
	20		乙亥			麻貴와楊鎬의戰功紛爭
	21		丙子		日本兵 咸陽郡을 焚蕩	
	22		丁丑	兵船 分造	淸正의 求和書信 慶尙監司 接收	
	24		己卯	明의 馬價銀 秤受		
	25		庚辰	尹斗壽를 左議政		
				前京畿防禦使 柳濂 行刑 (無限山城)		
	28		癸未	建州㺚子의助勢拒否		
	29		甲申			副總兵解生 大丘 防守
	?					董一元, 劉綎, 陳璘 領兵渡江 及 唐津 來泊
3	2		丁亥	納馬堂上		
	4		己丑	左議政 尹斗壽 遞差		
	7		壬辰	王世子 諸事 裁決		
	7		壬寅	細作1名은 斬2級의 例		

→

→

月	日 明曆	日 日曆	干支	朝 鮮	日 本	明
	22		丁未	朴弘老를 平安監司		
	24		己酉	三嘉戰鬪	三嘉戰鬪에 敗하다	監察御史 陳效 歸國
	27		壬子			遊擊 擺賽의 喪祭
	29		甲寅			東中西水路의 四路分進令下達
	?			李舜臣古今島到泊倭軍擊滅	小西行長 和好를 求하다	
4	6		庚申	宣祖 觀武		
	8		壬戌	茂朱戰鬪（全羅兵使李光岳等）		
	17		辛未			李如松 戰死의 報
	20		甲戌	咸陽沙斤驛戰鬪		副總兵 李寧의 戰死
	22		丙子	李元翼 左議政, 李德馨 右議政		
	24		戊寅			楊鎬 淸正 謀殺策, 行長和好策
	25		己卯	金睟(兵曹判書)를 楊鎬 接伴使		
	27		辛巳	王子臨海君珒罷職		
	30		甲申	山陰附近戰鬪（右兵使鄭起龍）		
	?					董一元을 禦倭總兵官
5	2	1	丙戌		小西行長 要時羅를 派遣(和約)	
	3	2	丁亥		蔚山城 修築 完了	遊擊許國威 攻城車子 製作을 請하다
	7	6	辛卯		柳川調信 禮曹에 修好를 求하다	
					毛利秀元 釜山出發 歸國	
	8	7	壬辰	隱匿船隻의 索出		
	14	13	戊戌			提督麻貴 新寧에서 旋師
	16	15	庚子			陳璘來着, 王士琦等領兵平壤離發
	20	19	甲辰			上水軍은 旅順口, 下水軍은 鴨綠守備
	22	21	丙子	督運御史趙存性 罷職拿鞫		
	28	27	壬子			海鬼의 用劍技（遊擊彭信古）
	29	28	癸丑	京畿水軍節度使李思命罷職	이달中에 敵19將이 逐次로 歸國	要時羅 招問（鎬, 監軍梁祖齡）

→

月	日 明曆	日 日曆	干支	朝鮮	日本	明
6	1	29	甲寅			
	2	1	乙卯			朱元禮招問(梁祖齡)
	13	12	丙寅			梁祖齡西還
	14	13	丁卯	洪汝淳(刑曹判書)遞差		楊鎬削籍, 萬世德 (天津巡撫)新任
	18	17	辛未			提督劉綎, 董一元 領兵漢城到着
	24	23	丁丑			明兵 聖廟에 闖入
	26	25	己卯			都督陳璘 全羅道에 下向(500隻)
	?			順天附近戰鬪(別將陸承福)		
7	1		甲申	陳奏使崔天健 差遣 (楊鎬陳辨)		
	5		戊子	傳矢毒藥 傳習		
	6		己丑	德山戰鬪(右兵使鄭起龍)	德山에서遁走 (島津義弘一部兵力)	
	8		辛卯	黃璡(義州府使) 罷推		
	11		甲子			前經理 楊鎬 漢城出發歸國
	14		丁酉		淸正 吳惟忠(副總兵)에 書面求和	
	16		己亥	古今島附近海戰(李舜臣)	古今島海戰에서 船隻을 延爇하다	
	20		癸卯			劉綎은 全州, 董一元은 星州에 向하다
	23		丙午	光陽知分川戰鬪	明兵에게 知分川에서 擊退되다	副總兵 吳廣 漢城到着
8	4	3	丁巳	刷馬之弊		
	7	6	庚申	冬至使鄭曄 差遣		
	9	8	壬戌	陳奏使崔天健 啓奏		
	12	11	乙丑			龍潭戰鬪(遊擊王之翰)
	13	12	丙寅	李舜臣 陳璘에 首級分給		
	17	16	庚午		秀吉 伏見城에서 卒	四路提督還京後再 南下
	20	19	癸酉	彥陽追擊(左兵使成允文)		興陽海戰(遊擊 季金)
	21	20	甲戌	錦山咸陽附近遊擊戰鬪 (李光岳)		遊擊藍芳威 合勢戰鬪
	28	27	辛巳	陳奏使李元翼 差遣(楊鎬)	班師命令 下達(四大老連署)	
				惟政 領兵 南原到着	島津義弘 南下하는 明軍搜索	明軍 全州 南原에서 嶺南에 移動

→

月	日 明曆	日 日曆	干支	朝 鮮	日 本	明
9	12	11	甲午			監軍徐觀瀾 漢城到着
	15	14	丁酉		四大老等 和議를 催促하다	
	19	18	辛丑	本國軍 四路幷進에 參加		四路幷進 開始
	21	20	癸卯			麻貴 島山城을 攻擊하다
	28	27	庚戌	宣祖 政事 視務	在鮮諸將의 撤去를 命하다	監察御史陳效 漢城入城
10	1		癸丑			泗川新城 戰鬪開始
						倭橋攻擊戰鬪開始
	6		戊午			麻貴慶州에서 後退
	7		己未	領議政 柳成龍 遞罷		倭橋解圍
	8		庚申	領議政李元翼, 左相李德馨 右相 李恒福		楊元斬頭南大門外到着
	9		辛酉			倭橋 海上封鎖 解除 古今島歸還
	11		癸亥	兵判 金命元		
	13		乙丑			董一元 泗川에 遣使하여 請和
	17		己巳			董一元 質子를 島津義弘에게 보내다
	21		癸酉	陳奏使 李恒福 差遣		
11	16	15	丁酉			經略贊畫丁應泰의 橫暴
	17	16	戊戌		泗川新城 撤去	
	18	17	己亥		島津義弘軍 渡去	董一元, 右兵使鄭起龍 泗川新城入城
					加藤淸正 島山城 撤去	
	19	18	庚子	露梁津海戰(李舜臣等戰死)	小西行長等 退去	
	23	22	甲辰	告廟		三路의 告捷
	25	24	丙午		毛利吉成等 釜山出發 26日 行長義弘等 釜山出發	經理萬世德 漢城 到着
12	4		乙卯	李舜臣에 右議政 追贈		
	6		丁巳	柳成龍의 官爵削奪		
	9		庚申	元孫 祉 誕生		
	12		癸亥	左議政李德馨을 兼訓鍊都監都提調에 任		

(9) 後 文

年	月	日	朝 鮮	日 本	明
32	1	2			四路의 兵馬를 漢城에 撤하다
	2	9			副總兵祖承訓撤歸西還
	4	18	明兵力 2萬 繼續駐屯		經略邢玠諸將領率歸國
	5	25			副總兵 解生 歸國
		26	領議政 李元翼 遞		
		29			經理萬世德 漢城回來
	7	9			游擊藍芳威 歸國
		12	都元帥 權慄 卒		
		14		宗義智 書信을 釜山僉使에 傳하다(柳川調信吉副左近)	
		24	領議政 尹斗壽		
	9	22	領議政 李元翼		
		29			萬世德 右副都御史에 陞
33	1	18			明人 宣陵 靖陵內에서 伐木放砲하다
	2	23		小西行長, 宗義智 書信을 禮曹에 傳하다	
	6	17	領議政 李恒福		
	9	1	求和書信에 回答	宗義智의 求和書信 (柳川調信)	
		10			經理萬世德 歸國
34	1	30	李鎰 卒		
	4	7	尹斗壽 卒		
	5	1	扈從勳定을 錄하다		
	6	28	禮曹 回信	宗義智의 求和書契	
	7	23	高敬命의 廟宇 建立		
	8	12	對馬島의 求和를 奏聞하다		冬至使兼陳奏使 差遣 (禮判 柳根)
35	1	14	經理萬世德에 和事情勢咨報		
	閏2	3	領議政 李德馨		
	7	4	臨海君 珒 罷職		
		10		宗義智 使臣 橘智正 差遣	

→

年	月	日	朝 鮮	日 本	明
	10	15	王世子 册封奏請		
	11	21			萬世德 逝去報 到來
	12	5		橘智正 再次 來訪	
		10	金命元 卒		
		18		加藤清正이 福建金軍門에 書信	
36	3	24		宗義智 被擄人 85名 刷還	
	6	14		柳川調信 禮曹에 書信, 被擄男女 100名 刷還	
	9	3		對馬島와開市하는可否議論	
37	2	23		宗義智의使臣橘智正來朝	
	5	22	領議政 尹承勳		
	6	22	僧惟政을 對馬島에 派遣	對馬島民의 釜山과의 交易 許可되다	
		25	扈聖 宣武 靖難三功臣 錄勳		
	7	12	李舜臣을 德豐府院君에 封하다		
	9	28			游擊董正誼 漢城入京
	12	6	領議政 柳永慶		
38	4	27	僧惟正 日本에서 回來		
	5	12		宗義智柳川調信의答書, 被擄 1,390名送還	
39	1	26		宗義智使臣 柳川景直 禮曹에 書信	
	3	6	永昌大君 㺚誕生		
	11	8		橘智正 犯陵人을 押送하여오다	
40	1	12	回答兼刷還使 呂祐吉 一行 日本派送		
	5	13	柳成龍 卒		
	7	19	回答兼刷還使 一行 歸國		
41	2	1	宣祖薨		
		2	王世子光海君 即位		
1	6	28	己酉約條를 定하다	僧玄蘇 柳川景直 釜山에서 李志完等과 約條	

三, 圖 版 目 錄

四, 索 引

〔가〕

〔라〕

〔마〕

〔바〕

〔사〕

〔자〕

〔차〕

〔타〕

〔備考; 略＝略歷, 筆＝筆蹟, 人＝人物論, 逸＝逸話.〕

壬辰戰亂史

〈全 3 卷〉

下卷

1974年 8月 1日 印刷
1974年 8月 9日 發行

著 者 李 烱 錫
委員長 韓 信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發行者 李 圭 憲
新 現 實 社
서울特別市 鍾路區 鍾路 2街 39
登 錄 1970. 4. 17 ㉮ 第2—6號
電 話 74—7651
對替口座 서울 31番
印 刷 三省印刷株式會社

定 價 〈全3卷 80,000원〉